

지식과 교양

Knowledge and Liberal Arts

통권 제17호, 2025년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차 례

[지식과 문화]

■ 강인숙 ■

『교방가요』소재 교방정재 분석을 통한 교방정재의 변모양상: 공연예술 3요소를 바탕으로 15

■ 정해수 ■

계몽주의 시대 중·후반 철학자/작가의 개념 변화와 그 의미 1: 1730년 무렵부터 1760년경까지 47

■ 조충범 · 조준희 ■

뉴미디어 씨어터의 미학적 특성 연구: 빌렘 플루서와 레프 마노비치의 이론적 프레임을 중심으로 91

■ 김경배 ■

초월론적 과제와 하이데거의 역사성 인수과정에 관한 고찰: 후설과 딜타이를 통해 127

■ 김태덕 ■

농악의 전통과 현대적 재해석, 그리고 교육콘텐츠 개발: 화천의 굿 사례를 중심으로 153

■ 전선구 ■

인문학으로서의 음악의 정합성에 대한 해석인식론적 사유 191

■ 천민경 ■

니체의 『비극의 탄생』과 리토릭적 연주의 상호작용: 감정적 설득과 음악 수사학 중심 분석 217

Ⅰ 고하영 Ⅰ

부사성 의존명사의 품사 설정에 대한 고찰: ‘듯, 듯이, 둥, 족족’을 중심으로 245

Ⅰ 조용림 Ⅰ

3·1절 대통령 연설문의 어휘 사용 양상 연구: 빅카인즈의 특성값 추출 어휘를 중심으로 273

[지식과 교육]

Ⅰ 우소희 · 이창섭 · 서승범 Ⅰ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적응 지원 방안: 사례연구를 통한 통찰 299

Ⅰ 이정기 · 황우념 Ⅰ

교수자 커뮤니케이션, 라포, 대학 평판이 전공 만족도, 이탈의도에 미치는 영향: 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321

Ⅰ 최동규 · 김창길 Ⅰ

학생의 학교적응과 부모의 성취압력 간의 종단적 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검증 연구 353

Ⅰ 노성동 Ⅰ

대학생들의 자살에 대한 인식과 예방을 위한 상담적 제안: 대전 A대학을 중심으로 391

Ⅰ 장 신 · 이주희 Ⅰ

중국 복건성(福建省) 유치원의 유아 무용교육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천주시(泉州市) 혜안(惠安)지역을 중심으로 425

Ⅰ 임인화 Ⅰ

미디어 시대, 교양교육으로서 향유적 문학 읽기 교육 방안 연구 451

Ⅱ 오세섭 Ⅱ

장애인의 장애 유형에 따른 영화교육 방법론: 시각장애인 영화감상교육을 중심으로..... 507

Ⅱ 박선미 Ⅱ

2년제 대학생의 성찰일지 작성 경험: D 대학 교양수업을 중심으로 . 539

Ⅱ 부이 티 흥능 · 채윤미 Ⅱ

생성형 AI(ChatGPT)를 활용한 한·베 통역 수업 사례 연구..... 569

Ⅱ 이아람찬 Ⅱ

게임 리터러시 교육의 양상과 특징 연구..... 597

Ⅱ 전지윤 Ⅱ

국어과 예비교사를 위한 문학 비평 교육 강의 사례 연구: K대학교 문예비평론 강의 사례를 중심으로..... 621

[지식과 사회]

Ⅱ 이희성 Ⅱ

문화유산콘텐츠 서비스품질이 감정반응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647

Ⅱ 이경찬 · 김기완 Ⅱ

접근가능한 관광의 관점에서 살펴본 영유아 동반자의 관광행동 분석: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적용 677

Ⅱ 구재현 Ⅱ

정부 재난안전 합동점검의 개선방안 연구 723

Ⅱ 남승석 · 최지혜 Ⅱ

〈오징어 게임〉의 자본주의 병리성 형상화: 시즌 2 딱지맨의 왜곡된 인정 투쟁과 선택 설계 757

■ 한우섭 ■

젠더리스에 대한 현상학적 해석 소론: 메를로-퐁티의 신체 현상학과 살
존재론을 중심으로 797

■ 문윤수 ■

유리 도시로 변모해가는 도시이미지에 대한 도시 감정의 탐색: 서울청사
·63빌딩·강남삼성사옥 도시이미지인자에 대한 도시민의 의견을 중심으로
..... 825

■ 김문준 · 김광환 · 송현동 ■

조선 선비의 부부관 877

■ 심희경 · 홍은영 ■

30-40대 미혼 청년이 전망하는 노년의 삶 903

■ 송현동 · 김광환 · 임숙희 ■

웰에이징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참여자의 효과 연구 947

■ 박상호 · 김 경 · 강신철 ■

대학교 직원의 행동적 특성이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기술다양성의 통제효과를 중심으로 973

[지식과 과학]

■ 조규근 · 김영희 · 노태호 ■

대학 물리학과 수학의 학습 시기 연계에 대한 분석: A 대학을 중심으로
..... 1005

■ 김겸순 ■

새로운 TVL2 이미지 분할 모델을 위한 고정점 방법 1033

■ 오상훈 ■

노벨상과 인공지능 1061

Ⅰ 유희승 Ⅰ

AI 휴먼 챗봇의 신뢰도 형성 과정: 오피니언 리더와 일반 이용자의 스피치
역량과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의 직렬다중매개효과.....1083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 교양』 논문투고 규정.....	1127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 교양』 논문심사 규정.....	1137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 교양』 연구윤리 규정.....	1141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 규정	1152

Knowledge and Liberal Arts

VOL 17. 2025

Liberal Arts Innovation Center, Mokwon University
DAEJEON, KOREA

TABLE OF CONTENTS

[Knowledge and Culture]

■ Kang In Sook ■

Transformation aspect of Gyobangjeongjae through analysis of Gyobangjeongjae material from “Gyobanggayo”: Based on the Three elements of Performing Arts 15

■ Chung, Haisoo ■

The Conceptual Changes and Their Significance Among Mid-to-Late Enlightenment Philosophers/Writers 1: From Around 1730 to Approximately 1760 47

■ Cho, Chung Beom · Cho, Joon Hui ■

A Study on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New Media Theatre: Focusing on the Theoretical Frameworks of Vilém Flusser and Lev Manovich 91

■ Kim, Kyung Bae ■

A Study on a Transcendental Task and Heidegger’s Accepting Process of Historicity: through Husserl and Dilthey 127

■ Kim, Tae deug ■

The Tradition and Modern Interpretation of Nongak, and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Content: A Case Study on Hwacheon Nongak 153

■ Jeon, Seonkoo ■

Hermeneutic and Epistemological Thinking on the Coherence of Music as a Humanities 191

■ Chun, Min Kyeong ■

The Interaction Between Nietzsche’s The Birth of Tragedy and Rhetorical Performance: Emotional Persuasion and the Perspective of Musical Rhetoric 217

■ Ko, Ha-yeong ■

A study on the Part-of-speech setting of Adverbial Dependent Nouns:
Focusing on ‘deus, deus-i, dung, jokjok’ 245

■ Joe Yonglim ■

Study on the Vocabulary Usage Patterns in South Korean Presidential
Speeches on March 1st.....273

[Knowledge and Education]

■ Woo, Sohee · Rhee, Chang Seop · Soh, Seung Bum ■

Support Strategi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University Adaptation:
Insights from Case Studies 299

■ Lee, Jeong-Ki · Huang, Yu-Tien ■

A Study on the Effect of instructor communication and rapport, and
university reputation factors on major satisfaction and university
abandonment intention: Focusing on local college students 321

■ Choi, Dong Kyu · Kim, Chang Gil ■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school adaptation and parents’
achievement pressure: Autoregressive cross-lagged effect verification study
.....353

■ Noh, Sung Dong ■

Awareness of suicide among college students Counseling suggestions for
prevention: Focusing on Daejeon A University.....391

■ Zhuang, Chen · Lee, Juhee ■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Early
Childhood Dance Education in Kindergartens in Fujian Province, China:
Focusing on the Hui’an Province of Quanzhou City 425

■ Im, In Hwa ■

A Study on the Educational Method of Enjoying Literature Reading in the media era as Liberal Arts Education.....451

■ Oh, Se Seop ■

Film Education Methodology Based on Types of Disabilities: Focusing on Film Appreciation Education for the Visually Impaired 507

■ Park, SunMi ■

Two-year College Students' Experience in Writing a Reflection Journal: with a focus on liberal arts classes at D University.....539

■ Bui, Thi Hong Nhung · Chae, Yunmi ■

Case study on Korean-Vietnamese interpretation classes using generative AI(ChatGPT).....569

■ Lee, Aramchan ■

A Study on the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Game Literacy Education 597

■ Jeon, Ji Yun ■

A Case Study of Literature Criticism Education Lecture for Korean Pre-service Teachers: Based on the case of K University's Korean Literary Criticism lecture 621

[Knowledge and Society]

■ Lee, Hee Sung ■

A Study on the Impact of Cultural Heritage Content Service Quality on Emotional Responses and Behavioral Intentions 647

■ Lee, Kyungchan · Kim, Kiwan ■

Analysis of tourism behavior with infants and young children from an accessible tourism perspective: By applying the goal-oriented behavior model (MGB).....677

■ Ku, Jae-Hyun ■

A Study on Improvement Plans of Government Joint Inspection in Disaster Safety 723

■ Nam, Seung Suk · Choi, Ji Hye ■

The Representation of Capitalist Pathology in Squid Game: Distorted Recognition Struggle and Choice Architecture of 'Ddakji Man' in Season 2. 757

■ HAN WOO-SUB ■

A Phenomenological Interpretation of Genderless: Focusing on Merleau-Ponty's Phenomenology of the Body and the Ontology of the Flesh.....797

■ Moon, Yun su ■

An Exploration of City Emotion about the City Image that is transforming into Glass City: Focusing on Citizens' Opinions on Seoul City Hall, 63Building and Samsung Group Seocho Headquarter as Glass Building 825

■ Kim, Moon Joon · Kim, Kwang Hwan · Song, Hyeon Dong ■

The view of a Joseon scholar's husband and wife 877

■ Sim, Hee-Kyung · Hong, Eun-Young ■

A Study on the Prospects of Later Life by Unmarried Young Adults in Their 30s and 40s 903

■ Song, Hyeon Dong · Kim, Kwang Hwan · Im, Sook Hee ■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volunteer program participants for well-aging 947

■ Sangho Park · Kyung Kim · Shincheol Kang ■

Impact of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employees on affective commitmen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nd the controlling effect of technological diversity 973

[Knowledge and Science]

■ Cho, Kyugeun · Kim, Young Hie · Noh, Tae Ho ■

An Analysis of the Linkages between College Physics and Mathematics:
Focusing on A University..... 1005

■ Kim, Kyoum Sun ■

Fixed-point Method for a New TVL2 Image Segmentation Model 1033

■ Oh, Sang-Hoon ■

Nobel Priz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1061

■ Yu, Hee Seung ■

The Process of Trust Formation in AI Human Chatbots: The Serial
Multiple Mediation Effect of Opinion Leaders' and General Users' Speech
Competence and Perceived Interaction Quality 1083

『교방가요』소재 교방정재 분석을 통한 교방정재의 변모양상 : 공연예술 3요소를 바탕으로

강 인 숙*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교방의 무용사적 의미
3. 공연예술을 바탕으로 한 『교방가요』소재 교방정재 분석
4. 『교방가요』소재 교방정재의 변모양상
5. 나가는 말 : 현행 교방정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 모색

1. 들어가는 말

이 연구는 공연예술시각에서 『교방가요』소재 교방정재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교방정재의 발전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공연예술은 향유자·연행자·연행공간의 3요소로 구성되는데, 『교방가요』소재 교방정재에도 공연예술의 3요소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무용학적 시각에서 『교방가요』소재 교방정재 분석을 통해 교방정재의 변모양상을 드러내어 공연예술로서 교방정재의 위상을 드러내고, 이를 바탕으로 교방정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인문학연구소 위원

교방문화는 궁중문화와 민중문화의 중간에 위치한 문화로서 두 문화의 교섭 양상을 드러낸다. 즉, 궁중문화를 바탕으로 지역의 향토문화를 접목한 지방 지배층인 지방 관리와 토호세력의 문화로 궁중문화가 지방화·향토화된 문화이다. 교방문화는 궁중문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는 교방에서 연행한 약 10~18종의 레파토리 가운데 대부분이 궁중정재이고, 매우 극소수가 지역의 민속춤을 포함한다. 또한 궁중에서 전래된 정재도 지역의 공연문화 환경에 따라 변모양상을 나타내는데, 이는 지역의 규모·경제력, 교방의 규모, 잔치의 성격, 향유자의 성향 등의 차별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교방에서 궁중정재의 연행은 문화전파론 현상으로 중심문화에서 주변문화로 전이된 현상이다. 궁중문화에 근거한 교방문화는 궁중연향의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지역에 맞게 수정·보완·정착하였다. 그럼 지방에서 궁중문화를 향유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이는 상류의 고급문화를 즐기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꼭 이런 이유만은 아닐 것이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궁중문화보다는 궁중문화의 담론인 예악(禮樂) 때문이다. 교방문화는 오늘날 공연예술처럼 춤만, 악기만, 소리만 연행하는 분화된 예술이 아니다. 교방문화는 예악(禮樂)사상을 바탕으로 가무악(歌舞樂)을 통해 조화와 질서를 표출하는 예술문화이다. 조선은 예악정치를 국가이념을 채택하였으며, 치도(治道) 실현으로 예(禮)와 악(樂)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예악은 형정(刑政)에 대한 근본을 이루며 왕도를 갖추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여기서 예와 악이란 질서와 화합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실상이다.¹⁾ 예가 배려와 겸손을 통한 질서라면 악은 즐거움을 수반한 화합과 조화를 의미한다.²⁾ 교방문화는 악을 통해 표상화된 예

1) 禮記 樂本, “禮節民心 樂和民聲政以行之 刑以防之 禮樂刑政 四達而不悖 則王道備矣”(송지원, 『음악 삶의 역사와 만나다(한국문화사 34집)』, 국사편찬위원회, 2011, 31-54쪽.)

2) 조용우의 생각과 삶-공자의 유가(儒家)사상, 인의(仁·義) 그리고 예악(禮·樂),

를 보고·느끼고·소통하고자 하였다. 이는 정현석의 『교방가요』 서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악이 문란하여 악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책을 집필하였다는 작가의 의도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동안 교방 연구는 주로 국문학·사학·음악학·무용학에서 진행하였는데, 무용학에서 교방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조선시대 지방에서 연행한 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굴곡진 역사로 인하여, 중국처럼 유물에 의한 전승이 아닌 구전심수(口傳心授)방식으로 전승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각 시대의 춤이나 형태를 짐작할 수 있는 유물이나 기록 등이 부재하여 춤에 대한 정보도 매우 미약하다. 그 결과 조선시대 춤에 대한 기록은 궁중정재 이외에는 부재한 현황이다. 그러므로 교방 연구는 조선시대 무용사를 광의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현재 승무·살풀이춤·태평무를 제외한 국가무형유산 무용종목은 궁중이나 교방에서 연행된 춤이다. 이 춤은 일제강점기 권변을 거쳐 구전심수 방식으로 오늘의 우리에게 전승되었다. 이런 점에서 교방에서 연행된 춤이 지니는 무용사적 의의와 가치는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2. 교방(敎坊)의 무용사적 의미

교방은 궁중이나 지방관아의 소속기관으로 가무악을 담당하는 교습·연행을 담당한 기관이다. 교방의 방(坊)은 본래 점포나 작방(作坊)은 뜻하는 말로서, 여기에는 부락과 마을의 의미가 담겨있다. 이런 측면에서 교방은 장소 혹은 공간을 의미하는 교습소, 혹은 교습지역이라는 의미가 성립된다.³⁾ 교방이란 용어가 처음 보이는 것은 당(唐)이나 이후 송·요·금·원·명·청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xx386&logNo=221472325614&proxyReferer=https%3F%2Fwww.google.co.kr%2F>, 2021.04.28.

3) 남종진, 「당(唐) 교방(敎坊)의 성립과 변천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점」, 『동양예술』 36호, 한국동양예술학회, 2017, 59쪽.

을 거치면서 교방은 궁중 악무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⁴⁾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교방이 존재하였는가? 교방이라는 말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미 삼국시대 교방의 역할을 하는 악무기관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고구려·백제시대에는 악무기관에 관한 명칭이 전해지지 않지만, 고구려의 예술문화인 고려기(高麗伎)가 수의 칠부기(七部伎)와 당의 십부기(十部伎)에 속하여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궁중에까지 전파되었으며, 백제의 관제 중에 의례를 담당하는 법부(法部)⁵⁾의 존재를 통해서 악무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짐작케 한다. 그뿐만 아니라 신라에는 대표적인 악무기관인 음성서(音聲署)에서는 가척(歌尺)·금척(琴尺)·무척(舞尺)·가척(笳尺) 등이 활동하였다. 또한 발해에도 악무기관인 태상시(太常寺)가 존재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예의와 제사를 관장하고, 악공·악사·여기를 관리하였다. 이런 발해악은 송·금의 궁중에 전승되어 그 명맥을 유지하였다.⁶⁾ 『금사(金史)』 권 39 지 20, 악상(樂上) 산악(散樂)에 의하면, … 태상(太常) 악공(樂工)의 수가 적사 오니, 발로 발해교방(渤海敎坊)·한인교방(漢人敎坊) 및 대흥부(大興部)의 악인(樂人)들로서 함께 연습하여 …⁷⁾를 통해서도 발해교방의 존재를 알 수 있다. 고려시대 교방은 창기(倡妓)가 소속된 속악(俗樂)을 익히고 연주하는 악무기관으로서 대악서(大樂署), 관현방(管絃房)에 속련된 창기를 공급

4) 吳笛, 「唐代敎坊研究」, 山東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8, 7쪽.

5) 법부는 당 현종 때 이원에 속하는 최고 등급의 예인들의 집단으로, 이원·선방·법부라고 칭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교방(敎坊),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05472>, 2021.06.05.)

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발해악(渤海樂),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1640>, 2021.05.05.

7) 금사에 의하면, 발해교방이라는 말이 언급되어 마치 발해에 교방이 존재한 것처럼 인식되나, 이는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그 이유는 금사는 원나라 말기에 1년 만이 기록된 것으로, 교방이란 용어가 원의 입장에서 작성된 것인지, 금의 입장에서 작성된 것인지 알기 어렵다. 또한 금사에서 발해교방이 금나라의 악무기관이나 교방에 영향력을 미쳤으나, 그 영향이 발해교방이라고 언급할 만한 증거가 빈약하다. 즉, 발해의 악무기관이 교방이었다는 증빙할 만한 문헌이 부재하다. (백재민이 집필 중인 박사학위논문에서 언급)

하였다. 고려시대는 속악이 아악보다 유행하였는데, 이런 흐름의 중심에는 교방과 그 소속인 창기가 있어 고려 음악의 발전을 주도하였으며,⁸⁾ 지방마다 악적(樂籍)을 두어 기생을 관리하고, 각 지방에서 얼굴과 기예가 뛰어난 기생을 선발하여 교방에 충당하였다.⁹⁾ 조선시대 교방은 궁중의 악무기관으로 아악을 담당하는 좌방(左坊)과 향악을 담당하는 우방(右坊)으로 구분하였는데, 교방은 관습도감(慣習都監/태조)에 편입되었다가, 악학도감(樂學都監/세조4)을 거쳐 장악서(掌樂署/세조12)·장악원(掌樂院/예종1)으로 통합되었다. 이후 대한제국에서는 교방사(敎坊司/광무4)로 개칭하는¹⁰⁾ 등의 변화를 겪는다.

그러나 지방 교방에서는 관아에 속한 악무기관으로 가무악을 교습하고, 관아의 연행행사를 주관하였으며, 소속 기녀는 궁중에 선상(選上)되어 내연(內宴)에 참여하기도 하였고, 지방 교방 간의 교류도 활발하였다. 지방 교방의 규모는 관아의 규모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드러내는데, 이는 중국 사신이나 통신사가 지나가는 지역에서는 주기적인 사신연(使臣宴)과 통신

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교방, 앞의 사이트, 2021.05.05.

9) 『고려사』 권 29, “命選州郡倡妓有色藝者, 充敎坊”

10) 조선의 악무기관 변천(강인숙, 「한국근대전통춤의 변모 양상과 그 원인」, 『대한무용학회논문집』 43집, 2005, 3쪽.)

태조	아악서·전악서·봉상시·관습도감
태종 6년(1406)	아악서·전악서·봉상시·관습도감·악학
세조 4/12년(1458/1466)	악학도감·장악서
예종 1년(1468)	장악원
연산군 11년(1505)	연방원·함방원
중종	장악원
고종 32년(1895)	궁내부의 장례원
광무 1년(1897)	장례원 협률과
광무 4년(1900)	교방사
광무 9년(1905)	예식원 장악과
융희 2년(1907)	장례원 장악과
융희 3년(1908)	장례원 장악부

사연(通信使宴)으로 인하여 교방의 인원과 규모가 크을 알 수 있다. 경기도를 제외한 18·19세기 읍지에 나타난 부·목·군·현 관청의 교방 명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관청의 교방 명칭과 사료 출처¹¹⁾

도별	부·목·군·현	교방명칭	출처(년도)
함경도	함흥부	백화원·장춘와	북관읍지(1872년)
	경성부	교방·기생교방	북관읍지(1872년), 사찬읍지
	단천부	교방	북관읍지(1872년), 사찬읍지
	갑산부	여화원·교방	북관읍지(1872년), 관북읍지(1894년)
	고원부	교방	북관읍지(1894년), 사찬읍지
	영흥부	교방	북관읍지(1872년), 관북읍지(1894년), 사찬읍지
	흥원현	교방	사찬읍지
	춘성부	관노청	사찬읍지
평안도	문천군	노청	사찬읍지
	운산군	교방청	평양속지(1730년), 관서읍지(1871년), 사찬읍지
	성천부	내교방·교방·육흥원	관서읍지(1871년), 관서읍지(1895년), 사찬읍지
	강계부	교방, 기생청	관서읍지(1871년), 사찬읍지
	평양부	교방, 기생청	평양속지(1730년), 관서읍지(1871년), 사찬읍지
	태천현	기생청	관서읍지(1895년)
	의주부	교방	평양속지(1730년), 관서읍지(1871년)
	정주목	교방	평양속지(1730년), 관서읍지(1871년), 사찬읍지
	영변부	교방·교방청	평양속지(1730년), 관서읍지(1871년), 관서읍지(1895년), 사찬읍지
	초산부	교방	관서읍지(1871년), 관서읍지(1895년)
	창성부	교방청	관서읍지(1871년), 관서읍지(1895년)
	삼화부	교방	관서읍지(1871년), 관서읍지(1895년)

11) 배인교, 「조선후기 지방관속 음악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7, 부록; 황미연, 「조선후기 전라도 교방의 현황과 특징」, 『한국음악사학보』 40집, 2008, 628쪽; 이숙희, 「조선후기 진주 교방의 역사와 성격」, 『학예연구논저』, 2014, 44쪽.

평안도	영유현	교방	관서읍지(1895년), 사찬읍지
	용강현	교방	관서읍지(1871년), 사찬읍지
	귀성부	장춘원·관노청	사찬읍지
	용천부	교방	사찬읍지
황해도	해주목	교방	사찬읍지
강원도	성주목	교방	관동지(1829~1831년)
충청도	공주 감영	기생방	관서읍지(1871년), 사찬읍지
	진잠현	교방	관서읍지(1871년)
	영동현	교방,교방청	호서읍지(1895년), 사찬읍지
전라도	전주부	교방	호남읍지(1871년경)
	광주목	교방	호남읍지(1871년경), 호남읍지(1895년경)
	순창군	교방	호남읍지(1871년경, 1895년경)
	순천 좌수영	기생청	호남읍지(1871년경)
	무주부	교방청	호남읍지(1895년경)
	제주목	장춘원	호남읍지(1895년경)
	나주목	교방청	사찬읍지
	해남군	교방청	사찬읍지
경상도	대구부	교방	경상도읍지(1832년경), 영남읍지(1871년경), 영남읍지(1895년경), 사찬읍지
	대구 감영	교방	영남읍지(1871년경), 영남읍지(1895년경)
	밀양부	교방	경상도읍지(1832년경)
	김해부	교방	영남읍지(1895년경), 사찬읍지
	창원부	교방	영남읍지(1895년경)
	경주부	악부, 교방	영남읍지(1871년경), 영남읍지(1895년경), 사찬읍지
	군위현	교방	사찬읍지
	동래부	교방/연대청	영남읍지(1895년경)
	진주목	교방	영남읍지(1895년경)

[표 1]에 의하면, 지방의 관청에서 교방의 명칭은 33곳으로 교방 용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교방과 유사 용어로서 기생교방(1)·내교방(1)·교방청(6)이 있으며, 관노청(2)·노청(1)·기생청(4)·기생방(1)·악부, 그 외에 각

지방의 특성을 드러내는 용어인 백화원(1)·장춘와(1)·장춘원(2)·어화원(1)·육흥원(1)·연대청(1)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교방을 관노청·노청으로 부른 것은 지방에 따라 교방의 업무 중에는 노복들을 관리하는 관노청의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이며, 기생청·기생방·기생교방이라고 부른 것은 교방의 본래 소임인 가무악을 담당한 연행자의 성격을 드러낸 것이다. 교방을 경주에서는 악부, 성천에서는 내교방이라 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영향으로 과거 당나라에서는 교방을 내교방이라 불렀다. 또한 지방에 따라 교방은 고유한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교방은 지방 관아에 소속된 악무기관으로 지방의 가무악을 형성·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지방에 따라서 교방은 없으나, 기생은 존재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1932년 경상도읍지에 의하면, 상주목 12명, 성주목 10명, 순흥¹²⁾부 5명 등이 있었다. 이를 통해 모든 지방에 필수적으로 교방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방의 교방 규모에 따라 연행 종목 갯수의 차이도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교방의 설치 목적 중의 하나가 행역(行役)에 지친 사신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표 2]에서는 『교방가요』 소재 교방정재를 중심으로 중국 사신과 일본 통신사의 통로에서 연행된 춤을 비교하였다.

[표 2] 『교방가요』의 교방정재를 중심으로 사행길 연향의 교방정재와 비교

		『교방가요』 (진주)	중국사신 (평안도)연향 ¹³⁾	통신사 (경상좌도)연향
궁중 정재	당악 정재	육화대	—	—
		연화대(부 학무)	연화대	학무
		현선도	선관무	천도(반도)
		포구락	포구락	포구락무
	향악 정재	고무	무고	정자(釘子)

12) 현재 경상북도 영주.

13) 김은자, 「조선후기 성천(成川) 교방(敎坊)의 공연활동 및 공연사적(公演史的) 의미: 『成川誌』를 중심으로」, 『민족무용』 5호, 2004, 116쪽.

궁중 정재	향악 정재	검무	검무	검무
		선악	발도가(배따라기)	주무(舟舞)
		향장무	—	—
		아박무	아박무	아박무
		향발무	향발무	향발무
		향창무	—	향창무
		처용무	처용무	처용무
		—	초무(初舞)/ 능파무(凌波舞) ¹⁴⁾	초무
		—	무동(舞童) ¹⁵⁾	무동
		—	여무(女舞) ¹⁶⁾	—
		—	무수(舞袖)	—
		—	학무	학무
민속무		—	사자무	—
		승무 ¹⁷⁾	—	중춤 ¹⁸⁾
		—	—	입춤 ¹⁹⁾
의식무		의암가무	—	—

[표 2]에 나타난 교방에서 연행된 춤의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궁중정재·민속무·의식무로 구분된다. 『교방가요』의 경우에는 궁중정재12(당악정재4, 향악정재8), 민속무1, 의식무1, 평안도 교방에서는 궁중정재14(당악정재3, 향악정재11), 민속무1, 경상좌도 연행에서는 궁중정재13(당악정재3,

- 14) 초무는 연향에서 처음 추는 춤이면서 정재의 한 종목. 숙종32년 인정전 외진연 무동, 초무→아박→향발→무고→광수무→향발→광수→처용/영조 19년 외연 무동, 초무→아박→향발→무고→광수. 능파무도 초무와 마찬가지로 맨 처음 시작하는 춤.(김은자, 앞의 논문, 119-124쪽.)
- 15) 무동은 무동이 추었던 춤(김은자, 앞의 논문, 117쪽.)
- 16) 여무는 여성이 추는 춤을 의미로 무동이 추는 춤을 여기(女妓)가 출 때 여무라 할 수도 있음.(김은자, 앞의 논문, 125쪽.)
- 17) 승무는 중·한량·색시·상좌·소기 5인의 춤.
- 18) 중춤은 2인의 춤으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교방가요』의 승무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
- 19) 부채를 들고 서서 추는 춤(양지선·강인숙, 「영남좌도 통신사 교방춤에 나타난 문화예술적 특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권 4호, 2018, 497쪽.)

향악정재10), 민속무2이다. 전반적으로 교방에서는 궁중정재 중심으로 연행됨을 알 수 있는데, 궁중정재는『교방가요』에서는 약 86%, 평안도 교방에서는 약 93%, 경상좌도에서는 87%가 연행되었다. 특히 당악정재보다 향악정재 위주로 연행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교방에서는 지방 춤인 민속무가 간헐적으로 연행되었는데, 『교방가요』에서는 승무, 평안도 성천교방에서는 사자무, 경상좌도에서는 중춤과 입춤이 연행되었다. 그리고 『교방가요』에서는 독특하게 의식무 유형인 의암가무가 존재하였는데, 이는 타지방의 교방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경우이다. 전반적으로 교방에서 연행된 춤의 용어는 대부분 궁중의 용어를 그대로 차용하였는데, 이런 춤에는 연화대·학무·포구락·검무·향발무·아박무·처용무·황창무가 있고, 지방의 특색에 따라 전형화된 춤 용어에는 헌선도를 선관무·천도·반도, 무고를 고무·정자, 선악를 발도가·배따라기·주무 등으로 불렀다. 이를 통해서 교방에서는 궁중정재 용어를 지역의 특색에 맞게 변화하여 사용하였는데, 『교방가요』에서는 무고를 고무라고 부른 것 이외에는 궁중정재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는 『교방가요』가 지역 사람에 의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중앙 관료인 목사에 의해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3. 공연예술 3요소에 근거한 『교방가요』 소재 교방정재 분석

1) 『교방가요』내용 분석

『교방가요』는 고종 4년(1867)에 진주 목사로 부임한 정현석(鄭顯奭)이 고종 9년(1872) 편찬한 책이다. 현재 『교방가요』의 원본은 전해지지 않고, 표지와 제목이 각기 다른 이본 3종 전해지는데, 이본에는 국립도서관 소장본인 『교방가요(敎坊歌謠)』, 고려대학교 소장본인 『교방제보(敎坊諸譜)』, 통문과 소장본인 『교방가보(敎坊歌譜)』가 있다. 그러나 이 책의 서문에는 모두 교방가요서(敎坊歌謠箴)라 하였으므로 결국 『교방가요』가 원제목이

었음을 알 수 있다.²⁰⁾ 교방가요』의 자료적 가치에 대해서 성무경은 “이 자료는 조선 후기 지방에 산재한 교방의 풍류 세계, 즉 교방 가무악에 대한 실상을 직접 보여주는 거의 유일한 자료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측면에서 자료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라고 하였다.²¹⁾ 교방가요』는 교방에서 주로 쓰이는 노래와 춤에 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서문의 성격인 고려가요서를 시작으로 음악과 무용을 제시한 목차 성격의 총목이 있다. 총목에는 우조·계면조·잡가·시조(40쪽 분량), 그리고 무용 14종(28쪽 분량)이 있고, 그 외에 총목에는 없지만 맨 뒷부분(3쪽 분량)에 창가(唱歌)·잡희(雜戲)·잡요(雜謠)·단가(短歌)가 있다.

먼저, 우조·계면조 항목은 32½쪽의 분량으로 가곡 가사인 시조시 97수를 한문과 한글을 병기하여 수록하였고, 잡가 항목은 4½쪽 분량으로 12가사에 해당하는 권주가(勸酒歌)·춘면곡(春眠曲)·처사가(處士歌)·양양가(襄陽歌)·상사별곡(相思別曲)·매화타령·행군악(行軍樂)의 7곡의 가사와 제목만 기록한 관동별곡(關東別曲), 그리고 철사금(鐵絲琴)의 세부 곡목만 제시하였고, 제목만 기록한 취타(吹打), 아악의 악기분류법인 금(金)·석(石)·사(絲)·죽(竹)·포(匏)·토(土)·혁(革)·목(木)의 팔음(八音)에 따라 48개 악기를 분류하였다. 그리고 4쪽 분량으로 23개 정제의 명칭을 기록한 무곡(舞曲), 창사 제목을 수록한 악사(樂詞), 가곡의 종류와 음악적 정취를 4언의 글로 묘사 가품(歌品), 가곡의 장단을 매화 장단으로 표시한 가절(歌節), 그리고 마지막에 반주악단의 모습을 그림으로 제시하였다.²²⁾

다음으로 춤은 모두 14종목으로, 육화대(六花臺)를 비롯하여 연화대(蓮花臺) 부(附) 학무(鶴舞)·헌선도(獻仙桃)·고무(鼓舞)·포구락(拋毬樂)·검무

20) 성무경, 『교방가요』, 보고사, 2002, 13-14쪽.

21) 위의 책, 22-23쪽.

22) 성무경, 앞의 책, 77-174쪽;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교방가요(敎坊歌謠),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1188>, 2021.05.09.

(劍舞)·선악(船樂)·항장무(項莊舞)·의암가무(義巖歌舞)·아박무(牙拍舞)·향발무(響鉢舞)·황창무(黃昌舞)·처용무(處容舞)·승무(僧舞)가 기록되었다. 전반적인 춤의 기술 방식은 2쪽의 분량으로 한쪽에는 정재의 진행 절차를 설명하고, 이어서 칠언절구(七言絶句)의 한시(漢詩)를 기록하였다. 다른 한쪽에는 채색도화(彩色圖畫)가 있는데, 그림의 윗부분에 연행자의 수와 무구(舞具)에 대해 한문으로 기록하였다. 그러나 선악의 기술방식은 모두 3쪽, 의암가무는 6쪽으로 다른 춤에 비하여 매우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반면, 아박무·향발무·황창무·처용무는 모두 합해서 1쪽의 분량으로 간략하게 기술하였는데, 아박무에서는 무구 그림, 향발무에서는 무구인 향발의 그림과 설명, 황창무는 춤의 유래, 처용무는 춤의 유래와 칠언절구의 한시, 처용 그림이 있다. 아박무·향발무·황창무·처용무가 한쪽으로 몰아서 기록한 것은 다른 교방에서도 보편적으로 연행되는 레파토리이어서 당시 많은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소략하게 기술한 것인지, 아니면 기록이 미완성 상태인지, 혹은 진주교방에서 이 4종목의 춤의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교방가요』에 기록된 교방정재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크게 궁중정재(12)·민속무(1)·의식무(1)로 구분된다.

[표 3] 교방가요 소재 교방정재의 유형분류

유형		레파토리
궁중정재 (12종)	당악정재 (4종)	육화대·연화대 부 학무·헌선도·포구락
	향악정재 (8종)	고무·검무·선악·항장무·아박무·향발무·황창무·처용무
민속춤(1종)		승무
의식춤(1종)		의암가무

[표 3]을 통해서 『교방가요』 소재 교방정재는 다른 교방정재와 마찬가지로 궁중정재가 주류를 이루면서, 여기에 민속무인 승무, 의식무인 의암

가무가 첨가된 형태이다. 타 교방과 비교 시 『교방가요』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고무를 제외하고 『교방가요』소재 교방정재의 명칭이 궁중정재의 명칭과 동일하다. 그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교방에서는 연화대와 학무가 독립된 춤으로 연행되었는데, 『교방가요』에서는 궁중과 마찬가지로 연화대무와 학무가 합설무 형태로 연행되었다. 이는 악학궐범의 영향이라 생각한다. 조선 초기 『고려사악지』에서는 연화대와 학무가 각기 분리된 독립된 춤이었다. 그러나 조선 중기 악학궐범에서는 나례무의 성격으로 연화대, 학무, 처용무가 합설무의 형태로 연행된다. 그래서 정현석은 『교방가요』에서 연화대와 학무를 합설하여 악학궐범처럼 나례무의 성격을 부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와 같이 『교방가요』는 철저하게 규칙을 준수한 궁중문화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교방가요』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문란한 예악문화를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이는 성종이 『악학궐범』과을 편찬한 이유와 동일하다. [표 2]에서 것처럼 교방에서는 궁중정재 약 85~90%, 민속무(의식무) 10% 내외를 연행하였다. 『교방가요』도 마찬가지로 민속무인 승무가 연행되었는데, 타 교방의 민속무는 스토리가 없는 춤으로, 춤의 기교를 보여주는 민속무인 반면, 『교방가요』는 파계승을 주제로 한 스토리가 있는 5인의 무용극이다. 이런 점에서 정현석은 『교방가요』의 민속무를 통해 교훈적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방가요』는 예악문화를 기반으로 즐거움을 통해 질서를 준수하는 당시 상류문화를 잘 드러내고 있다. 특히 『교방가요』는 궁중정재와 비교 시 오락성·놀이성이 강화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재미있는 동작, 혹은 특이한 동작 등의 접목을 통해 향유자 즐거움을 증폭시키면서도 춤의 규칙을 통해서 질서를 이해시킴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궁중의 기록물과 달리 구조체계의 허술함이 나타나는데, 특히 목차 부분인 총목이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인 구조를 지니 있지 못하다. 또한 이 책

의 말미에는 총목에서 언급하지 않은 창가·잡희·잡요·단가 등이 기록되어 있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춤의 기술에서도 1종목당 2쪽으로 서술하는 일정한 형식을 유지하다가 선악은 3쪽, 의암별제는 6쪽, 아박무·향발무·황창무·처용무는 1쪽의 분량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때로는 빈 페이지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구성상의 문제인지, 기록물이 미완성된 것인지에 관한 연구도 요망된다.

2) 공연예술 시각에서 『교방가요』 소재 교방정재 분석

현재 교방에서 연행된 가무악은 대부분이 궁중정재로 국악원의 주요 레파토리이거나 국가·시도 무형유산으로 지정·전승되고 있다. 『교방가요』 소재 노래(歌)는 가곡·가사·시조·잡가가 있는데, 가곡은 국가무형유산·유네스코인류무형유산, 가사는 국가무형유산, 시조는 시도무형유산, 잡가는 서울시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교방가요』 소재 무용은 모두 14종목이 있는데, 12종목은 국립국악원에서 전승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연화대 부 학무는 학연화대합설무의 명칭으로 국가무형유산, 처용무는 국가무형유산·유네스코인류무형유산, 고무는 부산시무형유산, 포구락은 경남무형유산, 승전무의 복춤은 국가무형유산, 민속무 유형인 승무는 한량무라는 명칭으로 경남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의식무 유형인 의암가무는 진주시에서 매년 5월에 논개제의 개막제로서 전승되고 있으며, 진주시는 경남무형유산으로 지정되는데 온력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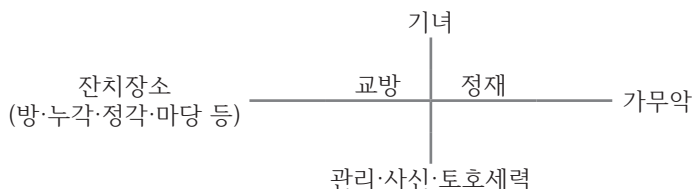
현재 대부분의 『교방가요』 소재 교방정재는 공연예술의 형태로 향유층과 소통한다. 이런 점에서 연구자는 『교방가요』 소재 춤을 중심으로 공연예술의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공연예술의 성립은 3가지 필수요건이 수반하는데, 이 필수요건이 연행자·연행공간·향유자이다. 즉, 연행자는 공연자나 춤이나 음악, 연극과 같은 공연물, 연행공간은 무대와 같은 공연물

이 행해지는 공간, 향유자는 연행물을 보는 관람하는 관객을 의미한다. 이 3요소에서 한 요소라도 없으면 우리는 공연예술이라 말하지 않는다. 연구자는 공연예술의 3요소를 흥태한의 무당굿을 바라보는 시각²³⁾인 수직·수평 구조에 이입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수직·수평축의 분석은 라반의 BESS의 에포트그래프처럼 공연예술의 기본 요소를 비교하는데 적절하기 때문이다. 발제자는 공연예술의 3요소인 연행물·연행공간·향유자를 기준으로, 수직축에는 주체자, 수평축에는 연행공간과 연행물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1] 공연예술 3요소를 준거 틀로 한 수평·수직구조

위의 수직·수평축을 『교방가요』 소재 교방정재에 이입하면, 수직축은 생명이 있는 주체자로서 사람을 중심으로 연행자와 향유자로 구분하고, 수평축은 비 생명체로서 수평축의 왼편은 교방정재가 연행되는 공간, 수평축의 오른편은 교방정재의 연행물인 가무악으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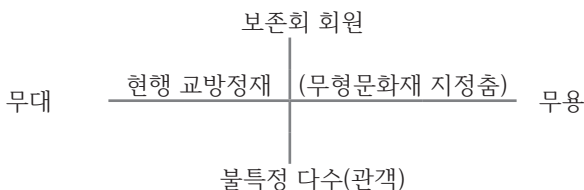
[그림 2] 19세기 『교방가요』소재 교방정재의 구조

위에서와 같이 19세기 『교방가요』소재 교방정재의 기본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수직축에는 연행자와 향유자가 있는데, 연행자는 기녀·악공으로

23) 김은자, 「조선후기 성천(成川) 교방(敎坊)의 공연활동 및 공연사적(公演史的)의 미: 『成川誌』를 중심으로」, 『민족무용』 5호, 2004, 116쪽.

서 가무악을 교육받은 전문적인 집단이다. 이들은 교방에서 가무악을 학습하고, 잔치에서 가무악을 공연하는 사람들이다. 반면, 향유자는 잔치를 베푸는 사람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로서 주로 지배계층의 사람들이다. 다음으로 수평축에는 연행공간과 연행물이 있는데, 연행공간은 잔치가 베풀어지는 장소이다. 이 장소는 주로 일상생활의 공간으로 잔치의 규모에 따라 방·정자·누각·마당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는 궁중에서도 연향의 규모에 따라 진풍정>진연>진찬>진작으로 구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즉 잔치의 성격과 규모가 커지면 연행공간·연행자·향유자·연행물의 규모도 증대하고, 잔치의 성격과 규모가 작아지면 연행공간·연행자·향유자·연행물의 규모도 축소된다. 또한 연행물에 있어서 『교방가요』의 14종목의 춤이 모두 연행된 것이 아니라 궁중정재처럼 가무악이 적절하게 배열되어 잔치의 성격에 따라 선택되었을 것이다.

현재 『교방가요』 소재 교방정재는 부산·경남의 무형유산 형태로 전승되고 있는데,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춤은 모두 5종목으로 국가무형유산 진주검무, 국가무형유산 승전무의 복춤, 경남무형유산 한량무, 경남무형유산 진주포구락무, 부산시무형유산 고무가 있다. 또한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진주민속예술보존회에서 전승하는 의암가무와 선악이 있다. 또한 『교방가요』에는 전해지나, 진주에서는 전승이 단절된 교방정재에는 육화대·연화대·학무·현선도·향장무·아박무·향발무·황창무·처용무가 있다. 『교방가요』 소재 현행 교방정재의 구조를 공연예술의 3요소를 기반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교방가요』소재 현행 교방정재의 구조

[그림 3]과 같이 『교방가요』소재 현행 교방정재의 기본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수직축에는 연행자와 향유자가 있는데, 연행주제자에는 무형문화재보존회 회원들이 주축이되고 있다. 이 회원들은 진주·경남 출신인 늦은 나이에 춤을 시작한 무용비전공자와 타지역 출신인 무용전공자로 구성되어 있다. 진주·경남 출신 회원은 기예능은 부족하나, 지역에 대한 애항심이 높으며, 대부분 보존회 공식·비공식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반면 향유자는 과거의 특수 계층과 달리 불특정 다수로서 지역 주민, 경비를 지불 한 사람, 춤 마니아, 관광객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다. 다음으로 수평축에는 연행공간과 연행물이 있는데, 연행공간은 프로시니엄무대이다. 이 무대는 연행자와 관객의 교감이 매우 떨어지는 구조이다. 즉, 공연에 관객의 참여를 유도할 수 없는 공간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무대는 양식화·고정화 되어 무대의 규모를 증감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또한 연행물에 있어서 전공의 분리로 인하여 가무악이 각기 분리되어 교육·공연된다. 즉, 과거 예술교육은 가무악이 하나로 융합된 통합교육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술교육은 가무악이 분리되어 심화된 전공교육의 형태로 진행된다. 그러다 보니 공연도 가무악이 함께 어우러진 공연이 아닌 가무악이 분리된 무용·가곡·가사·시조·판소리·잡가·기악공연 등으로 세분화하여 공연한다. 위의 공연예술 3요소를 기반으로 19세기 『교방가요』소재 교방정재와 현행 교방정재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공연예술 3요소를 기반으로 『교방가요』 소재 교방정재와 현행 교방정재 비교

	『교방가요』 소재 교방정재	현행 교방정재
연행자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특수집단(기녀·악공)	비전문가와 전문가
향유자	특수 계층(지배계층)	불특정 다수
연행공간	원형·돌출구조(방·대청마루·정각·누각과 같은 실내 공간과 실내공간의 연장선인 마당)	프로시니엄 무대
연행물	가무악	춤

4. 공연예술시각에서본 교방정재의 변모양상

교방정재의 변모양상은 III장에서 분석한 수직·수평축의 준거 틀을 기반으로 연행자·향유자·연행공간·연행물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첫째, 연행자의 변화이다.

19세기 『교방가요』 소재 교방정재의 연행자는 악무기관에서 교습을 받은 전문적인 예인 집단이다. 이들 신분은 지방의 관제인 관노청이나 노청, 교방에 소속된 노비이다. 이들은 대개 7~8세 기적에 편입되어 기예능을 익힌 후에 14~15세 경부터 본격적인 기예능 활동을 하고, 61세가 되어야 법적으로 기역(妓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²⁴⁾ 그러나 이들은 기역을 벗어난 후에도 관아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관아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노역을 해야만 했다. 이때 이들의 노역은 기예능이 아닌 음식을 준비하는 다비(茶婢)로 차출되었다.²⁵⁾ 연행을 담당하는 기녀은 우두머리인 행수기를 비롯하여 기(妓)·동기(童妓)로 구성되어 있는데, 강계부 기생은 모두 19명이었는데 그들의 수와 급여를 살펴보면, 행수기 1인(3냥), 기 14인(2냥), 동기 4

24) 박영민, 「19세기 지방관아의 교방정책과 관기의 경제현실」, 『민족문화연구』 50집, 2009, 5-6쪽.

25) 위의 논문, 7-8쪽. (노비는 관아의 대빈행차, 친구 수령의 이·취임식, 이웃 고을 수령이 왕래할 때마다 차출되어 하인들이 해야 할 음식 접대, 유과 만들기, 심부름 등을 모두 담당함.)

인(1냥)씩을 받았다.²⁶⁾ 이는 교방가요의 도상에서도 교방정재의 연행자와 수를 표기하였는데, 이때 소기(小妓)·동기(童妓)·노기(老妓)라고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기녀의 구성 형태와 춤을 연행할 때 각기 자기 역할이 분담됨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소기는 춤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기녀로서 궁중정재의 원무의 역할과 유사하고, 동기는 보조자의 역할로서 궁중정재의 협무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예를 들어, 『교방가요』소재 헌선도를 살펴보면, 선녀(仙女) 4, 동기 4, 노기 집박(執拍), 탁(卓) 1, 도반(桃盤) 4, 도매반(桃每盤) 5매(五枚)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소기인 선녀가 복숭아 5개가 든 쟁반을 4명 주빈게 올리고 창사를 부른 반면, 옆에서 동기 4명은 협무로서 선녀의 춤을 확장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때 노기는 옆에서 집박을 통해 춤과 음악이 조화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체를 통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대부분의 교방정재는 군무로 구성되는데, 이는 규칙을 준수하는 구성이 체계화된 춤이다. 소기는 교방정재의 주역으로 춤과 창사를 함께 연행하였는데, 이때 창사는 춤의 연행 목적을 노래한 것이다. 이와 같이 당시 교방정재는 철저한 분업아래에 계급화·구조화·조직화 되어 규칙을 만들고, 이를 준수한 모습을 알 수 있다.

반면, 『교방가요』소재 현행 교방정재의 연행자는 과거와 달리 무형문화재 보존회 회원이다. 이들은 춤을 취미로 하는 사람과 무용을 전공한 사람으로 구분된다. 진주검무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진주에는 1974년 진주민속예술보존회는 진주시에서 보존하는 무형유산 종목을 발굴·복원·보존·전승·육성하기 위해 설립하였고, 이후 경남의 무형문화재인 한량무·진주포구락무를 지정받았다. 이후 1986년 ‘예도(禮道) 진주’를 가꾸는 데 기여하고, 시민들의 예술적 수준을 높이며 정서 순화에 이바지하고자 국악교육기관인 진주시립국악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이는 진주민속예술

26) 위의 논문, 23쪽.

보조회에서 운영하였다. 현재 진주민속예술보존회의 주요 임원은 진주시립국악학교 출신이다. 이들은 초기 취미로 교방정재를 교습받았으나, 이제는 보유자·이수자가 되어 진주민속예술보존회의 중추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대부분 30~50대에 춤을 처음 시작하였고, 현재 70~80대로서 약 30여년 진주 춤을 춘 사람이다. 이는 진주검무만의 일은 아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도무형문화재 단체종목의 경우에는 보존회회원의 형성이 진주와 유사하다. 그 밖의 회원으로는 진주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무용전공자이다. 이들은 진주 춤 중에서 주로 진주검무를 선호한다. 이는 진주검무 지정 당시 조사자인 김천흥이 진주검무는 궁중검무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하였고, 현재 국립국악원에 연행하는 검무가 궁중에서 전승된 검무가 아니라 김천흥의 창작무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국악원 무용단 여자단원이 주로 진주검무를 교습받고, 이수자를 희망한다. 과거 이래로 진주민속예술보존회는 보존회 회원을 내부 전수자와 외부 전수자를 구분하여 활동하는데, 내부 전수자는 진주 출신으로 진주민속예술보존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외부 전수자는 춤만 교습받고 대외적인 큰 행사에만 참여하거나 불참하는 현황이다. 이런 현황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진주검무를 이끌어가는 연행자는 내부 전수자라고 볼 수 있다.

둘째, 향유자의 변화이다.

19세기 『교방가요』 소재 교방정재의 향유자는 관료이거나 지방의 토호 세력인 양반들로서 주로 풍류를 즐기는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다. 전통 사회에 있어 악은 수신(修身)과 치국(治國)의 한 방법이었다. 그래서 악은 양반들의 중요한 덕목이며, 교육의 내용이다. 이들은 예술을 향유하는 계층으로, 이들에게 있어 춤은 관람하기 위한 감상용이지 본인이 직접 추는 즐기는 춤은 아니다. 향유자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함으로써 연행 전체를 관조한다. 교방의 연행예술은 향유자와 연행자를 분리함으로써 서로 간의 교

감이 형성되지 못하는 구조이나, 서구의 연행공간처럼 철저하게 분리되지 않았다. 교방정재의 연행공간에서는 신명이 오른 향유자가 주임새를 통해 교방정재에 극히 일부로 개입할 수 있다. 이는 향유자와 연행주제자를 연결하는 것으로 이런 공감대는 교방정재가 예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들이 향유하는 감상춤은 예술성·기교성이 높은 전문화된 춤이다. 이 춤은 궁중정재에 비해 규모나 예술적 세련미는 부족하지만, 궁중정재를 바탕으로 지역의 조건에 부합하게 구성된 춤이다. 그래서 이들은 당시의 교방정재의 춤을 연행록이나 양반 문집의 시 등에서 표현하였는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진주검무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린 정약용, 운심의 검무를 보고 『정유각집』에 시를 쓴 박제가, 교방에서 춤을 추는 기생의 모습을 보고 연행록에 기록한 홍순학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시 교방정재의 현상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향유자는 불특정 다수로서 진주시민이거나 전통춤 마니아로 추정한다. 전통공연예술은 20세기 초반 서구식 극장이 도입되면서 연행장소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즉, 향유자에 따라 왕은 궁중의 전정(殿庭), 지배층인 양반은 실내 공간인 방이나 정자·누각 등, 피지배층인 민중은 마당이나 뜰에서 연행하였다. 이렇게 우리 전통 공연예술의 연행공간은 일상생활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20세기 초 서구식 극장 형식이 도입되면서 이제는 전통 공연예술은 일상 공간이 아닌 특별한 공간인 무대로 획일화되었고, 공연을 보기 위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해야만 했다. 과거 전통 사회의 지배층이 춤을 감상한 것처럼, 현행 향유자도 감상만한다. 아무리 신명이 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도 춤판에 함께할 수 없다. 이는 연행자와 향유자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서구식 연행공간의 특징이다. 이것이 과거 향유자와 현행 연행자의 차이이다. 또한 과거 향유자는 지적 수준·성향·취미를 공유하는 사람으로 그들의 특성을 잘 알 수 있어 그들이 선호하는 연행물의 선택

이 가능했다. 그러나 현행 향유자는 불특정 다수로서 공통 분모를 찾기가 힘들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선호하는 연행물은 불분명하고, 연행물 선택에 있어 공연의 수요층(향유자)을 위한 연행이 아닌 공급자(연행자) 중심의 공연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셋째, 연행공간의 변화이다.

19세기 『교방가요』 소재 교방정재의 연행공간은 주로 실내 공간으로 전통 가옥의 방이나 대청마루, 정각(亭閣), 누각(樓閣)의 공간과 큰 행사가 있을 경우 관아의 마당에 차일 설치함으로써 실내 공간을 확장한 형태이다. 이 공간은 주위가 기둥과 같은 물체가 가로 놓여 있어 실내(안)과 실외(밖)의 구분이 가능하다. 형태적으로 이 공간은 막힌 공간이지만, 창문이나 문을 통해 외부와 연결되는 매우 제한된 개방적 성격을 지닌 공간이다. 이 공간은 제한된 성격을 지닌 막힌 공간이다. 이런 공간의 특성 때문에 실내 공간은 폐쇄성과 더불어 일부 제한적 개방성을 지닌다. 즉 외부에 대해서는 폐쇄적이지만, 내부는 개방적이고 자유롭다. 또한 이 공간은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서 평범함에서 오는 친근감과 소박함이 내재한 공간이면서 관아의 위엄과 엄숙함을 지닌 예약사상을 바탕으로 구성된 공간이다. 그래서 이 공간은 철저한 규칙과 질서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으로 절제와 중용의 미를 내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연행공간 자체가 교방정재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 공간은 일상생활의 공간으로 현행 연행공간에 비해 매우 협소한 공간이다. 그래서 교방정재의 연행자의 수, 연행물의 규모, 무구의 수는 제한적이다.

반면, 현행 연행공간은 일상 공간이 아니다. 연행을 위해 특별하게 만들어진 공간이다. 이 공간은 향유자와 연행자를 철저하게 구분한다. 그래서 향유자와 연행자의 감정 공유가 어렵다. 그러나 프로시니엄무대는 향유자가 연행물에 집중하게 하는 몰입도는 매우 높다. 또한 현행 연행공간은 비

어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그 공간 안에 무대장치·무대소품을 통해서 채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향유자는 연행물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 연행물로만 교방정재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사이 궁중정재공연은 많은 부분 과거 궁중정재가 연행되었던 궁궐의 전각인 창경궁의 통명전이나 연경당 등에서 공연한다. 만일 프로시니엄 부대에서 공연할 때는 무대 자체를 궁궐의 전각 모습으로 치장하고 정재를 공연한다. 과거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은 오늘의 향유자에게 과거 향유자가 느꼈던 감동을 전해주기 위함이다.

넷째, 연행물의 변화이다.

19세기 『교방가요』소재 교방정재의 연행물은 가무악이 어우러진 종합 예술이다. 과거 교방정재는 춤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 교방정재 춤에는 창사라는 노래가 있다. 그리고 가곡·가사·잡가 등의 다양한 노래가 함께 연행되었다. 교방정재는 궁중정재와 차이가 있다. 교방정재는 궁중정재와 같은 레파토리를 연행하여도 궁중정재와 똑같이 추지 않았다. 이는 지방이 지니는 인적·물적 한계성에 의해 그대로 연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교방정재는 지역민의 특성을 춤에 이입하여 독특한 자기 지역만의 스타일을 구축하였으리라 추정된다. 궁중정재는 조선 초기 군주국가의 위엄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춤으로 신하들에게 왕의 위엄과 업적을 송축하거나 선왕의 공적을 찬양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지녔다. 그래서 궁중정재는 춤뿐만 아니라 의례가 포함된 가무악으로 철저하게 규칙을 준수하는 춤이며, 다수의 기녀, 화려한 복식, 위엄있는 의장대 등의 거대한 규모를 통해서 신하들을 압도하였다. 그러나 교방정재는 이와는 다르다. 교방정재는 궁중정재처럼 위엄을 표출하기보다는 향유자들이 즐기는 잔치춤이다. 교방정재의 춤은 궁중정재와 마찬가지로 가무악이 함께 어우러진 춤이나 궁중정재처럼 엄격한 규칙을 요구하지 않는다. 교방정재는 노래에서도 나

타난 것처럼, 연행물을 통한 향유자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이는 격식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때 가능한 일이다.

반면, 현행 연행물은 가무악이 어우러진 총체예술이기보다 춤·소리·악기 연주가 각기 전문화·심화된 독립 예술로 변모하였다. 이는 과거 전통 공연예술의 교육방식과 현재 공연예술의 교육방식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예술교육이 도제식 교육에서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공연예술은 가·무·악으로 분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대학에서 무용학과·국악학과로 구분되고, 국악학과는 성악전공과 악기전공으로 세분화되었다. 이는 상호보완성을 지니면 발전해야 하는 두 분야를 분리함으로써 예술의 완성도를 맞추는 역할을 하였다. 즉, 무용은 반드시 음악을 동반한다. 전통춤에서 음악이 없기 때문이다. 전통춤에 있어 춤의 음률과 음악의 음률은 함께 한다. 즉, 춤이 빨라지면 음악도 빨라지고, 춤이 느려지면 음악도 느려진다. 또한 춤의 감정선이 차분하면 음악은 평조로 연주되고, 춤의 감정선이 몰아치면 음악도 몰아친다. 이처럼 춤과 음악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공연예술은 전공이라는 명분 아래 이들을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교방정재를 보면 춤은 있으나 음악이 없다. 즉, 춤과 음악 어우러지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그뿐만 아니라 춤 연행자가 제대로 창사를 부르지 못하고 있다. 원래 창사는 춤추는 연행자가 부르는 것이지 악사가 부르는 것이 아니다. 또한 현행 진주지역의 교방정재는 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음악종목인 가곡·가사·잡가·판소리 등은 수면 아래서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교방가요』 소재 음악들로서 역사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다. 그러므로 춤과 더불어 함께 전승·보존되어야 할 종목이며, 교방문화라는 광의적 시각에서 함께 공존해야하는 문화이다.

5. 나가는 말: 현행 교방정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

본 연구는 19세기 『교방가요』소재 교방정재를 기반으로 현행 교방정재인 무형문화재 무용을 공연예술의 3요소를 준거 틀로 분석하였다. 이는 미래 교방정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19세기 『교방가요』소재 교방정재와 현행 교방정재인 무형문화재 무용을 비교하였을 때, 먼저, 연행공간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즉, 교방정재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연행공간이 부재하다. 현행 교방정재는 다른 무용처럼 프로시니엄 무대에서 공연한다. 프로시니엄 무대는 서구 스타일의 극장 무대로서 교방정재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일본 전통예술처럼 교방정재에 적합한 연행공간이 조성되어야 한다. 일본의 전통예술에는 가부키·노우·분라쿠·교겐이 있는데, 이들은 각기 전통예술의 특성에 적합한 전용극장을 소유하고 있다. 노우는 노카쿠도(能樂堂), 가부키는 가부키좌(歌舞伎座), 분라쿠는 분라쿠극장에서 공연한다. 21세기 들어오면서 궁중정재는 궁궐의 전각이나 무대를 궁궐의 전각처럼 세팅하고 이런 배경 안에서 공연을 하였다. 이런 현황에서 교방정재도 관아나 객사 등과 같은 장소에서 교방정재가 연행되어야 한다. 이제는 연행주제자에게만 집중되는 프로시니엄 무대에서 향유자와의 교감 없이 공연만 진행하는 시기는 지나갔다. 공연의 목적은 완성도 높은 예술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일련의 선상에서 향유층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향유자와 교감을 깊어질 때 문화예술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교방정재는 종합예술로서 가무악기가 함께 어우러진 총체적 성격을 지닌 예술이다. 그러나 현행 교방정재는 춤이나 음악에 한정되어 각기 따로 공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교방정재를 바라보는 시각이 확장되어야 한다. 교방정재는 단순한 무용공연이 아닌 잔치·연향에서 교방

문화를 시각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이제는 춤으로만 구성된 교방정재 공연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교방정재는 연향문화 속에서 재맥락화해야 한다. 그래야 볼거리가 다양화되고, 풍부해진다. 물론 교방정재의 꽃은 춤이다. 연향에서 제일 돋보이는 것이 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무악이 함께 적절하게 어우러졌을 때, 연향의 프로그램은 더욱 풍성해지고, 다변화된 향유자의 취향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런 협의 시각에서 광의적 시각으로 전환하여 성공한 것이 국립국악원이다. 20세기 국립국악원의 공연은 무용공연이었다. 즉, 장충동 국립극장소극장의 프로시니ئم무대에서 악사와 무용수가 무대에 등장하여 춤을 추는 공연형식이었다. 이 시기에 김천흥은 약 50여종의 궁중정재를 복원하였다. 그러나 이 궁중정재는 향유층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향유층은 대부분이 연세가 많은 소일거리가 없는 사람이거나 궁중정재와 연관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국립국악원이 서초동 현재 사옥으로 이전하면서 궁중정재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연향공간은 여전히 프로시니ئم무대로 큰 변화는 없었지만, 예약당이라는 대극장에서 공연할 수 있게 되면서 무대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 사례 중의 하나가 2001년 개원 50주년 기념공연인 <태평서곡>이다. <태평서곡>은 정조의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아 수원 화성 봉수당에서 진연한 회례연중 봉수당 진찬을 재현한 작품이다. 이는 국립국악원 브랜드 공연으로 10여년 넘게 장수하였다. 그리고 이 공연은 국립국악원뿐만 아니라 전국 순회공연을 하였고, 콘텐츠의 Multi Use로서 수원시에서는 화성 봉수당의 잔치로 콘텐츠화하는 데 원천 자료의 역할을 하였다.

21세기 문화콘텐츠가 세간의 관심을 집중하면서 궁중연향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사업이 진행되었고, 이는 궁중정재를 무용공연이 아닌 연향 속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1세기는 서로 다른 문화를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시대이다. 그래서 문화콘텐츠가 대세인 시기가

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교방정재도 One source인 과거로 되돌아가서 오늘에 적합한 New Multi Use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참고 문헌

- 강인숙, 「한국 근대전통춤의 변모 양상과 그 원인」, 『대한무용학회 논문집』 43집, 대한무용학회, 2005.
- , 「춤 공간에 따른 전통춤 유형 분류」, 『민족문화논총』 34집,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06a.
- , 「교방가요에 나타난 당악정재의 변모양상」, 『한국무용기록 학회지』 10호, 한국무용기록학회, 2006b.
- 김은자, 「조선후기 성천(成川) 교방(敎坊)의 공연활동 및 공연사적(公演史的) 의미: 『成川誌』를 중심으로」, 『민족무용』 5호, 한예종 세계민족무용연구소, 2004.
- 남종진, 「당(唐) 교방(敎坊)의 성립과 변천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점」, 『동양예술』 36호, 한국동양예술학회, 2017.
- 박영민, 「19세기 지방관아의 교방정책과 관기의 경제현실」, 『민족문화연구』 50집, 2009.
- 배인교, 「조선후기 지방관속 음악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2007.
- 송지원, 『음악 삶의 역사와 만나다(한국문화사 34집)』, 국사편찬위원회, 2011.
- 성무경, 『교방가요』, 보고서, 2002.
- 양지선·강인숙, 「영남좌도 통신사 교방춤에 나타난 문화예술적 특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권 4호, 한국콘텐츠학회, 2018.
- 이숙희, 「조선후기 진주 교방의 역사와 성격」, 『학예굿 연구 논저』, 진주문화연구소, 2014.
- 황미연, 「조선후기 전라도 교방의 현황과 특징」, 『한국음악사학보』 40집, 한국음악사학회, 2008.
- 홍태한, 「무당굿춤의 전형으로 굿춤 명칭의 의미」, 『한국무속학』 39집, 한국무속학회, 2019.
- 吳笛, 「唐代敎坊研究」, 山東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8.
- 위키백과: 진주성, <https://ko.wikipedia.org/wiki/%EC%A7%84%EC>

%A3%BC%EC%84%B1, 2021.04.28.

조용우의 생각과 삶-공자의 유가(儒家) 사상, 인의(仁·義) 그리고 예악(禮·樂),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xx386&logNo=221472325614&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2021.04.28.

한국민속대백과사전-교방가요(敎坊歌謠),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1188>, 2021.05.0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교방(敎坊),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05472>, 2021.06.0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발해악(渤海樂),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1640>, 2021.05.05.

■ 국문초록

이 연구 목적은 공연예술 시각에서 『교방가요』소재 교방정재를 분석하고, 교방정재의 변모양상을 통해 교방정재의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교방문화는 궁중문화와 민중문화 사이에 위치하며, 지역적 요소가 접목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방정재는 대부분 궁중정재에서 유래하였고, 지역 문화에 맞게 변형된 교방문화의 꽃이다.

『교방가요』는 19세기 교방정재의 실상을 드러낸 기록이다. 그래서 연구자는 『교방가요』에 수록된 교방정재의 양상을 무용학 시각인 공연예술의 3요소를 준거 틀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교방정재의 변모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는 현행 교방정재가 공연예술로써 한계성에 도달하여 다른 공연예술과 차별성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미래 발전적인 교방정재의 활용을 위하여 향후 교방정재는 가무악이 통합된 종합예술로 재맥락화되어야 하며, 다양한 공연형태를 통해 향유자의 흥미를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궁중정재를 단순한 무용공연이 아닌 연향 속의 하나로 보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문화콘텐츠 활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 연구는 공연예술 시각에서 교방정재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 미래 방향성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제어● 교방가요, 교방정재, 공연예술, 연행자, 연행공간, 향유자.

■ Abstract

Transformation aspect of Gyobangjeongjae through analysis of Gyobangjeongjae material from “Gyobanggayo” : Based on the Three elements of Performing Arts

Kang In Sook /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Gyobangjeongjae, which is based on the material of “Gyobanggayo”, from the perspective of performing arts and to explore desirable development methods for Gyobangjeongjae through its transformation patterns. Gyobang culture is situated between court culture and folk culture, characterized by the integration of regional elements. Thus, Gyobangjeongjae mostly derives from court dances and represents the flower of Gyobang culture, which has been adapted to fit local cultural contexts.

“Gyobanggayo” is a record that reveals the realities of Gyobangjeongjae in the 19th century. Therefore, the researcher analyzes the aspects of Gyobangjeongjae included in “Gyobanggayo” using the three elements of performing arts as a framework from the perspective of dance studies. This examination reveals that the current Gyobangjeongjae has reached a limitation as a performing art and lacks distinctiveness compared to other performing arts.

To promote the future development of Gyobangjeongjae, the researcher believes it should be recontextualized as a comprehensive art form that integrates dance, music, and drama, while also stimulating the interest of audiences through various performance formats. Additionally, it is essential to utilize cultural content that assigns new value to court dances, viewing them not merely as dance performances but as part of a larger performance context. In this regard, the study aims to compare the past and present of Gyobangjeongjae from the perspective of performing arts and suggest future directions and development strategies.

Keyword • Gyobanggayo, Gyobangjeongjae, performing art, subject body of performance, performance space, subject body of enjoyment

■ 논문투고일:2025.02.04. ■ 심사완료일:2025.03.10. ■ 게재확정일:2025.03.17. ■

계몽주의 시대 중·후반

철학자/작가의 개념 변화와 그 의미 1

: 1730년 무렵부터 1760년경까지*

정 해 수**

목 차

1. 서론
2. 마리보와 프레보
3. 『백과전서』의 <철학자> 항목
4. 팔리소의 『철학자들 Philosophes』
5. 결론

1. 서론

책의 역사를 중심으로 18세기 프랑스 지식사회를 조명하는 데 큰 공헌을 한 로버트 단턴의 주장은 철학자/작가의 개념을 도출하는데 상당한 편의성을 제공한 것처럼 보인다. 그에 따르면 책의 출판 및 유통과 관련된 사람들이 사용한 “철학”이라는 단어는 계몽주의 철학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18세기의 출판업계에서 중요시된 분야인 불법, 금지 및 터부 등을 지칭한다.¹⁾ 즉 왕정이나 기관 또는 교회의 허가, 그리고 허용의 범위를 벗어난

* 이 논문은 2022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국책 연구 사업임(No. 2022S1A5A2A01045055)

** 목원대학교 영어학과 교수

1) Darnton, Robert. “Par 《philosophie》 les hommes du livre sous l’Ancien

서적들, 이영목의 분류에 따르자면²⁾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자유분방한 서적, 기독교를 비판하는 철학 서적, 그리고 왕정을 공격하는 정치 서적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당시에 광범위하게 통용되었던 철학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 도덕 질서에 끊임없이 반론을 제기하는 모든 주장, 종교의 모순과 맹신을 이성의 이름으로 단죄하거나 패러디하는 철학적 사유들, 여기에 권력의 분립과 견제를 주장하든,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사회구조를 강조하든, 또는 경제적 자유를 요구하든 정치적 측면에서 왕정의 절대 권력을 비판하는 내용이 철학으로 여겨진 것이다.

한편 단편의 주장에 기대어 가정한다면, 18세기 전반에 걸쳐 사용된 ‘철학자/작가’란 공적인 영역에서 불법적이고 금기·터부시되는 상기 내용들을 설파하거나 책을 펴낸 사람이다. 수많은 계몽철학자가 불법적, 금지 또는 터부시되는 주장을 펴기 위해 검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익명이나 가명으로 자신의 저작을 출판했기에 이 가정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18세기의 ‘철학자/작가’의 개념을 이렇게 단순화하는 것이 정당한 일일까? 18세기 전반에 걸쳐 프랑스 지식층은 서로 다른 이념에 따라 끊임없이 진정한 철학자 상을 구현하거나 철학자적 정당성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었다. 그리고 다음의 『카페 또는 스코틀랜드 여인 Le Caffé ou l'Écossaise (ou L'Écossaise ou le Caffé)』의 상연을 두고 벌어진 일화는 철학자/작가의 개념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1760년 7월 27일, 볼테르가 평생의 친구인 아르장탈 백작(Charles-

Régime n'entendent pas les Lumières, mais plutôt un secteur crucial de la librairie du XVIII^e siècle, celui de l'illécite, de l'interdit, du tabou”, *Édition et sédition: L'univers de la littérature clandestine au XVIII^e siècle*, Gallimard, 1991, p.12.

- 2) 이영목, 「계몽주의 시대의 “철학” 소설: 『철학자 테레즈』, 『프랑스어문교육』 제 17집, 2004, 454쪽.

Augustin de Ferriol d'Argental)에게 보낸 편지는 계몽주의 시대 중후반의 지식인들이 자신이 속한 이념적 진영을 위해 얼마나 열정적으로 논쟁에 참여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 편지는 단순한 소식 전달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당시 지식인들이 겪었던 지적 투쟁과 이념적 충돌을 생생하게 기록한 역사적 문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볼테르는 이 편지에서 전날 초연된 자신의 극작품 『카페 또는 스코틀랜드 여인』이 공연되는 장내 분위기와 막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아냈다. 볼테르는 편지에서 이 극의 초연에 대해 풍자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 묘사했으며, 경쾌하고 유머러스한 어조로 당시의 분위기와 상황을 전달했다. 특히 그는 연극 첫날의 분위기, 관객들의 반응, 그리고 자신을 지지하는 철학자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해, 수신인이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묘사는 단순한 극의 설명을 넘어 연극의 성공을 위해 모인 철학자들이 조직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실행하는 장면을 수신자에게 자세히 알림으로써 볼테르 자신이 속한 진영의 철학적 우위를 확인하려는 전략의 일환이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코메디 프랑세즈 안팎에서 벌어진 모든 행위와 분위기가 친 볼테르 진영이든 반 볼테르 진영이든 서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도로 조직화 된 ‘전투’의 결과라는 사실이다. 볼테르는 이러한 상황을 “문학사에서 기록해야 할”, “기념비적 전투mémorable bataille”로 표현하며 자신의 연극 상연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극 작품 상연 시 참석한 철학자들을 “군대”에 비유하면서, 이들이 각자 전공을 세우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참석자들은 자신이 속한 진영을 대변하는 배우에게 열렬히 박수를 보내거나, 반대 진영을 대변하는 배우에게 야유를 퍼부으며, 마치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움

직이는 군인들처럼 행동했다.³⁾ 이 편지를 통해 볼테르는 단순히 극 작품의 성공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연극이 특정한 목적, 즉 계몽철학을 반대하는 전통적 지식인들을 무력화하고, 계몽주의 사상을 옹호하며 확산시키기 위한 치열한 지적 투쟁의 일환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볼테르와 그의 동료들이 계몽주의 사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벌인 치열한 전투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서, 그들의 활동이 단순한 예술적 표현을 넘어선 정치적, 이념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다니엘 모르네가 매우 훌륭하게 계몽주의 시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처럼 사람들은 18세기 중반, 계몽사상이 파리는 물론 지방에서도 프랑스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전파되었음을 잘 알고 있다.⁴⁾ 그런데 이렇게 우세한 상황에서도 볼테르가 반 볼테르 진영의 지식인들에 대해 중압감을 느낌과 동시에 그들을 과하게 조롱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의 인용문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디드로가 장내에 포진한 철학자들과 이들의 동조자들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이 극도로 감정적이고 격앙된 모습으로 묘사된 의미는 무엇일까?

고상한 취향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이 작품이 야유의 대상이 되기를 원했으나, 철학자들은 이를 박수갈채로 응수할 것을 결의했다. 후자들의 선봉대는 『문학 연감』에서 조롱받은 모든 시인과 산문 작가들로 구성되었으며, 그들은 블레즈라는⁵⁾ 이름의 일종의 구두 수선공이 이끌고 있었고, 그

3) 연극공연 시작 전부터 볼테르, 달랑베르, 뒤클로 등은 본부 격인 이른바 “Le Sénat très philosophique”를 구성하여 퐁트리 정원엔 집을 친 가운데, 디드로가 행동대장으로서 문학 연감 L'Année littéraire의 조롱을 받는 모든 문인을 움직여 극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했고, 막간에 마르몽텔이 본부에 수시로 장내 분위기를 보고하는 방식을 취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Voltaire, *Oeuvres Complètes, Nouvelle édition de Beuchot, Correspondance VIII*, Paris: Garnier Frères, 1880, pp.479-481. 이 서지사항은 Wikisource를 참조했음.(<http://fr.wikisource.org>, 2025.02.07.)

4) 다니엘 모르네 저, 주명철 역, 『프랑스 혁명의 지적 기원』, 민음사, 1993, 195-210쪽.

5) *Blaise le savetier* 와 *Diable à quatre ou la Double Métamorphose*의 저자

는 난동을 부리고 있었다. 두려움을 자아내는 도르티디우스는 군대의 중심에 있었으며, 만장일치로 장군으로 선출되었다. 그의 얼굴은 불타오르고, 그의 눈빛은 광포하며,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모든 감각이 격앙되어 있었다. 이는 마치 그의 신성한 열정에 지배당해 철학적 삼각대 위에서 신탁을 내릴 때와 같았다. Les gens de goût voulaient que cette pièce fût sifflée ; les philosophes s'étaient engagés à la faire applaudir. L'avant-garde de ces derniers, composée de tous les rimailleurs et prosaiteurs ridiculisés dans l'*Année littéraire*, était conduite par une espèce de savetier appelé *Blaise*, qui faisait le Diable à quatre. Le redoutable Dortidius était au centre de l'armée ; on l'avait élu général d'une voix unanime. Son visage était brûlant, ses regards furieux, sa tête échevelée, tous ses sens agités comme ils le sont lorsque, dominé par son divin enthousiasme, il rend ses oracles sur le trépied philosophique.⁶⁾

『문학 연감』의 발행인 프레롱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스코틀랜드 여인』의 초연에 앞서 팔리소는 당시 계몽철학자들을 풍자한 희극 『철학자들』을 무대에 올려 큰 성공을 거둔 바 있다. 문제는 『백과전서』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철학자들이 이 연극을 통해 자신들의 이미지가 실추되었다고 강하게 느꼈다는 점이다. 코너스가 언급한 대로 “그림과 달랑베르 같은 철학자들이 팔리소의 연극에 대한 빠른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볼테르에게 복수를 촉구”⁷⁾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볼테르가 『스코틀랜드 여인』을 무대에 올린 것은 『철학자들』에서 철학자들에 대한 조롱과 도발에 대응하고, 자신들과 관련된 부정적 인식을 차단하며, 관객을 설득하고자 한 것이었다. 코너스가 1760년은 계몽철학자와 반철학자들 간의 논

Sedaine을 가리킨다.

6) Voltaire, op.cit., p.479. (도르티디우스는 “디드로”를 가리킨다. 도르티디우스는 『철학자들』에서 디드로의 사상을 대변하는 등장인물로 등장해 저자인 팔리소의 호된 공격을 받은 바 있다.)

7) Connors, Logan James. *Staging polemics: Charles Palissot, Voltaire, and the “theatrical event” in eighteenth-century France*, thèse, Louisiana State University, 2010, p.90.

쟁이 절정에 도달한 때임을 강조한⁸⁾ 바와도 같이 두 진영의 대립은 서로 공격적이고 치열했다.

우리가 1760년경 계몽철학자들과 반철학자 진영 사이의 치열한 논쟁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대립 과정을 통해 18세기 중·후반부 철학자/작가의 개념이 선명하게 드러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립은 철학적 논쟁의 차원을 넘어 지적 권위와 도덕적 정당성을 대중에게 설득시키기 위한 경쟁의 장이었다. 몇 달의 시차를 두고 상연된 두 연극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한편에서는 철학자로서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대중의 신뢰를 얻으려 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철학자들의 위선을 폭로하고 그들의 지적 권위를 훼손하며 진정한 철학자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시도는 결국 서로가 구축한 철학자/작가의 이미지를 대중에게 각인하고, 각 진영이 자신들의 우위를 증명하려는 의도로 이어진 것이다.

한편, 이러한 논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1760년대에도 ‘철학자/작가’의 개념이 고정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용어를 쓰는 사람에 따라, 그리고 쓰는 시기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1730년경부터 1760년경까지 출판된 많은 저작에서 볼 수 있는 철학자/작가의 이미지가 다양하게 재현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18세기 중·후반의 다양한 글쓰기, 특히 아베 프레보와 마리보가 그려낸 철학자에서부터 팔리소의 희극 『철학자들』에 나타난 철학자/작가의 이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런 작업이 이루어진 후 문학작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쓰기에서 시기별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철학자/작가의 이미지는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추적하는 것을 이 글의 목적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분량이 제한된 이 글에서 30여 년간 재현된 철

8) Ibid., p.22.

학자/작가의 이미지를 모두 다루기보다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주요 저작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계몽철학자들의 저작은 이미 수많은 연구자가 천착했던 만큼 가급적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다.

2. 마리보와 프레보

감정에 대한 섬세한 묘사에 치중하고, 인간의 본성과 감정의 복잡성, 종교적 도덕, 인간적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 마리보는 이성을 통해 진리에 도달하고, 인간 사회를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 당시 반종교적 계몽주의 철학자들에게 비판의 대상이었다. 이성을 중시하는 그들에게 마리보의 글은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감상적 경향을 띠기 때문에 비합리적이고 비체계적으로 보인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에 대해 볼테르는 그를 가리켜 “허울 뿐인 지성인 bel-esprit” 또는 형이상학자로 치부하고 당시 철학자 그룹에서 배제했다.⁹⁾ 이런 이유로 문학사에서 마리보를 철학자로 분류하는데 주저했으나 스가르(Sgard)를 비롯한 하악(Oscar Haac), 안니 리바라(Annie Rivara)는 그를 철학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¹⁰⁾

사실 마리보는 스스로 “진정한 철학자”를 자임하며 다양한 분야에 서 문필활동을 한 작가였다. 그는 무엇보다도 경제적 이유로 발간한 정기 간행물 『프랑스 관찰자 Le Spectateur français, 1721-24』, 『궁핍한 철학자 L'Indigent philosophe, 1727』, 『철학자의 집필실 Le Cabinet du philosophe, 1734』 등에서 지적 외골수(esprit-fort)들, 현자나 철학자를 칭하는 사기꾼들, 미덕은 실천하지 않고 재치와 자만심이 충만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특히 세속적 도덕성과 신앙 없는 철학적 지혜만을 중시하는 사람들, 즉 당시의 “가식적 지식인들(honnêtes

9) Lu, Jin, *Qu'est ce qu'un philosophe?*, Québec: Les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2005, p.51.에서 재인용.

10) Ibid., p.47.

gens)”은 그의 주된 비판의 대상이었다. 그에게 “가식적 지식인들”이란 철학적 지혜에 대한 취향에 따라 도덕적 진실성을 원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말하자면 자연적인 마음이 아니라 철학적 합목적성에 따라서 미덕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명은의 지적처럼 난해한 책의 두꺼로 일반 독자는 접근할 수 없는 철학은 독단적 판단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리보가 “저택의 응접실에 화려한 위엄을 부여하는 크고 두꺼운 철학자들의 책에 대해 불신”¹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철학자를 자임하는 마리보가 추구하는 것은 기존의 철학적 전통이나 동시대 계몽철학의 흐름이 아니다. 『프랑스 관찰자』에서든 『궁핍한 철학자』에서든 화자가 독자를 안내하는 것은 인간의 삶과 조건에 대한 관찰과 성찰이다. 미셸 질로는 그를 가리켜 “인간과 사회의 삶을 관찰하는 관망자(spectateur du genre humain), 철학자(philosophe de la vie sociale)”라고 하면서 그를 몽테뉴, 파스칼, 라브뤼에르의 계보를 잇는 모랄리스트로 여겼다.¹²⁾ 즉 하나의 시스템을 설정하여 그 안에서 우주, 물질, 인간 그리고 인간 사회를 설명하는 철학자가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 사회적 행동에 대한 통찰, 도덕과 미덕에 대한 성찰, 감정과 열정에 대한 이해 등을 통해 인간의 약점과 한계를 파악하고 진정한 인간상을 추구하는 모랄리스트로서의 철학자를 말한다. 화자 스스로 작가라는 지위를 부인하고, 자신의 직업은 밝히지 않지만, 길거리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상인, 노동자 또는 하인들의 시각으로 파리에서 벌어지는 일을 관찰하거나, 거지나 다름없는 빈곤한 철학자의 시선으로 파리에서 일어나는 다양

11) 이명은, 「모랄리스트 마리보의 정기간행물 연구 - 관망자와 대화체 글쓰기」, 『인문과학연구』 50권,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4, 123쪽.

12) Marivaux, *Journaux et Oeuvres Diverses*, F. Deloffre & M. Gilot eds., Paris: Classiques Garnier, 2021, pp.381-388. (위의 논문, 121쪽에서 재인용.)

한 현상을 독자들에게 보고하는 것이야말로 더 공정하고 인간적인 사회질서를 추구하는 도덕적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려는 모랄리스트로서의 작업에 속한다.

마리보 철학의 또 다른 특징은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두고 사유한 철학적 성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그의 이러한 성향은 『철학자의 집필실』에서부터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는 인간으로서의 정의감, 신의 존재에 대한 긍정, 미덕을 사랑하는 마음 등은 인간 내면의 빛, 즉 선천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본능과도 같은 것으로서 후천적으로 형성된 이성에 우선함을 강조한다. 아울러 전지전능한 신이 창조한 세계에 대해 이성의 힘으로 의심할 수 있어도 마음(cœur)은 신의 뜻을 직감하고 결국 신의 의지를 받아들여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성과 마음 사이에는 “오로지 신만이 알 수 있는 신비로운 움직임이 작용하기 때문이다.”¹³⁾ 스가르가 주장한 바처럼 인간이 미덕을 실천할 때 그것이 신의 의지에 대한 내적 감정이 작용한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자유롭고 진정으로 철학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기독교 신앙과 심오한 독창적 사유를 조화시킨 파스칼에게서 마리보가 완벽한 철학자 모델을 찾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¹⁴⁾

철학자와 철학에 대해 동시대 지식인들의 생각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마리보의 관점은 그의 극 작품에서도 잘 드러난다. 특히 철학/철학자에 대한 그의 관점은 초기 극 작품들에 뚜렷하게 투영되어 있다. 『사랑이라는 제2의 선물 *La Seconde Surprise de l'amour*, 1727)』,¹⁵⁾ 『이성의 섬 *L'Île*

13) “un mouvement dont il n'y a que Dieu qui sache le mystère.” MARIVAUX, *le Cabinet du philosophe et l'Indigent philosophe*, 1733; MARIVAUX, *Journaux et Œuvres diverses*, Frédéric Deloffre & Michel Gilot eds., Paris: Bordas (Classiques Garnier), 1988 [1969], p.352-353; Sgard, Jean, “Trois “philosophes” de 1734: Marivaux, Prévost et Voltaire”, *Études littéraires*, vol. 24, no. 1, 1991, p.35.에서 재인용.

14) Lu, Jin. op.cit., p.50.

15) 이 작품은 젊은 미망인인 후작부인(La Marquise)과 기사(Chevalier)의 이야기

de la raison, 1727)』,¹⁶⁾ 그리고 『사랑의 승리 *Le Triomphe de l'amour*, 1732)』¹⁷⁾ 는 철학적 논리와 사랑이라는 감정의 대립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는 가운데 각 작품에 등장하는 철학자들은 철학적 논리의 한계를 드러내며 결국 인간의 감정에 굴복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작품은 등장인물의 구성이나 스토리의 전개상 이성과 감정 간의 대립 양상을 독자 또는 관객에게 보여주어 즐거움을 선사하려는 목적을 지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세심하게 독서한다면 세 작품에 철학자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한결같이 철학자로서의 권위와 논리가 허물어짐과 동시에 우스

를 중심으로 극이 전개된다. 두 등장인물 모두는 사랑에 상처받은 상황에서 우연히 서로를 알게 되어 친구로 지내다 점차 애정이 싹트게 된다. 사랑에 환멸을 느꼈던 두 인물이 서로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던 차에 철학자 오르탕시우스(Hortensius)가 후작부인의 철학적 조언자로 등장하여 이성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사랑에 대해 냉정한 태도를 유지할 것을 권했으나 결국 주인공들은 감정에 굴복하고 만다. 철학적 원칙에 충실하여 감정과 사랑을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려는 오르탕시우스는 두 인물이 자아낸 감정적 상황으로 인해 이성으로 감정을 억누르도록 조언한 그의 철학적 시도는 결국 실패로 귀결된다.

- 16) 풍자적 알레고리인 이 작품은 철학자가 이성적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가상의 섬을 배경으로 극이 진행된다. 이 섬은 이상적 철학이 통제하므로 주민들도 감정을 내세우기보다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런 섬에 표류하던 한 무리의 유럽인이 유입되며 유토피아 사회는 혼란을 겪게 된다. 유입된 외부인들은 본능적이고 감정적으로 사유하고 행동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섬의 입법자인 철학자가 등장하여 외부인이 감정과 본능을 옹호할 때 강한 비판을 가하자, 외부인들은 감정이야말로 인간 고유의 가치라며 응수한다. 이 과정에서 '이성의 섬'이 지닌 사회적 이상주의의 한계가 드러나고 감정적 가치가 동반되어야 건강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음을 관객에게 보여준다.
- 17) 이 희극은 레오니드(Léonide)라는 공주가 왕족으로서 왕의 후계자가 될 수 있으나 자신의 신분을 모른 채 살아가는 아지스(Agis)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스토리를 중심으로 극이 전개된다. 철학자인 에르모크라테(Hermocrate)의 지도로 성장한 아지스는 일체의 사랑이나 감정을 멀리하고 이성적이고 엄격한 삶을 견지해 왔다. 레오니드는 아지스의 사랑을 얻기 위해 남장을 하고 에르모크라테의 저택에 들어가 철학자와 그의 여동생인 레온틴의 호감을 샀다. 이 과정에서 레오니드는 아지스와 점점 더 친밀해지고 그가 견지해 왔던 이성적 태도를 흔들기 시작했다. 결국 아지스는 스승의 철학적 가르침과 정반대로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고 레오니드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 에르모크라테도 두 인물의 사랑을 용인하지 않으며 이성에 기초한 도덕적 원칙을 견지했으나 자신이 통제하던 세계가 사랑이라는 감정에 의해 자신의 철학적 신념이 흔들림을 보여준다. 결국 진정한 사랑과 열정에 굴복하여 두 연인의 결합을 허락하는 것으로 막이 내린다.

팡스러운 장면을 연출하여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작가는 작품에 등장하는 철학자들을 희화화하여 풍자의 대상으로만 묘사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마리보의 글쓰기는 ‘고전파와 현대파의 논쟁 Querelle des Anciens et des Modernes’에서 현대파를 옹호하고, 동시대 철학자들의 작품에 심취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다소 의아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아르트만은 정확한 설명을 한다. 그에 의하면 극 작품의 등장 인물들이란 극작가이자 철학자인 마리보의 의도대로 창조되어 주어진 역할을 다하는 전형이자 꼭두각시(représentants et marionnettes)에 지나지 않는다.¹⁸⁾ 모든 등장인물은 한 작품을 이루는 요소일 뿐이고 극작가는 특정한 캐릭터를 창조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오르탕시우스든, 익명의 철학자이든 또는 에르모크라트든 마리보의 철학자 등장인물의 역할은 마리보가 추구한 철학자의 캐릭터를 재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조롱의 대상이 되면 충분한 것이다. 철학을 “사랑 없는 이성이라는 광기”¹⁹⁾로 치부하는 신앙심 깊은 마리보에게 철학이란 비현실적인 이상론에 불과하고, 현실 세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그러한 철학적 사유를 하는 철학자 등장인물들은 모순만을 설파할 뿐이다. 마리보의 작품에서 철학자의 지적, 도덕적 면모는 오히려 『이성의 섬』의 궁핍한 자들이나 농민과 같은 부차적인 등장인물들에서 찾을 수 있다. 작품에서 이들이 야말로 인간애를 실천하고 사랑과 미덕과 같은 고귀한 가치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통해 스스로 내면을 탐구하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

18) Hartmann, Pierre. “Figures de philosophes dans le théâtre de Marivaux”, *Le philosophe sur les planches: L'image du philosophe dans le théâtre des Lumières, 1680-1815, réuni par Pierre Hartmann*. Presses universitaires de Strasbourg, 2003, p.54.

19) *Ibid.*, p.53.

는 등장인물로 묘사된다.

『마리안느의 일생』에 나타난 철학자의 이미지를 추출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극 작품의 부차적인 철학자 등장인물들과 주인공의 관계를 염두에 두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 작품에는 철학자 캐릭터를 가진 등장인물은 없다.²⁰⁾ 그러나 소설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부차적 등장인물이 마리안느를 중심으로 의사소통하고 이를 통해 마리안느가 철학적 사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마리안느가 바로 작가가 구축하려고 한 철학자의 이미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소설의 <일러두기avertissement>에서부터 철학자로 소개된 마리안느는 “장광설만 늘어놓을 줄 아는 철학자들의 행태를 경멸하기 때문에”²¹⁾ 작품에서 계속 철학자라는 칭호를 거부한다.²²⁾ 그녀가 인식하고 있는 철학자란, 뛰어난 기지에도 불구하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내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을 비틀어 말하는 잡지기자 나부랭이들이나 다름 없다”.²³⁾ 진루에 따르면 마리보가 높이 평가하는 철학은 인간의 오묘하고 꿈틀거리는 심연과도 같은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려는 철학이지, 작위적으로 고정된 체계에 기대는 철학이 아니다.²⁴⁾ 마리보가 목표로 하는 것

20) 마리안느의 구애자인 발빌 후작(Marquis de Valville), 마리안느의 후원자들인 클리말 부인(Mme de Climal)과 미랑부인(Mme Miran), 마리안느에게 도덕적 영향을 준 몽트뢰이 신부(L'abbé de Montreuil), 마리안느가 성장 과정에서 만난 상인인 뒤투르 부인(Mme Dutour), 마리안느에게 지혜와 철학적 가르침을 주 인물 가운데 하나인 카스텔 신부(L'abbé Castel) 등과 그녀가 만난 사교계, 농민, 하층민들은 자신들의 삶과 행동을 통해 마리안느에게(또는 독자에게) 철학적 질문과 도덕적 모순을 제시한다.

21) Lu, Jin. op.cit., p.56.

22) “je ne sais point philosopher, et je ne m'en soucie guère.” (https://fr.wikisource.org/wiki/Page:Marivaux_-_La_Vie_de_Marianne.pdf/60에서 인용함. 2025.02.07.)

23) “je crois que sur certaine matière, ils ressemblent à ces nouvellistes qui font des nouvelles quand ils n'en ont point, ou qui corrigent celles qu'ils reçoivent quand elles ne leur plaisent pas.” (Ibid.)

24) Lu, Jin. op.cit., p.57.

은 바로 인간의 마음에 대한 완벽한 이해인 것이다.

프레보가 정기간행물 형식으로 발간된 『찬성과 반대 Pour et contre』에서 『마리안느의 일생』에 대해 쓴 평론은 마리보를 위대한 철학자로 여기고 있음을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다.

감정도 이성처럼 고유한 분석력이 있으며, 느낌도 어찌면 생각만큼이나 변화무쌍하고 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데카르트와 말브랑슈가 이성의 가능성을 확대한 것과 똑같이, 감정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데 열중하는 한 작가가 종종 독자들을 새롭다고 여겨지는 길로 인도하더라도 놀라지는 않을 것이다. ceux qui savent que le coeur a son analyse comme l'esprit, et que les sentimens sont peut-être aussi capables de variété et de division que les pensées, ne seront pas surpris qu'un Écrivain qui s'attache à développer aussi exactement les facultez du coeur que Descartes et Malebranche ont fait celles de l'esprit, conduise quelquefois ses Lecteurs par des voyes qui leur semblent nouvelles[...]²⁵⁾

인용문에서 보여준 마리보에 대한 높은 평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프레보도 인간의 감정을 깊이 천착한 마리보의 철학과 궤를 같이한다. 다만 철학자 캐릭터를 묘사하는 방식에서 다소 차이점이 있다면, 『영국 철학자 또는 클레블란 씨의 이야기 *Le philosophe anglais, ou Histoire de M. Cleveland, fils naturel de Cromwell, 1731*』라는 제목으로 첫 네 권이 출판된 프레보 소설의 주인공 클레블란은 마리안느와는 달리 ‘철학자’로 등장하며 한 국가가 이상적 체계를 위한 철학적 원리를 구현하는 인물로 묘사된다는 점이다. 클레블란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로부터 삶의 고통이란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철학적인 메시지와 죽음도 침착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태도, 꾸밈없는 본성의 움직임에 따르고, 세상의 이치에 순응하고 사회적 삶의

25) Sgard, Jean. op.cit., p.35에서 재인용.

의무를 다하는 태도, 즉 스토아주의적 삶의 태도를 배웠다.²⁶⁾ 여기에 미덕의 원칙을 고수하며 이성에 기초한 클레블란의 사유와 행동은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더 나아가 동시대 지식인들이 말하는 철학자의 모습이다. 그는 로마가톨릭의 의식에 따라 파니(Fanny)와 결혼했음에도 오랜 기간 이신론자(déiste)로서 벨르(Bayle)와 그 이후의 이신론을 추종하는 계몽주의 철학자들처럼 신을 유일한 절대자로 인정하고 섬기는 모든 종교를 긍정적으로 여기고, 신의 피조물을 사랑할 것을 설파함과 동시에 종교적 박해를 비난했다. “어쨌든 감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인간은 자유로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는 부당함이 있다”²⁷⁾고 여기기 때문이다. 크롬웰의 사생아로 태어난 클레블란은 사회적 제약과 갈등으로 인해 고통받다가, 신대륙에서 태양을 숭배하는 원시적 종교를 가진 아바키스(Abaquis) 부족을 만나 종교적 의식이나 성전 없이도 전능한 창조주를 인정하고 온전히 경배하여 그의 보상을 기대하는 종교를 가르치는 한편 “이 불쌍한 야만인들을 문명화하고, 우상숭배라는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며, 도덕과 규율에 대한 관념을 고취시키려는”²⁸⁾ 의도를 드러냈을 만큼 그는 철학자의 면모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영국에서 북아메리카,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그리고 네덜란드로 이어지는 철학적 여정에서 마주한 많은 에피소드에서 클레블란은 자신의 철학적 신념과 이성적 태도가 끊임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의 이런 흔들림에 대해 스가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철학자»로서 지나치게 이치를 따지는 이성적 태도는 그를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자기 절제 의지로 인해 그는 오히려 지혜를 허물어뜨리

26) Sgard, Jean. op.cit., p.32.

27) Prévost, Antoine François, abbé. *Œuvres de Prévost*, PU de Grenoble, 1978-1986, vol.2, p.294. 이 서지사항은 이후로 Cleveland로 표기함.

28) *Cleveland*, p.197.

고 끝없는 절망에 빠지곤 한다. 반면 그가 자살하지 않았던 것은 부성애의 이성적이지 않은 감정의 움직임 때문이었다. 이성이란 그러므로 정열과 절망 앞에서는 무장 해제된다. 더구나 쾌락 앞에서는 더 무장 해제되는 것이 이성이다. 감각기관이 받은 느낌에 이끌린 철학자는 엄정한 정신을 상실하고, 얼마 되지 않는 자유사상이 무리에 속아 유물론의 유혹에 빠진다. La raison très raisonneuse du «philosophe» l'a constamment égaré. Sa volonté de maîtrise de soi cache mal le « naufrage de la sagesse » et un désespoir sans fond. S'il évite le suicide, c'est par un mouvement irraisonné d'amour paternel. La raison est donc sans armes devant les passions et le désespoir; elle est plus désarmée encore devant le plaisir. Entraîné par « les impressions qu'il reçoit des organes du corps », le philosophe perd sa vigueur d'esprit, se laisse séduire par une petite secte de libres penseurs et tombe dans le libertinage d'esprit, dans la tentation du matérialisme.²⁹⁾

철학자 클레블란이 작품 전체에 걸쳐 어떤 상황이 닥치든 자기 절제를 유지하려 했으나 이러한 의지를 방해하는 것은 언제나 끝없이 확장되는 감정의 기복이었다. 동반자 파니와 딸인 세실과의 관계에서 보여준 주인공의 복잡미묘한 감정과 내면의 세계는³⁰⁾ 스스로 철저한 자기 분석을 하게 만든 원동력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내 감정을 모든 실험의 대상으로 삼아서 [...] 나는 종종 인간의 애정과 애착의 본질에 대해 숙고했다. [...] 나는 느낌을 완화하거나 격렬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려고 애썼다. 나는 밝혀진 사실들을 곧바로 경

29) Sgard, Jean. op.cit., pp.33-34.

30) 파니와 세실부터 모녀지간임에도 두 등장인물 사이에는 서로 갈등과 오해, 그리고 질투심이 깔려있다. 파니는 세실과의 관계에서 모성애를 느끼는 동시에 딸이 클레블란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무의식적인 질투에 사로잡힌 것처럼 세실도 어머니를 존중하면서도 경쟁생대로 여기기도 한다. 클레블란도 아내나 딸에 대한 감정도 매우 복잡하게 전개된다. 단순한 감정적 사랑을 넘어 철학적 수준의 관계에 있는 파니를 이상적인 사랑으로 여기면서도 클레블란은 그녀가 보이는 사랑에 대해 의심하거나 불안한 질투로 바뀌기도 한다. 세실에 대해 클리블란은(그는 세실을 아메리카에서 잃어버렸다.) 부성애 때문임을 깨닫지 못하고 본능적인 끌림으로 사랑을 느낀다. 그녀가 자신의 딸임을 알고 충격과 더불어 죄책감을 느끼며 자신의 무의식적인 감정이 도덕적, 철학적 경계를 넘을 수 있음을 자각하며 딸을 아버지로서 사랑하게 된다.

힘을 통해 확인하지 않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 Je méditais souvent sur la nature de nos inclinations et de nos attachements, et [...] mettant mon propre coeur à toutes les épreuves, je tâchais de démêler ce qui était capable d'affaiblir ou d'augmenter ses sentiments. Je ne faisais point de découvertes que je ne vérifiasse aussitôt par l'expérience.³¹⁾

클레블란은 줄곧 철학적 자세를 견지하며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탐구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결코 포기할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인간을 하나의 체계 안에 가둬놓고 사유하는 것보다 약동하는 감정과 논리적 이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진정한 철학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물론 파니를 어머니로 인정하기 전 경쟁자로 여기고 불안해했던 반면, 어머니인 파니에게 보인 상냥함과 애정을 보인 세실의 감정적 모순을 두고 자문하고 판단할 때, 비록 “감정이 자신의 성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를 과연 알 수 있을까?”³²⁾라는 의문을 제기하곤 하지만, 클레블란이 논리적인 이성적 분석보다 신뢰했던 것은 감정이었다. 프레보는 인간의 감정을 신뢰하는 클레블란의 입을 통해 인간을 연구한다는 차원에서 휴머니스트 철학자, 즉 모럴리스트 철학자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마리보와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종교적인 입장에서도 프레보가 소설에서 피력한 종교관은 마리보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프레보는 클레블란의 오랜 여정을 통해 삶의 고난과 내적, 심리적 갈등 그리고 특유의 철학적 탐구를 통해 점차 종교에 대한 치열한 ‘참구(參究)’로 결국 기독교에 귀의하는 과정을 그려냈다. 무엇보다도 클레블란은 철학적 사유를 통해 삶과 감정 그리고 인간 존재의 본질을 성찰했으나 이성만으로는 복잡미묘한 감정의 세계와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한다. 특히

31) *Cleveland*, p.258.

32) “Le coeur connaît-il jamais les raisons qui peuvent justifier ses penchants?” (*Cleveland*, p.435.)

주인공의 삶은 고난과 비극으로 점철되어 있는바, 그는 자신의 내면적, 심리적 고통과 실존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깨닫는다. 가족과의 분리, 세실을 잃어버린 끔찍한 심정, 사랑하는 파니와의 갈등은 그를 절망으로 몰아넣고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든다. 소설 전반에 걸쳐 보여준 이성적 태도와 감정에 대한 철학적 분석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내세우는 철학의 궁극적인 두 가지 목표인 행복과 진리에³³⁾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수궁한 클레브란은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결국 기독교 신앙에 귀의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추구하여 내면의 성숙과 초월적 진리를 찾으려는 시도나 다름없으며 이를 통해 프레보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수긍하고 초월적인 힘에 기대어 인간의 나약함을 극복하는 것이 인간의 숙명임을 설파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백과전서』의 <철학자> 항목

여기에서 우리가 백과전서의 <철학자> 항목을 언급하는 이유는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연구 분야에서 주류 연구자들이 정의하는 ‘철학자’란 무엇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다. 그런데 계몽주의 ‘철학자’에 대한 내용은 의외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데카르트, 벨르, 폰트넬 등과 같이 프랑스 지식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철학자들, 영국의 베이컨, 로크 등의 영향을 받은 볼테르, 몽테스키외, 다르장스 등의 철학자들부터 대혁명 직전까지 18세기를 빛낸 수많은 철학자까지 비교적 단일한 철학적 사유를 통한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이미지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계몽철학자들이 전통을 고수하는 지식인들의 저항에 대해 자신들의 철학적, 도덕적 정당성을 증명하고 설파하기 위해, 또는 새로운 시대의 철학자의 모델

33) “Il s’agit d’une philosophie qui tend vers le bonheur et la vérité, qui seront les deux objets de la quête du personnage de Prévost.” (Lu, Jin. op.cit., p.67.)

로 삼기 위해 금과옥조로 여겼던 뒤마르세(César Chesneau Du Marsais)의 글, <철학자>가 있다. 이 글은 1765년에 발간된 백과전서 제12권에 실렸지만, 이미 1730년 집필되어 검열을 피하려고 1743년 암스테르담에서 익명으로 출판되어 유통되었고, 동일 텍스트를 판매 목적으로 같은 해에 *Nouvelle Liberté de penser*와 *La Religion du siècle*라는 두 개의 다른 제목으로 출판되었다.³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축적하여 독자들에게 제공함과³⁵⁾ 동시에 철학적 진보와 계몽주의의 정당성을 증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백과전서』의 편집자들은 이러한 목적을 충족하는 뒤마르세의 글을 한 항목으로 수록했다. 1756년 사망한 그의 글이 10여 년이 지나서 당대에 가장 중요한 지적 프로젝트인 『백과전서』에 핵심 항목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은 1730년 집필된 <철학자> 1765년, 더 나아가 대혁명 이전까지 ‘문필공화국’에서 ‘철학자’임을 증명하는 전거(典據)로서 1730년 이후 광명의 세기에 지식인들이라면 반드시 읽고 숙지하여 실천해야 할 ‘행동강령’과도 같은 지침서로 여겨도 될 것이다. 그래서 굴르모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뒤마르세의 장문의 글을 인용하거나³⁶⁾ 그 내용에 기대어 18세기 철학자

34) 1743년에 출판된 <철학자>와 『백과전서』에 수록된 <철학자> 항목은 큰 틀에서 동일한 내용을 지니지만 상당수의 문장이 다르게 기술되어 있다. 디크만은 볼테르가 <철학자> 항목의 최종본에 간여하여 글을 보강·수정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Chouillet, Jacques, “Herbert Dieckmann, historien et philosophe des Lumières”, *Recherches sur Diderot et sur l’Encyclopédie*, no. 6, 1989, pp.16-17. 참조.

35) 『백과전서』의 <Encyclopédie> 항목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읽을 수 있다. “Le but d’une Encyclopédie est de rassembler les connaissances éparses sur la surface de la terre; d’en exposer le système général aux hommes avec qui nous vivons, et de transmettre aux hommes qui viendront après nous.” 디드로와 달랑베르의 『백과전서』에는 ‘과학과 학예에 대한 체계적 사전(Dictionnaire raisonné des sciences et des arts)’이라는 부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본래 정보의 축적 및 제공의 목적을 넘어서는 많은 항목이 있다. 즉 <철학자> 항목처럼 도덕적이고 지적인 모델, 즉 새로운 철학자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옹호하는 내용을 말한다.

36) Goulemot, Jean Marie. *La littérature des Lumières*, Bordas, 1989, pp.45-

를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굳어진 것이다.

철학자이자 문법학자인 뒤마르세의 <철학자> 항목은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글로 잘 알려져 있다. 독자를 설득하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낸 이 글은 크게 2가지 큰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하나는 계몽주의 철학자의 지적, “사회적인 면모”³⁷⁾를 확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계몽주의 철학자에 대한 옹호로서 글쓰이는 철학자의 특징을 묘사하면서 계속 발전시킨다. 글의 시작은 어떠한 종교적 영향을 받지 않고 이성의 토대 위에서 사유하고 행동하는 철학자의 이미지에서 시작한다. 이어서 ‘저들’³⁸⁾이 편견과 습관의 영향으로 타성에 젖어 생각하고 행동할 때 철학자는 늘 이성의 힘으로 무장해 있으므로 어둠도 환하게 비출 수 있음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저들’은 미신과 무지로 인해 어둠과 밤을 헤매는 사람으로 비유된 반면, 철학자는 ‘빛’으로 묘사되었다.³⁹⁾ 뒤마르세는 철학자의 지적 신중함도 언급한다. 그에 의하면 철학자란 특정 현안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을 때 판단을 유보하고 숙고하는 사람이다.

46.

37) 즉 골징크가 언급한 것처럼 “이성의 힘으로 편견을 검토하는 생각하는 존재이자 세상 사람들에게 자애로운 모습을 띤 품격 있는 사람(honnête homme)처럼 사회성 있는 존재”의 도덕적 면모를 말한다. Goldzink, Jean. XVIIIe siècle, Bordas, 1988, p.30. 참조.

38) <철학자> 항목에서 Autres는 8회 기재되어 있다. ‘다른 이들’로 번역하면 의미 전달이 정확하지 않아 뒤마르세가 논적으로 삼은 전통주의 지식인들을 가리키는 의미에서 이 표현을 사용했다.

39) “Les autres hommes sont emportés par leurs passions, sans que les actions qu’ils font soient précédées de la réflexion: ce sont des hommes qui marchent dans les ténèbres ; au lieu que le *philosophe* dans ses passions mêmes, n’agit qu’après la réflexion ; il marche la nuit, mais il est précédé d’un flambeau.” (Denis Diderot & Jean Le Rond d’Alembert(sous la direction), *Encyclopédie ou Dictionnaire raisonné des sciences, des arts et des métiers*, Samuel Faulche & Compagnie, Neufchatel, 1751-1772, tome 12, p.509; 프랑스국립전자도서관 Gallica의 자료를 활용함. <https://gallica.bnf.fr/ark:/12148/bpt6k505440.texteImage#>, 2025.03.12.)

<철학자>의 논점은 철학자의 사회적 특성으로 전환된다. 여기에서 사회성(sociabilité)이란 종종 도덕적인 특성까지도 포함하는 만큼 철학자의 사회적 특성이 이 항목에서 주된 내용이 된다. 뒤마르세가 말한 철학자는 단순히 이성을 함양하고 정신을 고양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또 다른 곳 더 멀리 그의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확장해야 한다. 즉 그의 표현처럼 인간은 깊은 바닷속이나 아무도 없는 깊은 숲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인 존재이므로 늘 타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타인과의 교류”는 철학자의 삶에 필수적이며, 그가 어디에 있든 필요에 따라서 또는 안락함을 위해서라도 “공동체 사회에서 살아야” 하므로 이성을 가진 철학자는 “사회적 자질”을 함양해야 한다. 철학자는 늘 타인과 어울릴 방도를 찾고, 동시에 자신에게 알맞은 것을 발견하여 “타인과 함께 즐기는”, 말하자면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스스로 유용해지기를 원하는 ‘품격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백과전서』의 <철학자> 항목의 철학자가 17세기 지식인의 표상인 ‘품격 있는 사람’과⁴⁰⁾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에서 뒤마르세는 전 시대를 참조하여 새로운 지식인 상을 정립하고 발전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철학자> 항목에서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철학자들에 대한 옹호다. 텍스트 구성 차원에서, 어휘 선택의 측면에서, 그리고 서술자의 은밀한, 그러나 일반 독자들이라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개입 양상 등은 모두 철학자

40) 17세기 “Honnête homme”의 사전적 의미는 고상하고 세련된 교양을 갖춘 인물로 폭넓은 지식을 쌓고 균형잡힌 인격과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다. 그는 정직성, 공정성 그리고 양심적 태도를 중요시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예의와 품격을 강조한다. 또한 사회적, 도덕적 삶에서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태도를 지니며, 지나치게 물질적이거나 탐욕적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은둔적이거나 금욕적인 삶도 지양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Furetière, Antoine.(Recueilli & compilé par), *Dictionnaire universel, Seconde édition*, La Haye et Rotterdam, Arnoud et Reinier Leers, 1701, <Honnête> 항목 참조.

들을 위한 예찬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런 예찬은 철학자들을 이상화하려는 단순한 의도라기보다는 전통적인 주류 지식인들로부터 끊임없이 받았던 공격에 대한 선제적 방어 목적도 드러난다. 즉 이 글은 철학자를 둘러싸고 벌어진 수많은 논쟁의 틀 안에서 계몽철학을 옹호함과 동시에 자신들을 향한 비판에 대응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먼저 철학자를 묘사할 때 찬사로 가득한 어휘와 과대평가하는 어휘 사용은 대상을 옹호하는 가장 분명한 수단이다. “빛(flambeau)”은 이성, 지성 그리고 지식을 일컫는 단어로 계몽주의 시대에 철학자를 표현하는 가장 강한 단어이다. “신중한 sage”, “품격 있는 honnête”과 같은 형용사 역시 철학자를 찬미하는 어휘가 되며 문장 전체로 철학자를 이상화하는 경우도 자주 보인다.⁴¹⁾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 철학자 notre philosophe”라는 표현을 3차례나 사용하여 서술자가 자신이 묘사한 철학자와 심정적으로 동일시한다는 점이다. 서술자 자신은 물론 이상화되어 묘사된 <철학자> 항목의 철학자, 그리고 이 항목을 읽는 독자를 하나로 묶는 감정적 동질감을 강조하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철학자’와 ‘저들’을 대조하는 텍스트 구조 역시 철학자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강조하는 수단이다. 늘 긍정적으로 묘사된 철학자들과는 달리 이 글에 묘사된 ‘저들’을 표현할 때는 언제나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게다가 생각하지도 않는다”라는 표현처럼 부정적이며 비합리적인 모습을 강조한 반면, 철학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적, 이성적 태도에 대해 바람

41) 17세기 “Honnête homme”의 사전적 의미는 고상하고 세련된 교양을 갖춘 인물로 폭넓은 지식을 쌓고 균형잡힌 인격과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다. 그는 정직성, 공정성 그리고 양심적 태도를 중요시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예의와 품격을 강조한다. 또한 사회적, 도덕적 삶에서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태도를 지니며, 지나치게 물질적이거나 탐욕적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은둔적이거나 금욕적인 삶도 지양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Furetière, Antoine.(Recueilli & compilé par), *Dictionnaire universel, Seconde édition*, La Haye et Rotterdam, Arnoud et Reinier Leers, 1701, <Honnête> 항목 참조.

직한 이미지를 부여한다.

저들은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원인을 느끼거나 잡지도 못한 채 행동하고, 심지어 그런 원인이 있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철학자는 할 수 있는 한 그 원인을 밝혀내고, 종종 예측하며 자신의 지식으로 수긍한다[...]. Les autres hommes sont déterminés à agir sans sentir, ni connaître les causes qui les font mouvoir, sans même songer qu'il y en ait. Le *philosophe* au contraire démêle les causes autant qu'il est en lui, & souvent même les prévient, & se livre à elles avec connaissance[...].

한편, <철학자> 항목은 당대 지식사회의 논쟁에서 철학과 철학자의 입장을 주장하고 투쟁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당시 철학자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그리스도교도인 ‘저들’과 모든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던 교회였다. 이 글에서 뒤마르셰가 종교적 맹신과 편견에 대해 공격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철학자에게 이성이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은총과도 같다. 은총은 그리스도인을 행동으로 이끌고, 이성엔 철학자를 행동으로 이끈다.”⁴²⁾라는 문장은 교회 입장에서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교에서 핵심적이고 신성한 가치인 ‘은총’이 인간의 지적 범주에 속하는 ‘이성’과 같은 수준에 놓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을 믿지 않는 것이야말로 철학자의 자질이라고 주장함으로써⁴³⁾ 뒤마르셰는 과학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교리를 주장하는 성직자들을 간접적으로 폭로한다.

『백과전서』 편집자들, 특히 달랑베르는 백과사전이 단순히 정보를 축적하고 제공하는 도구에 머물지 않고, 계몽주의 운동의 이념적 도구로 기

42) “La raison est à l'égard du philosophe, ce que la grâce à l'égard du chrétien. La grâce détermine le chrétien à agir ; la raison détermine le philosophe.”

43) “[le philosophe] prend pour vrai ce qui est vrai, pour faux ce qui est faux, pour douteux ce qui est douteux, & pour vraisemblable ce qui n'est que vraisemblable.”

능하기를 원했다. 이를 위해 철학적이고 사회적인 논의를 담은 다수의 항목을 배치하여 『백과전서』의 계몽주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특히, 1730년에 집필되고 14년 후 팜플릿 형태로 배포되었다가 20여 년 뒤 『백과전서』에 포함된 뒤마르세의 글은 이러한 편집 의도에 정확히 부합하는 사례이다. 이 글에서 뒤마르세는 계몽주의 철학자를 18세기 지적·도덕적 이상을 체현하는 존재로 묘사하며, 그의 정신과 가치관, 그리고 우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그는 전통적인 지식사회에 대한 비판적 논조를 강화하는 한편, 계몽주의 철학자에 대한 옹호를 분명히 했다. 이러한 논의는 『백과전서』가 단순히 지식 전달의 도구가 아니라, 계몽주의 이념을 전파하고 사회적 변화를 선도하는 도구로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뒤마르세는 계몽주의 철학자의 이상을 통해 전통적 권위에 도전하고, 지식과 사회적 책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4. 팔리소(Palissot de Montenoy, Charles)의 『철학자들』

18세기 전반기부터 볼테르, 몽테스키외처럼 전통적 세계관에 대항하여 새로운 지적, 정신적 흐름을 주도하던 철학자들의 투쟁에 뒤이어 『백과전서』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엘베시우스, 디드로, 볼테르, 루소, 달랑베르와 같은 계몽철학자들이 수학적, 과학적, 종교적, 미적 원리에 의문을 제기하는 다양한 저작을 출판하고 독자들의 호응을 얻어 프랑스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확대해 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에 여기에서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계몽철학자들이 지적으로 프랑스 사회를 잠식하는 데 대해 거부감을 가진 지식인들의 대응이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두 진영 간의 치열한 논쟁 과정에서 당시의 독자 또는 대중들에게 각인된 이상적 철학자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양한 부류의 전통을 중시하는 지식인들은 새

로이 전면에 등장한 계몽철학자들에 대해 경계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들
에 대해 공격의 수위는 계속 높아졌다.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트레부 평론
지 *Journal de Trévoux*』와 같은 교회 기관지 성격을 띤 정기간행물, 그리
고 다양한 문필가 그룹이 계몽철학자들을 공격하는 데 앞장섰고 계몽철학
자들이 구축해 놓은 철학자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이들 중 계몽철학자에게 가장 뼈아픈 타격을 준 사람은 프레롱과 팔리
소로서, 이념적으로 의기투합한 두 작가는 폭넓은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철학자들의 모순과 위선을 효과적으로 폭로했다. 프레롱은 정
기간행물 『문학 연감』을 통해,⁴⁴⁾ 팔리소는 연극을 통해 독자 또는 대중에게
각인된 철학자들의 빛나는 명성을 서서히 그러나 심각하게 훼손했다. 특히
볼테르가 『카페 또는 스코틀랜드 여인』을 무대에 올린 직접적인 원인이 몇
달 전 팔리소가 무대에 올린 『철학자들』이 대성공을 거둔 후라는 사실은
철학자들 입장에서 팔리소가 가장 심각한 공적이었음을 인정하는 증거가
된다.⁴⁵⁾ 더구나 『백과전서』파 일원인 모를레(Abbé Morellet, André 1727-
1819)가 18쪽짜리 『희극 철학자들의 서문』⁴⁶⁾을 비슷한 시기에 출판하여 팔
리소의 희극이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권력자들과 결
탁해 팔리소가 철학자들을 탄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폭로한 것으로 볼
때, 당시 철학자의 압박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아무튼 연극의 완성도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기는 했어도 팔리소의

44) 프레롱에 대해서는 후속 논문에서 다룰 것임.

45) 1755년 낭시(Nancy)의 티보(François Timothée Thibault)로부터 작품을 의
뢰받은 팔리소는 『서클(Le Cercle ou les Originaux)』이란 제목의 짧은 희극을
스타니스라스 궁정 무대에 올렸다. 이 작품에서는 주로 루소(가끔 볼테르)가 풍
자의 대상이었다. 폴란드 왕이자 로렌 공작인 스타니스라스가 루소에 대해 적
대적이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Connors, Logan
James. op.cit., p.39 참조.

46) Morellet(dit l'Abbé), André. *Préface de la comédie des Philosophes*, On la
vend séparément, Chez l'auteur de Comédie, Paris, 1760.

연극은 철학자를 풍자하여 대성공을 거둔⁴⁷⁾ 작품이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한다. 작가가 철학자 등장인물들을 통해 철학자들을 비판한 점에 대해 관객들이 열광했다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철학자의 이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철학자들』은 철학자를 패러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알베르 모노가 지적인 것처럼 투박한 대사에 이야기 구조는 매우 단조롭다.

무미건조한 풍자와 적절하지 않은 노골적 비난으로 팔리소(Palissot)의 희극이 대중에게 재미를 선사하지는 못했어도, 분별력 있는 관중들 덕분에 1759년의 소란 이후 호평을 받았다. 철학적인 어머니 시달리즈(Cydalise)는 딸 로잘리(Rosalie)가 사랑하는 남자이자 아버지가 죽기 전에 혼인을 약속했던 다미스(Damis)가 아니라, 타산적인 아첨꾼 철학자 발레르(Valère)와 혼인시키려 한다. 부권(父權)에 대한 경멸, 사익에 대한 옹호, 인류에 대한 이기적 사랑, 철학자들의 위선—이러한 주제들을 통해 작가는 엘베시우스(Helvétius)와 디드로(Diderot)의 명예를 효과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고 여겼을 것이다. De fades allusions et de grossières accusations d'improbabilité ne parviennent pas à rendre plaisante la comédie de Palissot, à laquelle le public bien pensant fit un succès après la tourmente de 1759. Cydalise, mère philosophe, veut faire épouser à sa fille Rosalie non Damis qu'elle aime et que son père lui promet avant de mourir, mais le philosophe Valère, flatteur intéressé. Mépris de l'autorité paternelle, apologie de l'intérêt personnel, amour égoïste du genre humain, hypocrisie des philosophes, tels sont les thèmes que l'auteur croit développer à la honte d'Helvétius et de Diderot.⁴⁸⁾

작가가 등장인물들의 캐릭터에 심리를 부여하거나 복잡한 사건의 전개를 택하기보다 단순한 이야기 구조로 극을 전개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소명처럼 여긴 동시대 철학자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관객들에게 간명하게 호소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사실 팔리소는 계몽철학자들과 때로

47) 다니엘 모르네 저, 앞의 책, 265쪽.

48) Monod, Albert. *De Pascal à Chateaubriand, Les défenseurs français du Christianisme de 1670 à 1802*, Félix Alcan, 1916, pp.397-8.

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글에서는 그들을 혹독하게 비판하는 등의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그의 모든 작품에 흐르는 기조는 계몽철학과 철학자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다. 그는 동시대 철학자들에 대해 진리를 마치 자신들만이 독점한 것처럼 여기는 태도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베이컨 같은 영국 철학자들의 사상을 베껴 사용했다는 점, 그들이 사용하는 문체와 언어가 지나치게 난해하고 신조어를 남발하여 오히려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점, 자신들을 철학과 문학의 권위자로 생각하고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폐쇄적인 집단을 형성했다는 점, 독자들의 관심과 호의를 갈망하면서도 속으로 는 그들을 경멸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강조했다.⁴⁹⁾

철학자들을 위주로 극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들과 정반대의 세계관, 즉 전통적 가치와 감정을 중요시하는 등장인물들도 있어 극의 단조로움을 해소하고 관객들도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특히 연극의 1막 5장은 자칭 철학자인 시달리즈의 건조한 논리와 딸 로잘리의 애절한 감정이 대조를 이뤄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시달리즈는 전통적인 가족 관계에서 모성의 역할이나 부성의 역할을 해체하고 계몽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도덕 체계를 제시하며 딸 로잘리에게 철학적 사고를 할 것과 이성적으로 판단할 것을 강요한다. 이에 대해 딸 로잘리는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애뜻한 감정, 정혼자에 대한 사랑과 의무를 강조하며 반발한다. 5장의 첫 대사만으로도 시달리즈와 로잘리의 가치관이 분명히 드러난다.

시달리즈. 아름답고 현명한 로잘리이기에,
난 너를 언제나 자애롭게 보살폈다.
네가 그 사랑을 받을만한지 이제 알 수 있겠구나.
타성적이고, 진부한 그리고 통속적인 사랑.

49) 가상의 한 부인을 수신자로 쓴 편지는 한 예로서, 철학자들에 대한 팔리소의 태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Palissot de Montenoy, Charles. *Petites lettres sur de grands philosophes*, Paris, 1757.

난 그런 뻔한 감정을 전혀 염두에 두질 않는단다.
혈연에서 기원한다고 생각되고, 우리 내면에서 작용한다는,
그 사랑이란 것은 실제로는 듣기 좋은 착각이고,
무지의 소치이지...

로잘리. 아니, 뭐라고요! 자연의 이치,
그토록 감동적이고 순수한 그 느낌,
최우선적 의무이며, 그 숭고한 인연을,
(분명히 느끼지만 저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 신성한 형질을
어머님이 외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 부디 저에게 베푸신 예전의 감정을 되살려 주세요!
이성적으로 분석하시게 되면 그 감정을 메마르게 할 뿐이에요.

Cydalise. Vous êtes belle et sage,
Rosalie, & pour vous j'eus toujours des bontés.
Je vais connaître enfin si vous les méritez.
Je ne consulte point ce sentiment vulgaire,
Amour de préjugé, trivial, populaire,
Que l'on croit émané du sang qui parle en nous,
Et qui n'est, dans le fond, qu' un mensonge assez doux,
Une faiblesse...

Rosalie. Hé quoi! La voix de la nature,
Quoi! Cette impression si touchante et si pure,
Ce premier des devoirs, cet auguste lien,
(je définirai mal ce que je sens si bien,)
N'importe, se peut-il que le coeur de ma mère
Méconnaisse aujourd' hui ce sacré caractère?
Ah! Rappelez pour moi vos sentimens passés.
En les analysant, vous les affaiblissez.⁵⁰⁾

두 모녀간의 대화에서 등장인물들을 두 부류로 분류하는 기준을 확인

50) Palissot de Montenois, Charles. *[Les] philosophes, comédie en 3 actes, en vers, représentée pour la première fois par les Comédiens françois ordinaires du Roi, le 2 mai 1760*, Paris: Chez Duchesne, 1760, 1막 5장, pp.20-21. 이 서지사항은 이후 philosophes로 표기함.

할 수 있다. 하나는 시달리즈를 중심으로 한 철학자 그룹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로잘리와 다미스, 마르통 그리고 크리스팽(Crispin) 등의 감정을 중시하고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닌 등장인물 또는 적어도 상식을 따르는 등장인물로 나뉜다. 반계몽주의적 성격을 띤 극 작품이므로 철학자들에 대한 묘사가 작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다미스가 낸 꾀로 철학자들의 모순이 폭로되며 후자의 승리로 연극은 막을 내린다.

아무튼 『철학자들』에서 작가는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흥미로운 소재를 통해 철학자들을 풍자했다. 연극의 시작과 함께 철학자들에 대한 비판의 실마리는 다미스(Damis)와 로잘리의 하녀인 마르통(Marton)의 첫 대화에서부터 드러나 있다. 시달리즈가 딸 로잘리의 정혼자인 다미스 대신 철학자 한 명과 혼인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마르통이 밝혔는데, 번듯한 철학자와 결혼하는 것이 군직에 있는 다미스와 결혼하여 가문에 먹칠하는 것보다 낫다는 이유를 든 것이다.⁵¹⁾ 당시 관객의 입장에서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만한 사안이다. 연극의 첫 공연이 있었던 1760년은 7년 전쟁(1756-1763)이 한창이던 시기였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유럽과 북미 대륙, 인도, 아프리카 등지에서 대규모 국제전이 전개되던 때였으나 프랑스로서는 세계 전역에서 발생한 전쟁에서 모두 패하여 영토 대부분을 잃고, 특히 유럽에서 주도권을 상실한 결과를 낳았다. 프랑스 국내에서 군대의 역할과 애국심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던 시기였다. 굴르모가 지적한 것처럼 7년 전쟁 전후로 애국심을 고양하는 주제가 급증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⁵²⁾ 군인을 우대하고 모든 국민이 조국을 사랑하는 분위기가 절

51) Palissot de Montenois, Charles. *[Les] philosophes, comédie en 3 actes, en vers, représentée pour la première fois par les Comédiens françois ordinaires du Roi, le 2 mai 1760*, Paris: Chez Duchesne, 1760, 1막 5장, pp.20-21. 이 서지사항은 이후 philosophes로 표기함.

52)

실한 당시의 분위기와 달리 연극의 등장인물이 군인이기 때문에 오래전 약조한 혼담이 깨지고 겉만 번지르르하고 국가에 유용한지도 모르는 철학자를 우대하는 상황은 관객의 상식에 어긋난다. 시달리스가 계속 철학을 찬양하는 데 대해 다미스의 다음과 같은 일같은 철학에 주눅 들었던 관객이 그들의 실상을 알고 미몽으로부터 깨어나기에 충분하다.

보세요! 이 철학이란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함을 생기게 했던 말이에요?
나는 눈에 띄는 성과를 찾을 수 없어요.
내 주변에 있는 하찮은 사람들만 있어서,
목소리를 내려고 파벌에 들어간 그들은
자신들의 열등한 자질을 털어냈다고 생각하지요. (...)
다른 나라들의 온갖 것을 찬양하고 숭배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조국을 비하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자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성과란 말인가요?

Hé ! Quel bien a produit cette philosophie ?
Je ne découvre pas ces succès éclatans.
Je vois autour de moi de petits importants,
qui, pour avoir un ton, enrôlés dans la secte,
pensent avoir perdu leur qualité d' insecte. (...)
louant, admirant tout dans les autres pays,
et se faisant honneur d' avilir leur patrie :
sont-ce là les succès sur lesquels on s'écrite?"⁵³⁾

지인들 가운데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사했든, 아니면 부상으로 귀국했든,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참전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당시 관객들과 주인공 다미스와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관객들은 공연 내내 철학자 등장인물들의 화려한 장광설을 접하지만, 조국을 위해 참전하는 대신 전세계 모든 이를 향한 인류애를 논하는 그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가감 없이 확인한다.⁵⁴⁾

53) *Philosophes*, 2막 5장, p.54.

54) 도르티디우스는 다음과 같이 발언하며, 이에 대해서 발레르, 테오프라스트도 동조한다.

국가와 동료 시민들(concitoyen)에게 철학자들이 유익하지 않다는 인상을 관객들에게 각인한 후, 팔리소는 화려한 언변으로 희생자를 찾아 논박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관심사임을 관객에게 강조한다. 연극의 1막 1장은 연극 전체에 걸쳐 드러날 철학자들의 본모습에 대한 스케치나 다름없다. 철학자 발레르의 영향을 받아 시달리즈가 철학서를⁵⁵⁾ 출판한 데 대해 다미스가 책 내용의 허접스러움에 놀라며 어떻게 철학자들에게 둘러싸인 그녀에게 충고하는 사람이 없느냐고 한탄할 때, 마르통은 이들은 철학자란 허울을 쓰고 자신들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녀에게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폭로한다.

그들이요! 그들은 마님을 우롱하는 거랍니다:
그들 모두 공모하여 마님의 두뇌를 타락시키는 겁니다;
특히 나리의 경쟁자 말이에요. 그는 마님의 취향을 잘 알고 있으니,
그는 단순히 모든 면에서 칭찬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그는 자신의 패거리로 하여금 그녀를 칭송하게 만드니,
그들 모두 교활한 사기꾼들이자, 알랑거리는 아첨꾼들이지요(...)

Eux ! Ils se moquent d'elle ;
ils ont tous conspiré de gâter sa cervelle ;
sur-tout votre rival. Comme il connaît son goût,
il ne se borne pas à l'applaudir en tout ;
il la fait admirer par messieurs ses semblables,

“Fi donc! C’est se borner que d’être citoyen.
Loin de ces grands revers qui désolent le monde,
Le sage vit chez lui dans une paix profonde ;
Il détourne les yeux de ces objets d’horreur ;
Il est son seul monarque et son législateur ;
Rien ne peut altérer le bonheur de son être :
C’est aux grands à calmer les troubles qu’ils font naître.”
(*Philosophes*, 3막 4장, p.75.)

- 55) 시달리즈는 이 책에서 “이성과 분별, 정념, 법률, 정치 체제, 덕목, 풍속, 기후, 관습, 문명화된 국민과 야만적인 민족, 겉으로는 혼돈처럼 보이는 것들 속에서 우주적 질서를 밝혀내고, 이상적 행복과 현실적 행복을 탐구했다고 밝혔다.”
(*Philosophes*, 1막 5장, pp.26-27.)

tous charlatans adroits, et flatteurs agréables.(...)⁵⁶⁾

이들이 시달리스에게 접근한 것은 그녀와 심오한 철학적 토론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마트롱이 잘 간파한 것처럼 “그들은 그녀의 사교 모임에서 주빈 역할을 하면서 방탕을 조장하는 것에 흡족해하고, 어수룩한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을 즐기다가”⁵⁷⁾ 발레르를 그녀의 딸인 로잘리와 결혼하게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즉 오로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찾아 시달리스의 영지를 찾은 것일 뿐이다. 발레르, 테오프라스트, 도르티디우스, 카롱다스는 모두 한 패거리로서 이름만 다르게 등장할 뿐, 3막 5장에서 언급된 계몽철학자의 저작에⁵⁸⁾ 공감하여 찬양하고 모두 같은 생각과 행동으로 일관한다.

이들이 특히 공감하여 도덕적 원리로 삼은 것은 인간의 정신과 본성을 감각적 경험과 이익 추구의 원리로 설명한 『정신론 De l'Esprit』이다. 발레르는 소크라테스(엘베시우스를 풍자)의 저서에 대해 자신의 해석한 내용을 찬양 조로 카롱다스에게 말한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언제나 행복이란 매력에 이끌려 가는 존재”로서 “행복의 원천은 그의 열정”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하여 열정이 없으면 인간은 동력을 상실한 무의미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철학적으로 밝혀졌고, 이 열정의 골간은 개인의 이익(l'intérêt personnel)이므로 이것이야말로 인간 사회를 움직이는 원리가 된다는 것이다.⁵⁹⁾ 물론 발레르의 엘베시우스 해석, 특히 ‘개인의 이익’은 엘베시우스

56) *Philosophes*, 1막 1장, p.6.

57) Ibid., pp.6-7.

58) 여기에서 언급된 저작은 디드로의 *Les bijoux indiscrets, lettre sur les sourds, Le père de famille, L'Interprétation de la nature*, 엘베시우스의 *De l'Esprit*, 루소의 *Discours sur l'origine et les fondements de l'inégalité parmi les hommes*, 그림(Grimm)의 *Le Petit Prophète de Boehmischbroda* 등이다.

59) “(...) L'homme est toujours conduit par l'attrait du bonheur, C'est dans ses passions qu'il en trouve la source. Sans elles, le mobile arrêté dans sa course

가 제시한 개념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다. 엘베시우스는 “개인의 정열이 언제나 사회의 공동 이익(l'intérêt général)과 일치해야 함”을 강조하며, 이것이 그가 말하는 덕의 수행이다.⁶⁰⁾ 그러나 발레르는 『정신론』의 주요 주장을 편향된 시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이익’이란 개념을 단순한 탐욕과 동일시했다. 자칭 철학자인 시달리즈가 이전에 로잘리와 다미스의 혼인을 결정한 배경은 재산상의 문제와 소송의 유리함이라는 개인적 이익이었다.⁶¹⁾ 카롱다스에게 발레르가 개인의 이익을 설파하는 것을 마칠 무렵, 전자가 자신의 주머니를 뒤지는 것을 눈치채고 화를 내며 말하자 카롱다스는 다음과 같이 응수한다.

발레르. (발레르, 카롱다스가 자신을 훔치려는 것을 눈치채며)

(...)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게냐?

카롱다스. 개인적 이익을...

이 숨겨진 원리를...우리를 고무하는,

마침내 살아 숨 쉬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것...

발레르. 뭐라고! 나쁜 놈. 날 도둑질하다니!

카롱다스. 아닙니다. 저는 제 권리를 행사하는 것뿐.

모든 재화는 공유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니까.

Valere s'apercevant que Carondas veut le voler.

Languirait tristement à la terre attaché.
Ce pouvoir inconnu, ce principe caché,
N'a pû se dérober à la philosophie,
Et la morale enfin est soumise au génie.
Du globe où nous vivons despote universel,
Il n'est qu'un seul ressort, l'intérêt personnel ;
À tous nos sentimens, c'est lui seul qui préside ;
C'est lui qui dans nos choix nous éclaire et
nous guide.(...)” (*Philosophes*, 2막 1장, p.37.)

60) 엘베시우스는 “선한 사람이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습관과 가장 강렬한 정열을 희생하는 사람 - 그러한 사람은 있을 수도 없다 - 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거의 언제나 선할 수밖에 없을 정도까지 그의 강렬한 정열이 사회의 이익에 합치되는 사람이다.”라고 정의한다. (이광래, 『프랑스철학사』, 문예출판사, 1993, 133쪽.에서 재인용.)

61) *Philosophes*, 1막 5장, p.23.

Mais que fais-tu donc là?

M Carondas. L' intérêt personnel...

Ce principe caché... monsieur... qui nous inspire,

Et qui commande enfin à tout ce qui respire...

Valere. Quoi ! Traître, me voler !

M Carondas. Non. J' use de mon droit,

Tous les biens sont communs.⁶²⁾

철학자 발레르의 도덕론을 카롱다스가 실제로 적용했을 때 절도도 허용된다는 이 대화의 내용에서 독자 또는 관객들은 어느덧 철학자들의 주장이 결국 범죄를 조장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 Discours sur l'origine et les fondements de l'inégalité parmi les hommes』을 희화화하기 위해 크리스팽에게 부여된 역할은 관객들이 계몽철학의 모순을 가장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치다. 다미스는 마르통과 하인인 크리스팽의 도움을 받아 발레르와 로잘리의 혼사를 마무리하려는 시달리즈의 마음을 돌리는 한편 철학자들을 시달리즈의 영지로부터 내쫓으려는 계획을 세웠다.⁶³⁾ 이 계획을 실천에 옮겨 3막 8장과 9장에서 모든 비밀이⁶⁴⁾ 폭로되기 전 크리스팽은 시달리즈가 주관한 모임에서 철학자들을 포함한 등장인물들이 모인 자리에 네 발로 기어 오는 장면을 연출한다.

크리스팽. (네 발로 기어오면서),

(...) 저는 더 이상 타인의 의견을 따르지 않습니다.

62) *Philosophes*, 2막 1장, p.39.

63) *Philosophes*, 1막 1장과 2막 6장 참조.

64) 발레르는 자신의 하인 카롱다스(실제로는 프롱탱)를 은밀하게 시달리즈의 집사로 보내, 그녀의 동정을 살피게 했다. 발레르가 카롱다스에게 쪽지를 은밀하게 전해준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시달리즈가 펴낸 터무니없는 책을 조롱하면서도 그녀의 아둔함을 이용하여 계속 아첨하며 속일 것을 지시했다. 앞으로 철학자들이 그녀를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이 쪽지를 크리스팽이 빼앗아 모두 모인 자리에서 그녀에게 직접 읽도록 하여 그동안 철학자들이 시달리즈에게 접근한 이유를 모두 밝혔다.

이것이 바로 제 성찰의 탁월한 결과입니다.
저는 철학에 대한 강한 의욕으로
일부러 네 발로 걷는 상태를 선택했습니다! (...)
우리는 문명화되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건강, 행복, 심지어 덕성까지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물적인 삶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식사는 단순하고 소박합니다.

(...) Je ne me règle plus sur les opinions,
et c'est-là l'heureux fruit de mes réflexions.
Pour la philosophie un goût à qui tout cède,
M'a fait choisir exprès l'état de quadrupède : (...)
En nous civilisant, nous avons tout perdu,
la santé, le bonheur, & même la vertu.
Je me renferme donc dans la vie animale ;
Vous voyez ma cuisine, elle est simple & frugale.⁶⁵⁾

페레는 팔리소의 희극에서 “관객이 단순한 관람객이 아니라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⁶⁶⁾고 밝혔다. 즉 관객은 철학자 등장인물들이 작품 전체에 걸쳐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비도덕적이며, 반사회적이고 비애국적인 모습으로 등장하여 공개적으로 조롱받을 때 관객은 단순하게 희극을 즐기는 구경꾼이 아니라 심판자로 설정되었다는 것이다. 연극의 클라이맥스에서 루소가 설파한 문명론을 언급하며 동물처럼 네 발로 무대에 들어오는 크리스팽을 등장시킴으로써 팔리소는 희극적인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웃음을 선사하고, 이 과정에서 관객들이 철학의 모순과 위험성을 알기 쉽게 깨닫고 판단을 유도한 것이다.

계몽철학자들과 이들의 영향력 확대에 거부감을 가진 전통적 지식인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과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팔리소의 희극 『철학자들』

65) *Philosophes*, 3막 9장, pp.84-85.

66) Ferret, Olivier. “Autour de la querelle des Philosophes”, *Le Philosophe sur les planches. Image du philosophe dans le théâtre des Lumières: 1680-1815*, PU de Strasbourg, 2003, p.123.

이 1760년 5월 첫 공연을 시작으로 매회 대성공을 거뒀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시 지식층에서 많은 사람이 계몽주의 철학에 열광했다고 널리 알려졌으나, 예상과는 달리 연극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계몽주의 철학의 위험성을 폭로하는 『철학자들』에 환호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한가지 시사점을 남긴다. 당시 프랑스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자’란 과연 누구인가? 사전적 의미로 ‘현자’인가, ‘형이상학자’인가, ‘윤리학자’인가, ‘자연학자인가’, 또는 범죄를 조장하는 ‘철학자’인가, 사기꾼 ‘철학자’인가? 분명한 것은 적어도 1760년 프랑스 파리의 지식인층에서는 상당수가 사기꾼의 의미로 ‘철학자’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5. 결론

우리는 이 글을 시작하면서 1760년의 지식층은 전통을 고수하려는 그룹과 이미 프랑스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계몽철학자들이 서로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이념논쟁의 차원이 아니라 이념전쟁의 수준까지 매우 심각한 양상을 띠었음을 지적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 독자들이 보통 알고 있는 18세기 프랑스와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더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실 프랑스를 조금이라도 학습한 사람들이라면 18세기를 ‘계몽주의 시대’라는 선입견으로 파악하는 것처럼 학술 연구자들도 일종의 ‘교조주의’에 빠져 그 시대를 계몽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정도로 여겨졌다. 즉 『프랑스 혁명의 지적 기원』의 제목에서 저자인 다니엘 모르네든, 『프랑스 혁명의 문화적 기원』의 저자인 로제 샤르티에든 수많은 18세기 학자들이 한 세기 전체를 계몽주의의 시대로 몰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이 글에서 우리는 이러한 ‘교조주의’ 연구에서 벗어나 계몽사상가들과 이견을 보인 지식인들의 다양한 지적 활동을 주목했다. 특히 계몽철학자들

이 자신들의 이념에 따라 철학자 상을 구축했던 것과 달리 동시대 철학자들의 위선을 폭로하여 그들의 지적 권위를 훼손하거나 진정한 철학자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참구한 마리보, 프레보 또는 팔리소 등과 같은 작가들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했다. 주류 연구에서 벗어난 관점에서 여러 작품을 분석할 때 참고할 자료가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리는 이 연구에서 두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밝힐 수 있었다.

먼저 1730년대에 마리보와 프레보가 각자 구축하려고 했던 진정한 철학자 상은 동시대 지식인들이 추구했던 그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흥미롭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1765년에 출판될 『백과전서』의 <철학자> 항목의 저자인 뒤마르세가 같은 내용의 글을 1730년 집필하여 은밀하게 지식인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던 때였다. 무신론적이고 이성을 그리스도교의 ‘은총’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을 때 이들과 달리 마리보는 인간의 본성과 감정을 섬세하게 묘사하는 한편 종교에 기반한 도덕과 인간적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프레보는 동시대 철학자들과 동일하게 이성을 중시하는 철학자의 면모를 띤 클레블란이 오랜 고난과 심리적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이성만으로는 복잡한 감정의 세계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감정을 통해 인간을 이해하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결국 그리스도교에 귀의하는 과정을 그렸다. 두 작가가 작품을 통해 추구했던 철학자 상이 동시대 철학자/작가들의 그것과 다른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1730-40년대 지식인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철학자’의 의미는 사용하는 작가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흥미로운 점은 ‘백과전서파’를 중심으로 하나의 큰 지적 흐름을 형성한 계몽철학자들에 대하여, 1760년을 기점으로, 전통적인 세계관을 지닌 지식인들의 공격이 거세졌다는 것이다. 팔리소가 극작가로서 대성

공을 거두기 이전 철학자에 대한 공격은 마리보에게서도 볼 수 있듯이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거나 희화화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팔리소의 경우에는 독자/관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시대 철학자들의 테제를 등장인물들이 패러디하여 재현했다. 작가는 극의 클라이맥스에서 엘베시우스의 『정신론』의 공동이익에 대한 ‘개인의 이익’을 풍자하여 카롱다스로 하여금 주인인 발레르의 주머니를 터는 장면을 연출한다든지,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의 문명론을 비판하기 위해 크리스팽으로 하여금 네 발로 걸으며 무대에 등장하도록 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폭소를 자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이 성공은 단순히 바라볼 내용은 아니다. 왜냐하면 많은 관객이 동시대 철학자들의 테제에는 범죄의 가능성도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구나 대성공을 거둔 작품이기에 자신들의 신뢰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만큼 동시대 철학자들의 대대적인 반격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팔리소의 작품에 열광한 수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철학자와 계몽철학자들이 정의하는 ‘철학자’ 사이에 큰 차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1730년대부터 1760년까지도 철학자에 대한 이미지와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철학자> 항목을 신조로 여기는 지식인들의 철학자적 신념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전통을 고수하는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철학적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끊임없이 모색했다. 클레블란이 보여준 것처럼 이성을 바탕으로 감성 또는 종교를 조화시키는 시도를 하든, 반계몽주의 지식인들의 집착하는 종교에 이성을 접목하든, 당시의 지식인들은 흔들리지 않는 사상체계를 세우려고 노심초사했다. 어쩌면 계몽주의 시대의 지식인들은 진정한 철학자 상을 정립하기 위해 시지프스처럼 끊임없이 돌을 굴려 언덕으로 올려야 하는 숙명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참고 문헌

- 다니엘 모르네 저, 주명철 역, 『프랑스 혁명의 지적 기원』, 민음사, 1993.
- 로버트 단턴 저, 김지혜 역, 『문화사 읽기』(*The Kiss of Lamourette: Reflections in Cultural History*), 도서출판 길, 2008.
- _____ 저, 주명철 역, 『책과 혁명』, 도서출판 길, 2003.
- 로제 샤르피에 저, 백인호 역, 『프랑스혁명의 문화적 기원』, 일월서각, 1998.
- _____·굴리엘모 카발로 공저, 이종삼 역, 『읽는다는 것의 역사』,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6.
- 백과전서파 저, 디드로·달랑베르 공편, 『백과전서』(*Encyclopédie, ou dictionnaire raisonné des sciences, des arts et des métiers*), 1751-1780.
- 이광래, 『프랑스철학사』, 문예출판사, 1993.
- 이명은, 「모랄리스트 마리보의 정기간행물 연구: 관망자와 대화체 글쓰기」, 『인문과학연구』 제50집,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4, 115-141쪽.
- 이영목, 「계몽주의 시대의 “철학” 소설: 『철학자 테레즈』」, 『프랑스어문 교육』 제17집, 2004, 453-472쪽.
- 이혜령, 「18세기 프랑스 문인연구를 위한 논쟁과 전망」, 『한국방송통신 대학교 논문집』 제37집, 2004, 445-471쪽.
- Barguillet, Françoise. *Le roman au XVIIIe siècl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P.U.F.), 1981.
- Connors, Logan James. *Staging polemics: Charles Palissot, Voltaire, and the "theatrical event" in eighteenth-century France*, thèse, Louisiana State University, 2010.
- Coulet, Henri. *Le Roman depuis les origines jusqu'à la Révolution*, Armand Colin, 1975.
- Darnton, Robert. *Bohème littéraire et Révolution. Le monde des livres au XVIIIe siècle*, Gallimard et Le Seuil, 1983.

- _____, *Édition et sédition, L'univers de la littérature clandestine au XVIIIe siècle*, Gallimard, 1991.
- Deprun, Jean. "Les Anti-Lumières", *Encyclopédie de la Pléiade: Histoire de la philosophie*(collection des éditions Gallimard), Gallimard, 1973, pp.717-727.
- _____, *La philosophie de l'inquiétude en France au XVIIIe siècle*, Vrin, 1979.
- Chouillet, Jacques. "Herbert Dieckmann, historien et philosophe des Lumières", *Recherches sur Diderot et sur l'Encyclopédie*, no. 6, 1989, pp.7-52.
- Darnton, Robert. "Par «philosophie» les hommes du livre sous l'Ancien Régime n'entendent pas les Lumières, mais plutôt un secteur crucial de la librairie du XVIIIe siècle, celui de l'illicite, de l'interdit, du tabou", *Édition et sédition: L'univers de la littérature clandestine au XVIIIe siècle*, Gallimard, 1991, p.12.
- Denis Diderot & Jean Le Rond d'Alembert(sous la direction), *Encyclopédie ou Dictionnaire raisonné des sciences, des arts et des métiers*, Samuel Faulche & Compagnie, Neufchatel, 1751-1772, tome 12.
- Domenec, Jacques. *L'Ethique des Lumières: les fondements de la morale dans la philosophie française du XVIIIe siècle*, Vrin, 1989.
- Ferret, Olivier. "Autour de la querelle des Philosophes", *Le Philosophe sur les planches. Image du philosophe dans le théâtre des Lumières: 1680-1815*, PU de Strasbourg, 2003, pp.113-128.
- Furetière, Antoine.(Recueilli & compilé par), *Dictionnaire universel, Seconde édition*, La Haye et Rotterdam, Arnoud et Reinier Leers, 1701.
- Goldzink, Jean. *XVIIIe siècle*, Bordas, 1988.
- Goulemot, Jean Marie. *La littérature des Lumières*, Bordas, 1989.

- Hartmann, Pierre. “Figures de philosophes dans le théâtre de Marivaux”, *Le philosophe sur les planches: L'image du philosophe dans le théâtre des Lumières, 1680-1815*, réuni par Pierre Hartmann. Presses universitaires de Strasbourg, 2003, pp.45-54.
- Hazard, Paul. *La Pensée européenne au XVIIIe siècle*, Boivin, 1946.
- Launay, Michel & Mailhos, Georges. *Introduction à la vie littéraire du XVIIIe siècle*, Bordas, 1969 et 1984.
- Lu, Jin. *Qu'est ce qu'un philosophe?*, Les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Québec, 2005.
- Marivaux. *Journaux et Œuvres diverses*, Frédéric Deloffre & Michel Gilot eds., Paris: Bordas (Classiques Garnier), 1988 [1969], p.352-353.
- _____, *Journaux et Oeuvres Diverses*, F. Deloffre & M. Gilot. eds., Paris: Classiques Garnier, 2021, pp.381-388.
- _____, *le Cabinet du philosophe et l'Indigent philosophe*, 1733.
- Masseau, Didier. *Les ennemis des philosophes. L'antiphilosophie au temps des Lumières*, Albin Michel, 2000.
- Mauzi, Robert. *L'idée du bonheur dans la littérature et la Pensée française au XVIIIe siècle*, Colin, 1960.
- Monod, Albert. *De Pascal à Chateaubriand, Les défenseurs français du Christianisme de 1670 à 1802*, Félix Alcan, 1916.
- Morellet(dit l'Abbé), André. *Préface de la comédie des Philosophes*, Chez l'auteur de Comédie, Paris, 1760. (프랑스국립전자도서관. <https://gallica.bnf.fr/ark:/12148/bpt6k71018q.r=Palissot?rk=42918;4>, 2025.02.07.)
- Palissot de Montenoy, Charles. *Petites lettres sur de grands philosophes*, Paris, 1757. (프랑스국립전자도서관. <https://gallica.bnf.fr/ark:/12148/bpt6k679607.texteImage>, 2025.02.07.)
- _____, *[Les] philosophes, comédie en 3 actes, en vers, représentée pour la première fois par les Comédiens françois ordinaires*

du Roi, le 2 mai 1760, Paris: Chez Duchesne, 1760.
(프랑스국립전자도서관, <https://gallica.bnf.fr/ark:/12148/bpt6k71017c.r=Palissot?rk=150215:2#>, 2025.02.07.)

Prévost, Antoine François. abbé. *Œuvres de Prévost*, PU de Grenoble, 1978-1986, vol.2, p.294.

Sgard, Jean. “Trois "philosophes" de 1734: Marivaux, Prévost et Voltaire”, *Études littéraires*, vol. 24, 1991, pp.31-38.

Voltaire, *Oeuvres Complètes, Nouvelle édition de Beuchot, Correspondance VIII*, Paris: Garnier Frères, 1880, pp.479-481.

Gallica, <https://gallica.bnf.fr/ark:/12148/bpt6k505440.textel-image#>, 2025.03.12.

Wikisource, <http://fr.wikisource.org>, 2025.02.07.

Wikisource-Marivaux-La Vie de Marianne.pdf/60,
https://fr.wikisource.org/wiki/Page:Marivaux_-_La_Vie_de_Marianne.pdf/60, 2025.02.07.

■ 국문초록

프랑스를 조금이라도 학습한 사람들이라면 18세기를 ‘계몽주의 시대’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파악한다. 학술 연구자들도 일종의 ‘교조주의’에 빠져 그 시대를 계몽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졌다. 그런 이유로 수많은 18세기 학자들이 한 세기 전체를 계몽주의의 시대로 몰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이 글에서 우리는 이러한 ‘교조주의’ 연구에서 벗어나 계몽사상가들과 이견을 보인 지식인들의 다양한 지적 활동을 주목했다. 특히 계몽철학자들이 자신들의 이념에 따라 철학자 상을 구축했던 것과 달리 동시대 철학자들의 위선을 폭로하여 상대방의 계몽철학자들의 지적 권위를 훼손하거나 진정한 철학자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모색한 마리보, 프레보 또는 팔리소 등과 같은 작가들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1760년대에도 ‘철학자/작가’의 개념이 고정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용어를 쓰는 사람에 따라, 그리고 쓰는 시기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1730년경부터 1760년경까지 출판된 많은 저작에서 볼 수 있는 철학자/작가의 이미지가 다양하게 재현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주제어● 철학자, 작가, 계몽주의 시대, 마리보, 프레보, 팔리소

■ Abstract

The Conceptual Changes and Their Significance Among Mid-to-Late Enlightenment Philosophers/ Writers 1

: From Around 1730 to Approximately 1760

Chung, Haisoo / Mokwon University

Anyone who has studied France, even slightly, tends to perceive the 18th century with the preconceived notion of it being the “Age of Enlightenment.” Even academic researchers have fallen into a kind of “dogmatism,” viewing and studying the period solely from the perspective of Enlightenment thought, as if it were the natural approach. Consequently, it became a common phenomenon for numerous scholars of the 18th century to frame the entire century as the age of Enlightenment.

In this study, we sought to move beyond this “dogmatic” approach and instead focus on the diverse intellectual activities of thinkers who held differing views from the Enlightenment philosophers. In particular, we examined writers such as Marivaux, Prévost, and Palissot, who, unlike the Enlightenment philosophers who constructed an ideal image of the philosopher according to their ideological principles, sought to expose the hypocrisy of their contemporaries, thereby undermining the intellectual authority of their Enlightenment counterparts or exploring the true conditions necessary to be a philosopher.

Through this research, we have come to understand that even in the 1760s, the concept of the “philosopher/writer” was not fixed. Accordingly, its meaning varied depending on who used the term and when it was used. This explains why the image of the philosopher/writer was represented in diverse ways across numerous works published between approximately 1730 and 1760.

Keyword • Philosopher, Writer, Age of Enlightenment, Marivaux, Prévost, Palissot

■ 논문투고일:2025.02.07. ■ 심사완료일:2025.03.13. ■ 게재확정일:2025.03.17. ■

뉴미디어 씨어터의 미학적 특성 연구

: 빌렘 플루서와 레프 마노비치의
이론적 프레임을 중심으로

조충범 · 조준희*

목 차

1. 서론
2. 뉴미디어 아트와 뉴미디어 씨어터의 개요
3. 빌렘 플루서의 코드와 기술이미지
4. 레프 마노비치의 뉴미디어와 소프트웨어
5. 뉴미디어 씨어터의 미학적 특성
6. 결론

1. 서론

인터넷 기반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뉴미디어(New Media)’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소통 양식을 형성하였다. 중앙집중적이고 일방향적이던 미디어의 흐름은 탈중심화, 양방향적 소통으로 변화하여 실시간 생산과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인터넷의 대중화와 2000년대 스마트폰의 등장은 현대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시켰다. ‘미디어가 메시지다’라는 상징적인 표현과 함께 미디어의 형식이 인간의 사고와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한 마셜 매클루언

* 조충범(제1저자)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연극학과 박사과정 수료
조준희(교신저자)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연극학부 교수

(Marshall McLuhan)의 통찰은 오늘날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그런데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인간 커뮤니케이션과 문화 형성의 주된 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은 공연예술, 특히 연극에 중요한 함의를 제기한다.

연극은 전통적으로 배우와 관객의 물리적 현존을 기반으로 하는 즉각적인 상호작용의 매체로 인식되어 왔으며, 시대와 기술의 변화에 따라 각기 다른 무대 미학, 관객 경험, 연출법 등을 선보이며 변화에 발맞춰왔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이후 오랜 기간 희곡(드라마)이 연극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으나, 20세기 초 등장한 아방가르드 연극의 등장은 전통적 서사 중심의 연극에서 이른바 ‘연극의 재연극화’를 표방하며 조명, 음향, 무대장치 등의 비문학적 장치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발전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다매체의 활용은 외연 확장의 단초가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에 관해 한스-티즈 레만(Hans-Thies Lehman)은 자신의 저서 『포스트드라마 연극(Postdramatic Theatre)』을 통해 텍스트의 절대권능에서 벗어난 연극들을 탈구조 연극, 다매체 연극과 같은 양식으로 분류하고 퍼포먼스, 반-미메시스와 같은 핵심어를 통해 연극의 변화를 언급한다.¹⁾ 1960년대 이후 등장한 포스트드라마 연극은 기존의 재현과 서사를 중심으로 한 연극의 문법을 벗어나 배우의 신체성, 관객의 참여, 탈 경계, 탈 서사와 같은 키워드를 부각시켰고 퍼포먼스, 수행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미학적 담론의 장이 열리게 되었다. 즉 연극은 문화의 한 영역으로써 사회와 기술 발전에 밀접하게 결합하고, 더 나아가 디지털 미디어를 수용하는 동시대 새로운 예술적 형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고에서 다룰 뉴미디어 씨어터(New Media Theater)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형성된 미디어를 기반으로, 프로젝션 맵핑(Projection Mapping), 가상, 증강현실(VR/AR) 등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무대

1) 한스-티즈 레만 저, 김기란 역, 『포스트드라마 연극』, 현대미학사, 2013, 38쪽.

에 도입하여 기존과는 다른 관객 경험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더 나아가 배우-관객 간의 상호작용 방식의 변화와 시공간의 확장 등의 시도를 통해 새로운 연극 예술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크리스 콘텍(Chris Kondek), 케이티 미첼(Katie Mitchell), 로베르 르파주(Robert Lepage), 리미니 프로토콜(Rimini Protokoll)과 같은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범주 안에 있는 연출가들뿐 아니라 국내 작품들에도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멀티미디어적이고, 다감각적인 창작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기술 장치의 활용, 무대 연출 기법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미디어 이론과의 연결성, 디지털 기반 연극의 미학적 측면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디어의 변화와 발전이 가져온 새로운 연극, 뉴미디어 씨어터의 특성에 관한 학술적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미디어 학자 빌렘 플루서(Vilém Flusser)와 레프 마노비치(Lev Manovich)의 대표적인 이론적 개념들을 바탕으로 뉴미디어 씨어터에서 발견되는 미학적 특성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것들은, 디지털 환경으로 촉발된 ‘기술이미지로 인한 연극적 커뮤니케이션의 확장’, 뉴미디어의 원리에 입각한 ‘모듈성과 가변성을 통한 서사의 변환’, 새로운 코드와 프로그램을 활용한 ‘프로그래밍된 무대와 자동화’와 같은 특성들이다. 이를 위해 먼저 뉴미디어 아트의 개념을 살펴보고, 뉴미디어 씨어터를 정의할 것이다. 이어서 플루서의 코드(Code)와 기술이미지, 마노비치의 뉴미디어와 소프트웨어 문화 이론을 살펴보고, 두 학자의 이론을 토대로 뉴미디어 씨어터의 미학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뉴미디어 아트와 뉴미디어 씨어터의 개요

1) 뉴미디어 아트

뉴미디어 아트는 ‘아트 & 테크놀로지’와 ‘미디어 아트’ 사이에 있는 개념으로, 아트 & 테크놀로지는 전자 예술, 로봇틱 아트, 유전자 예술 등과 같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지만, 미디어와 직접적 관련 없는 기술을 사용한 것들을 가리킨다. 반면, 미디어 아트는 비디오아트, 방송 예술, 실험 영화 등과 같이 미디어 기술을 혼합한 형식이다.²⁾ 뉴미디어 아트는 아트 & 테크놀로지와 미디어 아트의 만남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중심에는 인터넷이 있다. 예술비평가이자 큐레이터인 도메니코 콰란타(Domenico Quaranta)는 뉴미디어 아트의 용어 문제에 관해 “다윈의 자연선택 과정에서 생겨난 치열한 결과물과 같다”³⁾며 ‘디지털 아트’, ‘미디어 아트’와 같은 경쟁 용어의 혼용에 대해 언급한다. 위 용어의 차이를 구분하자면, 미디어 아트는 올드미디어(TV, 신문, 사진 등)에서부터 인터넷 기반 뉴미디어(소프트웨어, 웹, 비디오게임 등)까지 모든 미디어 장르를 포함하는 것으로, 디지털 아트는 1960년대 후반부터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미디어의 분야까지 세분화할 수 있다.⁴⁾ 뉴미디어 아트는 디지털 아트의 범주를 포함하며 인터넷, 소프트웨어, 인터랙티브 테크놀로지 등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단순한 디지털 기반 예술을 넘어 네트워크와 상호작용, 멀티미디어적 요소 등의 활용을 강조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허나 이러한 개념적 구분은 경쟁적 상황 속에 등장한 것이며, 본질적으로는 예술과 기술이 융합

2) 마크 트라이브·리나 제나 공저, 황철희 역, 『뉴미디어 아트』, 마로니에북스, 2008, 6-7쪽.

3) 도메니코 콰란타 저, 주경란·김정연·주은정 공역, 『뉴미디어 아트, 매체를 넘어서』, 칼라박스, 2018, 31쪽.

4) 도메니코 콰란타 저, 위의 책, 31-32쪽.

되는 하나의 흐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뉴미디어는 기존의 전통적 미디어와 달리 콘텐츠의 디지털화와 인터랙티브한 특성을 활용해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생산과 수용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 왔다. 이는 공연예술 장르에서 퍼포먼스와 무대 예술에 변화를 야기하며, 공간과 관객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2) 뉴미디어 씨어터

희곡 중심의 전통적 연극은 20세기 들어 두 번의 도전을 받게 된다. 1920년대 역사적 아방가르드와 이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60년대 네오 아방가르드 연극인들은 희곡 중심의 사실주의와 환영주의에서 벗어나 기존 연극 형식을 해체하고 새로운 무대 언어를 창조하고자 했다.⁵⁾ 두 차례의 급변은 자연스럽게 세계 대전 이후에 정치, 사회, 예술, 철학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19세기 말 등장한 영화는 연극의 사실적 재현을 위협했고, 1950년대 이후 TV의 보급은 대중 매체로서의 연극의 위상을 위태롭게 하였다. 그러나 연극은 발전된 기술을 받아들이며 멀티미디어와 연극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무대 언어를 창출하게 된다.

연극은 항상 당시의 첨단 테크놀로지를 사용해 제작물의 ‘스펙터클’을 향상시켜 왔다. 초기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에서부터 중세 시대 길드에서 제작한 간이 무대용 마차(pageant wagon), 16세기 이탈리아의 무대 장치 원근법과 기계 장치의 혁신, 가스 효과와 이후의 전기·조명 효과 도입, 조명 제어를 위한 현대의 컴퓨터 사용, 그리고 음향·무대 장치 변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테크놀로지를 사용해 놀라운 시각적·청각적 효과를 만들어냈다.⁶⁾

기술과 함께 다양하게 변화해온 연극은 새롭게 도래한 기술과 미디어

5) 김형기 외,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미학』, 푸른사상, 2013, 19쪽.

6) Schrum, Stephen Alan ed. *Theatre in Cyberspace: Issues of Teaching, Acting, and Directing*, New York: Peter Lang, 1999, p.66. (Arndt, Michael J, Theatre at the Center of the Core (Technology as a Lever in Theatre Pedagogy))

와 함께 그 외연이 확장되어 포스트드라마의 범주 안에서 논의 될 수 있다. 포스트드라마 연극에서는 텍스트 중심의 극적 구조가 해체되며 이미지, 소리, 움직임과 같이 비언어적 요소들이 부상하게 된다. 이는 또한 비선형적 서사 전개에 기반이 되어 텍스트에 주어진 극행동이 뒤로 물러나고, 무대 위 고유의 공간성과 시간성이 부각되며 물질성과 분위기가 제시되는 현상을 만들어 낸다.⁷⁾ 이러한 변화는 연극이 미디어와 결합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포스트드라마 연극에서는 미디어를 ‘이용’하여 무대 위에서 새로운 연극적 언어를 구성하기도 하고 ‘영감’의 원천으로 사용하여, 연극 외 매체의 언어를 가져와 관객들에게 낯설고 익숙함을 동시에 경험하게 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미디어는 단순한 보조 수단을 넘어, 시공간의 확장과 가상적 현존의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연극 경험의 다층적 확장을 만들어냈다. 레만이 지적한 대로, “소통 테크놀러지가 보여주는 수학적 배열은 주체를 서로 분리하고 그 결과, 가깝고도 먼 것이 상관없게”⁸⁾ 미디어는 전통적 연극 형식을 넘어 새로운 형식의 장을 연극의 무대에 만들어냈다.

뉴미디어 씨어터는 포스트드라마의 특성을 계승하며 발전된 기술을 적극 수용하였다. 특히 인터넷은 상호작용적 데이터베이스의 역할뿐만 아니라 퍼포먼스 협업과 배포의 매체로서 공연예술에 큰 영향을 미쳤다. 컴퓨터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적 역량은 실시간 즉흥 공연부터 글로벌한 그룹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창의성의 공유와 협업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은 물질성 기반의 퍼포먼스 미학에 도전하고 있다. 이제 컴퓨터는 퍼포먼스의 중요한 창작 수단이자 수행자로 자리 잡았으며, 커뮤니케이션, 시나리오, 연기, 시각예술, 과학, 디자인, 연극, 비디

7) 한스-티즈 레만 저, 김기란 역, 앞의 책, 140쪽.

8) 한스-티즈 레만 저, 김기란 역, 앞의 책, 435쪽.

오, 퍼포먼스 아트 간의 전통적인 경계를 흐리게 만들고 있다.⁹⁾ 이러한 뉴미디어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뉴미디어 씨어터는 ‘디지털 퍼포먼스(Digital Performance)’, ‘인터미디어 연극(Intermedia Theatre)’, ‘멀티미디어 연극(Multimedia Theatre)’과 같은 용어들로 지칭되며 전통적 공연 형식을 확장시키고 있다. 위와 같은 등장 배경에 따라 본고에서는 뉴미디어 씨어터를 기술 발전에 따른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만들어진, 전통적 연극에 디지털과 인터랙티브 미디어 기술을 융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공연예술 장르로 규정하고자 한다.

연극은 행위자(배우)와 관객이 같은 시공간에 공존한다. 이는 곧 연극 고유의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전제조건이며 살아있는(live) 소통과 함께 순간성과 일회성, 현재성을 강조한다. 또한 연극은 동시에 허구성의 공존 하에 존재한다. 현실에서 벗어나 가공의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배우의 연기 방식과 관객의 수용방식 모두 현실과 가상의 이중성을 인식함을 전제한다. 더불어 신체와 소리, 빛, 음악 등을 활용해 기호를 만들어내고 이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기호언어로 소통하는 특징을 가진다.¹⁰⁾ 뉴미디어 씨어터는 이처럼 디지털 기술, 네트워크, 인터랙티브 미디어 등과 같은 미디어 미학과 현장성, 즉흥성, 일회성과 같은 연극의 특성이 결합된 공연 형식을 구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어지는 3장과 4장에서는 플루서와 마노비치의 이론을 고찰하고, 이를 적용하여 뉴미디어 씨어터의 미학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3. 빌렘 플루서의 코드와 기술이미지

체코 출신 철학자이자 미디어 이론가인 플루서는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9) 스티브 덕슨 저, 주경란 외 공역, 『디지털 퍼포먼스』, 칼라박스, 2022, 11쪽.

10) 김형기, 「연극성 개념의 변형과 확장」, 『한국연극학』 23호, 한국연극학회, 2004, 273- 275쪽 참조.

과 사진 철학, 기술이미지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커뮤니케이션의 역사를 그림(image)-문자(text)-기술그림(technical image)의 코드(code) 변천과정으로 정의하여 설명하고, 기술이미지에 대한 지각과 사유 방식의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절에서는 플루서의 코드이론과 그것의 각 시기별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고, 뉴미디어 시대를 연 기술이미지에 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커뮤니케이션과 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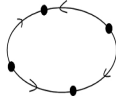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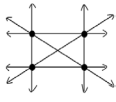
플루서는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인 ‘코무니콜로지(Kommunikologie)’를 통해 문화를 구성하고 사회를 조직하는 작동 원리를 설명한다. 플루서에게 인간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의 코드는 자연의 발생학적, 유전학적 코드와는 다른 것으로써 의미 생성과 전달이라는 인위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인간의 음성 언어와 신체 언어, 그 밖의 사회와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소통의 도구와 방식이 코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¹¹⁾ 문화적 맥락과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의미가 재정립된 코드는 인간이 소통하고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완성을 코드화된 세계를 통해 이뤄낸다면 이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보의 생산과 저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플루서는 대화적(dialogisch) 커뮤니케이션과 담론적(diskursiv) 커뮤니케이션 형식을 제안한다. 대화적 커뮤니케이션은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로, 취합된 정보를 합성함으로써 정보 생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형식이다. 반면 담론적 커뮤니케이션은¹²⁾ 정보를 분배하여 자연의 엔트로피

11) 빌렘 플루서 저, 김성재 역, 『코무니콜로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9-10쪽.
 12) 플루서는 열역학 제2 법칙의 엔트로피 개념을 통해 인간은 인위적 코드를 생산하여 자연적 무질서와 소멸로 향하는 것을 막는 반자연적 경향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한다. 그의 인간 커뮤니케이션은 이 엔트로피에 대응하기 위한 인위적·의도적 행위로 볼 수 있다.

적 작용으로부터 정보를 보존하는 목적을 가진다.¹³⁾ 대화와 담론은 형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서로 독립된 개념이나 우열의 존재가 아닌 상호적 관계로 존재한다.

[표 1] 대화 종류¹⁴⁾

구 분	원형 대화	망형 대화
구조		
참여 주체	제한된 인원, 순환적 발화	다수, 다차원적 연결과 발화
정보 교류 방식	순차적, 단계적이고 집중적	동시다발적 교환, 분산적 정보교환
특징	폐쇄성, 합의, 협동적, 집중	개방적, 역동적, 복잡성, 불예측성
예시	위원회, 실험실, 회의, 의회 등	잡담, 수다, 욕설, 소문의 확산, 우편, 전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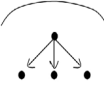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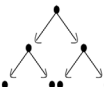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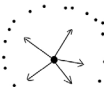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원형 대화는 한정된 참여자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합의에 도달하는 형식으로, 민주적이지만 인원이 많아질수록 운영이 쉽지 않고 성과가 떨어질 수 있다. 반면, 망형 대화는 동시다발적 정보 교환으로 풍부한 아이디어와 집단적 기억을 만들어낼 수 있으나, 갈등 조정이나 체계적 합의가 어려운 단점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는 인간이 완성한 모든 정보를 수용하여 새로운 정보가 스스로 생성될 수 있도록 기능하며 이른바 여론을 형성한다.¹⁵⁾

13) 빌렘 플루서 저, 김성재 역, 위의 책, 19쪽.

14) 빌렘 플루서 저, 김성재 역, 위의 책, 32-37쪽.

15) 빌렘 플루서 저, 김성재 역, 앞의 책, 35쪽.

[표 2] 담론 종류¹⁶⁾

구 분	극장형 담론	피라미드형 담론	나무형 담론	원형극장형 담론
구조				
참여 주체	발화자, 청중	권위자 수신자	중개 채널, 다단계 협업	송신자(프로그램), 수신자(대중)
정보 교류 방식	집중적 일방적	위계적	병렬 재조합	개방적 분배
특징	높은 집중도	권위강화 높은 충실성	높은 확장성 높은 엔트로피	무경계성 대중 매체적
예시	극장, 교실 콘서트홀 등	군대, 교회 관료제 등	포럼 다단계네트워크 등	신문, TV, 인터넷 등

극장형 담론의 구조를 보면 상단부터 벽, 송신자, 채널, 수신자로 이루어져 있다. 오목한 벽으로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있는 구조에서 송신자는 수신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높은 집중도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수신자는 수동적 위치에 서게 되면서 송·수신자간의 위계가 고착화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피라미드형 담론은 최상단에 위치한 송신자와 채널(화살표), 릴레이(중앙 점), 채널2(하단 화살표), 수신자(최 하단)의 도식으로 전개된다. 이 구조는 메시지의 충실함을 보존하기 위해 정보가 단계별로 재코드화 된다. 이는 통제를 목적으로 하며 메시지 원형을 충실히 보존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원형의 보존적 측면에서 탁월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소통이 단절되어 하부계층의 참여가 제한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나무형 담론은 최상단의 송신자 혹은 원천 정보, 채널(화살표), 대화(원형)의 도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발전적 특수화 경향’이라 불리는데, 원천 정보를 발전적으로 분해, 재코드화하여 새로운 정보를 계속해서 창조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폭발적인 정보 창출과 확장이 가능하고 다채로운 채널을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최종 수신자가 부재하고 폐쇄성이

16) 빌렘 플루서 저, 김성재 역, 앞의 책, 23-29쪽.

강화되어 접근이 어려운 코드로 재코드화된다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극장형 담론의 완성으로 간주되는 원형극장형 담론은 중앙의 송신자와 주변 수신자로 구성되어 있다. 무경계, 무구조, 무방향성을 지닌 이 구조는 보편성에 가깝고 간단하고 획일화된 코드를 통해 정보를 송출한다. 나무형 담론의 폐쇄성이 극복되고 정보가 영원히 보존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방향성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수신자가 수동적 저장소 역할에 머무를 수 있다는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¹⁷⁾

플루서는 두 가지 소통 형식인 대화와 담화의 구별을 통해 그 매체 구분의 연관성을 추출하였다.¹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화와 담화의 구조들은 서로 관계를 맺으며 동시대 문화를 구성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코드로 존재한다.

2) 그림에서 기술이미지로

플루서의 기술이미지는 단순히 사진이나 영상 매체가 아닌 도구(기계), 소프트웨어적 코드를 통해 생산되고 전달되는 새로운 감각이다. 그는 인류 문명사를 코드의 역사로 규정하였으며, 코드의 변천에 따라 구분한다.¹⁹⁾

라코스 벽화에서 시작된 전통적 이미지는 4차원의 존재들을 2차원으로 축소하였고, 해석의 요체는 ‘상상력’이다. 이는 4차원 시공간으로부터 2차원 평면을 추상화시키고, 다시 4차원으로 환원시켜 재투영시키는 능력이다.²⁰⁾ 그림의 의미는 시각을 통해 분석된다. 시각을 통해 그림을 훑어보는 스캐닝 과정은 그림의 의도와 관찰자의 의도가 종합되어 이루어진다. 그림

17) 빌렘 플루서 저, 김성재 역, 앞의 책, 23-31쪽.

18) 올리버 비들로 저, 양우석 역, 『빌렘 플루서의 미디어 철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020, 133쪽.

19) 박상우, 「빌렘 플루서의 이미지와 문자 코드론」, 『미학』 86권 1호, 한국미학회, 2020, 43쪽.

20) 빌렘 플루서 저, 윤종석 역, 앞의 책, 1쪽.

은 “숫자와 같은 외연적[일의적]인 상징복합체가 아니라, 내포적[다의적]인 상징복합체이다.”²¹⁾ 그림은 끊임없이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플루서는 이 무한한 해석 가능성을 니체의 ‘영겁회귀(eternal recurrence)’ 개념을 빌려 ‘마술의 시간’이라 칭한다. 그러나 이처럼 반복되는 마술적 시간이 오히려 인간과 세계를 매개해야 할 그림을 의미 왜곡 또는 단절의 도구로 바꿔 놓게 되고, 그림을 곧 세상 자체로 인식하는 그림 숭배 현상을 야기한다. 이는 그림 뒤에 감춰진 근원적 의도를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문자라는 새로운 상징 체계를 만들어내고 문자의 시기로 넘어가는 기폭제가 된다.

문자의 발명은 “마술의 순환적 시간을 역사의 선형적 시간으로 코드 변환”²²⁾시켰다. 그림이 구현하는 동시화(同時化)와 상상이 한눈에 직관적인 시각 정보를 통합하고 자유로운 해석을 펼치도록 유도한 것에 비해 문자는 통시화(通時化)와 구상의 과정을 통해 정보를 선형적으로 전개하며 구체적이고 논리적 의미를 확립하게 되었다. 해석과 소통이 문자를 매개로 이뤄지면서 인간은 실제 사물이나 현상보다는 글로 표현된 표상에 더 의존하게 되고, 이는 원래 그림이 지니던 즉각적 현실감과 시각적 풍부함을 희생하는 결과를 낳았다. 문자가 메타코드 역할을 강화하면서 촉발된 문자 숭배 현상은 그림이 보유하던 직관적 상상력을 뒤로 밀어내며 언어적, 논리적 체계를 절대시하게 되었다. 19세기 문자숭배로 촉발된 문자에 대한 비판은 기술이미지의 등장과 함께 가속화되었다.

기술이미지는 “장치를 이용해 만들어진 그림”²³⁾으로 사진, 영화, 컴퓨터 이미지 등을 포괄하며 문자 지배하에 있던 역사시기를 끝내고 탈 역사

21) 빌렘 플루서 저, 윤종석 역, 앞의 책, 2쪽.

22) 빌렘 플루서 저, 윤종석 역, 앞의 책, 6쪽.

23) 빌렘 플루서 저, 윤종석 역, 앞의 책, 10쪽.

시기라 불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다.

문자의 메타코드인 과학적 텍스트가 결합되어 탄생한 기술이미지는 그림처럼 직관적이고 즉각적인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코드와 알고리즘에 의해 이미 기호화된 세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해독 난이도를 높인다. 다시 말해, 사진이나 영화, 컴퓨터 이미지를 창문처럼 투명한 것으로 인식하기 쉽지만, 그것은 “바깥에 있는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를 의미”²⁴⁾하는 것으로, 그 뒤에는 과학적 텍스트가 프로그램화한 일련의 기호 변환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를 해석하기 위해 인간은 기술 장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전과는 다른 ‘기술적 상상’이 요구된다. 기술적 상상은 “개념에서 그림을 만들고, 그러한 그림들을 개념의 상징으로 해독할 수 있는 능력”²⁵⁾을 의미한다. 특히 컴퓨터의 등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술그림의 시기에서 플루서는 인간이 프로그램을 지배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식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로그램화된 이미지의 숨겨진 논리를 파악하고, 이를 비판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기술그림 시기의 인간에게 요구되는 핵심적 역량이기 때문이다.

4. 레프 마노비치의 뉴미디어

러시아 출신의 미디어 이론가이자 디지털 문화 연구자인 레프 마노비치는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 낸 뉴미디어의 특징과 작동 원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왔다. 그는 『뉴미디어의 언어』와 『소프트웨어가 명령한다』 등을 통해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정보 생산과 소비 방식의 전환을 기술하고, 소프트웨어가 현대 문화의 핵심 매개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역설한다. 본 절에

24) 빌렘 플루서 저, 윤종석 역, 앞의 책, 13쪽.

25) 빌렘 플루서 저, 김성재 역, 앞의 책, 226쪽.

서는 마노비치가 제시한 뉴미디어의 다섯 가지 핵심 특성을 살펴보고, 소프트웨어 문화와 인터페이스 개념을 중심으로 뉴미디어 시대의 창작과 수용 방식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뉴미디어의 5가지 원리

마노비치는 뉴미디어의 시초를 계산 기술과 미디어 기술 발달의 궤도가 하나로 합쳐진 것이라 이야기한다.²⁶⁾ 과거 컴퓨터와 미디어 기술은 독립적인 경로를 따라 발전해 왔다. 찰스 배비지(Charles Babbage)의 ‘해석기관(Analytical Engine)’에서 시작해 알런 튜링(Alan Turing)의 ‘튜링 기계(Turing Machine)’, 콘라드 추제(Konrad Zuse)의 컴퓨터 개발로 이어진 계산 기술의 역사는 초기에는 데이터 연산과 처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한편, 루이 다게르(Louis Daguerre)의 ‘다게레오타이프(daguerreotype)’에서 출발한 사진술이 발전하며, 뤼미에르 형제(Lumière Brothers)의 ‘시네마토그래프(Cinématographe)’를 통해 영상 미디어가 형성되었다. 본래 별개의 발전 경로를 가지고 있던 이 두 가지 기술이 융합되면서 “모든 그래픽, 동영상, 사운드, 형태, 공간 그리고 텍스트가 계측 가능한 컴퓨터 데이터의 단순 집합”²⁷⁾이 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니라 미디어와 컴퓨터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다. 과거 단순 계산 도구였던 컴퓨터는 이제 미디어를 창작하고 조작하는 도구로 변모했으며, 반대로 전통적인 미디어는 디지털 환경에서 더욱 유연한 속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는 곧 뉴미디어가 되었다.²⁸⁾ 뉴미디어는 단순히 미디어와 컴퓨터의 결합이 아니라, 수적 재현(Numerical Representation)을 통한 데이터 변환, 모듈성(Modularity), 자

26) 레프 마노비치 저, 서정신 역, 『뉴미디어의 언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26쪽.

27) 레프 마노비치 저, 서정신 역, 위의 책, 34쪽.

28) 레프 마노비치 저, 서정신 역, 앞의 책, 32-35쪽.

동화(Automation), 가변성(Variability), 부호 변환(Transcoding)의 특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개념이다. 이러한 특성들은 현대 미디어 환경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

마노비치가 제안한 뉴미디어의 원리 중 첫째 수적 재현은 뉴미디어의 모든 객체가 수학적 형식으로 표현되고 연산에 의해 조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아날로그 사진이 디지털로 변환될 때 스캐닝²⁹⁾ 및 샘플링 과정을 거쳐 픽셀 단위의 데이터로 변환되고, 각각의 픽셀은 RGB 값으로 저장되어 나타나게 된다. 기존의 미디어의 연속적인 데이터를 수적 재현으로 전환하여 분절화 시키는 이른바 디지털화(digitization)을 거치며 프로그래밍 되는 것이다.³⁰⁾

둘째 모듈성의 원리는 개별 미디어 요소들이 서로 결합이나 수정을 거치더라도, 각각 독립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노비치는 영화, 마이크로 오피스 응용프로그램, HTML 문서, 웹사이트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이미지, 음향, 텍스트, 링크와 같은 객체들은 모듈로 구성되며 수정, 삭제, 추가 등이 쉽게 이루어져 전통적 미디어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징을 보여준다.³¹⁾

셋째 자동화는 앞서 개념을 기술한 수적 재현과 모듈성을 통해 인간이 해야 할 작업들이 자동화 과정을 통해 간소화된다는 개념이다. 템플릿과 간단한 알고리즘을 활용한 객체의 생산이나 수정을 해내는 이른바 ‘낮은 단계’의 자동화부터 AI를 활용해 새로운 인터페이스 환경을 만들어내는 ‘높은 단계’의 자동화까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기술은 미디어 제작

29) 텔레비전이나 사진 전송에서 화면을 여러 개의 점으로 세분하고 그 점을 전기 신호로 바꾸는 일, 또는 이 전기신호에서 점을 조립하여 화면을 재구성 하는 일. (출처: 국립국어원)

30) 레프 마노비치 저, 서정신 역, 앞의 책, 35-36쪽.

31) 레프 마노비치 저, 서정신 역, 앞의 책, 39-41쪽.

의 생산과 편집방식을 다양화했다.³²⁾ 미디어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미디어 접근(media access)분야에까지 자동화가 적용되고 있다. 20세기 말에 이르러 뉴미디어 객체의 제작 방식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미 어딘가에 존재하는 객체들을 어떻게 찾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³³⁾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많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객체들을 자동화하는 단계까지 오게 된 것이다.

네 번째 가변성은 자동화와 마찬가지로 수적 재현과 모듈성을 통해 뉴미디어 객체가 “서로 다른 무한한 판본으로 존재”³⁴⁾하는 특징을 의미한다. 전통적 미디어가 원본으로부터 동일하게 복사본으로 만들어져 물리적 동일성을 가지는 것과 달리, 뉴미디어 객체는 컴퓨터를 활용해 서로 다른 판본을 형성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가변성은 자동화와 관련이 있다. 이는 곧 수적 재현과 모듈성을 통해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파일이 자동화를 통해 자유롭게 수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통적 미디어의 객체가 고정되어 있어 수정이 어려운 것과 달리 디지털로 저장되어 있는 뉴미디어 객체들은 서로 필요한 요소에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³⁵⁾ 이는 영화라는 하나의 원천콘텐츠가 게임이나 웹툰 등과 같은 다른 콘텐츠로 재생산되는 트랜스미디어의 원리가 될 수 있으며 문화적 객체로의 판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부호 변환은 컴퓨터에 의해 생산, 유포, 저장되는 컴퓨터의 논리가 전통적인 문화의 논리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으로, “컴퓨터 층위가 문화적 층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³⁶⁾을 의미한다. 백과사전, 소설, 이야기,

32) 레프 마노비치 저, 서정신 역, 앞의 책, 42-43쪽.

33) 레프 마노비치 저, 서정신 역, 앞의 책, 47쪽.

34) 레프 마노비치 저, 서정신 역, 앞의 책, 48쪽.

35) 레프 마노비치 저, 서정신 역, 앞의 책, 48쪽.

36) 레프 마노비치 저, 서정신 역, 앞의 책, 62쪽.

모방과 카타르시스, 희극과 비극 등의 문화적 층위는 데이터 패킷, 함수, 변수, 컴퓨터 언어, 데이터 구조와 같은 컴퓨터 층위와 서로 영향을 받으며³⁷⁾ 인간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재편하는 것이다. 즉 컴퓨터는 프로그램들의 사용과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와 같이 기술과 인간 문화와의 상호작용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으며 융합적 속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소통 방식에 대한 해석을 가능케 한다.

[표 3] 뉴미디어의 5가지 원리³⁸⁾

원리	개념	예시
수적 재현	미디어 객체가 디지털 데이터 숫자(0,1)로 환원	디지털 사진, 영상 포토샵 등 편집 프로그램
모듈성	미디어 객체가 독립된 모듈 단위로 존재	HTML 문서, 웹페이지
자동화	알고리즘, 소프트웨어가 작업을 자동화함	각종 소프트웨어 스마트 기기 어플(사진보정 등)
가변성	디지털 데이터의 수정과 변환 상호작용에 용이함	하이퍼미디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부호 변환	컴퓨터 층위와 문화적 층위의 융합	SNS의 코드 (기술과 문화적 코드의 결합)

컴퓨터의 등장으로 인해 문화는 빠르게 컴퓨터화 되었으며, 새로운 문화 형식을 만들어낸 뿐 아니라 기존의 문화를 이루는 미디어의 형식들도 재규정했다.³⁹⁾ 특히 뉴미디어의 5가지 원리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 달라진 환경을 이해하는 주요한 요소이며 적합한 적용을 통해 뉴미디어 시대 콘텐츠 생산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2) 소프트웨어 문화와 인터페이스

컴퓨터화를 통해 새롭게 형성된 문화는 하드웨어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이후 소프트웨어의 혁신이 더욱 큰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소프

37) 레프 마노비치 저, 서정신 역, 앞의 책, 62쪽.

38) 레프 마노비치 저, 서정신 역, 앞의 책, 35-65쪽.

39) 레프 마노비치 저, 서정신 역, 앞의 책, 11쪽.

트웨어는 이제 세계, 타자, 기억, 상상력과 접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작동하며, 세계가 소통하는 공용 언어이자 변화의 핵심 동력이 되었다. 20세기 초 전기와 엔진이 중요한 기술적 요소였다면, 21세기 초에는 소프트웨어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⁴⁰⁾ 실제 소프트웨어는 오늘날 문화 생산과 소비, 더 나아가 실생활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어도비(Adobe)의 포토샵(Ps), 프리미어(Pr), 오토데스크(AUTODESK)의 마야(Maya), 애플(Apple)의 파이널컷 프로(Final Cut Pro), 로직 프로(Logic Pro)와 같은 소프트웨어들은 이미지 편집, 3D 제작, 동영상, 음악 편집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들로 기존의 예술, 디자인, 영화 등 전통 매체의 제작과 편집 방식을 급격히 재편했다. 또한 스마트폰의 탄생과 사용은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의 작동, 즉 IOS 플랫폼과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활용을 통해 일상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 마노비치는 소프트웨어가 현대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여 하나의 층위를 이루고 있으며, 현대 기술과 문화를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필수적 요소⁴¹⁾라고 주장한다. 특히 문화적 측면에서 고찰을 하였는데, 아래 표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문화적 행위의 범주를 정리한 것이다.

[표 4]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문화적 행위의 범주⁴²⁾

항목	개념
문화적 인공물, 서비스 생산	예술적, 심미적 가치를 담은 미디어(그림, 음악, 영상, 인터랙티브 콘텐츠 등)와, 이를 활용한 대화형 서비스(앱, 플랫폼 등)를 창작, 개발하는 행위.

40) 레프 마노비치 저, 이재현 역, 『소프트웨어가 명령한다』,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2쪽.

41) 레프 마노비치 저, 이재현 역, 위의 책, 20쪽.

42) 레프 마노비치 저, 이재현 역, 위의 책, 30쪽.

온라인 접근, 첨부, 공유, 리믹스	이미 존재하는 인공물(또는 그 일부)을 온라인상에서 찾아보고, 첨부, 공유, 리믹스(remix), 재편집(edit)하여 새로운 형태로 재생산하는 활동.
정보와 지식 생성 및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다수 사용자가 협업, 집단지성 형태로 콘텐츠(정보, 지식 등)를 생산하고, 이를 온라인에서 공개, 교환하는 과정.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전자우편(이메일), 메신저, IP기반 음성, 화상통화, SNS의 담벼락, 이벤트, 사진 태그 등 다양한 온라인 기능을 사용해 타인과 소통하는 일.
상호작용적 문화 체험	게임, 인터랙티브 퍼포먼스, 온라인 참여 플랫폼 등을 통해 직접 상호작용하며 문화적 경험에 참여하는 행위.
선호 표현 및 메타데이터 추가	온라인에서 ‘좋아요’, 평점, 태그 등으로 자신의 취향·의견을 드러내거나 추가 정보를 붙여, 데이터가 확장·재구조화되도록 돕는 활동.
소프트웨어 도구 및 서비스 개발	위의 모든 행위를 지원하는 도구, 플랫폼(소프트웨어)을 개발해, 문화적 인공물의 제작, 유통, 참여 방식을 혁신하는 과정.

또한 마노비치는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인 앨런 케이(Alan Kay)의 ‘메타 미디어(meta-medium)’ 개념을 제시하며, 컴퓨터가 단순한 미디어가 아니라 여러 미디어를 포함하고 변형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한다. 즉 컴퓨터의 활용은 기존 미디어 유형을 다룰 새로운 도구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발명되지 않은 새로운 미디어를 개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다.⁴³⁾ 마노비치는 이 개념을 디지털 소프트웨어의 관점에서 확장하여, 소프트웨어가 기존 미디어 형식을 결합하고 변형시키면서 ‘메타 미디어(meta-media)’가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현대적인 미디어는 소프트웨어 활용을 통해 경험되며, 제작, 편집, 리믹스, 조직화, 공유되는 것을 의미한다.⁴⁴⁾ 결국 디지털 미디어는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

혼종화(hybridization)는 미디어 진화의 과정 중에 생겨난 것으로, 서로 다른 미디어 형식이 융합되어 새로운 차원의 미디어 형식을 만들어내는

43) 레프 마노비치 저, 이재현 역, 앞의 책, 135쪽.

44) 레프 마노비치 저, 이재현 역, 앞의 책, 161쪽.

개념이다. 하지만 마노비치는 이를 멀티미디어와 혼동하는 것을 경계한다. 그에게 멀티미디어는 각기 다른 미디어가 병렬적으로 위치하여 작동하는 응용프로그램으로, 혼종화된 미디어와 비슷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다른 개념이다. 혼종물은 인터페이스와 기술들 그리고 다양한 미디어 형식과 전통적 개념들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미디어 게슈탈트를 만들어낸다. 이는 각기 다른 형식의 미디어를 경험하는 것과 달리 하나의 통합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⁴⁵⁾ 이러한 특성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를 만들어내며 지속적으로 변화를 촉진한다.

5. 뉴미디어 씨어터의 미학적 특성

앞서 살펴본 플루서와 마노비치의 이론은 뉴미디어 씨어터에서 뉴미디어와 디지털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미학적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는지를 짐작케한다. 플루서는 기술이미지가 형성하는 코드를 매개로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세계 인식이 전환된다고 보았다. 마노비치 또한 뉴미디어의 특성인 수직재현, 모듈성, 자동화, 가변성, 부호변환을 통해 디지털 환경이 변화시킨 예술 창작 형태와 경험 방식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뉴미디어 씨어터에 적용하면, 디지털 코드로 재설계된 공연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분석할 수 있으며, 모듈성과 자동화의 뉴미디어 특성이 서사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알고리즘과 자동화를 통해 인간의 창의성과 기계적 사고방식이 결합되는 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맥락을 구체화하기 위해 앞선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뉴미디어 씨어터의 미학적 특성을 서술할 것이다.

1) 기술이미지로 인한 연극적 커뮤니케이션의 확장

뉴미디어 씨어터에서 기술은 연극의 의미 형성과 소통방식을 변화시키

45) 레프 마노비치 저, 이재현 역, 앞의 책, 217쪽.

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무대에는 프로젝션 맵핑, 스크린과 모니터를 활용한 영상이 채워지고, 가상현실과 AI기술을 활용한 공연까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무대의 시노그래피를 구성하는 디지털 매체들은 보조적 장치가 아닌, 연극의 주된 의미 생성 및 소통 과정에 필수적 역할을 담당한다. 플루서의 기술이미지는 코드를 통해 생성 및 재생산되며, 이는 곧 연극이 고정된 의미와 서사를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넘어 유동적이고 상호작용적인 특징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뉴미디어 씨어터에서 퍼포먼스는 코드화되어 기술이미지의 해석과 변환의 매커니즘을 형성한다. 무대 위 배우의 움직임은 센서와 카메라를 통해 디지털 코드로 전환되고 이 코드는 컴퓨터를 통해 분석과 재조합을 거쳐 프로젝션 영상과 사운드로 나타난다.

〈비비런〉⁴⁶⁾은 국가무형문화재 제7호인 고성오광대 탈춤과 가상공간(VR) 기술을 융합하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공연이다. 작품의 배경은 2080년으로, 재난과 파괴에 의해 쓸모없는 행성이 되어 버려진 지구에 살고 있는 ‘비비’와 ‘비비런’, ‘말뚝이’ 등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공연에서 배우들은 관객과 분리된 공간에서 모션 캡처를 위한 바디 슈트를 착용하고 연기를 수행하고, 그 이미지는 실시간으로 관객들의 HMD(Heda Mounted Display) 기기에 캐릭터화되어 포착된다. 관객들은 연기의 과정을 디지털 화면으로 송출 받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가상현실에서 마치 게임을 즐기듯 체험하는 참여형 방식으로 관람한다.⁴⁷⁾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관객이 ‘지구 탐사대원’의 역할을 수행하며 공연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이는 탈춤

46) 2021.11.19.~12.12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진행.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메타버스 체험공연 [비비런], <https://www.youtube.com/watch?v=bQ3YuTqMBBc&t=1681s>, 2022.01.18.)

47) 주송현, 「메타버스 기반 탈춤공연의 구조적 특성과 의미」, 『우리춤과 과학기술』 19권 4호, 한양대학교 우리춤연구소, 2023, 17쪽.

이 가진 참여적 성격을 그대로 가상 세계에 적용시킨 것으로, 전통적 연극에서 나타난 물리적 환경의 신체적 공동현존이 가상의 캐릭터로 변환되어 인터랙티브한 관극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배우의 움직임이 코드화되고 이것이 관객의 확장된 감각으로 인지되면서 관객의 공연 수용방식에 변화가 일어난다. 관객은 디지털 변환 과정을 통해 변화된 영상과 사운드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닌, 공연의 과정 속에서 반응하고 개입하면서 기술이미지의 코드에 의미를 부여하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1] 장비 부착 배우⁴⁸⁾



[그림 2] HMD 착용 관객⁴⁹⁾

이처럼 기술이미지 코드를 기반으로 한 공연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기존의 배우와 관객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다. 기존의 전통적 연극의 단방향 소통은 뉴미디어 기술을 통해 관객, 배우, 기술이 순환되는 삼각형 구도로 전환된다. 그러나 뉴미디어 씨어터에서 관객은 기술장치(VR, HMD, 스마트폰 등)를 통해 공연에 정보를 입력하거나 시공간적 변화에 직접적인 반응 신호를 보낼 수 있게 되면서 공연의 공동 생산자적 역할을 수

48) 한재섭, “비비런, 꿈에서 깨지 말고 뛰어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 웹진>, 2020.12. (<https://www.acc.go.kr/webzine/index.do?article=601&lang=ko>)

49) 황지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메타버스 체험 ‘비비런’ 오프라인 공연 마무리”, <세계비즈>, 2022.01.24.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8151>)

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플루서의 이론에 비추어 볼 때, 극장형 담론구조였던 연극의 위치가 새롭게 해석되고 확장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극장형 담론구조 매체인 전통적 연극에서도 아우와 환호와 같은 대화적 요소는 존재한다. 다만, 이는 진정한 대화라고 볼 수 없으며 대부분의 정보는 배우에서 관객으로의 일방적 이동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극장형 담론은 직접적으로 응답을 요구하지 않기에,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⁵⁰⁾ 반면, 뉴미디어 씨어터에서 관객참여 형태의 변화는 연극을 망형 대화구조로 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향상된 상호작용과 책임감 있는 참여는 연극 매체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배우는 디지털 인터페이스, 소셜미디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전달된 관객의 피드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이 과정에서 공연 전체의 흐름은 배우와 관객이 함께 만들어가게 된다. 이는 전통적 연극에서 희곡의 사실적 재현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배우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했던 구조에서, 관객-배우-디지털 기술의 상호작용을 통해 텍스트와 장면을 생성하는 망형 대화구조로의 확장을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전환은 공연의 의미 생성과 서사 전개에 관객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공동 창작의 형태를 띤다. 더불어, 기술이미지에 기반한 시청각적 변환 과정은 배우의 신체와 관객의 감각을 가상공간 속에서 결합함으로써, 육체적 현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확장된 커뮤니케이션을 구현한다. 이렇듯 뉴미디어 씨어터는 디지털 환경의 코드와 기술 장치를 바탕으로, 연극의 소통방식을 새롭게 정의하며, 관객을 적극적인 참여자이자 협력적 창조자로 전환시켜 새로운 무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50) 빌렘 플루서 저, 김성재 역, 앞의 책, 299-300쪽.

2) 모듈성과 가변성을 통한 서사의 변화

뉴미디어 씨어터에서 모듈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노비치가 비유한 프랙탈(fractal)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프랙탈은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어도 그 부분 안에 전체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으로, 자기 유사성과 순환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한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이미지, 음향, 텍스트와 같은 각기 다른 미디어 요소들은 분리되어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 결합되거나 해체될 수 있다. 뉴미디어 씨어터를 구성하는 요소들인 영상과 프로젝션, 디지털 음향, 인터랙티브 장치, 데이터, 가상현실 혹은 증강현실 장치, 디지털 조명기와 같은 여러 이질적 매체들을 모듈성을 통해 유연하게 조작함으로써 통합된 무대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전통적 연극에서 소품이나 무대 세트, 조명기, 음향장비 등은 한 번 세팅되면 변경이 힘들었으나,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기술은 프로그램 코드 변경, 미디어 파일 교체 등으로 실시간으로 재편하고 능동적 구성에 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무대 구성요소의 모듈성은 전통적 드라마 연극의 선형적이고 연속적인 구조 대신, 파편화된 에피소드의 재조합 형태를 통해 비선형적이며 파편화된 구조화를 적극 지지한다.

로베르 르파주의 <바늘과 아편>⁵¹⁾은 큐브 형태의 회전무대와 영상기술을 활용해 공간과 서사의 유동적 변형 구조를 가진다. 극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의 중첩과 병렬적 장면구성은 콕토와 데이비스의 삶의 교차를 나타내며, 비선형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을 표현한다. 또한 스크린 속 영상과 배우 움직임의 결합을 통해 현실과 환상의 뒤섞임을 보여주며 관객은 고정된 서사 대신 파편적 조각들을 연결하여 의미를 구성한다. 이처럼 뉴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공연은 전통적 서사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연극적 형식을 구축한다.

51) 1991년 초연, 한국에서는 2015. 9.17~19. LG 아트센터에서 공연되었다.

한편, 모듈성을 통해 구현되는 가변성은 뉴미디어 씨어터에서 다양한 콘텐츠의 조합 및 변형 형태로 형상화된다. 다매체 환경과 함께 등장한 장소특정적 연극(Site-Specific Theatre)⁵²⁾은 인터랙티브 미디어와 GPS기반 기술이 적용되면서 공연의 구조와 서사의 유동적 변화를 이끌게 내었다. <거리에서(En route)>는 호주 멜버른의 원 스텝 앳 어 타임 라이크 디스(one step at a time like this)⁵³⁾가 제작한 도보를 기반으로 한 이동형 작품이다.

En Route는 보행자 기반의 모바일 작품으로,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상상과 구체가 교차하고 중첩되는 도시에 대한 러브송입니다. 오디오, 휴대폰 통신, 도시의 거리 풍경, 걷기, 행인, 카페를 사용하여 en route는 참가자들을 도시의 큰길과 뒷골목을 통해 안팎으로 여행하는 여정으로 초대합니다. 내러티브, 사색, 소리, 노래, 대화, 철학 등 길 안내, 설명, 오디오가 참가자의 방향, 관찰, (발견한) 경험과 얹혀 도시와 자신, 타인을 다양한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장을 열어줍니다. 지나가는 행인, 거리, 골목, 건물, 쓰레기의 자발적인 안무는 참가자가 자신의 내러티브와 의미를 투영하는 장소가 됩니다.

여행자이자 목격자, 관음증자인 참가자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를 지각하고 통찰하고 감각하며 만들고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생겨나고 해체되는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보는 도시를 만나보세요. 엔 루트는 거주하고 있는 각 도시를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으며 전 세계 11개 도시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⁵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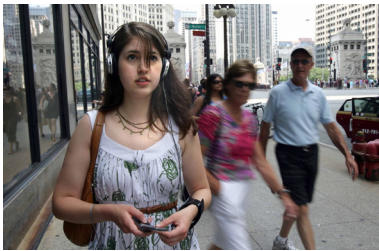
<거리에서(En route)>는 소개 문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오디오 트랙과 휴대전화를 주된 매체로 활용하여 관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실행한다.

52) 장소특정적 연극은 일상공간을 보행하며 진행되는 형식으로, 특정한 공간과 관계를 맺으며 그 장소의 역사, 문화,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는 포스트드라마의 범주 안에 있는 장르이다.

53) 호주 멜버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그룹으로, 장소 기반 및 공간에 집중하며, 관객참여형 공연을 제작하는 그룹이다. 이들은 일상을 디지털 요소와 결합하고,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허물며 '관객, 장소, 상호연결성'을 핵심 키워드로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 (one step at a time like this-홈페이지 공연 소개, <https://onestepatatimelikehis.com/about/>)

54) one step at a time like this-홈페이지 공연 소개, <https://onestepatatimelikehis.com/about/>

관객은 사운드, 내레이션, 텍스트 메시지, 실시간 지시 등을 통해 도시 환경과의 서사적 층위를 연결한다. 본 공연의 형식적 측면에서 공간적, 서사적, 관객 경험적 가변성을 파악할 수 있다. 도시의 거리와 특정 장소들을 활용한 공간은 관객의 이동에 따라 무대를 변화시키며 전통적 연극 개념의 극장을 탈피하는 역할을 하고, 개별적 걷기와 커뮤니케이션은 기승전결의 전통적 서사구조를 해체한다. 이를 바탕으로 관객은 수동적인 관극을 넘어 공연의 일부로서, 공간과 매체를 통해 상호작용하며 개별적 의미를 창출하게 된다.



[그림 3] 관극 장면⁵⁵⁾



[그림 4] 관극 방법⁵⁶⁾

이와 같이 디지털 미디어의 모듈성과 가변성은 전통적 연극의 고정된 공간과 희곡 중심적인 틀을 해체하고 실시간 변화와 유동적 서사라는 새로운 공연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뉴미디어 씨어터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은 가변적 무대를 만드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서사 창출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프로그램화 된 여러 뉴미디어 객체들은 계속해서 업데이트와 재설정 과정을 거친다는 점이다. 이는 공연을 열린구조로 이끌고, 새로운 조합을 통해 공연의 일회성을 부각한다. 뉴미디어 기술의 유연함은 무대와 관객이 함께 만들어내는 현장성과

55) one step at a time like this, <https://onestepatatimelikethis.com/project/en-route/>

56) one step at a time like this, <https://onestepatatimelikethis.com/project/en-route/>

일회적 특성을 훼손하기보다 새로운 형태로 진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뉴미디어 씨어터의 모듈성과 가변성은 전통적 서사 구조의 해체를 넘어, 연극 전개 과정을 관객, 장소, 기술 장치의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재형성되는 장으로 만든다. 이는 곧 예측 불가능한 일회성을 연극의 주요 요소로 자리매김하게 하며, 뉴미디어 씨어터가 자유로운 조합과 즉흥적 참여를 통해 관객에게 개별적이고 독특한 서사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뉴미디어 씨어터의 모듈성과 가변성은 고유의 연극성을 해치는 것이 아닌 기술 기반의 조합을 통해 그것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3) 프로그래밍 된 무대와 자동화

연극성과 디지털적 특성의 결합을 통한 뉴미디어 씨어터의 열린 구조는 프로그램의 활용으로 야기되는 알고리즘과 자동화로 귀결된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다. 소프트웨어는 조명, 음향, 영상 등 무대를 구성하는 여러 매체를 프로그래밍된 규칙과 데이터의 결합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환시키고 시청각적 요소를 재구성한다. 전통적 연극에서 무대 전환, 조명, 음향과 같은 기술적 요소들은 전문 감독 혹은 스태프에 의해 수동적으로 전환되어왔으나, 뉴미디어 씨어터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을 통해 데이터 입력에 따라 자동화된다. 이와 같은 자동화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객의 피드백 혹은 즉흥적 상황에 맞춰 변화한다. 그런데 소프트웨어의 활용은 단순 기술이나 자동화를 통한 조작의 편의적 측면보다 일종의 공연의 공동 창작자로 부상하는 미학적 경험의 근본적 변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예술과 알고리즘의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제네러티브 아트(Generative Art)와 연결지어 확장시켜 볼 수 있다. 제네러티브 아트는 정해진 규칙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작동하며, 우연적인 결과물을 생성하는 예술형태를 의미한다. 생성예술 또는 발생예술이라고도 불리는 이 개념은 순차적인 규칙 과정으로 자동적 결과를 만들어

내며 예측 불가능하게 작동한다.⁵⁷⁾ 이러한 특성은 뉴미디어 씨어터에서 공연 중 실시간으로 변하는 시각적 요소나 인터랙티브한 연출 방식과 결합되어, 연극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다. 공연에서 알고리즘화된 코드는 창작자의 협업 대상자가 되며, 관객의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또 다른 배우의 역할로 보일 수 있다.

<파포스 2.0>⁵⁸⁾은 시(詩) 쓰는 AI 언어 모델 KoGPT를 기반으로 만든 공연이다. 연출가 김제민과 소설가 김태용 그리고 ‘시아’라는 이름의 ChatGPT가 참여한 공연은 예술과 기술이 어우러진 인공지능 시극이다. 시아는 AI로 추출된 목소리로 출연하며 인간 퍼포머들과 함께 공연을 이끌어간다. 관객들 또한 시아가 실시간으로 생성한 시를 함께 낭독하고, 음악의 하모니를 만들며 창작의 주체로의 전환을 경험하게 된다.⁵⁹⁾



[그림 5] 공연 장면⁶⁰⁾

대본 공동창작 과정	1. 시, 극장, 속각 등의 주제를 바탕으로 전체 골격을 구성합니다. 2. 주제어에서 파생된 키워드를 도출하고, 시제를 선정합니다. 3. 선정된 시제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시아가 시를 생성합니다. 4. 생성된 시를 활용하여 전체 골격을 재구성하고, 문장을 보완합니다. 5. ChatGPT를 이용해 대본의 일부 문장과 단락을 문맥합니다. 6. 3번과 4번 과정을 반복해서 작업합니다. 7. 연습과정을 거쳐 공연대본을 완성합니다.

[그림 6] 프로그램 문구⁶¹⁾

기계는 의식이 없기에 창의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

57) 김동욱·최정화, 「제너러티브 아트(Generative Art)의 시각적 속성이 반영된 패션디자언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41권 5호, 한국의류학회, 2017, 825-826쪽.

58) 2023. 08.10 ~13. 서울 종로구 ‘인사동 코트’에서 공연.

59) 임효정, “인공지능 시극 ‘파포스2.0’, 8월 개막... AI와 대본 공동창작”, <문화뉴스>, 2023.07.26.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8151>)

60) 미디어아트그룹 Slitscope 블로그, <https://blog.naver.com/slitscope>, 2025.03.04

61) 미디어아트그룹 Slitscope 블로그, <https://blog.naver.com/slitscope>, 2025.03.04

나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계는 인간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형식처리 도구로 사용되며 인간의 창의적 행위에 가속과 증강을 도왔고,⁶²⁾ 오늘날에는 생성형 AI와 같은 기술의 등장을 통해 인간이 예측하기 힘든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다. 위 공연에 등장한 생성형 AI의 목소리와 시 작성 행위의 시각화는 프로그래밍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업데이트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관객은 AI가 추출한 텍스트를 낭독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작품 속 공동 창작자로 존재하는 모습을 보인다. <파포스2.0>의 구성은 앞서 논의한 알고리즘과 자동화가 뉴미디어 씨어터의 구성요소로 작동하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더욱이 창작의 주체가 연출가와 배우에서 관객과 AI로까지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각적, 미학적 효과를 창출한다. 이처럼 뉴미디어 씨어터에서 알고리즘과 자동화는 결과보다는 과정이라는 제네러티브 아트의 특성을 강조하며, 연출가, 디자이너의 기획과 아이디어에 배우의 연기, 관객의 반응 등을 더해 ‘지금, 여기’의 순간을 생성하는 것이다. 이로써 뉴미디어 씨어터는 전통적 연극의 문법을 해체하며 등장한 포스트드라마의 뒤를 이어 기술과 예술의 협업을 통해 공연예술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본고는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뉴미디어 씨어터를 빌렘 플루서의 커뮤니케이션과 코드, 기술이미지 이론과 레프 마노비치의 뉴미디어와 소프트웨어 이론을 통해 고찰하고 그 미학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빌렘 플루서는 그림, 문자, 기술이미지로 이어지는 역사적 전환 과정 속에서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코드로 정의하였고, 코드의 변환이 문화

62) 김영윤·조준희, 「인간-AI 공동창작 공연예술 특성 연구」, 『지식과 교양』 14호,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024, 405쪽.

를 형성하는 기제로 작용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기술이미지 시대에 나타난 지각과 사유 방식의 변화는 탈역사시기인 동시대 기술 장치에 대한 이해와 상상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한다. 레프 마노비치는 뉴미디어의 원리로 규정한 수적 재현, 모듈성, 자동화, 가변성, 부호변환을 설명하고 이 요소들이 동시대 콘텐츠 생산과 해석에 관여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하였다. 더불어 나날이 발전하는 소프트웨어가 만들어내는 문화적 행위를 통해, 소프트웨어 중심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주장하였다. 이렇듯 플루서와 마노비치의 이론은 뉴미디어 씨어터의 형성과 진행을 이해하는 주요한 기술적, 미학적 배경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고는 이들의 이론을 통해 뉴미디어 씨어터의 세 가지 미학적 특성을 도출해 내었다. 첫째, 기술이미지로 인한 연극적 커뮤니케이션의 확장은 배우, 관객, 디지털 미디어가 동일한 코드 체계 속에서 상호작용함으로써 전통적 연극과 다른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형성함을 의미한다. 둘째, 모듈성과 가변성을 통한 서사의 변화는 전통적 연극에서 고정되거나 철저히 분리되어 있던 요소들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어떻게 재조합되고, 그로 인해 서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셋째, 프로그래밍된 무대와 자동화는 소프트웨어 기반 환경에서 연극이 유동적 변화를 맞이하는 양상이며, 이러한 특징은 뉴미디어 씨어터의 새로운 미학적 지평을 여는 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동시대 연극을 디지털 미학자들의 이론을 통해 바라보며 확장적 관점을 적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다양한 공연 현장에서 활발히 시도되고 있는 뉴미디어 씨어터의 사례 중 제한된 것들을 다루었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강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동시대 뉴미디어 씨어터에 대한 학술적 연구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 문헌

단행본

- 김형기·심재민·김기란·최영주·최성희·이진아·파트리스 파비스 공저,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미학』, 푸른사상, 2013.
- 도메니코 콰란타 저, 주경란·김정연·주은정 공역, 『뉴미디어 아트, 매체를 넘어서』, 칼라박스, 2018.
- 레프 마노비치 저, 서정신 역, 『뉴미디어의 언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 레프 마노비치 저, 이재현 역, 『소프트웨어가 명령한다』,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 빌렘 플루서 저, 김성재 역, 『코무니콜로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 빌렘 플루서 저, 윤종석 역, 『사진의 철학을 위하여』, 커뮤니케이션북스, 2020.
- 스티브 딕슨 저, 주경란·강미정·주경미·심하경·신원정 공역, 『디지털 퍼포먼스』, 칼라박스, 2022.
- 올리버 비들로 저, 양우석 역, 『빌렘 플루서의 미디어 철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020.
- 한스-티즈 레만 저, 김기란 역, 『포스트드라마 연극』, 현대미학사, 2013.
- Stephen Alan Schrum, Teaching in Cyberspace: Issues of Teaching, Acting, and Directing, New York: Peter Lang, 1999.

논문

- 김동욱·최정화, 「제너러티브 아트(Generative Art)의 시각적 속성이 반영된 패션디자인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41권 5호, 한국의류학회, 2017, 825-839쪽.
- 김영윤·조준희, 「인간-AI 공동창작 공연예술 특성 연구」, 『지식과 교양』 14호,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024, 397-424쪽.
- 김형기, 「연극성 개념의 변형과 확장」, 『한국연극학』 23호, 한국연극학회, 2004, 269- 295쪽.

박상우, 「빌렘 플루서의 이미지와 문자 코드론」, 『미학』 86권 1호, 한국미학회, 2020, 41-74쪽.

주송현, 「메타버스 기반 탈춤공연의 구조적 특성과 의미」, 『우리춤과 과학기술』 19권 4호, 한양대학교 우리춤연구소, 2023, 9-31쪽.

온라인 신문기사

임효정, “인공지능 시극 ‘파포스2.0’, 8월 개막... AI와 대본 공동창작”, <문화뉴스>, 2023.07.26., 검색일자: 2025.02.14.

한재섭, “비비런, 꿈에서 깨지 말고 뛰어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웹진>, <https://www.acc.go.kr/webzine/index.do?article=601&lang=ko>, 2020.12. 검색일자: 2025.03.04

황지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메타버스 체험 ‘비비런’ 오프라인 공연 마무리”, <세계비즈>, 2022.01.24., 검색일자: 2025.03.04

참고 사이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 - 메타버스 체험공연 [비비런], <https://www.youtube.com/watch?v=bQ3YuTqMBBc&t=1681s>, 2022.01.18.

미디어아트그룹 Slitscope 블로그, <https://blog.naver.com/slitscope>, 2025.03.04.

One step at a time lilke this, <https://onestepatatimelike this.com/project/en-route/>, 2025.03.04.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인터넷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등장한 뉴미디어(New Media)와 이를 통해 등장한 뉴미디어 씨어터(New Media Theater)의 미학적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의 틀로 적용한 빌렘 플루서(Vilém Flusser)와 레프 마노비치(Lev Manovich)의 미디어 이론은 기존의 연극미학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연구의 표현 방식과 관객 경험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한 디지털 기술과 뉴미디어 환경의 발전은 기존의 텍스트 중심 연극에서 벗어나 다매체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공연 형식을 통해 외연을 확장시키고 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뉴미디어 아트와 연극의 관계를 살펴보고, 뉴미디어 씨어터의 개념을 정의한다. 이후 플루서의 커뮤니케이션과 코드 이론을 통해 기술과 문화에 따른 인간 소통 방식에 대해 고찰하고, 기술이미지 환경에서의 달라진 소통의 변화를 분석한다. 또한 마노비치가 제시한 뉴미디어의 5가지 원리(수적 재현, 모듈성, 자동화, 가변성, 부호 변환)를 바탕으로 뉴미디어 씨어터의 서사 구조와 무대 연출의 특성을 탐색하고 소프트웨어와 자동화를 적용한 연극 창작 방식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뉴미디어 씨어터의 미학적 특성을 1) 기술이미지로 인한 연극적 커뮤니케이션의 확장, 2) 모듈성과 가변성을 통한 서사의 변환, 3) 프로그래밍된 무대와 자동화라는 세 가지 범주로 도출한다.

본 연구는 뉴미디어 씨어터가 전통적 연극의 본질적 요소인 배우, 공간, 관객의 상호작용의 확장과 변화를 조명하며, 디지털 기술과 연극의 융합이 가져오는 새로운 미학적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향후 뉴미디어 기반 공연 연구 및 창작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 뉴미디어 씨어터, 빌렘 플루서, 레프 마노비치, 기술이미지, 소프트웨어 문화, 디지털 퍼포먼스, 인터랙티브 연극

■ Abstract

A Study on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New Media Theatre : Focusing on the Theoretical Frameworks of Vilém Flusser and Lev Manovich

Cho, Chung Beom / Dongguk University

Cho, Joon Hui / Dongguk University

This study analyses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New Media and New Media Theatre that have emerged based on digital technologies of the Internet. The media theories of Vilém Flusser and Lev Manovich, applied as a framework for analysis, help us to understand digital technologies that are difficult to interpret through traditional theatre aesthetics. Developments in digital technologies and new media environments have fundamentally changed the way theatre is presented and the audience experience, pushing theatre away from its traditional textual focus and expanding its outreach through multimedia and interactive performance forms.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new media art and theatre is explored, and the concept of new media theatre is defined. Then, through Flusser's theory of communication and code, we examine how human communication changes with technology and culture, and analyse the changes in communication in a technological image environment. Based on Manovich's five principles of new media (numerical reproduction, modularity, automation, variability, and sign transformation), we explore the narrative structure and stage production characteristics of new media theatre, and analyse how software and automation are applied to create theatre. Through this,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new media theatre are derived into three categories: 1) the expansion of theatrical communication through technological images, 2) narrative transformation through modularity and variability, and 3) programmed staging and automation.

This study highlights how new media theatre expands and transforms the

interaction of actors, space, and audience, which are the essential elements of traditional theatre, and suggests new aesthetic possibilities brought about by the convergence of digital technology and theatre. In doing so, it aims to contribute to laying the theoretical found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creation of new media-based performances.

Keyword • New Media Theater, Vilém Flusser, Lev Manovich, Technical Images, Software Culture, Digital Performance, Interactive Theater

초월론적 과제와 하이데거의 역사성 인수과정에 관한 고찰 : 후설과 딜타이를 통해

김 경 배*

목 차

1. 서론
2. 초월론적 과제의 ‘주어져 있음’ 문제
3. 초월론적 과제의 역사성 인수 문제
4. 결론 및 제언

1. 서론

처음부터 존재와 씨름했던 하이데거는 박사학위 논문 “심리학주의의 판단에 대한 이론”(1913)에서 의미로서의 존재(혹은 현실/실재)를 묻고 논리적 실재와 심리적 실재의 차이를 통찰한다. 지성과 사물의 일치라는 그리스적인 진리 개념이 순수 논리적인 것 안에서 끌어올려진 것임을 파헤친 후,¹⁾ 교수자격논문 “둔스 스코투스의 범주론과 의미론”(1916)에서는 의미의 실재 방식(참임)을 현상학적 관점에서 다시 조명한다. 이로써 그는 존재와 진리가 상치(Widerspruch)할 수 있다고 보고, 진리가 비-현실적인 것

* 우송대학교 교양교육 강사

1) M. Heidegger, “Die Lehre vom Urteil im Psychologismus”, in: Frühe Schriften, Frankfurt am Main: Vittorio Klostermann, 1986, p.99.

까지를 포함하는 한, 철학이 단지 논리적인 것의 구조를 제시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²⁾ 이는 인간의 정신이 대상을 구축하는 인식론적인 것이 아닌 그 자체 역사적인 것이기에 근본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은 역사적 범주로서의 시간이라는 것을 함의한다.

시간과 역사를 통해 하이데거는 전통 논리학에 설정된 존재물음의 기초와 방향(존재자성)의 한계를 지적하는 한편,³⁾ 현상학적-해석학적 이해의 지평 속에 그 한계를 쇄신하고자 한다. 쇄신의 단초는 후설이며, 그의 스승 후설은 심리학주의를 파괴하고 논리학의 존재론적 과제를 새롭게 해명할 길을 마련해 주었다.⁴⁾ 다시 말해 후설은 세계 속 인간의 초월방식을 현상학적으로 탐문함으로써 하이데거에게 실재의 반성을 존재론적으로 할 수 있게 한 갈림길이었다. 그리고 실재의 해석 문제를 역사적인 경험 속으로 끌어오게 한 것은 딜타이이며, 그의 역사 이해를 통해 하이데거는 주관 의식에서 일어나는 삶의 염려를 역사적으로 해명할 수 있었다. 현사실에 있어서 인간의 삶이 의미연관(Bedeutsamkeit)이라고 말하는 『존재와 시간』(1927)은 딜타이의 역사 연구를 그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간 과정의 산물인 것이다.

한편 후설과 하이데거의 현상학적 탐구방식은 ‘지향성’과 ‘염려’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지만, 순전한 현상만을 가지고 실재의 의미를 장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그들 과제의 초월론적 의의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⁵⁾ 이는 후설과 하이데거 모두 인간 삶의 상황을 보다 “본질

2) M. Heidegger, *Die Kategorien-und Bedeutungslehre des Des Scotus*, in: *Frühe Schriften*, 1916, p.233.

3) 전통 논리학에서 전수된 존재론은 하나의 대상에서 존재자를 눈앞에 있는 것(Vorhandense)으로 파악한다. 이때 시간과 역사의 문제는 배제되고, 서술적인 ‘로서’(Als)는 상실된다.

4) M. Heidegger, “Die Lehre vom Urteil im Psychologismus”, 1986, p.1.

5) D. Jahavi, *Husserl's Phenomenology*,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3, p.44.

적”으로 획득하고자 했기 때문인데,⁶⁾ 그러나 딜타이의 역사 이해를 통해 주관 의식의 바깥 양식(weg-sein)을 더욱 심화하는 하이데거의 ‘본질’ 이해에는 후설적인 이념이 없다.⁷⁾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주관 의식이 언제나 ‘바깥’을 향하여 세계와 만나는 현상학의 초월론적 과제를 하이데거가 어떻게 더욱 현상학적으로 요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역사적으로 확장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목적에서 필자는 우선 후설을 통해 초월론적 과제의 기초 논의를 이해한 후, 하이데거가 어떻게 후설의 초월론적 과제를 배제하고, 또 어떻게 딜타이의 역사 이해 안에서 새롭게 인수하는지 추적한다. 다시 말해 필자는 후설, 딜타이, 하이데거 사이에서 일어났던 초월론적 과제에 대한 투쟁과 하이데거의 인수과정을 살펴본다.

2. 초월론적 과제의 ‘주어져 있음’ 문제

하이데거는 정신적 존재로서 인간의 삶을 현상학적으로 에포케(epoche)하고 서구 형이상학의 사유가 지나온 논리적 언어들을 역사적 언어들로 변경시킨다.⁸⁾ 그의 에포케는 후설적인 판단중지, 배제, 추상의 환원 등 초월론적 세계연결이 아닌 불안, 양심, 기투 등 탈자적(ekstatische) 세계교섭에서 이루어지지만, 하이데거의 존재사유에 스며든 후설의 영향력은 강력한 것이었다.⁹⁾ 논리학의 심리학적 상대화에 맞서 인간의 정신을 근

참조.

6) M. Heidegger, *Sein und Zeit*, Tübingen: Max Niemeyer Verlag, 1979, p.38. 참조.

7) M. Heidegger, *Ontologie: Hermeneutik der Faktizität*, Frankfurt am Main: Vittorio Klostermann, 1982, p.16.

8) M. Heidegger, *Wegmarken*, Frankfurt am Main: Vittorio Klostermann, 1976, pp.233-234.

9) M. Heidegger, *Zur Sache des Denkens*, Tübingen: Max Niemeyer Verlag, 1969, p.81.

원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선험적 방법이나 경험 과학적 방법이 아닌 현상학적 방법으로만 가능했기 때문이다.¹⁰⁾ 따라서 하이데거는 후설을 통해 초월의 길을 발견하면서도 그 초월의 방법 문제를 다시금 확인하고,¹¹⁾ 초월론적 주관에 의한 그의 과제를 지양하게 된다.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인간의 정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은 경험에 대한 반성으로서의 경험을 넘어 인간과 삶과 세계의 본질적인 관계에 대한 역사적인 경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1831년 헤겔 사후 철학은 형이상학의 전제를 근거로 자연과학의 노획물로 전락하면서¹²⁾ 심리학, 사회학, 역사학 등 다양한 경험과학이 발전한다. 경험과학은 경험적 사실을 수집 및 관찰을 통해 입증함으로써 인식의 권리를 요구하는 한편, 모든 학문에 실증주의적 입장을 침투시킨다. 이런 위기에 직면하여 후설은 실증주의에 전제된 경험에 대한 형이상학의 선입견을 지적하고, 경험을 원본적(originär)으로 파악하는 현상학이야말로 진정한 실증주의라고 주장하면서¹³⁾ 인간의 정신과 삶을 근원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후설은 『논리연구 I / II』(1900/1901)의 지향적 상관성 해명을 거쳐 생활세계(Lebenswelt)의 해명으로 천착해 간다.

인간의 정신을 근원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후설의 초월론적 과제는 경험의 사태 자체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는 감각 경험(Erfahrung)이 아닌 의

10) M. Heidegger, *Zur Bestimmung der Philosophie: 1. Die Idee der Philosophie und das Weltanschauungsproblem; 2. Phänomenologie und transzendente Wertphilosophie*, Frankfurt am Main: Vittorio Klostermann, 1994, p.33. 참조.

11) M. Heidegger, *Zur Bestimmung der Philosophie*, p.30.

12) M. Heidegger, *Vorträge und Aufsätze*, Pfullingen: Günther Neske Verlag, 1954, p.82.

13) E. Husserl, *Ideen zu einer reinen Phänomenologie und Phänomenologischen Philosophie. Erstes Buch: Allgemeine Einführung in die reine Phänomenologie*, Martinus Nijhoff, Haag, 1976, p.45.

식의 지향적 체험(Erlebnins)에 대한 충실한 탐구 과정이 필요하지만, 자연주의자들은 의식의 체험을 마치 물리적 사물처럼 취급한다.¹⁴⁾ 인식이 감각 경험에 기초한다고 본 것은 옳았지만, 실증주의는 그 경험 사태의 테두리를 잘못 설정함으로써 실재의 문제를 자연적 인식에 종속시켜 버린 것이다. 여기서 후설은 진정한 인식이 감각 경험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형이상학의 선입견을 확인하게 된다.¹⁵⁾ 즉 데카르트의 이원적 토대 위에 인식이 주관성 차원으로 옮겨지면서 감각 경험이 인식의 권리를 요구하게 되고, 이것이 물리적 실증주의로 이어진 것이다.¹⁶⁾ 따라서 후설은 경험이 자의적인 탐구대상이 되지 않도록 자연주의적 경험의 사태와 자연적 경험의 사태를 구별하는 한편,¹⁷⁾ 자연의 실재성(Naturwirklichkeit)에 연관된 원본적인 경험의 사태를 묻는다.¹⁸⁾ 이 경험의 사태를 묻기 위해 후설은 우선 주관의 판단을 유보하고 진리를 의식 체험의 명료함으로, 그리고 그 명료함의 척도를 명증(Evidenz)으로 규정한다.¹⁹⁾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경험의 사태는 근원적으로 밝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²⁰⁾

후설이 말하는 명증은 판단의 권리 원천이 ‘직접적인 봄’(das

14) E. Husserl, *Die Krisis der europäischen Wissenschaften und die transzendente Phänomenologie: Eine Einleitung in die phänomenologische Philosophie*, Martinus Nijhoff, Hagg, 1962, p.225.

15) E. Husserl, *Natur und Geist, Vorlesungen Sommersemester 1927*, Dordrecht: Kluwer, 2001, p.78.

16) E. Husserl, *Natur und Geist*, p.80.

17) E. Husserl, *Ideen zu einer reinen Phänomenologie und Phänomenologischen Philosophie*, p.42.

18) E. Husserl, *Natur und Geist*, p.96.

19) E. Husserl, *Cartesianische Meditationen und Pariser Vorträge*, Martinus Nijhoff, Hagg, 1950, p.95.

20) 후설의 현상학적 방법은 철저히 반성의 작용에서 움직인다. 즉 반성은 체험의 흐름을 명증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작용으로서 지향적 시선 속에서 이루어진 ‘내적인 봄’이다.(E. Husserl, *Ideen zu einer reinen Phänomenologie und Phänomenologischen Philosophie*, p.162, p.165.)

unmittelbare Sehen)에 있다는 것이다.²¹⁾ 이는 지각에 주어진 것들을 그 자체 받아들이야 한다는 뜻으로,²²⁾ 후설은 하나의 사실로 주어진 감각 경험의 영역에서 본질 직관의 영역으로 이행하기 위해 형상적 환원(eidetische Reduktion)을 구상하게 된다. 이 환원의 양식은 경험의 심리적 사실에서 벗어나 경험의 초월론적 양식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다.²³⁾ 이런 점에서 필자는 후설의 경험 사태에 대한 탐구의 맥락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진리의 원천은 인간의 사실적 경험 속에 구체적으로 ‘주어져’(gegeben) 있다. 즉 인간의 경험은 한낱 우연적인 사실이 아니라 근원적인 사실(Urfaktum)이다. 둘째, 철학은 인간에게 주어진 경험을 고유한 것으로 구축해야 한다. 구축은 개념적 사유가 아닌 사실적 경험을 엄밀하게 기술(Deskription)하는 것이다. 셋째, 그러나 형이상학과 실증주의는 경험의 현상적 내용을 묵살하고 ‘주어져 있음’(Gegebenheit)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따라서 후설은 순수 이론적 논증, 연역적 추론, 귀납적 추론 등에 의존하여 인식의 가능성과 세계를 해명하려 한 기존의 모든 시도들이 진리의 원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잘못 이끌어 왔다고 주장하게 된다.

후설이 탐구하는 경험의 사태 자체는 의식의 초월론적 영역에 관한 문제이다. 다시 말해 그의 초월론적 과제의 목표는 인간 중심적인 체험의 사유를 배제함으로써 절대적인 인식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어져 있음’과 의식의 지향적 관계를 해명하여 그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지는 심문에 붙일 필요가 있다.²⁴⁾ 왜냐하면 푸코도 언급한

21) E. Husserl, *Ideen zu einer reinen Phänomenologie und Phänomenologischen Philosophie*, p.43, p.95, p.169.

22) E. Husserl, *Ideen zu einer reinen Phänomenologie und Phänomenologischen Philosophie*, p.51.

23) E. Husserl, *Natur und Geist*, p.118

24) E. Husserl, *Ideen zu einer reinen Phänomenologie und Phänomenologischen Philosophie*, p.188. 후설의 관점에서 인간의 기쁨, 소망, 판단 등 현

바와 같이, 후설이 전제한 절대적인 인식의 가능성은 개인의 심리적 한계를 벗어나기는 하지만 역사주의적인 한계를 지닌 채 여전히 인간 중심적인 경향을 극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²⁵⁾ 따라서 우리는 인간 중심적인 틀을 벗어난다는 후설의 초월론적 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후설이 의식의 본성을 인식론적 차원에서 대답하고자 할 때 우선 요구하는 것은 현상학적 무전제성(Voraussetzungslosigkeit)이다. 무전제성이란 체험(Erlebens)과 인간의 삶이 하나의 연관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식이 직접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뜻이다. 후설은 의식이 ‘우선 그리고 대개’(zunächst und zumeist) 세계 속 사물들로 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향함’이야말로 어떤 심적 표상에서도 매개되지 않은 직접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세계 내의 존재자의 존재가 우선은 애매모호하더라도 ‘나’의 직관 속에 이미 주어져 있으며, 그런 소박한 자연적 태도에서 ‘나’는 ‘우선 그리고 대개’ 욕구하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²⁶⁾

후설은 자연적 태도에 대한 주관 의식의 초월론적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후설은 체험의 내실적(reell) 요소만을 남겨두고,²⁷⁾ ‘주어져 있음’의 방식을 정당화해주는 것이 지향성임을 입증하고자 한다. 여기서 후설은 인식 대상에 대한 의식의 겨냥, 즉 공간 속에서 파악되는 나의 바깥(außer-mir)에 관심을 두게 된다. 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자연적 관점에서 수행되는 세계 파악의 물음과 더불어 대상의 체험 방식이

실성 체험들은 자아에 의해 수행될 뿐이다.

25) 조광제, 『의식의 85가지 얼굴: 후설 현상학의 주요개념들』, 글항아리, 파주 2008, 25쪽. 인용문 참조.

26) E. Husserl, *Ideen zu einer reinen Phänomenologie und Phänomenologischen Philosophie*, p.46.

27) 내실적 체험이란 존재자가 인간에게 부딪혀오는 원초적인 의식 과정으로서 인간의 실존적인 의미 안에 있는 체험을 말한다.

단지 한 가지가 아니라 각기 고유한 지향적 구조를 지닌다는 것, 둘째, 그로 인해 체험으로서의 명증은 일정한 권리와 한계가 동시에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나’의 나무-지각을 표상해보면, 어제 본 나무와 오늘 본 나무가 동일한 나무라는 의식에서 나무가 의식에 주어지는 방식은 각기 다르다. 즉 지각과 기억의 차원에서 우리의 나무의 의식은 차등적인 양상으로 주어지며, 나무-기억이 보다 직접적인 나무-지각보다 덜 확실한 것이라고 해도 대상의 인식에 있어서 각기 권리가 있기에 그 의미는 명백하게 주어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의식에 주어지는 지향적 체험의 의미를 확인한 후설은 권리 측면에서 진리의 주장에도 차등이 생기는 것을 보고 우리의 세계 인식을 정당화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고자 한다.

후설에 따르면 지향 대상의 자연적 지각은 막연한 것이기에 내적 반성을 통해 괄호 바깥으로 드러나야 한다.²⁸⁾ 즉 자연적 지각은 의식과 세계의 이분 구조를 제거하고 세계의 실재적 의미를 되돌려주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엇인가 ‘주어져 있다’는 소박한 세계 경험일 뿐이다.²⁹⁾ 따라서 후설은 실재의 의미를 정초하기 위해 현상학적 근거를 결여한 자연적 태도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주관의 반성적 자기의식이 세계 경험을 궁극적으로 정당화 해준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자연적 지각은 초월론적 토대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과 같은 것이기에 후설은 ‘주어져 있음’과의 관계 속 권리와 진리의 주어지는 양상을 환기하고서 심리적 주관의 근원적 국면에 마주서고자 한다.³⁰⁾ 다시 말해 현상학적 태도변경을 통해 인식주관

28) E. Husserl, *Ideen zu einer reinen Phänomenologie und Phänomenologischen Philosophie*, p.60.

29) E. Husserl, *Ideen zu einer reinen Phänomenologie und Phänomenologischen Philosophie*, p.61.

30) 후설은 이성적 의식의 근본형식으로서 원본적인 ‘봄’(sehen)의 작용을 중시한다. 그러나 일상적 ‘봄’은 필증적 ‘봄’으로 확인되어야 하기에 이성에 의한 ‘통찰’이 그 필증성을 떠맡아야 한다.(E. Husserl, *Ideen zu einer reinen*

은 세계의 가능성에 초월론적으로 마주설 수 있어야 하는데,³¹⁾ 이런 주관의 위상은 내용적으로는 자연적 태도와 중첩되지만 초월론적으로는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자연적 소박성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자연적 경험에서는 의식이 어떻게 바깥-초월으로 나아가는지 설명할 수 없다. 둘째, 다양한 대상들의 총체적인 존재론적 의미는 해명될 수 없다. 즉 자연적 태도는 주관적이거나 객관적인 사태만을 보게 함으로써 주-객의 양립가능성을 밝히지 못한다. 그리하여 후설은 현상학적으로 태도변경하여 '생활세계'로 진입하면서 이념의 세계가 참된 세계라는 형이상학적 이해로부터 더욱 멀어진다.³²⁾

후설은 '주어져 있음'의 상관관계를 해석하는 초월론적 과제에 더욱 몰두한다. 이는 세계의 의미-형성에 대한 주관의 기여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으로, 후설은 유의미한 귀납들에서 조차 이미 주어진 세계의 본질이 변형되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³³⁾ 그리고 그는 자연주의적 태도에서 주어지는 이론적-객관적 세계보다 더 근원적으로 경험되는 주관적인 삶의 세계를 진정으로 실재하는 세계로 받아들인다.³⁴⁾ 이로써 후설은 자연주의적으로 경험되는 이론적-객관적 세계, 자연적 태도에서 경험되는 환경세계, 초월론적 주관에 의한 생활세계를 구분하고, 초월론적 주관의 태도변경으로 수행되는 과제를 생활세계의 존재론(Ontologie der

Phänomenologie und Phänomenologischen Philosophie, p.318.)

31) D. Jahavi, *Husserl's Phenomenology*, p.52.

32) 후설에 따르면 유일한 하나의 실제적 세계, 지각에서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세계, 언제나 경험되고 경험할 수 있는 세계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세계이다.(E. Husserl, *Die Krisis der europäischen Wissenschaften und die transzendente Phänomenologie*, p.48.)

33) E. Husserl, *Die Krisis der europäischen Wissenschaften und die transzendente Phänomenologie*, p.50.

34) E. Husserl, *Die Krisis der europäischen Wissenschaften und die transzendente Phänomenologie*, p.52.

Lebenswelt)으로 지칭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생활세계의 해명으로 나아간 후설의 과제는 주-객의 방향 설정이 중심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³⁵⁾ 그러나 일상적 세계에 대한 의식의 상관적 경험을 철저히 고찰함으로써 자신의 과제를 성취하고자 할 때, 후설은 ‘나’의 순수한 삶만을 결과하게 된다. 그의 ‘순수한 삶’의 결과가 향하는 비약의 장소는 초월론적 자아이며, 그의 초월론적 자아는 ‘무’ 위에 세워진 인간 실존과는 대면할 길이 없기에 삶의 실제적 내용을 여전히 박탈하고 있었다. 태도변경으로 수행되는 후설의 초월론적 과제는 본질과 현상의 영역적 분리라는 완고한 인식론적 교리 내에서 작동되고 있었기에 하이데거는 후설이 경험의 사태 자체에 도달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그의 시도 자체가 사실상 작위적인 것이었다고 비판한다.³⁶⁾ 물론 초월론적 자아에 역사적인 차원이 덧붙여지면서 그의 초월론적 과제의 내용이 이전 보다 현실적으로 확장된 것은 사실이다.³⁷⁾ 그러나 초월론적 주관의 장소로서 그의 에포케는 내가 나를 순수한 자아로 포착하는 철저한 방법에 불과하며, 그리하여 그의 기술은 현사실적인 삶의 이해 안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불완전한 것으로 멈추어 버린다. 다시 말해 그의 방법과 절차는 우리의 역사적인 세계를 인식할 길을 보여 주기는 했으나, 의식의 주-객 구성이 핵심인 한, 그의 과제는 새롭게 방향 설정되어야 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후설은 브렌타노(F. Brentano)의 심리학주의에 대한 비판을 통해 지향성에서 제시된 내게 ‘주어지고-나타나는’ 존재의 근원적 현상을 해명하면서 체험연관의 기준을 세우려고 했지만, 그의 『논리

35) D. Jahavi, *Husserl's Phenomenology*, p.132.

36) M. Heidegger, *Prolegomena zur Geschichte des Zeitbegriff*, Frankfurt am Main: Vittorio Klostermann, 1979, p.37.

37) D. Jahavi, *Husserl's Phenomenology*, pp.138-139. 참조.

연구』는 끝까지 해명되지 못했고 근본적으로 탐구되지 못했다.³⁸⁾ 다시 말해 후설은 지향성, 범주적 직관, 선험, 환원의 원리를 통해 존재자의 대상적 성격을 보여주는 했으나 대상에서 자유로운 존재 자체 혹은 ‘주어져 있다’(es gibt) 자체를 문제 삼지 못했다.³⁹⁾ 학문의 근본토대가 흔들리던 당시의 철학을 엄밀학으로 쇄신하려고 했던 후설은 자연 속 현존의 의미를 현존재으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주어져 있음’의 고유한 유래를 은폐했던 것이다.⁴⁰⁾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주어져 있음’의 체험관계는 인식주관의 자의적인 태도 변경에서 일방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역운적(geschichtlich)으로만 열어 밝혀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설은 공동적-객관적 세계구성의 조건으로서 발생적 상호주관성(genetische Intersubjektivität)을 제시하는 한편,⁴¹⁾ 타자들과의 의미연관이 공급된 ‘세계-내’ 초월론적 주관의 역사적 의미를 인수하고자 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문제는 초월론적 자아를 전제로, 즉 ‘나’를 중심으로 그 인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었다.⁴²⁾ 후설은 주관의 초월성과 발생적 유래로서의 역사성(Geschichtlichkeit)을 근본적으로 통합시키는데 실패하였다.⁴³⁾ 그로인해 하이데거는 후설과는 다른 방식으로 주관 의식을 주목하고, 명증성이나 본

38) M. Heidegger, *Ontologie: Hermeneutik der Faktizität*, p.70.

39) M. Heidegger, *Ontologie: Hermeneutik der Faktizität*, p.2.

40) 후설에게서 현존은 자연적 시간이해에 지나지 않으며, 대상성의 연관에서는 현존의 발생적 유래가 나타나지 않는다.

41) 후설은 제2의 환원인 원초적 작업을 수행하여 타자를 향한 일체의 지향성을 배제한다. 그리고 그 배제작업을 통해 “나의 원초적 영역”을 확보한다. 이런 근본정신에 입각해 후설은 세계의 최종적인 근거가 초월론적 주관임을 확인하고, 타자에 대한 자아의 절대적 우위를 주장한다.(이남인, 「발생적 현상학과 상호주관성의 문제」, 『철학사상』 제16집,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3, 30-34쪽.)

42) D. Jahavi, *Husserl's Phenomenology*, p.139.

43) 후설과 달리 하이데거의 역사성은 그저 지나간 것(Vergangenheit)과의 연관이 아니라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기재하는(gewesen) 삶의 본래적/비본래적 생기에 관한 것이다.

질통찰 같은 이념이 자신의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밝힌 후, 자신의 현상학을 실존론적 관점에서 수행되는 ‘해석학’이라고 지칭하게 된다.⁴⁴⁾ 즉 하이데거는 초월론적 주관의 본질을 의식의 내적 실재성이 아닌 기분의 각자성(Jemeinigkeit)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기초 존재론적으로 정당화하고자 한다.

하이데거는 1923년 마르부르크 대학 여름학기 “현사실성의 해석학”이라는 부제를 달고서 『존재론』(1923)을 강의한다. 여기서 그는 삶 철학의 ‘삶’ 개념과 키에르케고르의 ‘실존’ 개념을 ‘현사실성’이란 개념으로 대체하고 있다.⁴⁵⁾ 그런데 그의 『존재론』을 면밀히 검토할 경우에 하이데거가 후설의 과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후설의 과제를 인수한 셸러(M. Scheller)를 비판했던 논조로, 즉 근본오류(Grundirrtum)로는 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⁴⁶⁾ 게다가 하이데거는 『존재론』에서 후설의 과제를 빈번히 언급하면서도 그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경우는 단 두 차례뿐이다.⁴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데거가 후설의 과제를 부정적으로 본 것은 명백한데, 예컨대 ‘인류와 문화를 염려하여 그 물음의 근심을 후손에게서 영원히 면제할 사명이 철학에 있다’는 후설의 신념을 하이데거는 철저히 거절한다.⁴⁸⁾ 왜냐하면 지향적으로 대상을 체험하려는 후설의 과제는 충분히 현상학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⁴⁹⁾ 다시 말해 하이

44) M. Heidegger, *Ontologie: Hermeneutik der Faktizität*, p.16.

45) F. M. István, “Heidegger and the Hermeneutic Turn of Philosophy”, *kellék*, vol. 11, no. 22, 1998, p.16.

46) 김경배, 「막스 셸러의 철학적 인간학에 대한 하이데거의 비판 고찰」, 『대동철학』 제92집, 2020. 79쪽.

47) M. Heidegger, *Ontologie: Hermeneutik der Faktizität*, pp.70-71.

48) M. Heidegger, *Ontologie: Hermeneutik der Faktizität*, p.18.

49) F. M. István, *Ibid.*, p.14.

데거의 관점에서는 선입견을 포함하여 삶이 해석되어야 했지만,⁵⁰⁾ 후설의 과제는 선입견을 배제했기에 삶이 정당화될 수 없었던 것이다.⁵¹⁾

이런 현사실적인 삶의 문제가 착상되면서 하이데거는 후설의 과제를 넘어서 다른 요구와 계기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⁵²⁾ 그리하여 하이데거는 “다만 인식 대상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물음을 통해 당시의 철학적 의식에 경종을 울렸다.”⁵³⁾ 라고 후설을 비판하면서 서구 철학의 내적 결함을 함께 지적하게 된다. 그의 지적은 두 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서구 철학은 언제나 대상의 대상성에 관련된 세계 해명이었다. 둘째, 이런 해명의 결함이 현존재에로의 접근을 철저히 방해했다. 다시 말해 서구 철학이 존재에 접근해 온 방식은 잘못되었으며, 후설의 과제 역시 인간의 일상적 세계교섭을 왜곡하였다.

이론 이성을 우선하는 후설의 견고한 신념을 목격한⁵⁴⁾ 하이데거는 생활 세계에 접근하는 후설의 방법 역시 인식론적 문제에 지배되어 혼란만을 가중하였다고 비판한다.⁵⁵⁾ 주-객의 대립적인 형식 속에 제기되는 후설의 현상학적 요구는 현사실적인 삶을 해석하는 것으로 다시 정립되어야 했기에 하이데거는 후설의 과제와 단절한다. 그리고 그는 현사실적 삶의 전망 속에 사태 자체를 새롭게 요구한다. 첫째, 사태 자체로의 회귀는 삶 자체에서만 가능하다. 둘째, 엄밀학의 요구로서 근원학의 구축은 자아의 탈역사화

50) M. Heidegger, *Grundproblem der Phänomenologie*(1919/1920), Frankfurt am Main: Vittorio Klostermann, 2010, p.1-2.

51) M. Heidegger, *Ontologie: Hermeneutik der Faktizität*, p.73. 참조.

52) M. Heidegger, *Phänomenologische Interpretationen zu Aristoteles, Einführung in die phänomenologische Forschung*, Frankfurt am Main: Vittorio Klostermann, 1994, p.89.

53) M. Heidegger, *Phänomenologische Interpretationen zu Aristoteles*, p.71.

54) M. Heidegger, *Einführung in die phänomenologische Forschung*, Frankfurt am Main: Vittorio Klostermann, 1994, p.61.

55) M. Heidegger, *Phänomenologische Interpretationen zu Aristoteles*, p.81.

(Entgeschichtlichung)에서만 가능하다. 셋째, 기술의 강조 및 경험, 본질, 의미의 발견은 염려(Sorge)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하이데거의 현상학적 요구는 철학함에 있어서 역사적인 삶의 해석이 중요하다는 자신의 신념에 바탕을 둔 것이지만, 그의 신념은 후설로부터 인수해 온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3. 초월론적 과제의 역사성 인수 문제

사태 자체에 대해 하이데거가 후설보다 더 현상학적으로 요구할 수 있었던 계기는 딜타이와의 만남 덕분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변정신이 붕괴함에 따라 역사적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은 후퇴하고, 역사에 대한 새로운 물음의 계기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역사적 존재에 대한 학문 정립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면서 딜타이는 역사이성 비판을 제기하려는 야망을 가지고서 심리적인 것(das Psychische)에 대한 신칸트주의적인 해석에 접근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정신이 자연 세계의 단순한 발현물이 아니라면, 자연과 정신의 구획 방법은 다시 제시되어야 했기 때문이다.⁵⁶⁾ 그런데 딜타이가 보기에 신칸트주의는 정신의 방향을 인도하는 규범의 의미를 현사실적으로 보지 못하고 단지 인식적 타당성 획득의 메커니즘으로 분석한다. 학문 인식의 정립을 사유의 선험적 이념(혹은 형식적 기준)을 통해 가능하다고 간주함으로써 신칸트주의는 삶의 실제적 내용을 무력화시켜버린다. 본래 심리적인 것에 대한 물음이 요구하는 바는 가치가 어떻게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가’였지만, 신칸트주의는 역사에 대한 근원적 이해를 포기함으로써 가치가 가치로서 ‘주어지는’ 체험의 문제를 시야에서 놓치고 만다. ‘살아있는 서판’으로서 심적 주관은 삶에서 자기를 고양하는

56) M. Heidegger, “Wilhelm Diltheys Forschungsarbeit und der gegenwärtige Kampf um eine historische Weltanschauung”, in: *Vorträge: I(1915-1932)*, Frankfurt am Main: Vittorio Klostermann, 2016, p.124. 참조.

활동이기에,⁵⁷⁾ 그리고 그것의 역사적 통찰이이야 말로 초월론의 중심 과제이기에 딜타이는 신칸트주의와는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정신과 삶에 관심을 둔다.

딜타이가 보기에 인간의 삶은 이론과 관계가 없으며 고정된 것도 아니다. 삶은 자기를 표현하고 객관화하며, 인간은 삶의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 자기 자신의 인식에 도달한다. 그 근거는 인간 자신이 역사적 존재라는 사실에 있다. 이는 내용적으로는 현상학적 탐구의 영역(혹은 선-이해의 구조)에 속한 것인데, 딜타이는 체험의 구조를 하나의 연관으로 정립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명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가 역사적 인식 대상으로 발견될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인간적 상황이 체험되고, 그 체험이 삶에서 자신의 표현을 발견하며, 그 표현이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딜타이는 실증주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심리학주의 일반을 넘어, 신칸트주의의 정신 해석을 넘어 인간의 자율성을 현존재적 의식의 사실로 옹호하면서 인간의 인식을 설명(Erklärung)과 이해(Verstehen)로 구별하게 된다.⁵⁸⁾ 그리고 삶의 차원에서는 인식의 형식과 내용이 구분될 수 없기에 딜타이는 체험의 과정을 ‘이해’로,⁵⁹⁾ 그 방법론을 ‘해석학’으로 규정하게 된다.⁶⁰⁾ 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서 체험이 삶에서 모든 지각 행위를 하나로 연결하는 한, 그 연관의 해석에서만 인간은 역사적 존재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체험의 구조적인 해석을 통해 딜타이는 삶의 현사실적인 의미를 발굴

57) E. Husserl, *Die Krisis der europäischen Wissenschaften und die transzendente Phänomenologie*, p.255.

58) W. Dilthey, *Die Geistige Welt: Einleitung in die Philosophie des Lebens*, Vandenhoeck und Ruprecht, 1958, p.144.

59) W. Dilthey, *Die Geistige Welt*, p.318.

60) W. Dilthey, *Die Geistige Welt*, p.332.

하고자 한다.⁶¹⁾ 그리고 하이데거는 이런 딜타이에게서 현존재의 존재론적 인식을 위한 역사성이 발아되고 있음을 본다.⁶²⁾ 즉 역사가 존재론적 물음의 대상이라는 점을 밝혀낸 딜타이의 삶 철학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⁶³⁾ 하이데거는 딜타이의 역사적 인식의 문제를 통해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문제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신칸트주의에 대한 하이데거의 비판적 진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존재가 이론적으로 인지되는 것이라면, 가치의 특성은 어떤 것인가? 가치 체험에 내재된 근원적인 방향성. 즉 가치가 ‘주어지는’ 양식과 가치를 가치로 ‘받아들이는’ 양식은 분명하지 않다. 가치의 체험 방식은 그 핵심이 계속 어둠에 남아 있다.⁶⁴⁾

신칸트주의는 인간의 정신문화(혹은 의미영역)에는 어떤 가치가 구현되어 있다고 본다. 즉 신칸트주의는 정신과학을 구획하는 기준으로서 가치를 존재의 대상으로 문제 삼지만,⁶⁵⁾ 체험 연관에서 보면 가치는 하나의 대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가치로 주어진 하나의 대상 같은 것은 인간의 삶에 없다. 이는 체험의 연관구조를 주목하면 손쉽게 납득된다. 예컨대 하나의 책은 그 자체 가치가 없지만, 읽을 만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읽혀질 때 책은 가치화한다. 즉 인간 삶에 규범 혹은 가치를 부여하는 체험은 애초부터 없으며, 삶에서 우리의 판단하는 태도를 선입견 없이 숙고할 경우, 우리는 판단하는 행위를 체험할 뿐이다. 따라서 어떤 가치를 받아들이는 행위와 판단하는 행위를 존재론적으로 구별하게 되면, 우리

61) M. Heidegger, “Wilhelm Diltheys Forschungsarbeit und der gegenwärtige Kampf um eine historische Weltanschauung”, p.104.

62) M. Heidegger, *Sein und Zeit*, p.46.

63) W. Dilthey, *Der Aufbau der geschichtlichen Welt in den Geisteswissenschaft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73, p.256.

64) M. Heidegger, *Zur Bestimmung der Philosophie*, p.45.

65) M. Heidegger, *Zur Bestimmung der Philosophie*, p.46.

는 삶에서 진리와 체험이 동일한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자각할 수 있게 된다. 그 때문에 하이데거는 인간의 역사적인 삶을 체험하는 우리에게 딜타이와 마찬가지로 ‘이해’를 요청한 것이다.⁶⁶⁾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딜타이는 “우리가 삶에서 관계하는 것은 하나의 전체이며 연관이다.”⁶⁷⁾ 라고 말하고, 하이데거는 “기쁘게도 나는 실존의 즐거움을 체험한다. 나는 실존의 역사적 진리에 따라 살고 있다.”⁶⁸⁾ 라고 말한다.

필자는 하이데거에 대한 딜타이의 영향력과 초월론적 의의를 두 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인간의 삶과 역사에 대한 물음은 분리될 수 없으며, 초월론적 과제는 궁극적으로 역사성의 이해에 놓여 있다.⁶⁹⁾ 둘째, 주관 의식의 체험과 이해의 이중적 관계는, 삶을 주목하고 그 내용을 기술할 때 선현의 종속에서 벗어나 비로소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역사적인 삶이 물어질 때, 의식의 체험은 확장될 수 있고 자기의 이해 역시 성취될 수 있다.⁷⁰⁾

딜타이는 역사성에서 인간의 삶을 이전의 다른 어떤 철학자들 보다 더 깊이 물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딜타이는 역사적 인식의 해명에만 정진할 뿐 이해에 앞선 사실의 구조를 근원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즉 삶에 대한 딜타이의 접근방식은 하이데거의 기초 존재론적인 방향과 의도에 어긋난 것이었다.⁷¹⁾ 실제로 딜타이는 인간의 정신을 객관적으

66) M. Heidegger, *Phänomenologie des religiösen Lebens*, Frankfurt am Main: Vittorio Klostermann, 1995, p.22.

67) W. Dilthey, *Der Aufbau der Geschichtlichen Welt in den Geisteswissenschaften*, p.203.

68) M. Heidegger, *Zur Bestimmung der Philosophie*, p.49.

69) W. Dilthey, *Der Aufbau der Geschichtlichen Welt in den Geisteswissenschaften*, p.173. 참조.

70) W. Dilthey, *Der Aufbau der Geschichtlichen Welt in den Geisteswissenschaften*, p.145.

71)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영한,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해석학에 대한

로 정초하려는 당대의 학문적 분위기를 따라 인간의 역사적 삶 자체를 보지 못하고 인식론적 관점에서 삶을 해석하는 것으로 마쳤다. 궁극적으로 물어야 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적 삶이 어떻게 본래적으로, 비본래적으로 이해되는가’이지만, 딜타이는 역사를 통해 인간의 자기 인식에 대한 객관화의 가능성만을 탐구했던 것이다. 따라서 하이데거는 딜타이의 역사 인식에 대해 ‘새로운 심리학의 길을 통해 인간을 볼 뿐’이라고 비판하면서⁷²⁾ 그의 삶과 역사에 대한 인식을 해석학적으로 정제하게 된다.⁷³⁾ 진정 중요한 문제는 객관성을 주장하는 역사적 인식이 아니라 역사적 존재로서 현존재의 ‘존재의미’이기 때문이다.

딜타이는 체험을 통해 삶의 실재성을 반성적 의식이 아닌 이해의 과정 속에 다루기는 했지만, 하이데거처럼 의식과 실재 사이의 존재론적 차이를 보지 못함으로써 현존재의 역사적 주관성이 무엇인지 충분히 탐구하지 못했고, 역사와 이성 사이의 모순적 갈등 역시 완전히 봉합하지 못했다. 따라서 하이데거는 딜타이적인 해석의 결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이해’를 인식론에 제한한 그의 방법을 거부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역사적 인식에 대한 현상실적인 이해를 통해 이제껏 오인되어 온 존재망각을 지적하는 한편, 존재를 인간의 삶에로 결집시킨다. 그리하여 하이데거는 딜타이의 과제를 던져버리고 존재망각의 근본경험 속에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묻는다. 인간은 실존하는 한, 존재를 이해하며, 존재이해(Seinsvertehen)를 근거로 존재자를 비로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탈자적인 주관’(ekstatisches

성찰」, 『철학논총』 제58집, 새한철학회, 2009.

72) M. Heidegger, “Wilhelm Diltheys Forschungsarbeit und der gegenwärtige Kampf um eine historische Weltanschauung”, p.123.

73) F. M. István, op. cit., p.21.

74) 인간이라는 주관이 언제나 기분에 사로잡혀 있다는 바로 그곳에서 오직 현존재가 실존할 경우에만 실재성의 개념파악도 가능할 수 있다.(M. Heidegger, *Sein und Zeit*, p.212.)

Subjekt)⁷⁴⁾으로서 인간의 본질은 세계에 기투하는 존재라는 것이다.⁷⁵⁾

분명 하이데거에게 후설과 딜타이의 과제는 고무적인 것이었다. 후설 현상학을 전유하고 딜타이의 삶 철학을 인수한 하이데거는 죽음과 결단, 기투와 이해, 불안과 양심을 통해 후설과 딜타이보다 더 근원적이고 정당하게 인간의 정신과 삶을 탐구할 수 있었다. 이런 하이데거의 탐구는 체험을 반성한 추체험이 아니라 이미 의미로 가득한 ‘해석되어 있음’(Ausgelegtheit)을 체험하는 것으로, 『존재론』에서 이런 자신의 과제를 ‘현사실성의 해석학’으로 비로소 언급할 수 있었다. 즉 하이데거는 딜타이를 통해 ‘해석되어 있음’의 체험 현상을 주목할 수 있었기에 『존재론』에서 후설적인 주-객의 도식론을 넘어설 수 있었으며, 『존재와 시간』에서는 딜타이의 ‘이해’를 넘어 현존재 이해의 존재론적 우월성을 강조하고 시간성 안에서 역사의 문제를 새롭게 정초할 수 있었다.

인간의 학문적 인식 및 정신적 인식은 물론 해석학적인 현존재의 존재성을 실존론적 이해에서 입증하기 위해 하이데거는 후설과 딜타이의 과제에서 이탈한다. 그러나 이탈은 그들의 배제가 아니라 오히려 통합을 요구하였다. 이 통합에는 삶 전체가 어떤 근거 위에서 밝혀지는지를 끝까지 탐구하는 태도가 요구되었기에 하이데거는 인식론적 전제에서 벗어나 후설과 딜타이에 대한 인수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그 핵심이 바로 결단성이 견지된 탈자적 시간성 해석이다. 시간성이란 염려(Sorge)의 존재의미인 바, 하이데거는 삶의 전체 연관구조를 내던져 있음(Geworfenheit)을 떠맡은 현존재의 본래성에서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역사적 인식을 현존재의 본래적 차원으로 이끈다는 점에서 하이데거는 딜타이의 역사 이해와 갈라서지만, 삶 철학의 실재성을 강조할 때 하이데거가 가장 많이 염두에 두는 철학자는 분명 딜타이였다. 즉 딜타이의 삶 철학이 없었다면, 하이데거는 후설

75) M. Heidegger, *Sein und Zeit*, p.242.

의 과제에 대하여 현존재의 역사적인 것을 생각해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하이데거는 후설과 딜타이의 과제에 대한 통합을 모색함으로써 현상학에 더욱 적합한 방식으로 초월론적 과제에 진입할 수 있었다. 진입을 위한 형식적 지표가 바로 ‘현사실적 삶’이란 개념이며, 하이데거의 ‘현사실적 삶’은 후설과 딜타이의 과제를 인수-통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였다. 인간의 삶이 단지 흘러가는 전체가 아니라면, 즉 인간의 삶이 진정으로 역사적인 것이라면, 삶의 의미연관 전체는 오직 염려하는 자로서의 본래적인 자기이해로부터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이데거는 이런 ‘현사실적인 삶’에 대한 해석학적 기초를 자신의 생애 마지막까지 유지하였다.⁷⁶⁾

4. 결론 및 제언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하이데거의 현사실적 삶에 대한 해석의 과제는 어느 날 문득 등장한 것이 아니다. 그에 앞서 신칸트주의는 물론 후설과 딜타이를 통해 제시된 초월론적 과제가 있었으며, 이들과의 사상적 대결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즉 하이데거는 현사실성에서 후설과 딜타이가 입증하고자 했던 근원적이고 역사적인 삶을 발견하였으며, 이로써 인간이 세계의 해석자가 아닌 해석의 수행자임을 밝혀내었다.⁷⁷⁾ 이런 하이데거의 과제는 시간성과 역사성에 대한 해석을 토대로 인간이 자신의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주관하지 못하고 다만 확립해야 할 것으로 **떠맡은 존재**라는 것을 해명하는 것이었다. 분명 하이데거는 후설과 딜타이의 과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사실적인 삶의 전망을 자신의 과제로 안착시킬 수 있었다. 실제로 하이데거는 『시간개념』(1924)에서부터 현사실적 삶(혹은 해석학적

76) T. Sheehan, “Heidegger Never Got Beyond Facticity”, *Philosophical Investigation*, vol.13, 2019. p.46. 참조.

77) M. Heidegger, *Sein und Zeit*, p.284.

상황)을 전유하는 인간의 역사성에 대한 의문을 지녔으며, 이는 후기에도 지속된다. 예컨대 『철학의 근본물음』(1937/38) 제16~17절에서 하이데거는 역사적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표명하면서 그것이 자신만의 새로운 관념은 아니라고 말한다.⁷⁸⁾ 즉 하이데거는 신칸트주의와 딜타이를 염두에 두고 있었음이 분명한데, 따라서 하이데거의 후기 ‘전회’란 초기 역사적 물음의 영역 내에 참되게 들어서 있다는 징후일 뿐이다.⁷⁹⁾

다른 한편, 하이데거의 현사실적 삶의 전망은 이성에 대한 비판적 숙고와 더불어 삶의 무력성(Nichtigkeit)에 관한 종교적 충동이 뒤엉킨 복잡한 것이었다. 그 때문에 혹자는 하이데거의 저작들에서 마술같은 표현들을 찾아내고서 합리성의 신념아래 신비주의로 오인하기도 한다. 예컨대 후설은 하이데거의 과제에 직관적 분석과 종교적 의식이 담겨있다고 비판했는데,⁸⁰⁾ 이는 하이데거가 우연한 사실과 본질 사이의 거리를 ‘죽음을 향한 선구적 결단성’에서 급진적으로 좁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이데거의 철학적 규범은 언제나 인간의 삶이었다. 누구보다 더 철저히 인간의 삶에 머무르고자 했기에 하이데거의 철학은 근원적인 ‘현사실성의 해석학’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었다.

78) M. Heidegger, *Grundfragen der Philosophie: Ausgewählte Problem der Logik, 1937/38*, Frankfurt am Main: Vittorio Klostermann, 1992, pp.47-48. 참조.

79) M. Heidegger, *Grundfragen der Philosophie*, p.47. 참조.

80) H-W. Schütte, *Religion und Christentum in der Theologie Rudolf Ottos*, Berlin: de Gruyter, 1969, p.135.

■ 참고 문헌

- 김경배, 「하이데거의 탈자적 인간이해와 주관주의 문제」, 『대동철학』 제88집, 대동철학회, 2019, 1-33쪽.
- , 「막스 셸러의 철학적 인간학에 대한 하이데거의 비판 고찰」, 『대동철학』 제92집, 대동철학회, 2020, 47-79쪽.
- 김영한,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해석학에 대한 성찰」, 『철학논총』 제58집, 새한철학회, 2009, 173-196쪽.
- 조광제, 『의식의 85가지 얼굴: 후설 현상학의 주요개념들』, 글항아리, 파주, 2008.
- Dilthey, W., *Die Geistige Welt: Einleitung in die Philosophie des Lebens*, Vandenhoeck und Ruprecht, 1958.
- , *Der Aufbau der geschichtlichen Welt in den Geisteswissenschaft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73.
- Heidegger, M., *Aus der Erfahrung des Denkens*, Frankfurt am Main: Vittorio Klostermann, 2002.
- , *Die Kategorien-und Bedeutungslehre des Duns Scotus*, in: Frühe Schriften, 1916.
- , “Die Lehre vom Urteil im Psychologismus”, in: Frühe Schriften, Frankfurt am Main: Vittorio Klostermann, 1986.
- , *Einführung in die phänomenologische Forschung*, Frankfurt am Main: Vittorio Klostermann, 1994.
- , *Frühe Schriften*, Frankfurt am Main: Vittorio Klostermann, 1986.
- , *Grundfragen der Philosophie: Ausgewählte Problem der Logik, 1937/38*, Frankfurt am Main: Vittorio Klostermann, 1992.
- , *Metaphysische Anfangsgründe der Logik im Ausgang von Leibniz*, Frankfurt am Main: Vittorio Klostermann, 1978.
- , *Ontologie: Hermeneutik der Faktizität*, Frankfurt am

- Main: Vittorio Klostermann, 1982.
- _____, *Phänomenologie des religiösen Lebens*, Frankfurt am Main: Vittorio Klostermann, 1995.
- _____, *Phänomenologische Interpretationen zu Aristoteles. Einführung in die phänomenologische Forschung*, Frankfurt am Main: Vittorio Klostermann, 1994.
- _____, *Prolegomena zur Geschichte des Zeitbegriff*, Frankfurt am Main: Vittorio Klostermann, 1979.
- _____, *Sein und Zeit*, Tübingen: Max Niemeyer Verlag, 1979.
- _____, *Vorträge und Aufsätze*, Pfullingen: Günther Neske Verlag, 1954.
- _____, *Vorträge:1(1915-1932)*, Frankfurt am Main: Vittorio Klostermann, 2016.
- _____, *Wegmarken*, Frankfurt am Main: Vittorio Klostermann, 1976.
- _____, *Zur Bestimmung der Philosophie: 1. Die Idee der Philosophie und das Weltanschauungsproblem; 2. Phänomenologie und transzendente Wertphilosophie*, Frankfurt am Main: Vittorio Klostermann, 1994.
- _____, *Zur Sache des Denkens*, Tübingen: Max Niemeyer Verlag, 1969.
- Husserl, E., *Cartesianische Meditationen und Pariser Vorträge*, Martinus Nijhoff, Hagg, 1950.
- _____, *Die Idee der Phänomenologie*, Martinus Nijhoff, Hagg, 1958.
- _____, *Die Krisis der europäischen Wissenschaften und die transzendente Phänomenologie: Eine Einleitung in die phänomenologische Philosophie*, Martinus Nijhoff, Hagg, 1962.
- _____, *Ideen zu einer reinen Phänomenologie und Phänomenologischen Philosophie. Erstes Buch: Allgemeine Einführung in*

- die reine Phänomenologie*, Martinus Nijhoff, Hagg, 1976.
- _____, *Natur und Geist. Vorlesungen Sommersemester 1927*, Dordrecht: Kluwer, 2001.
- István, F. M., “Heidegger and the Hermeneutic Turn of Philosophy”, *kellék*, vol.11, no. 22, 1998, pp.7-22.
- Jahavi, D., *Husserl's Phenomenology*,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3.
- Sandel, A., *The Place of Prejudic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4.
- Schütte, H-G., *Religion und Christentum in der Theologie Rudolf Ottos*, Berlin: de Gruyter, 1969.
- Sheehan, T., “Heidegger Never Got Beyond Facticity”, *Philosophical Investigation*, vol. 13, 2019.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주관 의식이 내부가 아닌 언제나 바깥을 향한다는 현상학의 초월론적 과제를 하이데거가 어떻게 인수하는지 그 과정을 탐문한다. 이 목적에서 본 연구는 하이데거가 어떻게 후설의 과제를 딜타이를 통해 전유하고 배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둘을 통합하는지 살펴본다.

처음부터 존재와 씨름한 하이데거는 시간을 통해 전통적인 존재물음의 한계를 지적하고, 물음의 방향을 역사적으로 인수한다. 그 단초가 후설이며, 하이데거는 후설을 통해 실재의 문제를 탐문하는 한편, 딜타이를 통해 그의 과제를 역사적으로 인수한다. 즉 하이데거는 후설과 딜타이를 넘어 현존재 이해의 존재론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한편, 그 이해를 인간의 존재방식으로 환원한다. 그리고 그는 인간의 학문적 인식과 정신적 인식 모두 현존재에서 생기한다고 간주하고, 해석학적 존재성을 기투(Entwurf)에서 입증하기 위해 후설과 딜타이에게서 이탈한다. 그런데 후설과 딜타이로부터의 이탈은 그들에 대한 배제가 아니라 오히려 통합을 요구였다. 따라서 하이데거는 인식론적 전제에서 길러진 인간에 대한 명백한 가정들에서 벗어나 인간의 역사성을 이해하기 위해 후설과 딜타이의 초월론적 과제를 새롭게 인수한다.

주제어● 사태 자체, 초월론적 주관성, 주어져 있음, 현사실성, 역사성

■ Abstract

A Study on a Transcendental Task and Heidegger's Accepting Process of Historicity : through Husserl and Dilthey

Kim, Kyung Bae / Woo Song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how heidegger take over a transcendental task of phenomenology that a subjective awareness is always directed outward rather than inward. In this purpose, this examine how heidegger appropriates and rules out husserl's task through dilthey, and how integrates them.

Heidegger has contended with the question of being from the beginning. He has pointed out the limit of traditional question of being and historically reformed a direction of the question. The motive is husserl and dilthey, Heidegger has investigated the question of a reality ontologically and has taken over the task historically. In other words, Heidegger has gone over husserl and dilthey, has emphasized the ontological superiority of Dasein's understanding, meanwhile turning the understanding to a mode of human being. He has regarded both human scientific knowledge as emerging in Dasein, and has left husserl and dilthey in order to prove the hermeneutic beingness from projection. But the leaving from them has asked heidegger for putting them together rather than ruling them out. Thus heidegger has broken away from the obvious assumption raised by the epistemological premise, and has newly accepted their task in order to understanding human historicity.

Keyword • Thing-in-itself, Transcendental Subjectivity, Givenness, Facticity, Historicity.

■ 논문투고일:2025.01.26. ■ 심사완료일:2025.03.10. ■ 게재확정일:2025.03.18. ■

농악의 전통과 현대적 재해석, 그리고 교육콘텐츠 개발 : 화천농악 사례를 중심으로

김 태 덕*

목 차

1. 들어가며
2. 농악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가치
3. 현대 사회속에서의 농악의 변화
4. 문화융합적 접근과 콘텐츠 개발
5. 맺음말

1. 들어가며

본 연구는 농악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현대적 재해석을 바탕으로, 이를 교육 콘텐츠로 활용할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악은 한국의 대표적인 민속예술로서, 음악과 춤이 결합된 공동체적 문화 요소로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해왔다. 전통적으로 농악은 농경 사회에서 의례와 축제의 중요한 요소로 기능했으며, 공동체의 단결과 협동을 상징하는 문화적 자산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변화 속에서 농악의 문화적 위상과 역할 또한 변화

* 경상국립대학교 강사

하고 있으며,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고 활용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2014년, 농악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공동체적 예술로서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농악이 단순한 전통예술을 넘어 현대적 문화와 결합하여 다양한 교육적·예술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유산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농악의 전통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교육 콘텐츠로 개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농악의 현대적 전승 방식과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며, 특히 함안 화천농악을 사례로 교육적 접근 방법과 콘텐츠 개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농악이 단순한 기예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체험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적 가치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농악 교육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무형유산 보존회를 중심으로 ‘실천·전승·참여’라는 공동체 정신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농악 관련 연구는 약 520편이 발표되었으며, 학위 논문으로는 113편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예술·체육뿐만 아니라 교육, 사회과학, 인문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2014년 이후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교육적 접근과 전승 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다. 본 연구에서 농악의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재해석을 바탕으로 교육 콘텐츠 개발 가능성을 탐색하고, 특히 함안 화천농악을 중심으로 현대적 전승 방식과 교육적 활용 방안을 고찰한다. 농악은 한국의 전통 민속예술로서, 공동체의 협동과 단결을 상징하는 문화적 자산이지만, 현대 사회에서 변화하는 역할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농악의 전통과 현대적 요소가 융합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교육 콘텐츠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자 한다. 특히 화천농악의 ‘화천의 굿(Good) 바람’ 프로그램을 사례로 농악이 체험 교육으로 활용되는 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교육 콘텐츠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새로운 문화융합적 접근으로 농악과 현대 대중문화(K-POP 팬덤 문화, 스트리트 문화, 서브컬처 등) 및 사회운동(환경운동, 공동체운동)으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농악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현대적 변용을 분석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정성적 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연구 설계를 적용한다. 연구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한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 농악의 기원과 발전 과정, 현대 농악의 변화 및 문화적 융합 사례를 검토한다. 기존 연구 및 학술 자료를 분석하여 농악의 역사적 의미와 현대적 활용 방안을 도출하고, 유네스코 등재 문헌, 국가무형문화유산 관련 보고서, 국내외 학술 논문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둘째, 사례 분석을 통해 화천농악의 전승 방식과 현대적 활용 가능성을 분석한다. 특히, 화천농악이 체험 교육 프로그램과 전수교육관 운영을 통해 전승되고 있는 방식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농악 교육 콘텐츠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셋째,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농악 교육 콘텐츠의 실효성을 평가한다. 농악 전승자, 교육 담당자, 프로그램 운영자, 학습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여 교육 프로그램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농악 교육 콘텐츠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향후 연구에서 다룰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농악이 현대적 맥락에서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 교육적 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전승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농악이 학교 교육 및 통합 교육의 일환으로 자리 잡고, 현대 사회에서도 유의미한 문화 콘텐츠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2. 농악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가치

1) 농악의 역사적 배경

농악의 기원은 고대 국가의 제천의식(祭天儀式)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후 음악과 춤이 결합된 형태로 발전하며 오늘날의 농악으로 자리 잡았다. 농악의 기원과 형성 과정을 직접적으로 기록한 문헌은 드물지만, 다양한 역사적 기록과 연구를 통해 그 변천 과정을 유추할 수 있다.

먼저, 고대 국가에서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천의식을 거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음악과 춤이 함께 이루어졌다. 부여의 '영고(迎鼓)', 예의 '무천(舞天)', 마한의 '5월제'와 '10월제', 고구려의 '동맹(東盟)'과 같은 의식은 농악의 기원적 형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러한 제천의식에서는 신을 찬양하는 가무(歌舞)가 행해졌으며, 공동체 단위로 모여 축제의 형태를 띠었다는 점에서 농악의 주요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농악이 의례적 기능뿐만 아니라 오락적 요소를 포함한 종합 예술로 정착하였다. 특히, 중국에서 유입된 나례(儺禮)는 고려에서 구나의식(驅儺儀式)으로 변화하며, 악귀를 쫓고 복을 기원하는 기능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요소는 오늘날 농악의 '지신밟기(地神踏)'와 같은 의례적 형태로 계승되었다. 이러한 기능은 오늘날 농악의 지신밟기(地神踏)와 유사한 형태로 남아 있다. 고려 말과 조선 초기에 기록된 『삼국사기』 속 신라의 길쌈두레는 공동체 노동과 음악, 놀이가 결합된 형태로, 농악의 기원적 요

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1] 굿중패 연희 장면1)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농악은 지역과 목적에 따라 보다 체계적으로 분화되었으며,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발전하였다.

첫째, 두레농악은 농민들이 공동노동을 하면서 피로를 덜고 작업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는 마을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역할을 하였으며, 농사철마다 노동요와 함께 연행하였다.

둘째, 축원농악은 나례에서 유래한 형태로,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며 행해졌다. 특히, 지신밟기와 같은 의례적 요소가 포함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설날과 정월대보름 등의 행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셋째, 걸립농악은 불교문화와 연계되어 민간에서 공연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사찰에서 쫓겨난 승려들이 민간을 떠돌며 농악을 연주하며 기부금을 받았으며, 이는 이후 민속 예술 공연으로 자리 잡았다.

넷째, 사당패 및 남사당패 농악은 전문 예술인들에 의해 연행되었으며, 줄타기, 버나 돌리기, 탈놀이 등과 결합하여 보다 대중적인 공연 예술로 발전하였다.

다섯째, 일제강점기에는 걸립농악이 대중적인 공연 형태로 활성화되었

1) 김준근, 『기산풍속도첩』, 조선 말기, 국립모스크바동양박물관, 러시아.

으며, 1970년대 이후 사물놀이가 등장하면서 농악의 현대적 변용이 가속화되었다. 현대에 들어서 농악은 단순히 전통적인 축제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형 공연장, 문화 축제, 국제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무대에서 공연되고 있으며, 공동체 놀이에서 개인 놀이로 변모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농악은 시대적·문화적·사회적 변화에 따라 변형되며 지속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문화적 요소이다.

2) 농악의 전통적 역할과 기능

농악은 단순한 연희가 아니라 공동체 활동의 중심이자 지역 사회의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문화적 요소였다. 전통적으로 농악은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마을 공동체의 협동심을 강화하며,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농악은 마을 신앙과 결합하여 ‘지신밟기’와 같은 의례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면서 공동체의 안정과 번영을 기원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악은 단순한 음악적 요소를 넘어 공동체 문화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공동체적 가치는 농악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재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농악은 음악, 춤, 연극적 요소가 결합된 복합 예술로, 전통적으로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농악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표 1]와 같다.

[표 1] 농악의 구성 요소

구성요소	내용
음악적 요소	팽과리, 징, 북, 장구, 태평소 등의 악기를 사용하여 장단을 구성함
무용적 요소	부포놀이춤, 설장구춤, 북춤, 소고춤 등 역동적인 춤 동작이 포함됨.
연극적 요소	잡색놀이, 즉흥적인 대사와 익살스러운 표현을 통해 관객과 소통.
놀이적 요소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역할 수행.

이처럼 농악은 전통적으로 풍년을 기원하는 의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마을 주민들이 함께 연주하고 춤을 추면서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기능을 수행했다. 이러한 전통문화는 현대 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승될 필요가 있으며, 교육적·사회적·문화적 활용 가능성이 크다.

3) 농악의 문화적 가치

문화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며,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축적되는 특성을 갖는다. 농악 역시 이러한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며, 단순한 전통예술이 아니라 음악과 춤, 공동체 정신이 결합된 종합예술로서 시대에 따라 변화하며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형성해 왔다.

농악은 1966년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2014년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되었다. 유네스코는 농악이 공동체적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협력, 지속적인 전승 가능성, 대중과의 소통, 전문 예술가들과의 상호작용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여 등재되었다. 이러한 농악의 가장 중요한 문화적 가치는 공동체 정신에서 비롯된다. 농악은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하나의 공연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공동체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공동체 정신은 특정 지역의 전통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대 사회에서도 농악은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다양한 문화적 요소와 융합되며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농악은 다양한 음악 장르 및 공연 예술과 융합되어 현대적 공연 형식 속에서 창의적 표현 방식을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오늘날 현대 축제 및 행사에서 농악이 퍼레이드 및 퍼포먼스 형태로 활용되거나, K-POP 팬덤 문화, 스트리트 문화, 환경운동, 서브컬처 등과 융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농악이 현대적 감각과 결합하여 새로

은 문화 콘텐츠로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농악은 단순한 전통예술이 아니라 교육적 가치도 지닌다. 과거 전통적인 농악은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며, 협업과 창의적 표현 능력을 키우는 데 기여 하였다. 이러한 농악을 활용하여 체험형 교육 콘텐츠로 개발하여 학생들이 직접 연주하고 춤을 추면서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공동체적 성격을 지닌 예술로서, 세대 간·계층 간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소통 문화는 지역 축제에서 농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통합 기능과도 연결된다. 또한, 농악의 전통적 요소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창의적인 예술 활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농악이 지닌 전통성과 현대기술과 함께 아우르는 문화예술로 성장하며, 지속 가능한 전승을 위한 교육적·사회적·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농악은 미래 세대에게 계승되고 활용될 가치가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적·문화적 접근이 요구된다.

3. 현대 사회 속에서의 농악의 변화

1) 현대 사회 속에서의 농악의 변화 요인

현대 사회에서 농악은 전통적인 농경 사회에서의 역할을 벗어나 시대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문화적 맥락으로 전승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대표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 미디어 및 공연 예술 산업의 발달, 교육 환경의 변화 등이 농악의 전승 방식과 활용 형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산업화와 도시화는 농악의 공동체적 기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과거 농악은 농경 사회에서 마을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으나, 현대에는 농업 종사 인구 감소와 개인 중심 사회로의 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농

악 연행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로 인해 마을 단위에서 자연스럽게 전승되던 농악의 방식이 점점 약화되었다.

둘째, 미디어와 공연 예술 산업의 발달은 농악을 대중적인 공연 예술로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과거 농악은 지역 축제나 마을 행사에서 연행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으나, 현대에는 공연 무대에서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 예술로 정착하고 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등장한 사물놀이는 전통 농악의 요소를 현대적 공연 형식으로 변형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를 통해 농악이 현대 대중문화 속에서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셋째, 교육 환경의 변화 역시 농악의 현대적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이다. 현대 사회에서 농악은 단순한 전통 예술이 아니라, 교육적 가치를 지닌 문화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에서 농악이 전통문화 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으면서, 청소년들이 농악을 체험하고 배우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농악이 단순한 공연 예술을 넘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교육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처럼 농악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공동체적 기능이 약화되었지만, 공연 예술과 교육 콘텐츠로 변모하면서 현대 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전승되고 있다.

2) 농악의 현대적 재해석

농악의 현대적 변형은 단순한 공연 형식의 변화가 아니라,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해석이 결합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농악의 현대적 재해석’은 농악이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과거 농악은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했지만, 현대 사회

에서는 개별적인 문화 소비가 증가하면서 보다 창조적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악도 전통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무대 연출과 퍼포먼스 요소를 강화하여 대중적 형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농악은 현대 대중문화와 융합되며 글로벌 콘텐츠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K-POP과 농악의 융합 공연, 퍼레이드형 농악 공연, 퓨전 국악과의 결합 등은 농악이 현대적 감각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때, 농악의 현대적 재해석은 단순한 공연 형식의 변화가 아니라, 농악이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K-POP과 농악의 융합 공연, 퍼레이드형 농악 공연, 퓨전 국악과의 결합 등은 농악이 현대적 감각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3) 농악의 교육적 접근

농악은 전통예술의 공연뿐만 아니라, 공동체 정신, 협동, 정체성 형성 등의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지닌 무형문화유산이다.²⁾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2조 1항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을 공동체, 집단 및 개인들이 문화유산의 일부로 인식하는 실행, 표출, 표현, 지식 및 기술로 정의하며, 이는 농악이 단순한 공연 예술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정체성과 긴밀히 연결된 공동체적 유산임을 시사한다.³⁾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농악 교육은 점점 위축되고 있으며, 실제 교육 현장에서 농악을 접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연구들은 초등학교 음악 교육에서 농악의 활용 가

2)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2조 1항, 2003.

3) 오창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협약의 가치와 실현수단에 관한 연구: 공동체, 보호, 참여 개념을 중심으로」, 『무형유산』 제10호, 국립무형유산원, 2021, 15쪽.

능성, 농악을 통한 정서 교육 효과, 전통 음악 교육과 현대 교육 방법의 융합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여전히 농악 교육은 전공자 중심의 전승 활동으로 한정되거나, 기예 중심의 교육으로만 운영되는 한계를 보인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에서 국악 교육이 축소되면서, 농악을 포함한 전통 예술 교육이 일부 아르떼 강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⁴⁾ 그러나 이러한 교육 방식은 농악의 종합예술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한 연주 기술 중심의 교육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농악 교육의 현대적 필요성을 반영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요구되며, 단순한 전통문화 보존을 넘어 창의성, 공동체 의식, 문화적 정체성 강화 등의 교육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농악 교육의 주요 목표

농악 교육은 전통문화 보존, 공동체 의식 함양, 창의적 사고 개발, 글로벌 문화 감각 형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 방식을 도입하여 농악의 가치와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먼저, 전통문화 보존 및 정체성 이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농악을 배우면서 한국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문화유산이 지닌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한 이론 중심의 교육을 넘어서, 체험형 학습을 통해 전통문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해석하고 응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공동체 의식과 협동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악은 여러 명이 함께 연주하고 춤을 추는 협업 예술이므로, 학생들이 팀

4) 서울시교육청, <https://www.sen.go.kr/>, 2025.02.04.

워크와 협업 능력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연습 과정에서 악기 연주와 퍼포먼스를 함께 경험함으로써 사회적 관계 형성과 소통 능력을 기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타인과 협력하는 법을 배우고,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공동체 정신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다.

셋째, 창의적 사고 및 표현력 개발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농악의 전통적 요소를 바탕으로, 현대적 공연 형식과 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악의 리듬을 활용하여 K-POP과 결합한 퍼포먼스를 기획하거나, 뮤지컬·미디어 아트 등과 접목한 창의적 공연 제작을 시도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단순한 전승 교육이 아닌, 창의적 응용력을 배양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 시민 교육 및 글로벌 문화 감각 형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 농악은 한국의 전통예술이지만, 이를 세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기회도 필요하다. 학생들이 농악을 배우면서 다양한 국가의 전통음악과 비교·체험하는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익히고 글로벌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와 소통하고 수용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

(2) 농악 교육의 접근 방법

현재 농악 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제식 교육 방식과 현대적 교수법을 융합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체험형 교육 강화, 문화 융합형 콘텐츠 개발, 디지털 기술 활용, 학교 교육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전략을 적용할 수 있다. 농악 교육 교수법에는 첫째, 체험형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기존의 농악 교육은 단순한 연주 기술 교육에 치우쳐 있어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습과 체험 중심의 학습 방식으로 전환하여 학생들이 직접 악기를 연주하고 퍼포먼스를 기획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악 체험 교실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북, 장구, 팽과리 등의 악기를 다루고 공연을 기획하는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문화 융합형 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농악을 현대적 감각과 접목하여 보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악과 K-POP을 결합한 공연 기획, 스트리트 댄스 및 환경 운동과의 융합 프로젝트 운영, 농악의 리듬을 활용한 퓨전 음악 교육 등이 가능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전통문화를 단순히 배우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창조하고 표현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셋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농악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대의 교육 환경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학습 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농악 체험 콘텐츠 개발,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SNS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학생들이 농악을 보다 친숙하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학교 교육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농악을 단순한 특별활동이 아니라 정규 교육 과정, 방과 후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전통예술 체험 교실을 운영하거나, 학교 내 농악 동아리를 활성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전통예술 체험 교실’ 프로그램처럼, 학생들이 직접 농악을 배우고 공연을 기획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면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4. 문화융합적 접근과 콘텐츠 개발

농악은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전통적 요소를 유지하며, 현대적 감각과 결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공연 예술, 관광, 교육 등의 영역에서 농악이 적극 활용되며, 문화 융합적 접근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최근 농악은 현대적 감각과 결합하여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산업 및 공연예술과의 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함안 화천농악의 ‘화천의 굿(Good) 바람’ 프로그램은 농악을 차박 캠핑, 체험형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전통문화 체험과 지역 관광을 융합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화천의 굿’ 프로그램과 같은 사례는, 농악이 단순한 전통 보존을 넘어 현대적 의미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며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문화 융합적 접근을 통해 농악은 새로운 예술적 표현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전통 예술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 전통 농악과 차박 캠핑 트렌드의 융합

함안 화천농악 전수관에서 진행한 ‘화천의 굿(Good) 바람’ 프로그램은 차박 캠핑과 전통 농악 체험을 결합한 대표적인 문화융합 사례이다. 참가자들은 캠핑을 하면서 농악을 배우고, 다양한 전통놀이를 체험하며 한국 전통문화를 보다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 사업은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함안 화천농악전수관에서 진행되었으며, 차박 캠핑 프로그램을 통해 총 712명이 함안을 방문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1박 2일 일정으로 운영되었으며,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참가자들은 지정된 장소에서 캠핑을 하면서 농악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참가자들은 전통

농악 체험 및 놀이마당 프로그램을 통해 농악의 기본 연주법을 익히고, 공연 관람을 통해 전통 농악의 예술적 가치를 경험하였다.

차박 캠핑 프로그램에서는 전통유희 놀이마당 체험이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었다. 참여자들은 농악 악기 체험(북, 장구, 쇠)과 전통 연희 체험(죽방울, 죽마, 버나), 전통 놀이 체험(투호, 판제기, 대형 윷놀이) 등을 통해 농악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활동은 참가자들에게 전통문화를 보다 친숙하게 접할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프로그램은 전통 유희 활동과 놀이마당 체험으로 주요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전통유희·놀이마당 체험 내용

프로그램	체 험 내 용
전통유희	농악 악기 체험: 북, 장구, 쇠
놀이마당	전통 연희 체험: 죽방울, 죽마, 버나
	전통 놀이 체험: 투호, 판제기, 대형 윷놀이

함안 화천농악의 공연은 여는 마당, 본 마당, 뒤풀이 마당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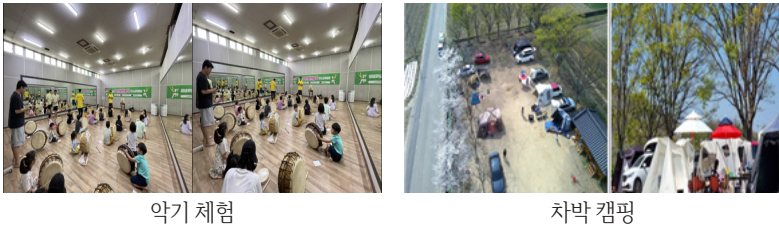
사업 홍보 및 행사 진행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사업 홍보 팸플렛 및 행사진행 사진⁵⁾

5) 화천농악전수관에서 받은 자료임, 2024.12.05.

여는 마당은 관객과 공연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하는 시간으로 운영되었다. 참가자들은 바디 퍼커션과 추임새 연습을 통해 공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농악 연희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본 마당에서는 참가자들이 죽방울과 버나 놀이를 체험한 후, 함안 화천농악의 판굿 12마당과 개인 놀이 공연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농악 연희의 역동성과 예술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악기체험과 차박 캠핑 관련 자료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악기체험과 차박캠핑⁶⁾

본 마당에서는 전통 연희 공연이 시작되었다. 참가자들은 죽방울과 버나 놀이를 체험한 후, 함안 화천농악의 판굿 12마당과 개인 놀이를 감상하였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 구성은 참여자들에게 농악의 전통을 직접 체험하고, 전통문화의 의미를 공유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림 4] 함안 화천농악 전수관 활동 사진⁷⁾

6) 화천농악전수관에서 받은 자료임, 2024.12.05.

7) 화천농악전수관에서 받은 자료임, 2024.12.05.

‘화천의 굿(Good) 바람’ 사업은 차박 캠핑과 전통문화를 융합하여 주목을 받은 사례이다. 함안 화천농악 전수관에서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한 결과,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전수교육관의 개방으로 인해, 기존의 폐쇄적인 문화유산 시설이 개방형 문화공간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방문객 수가 증가하였다. 함안 화천농악을 기반으로 한 여러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연령층이 농악을 체험할 기회를 가졌다.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공연 관람과 전수교육관 방문이 활발해졌으며, 전통문화 전승 기능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전통 농악과 차박 캠핑의 문화융합 성과에서 몇가지 문제점으로는

첫째, 프로그램이 전통문화 체험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현대적 라이프스타일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요소가 부족하여 지속적인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는 데 한계를 보였다. 둘째,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을 단순한 전통문화 체험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보다 자연스럽게 즐거운 여가 활동으로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지속적인 문화적 요소를 추가하는 방안이 요구되었다. 차박 캠핑과 농악 공연의 결합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추가적인 콘텐츠 개발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전통문화를 단순히 체험하는 데 그치고 있어, 현대 생활에 실제적으로 연관된 문화적 요소로 자리매김하는 데 부족한 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프로그램은 문화유산 체험 이상의 가치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문화적 향유와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

로, 지속 가능한 사고의 확산이 강조된다. 현대적 문화와 전통문화를 성공적으로 결합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끊임없이 시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끌어들 수 있는 추가 프로그램 콘텐츠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캠핑 현장에서 농악 공연과 연계된 다양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함안화천농악전수관을 방문하고 보유자 면담⁸⁾을 통해 프로그램을 콘텐츠화하는 전략으로 문화 융합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문화융합은 서로 다른 문화적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산물을 창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결합을 넘어 각 문화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조적 통합을 뜻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글로벌화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문화가 만나고 융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융합은 예술적 창의성을 증대시키고 혁신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농악의 문화융합사례

농악은 전통적인 음악과 춤,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현대 문화와 융합하여 새로운 예술적 표현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K-POP, 스트리트 문화, 환경 운동, 디지털 콘텐츠와의 융합 사례는 농악이 현대적 감각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융합 사례들은 농악의 예술적 가능성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농악이 공동체 의식과 협동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먼저, K-Pop 팬덤 문화⁹⁾와 농악의 융합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K-POP 공연에서는 전통 타악기의 리듬감을 응용하거

8) 본 연구에서는 2024년 12월 13일부터 27일까지 함안 화천농악 전수관을 방문하여 배병호 예능보유자와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콘텐츠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9) 특정한 인물이나 분야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그러한 문화현상. (두산백과사전-팬덤, 2025.03.01.)

나, 농악의 역동적인 춤사위를 현대적 퍼포먼스와 결합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방탄소년단(BTS)의 ‘IDOL’¹⁰⁾ 무대에서는 한국 전통 음악 요소와 타악 리듬이 현대적인 무대 연출과 결합되어 강렬한 퍼포먼스를 연출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농악의 전통적 요소가 현대 대중문화와 결합하여 글로벌 무대에서도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젊은 층이 농악을 친숙하게 접할 기회를 제공하며, 농악이 단순한 전통예술이 아니라 세계적인 대중문화 속에서 재해석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농악의 전통적 동작과 현대적인 스트리트 문화가 결합하는 사례로, 비보이 댄스와 농악의 장단을 접목한 퍼포먼스가 시도되고 있다. 2019년 ‘비보이와 전통 농악의 만남’¹¹⁾ 프로젝트에서는 농악 장단을 활용한 스트리트 댄스 퍼포먼스가 선보였으며, 이는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새로운 예술 형식으로 평가받았다. 이러한 시도는 농악이 단순한 전통예술이 아니라, 현대적 감각과 융합하여 보다 창의적인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농악의 공동체적 특성을 활용하여 환경 운동 및 사회운동에도 접목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후위기 대응 농악 행진’에서는 전통 농악 연주와 행진을 결합하여 환경 보호 메시지를 전달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활용되었으며, 공동체 의식과 환경 보호의 가치를 결합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농악의 전통적 요소가 온라인 게임 콘텐츠에도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한국 전통문화 기반 메타버스 게임 ‘전통의 리듬’에서는 농악 장단을 기반으로 한 리듬 게임 콘텐츠가 개발되었으며, 이를 통해 젊은 세대가 전통 리듬과 퍼포먼스를 가상 환경에서 체

10) 나무위키, <https://namu.wiki/w/IDOL>, 2025.02.05.

11)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eO7ci_LqmCQ, 2025.02.05.

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는 전통문화의 디지털 환경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처럼 농악은 다양한 현대적 문화 요소와 융합되며, 공연 예술, 대중문화, 디지털 콘텐츠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악은 과거의 문화유산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 감각을 반영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표 3]과 같이 농악의 문화적 융합사례 분석으로 살펴볼 수 있다.

[표 3] 농악의 문화적 융합사례

융합분야	사례 및 설명
K-Pop 팬덤문화	- K-Pop 공연에 농악의 리듬과 춤을 도입하여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는 사례. - 젊은 층에게 농악을 알리고,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임.
스트리트 문화 및 서브컬처	- 스트리트 댄스와 농악의 동작을 결합한 퍼포먼스. - 농악의 동작을 현대적인 스타일로 재해석하여, 다양한 문화 속에서 농악의 위치를 확고히 함.
환경 운동 및 사회운동	- 환경 운동의 퍼포먼스에서 농악을 활용하여 공동체의 단결과 협동을 상징하고 메시지를 전달. - 사회운동에서도 농악을 활용하여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
온라인 게임커뮤니티	- 농악의 요소를 온라인 게임에 도입하여 전통문화를 디지털 플랫폼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함. - 전통문화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보급하는 데 기여.

문화융합은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도전으로 인식되지만, 과거에도 다양한 문화가 상호작용하며 발전해 온 사례가 존재한다. 한국의 전통 음악과 춤이 다른 문화와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한 사례는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과거에도 다양한 문화가 융합되면서 전통예술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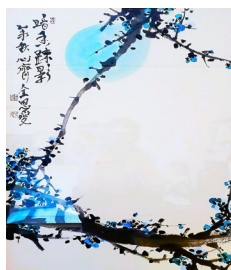
먼저, 판소리는 현대 음악 장르(재즈, 힙합 등)와 결합하여 새로운 음악적 표현을 창출하는 대표적인 전통예술 융합 사례이다. 이러한 융합은 판

소리를 단순한 전통예술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인 감각을 반영하여 젊은 세대가 더욱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통음악의 새로운 관객층을 확보하고, 현대적인 공연 예술과 결합된 창의적 표현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미술 분야에서도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은혜 작가의 ‘함성’은 전통 문인화 기법과 밝은 색감의 수채화 기법을 융합하여 새로운 예술적 표현을 창출하였다. 이 작품은 전통적인 여백의미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융합은 전통적인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보다 다양한 예술적 표현 방식을 도출하고 전통 미술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전통 한복의 형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보다 편리하고 일상적인 의류로 변화시킨 사례도 있다. 이는 한복의 대중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융합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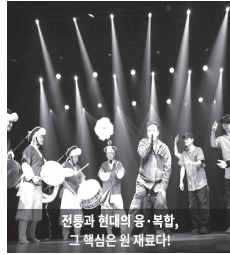
공연예술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사물놀이와 현대 퍼포먼스의 융합은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림 5] 전통과 현대의 융합¹²⁾

12) 뉴포커스피플, “전통과 현대의 융합, 새로운 경향의 문인화”, <뉴포커스피플>, 2023.04.11.; 꽃담 전은혜, 서예와 문인화, 2023, 뉴포커스피플, <https://www.newfocuspeo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86>, 접속일 2024.07.11.

예를 들어 ‘무브먼트 코리아(MOVEMENT KOREA)’프로젝트에서는 사물놀이를 중심으로 비보이, 비트박스, 디제잉, 진도복춤 등 현대적 퍼포먼스를 결합한 창작 연희를 선보였다. [그림 6]은 전통예술의 현대적 변주를 통해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한 사례이다.



[그림 6] 광개토 사물놀이 예술단¹³⁾

해외 전통예술과 현대 문화의 융합 사례를 일본 가부키와 현대 연극의 융합은 전통 연극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사례 중 하나이다. 가부키는 일본의 전통적인 연극 형식이지만, 현대적 연출 기법을 접목하여 보다 넓은 관객층을 대상으로 공연되고 있다. 이는 전통 연극의 미적 요소와 퍼포먼스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무대 기술과 조명을 활용하여 극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 경극과 영화 산업의 결합 또한 전통예술을 현대적으로 변형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경극은 중국의 전통적인 공연 예술이지만, 현대 영화 기법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는 경극의 정형화된 연기 방식과 서사를 현대적 영상 기술과 접목하여 보다 역동적인 표현 방식을 가능하게 하고, 세계적인 관객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13) 이재훈, “전통과 현대의 융복합, 그 핵심은 원 재료다!”, <고양문화재단>, 2020.12.22.; 노승환·안재경, 무브먼트 코리아, 2020, 고양문화재단, <http://webzine.artgy.or.kr/?p=19282>, 접속일 2024.07.05.

함안 화천농악의 ‘화천의 굿(Good) 바람’ 프로그램은 전통 농악과 차박 캠핑을 결합하여 현대적 감각을 반영한 문화융합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 프로그램은 전통문화와 현대적 여가 활동을 결합하여,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문화융합을 통한 콘텐츠 개발은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전통문화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으로도 농악을 비롯한 전통문화는 새로운 형태의 공연, 디지털 기술, 현대적인 감각과의 융합을 통해 보다 창조적인 콘텐츠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전통문화는 단순히 과거의 유산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으며, 다음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전승될 수 있을 것이다.

3) 농악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디지털 확장

현대 사회에서 농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교육 콘텐츠 개발이다. 전통적으로 농악은 마을 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학습되던 방식으로 전승되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악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으며, 이는 농악의 현대적 재해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농악의 리듬과 춤사위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가공하여 교육 프로그램에 접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농악의 장단을 활용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며, 체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농악을 연주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농악과 현대적 창작요소로 결합한 융합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창의적 예술교육을 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농악 교육의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전통적으로 농악은 대면 교육과 현장 체험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왔지만,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가상현실(VR),¹⁴⁾ 증강현실(AR)¹⁵⁾과 같은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면서 보다 접근성이 높은 교육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접근은 농악을 배우고 체험하는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전통 농악을 현대적인 교육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교육 콘텐츠의 개발은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다양한 교육 기관과 전통예술 관련 단체들이 농악을 학습할 수 있는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농악의 기초 이론과 연주법을 익힐 수 있으며, 전문 강사들의 설명과 실연 영상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또한,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농악 체험 프로그램도 개발되고 있다. VR 기술을 활용하면 학습자가 실제 농악 공연장에 있는 것처럼 몰입하여 연주를 경험할 수 있으며, AR 기술을 통해 실제 공간에서 농악 장단과 춤 동작을 인터랙티브하게 학습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도입은 농악을 직접 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해외에서도 한국의 전통 농악을 보다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악보 및 인터랙티브¹⁶⁾ 콘텐츠 개발도 농악 교육의 중요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종이에 기록된 악보 대신, 디

14) 특정한 장소나 상황을 3차원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하여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두산백과사전-가상현실, 2025.03.01.)

15) 실제 존재하는 현실의 이미지에 가상의 부가 정보를 덧붙여서 보다 증강된 현실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기술.(두산백과사전-증강현실, 2025.03.01.)

16) 사용자가 데이터나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 ‘상호간’의 뜻을 지닌 인터(Inter-)와 ‘활동적’의 뜻을 지닌 액티브(Active)의 합성어.(두산백과사전-인터랙티브, 2025.03.10.)

지털 환경에서 농악의 장단과 연주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디지털 악보는 학습자가 악보를 실시간으로 조작하고 직접 연주해볼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보다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농악을 습득할 수 있으며, 개별 연습과 그룹 학습에도 활용될 수 있다. 최근 AI기술로 창작음악 작업¹⁷⁾ 역시 농악에서도 적용 가능성을 열었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농악 교육 콘텐츠 개발은 농악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전통 농악의 교육 방식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확산 가능성을 높이고 농악의 글로벌 전승과 보급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4) 농악 융합형 교육 콘텐츠 개발

농악의 지속적인 전승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며, 전통적인 교수법과 현대적 교육 방식을 조화롭게 결합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

(1) 농악과 K-Pop 팬덤 문화를 통한 교육 콘텐츠 개발

융합형 예술 교육 접근으로 농악의 전통적 요소를 현대적인 예술 장르와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융합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다. 현대 예술교육에서는 전통과 현대를 접목하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 방식을 농악 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악의 타악 리듬과 퍼포먼스를 K-POP 공연에 활용하거나, 스트리트 댄스와 결합하여 보다 역동적인 무대 형식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서브컬처 요소인 비보이 댄스, 힙합 리듬 등과 융합하여 학생들이 보다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17) 수노, <https://suno.com/invite/@whimsicallegend4683>, 2025.03.11.

이러한 융합형 교육을 통해 농악은 전통적인 예술 형태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한 새로운 예술 교육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악의 교육적 활용을 위해 다양한 활동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K-POP 팬덤 문화와 연계한 교육 활동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표 4]에 정리하였다.

[표 4] 농악과 K-Pop 팬덤 문화를 통한 교육 콘텐츠 개발

콘텐츠 명	교육 활동
전통과 현대 음악 비교	■ 목표: 전통 음악과 현대 대중음악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이해하고, 음악적 감수성을 키운다 ■ 활동내용: 농악과 K-Pop 음악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각각의 음악적 요소를 학습. ■ 교수법: 학생들은 농악과 K-Pop 곡을 듣고, 리듬, 멜로디, 악기 사용 등을 비교하는 활동. · 농악의 전통 악기와 K-Pop의 현대적 제작 기법을 체험하기
공동체 의식 강화 프로젝트	■ 목표: 학생들이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협력과 소통의 가치를 배운다. ■ 활동내용: 농악과 K-Pop 팬덤 문화에서 나타나는 공동체 의식을 주제로 프로젝트 활동 ■ 교수법: 농악 공연 준비 과정과 K-Pop 팬덤의 활동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동체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활동.
창작 및 퍼포먼스	■ 목표: 창의성과 팀워크를 통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예술적 표현 능력을 향상 ■ 활동내용: 학생들이 농악과 K-Pop을 결합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 공연 ■ 교수법: 학생들은 농악의 전통 리듬과 K-Pop의 현대적 춤을 결합한 퍼포먼스를 기획. 이를 위해 농악 연주와 K-Pop 안무를 함께 연습하고, 최종적으로 무대에서 발표
문화적 정체성 탐구	■ 목표: 학생들이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이해하고,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 한다. ■ 활동내용: 농악과 K-Pop을 통해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탐구하는 활동 ■ 교수법: 학생들은 농악의 역사와 K-Pop의 발전 과정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적 정체성에 관한 에세이 작성이나 발표 · 전통 농악 공연과 K-Pop 콘서트를 함께 관람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
인터랙티브 워크숍	■ 목표: 참여와 체험을 통해 전통과 현대 문화 소통하기 ■ 활동내용: 농악과 K-Pop 팬덤 문화를 주제로 한 인터랙티브 워크숍을 개최 ■ 교수법: 전문가를 초빙하여 농악 연주와 K-Pop 안무를 가르치는 워크숍 진행

[표 4]에서 제시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방안은 농악을 현대 문화와 융합하여 젊은 세대가 보다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K-Pop의 인기곡에 농악의 리듬과 춤을 접목한 퍼포먼스를 구성하는 방식은 학생들이 농악의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전통예술 교육을 넘어, 참여형 학습과 창작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농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농악의 전통적 춤사위와 현대적 안무가 결합된 퍼포먼스를 통해,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확장하고 공연 예술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 농악과 스트리트 문화 및 서브컬처를 통한 교육 콘텐츠 개발

현대 사회에서 농악 교육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젊은 세대가 보다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스트리트 문화 및 서브컬처와의 융합을 통해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농악의 교육적 가치와 예술적 가능성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된 예술적 경험을 나누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농악의 전통적인 리듬(판굿 장단, 설장구 장단 등)과 춤 동작(부고놀이, 상모놀이 등)을 스트리트 댄스(브레이킹, 팝핑), 힙합 리듬과 결합하여 창의적인 교육 콘텐츠로 개발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농악의 북 장단을 활용한 비트메이킹(Beat Making) 워크숍이나, 상모놀이와 비보잉 동작을 접목한 퍼포먼스 교육이 가능하다. 이러한 교육 콘텐츠는 전통 예술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공동체적 협력과 창작 활동을 유도하는 학습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표 5]에서는 농악과 스트리트 문화 및 서브컬처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방안을 정리하였다.

[표 5] 농악과 스트리트 문화 및 서브컬처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 개발

콘텐츠 명	교육 활동
전통과 현대의 융합 퍼포먼스	전통 농악과 스트리트 댄스를 결합한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공연. 학생들이 농악의 전통 리듬을 활용하여 창작 안무를 구성하고, 무대에서 발표하는 방식.
문화 교류 프로젝트	농악과 스트리트 문화 간의 공통점을 탐색하는 프로젝트 진행. 예를 들어, 농악 연주자와 스트리트 댄서들이 협업하여 공동 창작물을 제작하고, 상호 학습을 통한 문화적 이해를 도모.
창의적 예술 축제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농악과 스트리트 문화 중심의 융합형 예술 축제를 개최. 농악 공연, 스트리트 댄스 배틀, 힙합 공연, 그래피티 아트 등을 포함한 융합적 예술 행사 진행.
역사와 문화 탐방 프로그램	농악과 스트리트 문화의 역사적 배경을 탐색하는 프로그램 운영. 예를 들어, 전통 농악 보존 마을 방문과 현대 스트리트 아트 탐방을 통해 두 문화의 연결고리를 찾는 체험 활동.
디지털 아카이브 및 온라인 플랫폼	농악과 스트리트 문화를 디지털 콘텐츠로 기록하고 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전통 리듬과 현대 음악을 결합한 샘플링 콘텐츠 제작 및 공유.

(3) 농악과 환경 운동 및 사회운동을 통한 교육콘텐츠 개발

농악은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는 전통예술로, 환경 운동 및 사회운동과 결합하여 교육적 가치와 실천적 의미를 확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농악은 단순한 문화유산을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다.

농악의 집단적 협업 구조와 역동적인 퍼포먼스(판굿, 대동놀이, 길놀이 등)는 환경 보호 및 사회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공동체 중심의 연희 형식은 참여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집단적 행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악의 강렬한 장단과 대동놀이 형식을 활용하여 기후 변화 대응 캠페인에서 시민 참여형 퍼포먼스를 기획하거나, 환경 보호 운동에서 길놀이를 통해 친환경 메시지를 전달하는 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평화 시위에서는 북과 장구 연주를 통해 결속력을 강조하고, 공동체적 연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

다.

이러한 교육 활동을 통해 농악은 단순한 전통예술을 넘어, 환경 보호 및 사회적 이슈를 알리는 퍼포먼스로 발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동놀이 형식을 활용한 환경 캠페인이나, 농악 장단을 활용한 평화 시위 퍼포먼스는 공동체적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교육적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농악을 활용한 환경 및 사회운동 교육 콘텐츠의 구체적인 방안을 [표 6]에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 및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는 체험형 교육 콘텐츠를 구축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사회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다.

[표 6] 농악과 환경 운동 및 사회운동을 통한 교육콘텐츠 개발

콘텐츠 명	교육 활동
환경 보호 캠페인과 농악 공연	■ 목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악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 ■ 활동내용: 환경 보호를 주제로 한 농악 공연을 기획하고, 이를 통해 환경 의식을 고취하는 캠페인 전개. ■ 교수법: 농악 공연을 통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재활용, 에너지 절약 등 실천 방안을 소개하기. 공연 후에는 관객들과 함께 나무 심기, 강 청소 등 환경 보호 활동 진행.
농악을 통한 지역 사회 발전 프로젝트	■ 목표: 지역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 ■ 활동내용: 농악을 활용한 지역 사회 발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 ■ 교수법: 농악 공연과 워크숍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행사를 개최. 이와 함께 지역 사회의 필요에 맞춘 사회적 프로젝트 (예: 마을 환경 개선,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등)를 연계하여 진행.
농악과 사회적 이슈를 결합한 퍼포먼스	■ 목표: 지역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 ■ 활동내용: 농악을 활용한 지역 사회 발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 ■ 교수법: 농악 공연과 워크숍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행사를 개최. 이와 함께 지역 사회의 필요에 맞춘 사회적 프로젝트 (예: 마을 환경 개선,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등)를 연계하여 진행.
농악과 환경 교육 프로그램	■ 목표: 청소년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 활동내용: 농악을 활용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 교수법: 학교나 지역 사회 센터에서 농악 공연과 함께 환경 교육 워크숍을 진행. 학생들은 농악의 역사와 의미를 배우고, 동시에 환경 보호의 실천 방법을 학습.

[표 6]에서 제시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방안은 농악을 현대 사회의 환경 및

사회적 이슈와 결합하여 실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농악은 단순한 전통예술이 아니라 공동체 협력과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문화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농악을 활용한 환경 보호 캠페인은 참여자들에게 공동체적 책임감을 강조하고, 전통문화가 현대적 실천 활동과 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농악 퍼포먼스는 참여자들이 문화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결과적으로, 농악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는 환경 보호, 지역 사회 발전, 공동체 형성, 창의적 예술 표현을 결합한 실천적 교육 모델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는 농악이 현대 사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시사한다.

(4) 농악과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를 통한 교육콘텐츠 개발

농악과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를 결합한 교육 콘텐츠 개발은 디지털 환경에서 전통문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젊은 세대의 참여와 소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특히, 게임의 몰입형 경험을 활용하여 농악의 전통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농악은 온라인 환경에서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게임 내 콘텐츠로 구현될 경우, 젊은 세대가 게임 플레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악 장단을 활용한 리듬 게임 개발, 가상현실(VR) 기술을 적용한 농악 퍼포먼스 체험, 온라인 멀티플레이어 게임에서 협력형 농악 연주 미션 도입 등의 방식이 가능하다. 또한,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농악 악기 연주 시뮬레이션, 가상공간에서 농악 공연을 구현하는 메타버스 축제와 같은 방식으로 농악을 디지털 플랫폼에서 활성화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콘텐츠는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농악의 전통적 요소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현대 교육 환경에서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를 바탕으로, 농악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 콘텐츠의 구체적인 방안을 [표 7]에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게임 기반 학습, 가상현실(VR) 체험, 온라인 멀티플레이 협업 시스템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농악을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7] 농악과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를 통한 교육콘텐츠 개발

콘텐츠 명	교육 활동
농악 테마의 온라인 게임 개발	■ 목표: 젊은 세대에게 농악을 친숙하게 만들고,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인다. ■ 활동내용: 농 악을 주제로 한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여, 전통문화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소개 ■ 교수법: 게임 개발자와 협력하여 농악의 음악, 춤, 역사적 배경을 게임의 주요 요소로 포함. 예를 들어, 농악 공연을 재현하는 리듬 게임이나 농악을 배경으로 한 모험 게임 개발하기.
가상 농악 공연 및 축제	■ 목표: 농악의 공연 문화를 디지털 공간에서 재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한다. ■ 활동내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상 농악 공연과 축제를 개최 ■ 교수법: VR(가상 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농악 공연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을 마련. 관객들은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공연에 참여하고, 다른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다.
농악과 게임의 융합 워크숍	■ 목표: 농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소통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 활동내용: 농악과 온라인 게임을 결합한 창작 워크숍을 진행 ■ 교수법: 참가자들은 농악의 음악과 춤을 배우고, 이를 기반으로 온라인 게임의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본다. 예를 들어, 농악의 리듬을 활용한 게임 음악을 제작하거나, 농악 공연을 게임 속 이벤트로 구성하는 활동.
온라인 농악 커뮤니티 구축	■ 목표: 농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소통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 활동내용: 농악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 ■ 교수법: 온라인 포럼, SNS 그룹, 디스코드 서버 등을 활용하여 농악 관련 콘텐츠를 공유하고, 토론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활동. 커뮤니티에서는 농악 공연 영상, 악기 연주법, 역사적 자료 등을 공유하며, 정기적인 온라인 모임과 이벤트를 개최.

디지털 아카이브와 농악 데이터베이스 구축	■ 목표: 농악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활동내용: 농악과 관련된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교수법: 농악 공연 영상, 악보, 사진, 인터뷰 등을 디지털화하여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이 데이터베이스는 연구자, 교육자, 일반인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며, 검색과 탐색 기능을 강화하여 접근성을 높인다.

[표 7]에서 제시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방안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농악을 보다 창의적이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게임과의 융합은 농악이 단순한 공연 예술을 넘어 가상 환경에서도 전승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접근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농악 테마의 온라인 게임 개발을 통해 게임 플레이 과정에서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전통 장단과 춤을 익힐 수 있으며, 가상 농악 공연 및 축제를 활용하면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서 농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농악과 게임의 융합 워크숍은 전통 문화와 현대 기술을 결합하는 창작 경험을 제공하며, 참가자들은 게임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문화 전승 방안을 탐색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콘텐츠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습자가 직접 창작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농악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접근성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농악과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는 전통 예술을 디지털 환경에 적응시키는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으며, 농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인 방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5. 맺음말

본 연구는 농악의 역사적 배경과 현대적 재해석을 바탕으로, 그 교육적 가치와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농악은 단순한 문화적 유산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적 요소와 융합하여 지속적으로 재창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문화 자산임이 확인되었다.

농악의 현대적 재해석은 단순히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K-Pop, 스트리트 댄스, 환경 운동,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등과의 융합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농악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농악은 현대적인 방식으로 향유될 수 있으며, 새로운 세대를 위한 전통예술 교육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함안 화천농악의 ‘화천의 굿(Good) 바람’에서의 차박 캠핑과 전통문화 전승 사례는, 전통예술이 현대적 감각과 결합하여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농악을 체험형 콘텐츠와 융합하여 교육과 관광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다른 전통예술 분야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승 방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농악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미디어 활용과 정책적 지원이 전통문화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임을 밝혔다. 현대 교육 환경에서 농악을 효과적으로 확산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디지털 콘텐츠 개발이 필수적이며, 농악과 현대 대중문화를 비교·활용하는 방식의 교육 콘텐츠 개발이 미래 지향적인

전승 방식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농악이 현대적 감각과 결합하여 융합형 교육 콘텐츠로 개발될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악이 한국 문화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밝혔다. 향후 농악은 단순한 전승을 넘어, 현대 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발전할 수 있는 동적인 문화유산으로 연구되고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농악이 지속 가능한 전통예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와 실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강인숙, 「한국 근대전통춤의 변모 양상과 그 원인」, 『대한무용학회 논문집』 제43호, 대한무용학회, 2005.
- 국가유산청, 『농악, 인류의 신명이 되다』, 2014.
- _____, 『박기하(사방 농악을 이끄는 상쇠)』, 2017.
- _____, 『김형순(오늘도 장구 미고 다 같이 치고)』, 2018.
- _____, 『2023년 전승자 주관 전승지원사업 안내 매뉴얼』, 2023.
- _____, 『2023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시행계획』, 2023.
- _____, 『2024년도 미래 무형유산 발굴 육성 계획』, 2023.
- 김영일, 『한국의 농악』, 민속원, 2010.
- 김태덕, 「코칭프로그램을 활용한 농악 전승 활성화와 프레임워크 개발」, 『한국 문학과 예술연구소』 제50권, 2024, 165-201쪽.
- 박지영, 「농악의 교육적 가치와 학교 교육에서의 활용」, 『교육문화 연구』 제23권 1호, 2017, 55-77쪽.
- 이태호, 『농악의 이해』, 국립민속박물관, 2015.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2조 1항, 2003.
- 유네스코 문화유산 센터, 『한국의 농악: 커뮤니티 밴드 뮤직, 댄스 및 의식』, 유네스코, 2014.
- 오창현, 「유네스코 문화유산 협약의 가치와 실현수단에 관한 연구 - 공동체, 보호, 참여 개념을 중심으로」, 『무형유산』 제10호, 국립무형유산원, 2021, 15쪽.
- 이도훈, 「사·도 무형문화재 전승 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안」, 고려대학교 문화유산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23.
- 이상복, 『K-Pop 연구』, 인터 북스, 2016.
- 최병규, 「농악[農樂]에 나타난 한국춤의 상징성과 미의식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뉴포커스피플, “전통과 현대의 융합, 새로운 경향의 문인화”, <뉴포커스피플>, 2023.04.11.

이재훈, “전통과 현대의 융복합, 그 핵심은 원 재료다!”, <고양문화재단>, 2020.12.22.

두산백과사전 - 가상현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64836&cid=40942&categoryId=32828>, 2025.03.01.

두산백과사전 - 인터랙티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21285&cid=40942&categoryId=32837>, 2025.03.10.

두산백과사전-증강현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27952&cid=40942&categoryId=32828>, 2025.03.01.

두산백과사전-팬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6027&cid=40942&categoryId=31614>, 2025.03.01.

꽃담 전은혜, 서예와 문인화, 2023, 뉴포커스피플, <https://www.newfocuspeo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86>, 접속일 2024.07.11.

노승환·안재경, 무브먼트 코리아, 2020, 고양문화재단, <http://webzine.artgy.or.kr/?p=19282>, 접속일 2024.07.05.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https://ncic.re.kr/index.cs>, 2024.12.08.

함안화천농악 배병호 예능보유자 면담, 2024.12.13.~2024.12.27.

뉴포커스피플, <http://www.newfocuspeople.com>, 2024.07.11.

고양문화재단, www.artgy.or.kr, 2024.07.05.

나무위키 - 아이돌, <https://namu.wiki/w/IDOL>, 2025.02.05.

매일일보, <https://www.m-i.kr/>, 2024.12.26.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eO7ci_LqmCQ, 2025.02.05.

서울시교육청, <https://www.sen.go.kr/>, 2025.02.04.

수노, <https://suno.com/invite/@whimsicallegend4683>, 2025.03.11.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농악의 역사적 배경과 현대적 재해석을 바탕으로, 이를 교육적 접근 및 콘텐츠 개발에 적용하는 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악은 공동체 형성과 문화적 전승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이를 현대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농악을 분석하였다. 첫째, 농악의 역사적 기원과 문화적 의미를 검토하여, 현대 사회에서 농악이 수행하는 역할을 재조명하고, 전통문화로서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둘째, 함안 화천농악의 ‘화천의 굿 바람’ 사례를 중심으로, 농악과 지역 사회 참여의 관계를 고찰하고, K-POP 팬덤 문화, 스트리트 문화 등 현대적 요소와의 융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아울러, 학교 교육 및 국가무형유산 보존 단체에서 진행되는 체험 교육 사례를 분석하여, 농악의 전승과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농악은 단순한 전통예술을 넘어, 다양한 교육 콘텐츠로 개발될 수 있는 문화 자산임이 확인되었으며,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접목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농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전승 전략을 마련하는 데 의의를 두며, 이를 위한 교육적 접근과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주제어● 농악, 문화적 융합, 교육, 재해석, 콘텐츠

■ Abstract

The Tradition and Modern Interpretation of Nongak, and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Content : A Case Study on Hwacheon Nongak

Kim, Tae deug / Lecturer at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educational applications and content development strategies of Nongak by examining its historical background and modern reinterpretation. Nongak has played a crucial role in community formation and cultural transmission, and various educational approaches are required to ensure its continuous preservation in contemporary society.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two perspectives. First, it analyzed the historical origins and cultural significance of Nongak to reassess its role in modern society and emphasize the necessity of its reinterpretation as a traditional art form. Second, focusing on the case of Haman Hwacheon Nongak's 'Hwacheon's Gut' program,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Nongak and community participation, exploring its potential integration with modern cultural elements such as K-POP fandom culture and street culture.

Furthermore, this study analyzed experiential education programs in schools and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preservation organizations, evaluating their effectiveness in Nongak's transmission and educational integration.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Nongak is more than a traditional art form; it is a valuable cultural asset with the potential to be adapted into diverse educational content. This underscores the need to harmonize traditional and modern educational approaches.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in securing the sustainability of Nongak and establishing effective transmission strategies, emphasizing the necessity of educational approaches and content development for its continued preservation and modern adaptation.

Keyword • Nongak, cultural fusion, education, reinterpretation, content

■ 논문투고일:2025.02.16. ■ 심사완료일:2025.03.18. ■ 게재확정일:2025.03.18. ■

인문학으로서의 음악의 정합성에 대한 해석인식론적 사유

전 선 구*

목 차

1. 서론
2. 인문학 및 인문정신
3. 인문학으로서 음악의 사회적 지형
4. 결론

1. 서론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회 제분야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인문학적 담론은 결국 인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상징과 기호를 둘러싼 서사이다. 이러한 인문학의 사명은 인류가 걸어온 역사적 자취와 흔적이 남긴 상징과 기호를 기억하고 증언하는 것이다. 이에 인문학을 인간이 살아온 자취인 문화와 이에 대한 기록이자 남아있는 무늬(文)인 역사에 관한 학문이라 할 때, 인문학으로서의 음악은 인간의 문화와 감합되어 인류의 무늬인 역사의 어제와 오늘을 아우르는 시간적 재구성(Temporal Reorganization)을 위한

* 정화예술대학교 실용음악학부 강사

창(窓)으로 정위할 수 있다.

음악의 이 같은 시간적 연계성은 음악적 과거와 현재를 위시하여 서로 다른 연대의 층위로 이화된 음악적 실천이라는 문화적 체계의 단편들을 동 시대에 공존할 수 있도록 결속함으로써, 인문학적 텍스트로서의 음악을 통한 문화적 소통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이는 음악 속에 인문학적 이해가 기저해 있고 인문학에 관한 논의 가운데 음악이 분리될 수 없다는 양자의 함수 관계를 함축함으로써, 본고의 핵심 논지인 음악의 인문학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논의의 토대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고는 음악에 내재한 인문학적 특질을 표면화하여 인문학적 텍스트로서 음악의 사회적 지점을 구체화할 수 있는 논리적 이해의 기반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인문학으로서 음악의 사회적 기능¹⁾을 재확인할 수 있는 ‘음악인문학적 사유(Music Humanities Thinking)’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고의 중점 연구과제인 음악의 인문학적 정체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관련 연구의 문헌 검토를 통한 해석적 연구를 기반으로 논지를 확립하고자 한다. 해석적 연구 패러다임은 분석 대상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인간의 행위로부터 사회적 현상의 의미에 접근하는 ‘해석적 인식론(Hermeneutic Epistemology)’²⁾으로서의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본

1) 특히 음악인류학적 측면에서 Merriam(1964:229-319)이 조명한 음악의 사회적 기능은 첫째 심미적 경험 및 오락적 환경을 제공하고, 둘째 감정 또는 상징적 표현의 수단이자, 셋째 사회적 규범의 준행을 유도하는 기제로 작용하며, 넷째 문화적 연속성과 특수성을 매개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음악의 사회적 기능은 음악의 매체성(Mediality)과 유비함으로써 음악의 개념을 ‘언어로서의 음악’과 ‘예술로서의 음악’으로 구조화하여 인문학적 텍스트로 수용할 수 있는 논거를 제공한다.

2) 정우현(1990:254)에 따르면 해석적 인식론은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변증법적 차원으로 결속되는 역동적 관계로 인식하여, 현상 간의 상호작용을 하나의 기호학적 의미작용(Semiotical Signification), 즉 기호로서의 현상이 사회문화적으로 어떻게 수용되고 해석되는가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접근한다.

연구의 핵심 논지인 음악의 인문학적 가치를 규명하기 위하여, 모든 실재가 행위 주체자의 관계적 실천으로부터 창발되는 것으로 바라보는 관계 존재론(Relational Ontology)과 맞닿아, 사회문화적 텍스트가 상징하는 기호 간 관계의 궤적을 탐구하기 위한 해석인식론적 연구방법을 채택하고자 한다. 이로써 인문학 본령의 해석적 수행에 기초한 『음악인문학(2023)』적 사유와 연접할 수 있는 방법론적 틀을 마련할 수 있다. 『음악인문학』은 음악에 함의된 인문학적 메시지를 통하여 사회 일반에서 인문학적 담론을 공유하고 음악의 사회적 가치를 재인식하기 위한 텍스트 기반의 저널리즘이다. 또한 음악에 대한 관습적 향유 태도를 인문학 탐구의 층위로 확장하는 효용 담론을 창출하기 위한 논의과정이다.

2. 인문학 및 인문정신

1) 인문학의 개념

인문학의 개념과 그 의미를 규정하기 위한 일련의 시도들은 인문학의 본질을 계설(界說)하여 그 가치를 재인식하고 재확장하는 노정이다. 특히 광의적 층위의 인문학을 논구함에 있어서 요청되는 두 가지 주제어로 ‘자취’와 ‘흔적’을 상징하고자 한다. 광의적 개념으로서의 인문학(人文學)은 ‘인간이 살아온 자취’로 정의할 수 있다. 이때 ‘자취’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로부터 인간의 문화를 포괄하고, ‘문(文)’은 인간의 자취에 관한 기록이자 남아있는 ‘흔적’이다.³⁾ 이 흔적은 인간의 ‘무늬’ 혹은 ‘결’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무늬’에 내재하고 있는 상징과 기호를 관찰하여 인간의 본성을 통찰하고 인간의 삶을 질적으로 고양하는 과정을 넓은 의미로서의 인문학 개념으로 논의할 수 있다. 특히 『주역』의 「산화비괘」에 최초로 등장하는

3) 전선구, 「음고 표준화 역사의 실천인문학적 함의」, 『교양교육연구』 18권 2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4, 158쪽.

동양의 ‘인문’ 개념을 ‘인간다움’의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사람의 무늬이자 인륜의 질서로 해석할 수 있는 인문학은 인간다움에 대한 물음과 해답으로 시대를 초월하여 세계와 소통하고 교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다른 광의의 입장으로서는 인간과 세계,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실천적 물음을 제기하는 지적 활동 영역인 인문학은 시대 보편적 의의를 지니며, 사회적으로 구조화되는 ‘인간 존재의 근거’⁴⁾를 이해의 대상으로 삼아 공공선의 균형을 비판적으로 탐구한다. 공공선은 첫째, 사회적 혐오와 차별을 극복하고 반성적 실천에 따른 도덕적 삶의 태도를 견지하며 둘째, 타인을 배려하고 사회적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인간상을 지향하는 사회적 개념이다. 공공선의 목적은 부분과 전체, 즉 개별자로서의 인간과 집단으로서의 인간 사이의 긴장 구도를 비판적으로 추동하는 인문학적 맥락의 사회적 통찰을 위한 텍스트이다.

협의적 개념으로서의 인문학은 이른바 ‘제도적 인문학’이라는 학제적 학문 분야의 차원으로 범주화되어 인간적인 것에 대하여 규범적으로 성찰하고 연구하는 학문으로 논의되고 있다. 제도적 인문학이란 ‘인간성’, ‘인정’, ‘교양’ 등을 의미하는 서양의 ‘후마니타스(Humanitas)’ 개념에 기초하여 르네상스기를 거치면서 근대 초기 대학의 전체 학과목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는 사회체계 변화에 따른 역사적 산물로서 인문학에 함의되어 있는 고유의 총체성(Totality)을 통해 인문학의 영역을 통합적 학문 개념으로 확장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로서의 인문학 개념은 인문학의 학제적 위상을 재정위할 수 있는 개연성을 제공한다. 특히 현상에 대한 해석적 방법으로 실현되는 인문학과 설명을 기반으로 하는 자연과학이 공통적으로 언어

4) 김선정, 「니체의 인문학적 통찰에서 나타난 인간 존재 근거의 사회 구조화에 관한 연구: 혁신을 중심으로」,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2권 4호,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2019, 3-36쪽.

의존적 방법론을 요청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두 영역의 차이는 단지 ‘자유 의 확장’과 ‘실재의 탐구’를 위한 상상력을 적용하는 대상에 차이를 둘 뿐, 다원주의적 상상력의 구조를 공유하고 있음을 주지할 수 있다.⁵⁾ 이를 통해 외연적 현상에 대한 설명의 논리와 내포적 현상에 대한 구조를 규명하는 양자의 이론 의존성은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상호 소통의 문법으로 조명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

아울러 인문학을 전통 및 현대의 개념으로 상대화할 때, 이른바 ‘이해 인문학’으로 논의되어 온 전통(고전)적 개념으로서의 인문학은 문자 및 비문자적 문화활동을 통한 자유의 확장 경험을 도모하는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고, ‘표현인문학’으로 논의되고 있는 현대적 개념으로서의 인문학은 문자 및 비문자적 문화활동을 통한 사람다움의 표현을 도모하는 노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⁶⁾ 또한 전통적 인문학으로서의 고전인문학이 ‘글읽기(Literacy)’를 중심으로 하여 인간이 사회적 관계 안에서 어떻게 규정되고 자연적 질서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 되는지를 규명해왔다면, 표현인문학은 ‘글쓰기(Writing)’를 전형적 활동 양식으로 채택하여 고전인문학의 목적인 ‘현상 이해’의 수준에서 더 나아가 능동적인 태도에서 실재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 행위’를 지향한다. 전통인문학의 규범적 활동 양식인 ‘이해’는 실천으로서의 행동을 요청하지 않으므로 이해인문학의 사회적 구현은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차원에서 실현된다. 반면, 표현인문학의 행동과 실천 기조인 ‘표현’은 이해의 단계를 수용 및 확장하여 인간다움의 최대화를 향한 성취 과정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다.⁷⁾

5) 정대현,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소통문법: 두 상상력의 언어성」, 『탈경계인문학』 5권 2호,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2012, 10-12쪽.

6) 정대현, 「표현인문학 개요」, 『인문언어』 1권, 국제언어인문학회, 2001, 72-73쪽.

7) 김영건, 「표현인문학의 빛과 어둠」, 『신학과 철학』 3호,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2001, 2-3쪽.

나아가 교육이념적 개념으로서의 인문학은 인간다움의 양성을 궁극의 목표로 삼는 ‘교양 교육’으로 논의할 수 있다. 전통적 교양 교육은 ‘자유인’을 위한 교육을 의미하는 동시에 인간의 영혼 또는 정신이 선입견이나 편견으로부터의 자유 의식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⁸⁾을 가리킨다. 반면 현대적 개념으로서의 교양 교육은 기성 진리체계와 지식 및 진리 주장들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하여, 새로운 지식의 생산을 지향하는 교육⁹⁾을 의미한다. 특히 인격의 완성을 위한 노력을 의미하는 교양은 독일 신인문주의 사조를 바탕으로 주목해 온 ‘Bildung’을 번역한 개념 중 하나이다. Bildung은 독일 인본주의 교육 사상에서 ‘인간 도야’의 개념이자, 인간을 내적으로 교양시키고 인간을 인간답게 완성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이는 전 인류가 지향해야 할 공통의 이상, 도덕적 인간의 형성 과정, 전인적 인격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인간다움’의 완성을 향한 ‘인격 도야’의 의지를 고취하는 교육이념으로서의 ‘교양’은 곧 인문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또 하나의 텍스트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논지 전개과정에서 인문학의 개념에 대한 상기와 같은 이론적 배경 구축을 통해 인간과 인간적 삶의 지경인 인문학을 결국 ‘인간다움’이라는 공통된 질문에 대한 해답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귀결시킬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핵심 논의 과제인 인문학으로서의 음악 역시 궁극적으로 ‘인간다움’에 대한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텍스트라는 점과 맞닿아 있음을 주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

2) 인문정신의 개념

전술한 바와 같이 정도의 편차를 감안하더라도, 각 시대는 물론 각 문화

8) 도정일, “[특별기고] 대학교육에서 ‘교양’이란 무엇인가”, <한겨레신문>, 2014.02.20.

9) 정철민·유재봉, 「대학 교양교육의 변화」, 『비교교육연구』 26권 3호, 한국비교교육학회, 2016, 192쪽.

권에서 공통적으로 지목해 온 인문학의 본질적 가치는 ‘인간다움’으로 점철할 수 있다. 결국 인문학은 인간다움을 성취하기 위한 정신적 활동의 총체로 인간다움의 완성은 고립된 개인의 상태가 아닌 더불어 함께 할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한 태제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간다움의 가치는 공동체와 더불어 존재하는 인간의 공적 소명과 책무로, 자기를 극복하는 사회적 행위 원칙으로서의 ‘예(禮)’¹⁰⁾와 연결된다. 이는 자기 정립을 통한 존엄성(Dignity)을 추구하는 이성적, 정신적 존재로서 인간 상호 간의 ‘어울림(和)을 갖추어 나가는(至) 동인’인 ‘격(格)’¹¹⁾과도 상통한다. ‘인간다움’은 결국 인간의 내면을 통하여 인간의 자취와 흔적을 탐사하려는 노력인 ‘인문정신’과 맞닿아 인문학의 본질을 구현한다.

서양의 인문정신을 가리키는 후마니타스는 기원전 5세기에 등장한 그리스어 ‘파이데이아(Paideia)’에서 유래된 개념으로 인간의 ‘교양’과 ‘인간성’, 그리고 ‘인간다움’ 등을 의미한다. 후마니타스는 인간의 삶에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윤리적 이념인 ‘인간다움의 실현’을 위하여 인간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첫째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정신, 둘째 품격있는 삶을 지향하는 정신, 셋째 공동체 의식, 넷째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교양과 문화

10) 중국 심리학자 陳大齊(1974:26)는 동양철학의 출발점이자 도덕적 자각의식에 따른 사회적 질서의 총체로 규정되는 ‘예(禮)’에 대하여 공자의 인문세계 개혁과 정에서 자기 극복을 위한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조명하였다. 이는 천하귀인(天下歸仁)의 경지(이명환, 2004:165-170), 즉 인간이 사욕을 통제하여 인심(仁心)을 발현하고, 예를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생명 가치는 물론 사회적 평화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인문정신적 가치로 이해할 수 있다.

11) 이시형(2011:112-129)은 품격의 덕목으로 배려, 절제, 포용 등과 같은 관계 형성에서 갖추어야 할 인문적 가치로서의 규범을 제시하였고, 존 스튜어드 밀(J. S. Mill)은 자기발전과 타인에 대한 배려에 기초한 이익융합의 원리에 주목하여 인간 고유의 품위 감, 즉 ‘품격’을 강조하였다. 송인창·정영기(2013: 16-22) 역시 도덕적 본성을 자각하여 삶에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인간다움으로 규정하고 이를 인격으로 개념화함으로써 인간다움의 사회적 발현을 곧 ‘품격있는 사회’로 정의하였다.

를 제시한다.¹²⁾ 이처럼 후마니타스가 포괄하고 있는 윤리적 덕목은 인간의 본성을 최선의 상태까지 개발하는 노력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정신적 산물이자, 전인 양성을 위해 인문학이 지향하고 있는 보편적인 교육노선이다. 이러한 후마니타스의 전통을 계승하여 인문정신을 ‘비판적 사고능력’과 ‘공감 능력’, 그리고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기 재인식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적 능력은 인문정신을 현실에 대한 비평적 개입에 따른 자기성찰적 규제 정신을 구동하기 위한 지적 원동력이자, 인간에 대한 성찰과 교화, 그리고 지혜의 함양을 모색하는 노력으로 작용한다. 인문정신의 비판적 기능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의 동인으로 그 의미를 조명할 수 있다.

후마니타스 개념을 위시한 서양 인문정신의 전통은 동양의 인문정신을 포괄하는 사단(四端)인 측은지심(惻隱之心), 수오지심(羞惡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과 상통한다. 특히 유학(儒學)의 인문정신은 정치, 경제, 법 등 사회적 운영원리의 근간을 이루어 사회적 관용 및 인간의 가치 회복을 위해 지향해야 할 정신적 노력으로 정위할 수 있다. 이 같은 노력은 인간의 존재 가치를 고양해 온 동양의 인문 전통을 관류한다. 또한 『주역』에 등장하는 “관호천문, 이찰시변, 관호인문, 이화성천하(觀乎天文, 以察時變, 觀乎人文, 以化成天下)”¹³⁾의 ‘인문’ 개념에 기초하여 인문정신을 공동선 창출을 모색하기 위한 정신 문화적 활동이라 하겠다. 특히 동양의 학문적 전통에서 드러나는 인문정신은 인문(人文) 사상과 비인문(非人文) 사상, 차인문(次人文) 사상, 초인문(超人文) 사상 그리고 반인문

12) 김덕수 외, 『파이데이아(paideia)와 후마니타스(humanitas): 그리스 로마의 교육과 서양 인문정신의 형성』, NRF KRM, 2011, 2쪽.

13) 즉, 천문을 관찰함으로써 때의 변화를 깨닫고, 인문을 관찰함으로써 천하를 교화시킨다는 의미를 통하여 천문과 대비를 이루는 인문은 윤리와 예악 등으로 범주화되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성찰적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反人文) 사상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구분한다.¹⁴⁾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대상으로 하여 인문정신의 가치를 고양하는 학문체계인 인문 사상은 비인문 사상을 통하여 인간에 관한 이해의 지평을 확장하고, 초인문 사상을 통하여 불완전한 인간의 존재적 한계를 성찰해 왔다. 무엇보다 인문 사상은 반인문 사상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견지하여 인간다움의 성취를 향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노력으로서 인문정신의 가치를 확립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본 연구의 논지와 결속하고자 할 때, 인간의 자취와 흔적을 탐사하려는 지적 원동력인 ‘인문정신’의 개념을 통하여 음악이 함의하고 있는 인문정신의 구현을 종용하기 위한 인문학적 텍스트로서 음악의 사회적 지형을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3. 인문학으로서 음악의 사회적 지형

1) 인문학으로서의 예술

개별적 사건의 특수성을 비롯하여 전체적 관계의 인과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총체성’과 시대 상황의 역사적 맥락과 추이를 거시적 차원에서 아우르는 ‘보편성’은 인문학이 가진 고유의 특질이자 인문학의 사회적 작동 원리를 이루는 핵심 개념이다. 이처럼 총체성과 보편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연계의 기초 위에서 인문학의 영역은 범주형 통합(Categorical Integration)의 개념으로 논의되어 왔다.¹⁵⁾ 나아가 문화적 텍스트에 내재된 상징과 기호에 대한 해석과 이해의 지평을 확장함으로써 창조학으로서의 학문적 이상(Ideal)을 고취해 왔다.

특히 제도적 인문학의 영역은 서양의 후마니타스 개념에 기초하여 르

14) 唐君毅, 『中國人文精神之發展』, 學生書局, 1979, 17-18쪽.

15) 전선구, 「기준음고 432Hz의 음악인문학적 의미」, 『교양교육연구』18권 5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4, 386쪽.

네상스기를 거치면서 근대 초기 대학의 전체 학과목을 포괄하는 개념에서 문학과 역사, 철학을 중심으로 분과 학제적 차원으로 범주화되었다. 이를 통해 통상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인문학 연구’의 학문적 범위는 세 분야에 한정된 개념을 가리키며 이는 인문학의 ‘영역 통합적’ 성격과 구분된다. 그러나 인문학 고유의 영역 통합적 노선은 연구범위의 제한과 한계를 수반하고 있는 인문학 영역의 학제적 경계에 대한 해체와 확장을 요구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더욱이 분과학문 간의 중층적이고 다면적인 학제적 연구가 강력하게 요청되는 오늘날의 연구 패러다임에 있어 이 같은 제도적 인문학 영역의 단편적 범주화는 사실상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창조학으로서 인문학의 기능을 조망하기 위한 다수의 논의에서는 인문학 위기론의 전개¹⁶⁾와 함께 적어도 20세기 말부터 인문학의 영역 확장에 대한 방법론적 틀을 제시해 왔다. 주지하듯이, 이른바 ‘문사철’을 중심으로 인문학 범주의 유효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견지한 적지 않은 연구의 논지를 확장하여, 진리와 아름다움의 가치를 지향하는 인문학의 사회적 기초와 인문학이 창조학(Creative Science)으로 구동되기 위한 문화적 조건¹⁷⁾을 곧 인문학적 조건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인문학의 학제

16) 인문학 위기론을 촉발한 ‘인문학 제주 선언(1996)’으로부터 한국 인문사회 총연합회의 ‘인문사회선언문(2023)’에 이르기까지 약 한세대에 이르도록 전개된 인문 담론이 사회 공동의 의제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인문학이 과연 ‘어떠한 위기인가’에 대한 논지의 본질과 주요 쟁점으로서, 인문학이 실천적 학문으로서의 목적과 방향을 망각하고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에 실패한 채 폐쇄적 학문으로 퇴색하여 사회적 기대를 외면하고 대중적 행보를 간과해 온 점을 지적한 연구자들의 자성론은 인문학의 쇄신을 위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시의 당위적 진단이라 할 수 있다(전선구, 2024:158).

17) 이에 대하여 소흥렬(1999:23-24)은 문화적 환경 속에서 기능하는 마음(인식 체계)은 문화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문화적 조건을 ‘문학적 조건, 역사적 조건, 철학적 조건, 과학적 조건, 종교적 조건, 예술적 조건’ 등으로 인식하여 인문학에 참여하는 문화적 텍스트를 모두 인문학적 조건으로 개념화하였다.

적 융합연구 수행을 위한 기본분야를 문학, 역사, 철학으로부터 종교, 과학 그리고 예술로 유형화할 수 있는 해석적 층위의 준거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의 예술은 인문학이 수용해야 할 텍스트 접근성(Text Accessibility)¹⁸⁾을 확보할 수 있는 매체로 고려될 수 있으며, 인문과 예술의 융합을 통하여 발현되는 시너지는 인문학의 사회적 실천을 강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인문학의 예술적 표상은 인문학의 현실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작금의 인문학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있음을 주지할 수 있다. 이처럼 예술을 인문학의 범위로 포섭하고자 하는 태도는 예술이 단지 자연적이거나 도구적인 차원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언어’, 다시 말해 하나의 의미 전달 기호로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을 반영한다. 더욱이 예술로서의 음악을 인간이 가진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 구현되는 기술적인 언어 예술이라 할 때, 음악에 내재한 사회적 메시지는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탐구하기 위해 더없이 중요한 텍스트이며 이를 통해 음악의 인문학적 지형을 재인식할 수 있다. 음악과 문학의 언어적 속성에 주목한 서영처(2009)는 양자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주지하였다.

오랜 세월 동안 음악과 문학은 서로를 동경해 왔다. 사람들은 흔히 감동적인 음악에 ‘시적’이라는 찬사를 보냈으며 마음을 홀린 한 편의 문학작품에는 ‘음악’이라는 찬사를 바쳐왔다. 음악과 문학은 기본 질료인 소리, 언어에서 시작되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중략) 음악은 문학과 마찬가지로 묘사

18) 인문학의 텍스트 접근성 확보는 제도권 인문학 텍스트의 건조한 인상과 폐쇄적인 서법에서 비롯되는 문해의 난독성에 따른 전반적인 인식을 해소하여 텍스트의 이해와 수용의 기대가치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텍스트 전형(Textmuster)’에 대한 문체적 변이(Abweichung)를 시도한 『음악인문학』의 텍스트 접근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인문학의 사회적 소통을 위한 실천적 태도를 구체적으로 이행한 시도라 하겠다(전선구, 2023:840-841). 이는 실천 인문학의 주요 노선인 사회적 개방성 확보에 따른 공공성 창출과 맞닿아, 단지 지식이나 학문의 영역에서만 존재하는 인문학이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 사회공동체와 동행하는 교양 저널리즘으로서의 실용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문화 문해(Cultural Literacy)’의 발로임을 시사한다.

와 서술로 이루어진다. 보고 느낀 것을 그림 그리듯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사실을 구체적인 소리로 말한다. 형식과 논리적 구성을 앞세우는 고전주의에서, 자기 고백적인 낭만과 감각적 극적 구성이 뚜렷한 후기 낭만을 거쳐, 형식을 파괴하고 재창조하는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음악은 늘 문학사조와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왔다.¹⁹⁾

음악과 인문학에 대한 연구자의 이 같은 견지는 양자 간 형성된 상호 텍스트성(Intertextuality)에 주목한 것으로, 음악적 텍스트로서의 문학과 문학적 영감의 동인일 뿐만 아니라 문학작품의 형식 원리로도 작용하는 음악의 매체적 특질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음악의 인문학적 지점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이해의 토대를 제공한다. 아울러 『음악인문학』 역시 음악 개념의 추상성과 비지시성(Opaqueness)으로부터 야기되는 음악의 자체적 개념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s)’를 적용함으로써 핵심 텍스트 영역의 논지 확립 구조를 언어로서의 음악과 예술로서의 음악으로 개념화하였다. 이는 음악의 사회적 기능을 매체의 개념에 유비하여 음악의 매체적 속성을 ‘언어 표현의 매개’ 및 ‘예술 표현의 매개’로 구조화한 결과로, 언어로서의 음악과 예술로서의 음악에 내재한 인문학적 정체성을 명시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2) 예술로서의 음악, 인문학적 소양의 척도

인식 주체자가 당면한 상황과 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체화된 인문학적 지식수준, 즉 ‘인문학적 소양(Humanistic Literacy)’²⁰⁾이 요청하는 지표 개체로서 ‘예술적 소양(Artistic Literacy)’을 표준 항목으로 범주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문학적 소양과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논의들 가운데, 김영일(2013:41)의 견지와 같이 ‘책임기

19) 서영처, “[문화칼럼] 음악은 인문학이다”, <매일신문>, 2009.05.29.

20) 이렇게 내면화된 지식을 토대로 인문학적 소양의 개념을 인식 주체자의 사회적 지경이 확장될 수 있는 자질로 규정할 수 있다.

소양'과 '역사 소양', '문학 및 철학적 소양' 그리고 '예술적 소양'을 인문학적 소양의 주요 측정 지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위와 같은 입장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준거로 수용할 수 있다. 이에 김영숙(2019)의 논의 역시 김영일(2013)의 측정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간호사의 인문학적 소양을 분석하기 위한 세부 항목에 예술적 소양을 유의미한 지표로 수용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에 관한 개념을 분석한 하주영 외(2017:940-941) 또한 간호 현장에서 간호사의 인문학적 소양이 활용되는 주요 양상으로, 간호의 예술적 요소를 구성하고 미적 지식을 통합하는 등 예술적 소양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적 소양의 잠정적 기준과 그 속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무용 예술의 내적 사유에 대하여 논증한 최문정(2023:127)은 무용의 예술적 소양에 대하여 인간과 인간의 내면적 소통을 연결하는 철학적 표상성을 담지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연구자의 이와 같은 입장은 무용에 있어서 예술적 소양이 인간 존재와 자아에 대한 인식을 행위적 숭고미(Sublime Beauty)로 승화시키는 기재임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박영학·정현욱(2017)의 논의에서 접근한 인문학적 소양은 문학과 역사, 철학적 사유에서 나아가 예술적 층위의 지식을 폭넓게 습득하여 대상을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량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문학, 역사, 철학과 함께 예술에 대한 식견과 관심의 정도가 인문학적 소양을 규정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의 지표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그밖에도 인문학적 소양이 수출기업가와 수입기업가의 친밀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²¹⁾에서 문학과 철학, 역사와 같은 인문학적 소양을 측정하는 보편적 변인을 비롯한 종교 및 예술 등을 아울러 구조화한 점은 문화 간 지적 소통 역량을 실증적으로 중재(Moderation)하기 위한 논

21) 정갑연·김동한, 「수출기업가의 인문학적 소양이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을 통해 수입기업가와 라포르에 미치는 영향」, 『전문경영인연구』 27권, 한국전문경영인학회, 2024, 1-19쪽.

의의 타당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에 정연재·주소영(2019) 역시 인문학적 소양의 측정도구를 설계하고 이를 타당화하기 위한 연구에서 인문학적 소양의 토대를 이루는 인문학 지식의 대표 영역을 ‘문사철’, 종교, 문화 그리고 예술로 유형화하였다. 이는 인문학적 소양을 비판적 사고와 심미적 감성의 균형을 통해 인간 존재의 품격을 고양하는 내적 바탕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 해석적 논거의 기반을 제공한다. 특히 연구자들이 인문학적 소양 측정도구에 대한 정규성 평가를 바탕으로 구조화한 측정문항 가운데 예술적 소양 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세부 항목을 ‘음악’으로 구체화한 점을 주목해 볼 때, 이는 심미적 표현 역량과 그 가치를 사회적으로 승화해 나가는 능력인 예술적 소양을 음악으로 대표화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는 인문학적 소양에 수렴되는 척도의 주요 가치가 곧 예술로서의 음악일 수 있음을 방증하며, 이는 결국 인문학으로서의 음악의 정합성을 규명하기 위한 또 하나의 해석적 텍스트를 제공한다.

3) 인문학으로서의 음악

거슬러 올라가,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음악과 기하, 산술, 천문을 중심으로 한 4과(Quadrivium)와 문법과 수사, 논리를 중심으로 한 3학(Trivium)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자유인문학’이 구축되었다. 이는 교육이념으로서의 인문학 개념인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같은 ‘자유인문학’의 전통을 계승한 고대 로마는 문법과 수사학, 논리학, 대수학, 기하학, 천문학, 의학, 건축학 그리고 음악으로 이루어진 ‘9자유학문’ 체제를 확립하였고, 이 가운데 건축학과 의학을 제외한 7과목은 중세 대학으로 이어져 문법, 수사학, 논리학의 3학과 대수학, 기하학, 천문학, 음악(이론)의 4과로 이루어진 7자유학과를 구성하였다.²²⁾

22) 특히 손승남(2011:99-114)은 중세 대학의 4과 중 교양교과로서의 음악과 천문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강조된 것으로 바라보았다.

‘근대 문명(Contemporary Civilization)’은 뉴욕 컬럼비아 대학이 1919년부터 시행한 대표적인 현대적 인문교육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인문학적 사상과 그 성취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이해의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제시한 핵심 교과목 가운데 음악이 편성되었다. 더욱이 1945년 하버드 대학이 발표한 『자유 사회에서의 교양 교육』 보고서²³⁾ 또한 교양 교육의 핵심을 이루는 인문학의 영역에 음악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교육이념으로서의 인문학 개념을 가리키는 ‘자유교육’ 또는 ‘교양 교육’의 역사적 궤적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음악이 인문학 영역으로서의 학문 전통적 지형을 형성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더욱이 동양의 예악 사상(禮樂思想)은 물론 서양의 자유학예 교육(Liberal Arts Education)체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음악의 위상을 들여다볼 때, 음악이 인식주체의 인문학적 역량을 고양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인식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서양을 불문하고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음악을 경유한 인문학적 사유의 비중이 여타 학문보다 강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음악이 인문학적 상상력(Humanistic Imagination)과 같은 문화 리터러시(Cultral Literacy)를 강화하는 동인으로 기능해 왔음을 조명한 것이라 하겠다.

이외에도 학계 내부로부터 적지 않은 논의들이 음악을 인문학의 범주로 인식하고 있는 태도 역시 인문학으로서의 음악을 규명할 수 있는 유의미한 텍스트를 제공한다.²⁴⁾ 특히 『음악인문학』과 같은 음악의 인문학적 가치 실현을 위한 방법적 개념을 조망하고자 할 때, 음악이 단지 감각적 향유를 위한 장식물적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닌 인간의 정서를 다양한 차원에

23) 정철민·유재봉, 앞의 논문, 195쪽.

24) 대표적으로 월터 카우프만(2011:22-36)은 인문학의 본질이 고정화된 학문이 아니라 변화를 수용하고 실천적 노선을 추구하는 학문적 지향을 실현해야 함을 강조한 가운데, 인문학의 지형에 음악을 편입시키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 순화하고 삶의 통찰을 위한 실제적이고도 상징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지할 수 있다.²⁵⁾ 더욱이 음악이 단순한 감각적 경험의 차원만을 매개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내적 경험으로부터 사유 체계 일반에 부단히 작용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가운데, 음악이 인간 경험과 존재의 내러티브를 반영하는 또 하나의 관점으로서 인문학의 확장을 모색하기 위한 인문학적 텍스트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할 수 있다.

또한 예술기반의 교수·학습 이론 체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정서 함양을 위해 승윤희(2020)가 제시한 학습 과정의 궁극적인 의의는 첫째,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둘째, 개인의 ‘삶의 질’을 고양함으로써 셋째, 공동체의 의식 수준을 고취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연구자의 이 같은 견해를 통하여 인문학으로서의 음악 개념에 기초한 교육은 단편적인 지식 습득에 머무르지 않고, 예술로서의 음악적 사유가 함의하고 있는 인간다움의 의미를 탐색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인간다움의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고자 하는 실천적 차원의 교수학습 과정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인문학 교육 담론에서 간과할 수 없는 실천주의 음악 교육(Praxial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역시 인간의 삶 가운데 인간다움을 유지하고 그 가치를 고양시키는 동인으로서 ‘정서(Emotion)’와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는 음악을 인문학의 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학계 내부에서 다수의 연구가 음악을 인문학의 영역으로 인

25) 단적으로, 우연성 음악(Chance Music)을 주창하며 음악적 전통에 대한 파격을 시도한 존 케이지(John Cage)는 《4분 33초(1952)》를 통하여 20세기 미국 주류사회의 획일주의 저널리즘 및 집단주의의 폐단과 부조리를 고발하였다. 이 작품은 특히 일상과 예술의 경계에 대한 재설정을 촉구하는 존 케이지의 실천적 예술관을 반영하여, 주체와 객체로 유리된 서구의 음악적 전통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존 케이지의 이 같은 인문학적 통찰은 인문학으로서의 음악의 정합성을 해석·인식론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구체적인 텍스트로 수용할 수 있다.

식하고 있음은 결국 음악과 인문학이 인간론적 맥락(Anthropological Meanings)에서 접점을 이루며 상통하고 있음을 수용한 것으로, 이에 문학수(2013)는 음악에 내재한 인문학적 면면과 인문정신적 가치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오랜 세월 음악을 듣는다는 행위는 결국 사람을 만나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다. 나는 그것이 음악 듣기의 궁극이라고 믿는다. 바흐를 들을 때는 바흐를 만나고, 베토벤이나 슈베르트를 들을 때는 또 그들과 조우하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한 개인의 내면을 만나는 일인 동시에, 그가 살았던 시대와의 대면이기도 하다. 결국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개인사와 당대사를 씨줄, 날줄로 삼은 ‘음악의 생애’를 만나는 일과 다르지 않다.²⁶⁾

그러므로 음악과 인문학의 관계 설정은 인문학으로서의 음악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맥락에서 인문정신의 가치와 맞닿아 있으며 그 무늬를 그려나가는지를 주목한 것으로,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인문학을 인간이 그려내는 삶의 무늬로 정의할 때, 음악은 인간이 ‘선율’로 그려내는 삶의 무늬로 은유할 수 있다. 나아가 인문정신의 사상적 층위에 연접하여 인간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을 초월하는 세계를 이어주는 교량으로서의 음악과 인류의 무늬를 통해 미래를 조망하는 인문학은 결국 하나의 결로 통하고 있다. 이는 특히 아도르노(Adorno)의 음악사회학적 사유에 유비하여 음악을 ‘사회적 생명체’, 다시 말해 음악은 사회를 반영하는 실천 본위의 인문학적 예술 양식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인문학적 텍스트로서 음악의 이 같은 사회적 지점은 음악을 ‘Musicking’의 개념과 결속할 수 있는 개연성을 제시한다.

크리스토퍼 스몰(Christopher N. C. Small)이 음악은 사물의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 그 자체임을 위시하여 주창한 ‘Musicking’은 ‘Music’을 명사가 아닌 동명사의 개념으로 이입하여 음악의 개념을 새롭게 조명하였

26) 문학수,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어느 인문주의자의 클래식 읽기』, 돌베개, 2013, 14쪽.

다. 이는 음악의 본질을 작품이라는 ‘결과’가 아닌 음악적 실천²⁷⁾ 행위에 따른 ‘과정’에 초점을 두어 음악을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Musicking은 음악적 실천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상호관계성 등을 중시하여 ‘지금, 여기, 우리’가 함께하는 인문학적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적 행위를 강조한 것으로, 이러한 입장을 통하여 주체와 객체로 유리된 서구의 음악적 전통과 관습에 대한 각성을 아울러 촉구하는 텍스트를 제공한다. 따라서 Musicking은 인문학으로서의 음악이 사회적 맥락에서 어떠한 의미로 수용될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시도라 할 수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해석인식론적 관점을 토대로 인문학으로서의 음악의 정합성을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인문학 고유의 성격인 총체성과 보편성에 따른 영역 통합적 노선은 인문학 영역의 학제적 경계에 대한 해체와 확장을 촉구해 왔음은 물론 창조학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인문학적 조건으로 아름다움의 가치에 주목하여 예술을 인문학의 범위로 편입시켰다. 특히 인문학적 소양이 요구하는 주요 가치인 예술로서의 음악은 음악을 인문학의 차원으로 논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지점을 형성한다. 또한 교육이념으로서의 인문학 개념을 가리키는 ‘자유교육’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음악이 인문학 영역으로서의 학문 전통적 지형을 형성해 왔고, 동서양을 불문하고 고대로부터 음악을 경유한 인문학적 사유의 비중이 강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음악이 문화 리더러시를 강화하는 동인으로 기능하고 있었음을 주지할 수 있다.

27) 음악적 실천에 대하여 전선구(2024:161)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음악적 표현방식, 즉 작곡을 비롯한 연주 및 감상 등의 활동에서 나아가, 특정 사회공동체가 음악을 어떠한 맥락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한다. 다양한 환경에서 형성되는 음악적 실천은 음악적 텍스트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결정되는 음악적 공감대를 통해 사회문화적 소통을 실현한다.

더욱이 학계 내·외부에서 음악을 인문학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음악과 인문학의 관계 설정에 유의미한 텍스트를 함의하는 가운데, 음악이 인간의 정서를 다양한 차원에서 순화함은 물론 삶의 통찰을 위한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음악의 인문학적 실천 가능성을 조망할 수 있다. 이처럼 음악을 인문학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논의들은 결국 음악과 인문학이 인간론적 맥락에서 접점을 이루며 상통하고 있음을 주목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텍스트로서의 음악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맥락에서 인문정신의 가치와 맞닿아 있으며 그 무늬를 그려 나가는지를 재인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문학을 인간이 그리는 삶의 무늬로 정의한다면, 음악은 선율로 그리는 삶의 무늬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음악은 사회를 반영하는 실천 본위의 인문학적 예술 양식으로, 음악에 내재한 사회적 메시지는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탐구하기 위해 더없이 중요한 텍스트로 작용한다. 아울러 언어로서의 음악적 속성은 마찬가지로 언어를 전형적인 활동 양식으로 삼아 인간 존재를 탐구하는 인문학의 사회적 실천 양상과 맞닿아, 결국 음악과 인문학이 동일한 사회적 궤적을 이루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인문학에 내재되어 있는 총체성과 보편성에 따른 영역 통합성을 차치하더라도, 인간 및 사회적 맥락과 불가분적 관계를 형성하는 음악은 이미 인문학의 영역으로서 확고한 지형을 구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으로서의 음악에 대한 학계 내·외부의 다양한 접근 태도를 탐구하여 음악에 내재한 인문학적 특질을 표면화하는 작업은 인문학적 텍스트로서 음악의 사회적 지점을 구체화할 수 있는 논리적 이해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본 연구의 주요 과제인 음악을 위시한 인문학의 사회적 실천 가치를 재조명하여 인문학으로서 음악의 사회적 기능을 재확인할 수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문학으로서의 음악에 대한 논의의 본질은 음악이 과연 인문학으로 수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의 차원을 넘어, 인문학의 문제가 곧 음악의 문제이며, 인문학의 사회적 역할과 그 가치가 곧 음악의 그것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명제임을 반영한다. 이로써 인문학의 실천학적 지위를 복권하기 위해 오히려 음악이 인문학을 포섭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지하는 음악인문학적 사고를 위한 기초연구로서의 논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김덕수·손윤락·이창우·이태수·안재원·김남두·김경현·이성원·김현,
『파이데이(paideia)와 후마니타스(humanitas): 그리스 로마의
교육과 서양 인문정신의 형성』, NRF KRM, 2011.
- 김선정, 「니체의 인문학적 통찰에서 나타난 인간 존재 근거의 사회
구조화에 관한 연구: 혁신을 중심으로」,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2권 4호,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2019, 3-36쪽.
- 김영건, 「표현인문학의 빛과 어둠」, 『신학과 철학』 3호,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2001, 1-13쪽.
- 김영숙, 「간호사의 인문학적 소양, 감성지능 및 공감능력」, 『예술
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 논문지』 9권 3호, 사단법인 인문사회
과학기술융합학회, 2019, 337-348쪽.
- 김영일, 「인문학적 소양이 과학영재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도정일, “[특별기고] 대학교육에서 ‘교양’이란 무엇인가”, <한겨레 신문>,
2014.02.20.
- 문학수,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어느 인문주의자의 클래식 읽기』, 돌베개,
2013.
- 박영학·정현옥, 「인문학적 소양증진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운영방안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43권 4호, 한국출판학회, 2017, 103-
147쪽.
- 서영처, “[문화칼럼] 음악은 인문학이다”, <매일신문>, 2009.05.29.
- 소흥렬, 「인문학 연구의 회고와 전망」, 『인문학연구: 경상대』 5권,
경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99, 5-24쪽.
- 손승남, 『인문교양교육의 원형과 변용』, 교육과학사, 2011.
- 송인창·정영기, 「품격있는 사회에 대한 철학적 성찰」, 『동서철학 연구』
67권, 한국동서철학학회, 2013, 5-30쪽.
- 승윤희, 「학교 교육을 위한 예술기반(Arts-Based) 교수·학습 방법의
이론적 토대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권 4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9, 1089-1108쪽.

- 월터 카우프만 저, 이은정 역, 『인문학의 미래』, 동녘, 2011.
- 이명한, 「儒學에 있어서 禮의 生産原則에 대한 연구」, 『양명학』 12호, 한국양명학회, 2004, 165-208쪽.
- 이시형, 『무엇이 우리를 최고의 자리로 이끄는가, 품격』, 중앙북스, 2011.
- 전선구, 「음악인문학의 실천인문학적 가능성에 대한 연구」, 『문화와 융합』 45권 11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3, 837-848쪽.
- 전선구, 「음고 표준화 역사의 실천인문학적 함의」, 『교양교육연구』 18권 2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4, 157-167쪽.
- 전선구, 「기존음고 432Hz의 음악인문학적 의의」, 『교양교육연구』 18권 5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4, 385-394쪽.
- 정갑연·김동한, 「수출기업가의 인문학적 소양이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을 통해 수입기업가와와의 라포르에 미치는 영향」, 『전문경영인연구』 27권, 한국전문경영인학회, 2017, 103-147쪽.
- 정대현,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소통 문법: 두 상상력의 언어성」, 『탈경계인문학』 5권 2호,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2012, 5-29쪽.
- 정대현, 「표현인문학 개요」, 『인문언어』 1권, 국제언어인문학회, 2001, 67-76쪽.
- 정연재·주소영, 「인문학적 소양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권 15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9, 453-472쪽.
- 정우현, 『교육사회학연구』, 교육과학사, 1990.
- 정철민·유재봉, 「대학 교양교육의 변화」, 『비교교육연구』 26권 3호, 한국비교교육학회, 2016, 189-210쪽.
- 최문정, 「무용예술의 자본주의적 발달과 예술적 소양」,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31권 4호, 이화여자대학교 이화 인문과학원, 2023, 117-132쪽.
- 하주영·전소영·천지원, 「인문학적 소양에 관한 개념분석: 간호학적 적용」,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권,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7, 937-947쪽.
- 唐君毅, 『中國人文精神之發展』, 學生書局, 1979.

陳大齊, 『論語臆解』, 商務印書館, 1974.

Merriam, A. P., *The Anthropology of Music*,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4.

■ 국문초록

음악의 시간적 연계성은 서로 다른 연대의 층위로 이화된 음악적 실천이라는 문화적 체계의 단편들을 동시대에 공존할 수 있도록 결속함으로써, 인문학적 텍스트로서의 음악을 통한 문화적 소통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음악의 인문학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논의의 토대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고는 음악에 내재한 인문학적 특질을 표면화하여 인문학적 텍스트로서 음악의 사회적 지점을 구체화할 수 있는 논리적 이해의 기반을 확보하고, 음악을 경유한 인문학의 실천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인문학으로서 음악의 사회적 기능을 재확인할 수 있는 음악인문학적 사유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고의 중점 연구과제인 음악의 인문학적 정체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관련 연구의 문헌 분석에 따른 해석인식론적 연구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인문학 본령의 해석적 수행에 기초한 음악인문학적 사유와 연접할 수 있는 방법론적 틀을 구축할 수 있다. 인문학으로서의 음악에 대한 논의의 본질은 음악이 과연 인문학으로 수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의 차원을 넘어, 인문학의 문제가 곧 음악의 문제이며, 인문학의 사회적 역할과 그 가치가 곧 음악의 그것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명제임을 반영한다. 이로써 인문학의 실천학적 지위를 복권하기 위해 오히려 음악이 인문학을 포섭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지하는 음악인문학적 사고를 위한 논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주제어● 음악인문학, 인문학으로서의 음악, 인문학으로서의 예술, 예술로서의 음악, 뮤지킹

■ Abstract

Hermeneutic and Epistemological Thinking on the Coherence of Music as a Humanities

Jeon, Seonkoo / Jeonghwa Arts College

The temporal continuity of music binds together fragments of musical culture separated by different eras, allowing them to coexist in the same era. This provides a basis for discussion to rediscover the value of cultural communication through music as a humanistic text and to establish the humanistic identity of music.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ecure a logical understanding foundation that can concretize the social point of music as a humanistic text by bringing to the surface the humanistic characteristics inherent in music, and also to lay the foundation for music humanities thinking that can reaffirm the social function of music as humanities by reexamining the practical value of humanities through music. In order to examine the humanistic identity of music, a hermeneutic epistemological research method based on literature analysis of related studies was adopted, thereby establishing a methodological framework that can be connected to music humanities thinking based on interpretive performance, which is the essence of humanities. The discussion on music as a humanities goes beyond whether music can be accepted as a humanities, reflecting the proposition that the problems of the humanities are problems of music, and that the social role and value of the humanities can never be separated from those of music. With this, we hope to further solidify the argument for ‘musical humanities thinking’ that holds the possibility that music can encompass the humanities in order to restore the praxiological status of the humanities.

**Keyword • Music Humanities, Music as Humanities, Art as Humanities,
Music as Art, Musicking**

■ 논문투고일:2025.02.14. ■ 심사완료일:2025.03.10. ■ 게재확정일:2025.03.11. ■

니체의 『비극의 탄생』과 리토릭적 연주의 상호작용 : 감정적 설득과 음악 수사학 중심 분석

천 민 경*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결과
5. 결론 및 제언

1. 서론

예술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는 강력한 도구로 기능해 왔으며, 음악, 문학, 미술, 연극과 같은 다양한 예술 형식을 통해 단순한 유희를 넘어 감정과 사유를 매개하며 인간 존재의 깊은 차원을 성찰하는 역할을 해 왔다. 이러한 예술의 철학적·미학적 의미를 탐색한 사상가 중 한 명이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Nietzsche, 1844-1900)이다.¹⁾ 그의 저작 『비극의 탄생』(Die Geburt der Tragödie, 1872)은 예술 창조에

*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뉴미디어음악학과 박사

1) 프리드리히 니체 저, 이진우 역, 『비극의 탄생·반시대적 고찰』, 책세상, 2019, 35-70쪽.

서 상반된 두 가지 원리, 즉 아폴론적 형상(Apollonian)과 디오니소스적 형상(Dionysian)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며, 예술이 질서와 조화 속에서도 생성과 파괴를 반복하는 원초적 힘을 품고 있음을 설명한다. 이러한 개념은 음악 연주의 맥락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바로크 및 고전 시대의 연주 실천과 연관된 리토릭적 연주(Rhetorical Performance) 개념과 연결된다. 리토릭적 연주는 단순히 악보를 충실히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이 내포한 감정과 서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며, 이는 연설자가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 논리와 감정을 모두 활용하듯이, 연주자도 음악을 통해 청중의 감정을 움직이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을 중시한다. 실제로 바로크 시대 연주자들은 Affektenlehre(감정 이론)에 기반한 다양한 음악 수사학적 기법(rhetorical figures)을 활용하여, 작품 속 감정을 극대화하고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자 했다. 예를 들어, 당시 음악 이론가 요한 마테존(Johann Mattheson)은 『완벽한 음악 지휘자』에서 "음악을 소리로 이루어진 연설"로 간주하며, 청중의 감정을 움직이는 것이 음악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강조했다.²⁾ 이러한 역사적 관점은 연주자를 단순한 연주 기술자가 아니라, 음악을 통한 설득과 소통의 주체로 바라보는 리토릭적 연주의 개념으로 이어진다.

본 연구는 니체의 예술철학과 리토릭적 연주의 상호작용을 탐구함으로써, 음악 연주 해석에 대한 새로운 미학적 관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니체가 『비극의 탄생』에서 제시한 아폴론적 형식과 디오니소스적 충동 개념이 음악 연주의 해석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 작곡가인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750)와 헨델(Georg Friedrich Handel, 1759)의 작품 분

2) 오자경, 「D. 북스테후데의 오르간 음악에 나타난 음악수사학에 관한 연구」, 『음악과 현실』 15권, 민족음악학회, 1998, 22쪽.

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증은, 연주자가 악보에 담긴 구조적 질서를 충실히 구현하면서도 즉흥성과 감정적 표현의 자유를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음을 논증하며, 음악 연주가 단순한 악보 재현의 영역을 넘어, 창조적 해석과 청중과의 소통을 통해 예술적 경험을 확장하는 장(場)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오늘날의 예술 실천이 철학적 통찰과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며, 보다 심층적인 예술적·철학적 탐구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니체의 『비극의 탄생』

니체의 대표작인 『비극의 탄생』(1872)은 고대 그리스 비극을 통해 예술과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한 철학적 저작이다. 이 책에서 니체는 예술 창조의 근본 원리를 아폴론적 형상(Apollonian)과 디오니소스적 형상(Dionysian)의 상호작용을 통해 설명하며, 비극적 예술이 단순한 형식적 구조가 아니라, 삶의 본질적 경험을 반영하는 깊이 있는 철학적 장치임을 보여준다.³⁾ 두 가지 형상의 원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닌, 상호작용을 통해 비극적 예술을 형성한다. 아폴론적인 것은 형식과 질서, 조화와 명료성을 상징하며, 꿈처럼 아름답고 개별적인 형상을 통해 나타난다. 이에 반해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본능과 충동, 열정과 해방을 의미하며, 술에 취한 듯한 황홀경과 자기 초월을 통해 표현된다. 니체는 예술, 특히 비극이 이러한 두 충동의 긴장과 균형 위에서 탄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비극적 예술은 아

3) Julian Young, *Nietzsche's Philosophy of Ar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34.

폴론적인 아름다운 외형 속에 디오니소스적인 걱정과 고통을 담아내며, 이를 통해 인간 존재의 근원적 현실(고통과 환희의 공존)을 드러낸다는 것이다.⁴⁾ 니체는 이러한 대립적 요소가 단순한 이항대립이 아니라, 그리스 비극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창조적 동력임을 강조했다.

그는 후기 저작인 『에케 호모』에서 『비극의 탄생』을 회고하며 "아폴론과 디오니소스의 긴장은 일종의 변증법적 성격을 띤다"고 언급했지만, 헤겔식 변증법처럼 종국에 하나로 합쳐지는 통합이 아니라, 영원한 긴장 속 조화로 존재하는 것이라 보았다. 다시 말해, 디오니소스적 충동은 아폴론적 형식 속에 완전히 흡수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 내부에서 끊임없이 분출되며 예술의 생명력을 부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극은 단순한 극 형식이 아니라, 인간 실존의 역설과 심연을 담은 철학적 장치이며, 관객은 비극을 통해 형식미와 원초적 감정을 동시에 체험하면서 깊은 정화(catharsis)를 경험하게 된다. 니체가 말하는 비극적 세계관은 낙관적 합리주의를 뛰어넘어, 삶의 비극적 진실을 예술로 긍정하는 심층적 미학이라고 할 수 있다.⁵⁾

니체는 음악을 이러한 비극적 미학과 밀접하게 연결지었다. 그는 음악을 단순한 감각적 쾌락이 아닌 인간 존재의 본질과 결부된 예술 형식으로 보았다. 특히 젊은 시절 바그너의 음악에 심취했던 니체는 음악의 감성적이고 표현적인 힘이야말로 현대 문명의 경직된 이성주의를 넘어 삶을 긍정하게 하는 에너지라고 여겼다. 비록 이후 바그너와 결별한 뒤로는 음악 취향에 변화가 있었지만(브람스, 비제 등의 음악을 새롭게 평가함), 니체에게 있어 음악적 경험은 여전히 철학적 통찰과 자기 극복의 한 형태였다.

Georges Liebert의 연구 『Nietzsche and Music』(2004)은 이러한 니체

4) Walter A. Kaufmann, *Nietzsche: Philosopher, Psychologist, Antichrist*,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p.116.

5) Friedrich Nietzsche, *Ecce homo*, Bibliografische Angaben, 2019, p.151.

의 음악 철학을 심도 있게 분석한 것으로, 니체가 음악을 통해 예술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보여준다. Liebert에 따르면 니체는 음악을 논리나 언어로 다 담을 수 없는 인간 내면과 존재의 직접적 표현으로 간주했으며, 음악이 갖는 감정적 설득력을 높이 평가했다.⁶⁾ 이는 곧 음악이 단순한 구조적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음악을 통한 설득을 중시하는 리토릭적 연주의 개념과 접점을 이루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니체의 사유에서 음악은 삶의 비의(秘意)를 전달하는 디오니소스적 예술이자, 동시에 형식미를 통해 그 감정을 승화시키는 예술로서, 아폴론적 질서와 디오니소스적 충동의 상호작용을 체현하는 매개체였다는 것이다.⁷⁾

그의 『비극의 탄생』은 오늘날에도 예술 및 문화 이론 전반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전으로 평가되며, 그의 논의는 현대 예술, 문학, 철학, 연극 연구 등 여러 분야에서 효과적인 해석 틀을 제공한다. 또한, 음악과 연극의 관계를 재조명하는 중요한 기반을 형성한다.

2) 리토릭적 연주의 개념과 의의

리토릭적 연주 기법(rhetorical performance practice)은 특정 시대에 한정되지 않으며, 음악 해석과 표현 방식이 시대적, 문화적 맥락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개념이다. 리토릭적 연주는 음악을 웅변적 표현으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출발하며, 단순한 음향적 배열을 넘어 음악적 의미와 감정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바로크 시대(17~18세기 초)의 연주 실천에서 그 전형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숨 음형(figura suspirans), 상행과 하행 진행이나 당김음

6) Georges Liébert, *Nietzsche and Music*,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p.32.

7) Walter A. Kaufmann, op. cit., pp.116-130.

(passus duriusculus)과 같은 음형들은 각각 슬픔, 고통 또는 탄식 등의 구체적인 감정을 상징하는 음악적 수사(figures)로 받아들여졌다.⁸⁾ 이러한 음형을 얼마나 적절하고 극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청중이 느끼는 감정의 양상이 크게 좌우되었다. 또한, 당시 이론가들과 작곡가들은 작곡과 연주 과정을 수사학적 연설의 구성 및 전달의 형식으로, Inventio(적절한 주제 자료 창안), Dispositio(형식적 구성), Decoratio(장식과 수사적 기교의 적용), Pronuntiatio(연주를 통한 전달)라는 연설의 4 단계를 음악에 적용하여 설명하였다.⁹⁾ 실제로 17~18세기 이론가들은 음악적 기법과 선율적 요소들을 수사학 용어로 분류하고 정의하였는데, 이러한 Figurenlehre(음형 이론)을 통해 바흐를 비롯한 바로크 작곡가들의 작품 속 음형(musical figures)이 특정 감정(Affect)과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고안되었음을 밝혔다.¹⁰⁾ 다시 말해, 바흐의 음악은 당대 청중의 감정을 움직이고 설득하기 위해 연설처럼 구성되었으며, 음표 하나하나가 언어의 단어처럼 의미를 지닐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흐의 악보는 단순한 기보법적 지시가 아니라, 해석을 통해 의미를 드러내야 할 텍스트로 간주된다. 또한, 그의 칸타타와 오라토리오 역시 이러한 리토릭적 기법을 정교하게 활용하며, 종교적 메시지와 감정적 설득력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고전주의 시대(18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음악은 형식적 명료성과 구조적 균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프레이징과 다이내믹 처리는 웅변적 기법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91)와 요제프 하이든(Franz Joseph Haydn, 1809)의

8) George J. Buelow, "Music, Rhetoric, and the Concept of the Affections: A Selective Bibliography", *Notes*, vol. 30, no. 2, Music Library Association, 1973, pp.250-259.

9) Mary Cyr, *Performing Baroque Music*, Amadeus Press, 2003, pp.37-41.

10) 나주리, 「바로크 음악의 정서론(Affektenlehre)에 대한 소고」, 『음악이론포럼』 제19권, 연세대학교 음악연구소, 2012, 33-48쪽.

작품에서는 논리적인 음악적 문장 구조와 설득력 있는 감정 표현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시기 음악은 보다 체계적이고 규범적인 양식을 따르는 가운데, 프레이징과 다이내믹의 섬세한 조절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을 유지하였다.

낭만주의 시대 이후에는 감정 표현이 더욱 개별적이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변하면서, 리토릭적 연주 기법은 보다 감성적이고 주관적인 요소로 변형되었다. 프란츠 리스트(Franz Liszt, 1886)와 리하르트 바그너(Richard Wagner, 1883)와 같은 작곡가들은 여전히 극적인 표현을 강조하며 리토릭적 기법을 활용하였으나, 이러한 기법이 보다 자유로운 형식 속에서 작곡가의 개성에 따라 변주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음악은 청중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방식으로 변화했으며, 감정의 극대화와 개성적 해석이 강조되었다.¹¹⁾ 이러한 특징은 음악을, 감정을 전달하는 예술적 언어로 간주하는 접근 방식은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현대 연주 해석에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남아 있다. 특히 바로크 음악에서 즉흥성과 창의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현대 연주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이 연주 해석의 필수적 요소로 작용한다.

3. 연구의 방법

1) 니체 예술철학과 리토릭적 연주의 개념적 연계성

본 연구는 질적 분석을 통해 니체의 미학 개념을 실제 음악 연주 해석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바로크 시대의 두 작곡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와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의 작품을 선정하였다. 바흐와 헨델은 모두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이자 연주자로서, 음악에 논리

11) Patrick Saint Dizier, *The Rhetoric and Symbolism of Forms in Romantic Music*,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20, p.9-22.

적 구조와 감정 표현을 균형 있게 담아낸 작품들을 남겼다. 특히 두 작곡가의 작품에는 리토릭적 연주 개념과 부합하는 요소들이 많이 포착되는데, 이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선정에 적합한 근거가 된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바흐의 《Die Kunst der Fugue》(이하 푸가)와 《마태수난곡》(BWV 244) 중 아리아 《Erbarme dich, mein Gott》를 통해 아폴론적 형상의 구현 양상을 살펴보고, 헨델의 오라토리오 아리아를 통해 디오니소스적 형상의 구현 양상을 분석한다.

바흐의 푸가는 정교한 다성음악 구조를 갖춘 기악음악의 대표적인 예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음악 구성의 정점을 보여준다. 반면, 그의 교회 칸타타와 수난곡에 등장하는 아리아는 성악곡의 한 유형으로서 정서적 메시지가 강조되며, 감정 표현의 깊이가 두드러진다. 헨델의 경우,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He Was Despised〉와 같은 아리아는 바로크 시대 다 카포(da capo) 아리아의 특징을 반영하며, 반복되는 선율과 즉흥적 장식음을 활용하여 감정을 극적으로 표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작품들을 악보 및 문헌 분석을 통해 고찰하고, 음악적 관례에 따른 연주 해석 기법을 살펴봄으로써, 연주자가 니체의 철학적 개념을 음악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탐구하였다. 분석 과정에서는 악곡의 구조, 선율 진행, 리듬 및 화성과 같은 형식적 요소뿐만 아니라, 셈여림, 프레이징, 박자 등의 표현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 음악적 해석의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바흐와 헨델의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아폴론적-디오니소스적 개념이 음악 연주 해석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바흐의 작품에서는 구조적 질서와 정제된 표현을, 헨델의 작품에서는 즉흥성과 감정의 해방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니체의 예술철학이 음악적 해석에 적용되는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상의 방법론을 통해 아폴론적-디오니소스적 미학이 음악 속에서 어떤 형태로 드러나며, 연주자가 이를 활용하여 어떻게 설득력 있는 음악적 서사를 구축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 바흐의 리토릭적 음악과 아폴론적 형상의 구현

니체가 정의한 아폴론적 예술성은 조화롭고 질서 정연한 아름다움, 명료하고 형식적인 균형을 뜻한다. 이러한 아폴론적 미학의 관점에서 볼 때, 바흐의 음악은 형식미와 구조적 균형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바흐의 음악은 서양음악사에서 질서의 상징으로 자주 언급되었으며, 복잡한 다성부 속에서도 이상적인 조화와 균형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예컨대, 바흐의 푸가는 엄격한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대위법적 형식으로, 하나의 주제 선율이 각 성부에서 차례로 모방·전개되고, 정교한 구조 속에서 조화롭게 결합한다. 이러한 푸가와 대위법 구조는 각각의 성부가 독립성을 가지면서도 전체적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질서정연한 음악적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곡집》이나 《푸가의 기법》에 수록된 작품들은 수리적 논리성과 아름다움을 겸비한 푸가의 정수를 보여주며, 음악 속에 내재된 아폴론적 이상-즉 명확한 형식미 속에 담긴 예술적 진리-을 구현하고 있다.

다음의 [표 1]과 [그림 1]은 바흐 푸가의 주제(파란색)와 응답(빨간색)이 순차적으로 제시되는 도입부로 바흐의 아폴론적 질서를 보여준다. 첫 번째 성부에 제시된 주제 선율(파란색)에 이어 두 번째 성부가 5도 높은 조로 응답 선율(빨간색)을 모방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각 성부가 차례로 주제와 응답을 제시하며 얹혀 들어감으로써 푸가는 논리적 전개와 구조적 일관성을 확보한다. 동일한 주제가 여러 성부에서 독립적으로 전개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인 화성 조화를 이루는데, 이러한 점에서 바흐의 푸가는 순수한 형식미와 균형을 통한 아폴론적 질서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비록 푸

가가 표면적으로는 극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지만, 그 수학적 아름다움과 완결된 구조에서 얻어지는 지적 희열은 청중에게 일종의 숭고한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Contrapunctus 1

Stimme 1

Stimme 2

Stimme 3

Stimme 4

Die Kunst der Fuge

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

[그림 1] Die Kunst der Fuge, BWV 1080의 주제와 응답¹²⁾

[표 1] 푸가의 대위법 기법 분석

기법	성부	주제 표현 방식	기타 특징
주제 제시	2nd	명확한 주제 제시	중심 주제
응답(반복)	1st	첫 번째 주제를 변형하여 응답 형태로 제시	주제의 모방, 형태 간소화
확대 및 변형	4th	주제의 확장과 복잡한 형태로 제시	주제의 길이를 확장하여 더 많은 음을 추가
축소 및 반행(대비)	3rd	주제의 길이 변형과 축소화	음이 축소되며 강조된 형태

바흐의 음악은 형식의 논리성과 정서의 표현력을 동시에 성취한 데 있

12) Christian Mondrup, 《Werner Icking's urtext edition》, 2017.

다. 그의 작품 《마태수난곡》(BWV 244) 중 아리아 《Erbarme dich, mein Gott》를 살펴보면, 바흐가 깊은 감정조차도 질서 정연한 음악적 구조 속에 녹여냈음을 알 수 있다. 이 아리아는 예수의 제자 베드로가 그를 세 번 부인한 뒤 느끼는 통절한 참회의 심정을 담고 있는 곡으로, 바흐 음악 가운데서도 가장 애절하고 아름다운 곡으로 손꼽힌다. 이러한 감정을 극대화하기 위해 바흐는 크로마틱 하강 음형(Figura Suspirans)을 활용했는데, 이는 단순한 감정의 표출을 넘어 음악적 질서를 구축하며, 형식과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강한 정서를 전달하는 아폴론적 예술의 특성을 드러낸다. 이는 단순한 슬픔의 발산이 아니라 청중이 객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미적 체험으로 전환된다.



[그림 2] Erbarme dich, mein Gott, 바이올린 오블리가토¹³⁾

[그림 2]에서 1~2 마디에서 바이올린은 상행 또는 간격 있는 도약을 사용해 선율을 조심스럽게 열어 가며, 반복되는 리듬 또는 유사한 동기가 나타난다. 이를 통해 청자는 이미 곡의 핵심 정서가 서서히 고조될 것임을 예감하게 된다. 이때 저음부(베이스)는 12/8 박자의 기본 리듬을 고르게 분할

13) Muscorescore, <https://musescore.com/user/11456941/scores/6102459>, 2025.02.01.

하여 화성을 지지하며, 곡 전체가 빠르게 격앙되지 않고 차분하게 진행되도록 만들어 준다.

3~4 마디에 들어서면 한층 미묘한 반응계적 긴장감이 형성될 수도 있지만, 곧 안정된 화성으로 되돌아가는 흐름이 유지된다. 이는 감정적 격정을 '무질서한 폭발'로 그려내기보다는, '정돈된 비애'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안의 정제된 아폴론적 형상을 잘 드러낸다.

The image displays a musical score for the song 'Erbarme dich, mein Gott'. It features two staves: a Violin staff (top) and an Alto staff (bottom). The score is divided into three systems. The first system (measures 7-8) shows the violin playing a rapid, sixteenth-note passage, highlighted by a red box and a red arrow. The alto part is mostly silent. The second system (measures 9-10) shows the alto singing 'bar - me dich, er - bar - me dich, mein Gott, um' and the violin playing a melodic line. The third system (measures 11-12) shows the alto singing 'mei - ner - Zäh - ren wil - len, er -' and the violin playing a melodic line. Red boxes highlight specific melodic and harmonic elements in the violin part across all systems.

[그림 2] Erbarme dich, mein Gott, 바이올린 오블리가토와 알토 성부

[그림 3]은 7~12마디 구간을 발췌한 것이며 본문 내용과 더불어 각 성부

에 반음계적 하강 음형(Figura Suspirans)과 성부 간 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의 곡에서 주목할 점은, 이 비탄의 아리아가 12/8박자의 우아한 시칠리아노(siciliano) 리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시칠리아노는 바로크 시대에 애수 어린 목가적 춤곡 형식으로 자주 쓰였는데, 바흐는 이를 통해 한편으로는 애절한 감정을, 다른 한편으로는 절제된 흐름과 규칙성을 동시에 부여했다. 느리고 흐느끼는 듯한 바이올린 독주 선율이 아리아를 시작하여 곡 전체를 관통하는데, 이 선율은 바로크적 수사에서 흔히 인간 영혼의 목소리를 상징하는 바이올린을 통해 슬픔을 노래하게 한 것이다. 알토 성부가 뒤따라 동일한 선율로 "Erbarne dich"를 읊조릴 때, 우리는 마치 통곡의 호소가 엄숙한 기도 속에 녹아드는 것을 듣게 된다. 선율 진행에는 한숨짓는 듯한 낙하 음형(Seufzer)과 반음계적 진행 등 슬픔의 수사학적 장치가 담겨 있지만, 이러한 모든 감정 표현은 명확한 리듬과 조화로운 화성 진행이라는 틀 안에서 전개된다. 즉, 바흐는 걱정적인 비탄조차 형식의 울타리 내에서 절제하고 승화시켰다.

푸가와 《Erbarne dich, mein Gott》는 표면적으로는 매우 대조적이다. 전자는 가사가 없는 기악곡으로 추상적 질서미를 보여주고, 후자는 성경 내용에 기반한 성악곡으로 직접적 감정을 호소한다. 그럼에도 이 둘을 관통하는 중요한 공통점은 형식과 감정의 조화이다. 바흐는 푸가에서는 형식미를 통해 숭고함과 지적 감흥을 이끌어내고, 《Erbarne dich, mein Gott》에서는 음악적 형식을 틀로 삼아 인간적인 슬픔을 보편적 감동으로 승화시킨다. 다시 말해, 바흐의 음악에서는 아폴론적 질서(형식)가 디오니소스적 정서(감정)를 감싸 안고 있으며, 둘은 대립하지 않고 상호보완적으로 예술적 아름다움을 창출한다. 이는 니체가 강조한 이상적인 예술의 모습과도 맞닿아 있다.

[표 2] 바흐의 두 작품의 형식과 아폴론적 요소 특징

구 분	《die kunst des fugue》	《Erbarne dich, mein Gott》
형식	다성부 푸가 형식	느린 아리아 형식
구조	- 주제 선율이 각 성부에서 순차적으로 모방 제시 - 엄격한 대위법에 따른 체계적 전개 - 조성적으로 명확한 형식 구조	12/8박자의 서정적 느린 악장 - 선율과 반주가 교대하며 발전하는 2부분 구조
아폴론적 요소	- 각 성부의 독립성과 전체적인 조화 - 논리적 모티브 전개와 구조적 일관성 - 프레이징과 음형이 명확하여 질서 정연함	- 바이올린과 알토 성부 간의 균형 잡힌 진행 - 베이스의 반복에서 오는 안정감 - 음량과 속도의 절제를 통해 감정의 과잉 억제
감정적 설득	형식미에서 오는 숭고미	비애와 회개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

[표 2]는 바흐의 푸가와 《Erbarne dich, mein Gott》를 형식과 아폴론적 요소, 감정 표현 측면에서 비교한 것으로, 두 작품이 어떻게 형식적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정서를 담아내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바흐의 두 작품은 표현 양상은 다르지만, 형식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푸가는 감정을 표면에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형식 그 자체가 주는 미적 쾌감을 선사하고, 《Erbarne dich, mein Gott》는 애절한 감정을 구조화하여 보편적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다.

이처럼 바흐 음악에서 아폴론적 질서와 감정 표현의 조화는 청중에게 단순한 감정적 고조가 아니라, 절제된 형식을 통해 오히려 더 깊고 지속적인 감동을 전달한다. 이는 니체의 아폴론적 예술이 지향하는 바와 정확히 부합하며, 이 작품이 단순한 종교음악을 넘어 예술의 보편적 원리를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3) 헨델의 리토릭적 음악과 디오니소스적 형상의 구현

헨델은 음악적 수사학을 극적으로 발전시킨 작곡가로, 그의 오라토리오와 오페라는 단순한 음향적 효과를 넘어 감정적 전달을 목표로 삼는다.

텍스트와 음악의 상호작용을 통해 청중의 감정적 반응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작곡된 그의 작품은 니체의 디오니소스적 미학과도 연관된다. 예를 들어, 오라토리오 《메시아》(Messiah)의 알토 아리아 《He was despised》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멸시를 묘사하는 곡으로, 느린 박자와 유려한 선율을 통해 깊은 비탄을 표현한다. 그러나 이 곡의 감동적인 힘은 단순히 악보에 기록된 음표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연주자가 해석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즉흥적 장식을 어떻게 추가하는지, 프레이징과 다이내믹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의해 좌우된다. 동일한 선율의 반복은 단조로운 슬픔의 서사가 아니라, 연주자의 해석에 따라 감정의 깊이가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디오니소스적 요소를 내포한다. 이러한 감정적 표현은 악보가 제공하는 기본 틀(아폴론적 구조)을 유지하면서도, 연주자가 순간적 직관과 감정적 폭발을 표출함으로써 자신만의 해석을 구현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헨델의 《He was despised》를 중심으로 디오니소스적 요소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고찰하고, 이를 니체 철학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감정적 설득을 극대화하는 연주 기법인 템포 루바토(tempo rubato), 즉흥적 장식음(improvised ornamentation), 극적인 다이내믹 변화(dramatic dynamic contrast)에 대하여 논의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헨델 음악에서 디오니소스적 자유를 어떻게 실현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현대 연주자가 이러한 통찰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탐구하며, 창의적이고 표현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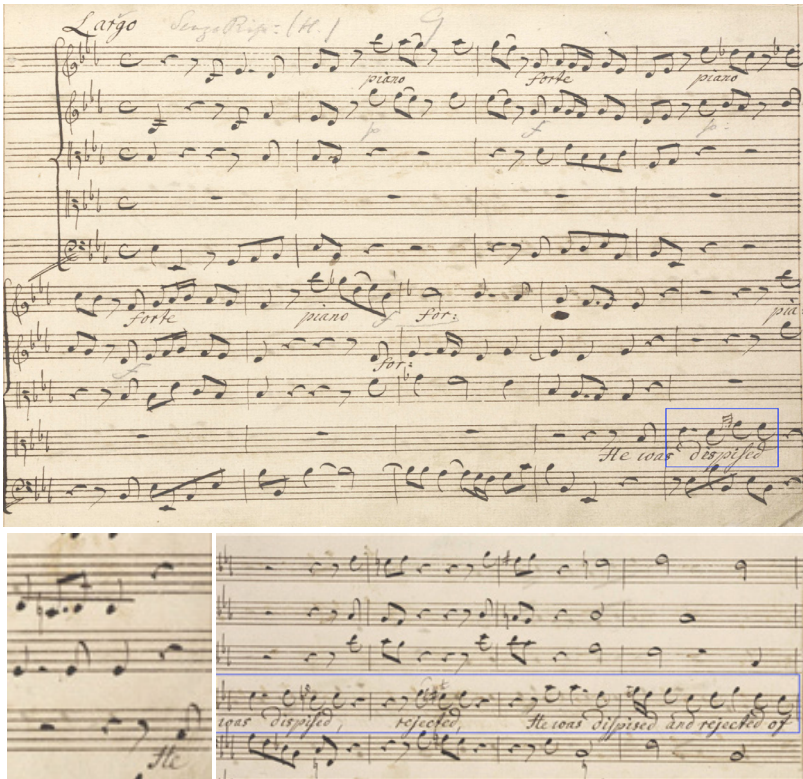
첫 번째로, 템포 루바토는 일정한 박자에서 벗어나 감정적 표현을 위해 일시적으로 박자를 조절하는 기법이다. 헨델의 아리아에서 성악가는 불협화음에서 머물거나 프레이즈의 종지를 늘려 감정을 강조할 수 있으며, 이는 연설의 극적 휴지와 유사한 효과를 창출한다. 이 기법은 아폴론적 질서(고정된 박자)에서 벗어나 디오니소스적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감정적 절정

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구현된다.

다 카포(da capo) 형식의 아리아에서는 반복되는 A 구간에서 장식음을 통해 정서적 변화를 강조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였다. 이는 단순한 기교적 장식이 아니라, 가사와 음악의 정서를 강화하는 기능을 하며, 연주자의 창조성을 적극적으로 개입시키는 방식으로 디오니소스적 즉흥성과 맞닿아 있다. 바로크 음악에서 흔히 사용되는 테라스 다이내믹(terrace dynamics)은 음량의 극적인 변화를 통해 감정적 효과를 높이는 방식이다.¹⁴⁾ 헨델의 오라토리오와 오페라에서는 조용한 부분에서 갑작스러운 강한 소리로 전환되거나, 악기들이 점진적으로 사라지는 효과를 활용하여 청중의 감정적 반응을 유도한다. 이러한 다이내믹 기법은 감정의 기복을 강조하는 동시에 음악적 내러티브를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들며, 디오니소스적 에너지를 극대화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He was despised》곡의 초반부는 침잠하는 슬픔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첫 번째 ‘He was despised’가 낮은 음역에서 단순한 리듬으로 등장하며, 텍스트의 무게감을 강조한다. 극도로 느린 빠르기(Largo)와 피아니시모(pp)의 다이내믹 설정이 청중으로 하여금 음악에 몰입하도록 유도하며, 디오니소스적 원리에서 강조하는 감정의 직접성이 서서히 드러난다.

14) George A. Kochevitsky, “Performing Bach’s Keyboard Music: Dynamics A Postscript”, *Bach*, vol. 7, no. 1, Riemenschneider Bach Institute, 1976, pp.3-11.



[그림 4] He was despised, 1~17 마디¹⁵⁾

두 번째 'He was despised'에서는 선율이 약간 상승하며 긴장이 형성되는데, 이는 연주자가 같은 문구를 반복할 때마다 감정의 깊이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헨델 오라토리오에서의 디오니소스적 구현 방식은 형식을 존중하되, 결코 그 안에 갇히지 않는 역동적 태도에 기인하는 것이다.

《He was despised》는 정해진 구간의 반복을 통해 서사적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게 하면서도, 연주자가 즉흥성과 표현력을 발휘하여 정서의 다양

15) The Morgan Library&Museum, 《Messiah: copyist's manuscript》, <https://www.themorgan.org/music/manuscript/115317/196>, 1743-1746.

성을 끊임없이 실험하도록 유도한다. 이에 따라 청중은 1차 반복(초반부)과 2차 반복(다 카포 구간) 간의 미묘한 차이에 주목함으로써, 슬픔이라는 감정이 결코 일차원적이지 않음을 체감하게 된다. 이는 "단조로운 슬픔"처럼 들릴 수 있는 아리아가 실은 복합적 감정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하며, 이러한 절묘한 균형이 니체가 말한 디오니소스적 몰입과 리토릭적 설득력을 증대시킨다. 결국, 《He was despised》는 단순한 슬픔의 반복 서사가 아니라, 디오니소스적 에너지를 통해 각 마디마다 새로운 감정적 국면을 열어 가는 역동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장식음과 셈여림 변화로 예고 없이 '파고가 치는' 순간을 만들어 냄으로써, 곡의 구조적 골격(아폴론적)이 해체되지는 않지만, 유연하게 흔들리는 생동감을 부여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청중은 연주자와 함께 슬픔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이 갖는 다양한 측면(희망, 자비, 몰입, 회한 등)을 섬세하게 탐색하게 된다. 이는 곡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는 긴장감과 정서적 공감대를 만들어 내며, 헨델 오라토리오가 지닌 진정한 힘-형식을 넘나드는 감동-을 최대로 증폭시킨다.

또 다른 예시로 헨델의 메시아에서 디오니소스적 요소가 가장 강하게 표현되는 부분은 “할렐루야 코러스(Hallelujah Chorus)”이다. 이 부분은 감정적 고양과 몰입을 극대화하며, 니체의 디오니소스적 미학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집단적 황홀경을 유도하는 강렬한 합창과 오케스트라의 조화는 청중에게 집단적 감정의 해방을 제공하며, 이는 니체가 말한 디오니소스적 예술 경험, 즉 개인을 초월하여 집단적 몰입에 빠지게 하는 힘과 일치한다. 또한, 극적인 다이내믹 변화가 곡 전체에 걸쳐 나타나면서 조용한 부분에서 갑작스럽게 폭발적인 소리로 전환되며, 감정의 강한 파동을 형성한다. 이러한 반복과 점진적 고조는 디오니소스적 에너지를 증폭시키며, 청중을 강한 감정적 몰입 상태로 유도한다.

이처럼 헨델의 곡을 통해 디오니소스적 요소의 음악적 구현 방식은 리듬과 강약의 극적인 변화, 멜로디와 화성을 통한 감정적 유도, 즉흥성과 창조성, 합창과 오케스트라의 통합, 신체와 율동을 포함하는 다양한 요소의 결합을 통해 실현된다. 이는 자연의 원초적 통일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리듬적 요소에서는 일정한 박자에서 벗어나거나 루바토를 활용하여 감정적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사용되며, 갑작스러운 다이내믹 전환(예: 피아니시모에서 포르티시모로의 변화)은 감정적 폭발을 표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멜로디와 화성의 측면에서는 동일한 멜로디를 반복하면서도 반복되는 곳마다 강약, 음색, 장식음을 변화시켜 감정의 깊이를 점차적으로 심화시키는 방식이 사용된다. 특히, 불협화음을 통해 긴장을 조성하고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카타르시스가 극대화된다. 이러한 구조는 니체가 말한 근원적 고통과 환희의 순환을 음악적으로 구현하는 과정과도 유사하다. 또한, 즉흥성과 창조성은 디오니소스적 요소를 구현하는 중요한 방법론으로 작용한다. 연주자가 즉흥적 장식음을 추가하거나, 곡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순간적인 해석을 가미하는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단순히 기교적인 요소를 넘어, 음악의 정서를 더욱 심화시키고 감정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연주자는 악보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직관을 통해 곡을 재창조하며, 디오니소스적 에너지를 발산한다.

마지막으로, 디오니소스적 요소는 단순히 청각적인 요소에 그치지 않고, 신체와 율동적인 움직임으로 확장된다. 연주자가 음악을 표현할 때 신체적 움직임과 감각적 몰입을 통해 감정을 더욱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이는 음악과 춤이 결합하여 청중이 음악에 물리적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방식은 니체가 강조한 ‘자기를 잊어버린 상태’라는 디오니소스적 광기의 개념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결론적으로, 디오니소스적 요소는 리듬, 멜로디, 화성, 즉흥성, 집단성과 같은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이 결합하여 강렬한 감정 경험과 몰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헨델의 오라토리오는 단순한 서사가 아닌 감정적 몰입을 유도하는 예술적 장치로 작용하며, 연주자의 해석에 따라 다양한 감정적 충위를 형성할 수 있다. 헨델의 시대에 사용되었던 즉흥적 장식과 루바토를 현대 연주에서 복원하는 것은 헨델 음악의 감정적 표현을 되살리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연주자는 장식음을 단순한 장식이 아닌 수사학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학문적 연구와 연습을 통해 익혀야 한다. 현대 연주자들은 헨델의 수사학적 연주 기법을 연구하고, 감정적 표현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모색함으로써, 그의 음악이 가진 디오니소스적 에너지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4. 연구의 결과

본 연구는 니체의 예술철학을 바탕으로 음악 연주에서 아폴론적 형상과 디오니소스적 원리가 어떻게 구현되고 상호작용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바흐의 푸가 및 수난곡, 헨델의 오라토리오를 중심으로 각각의 원리가 음악적 구조와 감정적 표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되는지를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바흐의 푸가는 동일한 주제가 각 성부에서 순차적으로 등장하며 변형과 모방을 거듭함으로써 대위법적 질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성은 연주자가 프레이징과 셈여림 조절을 통해 청중이 곡의 핵심 아이디어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돕는다. 이는 니체가 정의한 아폴론적 미학의 핵심 요소인 ‘형식적 통제와 조화’를 구현하며, 청중에게 명료하고 안정적인 감상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마태수난곡》 중 《Erbarme dich, mein Gott》 아리아는 감정의 직접적 발산이 아닌 정제된 표현을 통해 감정을 점진적으로 고조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반음계적 하강 음형

(Figura Suspirans)과 바이올린 오블리가토의 절제된 진행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와 같은 절제된 구조는 감정을 미적으로 승화시키며, 청중에게 객관적인 미적 체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디오니소스적 원리는 형식적 틀을 초월하여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감정의 해방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바로크와 고전 음악의 리토릭적 연주에서는 즉흥적 장식음, 셈여림 변화, 연기적 표현 등을 통해 디오니소스적 원리가 실현되며, 이를 통해 연주자는 단순한 악보의 재현을 넘어 순간적인 감정의 흐름을 반영하고 청중과 즉각적인 정서적 교감을 형성할 수 있다.

연주 기법의 측면에서, 디오니소스적 해석은 즉흥성과 유동적인 박자 조절을 통해 감정적 몰입을 극대화한다. 템포 루바토(tempo rubato)는 감정적 긴장과 해소를 표현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작용하며, 일정한 박자를 고수하는 아폴론적 질서에서 벗어나 연주자가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리듬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강렬한 다이내믹 대비와 극적인 표현을 통해 감정을 폭발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디오니소스적 원리의 구현에 기여한다. 특히, 헨델의 오라토리오에서 연주자가 동일한 선율을 반복할 때, 다이내믹의 점진적 변화와 미묘한 장식음 추가를 통해 청중에게 다양한 감정의 층위를 경험하게 한다. 디오니소스적 원리는 또한 연주자의 신체적 표현과 감각적 몰입을 강조하며, 이는 단순한 청각적 요소를 넘어 음악이 시각적이고 체험적인 예술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성악가의 연기적 요소, 실내악 연주자의 신체적 움직임, 지휘자의 표정과 제스처 등은 감정이 즉각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며, 연주자와 청중 간의 경계를 허물고 보다 직접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8세기 바로크 연주자들은 청중의 반응에 따라 연주 스타일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현대 연주에서도 연주자가 공연장의 분위기와 청중의 반응을 고려하

여 즉흥적으로 조정하는 태도를 반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니체의 아폴론적·디오니소스적 예술관이 리토릭적 연주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으며, 바흐와 헨델의 작품이 질서(아폴론)와 해방(디오니소스)의 이중적 미학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이상적인 연주는 아폴론적 질서(형식적 명료함)와 디오니소스적 해방(감정적 몰입)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며, 연주자는 음악적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자유로운 감정 표현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현대 연주자들은 이러한 요소를 적절히 조화시킴으로써, 음악의 논리적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감동적인 연주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청중은 논리적 이해와 정서적 몰입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바흐의 푸가와 같은 구조적 작품에서도 성부 간 균형을 유지하며 명확한 흐름을 제공해야 하지만, 동시에 프레이징과 다이내믹을 조절하여 즉흥적 표현을 가미할 수 있다. 헨델의 오라토리오에서는 곡의 극적 요소를 극대화하기 위해 즉흥적 장식음과 루바토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이야말로, 니체가 말한 예술적 이상에 가까운 연주라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오늘날의 음악 연주에서 리토릭적 접근이 가지는 중요성과 실천적 가능성을 강조하는 데 기여하며, 연주자가 단순한 악보 해석자가 아닌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가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니체의 예술철학과 음악 해석과 실천적 연주의 상호작용을 탐구하며,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음악 연주 및 교육 측면의 리토릭적 접근이 가지는 실천적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연주자가 바흐와 헨

텔의 리토릭적 연주 기법을 단순한 시대적 재현이 아니라 실천적인 해석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제안한다.

리토릭적 연주 기법은 바로크 및 고전 음악뿐만 아니라 현대 음악에서도 감정 전달을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리토릭적 접근이 연주자의 표현력과 해석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실천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연주자 훈련에서의 적용이다. 리토릭적 연주는 단순히 악보를 기계적으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연주자가 음악적 구문을 분석하고 강조할 부분을 설정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따라서 현대 음악 교육에서는 연주자들이 텍스트 기반의 해석 훈련을 진행하고, 한 프레이즈 내에서 자연스러운 말의 억양과 감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문장 구조에 따라 음악적 구절을 나누는 방식, 특정 감정을 전달하기 위한 다이내믹과 프레이징 조절 등의 훈련을 포함해야 한다.

둘째, 청중과의 교감에서의 활용이다. 리토릭적 연주는 단순한 연주 기술이 아니라, 청중과의 감정적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 연주자는 악보 해석을 넘어서 연주를 통해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곡의 정서적 흐름을 분석하고 연주에서 이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주자가 연설을 하듯이 악구의 강세와 쉼을 조절하여 곡의 메시지를 강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청중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오케스트라 연주에서는 지휘자가 전체적인 리토릭적 흐름을 고려하여 템포 루바토 및 다이내믹 변화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리토릭적 해석을 구현할 수 있다.

셋째, 감정 전달 방식의 확장이다. 리토릭적 접근은 연주자가 감정을 더욱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현대 음악 교육에서는 리토릭적 해석을 기반으로 다양한 감정적 표현 기법을 연습할 수 있

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동일한 곡을 다양한 감정적 톤으로 연주하며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게 하고, 이를 통해 곡의 서사적 맥락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도록 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또한, 오페라 및 가곡 해석에서는 연기적 요소를 접목하여 감정 전달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리토릭적 연주는 단순한 연주 기법이 아니라 연주자의 해석력, 표현력, 그리고 청중과의 교감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교육적 접근이 실제 연주 훈련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더욱 구체적인 지도 방법론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제시한 니체 철학과 리토릭적 연주의 결합이 음악 해석학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또한, 연주자의 즉흥성과 감정적 표현이 청중의 인지적 반응과 감상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음악 해석이 단순한 철학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연주 실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향후 연구가 이러한 접근을 심화하여 연주 실천과 이론 연구를 연결하는 더욱 체계적인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나주리, 「바로크 음악의 정서론(Affektenlehre)에 대한 소고」, 『음악이론포럼』 제19권, 연세대학교 음악연구소, 2012, 33-48쪽.
- 오자경, 「D. 북스테후데의 오르간 음악에 나타난 음악수사학에 관한 연구」, 『음악과 현실』 15권, 민족음악학회, 1998, 22쪽.
- 프리드리히 니체 저, 이진우 역, 『비극의 탄생·반시대적 고찰』, 책세상, 2019, 35-70쪽.
- Christian Mondrup, 《Werner Icking's urtext edition》, 2017.
- Friedrich Nietzsche, *Ecce homo*, Bibliografische Angaben, 2019, p.151.
- George A. Kochevitsky, “Performing Bach’s Keyboard Music: Dynamics A Postscript”, *Bach*, vol. 7, no. 1, Riemenschneider Bach Institute, 1976, pp.3-11.
- George J. Buelow, “Music, Rhetoric, and the Concept of the Affections: A Selective Bibliography”, *Notes*, vol. 30, no. 2, Music Library Association, 1973, pp.250-259.
- Georges Liebert, *Nietzsche and Music*,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p.32.
- Julian Young, *Nietzsche’s Philosophy of Ar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34.
- Mary Cyr, *Performing Baroque Music*, Amadeus Press, 2003, pp.37-41.
- Musescore, <https://musescore.com/user/11456941/scores/6102459>, 2025.02.01.
- Patrick Saint Dizier, *The Rhetoric and Symbolism of Forms in Romantic Music*,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20, pp.9-22.
- The Morgan Library&Museum, 《Messiah: copyist’s manuscript》, <https://www.themorgan.org/music/>

manuscript/115317/196, 1743-1746.

Walter A. Kaufmann, *Nietzsche: Philosopher, Psychologist, Antichrist*,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pp.116-130.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니체의 예술철학을 바탕으로 음악 연주에서 아폴론적 질서와 디오니소스적 자유가 어떻게 구현되고 상호작용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바흐의 푸가 및 수난곡, 헨델의 오라토리오를 중심으로 각 원리가 음악적 구조와 감정적 표현에서 실현되는 방식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아폴론적 질서와 디오니소스적 해방이 대립이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균형을 이루며, 연주자가 두 요소를 통합함으로써 보다 설득력 있는 음악적 해석을 실현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연주자가 단순한 악보 해석을 넘어 감정적 서사를 구축하고 청중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이 강조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본 연구는 리토릭적 연주의 미학적 가치를 조명하며, 연주 미학의 이론적 토대를 확장하고, 음악 해석의 다층적 접근법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주제어● 비극의 탄생, 디오니소스 형상, 아폴론 형상, 리토릭적 연주

■ Abstract

The Interaction Between Nietzsche's The Birth of Tragedy and Rhetorical Performance : Emotional Persuasion and the Perspective of Musical Rhetoric

Chun, Min Kyeong / Sangmyung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how Apollonian-Dionysian are realized and interact in musical performance based on Nietzsche's philosophy of art. Focus on Bach's fugues and Passions, as well as Handel's oratorios, it examines how these principles manifest in musical structure and emotional expression.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demonstrates that Apollonian order and Dionysian liberation are not opposing forces but rather complementary elements that achieve balance, allowing performers to integrate both aspects for a more persuasive musical interpretation. Furthermore, it argues that this approach enables performers to move beyond mere score interpretation, constructing emotional narratives and fostering direct communication with the audience. By highlighting the aesthetic value of rhetorical performance, this study contributes to expanding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performance aesthetics and propose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musical interpretation.

**Keyword • The Birth of Tragedy, Dionysian Form, Apollonian Form,
Rhetorical Performance**

■ 논문투고일:2025.02.16. ■ 심사완료일:2025.03.05. ■ 게재확정일:2025.03.07. ■

부사성 의존명사의 품사 설정에 대한 고찰

: ‘듯, 듯이, 둥, 족족’을 중심으로

고 하 영*

목 차

1. 서론
2. 부사성 의존명사의 개념과 범주
3. 부사성 의존명사의 구성과 기능
4. 부사성 의존명사의 품사 설정에 대한 제안
5. 결론

1. 서론

한국어의 9품사 중 하나인 명사는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로 나뉘고 의존명사는 다시 형식성 의존명사와 단위성 의존명사로 분류된다. 형식성 의존명사는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보편성 의존명사와 특수성 의존명사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남기삼·고영근(2015:66)에서는 ‘의존명사는 ‘사람, 물건, 일, 장소’를 대용하기 때문에 의존적 성격 외에는 자립명사와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들 의존명사는 관형어와 조사와의 통합에 있어 큰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의존명사를 보편성 의존명사

* 목원대학교 한국어다문화학과 박사과정

라 설명한다. 예를 들어 ‘것’은 대표적인 보편성 의존 명사로서 ‘것이, 것을, 것에, 것이다’ 등과 같이 뒤에 격조사가 붙어 다양한 문장성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한편 의존명사이지만 특정한 성분으로만 쓰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들을 특수성 의존명사라 하여 주어성 의존명사, 목적어성 의존명사, 서술성 의존명사, 부사성 의존명사로 세분한다.

주어성 의존명사는 문장에서 주어로 사용되는 것으로 ‘지, 수, 리, 나위, 턱’ 등이 있다. 목적어성 의존명사는 문장에서 목적어로 사용되는 것으로 ‘줄’이 이에 해당한다. 서술성 의존명사는 문장에서 서술어로 사용되는 것으로 ‘따름, 뿐, 터, 때문, 노릇, 마련, 셈’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부사성 의존명사는 문장에서 부사어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채, 바람, 대로, 만큼, 듯, 듯이, 등, 족족’ 등이 있다.¹⁾

본 연구에서는 부사성 의존명사 중 격조사와 결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으)ㄴ, -는, -(으)ㄹ’과 결합하여 사용되는 부사성 의존명사 ‘듯, 듯이, 등, 족족’의 문법 기술에 대해 살필 것이다. 이들은 부사성 의존명사로 분류되고 있지만, 격조사와 결합하지 못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들의 문법적 사용 양상을 용례와 함께 살펴, 이들의 문법적 범주 설정이 타당성을 갖추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부사성 의존명사로 한정되었던 ‘듯, 듯이, 등, 족족’이 의존명사로서의 문법적 특징을 구현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들의 문법적 범주 설정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2장에서는 부사성 의존명사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사를 살피고, 3장에서는 그 중 ‘-(으)ㄴ, -는, -(으)ㄹ’과 결합하여 사용되는 ‘듯, 듯이, 등, 족족’의 구성에 대해서 문법적 특징을 고찰하며, 4장에서는 격조사와 결합하지 못하는 부사성 의존명사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논의하

1) 남기심·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박이정, 2015, 67-69쪽.

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부사성 의존명사의 활용에 따른 문법적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더불어 국어 문법 기술의 논리성과 효용성을 제고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부사성 의존명사의 개념과 범주

명사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로 나뉘는데, 의존명사는 명사의 하위 범주로 자립성을 갖지 못하며 관형어의 선행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명사이다. 의존명사는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 그중 문장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수행할 경우 부사성 의존명사라고 한다.(남기심·고영근, 2015:65-68)

부사성 의존명사에 대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진행되었지만, 부사성 의존명사의 범주 설정에는 연구자마다 차이를 보인다. 최현배(1961:220-221)에서는 불완전명사를 ‘부사성 불완전명사, 보통 불완전명사, 수 단위 불완전명사’로 분류하였다. 그중 부사성 불완전명사는 항상 다른 말 뒤에 붙어 그것과 합하여 부사와 같은 뜻을 가진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것에는 ‘양, 척, 체, 듯, 둥, 대로, 채’를 들었다. 최현배(1961:220-221)에서는 이들을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만 쓰이는 것과 용언의 관형사형 뒤와 명사 뒤에 쓰이는 것으로 나누었다. ‘양, 척, 체, 듯, 둥’이 전자에 해당하며 ‘대로, 채’가 후자에 해당한다.

임동훈(1991)은 형식명사를 ‘대상성 형식명사, 서술성 형식명사, 부사성 형식명사’로 나누었다. 그중 부사성 형식명사를 부사격 조사와의 결합 여부에 따라 부사격 조사와 결합하는 ‘무렵’류 형식명사와 격조사 없이 부사어로 기능하는 ‘듯’류 형식명사로 나누었다. ‘무렵, 즈음, 동안, 념, 김, 바람, 통, 차, 참, 터, 섰, 판’이 전자에 해당하며 ‘만큼, 대로, 족족, 겹, 둥, 채,

양, 척, 체, 듯, 둥, 지, 한, 바, 만, 법, 뻔, 성, 손'이 후자에 해당한다.

안효경(2001:142-166)도 임동훈(1991)의 분류체계를 수용하여 의존명사를 대상성 의존명사, 서술성 의존명사, 부사성 의존명사로 분류하였으나 세부 목록에는 차이를 보인다. 안효경(2001:142-166)은 부사성 의존명사는 후행하는 서술어에 대하여 부사어로 기능하는 것으로 부사격 조사의 통합 제약 여부에 따라 '바람'류 의존명사와 '듯'류 의존명사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바람'류 의존명사는 부사격 조사가 반드시 통합되어 부사어로 기능하는 것으로 '김, 바람, 통, 차, 섣, 결, 뻔'이 있고, '듯'류 의존명사는 뒤에 격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채로 부사어로 기능하는 것으로 '양, 척, 체, 듯, 만, 뻔, 성, 둥, 대로, 만큼, 족족, 겹, 등'이 있다고 설명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연구들에서는 부사성 의존명사를 격조사와 결합하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점은 '의존명사가 부사격 조사와 결합하지 않은 채 어떻게 문장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다. 송복승(2002:73)에서도 '형태론적으로 명사인 '듯'이 어떻게 통사적으로 부사구를 형성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호정은(2008:136)에서는 명사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가. 격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나. 관형어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다. 'N1이 N2-이다' 구성의 N2 자리에 올 수 있다.

라. 다른 명사 앞에 쓰이면서 관형적 기능을 한다.

명사는 격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 품사이다. 명사는 격조사와 결합해야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격조사와 결합하지 않는 부사성 의존명사를 의존명사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더 정치한 문장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탐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사성 의존명사로 여겨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떠한 격조사와도 결합하지 않는 ‘덧, 듯이, 등, 족족’을 선정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다음 장에서는 이들 의존명사의 구성과 기능을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한국어사전>의 예문을 바탕으로 살펴, 이들에 대한 그간의 문법적 처리가 타당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부사성 의존명사의 구성과 기능

이 장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소개하는 ‘덧, 듯이, 등, 족족’의 의미를 제시하고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한국어사전>의 예문²⁾을 바탕으로 ‘덧, 듯이, 등, 족족’이 선행요소 ‘-(으)ㄴ, -는, -(으)ㄹ’과 결합하여 문장에서 부사어로 기능하는지를 확인하고, 격조사와의 결합 가능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3.1. ‘덧’의 구성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덧’은 어미로서의 용법과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 구성의 용법으로 구별하여 설명한다.

어미

‘-듯이’의 준말.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뒤 절의 내용이 앞 절의 내용과 거의 같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2) 이하 예문들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발췌한 예문은 (표준), 고려대한국어사전에서 발췌한 예문은 (고려)로 표기하였다. 두 사전에서 적합한 예문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필자가 임의로 예문을 만들었다.

의존명사

- 「1」(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여) ‘듯이’의 준말.³⁾ 유사하거나 같은 정도의 뜻을 나타내는 말.
- 「2」(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여) ‘듯이’의 준말. 짐작이나 추측의 뜻을 나타내는 말
- 「3」(‘-은 듯 만 듯’, ‘-는 듯 마는 듯’, ‘-을 듯 말 듯’ 구성으로 쓰여)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 아니한 것 같기도 함을 나타내는 말.
- 「4」(‘-ㄴ 듯 ㄴ 듯 하다’ 구성으로 쓰여) ‘행동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임’의 뜻을 나타내는 말.

이 중 의존명사로 소개되고 있는 ‘듯’의 첫 번째 유형으로 ‘-은’, ‘-는’, ‘-을’과 결합하여 ‘유사함’이나 ‘같은 정도’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가. 아기는 아버지를 꽤다 박은 듯 닮았다. (표준)
 나. 마치 구름을 걷는 듯 도무지 생시가 아닌 것만 같았다. (표준)
 다. 하늘이 맑으니 남산이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다가온다. (표준)

(1)의 예문에 사용된 ‘듯’은 다음과 같이 환언할 수 있다.

- (2) 가. 아기는 아버지를 꽤다 박은 것처럼 닮았다.
 나. 마치 구름을 걷는 것처럼 도무지 생시가 아닌 것만 같았다.
 다. 하늘이 맑으니 남산이 손에 잡힐 것처럼 가깝게 다가온다.

(2)에서 밑줄 친 부분은 문장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유사함’이나 ‘같은 정도’의 뜻을 나타내는 ‘-(으)ㄴ, -는, -(으)ㄴ 듯’ 구성이 문장에서 부사어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예문들에 쓰인 ‘듯’은 다음 (3)에서와 같이 문장에서 어떠한 격조사와도 결합할 수 없음을 볼 수 있다.

3) 송복승(2002:74)에서는 ‘듯’과 ‘듯이’의 의미 해석이 다르게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는데, ‘듯’은 주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낼 때, ‘듯이’는 주어의 행동 양태에 초점이 맞춰질 때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3) 가. 아기는 아버지를 빼다 박은 듯(이⁴⁾ */을*/에*/으로*/이다*) 닮았다.
나. 마치 구름을 걷는 듯(이*/을*/에*/으로*/이다*) 도무지 생기가
아닌 것만 같았다.
다. 하늘이 맑으니 남산이 손에 잡힐 듯(이*/을*/에*/으로*/이다*)
가깝게 다가온다.

의존명사 ‘듯’의 두 번째 의미로, ‘듯’이 ‘-은’, ‘-는’, ‘-을’과 결합하여
‘짐작’이나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4) 가. 그녀는 나를 잊은 듯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 꼬마는 잘 모르겠다는 듯 눈만 껌벅이고 있었다. (표준)
다. 우중충 흐린 하늘은 곧 눈발이라도 세울 듯, 이제 한창 밝을 정월
보름달이 시세를 잃고 있는 밤이었다. <전상국, 동행> (표준)

(4)의 예문은 다음과 같이 환언할 수 있다.

- (5) 가. 그녀는 나를 잊은 것처럼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 꼬마는 잘 모르겠다는 것처럼 눈만 껌벅이고 있었다.
다. 우중충 흐린 하늘은 곧 눈발이라도 세울 것처럼, 이제 한창 밝을
정월 보름달이 시세를 잃고 있는 밤이었다.

(5)에서 밑줄 친 부분은 문장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짐작’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으)ㄴ, -는, -(으)ㄹ 듯’ 구성이 문장
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 예문들에 쓰인 ‘듯’ 역시 다음 (6)
의 예문에서처럼 어떠한 격조사와도 결합할 수 없다.

- (6) 가. 그녀는 나를 잊은 듯(이*/을*/에*/으로*/이다*) 모르겠다는 표정
을 지었다.
나. 꼬마는 잘 모르겠다는 듯(이*/을*/에*/으로*/이다*) 눈만 껌벅이고

4) 여기서 ‘-이’는 주격조사를 결합시킨 것으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어미와 의존명
사의 구성으로 소개하는 ‘듯이’와는 다른 구성으로 이해해야 한다. 곧 (3)에서 설
명하는 ‘듯+이’는 ‘듯(의존명사)+이(주격조사)’의 구성을 보인 것이다. 의존명사+
주격조사 구성의 ‘듯이’와 단독 의존명사 ‘듯이’는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만약 여기서 ‘이’를 주격조사로 본다면 ‘-이’에 선행하는 내용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있었다.

다. 우중충 흐린 하늘은 곧 눈발이라도 세울 듯(이*/을*/에*/으로*/
이다*), 이제 한창 밝을 정월 보름달이 시세를 잃고 있는 밤이었다.

다음으로, ‘듯’이 ‘-은 듯 만 듯’, ‘-는 듯 마는 듯’, ‘-을 듯 말 듯’ 구성으로 쓰여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 아니한 것 같기도 함’을 나타내는 경우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가. 잠을 잔 듯만 듯 정신이 하나도 없다. (표준)

나. 그는 신문을 보는 듯 마는 듯 뒤적거리고만 있다. (표준)

다. 돌탑이 무너질 듯 말 듯 위태로워 보인다. (표준)

(7)의 예문 역시 다음과 같이 환언하여 그 의미와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8) 가. 잠을 잔 것 같기도 하고 안 잔 것 같기도 한 것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다.

나. 그는 신문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하는 것처럼 뒤적거리고만 있다.

다. 돌탑이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 안 무너질 것 같기도 할 것처럼 위태로워 보인다.

(8)에서 밑줄 친 부분은 문장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은 듯 만 듯’, ‘-는 듯 마는 듯’, ‘-을 듯 말 듯’ 구성이 문장에서 부사어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듯’ 역시 ‘-은 듯 만 듯’, ‘-는 듯 마는 듯’, ‘-을 듯 말 듯’ 구성에서는 어떠한 격조사와도 결합할 수 없다. (9)의 예문을 통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9) 가. 잠을 잔 듯(이*/을*/에*/으로*/이다*) 만 듯(이*/을*/에*/으로*/이다*) 정신이 하나도 없다.

나. 그는 신문을 보는 듯(이*/을*/에*/으로*/이다*) 마는 듯(이*/을*/에*/으로*/이다*) 뒤적거리고만 있다.

다. 돌탑이 무너질 듯(이*/을*/에*/으로*/이다*) 말 듯(이*/을*/에*/으로*/이다*) 위태로워 보인다.

마지막으로, ‘-ㄴ 듯 ㄴ 듯 하다’ 구성으로 쓰여 ‘행동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임’의 뜻을 나타내는 ‘듯’의 용례는 다음에서 살펴볼 수 있다.

- (10) 가. 안타깝게도 수돗물은 나올 듯 나올 듯 하면서도 나오지 않았다. (표준)
나. 영희가 무엇인가 말할 듯 말할 듯 하다가 끝내는 종종걸음 치며 사라졌다. (표준)
다. 선혜는 자신과 권오송의 인연을 점치듯 끊어질 듯 끊어질 듯 하며 이어지는 배 곱질을 바라본다. (표준)

(10)의 예문은 다음과 같이 환언할 수 있다.

- (11) 가. 안타깝게도 수돗물은 나올 것처럼 나올 것처럼 하면서도 나오지 않았다.
나. 영희가 무엇인가 말할 것처럼 말할 것처럼 하다가 끝내는 종종걸음 치며 사라졌다.
다. 선혜는 자신과 권오송의 인연을 점치듯 끊어질 것처럼 끊어질 것처럼 하며 이어지는 배 곱질을 바라본다.

(10)의 예문에 나타나는 ‘-(으)듯 -(으) 듯 하다’ 구성을 (11)의 ‘-(으)르 것처럼 -(으)르 것처럼 하다’로 환언한 예에서 보는 것처럼, ‘-(으)르 듯’은 ‘-(으)르 것처럼’으로 바꾸어도 문장의 의미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본다면 ‘행동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임’을 나타내는 ‘-(으)르 듯’ 구성은 문장에서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구성 역시 다음의 (12)에서 보는 것처럼 격조사와는 결합할 수 없다.

- (12) 가. 안타깝게도 수돗물은 나올 듯(이*/을*/에*/으로*/이다*) 나올 듯하면서도 나오지 않았다.
나. 영희가 무엇인가 말할 듯(이*/을*/에*/으로*/이다*) 말할 듯하다가 끝내는 종종걸음 치며 사라졌다.
다. 선혜는 자신과 권오송의 인연을 점치듯 끊어질 듯(이*/을*/에*/으로*/이다*) 끊어질 듯하며 이어지는 배 곱질을 바라본다.

이상의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듯’은 ‘-은 듯, -는 듯, -을 듯, -은 듯

만 듯, -는 듯 마는 듯, -을 듯 말 듯, -르 듯 -르 듯'의 구성으로 문장에서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때의 '듯'에는 어떠한 조사도 결합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듯'을 기왕의 논의에서처럼 의존명사로 처리하고 말 것은 아니라고 본다. 송복승(2002:87)에서는 '듯'에 대해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위치에서 명사의 자질을 유지하면서도 종속 접속 구성의 선행 부사절을 이끄는 부사형 어미의 역할도 수행하는 복합적 성격을 갖는다고 언급한다.⁵⁾ 명사성을 가진 어휘가 부사성을 가진 어휘로 바뀌는 것을 '문법화'의 단계로 설명하는데, 이러한 논의를 고려한다면 '듯'을 어미로 간주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⁶⁾

3.2. '듯이'의 구성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듯이'는 어미로서의 용법과 '관형사형 어미 + 의존명사'의 용법으로 구별된다.

어미('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뒤 절의 내용이 앞 절의 내용과 거의 같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의존명사(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여)

「1」 유사하거나 같은 정도의 뜻을 나타내는 말.

「2」 짐작이나 추측의 뜻을 나타내는 말.

이 중 의존명사로 기능하는 '듯이'의 용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듯

5) 송복승(2002:87)에서의 논의는 명사성이 부사성으로 전이되는 현상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듯'과 '듯이'의 문법화 과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논의라 할 수 있다.

6) '듯'이 접미사 '-하다'와 결합하여 서술어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사의 특성을 갖는다(예:아기는 아버지를 빼다 박은 듯하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명사 '공부'와 접미사 '-하다'가 결합한 '공부하다'는 '공부를 하다'와 같이 명사와 접미사 사이에 목적격 조사 '을/를'이 개재될 수 있는 반면 '듯하다'는 '듯을 하다'처럼 '듯'과 '-하다' 사이에 목적격 조사 '을/를'이 개재될 수 없음에 따라 '듯'이 명사의 특성을 갖는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가 ‘-은’, ‘-는’, ‘-을’의 뒤에 쓰여 ‘유사함’이나 ‘같은 정도’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를 보자.

(13) 가. 일을 다 한 듯이 말을 했다.

나. 아는 듯이 말했다. (표준)

다. 떨 듯이 기뻐하다. (표준)

라. 거울 같은 매얼음 속으로 모가 죽은 둥근 자갈과 물이끼와 모래알이 손에 잡힐 듯이 가깝게 보이고…. <김남천, 남매> (표준)

(13)의 예문은 다음과 같이 ‘-은/-는/-을 것처럼’으로 바꿔 표현할 수 있다.

(14) 가. 일을 다 한 것처럼 말을 했다.

나. 아는 것처럼 말했다.

다. 떨 것처럼 기뻐하다.

라. 거울 같은 매얼음 속으로 모가 죽은 둥근 자갈과 물이끼와 모래알이 손에 잡힐 것처럼 가깝게 보이고….

(14)에서 밑줄 친 부분은 문장에서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은 듯이’, ‘-는 듯이’, ‘-을 듯이’ 구성이 문장에서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은 듯이’, ‘-는 듯이’, ‘-을 듯이’ 구성에 쓰인 ‘듯이’에는 다음 (15)의 예에서처럼 어떠한 격조사와도 결합하지 못한다.

(15) 가. 일을 다 한 듯이(가*/를*/에*/로*/이다*) 말을 했다.

나. 아는 듯이(가*/를*/에*/로*/이다*) 말했다.

다. 떨 듯이(가*/를*/에*/로*/이다*) 기뻐하다.

라. 거울 같은 매얼음 속으로 모가 죽은 둥근 자갈과 물이끼와 모래알이 손에 잡힐 듯이(가*/를*/에*/로*/이다*) 가깝게 보이고….

다음으로 ‘듯이’가 ‘-은’, ‘-는’, ‘-을’과 결합하여 ‘짐작’이나 ‘추측’의 뜻을 가지는 경우는 다음의 예에서 살필 수 있다.

(16) 가. 그녀의 눈은 마치 누구에게 언어맞은 듯이 명들고 부어 있었다. (고려)

나. 그녀는 답답하다는 듯이 말하였다. (표준)

다. 그의 행동을 보아하니, 곧 떠날 듯이 보인다. (표준)

(16)의 예문은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다.

(17) 가. 그녀의 눈은 마치 누구에게 언어맞은 것처럼 멍들고 부어 있었다.

나. 그녀는 답답하다는 것처럼 말하였다.

다. 그의 행동을 보아하니, 곧 떠날 것처럼 보인다.

(17)에서 밑줄 친 부분은 문장에서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침작’이나 ‘추측’의 의미를 가지는 ‘-은 듯이’, ‘-는 듯이’, ‘-을 듯이’ 구성이 문장에서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은 듯이’, ‘-는 듯이’, ‘-을 듯이’ 구성에 쓰인 ‘듯이’에는 다음 (18)의 예에서처럼 어떠한 격조사와도 호응하지 못한다.

(18) 가. 그녀의 눈은 마치 누구에게 언어맞은 듯이(가*/를*/에*/로*/이다*) 멍들고 부어 있었다.

나. 그녀는 답답하다는 듯이(가*/를*/에*/로*/이다*) 말하였다.

다. 그의 행동을 보아 하니, 곧 떠날 듯이(가*/를*/에*/로*/이다*) 보인다.

앞서 살핀 ‘듯’과 마찬가지로 ‘듯이’ 역시 문장에서 부사어로 기능한다는 점, 그리고 어떤 격조사와도 결합하지 못한다는 문법적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기왕의 논의에서처럼 이를 의존명사로 처리하기에는 논리적 모순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3.3. ‘둥’의 구성

안효경(2001:160)에서 ‘둥’은 ‘유사성’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중첩 구성을 이루면 불확실한 상황을 표현하며, 내용을 열거하는 경우는 ‘열거된 내용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의 부사성 의존명사로 설명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설명하는 ‘둥’의 의존명사로서의 용법은 다음과 같다.

의존명사

「1」(‘-은/는/을 등 만/마는/말 등’ 구성으로 쓰여) 무슨 일을 하는 듯도 하고 하지 않는 듯도 함을 나타내는 말.

「2」(‘-다는/냐는/라는/자는 등 -다는/냐는/라는/자는 등’ 구성으로 쓰여) 이렇다거니 저렇다거니 하며 말이 많음을 나타내는 말.

먼저 ‘-은/는/을 등 만/마는/말 등’ 구성이 사용된 예문은 다음과 같다.

- (19) 가. 얼굴을 본 등 만 등 그냥 지나간다. (표준)
나. 밥을 먹는 등 마는 등 수저를 내려놓는다. (표준)
다. 이야기를 할 등 말 등 망설인다. (표준)

(19)의 예문들은 다음과 같이 ‘-은/는/을 것 같기도 하고 -은/는/을 것 같기도 하면서’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 (20) 가. 얼굴을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면서 그냥 지나간다.
나. 밥을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먹는 것 같기도 하면서 수저를 내려놓는다.
다. 이야기를 할 것 같기도 하고 안 할 것 같기도 하면서 망설인다.

(20)에서 밑줄 친 부분은 문장에서 부사절(종속절)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은/는/을 등 만/마는/말 등’ 구성이 문장에서 부사어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또한 ‘-은/는/을 등 만/마는/말 등’ 구성의 ‘등’은 다음 (21)과 같이 어떠한 격조사도 결합하지 못한다.

- (21) 가. 얼굴을 본 등(이*/을*/예*/으로*/이다*) 만 등(이*/을*/예*/으로*/이다*) 그냥 지나간다.
나. 밥을 먹는 등(이*/을*/예*/으로*/이다*) 마는 등(이*/을*/예*/으로*/이다*) 수저를 내려놓는다.
다. 이야기를 할 등(이*/을*/예*/으로*/이다*) 말 등(이*/을*/예*/으로*/이다*) 망설인다.

‘등’의 의존명사로의 두 번째 용례인 ‘-다는/냐는/라는/자는 등 -다는/냐는/라는/자는 등’ 구성은 다음의 예문에서 살펴볼 수 있다.

- (22) 가. 그는 방이 출다는 등 건조하다는 등 불만이 많았다. (표준)
나. 그는 생선이 싱싱하냐는 등 비싸게 산 것은 아니냐는 등 트집을 잡았다. (표준)
다. 이것을 하라는 등 저것을 하라는 등 말이 많다. (표준)

위의 예문들은 다음 (23)처럼 바꿔 표현할 수 있다.

- (23) 가. 그는 방이 출다고 하는 등 건조하다고 하는 등 불만이 많았다.
나. 그는 생선이 싱싱하냐고 하는 등 비싸게 산 것은 아니냐고 하는 등 트집을 잡았다.
다. 이것을 하라고 하는 등 저것을 하라고 하는 등 말이 많다.

‘-다는/냐는/라는/자는 등 -다는/냐는/라는/자는 등’은 ‘-다고 하는/냐고 하는/라고 하는/자고 하는 등 -다고 하는/냐고 하는/라고 하는/자고 하는 등’이 축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구성에서 사용되는 ‘하다’는 ‘말하다’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23)의 문장들은 다음 (24)와 같이 바꿔 이해할 수 있다.

- (24) 가. 그는 방이 출다고 하기도 하고 건조하다고 하기도 하며 불만이 많았다.
나. 그는 생선이 싱싱하냐고 하기도 하며 비싸게 산 것은 아니냐고 하기도 하며 트집을 잡았다.
다. 이것을 하라고 하기도 하고 저것을 하라고 하기도 하며 말이 많다.

(24)에서 밑줄 친 부분은 문장에서 부사절(종속절)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다는/냐는/라는/자는 등 -다는/냐는/라는/자는 등’ 구성이 문장에서 종속절을 이끌 수 있으며 부사어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다는/냐는/라는/자는 등 -다는/냐는/라는/자는 등’ 구성의 ‘등’은 다음 (25)와 같이 어떠한 격조사도 결합하지 못한다.

- (25) 가. 그는 방이 출다는 등(이*/을*/에*/으로*/이다*) 건조하다는 등(이*/을*/에*/으로*/이다*) 불만이 많았다.
나. 그는 생선이 싱싱하냐는 등(이*/을*/에*/으로*/이다*) 비싸게 산 것은 아니냐는 등(이*/을*/에*/으로*/이다*) 트집을 잡았다.

다. 이것을 하라는 등(이*/을*/에*/으로*/이다*) 저것을 하라는 등
(이*/을*/에*/으로*/이다*) 말이 많다.

이상과 같이 의존명사로 간주했던 ‘등’은 ‘-은/는/을 등 만/마는/말 등’, ‘-다는/냐는/라는/자는 등 -다는/냐는/라는/자는 등’의 구성으로 문장에서 부사어로 기능하며 격조사와 결합하지 못한다. ‘등’의 이러한 문법 구조에 대해 정혜선(2019:154)에서는 ‘인지 동사, 주로 ‘모르다’와 공기하던 ‘-ㄴ 등’은 내포문 어미로 기능하다 근대국어 후기로 올수록 그 기능을 상실하고 대신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로 기능하는 예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⁷⁾ 곧 의존명사 ‘등’의 문법적 기능이 점차 어미로 변화한다는 설명한 것은 부사성 의존명사로 간주했던 ‘등’을 ‘-ㄴ 등/-은 등/-는 등’의 어미로 간주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4. ‘족족’의 구성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족족’은 의존명사로서의 용법만 소개되고 있다.

의존명사

(흔히 어미 ‘-는’ 뒤에 쓰여) 어떤 일을 하는 하나하나.

의존명사 ‘족족’이 사용된 예문은 다음과 같다.

(26) 가. 그는 원서를 넣는 족족 퇴짜를 맞았다. (표준)

나. 채소를 떼 오는 족족 다 팔렸다. (표준)

다. 석림은 이런 책망을 드는 족족 부아가 나서 속을 태웠다. <이기영, 봄>
(표준)

위의 예문들에 사용된 ‘족족’은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쓰일 수 있다.

(27) 가. 그는 원서를 넣을 때마다 (바로) 퇴짜를 맞았다.

나. 채소를 떼 올 때마다 (바로) 다 팔렸다.

다. 석림은 이런 책망을 들을 때마다 (바로) 부아가 나서 속을 태웠다.

7) 정혜선(2019:151)에서는 의존명사 구성의 문법화 양상으로 설명하며, ‘향후 여타 의존명사 구성을 포함하여 발달 동기를 문법화 관점에서 깊이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고 제안한다.

(27)에서와 같이 ‘-는 족족’은 ‘-(을) 때마다 (바로)’로 환언 될 수 있다. (27)에서 밑줄 친 부분은 문장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는 족족’ 구성은 문장에서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는 족족’의 ‘족족’은 다음 (28)에서와 같이 어떠한 격조사와도 결합하지 못한다.

- (28) 가. 그는 원서를 넣는 족족(이⁹⁾/을*/에*/으로*/이다*) 퇴짜를 맞았다.
 나. 채소를 떼 오는 족족(이*/을*/에*/으로*/이다*) 다 팔렸다.
 다. 석림은 이런 책망을 듣는 족족(이*/을*/에*/으로*/이다*) 부아가 나서 속을 태웠다.

위의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족족’은 ‘-는 족족’의 구성으로 문장에서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때 ‘족족’에는 어떠한 조사도 결합되지 못한다.⁹⁾ ‘족족’ 역시 기왕의 논의에서처럼 의존명사로 처리하기에는 문법 구조의 설명에서 논리적인 모순을 보인다.

그간 의존명사로 처리되었던 ‘듯, 듯이, 둥, 족족’은 사전의 예문을 바탕으로 살펴본 바 의존명사로 간주했던 문법적 해석을 재론할 필요가 생긴다.

4. 부사성 의존명사의 품사 설정에 대한 제안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듯’, ‘듯이’, ‘둥’, ‘족족’은 선행요소 ‘-(으)ㄴ’, ‘-ㄴ/는’, ‘-(으)ㄹ’과 결합하여 문장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담당하거나

-
- 8) 일상생활에서 ‘족족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족족이’가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만약 ‘족족이’의 ‘-이’를 주격조사로 보고 ‘-이’에 선행하는 요소를 주어로 본다면 서술어와의 호응이 맞지 않는다. ‘족족이’에 대한 사용이 허용된다면 차라리 ‘족족이’에 선행하는 ‘-는’과 함께 ‘-는 족족이’로 간주하여 어미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 9) 최대희(2023:81)에서 “‘족족’은 ‘형태적으로는 후행하는 요소의 결합이 없고, 통사적으로는 선행 요소로 매김법 ‘-는’만 통합된다. 결합 제약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로 설명한다.

종속절(또는 대등절)의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의존명사와 달리 어떠한 격 조사와도 결합하지 못한다.

기존의 여러 연구들과 <표준국어대사전> 및 학교문법에서는 ‘듯’, ‘듯이’, ‘둥’, ‘족족’을 의존명사로 분류해 왔지만, 이들을 의존명사로 처리하면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처럼 문법적인 모순이 발생한다. 기존의 여러 연구들에서는 명사성을 지닌 어휘 또는 명사로 규정짓는 어휘가 문장에서 부사성의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현상에 대해 문법화의 단계 또는 문법화의 변이로 설명하기도 한다.¹⁰⁾

앞 (1)-나에서 살핀 예문 ‘마치 구름을 걷는 듯 도무지 생기가 아닌 것만 같았다.’에서 ‘마치 구름을 걷는 듯’은 문장에서 부사어로 기능한다. 여기서 ‘듯’을 명사로 처리하면, 명사임에도 격조사와 호응하지 못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¹¹⁾ 따라서 의존명사이지만 그것이 부사성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문장에서 부사어로 기능하는 한 그에 대한 분류를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듯, 듯이, 둥, 족족’이 격조사와 결합하지 못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부사성 의존명사로 분류한 데에는 이들에 선행하는 ‘-(으)ㄴ, -는, -(으)ㄹ’을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으)ㄴ, -는, -(으)ㄹ’의 후행 요소인 ‘듯, 듯이, 둥, 족족’이 격조사와 결합하지 못한다면 이들을 명사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에 선행하는 ‘-(으)ㄴ, -는, -(으)ㄹ’ 역시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10) 의존명사의 문법화에 대한 논의에서는 대부분 선행하는 ‘-(으)ㄴ, -는, -(으)ㄹ’을 전성어미로 간주한다. 그러나 어미가 문법화되어 의존명사가 됐다고 보다는 어미의 형태가 다양화 되는 문법화 현상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11) 문장에서 부사어가 되기 위해서는 품사가 부사이거나 명사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되어야 한다.

예) 나는 빨리 먹는다. (부사)

나는 집에 가고 싶다. (명사+부사격 조사)

어미 중에 ‘가정(假定)’의 의미를 나타내는 ‘-다면, -ㄴ/는다면’이 있다. ‘-다면’은 형용사 어간이나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사용되고, ‘-ㄴ/는다면’은 받침 없는 동사 어간, ‘ㄹ’ 받침인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동사 어간 뒤에 붙어 사용된다. 문장 안에서의 의미는 ‘어떠한 사실을 가정하여 조건으로 삼는 뜻’으로 기능하고, 문법적으로는 연결어미로 처리된다.¹²⁾ 형용사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ㄴ/는’이 없이 ‘-다면’으로도 충분히 ‘가정(假定)’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동사는 ‘-ㄴ/는다면’과 결합하는데 이때 ‘-ㄴ/는’을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보지 않고 연결어미의 일부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이와 같은 관점을 견지하여 격조사와 결합하지 못하는 의존명사 ‘듯’, ‘듯이’, ‘둥’, ‘족족’에 선행하는 ‘-(으)ㄴ, -는, -(으)ㄹ’ 역시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아니라 어미의 일부로 간주하면 앞서 제기한 문법적 의문이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곧 ‘-은듯, -는듯, -을듯’을 한 덩어리로 보아 어미로 해석하면 격조사가 결합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문장에서 부사어로 기능하는 문제도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기는 아버지를 빼다 박은듯 닮았다.’에서 ‘박은듯’을 ‘동사+부사형 전성어미’로 보면¹³⁾ ‘듯’이 선행요소 ‘-은’과 함께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는 것을 문법적인 모순 없이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껏 부사성 의존명사로 처리했던 ‘듯’, ‘듯이’, ‘둥’, ‘족족’을

12) 이에 대한 예문은 다음과 같다.

예) 내가 너처럼 건강하다면 좋겠다. (표준)

올해도 풍년이 든다면 좋겠다. (표준)

나도 너처럼 시를 잘 짓는다면 좋겠다. (표준)

13) 종속적 연결어미와 부사형 전성어미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구분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황선엽(2015:203)에 의하면 학교문법 등에서 종속적 연결어미와 부사형 전성어미를 구분한 것은 어미의 구분을 문장의 종류와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종속적 연결어미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이루고, 부사형 전성어미는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을 이루게 된다.

이들에 선행하는 ‘-(으)ㄴ, -는, -(으)ㄹ’과 함께 묶어 어미로 처리하면 ‘듯’, ‘듯이’, ‘둥’, ‘족족’이 문장에서 부사어로 기능하는 현상을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이선웅(2020:62)의 ‘표준성 및 규범성의 개념과 한국어 문법 기술의 양상을 재점검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라는 관점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¹⁴⁾

그간 학교문법에서 의존명사에 대한 처리는 문장에서의 기능, 곧 문장 성분에 준한 분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부사성 의존명사 ‘듯, 듯이, 둥, 족족’과 같이 부사격 조사와 결합할 수 없음에도 부사어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부사성 의존명사로 분류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 이러한 한계를 대체할 방안으로 이들을 선행하는 표현 ‘-은, -는, -을’ 등과 하나로 묶어 분석하면 부사어로의 기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듯’, ‘듯이’, ‘둥’, ‘족족’을 이들에 선행하는 ‘-(으)ㄴ, -는, -(으)ㄹ’과 합쳐 하나의 어미로 간주하면 띄어쓰기를 적용할 필요도 없어질 수 있다.¹⁵⁾

요약하면 그간 의존명사로 처리했던 ‘듯, 듯이, 둥, 족족’은 다음의 이유를 바탕으로 의존명사가 아닌 어미로 처리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어미 ‘듯, 듯이, 둥, 족족’

① 명사는 부사성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의존명사 ‘듯, 듯이, 둥, 족족’도 부사성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② 부사성 의존명사 ‘듯, 듯이, 둥, 족족’과 결합할 수 있는 격조사가 없다.
격조사와 결합하지 못하는 명사(예:간이 식당, 우범 지역)도 있으므로,

14) 이선웅, 「표준성, 규범성의 개념과 한국어 문법 기술」, 『한국어학』 86권, 한국어학회, 2020, 6쪽.

15) 따라서 이들을 모두 어미로 간주하면 띄어쓰기도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예) 아기는 아버지를 빼다 박은듯 닮았다.
그녀는 나를 잊은듯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일을 다 한듯이 말을 했다.
얼굴을 본둥 만둥 그냥 지나간다.
그는 원서를 넣는족족 퇴짜를 맞았다.

격조사 결합에 대한 논의는 재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격조사와 결합하지 못하는 명사는 소위 관형 명사라고 불리는 것들인데, 체언을 수식하며 조사와 결합하지 못한다면 이들은 관형사로 분류할 수도 있다. 그만큼 명사가 갖춰야 하는 요소로 격조사와의 결합은 문법적으로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부사성 의존명사 ‘듯, 듯이, 둥, 족족’은 문장에서 모두 부사어로 기능한다.

④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다면, ㄴ다면, ㄴ다면’의 어미 구성에서 ‘-ㄴ, -ㄴ’을 어미의 일부로 처리하는 것처럼, ‘-ㄴ듯, ㄴ듯이, ㄴ둥, ㄴ족족’을 어미로 처리하면 이들이 문장에서 부사어로 기능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5. 결론

기존의 학교문법은 규범성과 표준성 때문에 때로는 다양한 문법 현상을 한 틀에 맞추고자 작위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문법 현상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기능적 변화를 포착하여 이를 문법화의 과정으로 접근하는 논의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부사성 의존명사에 대한 논의도 다각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기왕의 부사성 의존명사의 문법 현상에 의문을 갖고, 부사격 조사와 결합하지 못하면서도 부사어로 기능하는 현상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분석해 보았다.

먼저 부사성 의존명사 중에서 특히 격조사와 결합할 수 없는 의존명사를 의존명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기존의 분류체계에 따르면 부사성 의존명사를 부사격 조사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기능하는 경우와 부사격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부사어로 기능하는 의존명사로 나누고 있다. 하지만 격조사와 결합할 수 없는 부사성 의존명사가 문장에서 부사어로 기능하는 경우 기존의 분류체계에 부합하지 못하는 모순이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부사성 의존명사라고 불리는 것들에 선행하는 ‘-(으)ㄴ’, ‘-ㄴ/는’, ‘-(으)ㄹ’을 관형사형 전성어미로만 간주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의 ‘-(으)ㄴ’, ‘-ㄴ/는’, ‘-(으)ㄹ’을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아니라 종속적 연결어미의 일부 내지는 부사형 전성어미의 일부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부사성 의존명사 중 격조사와 결합하지 못하는 ‘듯, 듯이, 둥, 족족’을 다른 표현으로 환언하여 문장에서 부사어로 기능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즉 이들이 격조사와의 결합하지 못함에도 선행요소 ‘-(으)ㄴ’, ‘-ㄴ/는’, ‘-(으)ㄹ’과 함께 문장에서 부사어로 기능함을 살폈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듯’, ‘듯이’, ‘둥’, ‘족족’을 의존명사로 처리하는 것보다 선행하는 ‘-(으)ㄴ’, ‘-ㄴ/는’, ‘-(으)ㄹ’을 합쳐서 ‘-은듯’, ‘-은듯이’, ‘-은둥’, ‘-은족족’ 등을 어미로 볼 것을 제안한다. 이들을 어미로 처리하면 문장에서 이들 구성이 부사어로 기능하는 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격조사와 결합하지 못하는 부사성 의존명사로 ‘대로’와 ‘만큼’이 있는데, 특히 이들은 격조사와 결합하는 경우와 결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 가능한데 이에 대한 논의도 추후 진행하고자 한다.

■ 참고 문헌

- 고영근·구본관,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2018.
- 구본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황선엽, 『한국어 문법 총론』, 집문당, 2015.
- 권선영, 「의존명사의 후행요소 결합 제약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민영, 「용법에 따른 유사 문법 교육 연구: ‘دت’류 문형의 항목화를 예로 들어」, 『교육문화연구』 25권 제2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9, 655-673쪽.
- , 「한국어교육을 위한 ‘دت(이)’와 ‘-دت(이)’ 연구」, 『인문학 연구』 통권 109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132-155쪽.
- 남기삼·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박이정, 2015.
- 노명희, 「‘دت’ 속담류의 구조적 특성」, 『한국어 의미학』 제45권, 한국어의미학회, 2014, 159-184쪽.
- 노종두·안효경, 「의존명사와 자립명사」, 『공주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제7집, 공주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1999, 1-17쪽.
- 다카치 토모나리, 「의존명사 ‘둥’/‘دت’ 반복 구성체의 공통점과 차이점」, 『어학연구』 제58권 제1호,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022, 91-118쪽.
- 박선희, 「부사성 의존명사 구문의 의미론적 특징에 대하여」, 『중국 조선어문』 2008년 제6호,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2008, 15-19쪽.
- 박하미, 「한국어 부사성 의존명사 구성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송복승, 「‘دت’과 ‘دت이’의 발달에 대하여」, 『배달말』 30호, 배달말학회, 2002, 69-89쪽.
- 안정아, 「근대국어학 시기 문법서에 나타난 의존성 단어들의 범주 상관성 연구 - 의존명사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71집, 우리어문학회, 2021, 637-665쪽.
- 안효경, 『현대국어의 의존명사 연구』, 역락, 2001.

- 이선웅, 「표준성, 규범성의 개념과 한국어 문법 기술」, 『한국어학』 86권, 한국어학회, 2020, 61-84쪽.
- 이숙윤, 「문법적 관용표현 속에 ‘ㄴ,은,는,르,을’과 의존명사의 결합 양상 연구」, 『한중경제문화연구』 제16권, 한중경제문화학회, 2021, 7-19쪽.
- 이은정, 「(‘는·은·을’ 체 하다, 듯 하다, 듯이)에 대하여」, 『한글』 제171호, 한글학회, 1981, 29-43쪽.
- 이호승, 「의존명사와 자립명사의 구분에 대하여」, 『개신어문연구』 제21집, 개신어문학회, 2004, 21-40쪽.
- 이회환, 「‘관형형 어미+의존명사 구문’의 어미화 연구」, 『언어과학연구』 75호, 언어과학회, 2015, 251-264쪽.
- 임동훈, 「현대국어 형식명사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 정대식, 「부사성 의존명사가 분포한 ‘하다’ 구문의 구조 연구」, 『코기토』 97호,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2, 353-384쪽.
- 정현도, 「현대국어 [부사성 의존명사 + ‘하다’] 구성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 정혜선, 「의존명사 ‘등’의 변천과 문법 기능 변화」, 『한민족어문학』 제83집, 한민족어문학회, 2019, 133-157쪽.
- 채 완, 「의존명사의 사전적 처리」, 『새국어생활』 제8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1998, 49-63쪽.
- 최대희, 「의존명사 ‘듯’의 변천과 어미화 과정」, 『영주어문』 제35집, 영주어문학회, 2017, 153-175쪽.
- , 「현대국어 어찌말 매인이름씨 연구」, 『교육과학연구』 25권 2호, 제주대 교육과학연구소, 2023, 71-85쪽.
- 최우혁, 「현대 국어 특수조사 연구: 의존명사, 접미사와의 구분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 2002.
- 최은경, 「한국어 교육을 위한 ‘듯’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제10권 제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3, 207-228쪽.
- 최현배,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1961.
- 한지수, 「한국어 의존명사의 범주성과 기능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22.

호정은, 「의존명사의 결합관계 연구-의존명사와 접미사의 구별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30권 제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2, 109-125쪽.

———, 「의존명사의 범주 연구-개념적 특성을 통한 범주 변별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36권 제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131-157쪽.

황하상, 「보조사와 주변 범주-보조사, 접미사, 의존명사를 중심으로」, 『국어학』 제73집, 국어학회, 2015, 309-334쪽.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부사성 의존명사 중에서 특히 격조사와 결합할 수 없는 의존명사를 의존명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기존의 분류체계에 따르면 부사성 의존명사를 부사격 조사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기능하는 경우와 부사격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부사어로 기능하는 의존명사로 나누고 있다. 하지만 격조사와 결합할 수 없는 부사성 의존명사가 문장에서 부사어로 기능하는 경우 기존의 분류체계에 부합하지 못하는 모순이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부사성 의존명사라고 불리는 것들에 선행하는 ‘-(으)ㄴ’, ‘-ㄴ/는’, ‘-(으)ㄹ’을 관형사형 전성어미로만 간주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의 ‘-(으)ㄴ’, ‘-ㄴ/는’, ‘-(으)ㄹ’을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아니라 종속적 연결어미 내지는 부사형 전성어미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부사성 의존명사 중 격조사와 결합하지 못하는 ‘덧, 덧붙이, 등, 족족’을 다른 표현으로 환언하여 문장에서 부사어로 기능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즉 이들이 격조사와 결합하지 못함에도 선행요소 ‘-(으)ㄴ’, ‘-ㄴ/는’, ‘-(으)ㄹ’과 함께 문장에서 부사어로 기능함을 살폈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덧, ‘덧이’, ‘등’, ‘족족’을 의존명사로 처리하는 것보다 선행하는 ‘-(으)ㄴ’, ‘-ㄴ/는’, ‘-(으)ㄹ’을 합쳐서 ‘-은덧’, ‘-은덧이’, ‘-은등’, ‘-은족족’ 등을 어미로 볼 것을 제안한다. 이들을 어미로 처리하면 문장에서 이들 구성이 부사어로 기능하는 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의존명사, 부사성 의존명사, 덧, 덧붙이, 등, 족족, 종속적 연결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 Abstract

A study on the Part-of-speech setting of Adverbial Dependent Nouns : Focusing on ‘deus, deus-i, dung, jokjok’

Ko, Ha-yeong / Mokwon University

This study questioned whether dependent nouns that can not be combined with case particle among adverbial dependent nouns can be considered dependent nouns. According to the existing classification system, adverbial dependent nouns are divided into those that function as adverbs by combining with case particles and those that function as adverbs without combining with case particles. However, there is a contradiction that does not fit the existing classification system when adverbial dependent nouns that can not be combined with case particles function as adverbs in sentences.

In previous studies, ‘-(으)ㄴ’, ‘-ㄴ/는’ and ‘-(으)ㄹ’ preceding so-called adverbial dependent nouns were considered only as adnominal suffix. However, ‘-(으)ㄴ’, ‘-ㄴ/는’ and ‘-(으)ㄹ’ in such cases can be interpreted not as adnominal suffix but as subordinate connective ending or adverbial ending. In particular, this study verified whether ‘deus, deus-i, dung, jokjok’ which are adverbial dependent nouns that can not be combined with case particles, function as adverb in sentences by rephrasing them in different ways. In other words, even though they did not combine with case particles, it was examined that they function as adverbs in sentences along with the preceding elements ‘-(으)ㄴ’, ‘-ㄴ/는’ and ‘-(으)ㄹ’. Based on this, this study suggests that rather than treating ‘ㄷ’, ‘ㄷ’, ‘둥’, and ‘족족’ as dependent nouns, it is needed to combine them with their preceding ‘-(으)ㄴ’, ‘-ㄴ/는’, and ‘-(으)ㄹ’ and consider ‘-eundeus(-은ㄷ)’ , ‘-eunseusi(은ㄷ이)’ ‘-eundung(-은둥)’ , ‘-eunjokjok(-은족족)’ as endings. This is because if they are treated as endings, it is possible to logically explain the phenomenon in which these components function as adverbs in a sentence.

Keyword • dependent noun, adverbial dependent noun, deus, deus-i, dung, jokjok, dependent connective ending, auxiliary connective ending, adverbial ending

3·1절 대통령 연설문의

어휘 사용 양상 연구

: 빅카인즈의 특성값 추출 어휘를 중심으로

조 용 림*

목 차

1. 서론
2. 연구 대상 및 방법
3. 대통령별 특성값 어휘
4. 결론

1. 서론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 69조 취임 선서를 통해 공식 발언을 시작하게 된다. 대통령은 첫 공식 발언 이후 국경일 기념사, 매년 발표되는 신년사, 연두 기자회견, 국회 연설 등을 통해 국정 목표나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3·1운동은 국권을 강탈당한 일제강점기 시기에 일어났지만, 그 정신은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정신을 잇고 정부수립에도

* 목원대학교 기초교양학부 교수.

영향을 미친 대변혁 운동이었다.¹⁾ 이렇듯 3·1운동은 국가기념일 중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이때 발표되는 대통령 연설문은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대통령 연설문 연구는 언어의 문체, 높임법 및 수사학, 정치학, 역사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됐으며, 분야별 연구와 유형별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분야별 연구에는 정치, 역사, 사회과학, 국어학 분야에서 김혁(2014)의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책의제 연구, 박준형 외(2017)의 대통령의 중심 가치 연구, 김성국 외(2020)의 대통령의 해양관 연구, 박정원 외(2020)의 대통령 규제개혁 정책 연구, 정승훈(2020)의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 연구 등이 있다.

유형별 연구에는 문체, 높임법, 수사학 등에 관한 연구, 대통령 개별 연구 및 비교 연구를 말하며, 권향원 외(2013)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비교 연구, 김병홍(2014, 2017)의 사과담화문 연구와 취임사의 언어 특성 연구, 황창호 외(2015)의 연설문의 유형과 특징 비교 연구, 조용림(2022, 2023a, 2023b, 2023c)의 대한민국 대통령의 취임사, 신년사, 국경일 연구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대통령 연설문 연구는 1986년 이후 본격적으로 연구되었으며, 그중 3·1절 연설문 연구는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일부 대통령의 언어적 상징 전략에 관한 연구(권향원 외, 2013), 3·1운동의 정신적 표상과 전유 연구(이지원, 2018), 3·1절 기념의례와 표상화 연구(최은진, 2017, 2018) 등 3·1운동의 정신 연구와 언어적 상징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1) 대한민국 국경일에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3·1절을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행정안전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paspr/223030482140>).

이 연구에서는 1949년부터 2022년까지 역대 대통령 연설문 중 3·1절 연설문 68편을 대상으로 어휘 사용 양상을 살피는 것이 목적이며, 특히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활용한 빅카인즈 특성값 어휘를 활용하여, 문장 내에서의 어휘 사용 양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의 특징은 빅카인즈 특성값 추출 어휘 양상을 살펴 계속되는 대통령 연설문 연구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지금까지의 질적 방법의 텍스트 연구는 전문가 의견, 설문 조사, 전사 처리 등의 전통적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자연어 연구 방법의 발달로 python이나 R-프로그램을 이용한 텍스트 마이닝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텍스트 마이닝 방식은 텍스트 데이터에서 정보를 추출하여 문장 단위의 의미를 분석하고 조회할 수 있는 기법이다.

이 연구에서의 텍스트 마이닝 방법으로 한국진흥재단 빅카인즈(Bigkinds) 형태소 개체명 분석에서 제공하는 특성값 어휘 추출을 활용하고자 한다. 특성값 어휘 추출은 텍스트 자료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명사 또는 명사구 추출 키워드로 특성추출에 기반해 계산된 중요도 값이며, 중요도는 텍스트 랭크(Text Rank) 알고리즘으로 자동 판단된다. 이렇게 자동 판단된 특성값 추출 어휘는 연설문 내에서 알고리즘에 의해 중요 어휘로 선택된 것이며, 중요 어휘는 문맥에서 빈도와 관계없이 높은 특성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통령 연설문의 기초 연구로써 알고리즘에 의한 특성값 추출을 활용하여 대통령 3·1절 연설문 68편의 특성값 어휘를 추출하고, 어휘와 연관된 문장을 살핍으로써 대통령 연설문의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대통령의 국정 목표와 정책 방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²⁾ 연구 대상 자료는 [표 1]과 같다.

[표 1] 3·1절 연설문자료³⁾

대통령		재임 기간	연설문 자료
1~3대	이승만	1948.07.~1960.04.	11
4대	윤보선	1960.08.~1962.03.	0
5~9대	박정희	1963.12.~1979.10.	16
10대	최규하	1979.12.~1980.08.	1
11~12대	전두환	1980.09.~1988.02.	6
13대	노태우	1988.02.~1993.02.	5
14대	김영삼	1993.02.~1998.02.	5
15대	김대중	1998.02.~2003.02.	5
16대	노무현	2003.02.~2008.02.	5
17대	이명박	2008.02.~2013.02.	5
18대	박근혜	2013.02.~2017.03.	4
19대	문재인	2017.05.~2022.05.	5
계			68

3. 대통령별 특성값 어휘

1) 이승만 대통령의 어휘 양상

[표 2] 이승만 대통령의 특성값 어휘

1대	49년	50년	51년	52년
	미국	공산당	민주정부	공산당
2대	53년	54년	55년	56년
	나라 운명	자유 권리	미국	공산당
3대	57년	58년	59년	
	소련	제국주의	일본	

2) 이 연구에서는 명사 또는 명사구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관형사, 부사, 대명사 등 의미가 모호하거나 불분명할 때는 키워드에서 삭제하였다. 그 예로 “대한민국(한국), 우리나라, 한국민족(한민족)”, “선열들(선인들, 선조들)”, “동포들(후손들)”, “기념식” 등이다. 또한 지면의 제한으로 1위 어휘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3) 3·1절 기념사는 매해 발표가 기본이었으나 1960~1963년, 1987년, 2017년은 기념사가 발표되지 않았다.

1949년 3·1절은 첫 공식 국경일로써 3.1운동 30주년을 기념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탄생은 연합국과 “미국”에 빚을 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후 연설문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남북 분단과 소련의 야심과 중국의 “공산당”화로 UN, 유럽의 자유국들이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51년에는 공산당과 중공군을 토멸시키길 기대하며, 정신과 물질적으로 준비해서 “민주주의”와 평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52년에는 독립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탄생되었으며, “공산당” 침략은 연합국의 도움으로 이기는 중이며, 세계 인류와 문명의 죄인 공산 침략자들을 중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2대 연설문에서 53년에는 미국이 세계 자유 민족들의 집단안전보장을 확립시키고, 세계의 “나라 운명”을 맡은 지도자들에게 전쟁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54년에는 휴전 이후 공산당의 위협을 우방들과 함께 막고 있으며, 한국전쟁에서 항복했다면 “자유 권리”를 잃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55년에는 공산당의 침략으로 사생(死生)에서 “미국”에 대한 기대가 크며, 56년에는 “공산당” 지도자들이 제네바에서 평화 해결을 거부하면서 평화운동을 발기한 것은 민주국가들의 의혹과 공포심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3대 연설문에서 57년에는 비폭력 무저항 혁명운동은 한국에서 시작되었으며, 미국의 우리 정부를 승인하였으나, “소련”은 이복을 점령하고 있어 미국과 함께 용기와 지혜로써 뭉치자고 하였으며, 58년에는 “제국주의”의 악행이 팽창하여 통일되기 전 우리는 자유권과 민주주의를 누릴 수 없다고 하였다. 59년에는 분열된 한반도에 공산 침략을 막고, “일본”의 야심에 주의를 당부하고 토의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11건이 발표된 1~3대 연설문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50년대의 3·1절 연설문의 특징은 전쟁과 관련한 어휘가 특성값이 높았

으며, 반공(反共),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 노력과 결속의 중요성, 일본의 팽창과 야심 경계로 요약할 수 있다. 연설문의 핵심 가치는 다음과 같다.

- ①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 :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
- ② 국제적 협력 : 미국을 포함한 자유 국가들과의 협력이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
- ③ 공산주의의 위협 경고 : 공산주의의 침략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며, 이에 대한 대비와 저항이 중요하다.
- ④ 대한민국의 역할 : 대한민국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

2) 박정희 대통령의 어휘 양상

[표 3] 박정희 대통령의 특성값 어휘

5대	64년	65년	66년	67년	67년	
	민족적 단결	스스로 창조	民族	근대화	근대화	
6대	68년	69년	70년	71년	71년	
	경제 건설	독립 자주	민족 정신	민족 정신	민족 정신	
7대	72년					
	3:1 정신					
8대	73년	74년	75년	76년	77년	78년
	民族	평화 정신	3:1 독립	민족 정신	독립운동	조국 통일
9대	79년					
	조국 통일					

5대 연설문에서 64년에는 제3공화국 수립은 3·1 독립투쟁에서 “민족적 단결”과 저력을 과시한 것이며, 공산 세력과의 투쟁, 민주주의 수호, 대일 관계 타결 등에서 주체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65년에는 3·1운동은 혁명운동이며, “스스로 창조”하는 ‘일하는 국민’으로서 3·1정신을 강조하였다. 66년에는 “民族”의 자주, 독립, 번영, 세계평화를 염원하고 있으며,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조국 근대화와 아시아 평화에 이바지하기를 바라고

있다. 67년에는 3·1운동은 조국의 “근대화” 운동과 정신면에서 일치한다고 하였다.

6대 연설문에서 68년에는 3·1정신은 민족 자립의 자각이며, 자립 “경제 건설”과 국방력이 되는 “경제 건설”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 69년에는 50주년 3·1절을 맞아 “독립 자주”의 정신으로 조국 근대화 과업과 통일 대업을 이룩하자고 하였다. 70년에는 3·1운동은 투쟁의 금자탑, 자주독립 정신, 불멸의 자랑, 되살려야 할 “민족 정신”의 본보기라고 하였다. 71년에는 3·1 독립운동은 민족 정신 선양, 민족 자랑이자 찬연히 빛날 “민족 정신”이며, 조국 근대화의 전진을 연설하였다.

7대 연설문에서 72년에는 3·1운동의 의의는 대내외 도전을 극복하고, 통일 과제의 해결에 “3·1 정신”이 기반이며, 자주, 자립정신, 민족 총화 정신의 실천을 통해 국난 극복의 역사적 전통과 위엄을 승화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8대 연설문에서 73년에는 “民族”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3·1운동이었으며, 10월 유신은 국제정세, 민족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것이며, 3·1정신을 계승하여 국난을 극복하고 통일로 승화시키자고 하였다. 74년에는 석유파동, 세계 경제 불황, 북한 공산집단의 도발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지만, 3·1운동의 “평화 정신”을 되살리고, 10월 유신은 3·1 정신의 구현이라고 하였다. 75년에는 “3·1 독립” 30주년에 한반도의 평화, 통일, 민족중흥을 위한 헌신, 자주독립, 단결의 정신을 물려 주자고 하였다. 76년에는 세계적 전쟁 위기, 북한의 휴전선 땅굴 등에 굳건히 대처하고, 3·1 정신은 평화 “민족 정신”의 표상이며, 10월 유신은 난국을 극복하고 부강한 국력으로 통일을 성취할 것이라고 하였다. 77년에는 외세의 억압에 항거, 자주독립 쟁취를 위한 기미“독립운동”은 시련을 겪고 있으며, 10월 유신으로 능률의 극대화, 국력의 조직화, 자주 자립을 위한 국력 배양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78

년에는 “조국 통일”을 하지 못한 것은 국난 극복을 못한 것이며,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 10월 유신 개혁으로 국가 안보를 철통같이 해야 한다고 하였다.

9대 연설문에서 79년에는 3·1운동의 의의, 민족의 자주, 평화, 단결의 기상 등은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발걸음이며, 10월 유신은 국력을 배양하여 “조국 통일”과 민족중흥을 향한 목표와 이상이라고 하였다.

16건이 발표된 5~9대 연설문은 민족의 자주독립, 평화와 단결, 조국 근대화, 통일과 국난 극복, 10월 유신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연설문의 핵심 가치는 다음과 같다.

- ① 민족 자주독립 :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민족의 자주독립을 강조하고, 외세에 맞서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
- ② 평화와 단결 : 한반도 평화와 민족 단결을 통해 번영을 이루고,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 ③ 조국 근대화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조국의 근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 ④ 통일과 국난 극복 :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로 평화 통일을 지향하고, 국난 극복과 민족중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⑤ 10월 유신 : 3·1정신과 연계하여 10월 유신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 안보와 민족 번영을 위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3) 최규하 대통령의 어휘 양상

[표 4] 최규하 대통령의 특성값 어휘

10대	80년
	국민적 단결

80년 연설문에서 사사로운 이해나 자기주장에만 집착하여 “국민적 단결”을 해쳐서는 안 되며, 호국정신, 안전보장, 정치, 경제 등 시련을 이겨내고, 10·26사태 후 국민 화합, 헌법 개정을 통해 민주 사회를 건설하려는 뜻

을 전하고 있다.⁴⁾

4) 전두환 대통령의 어휘 양상

[표 5] 전두환 대통령의 특성값 어휘

11~12대	80년	82년	83년
	국민적 단결	자신감	민족혼
	84년	85년	86년
	민족사	민족적 전진	기미년

81년에는 우리 민족은 이민족의 통치에 항거하여 “민족사”의 정통성을 지켜왔으며, 3·1운동은 평화, 자유를 추구한 민족운동으로 새 역사 창조를 할 때라고 밝히고 있다. 82년에는 3·1독립운동은 자주와 독립, 세계 속의 우리를 알게 되었으며, 이 세계관은 “자신감”의 표시이자 통일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83년에는 3·1운동은 자주와 독립, 저항의 투쟁이며, 그 정신은 “민족혼”의 금자탑이라고 하였다. 84년에는 3·1운동은 민족의 생존과 헌신으로 정의와 이성, 반폭력 평화 철학이며, “민족사”의 주체로서 통일과 도약의 전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하였다. 85년에는 3·1정신의 실천을 통해 “민족적 전진”의 지표로 삼아 민족자결과 주체 의식의 실천을 위해 합심과 동참을 바라고 있다. 86년에는 외세에 맞서 자주와 독립을 외쳤던 “기미년”은 민족의 자존심과 긍지를 일깨워 준 경전이며, 평화적 정권교체, 88올림픽, 민족융성의 도약, 선진조국의 새로운 세기를 바라고 있다.

6건이 발표된 11~12대 연설문은 민족 자주독립과 자긍심, 평화와 자유, 민족 통일과 발전, 새 역사 창조로 요약할 수 있으며, 연설문의 핵심 가치는 다음과 같다.

① 민족 자주독립 : 3·1운동으로 자주와 독립을 추구한 민족의 역사를 강

4) 조용림(2023a:65)에서 권력 이양을 위한 “위기관리정부” 방침을 신년사에서 밝히고 있으며, 그에 따라 취임 8개월 만에 대통령직에서 사임하였다.

- 조하며, 외세의 통치에 저항한 독립운동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민족적 자긍심 : 3·1운동이 민족 자존심과 긍지를 일깨워 주었으며, 민족혼의 금자탑으로써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역할을 하였다.
 - ③ 평화와 자유 : 3·1운동이 단순한 저항운동을 넘어 평화와 자유를 추구한 민족운동이었으며, 반폭력 평화 철학을 제시하였다.
 - ④ 민족통일과 발전 : 민족통일을 이루기 위한 자신감을 실현하고,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3·1정신을 승화시켜야 한다.
 - ⑤ 새로운 역사 창조 : 3·1운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 역사 창조와 민족적 전진을 위한 합심과 동참을 촉구하며, 선진조국의 새로운 세기를 이끌어야 한다.

5) 노태우 대통령의 어휘 양상

[표 6] 노태우 대통령의 특성값 어휘

13대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민족자존	민주주의	남북한	소련	나라 건설

88년에 독립투쟁은 “민족자존”을 세계에 선양하였으며, 새 공화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국민 화합과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였다. 89년에는 권위주의가 막을 내리고 “민주주의” 시대가 열렸으며, 3·1정신으로 성공적 올림픽을 전진시키자고 하였다. 90년에는 3·1운동의 뜻으로 경제 성장, 번영과 복지를 이룩할 것이며, “남북한” 정상회담 촉구, 왕래와 교류를 통해 희망의 연대, 화해 협력의 시대를 열자고 하였다. 91년에는 “소련” 방문으로 신탁통치 국가에서 협력 동반자가 되는 모스크바 선언을 하였으며, 광복 후 자유민주주의와 새 공화국의 민주주의 시대로 선진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92년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라는 새 “나라 건설”을 시작으로 민족자결, 공존공영, 문화창조,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3·1운동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6·29선언, 북방정책의 이상 실천,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선언이 2000년대를 영광의 세기가 되기를 다짐하고 있다.

5건이 발표된 13대 연설문은 민주주의의 발전, 민족자존과 통일, 경제 성장과 복지, 국제 협력과 평화, 문화창조와 인류 기여로 요약할 수 있으며, 연설문의 핵심 가치는 다음과 같다.

- ① 민주주의의 발전 : 권위주의 시대를 마감하고 3·1정신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시대를 전진시켜야 한다.
- ② 민족자존과 통일 : 민족자존을 세계에 알리고, 통일 준비와 전진,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 ③ 경제 성장과 복지 : 3·1운동의 불꽃을 이어받아 경제 성장, 번영과 복지, 민족 공동체를 위한 노력을 촉구해야 한다.
- ④ 국제 협력과 평화 : 역사적 전환점에서 국제 협력과 평화를 추구하며, 북방정책을 통해 새로운 이상을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⑤ 문화창조와 인류 기여 : 독창적 문화창조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하는 민족의 역할을 강조하며, 3·1운동의 정신을 통해 새 나라 건설을 이루어야 한다.

6) 김영삼 대통령의 어휘 양상

[표 7] 김영삼 대통령의 특성값 어휘

14대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기미년	나라 건설	세계화	민족 자존	21세기

93년에는 “기미년”의 자주독립 함성과 민족자존 외침으로 자주·번영과 민주 사회를 일구었으며, 신한국 창조를 위해 용기와 헌신, 정의로운 사회를 다짐하고 있다. 94년에는 임시정부의 법통과 정통성을 잇는 문민정부는 일본과의 경쟁, 미래지향적 역사 인식으로 “나라 건설”에 성숙한 민족역량을 발휘할 때라고 밝히고 있다. 95년에는 정보화, WTO 출범, 지역통합 등 “세계화” 시대에 문민정부는 변화와 개혁, 북한과 통일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96년에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는 “민족자존”과 국민 대화합의 기초이며, 변화와 개혁,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

를 준비하여 꿈을 실현할 21세기가 오고 있다고 하였다. 97년에 “21세기”는 세계화, 정보화의 무한경쟁이며, 3·1정신을 민족의 동력으로 승화시켜 세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3·1 정신으로 평화 통일의 길에 합류해야 한다고 하였다.

5건이 발표된 14대 연설문은 자주독립과 민족자존, 민주적 사회 발전, 세계화와 경쟁력 강화, 평화 통일과 협력, 문화와 번영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연설문의 핵심 가치는 다음과 같다.

- ① 자주독립과 민족자존 : 3·1운동의 자주독립 정신으로 민족자존을 강조하며,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국민 대화합을 이루어야 한다.
- ② 민주적 사회 발전 : 문민정부는 민주적 사회를 구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
- ③ 세계화와 경쟁력 강화 : 세계화 시대에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여 21세기의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 ④ 평화 통일과 협력 : 평화 통일을 위해 3·1정신을 바탕으로 대동단결을 촉구하며, 일본과의 협력과 경쟁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 ⑤ 문화와 번영 : 자주와 번영, 문화적 발전을 이루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7) 김대중 대통령의 어휘 양상

[표 8] 김대중 대통령의 특성값 어휘

15대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공무원	중소기업	중국	21세기	세계 평화

98년에 “공무원”은 정부 기구 축소, 인원 감축, 봉급 동결 등으로 고통 받고 있지만, 국민의 신뢰와 성원을 얻기 위해서는 애국심, 성실성이 필요하며, 지금은 3·1운동 정신 계승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시대라고 하였다. 99년에는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과 벤처

기업, 정보산업, 문화, 관광사업 육성과 서민 정책을 추진하고, 1년 만의 외환위기 극복, 북한 무력도발 저지를 위한 햇볕정책이 최선이라고 하였다. 00년에 3·1운동은 국내, 시베리아, 만주, “중국”에서의 무장투쟁, 햇볕정책의 세계적 지지, 헌법의 3·1정신은 민족 번영,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5대 과업(민주국가 완성, 지식정보국가 건설, 생산적 복지 실현, 국민적 대화합, 한반도 냉전 종식)을 실현하여 새천년을 일류국가로 만들겠다고 다짐하였다. 01년에 “21세기”는 민족적 저력을 발휘하여 국난을 극복하고, 세계 일류경제의 길은 정보산업, 생명산업을 발전시켜 지식정보화를 통해 부가가치와 효율성을 높이고, 민주 인권국으로서 지역주의와 집단이기주의를 이겨내고,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하였다. 02년에 “세계 평화”를 위한 월드컵 성공은 세계평화와 안정, 경제 발전과 국가 이미지 향상이 될 것이며, 개혁, 경제 상승, 정보통신산업, 생명산업, 문화콘텐츠, 환경산업, 극미세 나노 산업, 우주항공산업 등을 발전시켜 지식기반경제를 이루자고 하였다.

5건이 발표된 15대 연설문은 민족적 저력과 애국심, 민주주의와 국민 대화합, 경제 발전과 첨단 산업, 세계화와 개혁, 평화와 안정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연설문의 핵심 가치는 다음과 같다.

- ① 민족적 저력과 애국심 :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경제 위기와 금융 위기를 극복하고, 공무원들에게 애국심과 성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민주주의와 국민적 대화합 :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에 지역주의와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 ③ 경제 발전과 첨단 산업 :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정보산업, 문화, 관광사업을 육성하고, 정보통신산업, 생명산업, 나노 산업, 우주항공산업 등의 첨단 산업을 발전시켜 지식기반 경제를 이루어야 한다.
- ④ 세계화와 개혁 : 세계 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경제 경쟁력을 상승

시키고,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 ⑤ 평화와 안정 : 월드컵 대회 성공을 통해 세계평화와 안정, 경제 발전과 국가 이미지 향상을 이루어야 한다.

8) 노무현 대통령의 어휘 양상

[표 9] 노무현 대통령의 특성값 어휘

16대	03년 동북아 시대	04년 한국 역사	05년 일본 국민	06년 과거사	07년 세계 역사

03년 연설에서 지금 세계사의 흐름은 EU, 북미와 함께 “동북아 시대”이며,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인력과 자원, 일본의 기술을 접목하는 지정학적 이점으로 물류와 정보화 기반과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3·1정신의 도전, 4·19혁명,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거쳐 민주주의와 인권을 쟁취해 국민이 주인으로, 지역이 발전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하였다. 04년에서 3·1운동은 사회적 신분, 종교와 관계없이 “한국 역사”에서 국민이 하나가 됐던 유일한 일이며, 일본의 과거사 문제, 동북아시아 미래 문제에 냉정히 대응하여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하였다. 05년에는 납치 문제로 “일본 국민”이 분노하지만 강제징용,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우리의 분노도 이해해야 하며, 한일 국교 40주년에 미해결 과거 문제는 95년의 무라야마 반성과 사죄, 98년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2003년의 노무현·고이즈미 공동성명으로 한일 청구권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06년에는 한·일이 “과거사”를 견어내고 화해와 협력을 강조했으며, 잘못된 역사 인식과 감정을 정리해야 미래를 기약할 수 있으며, 일본의 신사참배, 역사 교과서 왜곡, 독도 문제 등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였다. 07년에 “세계 역사”는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가 보편적 가치인데, 대한민국은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으며, 65년 한일 협정에서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청구권자금

지급 지원방안, 친일반민족행위 등 역사의 정통성을 바로 세워 동북아시아의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는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하였다.

5건이 발표된 16대 연설문은 민족자존과 역사 바로 세우기, 민주주의와 인권,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경제 발전과 균형 발전, 국제 협력과 역할로 요약할 수 있으며, 연설문의 핵심 가치는 다음과 같다.

- ① 민족자존과 역사 바로 세우기 : 일본의 잘못된 역사 문제를 바로잡아 미래를 대비하고, 과거사 청산을 통해 자주성과 민족자존을 지키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해야 한다.
- ② 민주주의와 인권 : 3·1운동을 시작으로 4·19 혁명,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을 통해 쟁취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며,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세계에 선양해야 한다.
- ③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 한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주변국과 협력하여 지정학적 이점을 살려야 한다.
- ④ 경제 발전과 균형 발전 : 경제 성장을 통해 민족적 저력을 발휘하고,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 ⑤ 국제 협력과 역할 :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당당한 역할을 하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9) 이명박 대통령의 어휘 양상

[표 10] 이명박 대통령의 특성값 어휘

17대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민족주의	독립유공자	세계 평화	세계 평화	세계 평화

08년 연설문에서 편협한 “민족주의”가 아닌 국제 사회와 교류, 남북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며, 이것이 3·1정신의 민족자주와 자존을 실현하는 길이며, 선열들이 꿈꾸던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선진 일류국가를 위해 새 정부는 3·1정신을 지표로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하였다. 09년

에는 임시정부 수립 90주년에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행사 등 국가의 무한책임 의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도쿄 2·8 독립선언,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90주년, 광주학생의거 80주년,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밝히고 있다. 10년에는 우리는 일제 강압에 굴하지 않고, 조선의 자주독립과 “세계평화”, 인류 행복을 선포했으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해 자유와 번영의 길을 걸어왔으며, 젊은이들은 세계 최고에 도전하면서 미래의 희망이자 주인공임을 확신하였다. 11년에 대한민국은 선조들이 꿈꾸던 나라, “세계 평화”와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나라, G20을 선도하는 나라, 세계 제일을 겨루는 세대라고 하면서 독립과 자존의 완성은 평화 통일이며, 젊은이들은 세계 최고에 도전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 성숙한 세계시민이며, 선진일류국가를 확신하고 있다. 12년에 G20 서울 개최, “세계 평화” 안전을 위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등 지구촌 경제와 안보를 선도하는 일원이 되었으며, 한류로 인해 세계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학습 열기가 뜨겁다고 하였다.

5건이 발표된 17대 연설문은 열린 민족주의와 국제 협력, 세계평화와 번영, 선진 일류국가 건설, 독립정신의 기념과 자주독립, 청년과 미래, 한류와 문화적 영향력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연설문의 핵심 가치는 다음과 같다.

- ① 열린 민족주의와 국제 협력 : 편협한 민족주의를 벗어나 국제 사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강조하며, 남북문제도 국제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
- ② 세계평화와 번영 : 대한민국이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나라로 성장하고 있으며, G20 이슈를 선도하고,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와 같은 국제적 행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③ 선진 일류국가 건설 : 3·1정신을 바탕으로 부강한 나라, 선진 일류국

- 가를 목표로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하며,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에 도전하고 있다.
- ④ 역사적 기념과 자주독립 :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 등 독립 관련 행사를 기념하며, 민족의 자주독립과 자존을 재확인하고 있다.
 - ⑤ 청년과 미래 : 젊은이들의 세계 도전은 미래를 이끌 주역이며, 스포츠, 문화예술,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청년들의 활기찬 기상을 강조하였다.
 - ⑥ 한류와 문화적 영향력 : K팝, 영화, 드라마 등의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려는 열기가 뜨겁다.

10) 박근혜 대통령의 어휘 양상

[표 11] 박근혜 대통령의 특성값 어휘

18대	13년	14년	15년	16년
	행복한 국민	대한민국역사	미래 대한민국	세계 경제

13년 연설문에서 대한민국의 대내외 위기 극복, “행복한 국민”, 지구촌 행복 시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여 남북 관계 정상화, 한반도 행복 시대를 추구하였다. 14년에 3·1정신은 임시정부의 법통과 헌법정신으로 계승되어 “대한민국 역사” 원천이 되었으며, 통일 한반도는 3·1운동 정신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15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고, 일본의 교과서 왜곡은 상처를 주는 것이며, 평화 통일은 광복의 완성이며, 민족의 번영을 위해 비즈니스 외교를 펼쳐 “미래 대한민국”으로 가자고 하였다. 16년에는 한반도 평화 통일은 3·1정신 구현이며, 북한 핵실험 도발은 대한민국 평화에 도전이며, “세계 경제” 침체에 대응하고, 국제 사회의 단합된 의지와 경제 체질을 개혁해야 한다고 하였다.

4건이 발표된 18대 연설문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역사적 정의, 경제 개혁과 미래 번영, 3·1운동 정신의 계승, 행복한 국민과 한반도로 요약할 수 있으며, 연설문의 핵심 가치는 다음과 같다.

- 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남북 관계 정상화와 평화 통일을 이루고,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 하고,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 ② 역사적 정의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 문제 해결과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한 비판을 통해 역사적 정의를 추구하였다.
- ③ 경제 개혁과 미래 번영 : 경제 개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미래를 희망의 새 길로 나아가야 한다.
- ④ 3·1운동 정신의 계승 : 3·1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정 신과 번영을 이룩했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고자 하였다.
- ⑤ 행복한 국민과 한반도 : 국민의 행복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 고, 지구촌 행복 시대를 열어가겠다.

11) 문재인 대통령의 어휘 양상

[표 12] 문재인 대통령의 특성값 어휘

19대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대한민국 역사	평화의 한반도	코로나19	독립운동	세계 문화

18년 연설문에서 많은 독립 의사들의 투쟁은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들이며, 정부는 촛불이 밝힌 국민주권을 지킬 것이며, 3·1운동의 정신과 독 립운동가들의 삶을 “대한민국 역사”의 주류로 세우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일본이 독도를 부정하는 것은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 라고 하였다. 19년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인류의 평화와 자유로운 나 라를 향해 식민지와 전쟁, 가난과 독재를 극복하고 기적의 경제 성장,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촛불혁명을 통해 모 두의 민주공화국을 만들어 “평화의 한반도” 도전을 시작했으며, 남북경제

공동위원회 구성으로 동북아의 평화·안보 질서로 확장될 것이라고 하였다. 20년에 만세운동으로 독립운동가들이 체포·구금되었지만, 거래의 기상은 꺾이지 않았으며, 독립군의 무장 항일운동 승리를 기억한다고 하였다. 전쟁의 폐허 극복, 무상원조와 차관 경제에서 첨단제조업과 정보통신산업 강국으로 섰으며, “코로나19”를 이겨내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하였다. 21년에는 3·1 “독립운동”에서 학생들이 선두에 섰으며, 국민은 100년 동안 국난에 맞서는 국민의 헌신과 저력은 한결같으며, 코로나19에 굴복하지 않고 방역의 주체가 되었으며, 3·1 독립선언서는 일본의 과거 잘못을 바로잡고 우호적 관계를 제안했으며, 도쿄올림픽은 한일, 남북, 북일 간 대화의 기회라고 하였다. 22년에는 3·1정신과 임정의 역사, 자주독립과 민주공화국의 자부심을 기릴 수 있게 되었으며, 정부는 선열들에게 명예를 드리기 위해 마지막까지 한 분까지 독립 영웅을 알릴 것이라고 하였고,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섰고, 시민의식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여 부강한 나라, 세계가 공인하는 선진국, 수준 높은 문화의 나라가 되었으며, “세계 문화”에 이바지할 기회라고 하였다.

5건이 발표된 19대 연설문은 역사적 정의와 자부심, 국민 통합과 자주독립 정신, 경제적 자립과 세계적 위상, 한반도의 평화 통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연설문의 핵심 가치는 다음과 같다.

- ① 역사적 정의와 자부심 : 독립운동가들의 투쟁과 희생으로 3·1 정신을 역사의 주류가 되었으며, 일본의 역사 왜곡 비판과 독립유공자 포상을 통해 역사적 정의를 추구하였다.
- ② 국민 통합과 자주독립 정신 : 3·1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주권의 나라를 지키고, 촛불혁명과 같은 민주항쟁을 통해 모두의 민주공화국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강조하였다.
- ③ 경제적 자립과 세계적 위상 : 소·부·장의 경제적 독립을 강조하고, 대

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첨단제조업, 정보통신산업 강국으로 도약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을 통해 경제 회복과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 세계평화와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④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 관계 정상화와 북한의 도발 중지를 촉구하였으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 질서를 확장하겠다고 하였다.

4. 결론

이 연구에서는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3·1절 연설문을 빅카인즈의 특성값 추출 어휘를 통해 연설문 내에서의 어휘 사용 양상을 제시하였다. 특히 자동 알고리즘 방식으로 텍스트 내에서 핵심 명사 및 명사구를 추출하였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도록 한다.

[표 13] 대통령별 특성값 어휘

대통령		특성값 어휘
1~3대	이승만	미국, 공산당, 민주정부, 공산당
		나라 운명, 자유 권리, 미국, 공산당
		소련, 제국주의, 일본
4대	윤보선	없음
5~9대	박정희	민족적 단결, 스스로 창조, 민족, 근대화
		경제 건설, 독립 자주, 민족 정신, 민족 정신
		3·1 정신
		민족, 평화 정신, 3·1 독립, 민족 정신, 독립운동, 조국
		통일, 조국 통일
10대	최규하	국민적 단결
11~12대	전두환	민족사
		자신감, 민족혼, 민족사, 민족적 전진, 기미년
13대	노태우	민족자존, 민주주의, 남북한, 소련, 나라 건설
14대	김영삼	기미년, 나라 건설, 세계화, 민족 자존, 21세기

15대	김대중	공무원, 중소기업, 중국, 21세기, 세계 평화
16대	노무현	동북아 시대, 한국 역사, 일본 국민, 과거사, 세계 역사
17대	이명박	민족주의, 독립유공자, 세계 평화, 세계 평화, 세계 평화
18대	박근혜	행복한 국민, 대한민국 역사, 미래 대한민국, 세계 경제
19대	문재인	대한민국 역사, 평화의 한반도, 코로나19, 독립운동, 세계 문화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며, 민족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설문에서는 공통적으로 외세의 압박에 대응하고, 국민의 단결과 협력을 통해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각 대통령은 자유와 인권,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했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힘썼다. 또한,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공통적인 목표는 한국 현대사의 다양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지속해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역대 대통령들의 정책과 이념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차별화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초기 국가 형성기에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중심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내며, 미국과의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였다. 반면, 박정희 대통령은 3·1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개발과 근대화를 주도하며, 국가주의적 성향을 강화하였다. 그의 재임 기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되어 한국의 산업화가 가속화되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민족적 자긍심과 평화, 자유를 강조하며, 3·1운동의 정신을 활용하여 자신의 정권을 정당화하려 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권위주의 시대의 종식을 선언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목표로 하였으며,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을 중시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정부를 통해 국민 대화합과 민주적 사회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과 첨단 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민주주의와 국민적 대화합을 추구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적 정의와 인권을 강조하며, 과거사 청산과 동북아시아의 평화 및 번영을 위한 국제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열린 민족주의와 국제 협력을 강조하며, 글로벌화 시대에 맞춘 정책을 추진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며 역사적 정의를 강조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 통일과 경제적 자립을 강조하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처럼 각 대통령은 각각의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며, 민족 자주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차이점은 한국 현대사가 직면한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각 대통령의 정책은 그들 각자의 이념과 정치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지만, 궁극적으로는 민족의 번영과 국가의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빅카인즈의 자동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대통령 3·1절 연설문의 특성값 추출 어휘를 제시하고, 연설문 내에서 어휘 사용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대통령 연설문 8,000여 편 중 3·1절 연설문 68편을 통해 시대 상황에 따른 어휘 양상과 문장 내에서의 관련 내용을 볼 수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대통령별 연구, 다른 연설문과의 상호 비교 연구 등이 계속되어 대통령 연설문 연구의 폭과 깊이가 더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권향원·최도림, 「대통령의 언어적 상징 전략에 대한 연구」, 『정부학연구』 19권 3호,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2013, 285-320쪽.
- 김병홍, 「대통령 사과담화문의 언어 전략 분석」, 『우리말연구』 38집, 우리말학회, 2014, 123-151쪽.
- 김재희, 「대통령 연설문에 나타난 사회언어학적 의미 연구」, 『텍스트 언어학』 44권,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18, 1-33쪽.
- 김혁,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책의제설정양태에 대한 연구」, 『한국정치 연구』 23권 2호,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77-102쪽.
- 박준형·유호산·김태영·한희정·오효정, 「대통령 연설기록 내용분석을 통한 역대 대통령의 중심가치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권 2호, 한국기록관리학회, 2017, 57-78쪽.
- 서중석, 『한국현대사 60년』, 역사비평사, 2007.
- 이지원, 「역대 한국 정부의 3·1절 기념사를 통해 본 3·1운동의 표상과 자유」, 『서울과역사』 99권, 서울역사편찬원, 2018, 243-281쪽.
- 조용림, 「대한민국 대통령의 취임사 연구」, 『지식과교양』 9호, 목원대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022, 351-379쪽.
- , 「대통령의 국경일에 나타난 어휘 사용 양상」, 『지식과교양』 13호, 목원대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023b, 99-129쪽.
- , 「역대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문 어휘 양상 연구」, 『문화와융합』 45권 12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3c, 1584-1598쪽.
- ,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대통령의 연설문 연구」, 『대학교양 교육연구』 8권 1호, 배재대 주시경교양교육연구소, 2023a, 55-86쪽.
- 조원형, 「대통령의 과거사 관련 연설에 대한 텍스트언어학적 분석」, 『수사학』 29호, 한국수사학회, 2017, 217-245쪽.
- 최은진, 「대한민국 정부의 3·1절 기념의례와 3·1운동 표상화(1949~1987)」, 『사학연구』 128호, 한국사학회, 2017, 431-485쪽.
- , 「대한민국 정부의 3·1절 기념의례와 3·1운동 표상화(1988~2017)」, 『사학연구』 131호, 한국사학회, 2018, 367-411쪽.

황창호·이혁우·임동완, 「역대 대통령의 연설문의 유형과 특징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29권 4호, 한국공공관리학회, 2015, 27-50쪽.

Aggarwal, C. C. & Zhai, C., *Mining text data*, Springer, 2012, pp.163-222.

Chen, Y. T. & Chen, M. C., “Using chi-square statistics to measure similarities for text categorization”,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vol. 38, no. 4, Elsevier, 2011, pp.3085-3090.

Hu, X. & Liu, H., “Text analytics in social media”, *Mining text data*, Springer, 2012, pp.385-414.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https://pa.go.kr>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BIG KINDS)-형태소개체명 분석, <https://www.bigkinds.or.kr/v2/analysis/featureExtraction.do>

■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3·1절 연설문을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특성값 어휘를 추출하고 문장 내에서의 어휘 사용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대통령별 주요 핵심 가치는 다음과 같다.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과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중심으로 공산주의 위협에 대한 경고와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민족 자주 독립과 경제 발전, 평화 통일을 주요 가치로 삼아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고자 한다. 최규하 대통령은 국민적 단결과 헌법 개정을 통한 민주 사회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전두환 대통령은 민족 자주 독립과 자긍심, 평화와 발전을 중심으로 한다. 노태우 대통령은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 경제 성장, 국제 협력을 강조하며, 김영삼 대통령은 자주 독립과 세계화, 민주적 사회 발전을 주요 가치로 삼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족적 저력과 경제 발전, 민주주의를, 노무현 대통령은 민족 자존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명박 대통령은 열린 민족주의와 국제 협력, 선진국 건설을,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역사적 정의, 경제 개혁을,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적 정의와 자부심, 국민 통합과 경제적 자립,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강조하였다. 각 대통령의 연설문은 3·1운동 정신을 계승하며 당면한 시대적 과제와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대통령, 연설문, 3·1절, 빅카인즈, 특성값 어휘

■ Abstract

Study on the Vocabulary Usage Patterns in South Korean Presidential Speeches on March 1st

Joe Yonglim / Mokw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tract characteristic vocabulary using text mining and to examine the patterns of vocabulary use within the sentences of speeches of the presid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3·1 Independence Movement. The core values of each president's speech are as follows. President Syngman Rhee emphasized the threat of communism and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defending anti-communism and democracy. President Park Chung-hee aimed to inherit the spirit of the 3·1 Movement, focusing on national self-reliance, economic development, and peaceful unification. President Chun Doo-hwan focused on national self-reliance, pride, peace, and development. President Roh Tae-woo emphasized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unification, economic growth,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President Kim Young-sam valued national self-reliance, glob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a democratic society. President Kim Dae-jung emphasized the nation's potential,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cy. President Roh Moo-hyun emphasized national self-esteem and the peace and prosperity of Northeast Asia. President Lee Myung-bak emphasized open nationalism,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an advanced country. President Park Geun-hye emphasized peace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historical justice, and economic reform. President Moon Jae-in emphasized historical justice and pride, national integration and economic self-reliance, and peace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Keyword • President, Speech, 3·1 Movement, March 1st, BigKinds,
Characteristic Vocabulary**

■ 논문투고일:2025.01.22. ■ 심사완료일:2025.02.25. ■ 게재확정일:2025.03.10. ■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적응 지원 방안 : 사례연구를 통한 통찰*

우 소 희 · 이 창 섭 · 서 승 범**

목 차

1. 서론
2. 유학생 현황 및 관련 이슈
3. 사례분석
4. 결론

1. 서론

우리나라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및 등록금 동결 등의 내부적 문제 해결과 국제경쟁력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학생 수는 200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1) 2) 3)} 특히, 2004년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인

* 이 논문은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을 받음.

** 우소희(제1저자) 충북대학교 부교수

이창섭(공동저자) 세종대학교 교수

서승범(교신저자) 연세대학교 부교수

1) 이보경·유광수·장수철, 「국제화 시대에서 외국유학생을 위한 대학 교양교육과정 연구」, 『교양교육연구』 7권 2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3, 221-248쪽.

2) 김화경, 「국내 대학 교육의 국제화와 외국인 유학생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 운영 방안 연구」, 『시민인문학』 36권, 인문학연구소, 2019, 141-170쪽.

3) 이길연,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방안 연구」, 『아시아연구』 25권 1호, 한국

Study in Korea Project를 통해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규모를 크게 확대하였다.⁴⁾ 이 정책으로 인해 2003년 대비 2004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111% 늘었으며, 2000년대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였다.⁵⁾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10년 국내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8만 명을 초과하였으며 2023년에는 총 181,842명으로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는 국내외 학생 간의 다양한 문화 접촉 및 언어 노출을 통해 국내 대학의 국제적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 수의 증가는 국내 대학이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문제는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환경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 중도 포기이다.⁶⁾ 현재,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이탈률은 약 30%에 이르렀으며, 외국인 유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중도탈락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탈락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강의 수강의 어려움과 한국 문화 부적응이 지목되고 있다.^{7) 8) 9)}

아시아학회, 2022, 375-396쪽.

- 4) 박소연, 「재한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국내 학술지 중심으로」, 『상담과 연구』 1권 2호, 단국대학교 상담학연구소, 2018, 13-28쪽.
- 5) 주동범·김향화, 「국내 외국인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비교교육연구』 23권 1호, 한국비교교육학회, 2013, 123-145쪽.
- 6) 전재은,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에 대한 대학기관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글로벌교육연구』 8권 3호, 글로벌교육연구학회, 2016, 29-51쪽.
- 7) 박소진, 「한국대학과 중국인 유학생의 동상이몽: 서울과 지방 소재 사립대학 비교」, 『한국문화인류학』 46권 1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13, 191-234쪽.
- 8) 임희진 외, 「캠퍼스 국제화에 대한 국내 한국학생들의 인식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6권 1호, 교육연구소, 2015, 243-270쪽.
- 9) 민혜영·세린즈·박지훈, 「대학 국제화의 진통: 한국 대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간 소통 부재 및 갈등 관계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연구』 27권 1호,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19, 5-32쪽.

문정현(2020)은 외국인 유학생의 이탈률 증가는 한국어 능력 부족뿐만 아니라 한국 배경 지식의 결여와 함께, 양적으로 증가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¹⁰⁾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은 개설되고 있으나, 학업 적응에 필요한 지식이나 문화 이해를 위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2020년 대학 알리미에 따르면 약 22%의 외국인 유학생만이 TOPIK 4급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어로 진행되는 대부분의 수업을 이해하기 어려워 대학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¹¹⁾ 이에, 각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 한국어 관련 수업 및 교양 과목을 개설하고 있지만, 전공 및 교양 수업을 충분히 이수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을 위한 대학에서 고려해야 할 방안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지방 사립대인 A대학 B학과의 경우 100% 영어 강의로 진행되어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부적응 문제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또한, 해당 학과는 유학생의 이탈률 및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비교과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보 공유, 학습 능력 제고, 문화 교류라는 세 가지 분류의 비교과 과정을 설립·운영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이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본 연구는 A대학 B학과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특성화된 프로그램 및 행정체계를 통해 유학생 적응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외국인 유학생 적응 프로그램 도입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10) 문정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문화 교양교과목 구성과 실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권 2호, 한국콘텐츠학회, 2020, 658-666쪽.

11) 대학알리미, <https://academyinfo.go.kr/index.do>, 2024.01.21.

2. 유학생 현황 및 관련 이슈

1) 유학생 현황

2000년대 정부의 국제화 정책 시행 이후, 외국인 유학생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2000년에는 총 3,98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었다. 이후 유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160,165명에 달했으며, 2020년에는 153,695명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는 정부 정책과 국내 대학의 유학생 유치 노력의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 표 1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이다.

[표 1]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연도	유학생 수			전기 대비 당기 증감율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총계	
2000	3,980	0	3,980	16.4%
2001	4,690	0	4,690	17.8%
2002	5,776	0	5,776	23.2%
2003	7,962	0	7,962	37.8%
2004	11,121	5,711	16,832	111.4%
2005	15,577	6,949	22,526	33.8%
2006	22,624	9,933	32,557	44.5%
2007	32,056	17,214	49,270	51.3%
2008	40,585	23,367	63,952	29.8%
2009	50,591	25,259	75,850	18.6%
2010	60,000	23,842	83,842	10.5%
2011	63,653	25,884	89,537	6.8%
2012	60,589	26,289	86,878	-3.0%
2013	56,715	29,208	85,923	-1.1%
2014	53,636	31,255	84,891	-1.2%
2015	55,739	35,593	91,332	7.6%
2016	63,104	41,158	104,262	14.2%

2017	72,032	51,826	123,858	18.8%
2018	86,036	56,169	142,205	14.8%
2019	100,215	59,950	160,165	12.6%
2020	113,003	40,692	153,695	-4.0%
2021	120,018	32,263	152,281	-0.9%
2022	124,803	42,089	166,892	9.6%
2023	129,240	52,602	181,842	9.0%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¹²⁾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출신국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총 유학생 153,695명 중 중국 유학생은 43.6%, 베트남은 24.9%, 우즈베키스탄은 5.9%, 몽골은 4.5%를 차지했다. 특히, 2017년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비중은 각각 11.8%와 2.2%였으나, 2년 만에 두 국가의 유학생 수가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유학생은 여전히 전체 유학생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유학생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유학생 수 증가와 출신국의 다양성은 대학의 국제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인 학생들은 유학을 가지 않고도 국내 대학에서 다양한 국가의 유학생과 함께 소통하며 타문화를 경험할 기회를 통해 글로벌 사고를 함양할 수 있다.

2) 유학생 관련 이슈

국내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와 문화권 다양성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실력 부족으로 인한 높은 유학생 이탈률이다. 대부분의 국내 대학은 외국인 입학 기준이 비교적 높지 않아,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은 학생들이 입학하는 경우가 많다. 2015년까지 4년제 대학의 경우, 입

1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 2024.10.26.

학 시 요구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기준은 3급 이상이었으나, 2016년 초 해당 기준이 2급으로 낮아지면서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외국인 학생들의 지원이 증가하였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능력 충족 비율 30% 이상을 인증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2017년 국정 감사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대학 및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중 언어능력을 충족한 비율은 전체 평균 38.7%로 인증 기준을 초과하였다. 그러나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 대학별로 차이가 커서 외국인 유학생 언어능력 충족 비율이 30% 미만이거나, 언어능력을 충족한 학생이 전혀 없는 대학이 전체 대학의 45.6%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어 실력의 부족은 유학생의 학업 성취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대학 알리미에 의하면 외국인 유학생의 2020년 평균 중도탈락률은 약 11.7%이며, 전라남도의 한 대학은 66.7%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 탈락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한국어 실력 부족으로 인한 한국 생활의 부적응을 가장 큰 이유로 보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서툰 한국어 실력은 유학생의 학업 성취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한국인 학생과 함께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해야 하는 경우, 한국인 학생의 학업 성취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 한국인 학생의 불만 수준도 높은 편이라,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 유학생을 배제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해, 대학 생활 동안 한국 학생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간의 교류를 통해 국제화를 꾀하려 했지만, 언어소통의 장벽으로 인해 국제화 교류에 큰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 문제는 문화적 차이이다.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소통의 어려움을 겪으며, 함께 수업을 듣는 학생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문화권 학생의 무딘 시간 개념, 유학생의 비윤리적 행위, 여성 비하 등의 문

제가 보고되었다. 실제로, 유학생과의 갈등을 겪은 한국인 학생의 경우, 유학생 출신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2000년대 초반,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대다수는 우리나라와 동양권 정서를 공유하는 중국 유학생이었다. 이로 인해 한국인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간의 갈등 문제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의 유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내 대학은 익숙하지 않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외국인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 간 융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된다.

[표 2] 2017년 외국인 유학생 언어능력 충족비율 대학별 현황

구 분	대학 수	비 율
0%	49	19.8
30% 미만	56	25.8
30%~50% 미만	56	25.9
50~75% 미만	41	18.9
75~100% 미만	11	5.1
100% 이상	10	4.6

3. 사례분석

1) A대학 B학과 사례

(1) 현황

최근, 10년여 간 우리나라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국내 대학과 정부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과 교육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지도할 만한 체계적 교육 시스템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탈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선행연구와 학교 정책은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대학 부적응의 주요 요인을 한국어 능

력 부족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국내 대부분 대학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지식 기반의 한국어 교육 등 교양 교육의 발전에 힘쓰고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 한국어 능력 시험 통과 기준을 높게 설정하여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한국어 능력의 향상은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력을 높이고 이탈률을 낮추는 데 중요한 요인이다. 한국어 교양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 장벽을 낮춘 후, 성공적인 유학생의 학업 성취 및 적응을 위해 다음 단계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A대학의 B학과는 한국어 어학당을 통해 모든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어 기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타 대학과는 다르게, A대학의 B학과에서는 100% 영어 수업 및 영어 행정 체제를 갖추으로써, 외국인 유학생들이 느끼는 언어적 불편함은 타 대학 대비 상당히 낮은 편이다. 표 3은 A대학 B학과의 외국인 유학생 수와 출신 국가를 나타낸 표이다. 2015년도 외국인 유학생 출신국은 중국뿐이었으나, 2017년 이후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등으로 증가하였다.

[표 3] A대학 B학과의 외국인 유학생 수와 출신 국가

구 분	외국인 수	출신국
2015	3	중국
2016	14	중국, 방글라데시
2017	36	중국,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2018	84	
2019	33	

(2) 문제점

한국 학생보다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언어적 문제보다는 한국인과 외국인 유학생들 간의 문화교류 실패로 인한 부적응 문제가 더욱 부각되었다. 남부현 외(2014)의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유학

생활 동안 자신의 표현을 자제하며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¹³⁾

A대학 B학과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각자의 개성을 표출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발언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문화적 차이로 인한 한국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간의 갈등이 강하게 표출되는 경우가 잦아졌다. 예를 들어, 다수의 한국 학생과 소수의 중국인 유학생으로 운영되던 학과 초반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수동적인 자세로 인해 한국문화에 잘 적응하고 한국 학생들과 원활히 어울렸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 수가 한국인 학생 수보다 많아짐에 따라 두 그룹 간 문화 차이로 인한 감정싸움이 크게 부각되었다.

김오숙(2015)의 연구에서는, 한국인 학생과 중국인 유학생과의 문화적 이질감은 높지 않은 편이라 두 그룹 간 갈등은 크지 않았으나, 우즈베키스탄과 파키스탄 등의 이슬람 국가 유학생 수가 급증한 학기에는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 간 갈등이 크게 발생하였음을 보고하였다.¹⁴⁾

A대학 B학과 설립 초반에는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 학생 간 문화적 충돌이 거의 없었기에 멘토링 프로그램 등의 언어교환 프로그램만 실행하였다. 이후, 이슬람 국가 유학생이 다수가 됨에 따라 한국 및 아시아권 학생과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A대학은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2) 비교과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비교과 프로그램은 대학생이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정규 강의 시간 외에 수행하는 학생의 심리·사회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교

13) 남부현·김옥남·남기석, 「외국인 유학생 생활경험 속에 투영된 한국인과 한국문화」, 『사회과학연구』 25권 1호, 사회과학연구소, 2014, 105-126쪽.

14) 김오숙, 「국내외국인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예측모형검증」, 『다문화교육연구』 8권 3호, 한국다문화교육학회, 2015, 109-131쪽.

육적·사회적 활동으로 정의된다.¹⁵⁾ 대학은 비교과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공 및 교양 수업에서 충족할 수 없는 다양성과 교육적·사회적 활동을 제공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성공적인 유학 생활과 국내 대학의 국제화를 위해, 교육 시수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적인 교육과 활동의 제공은 필수적이다.

A대학 B학과에서는 유학생 지도와 상담을 통해 부적응 문제의 원인을 한국 사회 적응, 학습능력 부족, 문화적 차이로 파악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간의 쌍방향 문화교류 및 이해를 촉진하는 비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표 4는 A대학 B학과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했던 비교과 프로그램을 요약한 것이다.

[표 4] 외국인 유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한국적응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문화체험, 성교육, 한국어 교육, 외국인 심리상담 프로그램
학습능력제고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전담 교수 상담 프로그램, 심리상담 프로그램, 경진대회, 동아리 활동
문화교류	한국 학생과 외국인 학생 간 멘토링 프로그램, 다문화 페스티벌, 음식체험프로그램

A대학 B학과의 비교과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세부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오리엔테이션 개최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 입학 시 외국인 유학생만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수강신청 방법, 행정부서 소개, 학사 일정 등 대학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한 다음, 여러 국가

15) 김지혜, 「외국인 유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방안 연구」, 『교양교육연구』 11권 2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537-562쪽.

의 외국인 학생 간 서로를 소개하고 인사 나누는 시간을 제공한다. 학기 중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학과 차원에서 전통문화 체험 및 역사적 장소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 국내 대학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다.

(2) 성교육 프로그램 제공

최근, 중국과 같은 아시아권 국가뿐만 아니라 이슬람권 국가 유학생이 급증하면서, 이들 학생과 한국 학생 간의 갈등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슬람권 국가 유학생과 한국 학생의 성 평등 의식 수준과 개념이 일치하지 않는 편이라, 이들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에서의 성범죄 예방 및 성 평등 지식 관련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은 국내 대학 생활에서의 성 평등 의식 수준과 개념을 습득할 수 있다.

(3) 전문 상담 프로그램 운영

이승종(1996)의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고되었다.¹⁶⁾ 새로운 문화 적응 외에도 언어, 학비 및 기타 재정문제, 사회 적응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¹⁷⁾ 이러한 문제 역시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생활 적응을 방해하여 학업 성취를 낮추는 원인이기에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은 국내 대학 생활의 문제점을 대학에 알려, 대학의 도움을 통해 해결방안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

16) 이승종,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연세교육학연구』 9호,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6, 157-176쪽.

17) Mallinckrodt, B. & Leong, F.T.L.,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s, stress,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vol. 33, no. 1, 1992, pp.71-78.

(4) 학습능력 제고 프로그램

문화 및 환경 차이로 인해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유학생들을 위해 지도교수와 전담교수의 1:1 상담을 진행한다. 국가별 지도교수를 배정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이해하고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이슬람권 국가 유학생의 경우, 시간 약속 및 업무 분할 개념이 한국인 학생보다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이들 유학생과 한국 학생 간 팀 프로젝트 수행 시 무임승차(free-riding)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국가별 지도교수는 이슬람권 국가 유학생과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이들의 시간 약속 및 업무 분할 관련 인식을 교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지도교수의 노력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팀 프로젝트 시 무임승차 이슈를 줄이고, 한국인 학생과의 조화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5)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과 한국인 학생 간의 문화교류를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1 또는 1:1 소규모로 진행되며, 학생 간 친목을 다지고 언어와 문화를 상호 학습할 기회를 제공한다. 멘토 학생은 책임감을 갖고 멘티 학생을 관리하기 때문에, 멘토링 프로그램을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과의 라포(rapport)를 빠르게 형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한국 학생의 관심도가 낮은 국가 유학생과의 프로그램 운영 시 참여율이 낮은 단점이 있다.

(6) 다문화 페스티벌 및 음식체험 프로그램

김규원(1995)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사회 적응을 가로막고 있다.¹⁸⁾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단일민족 사회로 살아왔기 때문에 타문화를 수용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18) 김규원, 「국제화시대와 한국인의 대외양식」, 『성곡논총』 26권, 성곡언론문화재단, 1995, 985-1021쪽.

이에 A대학 B학과는 다문화 페스티벌과 음식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이슬람 국가 학생과 비이슬람 국가 학생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의 규모가 최근 전체 학생 수의 80% 수준에 달함에 따라, 이슬람 문화를 소개하고 전파하고자 하는 요구가 늘어났다. A대학 B학과는 이슬람 관련 춤, 음식, 음악 등을 소개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슬람 문화권 유학생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비이슬람 문화권 학생과의 관계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3) 행정체계의 영문화

A대학 B학과가 초기 운영되던 시기,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단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을 돕기 위해 오리엔테이션과 멘토링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나, 모든 행정체계는 한국어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학과 운영 첫해에는 외국인 유학생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행정체계가 체계적이지 않아 많은 불만 사항이 제기되었다.

특히, 한국어로 진행되는 행정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웠던 외국인 유학생들은 행정적 차별을 당한다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상담을 요청하였다.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한 A대학 B학과는 기존의 한국어 중심 행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체계적인 영문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행정체계가 영어로 전환된 이후, 학사 일정 및 학과 행정 문제와 관련된 차별과 불만을 호소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또한, 정확한 정보 전달로 인해 유학생들이 겪는 불이익 사례도 크게 줄어들었다.

나아가, 영어 능력이 완벽하지 않은 다양한 국가의 유학생을 배려하기 위해, 행정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여러 국가(중국,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의 유학생을 조교로 채용하였다. 이들 조교는 자국 또는 동일 언어를 사용하는 후배 유학생이 행정 관련 문제를 겪을 경우 직접적

으로 도움을 제공하거나, 한국인 직원과의 소통을 원활히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을 돕고, 보다 포용적인 학과 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4)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증가

[표 5]는 2000년대 이후 국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변화를 보여준다. 2000년 2.3%였던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은 10여 년 간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4년 7.3%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5년 이후부터는 감소세를 보이며, 2023년에는 5.6%로 줄어들었다.

[표 5] 외국인 전임교원 수 및 비율

구 분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교원 수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외국인 전임교원	전체 전임교원	
2000	1,241	52,924	2.3%
2001	1,260	54,190	2.3%
2002	1,354	55,806	2.4%
2003	1,327	56,996	2.3%
2004	1,352	58,108	2.3%
2005	1,604	59,909	2.7%
2006	1,991	62,459	3.2%
2007	2,411	65,245	3.7%
2008	2,775	66,802	4.2%
2009	3,264	68,905	4.7%
2010	4,015	71,299	5.6%
2011	4,792	73,550	6.5%
2012	5,277	76,812	6.9%
2013	5,872	81,160	7.2%
2014	6,037	82,858	7.3%
2015	5,940	84,321	7.0%
2016	5,861	85,633	6.8%
2017	5,610	85,660	6.5%
2018	5,426	86,130	6.3%

2019	5,352	85,665	6.2%
2020	5,029	84,535	5.9%
2021	4,904	84,678	5.8%
2022	5,034	85,616	5.9%
2023	4,722	84,368	5.6%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¹⁹⁾

A대학 B학과는 2007년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이 33%에 달해, 당시 국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평균 비율인 3.7%보다 약 9배 높은 수준을 보였다. B 학과는 이후 외국인 전임교원 수를 꾸준히 증원하여, 2009년부터는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을 80%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높은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은 외국인 유학생의 자퇴 및 휴학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데 기여했으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물론, 외국 유학 경험이 풍부한 한국인 교원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본국 출신 교원과 비교할 때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언어적, 문화적, 사회적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인 교수보다 자기 나라 출신 교수와의 면담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을 늘리는 것은 외국인 유학생 관리와 유학생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4. 결론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대학은 국제화에 힘을 쏟으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그 결과,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0년 3,980명에서 2023년 181,842명으로 약 45배 증가하며 양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대학 적응과 한국 학생과의 융합이라는 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국제화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대

19)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 2024.10.26.

부분의 국내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언어 장벽은 학습 능력과 한국 생활 적응 모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국어 수업 및 한국어 교양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단순히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학습시키는 방식은 국제화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진정한 국제화를 위해서는 한국어 수업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 학생 간의 융합을 도모하는 다양한 비교과 활동과 체계적인 행정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 적응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한국어 능력의 향상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한국 학생도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문화 환경을 받아들이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대학 국제화의 핵심 과제이다.

A대학의 B학과는 외국인 유학생만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일반적인 튜터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활동은 다문화 페스티벌이다. 다문화 페스티벌은 유학생이 자신의 국가 문화를 타 문화권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 간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활동은 문화적 접촉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진정한 국제화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대학교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어 습득과 한국 문화 적응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간 다양성과 포용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 국제화는 단순히 외국인 유학생 수의 증가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 학생 간의 상호 융합과 포용을 통해 진정한 국제화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이후 이들이 한국 대학과 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화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성과를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과 만족도를 평가할 구체적인 정량적 데이터가 부족하며, 학업 성취도나 자퇴율 같은 지표를 포함하지 못했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 학생 간의 융합을 강조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례 연구나 심층 인터뷰를 통한 질적 분석이 부족한 점이 한계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다문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A대학 B학과의 사례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적응을 돕는 비교과 활동과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효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대학 국제화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국내 대학의 국제화 정책 수립 및 실행에 있어 중요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문헌

- 김규원, 「국제화시대와 한국인의 대외양식」, 『성곡논총』 26권, 성곡언론문화재단, 1995, 985-1021쪽.
- 김오숙, 「국내외국인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예측모형검증」, 『다문화교육연구』 8권 3호, 한국다문화교육학회, 2015, 109-131쪽.
- 김지혜, 「외국인 유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방안 연구」, 『교육교육연구』 11권 2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537-562쪽.
- 김화경, 「국내 대학 교육의 국제화와 외국인 유학생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 운영 방안 연구」, 『시민인문학』 36권, 인문학연구소, 2019, 141-170쪽.
- 남부현·김옥남·남기석, 「외국인 유학생 생활경험 속에 투영된 한국인과 한국문화」, 『사회과학연구』 25권 1호, 사회과학연구소, 2014, 105-126쪽.
- 대학알리미, <https://academyinfo.go.kr/index.do>, 2024.1.21.
- 문정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문화 교양교과목 구성과 실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권 2호, 한국콘텐츠학회, 2020, 658-666쪽.
- 민혜영·세린즈·박지훈, 「대학 국제화의 진통: 한국 대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간 소통 부재 및 갈등 관계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연구』 27권 1호,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19, 5-32쪽.
- 박소연, 「재한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국내 학술지 중심으로」, 『상담과 연구』 1권 2호, 단국대학교 상담학연구소, 2018, 13-28쪽.
- 박소진, 「한국대학과 중국인 유학생의 동상이몽: 서울과 지방 소재 사립대학 비교」, 『한국문화인류학』 46권 1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13, 191-234쪽.
- 이길연,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방안 연구」, 『아시아연구』 25권 1호, 한국아시아학회, 2022, 375-396쪽.
- 이보경·유광수·장수철, 「국제화 시대에서 외국유학생을 위한 대학

- 교양교육과정 연구」, 『교양교육연구』 7권 2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3, 221-248쪽.
- 이승종,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연세교육학연구』 9호,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6, 157-176쪽.
- 임희진·김제희·정소현·정하영·김현성, 「캠퍼스 국제화에 대한 국내 한국학생들의 인식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6권 1호, 교육연구소, 2015, 243-270쪽.
- 전재은,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에 대한 대학기관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글로벌교육연구』 8권 3호, 글로벌교육연구학회, 2016, 29-51쪽.
- 주동범·김향화, 「국내 외국인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생활동 적응에 미치는 영향」, 『비교교육연구』 23권 1호, 한국비교교육학회, 2013, 123-145쪽.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 2024.10.26.
- Mallinckrodt, B. & Leong, F.T.L.,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s, stress,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vol. 33, no. 1, 1992, pp.71-78.

■ 국문초록

우리나라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학령인구 감소와 국제화로 인해 2000년대부터 증가하는 추세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는 국내 외 학생 간의 다양한 문화 접촉 및 언어 노출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급증하는 외국인 유학생 대비 대학 내 체계적인 교육환경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생활의 부적응에 따른 중도탈락률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탈락률 증가는 장기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대학의 국제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과 정원의 반 이상이 외국인 유학생으로 된 A대학 B학과의 성공적인 외국인 유학생 적응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제화 수준 향상에 필요한 유학생 지원 방안을 통찰하고자 한다.

주제어● 외국인 유학생, 비교과프로그램, 국제화, 대학 적응

■ Abstract

Support Strategi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University Adaptation : Insights from Case Studies

Woo, Sohee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Rhee, Chang Seop / Sejong University

Soh, Seung Bum / Yonsei University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universities in Korea has been increasing since the 2000s due to a declin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and globalization. The increase in international students can enhanc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universities by promoting diverse cultural interactions and language exposure between Korean and international students. However, despite the rapid rise in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Korean universities have not sufficiently established a systematic educational environment, leading to a continuous increase in dropout rates due to difficulties in adapting to life in Korea. The rising dropout rate of international students could have long-term negative effects on attracting international students and the overall globalization of Korean universiti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uccessful case of international student adaptation in Department B at University A, where more than half of the students are international, to gain insights into effective support measures necessary for improving the level of globalization.

Keyword • International students, Extracurricular program, Globalization, college adaptation

교수자 커뮤니케이션, 라포, 대학 평판이 전공 만족도, 이탈의도에 미치는 영향 : 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 정 기 · 황 우 념*

목 차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이론적 논의 및 연구문제
3.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5. 결론 및 논의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대학 서열주의, 수험생들의 서울,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 속에서 지역 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예컨대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년 2월 29일 기준 51개 대학이 신입생 정원(2,008명)을 채우지 못했고, 이 가운데 43개 대학(84.3%)은 비수도권 대학이었다. 서울에 소재한 대학 가운데 신입생 미충원 사례가 발생한 곳은 없었다(인지현, 2024. 3. 3). 신입생 충원율만 문제가 아니다. 한국교육개발원(2024)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각 대학 학생의 중도탈락 비율을 조사한 결

* 이정기(제1저자) 동명대학교 미디어대학 광고홍보학과 부교수
황우념(교신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조교수

과에 따르면, 지역 사립대의 중도 탈락률은 서울, 수도권 대학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¹⁾ 지역 국립대학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서경방송에 의하면, 전국 37개 국립대 중 서울/경기 지역 5개 학교의 최근 5년 간 중도 탈락자 수는 1교당 1,100명 정도에 불과했지만, 비수도권 지역 소재 32개 대학의 최근 5년 간 중도 탈락자 수는 2,640명으로 월등히 높았다.²⁾ 이는 지역 사립대학은 물론 지역의 국립대학들마저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을 고민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됐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 인식 아래 지역의 각 대학은 정원 조정과 학과 통폐합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고, 대학 간 연합, 통합과 같은 거시적 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모집한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관리함으로써 재학생들의 대학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대학 이탈(재수, 편입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대학은 강의실에서 교수자의 정규 교과목 강의(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 외에도 학습자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교수자 상담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원활한 학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³⁾ 이처럼 지역 대학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습자 이탈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수자와 학습자 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최근 지역 대학이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이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대학 평판이다. 대학의 정책적 노력을 통해 형성되는 대학 평판은 잠재적 입학생인 고교생들의 대학 선택 기

1) 최정운·김나영·서재영, 「주요 성과지표의 시계열 추이에 나타난 지방대학 위기의 특성」, 『KEDI BRIEF』 2023년 30호, 2024.

2) 김상엽, “지방 국립대 자퇴생, 수도권의 2배 “취업 격차 심해””, <서경방송>, 2024.09.25.

3) 이정기, 『대학교육 혁신과 교육커뮤니케이션3』, 커뮤니케이션북스, 2023, 1-112쪽.

준 중 하나인 동시에 재학생들의 대학생활 만족도와 대학생활 유지를 이끌어 내는데 필요한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대학 평판의 경우 각종 미디어를 통해 확대, 재생산된다는 측면에서 대학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할 커뮤니케이션 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지역 대학 위기라는 구조적인 환경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활발히,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학내에서 발생하는 교수자의 커뮤니케이션과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형성되는 라포가 실제로 학습자들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대학 이탈의도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전공 교수자의 커뮤니케이션 요인, 구체적으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명료성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친근성, 교수자의 확인(교수자가 강의실에서 학습자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라포 형성이 전공 교육 만족도와 대학 이탈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했다. 한편, 이 연구는 교수자의 커뮤니케이션 요인과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형성되는 교수자-학습자 간의 라포가 교육효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대학 평판 변인의 영향력을 확인해 봄으로써 지역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제안해 보고자 했다. 이 연구가 지역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1) 교수자의 커뮤니케이션 요인과 대학 만족도, 대학 이탈의도의 관련성에 관한 논의

일반적으로 대학 수업은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교수자의 커뮤니케이션 요인이 학습자의 교육 만족도와 대학 이탈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했다.

니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대학 교육의 흥미도와 만족도, 수업 참여도를 높이는 등 학습자가 원활한 대학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조운경(2017)에 따르면 교수자의 명료성(내용을 명확히 전하는 언어적 명료성) 및 친근성(비언어적 친근성) 요인은 대학 학습자의 흥미(인지적 흥미, 정서적 흥미)와 학생 참여도(수업 관련 사고)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교수자의 확인(교수자가 학생을 대하는 태도)은 학습자의 흥미도 증진에 영향을 미치고, 수업 후의 참여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이는 강의실에서 대학 교수자의 커뮤니케이션 요인과 학습자의 학습 효과를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결과는 정미영(2023)의 연구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정미영(2023)의 연구에 따르면 언택트 상황에서 교수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학습자들의 수업 몰입도와 수업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⁵⁾ 그밖에도 교육 관련 연구는 아니지만 이상희와 박명규(2014)의 연구에 따르면 호텔 종사자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전문형, 통제형, 신뢰형)이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⁶⁾가 제시된 바 있고, 박선주(2024)의 연구에 따르면 뷰티서비스 종사자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고객과의 라포 형성과 고객의 재방문의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종사자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고객과의 라포 형성과 재방문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

4) 조운경, 「대학 교양 수업에서 커뮤니케이션 요인이 학생 흥미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교수자의 명료성·친근성 요인과 학습자 커뮤니케이션 동기를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54권 2호, 2017, 224-258쪽.

5) 정미영, 「언택트시대, 교수자의 이미지와 비언어커뮤니케이션 사용이 학습자의 수업만족도와 수업몰입도에 미치는 영향」,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26권 9호, 2023, 1204-1218쪽.

6) 이상희·박명규, 「호텔종사자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라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객만족경영연구』 16권 1호, 2024, 179-197쪽.

친다는 연구결과, 고객과의 라포가 종사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고객 재방문의도와와의 관계에서 매개변인 역할을 한다는 결과⁷⁾가 도출된 바 있다. 이상의 결과는 서비스 제공자의 커뮤니케이션 요인이 학습자의 수업 흥미도와 몰입도,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김연종(2014)은 민감형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대학생들의 사회적응과 정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⁸⁾ 이는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대학 부적응, 불만족에 의한 이탈과의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요인이 학습자의 교육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교육 만족도를 높여 대학 이탈을 막을 수 있게 한다는 점은 어렵지 않게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교수자의 커뮤니케이션 요인이 학습자의 대학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정지연과 박노일(2021)에 따르면 교수와 학생의 공중 관계성은 대학 이탈 가능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이 연구의 결과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학습자의 대학 이탈 가능성을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교수자와 학습자의 호혜적 관계 형성의 핵심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측면¹⁰⁾에서 이 연구는 교수자의 커뮤니케이션 요인이 대학 만족도를 높이고, 대학 이탈의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검증해 보고자 했다.

7) 박선주, 「뷰티서비스 종사자의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재방문의도의 관계에서 라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Asian J Beauty Cosmetol』 22권 3호, 2024a, 403-413쪽.

8) 김연종, 「대학생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갈등해결 전략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학연구』 22권 3호, 2014, 5-23쪽.

9) 정지연·박노일, 「교수·학생 공중관계성과 대학이탈 가능성: 대학 PR 관점을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32권 6호, 2023, 73-95쪽.

10) 이정기, 앞의 책, 1-112쪽.

2) 라포 형성과 대학 만족도, 대학 이탈의도의 관련성에 관한 논의

라포(Rapport)는 “대인관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되는 공감적, 친밀한 감정이나 상호간에 대한 이해를 지칭”한다.¹¹⁾ 대학 교육의 두 주체인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친밀한 이해의 정도, 즉 라포 형성의 정도가 대학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예컨대 박슬기와 심성우(2022)의 연구에 따르면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라포는 대학생활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¹²⁾ 또한 김상태와 박규남(2024)에 따르면 대학생들과 교수자의 라포 형성은 수업 만족(교양 체육 수업)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박선주(2024)에 따르면 뷰티디자인 교육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라포는 수업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 그리고 송윤희(2020)에 따르면 교수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라포 형성에, 라포는 학습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¹⁴⁾ 즉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라포는 학습자의 대학 생활의 만족도는 물론 학습 과정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한편, 비록 교육 관련 연구는 아니지만, 서비스 제공자(스포츠센터)와 고객 사이에서 형성된 라포가 고객과의 장기적 관계 지속성에 정적인 영향

11) 김시업, 「수사면담 시 라포의 구성: 네 가지 라포형성 기법을 사용해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권 3호, 2013, 487-506쪽.

12) 박슬기·심성우, 「교수자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및 라포형성이 대학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COVID-19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을 대상으로」, 『관광연구저널』 36권 11호, 2022, 141-156쪽.

13) 김상태·박규남, 「교양체육 수업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교수자에 의한 라포형성이 수업만족에 미치는 효과: 교수신뢰의 매개효과」,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9권 4호, 2024, 31-42쪽; 박선주, 「뷰티디자인 교육에서 교수자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라포 및 수업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26권 2호, 2024b, 45-56쪽.

14) 송윤희, 「교수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대학생의 감성적 실재감, 라포 및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권 10호, 2020, 259-267쪽.

을 미친다는 연구결과¹⁵⁾가 존재하고, 미용실 직원과 고객 사이의 라포 형성이 관계 지속성(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¹⁶⁾가 존재한다.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사이의 라포 형성이 관계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앞선 연구의 결과는 교육 서비스 제공자, 즉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에 형성된 라포가 관계지속성, 즉 대학 교육 지속의도에 정적인 영향, 대학 교육 이탈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하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대학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라포가 대학 만족도를 높이고, 대학 이탈의도를 낮출 것이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확인해 보고자 했다.

3) 대학 평판과 대학 만족도, 대학 이탈의도의 관련성에 관한 논의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은 대학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수험생들의 상위권 대학 선호 현상, 인서울 대학, 수도권 소재 대학 선호 현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은 지역 대학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⁷⁾ 에타(에브리타임), 수만취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와 같은 각종 SNS에서 지역에 소재한 사립대학을 이른바 ‘지잡대(지방의 잡스러운 대학)’라고 폄훼, 혐오하는 현상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¹⁸⁾ 대학 서열화를 조장하는 비판¹⁹⁾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각종 대학 평가도 해마다 진행되고 있다. 해마다 대학 평가 철이 되면 각 대학은 자

15) 정아람, 「스포츠센터의 사회적 서비스스케이프가 라포형성 및 관계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지』 18권 4호, 2020, 25-34쪽.

16) 김문정, 「미용종사자의 라포형성이 관계감정과 관계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디자인 문화학회지』 26권 4호, 2020, 45-58쪽.

17) 이정기, 앞의 책, 1-112쪽.

18) 오기영, “수험생 혼드는 그들, ‘대학 훌리건’”, <주간조선>, 2024.08.02.

19) 유성동, “[유성동 칼럼] 대학서열화 조장 엘리트주의, 차기 정부는 타파할 수 있을까?”, <교육플러스>, 2021.09.15.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99>)

신의 대학이 어떤 평가에서 몇 위를 기록했는지를 보여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개별 대학의 평가 순위를 다룬 각종 언론 보도는 검색을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각 대학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 이상으로 대학 평판과 대학 이미지 관리를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실제로 몇몇 연구는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에 대한 대외 평판이 학생들의 대학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박슬기와 이희정, 권봉헌(2018)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 이미지는 대학 만족도와 충성도에 각각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학 이미지가 긍정적일수록 학생들의 대학 만족도와 대학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²⁰⁾ 한편, 대학 평판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학 이미지가 학습자들의 대학 만족도를 높이고, 대학 만족도가 대학 이탈의도를 낮춘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²¹⁾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발견에 근거하여 대학생들의 대학 평판이 긍정적일 때, 대학 만족도가 높아지고, 대학 이탈의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가정한 후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했다.

4) 대학 만족도와 대학 이탈의도의 관련성에 관한 논의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와 대학 서열주의, 수도권 중심주의 속에서 지역 대학에 입학한 적지 않은 학생들이 편입하는 방식으로 기존 대학에서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²²⁾ 예컨대 전국 37개 국립대 가운데 서울/경기 지역 5개 학교의 최근 5년 동안의 중도 탈락자 수는 1교당 1,100명 정도이

20) 오기영, “수험생 흔드는 그들, ‘대학 홀리건’”, <주간조선>, 2024.08.02.

21) 최인정, 「지각된 전공 교육서비스 품질과 대학브랜드 이미지가 대학 만족 및 이탈의도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9; 이진영, 「교육서비스 품질 및 대학 이미지가 학생만족 및 이탈의도에 미치는 영향: 지방대학 4년제 호텔·관광전공학과를 중심으로」, 『호텔리조트연구』 23권 1호, 2024, 24-47쪽.

22) 이정기, 앞의 책, 1-112쪽.

지만 비수도권 지역 소재 32개 대학의 경우 2,640명²³⁾으로, 2배가 넘는 수준이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2024)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대학의 중도탈락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 사립대의 중도 탈락률이 다른 유형의 대학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²⁴⁾ 이러한 상황은 지역 대학이 신입생 충원율과 함께 재학생 충원을 제고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대학생들의 중도탈락의 원인을 밝히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상당수의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예컨대 문승호(2022)는 대학신입생의 중도탈락 예측 연구를 통해 성별과 학과 성적이 중도탈락과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²⁵⁾를 제시한 바 있고, 구성우와 문명현, 김병주(2016)는 학생 1인당 등록금, 전임교원 1인당 논문 수와 교외 연구비와 같은 대학 기관 변인이 중도탈락을 낮추는 원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²⁶⁾ 이는 상당수 대학 중도탈락 관련 연구가 대학생들의 중도탈락 요인을 학습자나 대학 기관 측면에서 찾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한편, 몇몇 선행연구는 대학 생활 과정에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대학 이탈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김영표(2016)에 따르면 학생의 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학생 이탈의도(전공 전환이나 이탈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⁷⁾ 유사한 맥락에서 대학의 이미지가 학습자들의 대학 만족도

23) 김상엽, 앞의 각주, 2024. 9. 25.

24) 최정운·김나영·서재영, 앞의 논문.

25) 문승호, 「대학신입생의 중도탈락 예측 연구: 부산 B대학교 사례」,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4권 1호, 2022, 119-132쪽.

26) 구성우·문명현·김병주, 「대학생의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기관 변인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5권 4호, 2016, 225-250쪽.

27) 김영표, 「교육서비스 품질이 학생만족도 및 이탈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28권 10호, 2016, 115-131쪽.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학 만족도가 대학 이탈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²⁸⁾ 대학 교육 서비스 만족도와 학생 몰입이 대학 충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학 충성도가 타 대학으로의 전환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황병일·김범중, 2015)도 진행된 바 있다.²⁹⁾ 이상의 선행연구는 대학 생활 만족도가 대학 이탈의도를 억제하는 변인일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더욱이 문승호(2022)와 구성우, 문명현, 김병주(2016)의 연구에 따르면 교과 성적이 낮을수록 중도탈락률이 높게 나타났다.³⁰⁾ 또한 대학적응력 변수 역시 중도탈락 예측에 활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대학생들의 대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대학 이탈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한 후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했다.

연구문제 1. 교수자의 커뮤니케이션 요인(명료성, 친근성, 교수자 확인), 교수자-학습자 간의 라포, 대학 평판은 지역 대학생들의 대학 전공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교수자의 커뮤니케이션 요인(명료성, 친근성, 교수자 확인), 교수자-학습 간의 라포, 대학 평판, 대학 전공 만족도는 지역 대학생들의 대학 이탈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를 위한 자료는 국내의 전문 조사업체인 (주)마이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하여 수집됐다. 2025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 동안 서울, 인

28) 최인정, 앞의 논문; 이진영, 앞의 논문, 24-47쪽.

29) 황병일·김범중, 「학생만족, 학생몰입, 대학충성도, 전환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 『고객만족경영연구』 17권 1호, 2015, 151-170쪽.

30) 문승호, 앞의 논문, 119-132쪽; 구성우·문명현·김병주, 앞의 논문, 225-250쪽.

천, 경기 지역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을 제외한 지역 대학생 280명을 대상으로 자료가 수집됐다. 응답자는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로 한정했다. 280명의 응답자 가운데 남성은 140명(50%), 여성은 140명(50%) 이었고, 평균 연령은 22.79세(SD=2.11)였다. 응답자 중 126명(45%)은 지역 국립대 재학생이었고, 154명(55%)은 사립대 재학생이었다. 응답자가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는 부산이 50명(17.9%), 대구가 34명(12.1%), 광주가 23명(8.2%), 대전이 20명(7.1%), 울산이 9명(3.2%), 강원도가 16명(5.7%), 충청북도가 16명(5.7%), 충청남도가 15명(5.7%), 전라북도가 21명(7.5%), 전라남도가 12명(4.3%), 경상북도가 23명(8.2%), 경상남도가 36명(12.9%), 제주도가 4명(1.4%), 세종이 1명(0.4%)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학업 성취 수준은 5점 척도(1: 매우 부족, 5: 매우 우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3.30점(SD=.91)으로 나타났다.

2) 측정 도구

(1) 교수자의 커뮤니케이션 요인

교수자의 커뮤니케이션 요인은 조운경(2017)³¹⁾의 연구에 근거하여 교수자의 언어적 명료성(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정도), 비언어적 친근성, 그리고 교수자의 확인(교수자가 학생을 대하는 태도) 요인으로 구분하여 측정했다. 구체적으로 교수자의 언어적 명료성은 TCSI(Teacher Clarity Short Inventory)의 척도³²⁾를 한국 대학 교양 교육의 상황에서 적용하여 분석한 조운경(2017)의 연구 근거하여 ‘핵심 개념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한다’, ‘관련성 높은 예시를 사용한다’, ‘과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분명하다’,

31) 조운경, 앞의 논문, 224-258쪽.

32) McCroskey, J. C. et al., “A cross-cultural and multi-behavior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onverbal immediacy and teacher evaluation”, *Communication Education*, vol. 44, no. 4,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1995, pp.281-291.

‘학생들의 질문에 명쾌하게 답한다’ 등 4문항을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했다($\alpha=.83$, $M=3.77$, $SD=.70$).

비언어적 친근성은 맥크로스키와 동료(McCroskey et al., 1995)의 척도를 활용한 조운경(2017)이 구성한 문항, 즉 ‘자연스러운 자세로 수업을 한다’, ‘수업을 하며 학생들과 시선을 교환한다’, ‘수업을 하며 미소를 보인다’ 등 3개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했다($\alpha=.81$, $M=3.90$, $SD=.73$).

교수자의 확인은 조운경(2017)의 연구에 근거하여 ‘학생들이 질문에 충분히 대답하는 시간을 갖는다’, ‘학생이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때 주의 깊게 듣는다’, ‘학생들의 질문이나 의견을 반긴다’ 등 12개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했다($\alpha=.92$, $M=3.74$, $SD=.65$).

(2) 교수자-학습자 간의 라포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라포는 김용민(2019),³³⁾ 박슬기와 심성우(2022)³⁴⁾의 연구에서 활용된 문항을 수정한 문항, 구체적으로 ‘우리학과의 교수님은 나를 위해 자신의 직무를 넘어서 일을 하기도 한다’, ‘우리학과 교수님은 내 이름은 기억하고 있다’, ‘우리학과 교수님은 나에게 높은 수준의 관심을 보여준다’ 등 11개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했다($\alpha=.92$, $M=3.63$, $SD=.68$).

(3) 대학 평판

대학 평판은 지성구(2015)³⁵⁾의 연구에 근거하여 교육 품질, 발전성, 졸업생, 사회적 책임, 정체성, 교수역량, 시스템 질 등 6개 요인으로 구분하여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했다. 구체적으로 교육 품질은 ‘교육과정은 훌륭하다’, ‘강의 콘텐츠는 우수하다’, ‘대학 교

33) 김용민, 「호텔서비스종사자의 라포형성행동이 대인신뢰에 미치는 영향: 관계감정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9.

34) 박슬기·심성우, 앞의 논문, 141-156쪽.

35) 지성구, 「대학 평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상품학연구』 33권 5호, 2015, 53-61쪽.

육의 질이 우수하다' 등 3개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했다($\alpha=.88$, $M=3.62$, $SD=.77$).

발전성은 '장기적인 비전이 명확하다', '미래에 더욱 발전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발전가능성이 높다' 등 3개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했다($\alpha=.91$, $M=3.52$, $SD=.88$).

졸업생은 '졸업생은 경쟁력이 높다', '졸업생은 조직에서 신뢰가 높다', '졸업생 취업률이 우수하다' 등 3개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했다($\alpha=.84$, $M=3.43$, $SD=.81$).

사회적 책임은 '지역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각종 활동을 수행한다', '지역 사회 주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한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한다' 등 3개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했다($\alpha=.91$, $M=3.53$, $SD=.88$).

정체성은 '명확한 정체성이 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한다', '상징물, 로고 등이 명확하다' 등 3개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했다($\alpha=.82$, $M=3.65$, $SD=.82$).

교수 역량은 '교수진은 우수하다', '교수들은 사회적 활동이 많은 편이다', '교수진은 연구역량이 우수하다' 등 3개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했다($\alpha=.87$, $M=3.69$, $SD=.82$).

시스템 질은 '취업지원시스템이 우수하다', '학사관리시스템이 우수하다' 등 2개 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했다($\alpha=.83$, $M=3.57$, $SD=.88$).

(4) 대학 전공 만족도

대학 전공 만족도는 이미균과 한향숙(2023)³⁶⁾의 연구에서 활용된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했다. 구체적으로 '전공이 졸업 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전공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편이

36) 이미균·한향숙, 「항공서비스전공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호텔경영학연구』 32권 5호, 2023, 99-115쪽.

다’, ‘공부나 진로를 교수님에게 조언 받는 편이다’, ‘전공이 나와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 ‘부모님은 내 전공을 자랑스러워하는 편이다’ 등 7개 문항을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했다($\alpha=.89$, $M=3.62$, $SD=.77$).

(5) 대학 이탈의도

대학 이탈의도는 이성각과 조현진(2015)³⁷⁾의 연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했다. 구체적으로 ‘나는 새로운 전공을 모색하고 있다’, ‘나는 타 학과의 교육 조건을 비교하고 있다’, ‘나는 학과에 대한 소속감이 결여되어 있는 편이다’, ‘나는 편입을 고민하고 있다’, ‘나는 편입을 준비하고 있다’, ‘나는 편입할 가능성이 있다’ 등 6개 항목을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했다($\alpha=.89$, $M=2.46$, $SD=1.03$).

3) 분석 방법

이 연구는 교수자의 커뮤니케이션 요인과 대학 평판 요인이 지역 대학생들의 전공 만족도와 대학 이탈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2개의 연구문제를 통해 검증하고자 했다. 연구문제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진행했다.

먼저 연구문제 1, 즉 지역 대학생들의 대학 전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기 위해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했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1단계에는 인구통계적 속성 변인으로 성별, 연령, 학년, 대학 유형(국, 사립 여부), 학업 성취도 변인을 투입했다. 2단계에는 교수자 커뮤니케이션 요인으로 언어적 명료성과 비언어적 친근성, 교수자 확인과 라포 형성 변인을 투입했다. 3단계에는 대학 평판 요인으로 교육 품질과 발전성,

37) 이성각·조현진, 「국내 지방대학교 관광계열의 교육서비스 품질이 학생만족도 및 이탈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24권 2호, 2015, 221-235쪽.

졸업생과 사회적 책임, 정체성과 교수 역량, 그리고 시스템 질 변인을 투입했다. 한편, 연구문제 2, 즉 지역 대학생들의 대학 이탈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4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했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1단계에는 인구통계적 속성 변인, 2단계에는 교수자 커뮤니케이션 요인, 3단계에는 대학 평판 요인, 4단계에는 전공 만족도 변인을 투입했다.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4. 연구결과

1) 지역 대학생들의 대학 전공 만족도 결정요인

지역 대학생들의 대학 전공 만족도 결정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4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했다. 위계적 회귀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 분석을 진행한 결과 분산팽창인자(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의 경우 모든 단계에서 1.01~5.36으로 10을 초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차 한계(Tolerance)의 경우 .19~.99의 범위로 .1보다 컸다. 결과적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도출되지 않았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1단계에는 인구통계 속성 변인을 투입했다. 그 결과 학업 성취도($\beta = .29, p < .001$)만 지역 대학생들의 대학 전공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일수록 전공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설명량은 7.9%였다.

2단계에는 교수자 커뮤니케이션 요인을 투입했다. 그 결과 언어적 명료성($\beta = .16, p < .05$), 비언어적 친근성($\beta = .17, p < .05$), 교수자 확인($\beta = .18, p < .1$), 라포 형성($\beta = .21, p < .05$)은 모두 지역 대학생들의 대학 전공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강의실에서 교수자가 명료한 언어 구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수록, 비언어적으로 친근한 모습을 보인다고 판단

할수록 학습자들의 이해를 확인하는 정도가 높다고 판단할수록, 교수자와 학습자간 라포 형성의 정도가 높다고 판단할수록 전공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추가적 설명량은 38.1%였다.

3단계에는 대학 평판 변인을 투입했다. 그 결과 교수 역량($\beta = .17$, $p < .05$), 시스템 질($\beta = .13$, $p < .05$)이 지역 대학생들의 대학 전공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학습자들이 학과 교수의 역량을 높게 평가할수록, 취업지원과 학사관리 시스템의 질을 높게 평가할수록 전공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추가적 설명량은 7.1%였다. 한편, 대학 평판 변인이 투입되자 교수자 커뮤니케이션 요인 중 비언어적 친근성, 교수자 확인, 라포 형성 변인의 설명력이 사라졌다.

최종 단계를 기준으로 교수 역량($\beta = .17$, $p < .05$), 시스템 질($\beta = .13$, $p < .05$), 교수자의 언어적 명료성($\beta = .13$, $p < .1$),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beta = .15$, $p < .01$)가 지역 대학생들의 대학 전공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표 1] 지역 대학생들의 대학 전공 만족도 결정요인

		모델 1	모델 2	모델 3
		표준화된 회귀계수 β	표준화된 회귀계수 β	표준화된 회귀계수 β
인구 통계	성별	-.05	-.05	-.04
	연령	-.07	-.02	-.01
	학년	.01	-.07	-.05
	대학 유형	.03	.02	.04
	학업 성취도	.29***	.15**	.15**
교수자 커뮤니 케이션 요인	언어적 명료성		.16*	.13+
	비언어적 친근성		.17*	.11
	교수자 확인		.18+	.13
	라포 형성		.21*	.12
대학 평판	교육 품질			-.12
	발전성			.12
	졸업생			.04
	사회적 책임			-.08
	정체성			.03
	교수 역량			.17*
	시스템 질			.13*
수정 R^2		.079	.460	.501
ΔR^2		-	.381	.071
Model F		$F(5, 274)=5.76***$	$F(9, 270)=27.42***$	$F(16, 263)=18.53***$

※ 주. N=280, + $p<.1$, * $p<.05$, ** $p<.01$ *** $p<.001$

2) 지역 대학생들의 대학 이탈의도 결정요인

대학 이탈의도 결정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4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했다. 위계적 회귀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 분석을 진행한 결과 분산팽창 인자(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의 경우 모든 단계에서 1.01~5.19로 10을 초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차 한계(Tolerance)의 경우 .19~.99의 범위로 .1보다 컸다. 결과적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도출되지 않았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1단계에는 인구통계 속성 변수를 투입했다. 그 결과 성별($\beta = -.18, p < .01$), 학년($\beta = -.19, p < .05$), 대학 유형($\beta = .09, p < .1$)만 지역 대학생들의 대학 이탈의도에 영향을 미쳤다. 즉 남학생이면서 학년이 낮을수록, 사립대 학생의 대학 이탈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설명량은 5.5%였다.

2단계에는 교수자 커뮤니케이션 요인을 투입했다. 그 결과 언어적 명료성($\beta = -.24, p < .01$), 가 지역 대학생들의 대학 이탈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강의실에서 교수자가 명료한 언어 구사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할수록 대학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추가적 설명량은 5.1%였다.

3단계에는 대학 평판 변수를 투입했다. 그 결과 발전성($\beta = -.19, p < .1$), 사회적 책임($\beta = -.19, p < .05$)이 지역 대학생들의 이탈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학습자들의 학교의 발전 가능성을 낮게 평가할수록, 학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인식할수록 이탈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추가적 설명량은 2.2%였다.

4단계에는 대학 전공 만족도 변수를 투입했다. 그 결과 대학 전공 만족도($\beta = -.36, p < .001$)는 지역 대학생들의 이탈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학습자들의 대학 전공 만족도가 낮을수록 대학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추가적 설명량은 4.1%였다.

최종 단계를 기준으로 대학 전공 만족도($\beta = -.36, p < .001$), 대학의 발전 가능성($\beta = -.15, p < .05$), 대학의 사회적 책임($\beta = -.16, p < .05$), 교수자의 언어적 명료성($\beta = -.22, p < .05$), 성별($\beta = -.18, p < .01$), 학년($\beta = -.15, p < .05$), 대학 유형($\beta = .14, p < .01$)이 지역 대학생의 대학 이탈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 2] 지역 대학생들의 대학 이탈의도 결정요인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표준화된 회귀계수 β	표준화된 회귀계수 β	표준화된 회귀계수 β	표준화된 회귀계수 β
인구 통계	성별	-.18**	-.17**	-.16*	-.18**
	연령	.03	.00	-.00	.00
	학년	-.19*	-.14+	-.13+	-.15*
	대학 유형	.09+	.10+	.12*	.14**
	학업 성취도	-.06	-.00	-.01	.04
교수자 커뮤니케이션 요인	언어적 명료성		-.24**	-.27**	-.22*
	비언어적 친근성		-.11	-.13	-.09
	교수자 확인		.04	.03	.07
	라포 형성		.03	-.01	.03
대학 평판	교육 품질			.08	.04
	발전성			-.19+	-.15*
	졸업생			.02	.04
	사회적 책임			-.19*	-.16*
	정체성			-.00	.01
	교수 역량			.00	.06
	시스템 질			.10	.14
대학 전공 만족도					-.36***
수정 R^2		.055	.106	.128	.169
ΔR^2		-	.051	.022	.041
Model F		$F(5, 274)=4.40^{**}$	$F(9, 270)=4.92^{***}$	$F(16, 263)=3.64^{***}$	$F(17, 262)=4.93^{***}$

※ 주. N=280, + $p<.1$, * $p<.05$, ** $p<.01$, *** $p<.001$

5. 결론 및 논의

학령인구의 감소 속 지역 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신입생 충원률을 높이고, 재학생 충원률을 높이기 위한 지역 대학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역 대학의 위기는 지역 사회의 위기, 지역 소멸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 대학의 위기는 극복될 필

요가 있다.³⁸⁾ 이 연구는 지역 대학의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전략 중 대학의 자체적 노력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교수자의 커뮤니케이션 요인과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라포, 대학의 평판 요인이 전공 만족도와 대학 이탈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봄으로써 지역 대학 재학생들의 전공 만족도를 높이고, 대학 이탈을 막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 이 연구의 핵심적 발견과 함의는 다음과 같다.

대학 전공 만족도는 대학 이탈의도를 낮출 수 있는 핵심 요소로 알려져 있다.³⁹⁾ 먼저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지역 대학생들의 대학 전공 만족도 결정요인을 확인했다. 1단계에는 통제변인으로 인구통계적 속성 변인을 투입했다. 그 결과 학업 성취도만 지역 대학생들의 대학 전공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육 만족도와 함께 학업 성적, 학업 성취도 등은 학습자들의 중도탈락과 관련성이 있는 변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지역 대학 재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대학 전공 만족도를 높이고, 대학 이탈을 막기 위한 방법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대학은 학습자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교수자들이 학습자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최신 교수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자들의 학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학습법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교과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자들이 대학의 교수학습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학습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이끌고, 학습자간 학습 공동체를 조직하여 학습에 대한 상호학습을 할 수 있게 이끄는 등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 부여를 위한 노력을 진행할 때, 학습자들의 전공 만족도는

38) 이길재 외,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교육행정학연구』 39권 4호, 2021, 85-106쪽.

39) 최영준, 「체육계열 대학생이 지각한 교육서비스품질, 전공만족, 기대충족 및 이탈의도의 관계」, 『한국스포츠허학지』 15권 4호, 2017, 323-333쪽.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2단계에는 교수자 커뮤니케이션 요인을 투입했다. 그 결과 교수자의 언어적 명료성, 비언어적 친근성, 교수자 확인, 라포 형성 모두 대학 전공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추가적 설명력은 38.1%로 높았다. 이는 지역 대학에서 교수자가 학습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식이 학습자들의 대학 전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구체적으로 교수자가 언어적으로 명료하게 강의 내용을 학습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비언어적으로 친근하게 학습자들을 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리고 학습자들의 반응, 이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습자들과의 라포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지역 대학 학습자들의 전공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방법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교수자의 커뮤니케이션 요인이 대학 만족도에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 이상의 영향을 미쳤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교수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상당수 교수자는 교육 내용 전문가이지 교수법 전문가가 아니다. 어떤 교수자는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이 강의자로서의 정체성보다 강하고, 따라서 학습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미숙함을 보이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원 단계, 혹은 교수자 임용된 후 오리엔테이션 단계 등에서 적절한 교수법 프로그램 수강을 의무화함으로써 교수자가 교수법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자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장기적으로 학습자들의 전공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단계에는 대학 평판 요인을 투입했다. 그 결과 교수 역량 변인과 시스템 질 변인이 지역 대학생들의 전공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대학 학습자들이 자신의 학과 교수의 교수 역량(사회적 활동, 연구 역량 등)

을 높게 평가할수록, 취업 지원 시스템이나 학사 관리시스템 등 시스템의 질이 우수하다고 평가할수록 대학 전공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먼저 교수 역량의 영향력은 지역 대학이 연구, 사회적 활동 영역에서 우수한 교수진을 채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교수자들의 연구 활동과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 대학생들의 전공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이라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지역 대학이 학과 교수들의 다양한 대외 활동, 연구 활동 등을 카드뉴스나 보도자료의 형태로 구성하여 홈페이지, SNS 그리고 언론을 통해 홍보하는 것이 학과 학습자들의 전공 만족도를 높일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시스템 질 변인의 영향력은 대학의 각종 학생 지원 시스템을 학생 친화적인 환경으로 구성하는 것 또한 학습자들의 전공 만족도를 높일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상의 결과 역시 지역 대학이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시스템 질 개선을 위한 투자가 학습자들의 전공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위계적 회귀분석의 3단계에서 대학 평판 요인이 투입되자 교수자 커뮤니케이션 요인 중 비언어적 친근성과 교수자 확인, 라포 형성 변인의 설명력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는 커뮤니케이션 요인 중 비언어적 친근성, 교수자 확인, 라포 형성 변인의 설명력이 교수 역량 변인과 시스템 질 변인에 의해 설명된다는 점을 예측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지역 대학생들의 대학 전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언어적 명료성을 높이기 위한 교수자 차원의 노력, 교수 역량과 시스템 질 등과 같은 대학 평판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예측하게 한다.

다음으로는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지역 대학생들의 대학 이탈 의도 결정요인을 확인했다. 1단계에는 통제 변인으로 인구통계적 속성 변

인을 투입했다. 그 결과 성별(-), 학년(-), 대학 유형(+)이 지역 대학생들의 대학 이탈의도에 영향을 미쳤다. 즉 남학생, 학년이 낮을수록, 사립대학 학생들의 대학 이탈의도가 높았다. 이상의 결과는 지역 대학생들의 경우 대학 이탈에 대한 생각이 비교적 저학년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 국립대학보다 사립대학 학생의 대학 이탈의도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지역 대학, 특히 지역의 사립대학은 저학년 단계에서부터 학습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학사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예측하게 한다.

2단계에는 교수자 커뮤니케이션 요인을 투입했다. 그 결과 교수자의 언어적 명료성이 낮을수록 지역 대학생들의 대학 이탈의도가 높아졌다. 이는 교수자가 언어적으로 명료하게 전공에 대해 강의하지 못한다고 인식할 경우 대학 이탈의도가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대학의 교수학습지원센터 등은 각종 교수법 특강과 교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강의실에서 교수자가 강의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습자들과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앞선 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접목하여 생각해보면 교수자가 연구자로서의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강의자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갖추고 충실히 강의하고자 노력할 때 학습자들의 전공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대학 이탈의도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지역 대학교수들이 충실하게 강의 준비를 수행함으로써 명료하게 학습자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자 할 때, 학습자들의 대학 전공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대학 이탈의도를 낮출 수 있다는 측면에 주목하여 강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3단계에는 대학 평판 요인을 투입했다. 그 결과 발전성과 사회적 책임이 낮을수록 지역 대학생들의 대학 이탈의도가 높아졌다. 이는 대학이 장기적인 비전이 명확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할수록 대학 이탈의도

가 낮아지며, 지역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한다고 인식할수록 대학 이탈의도가 낮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는 지역 대학이 장기적인 비전을 명확히 설정하고, 비전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 그리고 지역 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역 사회에서 긍정적인 평판을 획득하는 것이 지역 대학생들의 대학 이탈의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구체적으로 대학의 리더인 총장은 대학의 장기적 비전을 설정함으로써 대학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구성원들에게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총장과 함께 학장, 학과장은 학생들과 자주 소통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대학의 비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지역 대학은 지역 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 소통함으로써 지역 대학이 지역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은 지역 대학의 지역 사회 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줌으로써 학습자들의 대학 이탈의도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4단계에는 대학 전공 만족도 변인을 투입했다. 그 결과 대학 전공 만족도가 낮을수록 지역 대학생들의 대학 이탈의도가 높아졌다. 이는 전공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학습자들의 대학 이탈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지역 대학의 교수자는 지속적인 연구와 혁신 교수법에 대한 학습을 통해 언어적 명료성을 확보하고, 교수자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학은 학습자 친화적 시스템 확보와 개선,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한 지원을 통해 학습자들의 전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와 함께 대학은 대학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지역 사회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지역 사회에서 의미있는 평판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전제될 때, 지역 대학 학습자들의 대학 이탈을 억제할 수 있을 것

이다.

이 연구는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지역 대학생들의 대학 전공 만족도와 대학 이탈의도 결정요인을 확인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 대학 대학생들의 전공 만족도를 높이고, 대학 이탈을 억제하기 위한 몇 가지 실천 전략을 제시했다는 측면에 가치가 있다. 다만, 이 연구는 몇 가지 연구의 한계가 있다. 첫째, 이 연구는 대학 이탈의도에 미치는 더 많은 독립변인을 개발해내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교수자 커뮤니케이션 요인과 대학 평판 요인을 중심으로 지역 대학생들의 대학 전공 만족도와 대학 이탈의도를 예측했다. 그 결과 독립변인이 대학 전공 만족도에 미치는 설명량은 50.1%로 적지 않았으나 독립변인이 대학 이탈의도에 미치는 설명량은 16.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교수자 커뮤니케이션 요인, 대학 평판 요인, 대학 전공 만족도 변인 외에 대학 이탈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더 많은 변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하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후속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대학 이탈의도와 관련성이 검증된 변인을 이 연구의 결과 확인된 교수자 커뮤니케이션 요인(언어적 명료성), 대학 평판(발전성, 사회적 책임) 변인과 함께 활용하여 설명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서비스품질(복지, 시설, 인적 서비스)과 대학 이미지 변인(이진영, 2024),⁴⁰⁾ 교수·학생의 공중관계성 변인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변인(정지연·박노일, 2021),⁴¹⁾ 자아존중감과 부모지지, 사회문화인지도(김경주·송병국·박선영, 2014), 자기효능감, 대학적응(박인선, 2019)과 같은 사회심리적 변인⁴²⁾을 활용해 대

40) 이진영, 앞의 논문, 24-47쪽.

41) 정지연·박노일, 앞의 논문, 73-95쪽.

42) 김경주·송병국·박선영, 「대학생의 학교이탈 관련 변인 탐색: 지방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41권 2호, 2014, 81-106쪽; 박인선, 「대학생의 중도이탈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대학만족, 자기효능감, 대학적응의 상호작용」, 한국교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9.

학 이탈의도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계열별 지역 대학생들의 대학 전공 만족도와 대학 이탈의도 결정요인의 차이를 비교 검증하지 못했다. 지역 대학생들이라고해도 학문 성격에 따라 대학 만족도와 이탈의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이를 세분화하여 측정한 후 연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지역 대학생들의 대학 전공 만족도와 대학 이탈의도 결정요인을 탐색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각 변인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 추후 연구에서는 각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변인 간의 보다 인과관계에 대한 심층적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 문헌

- 구성우·문명현·김병주, 「대학생의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기관 변인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5권 4호,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6, 225-250쪽.
- 김경주·송병국·박선영, 「대학생의 학교이탈 관련 변인 탐색: 지방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41권 2호, 한국교육 개발원, 2014, 81-106쪽.
- 김문정, 「미용종사자의 라포형성이 관계감정과 관계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6권 4호,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20, 45-58쪽.
- 김상엽, “지방 국립대 자퇴생, 수도권 2배 “취업 격차 심해””, <서경방송>, 2024.09.25. (URL: https://iscs.co.kr/ch8/include/article_print.asp?seq=197260)
- 김상태·박규남, 「교양체육 수업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교수자에 의한 라포형성이 수업만족에 미치는 효과: 교수신뢰의 매개효과」,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9권 4호, 한국체육교육학회, 2024, 31-42쪽.
- 김시엽, 「수사면담 시 라포의 구성: 네 가지 라포형성 기법을 사용해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권 3호, 한국문화및 사회문제심리학회, 2013, 487-506쪽.
- 김연종, 「대학생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갈등해결 전략이 대학생할 적응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학연구』 22권 3호,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14, 5-23쪽.
- 김영표, 「교육서비스 품질이 학생만족도 및 이탈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28권 10호, 한국관광레저학회, 2016, 115-131쪽.
- 김용민, 「호텔서비스종사자의 라포형성행동이 대인신뢰에 미치는 영향: 관계감정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9.
- 문승호, 「대학신입생의 중도탈락 예측 연구: 부산 B대학교 사례」,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4권 1호,

- 한국자료분석학회, 2022, 119-132쪽.
- 박선주, 「뷰티서비스 종사자의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재방문의도의 관계에서 라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Asian J Beauty Cosmetol』 22권 3호, 한국피부과학연구원, 2024a, 403-413쪽.
- _____, 「뷰티디자인 교육에서 교수자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라포 및 수업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26권 2호, 한국의상디자인학회, 2024b, 45-56쪽.
- 박슬기·심성우, 「교수자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및 라포형성이 대학생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COVID-19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을 대상으로」, 『관광연구저널』 36권 11호, 한국관광연구학회, 2022, 141-156쪽.
- _____, 이희정·권봉헌, 「대학 명성이 대학 이미지, 만족도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충청 지역 관광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관광레저학회』 30권 7호, 한국관광레저학회, 2018, 381-399쪽.
- 박인선, 「대학생의 중도이탈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대학만족, 자기 효능감, 대학적응의 상호작용」, 한국교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9.
- 송윤희, 「교수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대학생의 감성적 실재감, 라포 및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권 10호, 한국콘텐츠학회, 2020, 259-267쪽.
- 오기영, “수험생 흔드는 그들, ‘대학 홀리건’”, <주간조선>, 2024.08.02.
- 유성동, “[유성동 칼럼] 대학서열화 조장 엘리트주의, 차기 정부는 타파할 수 있을까?”, <교육플러스>, 2021.09.15.
- 이길재·조성은·김지선·박태양,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교육행정학연구』 39권 4호, 교육행정학연구, 2021, 85-106쪽.
- 이미균·한향숙, 「항공서비스전공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호텔경영학연구』 32권 5호,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2023, 99-115쪽.
- 이상희·박명규, 「호텔종사자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라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객만족경영연구』 16권 1호, 한국교육만족경영학회, 2024, 179-197쪽.

- 이성각·조현진, 「국내 지방대학교 관광계열의 교육서비스 품질이 학생만족도 및이탈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24권 2호, 2015, 221-235쪽.
- 이정기, 『대학교육 혁신과 교육커뮤니케이션3』, 커뮤니케이션북스, 2023, 1-112쪽.
- 이진영, 「교육서비스품질 및 대학 이미지가 학생만족 및 이탈의도에 미치는 영향: 지방대학 4년제 호텔·관광전공학과를 중심으로」, 『호텔리조트연구』 23권 1호,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2024, 24-47쪽.
- 인지현, “추가모집에도 신입생 2000여 명 못 채워…미달난 대학 어디?”, <문화일보>, 2024.03.03.
- 정미영, 「언택트시대, 교수자의 이미지와 비언어커뮤니케이션 사용이 학습자의 수업만족도와 수업몰입도에 미치는 영향」,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26권 9호,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23, 1204-1218쪽.
- 정아람, 「스포츠센터의 사회적 서비스스케이프가 라포형성 및 관계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지』 18권 4호, 한국스포츠학회, 2020, 25-34쪽.
- 정지연·박노일, 「교수·학생 공중관계성과 대학이탈 가능성: 대학 PR 관점을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32권 6호, 한국광고학회, 2023, 73-95쪽.
- 조경섭·석중건, 「영상이미지와 대학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광고홍보학보』 71권 1호, 한국광고홍보학회, 2005, 39-69쪽.
- 조윤경, 「대학 교양 수업에서 커뮤니케이션 요인이 학생 흥미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교수자의 명료성·친근성 요인과 학습자 커뮤니케이션 동기를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54권 2호, 언론정보연구소, 2017, 224-258쪽.
- 지성구, 「대학 평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상품학연구』 33권 5호, 한국상품학회, 2015, 53-61쪽.
- 최영준, 「체육계열 대학생이 지각한 교육서비스품질, 전공만족, 기대충족 및 이탈의도의 관계」, 『한국스포츠학회지』 15권 4호,

- 한국스포츠험치학회, 2017, 323-333쪽.
- 최인정, 「지각된 전공 교육서비스 품질과 대학브랜드 이미지가 대학 만족 및 이탈의도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9.
- 최정윤·김나영·서재영, 「주요 성과지표의 시계열 추이에 나타난 지방대학 위기의 특성」, 『KEDI BRIEF』 2023년 30호, 2024. (URL: 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KediBriefForm.do?selectTp=0&board_sq_no=41&article_sq_no=35480)
- 황병일·김범중, 「학생만족, 학생몰입, 대학충성도, 전환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 『고객만족경영연구』 17권 1호,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 2015, 151-170쪽.
- McCroskey, J. C., Richmond, V. P., Sallinen, A., Fayer, J. M., & Barraclough, R. A. "A cross-cultural and multi-behavior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onverbal immediacy and teacher evaluation", *Communication Education*, vol. 44, no. 4,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1995, pp.281-291.

■ 국문초록

학령인구의 감소 속에서 지역 대학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습자들의 전공 만족도를 높이고, 대학 이탈을 막기 위한 대학의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지역 대학생들의 전공 만족도를 높이고 이탈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실증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이 연구는 지역 대학생 280명을 대상으로 교수자의 커뮤니케이션 요인과 교수자와 학습자 간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형성되는 라포, 대학 평판 요인을 활용하여 전공 만족도와 대학 이탈의도 결정요인을 확인해 내 보고자 했다.

연구 결과, 첫째, 지역 대학 대학생들의 대학 전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업 성취도, 교수자의 언어적 명료성, 교수 역량과 대학 시스템의 질이었다. 둘째, 지역 대학생들의 대학 이탈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성, 학년(-), 사립대 재학생, 교수자의 언어적 명료성(-), 발전성(-), 사회적 책임(-), 대학 전공 만족도(-)였다. 이 연구는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대학생의 전공 만족도를 높이고, 대학 이탈의도를 막을 수 있는 전략을 제시했다.

주제어● 교수자 커뮤니케이션, 라포, 대학 평판, 전공 만족도, 대학 이탈의도

■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instructor communication and rapport, and university reputation factors on major satisfaction and university abandonment intention

: Focusing on local college students

Lee, Jeong-Ki / Tongmyong University

Huang, Yu-Tien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 declining school-age population is creating a crisis for local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response, universities are working to increase student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s and prevent student attrition.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empirical research in the field of communication to increase major satisfaction and prevent attrition among local college students.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major satisfaction and withdrawal intention by utilizing instructor communication factors, rapport formed during the communication process between instructors and learners, and university reputation factors among 280 rural university students.

First, the study found that academic achievement, linguistic clarity of instructors, teaching competence, and the quality of the university system are variables that influence local university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university majors. Second, the variables that influence the intention to leave college for domestic college students are male, grades (-), attending a private university, professor's linguistic clarity (-), progression (-), university's social responsibility (-), and satisfaction with college major (-).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a strategy to increase major satisfaction and prevent dropout among rural university students.

Keyword • instructor communication, rapport, university reputation, major satisfaction, intent to leave, university dropout intentions

■ 논문투고일:2025.01.30. ■ 심사완료일:2025.03.11. ■ 게재확정일:2025.03.12. ■

학생의 학교적응과 부모의 성취압력 간의 종단적 관계

: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검증 연구

최 동 규 · 김 창 길*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결과
5. 결론 및 제언

1. 서론

해마다 청소년기의 많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고 있다. 2023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22학년도 초·중·고 학업중 단율은 전년 대비 0.2% 상승한 52,981명(1%)이다. 초등학생이 19,415명(0.7%), 중학생이 9,585명(0.7%), 고등학생이 23,981명(1.9%)이다.¹⁾ 교육 당국에서는 학교 부적응을 예방하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실질적이

* 최동규(제1저자, 교신저자) 부경대학교 겸임교수
김창길(공동저자) 목원대학교 조교수

1) 교육부-2023년 교육기본통계 주요 내용,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6191&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2023.08.31.

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정책적인 접근을 시행하고 있지만, 2020년 초·중·고가 0.4%, 0.5%, 1.1%로 전체 0.6%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계속 증가하는 상황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이러한 학교 부적응의 원인을 고경희, 조규판(2023)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개인적 특성과 사회·환경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하였는데, 개인적 특성으로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대인 관계, 사회성, 우울, 긴장, 불안이고, 사회·환경적인 특성으로는 가정환경, 경제수준, 부모의 양육 태도 및 행동, 학교 환경이라고 하였다.²⁾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학교인데, 학교부적응 문제가 학교 밖 각종 일탈, 협박, 폭력사건 같은 사회 범죄로 문제화될 수도 있음이다. 이광선(2019)은 청소년들이 학교적응의 중요한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방식과 학업에 대한 성취도와 흥미, 친구들 간의 정신적 지지를 말한다. 또한 부모의 양육방식으로 인한 자녀의 우울과 공격성은 학교 생활 적응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부모의 잘못된 양육방식은 결국 아동의 학교적응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³⁾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높은 교육열의 이면에는 성취에 대한 갈망과 압력이 있다. 누구나 압력을 받으면 부담스럽다. 청소년기의 아동들도 높은 교육열로 인해 학업성취에 대한 압력을 꾸준히 받는다. 그러다 보면, 성취 실패는 삶의 만족도를 떨어지게 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들의 삶의 만족도(6.5점)는 나아지는 추세지만, OECD 평균(6.7)보다 낮고, 4) 청소년기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6.8점) 또

2) 고경희·조규판, 「고등학생이 지각한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 부적응 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동북아문화연구』 77권, 2023, 87-109쪽.

3) 이광선,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4) 심수진·남상민·김은아,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 대전:통계청 통계개발원,

한 최하위 수준(30개국 중 27위)으로 떨어진다.⁵⁾ 2021년 한국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도 OECD 국가 중 최하위다.⁶⁾ 부모의 성취압력은 학업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⁷⁾ 부모의 학습관여는 자녀의 학업 영역과 자녀의 삶에 대한 관련성이 높다.⁸⁾ 즉 성취압력은 학업스트레스로, 학업스트레스는 학교적응으로, 학교적응은 행복지수나 삶의 만족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삶에 대한 만족이다. 삶의 만족은 자신의 삶에 적응의 결과이다.

청소년기 학생들의 삶의 만족과 행복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많지만, 가족의 요인, 특히 부모의 양육 태도(성취압력)는 매우 중요하다. 높은 교육열, 학벌주의, 학력주의가 만연하고, 학교부적응으로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에도 현재까지 부모와 학생에 대한 종단적 연구는 많이 연구되지 못하였으며, 단순히 학생이나 학부모로 한정된 연구나 제안들이 다수였고, 구조적 관련성에 기반한 적절한 교육적 제안도 부분적인 것에 머문 경향이 많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업에 대한 성취압력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학교급 전환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궤적을 탐색하는 종단적 고찰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5, 6과 중 1, 2의 학교적응과 성취압력은 상관이 있는가?

2023.

- 5) 심수진·김은아,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대전:통계청 통계개발원, 2022.
- 6) 염유식·성기호,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2021.
- 7) 이의빈·김진원, 「부모의 성취압력이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업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69권, 2022, 129-158쪽.
- 8) 이의빈·김진원·김소연, 「부모의 성취압력 및 학습관여가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실패내성의 매개효과에 주목하여」, 『한국 청소년연구』 34권 4호, 2023, 87-113쪽.

둘째, 초등 5, 6과 중 1, 2의 학교적응과 성취압력 간의 자기회귀교차지연 영향은 어떠한가?

2-1 학교적응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음 시기의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2-2 학교적응은 다음 시기의 성취압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2-3 성취압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음 시기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4 성취압력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음 시기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이론적 배경

1) 학생의 학교적응

적응(adjustment)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이 지각하거나 이해하고, 새로운 상황이나 경험과의 문제 사이에서 생겨날 수 있는 불균형을 균형의 상태로 이끌어가는 과정이다.⁹⁾ 이런 관점에서 학교적응(school life adaptation)이란, 학교라는 사회적 집단에 속한 청소년이 집단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적 환경에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만족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¹⁰⁾

학생이 학교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잘 조화되고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교사, 친구 등 의미있는 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학교 수업에 적극적이며, 학교 규범과 학교행사에 순응하여 독립된 한 개체

9) Piaget, J., *The origins of intelligence in children*, New York, NY: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1952.

10) Bierman, K. L., "School adjustment", R. J. Corsini ed., *Encyclopedia of psychology*, A Wiley-Interscience Publication, John Wiley & Sons, 1994.

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11) 12)} 즉 학교적응은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필수 과제이다.¹³⁾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며, 학교 규칙이나 규범 준수,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맺기 등과 같은 학교 적응력은 생활 전반에 걸쳐 만족과 행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¹⁴⁾ 즉 학교는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학생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곳이다.¹⁵⁾ 그러기에 학교생활은 바람직한 사회화와 정체성 확립에도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성년이 되었을 때 성공적인 사회생활의 기본 바탕이 된다는 차원에서 학교생활 적응은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성장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국외에서는 학교적응을 학교생활과 학생 개인 간의 균형을 이루는 상호관계로 보았으며 이러한 관계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 및 만족감을 느끼는 것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학교적응을 수업에 대한 참여 및 수행, 또래 및 교사와의 원만한 관계, 학교 규범과 질서를 준수하는 것을 통해 정서적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았다.¹⁶⁾

-
- 11) 황영희,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12) 조수연, 「일반가정과 결손가정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13) Erikson, E. H., *Youth: Change and challenge*, Basic Books; 2nd Edition, 1963.
 - 14) 박상희,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 실패내성, 학교적응 관계 연구」, 『초등교육학 연구』 16권 2호, 2009, 59-81쪽.
 - 15) 유희경,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학생과 비다문화학생의 비교」,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 16) 김지은,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형화와 양육행동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학교생활 적응, 즉 학교적응의 구성요소는 연구자들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최근의 학교적응 관련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의 다면적인 영역을 모두 포함하여 복합적으로 유형화하고 있다.¹⁷⁾ 연구자의 초점에 따라 학교적응의 하위영역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학교적응 연구들의 주류는 학교적응의 척도로 교우관계, 교사 관계, 학교 수업, 학교 규칙 등을 포함하고 있기에,¹⁸⁾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학교적응 설문 문항 데이터 자료를 분석하고, 김용래(2000)의 분류를 따라 학교적응을 수업 적응, 친구 적응, 교사 적응, 학교생활 적응으로 세분화하여 재구성하였다.¹⁹⁾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학교적응 변인은 초등 5~6과 중 1~2 패널자료이기 때문에 학교급 전환기의 발달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즉 학교급 전환기 학생들은 이 변환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습 환경의 변화는 중-고 전환기에는 초-중 변환기에 비해 크지 않으며, 학교급 전환기의 청소년들은 개인의 발달적 변화를 경험함과 동시에 교육체제의 변화에 맞춘 학교적응이 요구된다.²⁰⁾

2) 부모의 성취압력

성취압력은 학습자가 지각한 압력으로, 부모가 아이에게 사회적 성공

17) 김종현,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 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내현적 자기에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3.

18) 추지운·이은지, 「고등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경기교육종단연구(GEPS)를 중심으로」, 『교육논총』 40권 4호, 2020, 261-285쪽.

19) 김용래, 「학교학습동기척도(A)와 학교적응척도(B)의 타당화 및 두 척도 변인 간의 관계분석」, 『교육연구논총』 17권, 2000, 3-37쪽.

20) 정 송·우연경·송주연·노연경, 「학교급 전환기 학교적응의 유형화 및 종단적 변화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33권 2호, 2022, 183-209쪽.

21) 황은지,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을 강하게 요구하는 정도를 말한다. 즉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교육적인 관심, 학업성취 기대 등의 기대심리에 대해 자녀가 지각하는 압력이다.²¹⁾ 부모의 성취압력은 학업성취를 목적으로 학습자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이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활동을 기대하며, 능력을 평가하고 정의적 보상을 함으로써 학습자가 지각하는 압력으로 풀이된다.^{22) 23)}

성취압력은 긍정적인 특성과 부정적인 특성을 지니는데,²⁴⁾ 부모는 성취압력을 통해 자녀가 행동방향을 결정하거나 개인 특성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²⁵⁾는 것이다. 양육 차원에서조차 약간의 성취압력은 지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아이가 성장할수록 점차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26) 27) 28) 29) 30)}

부모의 성취압력은 학교적응과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며, 학업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26) 27) 28)} 우울과 무기력, 시험불안 등의 원인이 되

-
- 22) 탁경문, 「지각된 성취압력이 성취동기와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23) 홍은자, 「어머니 성취압력과 학원·학습지 이용이 유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이화교육논총』 12권, 2002, 137-146쪽.
- 24) 김혜진·차기주, 「부모의 성취압력이 아동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 학업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및 그릿의 조절된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권 20호, 2023, 53-65쪽.
- 25) 권예지, 「부모의 성취압력과 고등학생의 학업소진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조절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26) 정지선,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부모성취압력과 자기효능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27) 정영미, 「부모의 성취압력이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학업수행능력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2권 2호, 2021, 2777-2789쪽.
- 28) 이익빈·김진원, 「부모의 성취압력이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업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69권, 2022, 129-158쪽.
- 29) 신동영,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 및 학업소진 간의 관계: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역할」,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30) 김기에·우수경,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과 시험불안 및 우울」, 『아동보육연구』 11권 1호, 2015, 37-53쪽.

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29) 30) 31)} 자녀에게 교육적인 성과를 강요하거나, 지나친 기대를 가하는 양육은 자녀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 안녕감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32) 33) 34) 35)}는 것이다.

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인터넷 사용 욕구를 매개하여 인터넷 중독에까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³⁶⁾ 부모의 성취압력에 대해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보다 높게 지각하면서 심리적인 압박으로 나타나게 된다.³⁷⁾³⁸⁾ 이는 학업성취가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기 삶의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부모는 지속적으로 학업성취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자율성을 존중받고자 하는 존재인데,³⁹⁾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높으면 자녀의 자율성은 감소하고, 반대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수준이 낮으면 부모의 관여 여부가 아닌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학업 활동을 하

-
- 31) 우수정,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3권 4호, 2021, 161-74쪽.
 - 32) 백미선,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자녀의 학습동기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33) 정선아·정윤주,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또래관계와 진로태도성숙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권 21호, 2022, 17-43.
 - 34) 최유현·이진화, 「아동의 자아탄력성, 부모의 성취압력과 아동의 행복감 간의 관계」, 『인문사회 21』 13권 6호, 2022, 2195-2210쪽.
 - 35) 한은수, 「부모의 성취압력이 초등학생의 또래애착을 매개로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 피해경험 유무에 따른 잠재평균분석과 다집단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권 8호, 2022, 587-600쪽.
 - 36) 장재홍, 「부모의 자녀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사용욕구를 매개로」, 『상담학연구』 5권 1호, 2004, 113-128쪽.
 - 37) 오지은·추상엽·임성문, 「부모의 학업적 성취압력과 청소년 자녀의 시험불안 간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0권 4호, 2009, 209-237쪽.
 - 38) 김연정·장현아, 「부모학업성취압력과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정서의 매개효과」, 『교육치료연구』 12권 2호, 2020, 145-162쪽.
 - 39) Deci, E. L. & Ryan, R. M., "Self-determination research: Reflections and future directions", E. L. Deci & R. M. Ryan ed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2002, pp.431-441.

게 된다.⁴⁰⁾ 이러한 성취압력은 다양한데, 일상생활에서 모범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압력, 학업성취와 관련된 압력, 업무에 있어 과업 달성을 요구하는 압력 등이 있다.⁴¹⁾ 한편, 교사의 성취압력도 부모의 성취압력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부모의 성취압력과 마찬가지로 성취압력이 높을수록 우수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대를 부여하고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⁴²⁾ 즉 교사의 성취압력도 학생들의 행동조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 교수의 성취압력도 대학생의 생활적응의 모든 하위변인인 사회적 적응, 학업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⁴³⁾

이자연(2017)은 성취압력을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로 구분하였는데,⁴⁴⁾ 본 연구에서는 성취압력 변인은 부모의 성취압력으로 정의하고, 연구의 목적을 위해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성취압력 설문 문항을 재분석하여, 성취압력의 하위변인을 학업관리와 시간관리로 재구성하여 연구하였다.

3) 학교적응과 성취압력의 선행연구

초등 고학년(5, 6)의 경우, 부모의 성취압력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학업 스트레스와 그릇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가 직접적으로

40) 서승희·박주희, 「중학생의 내부통제성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율적 동기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의 조절효과」, 『Human Ecology Research』 61권 3호, 2023, 429-443쪽.

41) 최해수,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초등학생의 부담감 및 반응 행동 양식의 관계」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42) 정주영, 「교사의 성취압력, 중학생의 시험스트레스, 자기조절학습능력 간의 관계에 대한 종단분석」, 『한국교육학연구』 21권 2호, 2014, 173-192쪽.

43) 신우단,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교수 학업성취압력이 대학생들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업소진의 매개효과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44) 이자연,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비교성향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학업을 독려하기보다는 아동의 내적 심리상태를 살피고 그릿과 같은 특질을 키워주어야 한다⁴⁵⁾고 보고하였다. 또한 초등학생이 지각한 학업성취압력은 자율성, 학업스트레스를 매개로 학교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⁶⁾ 초등 4, 6학년의 경우, 성취압력은 학교적응과 상관은 있으나, 유의미한 영향 관계는 없었고, 도리어 부모의 신뢰가 높을수록 정적상관을 가지며,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⁷⁾

초등 5, 6학년의 경우, 조미학(2011)은 학업성취압력은 학교생활적응과 부적 상관이 있으며, 행복감과 학교적응은 정적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⁴⁸⁾ 즉 부모의 성취압력은 낮을수록, 아동의 행복감이 높을수록 초등학생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동일한 대상으로, 박세희(2015)는 부모의 성취압력은 아동이 성취압력을 높게 지각하는 상위집단의 경우에 학교적응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으나, 하위집단과는 상관없으며,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의 아동이 학업적응, 사회적응, 환경 적응 등의 학교생활적응에 더 잘 적응한다고 보고하였다.⁴⁹⁾ 김나래(2022)도 성취압력과 학교적응 간에는 부적상관이 있으며, 자율성 욕구 충족이 매개효과가 있으며, 성취압력이 높을수록 자율성 욕구 충족과 학교적응은 낮아진다고 보고

45) 최혜선·한세영, 「부모의 성취압력이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업스트레스와 그릿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권 8호, 2021, 499-510쪽.

46) 연은모·최효식, 「부모의 양육스타일, 학업성취압력이 초등학생의 학교적응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율성, 학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검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권 14호, 2022, 313-328쪽.

47) 박지영,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부모신뢰가 심리적 안녕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48) 조미학,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아동의 행복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49) 박세희, 「아동이 지각한 부모 학업성취압력과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하였다.⁵⁰⁾ 중학생(2, 3)의 경우, 어머니의 성취압력은 자녀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가진다.⁵¹⁾ 즉 청소년이 어머니의 성취압력을 높게 지각할수록 전반적으로 학교에 적응을 잘한다는 것이다. 또한 성취압력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강하게 느끼며, 학년별 주효과가 있었는데, 1학년이 2, 3학년에 비해 높았다.⁵²⁾⁵³⁾ 학업성취압력은 학교적응 간에는 부적상관이 있고,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도의 매개효과가 있었다.⁵⁴⁾ 즉 성취압력이 높으면 학업스트레스가 높고, 학교적응은 낮는데,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참여도가 높을수록 학교적응도 높다는 것이다. 백은희(2020)도 부적상관을 보고하였는데, 사회적 지지가 학업성취압력의 부정적 요인에 영향을 미쳐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게 한다는 것이다.⁵⁵⁾ 홍태연(2018)도 성취압력을 남학생이 높게 지각하며, 학년별 차이는 보이지 않고, 부모의 성취압력을 높게 지각하는 집단이 학교적응을 잘 한다⁵⁶⁾고 박세희(2015)와 동일하게 보고하였다.⁵⁷⁾ 김유진(2010), 하문선(2022)은 부모의 성취압력은 학교적응과 부적

- 50) 김나래, 「초등학교 고학년이 지각한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 자율성 욕구 충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3권 5호, 2022, 639-654쪽.
- 51) 박은성,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공감과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 52) 이지영, 「중학생의 귀인성향 및 부모학업성취압력 지각과 학교생활 적응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와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53) 홍태연,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자기격려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54) 정민·김동진, 「중학생의 학업성취압력 및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도의 조절효과」, 『한국발육발달학회지』 27권 2호, 2019, 129-137쪽.
- 55) 백은희, 「중학생이 지각한 학업성취압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 56) 홍태연,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자기격려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57) 박세희, 앞의 논문, 2015.

인 직접효과가 있으며, 학업실패내성을 매개로 정적인 간접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58) 59)}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성취압력은 학교적응에 부적상관이 있으며, 부모-자녀 간 개방형 의사소통은 교사, 친구 규칙 등의 학교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⁶⁰⁾ 부모와의 소통이 중요함을 피력하였다. 이상으로 성취압력은 학교적응에 부적 상관과 영향을 미치며, 매개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의 방법

1) 데이터 및 표본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은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발달 과정을 출생부터 장기적으로 추적·조사된 것으로, 2008년 1차년도 조사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계획된 조사이며, 2023년 16차년도 조사까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이 달라지며 사춘기를 거치는 초등에서 중학교 시기인, 2019년 초5(12차), 2020년 초6(13차), 2021년 중1(14차), 2022년 중2(15차)까지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사회성 발달 변인인 학교적응과 양육 특성 변인 중 양육방식인 성취압력에 대한 종단적 관계를 알아보고자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effect Model: ARCL)을 이용하여 자

58) 김유진, 「중학생의 비합리적 신념 및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실패내성의 매개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59) 하문선,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업스트레스 및 학교적응 간 관계: 실패내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한국초등교육연구』 33권 3호, 2022, 85-99쪽.

60) 박혜인,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학업성취압력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학업소진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기회귀교차지연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응답이 없는 대상은 당연히 제외하였으며, 한 시점이라도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결측치가 포함된 자료는 완전제거 방식을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측치 완전 제거법은 연구자 입장에서는 조금 비효율적이긴 하나, 가장 보편적인 결측치 처리 방법이다. 그러나 편향(Bias)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의 총량이 충분한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이다. 최종 분석에 사용한 표본 수는 4개년도(12차~15차, 2019년~2022년) 합본수 2,150명 중 결측치를 완전히 제거한 1,176명이다.

2) 변인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은 학교적응, 성취압력인데, 조사가 진행되면서 추가 생성된 문항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성취압력 변인의 문항은 총 15문항으로, 초등과 중등 문항이 동일한데, 학교적응 변인의 문항은 연구 대상인 2019~2020년(12차, 13차) 초등 5, 6학년의 설문 문항은 총 21문항이고, 2021~2022년(14차, 15차) 중 1, 2학년의 설문 문항은 총 38문항이다.

그런데, 학교적응 문항이 초등과 중등 문항 내용이 서로 달라, 요인분석을 통해 하위변인을 설정, 4가지로 세분화하였다. 이 문항은 학교급 전환기 학교적응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러한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변수의 수를 줄여 다시 세분화한 것은 오차를 줄이고 정상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Bandalos & Finney, 2001; 허균, 2012), 이론적 배경에 따라 문항을 묶어 측정변수를 구성, 세분화한 변인들은 평균을 내어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세분화 과정에서 공통적인 요인으로 묶이는 문항 중에서 요인분석의 조건을 충족하는 요인값이 높은 순으로 4개 문항씩을 선정하여 다시 3개 하위변인(수업, 학교생활, 선생님)으로 세분화가 잘 되었으나, 1개 하위변인(친구)은 최종 2개 문항만 선정되었다. 반면에 성취압력 문항은 초등과 중등 문항이 동일하였지만, 요인분석의 요건을 충족한 결과로 나타난 2

개의 공통요인으로 묶어 하위변인(학업관리, 시간관리)으로 분류하고, 평균을 내어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1]은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인과 설문 문항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변인 및 활용 설문 문항

변인 및 문항 내용	12차-초5 (2019)	13차-초6 (2020)	14차-중1 (2021)	15차-중2 (2022)	Cronbach's α
학교 적응	수업 J05-2 (1,2,3,4)	J05-9 (1,2,3,4)	J07-2 (1,2,3,5)	J10-1 (1,2,3,5)	.746 (.758)
	친구 J05-2 (11,15)	J05-9 (11,15)	J07-2 (11,12)	J10-1 (11,12)	.664 (.675)
	선생님 J05-2 (17,18,20,21)	J05-9 (17,18,20,21)	J07-2 (25,26,27,28)	J10-1 (25,26,27,28)	.587 (.591)
	학교 생활 J05-2 (6,8,9,10)	J05-9 (6,8,9,10)	J07-2 (31,32,33,34)	J10-1 (31,32,33,34)	.661 (.674)
성취 압력	학업 관리 J02 (1~10,11,15)	J02-13 (1~10,11,15)	J10-1 (1~10,11,15)	J10-1 (1~10,11,15)	.789 (.789)
	시간 관리 J02 (10,12,13,14)	J02 (10,12,13,14)	J02 (10,12,13,14)	J02 (10,12,13,14)	.732 (.732)

* Cronbach's α 계수: () 표준화된 계수

연구 변인의 모든 항목 응답 척도는 성취압력 문항은 초등과 중등 4개년도(12차~15차, 2019년~2022년)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까지 모두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반면에 학교적응 문항은 중등 문항 2개년도(14차~15차, 2021년~2022년)는 5점 척도이지만, 학교적응 초등 문항 2개년도(12차~13차, 2019년~2020년)는 4점 척도로 되어있었다. 이에 세분화 과정에서 다른 변인들과 동일하게 5점 척도로 변수계산(환산)을 하여 모형분석에 사용하였다. 학교적응의 12차~15차 신뢰도는 수업이 .746, 친구가 .664, 선생님이 .587, 학교생활이 .661이었고, 성취압력의 12차~15차 신뢰도는 학업관리가 .789, 시간관리가 .732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본 연구모형은 연구 목적과 문제에 따라 학교적응과 성취압력 간의 종단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으로 설정하였다.([그림 1]참조)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effect Model: ARCM)은 종단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시간의 변화에 따라 같은 변수의 관계 또는 다른 변수 간의 관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특정 시점의 값이 이전 시점의 값에 의해 설명되는 자기회귀모형을 다변량모형으로 확장한 것으로, 측정오차를 통제하면 잠재변인 간의 교차지연효과를 통계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홍세희·유숙경, 2004). 즉, 자기회귀효과는 동일 변수가 다음 시점에 미치는 효과를 의미하고 교차지연효과는 서로 다른 변수가 시간 변화에 따라 미치는 효과를 의미하는 것이다.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부모의 성취압력은 학년을 올라가면서 변화되고 이에 아동의 학교적응은 시간의 궤적에 따라 새롭게 변화될 것이다. 이를 위한 적합한 연구방법으로 이 모형을 선택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프로그램인 Amos를 활용하였다. 종단 자료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료수집 과정에서 결측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우도추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 방식을 활용하여 추정한다(Arbuckle & Wothke, 1999; Enders & Bandalos, 2001).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의 검증을 위해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측정동일성과 경로동일성, 오차공분산동일성이 만족되어야 하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8개의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모형 1: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 기본모형

모형 2: 학교적응의 측정동일성제약모형

모형 3: 학교적응과 성취압력의 측정동일성제약모형

모형 4: 학교적응과 성취압력의 측정동일성 제약과 학교적응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제약모형

모형 5: 학교적응과 성취압력의 측정동일성 제약과 학교적응과 성취압력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제약까지의 모형

모형 6: 학교적응과 성취압력의 측정동일성 제약과 학교적응과 성취압력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제약 그리고 학교적응에서 성취압력으로의 교차지연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제약까지의 모형

모형 7: 학교적응과 성취압력의 측정동일성 제약과 학교적응과 성취압력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제약 그리고 학교적응과 성취압력의 서로 교차지연계수 모두에 대한 경로동일성제약까지의 모형

모형 8: 학교적응과 성취압력의 측정동일성 제약, 학교적응과 성취압력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제약, 학교적응과 성취압력의 서로 교차지연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제약 그리고 오차공분산 동일성제약모형

모형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χ^2 및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LI(Turker-Lewis index) 등과 같은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⁶¹⁾ 모형 적합도 판단 기준은 TLI, CFI 값은 .90 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로 해석하였다.⁶²⁾

⁶³⁾ RMSEA 경우 Browne & Cudeck(1993)은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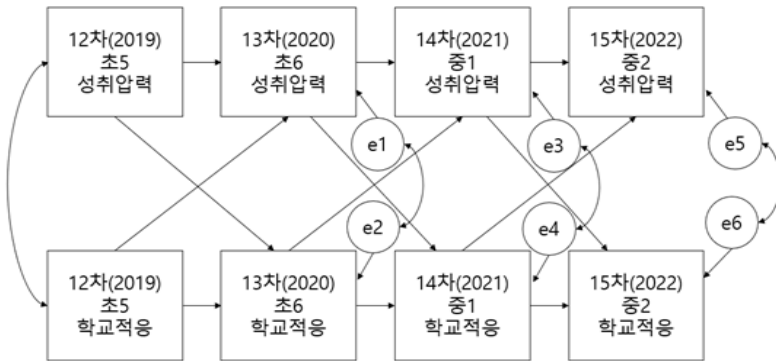
61) Tucker, L. R. & Lewis, C.,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vol. 38, 1973, pp.1-10.

62) Hu, L. Z. & Bentler, P. M.,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vol. 6, no. 1, 1999, pp.1-55.

63) 홍세희, 「구조방정식 적합도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19권 1호, 2000, 167-177쪽.

이하이면 양호한 적합도, .10이하는 보통 적합도, .10 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해석하였다.⁶⁴⁾ Hu & Bentler (1999)의 경우는 .08이하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하기도 하였다.⁶⁵⁾ 또한, 각각의 연구모형은 CFI값의 변화량 및 TLI, RMSEA 값의 변화를 고려하여 비교하였다. 각 연구모형의 비교된 변화값(ΔCFI)이 .01을 초과하여 변하지 않으면 동등화 제약이 기각되지 않는다⁶⁶⁾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경쟁모형 8개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4. 연구의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64) Browne, M. W. & Cudeck, R.,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vol. 21, no. 2, Sage, 1993.

65) Hu, L. Z. & Bentler, P. M., Ibid., pp.1-55.

66) Cheung, G. W. & Rensvold, R. B.,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s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vol. 9, no. 2, 2002, pp.233-255.

본 연구에서 선정된 변인은 성취압력, 학교적응이다. 본 연구에서 변인 점수는 각 문항별 개별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 연구의 상대적 비교를 위해 편의상 합계 또는 평균을 활용하여 수치들을 산출하였다. 변인들의 4년간 기술통계 특징은 학교적응 변인 수치(3~4점대)가 성취압력 변인 수치(1~2 점대)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초등(5, 6)에서는 전체적으로 학교적응과 성취압력 평균이 학년이 올라 갈수록 수치가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성을 띄는 반면에, 중등(1,2)에서는 학교적응 중 선생님 변인(.314→.317)과 성취압력 변인(학업관리, 시간관리)은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는데, 중등이 초등보다 전체적인 변인들의 평균 수치는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각 변인들의 왜도는 가장 큰 절대값이 1.34이고, 첨도는 2.19로 나타나, 왜도의 절대값이 3을 초과하지 않고, 첨도의 절대값이 10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정규성 분포의 기준을 충족하였다.⁶⁷⁾ 표준편차는 최소 .48에서 최대 1.00을 보이며 양호하였다.

변인들의 4년간 상관분석의 특징은 학교적응과 성취압력의 변인 간에는 전체적으로 크고 유의미한 상관은 보이지 않으나, 변인 내에서는 약간의 작고 유의미한 상관(.1점대~.7점대)을 보여준다. 즉 학교적응의 하위변인인 수업, 친구, 선생님에서는 상관이 없으나, 생활과 성취압력 간에는 미미한 상관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동일 변인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관계수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초등(5, 6)이 중등(1, 2)보다 계수의 수치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 선정된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는 학교적응과 성취압력의 변인 간 상관은 미세하게 일부 상관은 있긴

67) Kline, R. B.,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NY: Guilford Press, 2005; Kline, R. B.,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ethodology in the Social Sciences Series) 4th edition*, New York, NY: Guilford Publications, 2015.

하지만, 또 일부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변인 내(하위 변인 간) 상관관계는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변인 간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는 [표 2]와 같다.

[표 2] 측정 변인 간의 상관계수와 기술통계치 (N=1,176)

변인	초5(12차, 2019년)					초6(13차, 2020년)					중1(14차, 2021년)					중2(15차, 2022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적용19수업	1																								
2 적용19친구	.525"	1																							
3 적용19친생남	.429"	.355"	1																						
4 적용19생활	.581"	.490"	.414"	1																					
5 상취19학업	-.085"	-.089"	-.063"	-.110"	1																				
6 상취19시간	-.071"	-.097"	-.056"	-.117"	.665"	1																			
7 적용20수업	.504"	.353"	.254"	.380"	-.043	-.018	1																		
8 적용20친구	.337"	.411"	.178"	.215"	-.100"	-.085"	.502"	1																	
9 적용20친생남	.274"	.209"	.296"	.267"	-.038	-.028	.472"	.405"	1																
10 적용20생활	.353"	.276"	.224"	.414"	-.052	-.044	.583"	.464"	.369"	1															
11 상취20학업	-.024	-.026	-.052	-.089"	.510"	.365"	-.029	-.065"	-.048	-.066"	1														
12 상취20시간	-.009	0.001	-.037	-.056	.384"	.446**	-.026	-.027	-.057	-.068"	.696"	1													
13 적용21수업	.367"	.279"	.147"	.268"	-.036	-.016	.421"	.253"	.177"	.311"	0.034	0.018	1												
14 적용21친구	.188"	.308"	.130"	.144"	-.047	-.058"	.215"	.305"	.168"	.175"	0.038	-.007	.265"	1											
15 적용21친생남	.118"	.153"	.169"	.120"	-.035	-.052	.174"	.160"	.286"	.136"	-.028	-.046	.246"	.187"	1										

변인	초5(12차, 2019년)					초6(13차, 2020년)					중1(14차, 2021년)					중2(15차, 2022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6 적응21생활	.267 [*]	.185 [*]	.129 [*]	.310 [*]	-.0035	.0007	.315 [*]	.202 [*]	.213 [*]	.392 [*]	-.0002	.0004	.455 [*]	.262 [*]	.256 [*]	1									
17 성취21학년	-.001	-.0021	-.060 [*]	-.086 [*]	.433 [*]	.328 [*]	-.0029	-.0052	-.0025	-.0057	.510 [*]	.387 [*]	-.0019	-.085 [*]	-.0025	-.128 [*]	1								
18 성취21시간	-.0002	-.0013	-.0036	-.087 [*]	.334 [*]	.381 [*]	-.001	-.0031	-.0004	-.064 [*]	.374 [*]	.425 [*]	-.0035	-.097 [*]	.001	-.149 [*]	.772 [*]	1							
19 적응22수업	.372 [*]	.267 [*]	.117 [*]	.221 [*]	-.0056	-.0003	.408 [*]	.253 [*]	.146 [*]	.267 [*]	.004	.034	.563 [*]	.221 [*]	.134 [*]	.319 [*]	-.0037	-.0025	1						
20 적응22친구	.188 [*]	.282 [*]	.068 [*]	.135 [*]	-.0033	-.005	.211 [*]	.296 [*]	.134 [*]	.175 [*]	.0019	.001	.189 [*]	.448 [*]	.104 [*]	.152 [*]	-.0002	.0008	.282 [*]	1					
21 적응22선생님	.155 [*]	.168 [*]	.192 [*]	.132 [*]	-.0033	-.0033	.195 [*]	.148 [*]	.227 [*]	.133 [*]	.0005	-.0003	.138 [*]	.137 [*]	.421 [*]	.152 [*]	-.0033	.0037	.200 [*]	.206 [*]	1				
22 적응22생활	.245 [*]	.182 [*]	.152 [*]	.263 [*]	-.082 [*]	-.0048	.262 [*]	.158 [*]	.181 [*]	.269 [*]	-.065 [*]	-.0044	.235 [*]	.110 [*]	.105 [*]	.396 [*]	-.131 [*]	-.075 [*]	.348 [*]	.199 [*]	.268 [*]	1			
23 성취22학년	.0012	-.0024	-.0027	-.0045	.378 [*]	.293 [*]	.0001	-.0037	-.0033	-.0054	.505 [*]	.373 [*]	.0002	-.077 [*]	-.061 [*]	-.063 [*]	.556 [*]	.431 [*]	-.0033	-.072 [*]	.000	-.077 [*]	1		
24 성취22시간	-.001	-.002	-.0033	-.074 [*]	.281 [*]	.343 [*]	-.001	-.0029	-.0025	-.0044	.388 [*]	.395 [*]	-.0004	-.0052	-.0039	-.0035	.418 [*]	.447 [*]	-.004	-.081 [*]	.0015	-.090 [*]	.761 [*]	1	
평균	3.40	3.76	3.33	3.58	2.66	2.00	3.31	3.68	3.17	3.54	2.65	1.98	3.80	4.35	3.14	4.15	2.44	2.05	3.73	4.30	3.17	4.09	2.47	2.07	
표준편차	0.48	0.53	0.68	0.46	0.78	0.76	0.48	0.54	0.66	0.46	0.92	0.81	0.70	0.74	0.97	0.63	0.86	0.86	0.72	0.79	1.00	0.66	0.90	0.85	
왜도	-.038	-.062	-.062	-.017	0.28	0.69	-.024	-.051	-.043	0.04	0.48	0.74	-.042	-1.25	-.005	-.060	0.35	0.64	-.059	-1.34	-0.16	-.067	0.33	0.62	
첨도	0.88	0.93	0.19	-.033	-.012	0.51	0.75	1.04	0.09	-.028	-.015	0.11	0.42	1.79	-.042	0.92	-.034	-.008	0.88	2.19	-.046	1.13	-.048	0.05	

* $p < .05$, ** $p < .01$, *** $p < .001$

2) 모형 검증

(1) 측정모형의 검증

본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모든 측정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변인 간에는 일부, 변인 내에는 다수가 유의미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표 3]과 같이 측정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모든 경로에서 회귀계수 값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01$). 모든 경로의 표준화 회귀계수 값 또한 최저가 $-.138$, 최고가 $.657$ 로 모두 양호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모형 적합도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N=1,176)

모형	χ^2	df	P	IFI	TLI	CFI	RMSEA
측정모형	2.618	192	.000	.973	.960	.972	.037

(2) 동일성의 검증

본 연구모형의 동일성 검증은 측정동일성제약, 경로동일성제약, 오차공분산 동일제약을 검증을 위해 8가지의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모형1부터 모형 8까지 모형 간의 CFI 값이 .01 을 초과하여 떨어지지 않고 있으며,⁶⁸⁾ TLI, CFI은 모두 .9 이상이고 RMSEA 값은 .05 이하이므로 모형의 적합도는 좋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홍세희, 2000). 전체적인 모델적합도 지수가 모형 8로 갈수록 단계별로 조금씩 좋아졌으며 다른 지수도 참고하여, 모형을 가장 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오차공분산동일성제약모형을 채택하여 검증 결과를 확인하였다.

[표 4]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적합도(N=1,176)

	모형	χ^2	df	P	IFI	TLI	CFI	RMSEA
모형1	기본모형	3.307	202	.000	.959	.943	.959	.044

68) Cheung, G. W. & Rensvold, R. B., op. cit., pp.233-255.

모형2	학교적응 측정동일성	3.248	211	.000	.958	.945	.958	.044
모형3	성취압력 측정동일성	3.240	214	.000	.958	.945	.957	.044
모형4	학교적응 자기회귀계수 경로동일성	3.235	216	.000	.957	.945	.957	.044
모형5	성취압력 자기회귀계수 경로동일성	3.223	218	.000	.957	.945	.957	.043
모형6	학교적응→성취압력 교차지연계수 경로동일성	3.195	220	.000	.957	.946	.957	.043
모형7	학교적응→성취압력 교차지연계수 경로동일성	3.185	222	.000	.957	.946	.957	.043
모형8	오차공분산 동일성	3.199	224	.000	.956	.946	.956	.043

(3) 구조모형의 검증 결과

동일성 검증 결과 모든 모형이 모든 지수가 비교적 적합하게 나타났다. 최종 모형으로 가장 간명성을 추구한 모형인 오차공분산동일성 제약까지 한 [모형 8]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오차공분산동일성제약모형의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경로계수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는 [표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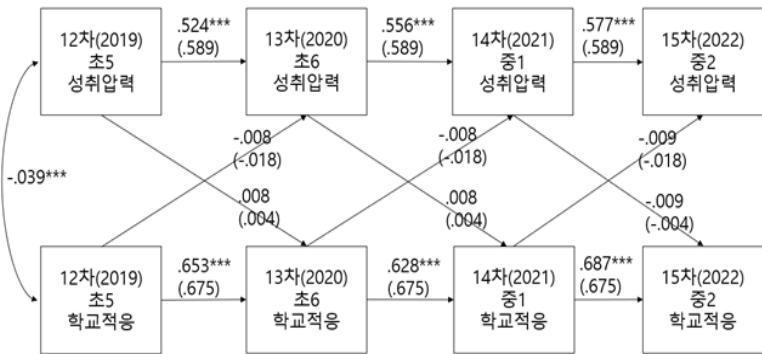
[표 5] 최종모형(모형8)의 경로계수 추정치(N=1,176)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성취압력13←성취압력12	0.589***	31.843	0.524
학교적응13←학교적응12	0.675***	33.649	0.653
성취압력13←학교적응12	-0.018	-0.509	-0.008
학교적응13←성취압력12	0.004	0.47	0.008
성취압력14←성취압력13	0.589***	31.843	0.556
학교적응14←학교적응13	0.675***	33.649	0.628
성취압력14←학교적응13	-0.018	-0.509	-0.008
학교적응14←성취압력13	0.004	0.47	0.008
성취압력15←성취압력14	0.589***	31.843	0.577
학교적응15←학교적응14	0.675***	33.649	0.687
성취압력15←학교적응14	-0.018	-0.509	-0.009
학교적응15←성취압력14	0.004	0.47	0.009

* $p<.05$, ** $p<.01$, *** $p<.001$

구조모형의 검증 결과는 모든 경로에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설정한 12개의 경로 중에서 6개의 경로만 유의미하였다. 추정 결과 현재의 학교적응과 성취 압력은 각 변인 내에서는 한 시점에서 다음 시점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만, 각 변인 간에는 서로 한 시점씩 지연되어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회귀효과는 있지만, 교차지연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는 최종모형의 경로추정 계수를 보여준다.

자기회귀효과의 변화 양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취압력은 .524, .556, .557로 조금씩 계속 증가하였지만, 학교적응은 .653, .628, .687로 학교급 전환기인 중1 시기에는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학교급 전환에 따라 부모의 성취압력은 상급학교로 상급학교 진학할수록 계속 증대하는데 반면에, 학교적응은 중학교 진학 후에 적응의 어려움을 겪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중학교 체제에 적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 연구로 본 연구와 동일한 모형으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학교급 전환이 이루어진 결과가 나온다면, 아마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 $p < .001$.) 밖 수치: 표준화 회귀계수, () 안 수치: 비표준화 회귀계수

[그림 2] 최종모형의 경로추정 계수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PSKC) 2019년 초5(12차), 2020년 초6(13차), 2021년 중1(14차), 2022년 중2(2022)까지 자료를 활용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이용하여 학교적응과 성취압력 간의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인들의 4년간 상관분석의 특징은 학교적응과 성취압력의 변인 간에는 전체적으로 크고 유의미한 상관은 보이지 않으나, 변인 내에서는 약간의 작고 유의미한 상관(.1점대~.7점대)을 보여준다. 즉 학교적응의 하위변인인 수업, 친구, 선생님에서는 상관이 없으나, 생활과 성취압력 간에는 미미한 상관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동일 변인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관계수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초등(5, 6)이 중등(1, 2)보다 계수의 수치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 선정된 변인들의 상관 분석 결과는 학교적응과 성취압력의 변인 간 상관은 미세하게 일부 상관은 있긴 하지만, 또 일부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변인 내(하위 변인 간) 상관관계는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구조모형의 검증 결과는 모든 경로에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설정한 12개의 경로 중에서 6개의 경로만 유의미하였다. 추정 결과 현재의 학교적응과 성취 압력은 각 변인 내에서는 한 시점에서 다음 시점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만, 각 변인 간에는 서로 한 시점씩 지연되어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회귀효과는 있지만, 교차지연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회귀효과의 변화 양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취압력은 .524, .556, .557로 조금씩 계속 증가하였지만, 학교적응은 .653, .628, .687로 학교급 전환기인 중1 시기에는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학교급 전환에 따라 부모의 성취압력은 상

급학교로 상급학교 진학할수록 계속 증대하는데 반면에, 학교적응은 중학교 진학 후에 적응의 어려움을 겪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중학교 체제에 적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논의점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 두 연구 변인 간 상관이나 영향이 일부 있거나 없는 것은 부모의 성취압력은 긍정적인 특성과 부정적인 특성이 있다는 연구들과 학교적응, 교우관계 등에 어려움을 준다는 결과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고찰된 것처럼, 일부 상관이나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은 상관은 있으나, 유의미한 영향관계는 없는 연구(박지영, 2007; 조미학, 2011; 백은희, 2020))을 지지하고, 어머니 성취압력만 학교적응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연구(박은성, 2021)나 높은 성취압력 지각집단이 학교적응을 잘한다는 연구(박세희, 2015; 홍채연, 2018, 박혜인, 2020)를 지지하며, 상관이나 영향력이 없다는 것은 매개효과를 지닌다는 연구들(최혜선, 한세영, 2021; 연은모, 최효식, 2022; 김나래, 2022; 정민, 김동진, 2019)을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성취압력과 학교적응 간에는 서로 상관과 영향력이 있으며 다양한 매개효과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구조모형의 결과, 자기회귀효과는 있지만, 교차지연효과는 없는 것은 두 변인 간의 상관이 미미하기 때문이며, 부모의 성취압력은 학교급이 전환되면서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그 정도는 증가하기 때문이고, 학교적응은 학교급 전환 초기인 진학한 상급학교 1학년 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당연히 적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건강한 청소년의 성장에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부정적 영향 요인은 줄이고, 긍정적 영향 요인은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학교는 학습자가 학습 기회, 사회적 경험을 제공받는 장소이며, 학교의

제반 요소들,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규칙, 분위기, 학교환경, 교사 및 친구와의 관계 등을 통해 적응해 가는 성장 발달의 현상이다.⁶⁹⁾ 따라서 부모의 성취압력 행사는 양육 차원에서도 아동이 성장할수록 점차적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학부모와 학교, 교육 당국에서는 학교부적응 예방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5.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식은 부모를 닮아간다는 말처럼,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학습의 모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가정의 회복을 통한 학부모들의 인식과 태도 전환이다. 학교 교육의 붕괴 원인에는 가정교육의 부재 또는 미흡이 있다.⁷⁰⁾ 청소년기 아동이 직면하는 생활 경험에서 가정과 학교에서의 경험이 지대할 것인데, 여기서 제대로 된 대처 행동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 이후에 다양한 사회적 문제 행동으로 이어진다. 즉 가정에서부터 문제를 안고 학교에 진학하는 것인데, 부모와의 유대를 바탕으로 한 가정교육의 정도에 따라 청소년 문제 행동의 확률은 달라진다. 학교생활 부적응의 비율은 매년 40%를 유지하는데, 상당수가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른 가정교육의 부재나 미흡인 경우일 것이다.

둘째, 학부모 재교육에 대한 제대로 된 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교원들은 매년 역량강화 연수를 필수, 선택별로 이수를 하듯이, 학부모 역시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원들에게 학부모가 민원이나 회피, 기피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고 싶은 대상으로 바뀌어야 한다. 예전처럼 학교공동체의 일원으로 그 위

69) 이규미·김명식, 「중학생 학교적응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권 5호, 2008, 27-40쪽.

70) 정 일, 「학교교육 붕괴위기의 종합적 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최종보고서 2002(2002.08.31.).

상을 회복하여야 한다.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각 지역 단위별로 운영하는 학부모회의 수정 및 개편이 있다. 2016년 조례 제정으로 학부모회가 운영되고 있다. 학교교육 발전을 위해 학부모가 학교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 활동에는 학부모 모니터링, 학부모 자원봉사, 기타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자녀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등이 있고, 단위학교 자체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현장에서는 상급학교로 갈수록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출범 취지에 걸맞게 제대로 된 운영이 절실하다. 즉 학부모 재교육 차원에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는 아쉽게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아동패널은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발달 과정을 출생부터 장기적으로 추적·조사된 것으로, 현재까지는 고등학교는 조사되지 않은, 초등 5(12차)에서 중 2(15차) 대상 연구이다. 학교부적응 비율도 고등학교 비율이 높고, 학업성취압력도 고등학교가 높기에, 20차까지의 차후 고등학교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고경희·조규판, 「고등학생이 지각한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 부적응 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동북아문화연구』 77권, 2023, 87-109쪽.
- 교육부, 「2023년 교육기본통계 주요 내용」, 교육부 08-31(목) 조간보도 자료, 2023.
- 권예지, 「부모의 성취압력과 고등학생의 학업소진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조절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김나래, 「초등학교 고학년이 지각한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 자율성 욕구 충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3권 5호, 2022, 639-654쪽.
- 김기에·우수경,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과 시험불 안 및 우울」, 『아동보육연구』 11권 1호, 2015, 37-53쪽.
- 김연정·장현아, 「부모학업성취압력과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정서의 매개효과」, 『교육치료연구』 12권 2호, 2020, 145-162쪽.
- 김용래, 「학교학습동기척도(A)와 학교적응척도(B)의 타당화 및 두 척도 변인 간의 관계분석」, 『교육연구논총』 17권, 2000, 3-37쪽.
- 김유진, 「중학생의 비합리적 신념 및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실패내성의 매개효과」, 동아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김종현,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 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내현적 자기에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3.
- 김지은,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형화와 양육행동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 김혜진·차기주, 「부모의 성취압력이 아동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 학업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및 그릿의 조절된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권 20호, 2023, 53-65쪽.

- 박상희,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 실패내성, 학교적응 관계 연구」, 『초등교육학연구』 16권 2호, 2009, 59-81쪽.
- 박세희, 「아동이 지각한 부모 학업성취압력과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박은성,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공감과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 박지영,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부모신뢰가 심리적 안녕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박혜인,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학업성취압력과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학업소진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 백미선,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자녀의 학습동기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백은희, 「중학생이 지각한 학업성취압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 서승희·박주희, 「중학생의 내부통제성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율적 동기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의 조절효과」, 『Human Ecology Reserarch』 61권 3호, 2023, 429-443쪽.
- 신동영,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 및 학업소진 간의 관계: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역할」,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신우단,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교수 학업성취압력이 대학생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업소진의 매개효과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 심수진·남상민·김은아, 「국민 삶의 질 2023(보고서)」, 대전:통계청 통계개발원, 2023.
- 심수진·김은아,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보고서)」, 대전:통계청

통계개발원, 2022.

- 연은모·최효식, 「부모의 양육스타일, 학업성취압력이 초등학생의 학교적응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율성, 학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검증」, 『학습자중심교과 교육연구』 22권 14호, 2022, 313-328쪽.
- 염유식·성기호,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2021. (https://kossda.snu.ac.kr/bitstream/20.500.12236/25322/4/kor_report_20210010.pdf)
- 오지은·추상엽·임성문, 「부모의 학업적 성취압력과 청소년 자녀의 시험불안 간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0권 4호, 2009, 209-237쪽.
- 우수정,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3권 4호, 2021, 161-174쪽.
- 유희경,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의 비교」,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21.
- 윤정일, 「학교교육 붕괴위기의 종합적 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최종보고서 2002(2002.08.31.).
- 이광선,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 이규미·김명식, 「중학생 학교적응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권 5호, 2008, 27-40쪽.
- 이의빈·김진원, 「부모의 성취압력이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업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69권, 2022, 129-158쪽.
- 이의빈·김진원·김소연, 「부모의 성취압력 및 학습관여가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실패내성의 매개효과에 주목하여」, 『한국청소년연구』 34권 4호, 2023, 87-113쪽.

- 이자연,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비교성향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이지영, 「중학생의 귀인성향 및 부모학업성취압력 지각과 학교생활 적응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와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장재홍, 「부모의 자녀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사용욕구를 매개로」, 『상담학연구』 5권 1호, 2004, 113-128쪽.
- 정만·김동진, 「중학생의 학업성취압력 및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적응간의 관계: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도의 조절효과」, 『한국발육발달학회지』 27권 2호, 2019, 129-137쪽.
- 정선아·정운주,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또래관계와 진로태도성숙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권 21호, 2022, 17-43.
- 정송·우연경·송주연·노연경, 「학교급 전환기 학교적응의 유형화 및 종단적 변화 탐색」, 『한국정소년연구』 33권 2호, 2022, 183-209쪽.
- 정영미, 「부모의 성취압력이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학업수행능력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2권 2호, 2021, 2777-2789쪽.
- 정주영, 「교사의 성취압력, 중학생의 시험스트레스, 자기조절학습 능력간의 관계에 대한 종단분석」, 『한국교육학연구』 21권 2호, 2014, 173-192쪽.
- 정지선,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부모성취압력과 자기효능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 조미학,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아동의 행복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조수연, 「일반가정과 결손가정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추지윤·이은지, 「고등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경기교육종단연구(GEPS)를 중심으로」, 『교육논총』 40권 4호,

2020, 261-285쪽.

탁경문, 「지각된 성취압력이 성취동기와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최유현·이진화, 「아동의 자아탄력성, 부모의 성취압력과 아동의 행복감
간의 관계」, 『인문사회 21』 13권 6호, 2022, 2195-2210쪽.

최해수,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초등학생의
부담감 및 반응행동 양식의 관계」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최혜선·한세영, 「부모의 성취압력이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업스트레스와 그릿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권 8호, 2021, 499-510쪽.

하문선,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업스트레스
및 학교적응 간 관계: 실패내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한국초등교육연구』 33권 3호, 2022, 85-99쪽.

한은수, 「부모의 성취압력이 초등학생의 또래애착을 매개로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 피해경험 유무에 따른 잠재평균분석과
다집단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권 8호, 2022, 587-
600쪽.

허균, 「자아존중감과 진로장벽의 자기회귀 교차차지연 효과분석 연구」,
『직업교육연구』 31권 1호, 2012, 119-134쪽.

홍세희, 「구조방정식 적합도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19권 1호, 2000, 167-177쪽.

홍세희·유숙경,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을 적용한
내외통제성과 학업성취의 종단관계 연구」, 『교육심리연구』 18권
1호, 2004, 381-392쪽.

홍은자, 「어머니 성취압력과 학원·학습지 이용이 유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이화교육논총』 12권, 2002, 137-146쪽.

홍태연,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자기격려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황영희,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황은지,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Arbuckle, J. L. & Wothke, W., *AMOS 4.0 user's guide*, Chicago, IL: Smallwaters Corp, 1999.
- Bandalos, D. L. & Finney, S. J., "Item parceling issu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 A. Marcoulides & R. E. Schumacker eds., *New developments and techniqu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1, pp.269-296.
- Bierman, K. L., "School adjustment.", R. J. Corsini ed., *Encyclopedia of psychology*, A Wiley-Interscience Publication, John Wiley & Sons, 1994.
- Browne, M. W. & Cudeck, R.,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vol. 21, no. 2, Sage, 1993.
- Cheung, G. W. & Rensvold, R. B.,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s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vol. 9, no. 2, 2002, pp.233-255.
- Deci, E. L. & Ryan, R. M., "Self-determination research: Reflections and future directions", E. L. Deci & R. M. Ryan ed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2002, pp.431-441.
- Enders, C. K. & Bandalos, D. L., "The Relative Performance of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for Missing Data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vol. 8, no. 3, 2001, pp.430-457.
- Erikson, E. H., *Youth: Change and challenge*, Basic Books; 2nd Edition, 1963.
- Hu, L. Z. & Bentler, P. M.,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vol. 6, no. 1, 1999, pp.1-55.

Kline. R. B.,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NY: Guilford Press, 2005.

,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ethodology in the Social Sciences Series) 4th edition*, New York, NY: Guilford Publications, 2015.

Piaget, J., *The origins of intelligence in children*, New York, NY: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1952. (<https://doi.org/10.1037/11494-000>)

Tucker, L. R. & Lewis, C.,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vol. 38, 1973, pp.1-10.

■ 국문초록

학업성취는 언제나 학령기 아동들과 부모들에게 관심의 대상이다. 마찬가지로 학업성취 압력과 학교적응 문제도 관심의 대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생의 학교적응에 대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효과를 검증하였다. 한국아동패널 12차(2019)에서 15차(2022)까지의 패널자료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변인들의 4년간 상관분석의 특징은 학교적응과 성취압력의 변인 간에는 전체적으로 크고 유의미한 상관은 보이지 않으나, 변인 내에서는 약간의 작고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주었다. 둘째, 구조모형의 검증 결과는 설정한 12개의 경로 중에서 6개의 경로만 유의미하였다. 추정 결과 현재의 학교적응과 성취 압력은 각 변인 내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만, 각 변인 간에는 서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즉 자기회귀효과는 있지만, 교차지연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와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주제어● 학교적응, 성취압력, 자연회귀교차지연모형, 한국아동패널.

■ Abstract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school adaptation and parents' achievement pressure : Autoregressive cross-lagged effect verification study

Choi, Dong Kyu / Pukyung University
Kim, Chang Gil / Mokwon University

Academic achievement is always a topic of concern for school-age children and their parents. Likewise,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and school adjustment issues are also of interest. Accordingly, this study tested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effect on students' school adaptation and parents' achievement pressure. Panel data from the 12th (2019) to 15th (2022) Korean Children's Panel were analyzed by setting up an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rrelation analysis of the variables over 4 years showed that there was no overall large or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variables of school adaptation and achievement pressure, but some small and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shown within the variables. Second, the results of the verification of the structural model showed that only 6 paths out of the 12 paths were significant. As a result of the estimation, current school adaptation and achievement pressure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each variable, but did not exert influence on each other. In other words, there was an autoregressive effect, but no cross-lagged effect. Based on this, suggestions for follow-up research and policy are made.

Keyword • School adaptation, Achievement pressure, Natural regression cross-lagged model, Korean Children's Panel

대학생들의 자살에 대한 인식과 예방을 위한 상담적 제안 : 대전 A대학을 중심으로

노 성 동*

목 차

1. 서론
2. 연구 절차 및 방법
3. 조사 결과 분석
4. 자살 및 자해인식 개선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제안
5. 결론 및 제언

1. 서론

2024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또 다시 증가하는 충격적인 증상을 보였다. 이미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던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전년도 대비 4.9% 더 증가한 것이다.¹⁾ 팬데믹 이후 우리 사회는 심각한 정신건강의 위기를 맞이했다. 2024년 상반기 우울증 진단 건수는 전년도 대비 23% 증가했으며, 불안장애 환자 수도 크게 늘어났다. 연구자가 재직 중인 대학의 재학생들의 불안 지수도 다른 심리적 특성에 비해 2.32로 가장

* 목원대학교 학생상담센터 부교수

1) GomGom, <https://blog.naver.com/wjdrntjq/lic>, 2025.01.02.

높게 나타났다.²⁾ 특히 주목할 점은 20~30대 청년층의 정신건강 악화이다. 이들 연령대의 우울증 진단은 전체 증가율의 두 배인 46%를 기록했다.³⁾

이에 더해 대졸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인 12.3%를 기록한 가운데, 취업을 위한 스펙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대학 졸업장에 더해 평균 3.2개의 자격증, 토익점수 850점 이상을 갖추고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이다. 대학생들의 이러한 취업란과 진로의 불확실성 속에서 자신의 꿈과 이상을 추구해야 하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마감하는 일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개인의 의지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러한 자살 문제의 심각성에 비하여 국가 사회적인 관심과 예방 대책은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대학생들이 취업란의 경쟁적 풍토 속에서 올바른 삶의 가치관을 찾지 못해 정체성 혼란에 빠지기 쉬운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대학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생명존중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교과목은 거의 없으며 비교과 과정에서 일부 다룰 뿐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정서적 불안정을 다룰 수 있는 방법, 자살 및 자해에 대한 인식 가운데서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다룰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연구자가 속해 있는 A 대학의 학생상담센터에서 진행하였던 자살예방 프로그램과 자살 잠재군인 고위험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더불어 실질적인 생명 존중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상담적 프로그램을 제안함으로써 심리

2) 목원대학교 학생상담센터, 『2024 학생생활보고서』, 목원대학교 학생상담센터, 2024, 47쪽.

3) GomGom, 앞의 사이트.

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대학에서 이러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학 차원의 노력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의 기여를 기대해 볼 수 있다.

2. 연구 절차 및 방법

1) 조사 대상 표집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2024년 대전광역시 소재 A 대학교의 51개 학과(부)의 전체 학생을 응답자로 선정하여 진행하였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설문지를 구조화하여 활용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는 각 학과(부)에서 근무하는 조교에게 본 연구의 필요성과 설문 시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한 후 학생들이 온라인 설문지에 접속하여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온라인 설문지 링크는 각 학과에 정식 공문으로 2024년 1학기 초에 안내하였고, 온라인 설문은 4월 초까지 실시되었으며, 자료 분석을 위한 자료입력 및 분석은 그 이후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고 전반적인 자료정리는 9월 말에 완료되었다. 전체 조사 대상 7,536명 중 2,034명이 조사를 완료하여 조사 완료율은 27.0%이다. 각 단과대 별 조사 대상과 조사 완료율은 [표 2-1]과 같다.

[표 2-1] 단과 대학별 학생 수 및 조사 완료 수

구 분	조사인원	자료분석대상	조사완료율(%)
신학대학	186	54	29.0
문화콘텐츠대학	716	310	43.3
보건안전대학	923	286	31.0
공과대학	1019	155	15.2
사회과학대학	1942	345	17.8
음악대학	545	141	25.9
미술·디자인대학	984	289	29.4

사범대학	734	355	48.4
웹툰애니메이션 게임대학	487	99	20.3
전 체	7,536	2,034	27.0

2) 자료 분석 방법

완료된 조사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이거나 일관성이 없는 응답은 분석에 부적합하여 제외되었으며, 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여 응답자들의 만족도를 알아보았다. 두 번째, 집단 간의 차이 검증인 교차 분석을 실시하여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세 번째, 본 연구의 통계 처리는 Excel을 통한 통계 분석 방법을 통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3. 조사 결과 분석

1) 대학생들의 자살 사고 관련

청년층 자살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은 생활 스트레스로 보고된다. 청년 시기에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자아정체성 확립 등을 성취해야 하지만 한국의 청년들은 청소년 시기에 과도한 입시경쟁, 서열 중심 체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대학과 사회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혼란감을 겪게 되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지속될 때 자살을 생각하거나 충동적인 자살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음 응답자들의 자살 생각에 대해 살펴보면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6개월간 없음’이 94.5%, ‘최근 6개월간 있음’이 5.5%로 나타났다. 특별히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의 자살사고가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과별로 보면 문화콘텐츠대학(8.7%), 웹툰애니메이션게임대학(7.1%), 미술디자인대학(6.6%)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3-1] 최근 6개월간 자살 사고 관련

구 분		최근 6개월 간 있음	최근 6개월 간 없음	합 계
성별	전체	112(5.5)	1922(94.5)	2,034(100.0)
	남자	29(3.3)	863(96.7)	892(100.0)
	여자	83(7.3)	1,059(92.7)	1,142(100.0)
단과 대학	신학대학	3(5.6)	51(94.4)	54(100.0)
	문화콘텐츠대학	27(8.7)	283(91.3)	310(100.0)
	보건안전대학	13(4.5)	273(95.5)	286(100.0)
	공과대학	9(5.8)	146(94.2)	155(100.0)
	사회과학대학	13(3.8)	332(96.2)	345(100.0)
	음악대학	9(6.4)	132(93.6)	141(100.0)
	미술·디자인대학	19(6.6)	270(93.4)	289(100.0)
	사범대학	12(3.4)	343(96.6)	355(100.0)
	웹툰애니메이션 게임대학	7(7.1)	92(92.9)	99(100.0)

2) 자살을 생각하게 된 이유

응답자들이 자살을 생각하게 된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생의 무의미’가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11.6%, ‘가정 문제’와 ‘대인관계’ 9.8%, ‘경제문제’와 ‘적응 문제’와 ‘학업 문제’ 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생의 무의미’라는 생각은 막연한 진로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요소가 상당수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삶의 방향성에 대한 상실이 자살에 대한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를 성별과 단과 대학별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으나 신학대학은 ‘가정 문제’가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2] 자살을 생각하게 된 이유

구 분		학업 문제	진로 문제	전우 문제	가정 문제	성격 문제	대인 관계	이성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인생 의미	기타	합계
전체		6 (5.4)	5 (4.5)	6 (5.4)	11 (9.8)	1 (0.9)	11 (9.8)	3 (2.7)	6 (5.4)	1 (0.9)	49 (43.8)	13 (11.6)	112 (100)
성별	남자	2 (6.9)	3 (10.3)		4 (13.8)	1 (3.4)	3 (10.3)	1 (3.4)		1 (3.4)	1 (3.4)	4 (13.8)	29 (100)
	여자	4 (4.8)	2 (2.4)	6 (7.2)	7 (8.4)		8 (9.6)	2 (2.4)	6 (7.2)		39 (47.0)	9 (10.8)	83 (100)
단과 대학	신학대학				2 (66.7)						1 (33.3)		3 (100)
	문화콘텐츠대학	2 (7.4)		3 (11.1)	2 (7.4)		4 (14.8)	1 (3.7)	1 (3.7)	1 (3.7)	12 (44.4)	1 (3.7)	27 (100)
	보건안전대학				1 (7.7)		1 (7.7)		1 (7.7)		8 (61.5)	2 (15.4)	13 (100)
	공과대학		1 (11.1)	1 (11.1)			1 (11.1)				3 (33.3)	3 (33.3)	9 (100)
	사회과학대학		1 (7.7)		1 (7.7)		2 (15.4)		2 (15.4)		6 (46.2)	1 (7.7)	13 (100)
	음악대학				2 (22.2)	1 (11.1)		1 (11.1)			4 (44.4)	1 (11.1)	9 (100)
	미술·디자인대학	2 (10.5)	1 (5.3)	1 (5.3)	1 (5.3)		3 (15.8)		2 (10.5)		7 (36.8)	2 (10.5)	19 (100)
	사범대학	1 (8.3)	1 (8.3)	1 (8.3)	2 (16.7)			1 (8.3)			5 (41.7)	1 (8.3)	12 (100)
	웹툰애니메이션게임대학	1 (14.3)	1 (14.3)								3 (42.9)	2 (28.6)	7 (100)

3) 자살 사고 및 자살 충동 대처 방법

응답자들이 자살 사고 및 자살 충동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림’이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취미활동(운동·쇼핑·게임 등)’ 15.2%, ‘휴식 및 수면’ 10.7%, ‘전문기관의 도움(상담센터·병원 등)’ 9.8%, ‘약물복용(안정제, 수면제 등)’ 8.0%, ‘지인(친구, 선후배, 연인 등)과 대화’ 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단과 대학별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으나, 공과대학과 사회과학대학의 경우에는 ‘취미활동(운동·쇼핑·게임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웹툰애니메이션게임대학의 경우에는

‘휴식 및 수면’이 자살 사고 및 자살 충동 대처 방법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3] 자살 사고 및 자살 충동 대처 방법

구 분		전문 기관 의 응 답 타 원 등	시간 이 지 나 길 가 다 람	가족 과 대 화	지 인 과 대 화	음 주 나 흡 연	휴 식 및 수 면	음 식 물 섭 취	약 물 복 용	취 미 활 동	자 살 방 법 및 계 획 생 각	종 교 활 동	기 타	합 계
전체		11 (9.8)	36 (32.1)	3 (2.7)	7 (6.3)	5 (4.5)	12 (10.7)	1 (0.9)	9 (8.0)	17 (15.2)	4 (3.6)	2 (1.8)	5 (4.5)	112 (100)
성별	남자	3 (10.3)	6 (20.7)		3 (10.3)	1 (3.4)	3 (10.3)	1 (3.4)	4 (13.8)	5 (17.2)	1 (3.4)		2 (6.9)	29 (100)
	여자	8 (9.6)	30 (36.1)	3 (3.6)	4 (4.8)	4 (4.8)	9 (10.8)		5 (6.0)	12 (14.5)	3 (3.6)	2 (2.4)	3 (3.6)	83 (100)
단과 대학	신학대학	1 (33.3)		1 (33.3)			1 (33.3)							3 (100)
	문화콘텐츠대학	4 (14.8)	9 (33.3)	1 (3.7)	2 (7.4)		1 (3.7)		1 (3.7)	3 (11.1)	2 (7.4)	2 (7.4)	2 (7.4)	27 (100)
	보건안전대학	1 (7.7)	5 (38.5)		1 (7.7)	1 (7.7)	1 (7.7)		1 (7.7)	2 (15.4)	1 (7.7)			13 (100)
	공과대학	1 (11.1)	1 (11.1)		2 (22.2)		1 (11.1)		1 (11.1)	3 (33.3)				9 (100)
	사회과학대학		2 (15.4)	1 (7.7)	1 (7.7)	2 (15.4)	1 (7.7)		2 (15.4)	3 (23.1)			1 (7.7)	13 (100)
	음악대학		4 (44.4)		1 (11.1)		1 (11.1)		1 (11.1)	1 (11.1)			1 (11.1)	9 (100)
	미술디자인대학	2 (10.5)	8 (42.1)			2 (10.5)	1 (5.3)		2 (10.5)	3 (15.8)			1 (5.3)	19 (100)
	사범대학	2 (16.7)	5 (41.7)				1 (8.3)	1 (8.3)		2 (16.7)	1 (8.3)			12 (100)
	웹툰애니메이션계 임대학		2 (28.6)				4 (57.1)		1 (14.3)					7 (100)

4) 자살 사고 및 자살 충동 대처 방법이 도움이 된 정도

응답자들이 자살 사고 및 자살 충동 대처 방법이 도움 된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 3-4]과 같다. 설문조사 결과는 ‘가끔 도움이 되었다’가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주 도움이 되었다’ 25.9%, ‘항상 도움이 되었다’ 14.3%,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11.6%,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것은 대처 방법에 대해 어느정도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응답이 많은 비율로 차지하고 있어 나름대로의 대처 방법이 자살 사고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것은 상담이나 약물치료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이 아직까지는 적극적이지 않아 학생상담센터나 병원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는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으나 남학생은 ‘자주 도움이 되었다’가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단과 대학별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으나, 신학대학은 ‘항상 도움이 되었다’, 문화콘텐츠대학은 ‘자주 도움이 되었다’, 공과대학은 ‘자주 도움이 되었다’와 ‘항상 도움이 되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4] 자살 사고 및 자살 충동 대처 방법이 도움이 된 정도

구 분		전혀 도움이 되 지 않았다	거의 도움이 되 지 않았다	가끔 도움이 되었다	자주 도움이 되었다	항상 도움이 되었다	합계
전체		9(8.0)	13(11.6)	45(40.2)	29(25.9)	16(14.3)	112(100)
성별	남자	4(13.8)	2(6.9)	8(27.6)	10(34.5)	5(17.2)	29(100)
	여자	5(6.0)	11(13.3)	37(44.6)	19(22.9)	11(13.3)	83(100)
단과 대학	신학대학			1(33.3)		2(66.7)	3(100)
	문화콘텐츠대학	4(14.8)	3(11.1)	8(29.6)	9(33.3)	3(11.1)	27(100)
	보건안전대학	2(15.4)	4(30.8)	4(30.8)	2(15.4)	1(7.7)	13(100)
	공과대학	1(11.1)	1(11.1)	1(11.1)	3(33.3)	3(33.3)	9(100)
	사회과학대학	1(7.7)		9(69.2)	3(23.1)		13(100)
	음악대학		2(22.2)	4(44.4)	1(11.1)	2(22.2)	9(100)
	미술·디자인대학		1(5.3)	8(42.1)	7(36.8)	3(15.8)	19(100)
	사범대학	1(8.3)	1(8.3)	6(50.0)	3(25.0)	1(8.3)	12(100)

웹툰애니 메이션계 임대학		1(14.3)	4(57.1)	1(14.3)	1(14.3)	7(100)

5) 대학생들의 자살 시도 관련

응답자들의 자살 시도에 대해 살펴보면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6개월간 없음’이 99.0%, ‘최근 6개월간 있음’이 1.0%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최근 6개월 간 자살 시도가 있었다는 1%의 응답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자살시도는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학과와 학생상담센터가 연계하여 이러한 학생들을 즉각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살 및 자해 시도는 반복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큼으로 대면상담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통해 주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성별과 단과 대학별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으나 여학생들의 자살 시도률이 상당히 높고, 음악대학의 경우 자살 시도 경험의 3.5%로 타 대학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는 타 대학에 비해 음악대학의 특성상 연주나 공연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입증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된 것으로 보여 음악대학 또는 다른 예술 대학 관련 학과들의 상담적 연계가 필요하다.

[표 3-5] 대학생들의 자살 시도 관련

구 분		최근 6개월간 있음	최근 6개월간 없음	합계
전체		21(1.0)	2013(99.0)	2,034(100)
성별	남자	3(0.3)	889(99.7)	892(100)
	여자	18(1.6)	1,124(98.4)	1,142(100)
단과 대학	신학대학		54(100.0)	54(100)
	문화콘텐츠대학	2(0.6)	308(99.4)	310(100)
	보건안전대학	2(0.7)	284(99.3)	286(100)
	공과대학	3(1.9)	152(98.1)	155(100)

단과 대학	사회과학대학	4(1.2)	341(98.8)	345(100)
	음악대학	5(3.5)	136(96.5)	141(100)
	미술·디자인대학	3(1.0)	286(99.0)	289(100)
	사범대학	2(0.6)	353(99.4)	355(100)
	웹툰애니메이션 게임대학		99(100.0)	99(100)

6) 대학생들의 자해 시도 관련

응답자들의 자살 시도와 더불어 자해 시도에 대해 살펴보면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6개월간 없음’이 97.6%, ‘최근 6개월간 있음’이 2.4%로 나타났다. 자해 시도는 자살 시도와 마찬가지로 자해를 통하여 자살에 이르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빠졌지만 자해 사고를 가지게 된 이유로는 불안과 심리적 압박에서 가장 큰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또한 과거 트라우마, 피해 경험, 상실 경험 등으로도 나타난다.⁴⁾ 대학생의 경우 학업 및 취업에 대한 부담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자해 시도도 자살과 마찬가지로 반복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에 학과와 연계하여 이러한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성별과 단과 대학별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해 시도에 있어서는 여학생들의 시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학과별로 보면 문화콘텐츠 대학과 음악대학이 3.5%로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어 이에 대한 학과 자체의 관리와 상담적 개입이 필요하다.

4) 김경일, 『자살·자해 예방 융합적 예비 모델 구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6, 39쪽.

[표 3-6] 대학생들의 자해 시도 관련

구 분		최근 6개월간 있음	최근 6개월간 없음	합계
성별	전체	48(2.4)	1986(97.6)	2,034(100)
	남자	7(0.8)	885(99.2)	892(100)
	여자	41(3.6)	1,101(96.4)	1,142(100)
단과 대학	신학대학	1(1.9)	53(98.1)	54(100)
	문화콘텐츠대학	11(3.5)	299(96.5)	310(100)
	보건안전대학	7(2.4)	279(97.6)	286(100)
	공과대학	3(1.9)	152(98.1)	155(100)
	사회과학대학	5(1.4)	340(98.6)	345(100)
	음악대학	5(3.5)	136(96.5)	141(100)
	미술·디자인대학	8(2.8)	281(97.2)	289(100)
	사범대학	6(1.7)	349(98.3)	355(100)
	웹툰애니메이션 게임대학	2(2.0)	97(98.0)	99(100)

7) 자살 및 자해 예방에 도움을 받기 위해 바라는 점

응답자들이 자살 및 자해 예방에 도움을 받기 위해 바라는 점에 대해 살펴보면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가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살예방교육(특강)’ 11.8%, ‘외부 기관 연계’ 9.2%,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과 단과 대학별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학생상담센터에서는 매 학기 전문상담사들을 통해 고위험군 학생들을 분별하여 심층 대면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명 보듬 교육(자살예방교육)을 교목실과 그리고 각 학과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학생들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생명존중 함양과 예방을 위해 다양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시하고 있다.

[표 3-7] 자살 및 자해 예방에 도움을 받기 위해 바라는 점

구 분		개인 심리 상담 및 심 리 검사	집단상담 및 집단프로그램	자살예방 교육 (특강)	교과과정 중 자살 관련 내 용 보완	외부 기관 연계	기타	합계
전체		1356 (66.7)	106 (5.2)	239 (11.8)	63 (3.1)	187 (9.2)	83 (4.1)	2,034 (100)
성별	남자	551 (61.8)	54 (6.1)	120 (13.5)	28 (3.1)	86 (9.6)	53 (5.9)	892 (100)
	여자	805 (70.5)	52 (4.6)	119 (10.4)	35 (3.1)	101 (8.8)	30 (2.6)	1,142 (100)
단과 대학	신학대학	41 (75.9)	2 (3.7)	2 (3.7)		6 (11.1)	3 (5.6)	54 (100)
	문화콘텐츠대학	192 (61.9)	22 (7.1)	44 (14.2)	11 (3.5)	33 (10.6)	8 (2.6)	310 (100)
	보건안전대학	186 (65.0)	11 (3.8)	42 (14.7)	12 (4.2)	23 (8.0)	12 (4.2)	286 (100)
	공과대학	86 (55.5)	13 (8.4)	19 (12.3)	9 (5.8)	16 (10.3)	12 (7.7)	155 (100)
	사회과학대학	226 (65.5)	15 (4.3)	45 (13.0)	9 (2.6)	31 (9.0)	19 (5.5)	345 (100)
	음악대학	98 (69.5)	7 (5.0)	17 (12.1)	2 (1.4)	12 (8.5)	5 (3.5)	141 (100)
	미술·디자인대학	207 (71.6)	15 (5.2)	26 (9.0)	7 (2.4)	23 (8.0)	11 (3.8)	289 (100)
	사범대학	248 (69.9)	15 (4.2)	40 (11.3)	12 (3.4)	35 (9.9)	5 (1.4)	355 (100)
	웹툰애니메이션계 임대학	72 (72.7)	6 (6.1)	4 (4.0)	1 (1.0)	8 (8.1)	8 (8.1)	99 (100)

4. 자살 및 자해 인식 개선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제안

지금까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살 및 자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학생들은 최근 자살(5.5%) 및 자해(2.4%)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직접적인 시도(자살 1%, 자해 2.4%)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자살 및 자해에 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담의 강화 및 자살예방교육과 더불어 실질적이고 다양한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학생들이 도움을 받고 싶은 프로그램에 관한 조사에서 개인상담 및 심

리검사에 관한 요구가 가장 많은 66.7%, 두 번째로 자살예방교육이 11.8%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에 대한 반증이라 말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해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살 예방에 관한 상담과 예방교육을 좀 더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담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현재 A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그 효과성은 다음과 같다.

1) 생명 존중 구현을 위한 자살 예방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강화

(1) 자살 예방 교육 및 고위험군 학생 대학 적응 목표 및 필요성

2022년도 전국 지역 연령 표준화 자살률을 보면 충청남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27.4%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같은 충청권인 대전광역시 21.7%, 세종특별자치시 23.2%보다 높은 수치이다.⁵⁾ 이중 세종특별자치시의 증가폭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전광역시는 감소세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대비를 이루었다.

특히 대전광역시 19세에서 29세까지 청년층의 자살 사고 중 ‘자주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0.9%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⁶⁾ 이에 각 대학에서는 청년 대학생들의 자살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학생들이 바르고 건강한 생명 존중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살 위험을 예고하는 신호를 인식하여 자살위험에 처한 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적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자살위험 징후가 있는 고위험군 학생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위한

5)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4 자살예방백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4, 7쪽.

6) 대전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2022 대전광역시 정신건강백서』, 대전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2022, 83쪽.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상담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재학생들 중 특히 대학 부적응 학생과 중도탈락 위험성이 있는 학생들을 대학 적응력 검사를 통해 선별하는 구체적 방안이 대두된다. 이는 고위험군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 및 자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과 대학 적응을 위한 두 가지 목적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2) 생명 존중 함양을 위한 자살예방교육 활성화

자살은 개인적인 원인을 비롯해서 사회·경제·문화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복합적인 문제로 종합적이고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뿐 아니라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은 필수적이다. 미국, 일본 등 해외 국가의 경우에도 자살예방사업에 공공-민간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으며, 민간 기관과의 연계와 협동을 강화하고 있다.⁷⁾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의 목적은 사회통합과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등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해서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다.

정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을 근본으로 하여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3년 7월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 대상을 명확히 하고 교육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 학교(초·중·고, 대학교), 사회복지기관, 사업장 등과 같은 기관 및 단체는 매해 생명 지킴이 교육 혹은 인식 개선 교육을 반드시 1회 이상 실시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⁸⁾

학생들이 자살 및 자해 예방에 도움을 받기 위해 바라는 점에서도 '자살 예방교육(특강)'이 11.8%로 높게 나타났고, 또한 교과과정 중 자살 예방 관

7)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위의 자료, 206쪽.

8)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앞의 자료, 208쪽.

련 내용을 보완해 달라는 요구 역시 3.1%로 나타났다. 설문을 조사한 A 대학교에서는 매 학기마다 재학생들의 자살에 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생명 존중 의식을 반영한 교과 및 비교과 과정을 통하여 교육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 기관과 연계하여 마음보듬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학생들이 직접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 보듬이로서 자신의 역할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참여형 페스티벌도 실시하고 있다. A 대학에서 교육하고 있는 자살예방교육 및 연계형 프로그램의 실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 A 대학교 자살예방교육 및 연계형 프로그램

내용	형식	대상	시간	비고
- 생명 존중 인식 증진 - 자살 및 자해 사고 인식 예방 - 실질적인 자살 시도 예방 - 신입생 및 재학생 예방	온라인 및 오프라인 특강	학부생 (학과/장애 학생 등), 외국인 유학생	1 시간 이상	비교과 시간 인정
- 생명존중 의식향상 - 생명 및 건강의 소중함 체험 - 진정한 '자기찾기'와 '나 다움' 추구	참여형 페스티벌	재학생	3 시간	유관기관 연계
- 생명존중 및 자살 및 자해 이해 - 대학 내 자살 예방을 위한 논의 및 대안 확립	교양 과목	수강생	매 학기 15주	3학점
- 하루의 소중함에 대한 감사 일기 기록 - 소소한 일상에 대한 소중함 향상	공모전	학부생	75일	비교과 시간/마일리지 지급

이러한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의 관심이 증가하여 매 년마다 재학생들의 이수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오프라인 집합교육과 온라인 동영상 교육 및 체험학습의 병행 또한 이수율이 증가한 이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4-2] A 대학교 최근 자살예방교육 이수율

자살예방교육 재학생 이수율			
연도	재학생 수(명)	이수 인원(명)	이수율(%)
2022	7120	1547	21.7%
2023	7041	1677	23.8%
2024	7226	2537	35.1%

매년 학생들의 이수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교육 이후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자살사고 및 시도에 대한 위험성이 감소하였는지는 의문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자살예방 교육 외에 잠재적 자살위험 요소를 가진 학생들을 선별하여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과 프로그램으로 연계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된다.

(3) 고위험군 발굴을 통한 마음 건강 인식 개선 프로그램 연계

대학은 다양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들의 마음 건강의 회복 및 증진이 필요하다. 특히 잠재적 자살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고위험군 학생들을 위한 적극적 개입 및 관리가 중요하며 이들을 위해 자살위험 제거, 자살 수간의 접근 제한 등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방법의 위험성 또는 접근성 차단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⁹⁾

이를 위해 대인관계, 스트레스 해소, 자아존중감 향상 등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재학생들의 심리 적응력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집단 프로그램 및 소극적인 고위험군 학생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상담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통해 고위험군 학생들의 사회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그들이 겪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무기력, 우울감 예방 회복 지원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A 대학에서는 매년 신입생 및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CAT(대학적응력검사)검사를 실시하여 대학 부적응 및 고위험군 학생들을 선별하고 있다. 이들을 선별하는 이유는 이들에게 대학에 적응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더불어 잠재적 자살 위험군에 속해 있는 학생들의 자살사고 방지 및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방편이다. 효과성은 프로그램에 있어 만족도 7점 만점에 6.5로 높은 만족도를 나

9) 전국대학교학생상담센터협의회, 『2024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전국대학교학생상담센터협의회, 2024, 6쪽.

타내었다. A 대학에서 고위험군 학생들을 위해 교육하고 있는 마음건강 인식개선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3] 고위험군 대상 마음 건강 인식 개선 프로그램

내용	형식	대상	시간	비고
- 신입생 및 재학생 중 대학 부적응 및 고위험군 발굴 - 대학 부적응 및 고위험군 발굴을 통한 대학 적응 및 심리적 안정 추구 - 학과 지도교수 상담의 실질적 자료 마련	CAT(대학 적응력 검사) 실시	신입생 및 재학생	1	CAT(대학 적응력 검사)고위험군 선별
- 학생들의 고위험 요인 인식 - 고위험 요인 인식을 통한 자살 및 자해사고 인식 예방 - 대학 적응 및 고위험 요소 제거	고위험군 집중 상담	고위험군 학생	1	전문 상담사 면접상담
- 고위험군 다수 학과 방문 상담 - 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 도구 활용 - 추후 개인 상담으로 연계	찾아가는 상담	고위험군 다수인 학과	4	
- 학생들의 불안 대처방안 및 적용 - 마음 챙김의 유익 인식 - 심리적 유연성 기르기 - 변화된 자신의 모습 상상하기	집단 상담	고위험군 학생 중 불안 요인 많은 학생	2	마일리지 적립 및 비교과 시간 인정
- 스트레스를 통한 우울감 및 무기력감 예방 - 학생들의 심리적 회복성 증진 - 집단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성 향상	집단 상담	우울감, 무기력감 호소 학생	3주 (3)	마일리지 적립 및 비교과 시간 인정
-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해 긍정적 관계 형성 증진 - 소통과 협력을 통한 사회성 향상 - 긍정적 대인관계를 통한 무기력감 극복	집단 상담	대인관계 어려움 호소 학생	3주 (3)	마일리지 적립 및 비교과 시간 인정
- Golden 성격유형검사를 통한 자기 성격 및 문제 이해 - 자기 이해 뿐만 아니라 타인 이해를 통한 대인관계 확장	온라인 특강	기숙사 내 고위험군 학생	2	마일리지 적립 및 비교과 시간 인정

2) 대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제안

(1) 대학생 생명 존중 프로그램 제안

대전광역시 2022년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53명으로 21.7%로 나타났다

다.¹⁰⁾ 또한 자살 충동이나 생각과 같은 죽음의 늪에 빠져 있는 청년·대학생들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장차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대학생들이 이렇게 쓰러지고 있지만 국가 사회적인 대책은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연구자는 그동안 많은 자살예방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며 이들을 위한 근본적인 생명 존중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왔다. 이에 입시 위주의 경쟁적 교육 풍토를 벗어나 대학에 진학했지만 역시 취업이라는 난관 앞에서 좌절하여 삶의 가치관을 찾지 못해 정체성 혼란에 빠지기 쉬운 대학생들에게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삶의 가치관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크게 세 가지 접근 방식으로 생명 존중 교육은 진행되어 왔다.¹¹⁾ 첫째는 총론적인 접근 방식으로 생명 존중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며 주로 학교 교육 과정 속에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초·중고 및 대학생들에게 교육되고 있다. 본 연구자가 속해 있는 대학에서는 생명 보듬 교육이라는 방식으로 교양과목 안에서 온라인 강의 형식으로 교육되고 있다. 그러나 이 교육과정은 교과목 커리큘럼 중 일부로서 이론적 형태로만 이루어지다 보니 그 실제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온라인 동영상 시청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대면교육 보다 학생들과의 실제적인 질의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해 교과목 자체로 생명존중교육이 필요한데 오래전부터 ‘생명 교육’이라는 정규 교과목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대학도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춘천에 있는 한림대에서는 1997년부터 죽음 준비와 자살 예방 교육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¹²⁾ 또한 2011년부터 철학 전공과목에 ‘자살예방의 철학’

10)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앞의 자료, 13쪽.

11)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 『내 생명 소중하게 가꾸기』, 교육과학사, 2008, 13쪽.

12) 오진탁, 『자살예방의 철학』, 청년사, 2014, 25쪽.

이라는 과목으로 정규수업 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으며 그 효과성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는 죽음 교육, 호스피스 교육과정이다. 이 접근은 생명을 축하하듯 죽음도 명예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그 권리와 의미에 대해 교육하자는 것이다. 죽음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의 행복 증진이라는 역설적인 주장을 펴면서 죽음 교육을 통해 삶의 감수성을 증진시킨다고 한다.¹³⁾ 그러나 자살은 죽음의 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죽음이 곧 자살이 아니며, 자살은 일반적인 죽음과 다르기 때문에 죽음 준비교육이 자살예방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

세 번째는 자살예방교육 형태로서 생명 존중교육은 주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밖 교과과정을 말한다. 현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생명 존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한국자살예방협회, 한국생명의전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이다. 따라서 대학 내에서 자살예방과 관련된 교과과정이 개설되어야 하지만 어려운 실정이며 교양과목의 커리큘럼 중 한 주제로 다루어질 뿐이다. 대부분의 과정은 학생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단기 집단상담과 온라인을 통한 자살예방교육이 전부이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비록 정규 교과과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물론 궁극적인 목표는 정규 교과과목으로 채택되는 것이다) 비교과 과정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생명존중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학생상담센터에서 진행되었던 프로그램은 개인의 정서적 우울감과 불안감, 그리고 고위험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생명존중의 소중함과 자살 사고 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필요성을 토대로 생명존중 프로그램의 목표를

13) 오진탁, 앞의 책, 13쪽.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에게 생명은 그 어느것 보다 소중하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몸과 마음에 어떠한 해를 가하는 행동을 절대 하지 않게 한다.

둘째, 대학생들이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하여 자살 사고가 생기면 언제든지 가족, 지도교수, 친구, 학생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세 번째, 주변에 자살위험이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생명 지킴이로서의 방법과 역할을 알려 준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이 이 내용을 통해 생명 존중 의식이 향상되어지고,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김으로 건강한 대학 생활과 나아가 이 사회에 소중한 자원으로서 사용 되어지기를 기대해 보며 이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 4-4] 대학생 생명 존중 프로그램

회기	제목	목표	내용	시간	준비사항
1	세상과의 특별한 만남	1. 생명존중 프로그램의 취지와 필요성을 알게 한다.	-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및 목표 제시 - 프로그램 목적, 내용, 진행 방식 - 진행 규칙, 서약	10분	
			- 생명 탄생의 소중함에 관한 영상물 시청	15분	
		2. 우리는 모두 의미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한다.	- 생명의 정의 내리기	5분	생명 탄생 관련 영상물
			- 자기 소개하기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작성 - 모둠별 발표	10분	
2	사랑으로 자라다	- 학생들이 사랑과 관심을 받았던 순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 나는 소중하고, 힘들게 키워진 재라는 메시지가 담긴 영상물 시청 - 느낌 나누기, 도움받았던 기억적기	10분	플래쉬 애니메이션
			- 활동하기('이럴 때 우리는') 각 모둠별 상황 정하기 모둠별 시나리오 구성, 역할극	25분	6가지 상황 제비뽑기

대학생들의 자살에 대한 인식과 예방을 위한 상담적 제안
: 대전 A대학을 중심으로 | 노성동

3	우리는 소중해	1. 대중문화 속에 있는 생명 경시 행동을 돌아보게 한다.	- 영상물을 보고 대중 문화속에 녹아 있는 생명 경시 행동 찾아보기	20분	관련 영상물
		2. 생명 존중 수준과 유형을 점검하고 생명 존중 의식을 강화시킨다.	- 자신의 생명존중 수준 알아보기 생명존중 체크리스트 작성 자신의 수준 확인하기 - 각 수준에 대한 적절한 도움말 안내	15분	관련 슬라이드
4	건강한 마음 만들기	1. 학생들이 자신의 우울한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대처법을 알게 한다.	- 감정단어 알아보기 - 감정단어 맞추기 - 우울증의 이해, 우울증의 정서적 징후, 신체적 징후, 감정의 변화 이해 우울한 감정 대처법 알아보기 '나만의 우울 모드 극복법'	10분	감정 카드
		2. 학생들이 긍정적인 사고와 감정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법을 알게 한다.	- 생각과 감정은 친구 -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하기 사례를 통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기	15분	슬라이드
				10분	슬라이드
5	그건 아니야	자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자살과 관련된 행동에 대하여 올바른 태도를 갖게 한다.	- 자살에 대한 올바른 정보 습득하기 OX퀴즈	10분	OX 퀴즈 PPT
			- 자살에 대한 사례 토론 사례 제시 후, 모둠별 토론 - 자살에 대한 올바른 태도 갖기	25분	슬라이드
6	생명지킴이	1.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살위험에 처한 친구들이 보내는 자살 위험 신호를 알 수 있게 한다.	- 자살위험 신호 알아보기 '미모사 이야기' 슬라이드 보기 슬라이드 안에 나타난 주인공의 자살 위험 신호 알아보기	15분	영상물
		2. 자살 위험이나 자살 사고에 있는 친구를 돕는 적합한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한다.	- 자살위험 신호 알아보기 - 생명지킴이 활동 친구들의 자살 위험 상황에서 자살 징후를 찾아보고 스스로 생명지킴이가 되어 친구에게 도움 줄 수 있는 방법 찾기 - 생명지킴이 기술 알아보기 - '내 친구 소중이' 영상 전반부 보기	25분	슬라이드
7	소중한 나, 혼자 아니야	1. 자살위험이 발생했을 때 주변에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알게 한다.	- 도움 찾기 게임 도움 찾기 지도 만들기 도움 찾기 게임하기 모둠별로 해결책 말해보기 나만의 도움 찾기, 주사위 만들어 보기	25분	영상물 주사위 활동지
		2. 학생 주변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지원망을 탐색하게 한다.	- '내 친구 소중이' 영상 후반부 보기 -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탐색해 보기 - 도움 찾기 구호 외쳐보기 -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들' 슬라이드 보기(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10분	영상물 PPT
8	생명 존중 서약	1.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한다.	-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적어 보기 - 나나에(愛) 나무 만들기	20분	슬라이드 나나에(愛) 나무
		2. 삶의 가치와 이유를 발견하고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게 한다.	- 생명존중 서약식	10분	
			- 프로그램 평가서 작성하기 생명존중에 대한 다짐을 적어보고 발표	10분	프로그램 평가서

(2) 미디어 자살 유발·유해 정보 모니터링단 발족

오늘날 미디어는 우리 사회 전반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다. 자살을 예방하는 데도 미디어의 역할은 그 무게감이 크다. 신문, 방송, 잡지, 라디오 등의 올드 미디어에서만 뿐만 아니라 인터넷, 소셜 미디어,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등 뉴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미디어의 형태는 계속 변하고 있다. 미디어의 유형에 따른 모방 위험은 신문, 인터넷 등 접근성과 보존성이 높은 매체에서 증가한다.¹⁴⁾ 미디어 자체의 성격에 따라 구현되는 양상은 다르지만, 이렇게 다양한 미디어에서 자살 사건을 어떻게 보도하느냐는 일괄적으로 매우 중요하다.¹⁵⁾

오스트레일리아의 10대 청소년(12~17세) 2만 2064명을 대상으로, 자살 정보에 대한 노출과 실제 자살 행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자살 관련 소식을 접한(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또는 주변인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 청소년은 자살 충동에 빠져 자살 생각(suicide)과 시도(attempts)가 높아지고, 이러한 경향은 나이가 어릴수록 강하게 나타났다.¹⁶⁾ 이러한 결과는 반복적으로 증명된다. 대중매체에서 유명인의 자살을 보도하거나 청소년의 자살 사건을 보여 주는 TV 프로그램이 방영된 후 1~2주 동안 청소년 자살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¹⁷⁾ 미디어에 보도되는 자살 관련 영상도 분석되었다. TV 또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자살 장면은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¹⁸⁾ 그러나 실제 인물의 자살 사건 보도 기사

14) 이홍식 외, 『자살의 이해와 예방』, 학지사, 2012, 334쪽.

15) 김호경, 『자살 예방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71쪽.

16) Swanson, S. A. & Colman, I., "Association between exposure to suicide and suicidality outcomes in youth",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vol. 185, no. 10, Ottawa: CMA, 2013, pp.870-877.

17) Pfeffer, C. R. ed., *Suicide among youth: Perspectives on risk and preven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1989, pp.343-348.

18) Ostroff, R. & Boyd, J. H., "Television and suicide", *New England Journal*

의 영향력은 그보다 4.0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⁹⁾ 이렇듯 자살이 허구적일 때보다 사실적일 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자살자가 유명인인 경우 일반인의 자살보다 모방 자살위험이 증가된다.²⁰⁾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는 보도 내용이 자살에 대해 선정적이거나 긍정적일 경우 모방 자살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²¹⁾ 우리나라는 자살 관련 언론 보도의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자살 예방을 위해 2004년 7월 한국자살예방협회, 한국기자협회, 보건복지부 공동으로 ‘자살 보도 권고기준’이 제정되었다.²²⁾ 자살 보도 권고기준은 ‘언론의 자살 보도 방식은 자살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살 의도를 가진 사람이 모두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니며, 자살 보도가 그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한다. 또한 2013년 9월 ‘자살 보도 권고기준 2.0’이라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새로운 개정판에도 자살 관련 보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데, 그중 자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절대 하지 말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²³⁾ 그러나 거시적인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를 통한 모방 자살의 위험성은 미디어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차별화된 미디어 전략으로 행동 변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서는 2018년부터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페이스북 사용자가

of Medicine, vol. 316, Waltham, MA: MMS, 1987, pp.876-878.

19) Stack, S., “Media coverage as a risk Factor in suicide”,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vol. 57, London: BMJ Publishing Group, 2003, pp.238-240.

20) 이홍식 외, 위의 책, 334쪽.

21) 이홍식 외, 앞의 책, 334쪽.

22) 김호경, 앞의 책, 84쪽.

23) 김호경, 앞의 책, 86쪽.

올린 게시물을 분석, 자살위험 사용자를 찾아내도록 하였다.²⁴⁾ 예를 들면 ‘kill’, ‘die’, ‘goodbye’와 같이 자살 의지를 나타내는 단어 및 문장들을 찾아내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다. 이에 대학 내 미디어상 자살 정보 차단을 통해 모방 자살을 예방하고, 미디어 전반의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 학생들을 모집하여 미디어 자살 정보 모니터링단 지켜쥔인(人)(가칭) 및 집중클리닝을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²⁵⁾ 미디어 자살정보 모니터링단 지켜쥔인(人) 활동은 자살 예방에 관심 있는 재학생을 선발하여 자살 유발·유해 정보 및 영상 콘텐츠 자살 장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집중클리닝 활동 수기를 작성하게 한다. 이들은 미디어 자살 유발·유해 정보 모니터링 및 차단 활동을 통해 온라인상 생명 경시 풍조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듯 이들의 역할은 미디어 자살 정보를 모니터링 및 실태를 파악하여 대학 내 학생상담센터나 지역 기관으로 전달할 수 있다. 또한 미디어 자살 정보 신고 긴급구조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긴급 구조 기관에 신고 및 구호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²⁶⁾ 아울러 인스타그램 채널을 활용하여 대학 내 학생상담센터의 자살예방 프로그램 소개, 도움 기관 정보 등을 안내하는 정보제공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재학생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3) 지역 자살 예방 센터와의 사후 상담 프로그램 연계 구축

대학 캠퍼스 내 대학생 자살사건 발생 시 유족 치료비 지원 및 대학 내 자살 사건 발생 시 조직적 차원의 사후 대응에 관해 협력할 수 있다. 자살

24) 안순태, 『자살 예방과 헬스 커뮤니케이션』,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283쪽.

25)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앞의 책, 195쪽.

26)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앞의 책, 200쪽.

예방 상담 프로그램 지원뿐만 아니라 자살 사후 프로그램 또한 중요하다. 대학 내 자살 사건은 학과 내 전체 구성원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고 트라우마로 남기 때문이다. 이러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기관과의 연계로 캠퍼스 내 자살 사건 발생으로 인한 혼란과 충격을 최소화하는 위기 대응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대학 내 직접 개입함으로 집단 교육 및 상담, 개별상담,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²⁷⁾

[표 4-5] 자살 사후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 유형	대상	내용
사전 회의 및 자문 회의	조직 내 위기 대응팀, 사후 대응 전문가	- 사건 발생 상황 및 조직상황 파악 - 개입 대상 범위 및 서비스 내용 논의 -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컨설팅 제공
집단교육 (60분)	고인 사망에 노출된 집단 구성원 전체	- 상실 및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교육 - 정보제공 등
집단상담 (60분)	고인과 같은 소속 구성원 및 친밀한 관계의 소규모 (5~7명)집단	- 고인과의 관계 및 사건에 노출된 수준 정도가 비슷한 집단(동질적 집단)으로 구성 - 사건 경험 후 외상 반응 및 어려움 나눔
개별상담 (60분)	고인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구성원 전체	- 정신건강 및 외상반응, 서비스 욕구 파악 등 - 정신건강 간이 선별검사 도구: 사건 충격, 우울, 사별 슬픔, 자살 행동 등
사후 평가 회의 (자문 및 평가회의)	조직 내 위기 대응팀, 사후 대응 전문가	- 서비스 진행 결과 공유 및 대처방안 논의 - 고위험군 사례 관리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 안내 등
사후 모니터링	개인상담 대상자 중 사후 모니터링에 동의한 자, 위기 대응팀(담당자)	- 현장 개입 후 3개월에서 6개월 시점 실시 - 현재 어려움 정도 파악 및 도움 지원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6만 명에서 12만 명의 자살 유족이 발생하고 있다.²⁸⁾ 자살 1건당 5~10명이 심리적인 영향을 받는 셈이다. 자살 유족의 자살 위험성은 일반인들과 비교했을 때 8.3배~9배, 우울장애 발병 위험은 약

27)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앞의 책, 12쪽.

28)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앞의 책, 5쪽.

18.2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가족이 우울증이 있었다고 느꼈을 때 쉽게 도움을 구하고 받을 수 있는 ‘우울증 치료 One-stop 매뉴얼’이 필요하다.²⁹⁾ 이를테면, 우울증 증세를 이야기하면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장 가까운 진단 방식 등을 알려 주는 치료체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자살 사고자의 유족들을 위한 치료자 지원사업도 캠퍼스 내 학생상담센터를 통하여 지역 내 자살예방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학생상담센터와 연계된 유가족 지원체계와 지원 영역은 다음과 같다.³⁰⁾

	학색상담센터	자살예방센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추진 체계	대학생 자살 유족 중 치료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례 관리를 진행한 자살 유족의 치료비 지원 신청 재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승인 통보 및 치료비 지급

	구분	세부 내용
지원 영역	지원 대상	1. 사별 기간 1년 이내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 사별 기간 1년 이상: 자살예방 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긴급지원으로 신청 가능 2. 자살예방센터 사례 관리 동의자 3. 소득기준(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그 외 상황적 위기 대상군) - 그 외 상황적 위기 대상군: 개인희생 및 파산 대상자(진행 중인 자 포함), 3개월 내 실직자, 기타 사례 관리자 평가 시 상황적, 경제적 위기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 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입원, 심리검사,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 승인일로부터 1년(승인일 이전 건은 소급 불가)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29) 김경일, 앞의 책, 47쪽.

30) 김경일, 앞의 책, 12쪽.

5.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대학생들의 자살 사고 관련 요인과 자살 충동 시 대처 방법, 그리고 이러한 대처 방법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의 자살 및 자해 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학생들이 자살 및 자해 예방에 도움을 받기 위해 바라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A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학생과 고위험군 대상 자살예방 관련 상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실질적인 생명존중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대학 내 미디어 자살 유발·유해 정보 모니터링단 발족과 지역 자살 예방 센터와의 사후 상담 프로그램 연계 구축을 통해 대학 내 구성원들과 유가족을 위한 위기 대응 서비스 및 지원체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 위험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에 학생들을 상담 시스템에 적극 참여시키고 도울 수 있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 내 자살 예방을 위한 온라인 돌봄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대학생들 중 자살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막상 상담센터를 방문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온라인 상담은 편리성과 익명으로 진행되는 상담의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실제로 지역 자살 예방 센터에서 진행 중인 온라인 자살상담은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편리성, 익명으로 진행되는 상담의 유용성 등을 이유로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자살 상담은 자살 관련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지지하고,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도록 독려하며 자살 위험 징후를 감지해 조기 개입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자살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 이에 대학 상담센터에서는 온라인 자살예방 상담과 같은 적극적인 돌봄 시스

템을 마련하여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자살 고위험군 학생들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학 내 실질적인 자살 위험 검진 도구 활용이 필요하다. 각 대학에서는 다양한 심리검사 도구가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자가 재직 중인 A 대학에서도 대학 부적응 및 중도 탈락 예방을 위해 CAT(대학 적응력 검사)를 통해 대학 부적응 및 고위험군 학생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검사는 전반적인 대학 생활과 학업 적응력, 생활 전반에 대한 요인들을 다루고 있어 실질적인 자살 사고 및 자살 위험성에 대한 요인을 탐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몸이 아프면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듯이 마음도 몸처럼 미리 예방하고 증상이 심해지면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초기에 발견해 조기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자살을 예방하는 데 신속하게 감지하는 도구의 활용은 중요하다. 따라서 최근 활용되고 있는 자살 고위험군 선별도구 및 자살 위험성 평가도구(SSQ-SR, SSQ-OR)는 많은 대학생들과 상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자살 관련 다면적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자살 고위험군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과 자살 고위험군의 자기보고 뿐만 아니라 관찰자 평정이 가능하여 대상자를 잘 아는 관찰자를 통해서도 자살 위험도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어 대학 내 상담센터에서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연구자가 대학 내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상담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학과와 지도교수의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전체 재학생 중 절반도 안되는 학생이 대학적응력검사에 참여한 것이 이에 대한 증거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 단과대와 지도교수와의 긴밀한 협조와 관리자들을 위한 교육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진행되고 있는 자살예방교육은 어느정도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지

만 본 연구자가 제안한 생명존중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은 아직 증명되지 못하였으며 제시된 데이터와의 연계성도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더불어 이 연구가 대전지역 A 대학에서만 이루어졌다는 제한성이 있으며 지역 기관과의 협력방안도 분명 한계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존중인식과 자살예방에 관한 교육정책과 돌봄 체계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 참고 문헌

- 김경일, 『자살·자해 예방 융합적 예비 모델 구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6.
- 김호경, 『자살 예방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 대전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2022 대전광역시 정신건강백서』, 대전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2022.
- 목원대학교 학생상담센터, 『2024 학생생활보고서』, 목원대학교 학생상담센터, 2024.
-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4 자살예방백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4.
-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 『내 생명 소중하게 가꾸기』, 교육과학사, 2008.
- 안순태, 『자살 예방과 헬스 커뮤니케이션』,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 오진탁, 『자살예방의 철학』, 청년사, 2014.
- 이흥식 외, 『자살의 이해와 예방』, 학지사, 2012.
- 전국대학교학생상담센터협의회, 『2024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전국대학교학생상담센터협의회, 2024.
- GomGom, <https://blog.naver.com/wjdrntjq/lic>, 2025.01.02.
- Ostroff, R. & Boyd, J. H., “Television and suicid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vol. 316, Waltham, MA: MMS, 1987, pp.876-878.
- Pfeffer, C. R. ed., *Suicide among youth: Perspectives on risk and preven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1989.
- Stack, S., “Media coverage as a risk Factor in suicide”,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vol. 57, London: BMJ Publishing Group, 2003, pp.238-240.
- Swanson, S. A. & Colman, I., “Association between exposure to suicide and suicidality outcomes in youth”, *Canadian*

대학생들의 자살에 대한 인식과 예방을 위한 상담적 제안
: 대전 A대학을 중심으로 | 노성동

Medical Association Journal, Ottawa: CMA, vol. 185, no.
10, 2013, pp.870-877.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자살 및 자해 경험에 대한 인식과 경험, 그리고 예방을 위한 상담적 제안에 관한 연구이다. 대학생들의 자살 사고 관련 요인과 자살 충동 시 대처 방법, 그리고 이러한 대처 방법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은 자살 및 자해 시도가 있었고 자살 및 자해 예방에 도움을 받기 위해 자살예방교육과 개인상담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학생들의 자살 인식 개선과 예방을 위한 상담적 방안으로 현재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학생과 고위험군 대상 자살 예방 관련 상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실질적인 생명존중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대학 내 미디어 자살 유발·유해 정보 모니터링단 발족과 지역 자살 예방 센터와의 사후 상담 프로그램 연계 구축을 통해 대학 내 구성원들과 유가족을 위한 위기 대응 서비스 및 지원체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의 교육은 무관심과 학생들의 소극적 참여로 인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여전히 자살 잠재군이 존재하지만 이들 모두를 관리하기란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관련 부서와 학과와의 연계는 필요하며 이들을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는 상담적 방안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자살, 자해, 자살 예방, 생명 존중

■ Abstract

Awareness of suicide among college students Counseling suggestions for prevention : Focusing on Daejeon A University

Noh, Sung Dong / Mokwon University

This study is about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suicide and self-harm, and counseling suggestions for prevention. We analyzed factors related to suicidal thoughts among college students, coping methods when suicidal, and how helpful these coping methods wer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college students actually attempted suicide and self-harm and desired suicide prevention education and personal counseling to receive help in preventing suicide and self-harm. In response to this, as a counseling measure to improve awareness and prevent suicide among college students, we introduced a counseling program related to suicide prevention for current students and high-risk groups that i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in universities, and proposed a practical respect for life program. In addition, a plan for crisis response services and support systems for university members and bereaved families was presented through the launch of a media suicide-causing and harmful information monitoring group within the university and the establishment of a post-counseling program with a local suicide prevention center.

However, despite these alternatives, it is true that education in the field is still not easy due to indifference and passive participation of students. Potential suicide groups still exist, but managing them all is limited.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connect with related departments and departments, and counseling measures that can actively take care of them must be continuously sought.

This study aims to provide practical directions for future program improvements. By doing so, it intends to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connection between the university's general education and major education

programs.

Keyword • Suicide, self-harm, suicide prevention, respect for life

■ 논문투고일:2025.02.03. ■ 심사완료일:2025.03.10. ■ 게재확정일:2025.03.10. ■

중국 복건성(福建省) 유치원의 유아 무용교육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천주시(泉州市) 혜안(惠安)지역을 중심으로

장 신·이 주 희*

목 차

1. 서론
2.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3. 천주시 혜안지역 교사 및 학부모 설문
4. 결론 및 제언

1. 서론

유아 무용은 유아의 신체발달, 창의성, 사회성, 정서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예술적 경험을 통해 정서의 안정과 창의성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¹⁾ 특히 유치원 학령기의 만 3-6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무용교육은 지적 능력 개발과 소근육·대근육의 협응력을 기르는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유아 무용교육을 통해 유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고하거나 감정을 느끼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신체 발달은 물론이고 심

* 장신(제1저자) 중앙대학교 공연예술학과 무용학 박사수로
이주희(교신저자) 중앙대학교 공연영상창작학부 무용전공 교수

1) 이유리, 「놀이무용 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11쪽.

미력, 표현력, 감상력 등 다양한 방면으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²⁾ 또한 무용 활동은 다른 유아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

중국 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유아 무용교육의 중요성을 이전부터 인식하고 관련 지침을 발표해 왔다. 2001년 “유치원 교육 지도 요강(중국교육부, 2001)”이 발표되고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2012년에는 “3~6세 아동의 학습 및 발달 지침(중국교육부, 2012)”을 통해 유아가 능동적으로 예술활동에 참여하며 자기표현, 창의력 등을 함양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 “유치원 업무 규정(중국교육부, 2016)”을 통해 유아의 심미적 감각과 표현의 능력을 배양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유치원 보육 및 교육의 질 평가 지침(중국교육부, 2022)”에서는 유아의 자아존중감, 신체발달, 감성 지능 등을 고려한 풍부한 놀이 활동을 지원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향상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제도가 발표된 이후에도, 현재 상해와 북경 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지역의 유아 무용교육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상태이다. 교육 시스템 체계 역시 미비하여 각 지역 내 학교의 예술 교사를 양성하고 유아 무용 수업의 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중국국무원, 2020). 유아 무용교육이 미비한 지역 중에 복건성 천주시의 헤안지역도 유아 무용교육 및 시스템 등이 취약한 지역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황택신(黃澤新, 2023)³⁾은 천주시 유아 무용교육 시스템이 취약하다고 언급했다. 체계적인 유아 무용교육의 교재가 부족하기도 하고, 교사의 능력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천주시 지역 무용

2) 양명(梁萌), 「幼儿园舞蹈教学的问题及对策研究」, 山东师范大学 博士学位论文, p.7.

3) 황택신(黃澤新), 「基于闽南文化传承的“舞蹈基础与幼儿舞蹈”课程改革实践研究」, 『河北能源职业技术学院学报』, no. 3, 2024, pp.79-82.

과 같은 문화요인들을 적절히 활용하지 않아 유아 무용교육의 발전은 커녕 기존 우수한 지역 문화를 보존하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본래 천주시는 '해상 실크로드'의 거점 도시로서 독특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지역으로 문화 전승과 보호, 지역 교육 균형 발전 촉진, 사회 경제 및 문화 관광 촉진 등의 방면에서 중요한 지역이다. 이와 같이 문화지역으로의 강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 무용교육에 활용되는 사례가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위 논문을 통해서도 천주시 지역의 유아 무용교육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천주시 혜안지역의 유치원은 유아 무용교육에 대한 대중의 인식 수준이 낮고, 유아 교육의 초점이 인지 및 언어 발달에 치중되어 있어 예술 및 신체발달을 위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으로 파악된다(중국국무원, 2020). 대다수의 유치원은 교육 시설이 열악하고, 무용 전용 공간이 부족하여 유아의 무용교육을 실행하기 어려운 상태이다.⁴⁾ 이는 유치원 교육이 인지 및 언어 발달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무용교육을 통한 유아의 예술적 잠재력을 충분히 성장시키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특히 혜안지역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 무용교육 및 예술교육 정책 및 재정 지원이 미흡하여 자원과 시설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의 질과 다양성이 제한되고 있다.⁵⁾

이와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천주시 혜안지역 유치원의 유아 무용교육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유아 무용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염가기(闫佳琦, 2023)는 하북성(河北省) 보정

4) 중국 재정부, http://www.mof.gov.cn/zhengwuxinxi/xinwenlianbo/fujiancaizhengxinxilianbo/202112/t20211223_3777467.htm, 2024.11.03.

5) 중국뉴스, http://m.jyb.cn/rmtzcg/xwy/wzxw/202401/t20240123_2111148073_wap.html, 2024.10.26.

시(保定市) 지역 유치원을 대상으로 무용수업 관찰, 교사, 학부모, 유아 인터뷰를 통해 유아 무용교육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체 방안을 제시했다. 사비비 외(史飛飛 外, 2018)는 호남성(湖南省) 주주시(株洲市) 지역에 있는 지역 유치원의 원장, 교사, 유아,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아 무용교육 특성과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언했다. 양명(梁萌, 2016)은 산둥성(山東省) 제남시(濟南市) 지역에 유치원 무용교육 현황 및 환경·목표·내용·방식과 교사 능력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복건성 지역의 유아 무용교육에 관한 논문을 살펴보면 임방군(林芳君, 2023), 황택신(黃澤新, 2023), 림방방(林方芳, 2018)이 복건성의 민간무용을 유아 무용교육에 활용한 연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들은 민간무용의 보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단순히 무용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이며, 복건성 지역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심도 있게 분석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엽령(叶玲, 2022)은 천주시의 유아교육 전공자를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가(儒家)의 사상이 담긴 무용수업 교수법을 제시했다. 하지만 복건성 지역 내 유아 무용교육과 관련한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유아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유아 무용교육 개선방안을 도출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천주시 헤안지역의 유치원 유아 무용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유아 무용교육의 필요성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가 복건성 천주시 헤안지역 유아 무용교육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2.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표 1] 복건성 천주시 혜안지역의 10개 유치원 목록

유치원 이름	운영기간
SY유치원	72년
ZX유치원	34년
CN유치원	10년
ZS유치원	11년
XB유치원	68년
DL유치원	26년
HM유치원	13년
BL유치원	15년
DQ유치원	13년
GH유치원	10년

연구 대상은 [표 1]과 같이 복건성 천주시 혜안지역에 있는 10개의 유치원을 선정하였다. 유치원 원장 및 교사 209명, 학부모 312명에게 유아 무용교육의 현황에 관한 설문을 시행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조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설문조사를 사용하였다. 우선 유아 무용교육과 관련된 석, 박사학위논문, 일반 학술지 등을 통한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설문 문항을 작성하여 유치원 원장 및 교사, 학부모에게 배포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통해 유아 무용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조사 기간은 2024년 11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31일간 진행되었다. 작성된 설문 문항은 (오보선, 2005; 필옥연 畢玉娟, 2009; 유경리 劉景麗, 2011)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과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는 [표 2], 학부모 대상으로 한 설문지는 [표 3]과 같다.

설문지는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연령, 학력, 전공 분야 등)을 포함

하여 연구 주제와 관련된 설문 자료를 수집한다. 그리고 각 설문 문항의 조사 결과를 항목에 응답한 인원수, 그리고 해당 수치를 전체 인원수로 나눈 백분율 수치를 함께 나타내어 원그래프로 제시하였다. 단, 항목에 중복 응답이 되는 설문 문항의 경우 원그래프가 아닌 막대 그래프로 제시했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가 생각하는 ‘유아의 무용교육에 대한 흥미도’와 ‘유아 무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활용하였으며, SPSS 26.0을 사용하였다.

[표 2] 교사의 설문지 구성 및 내용

항목	문항 수	내용
응답자의 특성	4	연령, 학력, 전공, 교육기관유형, 근무 경력
유아 무용교육에 관한 인식도	12	유아 무용교육의 필요성, 목적, 의미 등
유아 무용교육의 개선방안	4	필요 요소, 기대 효과, 개선방안

[표 3] 학부모의 설문지 구성 및 내용

항목	문항 수	내용
응답자의 특성	4	유아의 연령 및 성별, 학부모의 학력 및 직업
유아 무용교육에 관한 인식도	6	유아 무용교육의 필요성, 목적, 의미 등
유아 무용교육의 개선방안	3	필요 요소, 기대 효과, 개선방안

3. 천주시 해안지역 교사 및 학부모 설문

천주시 해안지역의 유치원 유아 무용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0개 유치원을 선정하고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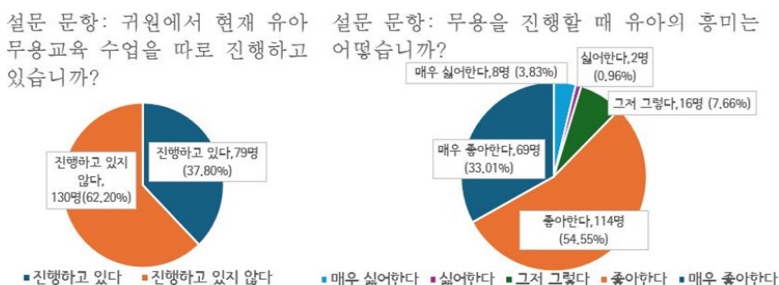
1) 교사 설문조사 결과

해안지역 유치원의 유아 무용교육의 실행 상황, 교사의 전문성, 학부모의 인식도, 유아의 흥미와 요구에 대한 교사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교사의 특성

교사의 연령은 20대에서 30대 후반이 44.02%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그리고 전공분야는 유아 교육(95.22%)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경력은 5년 이하가 43.45%, 6~10년이 41.15%, 그 이상은 24.4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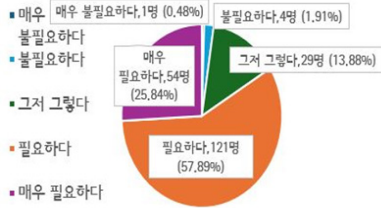
(2) 교사의 유아 무용교육에 관한 인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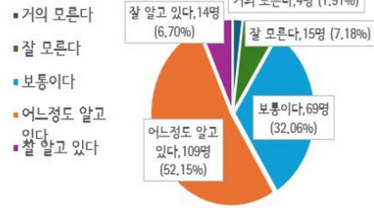
[그림 1] 교사의 유아 무용교육 인식도에 관한 설문 1

유아 무용수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유치원은 무용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유치원에 비해 높게(62.20%) 나타났다. 무용교육 수업의 유형에 대해 추가 설문한 결과 음악수업(77.51%), 아침체조(85.17%), 행사(80.38%)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이 외에도 콩쿠르(56.46%)를 위한 무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무용의 종류로는 자유 표현 및 율동(72.25%), 중국 전통무용 혹은 지역무용(58.37%), 체조(45.93%) 순으로 나타난다. 무용수업에 대한 유아의 반응으로는 주로 좋아한다(54.55%), 매우 좋아한다(33.01%)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두 수치를 합한 87.56%의 유아가 무용 활동에 흥미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설문 문항: 유치원에서의 유아 무용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 문항: 귀하는 댄스 리터러시가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습니까?



[그림 2] 교사의 유아 무용교육 인식도에 관한 설문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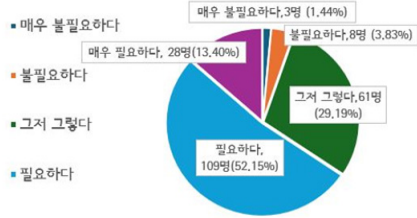
유치원에서 무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57.89%), 매우 필요하다(25.84%)고 응답한 비율은 합해서 83.73%였다. 그리고 유아 무용교육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댄스 리터러시에 대해 대부분의 교사가 알고 있으며, 개념에 대해 잘 모르는 교사의 비율은 약 9.09%였다. 또한 이러한 댄스 리터러시가 유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84.21%에 육박했다. 이를 통해 대다수의 교사가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을 알고 있으며, 중요성 또한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 설문 결과, 유아에게 필요한 무용교육 범위는 리듬에 맞추고 재미있는 율동(92.82%), 신체를 통한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90.43%)이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되었다. 한국의 현재 유아교육과정인 2019 개정누리과정에서는 ‘유아의 흥미가 중심이 되고, 유아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지향한다.⁶⁾ 대해 이해하고 있었으며, 무용이 유아의 창의적 표현 발달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6) 조형숙·최인옥, 「어린이과학관 전시 콘텐츠 분석: 서울 및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28권 2호, 2024, 232쪽.

중국 복건성(福建省) 유치원의 유아 무용교육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천주시(泉州市) 혜안(惠安)지역을 중심으로 | 장 신·이주희

설문 문항: 학부모에게 유아 무용교육에 대해
홍보하고 인식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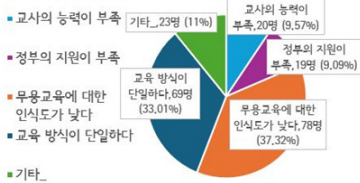


[그림 3] 교사의 유아 무용교육 인식도에 관한 설문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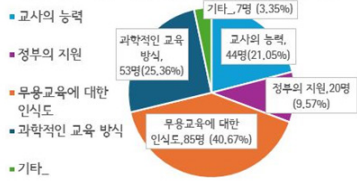
교사는 학부모에게 유아 무용교육을 홍보해야 하며, 교사는 학부모의 유아 무용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에 대해 65%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유아교육에 대한 홍보가 교사들이 아이를 가르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큰 영향을 미치며, 가정과 유치원 및 교육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3) 교사의 유아 무용교육 발전 방향

설문 문항: 현재 혜안의 유아 무용교육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문 문항: 유아 무용교육의 실현을 위해
다음 중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림 4] 교사의 유아 무용교육 발전 방향에 관한 설문

교사들은 혜안지역의 유치원 무용교육의 문제점 관련 설문에 대해 무용교육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37.32%), 교육 방식이 단일하다(33.01%)에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유아 무용교육을 실제로 진행하는 교사들이 느끼 기에도 혜안지역의 유아 무용교육 형식이 전통적이거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유아들의 다양한 학습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본 설문조사는 학부모들이 유아 무용교육에 대해 갖는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여, 현재 유아 무용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방안 및 발전시키기 위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유아의 기본 정보, 유아 무용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지지 태도, 학습 목적, 교육 효과 평가, 그리고 유치원 유아 무용교육에 대한 기대와 제안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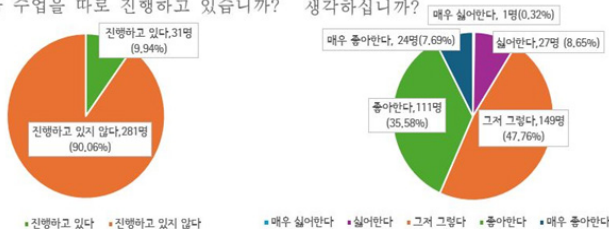
(1) 학부모의 특성

유아의 연령은 만 5세가 55.45%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 그 다음으로 만 4세(28.21%), 만 3세(16.35%) 순이었다. 성별은 남아 54.17%, 여아 45.83%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학부모의 최종학력은 고졸 및 이하가 (69.55%)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다수의 학부모 교육 이수 수준이 비교적 낮음을 알 수 있다. 학부모의 직업은 단 1명(0.32%)만 예술 관련 직종이었으며, 공무원 및 회사원이 8.65%, 교사 6.09%, 그리고 기타 직종이 69.55%, 무직이 15.38%였다.

(2) 학부모의 유아 무용교육에 관한 인식도

설문 문항: 현재 귀하의 유아가 유치원에서 무용교육 수업을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설문 문항: 귀하의 자녀가 무용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5] 학부모의 유아 무용교육 인식도에 관한 설문 1

설문 결과, 대부분의 학부모 유아들은(90.06%) 유치원에서 무용교육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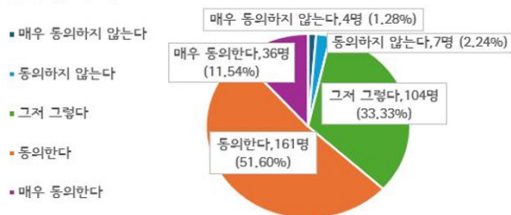
업을 따로 이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들이 인지하고 있는 무용 수업에 대한 유아의 흥미도 설문에서는 교사의 설문과는 다르게 좋아한다(35.58%), 매우 좋아한다(7.69%)의 비율이 합산하여 채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학부모의 유아 무용교육 인식도에 관한 설문 2

학부모의 유아 무용교육에 관한 인식도에 대해 설문한 결과,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잘 알고 있는 학부모의 비율이 총 28.52%였으며, 이를 통해 대부분의 학부모가 유아 무용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아 무용교육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응답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한다(39.10%)와 매우 지지한다(20.83%)가 59.93%로 나타나, 과반수가 유아 무용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 문항: 유치원부터 무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7] 학부모의 유아 무용교육 인식도에 관한 설문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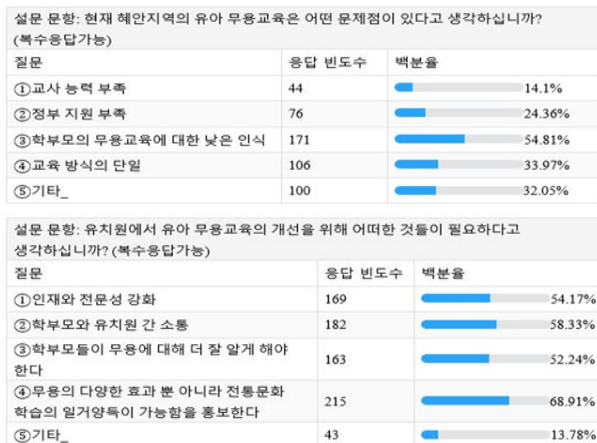
학부모는 [그림 7]과 같이 유치원부터 무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63.14%)이 그렇지 않은 비율(35.57%)보다 약 2배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유아 무용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으며, 유아 무용교육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3) 학부모의 유아 무용교육 발전 방향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아 무용교육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문한 결과, [그림 8]과 같이 학부모의 인식 부족(54.81%)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 방식의 단일(33.97%), 정부 지원 부족(24.36%), 교사 능력 부족(14.1%) 순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유아 무용교육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점을 물었더니, 지역의 전통문화 학습을 응용한 유아 무용교육 홍보(68.91%)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학부모와 유치원 간 소통(58.33%), 인재와 전문성 강화(54.17%), 학부모들이 무용에 대해 더 잘 알게 해야 한다(52.24%) 순으로 나타난다. 이는 대다수의 학부모가 무용 교육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와 전통 문화를 결합하는 방식을 원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무용 교육에 대한 이해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 학부모의 유아 무용교육 발전 방향에 관한 설문

3) 교사와 학부모의 유아 무용교육 설문에 대한 T-검정

설문지 결과 중, 교사와 학부모가 생각하는 ‘유아의 무용 흥미도 및 유아 무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서로 많은 격차를 보인다. 이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추가 실시하였다.

교사와 학부모 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독립표본 T-검정 평균비교 방식을 사용했으며, 집단 간 표본 수가 다르기 때문에 T-검정 이전에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실시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해 유아 무용 흥미도는 등분산을 가정, 유아 무용교육 필요성은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T-검정을 실시했다. T-검정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교사와 학부모의 ‘유아의 무용 흥미도 및 유아 무용교육의 필요성’
응답에 대한 T-검정 결과

	집단	N	M	SD	t	df	p
유아 무용 흥미도	교사	209	4.12	.883	9.634***	519	.000
	학부모	312	3.42	.769			
유아 무용교육 필요성	교사	209	4.07	.717	4.258***	491.958	.000
	학부모	312	3.76	.850			

* $p < .05$, ** $p < .01$, *** $p < .001$

위 결과를 통해 유아 무용 흥미도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응답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치를 보면, 교사가 생각하는 유아의 무용에 대한 흥미가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유아를 무용 수업 시간에 지도하는 교사들이 더욱 객관적으로 응답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교사는 유아가 무용 활동에 얼마나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직접 체감하기가 쉽지만, 학부모는 그러한 모습들을 관찰하기가 상대적으로 제한된다. 즉, 해당 설문 결과를 통해 학부모는 유아가 무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유아 무용교육 필요성에 대한 T-검정 결과에서도 교사가 학부모보다 유아 무용교육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림 7]에서 학부모들조차도 과반수 이상이 유아 무용교육을 필요로 한다고 응답한 점을 보면, 그만큼 교육 현장에서는 유아 무용교육을 더욱 절실히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유아의 무용교육 활동에 대한 흥미 수준이 교사들의 생각과는 사뭇 다른 점, 그리고 [그림 3]의 그래프에서 65% 이상의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유아 무용교육의 활동 및 효과에 관해 홍보해야 한다고 응답한 점을 미루어보면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흥미와 무용교육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들의 유아 무용교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홍보가 잘 이루어진다면 부모들 또한 더욱 유아 무용교육의 필요성을 실감할 것이다.

4.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중국 복건성 천주시 혜안지역 유치원의 유아 무용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혜안지역의 교사 209명, 학부모 31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혜안지역의 유치원에서 유아 무용교육 수업이 진행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교사 설문에서는 62.20%, 학부모 설문에서는 90.06%가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언어나 미술과 같이 유아교육기관에서 필수적으로 다루는 영역에 비해 유아 무용교육이 부족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유아의 무용 수업에 대한 흥미도를 설문한 결과 교사는 87.56%,

학부모는 43.27%가 흥미를 가질 것이라 응답했다. 또한 위 내용에 대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교사와 학부모 간 유아의 무용 수업에 대한 흥미도 인식 차이가 유의미하다고 분석되었다.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임을 고려했을 때,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에 대해 얼마나 유아 무용교육에 흥미가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교사의 응답 비율이 학부모의 2배가 넘는 수치를 보일 정도로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아 무용교육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설문한 결과 28.52%의 학부모만이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학부모가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아 무용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앞선 설문에서 자신의 자녀가 얼마나 무용 활동에 관심이 높은지를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하지만 유아 무용교육이 아이들의 댄스 리터러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물어본 결과 교사는 84.21%, 학부모는 59.93%이 긍정적이라 답변했다. 이를 통해 유아 무용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학부모들조차도 유아 무용교육이 아이들의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짐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유아 무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한 결과 교사는 83.73%, 학부모는 59.9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교사와 학부모 간 의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즉, 대부분의 학부모가 유아 무용교육에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지만 교사는 그보다 더욱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65.55%의 교사가 유아 무용교육의 효과와 관련 정보를 학부모에게 홍보해야 한다고 했고, 홍보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5.27%에 불과했다. 즉, 학부모가 유아 무용교육의 정확한 효과와 가치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설문 결과에서 위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다고 짐작할 수 있다. 만약 학부모의 유아 무용교육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다면 지역적으로, 나아가 중국 전역에서 유아 무용교육 발전의 기류가 형성되고 관련 교육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아 무용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한 교사 설문 결과, 무용교육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40.67%)에 대한 응답이 가장 빈번했고, 다음으로는 과학적인 교육 방식(25.36%), 교사의 능력(21.05%), 정부의 지원(9.57%), 기타(3.35%) 순이었다. 해당 설문 결과 또한 유아 무용교육의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동일 질문에 대한 학부모의 설문 결과 또한 동일했다. 학부모들 또한 헤안지역의 유아 무용교육 문제점 1순위로 ‘학부모의 무용교육에 대한 낮은 인식’(54.81%)을 꼽았다.

그리고 현재 헤안지역의 유아 무용교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학부모 설문에서는 무용의 다양한 효과 뿐 아니라 전통문화 학습의 일거양득이 가능함을 홍보한다(68.91%)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학부모와 유치원 간 소통(58.33%), 학부모들이 무용에 대해 더 잘 알게 해야 한다(52.24%) 항목에 과반수가 응답한 것으로 보아 학부모가 생각하기에도 유아 무용교육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고, 관련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재와 전문성 강화(54.17%)도 높게 나타나 무용 관련 인력 양성 시스템에 대한 지원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개선방안 및 제언

앞서 진행했던 헤안지역의 유치원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설문을 통해 유아 무용교육과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우선 문제점에서는 학부모의 인식 부족(교사 37.32%, 학부모 54.81%)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교육 방식의 단일(교사 33.01%, 학부모 33.97%), 정부 지원 부족(교사 9.09%, 학부모 24.36%), 교

사 능력 부족(교사 9.57%, 학부모 14.1%) 순이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학부모의 인식도

학부모의 유아 무용교육에 대한 인식도는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부모의 교육적 태도와 인식은 유아의 무용 교육 참여도와 지속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무용 교육은 신체적 협응력, 정서적 표현, 인지 발달 및 예술적 심미력 형성 등 유아의 다방면 성장에 기여하기 때문이다.⁷⁾ 위 내용, 그리고 [그림 3, 4]에 따르면 유치원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아 무용교육의 중요성과 효과를 알리는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학부모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유아 무용교육의 실질적인 참여를 촉진해야 하고, 유아를 성장하는데 필요한 무용 리터러시와 그 효과에 대해 설명할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⁸⁾ 현재 혜안지역 유치원은 학부모의 유아 무용교육 개선을 위해 학부모와 유치원 간의 의사소통으로 학부모의 인식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는 학부모와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여 학부모가 유아 무용에 관한 교육 이념과 교육 방법 등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 마찬가지로 학부모는 교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합리적인 제안도 역으로 교사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유치원 학부모회의 및 지역 사회 활동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를 진행하면 인식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유치원이 정기적으로 유아 무용교육 체험 수업을 개최하여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고, 무용교육이 유아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실제로 경험하도록 하는

7) 후영(侯颖), 「探析学前教育专业舞蹈教学的创新」, 『长春教育学院学报』, vol. 30, no. 7, 2014, p.98.

8) 두계명 외(杜啓明·江芳), 「西部农村幼儿园乡土教育资源的开发利用探究」, 『Journal of Guizhou Normal College』, vol. 31, no. 4, 2015, p.74.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를 통해 학부모가 유아를 지도하는 방법과 기술을 더 잘 이해하고, 유아 무용교육에 대한 참여도와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유아 무용교육의 장점과 성공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는 홍보자료나 온라인 자료를 제작하여 학부모의 양육 자신감과 흥미를 증대시킬 수 있다. 유치원은 학부모의 의견과 제안을 수집하여 유아 무용교육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학부모가 유치원 무용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2) 교육 과정 방향

유아의 흥미는 유아 무용교육의 핵심 요인이다.⁹⁾ 따라서 유치원과 같은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무용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함에 있어 유아의 흥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흥미가 학습의 자율성으로 이어져 유아가 무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즐거운 경험 속에서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킴으로써 무용 교육의 목표 달성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때문이다.¹⁰⁾ 이에 따라 다양한 방식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교수법을 활용함으로써 유아들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그림 4, 8]과 같이 교사와 학부모 모두 교육 방식의 단일함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고려해보면, 유아들의 학습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수 방법을 탐색하고 현대 교육 이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유아 무용교육 과정에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 요소는 게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아의 창의력을 자극하고, 즐거운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무용 활동은 유아들에게 무용을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닌 예술적 자기표현의

9) 왕혜(王慧), 「浅议幼儿园舞蹈教学的创新性与规范化」, 『2020年“基于核心素质的课堂教学改革”研讨会论文集』, 2020, p.546.

10) 이유리, 앞의 논문, 11쪽.

기회로 인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이나 교사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나름대로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¹¹⁾ 동시에 중국의 전통 문화와 지역 문화를 무용교육에 실행하여 유아의 무용 활동을 풍부하게 하고, 문화적 인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정부의 지원

현재 혜안지역의 유아 무용교육은 대부분의 학부모가 인지하고 있지 못할 만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며, 유아 무용교육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아 무용교육이 발전하려면 국민의 유아 무용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정부의 지원은 필요한 자원, 정책 및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여 유아 무용교육의 인식 개선을 서두로 하여 유아 무용교육 서비스의 보급과 규범화를 촉진하고, 교사 역량을 강화하며 교육 시설을 최적화하고, 가정과 지역 사회에 더 많은 유아 무용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공평성과 질을 보장할 수 있다.¹²⁾

[그림 4, 8]에 따르면 일부의 교사와 학부모가 정부의 재정 지원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아 무용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에서 유아교사들의 무용 관련 역량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재정적 지원을 늘려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유아 무용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 교육 기관이 더욱 효과적으로 무용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문화 교육부는 유아 무용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확충해야 한다. 유아 무용교육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적 조치와 정책적

11) 고은숙·차은주, 「유아무용 지도자 프로그램 현황 및 개선 방안」, 『한국무용학회지』 16권 2호, 2016, 2쪽.

12) 장초(張超), 「提升我国幼儿舞蹈教育质量的办法」, 『新课程学习: 下』, no. 6, 2014, p.3.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유아 무용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전국에 분포한 대학교에 유아 무용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과목을 신설 및 확충하거나, 유아 교사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무용교육을 들을 수 있게 온라인 강의를 개설하고, 혼인 신고를 한 부부에게 미리 유아 무용교육의 효과와 중요성을 알리는 자료집을 배부하는 등의 방법도 현 해 안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림 8]에 서와 같이 지역 문화가 담긴 전통무용이 녹아든 유아 무용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려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재정 지원으로 관련 연구가 활성화된다면, 유치원과 정부의 협업 아래 유아의 흥미와 발달 단계에 맞는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무용교육 과정을 설계하기가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이를 통해 유아의 심미력과 창의적 표현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고, 나아가 특정 지역의 인지도 있는 전통 문화와 융합한다면 유아의 문화적 이해를 넓힐 뿐 아니라 지역문화도 보존하는 일거양득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4) 교사의 능력

교사는 유아가 무용을 배우는 과정에서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수행한다. 전문 무용 교사는 과학적인 교수법과 유아의 신체 및 심리 발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연령별 특성과 발달 요구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유아 무용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또한, 무용 기술과 예술적 리터러시를 통해 유아의 예술적 표현력 및 창의성을 효과적으로 함양함으로써 유아 무용교육의 체계화와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¹³⁾ 이에 따라 유아 무용교육의 발전을 위해 인재 양성과 전문성 제고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13) 주로로 외(周璐璐·杨晶麟), 「当下学前儿童舞蹈教育现状分析与思考」, 『当代音乐』, no. 1, 2017, p.67.

[그림 4, 8]에 따르면 유아 무용 전문 인재의 양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전문 인재 양성 시스템을 통해 교사의 교육 수준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유아 무용교육은 무용 전문인이 담당함으로써 그 질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무용 전문인과 유아 교육 전문인의 협력을 통해 유치원 무용 수업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정부와 교육 기관은 협력하여 유아 무용 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재 양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계획은 전문 무용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 무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무용교육 인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¹⁴⁾ 또한 유아 무용 교육 관련 전문가와 교육자들이 상호 교류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유아 교육 전문가들이 무용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자원과 지원을 제공해야 하여 무용 수업의 질을 높이고 유아들에게 더 나은 무용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본 연구는 설문 조사를 통해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현재 혜안지역 유치원의 유아 무용교육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유아 무용교육 개혁과 발전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해당 결과는 혜안지역 유아 무용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 유아의 종합적인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며, 참고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혜안지역의 유아 무용교육 발전을 더욱 촉진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진행되었던 설문조사의 특성상 실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댄스 리터러시나 유아 무용교육 관련 요소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가 제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대한 후속연구로 유아 무용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유치원이나 지역에 대해 심도 있게 비교하여 더욱 양질의 연구결과를 만들어내길 제언한다.

14) 전민(田敏), 「对现阶段我国幼儿舞蹈教育的几点思考」, 『教育界』, no. 13, 2020, p.80.

■ 참고 문헌

- 고은숙·차은주, 「유아무용 지도자 프로그램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무용학회지』 16권 2호, 2016, 1-10쪽.
- 오보선, 「유아교육기관의 한국무용 교육 현황조사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이유리, 「놀이무용 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 조형숙·최인옥, 「어린이과학관 전시 콘텐츠 분석: 서울 및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28권 2호, 2024, 231-252쪽.
- 두계명 외(杜啓明·江芳), 「西部農村幼兒園鄉土教育資源的開發利用探究」, 『Journal of Guizhou Normal College』, vol. 31, no. 4, 2015, pp.71-75.
- 양명(梁萌), 「幼兒園舞蹈教學的問題及對策研究」, 山東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16.
- 유경리(劉景麗), 「邢臺市幼兒舞蹈教學調查與研究」, 河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 임방군(林芳君), 「福建民間舞蹈在學前教育中的應用」, 『戲劇之家戏剧之家』, no. 36, 2023, pp.145-147.
- 림방방(林方芳), 「以“閩南童謠”爲素材的少兒舞蹈創作探析」, 福建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8.
- 사비비 외(史飛飛·崔建東·唐靜遠), 「美育視角下農村幼兒園舞蹈教學研究—以株洲地區農村幼兒園舞蹈教學爲例」, 『現代交際』, no. 14, 2018, p.3.
- 염가기(闫佳琦), 「幼兒園大班舞蹈教學現狀及對策研究」, 河北大學 碩士學位論文, 2023.
- 왕혜(王慧), 「淺議幼兒園舞蹈教學的創新性與規範化」, 『2020年“基於核心素養的課堂教學改革”研討會論文集』, 2020, pp.545-548.
- 장초(張超), 「提升我國幼兒舞蹈教育質量的辦法」, 『新課程學習: 下』, no. 6, 2014, p.3.

- 전민(田敏), 「對現階段我國幼兒舞蹈教育的幾點思考」, 『教育界』, no. 13, 2020, pp.80-81.
- 주로로 외(周璐璐·杨晶麟), 「當下學前兒童舞蹈教育現狀分析與思考」, 『當代音樂』, no. 1, 2017, p.67.
- 필옥연(畢玉娟), 「學前舞蹈教育現狀的調查與研究」, 山東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9.
- 엽령(叶玲), 「“課程思政” 理念下儒家仁愛思想在學前教育專業舞蹈課的教學設計與實踐」, 泉州師範學院 碩士學位論文, 2022.
- 황택신(黃澤新), 「基於閩南文化傳承的幼兒舞蹈教學改革的新思路」, 2023年第六屆智慧教育與人工智能發展國際學術會議論文集』, no. 2, 2023, pp.141-144.
- 황택신(黃澤新), 「基於閩南文化傳承的“舞蹈基礎與幼兒舞蹈”課程改革實踐研究」, 『河北能源職業技術學院學報』, no. 3, 2024, pp.79-82.
- 후영(侯穎), 「探析學前教育專業舞蹈教學的創新」, 『長春教育學院學報』, no. 7, 2014, pp.98-99.
- 중국국무원, https://www.gov.cn/gongbao/content/2020/content_5554511.htm, 2024.09.28.
- 중국교육부, http://www.moe.gov.cn/srcsite/A06/s3327/200107/t20010702_81984.html, 2024.09.28.
- 중국교육부, http://www.moe.gov.cn/srcsite/A06/s3327/201210/t20121009_143254.html, 2024.09.28.
- 중국교육부, http://www.moe.gov.cn/jyb_xxgk/xxgk/zhengce/guizhang/202112/t20211206_585104.html, 2024.10.28.
- 중국교육부, http://www.moe.gov.cn/jyb_xwfb/gzdt_gzdt/s5987/202202/t20220215_599296.html, 2024.10.28.
- 중국 재정부, http://www.mof.gov.cn/zhengwuxinxi/xinwenlianbo/fujiancaizhengxinxilianbo/202112/t20211223_3777467.htm, 2024.11.03.
- 중국뉴스, http://m.jyb.cn/rmtzcg/xwy/wzxw/202401/t20240123_2111148073_wap.html, 2024.10.26.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중국 복건성 천주시 헤안지역에 유아 무용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한다. 이에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10개 헤안지역의 유치원 원장 및 교사 209명, 학부모 312명에게 유아 무용교육의 현황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학부모의 인식도 부족, 교사의 능력 부족, 체계적인 유아 무용교육 과정 부재와 정부의 지원 미흡 문제점이 도출하였다.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헤안지역 내 유아 무용교육에 대해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유아 무용교육, 중국 복건성 천주시 헤안지역 유치원, 중국 유아 무용교육, 헤안지역 유아 무용교육, 개선방안

■ Abstract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Early Childhood Dance Education in Kindergartens in Fujian Province, China : Focusing on the Hui'an Province of Quanzhou City

Zhuang, Chen / Chungang University

Lee, Juhee /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improvement measures to promote early childhood dance education in Hui'an Province, Quanzhou City, Fujian Province, China. A survey was conducted on 209 principals and teachers, as well as 312 parents, from 10 selected kindergartens in the Hui'an region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early childhood dance education.

The results revealed several issues, including a lack of awareness among parents, insufficient capabilities of teachers, the absence of a systematic early childhood dance education curriculum, and inadequate government support. Based on these findings, effective improvement strategies for early childhood dance education in the Hui'an region were proposed.

Keyword • Early Childhood Dance Education, Kindergartens in Hui'an Region Quanzhou City Fujian Province China, Early Childhood Dance Education in China, Early Childhood Dance Education in Hui'an Region, Improvement Measures

미디어 시대, 교양교육으로서 향유적 문학 읽기 교육 방안 연구

임 인 화*

목 차

1. 들어가면서
2. 미디어 시대 문학 읽기 환경 변화와 향유적 문학 읽기 교육
3. 미디어 시대 향유적 문학 읽기 수업 설계 및 양상 분석
4. 나오면서

1. 들어가면서

본 연구는 미디어 시대 도래로 인한 독서 환경의 변화가 문학의 생산과 수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피고, 미디어 시대, 대학 교양교육으로서 향유적 문학 읽기 교육의 방향성 및 실제 교육 양상을 살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모두들 미디어 시대라고 한다. 미디어의 역할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최근처럼 미디어가 사회 전반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시대는 없었다. 기존 매스 미디어와 다른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들은

* 임인화(주저자) 진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소통 방식을 변화시켜 책의 소비 패턴 및 문학 수용 및 생산 양상까지도 바꾼다. 이를 두고 제도권 교육에서는 달라진 의사소통 환경에 대비해 ‘매체’¹⁾ 과목을 신설하는 등 미디어 시대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디어 시대의 도래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교양 교육 방안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자 또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교양교육 노력의 일환으로 미디어 시대의 향유적 문학 읽기 교육 방안을 설계하려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독서 환경과 문학 수용 및 생산 형태의 변화를 살피고 이를 토대로 문학교육의 방향성과 지향점을 모색하겠다. 이후 개인의 문화적 체험과 미디어 경험을 활용한 향유적 문학 읽기 교육 방안을 구안, 실제 대학교 학습독자들에게 적용하여 나타나는 향유적 문학 읽기 양상에 대해 살펴보겠다.

2. 미디어 시대 문학 읽기 환경 변화와 향유적 문학 읽기 교육

1) 미디어 시대 도래와 독서 및 문학 읽기 환경의 변화

오랫동안 독서는 정보와 지식 획득의 주요 수단이자 정서 함양과 자아성찰에 유용한 행위로 여겨졌다. 그러나 1년동안 한 권 이상 책을 읽었다는 성인 인구 비중 및 연간 독서량이 2013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통계 자료는 ‘독서’의 지위가 예전과 같지 않음을 보여준다.²⁾ 물론 여전히 사람

-
- 1) 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2022, 3-5쪽. (2022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국어과의 핵심 역량 중 하나를 ‘디지털 미디어 역량’으로 제시하였고 국어과의 성격 및 목표에는 ‘다양한 유형의 담화, 글, 국어 자료, 작품, 복합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를 제시함으로써 미디어 시대에 대비하는 국어 교과와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2)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국민독서실태조사』, 2023a, 80-89쪽. (2023 국민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에 책 1권 이상 비율을 파악하는 성인들의 종합독서율은 2013년 72%를 기록한 이래로 점차 감소, 21년과 23년에는 각각 47.5%,

들은 자신의 독서량이 부족함을 인지하고³⁾ 독서가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부정하지 않는다.⁴⁾ 그럼에도 독서를 하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과거에는 독서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을 ‘여가 시간’ 부족으로 꼽았지만 우리나라 국민 여가시간은 2012년 주 5일제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이기에⁵⁾ 독서 시간 및 독서율 감소 원인을 여가시간 부족으로 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오히려 독서를 방해하는 직접적 요소를 ‘일(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성인 24.4%, 학생 31.2%)로 꼽은 비중 보다 ‘책 이외 매체를 이용해서’(성인 23.4%, 학생 20.6%)나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성인 18.3%, 학생 24.4%)의 비중이 많은 사실에서 드러나듯⁶⁾ 현대인들이 독서하지 않는 이유는 절대적인 시간 부족보다는 독서에 사용할 시간 부족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여가시간에 책 대신에 다른 콘텐츠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과 책 읽기를 기피하며 책 읽는 습관이 부재한 것은 책을 읽지 않는 행위와 개별 관계가 아닌 닭과 달걀처럼 선후를 구별하기 힘든 순환적 인과관계이다.

43%로 우리 나라의 인구 절반 이상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음이 나타났다. 독서량 역시 2019년의 7.5권에서 21년 4.5권, 23년 3.9권으로 나타나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 3) 문화체육관광부, 위의 책, 66쪽. (본인의 독서량에 대해 성인(71.9%)과 학생(52%) 모두 부족하다는 응답을 했으며, 독서량 부족에 대한 인식은 이전 조사에 비해 상승하였다.)
- 4) 문화체육관광부, 위의 책, 74쪽. (독서의 효용에 대한 인식은 성인(67.3%)과 학생(77.4%) 모두 과반 이상으로 긍정적 태도를 나타냈다. 성인의 경우 학력 및 가구 소득 수준, 독서량에 따라 긍정적 인식도가 비례하였으며, 학생의 경우 학령과 독서량이 높아질수록 독서가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 5)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국민여가활동조사』, 2023b, 38-39쪽. (주 5일제 도입 이전 우리 국민의 여가시간은 2012년 기준 평일 3.3시간, 휴일 5.1시간이었다. 그러나 2012년 주 5일제 도입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로 2023년 기준 우리 국민의 평균 하루 여가시간은 평일 3.6시간, 휴일 5.5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 6) 문화체육관광부, 앞의 책, 2023a, 71쪽.

문자 언어는 시각적 자극에 의존해 의미 요소를 선조적으로 나열하고 조직한 뒤, 문단을 통해 구성의 짜임을 가시화한다. 반면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전달되는 복합양식 텍스트는 시각, 청각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고 다양한 양식의 효과적 배열 및 배치를 활용해 의미를 전달한다.⁷⁾ 이러한 까닭으로 단일한 시각 감각만을 활용하는 단일 양식 텍스트 읽기는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 의미를 재구하는 복합양식 텍스트 읽기에 비해 학습자에 따라 단조롭고 지루한 행위로 여길 수 있다. 또한 단일 양식 텍스트가 인간의 추상적 사고의 과정을 거쳐 의미를 재구하는 과정을 요구하지만 복합양식 텍스트는 복수의 기호 양식이 응집적으로 의미 작용에 관여하기에 수용자가 훨씬 수월하게 의미를 처리하고 구성하게 한다. 따라서 단일 양식 텍스트에 비해 복합 양식 텍스트는 해석에 대한 독자의 부담감을 덜어준다. 이러한 까닭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단일 매체인 독서보다 복합매체 콘텐츠 소비를 선호한다.⁸⁾ 더구나 지식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독점적 매체로서 지위를 누리던 지면과 활자가 더 많은 정보가 더 빠르고 깊숙하게 전파되기를 요구하는 정보화 사회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정보와 지식 제공의 독점적 지위로서 책의 위상은 더욱 흔들리고 있다.

복합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흔들리던 책의 위상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전자책’의 등장으로 인해 위기와 기회가 혼재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인과 학생의 종합 독서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지만 오디오북, 웹소설, 전자신문과 같은 일련

7) 편지윤 외, 「복합양식 텍스트의 텍스트성 재개념화를 위한 시론」,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권 2호, 2018, 501쪽.

8) 문화체육관광부, 앞의 책, 2023a, 71쪽. (이러한 경향은 책 읽기를 선호하는 독자보다, 비독서자의 경우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앞서 언급한 독서 장애 요인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비독서자의 경우, 독서자에 비해 독서 장애요인으로 ‘책읽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 ‘책 읽기가 재미없어서’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에 따라 비독서자의 독서 흥미 고취를 통한 습관화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의 ‘전자책’을 통한 독서의 비중은 2013년 관련 통계가 실시된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⁹⁾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유지된다면 전자책 및 오디오북을 통한 독서의 비중이 전통적 방식의 독서 비중을 상회할 수도 있을 것이다.¹⁰⁾ 물론 전통적 형태든 전자책 형태든 간에 읽기를 수행하는 독서 인구가 증가한다는 점은 긍정적 현상이다. 하지만 전자책의 등장이 전통적 독서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 우리는 종종 전자책을 종이책의 물성을 없애 수십 권의 책을 한곳에 넣거나, 언제 어디서든 읽을 수 있게 대체적 도구로 규정한다.

그러나 전자책은 단순히 기록 장소를 종이에서 전자 기기로 변환한 독서 수단이 아니다. 오히려 전통적 읽기와 차별된 독서 경험을 제공하는 새로운 독서 수단으로 봐야 한다. 전자책은 독자에게 활자뿐만 아니라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접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선조적 방식의 독서에서 벗어나 맥락과 문맥을 뛰어넘는 하이퍼(Hyper)적 독서나, 부분을 발췌해 읽는 독서 경험을 제공한다. 독자는 독서 과정에서 모르는 단어를 검색하거나, 어려운 부분의 해설을 들으며 책을 이해하기도 한다. 또한 다른 독자가 밑줄 그은 부분을 공유하며 다른 이와 감상을 공유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독서는 전통적 책 읽기 방식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전자책 읽기는 그 대상인 책의 물리적 형태의 변화뿐 아니라 그

9) Binder, J., “Curling up with a good e-book”, Aerospace America, vol. 46, no. 8, 2028, pp.20-22. (여기에서 전자책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전자책 전용 단말기등을 통해 화면으로 읽기활동을 하는 디지털 도서’로 정의하며 세부 분야로는 종이책 기반 전자책, 디지털 기반 전자책, 교육용 인터랙티브 전자책, 전자신문, 전자잡지, 전자 사보, 전문지식 데이터베이스, 오디오북을 망라한다.)

10)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3 출판산업 실태조사』, 10-11쪽. (이러한 경향은 도서 관련 사업에서 전자책 비중의 증가로도 드러난다. 2015년에서 2022년까지 일반책 매출액과 사업체 종사자 수 추이는 연평균 6.4%, 4.0% 증가하였으나 전자책의 경우 각각 24.8%, 21.5% 증가세를 보여 일반 책에 비해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안에 들어 있는 정보의 내용과 형식, 더 나아가 읽기 자료 범주의 근본적 변화를 함의한다.¹¹⁾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저자와 상상적 대화를 나누기를 요구받는 종이책 읽기와 달리 전자책은 책을 읽는 동안 이해와 감상을 위한 정보를 얼마든지 제공받는다. 이러한 전자책의 특징을 두고 누군가는 독서를 위한 ‘도움’으로 여기겠지만 누군가는 독서를 ‘방해’하는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과거에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어느 한 종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하는 경쟁 관계로 여기며 전자책 시장의 폭발적 성장으로 인해 머지않아 전자책이 종이책을 대체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과 문화의 등장이 반드시 기존 기술과 문화의 종말로 이어지는 않는다. 과거 사진과 영화의 등장은 그림과 연극의 종말을 건인할 것이라 했지만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사진과 그림, 연극과 영화는 독자적인 미를 추구하는 고유의 예술 영역으로 남아있다. 그런 점에서 종이책과 전자책 역시 어느 한 종류로 대체되기 보다는 독자의 독서 목적과 선호도에 따라 적절하게 책의 형태를 선택하는 서로 다른 독서 문화 방식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종이 위의 활자’로 한정하고 ‘종이책’의 효용성에만 주목했던 것에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독서 수행 양식 증가와 이로 인한 독서 환경의 변화에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¹²⁾

한편, ‘책’의 형태가 전통적 개념의 책과 전자책으로 분화되고, 읽기의 범주가 단일 양식에서 복합양식으로 확장되고 있는 독서 환경의 변화는 ‘읽기’라는 행위를 공유하는 문학 환경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 문학 역시

11) 류보라, 「중학생의 디지털 읽기 실행과 독자 정체성의 관계 연구」, 『독서연구』 64호, 한국독서학회, 2022, 110-115쪽.

12) 김혜정, 「미디어 시대의 책맹(비독서) 현상과 독서 교육의 방향」, 『독서연구』 52호, 한국독서학회, 2019, 16쪽.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으로 인한 책의 미래에 대해 연구자에 따라 진화와 비판의 측면에서 확연하게 다른 전망을 드러낸다. 전자는 미디어의 출현을 새로운 형태의 확장된 문식성 도출의 기회로 여기는 반면, 후자는 책의 종말과 이로 인한 폐해를 부각한다.)

'종이'라는 지면 위의 활자만 읽던 방식에서 벗어나 활자를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복합양식의 형태로 탈바꿈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오디오북'이다. 활자로 읽어야 하는 책을 음성으로 전환해 귀로 내용을 듣는 오디오북은 문어가 아닌 구어를 사용하기에 전통적 개념의 독서와는 다른 형태의 독서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오디오북의 효용성에 대해 연구자들은 활자로 된 책과 오디오 북의 수용 양상이나 이해도, 인지 과정을 비교해 종이책의 손을 들기도 하고, 구술성의 뛰어난 교육적 효과를 강조하기도 한다.¹³⁾

그러나 동일한 오디오북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 사실이나 논리적 정보를 담은 오디오북과 시나 소설과 같은 문학을 담은 오디오북은 텍스트의 전달이나 수용의 측면에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 균, 쇠'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오디오북으로 접한 것은 독서라고 봐야 하는가? 만약 이를 독서로 볼 수 없다면, 한강의 '채식주의자'나 박준의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를 오디오북으로 접한 것은 문학을 감상한 것으로는 볼 수 있을까?

연구자는 전자의 질문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후자의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답하고 싶다. 이는 문학은 원래 음성과 문자라는 두 종류의 언어를 기반으로 탄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품 속 화자나 서술자는 오디오 북의 낭독자로 쉬이 대체될 수 있다. 문자 언어로 표현된 문학 속 세계관이 오디오북 속 음성으로 충분히 구현될 수 있으며, 문자를 통한 문학 적 상상력의 발현 또한 음성언어로 충분히 재현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어떤 장르보다 문학은 오디오북과의 친연성을 갖는다. 더구나 오디오북이 단순히 문자를 음성으로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다양한 음성 효과나 전문 성우를 활용함으로써 텍스트에 대한 몰입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감안

13) William Irwin, "Reading Audio Books", *Philosophy and Literature*, vol. 33, no. 2,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9, pp.358-368.

하면 문학 감상의 매개로써 오디오북이 주는 교육적 의의는 기존의 문학 감상법에 결코 뒤지지 않다고 본다.

비단 오디오북뿐만 아니라, 전자책으로 인해 문학 작품의 수용 양상이 다변화 되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오랫동안 문학에서는 시와 그림, 이야기와 삽화가 하나의 책에서 공존해왔다. 시 그림책에 제시된 시와 그림의 결합은 시적 이미지와 그림 이미지를 중첩적 구성을 통해 학습자의 감상 능력 및 문학 능력 신장이라는 교육적 유의미성을 갖는다.¹⁴⁾ 이는 이야기책에 담긴 삽화와 이야기의 경우에도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이러한 결합은 주로 인쇄매체로 구현되었기에 시와 그림, 이야기와 삽화의 만남은 학습자에게 ‘시각적’ 경험의 확장으로만 한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한정성은 전자책을 통한 ‘음성’의 결합과 함께 벗어날 수 있다. 눈으로는 시를 읽으면서 귀로는 해당 시를 낭독하는 음성을 듣거나 삽화와 문자로만 환기하던 어두운 분위기를 음울한 음악을 들으며 소설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문학 경험은 문식성과 연식성을 통합하고 넘나드는 ‘리토러시(literacy)’를 요구¹⁵⁾한다는 점에서 학습자에게 기존과는 차별화된 문학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지면이라는 매체를 탈피함으로 인해 생긴 차별화된 문학 경험은 영상시, 영상소설, 디카시, 챗 소설 등 새로운 형태를 가진 다양한 문학의 등장으로 더욱 활발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처럼 지면과 문자 언어 중심의 전통적 형태에서 벗어난 도서의 등장과 기술의 발전으로 태동한 여러 복합매체는 독서 환경 및 문학 환경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복합 양식 텍스트가 주도하는 새로운 읽기 환경에서 바람직한 교양 교육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연구, 디지털 텍스트로서

14) 이운영, 「시 그림책의 이미지 분석과 그 교육적 방향 탐색: 시 그림책 『만약에』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74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22, 103-134쪽.

15) 박성석, 「오디오북의 국어교육적 활용 가능성 탐색」, 『독서연구』 67호, 한국독서학회, 2023, 37쪽.

의 문학 읽기에 대한 심도 있는 교양 교육적 논의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2) 미디어 시대 향유적 문학 읽기 교육의 방향성

‘누리어 가짐’이라는 어원적 뜻을 지닌 ‘향유’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른 이견이 있었다.¹⁶⁾ 향유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종합하면 대체적으로 ‘향유’는 첫째, 독자의 주체성과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행위, 둘째, 문학 텍스트를 해석하고 감상해 텍스트의 의미를 수용하고 생성하는 즐거움을 얻는 활동, 셋째, 이러한 즐거움을 자유롭게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배우고 성장하는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¹⁷⁾ 하지만 문학 읽기와 관련한 ‘향유’의 논의 대부분이 주로 제도권 교육의 측면에서 논의되다 보니, 문학 읽기 활동의 대상을 종이 매체에 문자언어로 기록된 인쇄물로, 또한 인쇄물의 범주 선정의 기준 또한 학생들의 취미나 흥미보다는 ‘정전’ 및 고전 같은 문학적 가치에 두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지향하는 바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미디어 시대 독서 및 문학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미디어 시대 향유적 문학 읽기 교육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려 한다.

16) 이인화, 「문학교육에서 수용 계열 개념어에 대한 연구」, 『문학교육학』 76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22, 288-330쪽. (향유 개념과 관련한 이견에 대해서는 이인화의 논의를 참고할만하다. 이인화는 향유를 수용 계열의 한 개념어인 자기화에 포함되는 개념어로 보았다. 그는 델파이 기법을 통한 연구를 통해 수용과 관련한 대표적 개념어를 이해, 감상, 해석, 비평, 자기화, 소통으로 두고 각각의 의미와 각 범주에 해당되는 개념어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연구자 스스로 밝히듯이 해당 개념어의 의미와 타당성에 대한 합의도가 낮다는 사실은 향유 개념에 관한 정련화된 연구의 필요성을 노정한다.)

17) 향유에 관한 개념 및 범주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할 것: 염은열, 「고전시가 향유 및 학습 방법으로서의 번역: 시조를 예로」, 『고전문학과 교육』 43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0, 5-33쪽; 진솔, 「문학의 향유를 위한 독서토론의 가치와 활동 양상 분석」, 『독서연구』 72호, 한국독서학회, 2024, 301-326쪽; 오윤주, 「청소년 문학의 향유 맥락과 문학교육적 함의」, 『문학교육학』 58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18, 195-228쪽.

(1) ‘읽어야 하는 문학 읽기’에서 ‘읽고 싶은 문학 읽기’로의 전환

미디어 시대 향유적 문학 읽기 교육의 첫 번째 방향성은 ‘읽어야 하는 문학’에서 ‘읽고 싶은 문학’ 읽기로의 전환이다. 이는 향유적 문학 읽기가 독자의 주체성과 자발성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행위임을 고려한 것이다. 향유적 문학 읽기가 독자가 문학 텍스트 읽기에 대한 자발적이면서도 능동적 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면 이를 위해선 문학 텍스트에 대한 높은 관심과 흥미도가 요구된다. 하지만 독자가 문학 텍스트를 기꺼이 읽고 이를 향유하는 모습은 실제 현장에서 보기 힘든것도 사실이다.

문학에 대한 학습독자들의 낮은 흥미와 관심의 원인으로 꼽는 것이 바로 제재와 학습독자와의 괴리이다. 문학 향유는 주체가 텍스트로부터 느끼는 지속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문학교육에서의 향유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배움 혹은 성장에도 유의미한 즐거움을 함의한다.¹⁸⁾ 유희적 즐거움과 교육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문학 향유에 관한 이러한 두 가지 시선은 문학 교육 제재 선정의 기준을 문학적 가치과 교육적 가치를 모두 고려하게 하였다. 이에 문학 교육 현장에서는 작품에 내재한 독창성이나 윤리적 가치가 뛰어나 주로 시대와 집단을 넘어선 보편적 가치라는 문학적 가치를 지닌 정전급의 작품¹⁹⁾이나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및 교과서의 학습 목표를 충족하기 적절한 작품을 주로 문학교과서에 수록하였다.²⁰⁾ 그러다 보니 교과서에 수록된 제재에 대해서 학습자는 낮은 흥미를 보일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문학 학습자의 낮은 흥미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학습자 개인의 관심과 관련이 있는 내용과 제재로 바꾸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

18) 최인찬, 「‘문학 향유’의 개념에 관한 고찰」, 『문학교육학』 81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23, 237-244쪽.

19) 김성진, 「정전 교육의 재인식: <삼대>의 관계적 가치를 중심으로」, 『독서연구』 70호, 한국독서학회, 2024, 47쪽.

20) 윤호경, 「문학교육에서의 ‘학생작품’ 수록 현황 및 교육적 가치와 활용의 방향」, 『청람어문교육』 89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022, 208쪽.

다.²¹⁾ 문학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의 관심도와 흥미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가 ‘제재의 내용-형식의 새로움’²²⁾을 통해 독자의 흥미와 관심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기존에 수록되지 않았던 학생 작품²³⁾을 수록하거나, 학습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는 웹툰과 웹소설을²⁴⁾ 수록하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체 텍스트들은 문학 교육의 일부를 차지할 수 있지만 모든 문학 텍스트를 이러한 텍스트로 대체할 수는 없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문학 교육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문학사의 정전성(正典性) 혹은 문학 교육 내용의 전범성(典範性)이 뛰어난 작품 역시 우리 문학교육 현장에서 반드시 교육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적 유의미성은 높으나 학습독자들의 흥미가 떨어지는 정전, 전범적 작품의 교육을 위한 방안으로 문학 텍스트에 대한 ‘이해 용이성’²⁵⁾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이해 용이성은 제재가 개인의 배경지식과 부합하여 수월하게 이해되거나 제재의 정보가 개인의 지식 구조에 적절하게 포섭될 때 높은 흥미도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문학교육에 적용한다면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도를 높이는 방법으로서 문학 텍스트의 대체 뿐만 아니라 문학 텍스트를 학습자의 이해 용이성에 맞게 변환시키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문학교육 교수자는 문학의 의미와 뜻을 예전 그대로 온전히 전수하는 ‘전수자’가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문학의 의미와 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어 한다.²⁶⁾ 이때의 안내자는 이들을 문학의

21) 윤준채·류보라, 「국어 교과서 제재에 대한 고등학생의 흥미 연구」, 『한국어문교육』 25호,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18, 103-125쪽.

22) 윤준채·류보라, 위의 논문, 113쪽.

23) 윤호경, 위의 논문, 207-247쪽.

24) 윤미영, 「고등학교 독자의 웹툰, 웹소설 읽기 실태와 인식에 관한 연구」, 『독서연구』 64호, 한국독서학회, 2022, 265-297쪽.

25) 윤준채·류보라, 위의 논문, 113-114쪽.

26) 류수열·이지선, 「문학교육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호명하는 방식에 대하여」, 『국어문학』 69집, 국어문학회, 2018, 387쪽.

세계로 이끌기 위해 학습자에게 익숙한 문화로 문학을 변환해 문학 자체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변환자’로서의 역할을 포함한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습자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학습독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와 관련한 문학 텍스트를 선정하는 것 외에도 문학 텍스트와 관련한 여러 컨텍스트, 작가의 생애나 작품의 사회적 배경, 텍스트와 텍스트 간의 명시적인 언어 형태의 상호 텍스트를 활용해 학습독자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교수자는 문학과 관련한 언어 텍스트 뿐만 아니라 노래, 영화, 웹툰, 드라마처럼 학습독자들에게 익숙하고 친근한 형태의 다양한 텍스트를 문학 텍스트와 관련지음으로써 문학에 대한 학습독자들의 관심도를 제고할 수 있다. 교수자의 노력은 수업 대상이나 주제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교수자는 학과나 연령층에 따라 학습독자들의 관심에 맞는 제재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고 문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교수자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학습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수자의 활동을 통해 학습독자들의 인식이 문학 읽기가 배워야 하기에 읽어야 하는 강요된 활동에서 즐겁고 유쾌해 기꺼이 하고 싶은 읽기 활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 이는 향유적 문학 읽기를 수행하는 학습자들의 강력한 내적 동기로 작용할 것이다.

(2) ‘문학 단일 양식 읽기’에서 ‘문학 중심 복합 양식 읽기’로의 확장

향유적 문학 읽기 지향점 두 번째는 ‘문학 단일 양식 읽기’에서 ‘문학 중심 복합 양식 읽기’로의 확장이다. 향유적 문학 읽기로서 문학 활동에 대한 자발성과 주체성이 확보되었다면, 향유적 문학 읽기의 다음 단계는 문학 읽기를 통한 해석, 감상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는 과정이다. 그런데 문학 향유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앞서 살핀 것처럼 독자와 문학 텍스트와의 유리화로도 나타나긴 하지만 텍스트를 읽고 감상하는 과

정 자체가 쉽지 않아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소재에 대한 흥미나 책의 내용에 대한 관심으로 자신이 직접 문학 텍스트를 고르지만 문학 텍스트 자체를 읽고 감상하기보다는, 문학 텍스트를 요약하고 해설해 놓은 해설집을 읽는 것을 더욱 익숙하게 여기는 학습독자도 있다.

문학 텍스트에 대한 이러한 학습자의 부정적 태도의 원인을 온전히 문학 능력 부족으로 돌리기는 부적절하다. 최근의 학습독자들은 대부분 활자보다 영상을, 책보다 스마트폰을 먼저 접한 ‘디지털 네이티브’이다. 글보다는 사진과 영상을 통한 표현이 익숙한 세대이며 선형적인 텍스트에 대한 문식력보다는 다중매체에 대한 해독 능력과, 쌍방향성, 텍스트 및 매체 간 변용 능력이 뛰어난 세대이다.²⁷⁾ 이들은 복합매체 속 은유나 비유는 익숙해도 활자에 나타난 비유와 은유, 서사 문법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디지털 네이티브’를 절대적 문학 능력이 부족한 세대라기보다는 종이와 활자로 된 문학 경험의 부재로 기존 세대에게 익숙한 문학 능력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로 접근하는 것 또한 필요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부재하는 문학 능력을 새로 배우기 보다는 자신들에게 익숙한 디지털 능력을 토대로 경험하지 않은 문학 능력을 체험하며 문학 능력을 확장하는 형태의 문학교육적 접근이 유효할 수 있다.

기실, 자신의 관점으로 문학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문학 경험이 부족한 학습자에게 문학 텍스트에 대한 자신만의 담론을 펼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학습자가 문학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감상이라는 무게를 들어 올리도록 일련의 지렛대가 필요한데, 이때 학습자에게 익숙한 미디어 문화 경험이 문학 텍스트 이해와 감상의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학습독자에게 시 속 상황과 유사한 노래 가사나, 영화 속 상황을 비교하거

27) 김지혜, 「디지털 세대, 새로운 서사의 향유 방식과 문학교육의 미래」, 『국어교육』 169호, 한국어교육학회, 2020, 51쪽.

나 관련 시키는 행동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학습독자는 이를 통해 문학 텍스트 속 상황에 더욱 몰입하거나 공감적 태도를 나타내기도 하며 문학 텍스트와 관련한 주제나 화제와 관련해 새로운 경험과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미디어 텍스트와 문학 텍스트를 관련지어 읽는 행위는 비단 문학 텍스트를 이해하고 감사하는 문학 능력의 신장뿐 아니라 개별 미디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미디어 문식성 신장 차원에서 교육적 유의미성을 찾을 수 있다. 변용 언어로 표현된 문학 텍스트 속 상황을 음성 또는 이미지, 또는 영상으로 변화된 미디어 텍스트와 견주고 이를 다른 양식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양식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요구된다. 문학 텍스트를 미디어 텍스트로, 혹은 그 역으로 전환하는 활동은 미디어 텍스트의 형식적 특성을 이해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개별 매체 장르에 대한 접근과는 별도로 지면 위의 단일 양식 텍스트가 복합양식 텍스트로 표현되는 양상을 표현하고 이를 기존의 전통적 문식성과 어떤 점에서 같고 다른지에 대해 깨닫는 데 도움이 된다.²⁸⁾ 또한 단순히 매체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넘어 매체가 전달하는 문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심미안과 비평 능력, 나아가 문화콘텐츠를 표현하고 생산하는 능력 신장의 측면에서도 교육적 의미가 있다.²⁹⁾ 이런 점에서 미디어 시대의 교양 교육으로서 향유적 문학 읽기 교육은 문학 읽기의 장을 단일한 문학 텍스트와 학습독자가 상호 작용하는 의미의 수용 공간으로 국한하기보다는 주된 문학 텍스트를 중심에 두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적 텍스트를 매개로 학습 독자가 연쇄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의미의 생성 공간으로 확장할

28) 정현선, 「복합양식 문식성 교육의 의미와 방법」, 『우리말교육현장 연구』 8권 2호,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4, 70쪽.

29) 정재찬, 「미디어 시대의 문학교육」, 『문학교육학』 28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9, 318쪽.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허용’과 ‘격려’의 개인적 읽기와 ‘수용’과 ‘독려’의 함께 읽기 공존

향유 행위의 핵심은 ‘유희’이다. 그리고 ‘유희’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즐겁게 놀며 장난함’이다. 즐거움의 기준은 행위자가 느끼는 만족도이며, 그 만족도는 상대적이다. 반면 ‘교육’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가 분명한 행위이다. 따라서 ‘교육’에는 교육의 목적과 의도를 이루었는지를 검증하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평가의 기준이 존재한다.

향유적 문학 읽기는 문학 텍스트에 대한 학습독자의 적극적 의견을 제시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학습독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담론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는 자신의 감상과 해석의 타당성 혹은 합리성에 대한 부담감과 관련된다. 학습독자들은 고등학교 때 까지 텍스트와 나와의 관계보다는 텍스트와 그 텍스트를 둘러싼, 작가 및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작품을 수용하기를 요구받았다. 즉, 해당 문학 텍스트와 관련된 객관적 지식을 활용한 텍스트 수용활동이 장려되는 것이다. 그래서 학습독자는 문학 텍스트에 대한 이야기는 말할 수 있어도 문학 텍스트에 대한 자신만의 이야기나 의견을 말하기는 쉽지 않았다. 자신의 의견이 아닌 타인의 의견으로 가득한 문학 교실은 성적과 시험의 현장일 뿐 즐거움이나 유희의 장소가 될 수 없다. 그동안의 문학 교육은 텍스트 수용의 평가기준을 ‘적절하고 타당한 해석 및 감상’에 두었다. 물론 이때의 ‘적절’과 ‘타당함’이 작품 속에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석의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해 논리적 근거의 중심을 텍스트에 둬으로써 여전히 텍스트 중심에서 정독과 오독을 구분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동안은 비록 오독이 가진 교육적 의의를 인정하면서도³⁰⁾ 여전히 문학 논리와 텍스트에서 벗어난 해

30) 손예희, 「문학 작품 오독의 본질과 유형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50집 1호, 국어교육학회, 2015, 347-375쪽.

석과 감상을 오독으로 보고 이를 아직 교육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 해석과 감상으로 보았다.

하지만 문학 논리나 텍스트 논거에 벗어난 오독이라고 하더라도, 학습 독자의 자발적 참여가 뒷받침되어, 인상 깊은 문학 활동으로 각인되었다면 이러한 학습독자의 경험은 이후의 학습독자가 지속적으로 문학 읽기 활동에 참여하는 계기이자 동력이 될 수 있다. 오규원 시인의 「한 잎의 여자」에는 화자가 사랑했던 ‘한 여자’의 이미지가 다양한 비유를 통해 드러나 있다. 그리고 이 「한 잎의 여자」가 무엇인지를 파악해보라는 문제 앞에서 학습독자들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이 ‘첫사랑’ 혹은 ‘과거의 사랑’이라는 답변이었지만 「한 잎의 여자」를 ‘어머니’로 혹은 ‘과거의 나’ 혹은 ‘자기 자신’으로 볼 수 있다. 두 글 중 어느 글이 문학교육 관점에서 정독이라 해야 할까? 오규원과 관련한 다양한 논문에서 오규원의 시 속 여성성을 ‘언어’로 보는 사람도 있고 ‘존재’로 보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위 학습자의 글 중 어떤 것이 오독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어떤 해석과 이해가 올바른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쉽게 결정될 수 없는 문제다. 하지만 앞의 두 학습독자를 포함해 「한 잎의 여자」를 접한 학습독자들 모두가 「한 잎의 여자」를 밝혀나가는 과정을 즐거워했다면 이들의 활동은 문학 활동의 생활화나, 문학의 향유적 측면에서 모두 문학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위의 두 글은 비록 문학 논리로서는 「한 잎의 여자」에 대한 오독(誤讀)일 수 있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문학을 유희하는 이독(異讀), 혹은 문학의 향유라는 문학교육의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이독(利讀)으로 볼 수는 없을까? 이러한 질문에 수긍한다면 해석과 감상을 허용하고 학습자의 자유로운 독법을 격려하는 교양교육 현장에서라도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미디어 읽기 시대의 향유는 개인 차원의 향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향유가 공존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향유는 개인적 차원에서 문학에 대한 재미와 즐거움을 말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지극히 주관적이다. 이러한 주관성으로 인해 향유적 문학 읽기를 통해 상이한 내용과 표현이 생성된다. 하지만 향유과정에서 나타난 다양성을 존중만한 채 무엇이 같고 다른지에 대한 소통이 없다면 향유는 단순한 쾌락이나 즉흥적 감정에 머물게 된다.³¹⁾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소통 행위로서 향유적 공간 예로서 온라인 소설이나 웹툰이 향유되는 공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회수가 높은 웹소설이나 웹툰에는 해당 텍스트를 읽고 나름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작성한 수많은 독자의 글이 게시되어 있다. 이러한 독자의 글은 웹소설이나 웹툰을 향유한 결과물이다. 게시된 글의 면모는 해당 텍스트에 대한 옹호나 비판적인 글, 다음 회차의 내용에 대한 예상, 작품 속에 숨겨진 혹은 암시된 내용에 대한 해석, 스토리나 설정의 오류를 꼽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해석과 예상이 다른 독자의 인정을 받으면 그 글은 ‘좋아요’나 ‘하트’와 같은 공감적 평가를 받아 BEST 댓글로 선정되기도 한다. 이때 ‘좋아요’나 ‘하트’와 같은 일련의 독자의 인정은 동일한 문화를 향유하는 향유계층의 ‘수용’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용 행위를 통해 향유층의 구성원은 즐거움과 함께 향유집단으로서 소속감을 느낀다.

한편 BEST로 꼽힌 댓글이라고 해도 다음 회차의 내용이나 사건의 해결 방안, 주인공의 운명과 관련한 독자의 예상이 맞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빗나가기 일쑤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빗나감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예상이 빗나간 것을 당연하게 여기므로 가끔씩 예상이 맞은 댓글은 ‘성지글’로 추앙받으며 다른 독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기도 한다. 이 공간에서는 예상이나 해석의 틀림이 허용된다. 또한 예상이 빗나가거나 자

31) 정효진, 「만 4세 하슬반 유아들의 일상적 문학향유에 대한 의미 탐색」, 『어린이 문학교육연구』 22권 3호,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2021, 249쪽.

신의 해석이 틀렸음을 당연시한다. 온라인 공간 속 독자들은 오히려 맞음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며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이야기하도록 독려받는다. 이러한 독려는 다시 텍스트를 매개한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상호작용적 향유를 수행하는 자발적 태도로 이어진다. 온라인 속에 드러나는 향유적 문학 읽기는 감정을 매개로 자아 이해와 변형을 야기하는 역할³²⁾ 뿐 아니라 텍스트의 의미구성 내용을 기반으로 또 다른 텍스트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적인 생산적 향유자의 가능성을 함축한다.³³⁾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도록 독려받고, 이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생성되도록 격려하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허용하는 온라인 게시판 속 향유의 모습은 해석의 엄밀함과 문학사적 논의를 강조하며 이를 수용하도록 강요했던 과거의 향유방식과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문학 텍스트의 향유는 이러한 온라인 속 모습처럼 개인적 차원의 허용과 격려가 장려되며 이러한 향유가 텍스트를 매개로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 수용 및 독려되는 형태로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미디어 시대의 향유적 문학 읽기 교육의 방향성을 요약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미디어 시대, 향유적 읽기 교육의 방향성

방향성	세부 내용
‘읽고 싶은 문학 읽기’로 전환	- 개인 관심사 및 흥미 중심으로 텍스트 선정 - 문학 ‘전수자’에서 ‘안내자’와 ‘변환자’로 역할 전환
‘문학 중심 복합 양식 읽기’로 확장	- 복합양식 텍스트와 문학 텍스트의 연계 -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문학 경험 확장
‘개인적 읽기’와 ‘함께 읽기’의 공존	- 개인적 차원의 읽기 경험 허용과 격려 - 읽기 경험의 사회적 차원 확장

32) 정옥년, 「읽기에서의 감정과 문학적 읽기」, 『독서연구』 22호, 한국독서학회, 2009, 22쪽.

33) 최인찬, 앞의 논문, 259쪽.

3. 미디어 시대 향유적 문학 읽기 수업 설계 및 양상 분석

1) 미디어 시대 향유적 문학 읽기 수업 설계

‘미디어 시대의 문학 읽기’는 수도권 소재 H대학 학습자³⁴⁾를 대상으로 한 수업으로 변화하는 문학 환경 속에서 문학의 지위와 역할, 문학의 지향성에 대해 고민하고자 개설된 수업이다. 수업의 주된 목적은 문학의 역할과 기능, 문학 경험의 소중함을 깨닫고 문학을 향유하는 태도적 자질을 신장하는 데 있지만 교수자에 따라 수업의 방향성은 다르게 구현되고 있었다.

본 연구자는 해당 수업이 시대와 무관한 문학의 항존적 가치를 고수하기 보다는 해당 수업을 통해 수강생들이 과거와 달라진 환경에서 새로운 문학의 가치를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랐다. 따라서 본 수업의 목적은 미디어와 문학의 개념과 특성을 독자의 입장에서 재구하고 이를 토대로 미디어 시대의 주체적이고 향유적인 문학 읽기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두었다. 본 연구자는 이를 위해 [표 1]에 제시된 미디어 시대, 향유적 읽기 교육의 방향성을 기반으로, 학습독자들이 하나의 문학 텍스트를 중심으로 자신의 경험과 연상에 따라 다양한 복합매체를 섭렵함으로써 문학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수용하고 생성하며 이러한 경험을 주변인과 공유하는 경험을 얻기를 수업 목표로 두고, 수업을 설계하였다.

따라서 이 강의의 1차 목표는 하나의 문학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문학 텍스트를 관련지어 읽으면서 자신만의 향유적 문학 읽기를 경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향유적 문학 읽기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읽

34) 해당 수업과 관련, 8명의 학습자는 모두 사범대학 소속 학생들로, 5명은 국어교육과, 2명은 교육학과, 1명은 교육공학과 학생이었다. 이들은 교수자와의 대화에서 문학 읽기에 긍정적 경험보다는 부정적 경험이 많았음을 밝혔으며, 해당 수업 수강에 대해 문학에 대한 향유의 궁금증으로 인해 신청했다고 밝힌이도 있었다.

기 경험과 타인의 읽기 경험을 공유-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문학 읽기의 향유적 경험의 확장을 이 강의의 2차 목표로 두었다. 수업은 주1회 3시간 동안 총 8명의 학습독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15주차의 수업을 의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 운영하였다. 수업 형태는 이론 강의와 발표를 혼합한 방식이었다. 원래 수업 운영계획은 지필 고사를 제외한 13차시 중 9차시 이상을 향유적 문학 읽기 경험을 공유하는 형태로 계획했다. 하지만 학습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첫 수업에서 6명의 학습독자는 문학 읽기에 대한 부정적 경험을 나타냈으며, 최근 1년 사이 학업 및 과제를 위한 목적 외에 순수하게 문학 작품을 읽어 본 경험이 있는 학습독자도 3명(37.5%)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학 읽기 경험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문학 읽기 경험이 부족한 학습독자들을 대상으로 처음부터 향유적 문학 읽기 활동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따라서 해당 수업이 궁극적으로는 수강생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향유적 문학 읽기 경험에 있지만, 강의 초반에는 미디어 시대의 특성 및 문학의 역할, 향유적 읽기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강의하기로 했다. 이는 미디어와 관련한 학습 내용이 없다면 수강생이 경험할 향유적 읽기 경험이 기존의 문학 읽기 경험과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따라서 강의 초반에는 다양한 연구자의 저서와 논문을 통해 미디어와 문학의 개념과 특성, 유형에 관한 이론 강의와 이에 바탕을 둔 현상 분석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였다.

교수자는 한 학기 강좌를 ‘미디어 시대, 미디어와 문학 톺아보기’-‘미디어 시대 문학의 기능과 역할 전망하기’- ‘미디어 시대 홀로 향유적 문학 읽기’-‘미디어 시대 함께 향유적 문학 읽기’라는 단계로 구분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각 단계와 단계별 주요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단계별 향유적 문학 읽기 수업 모형

교육 단계 및 주차별 목표		단계별 주요 학습 내용 및 활동
1 (1주 ~ 3주)	미디어와 문학 훑아보기	· 미디어 시대 문학 읽기 관련 이론 교육 · 개별적 문학 읽기 경험 공유
2 (4주 ~ 7주)	미디어시대 문학의 기능과 역할 전망하기	· 미디어 시대 문학의 정의와 기능, 역할 모색하기 - 문학의 범주 및 문학 읽기의 효용 및 의의 살펴보기 - 문학의 생산과 수용 양상에 대해 살펴보기 - 다양한 문학 읽기 양상 및 방법 찾아보기 - 문학읽기 현상에 대한 비판적 성찰하기
3 (8주 ~ 12주)	홀로 향유적 문학 읽기	· 미디어 시대, 향유적 문학 읽기 경험 체험하기 - 개별 관심사에 따른 문학 텍스트 선정하기 - 주 문학 텍스트와 관련 다양한 텍스트 섭렵하기 - 텍스트 간 관련성으로 심화적 의미 수용하기 - 텍스트 간 관련성으로 확장적 의미 생성하기
4 (13주 ~ 14주)	함께 향유적 문학 읽기	· 텍스트 선정 후 개별/함께 독서 체험 하기 - 문학 텍스트 선정 동기 제시하기 - 관심 가는 부분/연관성 있는 텍스트 제시하기 - 자신의 삶을 결부시켜 감상평 작성하기 · 개별적 독서 체험 공유하기 - 관심 가는 부분/연관성 있는 텍스트 비교하기 - 타인의 생각 비교하기 - 자신/타인의 생각 종합하여 소감 발표하기

첫 번째 단계인 ‘미디어와 문학 훑아보기’는 개별적 문학 읽기 경험을 공유하고 미디어와 문학 읽기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을 학습하는 단계로 1주차에서 3주차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먼저 1주차에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미디어 시대 문학 읽기 수업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를 하고자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학습독자들이 주체적인 문학 읽기 경험이 부재한 것을 알게 되었다. 교수자는 학습독자들에게 문학 읽기 경험에 대한 태도를 묻고자 문학 읽기 경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10개의 해시태그로 제시하여 온라인 LMS에 올리라고 하였다. 이에 학습독자들은 LMS에 자신의 문학 읽기 경험을 해시태그로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 [표 3]와 같다.

[표 3] 개별 학습자의 문학 읽기 경험

학습 독자	문학 읽기 경험에 대한 해시태그
A	#독서토론 #독후감 #북트레일러 #베스트셀러 #어렵지않은책 #미루게된다 #숙제같은 것 #막상읽으면재밌다 #동화책도좋다 #웹소설이생각난다
B	#모호한 #작가의 의도 #정형화된 #암기식 #지루한 #소리내어 읽기 #문제 풀이 #필기가 많은 #막막한 #머리 아픈
C	#예상 #반전 #이상실현 #교훈 #인간과삶 #표현의욕구 #작가와독자의상호작용
D	#생기부 #국어수업시간 #독서캠프 #독서토론 #인터넷소설 #필독도서 #친구추천 #도서관 #대학강의 #수면제
E	#상상 #공감 #몰입 #배경 #결말 #문제 #인물 #작가 #생각
F	#독후감 #소설 #내신 #EBS #무정 #수능 #보기 #유튜브 #1시간 #선택
G	#국어 #교과서 #학창시절 #감성 #가을 #도서관 #휴식 #다른세계경험 #사춘기 #여가
H	결석으로 인해 미제출

[표 3]에 나타난 것처럼 개별 학습자의 문학 읽기 경험에 관한 다양한 해시태그 속에서 일련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여러 학습독자의 해시태그에서 문학 읽기 경험에 대한 부정적 평가이다. 학습독자들은 ‘미루게된다’, ‘지루한’, ‘막막한’, ‘머리 아픈’, ‘수면제’를 통해 문학 읽기 경험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드러냈다. 또한 문학 읽기 경험을 ‘숙제같은 것’, ‘문제 풀이’, ‘생기부’, ‘수능’, ‘내신’, ‘교과서’와 관련지음으로써 문학 읽기를 평가나 시험과 같은 과제의 형태로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문학 읽기 경험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막상 읽으면 재밌다’외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2주차 수업에서 학습독자들은 미디어의 정의와 미디어의 유형에 대한 개별 용어를 학습하고,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국어과의 여러 논쟁에 대해 토의하였다. 학습독자들은 ‘미메시스’, ‘아우라’, ‘스튜디오’, ‘폰크툼’, ‘시물라크르와 시물라시옹’과 같은 용어를 배우는 한편, ‘플라뇌르’와 ‘바도’에 관한 내력과 이들에 대한 관점을 학습함과 동시에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자신이 미디어 현상을 분석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하이트 릭’은 1990년대초 서양에서 10대 후반의 여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옷 스타일을 이르는 말이다. 영화 〈퀸카로 살아남는 법〉에 나오는 패션으로도 설명되는데, (중략) 이 패션은 과거 당시에 세련되고 아름다운 스타일로 여겨졌으나, 사실 현재의 시각으로 보면 약간 촌스러운 느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2020년대에 과거의 것을 지향하는 복고풍 유행이 일어나면서, ‘하이트 릭’의 촌스러움보다는 과거에 세련된 패션이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과거의 세련된 이미지가 현재의 촌스럽다는 사실을 은폐했다고 볼 수 있다.

-학습독자 A, 시물라크르와 하이트 릭-³⁵⁾

SNS를 통해 사람들은 스스로를 드러내고, 정보를 얻고 타인과 소통한다. 이처럼 SNS는 만남과 소통, 정보 공유라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위험성 또한 가진다. 이는 **디지털 나르시시즘과 파놉티콘으로 설명된다.** (중략) 따라서 SNS는 개인이 감춰진 채 모든 이를 지켜보고, 드러난 채 스스로 보이기로 선택한 모든 것이 보여지는 파놉티콘의 공간이다. **나르키소스는 자기애 때문에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자신만을 바라보다 결국 호수에 빠져 죽게 된다.** 디지털 나르키소스가 되길 경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과 소통의 장이었던 SNS의 호수 속에서 사람들은 이상화된 내 모습만 바라보다 그곳에 갇히게 될지도 모른다.

-학습독자 E, 나르시시즘과 자기노출-³⁶⁾

한 그림을 원하는지 입력하면 AI가 자동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AI가 그린 그림을 미디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AI가 그린 그림을 본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 제가 느낀 것은 **이제는 AI가 전문 화가와 비슷하게 혹은 그보다 더 잘 예술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쾌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략) 최근에 수업을 들으면서도 교수님들께서 과제를 내주시실 때에 챗 GPT를 의식하시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학습독자들이 검색을 통해 정보를 찾는 것을 하계끔 과제를 내주셨지만 이제는 검색을 통해 답 자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과제를 내주시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학습독자 F, 언캐니 계곡과 AI일러스트-³⁷⁾

35) 볼드체, 연구자 강조.

36) 볼드체, 연구자 강조.

37) 볼드체, 연구자 강조.

위 글은 2주차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 현상을 미디어 문화와 관련 지어 제시한 글이다. A학습독자는 우리가 자주 보는 ‘하이틴 룩’이 결국 무언가를 모방하고 감추는 시물라크르의 개념으로 설명하였고, 학습독자 E는 ‘나르시즘과 자기노출’이라는 제목으로 SNS에 노출된 우리의 자화상을 비판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 학습독자 F는 AI일러스트와 Chat GPT가 인간에게 주는 불쾌함을 ‘언캐니 계곡’과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학습독자 뿐만 아니라 다른 학습독자들 또한 ‘아우라’와 ‘미메시스’,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에 나타난 여러 문화 현상을 설명하였다.

3주차 수업에서 교수자는 문학의 정의와 효용과 가치에 대해 강의하였다. 교수자는 문학의 정의와 유형을 동-서양의 관점에 따라 비교하고 이광수의 「문학이란 하오」와 테리 이글턴의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나타난 문학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교수자는 문학에 대한 정의가 고정된 실체적 개념이 아닌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는 합의적 개념임을 설명하였다. 교수자는 학습독자들에게 문학의 정의나 개념이 시대적-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기에 지금 여기의 문학의 정의나 개념은 이광수나 이글턴의 문학의 개념과 다를 수 있음을 피력하며 문학의 정의와 범주를 기존의 관점에서 답습하여 한정짓지 말고 문학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요구하였다. 이렇게 해서 미디어와 문학에 관한 여러 이론과 개념, 문학의 개념과 정의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강의한 ‘미디어와 문학 톺아보기’ 단계를 마쳤다.

두 번째 ‘문학의 기능과 역할 전망하기’ 단계는 4주차에서 7주차에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미디어 시대의 문학의 가치와 효용성, 유용성에 대해 논의하고 실제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를 비교해보는 활동을 했다. 수업 초반, 학습독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미디어 시대의 문학의 가치와 효용성, 유용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교수자는 이러한 학습독자들의 의견을 중

합한 뒤, 가치와 효용성, 유용성의 다양함을 보여주기 위한 구체적 예로서 <시저는 죽어야 한다>와 <일 포스티노>를 제시하였다.

교수자와 학습독자들은 함께 영화 <시저는 죽어야 한다>를 감상하고 책 「네루다의 우편배달부」를 읽었다. 영화 <시저는 죽어야 한다>는 각자의 죄목으로 교도에서 수감된 죄수들이 교도소 교화 프로그램인 연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변화를 제시한 영화이다. 작품의 감독인 타비오 니 형제는 다큐멘터리와 극영화 형식을 차용해 무대와 등장인물을 실제 감옥과 죄수를 출연시킴으로써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를 높였다. 한편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는 칠레의 안토니오 스카르메타의 책으로 영화 <일 포스티노>의 원작인 작품으로, 시인 네루다와 청년 마리오의 대화를 통해 삶의 모습이 투영된 ‘메타포(은유)’의 존재와 두 인물간의 우정에 대해 말하고 있다.

교수자는 영화와 문학 작품에 대해 인상 깊은 장면이나, 잘 이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체크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답을 동료와 논의하여 찾으라고 하였다. 학습독자들은 영화를 보는 내내 영화에 드러난 인물들의 인식과 정서를 대사와 표정을 통해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소회를 작성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수자는 학습독자들이 자유롭게 감상을 작성하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독자들을 위해 <시저는 죽어야 한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처음과 달리 갈수록 작품 속 배역에 빙의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묻고, 영화 속 대사인 ‘예술을 알고 나니 이 작은 방이 감옥이 되었구나’가 의미하는 바와 영화에서 ‘흑백’과 ‘컬러’의 대비가 주는 효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조언하였다. 또한 「네루다의 우편배달부」에서 시인인 네루다가 마리오에 ‘메타포’에 설명하는 부분을 짚으며 사전적 의미의 ‘메타포’가 아닌 자신이 생각하는 ‘메타포’의 기능과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게 했다. 또한 네루다의 시를 잡지사에 써 보냄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는 마리

오의 선택에 대해 평가하도록 했다.

“예술을 알고 나니 이 작은 방이 감옥이 되었구나.”

『줄리어스 시저』연극에 참여한 모든 배우는 문학에 몰입하며 진심으로 연기에 임했다. 연극 연습이 아니었으면 침대에 누워 천장만 관찰하는 일밖에 없었을 이들의 숨통을 틔워주었던 게 예술, 문학이다. 하지만 예술이 끝난 뒤 남은 건, 적막밖에 없는 감옥이란 현실뿐이다. 하지만 예술과 문학에 빠진 경험이 있는 배우 중 몇몇은 이 연극이 끝난 이후에 실제 배우가 되거나 책을 출판하는 등 문학에 다시 다가서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문학에 관한 긍정적인 경험은 문학을 더욱 주체적으로 향유하고, 생산에 참여하려는 등 보다 넓은 방향으로 성장할 발판이 되어준다.

-학습독자 A-³⁸⁾

<시저는 죽어야 한다>의 마지막 대사는 “예술을 알고 나니 이 작은 방이 감옥이 되었군.”이다. 왜 이런 말을 한 것일까? 그들은 원래부터 감옥에 있었고, 하나같이 장기 복역수였다. 그저 공들여 준비한 공연이 끝났을 뿐이며 일상으로 돌아온 것 뿐이다. **재소자들은 예술의 미적 가치를 경험했다. 배우들은 아마도 연극 속 대사를 통해 큰 해방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들이 무대에서 환호성을 지른 후 바로 다음 장면은 작은 감옥 안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한 번의 자유를 맛본 이들이 일상으로 되돌아간다고 해도 정말 이전의 모습 그대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더 큰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맛본 이들이 이전의 삭막함을 견딜 수 있을까?

-학습독자 B-³⁹⁾

극 중 내용에는 안토니오가 규탄하는 장면에서 “Men of honour”라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는 실제 재소자들 가운데 일부가 속했던 범죄 조직의 이름과 같습니다. 이런 물리적 연결은 참여자들이 구성한 문학 세계와 충돌할 여지가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지점으로 인해 죄의식, 죄책감을 느끼고 활영에 어려움을 겪은 재소자도 있다고 인터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학 세계가 현실 세계와 인간관계, 감정, 삶에 얼마나 긴밀하게 유착되어 영향을 발휘하는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역설적으로 예술이 주는 교훈과 가치는 바로 이런 현실 세계와의 긴밀한 연결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닐지, 그러므로 예술이 수행하는 이 역할을 점차 확장되는 미디어 시대에 어떻게 옳이 반영하고,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해보**

38) 볼드체, 연구자 강조.

39) 볼드체, 연구자 강조.

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학습독자 C-⁴⁰⁾

특정한 부분보다는 마리오가 은유를 배워가는, 시를 알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흥미로웠다. 여기서, 마리오가 빠진 은유처럼 문학은 다른 분야보다 언어적 아름다움 등을 쉽게 찾을 수 있기에 한 분야에 폭 빠져 탐구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문학의 가치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물론, 그것도 문학의 가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시를 읽어도 시험을 위해서만 학습이 되었던 나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마리오가 시에 대해 본격적으로 탐구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그것은 바로 베아트리체라는 여성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그녀에게 건넨 사랑의 표현을 고르며 그는 은유의 세계에 더욱 빠지고, 은유를 통해 그녀를 생각하며 더욱 깊게 사랑하게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문학을 통해 본인의 사고나 감정을 들여다보며 깨닫게 하고, 그것을 더 풍부하고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문학의 가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학습독자 D-⁴¹⁾

위의 글들은 <시저는 죽어야 한다>와 「네루다의 우편배달부」에 대한 개별 학습독자의 감상 중 일부를 옮긴 것이다. A학습독자는 예술과 문학이 인간에게 해방감을 주고,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밝힌다. 그리고 이러한 해방이 죄수들을 작가나 연극배우로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임을 밝히며 문학의 긍정적 가치에 대해 논하고 있다. B학습독자는 <시저는 죽어야 한다>의 마지막 대사 ‘예술을 알고 나니 이 작은 방이 감옥이 되었군’에 담긴 의미를 예술의 미적 가치를 통해 해방을 경험한 자의 깨달음으로 파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술의 가치를 해방과 관련지어 제시하고 있다.

한편 C학습독자는 영화는 현실이 아니지만, 이러한 영화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 즉 예술은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과 맞닿아 있다는 역설적 사실이 우리에게 교훈과 가치를 준다고 예술의 가치를 파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D학습독자는 「네루다의 우편배달부」에 나타난 ‘메타

40) 볼드체, 연구자 강조.

41) 볼드체, 연구자 강조.

포'의 기능과 의의를 시험을 위해 학습으로 접근하던 나에게 '메타포'의 가치는 쉬이 와닿지 않았더라며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그러나 D 학습독자는 베아트리카라는 여성과의 사랑에 빠져 사고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메타포를 사용한 마리오의 모습에서 사고나 감정을 들여다보는 도구로서 문학의 가치를 설명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교수자는 <시저는 죽어야 한다>와 「네루다의 우편배달부」가 각각 영상과 문자언어라는 매체를 활용하지만 둘 모두 '예술'이라는 공통점을 가졌음을 환기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두 작품이 주는 의의에 대해 생각하기를 요구했다. 학습독자들은 두 작품이 각각 '영상매체'와 '활자매체'라는 점에서 차이를 지녔지만, 두 작품 모두 대상에 대한 인식과 공감, 즐거움과 깨달음을 준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했다.

교수자는 영화 <시저는 죽어야 한다>를 통해 알 수 있듯 문학에서 말하는 심미적, 인식적, 윤리적 기능은 문학만의 독특한 기능이나 가치가 아님을 역설하였다. 그러면서도 학습독자들이 생각하는 미디어 시대의 문학의 가치는 무엇인지 의견을 물었다.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양산되고 빠르게 소비되는 작품들과 이전부터 문학이라고 불리는 것들 사이에는 분명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학 작품을 향유하는 과정에는 미디어에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틈'이 있다.** 문학은 작품을 통해 아름다움을 느끼고 작품 밖에서도 이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틈, 문학 속 이야기와 정서를 내 삶으로 끌어올 수 있는 틈,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틈을 준다. 이러한 틈을 통해 사람들은 문학의 미학적, 인식적, 윤리적 기능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이는 **향유자들의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쾌락에 좀더 치중하는 다량의 미디어 작품들과 혼재되어 있는 사이에서 문학만이 담보해 줄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한다.**

- 학습독자 E-⁴²⁾

42) 볼드체, 연구자 강조.

복잡한 미디어 시대 속에서 오히려 문학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단순함과 공허함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시저는 죽어야 한다>의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죄수들은 희극 하나를 보고 극 중 인물들의 모습을 상상해보며 여러 가지 연기의 톤과 동작들을 고민해 보고 시도해 봅니다. 그럼으로써 극 중 인물을 체화합니다. (중략) 그림이나 영상을 보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눈과 머리에 자신이 본 이미지와 감각들이 남으며 그것을 연기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겠지만 결국은 ‘모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문학은 독자에게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합니다.**

- 학습독자 F-⁴³⁾

학습독자 E는 미디어 시대에 문학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틈’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미디어 시대에 빠르게 소비되는 작품들과 다르게 문학은 향유하는 과정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작품 밖에서도 이를 새롭게 발견하게 한다는 ‘틈’, 정서를 내 삶으로 끌어올리는 ‘틈’, 자신의 삶을 성찰하도록 하는 ‘틈’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틈이야말로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쾌락에 치중하는 미디어 작품과 차별화된 문학만이 담보하는 가치라 평가했다. 학습독자 F 역시 학습독자 E와 유사하게 미디어 시대의 문학의 가치를 문학 자체의 단순함과 공허함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허함과 단순함은 독자에게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한다는 점을 미디어 시대의 문학의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

학습독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난 뒤, 교수자는 문학만의 가치와 기능, 역할에 대해 ‘언어’와 ‘인류의 보고’, ‘교육’의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교수자는 학습독자들이 ‘예술’로서 가진 문학의 보편성과 ‘언어 예술’로서 문학의 특수성을 동시에 살필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6주차와 7주차 수업에서는 변화된 문학 환경에 따른 문학 수용 현상을 함께 모색하였다. 갈수록 감소하는 독서율을 살피고 독서를 방해하는 독서 장애 요인을

43) 볼드체, 연구자 강조.

파악하였다. 그리고 독서 활동 감소 속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독서 플랫폼의 등장과 이로 인한 문학 수용 및 생산 환경의 변화를 토의하였다. 그러면서 문학을 스스로 읽고 즐기며 주변의 상황을 문학과 관련짓는 문학의 생활화라는 문학교육의 궁극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미디어 시대의 문학읽기의 방향성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습독자들은 미디어 시대의 문학 수용 환경이 다양한 형태의 문학 플랫폼 증가와 개인출판 및 1인출판사의 등장으로 문학 시장의 확대와 세분화 될 것이라 예측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개별적 문학 읽기 활동 심화’, ‘복합 미디어 환경의 가속화로 인한 언어 텍스트로서 문학의 위치 약화’, ‘타 복합 양식 텍스트의 범람’을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세 번째 단계인 ‘홀로 향유적 문학 읽기’는 8주차부터 12주차까지 총 5차시에 걸쳐 운영된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스스로 향유할 문학 텍스트를 선정하고 텍스트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향유적 독서 활동을 개별적으로 체험한다. 교수자는 ‘홀로 향유적 읽기’ 단계 설정을 통해 문학 읽기가 시험이나 과제해결이 아니라 즐거움을 얻기 위한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주지하고 문학 읽기에 대한 학습자의 부정적 태도를 완화하려 했다. 이를 위해 교수자는 8주차 강의를 통해 향유적 문학 읽기의 핵심은 줄거리 파악이나 비유나 상징 표현을 찾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 대신 향유적 문학 읽기는 작품에 형상화된 세계가 주는 메시지나 문제를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견주어보고 판단하는 즐거운 행위임을 주지시켰다. 그리고 교수자의 향유적 독서 읽기 경험을 예시를 통해 향유적 문학 읽기 활동의 구체적이고 실제적 모습을 제시하였다.

교수자는 학습독자들에게 기형도 시인의 「질투는 나의 힘」에 제시된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의 의미를 웹툰 <나빌레라> 속 주인공의 선택을 통해 보여주었다. 또한 「82년생 김지영」에서 나타난 성차별적

요소의 심각성을 드라마 <청춘시대> 속 차별을 통해 부각했고 마이클 센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의 논의를 드라마 <스토브리그> 속 좌절하는 한 인물의 관점에서 해석했다. 교수자는 학습독자들에게 문학 텍스트와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 경험을 관련짓는 것이 문학 읽기의 방해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향유적 문학 읽기 경험을 심화하고 확장하는 기제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학습독자들은 9주차와 10주차에 자신의 선택에 따라 문학 텍스트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텍스트를 섭렵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11주차와 12주차에 자신의 향유적 문학 읽기 경험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네 번째 단계인 ‘함께 향유적 문학 읽기’ 단계는 13주와 14주 두 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앞선 단계와 달리 이 단계에서는 교수자의 일체의 관여 없이 팀원들끼리 하나의 공통 텍스트를 선정 및 감상하고 자신의 텍스트 읽기 경험을 팀원과 공유하는 활동을 했다. 이 활동은 팀원들끼리 공통된 매체 텍스트를 감상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를 아우르고 공통 텍스트에 대해 평가하는 형태의 집단적 읽기 활동이다. 교수자가 이 활동을 추가한 것은, 혼자서 문학 읽기 활동이 학습자 개개인의 관점에서 문학을 즐겁게 소비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향유적 문학 읽기의 의의는 단순히 개인적 향유에 그치지 않고 타인과의 소통 속 차원으로 확장해야 함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함께 문학 읽기에서는 동일한 텍스트에 대해 개별 학습자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의 공유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것을 지도하였다.

13주차에 교수자는 공통의 텍스트를 읽을 임의로 조를 편성하였다. 학습독자들은 조별로 모여 공동으로 읽을 텍스트를 선정한 뒤, 해당 텍스트에 대한 ‘홀로 향유적 문학 읽기’과정을 수행한 뒤 온라인/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자신의 문학 경험을 공유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정리한 내용은 14주

차에 조별로 1시간의 발표 시간을 거치면서 타 조원에게 공유하였다.

14주차에 이루어진 발표의 내용을 중심으로 각 개인에게 두 번의 ‘홀로 향유적 문학 읽기’와 한 번의 ‘함께 향유적 문학 읽기’에 대한 감상 및 후기를 쓰는 것으로 기말고사를 대체하였다. 교수자는 분량이나 형식의 자율성을 주는 대신, 내용의 구성은 줄거리와 감상을 부가하는 형태를 지양하고 했다. 대신 문학 텍스트 속 내용을 자신의 삶이나 타 텍스트와 관련짓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향유적 문학 읽기의 즐거움이나 깨달음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2) 미디어 시대 향유적 문학 읽기 수업에서 학습자의 활동 양상

학습독자들은 홀로 향유적 문학 읽기, 함께 향유적 문학 읽기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서 각 읽기 활동별 최소 1편의 문학 텍스트를 읽으며 향유적 문학 읽기 활동을 수행했고 해당 경험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감상문 형태로 최종 제출하였다. 자신만의 기준으로 문학 텍스트를 선정하고 감상한 문학 텍스트와 다른 텍스트와의 관련성을 생성하는 것은 고도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독자들의 사고와 정서는 학습독자들의 발표와 글 속에 남아 있기에 학습독자들의 글과 발표 내용을 통해 미디어 시대의 향유적 문학 읽기의 구체적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학습독자들의 문학 텍스트에 대한 수용 활동은 두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개별 학습자가 문학 텍스트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매체 텍스트를 연관짓는 형태의 개인적 형태의 읽기이다. 아래의 [표 4]는 개인적 형태의 읽기결과로 제시된 텍스트의 이름 및 주제를 정리한 것이다.

[표 4] 개인별 홀로 향유적 문학 읽기 활동 텍스트 관련 양상

학습독자	주제	과제별 주요 감상 텍스트
A	방황하고 부딪힌 시간들	· <우리모두 별이야(웬디매스)>-<레이디와 트램프>-<Teacher(아 이유)>-<신호등(이무진)>-「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푸쉬킨)」-<Good Bye(B.A.P)>-「연(이병률)」-「고래를 위하여(정호승)」-「스물아홉 생일, 1년후 죽기로 결심했다(하야마 아마리)」
B	희생과 고립 사이-어머니의 이름으로-	· 「관내분실(김초엽)」-<도망가자(선우정아)>-「82년생 김지영(조남주)」-「커피테일, 러브, 좀비(조예은)」
C	봄, 꽃, 사람	· 「꽃(김춘수)」-「흔들리며 피는 꽃(도종환)」-「꽃샘바람에 흔들린다면 너는 꽃(류시화)」-「바람이 오면(도종환)」-<난춘(새소년)>-「야생화(류시화)」-「꽃의 결심(류시화)」
D	사랑	· 「유월에(나태주)」-<좋아(박재범)>-<그해 우리는(김윤진)>-「즐거운 편지(황동규)」-「꽃(김춘수)」-「방문객(정현종)」-「나의 오늘, 그대(이경선)」-「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정채봉)」-<일과 이분의 일(투투)>-「사는 법(나태주)」
E	운명을 대하는 방식	· 「데미안(헤르만 헤세)」-<황금별(뮤지컬, 모차르트 중)>-「생명의 서(유치환)」-「서시(윤동주)」-「남신의주유동박시봉방(백석)」-<팬테터(뮤지컬)-디어 애반 헨슨(뮤지컬)>-「홍길동전(허균)」-<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영화)>-<소울(영화)>-<와일드 그레이(뮤지컬)>
F	삶과 죽음, 만남과 이별	· 「달걀 속의 생2(김승희)」-<날아라 병아리(신해철)>· 「성탄제(김종길)」-<가족사진(김진호)>· 「세월이 가면(박인환)」-<옛사랑(이문세)>-「바람이 오면(도종환)」
G	독서와 쓸모있음	· 「공을기(루쉰)」-「허생전(박지원)」-<기생충(봉준호)>-「흰 바람벽이 있어(백석)」-「오래된 서적(기형도)」-<엘로가 체질(이병헌)>
H	악의 평범성	· 「예루살렘의 아이히만(한나 아렌트)」-<D.P(한준희)>

[표 3]에 나타나듯, 개별 학습독자들은 다양한 텍스트를 나름의 관계를 맺는 과정을 통해 일련의 주제로 수렴하는 문학 읽기 활동을 수행하였다. 학습독자 A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에 대한 두 가지 태도, 즉 기존 세계에 머물고픈 태도와 기존 세계에서 떠나고 싶은 태도를 각각 웬디 매스의 「우리 모두 별이야」와 애니메이션 <레이디와 트램프 2>의 장면을 통해 제시한다. 그리고 세계 어딘가를 돌아다녀도 부딪히고 아파야 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이유의 <TEACHER> 속 ‘시간은 자꾸만 재촉하네요 / 어른이 되

기엔 아직 이른 저를 날마다 보채요'라는 가사와 함께 제시한다. 이후 이무진의 <신호등> 속 '수많은 동그라미들 모두가 / 멈췄다 굴렀다 말은 잘들 어'의 가사를 어른들의 지시 사항을 따르는 모습으로 관련짓고 이러한 세계에서 겪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와 B.A.P의 <Good Bye>를 제시한다. 그리고 나서 학습독자 A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원동력으로 이병욱의 「연」을 언급한다. 학습독자 A는 '연'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구체적 발자취라 해석하고 이를 통해 '떠오르는 연'을 삶의 목표로 제시하는 화자의 모습에 공감한다. 이러한 생각은 정호승의 「고래를 위하여」 속 '푸른 바다'로 전이되며, 하야마 아마리의 「스물아홉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 속 아마리의 삶과 병치된다. 이러한 탐색 과정을 거친 뒤 학습독자 A는 '결국 고민하고 최종적으로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작품들은 우리 인생에서 답으로 가는 길을 비추어 준다'라는 결론을 내리며 글을 마무리 한다.

한편 학습독자 B는 '어머니'의 희생을 핵심키워드로 하는 향유적 문학 읽기활동을 수행하였다. 소설 「관내분실」는 고인이 된 어머니의 기억이 담긴 '도서관'에서 어머니의 기억을 찾아나서는 딸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소설 「관내분실」의 주인공인 지민은 어머니와의 기억과 영원히 헤어지게 되는 상황에 서글퍼하며 과거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는 딸의 모습에서 선우정아의 <도망가자> 속 M/V의 장면을 떠올린다. 노래 속 '나'와 '너'의 관계를 '은애'의 관계로 규정한 학습독자 B는 M/V에서 무표정하게 집안일을 하는 한 여성의 모습을 소설 「82년생 김지영」의 어머니의 모습과 동일시한다. 「82년생 김지영」에 등장하는 김지영의 어머니는 공부도 잘하고 교사가 되고 싶은 꿈도 있었지만, 자신의 오빠를 위해 꿈을 희생했고,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과 후회를 내비치는 인물이다. 학습독자 B는 이러한 어머니의 모습에서 'K-장녀'라는 사회적 현상을 떠올리며 작품 속 세 여성에

게 위로를 건넨다.

학습독자 C는 김춘수의 「꽃」에 나타난 존재론적 상황에 대한 궁금증은 던진 뒤, 이를 도종환의 「흔들리며 피는 꽃」과 관련 지으면서 꽃을위한 서시의 돌개바람과, 흔들림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탐구한다. 이후 ‘흔들림’이라는 행위에 주목, 다시 ‘꽃샘바람에 흔들린다면 너는 꽃’ 속 ‘흔들림’과 ‘흔들리며 피는 꽃’을 연결한 학습독자 C는 다시 이러한 흔들림의 원인인 ‘바람’을 중심으로 도종환의 「바람이 오면」을 읽어 읽는다. 그리고 이 바람은 다시 매섭고 세찬 바람의 이미지가 되어 새소년의 노래 <난춘> 속 ‘바람새는 창틀에 넌 추워지지만/이리와 나를 꼭 안자 /오늘을 살아내고 우리 내일로 가자/그대여 부서지지만’과 결합한다. 이후 학습독자 C는 바람속에 피어나는 꽃의 고매함을 류시화의 <야생화>와 ‘꽃의 결심’에 병치하여 글을 마무리 한다. 학습독자 A와 B가 내용적 유사성에 기반하여 관련된 텍스트를 관계맺고 다음 텍스트를 읽어가는 것과 달리, 학습독자 C는 <꽃>이라는 시어를 핵심으로 하여 시어의 은유적 연결성 보다는 시어의 기표로 환기는 이미지의 병치를 중심으로 향유적 읽기를 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점은 생성된 의미의 양식에서도 차이를 드러내는데, 앞선 학습독자 A와 B가 섭렵한 텍스트와의 관계 맺음을 통해 각각 ‘방황과 부딪힘’, ‘희생과 고립사이 -어머니의 이름으로’라는 섭렵한 텍스트를 관통하는 주제를 도출함으로써 각 주제에 관한 심화적 의미를 생성했다. 하지만 학습독자 C의 경우는 각각의 텍스트를 통해 존재와 흔들림, 바람, 시련이라는 제시어를 환기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학습독자 D는 ‘사랑, 그 원대한 존재’라는 제목을 바탕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텍스트를 섭렵하였다. 슬프지만 결말을 알기 전까지는 행복할 수 있는 ‘짝사랑’의 감정을 나태주의 「유월에」속 ‘항호함’의 정서로 특정화하고 박재범의 <좋아>라는 노래 가사 속 ‘괜히 웃음이 나

와'라는 행동으로 구체화한다. 한편 짝사랑이 주는 '기다림'의 정서는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 속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와 김춘수의 「꽃」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로 구체화된다. 이후 학습독자 D는 정현종의 「방문객」 속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오는 것'과 이경선의 '나의 오늘, 그대' 속 '나의 오늘은 그대가 되었다'를 통해 사랑에 빠진 사람이 느낀 사랑의 크기를 제시한다. 이러한 사랑의 물질성은 투투의 <일과 이분의 일> 속 '반쪽'과 정채봉의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 속 '나의 일생이었지'에 나타난 것처럼 이별후의 극심한 아픔을 동반한다고 평가했다. 학습독자 D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된 사랑과 관련된 동질적 요소를 바탕으로 유사한 텍스트를 제시했다. 이러한 관계 구성은 텍스트에 제시된 추상적 시어나 상황에 대한 구체적 파악을 가능하게 하고 유사한 정서의 텍스트의 중첩을 통해 텍스트에 대한 몰입도를 높인다.⁴⁴⁾

학습독자 E는 앞선 다른 학습독자와 달리 다른 형태의 향유적 읽기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특기할만 했다. 학습독자 E는 데미안에 나타나는 '운명'에 대한 생각을 제시한 뒤, 이러한 운명에 대처하는 다양한 모습을 제시한다. 학습독자 E는 운명을 대하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1)운명을 찾아 떠나는 삶, (2)주어진 운명에 따르는 삶, (3)운명을 회피하는 삶, (4) 운명에 맞서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는 삶, (5)운명을 초월한 삶으로 유형화한다. 그리고 첫 번째 유형에는 뮤지컬 모차르트의 <황금별>과 유치환의 시 「생명의 서」를 제시하고 스스로가 인생의 주체가 되는 삶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 한다. 이후 주어진 운명에 따르는 삶에는 윤동주의 「서시」와 백석의 「남신의주유동박시봉방」을 제시한다.

학습독자 E는 두 작품 속 화자는 자신의 운명을 인식하고 이에 순응하

44) 임인화, 「상호텍스트성을 통한 문학교육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201쪽.

되,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인물로 보고 이들에게서 ‘구도자’의 모습이 보인다고 평가한다. 세 번째 유형인 운명을 회피하는 삶에는 뮤지컬 <팬레터>와 <디어 에반 헨슨> 속 주인공의 모습을 제시했다. 자신이 바라는 모습을 갖춘 상상 속 ‘나’로 살면서 타인을 속이는 <팬레터>의 세훈과, 타인에게 이상적 모습만을 보이기 위해 거짓말을 계속하는 <디어 에반 헨슨> 속 에반의 모습을 두고 E학습독자는 ‘이상화된 나’의 모습을 제시하며 운명을 벗어나려고 했다는 평가를 내린다. 이후 학습독자 E는 운명에 맞서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는 삶의 모습을 <스파이더맨> 속 마일스의 대사와 홍길동전 속 홍길동의 행동으로 제시하며 영화 <소울>의 등장인물을 통해 운명이란 것을 상정하지 않고 삶을 그저 누리는 운명을 초월한 삶의 모습을 제시한다. 앞서 살핀 A~D 학습독자들이 모두 텍스트에 제시된 요소 및 내용의 유사성에 기반해 텍스트를 선정하고 관련지어 향유적 문학 읽기를 수행했다면 학습독자 E는 상호 대립되는 텍스트를 관련지어 향유적 문학 읽기를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학습독자 E의 향유적 문학 읽기에서 나타난 텍스트 관련짓기는 주제나 화제에 대해 상이한 관점 제시를 중심으로 텍스트를 구성하는 대화 관계 중심의 구성으로 볼 수 있다.⁴⁵⁾

대화 관계 중심 구성은 하나의 주제나 화제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학습독자에게 기존의 의미나 이해에 대한 새로운 관점 및 경험을 부여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독자는 주제나 화제, 가치 태도에 대해 무엇이 유의미한지를 비교하고 종합함으로써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사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⁴⁶⁾

이러한 활동은 학습독자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관념이나 가치, 태도를

45) 임인화, 앞의 논문, 2018, 201쪽.

46) 김도남, 『상호텍스트성과 텍스트 이해교육』, 박이정, 2010, 321쪽.

변화하거나 수용범위를 확장시켜 텍스트에 대한 확장적 의미생성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학습독자 F는 김승희의 「달걀 속의 생」과 신해철의 <날아라 병아리>를 비교하면서 죽음과 삶에 대해 성찰하고 각각의 시에 담긴 성장의 기제를 언급한다. 학습독자 F는 ‘희망의 온도가 차츰 내려갈 때/오히려 절망은 초연해지는 것 같지’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초연의식에 감탄하면서도 자신의 유년기억에 남긴 죽음의 섬뜩함을 <날아라 병아리>에 ‘차디차게 식어있었지’의 트라우마에 대해 고백한다. 또 학습독자 F는 김종길의 「성탄제」와 김진호의 <가족사진>을 엮어 아버지로서 자식에 대한 사랑에 대한 단상을 제시하고, 박인환의 <세월이 가면>과 이문세의 <옛사랑>, 도종환의 「바람이 오면」을 엮어 사랑과 이별의 쓸쓸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학습독자 G는 ‘쓸모있다’라는 역량의 관점에서 「허생전」 속 허생의 ‘책 읽기’와 루쉰의 ‘공을기’, 영화 <기생충>의 기택 가족의 삶을 비교-분석했다. 그는 기생충 속 기우와 민혁, 다혜의 모습을 통해 노력하지 않아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는 ‘능력주의의 환상’에 대해 비판한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 혹은 30대의 능력자 역시 고민하고 아파한다는 사실을 ‘백석’과 ‘기형도’의 시를 통해 이야기한다. 한편 학습독자 H는 Netflix 드라마 <D.P>의 등장인물의 행동과 한나 아렌트의 「에루살렘의 아이히만」의 내용을 중첩하여 제시하고, 한나 아렌트의 관점에서 <D.P>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동을 해석하였다. 다만, 텍스트와의 관련성이 잘 드러나지 않아 감상이 단조롭다는 단점이 있었다. 홀로 향유적 문학 읽기를 수행한 학습독자들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팀별 향유적 문학 읽기 활동을 수행했다. 아래 [표 5]는 팀별 함께 향유적 문학 읽기 활동 활용된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들을 제시한 것이다.

[표 5] 팀별 함께 향유적 문학 읽기 활동 텍스트 관련 양상

그룹	중심 텍스트	주제 및 학습독자별 주요 감상 텍스트		
(가)	어바웃 타임	시간	여행 (학습독자B)	· <나비효과>-<뽀투더퓨처>-<재벌집 막내아들>-<위저드 베이커리>
			깨달음 (학습독자C)	·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후회」-「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감사」
		사랑	사랑&노력 (학습독자D)	· <시작>-「사랑의 물리학」-「그리움」-<너의 결혼식>-「노력」-<순수박물관>-<라라랜드>
			사랑유지 (학습독자G)	·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풀꽃2」-<LOVE>-<하트시그널>-<환승연애>
(나)	다섯째 아이	모성애	집착 (학습독자F)	· <말아톤>-<마더>
		폭력	순환 (학습독자A)	· 「채식주의자」-<더 글로리>
		양육	관계 (학습독자E)	· <케빈에 대하여>
		가정	사회인식 (학습독자H)	· <2023 한국사회 리포트>

학습독자들은 조별로 협의를 통해 함께 읽을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가)조에서는 영화 <어바웃 타임>을 (나)조에서는 소설 「다섯째 아이」를 선정했다. 선정한 이유로는 가조의 경우 각자가 함께 읽거나 보고픈 텍스트를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걸리버 여행기」와 <어바웃 타임>이 제시되었는데, 「걸리버 여행기」에 비해 <어바웃 타임>이 더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다는 판단하에 <어바웃 타임>이 선정되었다고 한다. 한편 (나)조에서 <다섯째 아이>를 선정한 이유는 사회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율과 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 선정했다고 한다.

집단적 형태 읽기는 조별로 주 텍스트를 읽고, 이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주제화하고, 주제화 된 내용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장의 진행으로 이루어진 읽기는 개별 조원이 자신의 주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조원들이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가)조에서는 <어바웃 타임>을 함께 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다른 텍스트와 함께 제시하였다. 주제는 시간이라는 대주제와 ‘여행’, ‘깨달음’이라는 소주제, 사랑이라는 대주제 속 ‘노력’, ‘유지’라는 소주제로 대별된다. ‘시간’이라는 요소와 ‘여행’이라는 요소에 주목한 B학습독자는 ‘시간 여행’을 핵심어로 선정하고, ‘시간 여행’을 주제로 한 텍스트를 섭렵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였다. 학습독자 B는 영화 <나비효과> 속에서 시간여행으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리는 주인공의 모습과, <뺑투더퓨처>에서 꼬여버린 미래와 과거를 원래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설명한다. 또한 웹툰 <재벌집 막내아들>의 주인공이 시간여행을 통해 복수하는 모습, 소설 「위저드 베이커리」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과거로 돌아간 소년이 Y/N의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을 묘사한 뒤, 네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표로 제시했다. 이 학습독자는 같은 시간여행을 소재로 했으나, 주인공의 능력과, 선택, 기억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이 무척 흥미로웠다고 했다.

한편, ‘시간’과 ‘깨달음’에 집중한 학습독자 C는 시간을 되돌리는 행위 자체보다, 시간을 되돌리는 과정속에서 드러난 주인공의 후회, 즉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생기는 미련과 아쉬움의 정서에 집중한다. 이 학습독자는 주인공 팀이 계속해서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도 어쩔수 없이 생기는 미련과 후회처럼,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해도 미련과 후회를 하게 됨에 주목한다. 그러면서 오세영의 「후회」에서 ‘매달리지 않고 왜 미련없이 떠나가는 것과 ‘그 스스로의 무게로 떨어지는 태양’에 대한 경외감, 정현종의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에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라며 후회하며 ‘모든 순간이 다아 꽃봉오리인’것을 인식하는 화자에 대한 공감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가장 감사한 곳이라는 감상을 표현한다.

앞선 두 학습독자와 달리 <어바웃 타임>에서 ‘사랑’을 핵심 주제로 제시

한 학습독자 D와 학습독자 G는 사랑 중에서도 각각 ‘노력’과 ‘유지’에 주목했다. 영화 속 대사인 ‘내겐 항상 사랑이 중요했다. 그리고 그 여름 난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갔다’로 시작한 학습독자 D의 글에서는 주인공 팀이 메리를 처음 만나는 순간을 「사랑의 물리학」 속 ‘뉴턴의 사과’에 비유하고, 팀이 메리에게 드러내는 그리움의 감정과 열정을 메리와의 사랑을 이루는 동력이었음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무모함과 그리움의 감정을 나타주 시인의 「그리움」과 영화 <너의 결혼식> 속 장면을 통해 증명한다.

학습독자 D가 사랑을 이루기 위한 동력으로서 노력을 중시했다면, 학습독자 G는 <어바웃 타임>에서 사랑을 유지하는 방안에 주목한다. 학습독자 G는 팀이 첫사랑인 샤론에게 갈 수 있었음에도 가지 않고 메리에게 청혼한 장면을 통해 사랑을 단순히 끌림만으로 완성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학습독자 G는 알랭 드 보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속의 구절을 인용해 ‘낭만적 운명론’에 대해 비판한다. 학습독자 G는 이유가 있어서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빠진 이유를 찾게 됨을 알랭 드 보통의 소설과, 예능 프로그램 <환승연애> 속 사례를 통해 제시한다.

하나의 텍스트에 대해 서로 다른 요소에 주목하고, 관련된 텍스트를 제시하는 양상은 소설 「다섯째 아이」를 중심으로 하는 함께 향유적 문학 읽기에서도 동일했다. 4명의 학습독자들은 자신만의 관점으로 「다섯째 아이」를 읽었고, 이를 통해 학습독자들은 각각 ‘집착적 모성애’, ‘폭력의 순환’, ‘양육이라는 관계’, ‘가정에 대한 사회 인식’이라는 상이한 키워드를 주제로 도출했다.

학습독자 F는 <다섯째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모성애를 집착으로 보고 영화 <말아톤> 속 경숙의 모성애와 영화 <마더> 속 엄마의 모성애를 비뚤어진 집착적 모성애의 사례로 제시한다. 학습독자 F는 초원이를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했던 경숙과, 자신의 아들이 살인범임을 알면서도

자식의 방면을 위해 살인을 하는 ‘엄마’의 행동이 모두 자식을 향한 강한 모성애에서 비롯된 비뚤어진 행위라며 비판한다. 반면 학습독자 A는 <다섯째 아이>에서 모성애보다는 ‘폭력성’에 집중한다. 그는 <다섯째 아이>와 소설 「채식주의자」, 드라마 <더 글로리>가 모두 폭력의 기억과 비정상인 정서 및 태도, 그로 인해 유발된 비정상적인 폭력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음을 전제한다. 학습독자 E는 <다섯째 아이>에서 태아를 향한 폭력이 폭력적인 생존 방식으로 이어지고, 채식주의자에서 아버지와 남편의 가부장적인 폭력이 폭력적인 육식의 거부로, <더 글로리>에서 학교폭력의 경험이 폭력적인 복수 방식으로 이어졌음을 개별 텍스트의 내용과 장면을 통해 설명했다.

한편 학습독자 E는 소설 「다섯째 아이」와 영화 <케빈에 대하여>의 내용 비교를 통해 양육의 관점에서 엄마와 아들의 관계를 다룬다. 학습독자 E는 두 텍스트에 남들과 달리 다루기 힘든 아이와 아이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엄마가 등장하고 이들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방관과 비난 속에 소외된 엄마와 파괴된 가족의 모습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요소를 통해 가족이 파괴되어 가는 모습이 제시됨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학습독자 H는 가정 폭력이라는 현상이 2023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회현상임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학습독자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하나의 주제에 대해 자신의 다양한 문학 경험 및 미디어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관점을 제시했다. 이러한 반응은 학습자가 기존의 문학 텍스트에 대한 이해나 감상의 심화 또는 기존과 다른 의미나 담론을 생성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에 의의가 있다. 또한 학습자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관념이나, 텍스트에 대한 이해도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미디어 경험을 활용한 문학 읽기의 교육적 의의가 드러난다.⁴⁷⁾

47) 임인화, 「대학교양 교육에서의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 양상 연구」, 『우리말글』 98집, 2023, 32쪽.

3) 미디어 시대 향유적 문학 읽기 수업의 의의 및 제언

미디어 시대의 문학의 가치와 효용성에 대해 생각하고 한 편의 문학 텍스트를 중심으로 혼자서 또 조원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를 섭렵하는 수업에 대해 강의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 97점으로 해당 수업이 개설된 학과 및 대학 전체 평균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아래의 두 글은 수업에 대한 일부 학습독자의 평가를 적은 것이다.

교수님 한 학기 동안 멀리서 출퇴근하시며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셔서 무척이나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를 배려해주시고, 문학 그 자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서 문학을 정말 싫어하던 제가 문학에 조그마한 관심이 생길 정도로 재밌는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뜬금없지만 위대한 개츠비에 대한 강의도 더 듣고 싶었는데, 못 들어서 너무 아쉽다는 생각도 했어요 ㅠㅠ) 목요일 아침 강의였지만 수업 들으러 갈 때면 늘 설렸는데 이제 종강해서 들을 수 없게 되어 많이 슬픕니다.....!!

‘미디어 시대의 문학 읽기’ 수업을 통해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상호 텍스트 교육의 인식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도 모르는 사이 자연스럽게 상호 텍스트성 교육을 활용한 실제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과정까지 구성해 보게 되었습니다. 보수적이고 단편적이었던 제 문학 교육에 대한 인식에 터닝 포인트가 된 수업이라 느껴져 매우 기분이 좋고 뿌듯한 수업이었습니다. 좋은 수업을 마련해 주신 교수님과 발표에 열심히 참여해 준 학우들 덕분에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던 기억에 오래 남을 수업이었습니다.

수업에 대한 학습독자들의 긍정적 평가에 교수자로서 보람을 느낀다. 하지만 미디어 시대의 교양교육으로서 향유적 문학 읽기 수업의 의의를 더욱 정련화하고자 해당 수업 설계의 의의와 한계를 밝히려고 한다. 먼저 학습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두 차례의 향유적 문학 읽기에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관심사 및 현재적 상황을 주된 기준으로 두고 읽을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학습독자들의 이러한 선택은 텍스트에 대한 높은 관심과 흥미도를 주게 하고 이러한 긍정적 태도가 향유적 문학 읽기 활동에 대한 높은 집중도

와 몰입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의가 있다. 다만, 자신의 관심사나 흥미도에 기반한 텍스트 선정 경험이 부족한 학습독자들에게 도움이 도서 정보의 보급이 부족함을 느껴 해당 상황에 대한 교육적 논의가 필요함을 느꼈다.⁴⁸⁾ 또한 학습자의 텍스트 선정이 오락적 재미에 치우치지 않도록 교수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함을 느꼈다. 학습자의 흥미를 자극하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재미’가 단순한 오락적 ‘재미’로 환원되서는 안된다. 내용 자체가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 보이는 제재라고 해도, 교수자의 역량에 따라 학습독자들의 관심사에 맞게 형태와 내용을 변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수자는 문학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를 아우르는 다양한 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준비하고 제공하여 학습독자들의 향유적 문학 읽기를 지원해야 한다.

둘째, 향유적 읽기와 관련해 학습독자들은 단독적인 문학 텍스트 하나를 읽는 것보다 문학 텍스트와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를 함께 읽는 것에 더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미디어를 매개로 사람과 문학이 연결되고 그 속에서 또다시 문학을 매개로 인간은 보다 더 사실적인 간접경험을 통해 성장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 시대가 도래했다고 새로운 문학의 가치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가치가 더욱 극대화될 수 있는 이점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어느 한쪽에 편향되어 생각하지 말고 둘을 적절히 융화시킨다면 문학의 가치를 온전히, 아니 그보다 더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학습독자 C-⁴⁹⁾

이처럼 다양한 삶의 방식이 여러 작품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운명’을 인식하고 대하는 방법에는 하나의 정답이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학 혹은 문학 외의 작품들을 통해 이러한 다양한 삶의 방식들을 접해보며 나의 태도에 대해 반성할 수도, 위로를 받을 수도, 혹은 이렇게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될

48) 임인화, 앞의 논문, 2023, 35쪽.

49) 볼드체, 연구자 강조.

수도 있다. 또한 특정한 태도를 취했을 때 어떤 결과에 다다르게 될지 예측해보거나 그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면서 내가 가져야 할 나만의 삶의 태도를 확립해 나가는 데 도움을 얻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하여 '운명'이라는 하나의 주제에 대한 다양한 작품을 함께 엮어 분석해 보면서 이를 내 삶에까지 엮어서 생각해볼 기회를 가져 볼 수 있었다.

- 학습독자 E-⁵⁰⁾

학습독자 C는 미디어를 매개로 사람과 문학이 연결되고, 그 속에서 또 다시 문학을 매개로 더 사실적인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어느 한쪽에 편향되어 생각하지 말고 둘을 적절히 융화시키는 것이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학습독자 E도 문학 혹은 문학 외의 작품들을 통해 이러한 다양한 삶의 방식을 접하면서 자신의 태도에 대한 반성과, 위로를 받을 수 있음을 깨달았음을 밝힌다. 그리고 이렇게 텍스트와 텍스트를 관련짓는 경험을 통해 다양한 작품을 함께 엮어 분석해 자신의 삶과 엮어서 생각해 본 문학 읽기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셋째, 학습독자들에게 혼자 읽는 향유적 문학 읽기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지만 함께 읽는 향유적 문학 읽기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학습독자들은 혼자 읽기와 함께 읽기 모두 텍스트 하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다양하게 뻗어나가는 것은 같으나, 혼자 읽기와 달리 함께 읽기에서 나타나는 생각의 다양성에 놀라워했다.

평소에도 생각을 깊이, 오래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었다. 이런 점을 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원들과 함께 수행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보내니 더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다. 특히 재미있던 지점은 각자 생각이 겹치지 않고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두 사람의 사랑에 집중하였고, 누군가는 시간이 지나는 가치에 집중하였다. 이후에 생각을 정리한 양상마저 달랐다. 한 사람은 다양한 작품을 다루는 데 관심을 보였고, 한 사람은 다른 작품과의 연결성에 관심을 가졌으며, 다른 한 사람은 담론을 현실로 연결 지어 미디어 분야까지 설명하려 했다.

50) 볼드체, 연구자 강조.

- 학습독자 B-⁵¹⁾

우선 공통의 텍스트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 주제 까지도 고심하며 선택해야 했던 개인 과제와 달리, 공통의 텍스트가 큰 주제를 잡아줘서 여러 작품을 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줬기 때문이다. **공통의 텍스트를 정하는 것도 조원분들과 여러 텍스트 중에서 선정했기에 이 과정에서 다양한 텍스트를, 내가 평소에 접하지 않았던 분야의 텍스트들도 알게 된 시간이었다.** 이후에 각자 공통 텍스트를 감상하고 생각해 볼 때 사실 비슷한 내용과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다. 사람 생각은 다 비슷하다는 관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걱정과 관념이 무색하게도 **조원분들과 내 생각은 전혀 하나도 같지 않았다.** 진짜 신기했던 건 단 하나도 겹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또 대면으로 만날 시간이 안 맞아서 줌으로 회의를 하긴 했지만, 문어가 아닌 구어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었다. (중략) 이 강의에서는 서로의 의견을 그저 듣기만 해도 되고 정제되지 않은 말이라도 내 생각을 온전히 말할 수 있어서 좋았다.

- 학습독자 D-⁵²⁾

개인마다 문학과 미디어를 연결하는 포인트의 차이가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따지자면 노래나 영화의 이차적 해석의 결과물들과 문학을 연결 짓는 방식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신해철 <날아라 병아리>에 대해 깊게 분석한 결과물을 시와 연결지었고 <마더>나 <말아톤>에 드러난 모성애도 아이를 한 번 버린 어머니들의 극단적인 모성애까지 한 번 더 들어가서 문학 작품과 연결했었습니다. **저와 다르게 소재 자체에 집중해서 문학과 미디어를 연결한 학우, '사랑'이라는 큰 주제를 정해놓고 그에 관한 문학 작품과 미디어를 모아서 연결한 학우들의 발표를 보면서 제가 한 방법과 다른 매력과 장점이 있다고 느낀 부분도 이 수업에서 크게 얻어 갈 부분이었습니다.**

- 학습독자 F-⁵³⁾

위 학습독자들의 진술에도 드러난 것처럼 학습독자들은 동일한 텍스트를 다르게 해석하고 평가하는 타 학습독자들의 관점에 놀라워하고 나와 다

51) 볼드체, 연구자 강조.

52) 볼드체, 연구자 강조.

53) 볼드체, 연구자 강조.

른 접근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학습독자들에게서 나타난 이러한 태도는 문학 텍스트에 대한 소통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점으로 꼽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독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감상하는 향유적 문학 읽기 수업을 위해 촉진하기 위해 학습활동의 최대한의 자유도를 보장하려고 노력했지만 해당 수업에 대해 부정적 의견도 있었다.

개인적으로 막막함을 많이 느꼈다. 이전에 텍스트를 연결하는 것은 작품과 작품을 연결지어 딱 두가지 텍스트만 다루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두 세 가지 이상의 텍스트를 연결하는 과제를 부여받다보니 작품 간 연결점을 찾기도 어려웠고 고른 작품의 줄거리나 해설만으로 발표 시간이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따라서 텍스트와 텍스트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가 더 이루어졌으면 한다. 또한 두 개의 텍스트만 연결 지을 때와 다르게, 여러개의 텍스트를 연결할 때에 유의해야 할 점이나 요령 같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중략) 그리고 개인적으로 드라마, 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를 잘 보지 않아서 과제 수행에 더 어려움이 있었다. 교수님께서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몇 가지 주제 예시와 함께 그 주제와 연관된 미디어 콘텐츠를 학생들에게 추천해주시면 개인간 편차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 학습독자 A-⁵⁴⁾

작가의 느낀점을 공유하고 확인하는 것은 매우 신선하고 즐거웠다. 하지만 일방향적 교육에 익숙하다보니 다소 막막한 지점들이 존재하였다. 어떠한 방향성의 작품을 선정해야 하는지, 공유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지 같은 고민들이 예시이다. 따라서 가이드 라인이 조금 더 구체적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학습독자 H-⁵⁵⁾

위 사례처럼 교수자가 제시한 향유적 문학 읽기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습독자도 존재했다. 학습독자 A의 경우 드라마, 영화 등 미디어 텍스트에 익숙하지 않아서 과제 수행이 어려웠기에 이에 관한 예시 및 요령 등에 대해서 더 많은 강의를 요구하였다. 학습독자 H 역시 어떠한 방향성의 작

54) 볼드체, 연구자 강조.

55) 볼드체, 연구자 강조.

품을 선정해야 하고, 그러한 것들의 공유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막막함을 토로하고 있다. 학습독자들의 이러한 반응은 어떠한 형식적 틀 없이 자유로이 자신의 문화적 경험을 살려 텍스트를 연결하고 의미를 생성해 나가길 의도한 교수자의 의도와는 어긋난 부분이다.

하나의 문학 텍스트와 이와 관련한 다양한 텍스트를 연결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지만, 텍스트와 텍스트 간의 관련성을 통해 심화되고 확장된 의미를 만드는 것 역시 학습독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수자가 학습독자에게 요구한 자유로운 텍스트 섭렵이 자칫 막막함이나 과도한 부담감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은 이후 수업 설계에 있어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 여긴다. 또한 관련 감상에 대한 평가 요소 및 기준 역시 추후 연구의 과제로 생각한다.

4. 나오면서

미디어 시대의 도래로 인해 나타난 독서 및 문학 환경의 변화는 기존과 다른 형태의 문학 읽기 교육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시대, 교양교육의 한 방안으로서 향유적 문학 읽기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그 구체적 방안을 탐색하였다. 자신의 흥미와 관심사에 기반해 문학 텍스트를 직접 선정하고 이를 다양한 형태의 관련 텍스트와 함께 읽는 향유적 문학 읽기는 학습자에게 문학 읽기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한다. 또한 개별 학습자의 향유적 문학 읽기 경험에 기반해 서로의 문학 읽기 경험을 공유하는 공동체적 독서 경험은 향유적 문학 읽기가 개인적 차원의 읽기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 문화적 차원의 읽기로 확장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해당 수업 사례가 개별 대학의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에 이를 일반화하기는 조심스럽다. 하지만 문학 텍스트를 다른 텍스트와 관련지어 의미를 수용 및 생성하고 이를

타인과 공유하고 살펴보는 향유적 문학 읽기의 교육적 이점은 분명히 존재했다.

본 연구는 미디어 시대 교양 교육의 일환으로서 향유적 문학 읽기의 가능성을 수업 설계의 측면에서 탐색하였다. 하지만 향유적 문학 읽기에서 상이하게 나타나는 텍스트와의 관련 맺음에 기저하는 선택과 배제의 요인이나 향유적 문학 읽기를 위한 문학 텍스트 선정의 기준, 수업 이전과 이후의 문학 역량에 대한 태도 변화 등 구체적인 내용 및 수치화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또한 본 연구의 교육설계가 가진 교양 교육 측면의 시사점이 보편성과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많은 수의 학습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후속 연구로 보완하겠다.

■ 참고 문헌

- 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2022.
- 김도남, 『상호텍스트성과 텍스트 이해교육』, 박이정, 2010.
-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국민독서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23.
-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23.
- 김성진, 「정전 교육의 재인식: <삼대>의 관계적 가치를 중심으로」, 『독서연구』 70호, 한국독서학회, 2020, 45-71쪽.
- 김지혜, 「디지털 세대, 새로운 서사의 향유 방식과 문학교육의 미래」, 『국어교육』 169호, 한국어교육학회, 2020, 29-57쪽.
- 김태연·이순형, 「읽기매체의 종류에 따른 유아의 이야기 이해도 차이」, 『아동학회지』 35권 4호, 한국아동학회, 2014, 249-262쪽.
- 김현희·강다혜, 「초등학생 독서교육을 위한 멀티미디어 전자책의 효용성 평가」, 『정보학회지』 39권 1호, 한국도서관 정보학회, 2008, 245-264쪽.
- 김혜정, 「미디어 시대의 책맹(비독서)현상과 독서교육의 방향」, 『독서연구』 52호, 한국독서학회, 2019, 9-49쪽.
- 류보라, 「중학생의 디지털 읽기 실행과 독자 정체성의 관계 연구」, 『독서연구』 64호, 한국독서학회, 2022, 107-138쪽.
- 류수열·이지선, 「문학교육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호명하는 방식에 대하여」, 『국어문학』 69집, 국어문학회, 2018, 363-394쪽.
- 박성석, 「오디오북의 국어교육적 활용 가능성 탐색」, 『독서연구』 67호, 한국독서학회, 2023, 35-66쪽.
- 손예희, 「문학 작품 오독의 본질과 유형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50집 1호, 국어교육학회, 2015, 348-375쪽.
- 송재익, 「고전문학교육에서 ‘재미, 흥미, 관심’의 문제」, 『고전문학과 교육』 55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4, 5-34쪽.
- 염은열, 「고전시가 향유 및 학습 방법으로서의 번역」, 『고전문학과 교육』 43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0, 5-33쪽.

- 오윤주, 「청소년 문학의 향유 맥락과 문학교육적 함의」, 『문학교육학』 58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18, 195-228쪽.
- 윤미영, 「고등학교 독자의 웹툰, 웹소설 읽기 실태와 인식에 관한 연구」, 『독서연구』 64호, 한국독서학회, 2022, 265-297쪽.
- 윤준채·류보라, 「국어 교과서 제재에 대한 고등학생의 흥미 연구」, 『한국어문교육』 25호,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18, 103-125쪽.
- 윤호경, 「문학교육에서의 ‘학생작품’ 수록 현황 및 교육적 가치와 활용의 방향」, 『청람어문교육』 89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022, 207-247쪽.
- 이운영, 「시 그림책의 이미지 분석과 그 교육적 방향 탐색」, 『문학교육학』 74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22, 103-134쪽.
- 이인화, 「문학교육에서 수용 계열 개념어에 대한 연구」, 『문학교육학』 76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22, 288-330쪽.
- 임인화, 「상호텍스트성을 통한 문학교육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 「대학교양 교육에서의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 양상 연구」, 『우리말글』 98집, 우리말글학회, 2023, 159-201쪽.
- 정옥년, 「읽기에서의 감정과 문학적 읽기」, 『독서연구』 22호, 한국독서학회, 43, 2009, 9-48쪽.
- 정재찬, 「미디어 시대의 문학교육」, 『문학교육학』 28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9, 315-345쪽.
- 정효진, 「만 4세 하늘반 유아들의 일상적 훈학향유에 대한 의미 탐색」, 『어린이문학교육연구』 22권 3호,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2021, 227-258쪽.
- 정현선, 「복합양식 문식성 교육의 의의와 방법」, 『우리말교육현장 연구』 8권 2호,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4, 61-93쪽.
- 진솔, 「문학의 향유를 위한 독서토론의 가치와 활동 양상 분석」, 『독서연구』 72호, 한국독서학회, 2024, 301-326쪽.
- 최인찬, 「‘문학 향유’의 개념에 관한 고찰」, 『문학교육학』 81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23, 233-266쪽.

- 편지윤·변은지·한지수·서혁, 「복합양식 텍스트의 텍스트성 재개념화를 위한 시론」,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권 2호, 2018, 493-522쪽.
- 황금숙, 「전자책의 독서 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7권 1호, 한국볼리비아학회, 2006, 47-62쪽.
- Binder, J., “Curling up with a good e-book”, *Aerospace America*, vol. 46, no. 8, 2008, 20-22쪽.
- Mangen, A., Oliver, G., & Velay, J. L., “Comparing Comprehension of a Long Text Read in Print Book and on Kindle: Where in the Text and When in the Story?”, *Frontiers in psychology*, vol. 10, 2019.
- William Irwin, “Reading audio books”, *Philosophy and literature*, vol. 33, no. 2,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9.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미디어 시대 도래로 인한 독서 환경 및 문학의 생산과 수용 양상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교양교육으로서 향유적 문학 읽기 교육 방법 모색에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미디어 시대 도래로 변화한 독서와 문학 환경을 살피었다. 이후 향유적 문학 읽기의 전제로서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자발적 접근의 중요성 및 독자와 텍스트 간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상호작용이자 의미의 수용과 생산이 교차하는 과정으로서 향유의 개념을 고찰했다. 그리고 미디어 시대의 문학 읽기는 단독적 문학 읽기에서 문화적 차원의 문학 읽기로 확장되어야 함을 제시했다.

연구자는 향유적 문학 읽기의 지향점을 ‘읽어야 하는 문학에서 읽고 싶은 문학 읽기로의 전환’, ‘문학 단일 양식 읽기에서 문학 중심 복합 양식 읽기로의 확장’, ‘허용과 격려의 개인적 읽기와 수용과 독려의 함께 읽기의 공존’으로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향유적 문학 읽기 교육 수업을 설계하고 그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았다.

교수자의 의도에 따라 학습독자들은 스스로의 관심과 기호에 따라 문학 작품을 선정한 뒤 자신의 문화적 경험에 기반해 다양한 텍스트를 함께 읽었다. 이러한 향유적 읽기는 두 차례 진행되었다. 학습독자들은 ‘홀로 향유적 문학 읽기’를 통해 자신의 관심사가 깊이 투영된 문학 읽기 경험을 하였고 ‘함께 향유적 문학 읽기’를 통해 하나의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이견을 접하는 문학 읽기 경험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독자는 문학 텍스트를 읽는 유희적 경험과 함께 자신만의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체험을 하였다.

주제어● 교양교육, 독서교육, 문학교육, 향유적 문학 읽기,
상호텍스트성, 복합문식성

■ Abstract

A Study on the Educational Method of Enjoying Literature Reading in the media era as Liberal Arts Education

Im, In Hwa /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ading environment and the production and acceptance patterns of literature that have changed due to the advent of the media era, and to find a specific methodology for enjoyment literature reading education for students based on this. To this end, we first looked at the changes in the reading literature environment that are changing due to the advent of the media era.

Based on this, it suggested the importance of the reader's positive approach to the text as a premise for reading enjoyable literature, and examined that enjoying literature is an interaction between the reader and the text at the personal and social level, and a process in which meaning acceptance and production intersect. It was also suggested that reading literature in the media era should be expanded from reading literature alone to reading literature at an expanded cultural level.

The researcher first presented the direction of the enjoyment literature reading as “reading literature you want to read in literature you need to read,” secondly “reading a single style of literature,” and thirdly “acceptance and permission” and “encouraging and encouraging” literature, and based on this, designed and applied classes for the enjoyment literature reading education in response to the changes of the times to examine the specific aspects.

According to the instructor's intention, the learning reader selected literary works according to his or her interest and preference, and read not only literary works but also various complex texts related to literature. Enjoyable reading based on one's own cultural experience was conducted twice, which was ‘reading alone’ and ‘reading together’. It is significant that the learning reader experienced reading literature in which his or her interests were deeply

projected through ‘reading alone’, and performed reading experience in which various perspectives and disagreements on a single text were encountered through ‘reading together’.

Keyword • Liberal Education, Reading education, Literature education, Enjoyment literature reading, Intertextuality, Complex literacy.

장애인의 장애 유형에 따른 영화교육 방법론 : 시각장애인 영화감상교육을 중심으로*

오 세 섭**

목 차

1. 들어가며
2. 장애인 영화교육 현황과 관련 연구 분석
3. 시각장애 유형과 영화감상교육 표준
4. 시각장애 유형을 고려한 영화감상교육 방법
5. 맺으며

1. 들어가며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영화교육은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 위주였다.¹⁾ 1990년대 한국 영화산업의 부흥 속에서 시네마테크 중심의 시민 영화강좌, 연구모임이 등장하였으며 2000년대에 비로소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영화교육이 실시되었다. 특히, 2004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시작되면서 일반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영화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B5A17085369)

** 오세섭(제1저자) 목포대학교 인문콘텐츠학부 조교수

1) 오세섭, 「영화교과서 개발 방향에 대한 고찰」, 『씨네포럼』 제29호, 2018, 179쪽.
(몇몇 대학 영화과, 예술고등학교 영화과 등에서만 영화교육이 실시되었는데 대부분 현장 영화인 배출을 위한 전문실기교육 위주였다.)

를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지역 영상미디어센터와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성인 대상 영화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으며 마을공동체나 시민대학에서도 제작워크숍이나 영화인문학 같은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영화교육은 전공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을 넘나들며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 연령대의 학생들과 만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영화교육의 소외계층이 존재한다. 특히, 장애인은 기존 방식으로 진행되는 영화교육에 참여하기 어렵다. 영화라는 매체·장르의 특성상 장애인의 참여가 쉽지 않으며,²⁾ 영화교육자나 강좌 기획자 또한 이러한 한계를 관습적으로 용인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장애인 영화교육은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³⁾ 이것은 문화예술교육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와 맞지 않는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제1장 3조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받는다.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장애나 신체적 조건과 관계없이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영화는 장애인이 가장 즐기는 문화 활동이기도 하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문화예술행사 관람 실태’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15.2%가 영화 관람이라고 답하여 전체 1위에 올랐다. 또한 ‘지난 1주일 간의 문화 및 여가 활동 경험’ 중에서 ‘동영상 콘텐츠 시청’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97.4%(중복 응답)

2) 제작워크숍은 촬영, 조명, 편집 장비를 사용하며 촬영 로케이션을 위해 이동이 잦고 공동 작업을 기본으로 한다. 장애/비장애인의 협업이 쉽지 않다. 영화감상을 기반으로 하는 이론 교육이나 비평 교육 또한 시각 장애인이나 청각 장애인은 참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회 문화예술교육에서 장애인 대상 영화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영화제,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도 영화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인구를 고려했을 때 영화강좌 수와 종류는 많지 않다.

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 2024.01.07.

에 달하기도 했다.⁵⁾ 이렇듯 영화 관람에 대한 선호도는 높으나 영화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모순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예술교육의 보편적 향유라는 가치적 측면에서, 또한 장애인 여가와 문화 활동 증대, 영화의 대중성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장애인 영화교육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하지만 장애인 영화교육은 여전히 쉽지 않다. 무엇보다 기존 영화교육 방식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로 한다. 이는 그동안 진행했던 전문교과/일반교과 등 내용 구성의 변화, 어린이/청소년/성인/노령층 등 연령대별 교육 방식과 다르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각장애인 영화교육을 단순히 호혜적 차원의 예술 복지로서 바라보는 시각과도 구별할 필요도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 영화교육은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까? 본 논문에서는 장애의 유형별 특성을 인정하고 교육의 제한점을 극복하는 영화교육을 시도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영화감상교육의 가능성을 찾아볼 것이다. 영화는 동시대 예술 장르 중에서 시각 의존성이 가장 높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각장애인 대상 영화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더불어 교육 대상에 대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시각장애 유형을 세분화한 뒤 그 유형에 맞는 감상법을 탐구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음성해설 방식의 영화감상법에 변화를 꾀하고 ‘특수상영관, 인공지능 TV’ 등 달라진 관람 환경과 교육의 연관성을 찾아볼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시각장애인 영화감상교육 방법에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화교육의 변화와 확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나아가 문화예술교육의 보편적 향유를 위한 하나의 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23. 367-373쪽. (이 보고서에서 예로 든 문화예술행사는 문학행사 및 미술 전시회, 서양음악, 연극/뮤지컬/무용, 영화, 대중음악/연예 등 5개다.)

2. 장애인 영화교육 현황과 관련 연구 분석

시각장애인 영화감상교육에 관한 방법을 고민하기에 앞서 우선 그동안의 장애인 영화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재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장애인 영화교육과 시각장애인과 배리어프리(Barrier-free) 영화에 관한 선행 연구를 찾아본 뒤, 같은 시각예술인 미술교과의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본 연구를 뒷받침할 것이다.

1) 장애인 영화교육 현황

장애인 영화교육에 관해서는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복지시설 이용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⁶⁾ 그 속에서 장애인 대상 영화교육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밖에도 장애인영화제의 교육프로그램,⁷⁾ 장애인복지관의 자체 프로그램⁸⁾ 등을 통해 영화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수가 많지 않다.

[표 1] 2020~202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장애인 시설 영화교육 지원 현황⁹⁾

분야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영화	22개소	20개소	24개소	23개소	16개소

이러한 영화교육의 대부분은 영화제작교육이다. 대개의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은 장애인이 예술창작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영상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 사회에서

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https://www.arte.or.kr>, 2025.01.11.

7)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21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 23.04.27 관객과의 대화 속기록, <https://420sdff.com>, 2025.01.11; 황수산나, “[2024 공익활동가주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영화교육의 매개자, 평생교육사 이우석”,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 2024.07.28.

8) 성보희, “놀듯 배우듯 함께 만드는 ‘가능’”, <아르떼365>, 2021.08.16.

9)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복지시설 이용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선정 결과 중 장애인 시설 영화교육에 관한 통계를 정리하였음.

영화제작교육은 이러한 교육 목적에 부합한다. 더구나 영화제작은 여럿이 모여 협업하는 작업으로 이 과정에서 협동심 등 다양한 정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에 감상교육은 쉽지 않다. 장애인 영화교육을 진행했던 한 강사는 “발달장애인에게 영화 보는 수업을 했는데 30분 정도 지나서 대부분 집중하지 않고 멍하니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미안한 감정이 들더라. 그 이후로 영화를 보여주는 수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¹⁰⁾ 이렇듯 교육 진행의 어려움, 교육 효과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감상교육은 찾기 어렵다. 더욱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감상교육은 거의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장애인 영화교육과 시각장애인 미술감상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

그동안 장애인 영화교육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김민경(2013), 이정민(2015), 김문근(2019)이 영상제작과 장애인의 효능감을 분석하고자 했으며 김홍주·박원희(2017)와 최영익(2019)은 장애인 영화교육과 영화제를 연계한 연구를 진행하였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각장애인과 영화교육에 관한 연구는 더더욱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2000년대 이후 배리어프리 영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시각장애인과 배리어프리 영화 관련 연구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오운진·김정호·조성재(2012), 김혜원·이지은(2013), 나준기(2013), 박보검(2023), 장슈아이(2024)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 연출 방법, 제작 현황 등을 연구하였으며 김영성(2016), 한혜진(2016), 김정희(2017), 오숙희(2018), 이영희(2019a)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영화의 화면해설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밖에 박우천(2005)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감각체험형 문화 공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김태경(2010)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미디어를, 이영희(2018)는 시각장애인

10) 성보희, 앞의 기사, 2021.08.16.에서 재인용.

의 저작물 접근과 향유에 대해 탐구하였다. 그리고 화면해설 영상을 영화 기호학적 측면에서 연구한 논문(이영희, 2019b)이 나온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 영화교육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접 예술교과인 미술교육 연구를 참고하고자 했다. 미술은 영화와 같은 시각예술 장르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감상교육에서 비슷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영화교육과 달리 미술교육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였다. 조운주(2010), 김유리(2012), 박계숙(2013), 한옥희(2015), 박순희(2018), 사영준·이진식·조준동(2020), 장용석(2020), 정서연(2020), 김흠(2023), 서하늘(2024)은 시각장애인 대상 미술교육방법이나 프로그램 개발, 사례 등을 연구하였으며, 정서연(2018)이 기호학을 토대로 한 시각장애인 미술감상 교육프로그램을 탐색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김미남(2022)이 시각장애인 대상 사진수업에 참여한 경험을 자문화기술지 형식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시각장애인 미술감상교육은 시각적 수단을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는 점에서 영화감상교육과 비슷하지만, 영화와 다른 장르적 특성도 있다. 예를 들면, 미술은 동영상 기반의 영화와 달리, 조소나 조형예술처럼 입체감을 가진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촉감을 이용한 감상 및 감상교육이 가능하다. 회화의 경우, 기존 작품을 입체 복사한 특수 그림을 이용하여 시각장애인이 손으로 그림 표면을 만지면서 그림의 형태나 화법을 확인하도록 지도할 수도 있다. 이 때, 학습자는 촉감을 통해 작품의 모양이나 그림의 형태, 심지어 사용한 붓의 굵기나 질감 같은 것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교수가 작품을 묘사하고 해설함으로써 입체적인 감상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촉감을 이용하거나 교수자의 해설을 곁들이는 식의 시각장애인 미술감상교육 방법은 영화감상교육에도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3. 시각장애 유형과 영화감상교육 표준

영화교육에서 장애의 유무로 교육 대상을 나눈다면 크게 장애인 영화 교육과 비장애인 영화교육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의 유형은 매우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장애와 비장애라는 두 개의 분류 체계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시각장애의 경우에도 법적 분류와 의학적 분류에 따라 다양한 장애 유형 및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장에서는 시각장애 유형을 살펴보고 일반적인 영화감상교육의 교육표준에 관해 알아보려 한다.

1) 장애 유형

(1) 일반 장애

장애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특성도 모두 다르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장애 유형 분류법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장애 유형을 3개 영역, 15개 유형으로 구분한다.

[표 2] 장애의 유형¹¹⁾

외부장애	내부장애	정신적 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심장장애 신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자폐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지금까지의 장애인 영화교육에서는 장애 유형을 세밀하게 나누고 대상을 구체화하진 않았다. 대개의 영화교육에서는 다만 내부장애나 정신적 장애 유형보다는 외부장애 유형에서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영화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¹²⁾ 그러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

11)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http://www.nrc.go.kr>, 2025.01.15.

12) 이것은 눈에 보이는 장애 유형(내부장애보다는 외부장애가 그러하다), 교육 환경의 편의성(정신적장애보다는 비정신적장애가 교육 조건이 낫다)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동안 장애인 영화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대개 신체장애 학습자들

이 장애 유형은 15가지에 달하며 실질적인 교육 방법과 교육 목표는 장애 유형마다 각각 다를 것이다. 그러므로 좀 더 세분화한 교육 방법을 필요로 한다.

(2) 시각 장애

본 연구의 대상인 시각장애인은 다음의 네 가지 장애 기준에 따라 시각 장애 판정을 받고 있다.

[표 3] 법률상 시각장애의 기준¹³⁾

유형	장애 기준
시각장애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보통 시각장애란 눈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시력을 상실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시각장애를 시력장애로 혼동한 결과로 시력장애는 시각장애의 일부에 불과하다. 시각장애인의 상당수는 명암을 구분할 수 있으며 희미하게나마 색깔을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어느 정도의 잔존 시각 기능이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에 활용하기도 한다.¹⁴⁾

[표 4] 의학상 시각장애 분류¹⁵⁾

유형	장애 기준
시력장애	시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거나 물체가 보이지 않는 장애

을 대상으로 다소간의 진행 지체를 감안하여 제작교육을 진행하곤 했다. 다만 이러한 교육은 실행 자체의 의의는 있으나 장애의 다양한 특성을 담아내는 데에는 한계도 있었다.

13) 여기서 말하는 시력은 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앞의 사이트, 2025.01.15.)

14)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http://www.hsb.or.kr>, 2025.01.18.

15) 위의 사이트, 2025.01.18.

시야장애	시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거나 물체가 보이지 않는 장애
광각장애	낮에 보는 추상시세포와 밤에 보는 간상시세포가 손상을 받거나, 그 수가 어느 한 쪽이 선천적으로 부족하여 밝은 곳에서 잘 보이지 않거나 밤에 보이지 않는 장애
색각장애	색약이나 색맹의 상태
굴절장애	빛의 굴절에 문제가 있어 난시가 되거나, 근시, 원시 등으로 초점이 망막에 맺히지 못하는 장애. 안경으로 조절 가능
조절장애	수정체의 두께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안구를 움직이는 동안근이 잘 조절되지 못하는 장애
양안시장애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거나 시력이 현저히 낮아 입체시를 이루지 못하는 장애

[표 4]에서 분류한 것처럼 시각장애는 시력, 시야, 광각, 색각, 굴절, 조절, 양안시 등 일곱 가지 유형으로 시각 분야의 이상 현상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의학상 시각장애 분류이며 법적으로는 시력과 시야 이상만을 장애로 판단하고 있다.

보통은 시력이 전혀 없는 상태, 즉 시각장애 1급에 해당하는 전맹과 교정시력이 0.2 이하 또는 시야가 20도 이하로 남았거나 50% 이상 감소한 저시력자로 구분한다. 그러므로 좀 더 세심한 영화감상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전맹, 저시력의 유형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교육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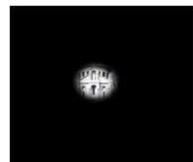
정상시



유리체 혼탁
(백내장)



비특이성 시야장애
(당뇨병 등)



주변부 시야장애
(녹내장 등)

[그림 1] 저시력의 유형별 시각 특징¹⁶⁾

16)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https://www.silwel.or.kr>, 2025.02.01.

2) 영화감상교육 표준

영화감상교육은 영화교육의 한 영역이면서 가장 오래된 영화교육 방법 중 하나다. 영화제작교육의 경우, 촬영 및 편집기기의 발전과 더불어 보편화했다면 영화를 관람하고 영화에 관해 느낀 점을 공유하는 영화감상교육은 영화제작교육보다 빠르게 정착하였다. 더욱이 공동 관람을 추구하는 영화의 오래된 역사를 감안한다면, 영화감상 및 타인과의 교감은 자연스러운 교육적 발상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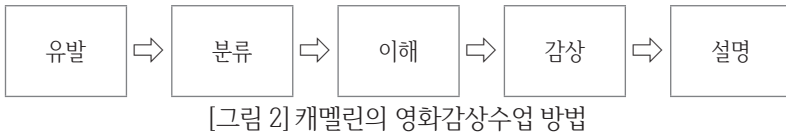
(1) 캐멜린(J. J. Camelin)의 영화감상수업 방법

일찍이 캐멜린은 영화감상수업을 다섯 단계로 구성하였다.¹⁷⁾ 특히 감상 후 토론이라는 과정을 고안하였으며 이를 영화감상수업에 접목하고자 하였다. 캐멜린의 영화감상수업 방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유발(Evocation) 단계로 영화감상 후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는 시간을 말한다. 분위기를 일신하기 때문에 환기 단계라고도 하며 대개는 영화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선정하여 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2단계는 분류(Classification) 단계로 영화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모으고 분류하는 단계다. 보통은 미학적, 심리학적, 도덕적, 철학적, 기술적, 사회적 범주로 구분하지만 학습자의 반응에 따라 다르게 분류할 수도 있다. 학습자 또한 자신의 반응과 타인의 반응이 분류되는 것을 보면서 감상 내용이 체계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3단계는 이해(Comprehension) 단계다. 학습자는 영화의 주제라든지 연출 의도 등을 파악하며 영화가 가진 미학적 특성을 찾기도 한다. 이를 통해 영화를 하나의 관념, 하나의 예술로서 이해할 수 있다. 4단계는 감상(Appreciation) 단계

17) J. J. Camelin. "Union de l'Europe occidentale: Compte rendu des Travaux du Stage 'Loisirs actifs par le film'", Namur, 1959, p.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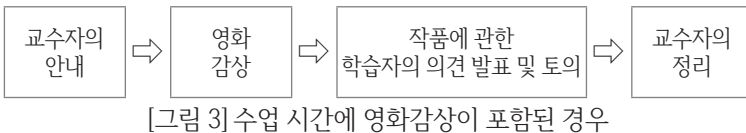
다. 이 단계에서는 사회의 반영으로서 영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반대로 영화를 통해 세상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5단계의 설명(Explanation)이란 작품 자체를 분석하는 단계다. 여기서 교수자는 영화와 영화 외적인 요소를 설명하고 학습자는 이를 기반으로 텍스트 분석과 콘텍스트 분석을 진행한다.



이러한 캐멜린의 연구는 한국 영화교육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아람찬(2005)은 캐멜린의 영화토론 단계를 바탕으로 한국형 영화감상교육을 제안 하였으며,¹⁸⁾ 영화진흥위원회가 진행한 「청소년 영화교육 기본계획 연구」(2019) 속에서 청소년 영화교육의 한 방법론으로 차용되기도 했다.¹⁹⁾

(2) 기본 영화감상교육 방법

현재 영화감상교육은 ‘교수자의 영화 안내→영화감상→영화에 관한 의견 표현→교수자의 정리’ 순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²⁰⁾ 다만, 수업 시간 내에 영화를 감상하는가 아니면 영화를 감상하고 수업에 참여하는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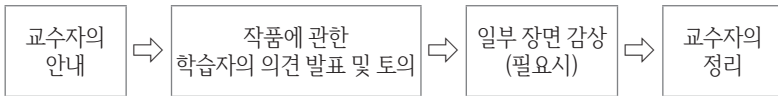


18) 이아람찬, 『영화교육론-이론과 실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80-81쪽.

19) 이아람찬 외, 「청소년 영화교육 기본계획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19, 97-101쪽.

20) 이것은 가장 일반적인 영화감상교육 방식이나 교육 목표나 환경에 따라 이를 변형하여 진행하기도 한다. 오세섭, 『청소년 영화교수학습방법』, 커뮤니케이션북스, 2022, 33-34쪽.

[그림 3]은 수업 시간에 영화감상 시간을 포함한 영화감상수업 과정이다. 이 경우, 감상할 영화의 러닝 타임에 따라 수업 시간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장편영화를 감상한다면, 수업 시간은 적어도 두 시간 이상이 될 것이다. 반면에 단편영화라면 한 시간 내에 수업을 마칠 수도 있다.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이에 맞춰 감상할 영화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림 4] 수업 시간에 영화감상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그림 4]는 수업 외 시간에 영화를 감상한 뒤, 수업 시간에는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수업 과정이다. 수업 중 영화감상을 생략했기 때문에 수업 시간은 기본 한 시간부터 그 이상까지 다양하게 편성할 수 있다. 때로는 영화의 몇몇 장면을 다시 보면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재확인할 수도 있다.

[그림 3]과 [그림 4]에서 보듯이 영화감상교육은 교수자의 안내를 통해 영화를 감상한 뒤 영화에 관한 다양한 사고 작용을 거친 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또 다른 이의 의견을 들은 뒤 감상을 종합/정리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영화감상교육은 교육 대상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하지 않았으며 주로 비장애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업 방식이다. 그러므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감상교육에서는 기존의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되,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새롭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4. 시각장애 유형을 고려한 영화감상교육 방법

시각 정보를 우선으로 하는 영화의 감상교육에 시각장애인이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면서 영화가 구현하는 색상, 명암 등이 정교해지고 있으며 극장 스크린이나 TV의 해상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저시력 시각장애인에게 좀 더 뚜렷한 화면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소리의 표현력이 세밀해지고 냄새와 촉감 등 다른 감각을 이용할 수 있는 관람 환경이 구축되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시각장애의 유형에 알맞은 수업을 설계한다면 좀 더 진일보한 시각장애인 영화감상교육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1) 관람 환경 개선을 통한 영화감상교육의 촉진

(1) 고화질 화면을 통한 영화감상교육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시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앞을 볼 수 없는 전맹 시각장애인은 전체 시각장애인 중에서 비율이 높지 않다. 대개의 시각장애인은 일곱 가지 의학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하며, 그 중 저시력 장애인은 명암이나 색의 구분이 가능한 잔존 시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유형의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영화감상 플랫폼/기기의 개선을 꾀할 수 있다. 즉, 기존의 화면보다 더 선명하고 고화질의 영상을 제공한다면 시각장애인의 일부는 진화된 화면을 통해 조금 더 또렷한 영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화질의 관람 환경을 조성한다는 건 교수방법과 관련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 관람에 초점을 맞춘 기술 환경 개선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또한 교육과 연관성이 있다. 정확하게는 교육 환경 구축과 교육의 관계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일찍이 래드클리프(D. Radcliffe)는 학습공간과 교수법, 기술 매체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말했다. 그에 의하면 학습공간은 교수법에 영향을

주교 교수법과 기술 매체는 서로를 견인하여 기능을 향상한다(2009).²¹⁾ 그러므로 감상교육에서 감상 환경의 개선은 곧 좋은 수업을 위한 필요조건이 된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수법 또한 적합하게 변화하게 된다. 시각장애인 영화감상교육에서 교육 환경은 더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대개의 시각장애인 영화감상교육이 장애인 시설에서 실시되는 것을 염두에 두었을 때 우선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기, 즉 TV의 품질 개선에 따른 영화 선명도 향상을 고려하는 것이 자연스럽다.²²⁾ 더구나 TV의 크기와 해상도는 계속해서 향상되었다. 그리하여 2025년 현재, 100인치 화면 크기²³⁾에 8K²⁴⁾ 화질을 구현하는 TV가 공개된 상황이다.²⁵⁾ 앞으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TV의 크기와 해상도는 점점 좋아질 것이며 영화의 색감 역시 점점

21) Radcliffe, D., *A Pedagogy-Space-Technology (PST) framework for designing and evaluating learning places*, D. Radcliffe, H. Wilson, D. Powell, & B. Tibbetts eds., Brisbane: Proceedings of the Next Generation Learning Spaces 2008 Colloquium, University of Queensland, 2009, pp.9-16.

22) 추병선, 「시각장애인의 근거리 사물 인식과 태블릿 PC 사용의 실효성 평가」, 『시각장애연구』 29권 4호, 2013. (이에 대해선 추병선(2013)의 「시각장애인의 근거리 사물 인식과 태블릿 PC 사용의 실효성 평가」라는 연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본래 시각장애인의 광학보조기기(광학 확대경)와 태블릿 PC 사용 편의성을 비교한 것이다. 다만 연구 결과에서 ‘시각적인 선명함’에 관한 서술이 등장한다. 태블릿 PC화면의 ‘시각적인 선명함’과 영화감상용 TV의 선명한 화질을 동기화하여 이해할 수 있다.)

23) 100인치 TV는 TV 프레임의 대각선이 100인치(254cm)라는 뜻이다. 그럼으로 TV의 가로 길이는 대략 87인치(약 220cm), 세로 길이는 49인치(약 124cm) 정도로 가능할 수 있다.

24) 8K란 해상도 3300만 화소(화소 수: 7680×4320) 수준을 구현하는 영상을 말한다. 8K는 4K(UHD·화소 수: 3820×2160)보다 4배 이상 선명한 화질을 구현하여 상당히 근접한 자리에서도 육안으로 각각의 픽셀을 구분할 수 없으며 2D 화면으로도 자연스러운 입체감을 얻을 수 있다. (다음백과, <https://100.daum.net>, 2025.02.12.)

25) 남지현, “화면 크기·해상도는 기본…올해 TV는 ‘톡톡함’까지 따진다 [CES 2025]”, <한겨레신문>, 2025.01.06.

더 선명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영화감상교육에서는 감상기기의 발전에 따른 교육 적합성을 계속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TV 해상도가 좋아질수록 시각장애인의 가독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연구 결과는 조금 다르다. 2015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글자 크기, 폰트 유형, 배경 명도 등 세부적인 사항마다 저시력 시청자의 가독성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났다.²⁶⁾ 무조건 크기가 크고 화질이 선명하다고 해서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중요한 건 장애 맞춤형 세팅을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감상 환경을 갖추는 것이다. 더욱이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차를 고려한 화면 설정이 가능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각 유형별 장애 특성에 따라 알맞은 화면 조정을 꾀한다면 화면 안에 좀 더 많은 시각 정보를 담을 수 있으며, 여기에 기댄 영화감상교육도 가능할 것이다.²⁷⁾

(2) 4D 상영관에서의 영화감상교육

영화에서 말하는 4D는 3D 입체영상에 오감 체험을 더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월 상암 CGV에서 처음으로 4DX영화를 선보였다.²⁸⁾ 이후 CGV에서는 Wind, Bubbles, Lightning, Fog, Vibration, Scents, Water, Motion 등 모션 시트와 환경 효과를 체험할 수 있는 4DX 상영관

26) 황우석, 「저시력 사용자를 위한 UHD TV 방송안내 가이드의 가독성」,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62-63쪽. (저시력 사용자를 위한 UHD TV 방송안내 가이드의 가독성을 다룬 연구에 따르면, 폰트 크기는 180% 이상일 때, 폰트 유형은 산세리프 스타일의 Bold한 스타일, 자막 대비 배경의 명도는 80%일 때 가독성이 최적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화면의 자막 가독성을 다룬 연구지만 저시력 사용자의 영화감상 화면 설정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27) 예를 들어 시력 정도에 따른 화면, 자막 크기의 설정, 색 인식 정도에 따른 채도, 명도, 선명도 등의 설정을 통해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영화감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28) 중앙 선데이, “4D, 5D… 냄새, 바람까지 느낀다”, <중앙일보>, 2009.02.08.

을 운영하고 있으며,²⁹⁾ 메가박스과 롯데시네마는 각각 MEGA/MX4D³⁰⁾와 SUPER/MX4D³¹⁾라는 이름으로 Motion, Air Blast, Seat Popper, Wind, Bak Poker, Neck Tickler, Water Blast, Rumbler 등의 모션 체어 효과와 비, 안개, 버블, 향기, 섬광, 눈 등 6개 환경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상영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4D 상영관의 공통점은 의자의 움직임과 환경 효과를 통해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 외의 감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제공하는 오감 체험 효과는 시각 정보 수용에 제한이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새로운 감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것은 영화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에 도움이 된다.

물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다. 예를 들어, 의자 움직임이라든지 Lightning 같은 체험 효과가 반드시 영화의 이해를 돕는다고 볼 수는 없다. 선천적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갑작스러운 의자 움직임이나 얼굴을 향해 분사되는 물, 바람 등의 효과는 매우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효과 때문에 오히려 영화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다.³²⁾ 또한,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다. 4D 상영관은 3D(입체안경)와 오감 체험 효과를 합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권도 일반 입장권보다 비싸다. 그러나 3D 기능은 포기한 채, 오감 체험 그것도 가벼운 수준의 오감 체험을 위해 4D 상영관을 교육 장소로 사용하는 것에 따른 효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D 방식의 영화 상영과 시각장애인 영화감상교육

29) CGV, <http://www.cgv.co.kr>, 2025.02.02.

30) 메가박스, <https://www.megabox.co.kr>, 2025.02.02.

31) 롯데시네마, <https://www.lottecinema.co.kr>, 2025.02.02.

32) 모든 효과가 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건 아니다. 후천적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경우, 부드러운 의자 움직임과 기타 체험 효과는 수용 범위에 있을 수도 있다.

을 연결하는 건 의미 있는 시도다. 지금까지의 시각장애인 영화감상이 화면해설이라고 하는 음성정보 전달 방식에 머물렀다면 촉감 제공은 새로운 관점에서 영화감상교육을 바라보게 한다. 만약 비, 안개, 버블, 향기 등 간단한 환경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용 4D 상영관을 마련한다면, 마치 미술감상교육에서 촉감을 이용했듯이 영화감상교육을 위해서 좀 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화면해설을 이용한 영화감상교육

(1) 화면해설영화의 이해

전맹 시각장애인의 영화감상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화면해설서비스((DVS, Descriptive Video Service)다. 이것은 제삼자가 화면 내의 인물, 사건 등을 음성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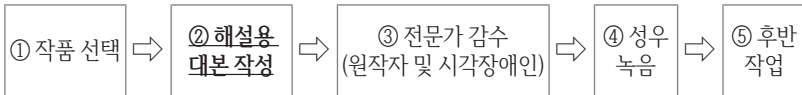
이러한 화면해설영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장애인과 만나고 있다. 상영 공간에 따라서 극장과 집(개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³³⁾ 화면해설 정보의 제공 유형에 따라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33) 김윤주, “영화관 3사, 시·청각장애인 위한 상영 1만 번에 1번꼴”, <한겨레신문>, 2023.10.23. (사실 화면해설영화의 극장 상영 빈도는 높지 않으며 시각장애인의 극장 접근권도 개선되지 않았다. 화면해설정보를 추가한 영화 상영은 가치봄영화제, 서울베리어프리영화제 등 일부 영화제에서 상영하고 있으며, 일반 극장에서의 화면해설영화 상영은 2023년 기준(1월부터 8월까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 기준) 294회(전체 2,827,739회)로 0.008%에 불과하다.); 하종원·박기성, 「가치봄 영화 제작 및 상영 가이드라인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24, 79-81쪽. (또한, 화면해설영화의 수도 많지 않다. 영화진흥위원회의 ‘화면해설 및 한글자막 상영사업(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영화관람환경 개선사업)’의 화면해설영화 제작지원은 매년 10여 편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깊게 탐구하기보다는 영화감상교육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표 5] 극장에서의 화면해설 제공 유형³⁴⁾

유형	내용	전용 기기
개방형	영화에 화면해설 정보를 삽입하여 극장 관람객 모두 정보를 접할 수 있음	없음
폐쇄형	영화에 화면해설 정보를 삽입하였으나 기기 등을 이용하여 화면해설 정보를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음	전용 기기, 전용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

시각장애인 영화감상교육에서 화면해설은 매우 중요하다. 화면해설을 통해 영화의 내러티브, 캐릭터,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요구된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화면해설영화의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5] 화면해설 제작 과정³⁵⁾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②해설용 대본을 만드는 작업’이다. 시각장애인에게 영화의 한 장면을 해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우선일 것이다.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영화정보를 객관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물론 영화적 재미도 빠트릴 수 없다. 원래 영화가 가진 매력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영화정보를 제공하는 균형감각이 중요하다. 그리고 교육 관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 즉, 영화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감상교육에 필요한 문제 제기, 토론 학습 의제 설정 등 화면해설에 비평을 위한 발문을 추가한다면 화면해설영화를 통한 교육도 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유럽시각장애인연합(EBU,

34) 하종원·박기성, 앞의 보고서, 122-12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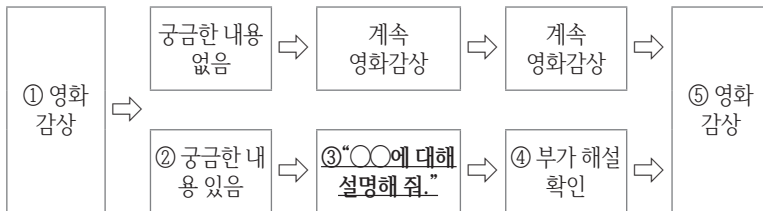
35) 나준기, 「화면해설방송과 배리어프리영화의 연출방법연구-부산국제영화제 배리어프리영화 제작 중심으로」, 『예술과 미디어』 12권 4호, 2013, 263-265쪽.

European Blind Union)은 “영화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이나 요소를 강조해야 하며 보이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쓰듯이 설명하기보다는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이나 요소를 강조해야 하며, 비언어적인 소리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작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묘사”를 강조하였다.³⁶⁾

이렇듯 화면해설은 원작의 매력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각장애인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며, 시각장애인 스스로 영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는 곧 화면해설영화가 영화감상교육을 위한 교보재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2) 부가 해설 정보를 이용한 사전학습

화면해설영화가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 시각장애인에게 화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부가 해설은 숨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책에서의 주석 기능처럼 말이다. 예를 들어 주인공이 춤을 추는 장면을 화면해설을 통해 설명한다면 그 춤의 외형적 형태와 주인공의 감정 상태를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 춤의 종류와 유래까지 설명할 시간은 부족할 것이다. 이 경우, 부가 해설 정보를 구축하고 필요한 사람은 이를 찾아 들을 수 있게 한다면, 영화에 대한 설명과 해석이 깊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 화면해설영화와 부가 해설 정보

36) Hyks, V. & Blokland, B., *Handbook for High Quality Audio Description on Screen*, EBU, 2024, pp.13-14.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면해설영화의 부가 해설 정보는 시각장애인인 영화 감상하다가(①) 궁금한 점이 생기면(②) 음성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③) 영화를 잠시 멈춘 뒤 부가 설명을 듣고(④) 다시 영화를 감상(⑤)하는 식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영화의 모든 장면에 부가 해설 정보를 삽입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해설용 대본을 작성하는 사람이 특정한 장면이나 사건, 인물, 소재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부가 해설 정보를 만들어 넣는 것이다.³⁷⁾ 이러한 부가 해설 정보는 과거 DVD의 코멘터리처럼 영화의 외적인 정보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하여 필요할 때마다 음성 검색을 통해 온라인에서 궁금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 다만, 부가 해설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자칫 영화 감상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여럿이 참여하는 영화감상수업보다는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의 개념으로 활용하는 편이 좋다.³⁸⁾

[표 6] 부가 해설을 이용한 영화감상수업 설계

단 계	수업 내용	교수자	학습자
수업 전	화면해설 및 부가 해설 정보가 담긴 영화감상	- 학습자의 학습 상황과 욕구 파악	- 사전 영화감상 - 추가 설명이 필요한 항목 확인 - 자신의 의견 정리

37) 이때 특정 장면에 부가 해설 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음향 신호로 표시한다. 다만 영화감상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된다면 따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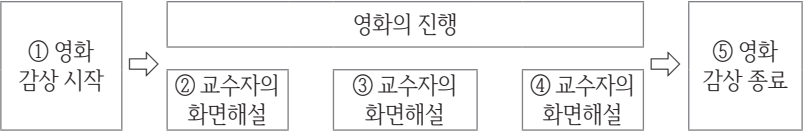
38) 부가 해설 정보가 들어간 영화를 반드시 사전 감상에만 활용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수업 시간에는 교수자가 부가 해설 정보를 대신하여 직접 설명할 수 있다. 게다가 수업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영화를 멈추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부가 해설 정보가 추가된 영화의 감상은 개인 학습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업 전에는 화면해설만 활용하고 수업이 끝난 뒤 복습 차원에서 부가 해설 정보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업 중	교수자의 진행에 따라 영화에 대한 개인 의견 발표 및 토론	- 교수자의 발문 - 발표/토론 진행	- 자신의 의견 발표 - 타인 의견 청취 및 토론
	주요 장면 확인 교수자의 설명 및 평가	- 주요 장면 감상 및 설명 (*필요시) - 질의응답 및 토론 진행 - 형성평가 실시	- 주요 장면 재확인 - 질문 및 토론 - 형성평가 참여
수업 후	감상 정리	- 전체 의견 정리 - 중요사항 강조	- 자기 의견, 타인의 의견, 교수자의 설명을 종합하여 감상 정리

[표 6]의 수업 방식은 [그림 4]의 수업 과정과도 비슷하다. 원활한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업 전에 영화를 감상하고 부가 해설을 들은 뒤, 추가 설명이 필요한 항목을 작성하여 본 수업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아울러 영화감상을 통해 느낀 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수업 시간에 발표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수업에서는 사전에 영화감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영화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추가적인 분석이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 다만 영화를 제대로 감상하지 않고 수업에 참석한다면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3) 교수자의 동시 화면해설과 영화감상교육

화면해설영화가 화면해설을 영화에 추가한 것이라면 이 방식은 영화를 상영할 때 교수자가 영화에 대한 해설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다. 즉, 교수자의 동시 화면해설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대단히 예민한 수업 방법으로 자칫 잘못하면 시각장애인의 영화감상을 방해하고 원작의 분위기를 훼손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교수법을 정교하게 설계한다면 좀 더 친밀한 수업이 될 수 있다.



[그림 7] 교수자의 동시 화면해설

효과적인 동시 화면해설을 위해 교수자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고 실행해야 한다. 교수자의 화면해설과 학습자의 영화감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교육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수자의 동시 화면해설은 단순한 화면 설명과 다르다. 만약 화면 설명에만 치중한다면 무성영화 시절의 변사³⁹⁾와 비슷할 것이다. 반면에 교수자의 동시 화면해설은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관객 아닌 학습자로 설정하고 교육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변사와 근본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다.

[표 7] 교수자의 동시 화면해설을 활용한 영화감상교육

단 계	수업 내용	교수자	학습자
수업 전	영화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이해	- 학습자의 학습 상황과 욕구 파악 -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영화 정보 준비	- 영화에 대한 정보 파악
수업 중	영화감상	- 영화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 - 발성, 연기 등 영화의 매력을 함께 전달 (영화의 청각 정보를 방해하지 않을 것)	- 교수자가 전달하는 정보를 습득하면서 영화 감상 - 필요한 내용은 메모하거나 정리
	감상 의견 및 토론	- 주요 장면 감상 및 설명 (*필요시) - 질의응답 및 토론 진행 - 형성평가 실시	- 주요 장면 재확인 - 질문 및 토론 - 형성평가 참여

39) 김광철·장병일, 『영화사전』, 프로파간다, 2004; 다음백과, <https://100.daum.net>, 2025.02.02. (변사(辯士)는 스크린에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극의 진행, 등장 인물의 대사, 감정 등을 관객에서 설명했던 사람을 말한다. 무성영화 시대의 영화관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수업 후	감상 정리	- 전체 의견 정리 - 중요사항 강조	- 자기 의견, 타인의 의견, 교수자의 설명을 종합하여 감상 정리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적을수록 더 좋다(Less is more)”라는 개념이다. 이것은 설명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다. 어떤 정보가 필수적인지 판단해서 불필요한 세부 사항을 줄이는 것이다.⁴⁰⁾

이를 위해서는 영화에 대한 지식과 함께 시각장애인의 학습 욕구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5. 맺으며

문화예술교육의 본질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예술교육을 받는 것, 그리고 예술을 통해 자신을 가꾸고 삶의 즐거움을 얻는 것이다. 학습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가치를 찾기도 한다. 이런 문화예술교육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장애인 예술교육은 더욱 중요해진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영화교육은 단순히 영화를 제작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매개로 자신을 표현하고 영화로 표현된 세상을 만나는 것이다. 특히, 시각장애인에게 영화감상교육은 남다른 의미로 다가갈 것이다.

이것은 영화교육 교수자에게도 마찬가지다. 현대 영화교육은 전 연령대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영화교육에는 관심이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다. 영화교육 교수법이나 커리큘럼 자체가 비장애인을 특정하여 설계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각장애인 영화감상교육에 대한 연구는 장애인 영화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것이며 나아가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대상 영화교육의 기초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

40) Hyks, V. & Blokland, B., op. cit., p.9.

러한 교육의 확장은 문화예술교육이 이루고자 하는 교육 목표에 맞닿아 있으며 현대의 영화교육이 가진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길이기도 하다.

다만, 연구의 한계점도 존재한다. 본문에서 소개한 관람 환경의 개선을 통한 영화감상교육을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최신 기술의 TV를 갖추어야 하며 4D 상영관과의 협력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장애인 영화교육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현실의 벽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한 교수자의 동시 화면해설을 통한 교육도 실행의 어려움이 있다. 이 수업 방식에서는 화면해설의 설계 및 교수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영화감상교육 이전에 화면해설의 정교한 구성과 교수자 대상 교육 등 기반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좀 더 섬세한 교육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볼 것이다.

영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중문화이며 장애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예술 장르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은 이러한 즐거움에 동참하기 어려웠다. 이번 연구는 모두가 영화를 향유하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영화를 감상한 뒤, 교수자는 영화를 설명하고 학습자는 교수자를 통해 영화를 보고 자신의 의견을 버린다. 그리고 타인의 분석을 귀담아들으며 새로운 생각을 발화한다. 이것이야말로 영화 보기의 핵심이며 영화교육의 원형일 것이다.

앞으로 영화교육의 확장 속에서 영화를 매개로 한 장애/비장애인의 소통, 영화와 사회의 연결, 예술 가치의 이해와 사고의 발현을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김광철·장병원 공편, 『영화사전』, 프로파간다, 2004.
- 김문근, 「영화제작을 통한 정신장애인 편견 개선 사례 연구」, 『사회복지연구』 50권 1호, 2019, 5-34쪽.
- 김미남, 「시각장애학교 사진수업 참여경험에 관한 자문화기술지: “볼” 줄만 아는 이가 “볼” 줄만 모르는 이에게 사진 배우기」, 『미술과 교육』 23권 1호, 2022, 97-134쪽.
- 김민경, 「미디어 제작 프로그램이 정신장애인의 자기효능감 및 문제해결능력 증진에 미치는 영향: 송파정보건강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김영성, 「화면해설의 서사성 연구-배리어프리 영화를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15권 3호, 2016, 185-213쪽.
- 김유리,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의미 만들기 미술교육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김정희, 「화면해설 제작 지침 설정에 대한 연구」, 동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
- 김태경, 「시각장애인을 위한 미디어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 김홍주·박원희,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차원의 역할 탐색: 장애인영화제(PDFF)의 동향을 중심으로」,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3권 1호, 2017, 105-127쪽.
- 김흠,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초등학교 미술교육 시설과 도구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중국 마오밍(茂名)시 사례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 김혜원·이지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영화의 국내 제작현황 및 표현양식 연구-한국 다큐멘터리 영화 <달팽이의 별>을 중심으로」, 『영상문화콘텐츠연구』 6호, 2013, 105-136쪽.
- 나준기, 「화면해설방송과 배리어프리영화의 연출방법연구: 부산국제영화제 배리어프리영화 제작 중심으로」, 『예술과 미디어』 12권 4호, 2013, 253-269쪽.

- 박계숙, 「보편적 학습설계에 의한 미술 감상활동이 시각장애학교
초등학생의 감상태도 및 학습행동과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박보검, 「영화에서의 배리어 프리(Barrier-Free) 실현에 대한 연구: 영화
<블라인드>, <반짝반짝 두근두근>, <소리 찾기>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 박순희,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미술 교과 수업의 다감각적 접근 적용
분석 연구」, 『시각장애연구』 34권 4호, 2018, 143-164쪽.
- 박우천, 「장애·비장애의 통합과 소통 공간 계획: 시각장애인을 위한 감각
체험형 문화 공간」,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사영준·이진식·조준동, 「시각장애학생의 미술 수업 사례 연구: 촉각 칼라
북을 이용한 명화 감상을 중심으로」, 『시각장애연구』 36권 4호,
2020, 117-146쪽.
- 서하늘, 「시각장애인을 위한 융합형 미술교육 방안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4.
- 오숙희, 「시각장애인을 위한 해설대본 창작 연구: 창작 해설대본 <그후>
외 3편」,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오세섭, 「영화교과서 개발 방향에 대한 고찰」, 『씨네포럼』 제29호, 2018,
173-206쪽.
- _____, 『청소년 영화교수학습방법』, 커뮤니케이션북스, 2022.
- 오윤진·김정호·조성재, 「시각장애인용 화면해설 영상물 제작 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시각장애연구』 28권 1호, 2012, 59-83쪽.
- 이아람찬, 『영화교육론-이론과 실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 _____, 오세섭·장다나·박성현·정재성, 「청소년 영화교육 기본계획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19.
- 이영희,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과 향유에 대한 공익가치론적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이영희,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서비스 연구: 관련 법령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한국소통학보』 18권
1호, 2019, 7-46쪽.
- 이영희, 「화면해설영상의 영화기호학적 접근-크리스티앙 메츠 이론의

- 관점으로, 『시각장애연구』 35권 1호, 2019, 145-160쪽.
- 이정민, 「영상매체를 활용한 통합예술치료프로그램이 뇌병변장애인의 자아존중감, 임파워먼트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장슈아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영화의 창작 연구: 배리어프리 영화 <우리 둘>과 <언터처블: 1%의 우정>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4.
- 장용석, 「시각 장애인을 위한 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보지 못하는 것을 보다」, 『미술교육논총』 34권 2호, 2020, 187-213쪽.
- 정서연, 「기호학에 토대한 시각장애학생 미술감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장애의 재해석』, 2018, 102-150쪽.
- _____, 「시각장애인 미술 감상 프로그램 연구: 국립서울맹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 조윤주,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미술교육 연구: 촉각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추병선, 「시각장애인의 근거리 사물 인식과 태블릿 PC 사용의 실효성 평가」, 『시각장애연구』 29권 4호, 2013, 101-110쪽.
- 최영익,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장애인 영화(제)의 운영방안 연구」, 『모드니예술』 16호, 2019.
- 하종원·박기성, 『가치봄 영화 제작 및 상영 가이드라인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24.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0~2024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복지시설 선정 결과, 2020~2024.
- 한옥희,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감을 통한 미술교육지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한혜진, 「시각장애인의 화면해설영화 이용실태, 동기,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인천지역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황우석, 「저시력 사용자를 위한 UHD TV 방송안내 가이드의 가독성」,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Camelin, J. J., “Union de l'Europe occidentale: Compte rendu des

Travaux du Stage 'Loisirs actifs par le film'", Namur, 1959.

Hyks, V. & Blokland, B., Handbook for High Quality Audio Description on Screen, EBU, 2024.

Radcliffe, D., A Pedagogy-Space-Technology (PST) framework for designing and evaluating learning places, D. Radcliffe, H. Wilson, D. Powell, & B. Tibbetts eds., Brisbane: Proceedings of the Next Generation Learning Spaces 2008 Colloquium, University of Queensland, 2009.

신문기사

김윤주, “영화관 3사, 시·청각장애인 위한 상영 1만 번에 1번꼴”, <한겨레신문>, 2023.10.23.

남지현, “화면 크기·해상도는 기본… 올해 TV는 ‘똑똑함’까지 따진다 [CES 2025]”, <한겨레신문>, 2025.01.06.

중앙 선데이, “4D, 5D… 냄새, 바람까지 느낀다”, <중앙일보>, 2009.02.08.

황수산나, “[2024 공익활동가주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영화교육의 매개자, 평생교육사 이우석”,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 2024.07.28.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24.01.07.

메가박스, <https://www.megabox.co.kr>, 2025.02.02.

롯데시네마, <https://www.lottecinema.co.kr>, 2025.02.02.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http://www.nrc.go.kr>, 2025.01.15.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 <https://peopleforchange.kr>, 2025.01.11.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https://420sdff.com>, 2025.01.11.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https://www.silwel.or.kr>, 2025.02.01.

아르떼 365, <https://arte365.kr>, 2025.01.1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https://www.arte.or.kr>, 2025.01.11.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http://www.hsb.or.kr>, 2025.01.18.

CGV, <http://www.cgv.co.kr>, 2025.02.02.

Daum 백과-8K,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201XXX2108068>, 2025.02.12.

Daum 백과-변사,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99XX32200525>, 2025.02.02.

■ 국문초록

영화교육은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영화교육은 크게 활성화되진 못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보편적인 영화교육의 정착을 위해 시각장애인 영화감상교육 방법을 탐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우선 시각장애인의 장애 유형을 세분화하였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에 따른 감상환경 변화를 교육과 연계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고화질 TV는 저시력 시각장애인에게 해상도 높은 화질을 제공할 수 있으며, 4D 상영관은 촉감 효과를 통해 영화의 이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화면해설영화에 대해서도 교육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부가 해설 정보를 추가하여 사전학습에 활용하는 방안, 교수자의 동시 화면해설을 통해 감상과 수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수업 방안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장애인의 영화 향유 기회를 높이고 영화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연구를 추동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주제어● 영화교육, 장애인 영화교육,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문화민주주의, 배리어프리

■ Abstract

Film Education Methodology Based on Types of Disabilities : Focusing on Film Appreciation Education for the Visually Impaired

Oh, Se Seop / Mokpo University

Film education has been actively implemented across various social strata and age groups. However, film education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has not been significantly promoted. In particular, film education targeting the visually impaired is almost non-existent. This study aims to explore methodologies for film appreciation education for the visually impaired, with the objective of addressing this gap and establishing a more inclusive framework for film education.

To this end, the study first categorizes the types of visual impairments in detail. Furthermore, it seeks to integrate technological advancements into educational methodologies by adapting to evolving viewing environments. For instance, high-definition televisions offer enhanced visual resolution for individuals with low vision, while 4D theaters facilitate film comprehension through tactile sensory effects.

Additionally, this research approaches audio-described films from an educational perspective. We explored ways to utilize additional explanatory information for pre-learning and to connect appreciation with lessons through the instructor's simultaneous on-screen commentary. Based on these approaches, structured instructional models were developed.

This study contributes to expanding film appreciation opportunities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while promoting the advancement of film education. Moreover, it is expected to serve as a catalyst for further academic inquiry in this field.

Keyword • Film education, Film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Cultural arts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Cultural democracy, Barrier-free

■ 논문투고일:2025.02.12. ■ 심사완료일:2025.02.25. ■ 게재확정일:2025.03.05. ■

2년제 대학생의 성찰일지 작성 경험

: D 대학 교양수업을 중심으로

박 선 미*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결과
5. 결론 및 제언

1. 서론

현대 사회는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교육의 패러다임 또한 교수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지식을 재구성하고 확장하는 구성주의적 관점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대학생들은 교양수업을 통해 전공 분야의 전문성을 넘어 폭넓은 지식과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수업은 학문적 성취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 박선미(제1저자)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박사수료

2년제 대학은 실용적인 교육을 지향하며, 참여자들은 직업 교육과 실무 중심의 과목을 수강하여 특정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한다.¹⁾ 이곳에는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일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진학하고, 다른 일부는 직장 생활 후 학업을 시작한다. 이러한 다양성은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과 경험 공유를 통해 풍부한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이들은 교양수업을 통해 전문성과 인성을 동시에 발전시키며,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성장과 사회적 기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학습자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보다 의미 있게 학습하기 위해서는 성찰(reflection) 과정이 필수적이다. 성찰은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고 깊이 생각하는 과정을 의미하며,²⁾ 성찰일지(reflective journal)는 이러한 성찰 과정을 촉진하는 유용한 도구로 작용한다. 성찰은 의미를 재구성하기 위한 사고의 과정으로, 다양한 문제에 대한 내면의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표현하여 문제와 관련하여 무엇을 느끼는지, 왜 하는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다.³⁾

성찰적 학습은 비판적 사고와 자기 주도적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업 성취와 긍정성에도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⁴⁾ 고등교육의 목적은 각 대학의 이념과 비전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되지만, 본질적으로는 인간과

- 1) 박선미, 「2년제 대학생의 캡스톤 디자인 수업경험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권 6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4a, 211-224쪽.
- 2) 조규영·서석진, 「특수교육학개론 수업을 통한 예비유아교사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변화」, 『특수교육논총』 34권 2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2018, 73-100쪽.
- 3) 안경주, 「병태생리학 수업에서의 개념도 적용 경험에 관한 질적 내용분석」,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17권 4호, 한국기초간호학회, 2015, 356-362쪽.
- 4) 이선주·김중경·김원종,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비판적 사고성향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권 14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0, 1251-1265쪽.

자연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이해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데 있다.⁵⁾

따라서, 본 연구는 2년제 대학의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교양수업에서 성찰일지를 작성함으로써 경험하는 학습 과정과 그 교육적 효과를 질적으로 탐색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성찰일지가 참여자들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교육적 가치와 필요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년제 대학생들은 성찰일지를 작성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 둘째, 그 경험이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이론적 배경

1) 2년제 대학생에게 교양수업의 중요성

2년제 대학생들은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이에 따라 학업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학비, 생활비, 교재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고, 졸업 후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인해 시험 준비와 과제 제출 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도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어떤 경험을 쌓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진다.⁶⁾ 개인의 학습 스타일과 교육 방식이 맞지 않을 경우에도 학습에 대한 불만이나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학업 스트레스는 우울증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5) 오종욱, 「하버드 대학 교양교육 개혁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6) 박선미, 「군 복무 후 복학한 2년제 대학생의 학업적응에 관한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24권 1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23, 147-163쪽.

수 있으며, 이는 학업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참여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저하할 수 있다.

2년제 대학생에게 교양수업은 여러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공과목과는 달리, 교양수업은 참여자들이 폭넓은 시각을 갖게 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교양수업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여 참여자들에게 폭넓은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며 이러한 수업은 2년제 대학생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기회를 통해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 데 기여한다.⁷⁾ 그룹 프로젝트와 발표, 토론 등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며, 사회 문제, 윤리,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더 나은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교양수업은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하며,⁸⁾ 개인적 성장과 자기 계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문화적 다양성과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⁹⁾ 이러한 이유로, 2년제 대학생에게 교양수업은 학문적, 개인적, 직업적 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하며, 이들이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성찰일지의 교육적 의의

성찰은 Dewey¹⁰⁾의 반성적 사고(Reflective Thinking)에서 유래된 개념으로, 이는 문제 중심의 유목적 사고로 정의되며, 인식주체가 경험에서 느

7) 전용숙, 「교양교육 사례 연구를 통한 인성교육 수업 모델 제안: D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6권 4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2, 191-231쪽.

8)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전문대학 교양교육 권고안』, 2024.

9) 주소영·정연재, 「대학 신입생의 대학몰입과 학습참여가 교양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25권 5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9, 307-323쪽.

10) 노희정, 「듀이의 반성적 사고와 문제해결형 도덕수업」, 『윤리교육연구』 39권, 한국윤리교육학회, 2016, 179-197쪽.

끼는 의심과 혼란을 해결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Dewey는 개인의 과거 경험이 미래 행동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으며, 반성적 사고는 일상적 사고와 달리 문제 해결을 위한 의도적인 인지 활동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반성적 사고는 인식주체가 자신의 경험을 탐구하고 신념 체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기능을 수행한다.

성찰일지는 참여자가 자신의 학습 경험을 기술하고 스스로 분석 및 평가하기 위한 도구이다.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찰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이론과 실제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¹¹⁾ 이러한 성찰적 사고와 성찰일지의 활용은 학습자의 경험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지식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¹²⁾

성찰일지는 교육학에서 시작되어 전문가 교육 전반으로 확장된 도구로, 작성자가 자기 내면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여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 기록이다.¹³⁾ 이는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라 자기평가를 통해 강력한 교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¹⁴⁾ 성찰일지를 통해 작성자는 자신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한다.¹⁵⁾

11) 송수지, 「성찰일지 적용 학습이 예비교사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및 학업성과에 미치는 효과」, 『기독교교육정보』 35권,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12, 199-227쪽.

12) 서정현·김영식, 「성찰일지를 활용한 PBL 기반 초등학교 프로그래밍 교육 교수·학습 전략 개발 및 적용」, 『정보교육학회논문지』 20권 5호, 한국정보교육학회, 2016, 465-474쪽.

13) 배영주, 「전문가 교육에서 ‘저널쓰기’ 활용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Andragogy Today: IJACE』 15권 2호, 한국성인교육학회, 2012, 151-174쪽.

14) 민혜리, 「수업에 대한 교수의 자기평가와 학생평가의 비교를 통한 공과대학 수업개선 방안 연구」, 『공학교육연구』 19권 3호, 한국공학교육학회, 2016, 35-43쪽.

15) 이숙정·신정혜, 「성찰적 글쓰기 활동이 여대생의 Self-authorship 발달에 미치는 영향」, 『교양교육연구』 8권 6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4, 337-374쪽.

성찰일지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은 성찰일지의 교육적 의의와 효과를 탐구하고 있다. 여러 연구에서는 성찰일지가 학습자의 실천적 능력 향상과 전문성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강조하고 있다. 성찰일지의 교육적 의의를 탐색한 연구¹⁶⁾와 성찰일지를 통한 반성적 사고나 자아 성찰의 변화를 다룬 연구,¹⁷⁾ 학업성취도 증진을 목적으로 한 연구¹⁸⁾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성찰일지가 학업성취도, 자기효능감, 자아 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¹⁹⁾ 이러한 결과들은 성찰일지가 교육적 맥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습자와 교육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구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교양수업에서 성찰일지 작성을 통해 2년제 대학생들이 어떤 학습 경험과 교육적 효과를 얻었는지를 질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2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10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연구자와 한 학기 이상 신뢰 관계를 형성하여 라포르(rapport)가 구축된 상태로,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참여자로 선정되었다.²⁰⁾

16) 강인에·정은실, 「‘성찰저널(Reflective Journal)’이 지닌 교육적 의미에 대한 탐구: 대학에서의 수업사례」, 『교육방법연구』 21권 2호, 한국교육방법학회, 2009, 93-117쪽.

17) 석 류·임신자, 「성찰적 훈련일지를 통한 반성적 사고수준의 변화 분석」,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0권 3호, 한국여성체육학회, 2016, 331-352쪽.

18) 유병민·전종철·박혜진, 「대학 수업에서 개인적 성찰과 협력적 성찰이 학습동기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9권 4호,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2013, 837-859쪽.

19) 김하영·김경은, 「사회과 인권수업에서의 성찰일지쓰기의 효과분석: 학업성취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5권 3호,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13, 81-102쪽.

20) 박선미, 앞의 논문, 2023, 147-163쪽.

1) 자료 수집

Creswell과 Poth²¹⁾에서는 질적 연구의 핵심을 중심 현상이나 주제로 정의하고, 다양한 질적 연구 요소들이 특정한 순서 없이 배열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례 연구는 특정 상황이나 문제, 현상이 ‘왜’ 그리고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연구 방법으로 간주한다.²²⁾ 특히, 성찰일지 작성 경험 사례는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험을 생생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으며, 참여자의 이야기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사례 연구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성찰일지 작성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2주 차부터 14주 차까지 매주 수업 후, 중간고사 기간을 제외하고, 성찰일지를 12번 작성하게 하였다. 참여자들이 경험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종강 후 성적이 확정된 이후에 10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교수자로서 참여자들과 한 학기 동안 상호작용을 하며 친밀감을 형성하였다. 연구자는 사전에 준비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가장 기억에 남는 성찰일지 경험은 무엇인가?’, ‘성찰일지를 작성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성찰일지를 활용한 학습 방법이 기존의 학습 방식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성찰일지 학습 방법을 다른 과목에도 적용할 계획이 있는가?’ 등의 연구자는 미리 준비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질문을 던졌고, 참여자들이 질문지의 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이야기를 최대한 주의 깊게 경청하려고 노력하였다.

21) Creswell, J. W.·Poth, C. N. 공저, 조흥식 외, 『질적 연구 방법론』, 학지사, 2021, 206-250쪽.

22)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문음사, 2006, 191-214쪽.

면담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함께 의미를 형성하고 지식을 창출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이다.²³⁾ 연구자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핵심 단어나 추가로 듣고 싶은 내용에 대해 추가 질문을 하였고, 면담 노트를 작성하여 중요한 키워드와 떠오르는 생각 및 느낌을 기록하였다. 이는 후속 분석 과정에서 보조자료로 활용되었다. 면담 시작 전,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권리, 익명성 보장에 관해 설명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받았다. 면담 과정에서는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과정에서 추가 질문이나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경우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재확인하였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대상은 2024학년도 2학기에 개설된 2년제 대학 ‘공동체’ 수업에 수강한 대학생들이다. D 대학은 2년제 대학이지만, 미래자동차 등 특정 전공 분야에서는 3년제로 운영되고 있다. ‘공동체’는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시민적 역량을 키우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제공하여 공동의 삶과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공감·인성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둔 교양과목이다. 이 수업은 2학점에 해당하는 이론 교과로, 주로 강의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수업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교수자가 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매주 성찰일지 과제를 작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성찰일지는 강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세 가지 키워드를 선정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새롭게 알게 된 내용 및 지식’과 ‘인상 깊었던 수업 내용과 이유’를 서술하게 되어 있다. 성찰일지를 통해 수강생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학습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기회를 가졌다. 수업에 참여한 24명의 수강생 중에서 연구 목적에 부합하게 매주 성실히 성찰일지를 작성한 참여자 10명을

23) Talmy, S. & Richards, K., “Qualitative interviews in applied linguistics: Discursive perspectives”, *Applied Linguistics*, vol. 32, no. 1, 2011, pp.1-128.

선정하여 목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을 실시하였다.²⁴⁾ 구체적으로 이 참여자들은 수업 내용을 단순히 요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느낀 점과 경험을 진솔하게 서술하며 성실하게 성찰일지 과제를 수행하였다. 질적연구는 감각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현실에서 사람의 경험과 상황의 독특성을 중요시하므로 보편적인 반복이 아니라 경험의 다양성을 강조한다.²⁵⁾ 구체적인 참여자의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참여자 정보

참여자	성별	학년	전공
참여자 가	남	1	건축
참여자 나	여	1	보건의료행정
참여자 다	여	1	유아교육
참여자 라	남	1	방송음향기술
참여자 마	남	1	호텔조리
참여자 바	남	2	경영
참여자 사	남	2	전기
참여자 아	남	2	소방안전설비
참여자 자	여	2	언어치료
참여자 차	남	3	미래자동차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 수집과 동시에 자료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성찰일지 작성이 2년제 대학생들에게 어떠한 학습 경험과 교육적 효과를 주었는지를 질적으로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이 매주 작성한 성찰일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연구 동의를 받은 후,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방법은 개

24) Merriam, S. B.,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Inc., 1998.
25) 박선미, 「AI시대 중년의 디지털 시민성 탐색」, 『지식과 교양』 16권,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024b, 13-47쪽.

방 코딩을 통해 문구를 분류하고, 유사한 내용끼리 범주화한 뒤, 구성된 범주를 원자료와 비교하여 주제를 도출하는 체계적인 접근법이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성찰일지를 여러 차례 읽고, 의미 있는 문장과 구문을 엑셀 파일에 정리한 후, 각 문구에 번호를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예를 들어, 한 참여자가 ‘이전에는 단순히 머릿속으로 외우기만 하고, 문제의 정답을 찾는 데 집중했지만, 성찰일지 작성을 통해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라고 기술한 문구는 ‘학습 방식의 변화’라는 하위 범주로 분류되었다. 또한, ‘시간 관리가 어려워 과제가 쌓이는 느낌이 든다’라는 문구는 ‘부담’이라는 또 다른 하위 범주로 묶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유사한 의미 단위들을 반복적으로 검토하고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대범주를 도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성찰일지에서 나타나는 주요 주제를 명확히 하고, 참여자들의 경험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take²⁶⁾의 제안에 따라 심층 면담 자료를 여러 차례 검토하여 주요 의미 단위를 추출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습의 본질, 성찰의 중요성, 도전의 현실, 부담 극복 방안 등으로 분류된 의미 단위들은 범주로 통합되었으며, 각 범주에 대한 심층적인 해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범주 합산 및 직접 해석 방법은 다양한 사례를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연구자는 이를 위해 원자료를 여러 차례 검토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개념들을 확인하였다. 자기 내면 탐구,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변화 등 유사한 의미 단위들을 여러 번 묶는 과정을 통해 하위 범주를 형성하였으며, 이 하위 범주들을 다시 대범주로 통합하여 자료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범주 간의 구분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전체 분석의 스토리라인을 발전시켰다. 최종적으로 정리된

26) Stake, R. E.,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Los Angeles: Sage, 1995.

범주에 적절한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명확한 주제를 형성하였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고, 심층 면담 중 참여자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이익이 없음을 고지하였다. 금전적 보상은 제공되지 않으며, 연구 자료는 향후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면담 전사 자료는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고, 모든 자료는 익명 처리될 것임을 안내하였다.

연구자는 성찰일지를 성실히 작성한 참여자들과 그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참여자들의 성찰일지 작성 효과를 과도하게 증대시킬 우려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판단 정지(bracketing)와 연구 참여자 확인법(member checking)을 실시하였다. 주제별로 정리된 내용과 참여자들의 성찰일지를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연구자의 선입견이나 편견을 점검하였고, 자의적인 판단 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참여자 확인법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전사 자료에서 추출한 내용을 범주화한 결과를 참여자에게 전달하고, 연구자가 참여자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검토받았다.

4. 연구의 결과

본 연구는 교양수업에서 성찰일지 작성이 2년제 대학생들에게 어떠한 학습 경험과 교육적 효과를 주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동체’ 교양수업을 들은 2년제 대학생 10명의 성찰일지 작성 경험을 질적연구로 분석하였다. 이들 참여자의 성찰일지 작성 경험은 ‘학습의 진화’, ‘자기 인식 증진’, ‘자기 탐색 기반 학습 효과’, ‘학습 효율성 증대’, ‘변화를 위한 성장통’ 5가지 주제로 묶여 분석되었다. 즉, 교양수업에서 성찰일지를

작성함으로써 학생들은 학습 능력뿐 만 아니라 자기 인식, 자기 주도성, 문제 해결 능력 등 여러 가지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2년제 대학생의 성찰일지 작성 경험

주제	내용
학습의 진화	학습 방식의 변화와 사고의 확장 학습의 효과와 변화
자기 인식 증진	자기 성찰과 성장의 여정 내 안의 변화: 성찰일지를 통한 발견
자기 탐색 기반 학습 효과	자신이 스스로 학습을 주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습 효과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
학습 효율성 증대	키워드를 활용한 정리와 복습 등 효과적인 학습 방법 습득, 학습 시간 효율적 활용
변화를 위한 성장통	성찰을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

1) 학습의 진화

(1) 학습 방식의 변화와 사고의 확장

예전에 단순히 머릿속으로 외우기만 하고, 문제의 정답을 찾는 데 집중했던 ‘참여자 바’는 이제는 성찰일지 작성을 통해 필기하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공동체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네 개의 바퀴가 함께 돌아가는 ‘자동차와 같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정해진 답을 찾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사유와 고찰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경험을 강조하였다. ‘참여자 아’도 예전에는 시험에 나오는 내용만 외우는 단순 암기식 학습을 했지만, 성찰일지를 쓰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면서 학습 방식이 변화되었고,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학습 효과가 더욱 커졌다. 일곱 가지 색깔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루듯,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다양성이 공동체의 힘이자 아름다움임을 깨닫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수업 내용에 대한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수업에 대한 몰입도를 높였다.

저는 오로지 시험을 잘 보기 위해 시험에 나온다고 하는 것만 듣고 나머지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벼락치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제 생각을 쓰는 것 보다 정해진 답을 쓰는 게 더 쉬워요. 하지만 지속적인 성찰일지를 통해 정해진 답이 아닌 내 생각에 관해 쓰면서 시험을 떠나 수업 자체에 집중하게 되었어요(참여자 아).

‘참여자 나’는 원래 복습을 잘 하지 않았는데, LMS(학습 관리 시스템)를 활용하여 키워드를 선택하고 정리하는 방식으로 복습하게 되었다. ‘참여자 다’는 키워드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복습하는 습관을 들였다. 수업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 마’도 답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 문제를 만들어 쓰거나, 의미 없이 무조건 외우는 방식으로 학습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단순 암기에 의존하며, 깊이 있는 이해나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성찰일지 작성을 통해 스스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사고의 폭이 넓어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 마’는 자신이 생각하는 공동체의 본질이 ‘스포츠’에 있다고 느꼈다. 같은 종목을 좋아하고 같은 팀을 응원하는 선수와 팬들이 한 공간에 모여, 경기장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응원하는 모습을 통해 공동체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함께 하는 기쁨을 나누는 중요한 순간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성찰일지를 활용한 학습 방식을 통해 자신의 사고를 정리하고 표현하는데 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이는 학습의 질을 높이고, 이해도를 심화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 학습의 효과와 변화

‘참여자 아’는 중학교 시절부터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단순히 수업을 듣는 것에 그쳤던 학생이었다. 그러나 이번 수업에서는 성찰일지 작성을 위해 수업이 끝난 후에도 다시 내용을 찾아보는 과정을 통해 진정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수업을 통해 자신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습에 대한 태도가 변화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자 자’ 또한 성찰일지를 작성하면서 어떤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면, 그 결과 해당 개념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거나 추가적인 자료를 찾아보는 등의 노력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전반적인 이해도를 향상하는 데 기여하였다.

‘참여자 다’는 처음에는 수업이 끝난 직후에 학습 내용을 기록했지만, 중간고사 이후에는 학습 태도가 느슨해져서 기록을 미루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반성하고, 교수가 강조하는 내용이나 PPT에서 중요한 부분을 키워드로 작성하겠다는 다짐을 통해 수업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이는 학습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태도를 점검하고, 중요한 정보를 기록하는 습관을 통해 수업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참여자 가’는 성찰일지 작성을 통해 수업 내용을 복습하고, 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학습 태도가 긍정적이고 열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미루고 귀찮아하던 제가 수업이 끝나자마자 성찰일지를 작성하고 맘 편하게 있었어요. 그날 수업에 더욱 참여하는 느낌이 들고 복습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그 키워드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서 학습 태도에 더 긍정적이고 열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생각해요(참여자 가).

‘참여자 차’는 정기적으로 성찰일지를 작성하면서 강의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책, 유튜브 등)를 접할 때도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이는 성찰일지 작성이 정보의 요점을 정리하고 이해하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주며, 이러한 과정이 학습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2) 자기 인식 증진

(1) 자기 성찰과 성장의 여정

처음에는 귀찮아했지만, 성찰일지를 작성함으로써 꾸준히 생각하고 기록하는 습관이 생긴 ‘참여자 마’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던 상태에서 벗어나,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의식적으로 탐구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 마’는 공동체 내에서 정보의 내용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보가 어떻게 생산되고, 어떤 목적으로 유통되며 소비되는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참여자 마’가 더 주체적이고 의식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을 지니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참여자 가’는 학습이나 과제 수행에서 지속적인 노력과 책임감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꾸준함과 성실감, 다른 과목을 하며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 강의를 듣고 다른 강의를 들으며 꾸준함과 성실함을 기를 수 있었어요. 그로 인해 이번 학기에 병결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참여자 가).

‘참여자 다’는 글을 쓰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자기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자신의 인식을 개선하고 고정관념을 바꾸려는 노력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이는 ‘참여자 다’가 더 넓은 시각을 갖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2) 내 안의 변화: 성찰일지를 통한 발견

‘매 수업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라고 말하는 ‘참여자 사’는 자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나 성찰이 부족했던 상태였다. 자기 성찰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감정적으로 힘든 과정이었음을 나타낸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은 때때로 불편하거나 힘들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얻는 통찰이나 성장의 기회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평소 나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던 저는 매 수업 성찰일지 작성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 나를 더 잘 알게 되었고 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 동시에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참여자 사).

문제가 주어졌을 때 깊게 고민한 적이 별로 없어서 ‘생각하고 적는다는 것이 아주 힘들었다’라는 ‘참여자 차’는 수업 내용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 개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 해결 능력과 정보 분석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학습 과정에서의 성장과 발전을 보여준다. ‘참여자 나’도 성찰일지 작성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는 자기 성찰이 개인의 행동과 태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자 차’는 성찰일지 작성을 통해 자신의 성격, 가치관,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성찰은 그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를 고민하게 하였고, 공동체의 자율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더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더불어, 그는 좋은 시민이란 어떤 시민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기 인식은 학습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요소가 공부에 방해가 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성찰일지를 작성하면서 평소 자신의 행실을 반성하게 되었고,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이는 자기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 바’ 역시 성찰일지 작성을 통해 자기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존재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깨달았다. 자신과 주변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삶에 대한 태도나 감정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3) 자기 탐색 기반 학습 효과

(1) 자율적 학습과 자기 탐색을 통한 학습 효과 증진

‘참여자 가’는 스스로 생각하고 의견을 표현할 기회 덕분에 더 자유롭게 창의적인 수업 분위기였다고 여기고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참여자 가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고,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업을 듣고 난 후, ‘참여자 바’는 스스로 선택한 키워드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학습을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학습, 즉 자율적 학습에 접근할 수 있었다. ‘참여자 바’는 개인적인 신념이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과 적절한 근거 없이 각만으로 의견을 믿어버리는 현상인 ‘탈진실’, 그리고 비슷한 성향을 가진 집단에서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며 자신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반향실’에 대해 추가적인 학습을 하였다. 성찰일지 작성은 강제적인 요소가 있었으나, 이러한 강제성이 오히려 자율적 학습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본 수업은 다른 과목에 비해 자신이 생각하기에 참여도가 높았으며, 이러한 수업 방식이 전공과목의 기말시험 성적 향상에도 기여했다고 믿고 있었다.

‘참여자 마’는 학습 과정에서의 정리와 반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디지털 기기가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지만, 동시에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하며, 허위 조작 정보인지 아닌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을 느꼈다. 또한, 혼자서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재미와 흥미를 느끼게 되고, 이러한 경험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몰아서 생각하는 것이 아닌 그날 배운 것들을 정리하고 작성하다 보니 머릿 속에 오래 남는다고 느껴서 공부할 때 도움이 되었어요. 혼자 스스로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는 과정에서 재미와 흥미를 느끼고 학습을 오래 힘내서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참여자 마).

‘참여자 차’는 중요한 단어와 헛갈리는 단어를 체크하고, 키워드를 다시 읽어보며, 더 알고 싶은 내용은 검색 포털을 통해 추가로 찾아보는 과정을 통해 학습의 깊이를 더하였다. 예를 들어, 인간을 기계나 컴퓨터처럼 보는 개념인 ‘메카노모피즘’과 인간에게 쉬운 것은 컴퓨터로 처리하기 어렵고 반대로 인간에게 어려운 것은 컴퓨터로 처리하기 쉽다는 ‘모라벡의 역설’을 검색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학습 태도를 나타내며, 참여자가 자신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고 정리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학습 태도를 나타내며, 참여자가 자신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자 나’ 또한 복습하지 않으면 단순히 리포트나 과제를 베껴 쓰는 수준에 그치게 되어, 진정한 학습이나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참여자 다’ 역시 키워드 작성을 할 때 단순히 키워드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키워드가 어떤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어떤 의미와 맥락을 가졌는지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예를 들어, 엘리트 군사 양성을 목표로 했던 스파르타의 문화를 살펴보면, 공동체의 요소 중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을 함께 고려하면서 강의를 듣는다면, 키워드를 더 잘 기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의가 끝난 후에도 그 내용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2) 성찰일지 작성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 전략의 효과

‘참여자 자’는 정기적으로 성찰일지 작성을 통해 학습을 정리하는 습관

이 형성되었다. 매주 작성함으로써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수업이 끝난 직후에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기억이 생생할 때 핵심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식은 시간이 지나도 작성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다른 과목에서도 이 방법을 적용해 보았다는 것은 학습 전략의 유연성을 보여준다. 시험 대비 시간을 줄이고, 정리한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공부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여기며 이 방법이 학습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매주 작성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수업이 끝난 직후에 작성하니 나만의 방식이 생겨 시간이 지나고 봐도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가서 다른 과목에서도 적극 적용해 봤어요. 시험 대비 시간이 줄어들고 정리했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공부할 수 있어 편리했어요(참여자 라).

‘참여자 라’는 해당 과목을 수강하면서 새로운 학습 방법을 처음 시도해 보았고, 그 방법이 자신에게 잘 맞는다고 느꼈다. 또한, ‘2학년 때 공부할 때도 이 방법으로 복습할 것 같다’라며, 새로운 학습 방법을 통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현하였다.

이 과목을 들으면서 태어나서 처음 해 봤는데 이런 방식이 후에도 더 기억에 잘 남고, 저에게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2학년 때 공부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복습할 것 같아요(참여자 라).

‘참여자 나’는 병리학, 의료정보관리학, 의료정보기술과 같은 전공과목들에 적용하여 공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이 과목들은 복잡한 개념과 많은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효과적인 학습 전략이 필요하며, 성찰일지 작성에서 배운 것들이 이러한 과목들에서 특히 유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참여자 나’가 자신의 학습 스타일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학습 성과를 얻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4) 학습 효율성 증대

‘원래는 복습을 자주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LMS에 들어가지도 않는다’라고 말하는 ‘참여자 가’는 부분은 과거에 복습이나 학습 관리 시스템(LMS)을 활용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참여자 가’는 평소와 달리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LMS에 접속한 경험을 언급하면서 LMS에 접속하면서 강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되새기고 복습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이는 학습이 더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며, 스스로 긍정적인 학습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 아’는 일상에서 짧은 시간의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었다. 이는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작은 시간도 잘 활용하면 생산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하고 싶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이는 자기 개선과 목표 달성을 위한 긍정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투리 시간을 쪼개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지하철을 타고 하교를 하는데 그 시간에 웹툰이나 유튜브 시청이 아닌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음이 좋았고, 앞으로도 시간을 쪼개서 잘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참여자 아).

‘참여자 마’는 ‘고민되는 일, 힘들었던 일을 쓰는 시간에 평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내 생각을 쓰니 마음이 가벼워졌다’라며 자신의 감정이나 고민을 글로 표현함으로써 심리적인 해소를 경험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내면의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털어놓는 과정이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음을 나타낸다.

5) 변화를 위한 성장통

‘공부보다는 과제물이라 느껴져서 압박감이 들었다’라고 말하는 ‘참여자 마’는 성찰일지가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졌다. 미루거나

잊어버렸다가 마지막 순간에 급하게 처리해야 했던 경험이 있었다. 성찰일지가 시간제한이 있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토로하였다. ‘귀찮았지만 결국 돌도 돌아 나에게게는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참여자 나’는 성찰일지 작성이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귀찮았지만, 그 경험이 쌓이고 나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고, 그로 인해 뿌듯한 마음이 더 커졌다고 밝혔다.

‘참여자 바’는 평소에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주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느꼈지만, 그 경험이 자기 생각이나 관점을 변화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여겼다. 어릴 때는 막연히 돈을 잘 벌고 남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 2년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지만, 이곳에서 자신의 노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참여자 바’는 구체적으로 전공 관련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다짐하였다.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은 자신이 익숙하지 않은 영역에 도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이러한 경험이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관점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반영한다.

‘참여자 사’는 평소에는 타인의 의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는 편인데, 생각을 서술해야 하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스트레스를 느꼈다며 슬그머니 이야기를 꺼냈다. 이는 자기표현의 어려움과 내면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 나’는 수업 중에 시간마다 꾸준히 집중하고 참여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다. 수업 시간에 잠시 졸거나 집중하지 못하면 중요한 내용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높은 집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힘들었다고 토로하였다. 집중력이 부족한 날에는 학습이나 작업이 더 힘들어지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

모든 강의에서 집중할 수는 없었어요. 집중력이 좋지 못한 날도 있었는데 그럴 때 키워드 작성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료를 찾아보고 키워드를 골라 내는 게 오히려 힘이 들었어요(참여자 나).

‘꾸준함이 가장 힘들었다’라고 말하는 ‘참여자 다’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야기하였다. 이는 학습이나 과제 수행에서의 지속적인 동기 부여의 어려움을 나타낸다. 또한 ‘수업이 진행되며 저의 답변이 점점 성의가 부족해지는 것을 느꼈다’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노력이나 참여도가 감소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었다. 이는 학습 과정에서의 피로감이나 동기 저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습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무의식적인 생각이나 편견을 인식하게 되어서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며,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교양수업에서 성찰일지 작성이 2년제 대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습 경험과 교육적 효과를 질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2년제 대학생들은 성찰일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성장통을 겪었으나, 동시에 학습의 진화, 자기 인식 증진, 자기 탐색 기반 학습 효과, 학습 효율성 증대 등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학습의 진화이다. 성찰일지 작성은 단순 암기 중심의 학습 방식에서 벗어나,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년제 대학생들은 성찰일지 작성을 통해 수업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 공동체의 다양성과 긍정적인 영향을 인식하는 등 자신의 사고를 확장하는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공

동체가 다양한 사람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통해 더욱 풍부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였으며, 그들은 공동체의 힘과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서로의 생각과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게 되었다. 더불어, 학습 내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보다 깊이 있는 학습을 유도하였다. 둘째, 자기 인식의 증진이다. 성찰일지 작성을 통해 2년제 대학생들은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의식적으로 탐구하고,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성찰일지를 통해 자신의 성격과 가치관을 파악하고, 좋은 시민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찰은 그들이 공동체 내에서 더 주체적이고 의식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었다. 셋째, 자기 탐색 기반의 학습 효과이다. 성찰일지 작성은 2년제 대학생들이 자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전략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였다. 디지털 정보의 신뢰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를 기르게 되었으며, 학습과정에서 재미와 흥미를 느끼게 하여 지속적인 학습의 원동력을 제공하였다. 넷째, 학습 효율성의 증대이다. 성찰일지는 2년제 대학생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학습 내용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변화를 위한 성장통이다. 성찰일지 작성은 2년제 대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습 방식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할 기회를 얻었다.

결론적으로, 성찰일지 작성은 단순한 학습 도구를 넘어 D 대학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동체의 의미와 다양성을 인식하게 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참여자들이 앞으로의 학습과 삶에서 더욱 주체적이고 의식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성찰일지 작성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성찰일지의 작성 방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지도와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사고력을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성찰일지 작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찰일지 작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학생들의 노력을 인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 결과는 교양수업에서의 성찰일지 작성이 학습 효과를 높이고 학생들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학습 방법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성찰일지 작성의 장기적 효과를 조사하여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지 평가하고, 다양한 학습 환경(온라인 수업, 대면 수업, 혼합형 수업 등)에서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의 성격, 학습 스타일, 전공 분야에 따른 개인차를 분석하여 맞춤형 성찰일지 작성 방법을 개발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 일반화의 목적은 없으나 10명의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질적 분석에만 의존하였기 때문에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더 많은 참여자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특정 집단에 국한될 우려가 있다. 둘째, 질적 분석만으로는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양적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데이터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교양수업에서 성찰일지 작성의 효과를 더욱 확장하고, 학생들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문헌

- 민혜리, 「수업에 대한 교수의 자기평가와 학생평가의 비교를 통한 공과대학 수업개선 방안 연구」, 『공학교육연구』, 19권 3호, 한국공학교육학회, 2016, 35-43쪽.
- 강인에·정은실, 「‘성찰저널(Reflective Journal)’이 지닌 교육적 의미에 대한 탐구: 대학에서의 수업사례」, 『교육방법연구』 21권 2호, 한국교육방법학회, 2009, 93-117쪽.
-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문음사, 2006, 191-214쪽.
- 김하영·김경은, 「사회과 인권수업에서의 성찰일지쓰기의 효과 분석: 학업성취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5권 3호,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13, 81-102쪽.
- 노희정, 「듀이의 반성적 사고와 문제해결형 도덕수업」, 『윤리교육연구』, 39권, 한국윤리교육학회, 2016, 179-197쪽.
- 박선미, 「2년제 대학생의 캡스톤 디자인 수업경험 탐색」,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24권 6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4a, 211-224쪽.
- , 「군 복무 후 복학한 2년제 대학생의 학업적응에 관한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24권 1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23, 147-163쪽.
- , 「AI시대 중년의 디지털 시민성 탐색」, 『지식과 교양』 16권,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024b, 13-47쪽.
- 배영주, 「전문가 교육에서 ‘저널쓰기’ 활용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Andragogy Today: IJACE』 15권 2호, 한국성인교육학회, 2012, 151-174쪽.
- 서정현·김영식, 「성찰일지를 활용한 PBL 기반 초등학교 프로그래밍 교육 교수·학습 전략 개발 및 적용」, 『정보교육학회논문지』 20권 5호, 한국정보교육학회, 2016, 465-474쪽.
- 석류·임신자, 「성찰적 훈련일지를 통한 반성적 사고수준의 변화 분석」,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0권 3호, 한국여성체육학회, 2016, 331-352쪽.

- 송수지, 「성찰일지 적용 학습이 예비교사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및 학업성과에 미치는 효과」, 『기독교교육정보』 35권, 한국기독교 교육정보학회, 2012, 199-227쪽.
- 안경주, 「병태생리학 수업에서의 개념도 적용 경험에 관한 질적 내용분석」,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17권 4호, 한국기초간호학회, 2015, 356-362쪽.
- 오종욱, 「하버드 대학 교양교육 개혁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유병민·전종철·박혜진, 「대학 수업에서 개인적 성찰과 협력적 성찰이 학습동기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9권 4호,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2013, 837-859쪽.
- 이선주·김중경·김원종,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비판적 사고성향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권 14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 학회, 2020, 1251-1265쪽.
- 이숙정·신정혜, 「성찰적 글쓰기 활동이 여대생의 Self-authorship 발달에 미치는 영향」, 『교양교육연구』 8권 6호, 한국교양교육 학회, 2014, 337-374쪽.
- 전용숙, 「교양교육 사례 연구를 통한 인성교육 수업 모델 제안: D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6권 4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2, 191-231쪽.
- 조규영·서석진, 특수교육학개론 수업을 통한 예비유아교사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변화」, 『특수교육논총』 34권 2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2018, 73-100쪽.
- 주소영·정연재, 「대학 신입생의 대학몰입과 학습참여가 교양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25권 5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9, 307-323쪽.
-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전문대학 교양교육 권고안』, 2024.
- Creswell, J. W., Poth, C. N. 공저, 조흥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 공역, 『질적 연구 방법론』, 학지사, 2021, 206-250쪽.
- Merriam, S. B.,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Inc., 1998.

- Stake, R. E.,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Los Angeles: Sage, 1995.
- Talmy, S. & Richards, K., “Qualitative interviews in applied linguistics: Discursive perspectives”, *Applied Linguistics*, vol. 32, no. 1, 2011, pp.1-128.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교양수업에서 성찰일지 작성을 통해 2년제 대학생들이 경험한 학습 경험과 교육적 효과를 질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2년제 대학교의 공동체 수업에 참여한 대학생 10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성찰일지 작성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연구자는 2주 차부터 14주 차까지 매주 수업 후, 중간고사 기간을 제외하고 총 12회에 걸쳐 성찰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이 경험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종강 후 성적이 확정된 이후에 10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성찰일지 작성은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배양하여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 사고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둘째, 학생들은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탐구하며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셋째, 성찰일지는 자율적인 학습을 지원하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넷째, 학습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였다. 다섯째, 새로운 학습 방식에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학생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결론적으로, 성찰일지는 학습 능력뿐 아니라 자기 인식, 자기 주도성 등 다양한 역량을 향상하는 효과적인 학습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성찰일지 작성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도, 다양한 주제 제공, 충분한 시간 확보,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성찰일지 작성이 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성찰일지 작성의 효과를 심층적으로 밝혀내고, 다양한 교육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교양수업, 성찰일지, 2년제 대학생, 사례연구

■ Abstract

Two-year College Students' Experience in Writing a Reflection Journal : with a focus on liberal arts classes at D University

Park, SunMi /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qualitatively explore the learning experience and educational effects experienced by two-year college students through the preparation of reflection journals in liberal arts classes. To this end, 10 university students who were enrolled in community classes at two-year universit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ere selected as research participants. In order to experience the students' process of writing a reflection diary, the researcher requested a total of 12 reflection journals classes from Week 2 to Week 14 excluding the midterm exam period. To confirm what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after the results were confirmed following the completion of the lecture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0 participants and data were collect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reparation of reflection journals contributed to cultivating students' ability to organize and express their thoughts, developing deep understanding, and expanding their thoughts. Second, students explored their thoughts and values and understood themselves better through self-reflection. Third, reflection journals helped to support autonomous learning and develop self-directed learning strategies. Fourth, it increased learning efficiency and provided a sense of psychological stability. Fifth, difficulties in the process of adapting to new learning methods provided students with opportunities for growth. In conclusion, we confirmed that the reflection diary is an effective learning tool that improves not only learning ability but also various other abilities such as self-awareness and self-directedness.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writing a reflection diary, systematic guidance, and various topics are provided, sufficient time is secured, and a positive atmosphere is created. This study present the potential of the use of reflection

journal writing used in the educational field, and more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in the future to reveal the effectiveness of reflection journal writing in depth and find ways to apply it to various educational environments.

Keyword • Liberal arts classes, reflection journal, two-year college student, case study

■ 논문투고일:2025.02.14. ■ 심사완료일:2025.03.17. ■ 게재확정일:2025.03.19. ■

생성형 AI(ChatGPT)를 활용한 한·베 통역 수업 사례 연구

부이 티 홍녕 · 채 윤 미*

목 차

1. 서론
2. 문장구역 수업의 현황과 문제점
3. 한·베 문장구역 수업 설계와 운영 사례
4. 결론

1. 서론

1992년 한국과 베트남의 수교 이후 베트남에서의 한국어교육은 내연적·외연적으로 크게 확장되었으며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베트남 학습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 현지 대학교에서는 한국학, 한국어학, 한국어 통번역 등의 학문이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 학과와 과목이 개설된다는 소식을 자주 들을 수 있다.¹⁾ 관련 학과의 개설이 증가한 만큼

* 부이 티 홍녕(제1저자) 한양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생
채윤미(교신저자)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1) 1993년 하노이국립대학교에서 한국어학과가 최초 개설된 이래 2021년 12월 기준 베트남 전역에는 한국 및 한국어와 관련된 학과를 운영하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이 총 49곳에 이르며 해마다 대학 모집 정원은 약 2만 명 규모로 집계되고 있다(Cao Thi Hai Bac, 2022). 또한 현재 한국어 교강사는 약 500여 명에 달하며

졸업생 역시 크게 늘어났으나 여전히 업계에서는 전공자의 부족을 호소한다. 특히 국제회의와 같은 통역 전문가가 필요한 현장에서는 인력 문제에 대한 지원과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에서는 서둘러 통역 과목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은 존재한다. 통역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고도의 언어 능력과 문화 차이를 비롯한 배경지식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단기간에 학습할 수 없으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통적인 교수·학습 방식과 훈련의 반복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효율성을 높이고 학습자의 훈련 부담을 완화하는 통역 수업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생성형 AI인 ChatGPT와 플립드 러닝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는 학습 보조 지원 도구인 ChatGPT를 사용하여 출발 텍스트의 배경지식 파악, 전문 용어의 이해, 그리고 핵심 표현 정리가 가능하며 이는 학습자 역량에 따라 활용할 수 있으므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플립드 러닝 방식으로 수업이 운영된다면 개별화된 수업이 가능해져 학습자는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춰 충분히 연습한 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이미선, 2024:70)²⁾ 이는 학습자가 수동적인 역할에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로 변화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베 통역 수업에서 생성형 AI인 ChatGPT를 학습 도구로 삼아 온라인 플립드 러닝을 기반으로 수업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역 과목의 하나인 문장구역 수업에서 실제로 운영하여 그 효과성을 살펴볼 것이다.

이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 2) 이미선, 「베트남어통역 수업 모형 연구: 전통적 학습과 플립러닝을 중심으로」, 『베트남연구』 22권 2호, 한국베트남학회, 2024, 63-88쪽.

2. 문장구역 수업의 현황과 문제점

문장구역이란 문어 텍스트를 읽고 구어 텍스트로 재발화하는, 즉 출발어 텍스트(Source Text)를 읽으면서 도착어 텍스트(Target Text)로 말하는 통역 기법(조상은, 2011:95)³⁾ 4)으로 국제회의와 같은 원문이 제공된 동시통역 상황에서 자주 활용되며 대다수의 통역 교육기관에서는 문장구역 훈련을 정규 또는 필수 과목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⁵⁾

문장구역은 통역사에게 ‘텍스트를 읽고 분석하는 능력(reading)’과 이를 정확히 ‘발화하는 능력(production)’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동시통역 학습자뿐만 아니라 통역 기초 학습자들에게 지식 영역 확장, 언어 유형 및 고정 상용구 학습, 문장 분절 능력 함양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양청수, 2007:184-185)⁶⁾ 문장구역 수행 중에 통역사는 텍스트를 눈으로 읽고 이해하는 동시에 충실하고 자연스러운 통역을 하기 위해 언어 간접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⁷⁾ 이를 위해 통역사는 사전에 출발 텍스트에 관한 배경지식을 파악하며 관련 용어와 표현을 숙지하는 훈련을 한다.⁸⁾ 이는 실제 문장구역

3) 조상은, 「ST(Sight Translation)훈련을 중심으로 한 학부 통역교육 제언」, 『통역과 번역』 13권 1호, 한국통역번역학회, 2011, 89-115쪽.

4) 원천언어 발화를 청취하고 목표 언어로 발화하여 재생하는 구술 통역과 달리 문장구역은 원천언어 입력 과정에서 문어 텍스트를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다(허지운, 2024: 6)

5) 양청수(2007:183)에 따르면 문장구역은 현재 국내 통번역 교육대학원에서도 입학 후 가장 먼저 시작하는 과목이며 유일하게 4학기 내내 수강하는 과목이기도 하다.

6) 양청수, 『통역교육연구: 이론과 실천』, 한국문화사, 2007.

7) Robin Setton&Andrew Daurant 저, 광중철·박지현 역 『회의통역 완벽가이드: 인간통역』, HU:INE, 2018, 271쪽.

8) 이와 관련해서는 통역 능력에 관해 학습자의 인식을 연구한 이주연(2021)을 참고할 수 있다. 한영통번역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언어 지식, 문화 지식, 배경지식, 통역 지식의 중요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1학년 학습자가 2학년이 된 후 다른 하위 능력들에 대한 중요도 인식 점수는 하락했으나 배경지식의 중요도 점수는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공적인 통역 수행을 위해서는 주제와 배경지식이 충분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학습자 역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목을 운용할 때 한 편의 출발 텍스트를 완성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이로 인해 교수자는 학습자 개인 능력의 차이 등을 고려할 수 없는 상태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는 강의식 위주의 수업 방식이 지적되는데 실제 베트남 대학교의 통역 교육 현장을 살펴보면 문장구역 과목을 주로 전통적인 교수·학습 방식인 PPP 모형⁹⁾을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역 교육에서는 문장 구역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수업에서도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출발 텍스트에 대한 배경지식 파악, 요약, 핵심 표현 숙지가 매우 중요한 단계로 간주된다. 그러나 강의식 혹은 PPP 수업 방식은 이러한 단계를 간과하여 학습자가 충분한 준비 없이 수업에 참여하고 수동적으로 학습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학습 효과에 제한이 있다. 또한 최정빈(2018)¹⁰⁾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지 능력 측면에서 PPP모형은 플립드 러닝에 비해 학습 효과를 향상시키는 데 여러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이 밝혀진 바, 통역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안과 최신 학습 보조 도구를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맥을 같이 하여 최근 AI 기술이나 플립드 러닝을 활용한 수업 방안에 대해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¹¹⁾ 이 중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¹²⁾은 전통적인 수업 방식과 달리 학습자가 수업 전에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한다. 그리고

9) PPP모형은 ‘제시(presentation)’→‘연습(practice)’→‘표현(production)’의 순서로 수업 활동이 구성된다. 여기에서 ‘제시’는 일반적으로 지식을 학습하는 단계를 가리키며 교수자의 강의가 주를 이룬다. ‘연습’과 ‘표현’은 배운 내용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실습해보는 단계이다.

10) 최정빈, 『(배움을 바로잡다) 플립드 러닝: 교수설계와 수업전략』, 성안당, 2018.

11) 대표적으로 이아형(2023), 이미선(2024), 장지영(2024), 진실희(2024) 등을 꼽을 수 있다.

12) 플립드 러닝은 블렌드 러닝의 한 형태로, 교사가 수업에서 가르쳐야 할 개념을 사전에 동영상으로 제작해 학습자들에게 제공하고, 학습자들이 이를 미리 학습한 후 본 수업 시간에는 해당 내용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용해 보는 교수학습 기법이다(이미선, 2024:70)

교실에서는 교수자의 지도와 동료 학습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문제 해결 학습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수·학습 방법(최정빈, 2018:26)으로 능동적 학습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한편, ChatGPT를 포함한 AI 언어 모델이 교육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2020년대 초반부터이며, 이후 AI의 자연어 처리 능력이 크게 향상되면서 교육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성을 크게 주목받아 왔다. 특히 2023년 초에 ChatGPT-4와 같은 고도화 모델이 발표되면서 AI는 교육 콘텐츠 개발, 시험 준비, 학습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영역에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플립드 러닝, 개인 맞춤형 학습 경로 설계, 토론과 비판적 사고 훈련 지원 등 다양한 학습 방법에 도입되고 있으며 2024년부터 일부 학교에서는 AI 기반 교육 도구를 정규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통번역 교육 분야 역시 수업에서 ChatGPT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현장에서 교사들은 ChatGPT를 활용하여 통역 학습 자료를 생성하거나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보조하는 데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의 변화를 꾀하는 중이다. 특히 수업 전 단계에서 플립드 러닝과 ChatGPT를 접목하여 활용하는 경우, 학습자에게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며 학습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어 학습에 유효하다는 결과가 다수의 연구(한송이, 2023¹³⁾; 강채희, 2023¹⁴⁾; 이미선, 2024 등)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베 문장구역 수업에서 ChatGPT와 플립드 러닝을 활용하는 것은 학습자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및 다양한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실제로 적용해 보고자 한다. 또한

13) 한송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미래교육』, 교육과학사, 2023.

14) 강채희, 「독일 문학 수업에서의 챗지피티 ChatGPT 활용 가능성: 챗지피티와의 상호작용, AI 리터러시, 호기심을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103호, 한국독일어문학회, 2023, 45-80쪽.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유효성을 살펴보고 새로운 학습 도구와 방식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관찰할 것이다.

3. 한·베 문장구역 수업 설계와 운영 사례

1) 수업 설계 및 출발 텍스트 선정

본 연구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ChatGPT와 플립드 러닝을 활용하여 한·베 문장구역 수업을 설계하고 실제에 적용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선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표 1]과 같이 수업 단계를 구성하였다.

[표 1] 한·베 문장구역 수업의 구성

단계	세부 내용	교수-학습 활동	
		교수자	학습자
수업 전: 탐색	학습 내용 선정 및 동영상 제작	- 연설문 선정 - 수업 동영상 제작 (연설문 정보, 통역 이론 설명, 배경지식 일부 제공, ChatGPT 활용 방법을 비롯한 과제 수행 방법 안내)	-
	학습 목표 제시 및 수업 안내	연설문 파일 및 동영상 파일 전송	동영상 시청 및 이론 학습, ChatGPT 활용 방법 숙지
	과제 수행	-	ChatGPT를 활용하여 과제 수행 (1) 텍스트에 관한 배경지식 조사 및 이해 (2) 텍스트 요약 후 베트남어로 번역 후 수정 (3) 핵심 표현 추출 후 베트남어로 번역, 수정 후 숙지
	과제 제출	과제 제출 확인	내용 정리하여 Google Docs로 제출
본 수업: 통역		- 제출한 과제에 대해 피드백 제시 - 배경지식, 내용, 핵심 표현 숙지 확인, 학습자 질문에 대한 토론 진행	퀴즈 수행 및 텍스트 요약 질의응답 및 토론
	문장 구역 수행	동료 피드백 후 교수 피드백	1인 2문장 문장구역 통역

수업 후: 확인	문장 구역 녹음	문장구역 녹음 규칙 고지 후 무작위 8문장 제시	녹음 수행 후 파일 제출
	수업 마무리	질문 여부 확인 및 과제 부여	-
	결과물 평가 및 심화 학습	- 녹음 자료 확인 및 오류에 대해 피드백 - 최종 과제 부여	개별 피드백 확인 후 전체 텍스트 문장 구역: 녹음하여 Google Drive로 제출

플립드 러닝 모형을 기반으로 통역 수업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단계는 ‘수업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사전에 제작한 수업 동영상상을 교사가 전송하면 학습자는 이를 시청한 후 선수 과제를 수행한다. 이 과제는 전체 수업 목표의 핵심 중 하나이며 이후 본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통역 수행 결과는 전적으로 이 선수 과제의 수행에 따라 완성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수업 전 단계의 과제는 ‘출발 텍스트에 대한 배경지식 검색 → 출발 텍스트 요약 후 베트남어로 번역 및 수정 → 핵심 표현 추출 후 베트남어로 번역 및 숙지’와 같이 설계하되 모든 단계에서 ChatGPT를 활용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과제 수행을 통해 학습자는 단순 정보 수용을 넘어 분석적 사고와 비판적 검토를 반복하며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 통역을 수행할 때는 제한된 시간 안에 다량의 자료를 검토하며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을 신속히 습득하고 통역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용어와 같은 핵심 표현을 숙지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습자가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과제 내용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ChatGPT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들을 위해 과제 수행에 필요한 프롬프트 설정 방법을 예를 들어 안내하고자 하였다.

본 수업 단계에서는 앞서 제출한 학습자의 과제에 대해 피드백을 제시한다. 그리고 교수자는 학습자가 배경지식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핵심 표

현을 숙지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수업 전 단계에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함께 다룰 토론 주제가 있다면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의견 교환과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문장 단위로 나눠진 텍스트를 통역하도록 하는데 이때, 동료와 교수자의 피드백을 통해 앞서 숙지한 표현의 정확성 여부 등을 확인한다. 그리고 통역 수행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자료의 일부를 녹음하고 제출하도록 한다. 녹음 파일에서 발견한 오류에 대해서는 수업 후에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¹⁵⁾ 그리고 전체 텍스트를 문장구역하여 녹음 파일을 제출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수업 설계와 함께 수업 자료로 사용할 출발 텍스트를 선정하였는데 국내 통번역대학원 수업에서 널리 활용되는 연설문 중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의 연설문 3편을 선별하였다.¹⁶⁾

[표 2] 출발 텍스트 정보¹⁷⁾

수업	연설문 제목	링크	보도날짜	총글자수
1차	한국-아세안 35년...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새로운 미래 역사 함께 써나갈 것	https://url.kr/i9gwme	2024.10.10	810
2차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더욱 공고히 발전해 나갈 것	https://url.kr/ehnl38	2023.06.23	1,501
3차	2025년 APEC 정상회의, '천년 고도' 경주에서 세계 경제 도약의 이정표 되길 기대	https://url.kr/kfcmbi	2024.11.15	2,561

덧붙이자면, 출발 텍스트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플립드 러닝과 ChatGPT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들이었다. 그래서 첫수업인 1회차에 사용될 연설문의 경우 비교적 익숙한 내용과 표현으

15) 수업 후 과제 평가에서 발견된 오류는 다음 수업의 사전 학습 단계에서 제공되는 동영상상을 통해 학습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채 공개 피드백 형태로 제공하였다.

16) 최문선(2013)에서는 국내 통번역대학원 소속 교강사이자 현직 통역사 13명을 대상으로 통역 교육용 출발 텍스트로 주로 사용하는 텍스트 유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설문, 논평 및 사설, 해설문, 전문가 발언 음성/동영상, 스트레이트 기사의 순서로 나타났다.

17) '대통령의 말과 글(<https://www.president.go.kr/>)'에서 선별하였다.

로 이루어진 텍스트를 골랐으며 3회차로 갈수록 점자 분량을 늘리고 난이도가 높은 표현과 전문 용어가 다수 포함된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2) 수업의 실제

본 연구는 2024년 11월 16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 3회에 걸쳐 통역 수업을 진행하였다. 3회차 모두 ‘수업 전-본 수업-수업 후’로 구성되었으며, 각 수업에서 교수자¹⁸⁾와 학습자가 만나는 ‘본 수업’은 1주일에 한 번, 2시간씩 ZOOM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었다.¹⁹⁾

학습자는 총 6명으로 현재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A대학교 한국어학과에 재학 중인 베트남 국적의 4학년 학생들이다. 학습자들의 한국어 숙달도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고급에 해당되며 학부에서 한베·베한 순차통역을 비롯한 다수의 통역 수업을 수강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 세 번에 걸쳐 진행한 수업 중에서 마지막 3회차 수업의 결과를 대표 사례로 기술하고자 한다. 해당 수업은 2024년 12월 7일에 진행되었으며 학습 자료로 쓰인 출발 텍스트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천년 고도 경주에서 세계 경제 도약의 이정표 되길 기대’라는 연설문이다.

(1) 수업 전

먼저 교수자는 선수 학습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미리 20분 분량의 동영상상을 제작하였다. 동영상상을 통해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출발 텍스트인 연설문을 통역하는 데 있어 주요 이론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해당 연설문의 배경지식을 다음과 같이 제공하였다.

- APEC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회원국 간의 경제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1989년에 설립된 경제 협의체이다.

18) 본 연구자가 직접 교수하였다.

19) 수업을 실행하기 전 학습자들에게 연구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 경제 협력, 무역, 투자 및 지역 내 다양한 경제 이슈를 논의하는 연례 회의이다.

교사는 학습자에게 해당 동영상상을 제공하고 본 수업 시간 전까지 시청한 후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학습 도구로서의 ChatGPT 활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동기를 부여하였다.

- 이번 연설문은 누가 어디에서 발표하는가?
- 연설문은 무엇에 대해 언급하는가?
- CEO APEC, DEPA, FTA 등과 같은 약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기업인 여행 카드>, <공식, 글로벌 경제로의 전환 로드맵>, <청정 및 저탄소 수소 정책 지침>, <IPEF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또한 ChatGPT 활용을 어려워하는 학습자가 적절한 프롬프트를 생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예시를 보여주었다.

[표 3] 학습자에게 제공한 프롬프트 설정의 예시

과제	프롬프트
공동 설정 내용 - 역할 입력 - 요청 상황 서술	“나는 한국어-베트남어 통역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야. 내일 문장구역 수업이 있어. 내일 학습할 자료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천년 고도 경주에서 세계 경제 도약의 이정표 되길 기대’라는 제목의 대통령 연설문이야.”
과제 1) 출발 텍스트에 관한 배경 지식 검색	“APEC에 관한 배경지식을 알려줘.”
과제 2) 출발 텍스트 요약 후 베트남어로 번역	- 연설문 텍스트 파일을 ChatGPT에 업로드하고 나서 프롬프트를 입력한다. “이 텍스트 파일을 요약해줘.” - 요약 결과가 나온 후에 다음 프롬프트를 입력한다. “요약문을 베트남어로 번역해줘.”
과제 3) 출발 텍스트의 핵심 표현 검색 후 베트남어로 번역	“연설문에서 핵심 표현을 찾아줘.” “연설문에서 약어나 줄임말을 찾아 설명해줘.” “핵심 표현과 약어를 베트남어로 번역해줘.”

학습자는 [표 3]과 같은 프롬프트를 참고하여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Google Docs를 통해 결과물을 제출하였다. 아래 [그림 1], [그림 2], [그림 3]은 학습자들이 제출한 과제 중 선별한 것이다.

프롬프트	"APEC에 관한 배경지식을 알려줘"
결과	<i>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Forum</i> -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은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 1989년에 설립된 지역 경제 협력체. - APEC의 주요 목표는 무역과 투자 자유화, 경제 기술 협력, 역내 경제 통합 등을 통해 회원국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를 강화하고 공동 번영을 추구. 1. APEC의 설립 - 설립 연도: 1989년 - 설립 계기: 세계화가 본격화된 시기에 역내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자 / 호주 캔버라에서 12개국이 참여한 회의에서 출범. <i>12 quốc gia tham gia</i> ✓ - 회원국: 현재 21개 경제체로 구성되어 있음. <i>21 thành viên</i> ✓ - 회원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 2. APEC의 회원국 - 21개 경제체에는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 호주, 캐나다, 러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주요 국가들이 포함. 3. 주요 목표 <i>theo các thuật ngữ</i> ①- 무역과 투자 자유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줄이고 역내 자유무역을 촉진. ②- 경제 기술 협력: 회원국 간 기술 공유와 역량 강화. <i>chia sẻ công nghệ</i> ③- 역내 경제 통합: 경제 정책의 조화와 공동 성장을 도모. <i>hợp tác kinh tế khu vực</i> ④- 지속 가능한 성장: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추구하며,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발전을 지향. 4. 운영 방식 <i>hợp tác mang tính ngang bằng / là thành viên</i> - APEC은 구속력 있는 협정이 아닌 자발적 합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 - 연례 정상회의를 통해 주요 의제를 논의하며, 각국의 정상, 경제 장관, 실무 그룹이 참여. <i>Hội nghị thường niên</i> <i>thảo luận nội bộ</i> 5. 한국과 APEC - 가입 연도: 1989년 APEC 출범 시 창립 멤버로 참여. - 역할: 한국은 지속 가능성, 디지털 경제, 중소기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 <i>Đầu tư chủ chốt</i> - 성과: APEC을 통해 무역 장벽 완화, 기술 협력 등을 강화하며 역내 경제적 위상 제고.

[그림 1] 학습자A가 제출한 (과제 1)의 결과물²⁰⁾

[그림 1]은 학습자가 제출한 (과제 1)의 결과물이다. 학습자A는 ChatGPT를 활용하여 “APEC에 관한 배경지식을 알려줘”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하였고 그에 대한 결과를 요약 및 정리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주요 내용과 핵심적인 정보를 잘 정리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수업 방식에서와 같이 포털 사이트 등에서 배경지식을 검색하고 필요한 내용을 선별·정

20) 학습자가 제출한 과제의 일부를 캡처하여 붙여넣은 것이다.

리하던 것과 비교한다면 요약의 수준이나 시간적 효율성 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ChatGPT가 제공한 데이터의 신빙성을 반드시 검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학습자들은 동료와 함께 관련 앱을 활용하여 교차 확인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확인 결과 학습자들이 제출한 과제에서 허위 정보나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BÀI 02: 요약과 번역

요약: 2024년 APEC CEO 서밋 기조연설

1. 감사와 축하
 - 페르난도 자발라 의장과 차기 의장 최태원 회장에게 감사와 축하 인사를 전함.
2. APEC의 성장과 기업인의 역할
 - APEC은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로 성장했으며 그 중심에는 기업인들의 열정과 혁신이 있었음.
 - 대표 성과로 '기업인 여행 카드'와 AI 규범 제안 등을 언급.
3. 2024년 의장국 배후의 성과
 - 포용적 경제 전환 로드맵: 중소기업, 여성, 취약계층의 경제 참여 확대.
 - FTAAP 작업계획 합의: 역내 경제 통합 진전.
 - 기후위기 대응: 청경수소 정책지침 채택으로 녹색경제 촉진.
4. 2025년 APEC 의장국 한국의 비전
 - 주제: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 중점 과제: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
 - 연결: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통상, 미래세대 연결성 강화.
 - 혁신: AI와 제조업 결합, AI 표준 포럼 설립, AI 안전연구소 확대.
 - 번영: 기후변화 대응, 무탄소 에너지 서밋 개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5. 한국 개최 의미와 초대
 - 2025년 정상회의는 경주에서 개최,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세계에 소개.
 - CEO 서밋의 글로벌 기업인 참여를 강조하며 적극적 동참을 요청.

결론

내년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와 경제적 번영의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APEC 기업인들의 협력을 촉구.

번역

Bản tóm tắt: Bài phát biểu khai mạc Hội nghị Thượng đỉnh CEO APEC 2024

1. Lời cảm ơn và chúc mừng
 - Gửi lời cảm ơn đến Chủ tịch Fernando Zavalá và chúc mừng ông Choi Tae-won, người sẽ đảm nhận vai trò Chủ tịch tiếp theo.
2. Sự phát triển của APEC và vai trò của doanh nghiệp
 - APEC đã trở thành tổ chức hợp tác kinh tế lớn nhất thế giới, với sự đóng góp cốt lõi từ tinh thần nhiệt huyết và đổi mới sáng tạo của các doanh nghiệp.
 - Những thành tựu tiêu biểu bao gồm "Thế Đa-hành Doanh nhân" và các đề xuất liên quan đến quy chuẩn AI.

[그림 2] 학습자B가 제출한 (과제 2)의 결과물

[그림 2]는 출발 텍스트를 요약한 후 베트남어로 번역하는 과제의 결과물이다. 살펴본 결과 학습자B는 교사가 제시한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6페이지 분량의 텍스트를 30% 정도로 요약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나누고 체계적

으로 정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습자들은 수업 중에 질문할 내용들을 메모해 두기도 하였는데 이는 모호한 표현의 이해와 정확한 번역을 위해 토론 시간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우는 다른 학습자들의 결과물에서도 자주 볼 수 있었다.

다만 베트남어 번역 부분에서 몇 가지 오류가 발견되었는데, 예를 들어 ‘탄소중립 에너지’를 ‘năng lượng không carbon’으로 오역²¹⁾하였으며, ‘세계문화유산 도시’를 ‘thành phố di sản thế giới’로 번역하면서 ‘문화’를 누락한 것이다. 학습자는 번역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였으며 오류 사항을 수정하고 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ChatGPT가 오역이나 오류를 생성하더라도 이것을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과 한국어 실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hatGPT가 제공하는 번역 결과는 100% 정확하다고 보장할 수 없으므로 학습자는 AI의 번역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언어적 사고력을 키우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ChatGPT가 제공한 번역 결과를 분석한 후, 교수 및 동료 학습자들과 함께 토론했으며 최적의 번역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21)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이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이 균형을 이루어 탄소의 실질 배출량이 영(zero)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탄소중립 에너지’라는 표현은 베트남어로 ‘năng lượng trung hòa carbon’라고 번역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학습자가 사용한 ‘năng lượng không carbon’이라는 표현은 한국어로 ‘무탄소 에너지’를 나타낸다(탄소중립 정책포털, <https://www.gihoo.or.kr/>).

한국어 표현	베트남어 번역	검수
천년 고도 경주	Thành phố cổ ngàn năm Gyeongju	Kinh đô ngàn năm Gyeongju
세계 경제 도약의 이정표	Cột mốc cho sự phát triển vượt bậc của kinh tế thế giới	ok
APEC CEO 서밋	Hội nghị Thượng đỉnh CEO APEC	ok
아태지역 경제협력체	Tổ chức hợp tác kinh tế khu vực Châu Á - Thái Bình Dương	Diễn đàn hợp tác kinh tế châu Á - Thái Bình Dương (APEC)
글로벌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Tự do hóa thương mại và đầu tư toàn cầu	ok
기업인 여러분의 열정과 혁신	Đam mê và sự đổi mới của các doanh nhân	ok
아태자유무역지대 (FTAAP) 구축 비전	Tầm nhìn xây dựng Khu vực Mậu dịch Tự do Châu Á - Thái Bình Dương (FTAAP)	Tầm nhìn xây dựng Khu vực thương mại tự do châu Á - Thái Bình Dương (FTAAP)
AI 시대를 대비한 APEC	APEC chuẩn bị cho thời đại AI	ok

[그림 3] 학습자C가 제출한 (과제 3) 결과물

[그림 3]은 학습자C가 제출한 (과제 3)의 결과물이다. 해당 과제의 출발 텍스트는 정치 및 경제 분야에 관한 중요한 용어와 약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학습자는 ChatGPT를 활용해 핵심 표현을 번역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학습자C의 경우 스스로 ‘검수란’을 만들어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ChatGPT로부터 받은 데이터 외에 좀 더 정확한 번역 표현을 찾아 추가로 메모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ChatGPT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데이터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수용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과제 3)에서 등장하는 특수 용어 및 약어 번역에 대해서는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2) 본 수업

본 수업에서는 가장 먼저 이전 회차²²⁾에서 제출한 최종 과제에 대해 전제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졌다. 피드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전체 텍스트 문장구역 녹음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2차 수업 후 학습자가 정리한 핵심 표현에 대한 것이다. 피드백 이후 수업 내용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표 4] 3회차 본 수업 지도안

항목	교수 학습 내용	시간
배경지식과 핵심 표현 숙지 확인	- 배경지식 이해 여부는 학습자가 출발 텍스트를 6하원칙에 따라 요약하는 방식으로 확인한다. - 핵심 표현 숙지 여부는 10개의 핵심 표현으로 구성된 퀴즈를 5분 동안 풀도록 하여 평가한다.	15분
문장 구역 수행	학습자는 순서대로 두 문장씩 문장구역을 하고 교수자와 다른 학습자는 이를 듣고 피드백한다. 주로 적절한 베트남어 표현을 추천해주거나 문장 분절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조언해준다. 학습자 간의 의견이 충돌하거나 오역이 발생하는 경우 교수자가 지도한다.	75분
문장 구역 녹취	- 학습자는 문장구역을 녹음 및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수자는 출발 텍스트에서 무작위로 8문장을 선별하여 10분 동안 화면으로 보여준다. 제시된 문장은 주로 복문이며 난이도가 높은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 제공된 10분 동안 학습자는 문장통역 녹음을 하고 교수자에게 파일을 전송한다.	15분
마무리	- 녹음 파일 제출이 완료되면 수업을 마무리한다. 학습자의 질문 여부를 확인한 후 아래와 같이 과제를 부여한다. - 연설문 전체 내용 문장구역 수행 - 중요 내용 정리 - 두 가지 과제 수행 후 기간 내에 파일을 제출하도록 한다.	5분

먼저, 수업 시작 후 교수자는 ‘2024년 APEC CEO 서밋 기조연설’에 관한 핵심 표현을 숙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5분간 진행된 퀴즈를 통해 확인하였다. 퀴즈 내용은 출발 텍스트에서 추출한 10개의 핵심 표현을 베트남어로 번역하는 것으로 구성되었으며, Google Forms를 활용하여 제작하

22) 본 연구에서는 3회차 수업 사례를 기술하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전 회차는 2회차를 가리킨다.

였다. 사례 수업에서 진행된 해당 퀴즈의 내용과 결과는 아래와 같다.

3차 퀴즈									
1. APEC CEO 서장	2. 기업인 여행 카드	3. 국제인 여행 카드	4. 국제인 여행 카드	5. 국제인 여행 카드	6. 국제인 여행 카드	7. 국제인 여행 카드	8. 국제인 여행 카드	9. 국제인 여행 카드	10. '천년 고도' 경주
Hội nghị thường niên CEO APEC	Thẻ du lịch doanh nhân	Thẻ du lịch doanh nhân APEC	Thẻ đi lại của doanh nhân khu vực APEC	Thẻ du lịch doanh nhân	Thẻ hành trình doanh nhân	Thẻ dành cho doanh nhân APEC	Gyeongju Cổ đô ngàn năm	Thành phố cổ Gyeongju, ngàn năm lịch sử	Gyeongju - Kinh đô ngàn năm
Hội nghị thường niên CEO APEC	Thẻ du lịch doanh nhân	Thẻ đi lại của doanh nhân khu vực APEC	Thẻ du lịch doanh nhân	Thẻ hành trình doanh nhân	Thẻ dành cho doanh nhân APEC	Gyeongju Cổ đô ngàn năm	Thành phố cổ Gyeongju, ngàn năm lịch sử	Gyeongju - Kinh đô ngàn năm	Gyeongju - Thành phố cổ ngàn năm

[그림 4] 학습자가 수행한 핵심 표현 확인 퀴즈 결과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개 표현을 베트남어로 번역하는 퀴즈를 수행했으며 번역 결과에는 개인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교사는 토론을 진행하여 최적의 번역을 함께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학습자의 배경지식 이해 여부를 확인하고자 학습자들에게 출발 텍스트를 6하원칙에 따라 요약하도록 하였다. 1, 2차 수업에서 학습자들은 ‘누구’, ‘언제’, ‘어디’와 관련된 질문에는 쉽게 응답하였으나 ‘무엇’, ‘왜’, ‘어떻게’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즉각 제시하지 못했다. 교사는 다양한 추가 질문을 통해 정답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동료 학습자들도 추가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배경지식과 주요 내용을 확인, 숙지하도록 하였다.

배경지식과 핵심 표현 숙지를 확인한 후에는 텍스트 문장구역을 수행하였다. 학습자는 순서대로 두 문장씩 문장구역을 하며 교사와 다른 학습자들은 이를 듣고 적절한 베트남어 표현을 추천하거나 문장 분절 방식에

대한 조언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 간 의견이 충돌하거나 오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는 교수자가 올바른 번역을 제시해 주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해당 수업의 텍스트는 1, 2회차 수업에 비해 분량이 많으며 단문과 복문이 혼합된 복잡한 형태의 문장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학습자들은 긴 문장의 경우 텍스트를 즉시 통역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모르는 표현이 없음에도 문장 성분을 잘 파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에 교수자는 학습자들과 함께 문장을 분절하고 문장 성분을 파악한 후 통역을 다시 해보도록 하였다.

본 수업을 통해 학습자들이 텍스트의 배경지식과 핵심 표현을 충분히 숙지한 후 활용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다. 다만 몇몇 학습자들에게서 문장 구역 기술의 미숙함이 드러났는데 특히 긴 복문을 통역할 때 발생하는 누락 오류, 의사소통 불능 오류, 주저로 인한 시간 지연 문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났다.²³⁾ 이에 따라 수업 마지막 15분 동안에는 학습자들에게 출발 텍스트에서 8개의 문장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제시한 후 10분 동안 문장 구역을 녹음하도록 하였다. 교수자는 학습자들에게 제한된 시간 내에 녹음을 완료하고 파일을 제출하도록 하고 질문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연설문 전체 내용에 대한 문장구역 통역 수행’ 과제를 부여하는 것으로 수업을 마무리하였다.

(3) 수업 후

수업 후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제출한 문장구역 녹음 자료를 토대로 교

23) 한국어는 교착어로 어순이 자유롭고 문미에서 메시지가 명확해지는 언어이며 베트남어는 고립어로 어순이 고정되고 문두에서 문장 구조가 결정되는 언어이다. 한국어는 SOV, 베트남어는 SVO 구조를 가지며 이러한 어순 차이로 인해 긴 문장을 통역할 때 통역 지연, 누락,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특히 한국어의 후행 동사와 중심어를 미리 파악하기 어렵고 선행 요소를 기억해야 하는 부담이 통역의 주요 난점이다. 이러한 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어에서 베트남어로의 문장구역을 수행할 때 주어 보완, 장문을 여러 개의 단문으로 표현, 접속사 사용 등을 숙지하여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수자가 평가를 하고 오류를 수정하였다. 다음은 학습자 6명이 제출한 문장 구역 녹음 파일을 평가한 결과이다.²⁴⁾

[표 5] 학습자의 문장구역 녹음 파일에 대한 평가 결과

	평가 기준	S1	S2	S3	S4	S5	S6
1	잘못 해석한 표현 (횟수)	2	3	3	3	3	1
2	부적절한 문장 분절 (횟수)	1	0	1	1	0	0
3	통역하지 않고 건너뛰는 표현 (횟수)	12	2	6	4	1	2
4	통역 소요 시간 (초)	210	347	310	333	348	306

평가 결과, 오역과 문장 분절의 오류가 가끔 나타났으나 크게 문제 되지 않는 정도였다. 다만 아래 문장의 경우 6명의 학습자 모두 문장 분절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35년까지 혁신과 디지털화를 통해 포용적인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중소기업,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공식 경제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위 문장은 다음과 같이 분절하여 통역을 진행할 수 있다.

- 2035년까지 → 혁신과 디지털화를 통해 → 포용적인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 토대가 될 것입니다 → 중소기업,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 그동안 소외되었던 → 공식 경제에서 활동할 수 있다
- 문장구역 : Đến năm 2035, thông qua đổi mới sáng tạo và chuyển đổi số, sẽ tạo ra một môi trường kinh tế bao trùm, làm nền tảng để các nhóm yếu thế như các doanh nghiệp vừa và nhỏ, phụ nữ, người khuyết tật, v.v.những đối tượng bị làm ngơ trong thời gian vừa qua, có thể tham gia vào nền kinh tế một cách chính thức.

또한 특정 표현을 통역하지 않고 건너뛰는 경우는 다른 오류에 비해 잦

24) 학습자가 수행한 문장구역 통역 결과물의 평가 기준은 김혜림(2008) 및 김진아(2018)를 참고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다.

았는데 해당 녹음 내용을 청취한 결과 오류 발생 시 학습자들은 휴지가 생기거나 말더듬이 비교적 자주 나타났으며 특정 구절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였다.²⁵⁾ 수업 후 과제 평가에서 발견된 오류는 다음 수업의 사전 학습 단계에서 제공되는 동영상상을 통해 학습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채 공개 피드백 형태로 전달하였다.

(4) 학습자 인식 조사

1~3회차 수업이 모두 진행된 후에는 수업의 효과를 파악하고 학습자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ChatGPT를 활용한 통역 수업에 대한 학습자 설문조사 결과

번호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1	ChatGPT를 활용하면 과제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83.3% (5)	16.7% (1)			
2	ChatGPT가 제공하는 텍스트 관련 배경 지식은 수업에 유용하다.	50% (3)	50% (3)			
3	ChatGPT가 제공하는 텍스트 요약 결과는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33.3% (2)	66.7% (4)			
4	ChatGPT가 제공하는 텍스트의 핵심 표현은 문장구역을 수행하는 데 유용하다.	16.7% (1)	50% (3)	33.3% (2)		
5	ChatGPT를 활용하여 과제를 수행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100% (6)				
6	ChatGPT가 제공하는 텍스트의 번역 결과는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66.7% (4)	33.3% (2)			
7	ChatGPT가 제공하는 고유명사(사람 이름, 단체 이름, 약어 등)는 대체로 정확하다.	33.3% (2)	33.3% (2)	33.4% (2)		
8	앞으로 통역이나 학습 과정에서 ChatGPT를 활용할 의향이 있다.	83.3% (5)	16.7% (1)			
9	ChatGPT를 활용하여 과제를 수행한 후에는 검수와 수정 단계를 거쳐야 한다.	66.6% (4)	16.7% (1)	16.7% (1)		
10	ChatGPT를 사용할 경우는 자기 사고나 생각이 저하될 수 있어 학습 효과 향상에 부정적일 수 있다.		50% (3)	33.3% (2)	16.7% (1)	

25) 학습자별로 오류의 유형과 그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보다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표 6]의 (1)번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한·베 문장구역 통역 수업에서 ChatGPT를 활용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유용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2)~(4)에 해당하는 문항인 배경지식, 텍스트 요약, 핵심 표현을 학습하는 것에 대해 학습자들은 대다수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학습 도구로써 ChatGPT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5)번 ‘ChatGPT를 활용하여 선수 과제를 수행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학습자 전원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ChatGPT를 활용하는 것이 시간적 효율 면에서 큰 효과가 있으며 학습자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전통적인 학습 모형을 따르던 통역 수업에 ChatGPT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6)번 ‘ChatGPT가 제공하는 텍스트의 번역문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문항에 대해 역시 모든 학습자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생성형 AI의 번역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정확하다는 점(한송이, 2023:73)을 뒷받침한다.²⁶⁾ 이에 따라 학습자들은 한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ChatGPT가 제공한 번역본이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ChatGPT를 활용하여 선수 과제를 수행한 후에는 반드시 검수와 수정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9번 문항에 대해 83.3%에 해당하는 학습자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기술과 프로그램이 첨단적이고 정확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최종 단계에

26) 한송이(2023)는 Google, Microsoft Translator, SDL Trados, Papago와 같은 번역 프로그램과 ChatGPT의 차이를 번역에 사용되는 기술, 번역 범위, 문맥 이해 정도에서 찾았다. ChatGPT는 딥러닝과 자연어 처리(NLP) 기술을 활용하는 반면 다른 번역 프로그램들은 주로 통계적 기계 번역(SMT)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ChatGPT는 보다 정확하고 상황에 적합한 번역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로, 다른 번역 프로그램들은 비교적 단순하고 일상적인 번역에 더 적합하다고 평가되었다.

서 사람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며 수정 여부도 사람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학습자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ChatGPT가 제공하는 텍스트의 핵심 표현은 문장구역 작업을 수행하는 데 유용하다’는 (4)번 문항과 ‘ChatGPT가 제공하는 고유명사(사람 이름, 단체 이름, 약어 등)는 대체로 정확하다’는 (7)번 문항에 대해 각각 66.6%에 해당하는 학습자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33.4%의 학습자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ChatGPT가 제공한 핵심 표현이 명사형보다는 구절 형태로 되어 있어 학습자가 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장구역 작업을 수행할 때 잘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²⁷⁾

마지막으로 ChatGPT 활용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50%의 학습자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3%의 학습자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ChatGPT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ChatGPT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학습자들에게 의견을 묻은 결과, 자기 사고나 생각이 저하될 수 있음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hatGPT가 자기주도의 학습 도구로써 활용되기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허언성과 오류 등을 판단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 프롬프트 생성 능력 등을 키워주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7) ChatGPT가 제공한 고유명사의 정확도에 대해 본 연구자가 다른 번역 프로그램과 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오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두 명의 학습자가 ChatGPT가 제공한 고유명사의 정확도에 대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 사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과 중 하나인 생성형 AI, 특히 ChatGPT를 학습 도구로 활용하여 수업 효과에 미치는 영향과 학습자의 인식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베 통역 과목 중 하나인 문장구역 수업을 플립드 러닝 기반으로 설계한 후 3회에 걸쳐 실제 수업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ChatGPT는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는 데에 보조 도구로써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되었으며 특히 시간적 효율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우려했던 ChatGPT 사용에 대해서는 학습자들이 빠르게 이해하고 다룰 줄 알았으며 프롬프트 설정 또한 익숙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보였다. 다만 1회차 수업에서 ‘수업 전’ 단계의 선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서투른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학습자들에게 플립드 러닝의 수업 방식이 생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수업 전에 학습자들은 ChatGPT를 활용하여 배경지식 습득 및 번역, 표현 정리 등의 과제를 수행했으나 이러한 학습 내용을 ‘본 수업’ 단계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몰라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문장구역 수행 시 동료 피드백에 대해서도 미숙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학습자가 제출한 통역 녹음 자료에서도 나타났는데 다른 회차에 비해 1회차 수업의 녹음 파일에서 오류가 자주 나타났다. 이때 교수자는 플립드 러닝과 관련하여 학습자의 역할을 자세히 설명하고 동기 부여를 함과 동시에 과제 수행에 대해 반복하여 안내하였다. 그러자 2, 3회차 수업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학습자들은 1회차 수업을 경험한 후 다음 수업에서는 선수 과제를 수행하며 ‘본 수업’에서 해야 하는 토론 거리를 준비하고 피드백에 관해서도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덕분에 해당 수업에서 학습자들은 활발하게 문제를 제시하고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피드백을 주고 받는 활동 역시 적극적이었다. 이를 통해 새로

은 교수·학습 모형과 기술 도입에 대해 학습자들은 서투르거나 거부감을 나타낼 수 있으나 익숙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긍정적 동기를 부여한다면 스스로 적응하며 새로운 방식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알려진 바와 같이 ChatGPT는 교육 측면에서 여러 의미 있는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도 거부감 없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교수·학습 방안을 연구하여 이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장구역 수업을 비롯한 통역 수업에서 학습 도구로 ChatGPT를 활용할 때의 가장 어려운 점은 학습자들이 ChatGPT가 제공한 정보들을 자신이 스스로 창출한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점이다. 또한 ChatGPT와 과제를 수행한 후에는 학습 과정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학습자들도 있었는데, 교수자는 ChatGPT와 작업한 후부터 자기 주도 학습이 시작되는 것임을 학습자에게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 통역 교육 방안을 설계할 때는 학습자가 ChatGPT를 효과적으로 활용했는지, 그 결과물을 잘 습득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ChatGPT가 편리하고 시간 절약에 효과적인 도구인 것은 분명하나 지나친 의존은 통번역 사고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학습자가 이를 인지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본 연구는 실험 집단이 적어 연구 결과를 전형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다만 본 연구의 초기 목적이 문장구역 수업에서 ChatGPT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있었으며 학습자들이 ChatGPT를 학습 지원 도구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베, 베·한 통역 수업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생긴 미흡한 부분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 참고 문헌

- 강채희, 「독일 문학 수업에서의 챗지피티 ChatGPT 활용 가능성: 챗지피티와의 상호작용, AI 리터러시, 호기심을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103호, 한국독일어문학회, 2023, 45-80쪽.
- 김진아, 「효과적인 한·중 문장구역 기법: 분절법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19권 3호, 한국번역학회, 2018, 63-79쪽.
- 김혜림, 「웹 사이트를 활용한 영한 통역 능력 향상」, 『통역과 번역』 10권 2호, 한국통역번역학회, 2008, 3-26쪽.
- 양청수, 『통역교육연구: 이론과 실천』, 한국문화사, 2007.
- 이미선, 「베한순차통역 수업 모형 연구: 전통적 학습과 플립러닝을 중심으로」, 『베트남연구』 22권 2호, 한국베트남학회, 2024, 63-88쪽.
- 이아형, 「챗 GPT의 번역 수업 활용 방안 고찰: 한중과학기술번역을 중심으로」, 『中國語文學誌』 85호, 중국어문학회, 2023, 153-176쪽.
- 이주연, 「통역능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연구: 한영과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3권 1호, 한국통역번역학회, 2021, 161-184쪽.
- 장지영, 「생성형 AI를 활용한 학문 목적 한국어 토론 수업 방안 연구: 가네의 수업사태와 STCPR을 기반으로」, 『한국어 교육』 35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24, 133-157쪽.
- 조상은, 「ST(Sight Translation)훈련을 중심으로 한 학부 통역교육 제안」, 『통역과 번역』 13권 1호, 한국통역번역학회, 2011, 89-115쪽.
- 진실희, 「생성형 AI 활용 통역 교육 사례연구: 챗GPT를 활용한 비즈니스 통역 수업 설계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8권 3호, 한국 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2024, 187-214쪽.
- 최문선, 「통역 교육에서 출발텍스트 선정과 난이도 고려에 대한 소고」, 『통역과 번역』 15권 1호, 한국통역번역학회, 2013, 249-278쪽.
- 최정빈, 『(배움을 바로잡다) 플립드 러닝: 교수설계와 수업전략』, 성안당, 2018.

- 한송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미래교육』, 교육과학사, 2023.
- 허지운, 「세계영어의 영한통역을 위한 효과적 교수법 모색」, 『번역학연구』 15권 1호, 한국번역학회, 2014, 331-364쪽.
- 허지운, 「통역 스터디 현황과 학습자 인식: 학부생 스터디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5권 3호, 한국번역학회, 2024, 151-176쪽.
- Cao Thi Hai Bac, “SURVEY ON THE SITUATION OF KOREAN LANGUAGE AND KOREAN STUDIES EDUCATION IN VIETNAM”, *Tap chi nghien cuu nuoc ngoai*, vol. 38, no. 4, 2022, pp.120-132.
- Robin Setton & Andrew Dawrant 저, 곽중철·박지현 역, 『회의통역 완벽가이드: 인간통역』, HU:INE, 2018, 271쪽.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통역 교육 현장에서 전통적인 교수법이 학습자에게 능동적인 학습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그 유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생성형 AI, 특히 ChatGPT를 학습 도구로 활용하여 한·베 통역 과목 중 하나인 문장구역 수업을 설계하였다. 또한 수업의 모형은 학습자에게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고 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플립드 러닝을 기반으로 개발하였다. 수업 전에 학습자들은 교사가 제작한 동영상상을 시청한 후 ChatGPT를 활용하여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수업 시간에는 이를 바탕으로 확인과 피드백을 주고 받았다. 3회에 걸쳐 수업을 진행한 결과 ChatGPT는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되었으며 특히 시간적 효율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또한 학습자들 역시 새로운 수업 방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베·한 문장구역 수업의 기초 자료로 쓰일 수 있으며 대안적 교수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ChatGPT, 한국어 교육, 한·베 통역,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 문장구역, 플립드 러닝

■ Abstract

Case study on Korean-Vietnamese interpretation classes using generative AI(ChatGPT)

Bui, Thi Hong Nhung / Hanyang University

Chae, Yunmi /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suggest a new alternative and examine its effectiveness under the awareness that traditional teaching methods do not support active learning for learners in the field of interpretation education. To this end, generative AI, especially ChatGPT, was used as a learning tool to design a sentence section class, one of the Korean-Vietnamese interpretation subjects. In addition, the class model was designed based on flipped learning to provide customized learning to learners and to form a proactive learning attitude. Before class, learners watched a video produced by the teacher and performed assignments using ChatGPT, and during class, they received confirmation and feedback based on this. As a result of conducting the class three times, it was concluded that ChatGPT was very effective in helping learners engage in self-directed learning and was particularly time-efficient. In addition, learners also seemed to positively accept the new teaching metho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Vietnamese-Vietnamese sentence section classes and are expected to be utilized as an alternative teaching method.

Keyword • ChatGPT,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Vietnamese interpretation, Vietnamese learners of Korean, sight translation, flipped learning.

게임 리터러시 교육의 양상과 특징 연구

이 아 람 찬*

목 차

1. 들어가는 글
2. 게임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
3. 게임 리터러시 교육의 양상
4. 나오는 글

1. 들어가는 글

게임 리터러시 명칭은 그동안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구체적으로 비디오 게임 리터러시, 컴퓨터 게임 리터러시, 디지털 게임 리터러시, 게임 리터러시 등으로 사용되며,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게임(보드게임)과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비디오, 컴퓨터, 디지털 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게임에 관한 명확한 개념을 규정하는 때도 있으나 대부분 이들 단어를 생략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록 이들 용어가 생략되었지만, 게임 리터러시에는 의미상으로 이들 단어를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 목원대 창의교양학부 조교수

그리고 게임 리터러시 교육은 컴퓨터 및 모바일 게임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으로 발전하고 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은 학교, 도서관,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제공되어 게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적절한 활용 방법을 다루고 있다. 교육용 게임의 개발은 특정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문제 해결 능력, 협력, 의사소통 등의 기술을 향상하는 데 활용된다. 게임 리터러시 교육은 게임이 지닌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학습도 포함하여 게임 중독, 폭력성, 온라인 괴롭힘과 같은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강조한다. 학생들의 게임 이용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 못지않게 부모와 교사에 대한 교육도 게임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다.

이 연구는 게임 리터러시의 개념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재 국내에서 게임 리터러시 교육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가를 확인할 것이다. 이러한 게임 리터러시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게임 리터러시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교육용 게임의 개발, 게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부모와 교사 교육으로 구분해서 진행되고 있다.

2. 게임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

영화교육 초기인 1950년대까지도 영화가 청소년에게 매우 해로운 매체처럼 인식되었다. 영화는 청소년에게 과소비나 헛된 꿈을 꾸게 만드는 비교육적 산물로 여겼고, 많은 교육 관계자가 학교에서 굳이 영화교육을 진행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게임도 이러한 영화의 길을 걷고 있다. 현재 영화는 예술로서 인정을 받고 있으며, 교육적 필요성도 누구나 공감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게임은 아직 교육적 필요성에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게임 리터러시의 교육적 접근과 게임의 교육적 가

치에 대한 그동안 논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요한 하위징아(Johan Huizinga)의 1938년 저서 『호모 루덴스(Homo Ludens)』에서는 놀이가 인간 문명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강조한다. 하위징아는 인간을 '호모 루덴스(놀이하는 인간)'으로 정의하며, 놀이가 문화 형성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놀이는 즐거움과 흥겨움을 동반하는 자유로운 활동이며, 인간은 본능적으로 놀이를 추구한다. 하위징아는 놀이를 단순한 유희가 아닌 인간 문명의 핵심 요소로 바라보며, 놀이를 통해 언어, 예술, 철학, 정치 등의 분야가 발전했다고 말한다.¹⁾ 그의 이론은 놀이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으며, 게임 리터러시에서 여전히 중요한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임스 지(James Gee)는 게임을 하나의 리터러시 체계로 보고, 게임 플레이를 통해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협력적 학습을 촉진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는 게임 리터러시는 단순한 조작 능력을 넘어 게임이 가진 내재적 규칙, 이야기 구조, 시스템적 사고를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제시한다.²⁾ 즉, 지의 주장을 정리하면, 비디오 게임은 단순한 시간 낭비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게임을 어떻게 플레이하고, 게임을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학습을 촉진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발현된다.

데이비드 버킹엄(David Buckingham)과 앤드류 번(Andrew Burn)은 게임 리터러시의 개념을 단순히 게임을 수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게임을 분석하고 이해하며, 직접 창작하는 능력까지 포함한다. 이는 기존의 문자 기반 리터러시에서 확장된 개념이며, 시각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등의 개념과 연결된다. 그들에 의하면, 게임은 단순한 서사적 요소(캐릭터, 이

1) 요한 하위징아 저, 이종인 역, 『호모 루덴스』, 연암서, 2010.

2) Gee, James, *What Video Games Have to Teach Us About Learning and Literac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3.

야기)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적 요소(규칙, 시스템)를 담고 있다. 이러한 게임의 규칙성을 분석하는 것 또한 중요한 리터러시 학습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버킹엄과 번은 게임 리터러시의 교육적 의의를 학생들에게 현대적 미디어 환경에서 필요한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³⁾ 호세 자갈(Jose Zagal)은 게임 리터러시의 역할을 3가지로 제시했다. 게임하기 능력, 게임 분석 능력, 게임 제작 능력으로 구분하고 있다.⁴⁾ 자갈이 정의한 게임 리터러시에서 실제 게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적인 경험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게임을 통해서 스토리를 이해하고, 비판적 수용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코딩교육을 통해 실제 게임을 만드는 데까지 게임 리터러시 교육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에릭 짐머만(Eric Zimmerman)은 게임 리터러시에 대한 개념을 탐구하며, 21세기에 필요한 새로운 형태의 문해력을 게임교육을 통해 설명한다. 그는 게임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교육 및 창의적 사고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그는 게임 리터러시를 세 가지 핵심 개념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먼저, 게임은 본질적으로 규칙과 상호작용이 얹힌 시스템(Systems)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은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이다. 둘째, 규칙이 존재하는 시스템 내에서의 자유로운 움직임이 놀이(Play)다. 이는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게임 디자인(Design)은 단순한 소비가 아닌 창조적인 과정이다. 이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문해

3) Buckingham, David & Burn, Andrew, "Game Literacy in Theory and Practice", *J. of Educational Multimedia and Hypermedia*, vol. 16, no. 3, 2007, pp.323-349.

4) Zagal, José, "A Framework for Games Literacy and Understanding Games", *Proceedings of the 2008 Conference on Future Play: Research, Play, Share*, 2008, pp.33-40.

력을 요구한다.⁵⁾ 이 논문은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것에서 나아가, 게임을 이해하고 설계하는 과정 자체가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사고방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준다고 강조한다. 또한, 게임을 활용한 교육 및 연구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다양한 학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게임 리터러시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한편, 곤잘로 프라스카(Gonzalo Frasca)는 게임 리터러시는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게임이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게임은 더 이상 단순한 오락이 아니며, 교육, 광고,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있다.⁶⁾ 이처럼 게임 리터러시는 단순한 조작 능력을 넘어 게임의 규칙, 이야기, 시스템을 이해하고 분석하며 창작하는 능력까지 포함한다. 제임스 지는 게임이 학습을 촉진한다고 보았고, 버킹엄과 번은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자갈은 게임하기, 분석, 제작 능력으로 구분했으며, 짐머만은 시스템, 놀이, 디자인의 개념까지 제시했다. 그리고 프라스카는 게임이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까지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프라스카는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교육적, 창의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이론을 정리하면, 공통적으로 게임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학습과 사고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본다. 게임 리터러시는 단순한 조작 능력을 넘어 게임의 규칙과 의미를 분석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포함하며, 궁극적으로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5) Zimmerman, Eric, "Gaming literacy: Game design as a model for literacy in the 21st century", *The Video Game Theory Reader 2*, Bernard Perron & Mark J. P. Wolf eds., New York: Routledge, 2009, pp.23-31.

6) Frasca, Gonzalo, "Simulation versus Narrative: Introduction to Ludology", *The Video Game Theory Reader*, Mark J. P. Wolf & Bernard Perron eds., New York: Routledge, 2003, pp.221-237.

이렇게 해외 연구는 게임 리터러시의 정의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국내 경우는 이렇게 정의된 개념을 통해 실제 교육적 적용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김양은은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게임 리터러시를 통해 바람직한 활동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게임중독 등 부정적인 측면으로 언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게임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게임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비판적 인식과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⁷⁾ 그리고 이미식은 초등학생들이 게임 행위를 조절하고, 창조적이고 성숙한 게임 이용자가 되도록 게임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게임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게임 행위 과정을 도덕적 관점에서 성찰하고, 게임을 주체적으로 선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도덕과 수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⁸⁾

이렇게 다양한 게임 리터러시의 정의적 접근과 적용에 대한 논의에서 다시 한번 공통으로 논의되는 것이 게임은 놀이를 바탕으로 더 창의적인 행위 또는 교육까지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실제 게임을 하면서 즐거움을 찾는 것과 더불어 게임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코딩 등을 통해 게임을 직접 만들어가는 과정도 제시하고 있다.

3. 게임 리터러시 교육의 양상

그동안 게임 리터러시 교육은 컴퓨터 및 모바일 게임에 대한 이해와 그 사용법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발전해 왔다. 게임 리터러시 교육을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기관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문화재단이

7) 김양은, 「게임 리터러시에 관한 시안적 연구」, 『게임산업저널』 8호, 한국콘텐츠진흥원, 2005, 58-84쪽.

8) 이미식, 「게임 리터러시(game literacy)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초등학교 도덕과 수업의 방향과 실제에 관한 연구」, 『윤리교육연구』 51호, 2019, 137-160쪽.

있으며, 이들 기관의 지원으로 전반적인 게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래 제시한 게임 리터러시 교육 또한 기본적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직접 사업을 진행하거나 타기관을 지원하는 사업 형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3.1 게임 리터러시 교육의 유형

앞서 언급한 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임 리터러시 교육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다양한 게임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비롯해서 지역 콘텐츠 사업 기관과 단체에서 게임 리터러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교, 도서관,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이루어지며, 게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게임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그림 1] 게임 리터러시 교육의 유형

둘째, 교육용 게임 콘텐츠 개발이다. 일부 교육자들은 게임 자체를 교육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교육용 게임은 학생들에게 특정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며, 협력과 의사소통 등의 기술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셋째, 게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교

육이다. 게임 리터러시 교육은 양면성을 갖고 있어, 게임이 가지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있다. 이는 게임 중독, 폭력성, 온라인 괴롭힘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포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교사 교육이다.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와 교사에 대한 교육도 게임 리터러시 교육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 부모와 교사가 학생들의 게임 이용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4가지 유형의 게임 리터러시 교육이 개별적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 2개 이상의 유형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은 사업의 규모와도 관계가 있고, 프로그램의 대상 연계성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

3.2 다양한 게임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제공

3.2.1 슬기로운 경북 게임 리터러시

경북테크노파크는 ‘슬기로운 경북 게임 리터러시’라는 게임 활용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과 게임 리터러시를 강화하고, 올바른 게임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게임 활용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디지털 역량 및 게임 리터러시 역량 강화, 게임 개발자 진로에 대한 전문가 강연 제공으로 예비 게임 전문인력 창출, 세대 간 게임문화에 대한 간격을 좁히고 이해와 소통,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기반 형성 기회 마련, 디지털 문화와 함께 성장하는 아이들의 유익한 정보 구별 능력 향상, 올바른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하여 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게임문화 접근법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⁹⁾

9) 경북테크노파크, 『슬기로운 경북 게임 리터러시 기획 및 운영 용역 제안요청서』, 2023, 1쪽.

2023년 주요 프로그램은 게임기획자가 전하는 게임 세계 이해, 보드게임을 통한 게임기획 체험, 메이플스토리월드에듀를 활용한 게임 제작, 학부모 대상 게임문화 특강 등으로 게임 리터러시 교육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표 1] 교육내용¹⁰⁾

주요과업	세부목표
게임 리터러시	- 사전 홍보, 모집 실시 - 자녀 교육 3회(코딩교육) - 부모 교육 3회(게임문화교육)
알파 게임 탐험대	- 게임제작 체험 및 리터러시 교육 캠프 1식 - 교육참여 가족 중 20가족 내외 참여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게임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하지만, 부모 교육도 포함하고 있다. 게임 리터러시 교육은 종종 교사나 부모 교육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각 대상별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므로, 같은 기간 동안 병행해서 진행하게 되었다.

3.2.2 전북 게임 리터러시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과 전북글로벌게임센터는 '2022 전북 게임문화 가족캠프'를 개최했다. 캠프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전북 거주 30가족(152명)이 참여했으며,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가족 게임대회, 게임 리터러시 교육, 게임공감 토크쇼, 미니 게임올림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메타버스, 로봇, 코딩, 드론, VR/AR/MR 등의 기술을 활용한 게임 제작 교육과 게임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또한, 가족이 함께 게임을 즐기며 소통할 수 있도록 레크리에이션, 게임대회, e스포츠 및 전라북도 소재 게임 기업의 게임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10) 경북테크노파크, 위의 자료, 2023, 1쪽.

[표 2] 전북 게임공감 캠프¹¹⁾

구 분		교육 내용
게임 공감 캠프 프로그램	가족 화합 및 소통 증진	게임제작·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기술을 접목한 게임제작 교육(메타버스, 로봇, 코딩, 드론, VR/AR/MR 등) 및 게임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가족화합 게임으로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레크레이션 및 게임대회 가족 단위 게임(e스포츠, 모바일/PC게임) 또는 전라북도 소재 게임기업 게임 체험
	인식 개선	게임공감 Talk 가족과 게임 경험·고민 이야기 나누기(게임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 게임 리터러시 게임의 문화적 가치 공유 및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게임산업 실무진 또는 전문가 특강 및 리터러시 교육 행사 프로그램 운영 게임 과몰입 및 중독 예방·지도 교육, 진로 탐색 등 직업전문학교, 심리상담사, 게임 개발자, 유명 인플루언서(게임 관련 유튜버) 초빙을 통한 교육

게임공감 Talk에서는 가족이 게임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게임을 통한 치유를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건강한 게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게임산업 실무진과 전문가의 특강 및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는 게임 과몰입 예방 및 지도 교육,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비롯해 직업전문학교, 심리상담사, 게임 개발자, 유명 게임 유튜버 등의 초빙 강연이 포함된다.

3.2.3 유아 게임 리터러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유아의 올바른 게임 이용 습관 형성과 게임 리터러시 교육 확산을 위해 2023년에 이어 ‘2024 유아 게임 리터러시’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유아 게임 리터러시 교육, 유아 교사 및 부모 교육, 유아 게임 체험 행사 지원, 교육용 영상 콘텐츠 개발로 구성된다.

유아 게임 리터러시 교육은 전국 만 3~6세 유아 1만 6000명을 대상으로

11)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2022년 게임 리터러시 교육 행사운영 용역』, 2022, 3쪽.

진행되며, 수업형(활동북·교구 배포)과 문화예술 체험형(찾아가는 유아 뮤지컬 공연)으로 운영된다. 또한, 유아 게임 체험 행사는 전국 30개 유아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며, 가정과 함께하는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 유아 교사나 부모 교육은 올바른 게임 이용 방법을 안내하여 교육 효과를 가정까지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¹²⁾ 구체적인 예로, 그림책『포우가 사라졌어요』는 올바른 게임 이용과 자기 조절 능력을 함양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림 2] 유아 게임 리터러시 개발 교육콘텐츠(그림책/활동북)



[그림 3] 그림책『포우가 사라졌어요』 내용

12) 한국콘텐츠진흥원, 『2024 유아 게임 리터러시 위탁용역』, 2024a.

이 사업의 목적은 유아, 교사, 보호자를 대상으로 게임의 긍정적 가치를 인식시키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다. 또한, 유아의 특성에 맞춘 게임 리터러시 교육과 체험 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활용하여 유아 게임 리터러시 확대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가정과 연계한 게임 리터러시 인식 제고를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 하나다.¹³⁾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업 중에서 가장 나이 어린 교육 대상이며, 이는 게임 등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유아기부터 게임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3.3 게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¹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교실 속 게임 리터러시 학생 영상 콘텐츠 공모전’은 교실 속 게임 리터러시 사업의 일환으로,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을 통해 전국 및 해외 학생들에게 올바른 게임 문화를 확산하고 게임 리터러시 역량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공모전은 초·중·고등학생부터 학부모까지 게임의 긍정적인 영향을 이해하고, 실제 생활에서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한, 게임의 교육적 활용과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을 주제로 기획, 촬영, 편집 등의 활동을 경험하며 ‘주제 영상 콘텐츠’ 제작 능력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학생 크리에이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¹⁵⁾

한편,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지난 2020년부터 매년 ‘게임 리터러시 영상 콘텐츠 제작 및 배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건강한 게임문화 저변 확대와 게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주로 게임을 잘 활용하고 싶은 게이머(청년, 청소년)와 게임을 잘 이해하고 싶

13) 한국콘텐츠진흥원, 앞의 자료, 2024a.

14) 경기콘텐츠진흥원, 『2023년 게임 리터러시 영상 콘텐츠 제작배포 운영』, 2023.

15) 한국콘텐츠진흥원, 『교실 속 게임 이용활용 교육 '학생 영상 콘텐츠 공모전' 운영계획』, 2023, 1쪽.

은 비게이머(청소년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게임 리터러시 영상 콘텐츠 공모는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을 통해 올바른 게임 문화를 확산하고, 게임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게임의 긍정적 활용과 인식 전환을 돕는 사업이다. 즉, 게임의 긍정적 활용을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을 통해 인식을 전환하고 있다.

3.4 교육용 게임콘텐츠 개발

[표 3] 인문 영역별 교육용 게임콘텐츠¹⁶⁾

영역	이미지	교육용 콘텐츠명	진행 대상	관련 효과	게임 소개
인문 영역		댕구의 몬스터 체포하기	초등 3~6학년	국어	문법 퀴즈를 통해 마을에 숨어있는 몬스터를 찾아 체포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
		까로의 공동체 생활	초등 3~6학년	도덕	블록을 터치하여 점수를 획득하고, 퀴즈를 풀어 게임에 도움이 되는 효과를 획득해 높은 점수를 기록하는 게임
		수호의 마을 지키기	초등 3~6학년	도덕	타인과의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도덕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와 태도에 대하여 학습하는 디펜스 퀴즈 게임
		수호의 백만장자 되기	초등 5~6학년	사회	경제 활동을 통해 재산을 가장 많이 획득하는 사람이 승리하며 경제 활동 및 지리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는 게임
		수호의 던전 탐험기	초등 3~6학년	국어	던전을 조사하여 단서를 획득하고, 문학 퀴즈를 풀어 보물 상자를 획득하는 게임
		수호의 마법대전	초등 3~6학년	영어	영어 어휘와 관련된 스킬을 사용하여 몬스터를 무찌르고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

현재까지 교육용 게임 콘텐츠 개발은 주로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

16) 지스쿨 게임리터러시 교육, <https://www.gschoool.or.kr>, 검색일: 2025. 01. 23.

진흥원)와 교육부가 주도해 왔다. 특히, 이들 기관은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여 초등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용 게임 콘텐츠 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유발하고, 보다 효과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용 게임 콘텐츠가 개발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문 영역에서는 국어, 영어, 도덕, 사회 과목을 대상으로 한 게임 콘텐츠가 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윤리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자연 영역에서는 수학, 과학, 실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과목에서 교육 게임이 활용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수리적 사고력과 과학적 탐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창의 영역에서는 더 폭넓은 교육적 가치를 담은 콘텐츠가 개발되었다. 안전·건강, 인성, 진로, 민주시민 교육뿐만 아니라, 인권, 다문화, 통일, 독도와 같은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교육까지 포함되었다. 이러한 콘텐츠는 학생들이 다양한 사회 문제와 가치관을 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접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¹⁷⁾

또한, 단순히 게임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다. 교사들이 교육용 게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직무 연수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교과별 학습 목표에 맞춘 수업 지도안도 제작하여 공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게임 기반 학습을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생들이 보다 흥미롭고 효과적인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처럼, 정부 기관의 주도하에 개발된 교육용 게임 콘텐츠는 초등학생

17) 스톨 게임리터러시 교육, <https://www.gschoool.or.kr>, 검색일: 2025. 01. 23.

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보다 효과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교육용 게임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3.5 부모 및 교사 교육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문화재단은 부모를 대상으로 한 게임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보다 친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인 토크쇼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023 보호자 게임 리터러시 교육’에서는 부모들이 게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자녀와 함께 건강한 게임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주요 강의 내용으로는 게임문화, 게임 관련 진로, 자녀를 위한 효과적인 게임 지도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문가들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게임이 단순한 오락의 개념을 넘어 교육 및 미래 산업과 연결될 수 있음을 배우며, 자녀의 게임 이용을 더욱 긍정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공교육에서 게임 활용 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2024 교사 게임 리터러시’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단발성이 아닌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디지털 교육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교사들이 게임을 교육 도구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대하고,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온라인 연수, 집합 연수, 연구교사 제도 운영, 온라인 직무연수 콘텐츠 개발 등이 포함된다.¹⁸⁾

18) 한국콘텐츠진흥원, 『2024 교사 게임 리터러시 위탁용역 제안요청서』, 2024b.

[표 4] 2024 게임 리터러시 교사 직무연수 운영¹⁹⁾

구 분	방식	차시	주제
온라인 직무연수 콘텐츠 (원격연수)	이론·사례	18	- 교육용 게임콘텐츠 소개 - 교육용 게임콘텐츠 활용한 수업지도 - 게임 리터러시 교수학습 방안 습득
	이론·사례	15	- 게임문화 및 게임정책 이해 - 게임산업 이해 및 게임 진로 이해 - 게임의 올바른 이용지도 및 교수학습 방안

온라인 연수 과정은 중앙교육연수원을 통해 제공되며, 교사들은 직무 연수를 통해 수업 사례와 다양한 교육 자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게임을 활용한 수업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집합 연수 과정에서는 전문 교사들이 주도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국내외 교사들이 참여하여 실무 중심의 교육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지스쿨’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며, 교사들은 이를 참고하여 수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연구교사 제도를 운영하여 총 50명의 연구교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게임을 활용한 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 홍보 및 협력 활동을 통해 게임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연구교사들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모델을 연구하고, 이를 다른 교사들과 공유함으로써 공교육에서의 게임 활용도를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교육적인 가치가 있음을 널리 알리고, 공교육에서 게임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게임을 매개로 한 창의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

19) 위의 자료, 2024b.

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²⁰⁾

[표 5] 2024 게임 리터러시 교사 직무연수 운영²¹⁾

구 분	방식	차시	주제
오프라인 (집합연수)	체험·실습	6	[예시] - 에듀테크 게임 수업 만들기 프로젝트 - 수업에서 활용하는 게이미피케이션 사례 - 메타버스와 구글 사이트 활용한 게임 수업 -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게임콘텐츠 연수 - 보드게임을 활용한 교과 수업 설계 실습 - 온, 오프라인 게임 활용 교과 수업 - 교육용 게임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지도

온라인 연수는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제공하며, 교사들이 직무연수 과정을 통해 다양한 수업 사례와 교육 자료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집합 연수는 전문 교사들이 주도하며, 국내외 교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는 실무 활용도가 높은 교육 자료를 제공하며, 해당 자료들은 지스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구교사 제도를 운영하여 여러 연구교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게임을 활용한 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 홍보 및 협력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의 게임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경기도평생학습포털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게임으로 자녀와 소통하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 강좌의 개설 목표는 자녀가 좋아하는 게임의 순기능을 살펴보고, 자녀의 게임 분야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개설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게임문화활성화 전담 기관인 경기게임문화센터에서 제작해서 공유하고 있다.

20) 위의 자료, 2024b.

21) 위의 자료, 2024b.

4. 나오는 글

게임 리터러시 교육은 컴퓨터 및 모바일 게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사용법을 익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교육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게임 리터러시 교육은 크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 다양한 게임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학교, 도서관,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진행되며, 게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긍정적인 활용법을 교육하는 것이 목표다. 둘째, 교육용 게임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교육자는 게임을 교육 도구로 활용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문제 해결 능력과 협력 및 의사소통 기술을 기를 수 있다. 셋째, 게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는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게임 중독, 폭력성, 온라인 괴롭힘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다루며, 이에 대한 인식 개선과 대응 방법을 교육한다. 마지막으로, 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를 통해 부모와 교사가 학생들의 게임 사용을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경북테크노파크의 ‘슬기로운 경북 게임 리터러시’가 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의 디지털 역량과 게임 리터러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게임 기획 강연, 보드게임 기획 체험, 게임 제작 교육, 학부모 대상 특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진행하는 ‘유아 게임 리터러시’ 사업도 있다. 이 사업은 만 3~6세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교사와 부모를 위한 교육도 포함된다. 교육 방식으로는 활동북 및 교구 배포, 뮤지컬 공연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된다.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과 전북글로벌게임센터는 ‘전북 게임문화

가족캠프’를 개최하여 가족 단위 게임 활동과 게임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 캠프에서는 게임 제작 교육, 가족 게임 대회, 게임공감 토크쇼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가족 간 소통과 게임의 긍정적 활용을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게임 리터러시 확산을 위한 또 다른 활동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게임 리터러시 영상 콘텐츠 제작 및 배포’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게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을 활용하며, 학생들이 직접 게임 관련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용 게임 콘텐츠 개발은 주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교육부가 주도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국어, 수학, 과학 등 다양한 교과목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게임이 개발되었으며, 온라인 연수와 수업 지도안이 제공된다.

부모와 교사를 위한 교육도 강화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문화재단은 부모를 위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며, ‘보호자 게임 리터러시 교육’에서는 게임문화와 지도법을 다룬다. 또한, ‘교사 게임 리터러시’ 사업을 통해 교사들이 게임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온라인 연수, 집합 연수, 연구교사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교육에서 게임 활용 교육을 활성화하고, 게임의 긍정적 가치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처럼 게임 리터러시 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청소년, 유아, 가족, 교사, 부모 등 다양한 대상에게 게임의 긍정적인 활용법과 교육적 가치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 리터러시 교육의 저변 확대가 예상보다 지체되고 있으며, 개발한 교육용 프로그램의 성능과 기능에도 많은 한계점을 보인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경기콘텐츠진흥원, 『2023년 게임 리터러시 영상 콘텐츠 제작배포 운영』, 2023.
- 경북테크노파크, 『슬기로운 경북 게임 리터러시 기획 및 운영 용역 제안요청서』, 2023.
- 김양은, 「게임 리터러시에 관한 시안적 연구」, 『게임산업저널』 8호, 한국콘텐츠진흥원, 2005, 58-84쪽.
- 요한 하위징아 저, 이종인 역, 『호모 루덴스』, 연암서, 2010.
- 윤태진, 『디지털게임문화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8.
- 이미식, 「게임 리터러시(game literacy)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초등학교 도덕과 수업의 방향과 실제에 관한 연구」, 『윤리교육연구』 51호, 2019, 137-160쪽.
-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2022년 게임 리터러시 교육 행사운영 용역」, 2022.
- 지스툴 게임리터러시교육, <https://www.gschoool.or.kr>, 2025.01.23.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4 교사 게임 리터러시 위탁용역 제안요청서』, 2024b.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4 유아 게임 리터러시 위탁용역』, 2024a.
- 한국콘텐츠진흥원, 『교실 속 게임 이용활용 교육 '학생 영상 콘텐츠 공모전' 운영계획』, 2023.
- Buckingham, David & Burn, Andrew, “Game Literacy in Theory and Practice”, *J. of Educational Multimedia and Hypermedia*, vol. 16, no. 3, 2007, pp.323-349.
- Frasca, Gonzalo, “Simulation versus Narrative: Introduction to Ludology”, *The Video Game Theory Reader*, Mark J. P. Wolf & Bernard Perron eds., New York: Routledge, 2003.
- Gee, James, *What Video Games Have to Teach Us About Learning and Literac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3.
- Huizinga, Johan, *Homo Ludens: A Study of the Play-Element in*

Culture, 1938.

Zagal, José, “A Framework for Games Literacy and Understanding Games”, *Proceedings of the 2008 Conference on Future Play: Research, Play, Share*, 2008.

Zimmerman, Eric, “Gaming Literacy: Game Design as a Model for Literacy in the 21st Century”, *The Video Game Theory Reader 2*, Bernard Perron & Mark J. P. Wolf eds., New York: Routledge, 2009.

■ 국문초록

게임 리터러시 교육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게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활용법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게임 리터러시 교육은 컴퓨터 및 모바일 게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돕기 위해 진행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게임 리터러시 교육은 네 가지 주요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학교, 도서관,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다양한 게임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활용 방안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교육용 게임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으며, 일부 교육자는 게임을 학습 도구로 활용하여 학생들이 문제 해결 능력, 협력, 의사소통 기술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게임의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는 교육이 진행되며, 게임 중독, 폭력성, 온라인 괴롭힘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다루고 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이들이 학생들의 게임 이용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청소년, 유아, 가족, 교사, 부모 등 다양한 대상에게 게임의 긍정적 활용과 교육적 가치를 확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주제어● 게임 리터러시, 리터러시, 게임,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교육

■ Abstract

A Study on the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Game Literacy Education

Lee, Aramchan / Mokwon University

In the Republic of Korea, game literacy education is operated primarily by the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and the Game Culture Foundation with the aim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games and educate on their proper usage. It is conducted to improve comprehension of computer and mobile games while teaching appropriate ways to utilize them. Led by the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and the Game Culture Foundation, various institutions collaborate to provide these education programs. Currently, game literacy education is categorized into four main types.

First, diverse game literacy education programs are implemented in schools, libraries, and online platforms, with the goal of increasing understanding and promoting positive game utilization. Second, educational game content is being developed, and some educators incorporate games as learning tools to help students develop problem-solving abilities,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skills. Third, education aimed at spreading a positive perception of games is conducted, addressing negative aspects such as game addiction, violence, and online bullying, while teaching ways to improve awareness of these issues. Lastly, education for parents and teachers plays a crucial role, helping them understand and effectively guide students' game usage.

Through these efforts, game literacy education focuses on expanding the positive utilization and educational value of games for various audiences, including youth, children, families, teachers, and parents.

Keyword • Game Literacy, Literacy, Game,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Game Education

■ 논문투고일:2025.02.16. ■ 심사완료일:2025.03.06. ■ 게재확정일:2025.03.11. ■

국어과 예비교사를 위한 문학 비평 교육 강의 사례 연구*

: K대학교 문예비평론 강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 지 윤**

목 차

1. 서론
2. 국어과 예비교사와 문학 비평 교육
3. 문예비평론 강의 과정 및 실행 결과
4. 결론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2022학년도 2학기에 실시된 K대학교 국어교육과 전공 선택 과목 ‘문예비평론’의 강의 설계 과정, 강의 실행 결과를 토대로 국어과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문학 비평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문예비평론은 국어교육과,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학과 등의 국어 관련 학과 전공과목으로 개설되는 강의로, 학습자들이 다양한 비평 이론을

* 본 논문은 2023년 8월 9일 한국문학교육학회 제93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꼼꼼하게 발표문을 읽고 토론해 주신 충북대학교 박수진 선생님과 고견을 주신 심사자 선생님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 전지윤(단독저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문연구원

강의식으로 배운 뒤 이를 바탕으로 한 비평문을 읽거나 직접 비평문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연구는 국어과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삼을 경우, 강의 설계의 방향이 국어국문학과나 문예창작학과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문예비평론 강의와는 달라야 한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다. 국어과 예비교사가 교육 대상이라면 문학 비평 이론을 습득하고 비평문을 작성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문학 비평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문예비평론’과 ‘비평 교육론’이 각각 다른 전공과목으로 개설되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비평 교육론’ 강의를 따로 개설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문예비평론에 비평 교육론의 성격을 더한 한 학기의 강의를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중점을 두었다.

대학에서의 비평문이나 비평 교육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교양교육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¹⁾ 문학 관련 전공과목으로서 문예비평론과 관련된 대표적인 선행 연구로는 이혜원의 논의²⁾를 들 수 있다. 해당 논의에서는 시

1) 강정화,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독서토론과 비평문 쓰기 교육 방안 연구: 김애란의 『달려라, 아비』를 중심으로」, 『대학교양교육연구』 제8권 제2호, 배재대학교 주시경교양교육연구소, 2023, 158-182쪽; 김슬기, 「시민성 함양을 위한 문학 비평 수업 사례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1권 17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1, 871-889쪽; 김원희, 「대학생의 비판적 읽기와 창의적 쓰기 위한 지도 방안」,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16권 2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2, 375-395쪽; 오현진, 「워크숍을 활용한 대학생 글쓰기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비평문 쓰기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제90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12, 57-86쪽; 이순옥, 「독서 자료를 활용한 비평적 글쓰기 방안」, 『한국사상과 문화』 제94호, 한국사상문화학회, 2018, 279-308쪽; 이종문, 「비평적 에세이 쓰기를 통한 문학교육 연구-포항대학교 간호학과 <문예창작및강독>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6, 691-716쪽; 조희정, 「대학 교양 수업의 비평문 쓰기 교육 연구: 내용 생성 전략을 중심으로」, 『작문연구』 제12집, 한국작문학회, 2011, 359-396쪽; 한주희, 「『사회적 공감』 교육 모형을 활용한 대학 글쓰기 수업 방안 연구: 비평문 쓰기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4권 6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4, 573-589쪽.

2) 이혜원, 「대학 비평 교육의 개선을 위한 시론」, 『한국문예창작』 제18권 제2호, 한

대 변화에 대응하는 비평 교육의 방향 전환을 역설하며 비평 교육의 목적으로 ‘비판적 능력’, ‘문화적 능력’, ‘창의적 능력’의 제고라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그에 부합하는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다. 선행 연구가 이론 연구의 성격을 갖는다면, 본 연구는 강의 사례 연구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선행 연구가 문학 전공자를 포괄한다면 본 연구는 국어과 예비교사로 그 대상을 국한한다. 연구자가 ‘국어과 예비교사를 위한’ 문예비평론 수업을 의도하여 설계하였으므로 강의의 수강 과정에서 국어과 예비교사들이 무엇을 성취하였는지에 대한 고찰은 물론, 추후 국어교육과의 문예비평론 강의를 설계하고 개선하는 데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2. 국어과 예비교사와 문학 비평 교육

‘비평(批評)’은 대상에 대한 미적 태도를 지닌 상황에서 대상을 이해·해석하는 활동과 그 과정에서 얻은 기준과 미적 경험을 통해 대상을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활동³⁾을 의미한다. ‘문학 비평’은 문학이란 무엇이며, 한 편의 문학작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작가가 지닌 세계관은 무엇인지, 어떤 창작 기법이 쓰였고 미적 가치가 있는지⁴⁾ 등을 논의하는 것이다. 문학 비평 담론은 인간, 역사,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젠더 등 인간사의 거의 모든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학습자들은 문학 비평 활동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접하기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나 신념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기도 한다. 또한 문학 비평 활동은 한 편의 문학작품을 읽은 후 주관적 감상에 그치지 않고 비평 이론을 토대로 객관적 분석으로 나

국문예창작학회, 2019, 9-37쪽.

3) 김혜련·김혜숙, 「“비평(批評)”이라는 용어에 대한 반성적 고찰」, 『국어교육』 제 147집, 한국어교육학회, 2014, 297쪽.

4) 정우봉, 「한국 한문학비평사 서술의 방향 모색」, 『한국한문학연구』 제64호, 한국한문학회, 2016, 164쪽.

아가는 비평문을 작성하는 작업이므로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중시하는 ‘수용과 생산’을 유의미하게 연결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기도 하다. 실제로 2015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작품의 수용과 생산’을 하나의 연속된 문학 현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문학교육의 내용인 ‘문학’은 바로 ‘문학현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은 문학의 감상과 이해를 넘어서서 수용과 생산을 하나의 연속적 현상으로 파악하고 경험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⁵⁾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과정·기능의 하위 범주에 ‘작품 읽기와 이해, 해석과 감상, 비평, 창작’을 설정하고, 비평과 관련된 성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공통 교육과정>

[9국05-08] 근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다른 해석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해석을 평가한다.⁶⁾

<선택 중심 교육과정-공통 과목>

[10공국2-05-02] 주제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⁷⁾

<선택 중심 교육과정-일반 선택 과목>

[12문학01-07]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감상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에 대해 비평한다.⁸⁾

위와 같은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관련하여 국어과 예비교사들에게 유의미한 문학 비평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문학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지닐 수 있는, ‘문학 수업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강의 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 문학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지녀야 할 문학 수업의 전문성은 ‘문학의 전문성’과 ‘수업전문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발휘될 수 있다.

5) 구인환·박인기, 『문학교육론』, 삼지원, 2017, 449-450쪽 참조.

6) 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2022, 54쪽.

7) 교육부, 위의 책, 2022, 95쪽.

8) 교육부, 위의 책, 2022, 137쪽.

먼저 문학의 전문성은 교사가 문학에 대한 전문가적 소양과 비평적 안목을 잘 갖추고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문학 교사는 특정한 문학 텍스트나 작가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와 정전화된 해석의 근원들을 탐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안목을 갖추 필요가 있다. 문학을 가르치는 교사는 하나의 문학작품을 학습자들에게 가르칠 때, 제재로 선택된 작품을 분석하여 그 제재에서 무엇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교사가 문학 수업을 준비하며 행하게 되는 이 같은 과정은 비평가의 비평 활동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비평가 역시 하나의 문학 텍스트를 비평하고자 할 때 먼저 텍스트를 읽고 그 텍스트에서 어떤 부분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기술해 나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문학 비평의 과정과 방식이 문학교육의 과정에도 유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문학 교사는 문학에 대한 일정 수준의 전문적인 비평적 감식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문학 비평가의 주관적인 텍스트 분석의 결과들은 문학교육의 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것은 문학 교사의 문학 비평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⁹⁾

다음으로, 수업전문성은 교사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전문적 활동 중 가장 핵심적인 활동에 해당하는 ‘수업에 대해 요구되는 전문적인 능력’을 뜻한다. 수업 전문성을 지닌 교사는 공통적으로 교과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관심, 흥미, 수준이나 교실 여건에 따라 자신의 수업을 적합한 형태로 변형할 줄 알고 적절한 교수법을 적용할 수 있다.¹⁰⁾

국어과 예비교사들이 문예비평론 강의를 통해 이러한 문학 수업의 전

9) 구인환·박인기, 앞의 책, 366-367쪽 참조.

10) 정재찬·최인자·김근호·염은열·이지영, 『문학교육개론 1 : 이론편』, 역락, 2014, 226-227쪽 참조.

문성을 함양하기 이전에 전제되면 좋을 가장 바람직한 조건은 학습자의 입장에서 ‘유의미한 문학 비평 수업’에 직접 참여해 본 경험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 중고등학교 문학 수업 현장에서 학습자들에게 문학작품을 감상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사유를 재정비할 수 있는 비평 교육, 그리고 비평문 쓰기의 경험이 충분히 부여되고 있지는 못하다고 판단된다. 이 강의 수강생들의 답변만으로 모든 중고등학교 현장에 유의미한 문학 비평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문예비평론 강의를 맡은 후 학습자들과 대면한 1주차 오리엔테이션 때 ‘문학작품을 읽고 비평문을 작성해 본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모든 학습자가 작성해 본 경험이 없다고 답한 일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위와 같은 이론적 토대 및 수강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문예비평론 강의를 국어과 예비교사들의 ‘문학의 전문성’과 ‘수업 전문성’을 신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하고자 했다. ‘문학의 전문성’은 문학 비평 이론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비평문을 직접 작성해 보는 활동으로, ‘수업전문성’은 학습자나 교실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고 문학 비평 수업을 구상해 보는 활동으로 구체화하였다.

3. 문예비평론 강의 과정 및 실행 결과

충남 소재의 K대학교 국어교육과 ‘문예비평론’은 3학점의 3학년 2학기 전공 선택 과목으로, 매주 3시간씩 운영되는 강의이다. 이 강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다.

현대 문학작품을 읽고 해석하는 다양한 비평의 이론과 방법론들을 익히고 비평의 실천적 능력을 기르는 교과목이다. 문학 텍스트가 다양한 접근에 의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해석되고 다른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는 이론적 학습과 체험을 통하여 문학을 보는 안목을 확장하게 된다. 다양한 비평의 이론과 방법론을 적용하여 비평문을 작성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평 수업을 구상해 봄으로써 현장 중심의 문학 수업 활용 역량을 기른다.

II장에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국어과 예비교사들의 문학의 전문성과 수업전문성 신장을 학습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다음 표와 같이 15주차의 강의계획을 수립하고, 1주차 오리엔테이션 때 수강생들에게 이를 안내하였다.

[표 1] ‘문예비평론’ 주차별 강의계획

주차	진행방식	내용
1주차	강의	강의 소개 및 강의계획 안내, 자기소개
2~7주차	강의	비평 이론 강의, 비평문에 대한 설명
8주차	실습	비평문 작성하기
9~10주차	발표 및 피드백	비평문 개별 발표와 피드백
11주차	토의	문학교육과 문학 비평의 관계에 대한 토의
12주차	실습	나만의 비평 수업 구상하기
13~14주차	발표 및 피드백	나만의 비평 수업 개별 발표와 피드백
15주차	평가	기말고사

강의를 듣는 수강생은 3학년 10명, 4학년 1명의 총 11명으로, 모두 국어교육과 전공생이었다. 모든 수강생이 고학년에 해당했으나 비평 이론에 대한 지식이나 비평 교육의 경험은 부족한 상태였고, 사전 조사 결과 모두 제대로 된 한 편의 비평문을 작성해 본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비평 이론을 배운 후 비평문을 작성하고 비평 수업을 구상한 결과물에 대해 발표와 동료 피드백을 진행한다는 강의계획을 듣고 부담스러워하는 학습자도 있었다.

2주차에서 6주차는 강의식으로 다양한 비평 이론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때 강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는 비평 이론은 국어과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학교 현장에서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역사주의 비평, 전기 비평, 정신분석 비평, 형식주의 비평, 신비평, 독자반응비평으로 선

별하였다. 비평 이론에 대해 강의한 후에는 전문성을 지닌 문학 평론가들의 비평을 예시로 제공하고 함께 읽는 시간을 가졌다. 문학 평론가들은 자신의 문학적 감수성과 문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문학 외적인 수많은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문학작품을 이해하고 평가한다. 비평 수업을 듣는 학습자들은 이러한 문학 평론가들의 비평문을 접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감상과 평가가 다양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문학 감상과 평가에 내재하는 비평가의 주관성 역시 알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문학작품을 감상할 때 전문적인 비평가의 비평문을 제공하는 것은, 문학을 학습자들에게 역동적으로 체험시킴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작품에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¹¹⁾ 도울 수 있다. 각 비평 이론을 강의하며 활용한 문학 평론가들의 비평문 목록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 문예비평론 강의에서 활용한 비평문 목록

비평이론	저자	비평문 제목
역사주의 비평	염무웅	개인사에 음각된 민족사-이호철론 ¹²⁾
전기비평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¹³⁾
정신분석 비평	이상우, 이기한, 김순식	없음 ¹⁴⁾
형식주의 비평	권영민	박태원, 소설적 기법의 발견 ¹⁵⁾
독자반응 비평	이명원	위안의 서사, 문학적 대중주의 ¹⁶⁾

11) 구인환·박인기, 앞의 책, 2017, 373-374쪽 참조.

12) 염무웅, 「개인사에 음각된 민족사」, 『이호철 문학선집 6』, 국학자료원, 2001, 133-150쪽 참조.

13) 김윤식, 『이광수와 그 시대』, 한길사, 1986, 559-563쪽 참조.

14) 이상우·이기한·김순식, 『문학 비평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2002, 202-206쪽 참조. 정신분석 비평의 예시로 활용한 글은 해당 개론서의 ‘심리주의 비평’을 설명하는 부분에 삽입된 것으로, 제목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음을 밝힌다.

15) 권영민, 「박태원, 소설적 기법의 발견」, 『한국현대문학사 1』, 민음사, 2002, 459-464쪽 참조.

16) 이명원, 「위안의 서사, 문학적 대중주의」, 『마음이 소금밭인데 오랜만에 도서관에 갔다』, 새움, 2014, 86-90쪽 참조.

7주차는 비평문의 개념, 감상문과 비평문의 차이, 비평문의 구성, 비평문의 종류 등을 중심으로 ‘비평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활동지를 제작하여 강의를 진행하였다. 비평문에 대한 설명이 끝난 뒤에는 8주차에 진행될 학습자들의 비평문 작성 활동을 위한 준비 단계의 질문¹⁷⁾을 마련하여 비평 대상 작품을 선정하고 어떤 비평 이론을 적용할 것인지 미리 생각해 보도록 안내하였다.

8주차는 중간고사로 비평문을 작성하는 시간이었다. 비평문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는 현대소설 또는 현대시로 국한하되,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였다. 학습자들은 이전에 배운 비평 이론과 자신이 선택한 비평 텍스트를 연결하여 비평문을 작성하였다.¹⁸⁾

17) ‘비평문 작성하기’ 활동을 위한 준비 단계의 질문은 다음과 같이 6개를 제공하였다.

1. 문학작품의 제목과 작가는 무엇인가?
2. 어떻게 이 문학작품에 주목하게 되었는가? 왜 읽게 되었는가?
3. 문학작품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무엇인가?
4. 문학작품을 읽고 느낀 점, 생각한 점, 깨달은 점은 무엇이었는가?
5. 이 문학작품으로 비평문을 작성한다면, 무엇에 초점을 맞춰 쓸 수 있을 것인가?
6. 이 문학작품을 비평하기 위해 필요한 비평 이론(방법)은 무엇인가?

18) 학습자들이 선택한 비평 이론과 비평 텍스트를 간단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학습자	비평 이론	장르	비평 텍스트
학습자1	형식주의 비평	현대시	이형기, 「낙화」
학습자2	전기비평	현대소설	김동식, 「회색 인간」
학습자3	정신분석 비평	현대소설	김승옥, 「무진기행」
학습자4	전기비평. 독자반응비평	현대소설	박완서, 「석양을 등에 지고 그림자를 밟다」
학습자5	정신분석 비평	현대소설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학습자6	정신분석 비평	현대소설	최은영, 「신짜오, 신짜오」
학습자7	정신분석 비평	현대소설	이장욱, 「고백의 제왕」
학습자8	전기비평. 형식주의 비평	현대시	이옥사, 「절정」
학습자9	형식주의 비평	현대소설	손창섭, 「비 오는 날」
학습자10	정신분석 비평	현대소설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학습자11	독자반응비평	현대소설	은희경, 「특별하고도 위대한 연인」

9주차와 10주차는 8주차에 작성한 비평문을 각각 발표하고, 이에 대한 동료 피드백과 교수 피드백을 진행하였다. 한 편의 비평문에 대한 동료 피드백은 모든 학습자가 참여하도록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두로 피드백을 주고받도록 안내하였다. 학습자들의 선체험의 차이에 따라 문학 텍스트를 수용하는 능력에는 크고 작은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다른 학습자의 비평문을 읽어 보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작품 이해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서, 텍스트의 수용 능력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문학 비평은 비평문을 작성하는 개별 학습 독자들의 내적 능력 확충이란 측면에서 개인적 효용을 담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 독자들이 그 결과를 동료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보다 확장되는 사회적 효용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판단¹⁹⁾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주차는 학습자들이 문학교육과 문학 비평의 관계에 대해 사유해 보고, 12주차에 진행될 ‘나만의 문학 비평 수업 구상하기’ 활동을 위한 준비 단계의 질문²⁰⁾ 제공한 후 활동지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12주차는 ‘나만의 문학 비평 수업 구상하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활동지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중심으로 수업 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19) 임성규, 「비평적 글쓰기를 통한 문학 교수-학습 방법 탐구」, 『국어교육연구』 제 42집, 국어교육학회, 2008, 147쪽.

20) ‘나만의 문학 비평 수업 구상하기’ 활동을 위한 준비 단계의 질문은 다음과 같이 5개를 제공하였다.

1. 수업의 대상은 누구인가?
2. 교과 시간과 비교과 시간 중 언제를 선택할 것인가?
3. 비평 텍스트는 어떤 갈래의 어떤 작품을 선택할 것인가?
4. 전체 수업을 몇 차시로 구성할 것인가?
5. 문학 비평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얻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가?

[표 3] ‘나만의 문학 비평 수업 구상하기’ 활동지 항목

- | |
|--|
| 1. 내가 선택한 작품/작가
2. 작품 발췌 부분
- 시의 경우 전문, 소설의 경우 비평의 대상으로 삼을만한 부분을 발췌
3. 수업 대상
4. 차시 구성
5. 비평을 위한 활동 질문
6. 학생들에게 제공할 유의 사항 |
|--|

이 활동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5번의 ‘비평을 위한 활동 질문’과 6번의 ‘학생들에게 제공할 유의 사항’ 부분이다. 먼저 ‘비평을 위한 활동 질문’은 비평문을 작성하는 중고등 학습자들이 스스로 비평의 지점을 찾기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문학 텍스트는 ‘의미의 불확정성’을 고유한 특성으로 지니기 때문에 텍스트와 관련된 질문은 필수적으로 문제 해결로서의 의미 구성을 촉진하게 되고, 이는 학습자들의 경험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게 된다.²¹⁾ 국어과 예비교사가 이 질문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비평 이론을 토대로 작품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중고등 학습자들에게 이 질문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가 고민되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제공할 유의 사항’은 비평문의 분량이나 구성 방법, 비평을 위한 활동 질문의 활용 방법, 비평문에 대한 동료 피드백 방법 등에 대해 생각해 보고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가상의 수업 상황과 수업 대상을 상정하여 구상하는 것이지만, 최대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함으로써 ‘문학 비평 수업’에 대한 충분한 사유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13주차와 14주차는 12주차에 진행한 ‘나만의 비평 수업 구상하기’ 결과물을 모든 학습자가 발표하도록 하고, 동료 피드백과 교수 피드백을 진행하였다. 15주차는 기말고사로 이론에 대한 서술형 지필평가를 실시하여 학기를 마무리했다.

21) 김남희, 「성장의 관점에서 본 질문 중심 문학교육의 의미 탐색」, 『문학교육학』 제69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20, 71쪽.

위와 같은 강의 진행 과정에 따른 학습자들의 활동 결과물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학습자의 결과물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지면 관계상 ‘비평문 작성하기’ 결과물 한 편과 ‘나만의 문학 비평 수업 구상하기’ 결과물 한 편을 선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학습자 7의 ‘비평문 작성하기’ 결과물이다.

[표 4] 학습자 7의 ‘비평문 작성하기’ 결과물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이유

학습자 7

우리가 자신에게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은 언제인가? 소설가 이장옥은 우리가 자신으로부터 가장 벗어나고 싶을 때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가까워진다고 이야기한다. 삶과 세계의 위기 속에서 자아가 위태로움의 봉우리에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이면을 바라본다. 자아의 균형이 깨질 때 우리는 그 사이로 새어 나오는 원초아를 엿보는 것이다. 작가는 그 불균형을 문학으로 승화하였지만, 그의 소설 속 인물들은 다른 양태를 띤다. 특히 <고백의 제왕> 속 광이라는 인물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우리를 주시하는 근원적 시선으로부터의 두려움과 끌림을 설명한다. 아이는 부모를 통해 사회의 규범과 이상을 배운다. 특히 남자는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도덕과 양심을 발달시키는데, 문제가 되는 건 아버지가 없거나 있더라도 상당한 결함이 있는 경우이다.

“광의 아버지는 광이 어릴 때부터 두 집 살림을 했다고 한다. 광의 어머니는 강인한 여자였기 때문에 식당의 굶은일을 혼자 해내면서 광과 광의 누이를 키웠다. 하지만 광의 아버지가 찾아 오는 날이면 기이하게도 약하다약한 여자가 되더라는 거였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맞으면서도 매번 울며 매달렸다. 광은 그걸 견딜 수 없었다. 그런 것이 바로 여자라는 사실을 나는 진심으로 혐오했습니다. 라고 광은 회상에 잠긴 채 말했다.”

나와 무관한 사람은 어떠한 행동을 해도 크게 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다. 하지만 나와 관련된 사람이 무언가 멍청하고 미련한 행동을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특히 그것이 내가 사랑해 마지않는 사람이라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 나는 큰 분노와 실망을 느낄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내가 그를 너무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광의 어머니를 향한 충족되지 않는 사랑은 어머니에 대한 혐오로 흐르고 더 나아가 여성에 대한 혐오로 자리 잡는다. 아버지의 존재는 증오의 대상으로 남겨지고, 근친상간적 욕망과 성장의 기회를 잃은 초자아는 방치된다. 어머니에게서 충족되지 못한 사랑은 그와 가장 닮은 여성인 누이에게로 옮겨 간다.

“나는 누이를 사랑했다. 그것이 광의 첫마디였다. 그 사랑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지만. 광이 덧붙였다.”

“광은 누이 앞에서 낮고 무심한 음성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한다. 죽어버려. 죽어버리라구. (중략) 광의 누이가 정말 자살을 결행한 것은 그 며칠 뒤였다고 한다.”

누이를 사랑했지만, 그의 마음속엔 어머니로부터 비롯된 여자라는 존재에 대한 편견과 불신이 깔려 있었고 그것은 결국 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광은 동일시할 대상으로서의 아버지를 갖지 못하였고 초자아를 충분히 발달시키지 못했다. 즉 그의 자아는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원초아에 크게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그의 고백은 하나의 비극이 되어 ‘나’를 비롯한 동아리 사람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이것이 사람들이 광을 피하면서도 그에게 묘하게 끌리는 이유이다. 광의 고백은 우리의 원초적인 모습과 닮아있어 우리 안의 숨어있는 감정을 꺼내고 그것을 정화하도록 돕는다. 광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일종의 ‘소설’로서 기능한다. 작가도 이러한 광의 기능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말을 하면서 ‘그’나 ‘그녀’ 같은 문어체를 쓰는 사람은 광이 처음이었지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의 고백에 이끌리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자기 자신에게 탐닉할 때 느껴지는 집중력으로 매번 광의 이야기를 경청한 것은, 바로 우리였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광은 정서를 촉발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마침내 동화시킨다. 그는 고백과 완전히 한 몸이 되어 끝내는 고백 없이도 그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자아에 위기를 초래한다. 우리는 균형을 잃어 가는 자아가 외치는 비상벨 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리의 무의식에 접근하여 그것을 입으로 술술 불게 되는 것이다. 광은 우리 모두를 하나의 소설로 만든다. 그의 역할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을 우리 모두에게 넘기는 것이다. 사실 원초아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잠재되어 있으니 그를 대신한다든지 없던 것이 생겨난다든지 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이러한 불편한 공존은 결국 죽어야만 끝이 난다.

“K의 죽음조차 하나의 긴 고백 같다는 어이없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K는 이제야 겨우 고백을 끝내고 안식에 든 것인지도 몰랐다.”

심연을 들여다보면, 심연 역시 그대를 들여다본다고 했었나. 무의식의 형상은 우리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를 집어삼킬지도 모른다. 이장옥의 소설을 읽을 때 느껴지는 근원을 알 수 없는 낯선 감각과 두려움은 깊은 어딘가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광의 존재는 비극의 효과가 인간의 심리에 어떻게 관련을 맺는지를 설명하면서도 무의식의 성욕이나 공격성 등이 다루어지는 방식을 제시한다. 우리는 평생 하나의 방을 함께 써야만 하는 불편한 동거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학습자 7은 이장옥의 「고백의 제왕」이라는 현대소설을 비평 대상으로 삼아 정신분석 비평 이론을 적용하여 비평문을 작성하였다. 특히 프로이트 이론의 ‘원초아’, ‘초자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등의 개념을 활용하여 주인공 ‘곽’을 분석하고 그의 이야기가 소설 속 타인들에게, 그리고 소설 밖 독자들에게 주는 카타르시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다음으로 학습자 8의 ‘나만의 문학 비평 수업 구상하기’ 결과물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학습자 8의 ‘나만의 문학 비평 수업 구상하기’ 결과물

나만의 문학 비평 수업 구상하기		
이름	학습자 8	
내가 선택한 작품/작가	이상화 「나의 침실로」	
작품 발췌 부분	원문 생략	
수업 대상	고등학교 2학년 학습자 28명	
차시 구성	1차시	- 작품 읽고 기초질문에 답변해 보기 - 모둠별로 친구들과 답변 내용을 공유하고 수정/보완하기
	2차시	- 상호텍스트를 읽고 심화/재질문에 답변해 보기 - 모둠별(4인씩 총 7모둠 구성)로 친구들과 답변 내용을 공유하고 수정/보완하기 - 비평문에서 사용할 질문 및 답변 고르기 - 글쓰기 계획 세우기
	3차시	- 비평문(초고) 쓰기
	4차시	- 퇴고 및 제출하기 - 모둠별로 친구들과 비평문을 공유하고 포스트잇에 인상적인 부분, 나와 생각이 같거나 다른 부분, 공감 가는 부분을 작성해 돌려주기 - 내가 받은 인상적인 피드백을 자유롭게 자원하여 발표하기
비평을 위한 활동 질문	〈나의 침실로〉 - 1차시 기초질문 1. 화자가 피하고 싶어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나요? 2. 화자가 그것들에 ‘피곤함’을 느끼거나 ‘두려워 떠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 화자에게 ‘마돈나’는 어떤 존재인 것 같나요? 4. 화자에게 ‘침실’, ‘부활의 동굴’은 어떤 공간인 것 같나요? 5. 화자가 마돈나에게 ‘침실’로 가자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침실로> - 2차시 심화/재질문

상호텍스트 1

이상화의 <나의 침실로>는 그의 나이 18세에 창작되었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어린 나이에도 그의 인생에 대한 사유는 현세보다 내세에 더욱 천착했던 것 같다. 이는 조국 상실이라는 시대 상황과 3.1운동의 좌절 때문으로 인한 비판적 또는 염세적 경향을 시적 발상 동기로 짐작해 볼 수 있다.²²⁾

1. 화자가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2. 화자가 그것들에 '피곤함'을 느끼거나 '두려워 떠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 여러분에게 '피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상호텍스트 2

'마돈나'는 시인과 영원한 나라로 함께 가야 할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반드시 이성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시인이 아끼며 애정을 느끼는 사람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흔히 애인이라고 표현한다. 언어 일반적인 사회 통념으로는 이때의 애인이란 이성을 말한다. 그러나 애인이란 반드시 이성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그 대상은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자매일 수도 있으며 친구일 수도 있고 물론 이성일 수도 있다. 마돈나가 어머니라는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쨌거나 그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임에는 틀림 없다. 이런 뜻에서 '마돈나'의 위상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이성으로서의) 애인을 포함하여 그 대상이 많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 곧 서정자이인 자신일 수도 있다.²³⁾

1. 화자의 '마돈나'는 어떤 대상을 지칭한다고 생각하나요?
2. 여러분에게 '마돈나'는 누구인가요?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로 데리고 가고 싶은 1인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이 열망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상호텍스트 3

현실에서 만족하지 못한 시인은 상상의 세계 속에서 현실 세계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려 하고 있다는 생각이 가능해진다. 해소 방법으로 우울과 절망의 현세를 벗어나 기쁨과 희망이 있는 이상세계로의 탈출을 꾀한다. 그러므로 이 시에서 서정자가 머무르고 싶은 곳은 현상세계인 '지금, 여기'가 아니라 가야 할 미래의 세계인 '거기, 그곳'이다. (…중략…) 그곳은 죽어 서만이 도달할 수 있는 영원한 공간이다. 현상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비리와 부정도 없는 맑고 깨끗한 공간인 것이다. 그 아름답고 영원한 세계에는 우울이나 불안 등 정신적 방해물이 없는, 행복만이 존재하는 나라이다.²⁴⁾

비평을 위한
활동 질문

비평을 위한 활동 질문	(…중략…) 화자가 추구한 죽음과 부활의 세계는 생명력 지향, 뉘우침과 두려움, 고난 등의 과정을 수용하여 존재론적 의미를 다시 획득할 수 있는 제3의 세계이다. 그곳은 아름답고 오랜 나라로 표상되어 있다. 화자는 생명력의 회복, 자유, 자아의 통합, 상호행위의 조화를 이루는 제3의 세계로 부활을 시도한 것이다. 그것은 꿈속에 있는 것이다. 1. 화자에게 ‘침실’, ‘부활의 동굴’은 어떤 의미인가요? 2. 여러분에게 ‘침실’, ‘부활의 동굴’ 같은 곳이 있다면 어디인가요? 3. 화자는 현실의 불만을 해소하려는 어떤 시도를 했나요? 4. 화자의 시도는 현실의 불만을 해소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나요? 5. 여러분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했던 행동에는 무엇이 있나요?
학습자 유의 사항	<학습자 유의 사항> 1. 초고는 수업 시간 내에 완성하여 제출한다. 2. 비평문의 구성은 ‘서론-본론-결론’의 3문단을 기본으로 하되, 5문단까지 허용한다. 3. 비평문의 분량은 1,100자 이상 ~ 1,300자 이하로 제한한다. 4. 기초질문에는 공통적으로 모두 답변한다. 5. 심화/재질문은 선택적으로 답변하되 개인 경험을 묻는 질문은 모두 답변한다. 6. 비평문에는 작품 및 상호텍스트와 관련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은 선택적으로 포함하되, 개인 경험을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은 모두 포함한다. 7.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화자의 행위를 평가하도록 한다. 8. 작품 및 상호텍스트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자유롭게 공유하되, 개인 경험 및 감상을 나눌 때는 타인의 발언을 비방하거나 비하하지 않아야 한다.
교사 유의 사항	<교사 유의 사항> 1. 작품 지도의 핵심은 시대 상황에 근거한 감상적 낭만주의적 경향이 아니므로 작품의 시대적 배경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않도록 한다. 2. 기초 질문은 학습지로 제공하고, 심화/재질문은 PPT로 제시한다. 학습자들이 선택한 질문을 적을 수 있도록 칸을 비워둔 학습지를 제공하여 사고의 변화/심화 과정을 명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 3. 순회 지도를 통해 피드백을 제공하며, 학습자들이 ‘회피 상황’에 대한 경험 기술을 어려워하는 경우 적절한 예시를 제공한다. (예) 열심히 준비했던 시험에서 크게 망한 일이 있어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지는 않음 / 친구랑 싸웠을 때 손절 당한 경험이 있어서 친구를 깊게 사귀진 않음 /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부모님은 들어주지 않으니 엄마랑 말하기 싫음 / 난 화가가 되고 싶은데 부모님이 교사가 되라고 해서 공부를 하지 않음. 등.

4. 순회지도 피드백 시 지나치게 성적(性的)으로 접근하는 학습자가 있을 경우, 질문의 의도에 적합한지 생각해 보게 한다. 충분한 생각 시간을 제공한 뒤에도 성적인 표현을 발산한다면 이 자체를 제재하지 말고 인정하고, 문학적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심화 질문으로 유도하여 자신이 떠올린 경험에 대해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한다.

학습자 8은 기존의 문학 교실에서 1920년대 감상적 낭만주의의 대표작으로 접근되는 이상화의 「나의 침실로」라는 작품을 독자반응비평 이론을 중심으로 학습자들이 자신의 삶과 연계하여 비평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비평 수업을 구상하였다. 비평을 위한 활동 질문을 ‘기초질문’과 ‘심화/재질문’으로 세분화하고, 유의 사항 역시 ‘학습자 유의 사항’과 ‘교사 유의 사항’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통해 수업에 대한 면밀한 고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나만의 문학 비평 수업 구상하기’ 결과물의 기ולם체로 표시된 부분은 학습자 8이 기존의 수업 구상안에 동료 피드백과 교수 피드백을 받은 후 수정한 부분이다. 비평문을 작성하기 위해 중고등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는 질문이나 학습자 유의 사항, 교사 유의 사항 등에 주로 피드백을 반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료 피드백의 내용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비평문의 제재가 되는 작품의 해석과 관련된 피드백이다. 중고등 학습자에게 제시하는 해석 질문을 수정하거나 보다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피드백이 이루어졌다. 위의 표에서 ‘비평을 위한 활동 질문’의 2차시 심화/재질문 부분에 기ולם체로 표시된 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중고등 학습자들이 비평문을 작성할 때의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된 피드백이다. 위의 표에서 ‘학습자 유의 사항’의 비평문의 분량

22) 이재식, 「〈나의 침실로〉의 이상세계」, 『반교어문연구』 제19호, 반교어문학회, 2005, 213쪽. 해당 부분의 인용은 학습자8에 의한 것임을 밝힌다.

23) 이재식, 위의 연구, 2005, 196-197쪽 참조. 해당 부분의 인용은 학습자8에 의한 것임을 밝힌다.

24) 이재식, 위의 연구, 2005, 197-198쪽 참조. 해당 부분의 인용은 학습자8에 의한 것임을 밝힌다.

과 관련된 피드백이나 ‘교사 유의 사항’의 활동지 제공 방법과 관련된 피드백, 순회지도 시 학습 분위기 조성과 관련된 피드백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를 통해 국어과 예비교사들이 ‘나만의 문학 비평 수업 구상하기’ 활동을 수행하며 비평의 대상이 되는 작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해석하게 됨으로써 ‘문학의 전문성’을, 중고등 학습자들에게 보다 유의미한 비평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 측면을 고민해 ‘학습자 유의 사항’이나 ‘교사 유의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수업전문성’을 기르게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문학 비평 수업 구상안을 발표하고 동료 피드백과 교수 피드백을 진행한 후에는 피드백 사항을 반영하여 학기 말에 과제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강의 소감 나누기를 진행했을 때 학습자들은 자신이 작성한 비평문과 비평 수업 구상안에 대해 피드백을 받은 것이 큰 도움이 되었고, 다른 학습자들의 비평문과 비평 수업 구상안을 살펴본 경험도 유의미했다고 이야기하였다.

4. 결론

이 연구에서는 국어과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문학 비평 교육은 ‘문학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지닐 수 있는, ‘문학의 전문성’과 ‘수업전문성’을 복합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수업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문학의 전문성’은 문학 비평 이론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비평문을 작성해 보는 활동으로, ‘수업전문성’은 학습자나 교실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고 문학 비평 수업을 구상해 보는 활동으로 구체화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강의 사례에서 교수자의 수업 성찰을 바탕으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강의에서는 기존 문예비평론 강의에 비해 생태주의 비평, 페미니즘 비평, 탈식민주의 비평 등과 같은 비교적 최신의 비평 이론

들을 다루지 못하였다. 교육과정 내에서 다루는 주요 비평 이론을 강의식 수업의 대상으로 삼았으나, 국어과 예비교사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한편의 문학작품을 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론 수업을 진행할 때 최신 비평 이론으로의 내용 확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비평문 작성하기’의 대상이 되는 비평 텍스트와 ‘나만의 문학 비평 수업 구상하기’ 활동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가 가능하면 통일될 필요가 있다. 해당 강의에서는 학습자들이 비평문 작성을 위한 텍스트와 문학 비평 수업 구상을 위한 텍스트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안내하였기 때문에 학습자 11을 제외하고는 모두 두 활동에 각각 다른 텍스트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제재로 비평문을 작성하고 비평 수업을 구상해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듯하다.

셋째, 해당 강의에서는 ‘나만의 문학 비평 수업 구상하기’ 활동만 동료 피드백과 교수 피드백을 진행한 후 이를 반영하여 수정한 최종본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그러나 수강생 구성이나 주차별 강의계획을 고려한 후, 가능하다면 ‘비평문 작성하기’ 활동 역시 동료 피드백과 교수 피드백을 반영한 수정본을 제출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학습자들에게 더 유의미한 활동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비평문 작성하기’와 ‘나만의 문학 비평 수업 구상하기’에 대한 동료 피드백 진행 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종종 일부 학습자들은 피드백을 받는 것을 지적당하거나 비판당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 이 강의에서는 구두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그러나 내용면, 형식면에서의 평가 기준을 설정하여 평가표를 글로 작성하고, 이를 공유하는 것이 학습자들에게 더욱 유의미한 피드백 과정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평가 기준의 경우 교수자가 만들어 제공해 주는 것보다는, 강의를 수강하는 학습자들과 함께 설정해 활용하는 것

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어과 예비교사의 문학의 전문성과 수업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강의가 되기 위해서는 되도록 강의 수강생이 소수 인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수강 인원이 너무 많을 경우 이 강의의 핵심인 비평문을 작성하고 문학 비평 수업을 구상하는 두 가지 활동에 대한 동료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진행되더라도 피상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국어과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문예비평론 강의의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제시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한 학기의 강의 사례를 바탕으로 하며, 11명이라는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추후 동일한 과목의 강의 사례를 누적하여 연구를 지속함으로써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2022.
- 구인환·박인기, 『문학교육론』, 삼지원, 2017.
- 권영민, 「박태원, 소설적 기법의 발견」, 『한국현대문학사 1』, 민음사, 2002.
- 김윤식, 『이광수와 그 시대』, 한길사, 1986.
- 염무웅, 「개인사에 음각된 민족사」, 『이호철 문학선집 6』, 국학자료원, 2001.
- 이명원, 「위안의 서사, 문학적 대중주의」, 『마음이 소금밭인데 오랜만에 도서관에 갔다』, 새움, 2014.
- 이상우·이기한·김순식, 『문학 비평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2002.
- 정재찬·최인자·김근호·염은열·이지영, 『문학교육개론 I:이론편』, 역락, 2014.
- 강정화,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독서토론과 비평문 쓰기 교육 방안 연구: 김애란의 『달려라, 아비』를 중심으로」, 『대학교양 교육연구』 제8권 제2호, 배재대학교 주시경교양교육연구소, 2023, 158-182쪽.
- 김남희, 「성장의 관점에서 본 질문 중심 문학교육의 의미 탐색」, 『문학교육학』 제69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20, 53-84쪽.
- 김슬기, 「시민성 함양을 위한 문학 비평 수업 사례 연구」,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제21권 17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1, 871-889쪽.
- 김원희, 「대학생의 비판적 읽기와 창의적 쓰기를 위한 지도 방안」,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16권 2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2, 375-395쪽.
- 김혜련·김혜숙, 「"비평(批評)"이라는 용어에 대한 반성적 고찰」, 『국어교육』 제147집, 한국어교육학회, 2014, 267-303쪽.
- 오현진, 「읽크숍을 활용한 대학생 글쓰기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비평문 쓰기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제90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12, 57-86쪽.

- 이순옥, 「독서 자료를 활용한 비평적 글쓰기 방안」, 『한국사상과 문화』 제94호, 한국사상문화학회, 2018, 279-308쪽.
- 이재식, 「〈나의 침실로〉의 이상세계」, 『반교어문연구』 제19호, 반교어문학회, 2005, 183-214쪽.
- 이종문, 「비평적 에세이 쓰기를 통한 문학교육 연구-포항대학교 간호학과 <문예창작및강독>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6, 691-716쪽.
- 이혜원, 「대학 비평 교육의 개선을 위한 시론」, 『한국문예창작』 제18권 제2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9, 9-37쪽.
- 임성규, 「비평적 글쓰기를 통한 문학 교수-학습 방법 탐구」, 『국어교육 연구』 제42집, 국어교육학회, 2008, 143-168쪽.
- 정우봉, 「한국 한문학비평사 서술의 방향 모색」, 『한국한문학연구』 제64호, 한국한문학회, 2016, 164쪽.
- 조희정, 「대학 교양 수업의 비평문 쓰기 교육 연구-내용 생성 전략을 중심으로-」, 『작문연구』 제12집, 한국작문학회, 2011, 359-396쪽.
- 한주희, 「‘사회적 공감’ 교육 모형을 활용한 대학 글쓰기 수업 방안 연구: 비평문 쓰기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4권 6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4, 573-589쪽.

■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2022학년도 2학기에 실시된 K대학교 전공 선택 과목 ‘문예비평론’의 강의 설계 과정, 강의 실행 결과를 토대로 국어과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문학 비평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문학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지녀야 할 문학 수업의 전문성은 ‘문학의 전문성’과 ‘수업전문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발휘될 수 있다. 문학의 전문성은 교사가 문학에 대한 전문가적 소양과 비평적 안목을 잘 갖추고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수업전문성은 교사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전문적 활동 중 가장 핵심적인 활동에 해당하는 ‘수업에 대해 요구되는 전문적인 능력’을 뜻한다. 연구자는 문예비평론 강의를 ‘문학의 전문성’은 문학 비평 이론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비평문을 직접 작성해 보는 활동으로, ‘수업전문성’은 학습자나 교실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고 문학 비평 수업을 구상해 보는 활동으로 구체화하였다.

본 연구는 국어과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문예비평론 강의의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제시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한 학기의 강의 사례를 바탕으로 하며, 11명이라는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추후 동일한 과목의 강의 사례를 누적하여 연구를 지속함으로써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국어교육, 문학교육, 문학 비평 교육, 문예비평론, 국어과 예비교사, 강의 사례 연구

■ Abstract

A Case Study of Literature Criticism Education Lecture for Korean Pre-service Teachers : Based on the case of K University's Korean Literary Criticism lecture

Jeon, Ji Yun /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literary criticism education for pre-service Korean language teachers based on the lecture design process and the results of the lecture execution of the K University major elective course “Korean Literary Criticism” conducted in the second semester of 2022.

The professionalism of the literature, which must be possessed as a teacher of literature, can be demonstrated when the ‘professionalism of literature’ and ‘teaching professionalism’ work in combination. The professionalism of literature is related to the question of whether the teacher has a good professional knowledge and critical eye for literature. Teaching professionalism refers to the ‘professional ability required for the class’, which is the most essential activity among various professional activities required of the teacher. The researcher embodied the lecture on literary criticism as ‘professionalism of literature’ is an activity to learn the theory of literary criticism and write criticism directly based on this, and ‘teaching professionalism’ is an activity to virtually set a learner or classroom situation and conceive a literary criticism clas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presented an example that can help set the direction of literary criticism lectures for pre-service Korean language teachers. However,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the results because it is based on the lecture cases of one semester and targets a small number of 11 people. Therefore, it should be supplemented by accumulating lecture cases in the same subject in the future and continuing the research.

국어과 예비교사를 위한 문학 비평 교육 강의 사례 연구
: K대학교 문예비평론 강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전지윤

Keyword • Korean language education, Literature education, Literary criticism education, Korean literary criticism lecture, Korean pre-service teachers, Lecture case study

■ 논문투고일:2025.02.16. ■ 심사완료일:2025.03.12. ■ 게재확정일:2025.03.17. ■

문화유산콘텐츠 서비스품질이 감정반응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 희 성**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결과
5. 결론 및 제언

1. 서론

2024년 기준 243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3.3%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행정안전부에 발표에 의하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10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 2024). 이러한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공공안전, 교육, 복지 등 필수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지방소멸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의 팽창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비수도권의 인

* 이 연구는 2025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문화예술학과 교수

구유출은 지역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지역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과 지역만의 차별성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로컬콘텐츠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보다 지역소멸의 위기를 겪은 세계 여러 도시에서는 지역 기반 콘텐츠로서 문화유산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화유산은 지역이라는 특수성과 그 지역만이 지닌 고유성이라는 특징을 내세워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지역발전과 진흥의 촉매제로 활용되어 왔다(조해진, 2019).

하이퍼로컬(Hyperlocal)커머스(Commerce)¹⁾시대에는 행정적 지역 경계가 아닌 생활 반경을 중심으로 경제와 문화 영역의 개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로컬콘텐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개성 있는 분야에서 산업 활동이 확산되며 지역 경제와 지역문화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지역 상품은 지역의 고유한 오리지널리티를 지니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그에 대한 수요도 증대되고 있다(노수경 외, 2024). 인구감소에 따른 변화는 가까운 시기에 지역 위기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로 인한 도시 축소는 유희 공간이 확대되게 하고, 이 공간을 문화적으로 활용하여 도시가 변모하는 형태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도시의 역사 자원이 중요한 문화유산콘텐츠로 작용하여 보존과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문화유산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활용은 미진하였고, 방향 또한 올바르다고 평가할 수 없다.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과 활성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또

1) 하이퍼로컬(Hyperlocal)은 '지역밀착'이라는 뜻이고 상품을 의미하는 커머스(Commerce)와 연결되면 '하이퍼로컬 커머스' 곧, '지역밀착형 상품 서비스'를 의미한다. 하이퍼로컬 커머스는 동네 커뮤니티, 지역 중고거래, 지역광고 등 주로 지역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뜻하며 지역 특화 상품, 지역 맞춤형 제품 생산과 같이 포괄적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한, 무분별한 문화유산콘텐츠 확산에 대한 경계로 보존과 활용이라는 엇갈린 주장이 상호 간의 갈등으로 이어졌다(조일형 외, 2023). 활용에 대한 대부분의 접근은 관광이나 문화콘텐츠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화유산콘텐츠를 통한 경제적 효과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문화적 효과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문화유산 자체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면서 과거지향적인 보존과 복원에 치중하는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 현대인에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문화적 공헌을 할 수 있는 현실 참여적인 활용 방안의 모색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이진우, 2018).

문화유산콘텐츠는 전통문화를 현실에 효과적으로 접목 시키면서 현대에도 문화적 의미를 발휘하여 사회 구성원 간의 원활한 문화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 현대에도 문화적 의미를 발휘할 수 있는 문화유산만이 공동체로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전승이 이루어지고 공익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유산콘텐츠의 유형 중 하나로 국가 문화유산청은 2016년부터 문화유산 야행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2023년을 기준으로 총 전국적으로 47개의 문화유산 야행이 진행되었다(강정구 외, 2024).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유산 야행은 지역의 역사와 인물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차별화된 지역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다(이호정, 2018). 최근 지역문화에 대한 정체성 확립과 지역문화 고유성 상실 등 문화유산콘텐츠가 지역문화와 불일치성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유산콘텐츠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지역콘텐츠에 비해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송혜원, 202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23 대전문화유산야행 방문객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콘텐츠의 서비스품질이 감정반응 및 행동의도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여 문화유산콘텐츠의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1) 문화유산콘텐츠와 서비스품질

문화유산은 역사적, 학문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과거의 유산이자, 삶과 선조들의 흔적이기에 이를 보존하고 그 가치를 미래 세대에 전하는 것은 현재 세대의 중요한 의무이다. 이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을 기본으로 그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이 문화유산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신은희·윤재은(2017)은 문화유산이란 인간 공동체와 집단 환경, 자연, 역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재창조해 온 지식, 기술, 공연 예술, 문화적 표현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조윤희(2003)는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은 최근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문화콘텐츠는 미디어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문화적 요소와 예술적 요소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문화적 상징들이 융합되어 탄생한 결과물로, 여러 소통 채널을 통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설명할 수 있다(강현구 외, 2005).

이치현(2013)은 문화유산콘텐츠를 문화콘텐츠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며, 전통 문화유산의 형태와 의미를 기반으로 제작된 콘텐츠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송혜원(2024)은 문화유산콘텐츠는 문화유산이 지닌 고유한 가치와 콘텐츠를 융합하여 제작된 창작물로 보았으며, 여기서 문화유산의 가치는 보존의 측면과 콘텐츠의 가치는 활용의 측면과 연결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서비스품질은 서비스가 본질적 요소인 이질성, 소멸성, 무형성, 비 분리성 등의 특성으로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으로, 소비자가 인지한 서비스의 우수성과 관련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얻어지는 지각된 서비스 품질로 정의할 수 있다.

이은자·조철호(2017)는 서비스품을 서비스의 총체적인 기능과 특성이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며, 서비스 품질은 고객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기대품질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기대-불일치 모형을 제시하며 서비스품질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Grönroos(1982)에 따르면, 서비스품질은 고객이 기대하는 서비스와 실제로 지각한 서비스 간의 비교를 통해 결정된다고 설명된다. 심상화(2010)는 이용자 중심의 시각에서 축제 장소에서 제공되는 행사, 프로그램, 각종 부대 서비스 및 축제 시설 등을 포함하여 참여자가 경험을 통해 느끼는 유·무형의 서비스품질로 설명하고 있다. 송성하(2000)는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광고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인지된 서비스품질 수준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문화유산콘텐츠의 서비스품질이 우수할 경우 참가자의 만족도는 높아지며 이는 긍정적 구전, 재참가 의도, 타인 추천과 같은 행동으로 이어져 문화유산콘텐츠 활용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유산콘텐츠 서비스품을 이용자가 문화유산콘텐츠와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하기 전의 기대와 경험 이후의 인식 간의 차이라고 정의하였다.

2) 감정반응

감정은 외부 자극에 의해 유발된 신체적 반응과 행동적 표현으로 나타

나는 정서적 반응이며 단순히 불쾌하거나 즐거운 상태로만 나뉘지 않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경험이다. 반면에 정서는 주로 생리적 활동에 기반한 단일 차원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에 비해 감정은 과거의 경험, 주관적인 느낌과 지각된 정보의 해석을 포함하여 보다 넓고 깊은 의미를 가지는 개념으로 이해된다(류인평·정총화·이정섭, 2018).

Oliver(1997)는 감정과 정서를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두 개념을 구분하여 설명한다. 정서는 본능적이고 심리적인 감각과 느낌을 나타내는 반면, 감정은 다양한 정서와 이를 자극하는 상태, 그리고 정서에 대한 인지적 해석까지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감정은 정서보다 인지적인 측면이 강조된 개념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감정반응은 경험을 통해 물리적 환경 자극이 발생하는 감정(이희성, 2020)으로 심리학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백경미(2016)는 감정, 정서, 느낌 등 유사한 용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이들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간주하였다. 이를 지역 축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 속에서 환경적 자극에 의해 발생하는 감정으로 정의하였다. Batra(1986)도 감정 반응을 정서, 분위기 및 동기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듯 감정반응은 외부 자극에 의해 신체적 흥분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행동적 반응으로 단순히 유쾌함이나 불쾌함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복잡하고 풍부하며 포괄적인 감정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세준 2013).

감정반응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된 만큼 그에 대한 측정 척도도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다. 감정반응 측정에 대한 척도를 살펴보면, Mehrabian & Russell(1974)가 개발한 PAD (pleasure-arousal-dominance) 척도, Plutchik(1980)가 개발한 8 가지의 기본 감정 척도, Russell & Pratt(1980)의 PA(Pleasure-Arousal) 척도, Watson, Clark

& Tellegen(1988)가 개발한 PANAS(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Schedule) 척도, Richins(1997)가 개발한 CES(Consumption Emotion Set) 척도와 한국 학자인 이학식·임지훈(2002)가 개발한 CREL (Consumption-Related Emotions List) 척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행동 분야와 마케팅 분야 연구에서 소비자의 감정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PAD 모델을 적용하였다. PAD 모델은 즐거움(Pleasure), 환기(Arousal), 지배(Dominance)의 3차원 감정반응으로 구성되어 있다. 즐거움(Pleasure)이란 어떤 자극에 대하여 즐겁다고 느끼는 정도로서 인간들이 느끼는 기쁨, 행복, 만족, 즐거움 등의 의미로 볼 수 있다. 환기(Arousal)는 어떤 자극에 대하여 졸림에서 영광에 이르기까지 느끼는 정도로 고무됨, 자극됨, 흥분됨 등의 정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지배(Dominance)는 한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제약이 없거나 혹은 자유로운 환경을 통해 느끼는 기분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정반응을 문화유산콘텐츠의 경험적 자극을 통해 방문객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정적, 긍정적 기분으로 정의하였다.

3) 행동의도

행동의도는 특정 행동을 하려는 의지로, 합리적 행동이론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되며 인간 행동의 예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Ajzen, 1991). 이는 고객의 미래 행동에 대한 의지나 선호를 표현하는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김정준 2018). 이미지나 만족에 앞서 작용하는 요인으로, 특정 행동을 이끄는 개인의 의지나 신념을 의미한다(Ajzen 2002). 행동 의도는 실제 행동보다 더 중요한 개념으로 내적인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내적인 행위는 실제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지만, 외적인 행위는 항상 내적인 행위에 의해 수반된다고 볼 수 있다(박경숙, 2004).

장소에 초점을 둔 행동의도는 재방문 의향이나 추천 의향을 포함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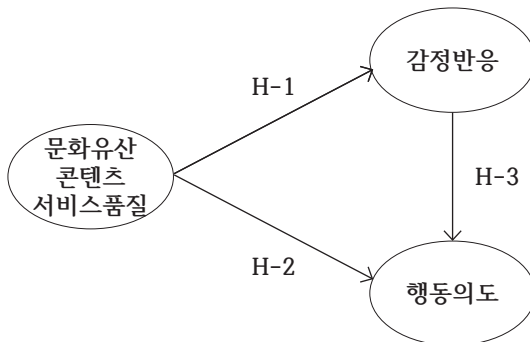
개념으로, 관광객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된다(오정근 2010). 행동의도는 충성도나 사후 행동의 형태로 나타나며, 관광 행사 분야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는 목적지에 대한 재방문 의사와 가능성을 의미하며, 두 번째는 타인에게 추천하거나 긍정적인 구전을 전하는 것을 뜻한다(박동진, 손광영 2004; 김익중, 박승영 2012).

관광 산업에서도 행동 의도는 재방문 의사, 긍정적 구전 또는 추천 의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이진영, 2015). 행동 의도의 정의는 학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구전 의도, 재방문 의도, 추천 의도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분되며, 이를 선택적으로 행동 의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하고 있다(박수지, 2020).

3. 연구의 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본 연구는 국가유산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활용사업인 대전동구 문화유산야행에 참가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문화유산콘텐츠 서비스품질이 방문객의 감정반응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구조적인 영향 관계를 검증하고자 선행연구를 토대로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1) 서비스품질과 감정반응 간의 관계

박명주·이정실(2005)과 손유찬·함정도(2004), 김종관과 정강환(2015)은 서비스품질과 감정반응 사이의 영향관계를 규명하였고, 이정란과 문주현(2010)도 보령머드축제 서비스품질이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서비스품질요인 중 확신성, 공감성, 신뢰성, 반응성과 감정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김경자 등(2018)은 서비스품질이 고객의 긍정적 감정반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유형성, 반응성, 확신성이 감정반응과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기존 연구자들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가설1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문화유산콘텐츠 서비스품질은 감정반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2) 서비스품질과 행동의도 간의 관계

김경희(2010)와 김현철(2014)은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서비스품질 구성요소로 공감성, 신뢰성, 확신성, 유형성, 반응성, 프로그램 적절성, 내용성, 전문성의 요인으로 분류하였고, 참가자의 만족도 및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관계를 규명하였다. 양해운과 전인오(2013)도 반응성, 유형성, 해설성, 편의성, 진정성, 전문성의 6개 차원이 행동의도의 정적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 선행연구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가설2를 설정하였다.

가설 2. 문화유산콘텐츠 서비스품질은 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3) 감정반응과 행동의도 간의 관계

감정반응과 행동의도의 상관관계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규명하고 있으

며(곽비송과 이정실, 2015;김규영과 이정은, 2014;김승리와 김혜영,2014;최윤동과 서재열,2022) 김주연과 안윤주(2016)도 박람회 방문객의 긍정 및 부정적 감정반응이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관계를 확인하였고, 신현식과 전영철(2013)도 전시콘텐츠 방문객의 감정반응이 만족과 관계지속성의 영향관계를 규명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가설3을 설정하였다.

가설 3. 감정반응은 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구성

본 연구는 문화유산콘텐츠 서비스품질이 감정반응과 행동의도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측정도구를 구성하였고,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리하였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

변수 명	조작적 정의	문항 수	측정 척도	연구자
문화유산 콘텐츠 서비스품질	문화유산콘텐츠와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하기 전의 기대와 경험 이후의 인식 간의 차이	22문항	리커트 7점척도	심상화(2010) 송성하(2000) 양해윤과 전인오(2013)
감정반응	문화유산콘텐츠를 경험적 자극을 통해 방문객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정적, 긍정적 기분	10문항	리커트 7점척도	Mehrabian & Russell(1974) Batra(1986) Oliver(1997) 이희성(2020)
행동의도	문화유산콘텐츠 참여 경험을 통해 태도가 형성된 후 미래 행동을 나타내려는 개인의 의지와 신념	3문항	리커트 7점척도	박동진, 손광영 (2004) 김정준(2018) 박수지(2020) Ajzen(2002)
인구통계적 특성	-	12문항 7문항	명목 척도	연구자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유산(옛 문화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의미를 확산하여 관리, 보존 및 활용을 제고하고 국민 누구나 국가유산을 즐겁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중 문화유산야행은 이를 토대로 지역의 특색 있는 대표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야간’이라는 시간대에 펼쳐냄으로써 지역 활력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유산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운영되는 2023 대전 동구 문화유산야행으로 지역 내 문화유산과 그 주변의 문화 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야간에 특화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유산을 매개로 한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주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목적교’를 비롯하여 대전의 원도심인 중구와 동구 일대에 남아있는 근대문화유산은 문화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일뿐 아니라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대전은 1905년 경부선철도가 부설되면서 철도교통의 요충지가 됐고, 1914년 호남선까지 개통됨에 따라 철도교통의 중심도시로 지금까지 급속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으며, 이때 만들어진 철도역사, 교량, 터널, 관사 등은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아픔과 함께 대전의 근대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2023 대전 동구 문화유산야행은 ‘심쿵한 달밤, 달달한 소제’라는 주제로 대전광역시 동구가 주관하였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8야(夜)라는 주제를 만들어 야경-빛의 유혹, 야로-달밤소풍, 야설-슬기로운 야행생활, 야사-골목놀이터, 야화-사진전, 야시-야간장터, 야경-동구 먹어야행, 야숙-머물며 즐기는 동구 등 다양한 체험 및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자료수집은 2023 대전문화유산야행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설문문항은 3개 변수에서 3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본 추출은 방문객 편의

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방식 채택하였고, 유의미한 설문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응답자들에게 설문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조사원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응답자가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23년 5월 24일~5월 25일(2일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총 320부를 배포하여 300부가 회수되었으며, 불성실한 1부를 제외한 총 299부가 조사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연구의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방문형태

본 연구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방문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 비율은 여성(63.2%)이 남성(36.8%)보다 높았다. 연령대는 20대 미만(12.4%)부터 70대 이상(3.7%)까지 폭넓게 분포하고 있으나, 20~29세(22.1%)와 30~39세(19.1%)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직업 분포에서는 학생(23.4%)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주부(15.7%), 회사원(15.1%)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대전 지역(76.6%) 응답자가 주를 이루었으며, 방문 경험 측면에서는 올해 처음 방문했다는 응답이 80.9%로 가장 높았다. 참여 경로는 ‘여행 혹은 나들이’(46.8%)가 우세했고, 동반형태는 가족(43.5%) 및 친구·연인(41.8%) 방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동기로는 ‘자발적 참여’(55.2%)가 과반 이상을 차지해 비교적 주체적인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수단은 대중교통(41.1%)과 자가용(29.8%)이 주요하였으며, 정보 출처로는 옥외홍보물(19.4%), 주변사람 추천(18.4%) 등이 복합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유산 방문객의 상당수가 가족·친구와 함께 자발적으로 방문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획득한다는 점에서, 향후 홍보 전략과 교육 프로그램 구성 시 온라인 채널 연계성 및 방문 동기별 맞춤형 콘텐츠 제공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표 2] 인구통계적 특성 및 방문행동 빈도분석

인구통계적 특성			방문행동 빈도분석		
항목		빈도	항목		빈도
성별	남성	110(36.8%)	참여 경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56(18.7%)
	여성	189(63.2%)		교육 및 학습	23(7.7%)
연령	20대 미만	37(12.4%)		여행 혹은 나들이	140(46.8%)
	20~29세	66(22.1%)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서	56(18.7%)
	30~39세	57(19.1%)		단체프로그램이어서	9(3.0%)
	40~49세	54(18.1%)		기타	15(5.0%)
	50~59세	42(14.0%)	동반 형태	단체	5(1.7%)
	60~69세	32(10.7%)		가족	130(43.5%)
	70대 이상	11(3.7%)		친구/연인	125(41.8%)
직업	농업/어업/ 축산업/임업	3(1.0%)		혼자	33(11.0%)
	제조업	10(3.3%)	방문 동기	기타	6(2.0%)
	서비스업	26(8.7%)		자발적으로	165(55.2%)
	공무원	15(5.0%)		타인추천을 통해	34(11.4%)
	자영업	26(8.7%)		지나가다 우연히	94(31.4%)
	전문직	17(5.7%)		기타	6(2.0%)
	회사원	45(15.1%)	교통 수단	도보	79(26.4%)
	주부	47(15.7%)		자가	89(29.8%)
	학생	70(23.4%)		대중교통	123(41.1%)
거주지	기타	40(13.4%)		단체버스	2(0.7%)
	대전	229(76.6%)		기타	6(2.0%)
	타지역	70(23.4%)	정보 습득	대중매체	38(12.7%)
방문 경험	올해처음방문	242(80.9%)		인쇄매체	20(6.7%)
	2회방문	31(10.4%)		인터넷포털	42(14.0%)
	3회 방문	10(3.3%)		SNS의 홍보게시글	38(12.7%)
	4회 방문	1(0.3%)		옥외홍보물	58(19.4%)
	5회 이상 방문	15(5.0%)		주변사람의 추천	55(18.4%)
				이전 방문 경험	6(2.0%)
				기타	42(14.0%)

2)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문화유산콘텐츠 서비스품질이 방문객의 감정반응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 각의 항목별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1) 문화유산콘텐츠 서비스 품질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본 연구 표본의 문화유산 콘텐츠 서비스품질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문화유산콘텐츠 서비스품질 항목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요인		항목	요인 적재량	고유 값	분산 설명력	Cronbach's α
서비스 품질	내용성	놀거리가 충분하다	0.811	5.792	26.32	0.931
		볼거리가 충분하다	0.790			
		행사장 근처 볼거리와 놀거리가 충분 하다	0.705			
		문화재의 특성이 잘 반영되었다.	0.638			
		체험시설을 이용할 공간 규모가 적당 하다	0.612			
		프로그램의 내용이 참신했다.	0.589			
		문화재 야행에 전반행정적으로 만족 한다	0.575			
		편의시설(화장실, 주차장, 휴게 공간 등)이용이 용이하다.	0.567			
		셔틀버스 및 주차시설 등이 잘 갖추어 져 있다	0.535			
	신뢰성	진행요원(자원봉사자)의 안내는 충분 하다	0.844	5.264	23.92	0.959
		진행요원(자원봉사자)의 안내는 신속 하다.	0.805			
		행사장의 구조물은 주제를 잘 담고 있 다	0.769			
		행사장이 각 구조물은 매력적이다	0.723			
		안내 표지가 잘 되어 있다	0.663			
		행사장의 구조물은 전체적으로 조화 롭다	0.618			

서비스 품질	공감성	관람동선 안내가 잘 되어 관람이 용이했다.	0.708	3.689	16.76	0.918
		행사장 시설은 청결하다	0.669			
		프로그램 내용의 이해가 쉬웠다.	0.579			
		사전홍보를 통해 행사 내용 및 일정을 쉽게 확인했다.	0.565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시설(음향, 좌석 등)이 갖춰있다.	0.546			
	편리성	문화재 및 행사장을 찾기가 쉽고, 교통수단이 편리했다.	0.844	2.605	11.84	0.922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0.703			
설명된 총분산=78.863%, KMO=.957, Bartlett's 구형성검증=7173.83, df=231, p=.000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문화유산 콘텐츠 서비스 품질 요인을 4개로 산정하였으며, 각각의 요인명은 “내용성”, “신뢰성”, “공감성”, “편의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별 Cronbach's α 값이 0.7 이상으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본 연구의 측정도구가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척도로 구성되었음을 증명하며, 향후 연구나 실무에서 활용에 충분한 신뢰성을 제공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행사 서비스 품질 요인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KMO 값이 0.957로 매우 높게 나타나 표본의 타당성이 충분함을 확인하였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역시 유의수준($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요인분석 수행이 적절함을 시사한다. 추출된 4개 요인의 고유값 합은 78.863%의 누적분산을 설명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가 각 구성 개념을 안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모든 요인에서 문항들의 요인적재값이 0.5 이상으로 나타나 수렴타당성이 확보되었으며, 각 요인의 Cronbach's α 계수 역시 0.9 이상으로 도출되어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내용성’($\alpha=0.931$), ‘신뢰성’($\alpha=0.959$), ‘공감성’($\alpha=0.918$), ‘편리성’($\alpha=0.922$) 등으로 명명된 요인들

은 문화행사 관람객이 인지하는 주요 품질 차원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감정반응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감정반응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결과는 [표 4]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감정반응 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결과 “지배”, “환기”, “즐거움”으로 요인명을 명명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KMO 값이 0.948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또한 유의수준($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므로 본 분석이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다. 추출된 세 요인이 전체 분산의 90.613%를 설명하여, 감정반응 측정도구가 각 요인을 효과적으로 포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지배($\alpha=0.895$), 환기($\alpha=0.919$), 즐거움($\alpha=0.934$)으로 명명된 각 요인의 Cronbach's α 계수가 모두 0.8~0.9대를 상회함에 따라, 높은 내부 일관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각 문항의 요인 적재값이 0.7 이상으로 나타나 수렴타당성 역시 충족되었다.

[표 4] 감정반응 항목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요인		항목	요인적재량	고유값	분산설명력	Cronbach's α
서비스 품질	지배	분위기에 압도당했다	0.849	4.138	41.38	0.895
		신기하다	0.817			
		자극된다	0.815			
		흥분된다	0.782			
		몰두했다	0.770			
	환기	행복하다	0.760	2.670	26.69	0.919
		유쾌하다	0.740			
		신난다	0.732			
	즐거움	즐겁다	0.869	2.253	22.53	0.934
		활기차다	0.737			
설명된 총분산=90.613%, KMO=.948, Bartlett's 구형성검증=3994.211, df=45, p=.000						

(3) 행동의도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행동의도 측정문항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결과 [표 5]와 같다., KMO값이 0.860으로 나타나 표본 적합도가 양호하였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도 유의수준($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한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이는 전체 분산의 86.716%를 설명하여 문항들이 동일 차원을 효과적으로 포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각 문항의 요인적 재값은 0.90 이상으로 높아 수렴타당성이 확보되었으며, Cronbach's α 계수 또한 0.955로 도출되어 측정도구의 내부 일관성이 매우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즉, ‘문화재 야행에 다시 참여하겠다’, ‘타인에게 추천하겠다’ 등 행동의도 문항들은 동일 개념을 안정적으로 측정하며, 본 척도는 향후 재방문의도 및 구전 의도를 비롯한 문화유산 행사 참가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기에 적합한 도구로 판단된다.

[표 5] 행동의도 항목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요인	항목	요인 적재량	고유값	분산 설명력	Cronbach's α
행 동 의 도	참가경험을 타인에게도 전달하겠다	0.940	4.138	41.38	0.955
	문화재 야행에 다시참여 하겠다	0.931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	0.923			
설명된 총분산=86.716%, KMO=.860, Bartlett's 구형성검증=677.690, df=3, p=.000					

3) 가설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문화유산콘텐츠 서비스품질이 방문객의 감정반응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 가설1 - 문화유산콘텐츠 서비스품질과 감정반응 영향 관계

가설1 “문화유산 콘텐츠 서비스품질이 감정반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표 6]과 같다. 지배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에서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설명력은 약 52.4%로 나타났다.

내용성($\beta = 0.397$, $p < .001$)과 신뢰성($\beta = 0.473$, $p < .001$)이 지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공감성과 편의성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기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 역시 유의미하였고, 설명력은 약 54.4%로 확인되었다. 이 모형에서도 내용성($\beta = 0.198$, $p < .05$)과 신뢰성($\beta = 0.544$, $p < .001$)이 환기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반면, 공감성과 편의성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6] 문화유산콘텐츠 서비스품질과 감정반응의 영향관계 분석 결과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i>t</i>	<i>p</i>
		B	표준오차	β		
지 배	(상수)	1.232	0.307		4.019	0.000
	내용성	0.414	0.093	0.397	4.443	0.000***
	신뢰성	0.500	0.081	0.473	6.179	0.000***
	공감성	-0.125	0.102	-0.115	-1.234	0.218
	편의성	-0.001	0.069	-0.001	-0.019	0.985

R²=0.524, 수정된R²=0.517, F=80.774, P-value=0.000***, Durbin-Watson : 1.989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i>t</i>	<i>p</i>
		B	표준오차	β		
환 기	(상수)	1.853	0.273		6.795	0.000
	내용성	0.188	0.083	0.198	2.270	0.024*
	신뢰성	0.523	0.072	0.544	7.269	0.000***
	공감성	0.068	0.090	0.069	0.752	0.453
	편의성	-0.057	0.061	-0.054	-0.928	0.354

R²=0.544, 수정된R²=0.538, F=87.834, P-value=0.000***, Durbin-Watson : 1.877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i>t</i>	<i>p</i>
		B	표준오차	β		
즐 거 움	(상수)	2.048	0.277		7.391	0.000
	내용성	0.247	0.084	0.256	2.935	0.004**
	신뢰성	0.604	0.073	0.617	8.259	0.000***
	공감성	0.004	0.092	0.004	0.048	0.962
	편의성	-0.168	0.062	-0.156	-2.690	0.008

R²=0.547, 수정된R²=0.541, F=88.766, P-value=0.000***, Durbin-Watson : 1.951

* $p < .05$, ** $p < .01$, *** $p < .001$

마지막으로 즐거움을 종속변수로 살펴본 결과 설명력은 약 54.7%로 나타났다. 내용성($\beta = 0.256$, $p < .01$)과 신뢰성($\beta = 0.617$, $p < .001$)은 즐거움에 대해 유의한 정(+)의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나, 편의성($\beta = -0.156$, $p < .01$)은 오히려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감성은 세 감정반응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이러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문화유산 콘텐츠 서비스품질 중 특히 내용성과 신뢰성이 지배·환기·즐거움 같은 감정반응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은 부분 채택되었다.

(2) 가설2 - 문화유산콘텐츠 서비스품질과 행동의도 영향 관계

가설2 “문화유산 콘텐츠 서비스품질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표 7]과 같다. 모형 전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설명력은 61.5%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 내용성($\beta = 0.285$, $p < .001$)과 신뢰성($\beta = 0.530$, $p < .001$)이 행동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신뢰성의 표준화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문화유산콘텐츠 서비스품질에서 신뢰적 요소가 행동의도를 결정짓는 핵심요인임을 시사한다. 한편 공감성과 편의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아, 이들 요인만으로는 방문객의 재참여나 구전 의도를 직접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다.

종합해보면, 문화유산콘텐츠 서비스품질 요인 가운데 내용성과 신뢰성이 이용자의 행동의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이는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풍부한 정보제공, 신뢰할 만한 운영과 안내가 재참여 및 추천 행동을 유발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2는 부분 채택되었다.

[표 7] 문화유산콘텐츠 서비스품질과 행동의의 영향관계 분석 결과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B	표준오차	β		
행동 의도	(상수)	0.735	0.273		2.695	0.007
	내용성	0.295	0.083	0.285	3.555	0.000***
	신뢰성	0.555	0.072	0.530	7.707	0.000***
	공감성	-0.004	0.090	-0.004	-0.045	0.964
	편의성	0.016	0.061	0.013	0.253	0.800
R ² =0.615, 수정된R ² =0.610, F=117.488, P-value=0.000***, Durbin-Watson : 2.176						

* $p<.05$, ** $p<.01$, *** $p<.001$

(3) 가설3 - 감정반응과 행동의도 영향 관계

가설3 “방문객의 감정반응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표 8]과 같다. 우선 전체 모형은 유의미하며 설명력은 67.7%로 나타났다. 이는 지배, 환기, 즐거움 등 세 가지 감정반응 변수가 행동의도 변동을 약 67.7% 설명함을 의미한다.

독립변수별로 살펴보면, 즐거움($\beta = 0.442$, $p = 0.000$)이 가장 높은 표준화계수를 보여 방문객의 행동의도에 가장 큰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지배($\beta = 0.279$, $p = 0.000$)와 환기($\beta = 0.159$, $p < .05$) 또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행동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문화유산 콘텐츠 체험 과정에서 방문객이 즐거움을 느낄수록, 그리고 스스로 분위기를 장악하고 활력을 느낄수록 재방문 의도나 타인에게 추천하려는 행동의도가 높아짐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설3은 채택되었다.

[표 8] 감정반응과 행동의도의 영향관계 분석 결과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B	표준오차	β		
행동 의도	(상수)	0.273	0.231		1.182	0.238
	지배	0.276	0.061	0.279	4.515	0.000
	환기	0.173	0.084	0.159	2.061	0.040
	즐거움	0.472	0.067	0.442	7.072	0.000

R²=0.677, 수정된R²=0.674, F=206.221, P-value=0.000***, Durbin-Watson : 2.074

* $p < .05$, ** $p < .01$, *** $p < .001$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문화유산콘텐츠 서비스품질의 구성요인을 도출하고 도출된 서비스품질이 참가자의 감정반응과 행동의도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지역의 역사성과 고유성을 담보한 로컬콘텐츠로서 문화유산콘텐츠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2023 대전문화유산야행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가설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가설 1인 "문화유산콘텐츠 서비스품질이 감정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성과 신뢰성이 감정반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신뢰성은 방문객의 감정반응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내용성 역시 긍정적인 감정, 특히 즐거움과 환기에 영향을 주었다. 반면, 공감성과 편의성은 감정반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고, 서비스품질에서 내용성과 신뢰성이 감정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설 2인 "문화유산콘텐츠 서비스품질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에 대한 분석에서도 내용성과 신뢰성이 방문객의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뢰성은 방문객의 재방문 의도와 추천 의도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쳤으며, 내용성 역시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

나 공감성과 편의성은 행동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으며, 내용성과 신뢰성이 방문객의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설1과 가설2의 결과는 단순한 방문 편의성보다는 콘텐츠의 내실과 운영의 신뢰성이 방문객의 경험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야행(밤夜, 다닐行)의 성격에 맞게 도심의 밤을 많이 돌아다니도록 해야 하는데, 방문객 편의성 제공하는 것은 야행만의 차별화된 콘텐츠 맞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설 3인 "감정반응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완전히 채택되었다. 분석 결과, 즐거움이 방문객의 행동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지배와 환기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방문객이 문화유산콘텐츠를 경험하면서 즐거움을 느낄수록, 재방문 의향과 추천 의향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감정반응, 특히 즐거움이 행동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시사점은 방문객이 문화유산콘텐츠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낄수록 향후 재방문 의향과 추천 의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문화유산 콘텐츠 기획 시 감성적 몰입과 재미 요소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감정반응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즐거움'이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유산콘텐츠는 문화유산으로서의 역사적 가치보다는 콘텐츠로서의 유희성을 통한 감성적 유대감이 향후 행동에 중대한 영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밤 시간대에 특별한 체험을 제공하는 문화 행사로서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의 기획과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주로 역사적 장소나 문화재를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낮 시간대 접하기 어려운 색다른 체험을 제공하고, 야경과 함께 문화유산을 새로운 시각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집중도 필요하다. 또한, 야행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 야간 탐방 프로그램 시 문화유산 해설사가 전달하는 이야기 재미를 강화하여 문화유산콘텐츠에 대한 흥미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학술적 성과로는 기존 연구에서는 문화유산 또는 일반적인 문화콘텐츠의 품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으나, 본 연구는 문화유산콘텐츠의 서비스 품질을 ‘내용성, 신뢰성, 공감성, 편의성’의 네 가지 요인으로 도출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문화유산의 활용 방식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본 연구는 실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실증적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다른 지역의 문화유산 콘텐츠 연구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대전문화유산야행 방문객을 대상으로 표본을 수집하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문화유산 콘텐츠 방문객에게 동일한 결과가 적용될 수 있는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서비스 품질을 ‘내용성, 신뢰성, 공감성, 편의성’의 네 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나, 방문객 경험을 보다 세부적으로 반영한 요인인 상호작용성, 접근성, 가격 적절성 등을 추가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문화유산콘텐츠의 기획 및 운영 전략 수립에 있어 중요한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문화유산 콘텐츠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방문객의 감성적 경험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기획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문화유산콘텐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보다 세부적인 서비스 개선과 장기적인 방문객 행동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강정구·박나영·김명용, 「문화재 야행이 지역 이미지와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국내 여행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역사와 융합』 제8권 3호, 바른역사학술원, 2024, 179-197쪽.
- 강현구, 『문화콘텐츠와 인문학적 상상력, 문화콘텐츠 총서』, 글누림, 2005.
- 곽비송·이정실, 「레스토랑의 체험마케팅의 속성과 감정반응, 브랜드태도, 행동의도간의 구조관계분석」, 『Tourism Research』 제40권 2호, 한국관광산업학회, 2015, 109-129쪽.
- 김경자·허진·박두영, 「한식당의 서비스품질이 감정반응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브랜드이미지의 조절효과」, 『관광레저연구』 제30권 5호, 한국관광·레저학회, 2018, 115-133쪽.
- 김경희, 「축제 서비스품질이 축제 이미지와 지각된 가치,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 김규영·이정은, 「관광목적지의 물리적환경이 감정적 반응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2권 7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4, 123-132쪽.
- 김세준, 「감정반응 요인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 김승리·김혜영, 「도보관광 목적지의 이미지, 감정적 반응, 행동의도에 관한 연구: 북한산 둘레길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제29권 5호, 대한관광경영학회, 2014, 257-274쪽.
- 김익중·박승영, 「관광동기와 이미지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미지변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제16권 4호, 관광경영학회, 2012, 75-92쪽.
- 김정준, 「지역축제 서비스품질과 행동의도에 대한 참가동기 조절효과 연구」, 『관광경영연구』 제22권 6호, 관광경영연구, 2018, 827-847쪽.
- 김종관·정강환, 「축제서비스품질이 방문객만족 및 축제성가에 미치는 영향」, 『문화산업연구』 제15권 3호, 한국문화산업학회, 2015, 93-101쪽.

- 김주연·안운주,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서비스품질이 참가자의 지각된 가치, 감정 및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6권 2호, 한국콘텐츠학회, 2016, 600-608쪽.
- 김현철, 「축제 스토리텔링 선택속성이 브랜드 자산과 방문객의 사후행동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노수경·이경진·박재현·김찬우,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2025-202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4.
- 류인평·정총화·이정섭, 「축제 서비스케이프가 축제이미지, 감정반응,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진안 홍삼축제를 사례로」, 『관광경영연구』 제22권 6호, 관광경영학회, 2018, 309-330쪽.
- 박경숙, 『중세와 토마스 아퀴나스: 살림지식총서』, (주)살림출판사, 2004.
- 박동진·손광영, 「관광동기, 이미지, 기대, 만족 및 충성도 간의 구조적 관계: 안동지역 방문자를 대상으로」, 『관광학연구』 제28권 3호, 한국관광학회, 2004, 65-83쪽.
- 박명주·이정실, 「호텔 레스토랑의 서비스 스케이프, 감정적 반응 그리고 행동의도와의 관계」, 『서비스경영학회지』 제6권 2호, 한국서비스경영학회, 2005, 105-128쪽.
- 박수지, 「문화관광자원으로서 미술관 전시 해설 매체 선호도와 감정반응, 관람만족, 행동의도의 구조적 영향 관계」, 강릉원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 백경미, 「이벤트 방문객의 경험적 가치가 감정반응과 장소애착 및 개최지 태도에 미치는 영향: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방문객을 중심으로」, 『이벤트컨벤션연구』 제12권 2호, 한국비즈니스 이벤트컨벤션학회, 2016, 1-24쪽.
- 손유찬·함정도, 『실내디자인의 이해』, 기문당, 2004.
- 송성하, 「서비스품질, 고객만족, 재구매 의도와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송혜원, 「문화유산콘텐츠의 지역문화일치성이 방문객의 도시태도 및 참가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지역과문화』 제11권 4호, 한국지역문화학회, 2024, 237-258쪽.
- 신은희·윤재은, 「무형문화유산의 공연예술 전시공간의 구현 특성에 관한

-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2권 3호, 한국공간 디자인학회, 2017, 233-243쪽.
- 신현식·전영철, 「지역축제 전시콘텐츠에 대한 방문객의 감정반응이 축제 만족과 관계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관광경영연구』 제17권 2호, 관광경영학회, 2013, 147-163쪽.
- 심상화, 「농촌지역 문화관광축제의 서비스품질 속성 중요도와 요인이 관광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방문동기의 차이분석: 영월 단종문화제를 중심으로」, 『농어촌관광연구』 제17권3호, 한국농어촌관광학회, 2010, 65-85쪽.
- 양해운·전인오, 「문화유산 관광지의 서비스 품질이 관광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 고궁(경복궁)의 전문성과 수정 HISTOQUAL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5호, 한국콘텐츠 학회, 2013, 459-471쪽.
- 오정근, 「외국인의 한국관광 후 관광지의 인지적·정서적 이미지와 관광 행동의도의 관계」, 『관광레저연구』 제22권 1호, 한국관광 ·레저학회, 2010, 231-248쪽.
- 이은지·조철호, 「중국 택배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의 택배 및 고객유형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제30권 8호, 대한경영학회, 2017, 1409-1432쪽.
- 이정란·문주현, 「지역축제에서 서비스품질이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방문객의 일체감, 감정, 만족의 매개역할」, 『지역연구』 제26권 1호, 한국지역학회, 2010, 45-47쪽.
- 이진영, 「사회적책임(csr)과 책임도박(rg)이 이미지, 신뢰 및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이진우, 「문화유산 활용의 이론과 활성화 체계 연구」, 한국전통문화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 이치현, 「문화유산콘텐츠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기획 방법론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이학식·임지훈, 「소비관련 감정척도의 개발」, 『마케팅연구』 제17권 3호, 한국마케팅학회, 2002, 55-91쪽.
- 이호정,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야간축제의 성공요인과 지방자치단체 축제의 방향성:정동야행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제9권

1호, 2018, 1021-1034쪽.

이희성, 「계절형 축제의 환경단서가 경험적 가치와 감정반응에 미치는 영향: 부여서동연꽃축제를 대상으로」, 『이벤트컨벤션연구』 제16권 3호, 한국이벤트컨벤션학회, 2020, 283-305쪽.

조윤희, 「문화콘텐츠 통합을 위한 메타데이터 포맷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0권 2호, 한국정보관리학회, 2003, 113-134쪽.

조일형·이수정·채경진,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이 지역주민의 문화유산 향유 욕구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통문화연구』 제32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2023, 271-304쪽.

조해진, 「지역문화유산의 콘텐츠제작 활성화에 관한 연구: 강릉대도호부 관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 학회지』 제25권 4호,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9, 496-506쪽.

최윤동·서재열, 「체험형 지역축제 선택속성, 감정반응, 행동의도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제31권 4호, 한국체육과학회, 2022, 431-439쪽.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 2024.06.24.

Ajzen, I.,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 50, no. 2, 1991, pp.179-211.

_____,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elf-Efficacy, Locus of Control,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32, no. 4, 2002, pp.665-683.

Batra, R. & M. L. Ray, "Affective Responses Mediating Acceptance of Advertis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13, no. 2, 1986, pp.234-249.

C. Grönroos, "A Service Quality Model and its Marketing Implications",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vol. 18, no. 4, 1984, pp.36-44.

Oliver, R. L., *Satisfaction: A Behavioral Perspective on the Consumer*, New York: McGraw Hill, International Editions, 1997.

Mehrabian, A. & Rusell, J. A., *An Approach to Environmental Psychology*, Cambridge, MA: MIT Press, 1974.

- Plutchik, R., *Emotion: A psycho evolutionary synthesis*, New York: Harper & Row, 1980.
- Russell, J. A. & Pratt, G. A., "A description of the affective quality attributed to environ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8, no. 2, 1980, pp.311-322.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4, no. 6, 1988, pp.1063-1070.
- Richins, M. L., "Measuring emotions in the consumption experienc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24, no. 2, 1997, pp.127-146.

■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23년 대전문화유산야행에 참가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문화유산콘텐츠의 서비스품질이 감정반응과 행동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유산콘텐츠 서비스품질의 ‘내용성’, ‘신뢰성’, ‘공감성’, ‘편의성’ 등 네 가지 요인이 방문객의 감정반응과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내용성’과 ‘신뢰성’은 감정반응과 행동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신뢰성’은 방문객의 행동 의도, 즉 재방문 의향이나 추천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감성’과 ‘편의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정반응 중 ‘즐거움’이 방문객의 행동 의도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이는 긍정적인 감정이 행동으로 이어짐을 시사한다.

따라서 문화유산콘텐츠의 기획과 운영과정에서 정보의 완성도와 운영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감성적 경험을 증대시키는 요소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콘텐츠의 지속적인 활성화와 방문객의 재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향후 문화유산 콘텐츠의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주제어● 문화유산콘텐츠, 서비스품질, 감정반응, 행동의도

■ Abstract

A Study on the Impact of Cultural Heritage Content Service Quality on Emotional Responses and Behavioral Intentions

Lee, Hee Sung / Dankook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service quality of cultural heritage content on emotional responses and behavioral intentions of visitors who participated in the 2023 Daejeon Cultural Heritage Night. To achieve this, the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four service quality factors of cultural heritage content-‘content quality’, ‘reliability’, ‘empathy’, and ‘convenience’-on visitors’ emotional responses and behavioral intentions.

The results indicated that ‘content quality’ and ‘reliability’ had a positive impact on emotional responses and behavioral intentions, with ‘reliability’ particularly influencing visitors’ behavioral intentions, such as their intention to revisit or recommend the event. However, ‘empathy’ and ‘convenience’ did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Additionally, among the emotional responses, ‘pleasure’ had the most significant impact on visitors’ behavioral intentions, suggesting that positive emotions lead to behavior.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nhance the informational completeness and reliability of operations in the planning and management of cultural heritage content, while also strengthening elements that enhance emotional experiences. This can contribute to the continuous activation of cultural heritage content and encourage visitors’ re-participation, serving as foundational data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cultural heritage content.

Keyword • Cultural heritage content, service quality, emotional response, behavioral intention

■ 논문투고일:2025.02.09. ■ 심사완료일:2025.03.06. ■ 게재확정일:2025.03.13. ■

접근가능한 관광의 관점에서 살펴본 영유아 동반자의 관광행동 분석 :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적용*

이 경 찬 · 김 기 완**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의 방법
4. 분석 결과
5. 결론 및 제언

1. 서론

세계 주요 국가 및 도시들은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을 관광자로 인식하고 있다. 런던, 시카고, 시드니¹⁾ 등 세계 주요 도시는 영유아가 방문해서 관

* 본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6052696).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2S1A5B5A16052696).

** 이경찬(제1저자)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학술연구교수
김기완(교신저자) 대구정책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 부연구위원

1) Visit London Editors, “101 best things to do in London with kids”, <Visit London>, 2025.02.26.
Choose Chicago, “30+ kid-friendly things to do in Chicago”, <Choose Chicago>, 2021.10.04.
Sydney Tourism, “Top attractions for kids, <Sydney Tourism>”,

광을 즐길 수 있는 관광지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서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영유아 동반자인 부모는 아이들과 관광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습득해서 관광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유년기에 여가활동에서 얻은 좋은 경험과 기억은 그들에게 청소년기, 성인기, 그리고 노년기까지의 전 생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2) 3) 4)} 또한 영유아시기에 부모와 함께한 관광활동은 영유아의 미래 관광활동을 결정하는 데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관광산업에도 잠재적인 관광자를 확대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5) 6)} 따라서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는 과연 영유아를 관광자로 인식하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관광정보와 관광환경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유아의 생애 초기 경험은 세상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⁷⁾ 이러한 경험은 새롭지만 반복되는 상황이나 경험을 통해서 영유아의 일상적 삶의 모습이 된다. 또한 유아가 자신의 감정과 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경험을 형성하기 때

2022.12.23.

- 2) Harkness, S., Mavridis, C. J., Liu, J. J. & Super, C. M., *The Oxford handbook of human development and culture: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L. A. Jensen.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 3) Kleiber, D. A., "Developmental intervention and leisure education: A life span perspective", *World Leisure Journal*, vol. 43, no. 1, 2001, pp.4-10.
- 4) McGovern, R. A., Ericka, K., Olschewski, & Hodge, C. J., "Where have all the children gone? A review of the presence of children under 6 years in leisure publication outle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 53, no. 2, 2022, pp.290-308.
- 5) Poria, Y. & Timothy, D. J., "Where are the children in tourism research?",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47, 2014, pp.77-95.
- 6) Sojasi Qeidari, H., Kahnooj, S. R. H., Solimani, Z., Shabani, B., & Wise, N., "Iranian children's memorable rural tourism experiences", *Journal of Destination Marketing & Management*, vol. 32, 2024, 100897.
- 7) 김경철·이인선, 「영유아기 경험에 따른 뇌 발달 양상과 유아교육의 지원전략」,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권 12호, 2017, 287-294쪽.

문에 중요하다^{8) 9)} 하지만 어린이가 관광에 참여하는 이유, 기간, 경험유형 등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연구가 미비하고, 삶의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 또한 미흡하다.¹⁰⁾ 그러나 학술적인 논의가 부족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관광산업 분야에서는 어린이의 여행 욕구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다.^{11) 12)} 한국경제(2024.7.29.일자)¹³⁾에 따르면 2024년 여름휴가 기간에 맞춰 호텔 및 리조트업계에서 어린이 고객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유아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실시하여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을 포함한 다양한 경험의 중요성과 관광산업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이들을 직접적으로 연구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점은 분명 관광학 연구에서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관광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영유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관광행동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왜냐하면 영유아 관광은 이들을 양육하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

8) Dallari, F. & Mariotti, A., "Children in tourism: a fresh perspective? The experience in Italy, from summer camps to the Seninter project", *Via. Tourism Review*, issue 10, 2016.

9) Guo, X. & Liu, Tao., "The psychological process and emotional cognition of children's tourism experiences in Chinese family culture", *Public Health*, vol. 11, no. 10, 2022, pp.1-13.

10) Curtale, R., "Analyzing children's impact on parents' tourist choice", *Young Customers*, vol. 19, no. 2, 2018, pp.172-184.

11) 김인신·봉유마·조민호, 「Kano 모형을 이용한 항공사 영유아 고객의 기내특화서비스 청사진 도출」, 『관광학연구』 39권 10호, 2015, 71-90쪽.

12) Carr, N., "Children and families holiday's experience", Taylor & Francis Group, 2011.

13) 김세린, "“해의 안 갈래요”...엄빠들 돌연 국내 여행에 폭 빠진 이유”, <한국경제>, 2024.07.29.

가 미흡하기 때문이다.¹⁴⁾ ¹⁵⁾ 더욱이 접근가능한 관광 관련 조례에서 관광약자로 지칭하고 있는 대상으로 영유아 동반자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¹⁶⁾ 이는 영유아 동반자를 관광약자로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¹⁷⁾ 특히 영유아 동반자를 관광약자로 한정하다 보니 관광약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과 같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대상으로 단순화시킴으로써 더 이상 영유아 동반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관광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위해 부모의 역할과 부모의 관광행동을 알아보고자 진행하였다. 접근가능한 관광은 이제 관광약자가 누구인지보다는 관광자의 다양성, 즉 관광을 해야 하는 자가 누구인지, 사회적으로 관광으로부터 소외된 자가 누구인지를 찾아서 그들에게도 관광이 가진 의미와 긍정적인 기능을 부여하는 향유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접근가능한 관광은 그동안 관광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배제된 사회적 계층을 모두 아우르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논의가 미흡한 영유아 동반자에 관한 연구가 가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영유아 동반자 즉,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의 관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14) 김진란·김이태·류예빈, 「영유아동반시, 관광제약이 관광동기 및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벤트컨벤션연구』 20권 4호, 2024, 143-165쪽.

15) Khoo-Lattimore, C., "Kids on board: methodological challenges, concerns and clarifications when including young children's voices in tourism research", *Current Issues in Tourism*, vol. 18, no. 9, 2015, pp.845-858.

16) 이경찬·김남조, 「접근가능한 관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약자 관련 조례분석」, 『관광연구논총』 35권 1호, 2023, 221-248쪽.

17) 이경찬·장민희, 「접근가능한 관광관점에서 본 영유아 동반 관광자의 관한 연구: 영유아동반 관광활동 참여경험자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48권 5호, 2024, 79-102쪽.

동안 합리적 행동과 계획된 행동이론에서는 감정적 요인을 배제하여 관광자 행동을 설명하였다면, 영유아 부모가 아이들과의 관광활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조건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감정 요인(예상정서, 열망 등)을 통해서 부모의 관광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목표지향적 행동이론을 통해서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관광약자의 범주에서 영유아 동반자를 바라봄으로써 더 이상의 학술적 논의가 미흡했던 영유아 동반 관광자에 대해서 깊이 있고 새로운 차원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접근가능한 관광이 추구하는 모두를 위한 관광, 즉 관광자의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접근가능한 관광

접근가능한 관광은 장애인을 포함해서 관광을 하고자 하는 관광자에게 어떠한 사회, 물리적인 차별과 제한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¹⁸⁾ 포스트 모던 사회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정상화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장애인 차별주의를 극복하는 기제로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복지국가라는 사회적 과제가 관광학 분야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으며,^{19) 20)} 이에 대한 다학제적인 논의가 이루어

18) Buhalis, D. & S. Darcy, *Accessible Tourism: concepts and issues*, NY: Channel View Publications, 2011.

19) 이경찬·민웅기, 「지역문화자원으로서의 정원관광의 인문학적 고찰: 유니버설 디자인의 융합 가치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38권, 2019, 129-154쪽.

20) Lucia, R. E., Hugo, G. A., & Javier, U. R., "Accessible tourism: origins, state of the art and future lines of research", *Europe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vol. 28, 2021, pp.1-24.

어지고 있다.¹⁹⁾ ²⁰⁾ UN Tourism²¹⁾ 에서 시작된 관광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accessible tourism for all’은 모든 국가에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접근가능한 관광은 관광향유에 있어서 사회·물리적, 심리적 장애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²²⁾ 그런데 여기서 제시한 모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접근가능한 관광에 해당되는 계층을 관광약자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우선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을 향유해야 하는 대상을 장애인과 관광취약계층으로 구분함에 따라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에서 정의한 관광약자는 장애인, 시니어,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²³⁾ 접근가능한 관광이 추구하는 모두의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관광취약계층, 관광약자 등과 같은 범주화는 오히려 범주에서 제외되는 계층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관광자 다양성 관점에서 접근가능한 관광이 추구하는 모두의 관광이 실현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폭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²⁴⁾ 최근 접근가능한 관광은 많은 국가에서 중요한 관광정책의 목표로서 논의되고 있으며, UN Tourism에서도 모든 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²⁵⁾ 접근가능한 관광이 추구하는 모두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관광정책을

21) UN Tourism, *Accessible tourism for all (resolution A/RES/492(XVI)/10)*, 2005.

22) 정광민·손신옥·윤혜진, 「사례연구를 통한 접근가능한 관광정책 개선방안」, 『관광레저연구』 32권 8호, 2020, 345-366쪽.

23) 이경찬·김남조, 「접근가능한 관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약자 관련 조례분석」, 『관광연구논총』 35권 1호, 2023, 221-248쪽.

24) 이경찬·장민희, 「접근가능한 관광관점에서 본 영유아 동반 관광자의 관한 연구: 영유아동반 관광활동 참여경험자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48권 5호, 2024, 79-102쪽.

25) UN Tourism, *San Marino Action Agenda to advance Accessible Tourism 2030*, 2023.

수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국제기구, 국가, 기업 등)가 함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내·외 접근가능한 관광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그 주요 대상인 장애인, 시니어에 관해서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영유아동반 관광자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하다.^{26) 27)} 따라서 본 연구는 접근가능한 관광에서 그동안 논의가 미흡했던 영유아동반 관광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관광자의 다양성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2) 영유아, 영유아 동반자의 관광활동

영유아는 영유아보호법²⁸⁾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영유아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서의 놀이 경험을 통해 즐거움, 기쁨, 성취감, 만족감뿐만 아니라 실패, 소외, 거부, 조절 등의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²⁹⁾ 이러한 놀이는 영유아가 전인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매우 유효한 방법 중에 하나이다.³⁰⁾ 영유아는 실외놀이를 통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정서적 안정 등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31) 32)}

26) 이경찬·장민희, 「열린관광지 온라인 리뷰를 통한 접근가능한 관광 논의: 트립어드바이저 리뷰를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35권 3호, 2023, 25-50쪽.

27) Darcy, S., McKercher, B., & Schweinsberg, S., "From tourism and disability to accessible tourism: a perspective article", *Tourism Review*, vol. 75, no. 1, 2020, pp.140-144.

28)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9) 권은주·남미경, 「영유아 놀이 관찰기록 공유를 통한 보육교사와 부모의 변화」, 『생태유아교육연구』 22권 1호, 2023, 33-54쪽.

30) 성소영, 「유아의 신체표현활동에 대한 보육교사의 실천 경험과 인식」, 『유아교육연구』 43권 4호, 2023, 385-416쪽.

31) 박희숙,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여가 연구 동향」, 『한국보육학회지』 19권 4호, 2019, 47-61쪽.

32) 장완수·최미숙, 「전래동요를 활용한 신체표현활동이 유아의 창의적 신체표현력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3권 1호, 2012, 365-382쪽.

³³⁾ 특히 영유아 동반자가 관광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부모의 육아 스트레스 해소하고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일상에서 가족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³⁴⁾ 영유아 동반 관광활동이 아이의 행복감, 가족 간의 유대감과 결속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부모의 육아 스트레스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기도 한다.^{35) 36)} 이러한 놀이가 가진 긍정적인 효과는 부모들이 영유아와 함께 야외활동을 포함한 관광 및 여행에 참여하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³⁷⁾ 따라서 영유아의 관광활동은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가족 여가활동의 한 유형으로 관광활동도 가족 구성원 중에서 특히 영유아의 전인적인 발달과 함께 유치원 이후의 학교생활 적응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38) 39)}이기 때문에 영유아 가족의 관광활동은 가족건강성에도 긍정적인 효과성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

33) Pica, R., *Experience in movement & music: Birth to age 8 (5th ed.)*, Boston: Cengage Learning, 2012.

34) 이경찬·장민희, 「접근가능한 관광관점에서 본 영유아 동반 관광자의 관한 연구: 영유아동반 관광활동 참여경험자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48권 5호, 2024, 79-102쪽.

35) 임지은·이우진, 「영유아를 동반한 관광자의 여행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한국외식산업학회지』 13권 1호, 2017, 175-192쪽.

36) Waywood, E.O.D., et al. "Children's life satisfaction and travel satisfaction: Evidence from Canada, Japan, and Sweden", *Travel Behaviour and Society*, vol. 16, 2019, pp.214-223.

37) 임지은·이우진, 「영유아를 동반한 관광자의 여행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한국외식산업학회지』 13권 1호, 2017, 175-192쪽.

38)곽정인·강민정, 「유아교육에서 놀이와 학습과의 역동성」, 『어린이미디어연구』 8권 1호, 2009, 143-164쪽.

39) 추민진·강진주, 「아버지와 영유아 놀이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권 18호, 2021, 775-790쪽.

다.^{40) 41)} 이와 함께 가족이 함께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족건강성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족건강성은 가족 구성원 간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유대감과 결속력을 강화하고, 가정 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가족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개념이다.^{42) 43) 44)} 가족건강성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 공감 그리고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45) 46) 47)} 가족 건강성측면에서 영유아시기에 여가와 관광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영유아 관련 관광연구는 관광활동에서 나타나는 제약

-
- 40) 김영재, 「가족캠핑 참여에 따른 가족건강성과 지속행동요인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7권 4호, 2013, 1-14쪽.
- 41) Hodge, C. J., Duerden, M. D., Layland, E. K., Lacanienta, A., Goates, M. C., & Niu, X. M., “The association between family leisure and family quality of life: A meta-analysis of data from parents and adolescents”,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vol. 9, no. 3, 2017, pp.328-346.
- 42) 강보미·김경철, 「가족건강성이 유아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 부모역할지능의 매개효과」, 『영유아교육·보육연구』 16권 1호, 2023, 5-24쪽.
- 43) 라성운, 「가족품앗이 참여 가족의 가족건강성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16권 2호, 2024, 37-60쪽.
- 44) 어은주·유영주,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권 1호, 1995, 145-156쪽.
- 45) 김성숙, 「부모의 회복탄력성과 가족건강성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권 16호, 2022, 139-152쪽.
- 46) 홍혜진·김경숙, 「유아의 가족건강성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124권, 2020, 1-22쪽.
- 47) Mendez, J. L., Fantuzzo, J., & Cicchetti, D., “Profiles of social competence among low-income African American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vol. 73, no. 4, 2002, pp.1085-1100.

관련 연구.^{48) 49)} 와 항공서비스로서 기내특화서비스관련 연구⁵⁰⁾ 등으로 한 정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영유아는 신체적, 사회적 발달이 미성숙하여 활동 환경에서 통제할 수 있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영유아 동반자인 부모의 역할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부모들은 신체적, 정신적인 에너지 소모가 일반관광자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⁵¹⁾ 따라서 영유아의 관광활동은 양육자인 부모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영유아 동반자인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형태의 가족 관광은 부모와 자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행복감을 제공하기도 한다.^{52) 53) 54)} 영유아 동반 관광은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영유아 동반자를 그동안 관광약자라는 범주에 놓고 방치한 관광자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 동반자인 부모에게 아이와의 관광활동은 아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의 놀이, 체험활동 등을 통해서 일상에서 받아왔던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일반관광자가 관광활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심리적 회

48) 민웅기, 「관광약자의 관광 불평등 관련 사회문화체계에 대한 정책적 제언: 장애인과 임신부 및 영유아기 자녀를 둔 여성의 관광활동 인식 분석을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 26권 1호, 2023, 87-118쪽.

49) 송화성·이윤정, 「노년층과 영유아층의 여가제약에 대한 비교 연구」, 『융합관광콘텐츠연구』 9권 1호, 2023, 135-154쪽.

50) 김인신·봉유미·조민호, 「Kano 모형을 이용한 항공사 영유아 고객의 기내특화서비스 청사진 도출」, 『관광학연구』 39권 10호, 2015, 71-90쪽.

51) 김진란·김이태·류예빈, 「영유아동반시, 관광제약이 관광동기 및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벤트컨벤션연구』 20권 4호, 2024, 143-165쪽.

52) 김외숙, 『여가관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53) 윤정현, 「가족관광자의 관광동기, 참여수준 및 생활만족의 영향관계」, 『동북아관광연구』 11권 3호, 2015, 165-185쪽.

54) Shaw, S. M. & Dawson, D., "Purposive leisure: Examining parental discourses on family activities", *Leisure Sciences*, vol. 23, no. 4, 2001, pp.217-231.

복을 가져다주는 사회활동이다.

따라서 접근가능한 관광이 추구하는 모두의 관광 즉, 관광자의 다양성 관점에서 영유아 동반자인 부모의 관광행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접근가능한 관광에서 제시하는 관광자 중에서 영유아 동반자인 부모의 관광 활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접근가능한 관광이 의미하는 관광자가 누구인지를 확대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3)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체계로서, 인간의 감정요인을 보완하여 행동이 예측 가능하다는 사실을 통해서 행동(의도)을 설명하는데 기반이 된다.^{55) 56)} 그동안 행동모델들의 목적은 행동 또는 행위를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했다.⁵⁷⁾ Aristotle(2000)⁵⁸⁾ 는 행동은 합리적 선택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합리적 선택이란 열망과 목표지향적인 이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⁵⁹⁾ 따라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감정요인을 수반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동안 이를 간과했다. 특히 기존의 합리적 행동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에서는 인간 행동에 대한 원인과

55) Bandura, A.,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86.

56) Perugini, M., & Bagozzi, R. P., "The role of desires and anticipated emotions in goal-directed behaviours: Broadening and deepen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40, no. 1, 2001, pp.79-98.

57) Bagozzi, R. P., "Behavioral science foundation for global marketing research and practice: the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Journal of Global Marketing*, vol. 37, no. 4, 2024, pp.237-263.

58)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R. Crisp, Trans),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59) Bagozzi, R. P., "Behavioral science foundation for global marketing research and practice: the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Journal of Global Marketing*, vol. 37, no. 4, 2024, pp.237-263.

결과의 경로에 대한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나, 이론적 전제가 이성적인 행동에 중점을 둠으로써 인간이 가진 감정을 배제했다는 이론적 한계가 나타났다.⁶⁰⁾ Perugini and Bagozzi(2001)는 인간의 목표 설정과 추구를 기반으로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열망이라는 인간의 감정이 행동을 추동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제시하였다.⁶¹⁾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은 계획된 행동모델에서 제시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요인이 열망이라는 감정요인을 매개하여 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행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한다.⁶²⁾ 특히 행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열망 혹은 욕망과 같은 감정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행동을 이해하는데 확장된 사고를 제공하였다. 이후 다양한 학문분과인 심리학, 사회학, 관광학, 경영학, 체육학 등에서 폭넓게 적용되어 연구가 진행되었다.^{63) 64) 65) 66)}

60) Ravis, A. J. & Sheeran, P., "Descriptive norms as an additional predictor i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 meta-analysis", *Current Psychology*, vol. 22, no. 3, 2004, pp.264-280.

61) Bagozzi, R. P., "Behavioral science foundation for global marketing research and practice: the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Journal of Global Marketing*, vol. 37, no. 4, 2024, pp.237-263.

62) 이제용·김영표, 「푸드투어리즘에 대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적용한 방문객의 행동의도 분석: 2019 횡성한우축제를 사례로」, 『관광레저연구』 33권 2호, 2021, 169-191쪽.

63) 공개·사혜지,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EMGB)을 활용한 노년층의 온라인 여가 스포츠용품 구매 의도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63권 3호, 2024, 117-129쪽.

64) 윤병국, 「한방의료 체험관광객의 의사결정연구: 4Es, MGB이론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1권 2호, 2017, 47-62쪽.

65) Richetin, J., Perugini, M., Adjali, I. & Hurling, R., "Comparing leading theoretical models of behavioral predictions and post-behavior evaluations", *Psychology & Marketing*, vol. 25, no. 12, 2008, pp.1131-1150.

66) Sharma, E., Bagozzi, R. P., & Mahmoud, R. R. A., "Consumer reactions to direct-to-consumer advertising: the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moral identity, and self-discrepancy regulation", *Journal of Marketing*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동반자인 부모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중요성, 그중에서도 관광활동 경험이 부모가 인식하기에도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고 있기에,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은 열망과 같은 감정요인이 부모의 관광활동 참여를 추동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영유아 동반자의 관광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감정요인이 추가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로서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유아 동반자인 부모의 관광행동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감정적 요인이 포함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영유아를 동반한 관광자인 부모의 관광행동과 다른 관광자와의 정서적 차이점이 무엇이며, 이들에게 필요한 관광환경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앞서 논의한 것처럼 영유아 동반자도 아이와 함께 자기 스스로 관광행동을 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논의를 확대해야 이들을 관광약자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관광자 다양성 안에서 관광자로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접근가능한 관광이 추구하는 모두의 관광, 즉 관광자 다양성 측면에서 영유아 동반 관광자를 논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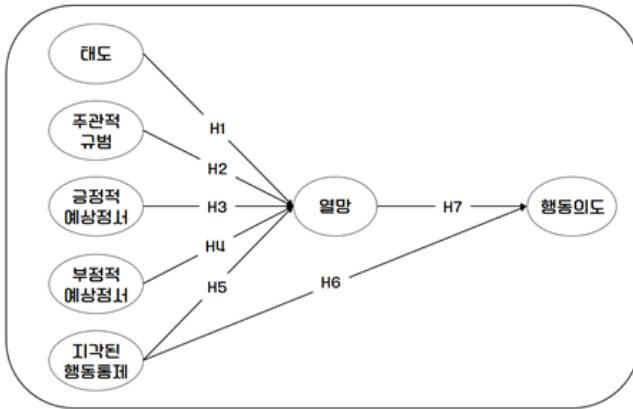
3. 연구의 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영유아 즉, 7세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관광활동을 자기 스스로 한다는 관점에서 Perugini and Bagozzi(2001)가 제시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적용하여 영유아 동반 관광자의 관광행동을 고찰하였다. 영유아 동반 관광자인 부모의 태도, 주관적 규범, 예상정서와 지각된 행동통제가 열망이라는 감정요인을 매개하여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

Theory and Practice, 2024, pp.1-19.

을 미치는가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연구모형을 통해서 영유아 동반 관광객의 행동의도에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영유아 동반 관광객의 관광행동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하고자 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가설

본 연구는 영유아 동반자인 부모의 관광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서는 태도, 주관적 규범, 예상정서,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의도 사이에서 열망이라는 매개변수를 거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67) 68) 69)}를 바탕으로 영유아 동반자인 부모의 관광행동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67) 강지현·송정명·전익기, 「스포츠관광 참가자의 목표지향적 행동이 관광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22권 3호, 2013, 233-248쪽.

68) 김진희·이수범·이승우, 「외식 서비스업 종사자의 자기결정성 동기가 외식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목표지향적 행동이론을 바탕으로」, 『외식경영연구』 22권 6호, 2019, 163-184쪽.

69) Perugini, M. & Bagozzi, R. P., "The role of desires and anticipated emotions in goal-directed behaviours: Broadening and deepen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40, no. 1, 2001, pp.79-98.

가설을 설정하였다.

(1) 태도와 열망간의 관계

태도는 특정한 대상에게 후천적으로 체화된 주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태로서 행동에 대한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⁷⁰⁾ 열망은 특정한 대상에 대한 감정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미래 행동에 대한 감정의 모습이다.⁷¹⁾ 태도는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⁷²⁾ 이지만,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서는 열망이 태도와 행동의도 사이를 매개한다는 결과가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73) 74)} 영유아 동반자는 영유아와 함께 일상에서의 다양한 활동이 관광에 대한 태도와 열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영유아 동반자의 관광에 대한 태도는 열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2) 주관적 규범과 열망간의 관계

주관적 규범은 특정 행동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자기 생각에도 반영되어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⁷⁵⁾ 주관적 규범과 열망간의 관계

70) Aizen, I.,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rocesses*, vol. 50, no. 2, 1991, pp.179-211.

71) 이충기·송학준,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이용한 복합리조트 카지노방문객의 행동의도 예측」, 『관광학연구』 22권 5호, 2010, 341-360쪽.

72) Ajzen, I. & Driver, B. L., "Contingent value measurement: On the nature and meaning of willingness to pay",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vol. 1, no. 4, 1992, pp. 297-316.

73) Perugini, M. & Bagozzi, R. P., "The role of desires and anticipated emotions in goal-directed behaviours: Broadening and deepen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40, no. 1, 2001, pp.79-98.

74) 김진희·이수범·이승우, 「외식 서비스업 종사자의 자기결정성 동기가 외식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목표지향적 행동이론을 바탕으로」, 『외식경영연구』 22권 6호, 2019, 163-184쪽.

75) Bagozzi, R. P., "Behavioral science foundation for global marketing

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주관적 규범은 열망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의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76) 77) 78)}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은 열망이라는 감정적 요인이 주관적 규범과 행동의도 사이에서 행동을 매개하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이 영유아 동반자의 관광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일상에서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주변 지인들의 지지와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영유아 동반자의 관광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열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3) 예상정서와 열망간의 관계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서 예상정서는 미래 행동에 관한 결과를 판단하는 심리적 상황에서 열망이라는 더 강력한 심리적 힘에 의해서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열망의 선행변수로서 논의되고 있다.⁷⁹⁾ 이러한 두 요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긍정적 예상정서가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research and practice: the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Journal of Global Marketing*, vol. 37, no. 4, 2024, pp.237-263.

76) Taylor, S. A., “The addition of anticipated regret to attitudinally based, goal directed models of information search behaviours under conditions of uncertainty and risk”,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46, no. 4, 2007, pp.739-768.

77) 이충기·송학준,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이용한 복합리조트 카지노방문객의 행동의도 예측」, 『관광학연구』 22권 5호, 2010, 341-360쪽.

78) 정원지·김정찬,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적용한 순례지의 지각된 가치가 의사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 해미국제성지의 순례자를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33권 3호, 2021, 67-88쪽.

79) Bagozzi, R. P., Baumgartner, H., & Pieters, R., “Goal-directed emotions”, *Cognition and Emotion*, vol. 12, no. 1, 1998, pp.1-26.

것으로 나타났으며,^{80) 81)} 부정적 예상정서가 열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⁸²⁾ 특히 예상정서는 아이를 동반하여 관광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느끼는 감정으로서 영유아 동반자의 관광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영유아 동반자의 관광에 대한 긍정적 예상정서는 열망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가설 4. 영유아 동반자의 관광에 대한 부정적 예상정서는 열망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친다.

(4) 지각된 행동통제감과 열망, 행동의도간의 관계

지각된 행동통제감은 자기 스스로 행동에 대한 믿음의 수준이며, 행동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개인 내부에 형성된 신념이다.⁸³⁾ 지각된 행동통제감은 행동을 하고자 하는 열망의 힘이 세질수록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84) 85)}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각된 행동통제감은 행동의도에

80) Han, H. & Hwang, J., "Investigation of the volitional, non-volitional, emotional, motivational and automatic processes in determining golfers' int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mporary Hospitality Management*, vol. 26, no. 7, 2014, pp.1118-1135.

81) 윤병국, 「한방의료 체험관광객의 의사결정연구: 4Es, MGB이론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1권 2호, 2017, 47-62쪽.

82) 이충기·송학준,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이용한 복합리조트 카지노방문객의 행동의도 예측」, 『관광학연구』 22권 5호, 2010, 341-360쪽.

83) Ajzen, I., *Attitude, personality and behavior(2nd edition)*, NY: Open University Press, 2005.

84) Perugini, M. & Bagozzi, R. P., "The role of desires and anticipated emotions in goal-directed behaviours: Broadening and deepen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40, no. 1, 2001, pp.79-98.

85) Taylor, S. A., "The addition of anticipated regret to attitudinally based, goal directed models of information search behaviours under conditions of uncertainty and risk",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46,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자 열망이라는 심리적 욕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86) 87) 88)} 이는 영유아 동반자가 아이와 함께 관광 활동에 있어서 지각된 행동통제감은 행동을 하고 싶은 감정의 힘인 열망과 행동의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선행연구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영유아 동반자의 관광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열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6. 영유아 동반자의 관광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5) 열망과 행동의도간의 관계

열망은 특정 대상에 대해서 간절히 원하는 심리적 요인으로써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89) 90)} 선행연구에 따르면 열망은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열

no. 4, 2007, pp.739-768.

86) 양승탁·이승곤·유진룡,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이용한 종교관광객 동기와 행동구조 분석」, 『관광연구저널』 32권 12호, 2018, 195-211쪽.

87) 공개·사혜지,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EMGB)을 활용한 노년층의 온라인 여가 스포츠용품 구매 의도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63권 3호, 2024, 117-129쪽.

88) 정원지·김정찬,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적용한 순례지의 지각된 가치가 의사결정과정에서 미치는 영향: 해미국제성지의 순례자를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33권 3호, 2021, 67-88쪽.

89) Perugini, M., & Bagozzi, R. P., "The role of desires and anticipated emotions in goal-directed behaviours: Broadening and deepen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40, no. 1, 2001, pp.79-98.

90) Taylor, S. A., "The addition of anticipated regret to attitudinally based, goal directed models of information search behaviours under conditions of uncertainty and risk",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46, no. 4, 2007, pp.739-768.

망은 행동의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91) 92)} 이는 영유아 동반자가 아이와 함께 관광활동을 하고 싶다는 열망이 사회적으로 다양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여 관광행동을 추동할 수 있는 심리적 요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7. 영유아 동반자의 관광에 대한 열망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통해서 본 조사 때 나타날 수 있는 오차를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예비조사에 앞서 설문조사지를 작성하여 관광학박사 3인에게 연구의 목적에 관해서 설명한 후 설문지 초안에 대한 검토(2024년 3월 25~4월 1일)를 받았으며,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수정하였다. 이후 예비조사는 2024년 4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20부를 배포하여 회수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설문 응답자가 응답 때 모호하다고 인식한 항목에 대해서는 연구자와 관광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본 조사는 2024년 4월 20일 대구광역시에서 실시한 대구 유아차 걷기 한마당 대회와 대표적인 어린이 체험시설인 대구 어린이세상에 방문 예약한 영유아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250부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한 유효 설문지 235부

91) Yu, C. L., "The role of CSR in sport consumption decision-making", *Marketing Intelligence & Planning*, vol. 39, no. 1, 2020, pp.17-32.

92) 정원지·김정찬,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적용한 순례지의 지각된 가치가 의사결정과정에서 미치는 영향: 해미국제성지의 순례자를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33권 3호, 2021, 67-88쪽.

를 확보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23.0과 AMOS v.23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통해서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표 1] 측정항목의 구성

변 수	내용	참고문헌
태도	나는 자녀와 관광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믿는다.	정원지·김정찬 (2021), Ajzen(1991)
	나는 자녀와 관광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나는 자녀와 관광하는 것이 즐겁다고 믿는다.	
주관적 규범	지인들은 내가 아이와 관광하는 것을 찬성해 줄 것이다.	강희엽·서광봉 (2021), Taylor(2007)
	지인들은 내가 아이와 관광하는 것을 지지해 줄 것이다.	
	지인들은 내가 아이와 관광하는 것을 동의해 줄 것이다.	
예 상 정 서	긍정적 예상 정서	김기완·이경찬 (2021),장두영 (2021),Perugini & Bagozzi (2001)
	만약 내가 아이와 관광한다면 만족할 것이다.	
	만약 내가 아이와 관광한다면 기쁠 것이다.	
	만약 내가 아이와 관광한다면 행복할 것이다.	
	부정적 예상 정서	
	만약 내가 아이와 관광하지 못한다면, 슬플 것이다.	
지각된 행동통제	만약 내가 아이와 관광하지 못한다면, 실망할 것이다.	강희엽·서광봉 (2021), Taylor(2007)
	만약 내가 아이와 관광하지 못한다면, 우울할 것이다.	
	나는 아이와 관광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열망	나는 아이와 관광할 수 있는 시간(기회)이 있다.	강희엽·서광봉 (2021), Taylor(2007)
	나는 아이와 관광할 수 있는 금전적 여유가 있다.	
	나는 가까운 미래에 아이와 관광하기를 원한다.	강희엽·서광봉 (2021)
행동 의도	나는 가까운 미래에 아이와 관광하기를 기대한다.	
	나는 가까운 미래에 아이와 관광하기를 좋아한다.	
행동 의도	나는 가까운 미래에 아이와 관광할 것이다.	강희엽·서광봉 (2021), 이옥선·양소희(2022)
	나는 가까운 미래에 아이와 관광할 의도가 있다.	
	나는 가까운 미래에 아이와 관광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4. 분석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 성별은 여성이 135명(57.4%), 남성이 100명(42.6%)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게 조사되

었다. 부모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가 139명(59.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40대는 93명(39.6%)으로 30~40대가 전체에서 92.7%로 영유아를 양육해야 하는 부모의 주요 연령대라고 볼 수 있다. 그 외 20대가 2명(0.9%), 50대 이상도 1명(0.45%)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대구지역이 215명(91.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북 7명(3.0%), 울산 2명(0.9%), 기타 11명(4.7%)으로 나타났다. 직업군을 살펴보면 사무직이 71명(30.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업주부는 65명(27.7%), 전문직 41명(17.9%), 판매·서비스직 19명(8.1%), 자영업 17명(7.2%), 학생 1명(0.4%) 그리고 기타 20명(8.5%)으로 나타났다.

[표 2]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n	&	구 분		n	&
성별	남성	100	42.6	부모 나이	20대	2	0.9
	여성	135	57.4		30대	139	59.1
직업	자영업	17	7.2		40대	93	39.6
	판매·서비스	19	8.1		50대이상	1	0.45
	사무직	71	30.2	거주 지역	대구	215	91.5
	전문직	42	17.9		경북	7	3.0
	전업주부	65	27.7		울산	2	0.9
	학생	1	0.4		기타	11	4.7
	기타	20	8.5		합계	235	100

응답자의 영유아 동반 여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 여행형태를 살펴보면 숙박여행이 137명(58.3%)으로 당일여행 98명(41.7%)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행기간을 살펴보면 당일여행 98명(41.7%)을 제외하고는 1박2일 73명(31.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박3일 50명(21.3%), 3박4일 7명(3.0%) 그리고 일주일 이상은 6명(3.0%)으로 나타났다. 여행횟수를 살펴보면 20회 이상이 68명(28.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5회 65명(27.7%), 610회 44명(18.7%), 1015회 28명(11.9%), 1620회 7명(3.0%)의 순

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2회도 23명(9.8%)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참여횟수의 변화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많아졌다는 응답이 128명(54.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적어졌다는 응답도 86명(36.6%)으로 단순히 아이가 있다고 관광활동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영유아 동반 여행

구 분		n	&	구 분		n	&
여행 형태	당일	98	41.7	여행 횟수	1-2회	23	9.8
	숙박	137	58.3		3-5회	65	27.7
여행 기간	당일	98	41.7		6-10회	44	18.7
	1박2일	73	31.1		10-15회	28	11.9
	2박3일	50	21.3		16-20회	7	3.0
	3박4일	7	3.0	참여 횟수 변화	20회이상	68	28.9
	일주일	4	1.7		변화없음	21	8.9
	2주이내	2	0.9		많아졌음	128	54.5
	15일이상	1	0.4		적어졌음	86	36.6

2) 측정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 측정변수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0.5이상, 개별 문항 수준에서는 일반적으로 0.6이상이면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⁹³⁾ 본 연구에서는 개별 변수들에 대한 Cronbach's α 값은 .664에서 .957로 나타나 모든 측정변수에서 0.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기준에 적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측정모형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χ^2 , RMR, GFI, CFI, RMSEA 등의 지수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전체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chi^2 = 282.998(df=164, p=.000)$, CMIN/df = 1.726, RMR = .022, GFI = .907, IFI = .974, CFI = .974, RMSEA = .056으로 나타났다. 절대적합지수인 GFI의 기준은 0.85이상이면 적합한 것으로

93) 김계수,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한나래 아카데미, 2010.

로 판단할 수 있다.⁹⁴⁾ RMSEA값의 적합도는 .056으로 나타나 기준값인 0.1보다 작아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⁹⁵⁾ 또한 증분적합지수인 IFI, CFI는 0.9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모든 수치가 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정제된 변수로 이용하였다.⁹⁶⁾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변수		비표준화계수	S.E.	C.R.	표준화계수	P	Cronbach's α
태도	태도1	1.000	-	-	.886		.852
	태도2	.822	.051	15.990	.842	***	
	태도3	.838	.064	13.077	.735	***	
규범	규범1	.935	.034	27.323	.911	***	.955
	규범2	1.000	-	-	.966		
	규범3	.953	.032	29.498	.930	***	
예상 정서	긍정정서1	.959	.050	19.152	.843	***	.920
	긍정정서2	1.000	-	-	.937		
	긍정정서3	.952	.043	22.185	.899	***	
	부정정서4	.914	.036	25.269	.940	***	.957
	부정정서5	.999	.036	27.954	.978	***	
	부정정서6	1.000	-	-	.906		
지각된 행동 통제	지각된통제1	.629	.096	6.539	.577	***	.664
	지각된통제2	1.000	-	-	.760		
	지각된통제3	.793	.119	6.636	.593	***	
열망	열망1	.951	.041	22.971	.891	***	.931
	열망2	1.000	-	-	.944		
	열망3	.950	.042	22.691	.887	***	

94) Hair, J. F., et al. *Multivariate data analysis*,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2010.

95) Browne, M. W. & Cudeck, R.,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K.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 Sage, 1993, pp.136-162.

96) Hu, L. & Bentler, P. M.,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vol. 6, no. 1, 1999, pp.1-55.

행동 의도	의도1	1.000	-	-	.938		.940
	의도2	.954	.035	27.117	.940	***	
	의도3	.890	.040	21.987	.876	***	
CMIN/DF=1.726(p=.000), RMR=.022, GFI=.907, IFI=.974, CFI=.974, RMSEA=.056							

집중타당도는 개념신뢰도인 CR값과 평균분산추출지수인 AVE값을 활용하여 검증할 수 있는데, 개념신뢰도(CR)의 경우 모든 측정 항목에서 0.6 이상으로 나타났다. CR값은 일반적으로 0.7이상이지만 0.6~0.7이면 수용 가능하다.⁹⁷⁾ 판별 타당도는 분산추출평균값(AVE)으로 검증할 수 있는데, 기준값이 0.5이상이다.⁹⁸⁾ 그러나 CR값이 0.6이상이면 AVE값이 0.5보다 조금 낮아도 수용할 수 있다.⁹⁹⁾ 이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지각된 통제에는 AVE값이 0.5보다 낮으나 CR값이 0.6이상이므로 수용 가능한 범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측정변수는 기준치인 0.5이상보다 높게 나타나 잠재변수 간 판별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상관관계분석

구 분	태도	주관적 규범	예상정서		지각된 통제	열망	행동 의도
			긍정정서	부정정서			
태도(AT)	1						
주관적규범	.544***	1					
예상 정서	긍정정서	.674***	.549***	1			
	부정정서	.171*	-.026	.186**	1		
지각된 통제	.406***	.357***	.454***	.203*	1		
열망	.731***	.393***	.595***	.251***	.389***	1	
행동의도	.660***	.404***	.614***	.235***	.463***	.813***	1

97) 이해령·정현영, 「확장된 통합기술수용모델을 활용한 자율주행차량 수용요인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53권 5호, 2018, 73-86쪽.

98) 배병렬, 『AMOS 17.0 구조방정식모델링-원리와 실제』, 도서출판 청람, 2009.

99) Fornell, C. & Larcker, D. F.,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18, no. 1, 1981, pp.39-50.

AVE	.678	.876	.799	.887	.421	.824	.844
CR	.863	.955	.922	.959	.682	.933	.942

***< .001

3) 가설검증

본 연구의 연구가설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6]. 적합도 결과를 살펴보면 NFI, TLI, CFI 값은 모두 0.9이상이며, GFI값이 .880으로 나타났으나, 0.85이상이면 적합도가 수용할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¹⁰⁰⁾ 따라서 더 이상의 모형수정 없이 분석을 하였다.

[표 6] 연구모형 적합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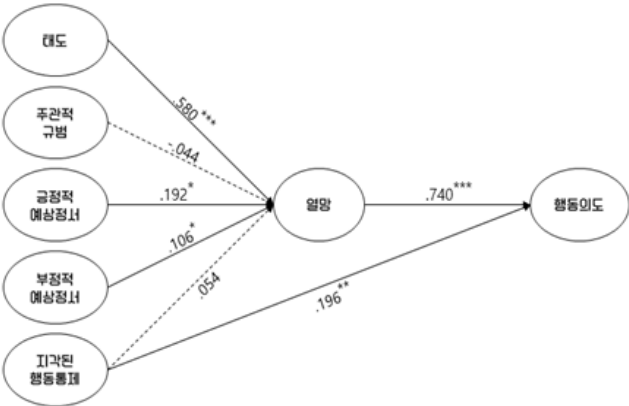
χ^2	DF	CMIN/DF	RMR	GFI	NFI	TLI	CFI	RMSEA
359.196	171	2.101	.023	.880	.925	.950	.959	.069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설 1은 ‘영유아 동반 관광자의 관광태도는 열망에 정(+)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3인 ‘영유아 동반 관광자의 긍정적 예상정서는 열망에 정(+)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4인 ‘영유아동반 관광자의 부정적 예상정서는 열망에 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 가설 1, 3과 4는 지지가 되었다. 그러나 가설 2 ‘영유아동반 관광자의 주관적 규범은 열망에 정(+)에 영향을 미친다’와 가설 5인 ‘영유아동반 관광자의 지각된 행동통제는 열망에 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가설 6인 ‘영유아동반 관광자의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의도에 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설 7인 ‘영유아동반 관광자의 열망은 행동의도에 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이에 따라 가설을 지지하였다.

100) Hair, J. F., et al. op. cit.

[표 7] 가설검증 결과

가설		Estimate	S.E.	C.R.	p	결과
가설1	태도 → 열망	.642	.100	6.449	.000***	지지
가설2	주관적 규범 → 열망	-.031	.046	-.671	.502	기각
가설3	긍정정서 → 열망	.193	.080	2.403	.016*	지지
가설4	부정정서 → 열망	.040	.020	2.029	.042*	지지
가설5	지각된 행동통제 → 열망	.051	.068	.751	.453	기각
가설6	지각된 행동통제 → 행동의도	.176	.054	3.266	.001**	지지
가설7	열망 → 행동의도	.712	.058	12.354	.000***	지지



[그림 2] 연구모형 분석결과

4) 종합논의

본 연구는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기반으로 그동안 논의가 미흡한 영유아 동반 관광자의 관광행동을 이해하고자 진행되었다. 영유아 동반 관광의 주체는 대체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가 해당되는데, 이들은 자녀가 없는 시기 동안에는 일반관광자로서 관광활동을 해왔다. 이 부분은 영유아를 둔 부모의 관광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영유아 부모는 생애주기의 특정 기간에 경험하는 과정이

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아이가 있는 특정한 계층으로 바라봄으로써, 그들의 삶의 궤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특수한 대상의 비일반적인 관광 활동으로 인식하고 구별했다. 영유아에 대한 노키즈 존, 아동 차별주의와 같은 부정적 인식이 모성혐오라는 부분까지 확대됨으로서 영유아의 주 양육자인 여성의 행위를 규율하는 결과가 우리 사회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101) 102) 103)}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현상은 일상의 공간을 넘어 관광 공간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접근가능한 관광이 추구하는 모두의 관광은 영유아 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관광자 개개인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까지 심화하여야 할 것이다.

영유아동반 관광자는 그동안 관광제약으로 설명되어 온 관광약자가 아닌 주체적인 관광자로서 관광 태도, 관광행동에 따른 예상되는 감정을 통해 행동(의도)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104) 105)} 특히 본 연구에서도 열망이 행동의도를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106) 107)} 그러나 주관적 규범과

101) 김이경·유미숙, 「맘충 호명에 대한 담론분석: 기사분석을 중심으로」,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9권 1호, 2019, 43-63쪽.

102) 채상원·임진희, 「변주하는 공간적 권력: 노키즈존의 확산 및 맘충담론을 사례로」, 『공간과사회』 34권 2호, 2024, 184-220쪽.

103) Westman, J. C. & Westman, J. C., Dealing with Child Abuse and Neglect as Public Health Problems: Prevention and the Role of Juvenile Ageism, Springer, 2019.

104) 홍운주·김영중,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적용한 길거리 음식 재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25권 12호, 2019, 92-100.

105) 강지현·송정명·전익기, 「스포츠관광 참가자의 목표지향적 행동이 관광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22권 3호, 2013, 233-248쪽.

106) 이옥선·양소희,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이용한 나 홀로 여행 의도 분석: 나 홀로 여행 경험자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34권 1호, 2022, 195-214쪽.

107) 정원지·김정찬,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적용한 순례지의 지각된 가치가 의사

지각된 행동통제감은 열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08) 109)}

이는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는 결과인데,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에서는 행동 통제감은 열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지만, 영유아 동반 관광객에게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우선 영유아 동반 관광객의 주관적 규범은 아이와 함께 관광활동을 함에 있어서 사회적 부정적 시선과 함께 아이를 동반한 관광활동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아동 차별주의가 부모의 관광행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 본 연구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영유아와 함께 관광활동을 하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주변 지인들은 아이와의 외부활동이 가진 다양한 사회적 부정적 시선이 부모에게도 전달되어 그들이 관광활동을 주저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¹¹⁰⁾ 아이를 데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면 ‘힘들지 않겠어?’, ‘괜찮겠어?’ 등과 같은 부정적 반응을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행동을 지인으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적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 시선을 완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영유아 동반 관광과 같은 가족여행은 타인과 지인으로부터의 찬성과 지지보다는 가족 구성원 간 일상에서 하지 못한 대화, 놀이, 맛있는 먹거리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

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 해미국제성지의 순례자를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33권 3호, 2021, 67-88쪽.

108) 이제용·김영표, 「푸드투어리즘에 대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적용한 방문객의 행동의도 분석: 2019 횡성한우축제를 사례로」, 『관광레저연구』 33권 2호, 2021, 169-191쪽.

109) 장두영,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적용한 반려견 동반 여행의사결정과정 연구」, 『관광학연구』 45권 8호, 2021, 105-124쪽.

110) 채상원·임진희, 「변주하는 공간적 권력: 노키즈존의 확산 및 맘충담론을 사례로」, 『공간과사회』 34권 2호, 2024, 184-220쪽.

을 통해서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 강조하기 때문이다.¹¹¹⁾ 이는 타인의 시선 보다는 영유아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주관적 규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영유아 동반 관광자에게 있어서 지각된 행동통제는 관광행동에 있어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부모만의 문제를 넘어서 아이의 건강 등의 조건, 아이와 함께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일상에서 아이를 돌봄에 따라 시간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부족함¹¹²⁾에 따라 영유아 부모의 지각된 행동통제감이 관광활동을 하고자 하는 열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라고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지각된 행동통제감이 관광행동의도에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 동반자가 인식하기에 관광활동은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에 필요한 활동으로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부모는 관광활동을 통해서 일상에서의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평소 육아에서 부족한 아이와의 교감 활동이 부모의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¹¹³⁾ 따라서 영유아와 함께 관광활동을 하는 부모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영유아를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금전적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요인별 효과의 크기를 살펴보면 태도, 긍정적 예상정서, 부정적 예상정서 순으로 나타났다(표 7)). 또한 태도에서

111) 이경찬·장민희, 「접근가능한 관광관점에서 본 영유아 동반 관광자의 관한 연구: 영유아동반 관광활동 참여경험자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48권 5호, 2024, 79-102쪽.

112) 송화성·이윤정, 「노년층과 영유아층의 여가제약에 대한 비교 연구」, 『융합관광콘텐츠연구』 9권 1호, 2023, 135-154쪽.

113) 임지은·이우진, 「영유아를 동반한 관광자의 여행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한국외식산업학회지』 13권 1호, 2017, 175-192쪽.

행동의도의 경로에서 열망은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요인이라는 점이 영유아 동반자에게도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114) 115) 116)} 이는 이성적인 행동과 인간의 감정 요인이 간과된 부분을 보완한 모델로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영유아 동반자의 관광행동을 이해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그동안 접근가능한 관광은 장애인과 노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함에 따라 그 대상이 실제로는 더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관광약자의 대상을 제한적으로 다루었다는 자기반성적 성찰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이제 접근가능한 관광은 관광자 다양성(tourist with diversity)으로의 개념적 확대를 통해서 모두의 관광에 해당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와 함께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관광행동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학술적인 확장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접근가능한 관광관점에서 영유아 동반 관광자인 부모가 영유아와 함께 스스로 관광행동을 결정하고 이행한다는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적용하여 그 의미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태도와 예상정서가 행동의도로 가는 경로에서 열망이라는 정서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가 나타났

114) 양승탁·이승곤·유진룡,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이용한 종교관광객 동기과 행동구조 분석」, 『관광연구저널』 32권 12호, 2018, 195-211쪽.

115) 이옥선·양소희,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이용한 나 홀로 여행 의도 분석: 나 홀로 여행 경험자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34권 1호, 2022, 195-214쪽.

116) Bagozzi, R. P. & Kimmel, S. K., "A comparison of leading theories for the prediction of goal-directed behaviour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34, 1995, pp.437-461.

으며, 이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117) 118)} 한편 이성적인 행동과 인간의 감정 요인을 적용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은 영유아 동반자의 관광행동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접근가능한 관광은 초고령사회와 저출산 시대라는 사회인구구조의 변화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광약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것보다는 관광자가 누구인지로 대상을 다양화하려는 개념의 전환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사회는 단순히 약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는 것을 넘어서 누구나 보편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119) 120)} 이러한 관점에서 영유아 동반 관광자인 부모도 관광을 향유하는 관광자이며, 영유아를 동반하여 관광활동을 함으로써 이들에게 필요한 관광환경이 무엇이고, 무엇이 미흡한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더 나아가 접근가능한 관광이 추구하는 모두의 관광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얼마나 다양한 관광자가 우리 사회에서 관광 활동을 하고 있는지, 관광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은 이러한 다양한 관광자를 수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심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열린관광지 정책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하여 2024년 현재까지 모두를 위

117) 강희엽·서광봉,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적용한 순천만국가정원 방문객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5권 1호, 2021, 27-38쪽.

118) Armitage, C. J. & Conner, M., "Efficacy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 meta analytic review",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40, no. 4, 2001, pp. 471-499.

119) 김순옥, 「청각장애인의 사회통합 요인에 관한 연구」, 『21세기사회복지연구』 5권 1호, 2008, 47-73쪽.

120) 임지은, 「‘모두를 위한 관광’과 관광 법규의 제고: 보편적 접근성 증진의 개념을 중심으로」, 『장애의 재해석』 4권 1호, 2023, 261-282쪽.

한 관광지 18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그중에서 132개소는 사업이 완료되었다(열린관광지 홈페이지, 2024.12.19. 확인). 이러한 사업은 접근가능한 관광이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정책사업으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UN Tourism(2021)¹²¹⁾에서도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또한 무장애 관광도시(2021년), 무장애 연계성 강화사업(2024년) 등이 추가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사업이 접근가능한 관광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의 공유를 통해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관광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접근가능한 관광이라는 관점에서 관광활동의 어려움이 내재된 영유아 동반자를 관광행동의 주체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영유아 동반자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여전히 논의가 미흡한 영유아의 관광활동으로 확장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앞에서 영유아의 여가활동으로서 관광의 중요성^{122) 123) 124)}에 대해서 탐색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로 확대되지 못했다. 또한 영유아는 영아(0세~2세)와 유아(만 3세~초등학교 입학 전인 7세)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두 계층은 서로 간의 차이¹²⁵⁾로 인해서 양육자인 부모의 관광행동에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지만, 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¹²⁶⁾ 따라서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보완한 후속 연

121) UN Tourism, *Accessibility and inclusive tourism development in nature areas; compendium of best practices*, 2021.

122) 광정인·강민정, 「유아교육에서 놀이와 학습과의 역동성」, 『어린이미디어연구』 8권 1호, 2009, 143-164쪽.

123) 추민진·강진주, 「아버지와 영유아 놀이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21권 18호, 2021, 775-790쪽.

124) Waywood, E.O.D., et al. op. cit., pp.214-223.

125) 임지은·이우진, 「영유아를 동반한 관광자의 여행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한국의식산업학회지』 13권 1호, 2017, 175-192쪽.

126) 김진란·김이태·류예빈, 「영유아동반시, 관광제약이 관광동기 및 참여의도에 미

구에서는 접근가능한 관광에서 의미하는 관광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더 심화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설문조사 항목 중에서 주관적 규범에서 찬성, 지지, 동의는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서 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찬성과 동의는 의미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의어로 사용되고 있어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수정하여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정적 예상정서 항목에서 영유아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점이다. 이는 본 연구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진행하여 조사대상자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향후 다양한 연구대상자를 위하여 척도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마지막으로 접근가능한 관광관련 조례에서 장애인, 노인,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개념화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¹²⁷⁾ 따라서 접근가능한 관광에서 의미하는 관광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개념적 논의는 추후 접근가능한 관광을 학술적 논의, 정책적 노력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연구이다.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치는 영향」, 『이벤트컨벤션연구』 20권 4호, 2024, 143-165쪽.

127) 이경찬·김남조, 「접근가능한 관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약자 관련 조례 분석」, 『관광연구논총』 35권 1호, 2023, 221-248쪽.

■ 참고 문헌

- 강보미·김경철, 「가족건강성이 유아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 부모역할지능의 매개효과」, 『영유아교육·보육연구』 16권 1호, 2023, 5-24쪽.
- 강지현·송정명·전익기, 「스포츠관광 참가자의 목표지향적 행동이 관광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22권 3호, 2013, 233-248쪽.
- 강희엽·서광봉,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적용한 순천만국가정원 방문객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5권 1호, 2021, 27-38쪽.
- 공개·사혜지,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EMGB)을 활용한 노년층의 온라인 여가 스포츠용품 구매 의도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63권 3호, 2024, 117-129쪽.
- 곽정인·강민정, 「유아교육에서 놀이와 학습과의 역동성」, 『어린이미디어 연구』 8권 1호, 2009, 143-164쪽.
- 권은주·남미경, 「영유아 놀이 관찰기록 공유를 통한 보육교사와 부모의 변화」, 『생태유아교육연구』 22권 1호, 2023, 33-54쪽.
- 김경철·이인선, 「영유아기 경험에 따른 뇌 발달 양상과 유아교육의 지원전략」,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권 12호, 2017, 287-294쪽.
- 김계수,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한나래 아카데미, 2010.
- 김기완·이경찬,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GB)을 적용한 지체장애인의 관광행동 고찰」, 『관광연구』 36권 4호, 2021, 101-122쪽.
- 김성숙, 「부모의 회복탄력성과 가족건강성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권 16호, 2022, 139-152쪽.
- 김순옥, 「청각장애인의 사회통합 요인에 관한 연구」, 『21세기사회복지연구』 5권 1호, 2008, 47-73쪽.
- 김영재, 「가족캠핑 참여에 따른 가족건강성과 지속행동요인이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7권 4호,

2013, 1-14쪽.

김외숙, 『여가관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김원영, 「낭만적 예찬을 넘어서: 이미지시대의 아동을 생각하다」,
『창비어린이』 17권 1호, 2019, 27-36쪽.

김이경·유미숙, 「맘충 호명에 대한 담론분석: 기사분석을 중심으로」,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9권 1호,
2019, 43-63쪽.

김인신·봉유미·조민호, 「Kano 모형을 이용한 항공사 영유아 고객의
기내특화서비스 청사진 도출」, 『관광학연구』 39권 10호, 2015,
71-90쪽.

김진란·김이태·류예빈, 「영유아동반시, 관광제약이 관광동기 및 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벤트컨벤션연구』 20권 4호, 2024, 143-
165쪽.

김진희·이수범·이승우, 「외식 서비스업 종사자의 자기결정성 동기가 외식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목표지향적 행동이론을 바탕으로」,
『외식경영연구』 22권 6호, 2019, 163-184쪽.

라성운, 「가족품앗이 참여 가족의 가족건강성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16권 2호, 2024, 37-60쪽.

박희숙,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여가 연구 동향」, 『한국보육학회지』
19권 4호, 2019, 47-61쪽.

배병렬, 『AMOS 17.0 구조방정식모델링-원리와 실제』, 도서출판 청람,
2009.

민웅기, 「관광약자의 관광 불평등 관련 사회문화체계에 대한 정책적
제언: 장애인과 임신부 및 영유아기 자녀를 둔 여성의 관광활동
인식 분석을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 26권 1호, 2023, 87-
118쪽.

성소영, 「유아의 신체표현활동에 대한 보육교사의 실천 경험과 인식」,
『유아교육연구』 43권 4호, 2023, 385-416쪽.

송화성·이윤정, 「노년층과 영유아층의 여가제약에 대한 비교 연구」,
『융합관광콘텐츠연구』 9권 1호, 2023, 135-154쪽.

양승탁·이승곤·유진룡,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이용한

- 종교관광객 동기와 행동구조 분석」, 『관광연구저널』 32권 12호, 2018, 195-211쪽.
- 어은주·유영주,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권 1호, 1995, 145-156쪽.
- 오수경·양은별·김서현·정익중,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노키즈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아동학회지』 44권 4호, 2023, 361-373쪽.
- 윤병국, 「한방의료 체험관광객의 의사결정연구: 4Es, MGB이론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1권 2호, 2017, 47-62쪽.
- 윤정현, 「가족관광자의 관광동기, 참여수준 및 생활만족의 영향관계」, 『동북아관광연구』 11권 3호, 2015, 165-185쪽.
- 이경찬·김남조, 「접근가능한 관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약자 관련 조례분석」, 『관광연구논총』 35권 1호, 2023, 221-248쪽.
- 이경찬·민웅기, 「지역문화자원으로서의 정원관광의 인문학적 고찰: 유니버설 디자인의 융합 가치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38권, 2019, 129-154쪽.
- 이경찬·장민희, 「열린관광지 온라인 리뷰를 통한 접근가능한 관광 논의: 트립어드바이저 리뷰를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35권 3호, 2023, 25-50쪽.
- 이경찬·장민희, 「접근가능한 관광관점에서 본 영유아 동반 관광자의 관한 연구: 영유아동반 관광활동 참여경험자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48권 5호, 2024, 79-102쪽.
- 이연수·천혜정,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노키즈존 관련 트위터 메시지 분석」, 『소비자문제연구』 54권 2호, 2023, 91-114쪽.
- 이옥선·양소희,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이용한 나 홀로 여행 의도 분석: 나 홀로 여행 경험자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34권 1호, 2022, 195-214쪽.
- 이제용·김영표, 「푸드투어리즘에 대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적용한 방문객의 행동의도 분석: 2019 횡성한우축제를 사례로」, 『관광레저연구』 33권 2호, 2021, 169-191쪽.
- 이충기·송학준,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이용한 복합리조트 카지노 방문객의 행동의도 예측」, 『관광학연구』 22권 5호, 2010, 341-360쪽.

- 이혜령·정헌영, 「확장된 통합기술수용모델을 활용한 자율주행차량 수용요인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53권 5호, 2018, 73-86쪽.
- 임지은, 「‘모두를 위한 관광’과 관광 법규의 제고: 보편적 접근성 증진의 개념을 중심으로」, 『장애의 재해석』 4권 1호, 2023, 261-282쪽.
- 임지은·이우진, 「영유아를 동반한 관광자의 여행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한국외식산업학회지』 13권 1호, 2017, 175-192쪽.
- 장두영,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적용한 반려견 동반 여행의사결정과정 연구」, 『관광학연구』 45권 8호, 2021, 105-124쪽.
- 장완수·최미숙, 「전래동요를 활용한 신체표현활동이 유아의 창의적 신체표현력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3권 1호, 2012, 365-382쪽.
- 정광민·손신옥·윤혜진, 「사례연구를 통한 접근가능한 관광정책 개선방안」, 『관광레저연구』 32권 8호, 2020, 345-366쪽.
- 정원지·김정찬,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적용한 순례지의 지각된 가치의 의사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 해미국제성지의 순례자를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33권 3호, 2021, 67-88쪽.
- 채상원·임진희, 「변주하는 공간적 권력: 노키즈존의 확산 및 맘충담론을 사례로」, 『공간과사회』 34권 2호, 2024, 184-220쪽.
- 추민진·강진주, 「아버지와 영유아 놀이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권 18호, 2021, 775-790쪽.
- 최지원·이훈, 「관광정체성은 영유아 동반자의 관광참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자녀 연령에 따른 제약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34권 1호, 2022, 243-271쪽.
- 홍윤주·김영중,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적용한 길거리 음식 재구매 의도에 관한 연구」,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25권 12호, 2019, 92-100쪽.
- 홍혜진·김경숙, 「유아의 가족건강성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124권, 2020, 1-22쪽.
- Aizen, I.,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rocesses*, vol. 50, no. 2, 1991, pp.179-211.

- Ajzen, I., *Attitude, personality and behavior(2nd edition)*, NY: Open University Press, 2005.
- Ajzen, I. & Driver, B. L., "Contingent value measurement: On the nature and meaning of willingness to pay",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vol. 1, no. 4, 1992, pp.297-316.
- Ajzen, I. & Fishbein, M., *Understanding attitude and prediction social behavior*, NJ: Prentice Hall, 1980.
-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R. Crisp, Trans),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Armitage, C. J. & Conner, M., "Efficacy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 meta analytic review",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40, no. 4, 2001, pp.471-499.
- Bagozzi, R. P., "Behavioral science foundation for global marketing research and practice: the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Journal of Global Marketing*, vol. 37, no. 4, 2024, pp.237-263.
- Bagozzi, R. P., Baumgartner, H., & Pieters, R., "Goal-directed emotions", *Cognition and Emotion*, vol. 12, no. 1, 1998, pp.1-26.
- Bagozzi, R. P. & Kimmel, S. K., "A comparison of leading theories for the prediction of goal-directed behaviour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34, 1995, pp.437-461.
- Bandura, A.,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6.
- Browne, M. W. & Cudeck, R.,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 Sage, 1993, pp.136-162.
- Buhalis, D. & S. Darcy, *Accessible Tourism: concepts and issues*, NY: Channel View Publications, 2011.
- Carr, N., *Children and families holiday's experience*, Taylor & Francis Group, 2011.

- Curtale, R., "Analyzing children's impact on parents' tourist choice", *Young Customers*, vol. 19, no. 2, 2018, pp.172-184.
- Dallari, F. & Mariotti, A., "Children in tourism: a fresh perspective? The experience in Italy, from summer camps to the Seninter project", *Via. Tourism Review*, issue 10, 2016.
- Darcy, S., McKercher, B., & Schweinsberg, S., "From tourism and disability to accessible tourism: a perspective article", *Tourism Review*, vol. 75, no. 1, 2020, pp.140-144.
- Fornell, C., & Larcker, D. F.,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18, no. 1, 1981, pp.39-50.
- Guo, X. & Liu, Tao., "The psychological process and emotional cognition of children's tourism experiences in Chinese family culture", *Public Health*, vol. 11, no. 10, 2022, pp.1-13.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 *Multivariate data analysis*,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2010.
- Han, H. & Hwang, J., "Investigation of the volitional, non-volitional, emotional, motivational and automatic processes in determining golfers' int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mporary Hospitality Management*, vol. 26, no. 7, 2014, pp.1118-1135.
- Harkness, S., Mavridis, C. J., Liu, J. J., & Super, C. M., *The Oxford handbook of human development and culture: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L. A. Jensen.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 Hodge, C. J., Duerden, M. D., Layland, E. K., Lacanienta, A., Goates, M. C., & Niu, X. M., "The association between family leisure and family quality of life: A meta-analysis of data from parents and adolescents",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vol. 9, no. 3, 2017, pp.328-346.

- Hu, L. & Bentler, P. M.,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vol. 6, no. 1, 1999, pp.1-55.
- Khoo-Lattimore, C., "Kids on board: methodological challenges, concerns and clarifications when including young children's voices in tourism research", *Current Issues in Tourism*, vol. 18, no. 9, 2015, pp.845-858.
- Kleiber, D. A., "Developmental Intervention and Leisure Education: A Life Span Perspective", *World Leisure Journal*, vol. 43, no. 1, 2001, pp.4-10.
- Lucia, R. E., Hugo, G. A., & Javier, U. R., "Accessible tourism: origins, state of the art and future lines of research", *Europe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vol. 28, 2021, pp.1-24.
- McGovern, R. A., Ericka, K., Olschewski, & Hodge, C. J., "Where have all the children gone? A review of the presence of children under 6 years in leisure publication outle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 53, no. 2, 2022, pp.290-308.
- Mendez, J. L., Fantuzzo, J., & Cicchetti, D., "Profiles of social competence among low-income African American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vol. 73, no. 4, 2002, pp.1085-1100.
- Perugini, M., & Bagozzi, R. P., "The role of desires and anticipated emotions in goal-directed behaviours: Broadening and deepen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40, no. 1, 2001, pp.79-98.
- Pica, R., *Experience in movement & music: Birth to age 8 (5th ed.)*, Boston: Cengage Learning, 2012.
- Poria, Y. & Timothy, D. J., "Where are the children in tourism research?",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47, Amsterdam: Elsevier, 2014, pp.77-95.

- Richetin, J., Perugini, M., Adjali, I., & Hurling, R., “Comparing leading theoretical models of behavioral predictions and post-behavior evaluations”, *Psychology & Marketing*, vol. 25, no. 12, 2008, pp.1131-1150.
- Rivis, A. J. & Sheeran, P., “Descriptive norms as an additional predictor i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 meta-analysis”, *Current Psychology*, vol. 22, no. 3, 2004, pp.264-280.
- Sharma, E., Bagozzi, R. P., & Mahmoud, R. R. A., “Consumer reactions to direct-to-consumer advertising: the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moral identity, and self-discrepancy regulation”, *Journal of Marketing Theory and Practice*, 2024, pp.1-21.
- Shaw, S. M. & Dawson, D., “Purposive leisure: Examining parental discourses on family activities”, *Leisure Sciences*, vol. 23, no. 4, 2001, pp.217-231.
- Sojasi Qeidari, H., Kahnoot, S. R. H., Solimani, Z., Shabani, B., & Wise, N., “Iranian children’s memorable rural tourism experiences”, *Journal of Destination Marketing & Management*, vol. 32, 2024, 100897.
- Song, H. J., Lee, C. K., Norman, W. C., & H. S. Han, “The role of responsible gambling strategy in forming behavioral intention: an application of a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 51, no. 4, 2012, pp.512-523.
- Taylor, S. A., “The addition of anticipated regret to attitudinally based, goal-directed models of information search behaviours under conditions of uncertainty and risk”,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46, no. 4, 2007, pp.739-768.
- UN Tourism, Accessible tourism for all (resolution A/RES/492(XVI)/10), 2005.
- _____, *Accessibility and inclusive tourism development in nature*

areas – compendium of best practices, 2021.

_____, *San Marino Action Agenda to advance Accessible Tourism 2030*, 2023.

Waywood, E.O.D., Friman, M., Taniguchi, A., & Olsson, L. E.,
“Children’s life satisfaction and travel satisfaction:
Evidence from Canada, Japan, and Sweden”, *Travel
Behaniour and Society*, vol. 16, 2019, pp.214-223.

Westman, J. C., *Dealing with Child Abuse and Neglect as Public
Health Problems: Prevention and the Role of Juvenile Ageism*,
Springer, 2019.

Yu, C. L., “The role of CSR in sport consumption decision-
making”, *Marketing Intelligence & Planning*, vol. 39, no. 1,
2020, pp.17-32.

김세린, “"해외 안 갈래요"...엄빠들 돌연 국내 여행에 폭 빠진 이유”,
<한국경제>, 2024.07.29. [https://www.hankyung.com/
article/202407297075g](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7297075g)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www.choosechicago.com/articles/families/30-kid-friendly-
things-to-do-in-chicago/](http://www.choosechicago.com/articles/families/30-kid-friendly-things-to-do-in-chicago/)

[www.sydney.com/things-to-do/family-holidays/top-attractions-
for-kids](http://www.sydney.com/things-to-do/family-holidays/top-attractions-for-kids)

[www.visitlondon.com/things-to-do/family-activities/101-things-
to-do-with-kids-in-london](http://www.visitlondon.com/things-to-do/family-activities/101-things-to-do-with-kids-in-london)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접근가능한 관광관점에서 영유아 동반자 즉, 부모의 관광행동을 이해하고자 진행하였다. 영유아 동반자는 아이들과 함께 관광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부모의 관광행동을 감정 요인(예상정서, 열망 등)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목표지향적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알아보았다. 대구광역시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35부의 유효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관광태도, 긍정적 예상정서, 부정적 예상정서는 열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하지만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동반 관광자가 인식하는 주관적 규범은 영유아를 동반한 관광활동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노키즈 존, 아동 차별주의와 같은 부정적 영향이 본 연구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유추할 수 있었다. 또한 영유아와 함께 관광활동을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주변 지인들의 부정적인 견해는 아이와의 외부활동이 가진 다양한 사회적 여건이 부모에게 전달되어 그들의 관광활동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열망은 행동의도에 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영유아 동반자인 부모에게도 열망은 관광행동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은 영유아 동반자의 관광행동을 설명하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주제어● 접근가능한 관광, 관광자 다양성, 영유아 동반자,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 Abstract

Analysis of tourism behavior with infants and young children from an accessible tourism perspective : By applying the goal-oriented behavior model (MGB)

Lee, Kyungchan / Hanyang University

Kim, Kiwan / Daegu Policy Institute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tourism behavior of parents accompanying infants and toddlers from an accessible tourism perspective. As parents of young children engage in tourism activities with their families, we applied goal-oriented behavior theory to explain parental tourism behavior, focusing on emotional factors such as anticipated emotions and aspirations. A survey targeting parents raising infants and toddlers in Daegu Metropolitan City was conducted, resulting in a total of 235 valid questionnaires collected. The analysis results aligned with previous studies, indicating that tourism attitudes, positive anticipated emotions, and negative anticipated emotions significantly influenced aspirations. However,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It was suggested that the subjective norms perceived by tourists with infants and toddlers were directly and indirectly affected by negative influences, such as no-kids zones and child discrimination encountered during tourism activ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parents engaging in tourism with young children, these activities are seen as essential. However, negative views from acquaintances can lead to hesitation in participating in tourism activities, as various social challenges associated with outdoor activities involving children are conveyed to parents. Finally, aspirations were found to significantly impact behavioral intentio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spirations are a crucial factor in explaining the tourism behavior of parents with infants and young children,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Therefore, the goal-oriented behavior model offers a theoretical basis for understanding the tourism behavior of parents with infants and young children.

접근가능한 관광의 관점에서 살펴본 영유아 동반자의 관광행동 분석
: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적용 | 이경찬·김기완

Keyword • Accessible tourism, Tourist diversity, Tourist with infant and toddler, Goal-oriented Behavior Model

■ 논문투고일:2025.02.10. ■ 심사완료일:2025.03.06. ■ 게재확정일:2025.03.10. ■

정부 재난안전 합동점검의 개선방안 연구

구재현*

목 차

1. 서론
2. 법적 제도 현황 및 고찰
3. 주요 사례 분석 및 문제점 도출
4. 핵심 관리요소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5. 결론 및 제언

1. 서론

1) 개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편성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행정안전부장은 점검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시설 등인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합동 안전 점검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¹⁾

* 구재현(제1저자) 목원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1)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20030호, 2024a.

사회기반시설 등 노후화에 따른 대규모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난사고의 지속적 발생 증가 등에 따라 예방적 재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재난안전 예방을 위한 정부 점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22년의 교량 28.8%, 터널 21.5%, 댐 시설 44.9%, 건축물 41% 등이 준공 이후 30년이 경과된 상태로 노후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재난안전 예방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²⁾ 이와 함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집중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에 근거하여 화재·붕괴 등의 각종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안전취약 시설의 재난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차원의 다양한 위험요인의 사전 발굴 및 안전 사각지대의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부 재난안전 합동점검 체계를 진단하고 효율성을 고려한 합동점검의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³⁾

현재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집중안전점검 등의 재난안전 정부 합동점검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점검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처별 점검제도 개선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현행 점검제도의 현실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효성 높은 발전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정부 합동점검을 통한 국가 산업시설 등의 재난 안전 사고의 최소화가 요구되는 실정속에서 현행 정부 합동점검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발전방안의 방향이 마련되어야 한다.⁴⁾

기존의 재난안전 점검 관련 연구들은 법적 안전점검의 개선방안 수립 또는 재난유형·시설물 등의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춘 안전점검 방안 수립

2) 행정안전부-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관 합동 2024 집중안전점검 추진,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08682, 2024b.

3) 위의 자료, 2024b.

4)

에 대해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재난양상이 발생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정부 합동 안전점검의 최근의 현실적 문제점 분석결과와 연계하여 핵심요소 도출에 따른 실효성 높은 발전방안 수립이 절실한 실정이다.⁵⁾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 재난안전 점검활동 개선을 위한 정부 합동점검 개선방안 수립에 관한 것으로, 정부 합동점검의 법제도적 실태 조사, 주요 사례 분석 및 현행 합동점검 제도의 문제점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제도개선을 위한 핵심요소를 파악하여 정부 재난안전 합동점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체계적인 관점에서 정부 합동점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간 상호 연계되는 핵심 관리요소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결과는 국가차원의 정부 합동점검의 발전방안 및 관련 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선행연구 분석 및 시사점

박하용 등(2019)⁶⁾은 건축물 재난사고 현황 및 안전점검제도 분석을 통한 안전점검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였고, 건축물 안전점검체계 관련 법령 및 재난사고 통계 등의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안전점검 대상 및 안전점검 평가방법 등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문유미 등(2022)⁷⁾은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가 안전점검평가 사후관리에 미치는 영향관계 연구를 수행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현장의 종합적 안전관리체계가 요구되는 실정속에서 안전·보건관리의 설문조사 결과 기반의 종합적 분석 수행과 함께, 보건계획 수립 적절성과 사

5) 박하용·이원호, 「건축물 재난사고 현황 및 안전점검제도 분석을 통한 안전점검체계 개선방안」,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19권 5호, 한국방재학회, 2019, 11-21쪽.

6) 위의 논문, 11-21쪽.

7) 문유미·신용승·김진태,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가 안전점검평가 사후관리에 미치는 영향관계」,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18권 1호,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 228-240쪽.

후 점검관리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유현희 등(2020)⁸⁾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현 실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공동주택의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치경 등(2008)⁹⁾은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과 연계한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실시되는 안전점검에 대하여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의 시설물 지리정보 기반으로 상호 다른 법령과 기관에 의하여 수행되는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를 추진하였다.

정지범 등(2015)¹⁰⁾은 산업단지 안전점검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각 부처 소관의 안전관련 법령 상 실시되는 다양한 법적 안전점검의 실태 조사 및 안전점검 민간위탁의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한 산업단지 내 안전점검의 효율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신재현 등(2018)¹¹⁾은 국가안전대진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국가안전대진단의 문제점 분석결과 기반의 국가안전대진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공개되어 있는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8) 유현희·배광빈·양기근,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국융합과학회지』 9권 2호, 한국융합과학회, 2020, 205-222쪽.

9) 김치경·홍건호·고일두,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과 연계한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한국전산구조공학회 논문집』 21권 5호, 한국전산구조공학회, 2008, 505-513쪽.

10) 정지범·류현숙·오윤경, 『산업단지 안전점검 효율화 방안 마련』, 한국행정연구원, 2015.

11) 신재현, 김상운, 「국가안전대진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13권 4호, 한국재난정보학회, 2018, 334-342쪽.

통계자료 등을 이용하여 국가안전대진단의 효율적 방안 마련을 제기하였다.

윤홍식(2020)¹²⁾은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가이드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법적 근거하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과 도로, 에너지 관련 시설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진단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10개 유형의 국가안전대진 점검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한국행정학회(2015)¹³⁾는 사회재난·안전분야 등 재난관리 점검 및 평가 지표 개발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고,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종합적 재난관리점검 체계 구축 및 중앙행정·공공기관 재난관리평가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사회재난 및 안전분야의 점검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재난안전연구원(2016)¹⁴⁾은 안전관리업무 관리·감독 및 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기, 가스, 소방, 시설물 등의 법적 개별 점검과 정부 안전점검의 실태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안전점검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통합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 합동안전점검단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과 운영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오윤경 등(2023)¹⁵⁾은 공공분야 데이터플랫폼 활용성 제고방안에 대한

12) 윤홍식,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가이드 마련을 위한 연구』, 행정안전부, 2020.

13) 한국행정학회, 『사회재난·안전분야 등 재난관리 점검 및 평가 지표 개발』, 국민안전처, 2015.

14) 한국재난안전연구원, 『안전관리업무 관리·감독 및 체계 개선방안 연구회재난·안전분야 등 재난관리 점검 및 평가』, 국민안전처, 2016.

15) 오윤경, 차남준, 『공공분야 데이터플랫폼 활용성 제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23.

연구를 수행하였고, 공공분야 데이터플랫폼 운영 현황을 검토하고,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였다. 특히 공공분야의 구축·운영 데이터플랫폼의 유형·실태 등 관련 법제도·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데이터플랫폼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고명석(2020)¹⁶⁾은 재난현장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 상 재난 위험요소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국내 재난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현장 적용성 관점의 재난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특히 현장 위험요인을 고려한 재난관리체계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기존의 연구는 건축물·건축공사·공동주택 등 관련 일반 안전점검제도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또한 산업단지 기반의 안전점검 효율화 방안 마련 및 '18년 이전의 국가안전대진단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였고, 사회재난·안전분야 등의 재난관리 점검·평가 지표 개발, 안전관리업무 관리·감독 및 체계 개선방안 연구 등의 안전점검·관리에 대한 간접적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 합동점검의 법제도적 실태를 조사하고 주요 사례 분석 및 현행 합동점검 제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제도개선을 위한 핵심요소를 파악하여 정부 재난안전 합동점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존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명확한 연구의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16) 고명석, 「재난현장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2권 4호, 한국경찰학회, 2020, 105-130쪽.

2. 법적 제도 현황 및 고찰

1) 정부합동안전점검의 법적 제도 현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정부합동 안전 점검)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9조의3(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구성 및 점검 방법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편성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필요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¹⁷⁾

행정안전부장은 점검결과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 점검 결과와 그 조치 결과를 안전정보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¹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때 비공개 대상정보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또는 국가 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이다.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 공무원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구성하며,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이때 정부합동점검단의 주요

17) 행정안전부, 앞의 법, 2024a.

18)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08호, 2023a.

역할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 실태점검,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환류체계 강화, 제도개선 과제 발굴·협업의 등이다. 그리고 정부합동안전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분류되고, 정기점검은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이며, 수시점검은 사회적 쟁점, 유사한 사고의 방지 등을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점검이다.

정부합동점검단의 점검방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재난안전분야 사전 조사·분석, 수립된 재난관리체계 등의 이행실태 적정성,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환류, 이행실태 평가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점검 구상, 점검중점사항 선정 등의 사전준비가 실시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점검이 실시된다. 그리고 정책적 대안 제시 및 관계기관 통보 등의 결과 분석·보고가 실시되고, 후속 조치로서 소관부처의 대책 마련 및 이행실태 점검·평가가 수행된다.

2) 정부 집중안전점검의 법적 제도 현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2조의3(집중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9조의4(집중안전점검 기간의 운영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집중안전점검 기간 동안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¹⁹⁾

행정안전부장관은 집중안전점검 기간에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를 안전정보통합

19) 행정안전부, 앞의 법, 2024a.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또한,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통계, 안전정책 정보, 사고 피해통계, 안전점검 결과 등을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은 집중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집중안전점검 기간 운영계획의 경우 집중안전점검 기간, 추진 일정, 점검 대상 및 방법, 집중안전점검 기간 운영 실적 평가, 집중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이력 관리 및 후속조치 등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집중안전점검 기간 운영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집중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및 소관 분야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때 실행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그 소관 분야의 집중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도지사는 집중안전점검 기간 운영계획, 실행계획 수립지침 및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시·도의 집중안전점검 기간 시·도 실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실행계획 및 시·도 실행계획 수립지침을 종합하여 시·군·구의 집중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관할 지역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 실행계획 수립지침, 실행계획 및 시·군·구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시·도의 집중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 실행계획 및 시·도 실행계획을 종합

하여 소관 분야의 집중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분야 또는 관할 지역의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경우, 그 결과를 집중안전점검 기간 종료 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 및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집중안전점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표 1]은 ‘15~21년 간 정부합동 집중안전점검의 점검대상별 점검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8년간 약 253만 개소의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현지지정 약 8.4만 개소 및 보수·보강 12.6만 개소 등의 점검결과를 도출하였다.²⁰⁾ ‘15년부터 국가 재난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집중안전점검(구, 국가안전대진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전국의 공공주택, 학교, 식품, 위생 관련 업소 등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과 함께, 도로, 철도, 에너지 관련 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는 국가 안전점검 제도이다. 이때 집중안전점검 결과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재난안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안전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려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합동점검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표 1] ‘15~21년 간 정부합동 집중안전점검의 점검대상별 점검결과

구 분	점검대상 (개소)	점검결과(개소)			
		계	현지지정	보수보강	정밀진단
계	2,532,162	214,693	84,861	126,644	3,188
2015년	1,070,470	59,942	22,228	36,804	910

20)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2년 집중 안전점검 추진계획』, 행정안전부, 2022a.

2016년	495,041	43,861	21,070	22,179	612
2017년	361,445	21,324	6,791	13,784	749
2018년	346,346	33,175	10,400	22,282	493
2019년	161,588	24,727	9,218	15,319	190
2020년	47,746	13,916	6,966	6,898	52
2021년	23,163	7,702	3,171	4,439	92

따라서, 정부합동안전점검 및 집중안전점검은 법제 근거하에서 정부 주도로 실시하는 재난안전분야 합동점검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부처·기관이 합동 참여하는 점검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법적 근거하에서 점검단의 운영이 이루어지는 실정이므로, 대내외 재난안전 환경 변화 및 사회적 이슈 등에 매칭하는 점검체계 구축·운영 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및 개선 요소들을 분석하여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3. 주요 사례 분석 및 문제점 도출

관련 문헌 자료 등을 기반으로 최근 3년('21~'23년) 간 국내 재난안전 분야의 정부 합동점검의 주요 이슈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1) '21년 코로나19 정부합동 안전점검 사례

「'21년 11월, 정부는 서울·인천·경기의 12개 시군구,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코로나19의 일상회복 이행실태에 대한 정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중점 관리시설과 함께 최근 집단 감염 시설 등의 총 1,629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4건, 현장시정 733건을 조치하였다. 이와 관련 점검결과의 경우, 인천의 유흥업소 불법시간 영업에 따른 고발 조치가 되었고, 경기도와 서울의 식당 출입명부 미작성 및 유흥업소 미접종자 출입에 따른 총 4건의 과태

료 부과 조치가 있었다. 이와 함께, 현장시정 조치로서 방역패스 이행 미흡 511건, 방역수칙 미게시 137건, 출입명부 관리 미흡 36건, 마스크 미착용 28건, 기타 21건 등으로 조사되었다.²¹⁾

정부합동 점검결과에 따라 전반적으로 사업주들은 일상회복 전환 방역 수칙을 업종단체 및 지역 상인회 등을 통해 안내받고 있었으며, 이와 함께 지자체의 문자 발송 및 지속 점검으로 인해 관계자의 점검결과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한 실정속에서 업종간의 차별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으며 방역패스 대상 업종에서 불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점검에서 예방접종 증명제에 대한 계도기간의 운영에 따라, 접종 미완료자 출입 및 수기명부 운영 등의 일부 미흡 사항이 지적되었다. 이때 유흥·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 증명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사업주들은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유행에 따른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23시 이후에 손님을 받지 않거나 또는 영업 종료 30분전 안내 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당·카페 사적모임 점검결과에서 사업주 및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 인지 수준이 높고, 현장점검시 5인 이상 모임의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접종을 받은 것으로 현장 확인됨에 따라 위반행위 적발 건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점검결과에 따라 향후 부처·지자체·경찰은 계도기간 종료 후 관련 시설에 대해 강력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상습·의도적·악질적 불법 영업 업소에 대해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처분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1) 김영신, “정부합동 특별점검단 일상회복 이행실태 점검결과”, 메디컬월드뉴스, 2021.11.10.

2) '22년 지역축제의 정부합동 안전점검 사례

'22년 5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9개 지역축제에 대해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제 행사장 내 시설 안전 및 방역관리 등 총 70여 건의 미흡한 사항을 확인하고 보완 조치하였다. 이때 정부합동 안전점검은 9개의 시·군·구가 대상이 되었으며, 전북 남원시·부안군, 전남 곡성군, 충남 공주시, 경북 고령군, 경남 하동군, 강원 원주시·춘천시, 울산 북구로 나타났다.²²⁾

'22년 지역축제의 정부합동 안전점검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이후, '22년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대면 방식의 지역축제가 본격적으로 재개됨에 따라 안전한 환경에서 지역별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차원에서 추진하였다. 특히 계절이 봄이라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축제 행사장에 많은 인파가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설 안전사고 및 감염병 재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정부합동 점검결과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시설물 안전 분야에서는 체험시설 안전 난간의 미설치 및 무대 장비에 대한 접근통제 미조치 등의 약 20건의 미흡사항이 지적되었고, 방역 관리 분야의 경우 행사장 내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유도에 대한 안내·홍보의 부족, 관람객 동선 분리 미흡 등의 약 10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외부에 콘서트 노출 및 식당·공연시설 내 소화설비 부족 등의 전기·소방 분야에서도 미흡사항이 지적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때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 또는 축제 개최의 사전 개선 보완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타 지자체에도

22) 행정안전부-행안부, 정부합동점검으로 보다 안전한 축제 환경 조성,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2339, 2022b.

점검결과 공유를 통해 유사한 위험요인의 사전 차단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통하여 향후 관계부처·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축제 행사장의 방역·안전점검을 강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3) 정부 집중안전점검의 법적 제도 현황

'23년 4~6월, 행정안전부는 약 3만개의 전국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에 대하여 2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 120개 공공기관과 17개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 방법으로 대한민국 안전대 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때 중점 점검대상은 최근 사고가 발생했거나 또는 노후화를 고려하여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선정되었으며, 교량·터널, 건설, 물류, 산사태 위험지역 등을 선정하였다.²³⁾

부처별 주요 집중점검 내용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공항 여객터미널, 주요 철도역, 공동구 등 중요도가 높고 사고가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공시설물을 집중 점검하였고, 고용노동부는 취약건설현장의 근로자 안전확보를 위해 고소작업대 등 사고다발·고위험 요인 관련 안전조치 상태를 집중해 점검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가스·석유·광산·열수송관 등 에너지 분야 주요 시설·설비의 구조적 안정성과 안전관리실태에 대하여 산·학·연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활용해 진단하였다. 이때 언론(뉴스) 분석, 국민 및 부처·지자체 의견수렴, 최근 사고발생(급경사지, 대형판매시설 등) 이슈 검토, 주민점검 신청제를 통해 국민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

[표 2]는 법적 근거에 따른 행정안전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역할을 나타낸 것으로, 집중안전점검의 추진체계는 법적 근거하에서 행정안전

23)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3년 집중안전점검기간 운영계획』, 행정안전부, 2023b.

부가 중 안전점검 추진 총괄 역할을 담당하면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추진체계로 운영된다.²⁴⁾ 이때 행정안전부는 집중안전점검 총괄, 운영(기본)계획 수립·배포, 중앙 및 지자체 추진상황 총괄, 중간·최종 결과 종합보고 등을 수행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은 소관분야 집중안전점검 총괄, 점검대상 선정 기준(안) 마련(직접점검, 지자체 점검), 소관분야 세부실행(추진)계획 수립, 직접 점검대상 점검 실시, 소관분야 지자체 지원, 후속조치 등 사후관리 실시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 집중안전점검 총괄, 관할지역 세부 실행(추진)계획 수립, 지자체 점검대상 선정(부처제시기준, 자체기준), 지자체 점검대상 점검 실시, 후속조치 등 사후관리 실시 등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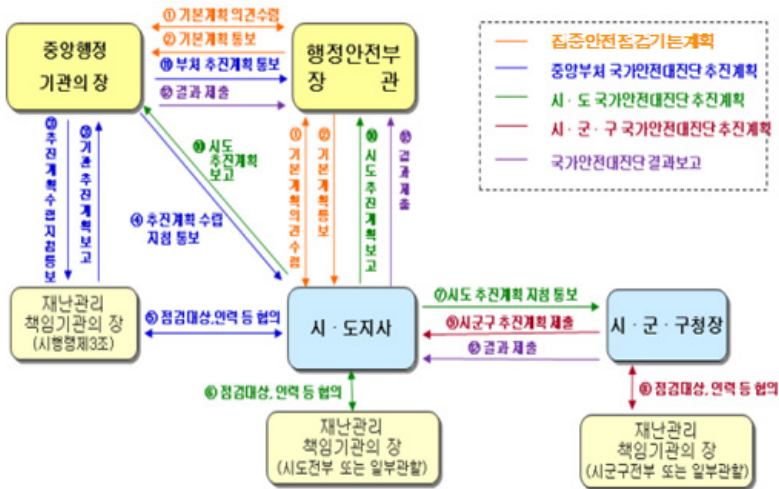
[표 2] 법적 근거에 따른 행정안전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역할

행정안전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안전점검 총괄·조정 - 기본계획, 추진계획 수립 - 국민의견수렴, 빅데이터 분석 - 기관별 사전 협의·조정 - 확인점검, 홍보, 평가, 성과공유 - 민간전문가 인력풀 구성·지원 및 민간 단체 협력체계 구축	■ 소관분야 안전점검 총괄 - 분야별 추진계획 수립 - 시설별 점검가이드* 마련(선정기준, 시설별 점검기준 등) - 점검 및 후속조치 등 이력관리 - 분야별 지자체 합동점검 지원	■ 지역별 안전점검 총괄 - 지역별 추진계획 수립 - 지역주민·전문가 의견수렴 - 점검 및 후속조치 등 이력관리 - 자율안전점검 홍보·캠페인 등 - 주민참여 등 시민단체, 민간 협의체 협력체계 구축

[그림 1]은 '23년 행정안전부 집중안전점검의 법적 업무 추진절차를 나타낸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당해연도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하고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 통보하며, 기본(운영)계획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는 소관분야 또는 관할 지역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식 등을 포함한

24) 행정안전부, 앞의 자료, 2023b.

해당 분야 집중안전점검 추진(실행) 계획을 수립하였다.²⁵⁾ 또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는 수립된 집중안전점검 추진(실행)계획에 따라 소관 또는 관할 지역의 점검대상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로 통보하였다.



[그림 1] 행정안전부 집중안전점검의 업무 추진절차

또한 중앙행정기관·지자체는 점검결과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후속조치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평가, 보수·보강 지원, 개선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였다. 이때 정부 안전슬로건인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의 BI(Brand Identity)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매년 법정부적으로 실시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정보의 효율적 전달·홍보 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홍보, 캠페인, 포스터, 현수막, 영상, 발간물 등을 통해 홍보 효과를 증대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험물질 취급기준 미흡, 소화전 앞 물건 적치, 소방·전기시설 고장 등 관리 부실 등이 주요사항으로 지적되었다. 교

25) 행정안전부, 앞의 자료, 2023b.

량의 일부 부식, 안전난간 보강 등에 대해 보수보강 등의 안전 조치를 실시하였다. 특히 우천시 하수맨홀 뚜껑 열림에 따른 인명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점검결과 사후관리를 위해,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의 지적사항 미이행 사항에 대해 유형별, 원인별, 기타 미이행 사유 등을 분석하여, 점검결과와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4) 정부 합동점검의 문제점 도출

재난 및 안전관리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정부 재난안전 합동점검 현황 분석 및 주요 사례 분석결과에 따라, 현행 정부 합동점검에 대하여 정부 합동점검단의 및 점검대상기관의 관점으로 분류하여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1) 정부 합동점검단의 문제점 분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안전점검의 권한 분배를 통한 재난안전 점검의 효율화 방안 검토가 요구된다. 이와 연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정부 합동점검체계에서 안전점검의 권한·책임이 현재는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으나, 향후 재난유형·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재난의 초등 대응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책임을 이양하는 재난 합동점검의 효율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점검기관 별 중복적 점검지표에 대한 점검대상기관의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점검기관 별 점검지표의 유사·중복성으로 인한 점검의 양적 횡수가 증가함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표면적인 안전점검 대응의 증가로 인해 점검효과가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영세한 중소 점검대상기관에 대한 정부합동점검 제도의 홍보 강화가

요구되며, 이와 연계하여 영세한 중소기업 등은 관련 법규 해석 역량이 낮고 비용 관점에서 시설 개선의 어려움이 크게 되므로 이에 대한 자금 지원의 제도적 보완 및 적극적 제도 홍보를 통한 점검의 효과 증가가 필요하다.

재난안전 지도가 필요한 안전점검 현장에서 지적·적발에 대한 현장 부담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안전 점검활동이 법규·기준 등에 따른 단속 위주의 점검이 진행되는 경우 점검 대응기관의 현장 부담감이 증가하게 되므로, 지적·적발 보다 지도·컨설팅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부처간 공통 사회적 이슈 발생 시 동시다발 점검에 따른 부담감 우려가 존재하므로, 이와 연계하여 대형사고 등의 부처간 공통 관심사가 되는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다수의 부처별 중복점검이 동시에 실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대상기관의 부담감이 증가할 문제점이 있다.

정부 합동점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의 플랫폼 기능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와 연계하여 안전정보의 체계적 이력관리 및 안전점검 결과 공유 등의 기능을 위해 기구축한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기능의 통합·개선을 통한 실질적 정부 합동점검 효과의 극대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부 합동점검 시 정부와 국민·점검대상기관 등 이해관계자 간 다양한 점검정보의 피드백 환류 기능을 확보한 플랫폼 기능의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과거 점검결과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점검지표·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이와 연계하여 과거 시도별·기관별·분야별·시설별 점검 결과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강화를 통해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따른 위험요인 취약부분을 발굴하고, 이와 함께 정확한 점검을 위해 드론·열화상카메라 등의 첨단 과학기술장비 활용을 통한 집중점검 방법의 개선방안 마련

이 필요하다.

점검대상기관으로 최신 점검정보의 전달체계 개선이 요구되며, 이와 연계하여 개정 법령정보·점검기준 등의 정부 합동점검에 대한 신속한 최신 정보 제공과 함께 해설서·사고사례 등의 구체적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합동점검단과 점검대상기관 간 상호 연계 피드백될 수 있는 플랫폼 개념의 정보 제공체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점검대상기관의 문제점 분석

실효성 높은 재난 대응체계 구축·운영 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이와 연계하여 사업장 내 현장점검·점검지표 등의 현실적 한계로 인해 형식적 점검의 개선을 통해 점검대상기관 사업장의 다양한 업무·시설·환경 요인들의 특성에 부합하는 실질적 재난 대응체계의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재난안전시설의 유지관리체계 강화 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이와 관련 점검대상기관 재난안전시설의 노후화 및 환경요인 등에 기인하여 재난안전시설의 구조·성능의 수명이 감소된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인력양성 및 전직원의 교육·훈련이 요구되므로 이를 반영한 재난안전시설의 단계적 유지관리체계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점검대상기관이 자체점검 등의 안전관리의 일부를 민간 안전관리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으로, 이에 따라 점검대상기관의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실효성 저하가 우려된다. 이와 연계하여 특히 안전관리업체가 전문성이 낮은 영세 소규모 업체인 경우 안전관리역량이 저하되므로 이에 따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재난안전 담당부서에 대한 기능 강화 방안의 마련이 요구되며, 이와 연계하여 비상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갖는 점검대상기관의 재난안전담당부서는 사업장의 모든 부서·구성원들과 연계되는 다량의 업무 수행

으로 인해 근무 기피부서가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난안전담당부서의 기능 강화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4. 핵심 관리요소 도출 및 개선방안 수립

1) 핵심 관리요소 도출

4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8개의 정부 합동점검단 관점의 문제점 및 4개의 점검대상기관 관점의 문제점으로 구분되는 총 12개의 정부 합동점검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와 매칭되는 총 9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상호 연계·맵핑 프로세스에 따른 5개의 핵심 관리요소를 도출하였다.

총 9개의 개선방안은 6개의 정부 합동점검단 관점의 개선방안 및 3개의 점검대상기관 관점의 개선방안으로 도출하였다. 정부 합동점검단 관점의 개선방안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효율성·전문성을 고려한 합동점검체계 개선, 관계부처별 정부 합동점검의 중복 점검 효율화 개선, 사업장 위험요소 특성과 연계되는 점검지표의 질적 개선, 정부 합동점검 제도의 실질적 홍보·인센티브 강화, 점검대상기관 수요 기반의 정부 합동점검 방법 마련, 정부 합동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통합공개시스템의 플랫폼 기능 개선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점검대상기관 개선방안의 경우, 사업장 특성과 매칭·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운영, 사업장 재난안전시설의 안전성 유지관리체계 강화 마련, 재난안전 담당부서의 전사적 기능 강화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2]는 정부 합동점검의 핵심 관리요소 도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총 12개의 문제점 및 총 9개의 개선방안 간 상호 연계·맵핑 프로세스에 따라 제도개선, 기술개발, 인력양성, 교육·훈련, 점검체계의 5개 핵심 관리요소를 도출하였다.



[그림 2] 정부 합동점검의 핵심 관리요소 도출 결과

여기서 5개 핵심 관리요소는 정부 합동점검의 문제점으로부터 발전방안 도출을 위해 고려하는 관리요소로서, 정부 합동점검의 효율성 기반의 재난관리체계 관련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합동점검의 플랫폼 기능 강화 및 재난안전시설 유지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함께, 사업장의 전문적 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장의 재난안전 인력의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함께, 합동점검 지표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점검체계가 요구된다.

정부 합동점검단 관점의 개선방안과 핵심 관리요소에 대한 상관관계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효율성·전문성을 고려한 합동점검체계 개선 방안의 핵심 관리요소는 제도개선, 점검체계이고, 관계부처별 정부 합동점검의 중복 점검 효율화 개선 방안의 핵심 관리요소는 제도개선, 점검체계이다. 이와 함께 사업장 위험요소 특성과 연계되는 점검지표의 질적 개선 방안의 핵심 관리요소는 제도개선, 기술개발, 점검체계로 도출되었

다.

또한 정부 합동점검 제도의 실질적 홍보·인센티브 강화 방안의 핵심 관리요소는 제도개선, 점검체계이고, 점검대상기관 수요 기반, 정부 합동점검 방법 마련 방안의 핵심 관리요소는 제도개선, 인력양성, 교육훈련, 점검체계이며, 정부 합동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통합 공개시스템의 플랫폼 기능 개선 방안의 핵심 관리요소는 제도개선, 기술개발, 점검체계로 분석되었다.

점검대상기관 관점의 개선방안과 핵심 관리요소에 대한 상관관계의 경우, 사업장 특성과 매칭·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운영 방안의 핵심 관리요소는 제도개선·인력양성·교육훈련·기술개발·점검체계이다. 사업장 재난안전시설의 안전성 유지관리체계 강화 마련 방안의 핵심 관리요소는 제도개선, 인력양성, 교육훈련, 기술개발, 점검체계이며, 재난 안전 담당부서의 전사적 기능 강화 방안 마련 방안의 핵심관리요소는 제도개선, 인력양성, 교육훈련으로 분석되었다.

2) 개선 방안 수립

재난 및 안전관리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정부 재난안전 합동점검 현황의 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요 사례 분석 및 합동점검의 문제점 분석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부 합동점검단 관점 및 점검대상기관 관점으로 분류하여 각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1) 정부 합동점검단의 개선방안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효율성·전문성을 고려한 합동점검 체계 개선 방안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정보 공유·소통의 전담 창구 마련 및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정부 합동점검의 전문성·통일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안전점검의 권한·책임을 지방자치단

체에 분배하여 재난유형·시설물 등을 고려한 합동점검이 실시되어야 한다.

직접적으로 재난이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현장과 연계되는 1차적 예방·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중앙정부는 이에 대한 총괄 관리감독 및 소요 예산 투자 기획을 실시하면서, 정부 합동점검 시 이에 대한 추진성과 점검 및 피드백 보완체계 구축·운용 성과에 따른 권한·책임 분배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에 발생하는 중점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사업성과의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운용을 통한 중점 재난안전사고의 해결 역량의 확보가 요구된다. 향후 중점 재난안전사고의 해결 노하우를 확보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산학연 컨소시엄의 구축·연계를 통해 해당지역의 재난분야 재정자립성 확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때 재난안전 예방·대응체계의 합동점검 및 점검 사후 피드백 개선성과 분석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별도의 '정부 합동점검 전문기관(가칭)'을 설립하여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부합하는 정부 합동점검 기능의 중장기적 전문역량 확보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관계부처별 정부 합동점검의 중복 점검 효율화 개선 방안의 경우, 정부 합동점검의 중복 점검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재난안전 분야별 유사 중복 점검사항의 통합, 다양한 점검사항들의 동시 실시, 보고서·제출서식·제출처 등의 행정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연계하여 부처별 법령·기준의 차이가 있는 유사동일한 점검사항들을 통합하고 관련 각 담당부처 간 지속적 협의를 통해 공통 적용되는 통합 법제도와 부처별 차별화되는 법제도를 구분하여, 이에 따른 중복항목의 동시점검 및 복합심사 등을 통한 합동점검의 효율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주요 사례로서, 고용노동부 공정안전관리제도(PSM)와 산업부 안전성관리체계(SMS)의 안전관리체계 점검에 대한 중복성을 해결하기 위해 2개 안전점검

에 대해 동시점검을 실시하는 복합심사제도 마련으로 통합 안전점검체계를 구축·운용하고 있다.

특히, 화학물질 관련 합동점검의 경우 점검의 근거가 되는 관련 개별법(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중복 점검이 실시되는 부분들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점검의 효율성 제고 및 점검대상기관의 수요 반영을 위해 점검시기·점검방법·행정처리 등을 통합한 합동점검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대형 재난·안전사고 및 복합재난 등의 부처 간 공통 관심사가 되는 사회적 이슈 및 대국민 수요가 집중되는 재난이 발생할 때 다수의 관련 부처별 중복점검이 실시되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점검대상기관의 부담감이 매우 증가함에 따라 부처합동회의를 통해 점검시기·점검방법 등을 고려한 정부 합동점검의 계획이 수립된 후 점검이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사업장 위험요소 특성과 연계되는 점검지표의 질적 개선 방안의 경우, 유사중복 점검사항의 통합과정에서 합동점검의 기준이 되는 점검지표의 통합이 요구되며, 양적 지표 항목의 증가는 점검대상기관의 점검대응 부담감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양적 지표항목의 증가를 지양하고 질적 개선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점검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이와 연계하여 점검대상기관의 재난안전 유형별·시설물별 위험요소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각 사업장별 재난안전사고의 예방·대응의 실효성 향상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질적지표이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장 재난안전체계 수준의 향상을 위해, 사업장 위험요소 특성과 연계되는 질적 중점지표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이에 대한 가중치 반영을 통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넷째, 정부 합동점검 제도의 실질적 홍보·인센티브 강화 방안의 경우, 정부 합동점검의 전반적 점검제도 및 점검지표·점검내용 등의 홍보체계에

대하여 합동점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점검 대응 역량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 등의 점검대상기관에 중점을 두는 홍보활동 전개 필요하다.

특히 영세기업의 경우 투입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효과가 낮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업 규모·매출액 등을 고려한 점검 대상별 그룹핑을 통한 합동점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성과가 우수한 점검기관에 대해 표창·가산점 및 기업대출금 증액 등의 인센티브 강화 제도 마련을 통해 점검대상기관의 동기유발·사기진작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다섯째, 점검대상기관 수요 기반의 정부 합동점검 방법 마련 방안의 경우, 기본적으로 합동점검 활동이 관련 법령·기준 등에 따른 단속 위주의 점검이 실시될 때 특히 영세한 점검대상기관의 점검 대응 부담감이 증가하게 되므로, 점검방향이 지적·적발 및 벌칙 부여 중심의 기존 점검방법을 탈피하여 수요 기반의 전문지도·컨설팅 중심의 점검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 분야의 정부 합동점검은 1차적으로 관련 법령·기준 등에 따른 점검이 실시되므로, 관계 부처에서는 최신 법령·기준 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함께 관련 해설서·사고사례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구체적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 합동점검 시 정보전달을 통한 전문 컨설팅 중심의 점검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수요 기반의 정부 합동점검이 효율적으로 실시되기 위해 합동점검 전·후의 설문조사 및 회의를 통해 점검대상기관 수요의 취합·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차년도 정부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합동점검 시 지적사항의 피드백 평가 등을 통해 지적사항의 양적·질적 이행결과에 대한 평가·컨설팅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여섯째, 정부 합동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통합공개시스템의 플랫폼 기능 개선 방안의 경우, 현행의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은 안전정보

의 체계적 이력관리 및 안전점검 결과 공유 등의 기능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국민·점검대상기관 등 이해관계자 간 상호 점검정보의 공유 및 피드백 환류 기능 강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기존 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통한 플랫폼 역량의 확보가 필요하다.

기존 시스템의 플랫폼 기능 강화를 위해 과거 점검결과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점검지표·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며, 과거 시도별·기관별·분야별·시설별 점검결과에 대해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체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따라 사업장의 위험요인 취약점을 발굴하고, 과거보다 정밀한 점검결과 도출을 위해, 드론·열화상카메라 등의 첨단 과학기술장비와 연계·활용을 통한 집중점검 방법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점검대상기관의 개선방안

첫째, 사업장 특성과 매칭·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운영 방안의 경우, 점검대상기관의 실질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사업장별 업무·시설·환경 요인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여 객관적 데이터 기반으로 사회재난·자연재난 유형으로부터 중점 유형들의 예측·발굴 및 재난 대응체계 구축·운영이 필요하다. 이와 연계하여 발굴된 사회재난·자연재난의 중점 유형들에 대하여, 재난현장과 연계하여 상시·비상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난대응 매뉴얼·시나리오 개발과 함께 이에 대한 전사적 구성원 참여 기반의 실증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재난현장과 연계하여 도출한 실증방안은 구성원의 주기적 교육훈련 프로세스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와 연계하여 차기 교육훈련·예산 계획에 피드백 보완하여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면서 사

업장 특성에 부합하는 실질적 재난대응체계의 고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사업장 재난안전시설의 안전성 유지관리체계 강화 마련 방안의 경우, 대부분의 점검대상기관 사업장은 전반적으로 법적 재난안전시설은 양호하게 설치되고 있으나, 시설의 노후화 및 환경요인 등에 기인하여 재난안전시설의 구조·성능이 저하된다. 그리고 합동점검 시 이에 대한 지적 사항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사전에 사업장의 특성에 부합하여 재난안전시설의 노후화 및 환경요인 등의 예측·분석을 통한 시설의 수명 예측으로 주기적 수리·교체·관리를 실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해양과 인접한 사업장 시설물의 경우 염수 환경에 의한 금속재료의 부식작용으로 인해 재난안전시설의 재료적·기계적 수명이 빠르게 저하되므로, 이러한 환경적 특성요인을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재난안전시설 구조·성능의 감소로 인해 재난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 증가로 인해 사업장의 안전성을 저하시키게 되므로, 재난이 발생하기 전의 재난 예방·대비활동을 위한 예산·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장은 상시 재난안전시설의 안전성 유지관리를 위해 자체점검의 일부를 민간점검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으로, 이때 점검 인력·시설 등의 점검역량이 미흡한 영세 민간위탁 점검업체는 형식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민간위탁 점검의 전문성을 고려한 유지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재난안전 담당부서의 전사적 기능 강화 방안의 경우, 점검대상기관의 재난안전담당부서는 사업장의 모든 부서·구성원들과 연계되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대부분 사업장의 경우 다량의 업무 수행으로 인해 근무 기피부서가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따른 재

난안전담당부서의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재난안전 담당부서의 근무 기피 부서 방지를 위해 담당부서의 교대근무, 인력 충원 및 인센티브 마련 등을 통해 전사적으로 재난안전 담당업무 수행의 동기유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비상시 재난안전 담당부서는 신속하게 전직원과 연계하여 재난안전 매뉴얼 및 비상대응 시나리오에 따른 전사적 대응을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하므로, 상시 담당부서 직원과 함께 전직원은 선진 안전기술 트렌드 습득 및 안전의식의 함양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실효성 높은 시험제도 마련 및 재난안전 훈련의 외부전문가 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문제점의 피드백 보완 및 차기 교육·훈련 계획 반영으로 사업장의 전사적 교육·훈련 관리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정부 재난안전 합동점검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로서, 최근 정부 합동점검 방안의 기초 데이터베이스가 미흡한 실정속에서 정부 합동점검 실태 및 현실적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위한 핵심요소를 도출하여 정부 재난안전 합동점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을 기반으로 실시하는 정부 재난안전 합동점검은 공통적으로 행정안전부 총괄로 운영되며, 정부합동안전점검단 편성을 통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정부 합동안전점검과 함께, 민·관 합동점검단 편성을 통해 국가 사회기반시설의 사전 예방적 차원으로 실시하는 집중안전점검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최근 3년간 코로나19, 지역축제 및 전국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 재난안전 합동점검의 3개 주요 사례 분석을 통해 및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안전점검의 권한 분배 조정 및 중복 점검지표에 대한 점검기관 업무량 가중 등 8개의 정부 합동점검단 관점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실효성을 고려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운영 및 사업장 재난안전시설 유지관리체계 강화 등 4개의 점검대상기관 관점에 대한 문제점 분석으로 분류하여 총 12개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총 12개의 정부 합동점검 문제점들과 상호 연계·맵핑 프로세스에 따른 제도개선, 인력양성, 교육훈련, 기술개발, 점검체계 총 5개의 핵심 관리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합동 점검단 및 점검대상기관 관점에서 정부 재난안전 합동점검의 체계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중요 요소를 파악할 수 있었다.

넷째, 정부 재난안전 합동점검의 주요 사례 및 문제점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총 6개의 정부 합동점검단 관점의 개선방안 및 총 3개의 점검대상기관 관점의 개선방안으로 분류하여 총 9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정부 합동점검단 관점의 개선방안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효율성·전문성을 고려한 합동점검체계 개선방안 및 관계부처별 정부 합동점검의 중복 점검 효율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점검대상기관 관점의 개선방안에서, 사업장 특성과 매칭·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운영 및 사업장 재난안전시설의 안전성 유지관리체계 강화 마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 재난안전 합동점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나, 중장기적 관점에 따라 정부 합동점검단 관점 및 점검대상기관 관점의 개선 관리요인들을 도출·분석하여 이와 연계되는 개선방안의 체계적인 고도화가 요

구되므로, 이를 위해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최근 정부 재난안전 합동점검 관련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고도화를 위한 핵심 관리요소들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검증 등의 지속적 확대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본 연구결과는 국가차원의 정부 합동점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법령의 개선을 위한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 문헌

- 고명석, 「재난현장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2권 4호, 한국경찰학회, 2020, 105-130쪽.
- 김영신, “정부합동 특별점검단 일상회복 이행실태 점검결과”, 메디컬월드뉴스, 2021.11.10.
- 김치경·홍건호·고일두,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과 연계한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한국전산구조공학회 논문집』 21권 5호, 한국전산구조공학회, 2008, 505-513쪽.
- 문유미·신용승·김진태,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가 안전점검평가 사후관리에 미치는 영향관계」,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18권 1호,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 228-240쪽.
- 박하용·이원호, 「건축물 재난사고 현황 및 안전점검제도 분석을 통한 안전점검체계 개선방안」,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19권 5호, 한국방재학회, 2019, 11-21쪽.
- 법무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2022.
- 신재현·김상운, 「국가안전대진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13권 4호, 한국재난정보학회, 2018, 334-342쪽.
- 유현희·배광빈·양기근,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국융합과학회지』 9권 2호, 한국융합과학회, 2020, 205-222쪽.
- 윤홍식,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가이드 마련을 위한 연구』, 행정안전부, 2020.
- 오윤경·차남준, 『공공분야 데이터플랫폼 활용성 제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23.
- 정지범·류현숙·오윤경, 『산업단지 안전점검 효율화 방안 마련』, 한국행정연구원, 2015.
- 한국재난안전연구원, 『안전관리업무 관리·감독 및 체계 개선방안 연구회재난·안전분야 등 재난관리 점검 및 평가』, 국민안전처, 2016.
- 한국행정학회, 『사회재난·안전분야 등 재난관리 점검 및 평가 지표

개발』, 국민안전처, 2015.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08호, 2023a.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2년 집중 안전점검 추진계획』, 행정안전부, 2022a.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3년 집중안전점검기간 운영계획』, 행정안전부, 2023b.

행정안전부-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관 합동 2024 집중안전 점검추진,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08&nttId=108682, 2024b.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20030호, 2024a.

행정안전부-행안부, 정부합동점검으로 보다 안전한 축제 환경 조성,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08&nttId=92339, 2022b.

■ 국문초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정부 합동점검은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 및 국민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 합동점검의 현실적 실태 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한 정부 재난안전 합동점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계 법령 및 문헌 조사를 통해 재난안전 관련 정부 합동점검의 법적 제도 현황 및 주요 사례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정부 합동점검의 현실적인 문제점 및 핵심요소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법적 제도 현황 및 최근 3년간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정부합동점검단 및 점검대상기관의 문제점으로 분류하여 12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5개의 핵심 관리요소를 도출하고 총 9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정부 재난안전 합동점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 합동점검단 및 점검대상기관의 관점을 고려하여 제도개선, 기술개발, 인력양성, 교육·훈련, 점검체계의 핵심 관리요소를 고려하여 발전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향후 본 연구결과는 국가차원의 정부 합동점검의 발전방안 및 관련 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재난안전, 정부 합동점검, 법적 제도, 핵심 관리요소,
개선방안

■ Abstract

A Study on Improvement Plans of Government Joint Inspection in Disaster Safety

Ku, Jae-Hyun / Mokw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for government disaster and safety joint inspections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government joint inspections. Through a review of related laws and literature, the legal system status and major cases of government joint inspections related to disaster and safety were analyzed. In connection with this, the actual problems and key elements of government joint inspections were analyzed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derived. The legal system status and major cases of the past three years were analyzed, and 12 problems were analyzed by classifying them into problems of government joint inspection teams and inspection target organizations. Through this, five core management elements were derived and a total of nine improvement measures were derived. As a result,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government disaster safety joint inspection, the development plan should be established by considering the perspectives of the government joint inspection team and the inspection target organizations, and considering the core management elements of the system improvement, technology development, human resource development, education and training, and inspection system. In the fu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basic database for the development plan of the government joint inspection at the national level and the establishment of related policies.

Keyword • Disaster Safety, Government Joint Inspection, Legal System, Key Management Elements, Improvement Plan

■ 논문투고일:2025.02.10. ■ 심사완료일:2025.03.11. ■ 게재확정일:2025.03.11. ■

〈오징어 게임〉의 자본주의 병리성 형상화 : 시즌 2 딱지맨의 왜곡된 인정 투쟁과 선택 설계

남 승 석 · 최 지 혜*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 인정 투쟁과 선택 설계
3. 연구 방법
4. 분석 결과 1
5. 분석 결과 2
6. 결론 및 제언

놀이를 위한 모임에는 게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칙들이 있다. 그리고 이 법칙들은 게임마다 다르다. 나는 이러한 모임들의 토대가 하찮다는 것을 인정한다. 게다가 그 법칙들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체로 변덕스럽고 제멋대로이다. 그만큼 정의, 신의, 충성의 규칙들과 이러한 [게임의] 규칙들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회는 인류의 존속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데이비드 흄, 『도덕 원리에 관한 탐구』

* 남승석(제1저자) 연세대학교 매체와 예술연구소 연구교수
최지혜(교신저자) 국립목포대학교 행정·언론미디어학부 조교수

1. 서론

2024년 12월 26일 공개된 <오징어 게임> 시즌 2는 전작의 성공을 이어 받으며 빠른 속도로 글로벌 흥행을 기록했다. 공개 이틀 만에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 시청시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럴’ 기준 93개국 TV 쇼 부문에서 시청률 1위를 달성하였다.¹⁾ 그리고 11일 만에 1억 2,620만 뷰를 기록하는 등 비영어권 시리즈로서는 이례적인 성과를 거두었다.²⁾ 이러한 빠른 흥행은 시즌 1의 성공이 시즌 2의 초기 관심을 견인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오징어 게임>이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슈퍼 IP 콘텐츠임을 보여준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2021)은 전 세계적 흥행을 통해 한국형 생존 게임 장르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 작품은 “예속, 폭력의 수용, 잔인함과 죽음 등이 소위 민주주의의 결정과 동의, 투표의 결과물인 세계”이며 “폭력적인 세계에서 밀려난 개인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다룬 세계”를 형상화한다.³⁾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극단적 양극화와 무한 경쟁, 그리고 인간성 말살이라는 주제를 잔혹하면서도 강렬한 시각적 서사로 풀어내며,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회적·철학적 성찰을 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소외와 착취, 극단적 경쟁 논리를 형상화함으로써 현대 자본주의의 병리적 구조를 비판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 서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그러나 일부 비평가들은 결국 “오징어 게임도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것 같으나, 결국 자본주의에 이용당하고 말 뿐”,⁴⁾ 즉

1) 이해진, ““오징어2 수익 최소 1조5000억” 전망에... 넷플릭스 “사실과 달라””, <조선일보>, 2025.01.01.

2) 최지연,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시즌2’는 시즌1을 넘어설 수 있을까: 11일 만에 1.2억뷰 달성하며 시즌1 흥행 속도 앞질러”, <ZDNet Korea>, 2025.01.08.

3) 올리비에 달리 저, 이상빈 역, 『오징어 게임의 철학』, 청송재, 2022. 17쪽.

4) 장준식, “[예술과 묵회] 오징어 게임 — 자본주의를 전복시키지 못하는 자본주의적 서사”, <가스펠투데이(Gospel Today)>, 2021.11.05.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비판마저 상업화하는 것이라고 비난을 한다.

〈오징어 게임〉은 그 자체로 자본주의의 모순을 강하게 비판하는 콘텐츠이면서 동시에 역설적으로 플랫폼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OTT 기업인 넷플릭스를 통해 상품화되고 유통되었다는 근본적 딜레마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오징어 게임〉에서 등장하는 456억 원을 놓고 벌이는 생존 게임의 알레고리적 형상화와 아이러니하게 닮아있다.

본 연구는 〈오징어 게임〉 시즌 2를 하나의 텍스트로 간주하고 이 텍스트의 핵심 요소인 게임의 규칙과 그로 인한 딜레마 자체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고자 한다. 경험주의자 데이비드 흄(David Hume)에 의하면 게임이 문제가 많더라도 규칙이 있어야 게임 자체가 지속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놀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에도 적용되는 원리임을 역설하였다.⁵⁾ 시즌 1에서 등장하는 456억 원을 놓고 벌이는 생존 게임은 명확한 규칙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규칙이 참가자들에게 불공정한 선택을 강요하고 생존을 위한 극단적 경쟁을 조장한다. 그래서 시즌 1에서 게임의 규칙과 설계는 단순한 서사적 장치가 아니라,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경쟁 논리가 초래하는 비인간화를 고발하는 텍스트로 읽힐 수 있다.

이러한 주제 의식은 〈오징어 게임〉 시즌 2에서 더욱 확장된다. 본 연구는 〈오징어 게임〉 시즌 2의 1화에서 ‘딱지맨’의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행동경제학의 인지적 편향과 선택 설계 이론, 그리고 헤겔의 주인-노예 변증법에 기반한 인정 투쟁 이론을 종합적으로 적용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참가자들이 비합리적이고 위험한 경쟁에 자발적으로 뛰어들도록 유도하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5) 데이비드 흄 저, 강준호 역, 『도덕 원리에 관한 탐구』, 아카넷, 2022, 18쪽.

본 연구의 기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시즌 2의 1화에서 등장하는 “딱지맨이 설계하는 게임과 그의 죽음은 오징어 게임 전체의 파국적 결과를 형상화하고 있고 그의 이야기는 ‘자본주의 병리성’을 극적으로 제시하는 상징적인 이야기이다.” 이런 가설에 기반을 두고 본 연구는 딱지맨의 에피소드를 인정 투쟁과 선택설계를 통해 분석하고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자본주의 병리성’은 단순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 경쟁이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구조적 모순을 의미하며, 생존을 위한 선택조차 자율적이라기보다 구조적 압박에 의해 강제되는 현실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은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계급적 배경과 그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오징어 게임〉에서 각 게임의 규칙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하고 공정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참가자들 간의 권력 불균형과 구조적 폭력을 내포하고 있다. 딱지맨이 설계한 게임들은 참가자들이 생존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위해 협력보다는 경쟁을, 도덕적 판단보다는 이기적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선택 설계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는 현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스템의 은밀한 작동 방식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한다:

- (1) 시즌 2의 전체 서사 구조 속에서, 제1화에서만 한정적으로 나타나는 딱지맨 캐릭터는 어떠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가?
- (2) 성기훈과 딱지맨 간의 제한적 대립 구도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 (3) 딱지맨이 보여주는 극단적 경쟁 논리와 스스로 선택하는 행위들은, 자본주의 병리성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형상화하는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1단계에서 행동경제학의 인지적 편향과 선택 설계 이론, 그리고 2단계에서 헤겔의 주인-노예 변증

법에 기반한 인정 투쟁 이론을 분석의 틀로 활용한다. 텍스트 분석을 통해 딱지맨 캐릭터의 대사, 행동, 그리고 그가 설계한 게임의 규칙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작품이 제시하는 사회비판적 메시지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인정 투쟁과 선택 설계

본격적인 이론적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루어진 〈오징어 게임〉 관련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자. 선행연구는 작품의 장르적 특성과 문화적 의미, 그리고 사회적 함의를 탐구하는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졌다.

2021년에는 전영재(2021)가 기존 데스 게임 장르의 틀 위에 ‘사실적인 인물, 게임을 통한 현실의 풍자, 비극적 감정의 구축’과 같은 요소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전략을 연구하였다.⁶⁾ 강유정(2021)은 한국 사회의 특수한 경쟁 구조와 능력주의가 작품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분석했다.⁷⁾ 〈오징어 게임〉이 단순한 글로벌 콘텐츠가 아니라 한국적 맥락을 담은 문화적 산물임을 논증했다.

2022년에는 보다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었는데, 강혜원·이성민(2022)은 장르의 보편성과 문화의 특수성이 결합된 이중적 상품 구조를 분석하여 넷플릭스의 글로벌 콘텐츠 전략을 규명했다.⁸⁾ 안승범(2022)의 연구는 작품이 한국 사회의 불공정한 경쟁 시스템과 낙오 및 배제 메커니즘을 고발하

6) 전영재, 「〈오징어 게임〉의 스토리텔링 전략 연구 -데스 게임 장르를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연구』 통권 제65호, 2021, 415-470쪽.

7) 강유정, 「한국형 생존서사와 K-능력주의-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황동혁, 2021)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3권 제2호, 2021, 33-65쪽.

8) 강혜원·이성민, 「넷플릭스의 초국적 콘텐츠 소구 전략 : 〈오징어 게임〉에 나타난 장르적 보편성과 문화적 특수성의 이중적 상품화 구조 분석」, 『언론과 사회』 제30권 제3호, 2022, 5-41쪽.

는 방식을 탐구했다.⁹⁾ 이는 헤겔의 주인-노예 변증법과 인정 투쟁 이론으로 확장 해석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김예란(2022)의 연구는 작품의 글로벌 시각정경과 의미 세계를 분석하며 죽음과 우정이라는 보편적 주제가 어떻게 한국적 맥락에서 재해석되는지 탐구했다.¹⁰⁾ 또한, 이연정(2022)은 배우들의 얼굴 연기가 극단적 감정과 내면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기여했다.¹¹⁾

2023년에는 더욱 다양한 학문적 접근이 이루어졌다. 유우현·정원식(2023)은 작품에 나타난 디스토피아적 공간 특성을 연구했다.¹²⁾ 심은진(2023)은 디스토피아적 공간 연출과 히치콕적 서스펜스를 활용한 영상미학과의 연관성을 분석했다.¹³⁾ 이강석(2023)은 마리안느 허쉬의 포스트메모리 이론을 통해 작품에 나타난 기억의 의미와 재해석을 시도했다.¹⁴⁾ 정미숙·한진영(2023)은 공간적 상징과 기호적 상징을 분석하여 선정성과 폭력성 이면의 함축된 주제적 의미를 규명했다.¹⁵⁾ 또한 허만섭(2023)은 해외 연구 동향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오징어 게임>이 국제적 학술 담론에 미친 영향

- 9) 안승범, 「불공정 피로사회, 비상식 투명사회의 폭력구조: <오징어 게임>, <지옥>론」, 『문화콘텐츠연구』 제24호, 2022, 7-37쪽.
- 10) 김예란, 「죽음, 우정, 그리고 <오징어 게임>: 글로벌 시각정경과 의미 세계」, 『방송문화연구』 제34권 1호, 2022, 7-47쪽.
- 11) 이연정, 「배우의 얼굴을 통한 내면의 표현: 벨라 발라즈 이론을 중심으로, <오징어 게임> 얼굴에 대한 미학적 고찰」,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6권 4호, 2022, 55-65쪽.
- 12) 유우현·정원식, 「한국형 OTT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디스토피아적 공간 특성 연구」,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제24권 제10호, 2023, 2303-2314쪽.
- 13) 심은진,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과 히치콕 영화 미학」, 『씨네포럼』 제45호, 2023, 169-191쪽.
- 14) 이강석, 「<오징어 게임>(2021)에 나타난 기억의 의미와 재해석: 마리안느 허쉬의 포스트메모리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3권 7호, 2023, 257-264쪽.
- 15) 정미숙·한진영, 「OTT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타난 상징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3권 제11호, 2023, 757-766쪽.

을 조사했다.¹⁶⁾ 고민환(2023)는 작품의 영상 속성이 시청자의 가치, 태도,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작중 인물들의 선택 행위를 분석하는 데에도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¹⁷⁾

2024년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다희·오윤경·최민음(2024)은 〈오징어 게임〉 관련 유튜브 파생 콘텐츠의 생성 행태와 이용자 관여 관계를 분석하여 원작의 영향력이 디지털 생태계 내에서 어떻게 확장되는지 보여주었다.¹⁸⁾ 윤석진(2024)은 작품에 나타난 골게미를 고찰하며 자본주의의 폐해를 풍자하는 방식을 연구했다.¹⁹⁾ 최은영(2024)은 작품 속 게임과 음악의 상호 연관성을 탐구하여 서사적 긴장감 조성에 있어 청각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²⁰⁾

본 연구는 ‘인정 투쟁’ 이론과 ‘선택 설계’ 개념을 결합하여, 〈오징어 게임〉 시즌 2에서 딱지맨의 서사와 그가 선택한 죽음이 현대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 속에서 인간의 비극적 삶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인정 투쟁’은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을 분석하는 핵심 관점을 제공하며, ‘선택 설계’는 이러한 갈등을 심화시키는 사회·심리적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이론적 도구로 기능한다. 이 두 관점을 결합함으로써, 자본주의 불평등 구조가 어떤 과정을 통해 왜곡된 개인적 및 집단적 갈등으로 확산

16) 허만섭, 「넷플릭스 킬러콘텐츠 <오징어 게임>의 해외 연구 동향: 체계적 문헌 고찰」,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제24권 제4호, 2023, 713-723쪽.

17) 고민환, 「〈오징어 게임〉 영상 속성이 가치, 태도,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교화 가능성 모델 적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3권 제8호, 2023, 345-355쪽.

18) 정다희·오윤경·최민음,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관련 유튜브 파생 콘텐츠의 이용자 인게이지먼트 분석」,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제25권 제7호, 2024, 1665-1675쪽.

19) 윤석진,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골게미 고찰」, 『비평문학』 제91호, 2024, 201-229쪽.

20) 최은영,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타난 게임과 음악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4권 제10호, 2024, 271-280쪽.

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1) 헤겔의 ‘주인-노예 변증법’과 현대 자본주의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은 “인정 투쟁” 개념을 주인-노예 변증법을 통해 체계화하였고, 그에 따르면 인간의 자아의식은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며,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필수적라고 역설했다.²¹⁾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두 자아의식은 서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투쟁하게 되는데, 그 결과 한쪽은 다른 한쪽을 억압하여 ‘주인’의 위치를 차지하고, 반대로 억압당한 쪽은 ‘노예’의 역할을 맡게 된다.

헤겔은 주인이 노예의 복종을 ‘인정’으로 받아들여도, 이 인정은 강압에 의한 것이므로 진정한 자발적 인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주인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온전히 확립하지 못하고 내면적으로 불안정한 자아의식을 형성하게 된다.²²⁾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역설적 관계가 ‘권력자와 피권력자’ 또는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긴장 관계로 재현된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노동자로부터 강제된 복종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정당화하려 하지만, 그 인정이 자발적이지 않으면 고용주의 정당성에 근본적인 불안정성이 내재될 수 있다.²³⁾

반면, 노예의 자아의식 성장과 전환 가능성을 언급한다. 노예는 주인의 명령에 순응하며 노동과 자연 지배의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효능감을 축적할 기회를 가진다. 이러한 경험은 노예로 하여금 단순히 억압받는 존재를 넘어, 스스로의 주체적 자아의식을 발전시킬 가능성을 열어준다.

21)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Phenomenology of Spirit* (A. V. Miller, Trans.), Oxford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807), 1977.

22) Ibid.

23) Axel Honneth,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The Moral Grammar of Social Conflicts*, The MIT Press, 1995.

헤겔의 관점에 따르면, 이 과정이 때때로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현대 자본주의와의 측면에서 헤겔의 주인-노예 변증법은 주인이 노예의 강압적 인정에 의존하여 자립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그 인정이 본질적으로 자발적이지 않기 때문에 주인의 정당성이 근본적으로 불안정해진다는 역설을 보여준다. 이러한 역설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자-피권력자’ 혹은 ‘고용주-노동자’ 간의 관계에 반영된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피지배자의 강제적 복종에 의존하여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그 복종이 진정한 자발적 인정을 대변하지 않을 경우, 지배층의 자립성과 권위 역시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²⁴⁾

2) 호네프와 프레이저: 인정 투쟁의 현대적 확장

악셀 호네프는 헤겔의 인정 투쟁 개념을 현대 사회철학으로 확장하면서, 인간이 타인의 긍정적 평가를 받기 위해 ‘사랑’, ‘법적 권리’, 그리고 ‘연대’의 세 영역에서 인정이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호네프에 따르면, 이 세 영역 중 어느 하나라도 결핍될 경우, 개인은 자신이 부정당했다고 느끼게 되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들이 겪는 소외감과 정체성 혼란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²⁵⁾ 한편, 낸시 프레이저와 호네프는 경제적 재분배와 문화적 인정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대 자본주의의 불평등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물질적 격차(재분배 부재)와 문화적·사회적 차별(인정 부재)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하위 계층이 극단적 폭력과 경쟁에 노출되는 구조적 상황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다.²⁶⁾

24) Ibid.

25) Ibid.

26) Nancy Fraser & Axel Honneth, *Redistribution or Recognition?: A Political-Philosophical Exchange*, Verso Books, 2003.

현대 사회에서 인정 투쟁은 헤겔의 주인-노예 변증법에서 보이는 역설을 보다 다층적으로 재현한다. 각종 제도와 문화적 구조 속에서 ‘주인’에 해당하는 지배층은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면서도, 그 인정이 강압적·비자발적으로 획득되는 경우 자기 정당성에 불안을 안게 된다. 반면, ‘노예’에 해당하는 피지배층은 착취와 소외 속에서도 노동과 경험을 통해 역설적으로 더 높은 자아의식을 발전시킬 가능성을 지닌다. 이 과정은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개인들이 스스로를 ‘합리적 주체’로 인식하려 하지만, 동시에 타인의 인정과 제도적 구조에 묶여 있는 권력자들의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결과를 낳는다.

3) 선택 설계(Choice Architecture)와 행동경제학

행동경제학은 인간 의사결정의 비합리적 측면에 주목하여, 사람들이 제한된 정보 처리 능력과 감정적 편향 등으로 인해 최적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²⁷⁾ 전통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으로 가정하며,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분석하여 최적의 선택을 한다고 보지만, 실제 인간은 인지적 제약과 감정적 요소 때문에 이러한 합리적 선택에서 벗어나곤 한다.²⁸⁾ 행동경제학은 인간 의사결정의 비합리적 측면에 주목하여, 제한된 정보 처리 능력과 감정적 편향으로 인해 사람들이 최적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²⁹⁾ 전통 경제학이 인간을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27) Kahneman, D. & Tversky, A.,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vol. 47, 1979, pp.263-291; Tversky, A. & Kahneman, D., "The framing of decisions and the psychology of choice", *Science*, vol. 211, no. 4481, 1981, pp.453-458.

28) Bruni, Luigino & Robert Sugden, "The Road Not Taken: How Psychology Was Removed from Economics, and How It Might Be Brought Back",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31, no. 1, 2007, pp.146-173.

29) Kahneman, D. & Tversky, A., op. cit., 1979; Tversky, A. & Kahneman, D., op. cit., 1981.

분석하여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경제적 인간'으로 가정하는 것과 달리, 실제 인간은 인지적 제약과 감정적 요소로 인해 이러한 합리적 선택에서 벗어나는 경향을 보인다.³⁰⁾

사이먼의 '제한된 합리성' 이론은 인간의 인지적 제약(제한된 지식, 계산 능력, 추론 능력)이 완전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설명한다.³¹⁾ 그는 인간 행동의 합리성이 두 가지 환경적 요인—행위가 이루어지는 외부 환경과 개인의 심리, 기억, 의사결정 과정을 포괄하는 내적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³²⁾ 사이먼의 핵심 주장은 인간이 효용 극대화가 아닌 만족 수준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점이다. 시간과 자원의 제약 속에서 인간의 의사결정은 '제한된 합리성'의 틀 안에서 작동하며, 모든 정보와 대안을 검토하는 완벽한 합리성 대신 주어진 상황에서 '적당화'(satisficing: 만족함[satisfying]과 적당함[sufficing]의 합성어)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한다. 따라서 인간은 제한된 이기성, 정보 처리 능력, 의지력을 지닌 존재로서 전통적인 '경제적 인간' 모델과 본질적인 차이를 보인다.

트버스키와 카네만은 사이먼의 '제한된 합리성' 개념을 토대로 '불확실성하에서의 판단: 휴리스틱과 편향' 연구를 통해 인간의 인지 체계가 구조적인 오류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입증했다.³³⁾ 이러한 비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은 '휴리스틱'과 같은 인지적 간편법칙, 그리고 '손실 회피'와 '프레이밍 효과'와 같이 정보의 제시 방식에 따라 판단이 왜곡되는 현상으

30) Bruni, Luigino & Robert Sugden, op. cit.

31) Simon, H. A., "Theories of bounded rationality", *Decision and organization*, vol. 1, no. 1, 1972, pp.161-164.

32) Simon, H. A., "Bounded rationality in social science: Today and tomorrow", *Mind & Society*, vol. 1, no. 1, 2000, pp.25-39.

33) Tversky, A., & Kahneman, D., "Judg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Science*, vol. 185, no. 4157, 1974, pp.1124-1131.

로 나타난다.³⁴⁾

카네만은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카네만의 시스템 I과 시스템 II라는 두 가지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설명한다.³⁵⁾ 시스템 I은 직관, 연상, 자동성, 신속, 병렬적인 특징을 가진 어림짐작식 판단을 자동으로 내리는 반면, 시스템 II는 분석적이고 이성적이며 통제가능하고 규칙에 따르는 직렬처리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 모델은 인간이 직관적이고 빠른 사고를 하는 방식과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하는 방식을 구분하며, 다양한 심리적 편향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이해하는데 기여한다.

시스템 I은 자동적이고 직관적이며 감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는 경험과 연상에 기반하여 빠르게 판단을 내리며,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어림짐작식 판단을 활용한다.³⁶⁾ 예를 들어, 대표성이나 가용적인 어림짐작식 판단과 같은 심리적 지름길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지만, 이러한 방식은 종종 인지적 편향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 I은 진화적으로 오래된 뇌 구조인 변연계와 관련이 있으며, 생존에 필요한 즉각적인 반응을 가능하게 하지만 현대 사회의 복잡한 의사결정에서는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³⁷⁾

반면, 시스템 II는 느리고 분석적이며 논리적인 사고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규칙 기반의 추론을 수행하고 논리적

34) Tversky, A., & Kahneman, D., "The framing of decisions and the psychology of choice", *Science*, vol. 211, no. 4481, 1981, pp.453-458.

35) Kahneman, D., *Thinking, Fast and Slow*,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11.

36) Tversky, A. & Kahneman, D., op. cit., 1974.

37) Stanovich, K. E. & West, R. F., "Individual differences in reasoning: Implications for the rationality debate?",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vol. 23, no. 5, 2000, pp.645-665.

사고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린다.³⁸⁾ 시스템 II는 계산, 계획, 자기 통제와 같은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을 담당하며, 복잡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인지적 자원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작업 기억 용량이 제한될 경우 쉽게 피로해질 수 있으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³⁹⁾

두 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서로 상호작용한다. 시스템 II는 시스템 I이 생성한 판단을 감시하고, 필요할 경우 개입하여 수정하는 역할을 한다.⁴⁰⁾ 또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처음에는 시스템 II가 필요했던 과제가 점차 자동화되어 시스템 I의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운전과 같은 기술은 초보자에게는 시스템 II의 노력이 요구되지만, 숙련되면 시스템 I이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카네만의 이중 시스템 모델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편향과 오류를 이해하는 데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⁴¹⁾ 특히, 시스템 I의 자동적 처리는 확증 편향, 가용성 휴리스틱, 정박 효과 등의 인지적 편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감정은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로 시스템 I을 통해 작동한다(Damasio, 1994). 이러한 연구들은 인지적 부하가 높을 때 사람들이 시스템 I에 더 의존하게 된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는 복잡한 상황에서 인간이 직관적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커진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기여한다.

38) Kahneman, D., op. cit., 2011.

39) Evans, J. S. B. T., "Dual-processing accounts of reasoning, judgment, and social cogni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59, Annual Reviews, 2008, pp.255-278.

40) Kahneman, D. & Frederick, S., "Representativeness revisited: Attribute substitution in intuitive judgment", T. Gilovich, D. Griffin, & D. Kahneman eds., *Heuristics and biases: The psychology of intuitive judgment*, 2002, pp.49-81.

41) Tversky, A., & Kahneman, D., op. cit., 1974.

결론적으로, 카네만의 시스템 I과 시스템 II 모델은 인간의 사고 과정과 의사결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설명하는 강력한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 이 모델은 심리학, 경제학, 신경과학,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인간이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구두쇠'(cognitive miser) 성향은 행동경제학의 주요 연구 대상이다. 이는 인간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인지 에너지 사용을 회피하고, 대신 간단하고 실용적인 판단 방식인 휴리스틱을 활용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특히 정보의 불확실성이 높거나, 시간적 제약이 있거나, 정보 과잉 상태에서 이러한 인지적 절약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동일한 정보를 '90% 생존율'과 '10% 사망률'로 각각 제시할 경우, 사람들은 정서적 반응과 선택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라고 불리는 인지 편향이다. 또한, 사람들이 장기적인 이득보다 단기적인 보상을 과도하게 선호하는 '쌍곡 할인(Hyperbolic Discounting)' 경향은 미래의 이득을 현재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게 만들어, 장기적 안정보다 당장의 만족을 우선시하는 비합리적 선택을 낳는다.⁴²⁾

이러한 심리적 메커니즘은 '선택 설계(Choice Architecture)' 개념으로 응용되며, 의사결정 환경을 인위적으로 구성하여 특정 행동을 유도하거나 방지하는 전략을 의미한다.⁴³⁾ 이는 제한된 인지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

42) Thaler, R. H. & Shefrin, H. M., "An Economic Theory of Self-Control",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9, no. 2,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pp.392-406.

43) Richard H. Thaler & Cass R. Sunstein, *Nudge: Improving decisions about health, wealth, and happiness*, Yale University Press, 2008, pp.356-360.

해 비록 최적의 판단은 아닐지라도, 현실적 제약하에서 적당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서바이벌 게임 서사는 이러한 비합리적 선택 메커니즘이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시각적으로 재현한다. 예컨대 〈오징어 게임〉 시즌 2에서 성기훈과 프론트맨의 대립 구도는 시스템 I(직관적, 감정적 판단)과 시스템 II(분석적, 계산적 판단)의 충돌로 해석할 수 있으며, 초반에 등장하는 딱지맨 캐릭터는 이러한 인지적 충돌을 극대화하는 '선택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수행한다.

시즌 2의 주요 게임인 '5인6각 근대5종', '짜짓기 게임', 'OX 투표' 등은 제한된 정보와 인지 편향 속에서 참가자들이 내리는 비합리적 선택—즉, 단기적 이득과 불확실한 대박 사이의 선택—을 통해 자본주의적 경쟁 논리와 인정 투쟁이 결합된 사회적 모순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선택 설계의 왜곡이, 결국 개인의 비극적 결과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행동경제학은 현대 사회와 〈오징어 게임〉 시즌 2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분석 도구로 기능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 2의 첫 번째 에피소드를 대상으로 하여, 작품 속 서사를 중심으로 현대 자본주의의 병리성, 인정 투쟁, 그리고 선택 설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는 해당 에피소드 내 세 가지 주요 시퀀스—'딱지치기', '뽕과 복권', '러시안 룰렛'—를 중심으로, 서사의 전개 방식, 장면 구성, 대사, 시각적 연출, 그리고 인물 간 상호작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작품에 내재된 사회적·철학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텍스트 분석과 서사 분석을 병행하여 작품의 의미

를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첫째, 드라마의 대사 및 내레이션을 중심으로 텍스트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둘째, 영상적 요소와 내러티브 구조를 중심으로 서사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선택 설계 개념을 중심으로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과 자본주의적 구조가 서바이벌 게임 서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첫째, 텍스트 분석은 선택 설계와 인정 투쟁의 반영으로 텍스트를 해석한다. 작품 속 게임과 관련된 주요 대사 및 내레이션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각 시퀀스에서 등장하는 주요 인물(예: 딱지맨, 성기훈 등)의 대사를 문장 단위로 분할한 후, ‘인정 투쟁’, ‘폭력적 경쟁’, ‘자기책임 논리’ 등의 핵심 개념과 관련된 부분을 체계적으로 발췌하고 분류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인정 투쟁 이론을 분석 틀의 핵심으로 삼아, 인물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와 그에 따른 갈등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딱지맨이 “내일이 없는 삶에 힘겨워하시는 분들”이라고 말하며 참가자들에게 게임 참여를 유도하는 장면은 단순한 게임 제안 이상의 의미를 내포한다. 이는 참가자들이 경제적 압박과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고, 체제적 압박과 왜곡된 인정 투쟁의 결과로 선택의 압박에 놓여 있음을 암시한다.⁴⁴⁾ 이러한 구체적 텍스트 사례들은 선택 설계 개념과도 연결된다. 딱지맨은 선택 설계자로서 참가자들이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는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장기적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하며, 이는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프레

44)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op. cit.; Kahneman, D. & Tversky, A., op. cit., 1979.

이밍 효과' 및 '기본 옵션 효과'의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⁴⁵⁾

향후 연구에서는 전체 드라마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텍스트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더욱 보강할 필요가 있음이 제안된다.

둘째, 서사 분석은 시각적 연출과 선택 설계의 표현으로 간주하고 분석한다. 작품의 영상적 연출과 내러티브 구조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분석 과정에서는 공간 연출, 시각적 상징, 음향 및 음악 등 다양한 영상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예를 들어, 장소와 사건은 '지하철역 딱지치기', '탑골공원 빵과 복권', '핑크 모텔 러시안 룰렛' 장면들로 다음과 같다. 우선, '지하철역 딱지치기' 장면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게임이 사회적 경쟁과 선택의 압박을 상징하는지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탑골공원 빵과 복권' 장면에서는 노숙자 밀집 지역의 배경이 자본주의적 불평등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핑크 모텔 러시안 룰렛' 장면에서는 폐쇄적 공간 구성, 붉은 조명, 클로즈업 기법 및 편집 방식이 인물들의 내면적 갈등과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서바이벌 게임 서사는 비합리적 선택 메커니즘이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시각적으로 재현한다. 시즌 2에서 등장하는 주요 게임들('5인6각 근대5종', '짜짓기 게임', 'OX 투표')은 참가자들이 제한된 정보 속에서 내리는 비합리적 선택을 극단적으로 부각시키며, 자본주의적 경쟁 논리와 인정 투쟁이 결합된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다.

영상적 연출 분석은 각 장면의 미술 디자인, 카메라 워크, 조명 효과, 그리고 편집 기법 등 구체적 요소들을 서술하여, 해당 연출이 작품 내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사회·철학적 메시지를 다각도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장면들의 스틸컷 및 캡처 이미지를 부

45) Tversky, A. & Kahneman, D., op. cit., 1981; Richard H. Thaler & Cass R. Sunstein, op. cit., 2008.

록에 첨부하여, 독자가 시각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기대 효과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인정 투쟁 이론과 행동경제학적 선택 설계 개념을 적용하여, 딱지맨이 제시하는 게임 규칙과 그에 따른 참가자들의 선택이 현대 자본주의의 불평등과 경쟁 구조를 어떻게 상징적으로 재현하는지를 해석하였다. 또한, 시즌 1과 비교하여 시즌 2에서 서사가 어떻게 확장되고 재해석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단순 생존 게임 이상의 사회·철학적 의미망이 도출됨을 보였다. 특히, ‘러시안 룰렛’ 게임 장면은 극단적인 선택 구조와 운명적 위험을 내포한 서바이벌 게임 서사의 전형적인 요소를 반영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게임이 극단적 경쟁 논리를 어떻게 은유하는지 분석하며, 이 장면이 현대 자본주의의 위험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에 주목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가진다. <오징어 게임> 시즌 2 첫 번째 에피소드가 현대 자본주의의 병리적 구조를 비판적으로 형상화하는 방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특정 에피소드와 주요 시퀀스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체 서사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분석이 부족할 수 있다. 또한, 텍스트 및 서사 분석에 초점을 맞춘 연구 방법론이기 때문에, 실증적 데이터를 활용한 수용자 연구나 산업적 분석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보다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을 통해 <오징어 게임> 시즌 2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 분석 결과 1: 게임과 선택의 단계별 전개-시스템적 폭력의 구현

<오징어 게임> 시즌 2의 1화에서 딱지맨은 현실에서 게임을 설계하면서 동시에 직접 참가자로 뛰어드는 인물이다. ‘딱지치기’, ‘빵과 복권’, ‘러

시안 룰렛' 게임을 통해 자본주의적 욕망, 불평등, 경쟁을 표출한다.

1) 지하철 종각역 '딱지치기': 참가자 선별과 유희의 폭력화

〈오징어 게임〉 시즌 2에서 딱지맨(공유)의 딱지치기 장면은 서사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능한다. 시즌 1에서 딱지맨은 지하철 플랫폼이라는 공공장소에서 성기훈(이정재)에게 접근하여 딱지치기 게임을 제안한다. 이 장면에서 딱지맨은 정장을 입고 온화한 미소를 띠며 “내일이 없는 삶에 힘겨워하시는 분들”이라는 대사를 사용해 성기훈의 절박한 상황을 부각시키며, 참가자들이 경제적 압박과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한 상태임을 암시한다. 이러한 대사는 단순한 놀이 제안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며,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체제적 압박과 왜곡된 인정 투쟁의 결과로 선택의 압박에 놓이게 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딱지치기 행위는 “딱”하는 소리와 손을 던지는 듯한 몸짓과 함께 이루어지는 물리적 행동이다. 플랫폼을 울리는 이 몸짓과 소리는 그 상황의 잔인함과 폭력성이 암시하고 있는 듯 하다. 시즌 1에서 딱지치기는 승리하면 10만 원의 보상이 주어지고, 패배한 자는 그 대가로 상대의 따귀를 맞게 되는 규칙 하에 진행된다. 따귀를 맞을 때 “딱”하는 소리는 딱지치기와 유사한 소리와 손을 던지는 몸짓이다. 그 소리는 지하철 플랫폼에 울려 퍼진다. 차이가 있다면 따귀를 때릴 때 맞는 사람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 과정은 단순한 어린이 놀이가 아닌,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경쟁 논리와 폭력적 처벌의 체계가 유지되는 오징어 게임의 새로운 공간을 잠시 현실에 생성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의 딱지맨의 젠틀한 외모와 잔인한 행동 사이의 극명한 대비는 현실의 냉혹함을 드러내 보인다. 그리고 이는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

미장센 및 연출 측면에서, 지하철 플랫폼의 인공 조명과 차가운 색조의

배경, 그리고 딱지맨이 착용한 깔끔한 정장과 온화한 미소는 그가 단순한 모 집책 이상의 인물임을 암시한다. 카메라 클로즈업 기법은 딱지맨의 얼굴에 나타나는 미묘한 표정 변화를 포착하여, 겉으로는 친절하게 보이지만 내면에 폭력적 조작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시각적으로 부각시킨다. 이처럼 ‘딱지치기’ 시퀀스는, 대사와 미장센, 연출 기법의 정교한 결합을 통해 관객들에게 단순한 놀이 이상의 사회적·철학적 메시지—즉,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선택이 체제적 압박과 폭력에 의해 조작되는 구조적 모순—를 상징적으로 재현하는 장면으로 기능한다.

시즌 2에서는 에피소드 1에서 다시 한번 딱지치기 장면이 등장하며, 에피소드 4 ‘여섯 개의 다리’에서는 딱지치기를 포함한 다양한 한국 민속놀이가 게임 요소로 도입된다. 이들 장면은 한국 전통 놀이의 미학을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소개함과 동시에, 〈오징어 게임〉의 잔혹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에피소드 01에서 우석(전석호)과 김대표(김법래)가 3년간의 수색 끝에 지하철역에서 딱지맨을 발견하는 장면은 “딱”하는 소리에 의해서이다. 딱지치기의 “딱” 소리와 지하철이 들어오면서 잘 들리지 않지만 딱지를 때리는 손과 돌아가는 얼굴로 그들은 딱지맨과 만나게 된다. 딱지맨의 정체성과 그가 ‘오징어 게임’으로 들어가는 통로 역할을 상징적으로 암시하며, 시즌 2의 본격적인 시작과 함께 앞으로 전개될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를 예고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한다.

2) 탑골 공원 ‘빵과 복권’: 생존과 욕망의 이중성

두 번째 게임인 ‘빵과 복권’ 시퀀스는 탑골 공원의 도시적 배경으로 노숙자들이 하루를 보내는 곳이다. 노숙자에게 선택의 빵과 복권의 상황을 통해, 자본주의적 욕망과 구조적 폭력성이 취약 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극적으로 드러낸다. 이 장면에서 딱지맨은 “내일이 없는 삶에 힘겨워하시는

분들”이라는 표현으로 노숙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즉각적 생존 수단인 빵과 불확실하지만 매혹적인 보상인 복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한다.

딱지맨이 노숙자들에게 “내일이 없는 삶에 힘겨워하시는 분들”이라고 호칭하는 대사는, 단순한 게임 제안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경제적 압박과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는 심리학자 카네만과 트버스키가 전망 이론이 설명하는 손실 회피와 위험 감수 경향과 연결된다. 전망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동일한 기대값을 가진 선택지에서도 손실을 피하려는 심리가 강하며, 손실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을 보인다.⁴⁶⁾ 이러한 맥락에서 노숙자들은 현실적 식량인 빵보다 한탕주의적 대박, 즉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기대를 상징하는 복권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는 자본주의적 욕망이 “지금 당장의 안전”보다 “더 큰 인정과 보상”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현실을 반영한다. 이는 카네만과 트버스키(1981)가 제시한 프레이밍 효과와도 관련이 있다. 딱지맨은 선택지를 단순한 빵과 복권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도전” 대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라는 가치 판단이 개입된 형태로 프레임을 설정한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선택이 자율적인 것처럼 느끼지만, 실상은 체제적 폭력이 강제된 왜곡된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복권을 굶는 순간 발생하는 긴장감은, 참가자들의 선택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체제적 폭력과 왜곡된 인정 투쟁의 산물임을 암시한다. 복권이 ‘깡’으로 드러남에 따라 딱지맨은 “이 빵을 버린 건 여러분”이라는 발언과 함께 남은 빵을 무자비하게 짓밟는다. 이 장면은 단순한 경제적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노숙자들이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존엄성을 상실하고, 체제

46) Kahneman, D. & Tversky, A., op. cit., 1979.

적 폭력의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은유적으로 전달한다.

드라마의 미장센 및 연출 측면에서 빵과 복권의 시퀀스를 살펴보자.

우선 이 시퀀스의 배경인 탑골 공원은 노숙자들이 모여 있는 현실을 생생하게 재현하며,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소외를 시각적으로 강조한다. 딱지맨의 세련된 정장과 단정한 외모는 그가 권위적 ‘주인’의 이미지를 과시하는 동시에, 참가자들에게 강제적 선택을 유도하는 폭력적 메커니즘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카메라 워크와 편집 기법은 복권을 굶는 순간의 긴장감과 복권이 당첨되지 않았을 때 참가자들이 좌절하는 모습을 아이러니하게 묘사하며, 그들의 처지를 희화화하는 방식으로 연출된다. 이러한 장면들은 이어지는 딱지맨이 멀쩡한 빵을 노숙자들 앞에서 짓밟는 장면의 충격적인 전개를 더욱 부각하게 만든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인간의 본성과 욕망, 그리고 현실적 상황에서 좌절을 직관적으로 체감하도록 유도된다. 특히, 딱지맨이 빵을 짓밟는 순간을 클로즈업하는 연출은,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 받는 사회적 낙인과 체제적 억압의 구조를 강조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실패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철학적·사회적 해석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빵과 복권’ 시퀀스는 노숙자들이 현재의 생존(빵)과 미래의 가능성(복권)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이중적 상황을 통해, 헤겔의 주인-노예 변증법이 재현되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노숙자들은 ‘노예’의 위치에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기본적인 생존 욕구와 동시에 더 큰 인정과 보상을 향한 열망 사이에서 모순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딱지맨이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위험을 증가시키는 방식은 점진적 순응 효과를 떠올리게 한다. 참가자들은 초기에는 비교적 안전한 선택지를 제공받지만, 점차

적으로 위험이 증가하면서도 자신의 선택이 자율적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체제적 상황이 내면화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이 시퀀스는 OTT 플랫폼의 서바이벌 드라마가 단순한 오락을 넘어, 현대 자본주의의 불평등과 폭력, 그리고 왜곡된 인정 투쟁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문화적 장치임을 입증한다. 딱지맨의 역할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체제적 폭력과 심리적 조작이 결합된 메커니즘을 체현하는 존재이며, 이는 참가자들의 선택이 자유 의지라는 환상을 깨뜨리고, 실질적으로는 구조적 압박 속에서 이루어지는 통제된 의사결정 과정임을 강조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3) 핑크 모델 '러시안 룰렛': 극한의 선택과 인간 존엄성의 시험

〈오징어 게임〉시즌 2 제1화에서는 러시안 룰렛 장면이 두 가지 주요 형태로 전개된다. 첫 번째 형태에서는 딱지맨이 자신이 설계한 게임 규칙을 참가자들에게 강제로 적용하여 그들에게 목숨을 건 선택을 강요한다. 러시안 룰렛은 극한의 위험을 내포한 게임으로, 한 명의 참가자가 리볼버의 방아쇠를 당겨 총알이 있는 칸이 발사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위험한 게임이다. 이 게임은 극도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상징하며, 참가자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상징적 메커니즘으로 종종 인용된다. 이 과정에서 딱지맨은 체계적으로 위험을 조절하며 참가자들의 생존 확률을 점차 낮춰, 극한의 공포와 체제적 폭력의 압박을 부여한다. 두 번째 형태에서는 딱지맨 자신이 직접 참가자로서 러시안 룰렛에 임하며, 자신의 목숨을 건 선택을 수행한다. 이러한 이중적 구성은 단순한 서바이벌 게임의 틀을 넘어, ‘생존을 위해 비인간화를 선택하는가?’, 아니면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선택을 하는가?’ 사이에 존재하는 극한 갈등을 명확히 드러

낸다. 체제 내에서의 자기 파괴적 선택의 게임 구조는 개인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시험하는 방식으로, 상징적으로 재현된다. 아래에서는 이 두 형태의 러시아 룰렛 장면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사회·철학적 메시지와 구조적 모순을 고찰한다.

첫 번째 러시아 룰렛 장면은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게임과 결합 되어 규칙 변경으로 인해서 위험이 조정되고 결국 증대된다.

딱지맨은 우석(전석호 분)과 김대표(김법래 분)에게 가위바위보 게임을 통해 승패를 가르는 규칙을 정하고 위험 조정을 다음처럼 진행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딱지맨이 리볼버에 단 한 발의 총알만 장전해 참가자들에게 6분의 5의 생존 확률을 부여한다. 딱지맨은 이런 상황에서 게임이 진행됨에 따라 딱지맨은 반복되는 게임을 이용해 총알 수를 점차 늘린다. 이로 인해 참가자들의 생존 확률은 낮아지고, 체계적 폭력의 압박과 공포가 누적된다. ‘탄창을 돌리지 않는다’는 규칙은 위험이 고정되어 있으며, 시간의 경과와 함께 불가피하게 공포가 증폭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러시아 룰렛의 수학적 원리를 살펴보면, 이 게임은 확률 이론을 따른다. 회전식 권총의 실린더에 빈 약실이 고정될 수만큼 있고 매 발사 후 실린더가 회전하지 않는다면, 총이 발사될 확률은 빈 약실이 나올 때마다 증가한다. 6발 권총에 한 발만 장전된 고전적인 방식에서, 첫 번째 시도에서 총이 발사될 확률은 $1/6(16.6\%)$ 이다. 두 번째는 20%, 세 번째는 25%, 네 번째는 33.3%, 다섯 번째는 50%, 여섯 번째는 항상 발사되므로 100%이다. 두 명의 플레이어 참여할 경우, 두 번째 플레이어는 첫 번째 플레이어가 사망하면 쓸 필요가 없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첫 번째 플레이어가 살아남으면, 두 번째 플레이어의 생존 확률은 급격히 감소한다. 게임의 중반 이후에는 딱지맨이 6발을 장전하는 리볼버에서 총알 1발이 장전된 탄창을 열어 네 발의 총알을 더 장전해 참가자들에게 6분의 1의 생존 확률을 부여한다. 딱지맨은

위험 조정을 통해서 게임이 진행됨에 따라 딱지맨은 반복되는 게임을 이용해 총알 수를 점차 늘린다. 이로 인해 참가자들의 생존 확률은 낮아지고, 체계적 폭력의 압박과 공포가 누적된다.

심리적, 상징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이 변형은 참가자들이 초기에는 낮은 위험 속에서 게임에 참여하게 한 후, 점진적으로 위험에 노출됨으로써 체제적 폭력의 시작을 상징한다. 심리학자 카네만과 트버스키의 전망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손실 상황에서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을 보이며,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이론이 러시아 룰렛과 같은 극단적 위험 감수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경제적 궁핍, 사회적 소외, 심리적 압박이 높은 환경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심리적 동기로 인해 점진적인 위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지 편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게임의 참가자들은 위험이 점차 증가하지만, 자신의 선택이 여전히 자율적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이는 점진적 순응 효과 와도 연관되며,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위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방향으로 변질된다. 이러한 설정은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과 불안정한 의사결정 과정을 드러내며, 결국 체제적 폭력의 구조 속에서 개인이 위험에 노출되는 과정을 정당화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특히, 러시아 룰렛 참가자들의 행동은 단순한 도박이나 스릴 추구가 아니라, 체제적 폭력이 어떻게 개인의 의사결정 구조를 왜곡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처음에는 강제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선택이 반복적인 환경 조성 and 인지적 착각을 통해 점점 더 위험한 상황을 수용하게 만든다. 딱지맨이 체제적 폭력과 왜곡된 인지 구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상징적으로 재현하는 것은, 인간이 점진적 위험 증가 속에서도 자신의 행위를 자

율적이라고 믿도록 만드는 사회적·심리적 기제와 연결된다. 이는 단순한 게임을 넘어, 보다 거대한 권력 구조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통제되고 조작될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메커니즘이 된다.

두 번째 러시아 룰렛 장면은 딱지맨과 성기훈(이정재 분) 사이의 직접 대결로 전환된다. 이 장면은 더 전통적인 형태의 러시아 룰렛을 도입하여, 참가자들에게 극도의 공포와 절망을 안겨준다.

게임 규칙 및 진행은 다음과 같다. 딱지맨은 “이제부터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선언과 함께 게임을 선포한다. 그리고 초반에는 총에 장전된 탄환의 수가 1개로 사망 확률이 6분의 1로 시작한다. 그리고 성기훈에게 직접 목숨을 건 선택을 강요한다. 이 단계가 지나면 딱지맨은 총에 장전된 탄환의 수를 5개로 갑자기 늘려서 생존 확률을 6분의 1로 낮춘다. 이러한 위험 증대는 참가자들이 극한의 공포와 절망을 경험하도록 설계되었다. 방 아쇠가 당기고 불발될 때 나는 쇠소리는 긴장감을 높인다. 6개의 ‘동근 탄창을 돌리지 않는다’는 불변의 규칙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공포와 긴장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게 하며, 참가자들이 선택을 내릴 때마다 고정된 위험에 직면하게 만든다.

심리적, 상징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이 전통적 러시아 룰렛 장면은 인간 존엄성과 인정 투쟁의 극한 갈등을 드러낸다. 딱지맨의 잔인한 규칙 변경과 위험 증가는, 개인이 체제적 폭력에 의해 왜곡된 선택의 결과로 자신들의 인간 존엄성을 시험받게 되는 과정을 상징한다. 제공하신 글을 행동 경제학의 이론적 틀, 특히 카네만의 이중 정보처리 시스템과 인지적 구두쇠 개념을 통해 분석했다.

러시아 룰렛 장면에서 의사결정 과정은 카네만의 시스템 I과 시스템 II의 갈등을 잘 보여준다. 딱지맨이 “이제부터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할 때, 참가자들은 즉각적으로 시스템 I(직관, 감정, 자동적 반응)이 활

성화된다. 초기에 탄환 1개(6분의 1 사망 확률)로 시작하는 설정은 참가자들이 비교적 낮은 위험을 감수하도록 유도하는데, 이는 시스템 I이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과 연결된다.

그러나 갑자기 탄환 수를 5개로 늘려 생존 확률을 6분의 1로 낮추는 규칙 변경은 참가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 이때 시스템 II(분석적, 이성적 사고)가 작동해야 하지만, 극도의 공포와 압박 상황에서는 '인지적 구두쇠'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즉, 인간은 고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복잡한 확률 계산보다 어림짐작식 판단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지적 간편 법칙은 종종 비합리적 선택으로 이어진다. 특히 “6개의 둥근 탄창을 돌리지 않는다”는 불변 규칙은 시간 경과에 따른 지속적인 위험 누적을 의미하며, 이는 카네만과 트버스키가 지정한 인간의 확률 판단 오류와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반복되는 확률 사건에서 독립 시행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전 결과에 영향을 받는 경향(도박사의 오류)을 보인다.

딱지맨의 잔인한 규칙 변경은 '프레이밍 효과'의 극단적 형태로도 볼 수 있다. 동일한 선택 상황이라도 그것이 제시되는 방식(프레이밍)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는데, 이 장면에서는 선택의 틀 자체를 급격히 변화시켜 참가자들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만든다.

인지적 구두쇠로서 인간은 높은 수준의 인지 에너지 사용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극도의 공포와 절망 상황에서는 이성적 판단보다 감정적, 본능적 반응에 더 의존하게 된다. 이 장면은 호네프의 인정 투쟁 이론과 결합하여,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개인의 합리적 판단이 어떻게 왜곡되고 인간 존엄성이 시험받는지를 강력하게 보여준다.

결국 이 러시아인 룰렛 장면은 행동경제학이 강조하는 인지적 편향과 비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극적으로 형상화하면서, 체제적 압박 속에서 인간

의 근본적인 인정 욕구가 어떻게 조작되고 왜곡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미장센 및 연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느와르 톤의 대비가 강하고 붉은 조명과 폐쇄적인 공간 구성, 그리고 카메라의 클로즈업 기법은 이 장면에서 극한의 공포와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한다. 특히, ‘탄창을 돌리지 않는다’는 규칙의 설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포가 누적되도록 하며, 편집 기법은 인물 간의 긴장감과 불안감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이 모든 요소는 부록에 첨부된 스틸컷 및 캡처 이미지를 통해 독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 시각적 근거를 통한 분석의 신뢰성을 높인다.

종합적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설명하면, 딱지맨에 의해서 전통적 러시아 룰렛의 변형된 장면에서 마치 그는 인간의 생명을 정하는 신처럼 설계한 게임 메커니즘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위험과 심리적 압박을 자유자재로 조정하고 부여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첫 번째 변형에서는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를 통한 초기 낮은 위험과, 그에 따른 점진적 위험 증대를 통해 체제적 폭력의 시작을 암시한다. 두 번째 변형에서는 전통적 러시아 룰렛의 형식을 도입하여, 극한의 공포와 절망 속에서 인간 존엄성과 인정 투쟁의 극단적 갈등을 드러낸다. 두 장소 모두 느와르 톤의 조명, 폐쇄적 공간 구성, 고정된 규칙에 따른 불가피한 위험 증가는 두 변형 모두에서 시스템적 폭력과 왜곡된 인지 선택 메커니즘을 시각적으로 강화한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룰렛 시퀀스는 자본주의적 생존 경쟁이 극단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적 모순을 명확히 상징하며, 관객들에게 “우리 역시 동일한 구조에 포획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5. 분석 결과 2: 설계자이자 참가자인 딱지맨-파멸적 선택에 매몰된 주체

1) 주인-노예 변증법으로 본 <오징어 게임> 시즌 2 딱지맨

딱지맨은 세 가지 게임(‘딱지치기’, ‘빵과 복권’, ‘러시안 룰렛’)을 통해 인정 투쟁을 형상화하며, 참가자들의 욕망과 파멸적 선택을 유도하는 존재로 등장한다. 특히, 그가 게임을 직접 설계하면서 동시에 참가자로 뛰어드는 점은 자본주의적 경쟁 논리의 모순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우선, ‘지하철역 딱지치기’는 단순 놀이가 폭력적 경쟁으로 변질되는 과정을 통해 주인-노예 변증법을 극적으로 형상화한다.^{47) 48)}

딱지맨은 규칙과 보상을 일방적으로 설정하며 참가자들을 선별하지만, 결국 그는 타인의 고통과 굴욕을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아야 하는 모순적 존재로 남는다. 이는 헤겔이 제시한 주인-노예 변증법에서 주인이 노예의 인정 없이는 온전히 자립할 수 없다는 역설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다음으로, ‘타포골공원 빵과 복권’은 자본주의적 욕망이 어떻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작동하는지를 드러낸다. 노숙자들은 빵을 포기하고 복권을 선택하지만, 결과적으로 생존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딱지맨은 “이 빵을 버린 건 여러분”이라는 대사를 통해 책임을 개인에게 돌림으로써, 구조적 폭력성이 개인의 선택으로 호도되는 자본주의적 논리를 강조한다. 이는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가 주장한 ‘재분배와 인정의 병행이 없을 경우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개념과 맞닿아 있다.⁴⁹⁾

마지막으로, ‘러시안 룰렛’은 인정 투쟁의 극단적인 형태를 보여주며,

47)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op. cit., pp.111-119.

48) Axel Honneth, op. cit.

49) Nancy Fraser & Axel Honneth, op. cit.

생존 본능과 복수심, 윤리적 가치가 충돌하는 장면을 연출한다. 딱지맨과 성기훈의 대결은 단순한 승부를 넘어, 인간 존엄성과 자아 정체성이 시험 받는 과정이다. 특히, 탄창을 돌리지 않는다는 료를 적용해 죽음의 공포를 지속적으로 연장시키는 설정은, 시스템이 개인을 억압하는 방식을 더욱 명확히 드러낸다. 딱지맨의 폭력적 과거가 회상되면서, 그 역시 이 체제의 희생자였음을 암시하는 연출이 강조된다.

결과적으로, 딱지맨은 설계자이면서도 시스템에 포획된 참가자로서, ‘주인이자 노예’라는 모순적 지위에 놓인다. 그는 게임을 설계하는 절대적 권력자로 보이지만, 실상 그는 자신이 설계한 폭력적 경쟁 시스템의 포로가 된 인물이다. 그는 참가자들을 심리적으로 조종하면서도, 스스로도 인정받기 위해 더욱 잔혹한 게임을 설계하는 악순환에 빠진다. 이는 자본주의에서 권력자 역시 인정 투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구조적 폭력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 게임의 설계자-참가자의 이중성: 자기파괴적 인정 투쟁

딱지맨이 설계한 세 가지 게임-놀이의 변질(‘딱지치기’), 생존의 도박화(‘뽕과 복권’), 생사를 건 선택(‘러시안 룰렛’)-은 점진적으로 폭력성이 강화되면서 참가자들의 무력감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는 참가자들이 게임을 진행할수록 선택지가 줄어들고, 생존 가능성이 낮아지며, 극단적 상황으로 몰리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형성한다.

공간적으로도 지하철역(공공장소) → 탑골공원(취약 계층이 모이는 장소) → 모텔 밀실(폐쇄된 공간) 으로 이동하면서, 참가자들의 선택의 자유가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구조를 가진다. 초기의 딱지치기 게임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보상이 즉각 주어지며 비교적 단순한 선택이 가능하지만, ‘뽕과 복권’에서는 순간의 도박을 해야 하며, 마지막 ‘러시안 룰렛’에 이르면 죽음의 공포가 개입된다. 이러한 구조는 자본주의적 사회에서 개인이 점점 더

궁지에 몰리는 과정을 극적으로 드러낸다.

여기서 주목할 인물들은 러시아인 룰렛을 수행하며 자신이 죽음을 선택하는 딱지맨과 김대표이다. 이들은 선택을 통제하는 자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자가 된다. 딱지맨은 각각 현실에서 게임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고 때로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게임 시스템을 설계하고 통제하는 존재이다. 김대표는 사채업을 하면서 자신의 조직원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자신들 또한 시스템에 갇혀 선택을 강요받는 위치에 놓인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시스템의 포로가 되는 역설적 현실을 반영한다.

이제 딱지맨의 자기파괴적 인정 투쟁과 구조적 모순을 살펴보자. 딱지맨은 게임의 관리자이자 설계자로서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듯 보이지만, 그의 행위는 결국 타인에 대한 인정 투쟁의 논리에 종속된 자기파괴적 과정을 따른다. 그는 단순히 시스템을 운영하는 관리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확립하고 인정받기 위한 투쟁 속에서 점점 더 파국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궁극적인 인정이다. 즉, 그는 자신이 설계한 게임을 통해 절대적인 권위를 유지하려 하지만, 오히려 그 권력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는 헤겔의 주인-노예 변증법이 보여주는 역설적 구조와도 맞닿아 있다. 주인은 노예를 통해 인정받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노예 없이는 자신의 권력을 행사할 수도, 유지할 수도 없는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딱지맨 역시 참가자들을 조종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인정받아야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딱지맨은 설계자에서 희생자로 전락하게 된다. 딱지맨 역시 참가자들의 선택을 조작하고 게임을 진행하는 역할을 맡지만, 점차 자신이 만

든 시스템에 갇혀 버린다. 그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권력을 행사하는 듯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시스템의 희생자가 되어 자발적으로 파멸을 선택한다.

처음에는 게임을 철저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딱지맨은, 점차 그가 조작한 선택지가 결국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함정을 내포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는 스스로 시스템을 설계했지만, 그 체제 안에서 점차 선택의 여지가 사라지며, 결국 본인도 게임의 일부로서 희생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한다.

그는 게임의 승리자가 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존재 이유가 게임을 유지하는 것 자체였기에, 승리가 아니라 패배만이 그의 서사를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가 되어버린다. 이는 마치 기업 경영자나 정치인이 자신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다가, 결국 그 시스템의 희생자가 되어 스스로 몰락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이 과정은 헤겔의 주인-노예 변증법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주인은 노예의 인정을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며, 노예는 노동을 통해 자유를 쟁취할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 주인과 노예 모두 시스템에 의해 속박되는 동일한 운명을 공유하게 된다. 딱지맨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도 결국 그 속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희생되는 과정은, 자본주의적 경쟁 논리 속에서 권력자가 구조적으로 파멸할 수밖에 없는 자기모순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 2 첫 번째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세 가지 게임-‘딱지치기’, ‘뽕과 복권’, ‘러시안 룰렛’-을 중심으로, 이를 직접 설계하면서 동시에 참가자로서 활약하는 딱지맨

(공유 분) 캐릭터가 현대 자본주의의 병리적 구조와 인정 투쟁을 어떻게 형상화하는지를 심층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헤겔의 ‘인정 투쟁’ 이론과 호네프의 ‘사회적 인정’ 개념을 적용하여, 딱지맨이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면서도 결국 자본주의 시스템의 희생자가 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또한, 행동경제학의 선택 설계 개념을 결합하여, 딱지맨이 참가자들에게 왜곡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단순한 서바이벌 게임을 넘어 현대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과 인간적 갈등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재현하는지를 고찰하였다.

첫째, “설계자이자 참가자인 딱지맨이 추구하는 게임 설계의 원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딱지맨은 일방적인 규칙과 극단적인 보상·처벌 체계를 도입하여 참가자들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 그러나 그는 타인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아야 하는 ‘인정의 노예’로 전락한다. 이는 헤겔이 주장한 ‘주인-노예 변증법’에서 주인이 결국 노예의 인정에 의존하게 되는 역설을 현대적 맥락에서 재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⁵⁰⁾

둘째, “딱지맨의 인정 욕구는 어떠한 양상을 띠며, 그에게 어떤 심리적·행동적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딱지맨은 ‘성공한 사회인’, ‘순진한 아이’, ‘잔혹한 소시오패스’라는 세 가지 상반된 페르소나를 보여주면서도, 인정 투쟁에 매몰된 존재로 그려진다. 그는 선택 설계를 활용하여 참가자들이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조종하며,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인정 욕구를 충족하려 하지만, 그 자신도 폭력적 시스템 안에 갇혀 있는 비극적 인물임이 강조된다.

셋째, “이러한 설정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어떻게 반

50) Axel Honneth, op. cit.

영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본 연구는 인정 투쟁과 선택 설계가 불평등한 경쟁 구도와 결합할 경우, 개인이 자기파괴적 결말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⁵¹⁾ 공적 공간에서의 ‘딱지치기’와 ‘빵과 복권’에서 시작해, 밀실에서 벌어지는 ‘러시안 룰렛’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자본주의 체제가 개인을 점차 궁지로 몰아가며,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딱지맨은 설계자로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신도 시스템의 희생자가 되어 파멸하는 모순적 존재로 그려진다. 이는 자본주의적 경쟁 논리가 개인을 얼마나 무력하게 만들고, 결국 승자조차도 시스템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오징어 게임〉 시즌 2는 단순한 서바이벌 장르를 넘어,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인간적 갈등을 날카롭게 형상화한다. 특히, 딱지맨이 보여주는 ‘설계자이자 참가자’라는 이중성은, 폭력적 경쟁 논리와 인정 투쟁이 결합될 때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부각한다. 이를 통해, 작품은 “우리 역시 이와 유사한 구조에 포획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자기 성찰을 유도하며, 시청자로 하여금 더욱 인간적이고 공정한 대안의 필요성을 고민하게 만든다. 나아가, OTT 플랫폼을 통한 글로벌 파급력과 결합하여, 〈오징어 게임〉 시즌 2는 현대 문화 산업과 시청 매체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담론 형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는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단순한 서바이벌 장르를 넘어, 현대 자본주의의 병리적 구조와 인정 투쟁이 왜곡되는 양상을 극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시스템이 개인을 얼마나 무력하게 만드는가?’라는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본 연구는 OTT 플랫폼의 오리지널 콘텐츠가 현대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형상화하고 상업화

51) Nancy Fraser & Axel Honneth, op. cit.

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동시대 시청 매체와 문화 산업에 대한 학술적 이해를 논의하였다. 또한, 헤겔의 인정 투쟁 이론과 선택 설계 이론을 결합하여, 딱지맨의 게임 설계 전략과 인간 행동 양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시즌 2 첫 번째 에피소드에 초점을 맞추되 시즌 1과의 연속성과 차별성을 함께 검토하여 이야기 구조의 발전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시즌 2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시즌 전체에서 전개되는 인물 간 관계나 세계관의 확장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딱지맨의 캐릭터가 이후 에피소드에서 어떤 캐릭터와 관련되고 있는지, 시즌 1과의 연계성이 어떤 방식으로 심화되는지는 본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그래서 향후 연구에서는 시즌 전체를 분석하여 서사의 확장성과 캐릭터 발전 과정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첫 번째 에피소드에 한정된 분석으로 인해, 시즌 전체 맥락에서의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제안할 향후 연구는 시즌 2 전체를 분석하여, 작품 속 다양한 게임 구조와 캐릭터 간 관계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프론트맨과 성기훈의 관계 변화 및 시즌 1, 시즌 2, 시즌 3를 모두 포괄하여 주요 등장인물과의 연계성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단행본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 저, 김준수 역, 『정신현상학1』, 아카넷, 2022.

데이비드 흄 저, 강준호 역, 『도덕 원리에 관한 탐구』, 아카넷, 2022.

올리비에 딜리 저, 이상빈 역, 『오징어 게임의 철학』, 청송재, 2022.

악셀 호네프 저, 문성훈·이현재 역, 『인정투쟁: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 사월의책, 2011.

Fraser, Nancy & Honneth, Axel, Redistribution or Recognition?: A Political-Philosophical Exchange, Verso Books, 2003.

Hegel, Georg Wilhelm Friedrich, Phenomenology of Spirit (A. V. Miller, Trans.), Oxford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807), 1977.

Honneth, Axel,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The Moral Grammar of Social Conflicts, The MIT Press, 1995.

Lacan, Jacques., “The mirror stage as formative of the function of the ‘I’.”, Ecrits: a selection, Alan Sheridan trans., New York: Norton, 1977.

Thaler, Richard H. & Sunstein, Cass R., Nudge: Improving Decisions about Health, Wealth, and Happiness, Yale University Press, 2008.

논문

강혜원·이성민, 「넷플릭스의 초국적 콘텐츠 소구 전략:<오징어 게임>에 나타난 장르적 보편성과 문화적 특수성의 이중적 상품화 구조 분석」, 『언론과 사회』 30권 3호,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22, 5-41쪽.

안승범, 「불공정 피로사회, 비상식 투명사회의 폭력구조: <오징어 게임>, <지옥>론」, 『문화콘텐츠연구』 24호, 글로벌문화전략연구소, 2022, 7-37쪽.

Kahneman, Daniel & Tversky, Amos,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vol. 47, no. 2, 1979, pp.263-291.

Thaler, Richard H., “Some empirical evidence on dynamic inconsistency”, *Economics letters*, vol. 8, no. 3, Elsevier, 1981, pp.201-207.

Tversky, Amos & Kahneman, Daniel, “The Framing of Decisions and the Psychology of Choice”, *Science*, vol. 211, no. 4481, Washington, DC: AAAS, 1981, pp.453-458.

신문

이혜진, ““오징어 게임” 수익 최소 1조5000억” 전망에... 넷플릭스 “사실과 달라””, <조선일보>, 2025.01.01.

장준식, “[예술과 목회] 오징어 게임 — 자본주의를 전복시키지 못하는 자본주의적 서사”, <가스펠투데이(Gospel Today)>, 2021.11.05.

최지연,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시즌2’는 시즌1을 넘어설 수 있을까: 11일 만에 1.2억뷰 달성하며 시즌1 흥행 속도 앞질러”, <ZDNet Korea>, 2025.01.08.

Shevchenko, Nikolay, “The story behind ‘Russian Roulette’, the infamous DEADLY game”, <Russia Beyond>, 2020.09.17.,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 2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딱지맨’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병리적 구조가 인정 투쟁과 선택 설계를 통해 어떻게 극적으로 형상화 되는지를 고찰한다. ‘딱지치기’, ‘뽕과 복권’, ‘러시안 룰렛’ 등 세 가지 게임이 보여주는 자본주의적 경쟁 논리와 폭력성, 그리고 ‘설계자이자 참가자’라는 딱지맨의 모순적 지위는 현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본 연구는 헤겔의 인정 투쟁 이론과 행동경제학의 선택 설계 개념을 결합하여 서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인정 욕구가 왜곡될 때 자기파괴적 결말에 이를 수 있음을 확인했다. 나아가 OTT 플랫폼에서 확장된 글로벌 서바이벌 장르가 단순 오락을 넘어 불평등과 폭력성이 내재된 현대 자본주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대안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문화적 장치임을 제언한다.

주제어● 오징어 게임 2, 딱지맨, 인정 투쟁, 선택 설계, 자본주의 병리성, 영화적 형상화

■ Abstract

The Representation of Capitalist Pathology in Squid Game : Distorted Recognition Struggle and Choice Architecture of 'Ddakji Man' in Season 2

Nam, Seung Suk / Yonsei University
Choi, Ji Hye / Mokpo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how the pathological structure of modern capitalism is dramatically embodied through struggles for recognition and choice architecture in the first episode of Squid Game Season 2, focusing on the newly emphasized character “Ddakji-man.” By analyzing three key games—“Ddakji,” “Bread and Lottery,” and “Russian Roulette”—the research reveals how capitalist competition and violence are symbolically represented, particularly through Ddakji-man’s paradoxical role as both the designer and participant. Drawing on Hegel’s theory of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and behavioral economics’ concept of choice architecture,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distortion of one’s desire for recognition can lead to self-destructive outcomes. Furthermore, it highlights how global survival dramas on OTT platforms extend beyond mere entertainment, offering critical reflections on deep-seated inequality and violence in contemporary capitalist society while suggesting the possibility of alternative futures.

Keyword • Squid Game 2, Ddakji Man, Struggle for Recognition, Choice Architecture, Capitalist Pathology, Cinematic Embodiment

젠더리스에 대한 현상학적 해석 소론

: 메를로-퐁티의 신체 현상학과 살 존재론을 중심으로

한 우 섭*

목 차

1. 우리 사회의 성 갈등과 젠더리스
2. 성 갈등의 흐름 : 섹스-젠더-젠더리스
3. 메를로-퐁티적 접근 : 신체 현상학과 살 존재론적 관점
4. 결론 : 힘 이동의 동기로서의 성적 갈등

1. 우리 사회의 성 갈등과 젠더리스

상투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인간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성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아무리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인간이라 하더라도 그 독립성과 자주성이 개인을 집단의 외향으로 존립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인간의 그 ‘독립성’과 ‘자주성’이라는 것 역시 그가 속한 집단 혹은 공동체의 특성이라는 반대극(pôle contraire)을 가정할 때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거시적으로 ‘문화’라는 사회적 요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회·문화적 인간의 필연적 운명을 의

* 중부대학교 학생성장교양학부 조교수

미함과 동시에 미시적으로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변
의 사람, 사건, 사회적 흐름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동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한 개인은 자의든 타의든, 그리고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사회
의 흐름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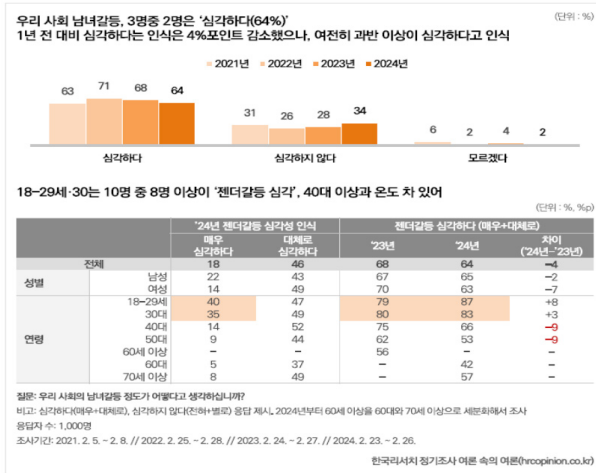
이때 사회의 흐름이라는 것은 평가자의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한 요소
로 파악될 수 있다. 분석을 시도하는 관점에 따라 그 파악의 요소는 때로는
경제 지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치적 양상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그 사
회가 이룩한 정신적 혹은 물리적 결과물로서의 문화가 되기도 한다. 그러
나 일상인들의 관점에서, 다시 말해 사회적 흐름 파악의 용이성이라는 관
점에서 혹은 우리 삶의 현실적 관점에서 보자면 ‘사회적 흐름’, 혹은 ‘변화
의 양상’은 파악되기에 앞서 체감되는 측면이 강하다. 다시 말해, 특정한 연
구자들을 제외한다면 우리 각자는 사회의 흐름을 통시적으로 ‘분석-파악’
하기에 앞서, 공시적으로 느끼며, 그러한 체감을 통해 느껴진 정서를 내재
화하여 사회를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사회의 다양성이란 바로
이 개별적 해석에 근거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관점이 수용될 수 있다
면, 필자가 체감하는 현 사회의 분위기는 ‘갈등’이라는 단어로 귀결된다. 노
사갈등, 이념갈등, 세대갈등, 종교갈등, 빈부갈등, 지역갈등, 인종갈등. 어
떤 단어와도 조합 가능할 것 같은 갈등이라는 단어의 생산, 재생산. 분포의
양상은 이 사회가 적어도 갈등이라는 요소로 평가될 때에는 이미 ‘초갈등
의 사회’로 진입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 같다. 일례로 하나의 표는 우
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의 심각성을 매우 극명하게 보여준다.

젠더리스에 대한 현상학적 해석 소론
: 메를로-퐁티의 신체 현상학과 살 존재론을 중심으로 | 한우섭



[그림 1] OECD 주요국의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지표

한국 사회의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의 지표를 보여주는 그림1의 자료가 의미하는 바는 매우 간명하다. 그것은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느끼는 연대 의식의 약화이며 이는 결국 사회적 통합지수의 약화로 연결된다. 다시 말해, 위의 표는 현대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과 더불어 살아가는 타인들을 화합의 대상이 아닌 대립, 혹은 배척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경향의 증가를 암시한다. 그것은 곧 구성원들 간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갈등의 요소가 우리 사회에 전방위적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림 2] 2021~2024년 남녀갈등 인식조사

이러한 다양한 사회 갈등 유형 중 남녀갈등으로 대표되는 성 갈등 담론의 생산과 확산의 양상은 매우 주목할만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때 그 주목할만한 성질이란 곧 성 갈등은 다른 갈등 담론과 비교하여 현대 사회의 변화 양상을 매우 직접적이고 직관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첫째, 성 갈등이란 성을 생리적 혹은 유기체적 결정론에 입각해서 파악한 전통적인 사회·문화적 담론에서 등장한다기보다 나와 타자의 사회적 관계가 중시됨으로 인해 성 또한 하나의 사회적 구조 관계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현대 철학적 담론을 배경으로 등장하는 갈등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며,¹⁾ 둘째, 따라서, 현대의 성 갈등은 ‘다양성’이라는 현대적 가치의 추구하고 관련하여 등장한다는 점에서 갈등 또한 탈-중심적, 탈-근대적 체계로 이행한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셋째, 성 갈등에 대한 사회적 체감의 수직적 상승폭은 성 갈등이 이 시대 우리 사회의 핵심적 갈등으로 자리했음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현대의 사회·문화적 변화의 방향성을 인식시키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성 갈등은 현재 그 갈등의 양상이 매우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성이라는 일견 고착돼 보이는 현상에 대한 갈등 또한

1) 주디스 버틀러 저, 조현준 역, 『젠더 허물기: UNDOING GENDER』, 문학과 지성사, 2015, 11쪽 참조. “내가 ‘나만의 젠더’라고 부르는 것은 때로 어쩌면 내가 창작해낸 것이거나 정말 내가 소유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군가 자신만의 고유한 젠더를 구성하는 관점은 처음부터 그 사람 외부에 있고, 저자가 한 명이 아닌(그리고 저자성authorship 개념 자체를 근본적으로 문제 삼는) 사회성 속에, 그 사람 너머에 있다”.

참고로, 성 갈등을 ‘페미니즘’ 운동의 등장과 결부시켜 설명할 때, 성 갈등의 시초를 이른바 페미니즘 운동의 제1 물결, 즉 19세기 자연주의 정치철학을 배경으로 여성들 스스로가 여성들의 시민적 권리를 주장한 권리투쟁으로 보는 시선이 일반화 되어 있다. 그러나 성 자체를 사회적 산물로 규정하여 여성과 남성의 성을 ‘제1의 성’과 ‘제2의 성’ 혹은 주체와 타자의 힘의 역학관계로 분석한 시몬느 드 보브와르(Simone de Beauvoir)의 『제2의 성(Le deuxième sexe)』의 등장 이후에야 비로소 성 성립의 사회·문화적 개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는 점에서 현대의 성 갈등은 프랑스의 구조주의적 흐름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양성 추구라는 현대적 가치와 맞물려 그에 대한 대응 태도 역시 탈고착화, 다양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 주제로 삼고 있는 ‘젠더리스(Genderless)’라는 개념은 현대 사회에서 성 갈등이 차지하는 중요도와 그에 대응하는 하나의 태도가 현대 사회의 중심적 가치인 다양성과 조응하며 나타난 탈-중심화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성 갈등의 흐름 : 섹스(Sex)→젠더(Gender)→젠더리스(Genderless)

1) 성(Sex)을 기준으로 하는 전통적 관점 : 자연적 갈등 양상

전통적으로 성 개념은 다른 어떤 개념들보다 확고한 담론의 기준을 고수한다. 다양한 이유가 제기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것은 성이라는 유기체적, 생리학적 기준의 불변성에 대한 믿음에 기인한다 할 수 있다. 전통적 관점에서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신 혹은 자연이 인간에 부여한 것으로서 인간에 의한 취사선택이 불가능한 영역이었고, 따라서 성은 신 혹은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 하나의 소명의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성에 부여된 속성에 따라 살 때, 신의 소명에 충실한, 혹은 있는 바 그대로인 상태이기에 바람직한, 곧 자연스러운, 그래서 ‘옳은’ 삶을 사는 인간으로 여겨졌고, 이런 관점에서 자신의 태생적, 생물학적 성에 부여된 행동 영역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자들은 광인, 병자로 여겨지게 된다.²⁾ 그런데 성에 대한 이러한 구도는 보다 내밀한 문제를 함축한다. 문제는 성이라는 기준에 의해 정상인과 비정상인이 구분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특정한 성에 기대되는 행동 양식과 소명의 속성이 다른 성에 기대되는 행동 양

2) 물론 이러한 상황을 일괄적으로 전통적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향연』에 등장하는 아리스토파네스의 에로스에 대한 설명은 서구 고대인들이 성에 대한 이원론적 구분의 태도에서 현대인들 보다 자유로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관련된 행동을 벗어나는 자들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다분히 근대적 태도, 나아가 근대적 전통을 답습하는 현대적 잔재라고 할 수 있다.

식과 소명의 속성과 ‘질적인’, 그리고 ‘양적인’ 차이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른바 ‘남성적인’, 그리고 ‘여성적인’이라는 형용사가 의미하는 다양한 행동 양식의 구분은 이미 남성성과 여성성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닌 차이로 설립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차이는 ‘남근-로고스 중심주의(Phallogocentrism)’라는 전통에 의해 남성적 행동을 능동적, 주체적인 것으로, 여성적인 행동을 수동적, 객체적인 것으로 질적으로 분화시키며, 이 질적인 차이는 다시 각각의 성이 취해야 하는 행동의 양식을 단수화 혹은 다수화한다. 이른바 남성성의 표출이라는 암묵적 합의에 의해 사회적으로 용인되었던 수많은 관용적 태도들은 남근-로고스 중심주의라는 힘의 중심에 따라 질적으로 우월하게 여겨진 남성적 행동에 제공된 제약의 축소로 해석할 수 있으며, 역으로 여성적 행동에 대한 수 많은 제약들(이른바 “여자는 OO해서는 안된다.”라는 생각과 표현들)은 남근-로고스 중심주의에 밀려나기에 질적으로 낮게 평가된 여성성에 가해진 억압 기제의 다수화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젠더 중심의 탈근대적 관점 : 사회-문화적 갈등 양상

이러한 상황은 인간의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다는 이분법적인 생물학적 성차 구분을 진리로 받아들이기 때, 동시에 생물학적 성차와 성차에 따른 각각의 사회적 행동 사이의 인과성을 정합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 나타나는 결과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법이란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나의 방향은 생물학적인 성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때 성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성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근-로고스 중심주의로부터 발생하는 성에 대한 질적·양적 제약과 억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물학적인 성의 차이는 특정 가치를 포함하지 않는 단순

한 염색체의 배열로 나타난 가치중립적 현상일 뿐이며, 따라서 특정 성에 부과되는 의미, 책임, 의무, 행동 양식은 성 그 자체와 관련된다고보다 성에 대한 후차적 해석으로써, 공동체 내부의 인위적 생산물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때 성에 따른 억압의 구도는 와해 될 수 있다. 둘째, 그러므로 각각의 성에 부여된 질적 속성의 우월성이 거부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남성성을 드러내는 남성적 태도와 행동, 여성성을 드러내는 여성적 태도와 행동은 본성적인 것이 아니며, 생물학적 특성과 행동 양식 사이에는 인과론적 정합성이 부재하므로 성차에 따르는 우월성은 자연스럽게 부정될 수 있게 된다. 이는 성차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전통적 성 관념이 거부될 수 있을 때 성별의 정치적 지형도가 변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단적으로 말해, 전자의 입장은 전통적으로 용인되어 온 특정 성과 특정 행동의 정합성이 본성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해결 방식이며, 후자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차이 그 자체는 어떤 성이 다른 성에 비해 태생적으로 우월하지 않음을 강조하는 해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에 제기되기 시작하는 ‘젠더’라는 개념은 바로 이 양자의 해결 방식을 융합적으로 제시한다. 전통적으로 성을 의미하는 개념인 sex는 남성, 여성으로 일반화되는 생물학적 몸의 차이를 의미하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에 대한 이러한 이분법적 구도는 남성과 여성의 성을 권력관계로 구조화(Structuration)한다. 물론 이때 이렇게 구조화된 권력관계를 정당화하는 것은 선형적인 생리적 차이이고, 따라서 성이 선택될 수 없는 것인 한, 차이에 대한 인정은 맹목적인 절대성을 갖게 된다. 이에 반해, 젠더 개념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의 개념이란 태생적, 본성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성에 부여되는 동일화의 양식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젠더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생식기관의 차이가 젠더 차이의 주요 기표라고 주장

하는 일종의 ‘생물학적 본질주의’³⁾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성(sex)이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뜻한다면, 젠더는 성이라는 기제로 드러나는 사회적, 문화적 요소들의 차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한마디로 “성은 남성 또는 여성이라 부르는 사람들 사이의 생물학적 차이를 설명하며, 젠더는 그런 차이들 위에 겹쳐진 사회적 의미이다.”⁴⁾

젠더라는 개념에서 성차를 이해하고자 할 때 두드러지는 점은 성 정체성과 성 역할을 결정하는 요소가 생물학이라는 운명으로부터 문화라는 선택지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문화란 사회적 양식을 필연적으로 내포하며, 사회란 자연적, 본성적이라기보다 특정 상황(사회, 역사적 배경)에 맞추어 인위적으로 구성된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성차에 대한 이해가 생리학적 성으로부터 젠더 개념에 대한 이해로 확장된다는 것은 성에 대한 이해의 자율성이 사회·문화적으로(달리 말해, 인위적으로) 용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브와르가 『제2의 성』에서 ‘만들어지는 여성’을 강조할 때, 그리고 푸코가 『성의 역사』에서 성에 대한 계보학을 구성하고자 할 때, 그들의 주장은 일반적인 성 담론의 폭력적 상황을 명시화하는 듯하지만, 그 이면에는 성 이해에 대한 보다 큰 함의, 즉 성을 판별하는 생물학적인 기준이 생각만큼 확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드러냄으로써 성정체성⁵⁾이라는 것이 이동, 변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자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성 정체성이 생물학적인 요소에 국한되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라면 이는 사회, 문화 속에 내재하는 반-자연적 속성, 혹은 인위성이 성 정체성 규명에 작동한다는 것이고, 결국 성 또

3) 게리 W. 우드 저, 한혜림 역, 『젠더: 심리학으로 말하다』, 북스힐, 2020, 22쪽.

4) 로빈 라일 저, 조애리·강문순·김진옥 공역, 『젠더란 무엇인가』, 한울아카데미, 2015, 29쪽.

5) 여기서 성정체성이란 주체가 자기에게 부여하는 성적 규정과 더불어 성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이해의 수준, 정도를 동시에 의미한다.

한 사회, 문화적 관점에 따라, 그리고 한 개인이 사회, 문화적 요소를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는가에 따라 인위적으로, 나아가-인위적이기에-자율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게 된다. 젠더와 관련된 여러 현대적 개념들, 예를 들어 ‘트렌스 젠더(Trans Gender)’, ‘젠더 감수성(Gender Sensitization)’, ‘젠더 플루이드(Gender Fluid)⁶⁾’, ‘에이젠더(Agender)⁷⁾’ 등과 같은 다양한 개념들의 의미는 성을 사회, 문화적 요소로 판단할 때 가늠하다는 점에서 성에 대한 해석의 자율적 상황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단편적이고 이분법적인 성 갈등의 구도를 와해하는 젠더 개념은 성 갈등을 봉합하는가?

3) 젠더를 넘어 젠더리스 : 갈등의 무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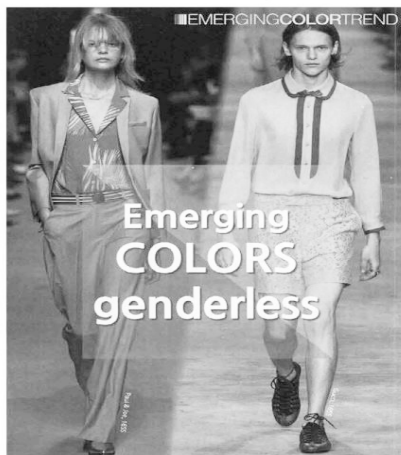
일견하기에 젠더라는 개념으로부터 파악 가능한 이러한 성 이해의 자율성은 성으로부터 파생되는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정반대의 상황, 즉 성 갈등이 젠더 갈등으로 확전되는 상황으로 이어진 것이 현실이다. 먼저, 젠더 개념을 기준으로 하는 성 이해의 다양성은 그 급진성에 있어 전통적 성 개념과 갈등을 일으키고(예를 들어, 젠더의 인정 여부, sex와 젠더의 관계 등⁸⁾), 그 다양성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분화되는 젠더 정체성의 용인 여부의 문제를 일으킨다(특정 젠더의 인정 여부). 나아가 (그리고 현실적인 맥락에서는) 젠더 개념은 그 안에 내포된 일종의 정치적 장치,

- 6) 성별이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으로 전환되는 젠더 정체성.
- 7) 없음을 뜻하는 접두사 A를 이용하여 젠더없음을 의미하는 젠더의 한 형태. 현재 노리 메이-웰비라는 오스트리아인이 법적으로 남성도 여성도 아닌 ‘특정할 수 없는 성별(No specific sex)’로 인정받음으로써 에이젠더로 인정받고 있다.
- 8) 학자들에 따라 성과 젠더는 구분되기도 하고, 통합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버틀러의 경우 sex를 생물학적 몸의 차이, 젠더를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동일화의 양식, 섹슈얼리티sexuality를 성적 실행이 발생하는 근원적 욕망으로 보는 전통적 구분을 부정하며, “몸의 ‘인식성’과 욕망의 ‘근원성’을 만드는 것도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모두 젠더라고 주장한다. 셋 다 사회적 구성물이고 제도 담론의 결과라는 점에서 말이다.” 주디스 버틀러 저,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8, 8쪽. 특히 같은 책 97쪽을 볼 것.

다시 말해, 성 역할과 관념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결과라는 이해에 기반해 여성적 관점에 있어서의 일종의 봉기를 추동한다. 현대 페미니즘에서 젠더에 대한 이해에 따라 페미니즘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젠더라는 것이 성에 대한 사회의 규제적 관행이라면 이러한 정치 역학 속에서 피해자는 여성이 될 가능성이 짙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생물학적인 성을 넘어서 성을 규정하는 젠더가 일견 가치중립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남성이라는 젠더가 구성되고 용인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는 여성이라는 젠더가 구성되고 용인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에 비해 너무도 미비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혁명적(?) 봉기의 태도는 다시 젠더에 부과되는 가치중립성에 의해 저항에 부딪힌다. 남성이라는 젠더 역시 사회적 요구에 순응하는 기재를 탑재하며, 따라서 남성으로 현상되는 남성들 역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억압의 주체가 된 적이 없었다는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남성 젠더의 이러한 관점을 수용하면 남성들에 대한 여성들의 적대감은 억울한 측면이 있게 된다.⁹⁾ 이처럼 성으로부터 젠더로의 개념 변화는 갈등의 양상을 완화하기보다 갈등을 분화하거나 정치적인 차원으로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왔다. 서두에 언급한 우리 사회의 성 갈등 양상의 심화는 직접적으로 젠더 개념으로 성을 이해하는 흐름으로부터 본격화된다고 할 수 있다. 성이 권력과 힘의 논리에 의해, 즉 성 외부적 요소들에 의해 해석되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9) 개인적인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젊은 남성들이 갖는 페미니즘에 대한 적대감은 바로 이러한 사유 속에서 발생한다. 말 그대로 태어나보니 남근을 가지고 있었고, 사회가 남근을 가진 자들에게 바라는 대로 살아온 결과가 여성들의 적대감이라는 것. 나아가 평등이라는 가치에 따라 전개된 남성, 여성의 균형 잡기에 의해 자신들은 전통적 가치(가부장제의 특권)를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자신들에 대한 적대감이라는 것. 따라서 자신들은 역사별의 희생자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로 보인다.

이러한 갈등의 중심에서 ‘젠더리스’¹⁰⁾라는 개념은 매우 눈에 띄는 개념이 아닐 수 없다.



[그림3] 젠더리스 룩의 예시¹¹⁾

말 그대로 ‘젠더를 무화(無化)한다’라는 의미를 갖는 젠더리스는 현재 일부 젠더퀴어 커뮤니티와 패션 영역에서 이야기되는 한정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흐름이 이른바 탈-근대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예를 들

10) 현재 젠더리스라는 개념은 매우 다양한 용어와 혼용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젠더의 표현중 하나인 에이젠더는 젠더 정체성이 없다는 의미에서 젠더리스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며, 성 중립을 의미하는 젠더-뉴트럴(Gender-Neutral) 역시 일정 부분 젠더리스의 의미를 함축한다. 마찬가지로 도시 남성들의 여성적 취향을 의미하는 ‘메트로섹슈얼리즘(Metro-Sexualism)’ 역시 남성들의 여성적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젠더리스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개념들이 여전히 특정한 젠더에 대한 인식을 전제한다는 점과 비교할 때 젠더리스의 개념은 젠더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요소들을 근본적으로 무화한다는 점에 있어 가장 광의적, 진보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11) 여기서 젠더리스의 특징은 남성복을 입은 여성과 여성복을 입은 남성으로 상징화된다. 이미지 출처: <https://hypebeast.com/2021/9/new-york-fashion-week-spring-summer-2022>.

어, 남성들의 화장이라거나 고중량 운동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증가¹²⁾와 같이, 현대 사회는 더 이상 성 혹은 젠더와 관련된 고정관념을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사회가 개인의 취향이라는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한 개인의 내적 특성으로서의 남성성과 여성성의 공존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젠더리스라는 개념의 등장은 사회 속에 젠더의 경계를 없애고자 하는 시도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젠더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사회, 문화, 정치적 갈등이 젠더의 통합, 따라서 젠더 갈등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 적어도 그러한 흐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연주의 정치 철학을 배경으로 여성성에 대한 남성성의 억압을 폭로하고, 생물학적 성 역할의 불합리를 젠더라는 사회, 문화적 개입에 따라 극복하며, 이를 바탕으로 이분법적 성차에 내재한 폭력성을 드러내어 성 정체성과 성 역할을 자각하고자 했던 성평등 실현의 목표가 젠더의 삭제로 이어지는 매우 아이러니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¹³⁾

물론 젠더가 삭제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만약 젠더리스라는 현상이 젠더의 구분을 없애는 것이기에 구분 자체가 없이는 갈등 또한 존재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젠더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12) 여기서 고중량 운동이란 대표적인 근력 운동인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의 총 수행 중량을 측정하는 근력 강화 운동을 의미한다. 물론 이미 많은 스포츠에 여성들이 진출해 있기에 이것 자체가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으나, 아름다운 몸매가 아닌 3운동 수행 중량의 총합이 300kg이상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에 매우 많은 일반 여성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들이 '힘'이라는 개념 자체를 운동의 목표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이미 이 사회에 남성성과 여성성의 구분이 약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라 생각된다.

13) 물론 이는 젠더를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전혀 아이러니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페미니즘의 방향성에 대한 페미니즘 내부의 주장들 속에서 진정한 젠더 평등의 실현은 여성이라는 젠더가 주체의 자리에서 벗어날 때, 즉 진정한 젠더 평등이란 여성과 남성에게 가해지는 사회, 문화적 제약이 사라져 더 이상 남성 젠더나 여성 젠더의 구분이 사라지는 시점에 가능해진다는 주장이 존재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젠더리스는 전혀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것이다.

전개될 수 있다면, 젠더리스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과연 젠더리스라는 개념 혹은 현상이 젠더 갈등의 완화로 이어지게 될까?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현상에는 여러 미시적인 동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한 개인이 그 수많은 미시적 동인들 자체와 그것들의 결합과 분화 양상으로부터 기인하는 결과를 인과적으로, 그리고 정합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실로 불가능한 작업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원칙들, 그리고 원리들에 사건, 현상을 대입해 보면서 말 그대로 ‘가능적인’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메를로-퐁티(M. Merleau-Ponty)의 철학을 원칙과 원리로 설정하면서 실존적인 인간관의 관점에서, 동시에 갈등의 존재론적인 위상을 고려하며 젠더리스의 결과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적어도 메를로-퐁티의 철학적 관점에서 이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하기는 어렵워 보인다.

3. 메를로-퐁티적 접근: 신체 현상학과 살 존재론적 관점

1) ‘육화된 의식(Conscience incarnée)’과 ‘세계로-열린-존재(être-au-monde)’를 통해 해석되는 신체 현상학적 관점에서의 젠더리스

감히 언급하건데, 철학사에 있어서 메를로-퐁티 철학의 가장 큰 특징이자 현대 철학에 끼친 함의란 그의 철학의 목표가 철학에 내재하던 이념적, 추상적 틀을 부수고자 하는 시도로 집중된다는 점이다. 이때 철학의 이념적이고 추상적인 틀이란 곧 구체적 생활세계의 선형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정합적인 이념적 세계를 선형적인 것으로 보고, 실재를 이념적 틀에 맞추고자 하는 모든 철학적 전통을 의미한다. 일례로 그의 철학적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각적 장(le champ phénoménal)의 함의는 1)세계란 나의 지각을 통해 파악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2)의식의 지성

적 구조나 감각, 본능의 하부구조 어느 한 편으로 포섭되지 않는 지각의 특성상 세계는 애매하게 현상될 수밖에 없다는 것, 3)따라서 세계에 대한 명시적 파악이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통해 철학을 현실의 차원으로 끌어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관점에 의하면 철학이 추상화 내지는 관념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현시되는 세계의 모습을 철학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념적, 관념적 틀로 치환하여 세계를 재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철학과 세계를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이끌리게 된다. 왜냐하면 세계를 파악하는 일군의 철학적 노력(특히, 관념적 태도)은 필연적으로 생활 세계의 의미를 축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의 의미를 실제적인 차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면 세계를 현상시키는 지각적 의미를 축소해서는 안되며, 지각으로부터 구성되는 지각적 장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의 현상(실제적 현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메를로-퐁티 철학이 갖는 의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필연적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체’라는 개념이다. 신체와 분리된 의식이란 사고될 수 있을 뿐, 현실적인 우리의 지각장(champ phénoménal), 즉 세계 파악의 방식에 수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유아론적인 의식(데카르트적 코기토로 대표되는)이란 철학의 추상화 작업의 결과물일 뿐, 우리의 실존적 상황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가 의식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가 주장하는 것은 의식과 신체의 분리 불가능성이다. 지각은 신체로부터 가능하며, 지각의 파악 작용 속에는 의식의 지성적 작용이 근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식과 신체는 분리 불가능한 혼용의 존재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의 핵심이다. 이러한 의식-신체의 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개념이 ‘육화된 의식(la conscience incarnée)’이다. 육화된 의식이란 의식에 의한 세계 파악의 방식이 단순히 의식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신체라는 물리적 상관항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그의 관점을 지시한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세계로부터 받아들이는 (의식을 통한) 의미는 언제나 신체적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몽크의 절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불안 속에 놓인 주체의 세계 파악의 내용은 절규라는 신체적 표현으로 이끌리며, 때에 따라 갑작스러운 놀람은 우리의 의식에 앞서 몸을 경직시키기도 한다. 이는 신체와 의식 혹은 정신이라는 두 항이 서로에게 외부적으로 놓이는 개별항으로 성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절 없는 연속, 혹은 끊임없는 상호적, 지속적 운동의 상관항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개인의 신체적 특성은 세계 파악의 내용과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100미터를 10초에 뛰는 사람과 100초에 뛰는 사람이 갖는 세계의 의미가 같을 수 없고, 시력이 -2.0인 도시인과 5.0의 시력을 가진 유목민에게 있어서의 세계의 의미가 같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세계의 의미가 체화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달리 말해 주체의 신체적 개별성은 세계를 자신만의 지각적 내용으로 파악하는 동기가 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때 지각적 주체에게 파악되는 세계 속에는 나의 신체 또한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신체는 육화된 '의식'이기에 물질적-대상적인 개체도 아니고, '육화'된 의식이기에 지각적 장에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닌 다분히 특수한 존재자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나는 나의 신체를 대상으로서 만질 수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만지는 주체 또한 나의 신체인 것이다. 이러한 지각적 신체의 자기 회귀적 운동은 나의 신체적 특징에 따라 세계를 파악함과 동시에 나의 신체적 특징에 따라 나를 파악하게끔 한다.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메를로-퐁티 철학적 관점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인 구분은 젠더 정체성을 규정하는 선험적 동기가 된다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목하는 메를

로-퐁티적 관점은 신체적 특성에 따라 세계의 의미가 구성된다는 사실일 뿐이지, 남성 혹은 여성의 생식기 구조와 남성성 혹은 여성성이 일대일로 대응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생식기 구조를 제외하고도 남성과 여성의 생리적 차이는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실제적인 성적 신체의 차이를 부정할 수 없다면, 우리는 남성과 여성에게 있어서의 세계의 의미 또한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남녀 간의 생리적, 물리적 차이를 희석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젠더리스의 방향은 실존적이지 않다.¹⁴⁾



[그림 4] 뭉크의 절규

14) 이러한 관점은 젠더를 바라보는 시각 속에도 존재한다. 젠더와 관련된 수많은 논의들 속에서 주요한 논의로 자리잡은 것 중 하나가 사회, 문화적 결과로서의 젠더가 과연 성sex이라는 요소와 전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가라는 화두이다.

여기서 실존적이라는 것은 신체와 세계의 실제적인 상호작용을 전제하기에 그러하다. 물론 신체와 세계의 상호작용 속에서 신체는 자신만의 틀(신체 도식, le schéma corporel)을 조정하며 자신의 실존 상황을 개선해 나간다. 메를로-퐁티가 인간 존재를 설명하면서 제시하는 개념인 ‘세계로-열린-존재(être-au-monde)’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세계의 의미가 나의 신체적 특성을 무시하며 나의 정체성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내 신체가 세계와 맺는 관계를 무시한 인위적 노력은 다분히 의식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노력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의식적이기에 실존적일 수 없다. 메를로-퐁티가 신체를 다루는 『지각의 현상학』 1부에서 굳이 ‘성적 존재로서의 신체’라는 주제를 하나의 장으로 다루는 이유가 바로 성(sexualité)이라는 사건이 나의 신체적 실존을 이루는 하나의 근본적 기재임을 강조하려는 의도였다. 는 점에서 보자면 젠더리스의 방향은 신체의 실존적 상황을 거스른다는 점에서 갈등의 해결책으로 인정될 수 없다.

2) 살(Chair) 존재론을 통한 갈등의 해석

젠더리스에 대한 신체 현상학적 해석이 젠더 갈등의 가능성에 대한 실존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면, 메를로-퐁티의 살-존재론적 해석은 갈등 그 자체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과연 갈등의 해결이 갈등 기재의 삭제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가?

주지하다시피 메를로-퐁티의 철학은 지각을 통해 구성되는 현상적 장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신체 현상학의 시기와 살(chair)이라는 존재론적 원질의 근원적 존재 방식에 따라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존재론적 시기로 구분된다.

신체 현상학적 시기의 메를로-퐁티의 철학적 목적이란 물질적 차원이

나 의식적 차원에 종속되지 않는 지각과 신체를 통한 이원론의 극복으로 모아진다. 다시 말해 지각과 신체를 통해 형성되는 현상적 장의 구체성을 바탕으로 전통 철학의 난점인 이분법적 구도(능동과 수동, 주체와 객체, 물질과 관념 등)의 해체가 신체 개념이 이야기 되는 핵심 목적이 되는 셈이다. 이때 신체적 주체의 또 다른 표현인 ‘세계로-열린-존재’는 전통 철학의 이분법적 구도로부터 자신의 상황과 의미를 연역적으로 추론해내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구도 자체를 자신으로부터 발생시키는 의미 발생의 지대 혹은 ‘현상들의 기원성(l’originalité des phénomènes)’¹⁵⁾으로 기능한다. 신체가 이러한 현상들의 기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지각의 근원성, 즉 순수한 지성의 작용이나, 순수한 감각으로 환원되지 않는 중간자적인 성격이 지각에 내포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각의 물질적 차원과 지성적 차원으로서의 환원 불가능성, 혹은 지각의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으로서의 환원 불가능성은 세계를 파악함에 있어 이미 설립된 관념론적 틀에 따라 세계를 인식하는 전통 철학의 한계를 넘어, 세계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게 하는 핵심 기재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살 존재론 시기의 메를로-퐁티는 신체가 그와 같은 근원적 배경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데, 그 이유는 “사실 나는 만지고 있는 나를 만지거나 보고 있는 나를 보는데 완전하게 성공할 수 없고, 나 자신을 지각하는 경험은 일종의 임박성을 넘어서지 못한다.”¹⁶⁾

살은 물질도 아니며, 정신도 아니고 실체도 아니다.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 공기, 흙, 불에 대해 말하기 위해 사용했었던 오래된 용어인 ‘원소’, 다시 말해, 보편자라는 의미에서의 ‘원소’라는 용어가 요구된다. 그것은 시-공간적인 개별자와 관념 사이에 놓여있는 것, 그것의 단편이 발견되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양식을 초래하는 일종의 육화된 원리이다. 살은

15) Merleau-Ponty,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Paris: Gallimard, NRF, 1945, p.73.

16) Merleau-Ponty, *Le visible et l’invisible*, Paris: Gallimard, 1964, p.297.

그러한 의미에서의 존재의 '원소'이다.¹⁷⁾

오랜 철학적 용어인 원소라는 개념으로 치환되는 살이란 그 보편성에 의해 세계를 구성하는 질료로서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주장된다. 실제로 메를로-퐁티는 살을 일컬어 '사물의 직물(tissu des choses)',¹⁸⁾ '공동조직(tissu commun)',¹⁹⁾ '공동의 재질(éttoffe commune)',²⁰⁾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나아가 '존재의 살(chair de l'être)'²¹⁾이라는 용어를 통해 살이라는 개념이 세계를 구성하는 형이상학적, 존재론적 요소임을 밝힌다. 이때 살이 세계를 구성하는 근원적 원소와 같은 것이어서 그것으로부터 주, 객관이 형성되고, 관념과 물질이 생성되는 세계의 배경이라면 그것은 살이 일종의 매질로 기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살은 관념과 물질, 주체와 객체 양자를 구성하는 공동 재질로서 양 차원에 동시에 속하게 된다. 이것이 곧 그가 말하는 살의 가역성(réversibilité)이 의미하는 것으로, 세계는 살이라는 두께(l'épaisseur de chair)²²⁾에 의해 구성됨으로써 대립된 항들 사이의 순수한 가역적 운동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살은 세계의 모든 대립된 항들의 단절을 메우는 개념이며, 이는 살이 세계의 대립된 항들의 대립을 와해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 우리의 논의와 관련된 핵심이 자리한다. 왜냐하면 결국 살의 근원성으로부터 가능한 살의 가역성은 우리가 현상으로 인식하는 대상들, 특정 의미들은 나의 의식이 그것을 특정 대상, 특정 의미로 고정시킨 이후의 결과물들이며, 우리가 그러한 대상들, 의미들을 바로 그것으로 현상하기 시작하는

17) Ibid., pp.181-182.

18) Merleau-Ponty, op. cit., pp.176-177.

19) Merleau-Ponty, op. cit., p.253.

20) Merleau-Ponty, op. cit., p.250.

21) Merleau-Ponty, op. cit., p.119.

22) Merleau-Ponty, op. cit., p.176.

존재론적 근원의 차원에서는 그것을 대상, 의미로 인식하는 의식과 그 대상, 의미들의 구분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메를로-퐁티는 ‘만지는 손’과 ‘만져지는 손’의 예시를 통해 이러한 선-의식적 차원의 인식 상황을 이야기한다. 만약 우리가 두 손을 마주 잡은 상황에서 마주 잡은 두 손을 주관-대상으로 각각 인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두 손은 각각 주체와 대상의 지위를 동시에 점하게 된다. 즉, 나의 오른손을 잡은 왼손은 대상으로서의 오른손을 잡은 주체임과 동시에 오른손에 잡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내 오른손을 잡은 왼손을 대상인 오른손을 잡은 주체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미 주체와 대상을 구분한 후차적 의식 상황이며, 우리는 이러한 후차적 의식 이전에 이미 우리의 지각으로서 선-의식적으로 세계(여기서는 손을 마주잡고 있음)에 대한 의미를 판단한다. 이러한 차원이 바로 선-의식적 차원이며, 곧 살의 존재론적 차원이다.

이는 곧 살적 차원에서의 주체-대상의 연속적 위계 교환을 의미하는데, 살을 통해 세계 속의 대립된 항들은 연속적인 것이 되며, 대립된 항들의 단절 없는 연속성은 항들 사이의 갈등을 와해한다. 즉 존재자들의 공동 매질의 존재인 살은 존재자들의 대립과 갈등을 와해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렇다면 살의 이러한 기능이 젠더리스라는 개념이 대립된 젠더를 공동의 범주로 모으기에 갈등을 조정한다는 유비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주의할 것은 살의 가역성, 혹은 살의 스펙트럼이 존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립된 항이 요구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세계 속의 각각의 신체들(사물, 인간, 존재자들 전체, 곧 현상되는 모든 의미들)은 살이라는 공동 원소로 구성되기에 가역적 운동이 가능하게 되지만, 이는 역으로 말하자면 살의 스펙트럼 속에는 각 신체들이 존재한다는 것, 나아가 각각의 신체들이 존재해야 살의 가역적 운동 또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살은 신체 개념의 심화인 동시에 신체 개념의

대립할 수 있다. 신체는 살로 근본화되고, 살은 신체로 구체화된다. 이때 신체는 개별적 존재자들일 수도 있고, 구체화된 사건일 수도 있다. 이에 반해, 살은 관념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모두를 구성하는 존재의 원소이기에 특정하게 언어로 구체화할 수 없으나 적어도 신체들의 단절과 대립을 와해하는 그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굳이 이야기 하자면 갈등과 갈등 해소의 운동 그 자체를 살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신체와 살의 관계가 의미하는 바는 간명하다. 결국 구체화된 신체 없이는 살의 가역성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의 논점인 젠더리스에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관계가 적용될 수 있다면 그것은 갈등을 일으키는 젠더들(구체적 신체들)이 없이는 갈등 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화합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가 부재할 때 살의 근원적 운동이 사라지며, 살의 부재는 세계의 부재로 이어진다. 이는 갈등이 존재해야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갈등을 일으키는 기원 자체를 없애는 행위(신체들의 삭제, 젠더의 삭제)는 세계(성, 혹은 젠더적 의미,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사회적 관계들)를 유지시킬 수 없다.

물론 존재론적으로 주장되는 이러한 논의는, 그 존재론적 속성으로 인해 비록 그것이 세계와 세계 속 존재자들의 존재 방식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는 있지만, 과연 젠더 갈등의 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마주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당장으로서 이러한 질문에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효용성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러한 존재론적 해석에는 적어도 두 가지 방향의 새로운 관점이 내재해 있다 생각된다. 첫째, 세계가 개별적 항들의 상호교환, 즉 가역적 관계 속에서 유지되는 것이라는 메를로-퐁티의 존재론적 관점은 개별항들 간의 갈등은 세계의 파괴가 아니라 세계의 존속을 위한 필연적 동기라는 점을 어필한다. 이

는 젠더 갈등이라는 구체적 상황 속에서 남성성을 여성성으로, 혹은 여성성을 남성성으로 이동시키는 갈등의 와해는 갈등의 봉합이 아닌 성이라는 실존으로 구성된 세계의 파괴라는 의미가 된다. 다시 말해, 살의 존재론적 해석은 역설적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개별항들의 고유성을 보장하려고 주장하는 듯 하다. 그렇다면 결국 문제는 이 개별항들의 가역적 상황을 어떻게 존재론적으로 보장하는가라는 점이다. 이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힘이 이동하는 가역적 상황 자체는 존재론적으로 부정적인 것일 수는 없다. 둘째, 따라서 현재 상황 속에서 젠더 갈등의 해결은 여성성의 집중에 모아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현재의 젠더 갈등이 페미니즘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리고 메를로-퐁티의 살의 존재론이 주장하는 궁극적 진리로서의 가역성이 개별항들의 고유성을 전제한다면, 적어도 앞으로의 페미니즘 운동의 방향은 여성의 남성화가 아닌 여성의 더 고유한 여성화로 옮겨져야 한다. 물론 이때의 여성성은 전통적-사회적 가치에 함몰된 여성성을 의미하는 것일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존재론적 고유성을 가지는 것이기에 자체적으로 직관되는 의미여야 한다. 만약 현상학이 젠더 갈등이라는 전장에 뛰어들어야 한다면 그 목표는 바로 현상학적으로 밝혀지는 고유한 여성성, 그것이어야 한다.

4. 결론 : 힘의 이동의 동기로서의 성적 갈등

만약 특정 성에 대한 사회적 억압이 없다면 삶의 지평 속에서 성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자립적 성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실존의 일반적 운동을 따르는 성의 상태이다. 그러나 성에 일종의 억압이 발생한다면 이는 억압을 받는 주체의 실존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때 주체는 오히려 실존하기 위해 억압에 반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성적 실존의 도식을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젠더의 출현이란 곧 이러한 실존적 상황을 의미하며, 따라서 사회적 개념으로서의 젠더라는 개념은 곧 젠더라는 개념 속에서 갈등이 드러나는 양상 자체이기도 하다. 문제는 그 갈등 양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젠더 개념은 이중적 함의를 지니는 듯 하다. 첫째, 그것은 성이라는 생리학적 틀에 내재한 불합리를 해석해내고자 하는 몸부림일 수도 있고, 둘째, 그 불합리를 넘어서고자 하는 실제적인 행동 양식일 수도 있다. 물론 그 행동 양식은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향이 신체의 실존성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그것은 의식과 물질적 차원이 중첩된 현실에서 의식적 차원만을 부각시키는 노력일 수 있고, 그래서 또 다른 이성 중심주의, 또 다른 모더니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젠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탈-근대의 성적 구도를 지향한다면 적어도 의식적 차원에 종속된 젠더의 구도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 메를로-퐁티적 구도로 젠더리스를 해석하는 필자의 눈에 젠더리스라는 개념은 신체의 실존성을 벗어나고자 하기에 다분히 의식적이며, 따라서 오히려 전근대적 방향성으로 비춰진다.

마찬가지로 갈등의 원천을 삭제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시도로 비춰지는 젠더리스의 개념은 갈등의 존재론적 효용성을 무시하기에 그 효용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이기도 한다. 신체와 살이라는 대립적임과 동시에 연속적인 개념들의 관계는 세계란 갈등을 일으키는 대립된 항들의 존재로 유지됨을 주장한다. 따라서 문제는 어떻게 갈등을 새로운 의미로 파생시킬 수 있는가로 모아져야지, 갈등의 원천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성차의 구분을 없애며 성 갈등, 젠더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은 첫째, 신체의 실존성을 무시한다는 측면에서, 둘째, 세계 유지의 조건으로서 기능하는 갈등의 효용성을 무시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

려 갈등은 억압된 젠더가 목소리를 내게하는 동기이며, 이것이 가능할 때 힘의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건강한 사회의 조건이기도 하다. 고인 물이 썩듯, 정체된 중심, 힘의 정체는 사회의 부조리로 연결되지 않던가. 따라서 갈등을 표면화시키며 힘, 중심의 이동이 자유로운 구조가 고민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이는 현대 철학의 한 축인 담화 이론으로도 연결된다. 결국 하버마스와 같은 현대 철학자들의 주장은 이런 관점에서 갈등을 드러내라는 갈등의 효용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현대 철학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마주 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갈등을 없애는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 갈등의 양상은 지양되는 것이 아니라 펼쳐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것이 의미에 대한 존재론적 지평을 밝히는 현상학적 해석일 것이다.

■ 참고 문헌

- 게리 W. 우드 저, 한혜림 역, 『젠더: 심리학으로 말하다』, 북스힐, 2020.
- 로빈 라일 저, 조애리·강문순·김진옥 공역, 『젠더란 무엇인가』, 한울아카데미, 2015.
- 주디스 버틀러 저,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8.
- 주디스 버틀러 저, 조현준 역, 『젠더 허물기: UNDOING GENDER』, 문학과 지성사, 2015.
- Merleau-Ponty, *Le visible et l'invisible*, Paris: Gallimard, 1964.
- Merleau-Ponty,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Paris: Gallimard, NRF, 1945.

■ 국문초록

본 논문은 현대 우리 사회의 성 갈등과 그로부터 파생된 ‘젠더리스’ 개념을 살펴보고, 성 갈등의 결과 혹은 해결 개념으로 등장하는 젠더리스 개념을 메를로-퐁티의 철학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그 의미와 한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본고의 목적을 이해 논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된다.

우선, 현대 우리 사회의 갈등 양상을 살펴보고, 그 중 성적 갈등 양상의 추이와 특징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성적 갈등의 진행 양상을 성(sex)-젠더 - 젠더리스의 순서로 일변하며, 각 개념의 특징과 갈등 변화의 양상을 추적한다. 그 후, 논의는 메를로-퐁티의 신체 현상학과 살 존재론의 관점에서 젠더리스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밝힌다. 이 과정 속에서 젠더 사이의 갈등을 무화하는 방식의 결과를 초래하는 젠더리스 개념은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아님을 강하게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젠더 갈등은 젠더 사이의 힘의 이동을 위한 동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바로 이것이 젠더 개념의 존재론적 함의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 한다.

주제어● 성 갈등, 젠더, 젠더리스, 메를로-퐁티

■ Abstract

A Phenomenological Interpretation of Genderless : Focusing on Merleau-Ponty's Phenomenology of the Body and the Ontology of the Flesh

HAN WOO-SUB / Joongbu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gender conflict in our contemporary society and the concept of “genderless” that arises from it, but analyzes critically the concept of genderless, which appears as a result or solution to the gender conflict, through the philosophy of Merleau-Ponty to examine its meaning and its limits. For this purpose, the discussion will proceed in the following order.

First, we examine the conflict patterns in our contemporary society and explain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sexual conflict patterns. Then we detail how the progression of sexual conflict changes in the order sex – gender – genderless, and we trac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ncept and the changing aspects of the conflict. The discussion then illuminates how genderlessness can be understood from the perspective of Merleau-Ponty's phenomenology of the body and ontology of the flesh. In this process, we strongly argue that the concept of genderlessness, which results in a way that neutralizes the conflict between genders, does not solve the problem. Finally, we conclude the discussion by emphasizing that gender conflict is a motivation for the transfer of power between genders, and that this is precisely the ontological implication of the concept of gender.

Keyword • Sexual conflict, Gender, Genderless, Merleau-Ponty

유리 도시로 변모해가는 도시이미지에 대한 도시 감정의 탐색

: 서울청사·63빌딩·강남삼성사옥 도시이미지인자에 대한 도시민의 의견을 중심으로

문 윤 수*

목 차

1. 문제제기 및 연구구성
2. 이론적 논의
3. 실질적 논의
4. 결론

1. 문제제기 및 연구구성

사회문제는 도시문제로 야기된다.¹⁾ 1세기 더욱 대두되는 도시문제는 물리적인 문제 못지않게 바로 도시의 물인격성과 인간소외라는 정서에 근간을 두고 있다.²⁾ 그런 만큼 도시 정부는 도시민들의 그런 정서적 병리 현상을 감소 혹은 완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일탈 문화예술을 차용하여 행한다. 그러나 이미 정서적으로 문제가 만연한 도시에서 일시적인 문화예술 이벤트는 근본적인 도시 정서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다. 다시 말해서

* 문윤수 목원대학교 광고언론학부 교수

1) 비판사회학회, 『사회학(비판적 사회읽기)』, 한울, 2012, 529쪽.

2) 위의 책, 531쪽.

일시적인 문화예술 행사는 도시민들로 하여금 일시적 소비이거나 배설에 머물고 만다. 그런 의미에서 본 논의는 영구적인 도시 정서에 대한 차별화된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것이 바로 도시민 시야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물이라는 영구적인 도시이미지인자의 점검을 상정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도시이미지를 구성하는 물리적인 인자 중에서 건축물의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³⁾ 그런 의미에서 오랜 세월 동안 도시들은 다양한 건축물, 더 엄밀하게는 그 건축물의 표피인 마감재를 통하여 도시 이미지를 형성시켜왔다. 한국의 경우 조선 시대부터 흙·돌·나무를 통하여 자연 친화적인 도시이미지를 구성해왔지만, 20세기 중반부터 양산된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일률적인 아파트로 도시이미지를 드러내 왔다. 그런데 이 콘크리트 표피는 지나치게 통일된 나머지 도시의 삭막함을 도시거주민들은 물론이고⁴⁾ 외지인들로부터도 지적되는 이미지이다.⁵⁾ 물론 이는 건축물이라는 도시이미지인자 못지않게 다양한 도시 원인을 통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정서적 개선보다 물질정서적 평가도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런 가운데 작금에 한국은 그 이미지 표피에 있어서 또 다른 도시이미지의 변화를 겪고 있는데, 바로 ‘유리 건축물(Glass Bulding)’에서다. 다시 말해서 온통 콘크리트로 지적된 도시이미지가 이제는 전면 유리로 변모하는 것이다. 이는 그간에 정감 결여의 콘크리트의 도시이미지 개선이라기보다 오히려 전혀 다른 차원의 차가운 도시 정서를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뉴욕도 유리 건축물이 다량으로 들어서고 있는 실정에서 그에 대한 도시이미지 느낌을 그리 긍정적이지 못한 것도 사실이

3) 문운수, 「도시이미지를 구성하는 인자로서 건축물과 옥외광고의 조화를 체감기 위한 탐색적 연구(미국의 고도(old city(colonial-era city))로서 메사추세츠주의 보스턴(Boston)에 위치한 비콘힐(Beacon Hill)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7권 1호,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19, 113-148쪽.

4) 전상인, 『아파트에 미치다』, 이숲, 2009, 71쪽.

5) 발레리 줄레조 저, 길혜연 역, 『아파트 공화국』, 후마니타스, 2007, 45쪽.

다. 비근한 예로 ABC방송국 본사 근처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방송국 사옥 이전에 대한 도시이미지 변신에 대하여 아름다운 지역이다 역시 흉물스러운 유리빌딩이 들어서서 뉴욕만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게 할 것이라는 도시 이미지 염려를 드러내고 있다.⁶⁾ 그런데 여기서 그 염려란 단순히 특정 건축물 비전호만으로 해석될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의 염려란 기존 건축물이라는 특정 도시이미지인자에 대한 친근한 정서와의 종식, 이미 사방으로 형성된 유리 건축물이라는 도시이미지인자에 대한 몰 정서에 대한 태도, 더 나아가 그런 도시민의 정서를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하는 유리 건축물 효율성 대세에 도시민 감정은 상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도시이기에 건축물 표피에 달라붙은 난잡한 옥외광고가 저지되는 것과 같이 상점 효율성보다 주민의 시야 정서가 중요해진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⁷⁾ 그런 나머지 파리는 지나치게 주목되는 맥도날드의 황색 아치 간판을 고전 건축물들과의 색채조화를 위해 저지하다가 회색의 절충안으로 도달했고,⁸⁾ 같은 맥락에서 서울은 이미 20세기 후반부터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⁹⁾ 그런 의미에서 유리 건축물도 효율성의 극찬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시이기에 정서적 도시이미지 차원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유리 건축물에 대한 그런 정서적 평가 부재는 다양한 영상들에서 미래의 도시를 유리로 예측하게도 한다. 이는 도시민들에 의해서 그런 미

6) 김은별, “이사 가는 ABC방송국 개발과 개성사이”, <아시아경제>, 2018.07.13. (검색어 ‘유리빌딩’ 2022년 6월 4일 1시 35분경 검색)

7) Lee, M., “Research of the outdoor advertizing relation system for a desirable advertisement viewable formation”, *Journal of Outdoor Advertising Research*, vol. 4, no. 1, 2007, pp.75-88; 문윤수, 「아날로그 옥외광고와 공공미술의 결합을 통한 도시이미지의 인자로서의 특성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시카고 밀레니엄파크와 서울 대림동을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32권 8호, 한국광고학회, 2021, 41-87쪽.

8) 심성욱·박현, 『신옥외광고론』, 서울경제경영, 2012, 121쪽.

9) 김예승·허정환·김광구,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정책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학보』 5권 2호, 한국지방행정학회, 2008, 19-38쪽.

래의 도시이미지를 기대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오직 소수의 관련자들의 지엽적 편견으로 조성되는 미래도시 이미지의 예견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예단이 기대이든 편견이든 분명한 것은 도시민들이 기대하는 미래의 도시이미지란 자연 친화적이거나 모종의 따뜻한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도시일 가능성이 크지, 날카롭게 치솟은 유리 스카이라인 이거나 내부를 온통 드러낸 표피의 마스다르시티(Masdar City)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¹⁰⁾ 그런 만큼 미래도시에 대한 예상에서도 효율이 아닌 정서적인 도시이미지 차원이 고민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논의는 디지털시대에 선 인간의 도시가 이른바 ‘유리 도시(Class City)’로 변모하는 현상을 주목하였고, 과연 그에 대한 도시 정서는 어떠한지를 건축물이라는 도시이미지인자를 통하여 점검하였다. 우선 첫 번째는 그런 문제제기의 의도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선행논의를 살펴봤다. 두 번째는 감정사회학과 예술사회학 이론을 도시에 대입하여 이른바 유리 도시화에 대한 도시이미지를 재정의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실질적 논의는 특정 도시를 선정하여 유리 도시에 대한 거주 시민들의 의견을 살펴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본 논의의 일련의 과정 요약과 향후 관련 논의의 향방을 제안하였다.

2. 이론적 배경

1) 선행논의

한국에서 전면 유리 표피 건축물의 등장은 1985년 완공된 63빌딩부터 이다(박신의, 2010). 그런데 본 빌딩에 대한 찬사는 남산타워와 함께 서울

10) Pitron, G., *L'Enfer numérique(Voyage au bout d'un like)*, Paris: Les Liens qui Libèrent 2021.(기욤 피트롱 저, 양영란 역, 『‘좋아요’는 어떻게 지구를 파괴하는가』, 갈라파고스, 2023, 28쪽.)

조망의 또 다른 대상으로 초고층의 이유였지 유리 표피는 아니었다. 물론 1909년 창경궁 대온실이 전면 유리 표피의 건축물로서 먼저이기는 했다. 그러나 이는 특별한 소유와 관상용 파빌리온(Pavilion)에 가까운 도시이미지인자이기에 그 의미가 크지 않다. 따라서 본 논의는 63빌딩의 완공 시점부터를 관련 논의의 탐색 시점으로 설정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한 논의는 80년대까지 유리 건축물 쓸모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고딕의 종교적 판타지 광채를 건물 내부로 끌어들이는 창문, 19세기 유리천장 아케이드의 최대의 주광 확보, 박람회 수정궁 온실 건축의 열·빛·개방공간·경제성의 부상 등으로 20세기 기계산업 시대 도시이미지를 건축으로 승화됨을 소개하고 있다.¹¹⁾ 그러나 논의는 지극히 유리 건축물 개발의 필요성의 기초이기에 더 광범위한 도시이미지를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뉴욕의 랜드마크로서 떠오른 전면 유리빌딩 ‘레버 하우스(Lever House)’로 도시이미지의 변화를 주장하는 한 논의는 야간의 건축물의 뿔어내는 보석 같은 미래도시 뉴욕을 소개하고 있었다.¹²⁾ 그러나 논의는 유리만으로의 도시이미지적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채 단독 과시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 맥락에서 또 다른 논의는 이른바 ‘유리 외피(Glass Envelope)’로 환상적 건축물의 도시이미지를 추정케 했는데, 논의는 도시이미지의 새로운 면모를 제시하는 것이기도 했다.¹³⁾ 건축물의 유리 외피를 가능하게 하

11) 서용민, 「건축물의 외피에 적용된 유리의 표현특성 및 발현의미에 관한 연구 (1980년대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 2022.

12) Ixon, J. M., “Lever House: a Paragon preserved (A New York City landmark gleams with new curtain walls and improvements to its precedent-setting plaza)”, *Architecture*, vol. 91, no. 12, BPI Communications, 2002, pp.61-126.

13) Schumacher, T. L., “The Skull and the Mask(The Modern Movement and the Dilemma of the Facade)”, *the Connell Journal of Architecture*, issue 3, 1987 Fall, pp.10-11.

는 이른바 ‘커튼월(Glass Curtain Wall)’ 공법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한 논의는 유리 건축물 외피에 질서 부여의 활기찬 감각을 강조했다.¹⁴⁾ 따라서 이는 태생적으로 삭막한 도시 속성에 대한 방책일 수도 있는 논의이기도 하다. 그러나 활기참은 들뜸으로 차분함과 편안함과는 구분되는 정서로서 논의는 20세기 도시이미지 통념에 갇혀있었다. 도시에 있어서 유리 외피의 자연채광과 열에너지라는 효율성에 초점을 둔 논의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창 면적 비례로 강조하고 있었다.¹⁵⁾ 그러나 이는 유리 표피에 대한 지극히 건축물 효율성의 강조였다. 맨하튼 도시이미지를 논하는 논의 하나는 유리 표피를 건축물 내부구조를 보이게 하는 표피로서 거주자의 정서에 도움으로 인식하게 했고,¹⁶⁾ 또 한 논의는 유리로 내부공간 활용과 생활의 질 향상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강조함을 맨하튼의 도시이미지가 유리로 변모함으로 예견했다.¹⁷⁾ 그러나 그 변모의 효율성이란 초고층에서만 유효한 것이었다. 뉴욕주의 여섯 개의 건축물을 선정하여 하루 일광 변화를 조사한 한 논의는 투명 유리 재료 건축물의 색채가 비교적 고정된 영역에 머물러 불투명한 석재나, 콘크리트, 합성재 그리고 벽돌의 외장재보다 건축물 색채 이미지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장점을 추출하였다.¹⁸⁾ 그런데 논의가 정의한 색채 일관성이란 도시에서 정확한 물체 인식인데, 본디 건축물

14) 정영균, 「커튼월의 미적·기능적 가치와 대표적 디자인 사례들」, 『건축』 47권 9호, 대한건축학회, 2003, 13-16쪽.

15) 박유라·유호천, 「건축물의 유리외피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태양에너지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8호, 한국태양에너지학회, 2004, 193-200쪽.

16) Minutillo, J., “Behind the Curtain Wall: Three residential buildings with innovative facades rise in New York City”, *Architectural Record*, vol. 198, no. 9, McGraw-Hill Data Services, 2010, pp.128-138.

17) Michel, C., “Glass & interactive building envelopes”, *Research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series 1*, Amsterdam: IOS Press, 2007, pp.1-2.

18) 신계옥·이진숙·신동윤, 「일광에 따른 건축물 외장재 색채 이미지 변화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학회논문집』 27권 2호, 한국색채학회, 2024, 39-50쪽.

의 인식이란 액정처럼 유리에서 연출된 색채보다 물체의 질감과 촉감에서 더욱 중요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유리라는 시각 감각은 반사로 인하여 정확한 물체 인식에 있어서 더욱 곤란하다. 따라서 유리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도시이미지화에 우월하다는 논리는 근거가 부족하다. 유리 표피의 필요성은 초고층 빌딩의 심미성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한 논의는 유리 외피가 도시에서의 광공해 유발의 문제를 낳음을 강조하였고, 더 나아가 교통안전으로 확대했다.¹⁹⁾ 이는 유리 표피로 인한 도시의 정서 차원을 넘어서 지극히 합리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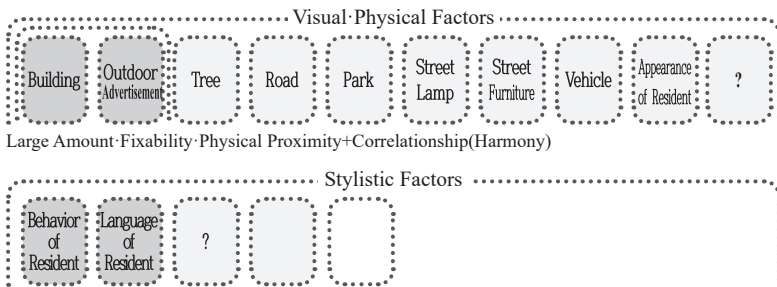
결국 전면 유리 표피 건축물에 대한 선행적 논의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유리 건축물의 효율성이란 건설과 운영이라는 경제적 이유가 전부였다. 그러다 보니 두 번째로 도시이미지로 도시 전체의 정서로 전혀 확대되지 못했다. 세 번째는 유리로 인한 해당 건축물의 단독 주목의 기대는 매우 컸다. 그래서 네 번째로 앞으로의 도시이미지는 유리로 처리되어야 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이미지의 추세가 보편화 된다면 오히려 유리 건축물은 도시의 랜드마크가 아니라 집단적 유리 도시의 면모이기에 유일의 주목 이미지도 상실됨을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논의는 그러한 유리 도시를 감정사회학과 예술사회학에 대입하여 아래와 같이 재정의하였다.

2) 감정사회학과 유리도시이미지

‘도시공학(Architectural·Urban Engineering)’에서 도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물리적인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전 계획을 공학적으로 행한다. 그리고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관리하고 개발하며, 더 나아가 정책과 기술을 발휘하여 도시를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다시 말해서 도시공

19) 송형준·서영교, 「거튼빌 고층 건물 및 반사에 의한 운전자 눈부심 가능성」, 『안전학회지』 36권 2호, 한국안전학회, 2021, 26-31쪽.

학은 하나의 도시를 한 명의 개인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서 식량과 물, 공간과 에너지, 더 나아가 폐기물과 유통이 필요한 이른바 ‘도시의 신진대사(metabolism of city)’를 잘 작동하게 한다.²⁰⁾ 그러다 보니 도시 공학에서 해석되는 도시이미지란 물리적으로 돋보이는 정도다. 그러나 21 세기의 도시는 그런 물질 도시의 시대라기보다 정서도시의 시대이다.²¹⁾ 이는 인간의 감성과 휴머니즘이 인간 생활의 저변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특정한 행동이나 선택에서 감성 측면을 우선 고려한 가치 판단 시대를 의미한다.²²⁾ 따라서 도시에 있어서 정서는 중요한 조건으로 순간 순간에는 감정이 발생해야 작동되는 것이며, 그 감정 따위가 도시의 실질적 작동 문제와 직결된다.²³⁾



[그림 1] 도시이미지인자

문운수(2024). 영향력 있는 도시이미지인자로서 랜드마크 명명의 세련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목원대학교 교양교육 혁신연구센터, 지식과 교양 통권16, p.53; 문운수 (2019). An Exploratory Study about Harmony of Buildings and Outdoor Advertisements as an Element in a City Image: A Focused Study on Beacon Hill, a Old City(Colonial-Era Neighborhood) in Boston, Massachusetts, Korea Communication Association, Korean Journal of

20) Pitron, G., op.cit.

21) Cameron, J., *the Artist's Way: A Spiritual Path to Higher Creativity*, J. P. Tarcher/Putnam (edition 10th Anniversary ed.), 2002.(줄리아 카메론 저, 임지호 역, 『아티스트 웨이』, 경당, 2017, 76쪽.)

22) 여호근, 「도시이미지에 대한 감성어휘 유형화 및 도시별 비교 연구(이미지 스케일(Image Scale)의 적용과 관광학적 해석)」, 『연구보고서』, 한국연구재단, 2015

23) 문운수, 「영향력 있는 도시이미지인자로서 랜드마크 명명의 세련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시애틀 스페이스니들과 서울 연서올타워라는 이름에 대한 시민 의견을 중심으로)」, 『지식과 교양』 통권16,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024, 49-90쪽.

Communication Studies, 17(1), p.120: 문운수(2021). In the digital era, analogue outdoor advertisements and public art as a factor in the "specialness" of a city's image: An exploratory study focusing on Chicago's Millenium Park and Seoul's Daelim-dong neighborhood. Korea Advertising Society,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32(8), p.48

본디 교환이론(Exchange Theory)에 따른 도시민들은 서로의 이익을 계산해 사회관계를 조정한다. 그러나 도시민들은 그 이익 교환과 동시에 감정도 교환하여 이익도 달라지게 한다. 다시 말해서 도시의, 더 나아가 도시민의 마음이 상하거나 잘못되면 도시는 반드시 물리적 기능작동의 문제를 일으킨다. 이른바 '마음의 장부(Mental Ledger)'라는 감정 교환은 도시 작동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변수일 수 있는 것이다(Hochschild, 1982; Harris, 2015).²⁴⁾ 그래서 도시를 감정이 없는 대상으로 취급하거나 정서가 메마른 공간으로 정의함은 단순한 통념이다. 결국 칸트(Immanuel Kant)에 따른 물화 된 공간에서 인간의 감성 직관의 중요성이란²⁵⁾ 더 거대한 공간인 도시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셈이다.

따라서 도시민들의 정서가 투영된 도시 감정의 물화, 그리고 그 물화에 따른 도시의 시각적 경험이 바로 도시이미지의 발현과정인 것이다. 그래서 도시의 정중한 감정규범(Emotion Norms)의 물화는 도시 구성원들의 중요한 프로젝트이기도 하다.²⁶⁾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프로젝트가 도시민들이 결코 모정의 대가를 바라거나 외부자에게 과시를 위한 작위적 인위성으

24) Hochschild, A. R., *The Managed Heart: Commercialization of Human Feeling*,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Harris, R. S., *An Invitation to the Sociology of Emotions*, Taylor and Francis, 2015.(스캇 R. 해리스 저, 박형신 역, 『감정 사회학으로의 초대』, 한울아카데미, 2017, 15쪽.)

25) 박진아·일본건축학회 편, 박진아 역, 『도시·건축 감성디자인공학』, 문운당, 2012, 6쪽.(Architectural Institute of Japan, Urban and Architecture Kensei Design Engineering, Architectural Institute of Japan.)

26) Thoits, P. A., "Emotion Norms, Emotion Work, and Social Order.", *Feelings and Emotions: The Amsterdam Symposium*, A. S. R. Manstead, N. Frijda & A. Fischer. ed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p.359-378; Harris, R. S., Ibid.

로 형성된 물화는 아니다. 이는 도시민들의 암묵적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감정 표출이자²⁷⁾ 도시이미지인자를 통한 감정 또는 정서의 체감인 것이다. 이는 그 도시를 잘 모르는 ‘산책가(flâneur)’가 낯설게 한가롭게 걷다가 감지되는 객관적 느낌이다.²⁸⁾ 따라서 도시이미지를 통한 느낌이란 계량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분석과 판단이 아니라 작가의 문화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감정과 유사하다.

도시이미지에 대한 산책가의 감상 혹은 경험은 그 어떤 준비 없이 간단히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도시이미지인자들 간의 너무나도 복잡한 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감으로서 이해는 용이하지만 결코 간단히 설명될 수 없는 감정이다. 이를테면 [그림 1]과 같이 도시이미지인자들은 어느 하나를 끼워 넣거나 제거되거나 하는 기계적 분류가 아니라 이 모두가 복합적인 결과로 설명되며, 더 나아가 개별적인 인자들 하나도 하위 인자마저도 모두 복합적인 그 감정의 느낌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 복합을 체감하는 산책가의 감정이란 좋은 느낌으로 간단하게 언표될 뿐이지 매우 복합적인 결과인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한 산책가는 [그림 1]의 시각적·물리적인자(Visual·Physical Factor)범주에서 첫 번째로 주목되는 도시이미지인자인 건축물(Building) 하나만의 느낌이 아니라 건축물의 하위 인자인 창문과 파사드 아니면 마감재를 물론이고 건물에 부착된 옥외광고나

27) 폴 메사리스 저, 강태완 역, 『설득이미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20쪽. (Messouris, P., *Visual Persuasion*, Saga Publications. Inc, 1997.)

28) 박영주, 「‘걷기’의 의미 양상과 예술적 실천(미셸 드 세르토의 ‘공간 실천’과 도시 개념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통권46호, 인문콘텐츠학회, 2017, 81-108쪽; 문운수, 「도시이미지를 구성하는 인자로서 건축물과 옥외광고의 조화를 체감기 위한 탐색적 연구(미국의 고도(old city(colonial-era city))로서 메사추세츠주의 보스턴(Boston)에 위치한 비콘힐(Beacon Hill)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연구』 27권 1호,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19, 113-148쪽; 문운수, 「아날로그 옥외광고와 공공미술의 결합을 통한 도시이미지의 인자로서의 특성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시카고 밀레니엄파크와 서울 대림동을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32권 8호, 한국광고학회, 2021, 41-87쪽.

간판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으로 형성된 느낌이고, 더 나아가 산책가가 더
둘러 본다면 양식적 인자(Stylistic Factors)로도 변저나가는 것이다. 결국
도시이미지인자의 경험이란 특정한 형용사 하나로 묶일 뿐이지 그에 내재
된 정서는 매우 복합적인 감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산책가의 그 복합 감상도 크게 조화와 부조화를 통하여 선호과
비선호로 평가되는데, 그 평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이미지인자는 단
연 [그림 1]에서처럼 건축물이다.²⁹⁾ 왜냐하면 산책가가 도시 거리를 산책 즉,
직립보행하는 가운데 가장 가시적으로 다량 주목되는 인자는 건축물이기
때문이다. 사실 도시의 건축물은 도시의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부분을 차
지하는 도시이미지인자이며, 산책가의 사야에 가장 잘 드러나는 대상으로
빈도에 있어서도 다량이다.³⁰⁾ 그래서 건축물은 도시이미지인자의 전부라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산책가에게서 도시이미지에
대한 복합 감정을 분해 해보면 형태, 색채, 질감, 양감, 음향, 온도, 향기, 밝

29) Lynch, K., The image of city(Harvard-MIT joint center for urban studies serie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Beckley, R. M., Urban culture design: Introduction to urban planning. New York: McGraw-Hill. 1979; Kim, H. & Song, Y. H., "City Image Determinants and Comparison of Image Determinants by City Size",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vol. 11, no. 1,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rea Studies, 2007, pp.562-586; 문윤수, 「고유성이 편중된 한국의 도시이미지에 관한 연구(서울 도시 광고에서와 실제에서의 건축물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광고학보』 11권 3호, 한국광고홍보학회, 2009, 41-93쪽; 문윤수, 「도시이미지를 구성하는 인자로서 건축물과 옥외광고의 조화를 체감키 위한 탐색적 연구(미국의 고도(old city(colonial-era city))로서 메사추세츠주의 보스턴(Boston)에 위치한 비콘힐(Beacon Hill)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연구』 27권 1호,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19, 113-148쪽; 문윤수, 「아날로그 옥외광고와 공공미술의 결합을 통한 도시이미지의 인자로서의 특성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시카고 밀레니엄파크와 서울 대림동을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32권 8호, 한국광고학회, 2021, 41-87쪽.

30) 물론 건축물에 결합 된 옥외광고를 별도로 도시이미지인자로 취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산책가는 건축물과 화학적으로 결합 된 옥외광고를 건축물이라는 도시 이미지인자의 태도로 포함시켜서 느끼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기, 등의 모든 조건을 포함해서(Architectural Institute of Japan, 2012b) 다양하지만,³¹⁾ 그 물화 실체는 반드시 건축물 하나로 통합되기 마련이다(송민정, 2008; 문운수, 2013).³²⁾ 결국 특정의 도시이미지는 건축물이라는 인자가 가장 큰 비중으로 주도적으로 도시민의 정서를 산책가에게 드러내 주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³³⁾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산책가는 도시이미지의 복합 감정을 결코 분석해 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책가를 통한 도시이미지란 복합 감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급속히 최소화되어 단순화되어 건축물 표피를 차지하고 있는 마감 재료로 지칭되어 형용 될 뿐이다. 이를테면 대리석 빌딩 혹은 벽돌 건축물 아니면 콘크리트 건물이라는 마감재로다. 그렇다면 건축물의 표피 마감재란 건축물 속 사정은 물론이고 전체로 간주하게 하는 지표성과 도상성을 지니는 건축물의 정체이자 이미지인자의 기능까지 수행하는 것이다.³⁴⁾ 그런 의미에서 도시이미지에 대한 느낌의 시작과 기원은 도시이미지인자로서 건축물 중에서도 마감 재료로서 표피가 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서 북촌한옥마을(Bukchon Hanok Village)이라는 도시의 느낌이란 기와

31) 형태, 색채, 질감, 양감, 음향, 온도, 향기, 밝기, 등은 건축물의 하위 이미지인자들인 창, 창틀, 출입문, 옥외간판, 에어컨 실외기, 집열 당 등의 부착물과 종합적인 느낌을 드러낸다.

32) 송민정, 「동경도 간판분석에 의한 서울시 간판 관리 문제점 분석」, 『콘텐츠학회 논문지』 8권 5호, 한국콘텐츠학회, 2008, 134-144쪽; 문운수, 「시각적 도시이미지에 있어서 옥외광고간판의 색채조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서울시 옥외광고간판의 색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9권 2호,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3, 179-202쪽.

33) 한국 건축물들은 도시이미지인자차원에서 원형의 변형을 추구하는 경우가 흔하다. 반면에 일본 도시이미지는 그런 빌린도시현상 체감을 어렵게 한다(Bruno et al., 2013). 이는 일본인들 스스로가 건축물이라는 도시이미지인자에 빌린 도시를 취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기 때문인데(Benedict, 1946), 따라서 일본 도시의 건축물 인자를 통하여 산책가는 원형의 변형을 최소화한 절제된 복합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34) 폴 메사리스 저, 강태완 역, 『설득이미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20쪽. (Messouris, P., *Visual Persuasion*, Saga Publications. Inc, 1997.)

목재 등과 같은 표피를 통하여 따뜻한 안정으로의 복합 정서가 전달되는 것과 같다.³⁵⁾

그런데 현재 부상하는 건축물 표피 마감 재료인 유리는 산책가의 느낌의 복합을 분석하기 어렵게 하거나 매우 단순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전면을 유리판으로 마감한 건축물은 복합 정서가 아예 차단되어 있다. 본디 유리라는 재료의 물성은 투명함과 불투명, 비워짐과 채움으로 가변적인 정서로서 판타지적 흥분에 가깝다.³⁶⁾ 그런 만큼 유리란 인류 최초의 인조보석으로 투광성과 발현성 등의 여러 가지 특성으로 고대 귀족과 재력가들이 사용하는 결코 보편적이지 않은 특별 재료로 유일한 주목에 가까웠다.³⁷⁾ 그런 이유로 건축물에 있어서 유리는 투광·환기 용도의 창과 스테인드글라스라는 장식 용도로 건축물의 외피로서 마감 재료가 아니라 최소한의 효율과 재미라는 복합 감정을 구성하는 미미한 하위 인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최소를 넘어서 아예 건축물 최대의 마감 재료로서 도시에 등장한 유리는 그 최소의 효율과 재미라는 감정은 완전히 사라진 삭막한 도시이미지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³⁸⁾ 사실 건축물 차원에서 유리는 그 자체가 지닌 깨끗한 생동감으로³⁹⁾ 도시민의 시각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에 따

35) 김수필, 「목재의 횡단면을 활용한 가구 연구」,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공예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11쪽.

36) 김용삼, 「아티스트 유리공예가 김기라」, 『마루』 통권57, 현대건축사, 2006, 75-77쪽.

37) 김록영·김정석, 「국내유리공예산업 분석 및 활성화 방안연구(공예산업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조형디자인연구』 25권 2호, 한국조형디자인학회, 2022, 85-101쪽.

38) 양승관, 「건물 외장 계획의 환경디자인적 접근 방법에 관한 연구(유리, 석재 외장재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공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01a, 14쪽.

39) 양승관, 「건물 외장 계획의 환경디자인적 접근 방법에 관한 연구(유리, 석재 외장재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공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01b, 28쪽.

른 시선과 관심을 끌기도 한다.⁴⁰⁾ 그래서 유리는 도시의 에너지와 빛을 끌어들이는 철학적인 의미까지 내포하는데,⁴¹⁾ 이는 어디까지나 최소의 경우에 호기심과 관심으로서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지⁴²⁾ 건축물에 있어서 전면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유리는 도시이미지를 결정하는 전반이라기보다 매우 작은 부분으로서 혹은 매우 일시적인 건축 구성물에 가까운 것이어야 한다.

사실 유리라는 재료는 그 응용력이 무궁무진한 만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었던 효율성의 물질이지 안정된 정서의 대상이 아니었다.⁴³⁾ 더욱이 일상생활에서 유리란 용이한 파열·파손·창상·흉기라는 본질을 갖기에 건축물에 있어서 한순간의 주목은 염려가 내재된 것으로서 도시 정서에 있어서 결코 안정된 감정일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건축가 보타(Mario Botta)는 ‘강남교보타워(Kyobo Tower to Gangnam Station)’의 유리 재료에 대하여 도시이미지인자로서 몰 감정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유리라는 재료란 인간 육체 안에서 보호되어야 할 연약한 심장이 드러난 것이기에 이를 최소화함을 미덕으로 강조하였다.⁴⁴⁾ 다시 말해서 보타에 따르는 유리라는 재료는 연약하기에 보호되고 가려져야 할 속살과 장기와 같은 존재이지 결코 건축물의 전면에 표피로 드러낼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다.

40) 이수림, 「유리와 투명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공간디자인 BM(Business Model)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2권 5호,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17, 339-347쪽.

41) 정의인·김해나·김봉주, 「유니트 커튼월 멀리온 레일 양중시스템의 경제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시공학회지』 21권 1호, 한국건축시공학회, 2021, 41-49쪽.

42) 물론 그 최소의 아예 벗어난 경우는 산업화를 과시하는 이벤트에서 한시적인 이 벤트의 이정표로서(김진균, 1990).

43) 한원택, 『유리시대(세상을 변화시킨 놀라운 유리 이야기)』, 광주과학기술원, 2019, 11쪽.

44) 정인영,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간다』, 교보문고, 2023, 300쪽.

결국 도시이미지를 감정사회학 차원에서 본다는 유리를 건축물의 표피로 전면화함이란 거리에 수많은 산책가들로 하여금 인체의 속살과 장기를 드러내는 일시적 사건과 같은 우려와 놀라움의 감정공유이지 결코 안정적인 감정공유는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이미 극단적 감정이 난무하는 현대 도시에서 그런 극단은 어울리는 맥락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그런 극단 감정이 만연된 도시에서 도시이기에 또 극단의 강화는 결코 산책가는 물론이고 도시민의 정서에 이로울 리 없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은 그런 유리 건축물을 통한 도시의 그 극단 감정은 안정적 도시 정서에 있어서 왜 지양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예술사회학을 차용하여 재정의하였다.

3) 예술사회학과 유리도시이미지

도시의 태생적 삭막함이 극단으로 치달던 시기는 산업혁명부터이다. 혁명의 놀라움은 1851년 ‘런던만국박람회(Great Exhibition of the Works of Industry of All Nations)’의 수정궁(the Crystal Palace)이라고 불리던 유리 건축물을 통하여 최절정을 보여줬다. 새롭게 나타난 이 유리 전면의 건축물은 도시가 이룰 수 있는 가장 번영됨을 상징하기도 했다.⁴⁵⁾ 그러나 그 이면에는 도시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가 바로 그 수정궁이 나타난 시기이기도 했다. 이를테면 인구 밀집과 교통혼잡 그리고 환경오염은 물리적으로 도시 거주자의 쾌적함을 급속도로 떨어트렸고, 범죄 빈민 등의 사회적 갈등은 아예 도시 속성이 되었다. 그래서 도시성(Urbanism)이라는 것은 밀집된 도시에서 사람들이 이질적이고 개인적이며 이해타산이 심하기에 삭막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정의되었다.⁴⁶⁾ 충분하고 적절하게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 지나치게 처참하고 안타깝거나 또 지나치게 환상적이고

45) 김택중, 「찰스 디킨스의 도시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 『문학과 환경』 10권 1호, 문학과환경학회, 2021, 59-82쪽.

46) 한국산업사회학회,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2004, 360쪽.

놀라운 양극단의 감정들은 바로 도시라는 공간의 감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사회학(Sociology of Urban)은 그런 부정적인 도시 정서를 완화해보고자 물리적인 도시환경을 끊임없이 점검해 왔다. 가장 대표적인 아이디어가 바로 하워드(Ebenezer Howard)의 전원도시(Garden City)로의 제안인데,⁴⁷⁾ 하워드는 런던 교외에 도시적 효율과 농촌적 정서가 어우러진 ‘래치워치(Letchworth)’와 ‘웰윈(Welwyn)’이라는 도시를 조성한 바 있다.⁴⁸⁾ 그러나 그와 같은 처방들은 오히려 이미 삭막하게 정의되어버린 도시성을 주요 도시를 벗어나 교외 도시로까지 확대할 뿐으로 도시민의 감정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각 도시 정부는 하워드의 도시확대가 아니라 도시 내외 느낌이자 감정 즉, 분위기를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도시민의 정서 차원에서 도시를 점검하는 것이다. 사실 도시성을 완화해보는 노력은 이미 오래전인 르네상스 도시와도 맞닿아 있다. 르네상스 도시들은 인간 중심의 재생으로서 도시민의 자존감 회복과 외소해진 도시민 정서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예술을 입혔다. 그리고 현재에도 르네상스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유럽의 도시들은 남다른 예술성을 시각·물리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유럽 도시들에 대한 감정이란 결코 냉소적이거나 삭막함이 아니라 안정되고 차분함이다.⁴⁹⁾

본디 인간의 정주 생활은 짐승과 달리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창조미학을 정주에 드러내려는 욕구를 표출하는 생활이다.⁵⁰⁾ 불요불급의 사안임에도 정주 도시 공간에 심미를 입히는 것이란 이미 오래전인

47) 서충원, 「전원도시에 나타난 디벨로퍼의 역할에 관한 고찰」, 『부동산학보』 통권 55, 한국부동산학회, 2013, 332-344쪽.

48) 위의 책, 368쪽.

49) 티엘엔지니어링·티엘갤러리 편, 『도시 美를 입히다』, 호밀밭, 2017, 19쪽.

50) 위의 책, 38쪽

바움가르텐(Alexander Baumgarten), 칸트(Immanuel Kant), 헤겔(Georg Hegel), 쉴러(Friedrich Schiller) 그리고 이후의 사상가들에 의해 정의된 인간 속성이다.⁵¹⁾ 이는 감정을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 도시성에 찌든 무기력감을 심미를 통하여 완화해보고자 하는 이른바 ‘예술사회학(Sociology of Art)’의 존재 의미이기도 했다.⁵²⁾ 이를테면 도시민에게 오로지 일상과 업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전혀 무관한 일상 예술이 충분치 못함과 그에 따른 도시 공간의 부재는 도시 감정을 위한 지적될 수 있는 것이다.⁵³⁾ 결국 도시 공간이란 생계를 위하여 생산 도구만으로 채운 공장지대가 아니라 그 도구들에 지친 생활을 예술이라는 정서로 채워서 회복해야 하는 곳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이미지인자란 예술이라는 조건으로 점검될 필요가 있는데, 뜻밖에도 깨진창문이론(broken window theory)은 도시의 치안에 대한 논리에⁵⁴⁾ 더해서 도시공간에 예술 필요로 전환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다. 도시의 창문 하나가 깨졌다는 것은 깨진 치안이 도미노를 넘어서 도시민 불안정의 도미노이기도 하다. 그래서 깨진 창문 하나는 도시 안전에 대한 불안의 촉발이기도 하겠지만, 더 나아가 도시에 시각적 심미에서도 어색함이자 추함의 촉발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다량의 도시이미지인자인 건축물을 상태를 통하여 도시의 심미 유지와 깨짐을 감지할 수 있

51) 강희화, 「바움가르텐의 미학사상과 무용미(美)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용학과 한국무용전공 석사학위논문, 2015, 7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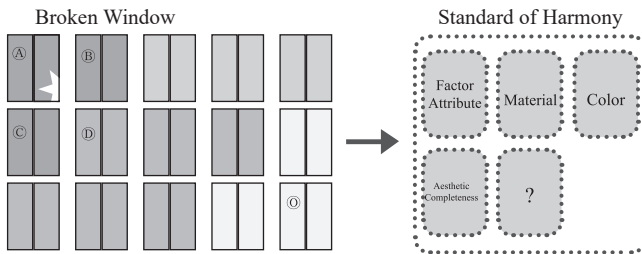
52) Alexander, V. D., *Sociology of the Arts: Exploring Fine and Popular Forms*, Blackwell Publishing Ltd, Oxford, 2003.(최섯별·한준·김은하 역, 『예술사회학(순수에서 대중예술까지)』, 살림, 2010, 528쪽.)

53) 황영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도시적 역할에 대하여」, 『황해문화』 4권 3호, 1996, 101-108쪽.

54) Kelling, G. & Coles, C., *Fixing Broken Window: Restoring Order and Reducing Crime in our Communities*, New York Free Press, 1997, p.34; 앤소니 기든스·필립 W. 서튼 공저, 앞의 책, 235쪽.(Giddens, A., Sociology, Blackwell Publisher Ltd., 2001.)

는 것이다.

이들테면 [그림 2]에서 ㉠창문과 같이 깨진 창문 하나를 신속하게 정비한다는 것은 치안의 확산을 넘어서 주변 건축물에서 극단적으로 삭막한 시각적 도시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화로운 도시이미지인자의 심미 작업을 행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깨지지 않는 유지를 넘어서 ㉠창문 ㉡창문과의 심미적 조화 추구도 도시의 안정감을 발현시킨다. 대표적인 예로 뉴욕에 건축물의 정비와 단장은 단순히 치안 문제만을 위한 범죄율 감소에⁵⁵⁾있다가보다 시각적 심미 분위기에 있어서도 어색함과 추함 없이 도시이미지인들의 심미적 유지와 조화로도 큰 몫으로 적용된 것이다.



[그림 2] 심미 조화파괴와 깨진창문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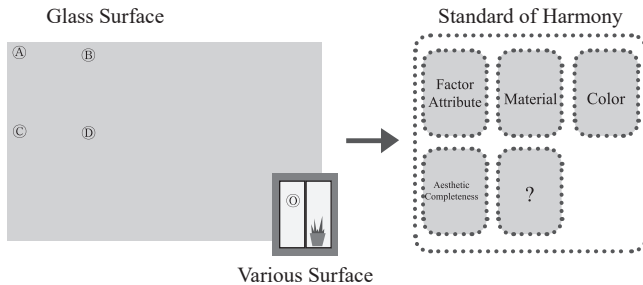
문윤수 (2019). An Exploratory Study about Harmony of Buildings and Outdoor Advertisements as an Element in a City Image: A Focused Study on Beacon Hill, a Old City(Colonial-Era Neighborhood) in Boston, Massachusetts, Korea Communication Association,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17(1), p.120

그런 맥락에서 표피 전면이 유리인 건축물의 심미적 상태는 아예 그 조화의 대상들의 자체가 부재한 단순한 도시이미지인자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림 3]의 일반적인 ㉠창문을⁵⁶⁾ 제외한 14개의 유리 창문, 아니 건축물 표면 모두는 아예 그 경계가 구분되지 않는 상태로서 온통 및

55) 이기현, 「깨진 유리창 이론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 28권 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6, 11-143쪽.

56) 건축물 표피에 있는 일반적인 창문은 창틀과 유리판 더 나아가 발코니 화분 등과 같은 창문에 일정한 양식적 장식 등으로 건축물의 마감 표피와 구분된다.

밋한 유리 표면으로⁵⁷⁾ 일관시킨 상태이다.⁵⁸⁾ 그러다 보니 도시이미지인자인 건축물의 심미 대상들이 아예 부재하다. 다시 말해서 이는 건축물 자체 표면에서의 대상들은 물론이고 이를 넘어서 주변 대상들과의 예술로서의 심미적 조화랄 것도 없이 전면 유리와 그에 따른 요철 부재인 것이다. 따라서 이는 산책가와 그 어떤 정서를 소통시키지 못한 채 단절되어 냉소적인 도시를 그대로 반영하거나 강화하는 것이다.



[그림 3] 심미 부조화의 유리 건축물

본 그림은 2019 문윤수의 논의(An Exploratory Study about Harmony of Buildings and Outdoor Advertisements as an Element in a City Image: A Focused Study on Beacon Hill, a Old City(Colonial-Era Neighborhood) in Boston, Massachusetts, Korea Communication Association,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17(1), p.120)를 응용한 것임

그도 그럴 것이 전면이 유리 표피 건축물은 단조로운 유리 상자를 띠고 있어서 기단부(저층부), 중층부, 고층부로 나누는 삼분법 적인 건축물의 입체적 정의를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게 한다. 따라서 산책가와 건축물 내부자와 최소한의 소통 경로인 창문이라는 요소가 아예 차단된 상태로 봐야

57) 물론 시각적으로 건물 내부에 외부의 광경이 유입되어 내부공간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야간에는 역으로 내부공간이 외부로 확장되어 공간의 내외 상호 침투를 유발하는 시각차 효과와 공간의 개방성을 제안하기도 한다(임미나, 1992; 김선영, 2005) 그러나 유리의 개방감은 동물원의 동물들처럼 생명체의 정서에 있어서 불안감을 유발한다. 그런 이유로 대부분의 유리 건축물들은 유리 안쪽 표면에 검은 가림막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해 놓았는데, 이는 개방감에 대한 모순이기도 하다.

58) 김선영, 「미니멀 건축 공간으로 본 투명성의 조형적 효과」, 『기초조형학연구』 16권 20호, 한국기초조형학회, 2005, 83-95쪽.

한다.⁵⁹⁾ 물론 창문이 열려있다면 표면 어디가 창문인지 비로소 소통감을 느끼지만, 닫혀있는 상태라면 산책가는 거대하고 부피가 큰 유리 직육면체가 도시에 존재할 뿐이지 그 어떤 긍정적인 심미 정서로 연결시키지 못하며, 더 나아가 안정된 정서를 유발할 가능성조차도 빈약하다. 결국 유리 건축물의 증가는 새로운 도시이미지인자의 등장이라기보다 도시 한 복판에 정체가 모호하고 부재한 거대한 유리 상자들이 도시의 태생적 삭막함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1950년대 존슨(Philip Johnson)에 의해 이른바 ‘글라스 하우스(Glass House)’를 필두로 ‘미니멀리즘(Minimalism)’이라는 예술사조를 차용된 경우로 즉물·단순·투명이라는 독립된 유리 표피 재료의 본질을 솔직하게 노출시키는 도시이미지로 설명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군더더기 없이 말끔한 건축물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⁶⁰⁾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런 물성을 그대로 드러내 주는 물질에 대한 존중 기능과 인간성을 반영하는 인간성에 대한 존중에서 무엇이 우선해야 하는지의 판단이다. 본디 유리라는 물성은 인간들로 하여금 그리 편안한 감정 대상이 아니다. 유리는 인간 신체를 보호하고 가려주는 재료라기보다 인간 신체를 위협하고 드러내는 존재로서 가장 취성이 높은 재료이다(홍지호, 2010).⁶¹⁾ 그러다 보니 유리는 인간에게 안정적 정서라기보다 냉소적 정서이다. 따라서 유리는 모종의 완성품 구성에서도 최소한의 필요로서 일부 활용이 일반적이다. 이를 테면 도시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도시이미지인자인 자동차에 있어서 유리는 자동차 표피로 전면화되지 못하며 전면화될 수도 없다.

59) 이상동, 「20세기 초고층건물의 디자인 경향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공학과 건축설계전공 석사학위논문, 2002, 16쪽.

60) 김선영, 「미니멀 건축 공간으로 본 투명성의 조형적 효과」, 『기초조형학연구』 16권 20호, 한국기초조형학회, 2005, 83-95쪽.

61) 홍지호, 「화염 및 파괴에 의한 유리 파손 형태 연구」, 『한국화재감식학회학회지』 2권 2호, 한국화재감식학회, 2010, 47-51쪽.

근접한 풍성한 초록 잎 가로수와 어울리는 건축물 표피에 녹화된 벽돌 (Green Brick), 그리고 그 표면에 조화로운 정서의 창과 창틀의 연출,⁶²⁾ 아니면 콘크리트의 나뭇결무늬 개발 노력,⁶³⁾ 그에 따른 콘크리트 아파트 지양에 따른 나무아파트의 모색⁶⁴⁾ 등은 지속적으로 도시이미지인자들 간의 복합적 정서를 배합하려는 도시이미지인자에 대한 심미적 조화의 시도이며, 산책가로 하여금 안정감의 발걸음을 가능하게 하는 도시이미지인자에 대한 조처이기도 하다. 결국 건축물이라는 도시이미지인자 자체 안에서 시각적 심미의 어색함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물론이고, 그 주변에 대한 어색함을 찾아내려는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도시의 심미적 의지로서 도시를 효율 작동의 대상만으로서 취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취급하려는 수준 높은 도시민의 의지이고, 도시의 감정까지 고려하려는 또 수준 높은 선진 도시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이미 20세기 초부터 유럽 도시와 상대적으로 미국 도시의 정서적 약점은 이 유리 건축물에 있음으로 지적된 바 있다.⁶⁵⁾ 그러나 21세기 현재에도 하나도 개선되지 못한 채 전 세계의 선진 도시들은 유리 도시로 완전히 변모할 조짐을 보인다. 도시 정주가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되는 시점에서⁶⁶⁾ 정주지를 삭막한 도시이미지인자로 더욱 강화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도시는 더 이상 일시적으로 놀라운 불꽃놀이의 피곤한 장소가 되지 말아야 하

62) 박수현, 「녹화벽돌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조형디자인연구』 19권 3호, 한국조형디자인학회, 2016, 191-210쪽.

63) 대한건축사협회, 「콘크리트의 새로운 개발(나뭇결 무늬의 콘크리트)」, 『건축사』 통권10, 1972, 12-23쪽.

64) 김정인, 「지속가능한 한국형 나무아파트 계획(콘크리트 열린 지지구조와 목조 개별 주거의 혼합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31권 4호, 한국주거학회, 2020, 57-69쪽.

65) Lewis, S., *Dodsworth*, Namaskar Books, 1929.(싱클레어 루이스 저, 이나경 역, 『도즈워스』, 휴머니스트출판그룹, 2022, 551쪽.)

66) 하경준, 「도시화 및 기후변화가 도시홍수피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15-17쪽.

기 때문이며, 처절하게 노동만 해야 하는 막장도 아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예술사회학 차원에서 도시는 이제 더 이상 놀랍거나 처참한 극단적인 양가감정을⁶⁷⁾ 지양하고 이를 완화하려는 예술의 도시 쓸모를 하나하나 도시이미지인자에 담아야 한다.⁶⁸⁾ 그런 의미에서 심미적인 도시환경에 대한 시민 요구의 증가는⁶⁹⁾ 단순히 보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도시 감정의 중요성에 근거를 둔다는 고차원적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에 대한 실질적 논의는 도시민들은 과연 그 전면 유리 표피의 건축물이라는 도시이미지인자에 대한 감정은 어떠한지를 살폈다.

3. 실질적 논의

1) 도시와 건축물 선정

유리 건축물은 양식 아닌 양식으로 유리라는 얇은 피막으로 입체 장식 없는 단조로운 건축물을 의미한다.⁷⁰⁾ 현재의 전면 유리 표피의 건축물 추진은 어느 특정 도시의 도시이미지인자로서의 현상이 아니라 이미 국

67) 도시에 있어서 양가 감정, 즉 양 극단적인 감정의 추구는 정서적으로 정중한 도시이미지인자들이 보편적인 가운데 도시의 광장이나 모정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이벤트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면 충분하다. 만약 그 이벤트의 극적인 감정이 영구적인 도시이미지인자들에서의 지속이라면 이는 도시민들로 하여금 피로감이며 괴로움이다. 이를테면 유럽 도시의 도시이미지인자들의 정중한 가운데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페스티벌에서 도시민들의 정서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68) 이정현, “예술이 밥 먹여주나요?” 예술의 쓸모를 찾은 사람들(2024년 9월 18일 (수) 17시경 연합뉴스 홈페이지(<https://www.yna.co.kr>) ‘EBS 다큐프라임 예술의 쓸모’ 검색)

69) 김소희·서혜옥, 「예술작품을 통한 아파트 옥외구성에 관한 연구(서울시 동작구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통권82,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회, 2023, 294-303쪽; 김민희, 「도시환경 디자인에서 환경조형물의 역할에 관한 연구(건물 옥외공간 환경조형물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11쪽.

70) 이상동, 앞의 논문, 15쪽.

제양식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⁷¹⁾ 그런 의미에서 20세 후반 가장 빠른 국제화로 세계적 극찬을 받았던 도시들은 아시아에 있는데, 이들은 서울(Seoul), 타아페이(Taipei), 홍콩(Hong Kong), 싱가포르(Singapore)로 이른바 ‘아시아의 떠오르는 네 마리 용(Four Asian Dragons)’으로 취급받아온 도시들이다.⁷²⁾ 그런데 2022년 현재 세계 도시 순위를 살펴보면 네 도시 중에 싱가포르는 세계 5위이며, 서울은 세계 7위인데 이 두 도시는 세계 상위 10위 안에 자리하는 유일한 도시이기도 하다.⁷³⁾ 따라서 본 실질 논의에서 두 도시에 일단 주목하였다.

본 실질 논의는 두 도시의 도시성, 즉 거주하는 도시민의 정서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른바 도시의 행복지수와 자살률로서 두 도시의 감정 상태로 간주하였다. 왜냐면 지금까지 특정 도시의 감정 상태가 논의된 적은 부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도시에 대한 행복지수·자살률의 상관관계를 짚어봐야 하겠지만, 우선 한국의 경우를 서울이라는 도시의 대표성으로, 싱가포르라는 도시를 싱가포르라는 도시의 대표 감정으로 취급하였다. 결국 한국의 경우 2023년 유엔이 발표한 세계 행복지수 보고에서 137개국 중에서 57위에 해당하며,⁷⁴⁾ 자살률은 2019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에 올라와 있다.⁷⁵⁾ 그러나 싱가포르는 2023년

71) 여영호, 『세계 초고층건축물의 추세와 Millennium Tower 130』, 고려대학교 초대형고층건물 심포지엄논문집, 2001, 2쪽.

72) David, W. N. & Ezra Vogel, “The Four Little Dragons: The Spread of Industrialisation in East Asia”, *Asian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20, no. 1, University Education Press, 1992, p.113.

73) 성호철, “세계 도시 순위, 런던·뉴욕·도쿄가 1~3위… 서울은?”, <조선일보>, 2022.12.15. (검색어 ‘세계도시순위’로 2023년 7월 12일(수) 16시 30분경 검색)

74) 정종민, “압축성장 뒤에 드리운 그늘”, <경향신문>, 2023.07.11. (검색어 ‘자살률’로 2023년 7월 13일(목) 11시 30분경 검색)

75) 황예랑, “여성 자살률, 2008년과 닮았다”, <한겨레21>, 2020.12.14. (검색어 ‘자살률’로 2023년 7월 13일(목) 12시경 검색)

행복지수는 25위이며,⁷⁶⁾ 자살률은 훨씬 낮은 52개국에서 최하위인 52위이다.⁷⁷⁾ 이는 도시민 정서에 있어서 세계 7위 도시인 서울이 국제화의 선두인 싱가포르에 비하여 모종의 적지 않은 정서적 감정 문제가 존재한다는 간주해 볼 수 있으며, 또 도시민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의 시각·물리적 환경으로서 도시이미지인자도 점검될 필요를 간접적으로나마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싱가포르가 도시국가인 만큼 한국의 서울을 대입함이 그리 대등치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실질 논의는 한국의 대표적인 도시는 서울인 만큼 그 행복지수와 자살률의 세계적인 기록은 과장될 것도 없이 한국의 수도인 서울이라는 도시민의 정서로의 간주는 그리 부적합하지 않다고 본다.⁷⁸⁾ 그런 만큼 본 실질적 논의의 탐색 도시는 서울로 선정하였다. 다음은 그 선정 도시에 따른 구체적인 탐색방법과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2) 연구문제와 탐색방법 제시

본 실질 논의는 선정된 서울에서 도시민으로 하여금 유리 건축물에 대한 의견을 탐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도시민의 의견이란 대상에 대한 시각적 이해가 우선되어야 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시민들의 의견 개진 이전에 전면 대상 건축물에 대한 인지가 필수적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실질 논의는 시민들의 인지를 위해 서울에 전면 유리 표피의 건축물이라는 도시이미지인자 선정도 이루어졌는데,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에서 그 건축물 대상들을 선정하였다. 우선 종로(Jongno), 여의도(Yeouido), 강남역

76) Helliwell, J. F. et al. *World Happiness, Trust and Social Connections in Times of Crisis*, World Happiness Report(<https://worldhappiness.report>), 2023.

77) World Population Review-Suicide Rate by Country 2023, <https://worldpopulationreview.com/country-rankings/suicide-rate-by-country>, 2023.

78) 전수진, “자살률 1위 국가 불명에 경주마처럼 계속 달릴 것인가”, <중앙일보>, 2023.07.19. (23면 ‘노트북을 열며’ 기사)

(Gangnam Station), 그리고 잠실역(Jamsil Station) 도심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서울시청사(Seoul City Hall)’, ‘63빌딩(63 Building)’, ‘삼성사옥(Samsung Group Seochu Headquarters)’, ‘롯데월드타워(Lotte World Tower)’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건축물들이 전면 유리 표피가 맞는지를 위해 실질 논의는 먼저 2023년 5월 18일(목) 사전 조사를 수행했다. 그런데 롯데월드타워는 멀리서 바라보는 건축물의 유리 전면과 달리 접촉에 있어서 하단부는 전면 유리로 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논의는 인근 대체 건축물로서 ‘잠실롯데캐슬(Lotte Castle Gold)’을 선정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도심의 대표성과 인지도 면에서 잠실롯데캐슬은 선정된 건축물에 대등하지 못했다. 특히 거주자의 불쾌감을 고려해서 탐색에서 적절치 않은 대상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본 선정은 아예 잠실의 사례를 제외했다.

연구문제 1 : 도시민들은 전면 유리 표피 건축물을 통한 도시이미지에 대한 평소 의견이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2 : 과거와 달리 전면 유리 표피 건축물의 도시이미지인자가 서울에 점차 늘어남에 대한 도시민 의견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 외국 도시에 비하여 전면 유리 표피 건축물의 도시이미지인자가 서울에 유독 많음에 대한 도시민 의견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 정서적으로 전면 유리 표피 건축물의 도시이미지인자에 대한 서울 도시민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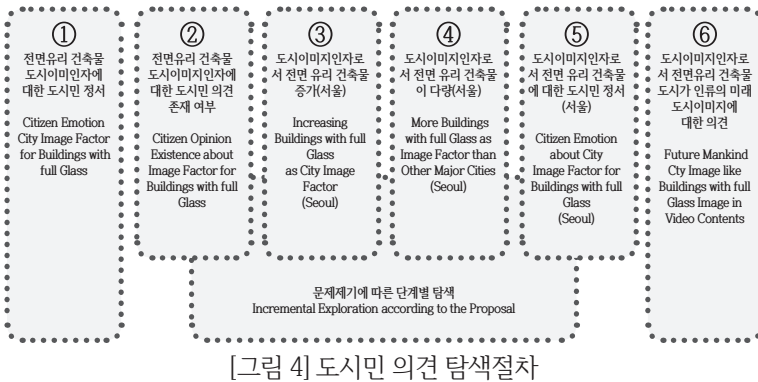
연구문제 5 : 다양한 영상화면은 전면 유리 표피 건축물 도시이미지인자로 미래도시를 정의하는 것과 같이 미래 인류도시이미지가 실제 그럴 것에 대한 도시민의 의견은 어떠한가?

조사 방법은 민속방법론의 현지연구법(Field Research)’에 입각한 도
시민과의 상호작용 면접을 위하여 이른바 ‘상점가 차단 조사(CLT: Central
Location Test)’를⁷⁹⁾ 변용시킨 표집을 시도했다.⁸⁰⁾ 따라서 선정된 세 도심이

79) 김경동·이은옥, 『사회조사연구방법(사회연구의 논리와 기법)』, 박영사, 1999, 579쪽.

80) 해당 도시의 감정 발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유리 표피 건축물은 가장 상점가가 밀집된 도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본 실질 논의는 상점가에 특정 지점에서 불러모으는 표집이 아니라, 해당 건축물을 사람들이 다량 출몰하는 상점으로 간주하여 해당 건축물에 매우 근접한 주변에서 무작위 표집의 TLC변용을 취

자 세 건축물 상점 주변에 각각 3명의 도시민인 총 9명의 도시민을 통한 의견이 탐색 됐다. 도시민 표집 방법은 건축물을 어렵지 않게 조망 가능한 건축물의 네 면의 건너편 인도의 상점 앞에서 각각 한 명씩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건축물마다 할당된 인원은 총 3명 이기에 그 할당 인원이 먼저 채워지면 나머지 건축물 면에서의 표집은 생략했다. 단 보다 객관적인 대상에 대한 의견을 위해서 해당 건축물에 출입하거나 과업을 수행하는 자는 제외시켰다.⁸¹⁾ 표본에 적용된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 **연구문제 1**은 도시민이 전면 유리 표피 건축물에 모종의 의견을 갖는지부터 알아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연구문제들은 유리 현상을 좀 더 폭넓게 하는 기준인 이른바 사회학적 상상력(Sociological Imagination)을 적용하여 인류학적 상상력과 역사적 상상력을 대입하여⁸²⁾ 단계적으로 탐색하였다. 따라서 **연구문제 2**는 서울에 전면 유리 표피 건

하였다

81) 농부는 자신의 농토를 보면서 고된 생활세계의 일부일 뿐이지 결코 풍경으로 지각하지 못하지만, 무심한 여행자의 눈길에서 농토는 풍경으로 지각하는 것처럼 (김홍중, 2010) 본 논의는 해당 건축물에 무관한 표집자만이 도시이미지인자로 서 건축물을 지각한다고 판단하였음.

82) 앤소니 기든스·필립 W. 서튼 공저, 김미숙 외 공역, 『현대사회학』, 을유문화사, 2013, 28-31쪽.(Giddens, A., Sociology, Blackwell Publisher Ltd., 2001.)

축물이 과거와 다르게 점차 늘어난다는 가정하에⁸³⁾ 그에 대한 의견 탐색이고, 마찬가지로 **연구문제 3**은 서울이 상대적으로 그런 건축물이 많다는 가정하에⁸⁴⁾ 그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연구문제 4**는 본 논의의 핵심으로서 서울 도시민의 정서에 있어서 해당 도시이미지인자에 대한 의견을 탐색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5**는 **연구문제 4**까지의 현재 문제와 달리 미래 예측으로서 인류학적 응용이기에 이를 별도로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서 유리 도시에 대한 비판이건 선호이건 현재의 견지 결과로 서울의 미래 도시이미지를 예측해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연구문제는 [그림 4]와 같이 일련의 탐색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3) 탐색결과

의견의 탐색은 2023년 6월 28일(수)·29일(목)·30(금) 3일간 선정된 각각의 건축물(서울시청사·63빌딩·삼성사옥) 주변에서 이루어졌다. 각 3명씩 총 9명의 도시민을 통해 15분 내외의 시간으로 면접이 이루어졌다. 면접 형태는 개방형 설문지를 우선 작성한 후에 그 응답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면접을 진행하는 형태였다. 그런 의견의 결과로서 직접 대화의 제시는 지나치게 방대한 관계로 가장 오랜 분량만을 제시했다.

우선 ㉠면접자는 서울시청사 주변에 있었던 20대의 여성으로 첫 번째 질문에⁸⁵⁾ 대하여 특별한 인식이 없었다. 두 번째 질문에⁸⁶⁾ 대해서도 면접자

83) 본 실질 논의는 과거와 다르게 서울에 전면유리 건축물이 늘어났다는 계량적 집계는 부재하기에 도시민이자 포본에게도 가정임을 통보하였으며, 그에 대한 도시민의 체감을 가시적으로나마 동의하는 기반으로 탐색하였음.

84) 본 실질 논의는 외국 도시와 다르게 서울에 전면유리 건축물이 많다는 계량적 집계는 부재하기에 도시민이자 포본에게도 가정임을 통보하였으며, 그에 대한 도시민의 체감을 가시적으로나마 동의하는 기반으로 탐색하였음.

85) 평소 유리로 전면이 뒤덮인 빌딩이나 건축물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86) 요즘 유독 유리로 전면이 뒤덮인 빌딩과 건축물이 많아지고 있음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는 현재 서울시청사 말고는 그리 주목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세 번째 질문에⁸⁷⁾ 대하여 면접자는 서울시청사 이후로 서울의 새 건물들은 유리로 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다. 그리고 면접자의 네 번째 질문에⁸⁸⁾ 대한 의견은 본 질문을 통해 화려한 도시에서 생활한다는 자부심이지만 조류비행의 충돌 문제와 햇빛 반사로 주변 민원의 의견을 주었다. 그런 맥락에서 다섯 번째 질문에⁸⁹⁾ 대하여 면접자는 시민의 입장을 강조하며 현대적인 화려한 유리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건축물이 생성을 희망하면서 유리 도시이미지의 문제를 다소 피력하였다.

“시민 입장이지요(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㉔면접자 일부 반문)?”

“예... 굳이 시민이 아니어도... 선생님의 입장도 괜찮습니다(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피면접자 일부 답변)”

“유리가 다인 것도 그리 좋을 거 같지 않는데... 아마 전통을 살린 더 화려한 건물이 생기지 않을까요... 도시이미지에 맞는...(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㉔면접자 일부 답변)”

“그럼 미래에는 그런 곳에 사는 것은 어떤가요(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피면접자 일부 반문)?”

“글쎄요 그리 좋진 않는데...(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㉔면접자 일부 답변)”

㉔면접자는 서울시청사 주변에 30대 남성으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별다른 고민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면접자는 전면 유리의 증가를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의 아파트로의 의견으로 하였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면접자는 오래된 도시가 많은 유럽과는 대조적이라는 의견이었다. 면접자의 네 번째 질문에 대한 의견은 오히려 전면 유리가

87) 외국 도시에 비해 서울에 유독 유리로 뒤덮인 건축물들이 많아지고 있음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88) 현재 도시에 전면 유리빌딩들은 도시민의 정서에 있어서 긍정적(안정감, 친밀감 등)인지 부정적(소외감, 삭막감 등)을 주는지에 대하여 의견 부탁드립니다.

89) 다양한 영상(영화, 유튜브, 광고, 드라마, 도시 홍보영상 등)에서 인류의 미래 도시이미지를 전면 유리빌딩들이 즐비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민들은 그러한 미래도시를 원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의 대하여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세련된 도시 모습을 구현함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면서 면접자는 그에 대한 자신만의 이유를 콘크리트 아파트를 보고 자라서 상대적으로 그래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면접자는 조류에게 치명적인 문제, 더 나아가 비 환경성과 거주와 생태 감성으로 삭막하게 느낌으로 변경하였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하여 면접자는 자신의 의견과 제3자로서 시민 의견을 분리하였는데, 시민들은 유리로 도시를 원하기에 마음이 아프다는 상반된 의견이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원한다고 봅니다... 저 또한 유리로 만든 유리로 만든 빌딩들이 세련된 서울의 모습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㉞면접자 일부 답변)”

“예... 서울도 그렇게 될까요(두 번째 질문에 대한 피면접자의 일부 반문)?”

“그렇지요... 원하지 않아도 피할 수 없이 그렇게 될걸요... 여기 서울시청도 그렇게 지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프기도 하죠...(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일부 답변)”

“예... 혹시 그렇다면 여기 서울 구시청사와 유리신청사 중에 어느것이 더 정서적으로 정감이 가나요(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피면접자의 일부 반문)?”

“당연히 구시청지요(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㉞면접자의 일부 답변)”

서울시청사에서 마지막 면접자인 ㉞면접자는 50대의 여성으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의견이 존재했다. 다시 말해서 면접자는 평소 보기 좋은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으며,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서울시청 역시 유리인 제3청사를 거론하며 유리빌딩에 대한 증가를 감지했다. 세 번째 질문에서도 외국 빌딩들이 유리로 기억됨이 없음을 추정하였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면접자는 소외감과 삭막감에서 더 나아가 차가움의 정서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면접자는 도시에서 매일 건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유리로 만든 마천루는 심리적으로 모종의 차별감과 격리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하여 면접자는 유리는 물론이고 건물로 가득한 도심은 시대착오적인 아이디어라고 했다. 그러면서 면접자

는 현재 도시의 지향점은 친환경과 생태이기에 우리 도시는 잘못된 예견이라고 하였다.

“미래도시가 유리 건물로 가득 찬 것도 그렇지만... 건물들로 가득한 도심으로 보여주는 그 자체가 시대착오적이죠...(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면접자 일부 답변)”

“예... 어째서 시대착오적이지요(두 번째 질문에 대한 피면접자의 일부 반문)?”

“그렇잖아요... 21세기 사회가 지향하는 친환경... 그리고 생태도시잖아요... 자연과 적절히 조화되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 녹색도시가 더 바람직하고... 사람들이 공감하는 미래가 아닐까요(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면접자 일부 답변)”

“예.. 그럼 영상들에서 묘사하는 유리빌딩들이 즐비한 도시는 잘못된 것으로 정의해도 될까요(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피면접자의 일부 반문)?”

“그렇지요... 그냥 시각적으로 화려한 이미지로 그렇게 한 거예요(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면접자 일부 답변)”

63빌딩에서 표집 된 ㉠면접자는 30대의 남성으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인지하는 수준이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면접자의 의견은 많아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면서 면접자는 오래전 63빌딩만 존재했지만, 요즘에는 유리가 많아지고 있음을 의식하고 있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면접자는 외국과 비교해서 조급하게 건축물을 올리려는 서울 특성이라고 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면접자는 63빌딩을 내세우면서 유리인 63빌딩은 서울시민으로서 상징적인 건물로서 친밀과 인정에 조금 더 가까우며, 더 나아가 콘크리트 아파트보다 좋아 보이는 강한 이미지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그 의미를 자치한다면 유리 자체에 대한 감정은 좋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63빌딩은 동네에 비해서 강하게 주목되는 도시이미지이기는 하지만 주거로는 선호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유리 건축물도 주거로서 친밀과 안정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하여 면접자는 시민들이 유리로의 미래도시를 원하며, 상대적으로 콘크리트보다는 선

호됨이었다. 결국 면접자는 현재 획일의 콘크리트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했다.

“중립으로... 친밀감과 안정감에 좀 더 가깝습니다.(네 번째 질문에 대한 ㉠
면접자 일부 답변)”

“예.. 좀 더 설명해주시면 어떨까요.(네 번째 질문에 대한 피면접자 일부 질문)?”

“여의도에 사는 서울 시민으로서 저 앞에 똑같은 콘크리트 아파트들보다 친밀감이 들지요... 특히 63빌딩이 오랫동안 상징적인 가치가 있어서... 더 그렇지요...(네 번째 질문에 대한 ㉠면접자 일부 답변)”

“예... 그럼 63빌딩을 접어두고 전면 유리빌딩에 대한 의견을 어떤가요.(네 번째 질문에 대한 피면접자 일부 질문)?”

“글쎄요... 콘크리트보다 부작용이 더 있지 않나요... 그래서 주거지로는 선호하지 않지요... 유리빌딩은 주거지로는 친밀과는 좀 거리가 있지요... 안정적으로 쉬는데는 아니지요...콘크리트 같이 삭막한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네...(네 번째 질문에 대한 ㉠면접자 일부 답변)”

㉠면접자는 63빌딩 주변의 50대의 남성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평소 인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면접자는 비가 올 때 쉬어 갈 수도 없는 밋밋한 표면의 야박함을 지적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면접자는 많아지고 있음을 감지했다. 그러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면접자는 서울 증가는 확신이 없었으며 오히려 유리 건축이 외국에서 온 형태임을 추정하게 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면접자는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서 면접자는 도시 감정을 더욱 부정적 가중의 의견이었다. 더 나아가 면접자는 유리는 조류의 이동 경로를 방해함은 물론이고 거울로 인식되어 즉사하게 하고 사람 주거지로서 단열·통풍의 문제로서 선호치 않음의 지식을 알려주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하여 면접자는 미래도시의 영상들이란 영상 작가가 그럴듯하게 묘사한 것일 뿐으로 평가절하하였다. 다시 말해서 면접자는 동물에게도 안 좋고 사람에게 비효율적인 그런 미래도시는 단순히 멋있게 보이려는 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하였다.

“동물에게도 안정성이 확보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도 비효율적인 유리빌딩에서 사람들이 살지는 않지요.....그냥 작가가 멋있게 묘사했지!...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㉔면접자 일부 답변)”

”예...유리건축물이 그렇게 비효율적인가요(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피면접자 일부 질문)?”

“그렇지요... 일본이 왜 유리빌딩을 안 짓겠어요?... 내진도 못 견지고... 우리집도 내가 직접 지었는데... 유리가 많으면 빛이 많아서 좋을 것 같지만 안 그래... 다 허세야 허세... 그냥 겉으로 시원해 보이니까.. 유리가 한 40프로면 딱 보기 좋아...(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㉔면접자 일부 답변).

63빌딩 주변에 ㉔면접자는 60대의 남성으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대상에 대한 평소의 생각이 존재함을 물론이고 좋지 않은 감정이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면접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자신의 주거지도 유리로 지을 고민을 했었다고 했다. 그래서 면접자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서울은 물론이고 지역, 더 나아가 외국에까지 유리빌딩은 가격과 완공 속도 면에서 선호되어 있음을 알렸다. 그러나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면접자는 긍정적 정서(친밀감, 안정감 등)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못함의 의견이었다. 그러면서 면접자는 건물 외면에 유리의 비율을 1/5로의 마감이라면 부정적 정서(소외감, 삭막감 등)를 주지는 않을 것임을 당부하였으며, 더 나아가 유리빌딩은 빛의 반사 문제로 주변 이웃에 시각적으로 혼란스럽고, 빛이 지나치게 내부로 투과되어 주거지로 선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하여 면접자는 미래도시에 대한 영상들의 유리빌딩 묘사는 시각 효과를 위해 그려냈을 뿐이고, 더 나아가 사람들도 그런 도시를 기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 도시로 변모해가는 도시이미지에 대한 도시 감정의 탐색: 서울청사·63빌딩·강남삼성사옥 도시이미지인자에 대한 도시민의 의견을 중심으로 | 문윤수

[표 1] 면접자 의견 요약

면접자 구분 · 인구·사회· 적 사항	면접 자 특이 사항	표집 장소 구분	종합 요약된 시민 의견				
			전면 유리 표면의 건축물에 대한 인식은 세 명을 제외한 모두는 평소 보유하는 가운데, 한 명을 제외하고 그 증가를 감지했다. 그리고 두 명을 제외한 모두가 서울의 특징으로 인정했다. 전면 유리 표면의 건축물에 대한 태도는 네 명이 긍정적이었으며 나머지는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미래도시에 유리 예견은 중립이 세 명이며, 긍정이 두 명, 부정은 세 명이었다				
			개별 요약된 시민의견				
			의견 존재 여부	유리 증가여부	서울특징 여부	유리 태도	유리미래 태도
면접자㉔ 20대 여성		서울 시청	의견 미존재	증가 미감지	서울특징 인정 (청사 이후 증가)	⊕긍정적임 (화려한 도시 자부심)+α(조류 생태와 빛 반사 민원)	중립적임 (전통이미지 필요. 일정 문제 존재)
면접자㉕ 30대 남성	콘크 리트 아파트 성업자		의견 미존재	증가 감지 (아파트 하단 증가)	서울특징 인정 (유럽 도시 유지 부재)	⊕긍정적임 (세련된 도시구현)+α콘크리트 주거 성장자 상대적 긍정. 비친환경 삭막 정서)	중립적임 (면접자 자신 비선호. 제3자로서 시민들 선호)
면접자㉖ 50대 여성			의견 존재	증가 감지 (서울3청사 유리빌딩 거론)	서울특징 인정 (외국 도시 유지 부재)	⊖부정적임 (도시 시야에 대한 차가움·차별·격리정서)	⊖부정적임 (시대착오 아이디어. 시민 녹색도시 지향)
면접자㉗ 30대 남성	63빌딩 근무자	63 빌딩	의견 존재	증가 감지 (63빌딩 유일한 유리빌딩 야남)	서울특징 인정 (급한 건축 문화 이유)	⊕긍정적임 (63빌딩 서울 상징. 콘크리트보다 선호)+α(63빌딩을 제외한 부정. 주거지로 비선호)	⊕긍정적임 (확실적 콘크리트 거주 시민의 희망하는 미래도시)
면접자㉘ 50대 남성	건축 사업자		의견 존재	증가 감지 (재건축 모두 유리)	서울특징 미인정 (이국에서 유럽 특성)	⊖부정적임 (소외삭막감 가중)+α(조류경로방해. 즉사/ 인간 주거비통풍 비단열)	⊖부정적임 (작가들의 1차원적인 묘사일 뿐으로 평가절하)
면접자㉙ 60대 남성			의견 존재	증가 감지 (저비용으로서 시도 경험)	서울특징 미인정 (저비용으로서 올 추세)	⊖부정적임 (친밀안정감비도움)+α(우리 1/5 비 율 권장. 빛 문제와 지나친 투과로 비선호)	⊖부정적임 (효과적 미디어로 평 가절하. 시민들 유리 도시로 미래 기기대)
면접자㉚ 20대 남성		삼성 강남 사옥	의견 존재	증가 감지	서울특징 인정 (외국 특징 아님을 추정)	⊖부정적임 (건축물 내부 차단으로정서(친밀 감·안정감) 결여)+α(뉴욕처럼 도시 다움(복합함·복합함)인정)	중립적임 (건물 내부자 선호. 건물 외부자는 비선호)
면접자㉛ 40대 남성			의견 미존재	증가 감지	서울특징 인정 (외국 아이폰 유리 매장 외 에 본적 없음)	⊕긍정적임 (강남역 정서(친밀안정감 충분 도움)+α(주거 부정 정서 (소외감· 삭막감) 비선호. 상업지권장)	⊕긍정적임 (경제성(경쟁력·활성 화) 도시 모습. 주거 정서(친밀감·안정감) 희의적)
면접자㉜ 30대 여성			의견 존재	증가 감지	서울특징 인정 (외국도시 유리빌딩 본적 없음 추정)	⊖부정적임 (획일 도시이미지로 주옥 어려움과 공포감)+α(일체 재미 부재와 건축물 경외감 결여)	⊖부정적임 (깔끔하지만 친밀감 부재. 아이들이 미래 우려)

* 표집 장소는 해당 건축물의 내부가 아니라 건축물 외부의 4면에 주변의 보도를 의미함

“전체 벽을 유리로 하는 거는 친밀감이나 안정감에 별로야!... 전체 면적에
한 5/1이면 딱 좋지...(네 번째 질문에 대한 ㉔면접자 일부 답변)”
“예... 그럼 왜 1/5인가요.(네 번째 질문에 대한 ㉔면접자 일부 질문)?”
“1/5이 가장 적당하지... 그래야 건물이 삭막하지 않아.. 보기도 좋고... 난
유리빌딩이 마음에 들지 않아... 햇빛이 반사돼서 이웃과도 싸우게 되고...
안에서도 눈부시고... 그래서 별로야...(네 번째 질문에 대한 ㉔면접자 일부

답변)”

삼성사옥 주변에 ㉔면접자는 20대 남성으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삼성사옥을 지명하며 정감이 없는 건축물이라고 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반응도 긍정적 정서(친밀감, 안정감 등)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못함이었다. 그러면서 면접자는 삼성사옥 말고도 다른 건축물을 지명하며 증가하고 있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면접자는 서울만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유리가 많아서 걱정의 의견을 주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면접자는 특히 불투명한 유리는 외부자에게 내부를 볼 수 없게 하여 더욱 소외감의 느낌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른바 도시다움이라는 차원에서 그 유리에 다른 건물이 비쳐 좀 더 도시스러운 느낌(빹빹함, 복잡함 등)을 준다는 의견도 주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면접자의 의견은 두 가지로 구분되었는데, 유리빌딩 내부에서 생활하는 자와 외부에서 바라보는 자이다. 다시 말해서 유리내부자는 좋아할 것이고 외부자는 싫어함이다.

“유리가 투명하지 않고 불투명해서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없어서... 사람들이 뭘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아서 소외감이 있고 더 삭막해 보이긴해요...더 쓸쓸해요!...(네 번째 질문에 대한 ㉔면접자 일부 답변)”

“예... 그런데 뭐 하는지 다 보이면 안 되지 않을까요(네 번째 질문에 대한 피면접자 일부 반응)?”

“어... 그런가요.. 그래도 유린데... 너무 답답해요... 그럼 유리로 만들지 말지 뭐하러 유리로 만들었을까요(네 번째 질문에 대한 ㉔면접자 일부 반응)?”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네 번째 질문에 대한 ㉔면접자 일부 답변)”

“그런데... 불투명해서 다른 건물들이 비쳐서 좀 더 도시스러운 느낌은 있어요...(네 번째 질문에 대한 ㉔면접자 일부 답변)”

“예... 도시스러운 느낌은 뭔가요(네 번째 질문에 대한 피면접자 일부 질문)?”

“그러니까... 빹빹한 느낌이나 복잡한 느낌 그런거요...(네 번째 질문에 대한

㉔면접자 일부 답변)

“그럼 도시는 그런 뻑뻑한 느낌이어야 하나요(네 번째 질문에 대한 피면접자 일부 반문)?”

“글쎄요... 뉴욕도 다 그렇게 뻑뻑하고 복잡한 느낌 아닌가요...(네 번째 질문에 대한 ㉔면접자 일부 답변)”

“그럼 뉴욕도 이런 유리빌딩이 많이 들어서 있을까요(첫 번째 질문에 대한 피면접자 일부 질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가 유리로 막 높은 거는 못 본 거 같아요...(네 번째 질문에 대한 ㉔면접자 일부 답변)”

삼성사옥에 ㉔면접자는 40대의 남성으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면서 면접자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여기 강남역뿐만 아니라 유리 건물은 많이 눈에 뜨인다는 의견이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면접자는 외국에 아이폰매장이 투명 유리로 되어있음을 기억해 냈지만, 유리로 된 것이 많지 않음의 의견이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면접자는 긍정적 정서(친밀감, 안정감 등)에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면서 강남역을 언급하며 그렇게 되어야 함이 아닌지를 피면접자에게 반문하였다. 그러나 유리빌딩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의견으로서 건축물의 용도로서 정서를 구분하였는데, 상업적인 용도라면 역시 긍정적 정서지만 주거지라면 부정적 선호하지 않음의 의견이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하여 면접자는 영상들 묘사는 경쟁력 도시를 보여 주기 위함이며, 그래야 활성화의 모습이라고 했다.

“그렇게 묘사하는 것은 미래에 그렇게 되어야 경쟁력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도시가 활성화 되겠 같기도 하고요...(두 번째 질문에 대한 ㉔면접자 일부 답변)”

“예...그럼 사람들도 그런 미래도시를 기대하겠지요(네 번째 질문에 대한 피면접자 일부 반문)?”

“그럼요... 그래서 여기 도심도 그런 건물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네 번째 질문에 대한 ㉔면접자 일부 답변)”

“예... 그러면 그런 유리빌딩의 경쟁력과 활성화에 주거지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네 번째 질문에 대한 피면접자 일부 반문)?”

“글쎄요... 그건 좀 생각해 봐야 겠어요... 주거지라고 하시니까... 또 별로

기대 안 되네요 (네 번째 질문에 대한 ⑩면접자 일부 답변)”

마지막 삼성사옥 ①면접자는 30대의 여성으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이미 정리된 의견을 보유하고 있었다. 면접자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많이지고 있음의 의견이었다. 그래서 면접자는 서울이 유독 유리 건축물을 선호하는 문화가 아닌가를 추정하게 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면접자는 부정적인 정서를 선택하였다. 그러면서 면접자는 유리 건축물 자체들은 구조와 형태가 비슷해서 시각적으로 목적지를 찾기를 흐리게 하며, 더 나아가 어두운 유리 자체가 공포감을 자아내기에 선호하지 않는 의견이었다. 다시 말해서 요철과 굴곡으로 구분되고 주목되는 건축물 재미와 달리 온통 평평한 유리는 건축물이 멋있어서 때론 경외감이 드는 경우와 다르며, 오히려 유리 표면이 지상에서 하늘 끝나지 있기에 좋은 기분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하여 면접자는 영상들에서의 미래도시의 묘사는 깔끔해 보이지만 친밀감은 부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면접자는 단조롭고 포인트와 변화도 없는 유리 미래도시에서 아이들이 살게 됨에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었다. 지금까지의 의견은 [표 1]과 같다.

“미래도시를 늘 기대는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묘사가 과학적이면서 깔끔해 보이기는 한데... 너무 단조롭다는 생각도 합니다(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①면접자 일부 답변)”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피면접자 일부 질문)?”

“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단조로운 재료잖아요... 포인트도 없고 색상도 없고... 변화도 없고... 여기 유리 빌딩들 다 그렇지 않나요?... 건물이 특장도 없고 재미 없잖아요...(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①면접자 일부 답변)”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군요... 혹시 이런 관련 일에 종사하는지 여쭙봐도 될지요(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피면접자 일부 질문)?”

“아 예... 이런 디자인 관련 일해요...(두 번째 질문에 대한 ①면접자 일부 답변)”

“예... 그러셨군요...(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피면접자 일부 답변)”

“전 영화들에 그런 도시 볼 때 거시 살 아이들이 걱정돼요...(다섯 번째 질문

에 대한 피면접자 일부 답변)”

4) 연구문제 해결

첫 번째 **연구문제 1**은⁹⁰⁾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아홉 명 중에서 세 명은 의견이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근접한 거리에 해당건축물(서울시청사·63빌딩·삼성강남사옥)은 신속한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 따라서 면접자들에게 부여된 작성의 시간은 사전에 느꼈던 유리 표면건축물을 숙고해 보는 시간이었음을 추정해 본다. **연구문제 2**는⁹¹⁾ 한 명을 제외하고 전면 표피 건축물에 대한 증가를 감지하고 있었다. 특히 **면접자⑧**는 현재 신축되는 아파트 하단은 모두 전면 유리로 마감되고 있음을 감지하였고, **면접자⑨**는 증가로 인하여 63빌딩이 더 이상 유일의 빌딩이 아니라고 했으며, **면접자⑩**는 그런 증가로 인하여 자가를 유리로 하려는 고민의 경험했다는 의견을 주었다. **연구문제 3**은⁹²⁾ 두 명은 전면 유리 표피 건축물은 서울 특징이 아니라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일곱 명은 서울의 특징으로 인정하였다. 우선 미인정의 **면접자⑧**는 오히려 전면 유리로 함은 외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알기에 서울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인정하는 면접자 대부분은 외국에서 전면 유리빌딩의 기억이 없음을 상기해냈다. 또한 **면접자⑨**는 외국 도시에서 온통 유리의 아이폰매장 건축물을 기억해냈지만 그 매장 건축물 말고는 본 기억이 없음을 상기했다. 따라서 전면의 유리 표피 건축물을 통한 서울 도시이미지는 어느 정도 보편적 이미지로서 가능성이 존재한다. **연구문제 4**로서⁹³⁾ 도시민의 정서에 있어서 면접자 대

90) 도시민들은 전면 유리 표피를 건축물을 통한 도시이미지에 대한 평소 의견이 존재하는가?

91) 과거와 달리 전면 유리 표피 건축물의 도시이미지인자가 서울에 점차 늘어남에 대한 도시민 의견은 어떠한가?

92) 외국 도시에 비하여 전면 유리 표피 건축물의 도시이미지인자가 서울에 유독 많음에 대한 도시민 의견은 어떠한가?

93) 정서적으로 전면 유리 표피 건축물의 도시이미지인자에 대한 서울 도시민들의

부분은 부정적이었다. 더욱이 대상에 대하여 긍정 반응을 보인 면접자들조차 정서에 있어서 부정적이었다. 이를테면 **면접자㉔**는 친환경적이지 못함을 확대하여 삭막함을 표출하였고, 더 나아가 구 서울시청사의 정감을 더욱 선호함을 추정하게 했다. 긍정 반응을 보인 **면접자㉑**도 서울의 상징 도시미미지인자로서 63빌딩을 제외한 전면 유리 표피 건축물에 대한 정서를 부정적이라는 정의를 표출하였다. 특히 **면접자㉑**는 건축물에 대한 공포감을 호소하였으며, 입체적으로 정성을 들인 건축물에 갖는 경외감은 전면 유리에서 전혀 발생 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5**에⁹⁴⁾ 대한 의견은 제3자와 면접자 자신의 의견을 분리해서 추정해 볼수 있는데, 도시민이자 제3자들은 전면 유리 표피의 미래도시를 원할 것이라는 예견이었다. 그러나 면접당사자 본인들은 그런 도시를 원하지 않으며, 그렇게 되지 않기를 희망했다. 특히 **면접자㉔**는 전면 유리의 미래도시에 긍정하면서 그 선호를 구분했는데, 유리로의 미래都市는 상업성의 도시 모습이기에 긍정하지만, 주거성으로는 좋지 못한 정서의 미래도시가 될 것을 예견하였다. **면접자㉔**는 유리 도시 미래는 영상 작가들의 1차원적인 묘사에 불과함으로 일축하였다. 또한 **면접자㉑**는 친밀감과는 거리가 있는 미래도시 예견이라고 하였다. 결국 면접자들은 다양한 영상들에서 예견되는 전면 유리 표피의 미래도시를 원치 않는 세속적인 수요일 뿐으로 치부했다.

5) 종합적 해석과 대책

실질적 논의를 수행한 결과 전면 유리 표피 건축물에 대한 도시민의 의견을 다음과 같은 해석 했다. 우선 첫 번째, 삭막한 도시성을 더욱 가중시켜야 도시성이라는 뜻밖의 의견이 존재했다. 그런 의미에서 **면접자㉔**는 유

의견은 어떠한가?

94) 다양한 영상화면은 전면 유리 표피 건축물 도시이미인자로 미래도시를 정의하는 것과 같이 미래 인류의 도시이미지가 실제 그럴 것에 대한 도시민의 의견은 어떠한가?

리 건축물을 화려한 도시에 걸맞는 도시이미지로서 거주하는 자부심을 주장하였고, **면접자㉔**는 이른바 전면 유리 건축물은 뉴욕처럼 뻣뻣함과 복잡함을 가중시키는 대상으로 긍정하였다. 이는 다시 말해서 처참·환상이라는 양극단 공간이 도시이기에 이를 더욱 배가시키는 도시이미지는 당연한 논리인 것이다. 결국 비록 극단 감정의 도시성은 오히려 매력의 도시이미지이기도 함의 해석이다. 두 번째, 그런 화려함을 보는 것과 거주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면접자들 전원은 전면 유리 표피 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에 대하여 전원 회의적이었다. 특히 유리의 화려함과 도시성을 선호한 **면접자㉑**와 **면접자㉔**조차도 유리 건축물에 거주함에 강하게 부정적하였다. 결국 이는 과업과 주거와 같이 건축물 용도의 따라서 전면 유리 표피 건축물의 감정은 다를 수 있다는 해석이기도 하다. 세 번째로 **면접자㉑**에 의해서 유리 표피의 건축물 표면 비율은 1/5이었다. 이는 다시 말해서 도시이미지인자로서 건축물이 시각적으로 어색하지 않고 도시의 극단적 정서를 완화하는 차원의 황금률로도 해석될 수 있다. 결국 도시이미지인자로서 삭막한 유리란 전면 제거라기보다 적절하게 드러내이기도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면접자들은 도시의 전면 유리 표피에 건축물에 대한 환경문제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면접자㉑**는 전면 유리에 대한 태도를 긍정하면서도 생태계는 물론이고 주변 도시민의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었다. 결국 이는 유리에 대한 도시이미지로서 정서적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의 실질적 운영 문제가 이미 도시민들에 의해서 공유되고 있다는 의미이며, 그런 만큼 유리 건축물의 문제는 매우 종합적인 문제의 도시이미지인자이기도 한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그런 실질적인 문제와 함께 도시에서 건축물이란 효율성만을 위한 ‘건축된 물건’이 아니라 도시의 감정을 위한 ‘도시이미지인자’로 계몽될 필요가 있다. 보다 실질적으로 소유주·건축가·행정가들만의 합의에 그쳐 완성된 건축된 물건이 아니라 도

시민 감정의 암묵적 합의에도 민감한 작품 인식의 도시이미지인자이다. 본디 감정과 정서는 효율성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효율성을 고집한다면 고급이 아니라 싸구려 도시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유리 도시에서 도시 감정이란 도시민을 싸구려로 하대할 결과일 수도 있다. 결국 본 논의는 도시이미지에 있어서 유독 고급인 유럽도시의, 더 나아가 유럽도시민의 감정과 우선 본 논의에서 탐색된 서울도시의, 더 나아가 서울 도시민의 감정이 다른 이유를 추정할 수 있게 한다.

4. 결론

1) 요약

본 논의는 21세기 디지털시대에 선 인간의 도시란 유리 도시로 변모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정서적인 도시이미지 차원에서 점검했다. 관련된 선행논의들은 유리 건축물의 단독 효율성에만 국한된 주장에 그친 만큼 도시 이미지로까지 확대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오로지 주목되고 독특하기 위한 이른바 도시의 랜드마크로서 유리건축물로의 바램이 컸다. 따라서 미래 도시란 유리로 처리됨이 온당함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 온당함이 도시 이미지와 그에 따른 도시 정서에 있어서 그리 바람직하지 못함을 본 논의는 이론상으로 살폈는데, 감성사회학에 대입된 전면 유리 표피 건축물이란 태생적으로 극단의 감정이 만연된 도시에 유리라는 또 환상적이거나 아찔한 극단 정서의 조성은 문제가 있고, 또한 예술사회학에 대입된 전면 유리 표피 건축물이란 도시에 한시적 문화예술이벤트가 아닌 영구적인 도시이미지로서 예술 본연의 도시민 감정 위로와는 거리가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본 논의는 실질적인 논의로서 서울에서 대표적인 전면 유리 표피 건축물인 서울시청사·63빌딩·삼성사옥 부근에 아홉 명의 행인에게 도시이미지에 대한 의견을 살폈다. 우선 본 유리 건축물에 대한 각자의 의견은 3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존재했다. 그리고 유리 건축물의 증가에 대한 의견은 1명은 제외한 나머지 모두 증가로 감지했다. 그리고 그러한 유리 건축물의 증가는 서울이라는 도시이미지의 특징이라는 의견에는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특징이라고 정의하였다. 본 실질적 논의의 가장 핵심으로서 그런 전면 유리 표피 건축물에 대한 정서적 태도에 대하여 다섯 명은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긍정적인 네 명도 거주지로서 부정적이었다. 미래의 도시이미지가 유리 건축물로 조성됨에 대한 의견은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기대하지 않았으며, 긍정적인 한 명조차도 유리 도시이미지 이전에 콘크리트 도시이미지 대안으로 유리 도시이미지를 선택한 것일 뿐이지 삭막한 정서를 가중시키는 유리 도시이미지를 기대하지 않았다.

2)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제언

본 논의는 태생적으로 삭막한 도시 정서에서 작금의 새로운 도시이미지인자로 부상하는 유리 건축물의 정서를 탐색하였다. 그런데 그 탐색 과정에서 일정한 논의의 제한 점도 존재하였는데, 우선 첫 번째는 아홉 명의 시민만을 통한 질적 탐색인 만큼 일반화에 있어서 불안정함이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해당 표집 장소에 9명의 행인을 무작위로 심층 면접이 요구됨은 그리 용이한 조사가 아니다. 따라서 표본 수를 높여 대표성을 높인다는 것은 간단한 선택사항이 아니기도 하다. 사실 본 논의는 사안에 대한 보다 세밀한 의견을 찾아내는 질적 논의의 목적을 두었다. 다시 말해서 주관적 결과들이 모여 객관성이 확보되는 것처럼 본 논의는 그 진일보의 시작이기도 하다. 결국 향후 논의는 그 약점을 보완하는 양적 분석이기를 희망한다. 이를테면 본 논의는 젊은 세대들의 유리 건축물의 선호와 어르신 세대의 비선호로 추정에 머물렀기에 그에 대한 양적 증거가 이루어진다면 유리 건축물에 대한 도시 감정도 더욱 명확하게 정의될 것이다. 두 번째, 한 시민의 지적으로 콘크리트 일색의 한국 도시의 특성

을 유리라는 것의 대체라는 의견의 수집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논의는 유리 건축물에 대한 지나치게 부정적인 정서의 대상으로 취급한 진행은 아닌가 한다. 도시이미지인자로서 유리 건축물이 오히려 도시 정서적 안정감의 면도 존재할 가능성을 본 논의는 아예 배제한 것은 아닌가 한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논의는 의도적으로라도 따뜻한 정서로서의 유리 건축물 탐색도 필요하다. 세 번째, 유리 건축물 선정에 있어서 지나치게 상징적이고 거대한 건축물이 선정된 것은 아닌가 한다. 따라서 일반화의 대표성에 있어서 그리 견고하지는 못하다. 특히 63빌딩의 경우 유리빌딩이라는 인식보다 서울의 상징 건축물로서 삭막함과 다른 차원의 긍정 평판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향후 논의에서 상징성이 아니라 일상성이 고려된 도시와 유리 건축물과 그에 따른 선정이기를 희망한다. 네 번째, 서울이라는 도시의 삭막한 정서란 이미 건축물이라는 도시이미지인자가 콘크리트 일색으로 정의되고 있는 실정에서(김기중, 2003) 전면 유리 표피 건축물의 일색도 그 일색의 연장이다. 이는 달리 해석하면 건축물이라는 도시이미지인자 자체의 일색 화가 아닌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본 논의에서 추출된 의견으로 도시의 정서까지 고려한 건축물이라는 도시이미지인자의 유리표피의 비중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도시민의 정서를 침해하지 않거나 삭막한 정서를 완화하는 유리 표피 건축물이자 도시이미지인자의 한계 비중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서 유리 건축물에 대한 보다 세분화·세밀화된 향후 논의를 의미한다.

결국 도시의 건축물은 도시이미지인자 차원에서 개인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태생적으로 삭막한 도시에서 위압적이고 놀랍고 화려한 과시의 도시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 도시는 지나치게 과도하게 정주하기에 도시민의 물리적인 편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곳이라면 그렇기에 정서적인 안정이 반드시 요구된다. 그런 의미에서 건축물이라는 도시

이미지인자는 매우 중요한 정서적 인자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1세기 도시는 산업화 초반의 도시와 같이 농촌에서 상경한 자들에게 위엄과 놀라움을 주기 위한 위협의 극단적 감정을 유발하는 곳이 아니라 친근함과 익숙함을 제공하는 부드러운 곳이 되어야 한다. 왜냐면 이러한 전환은 바로 미래도시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 참고 문헌

- 강희화, 「바움가르텐의 미학사상과 무용미(美)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용학과 한국무용전공 석사학위논문, 2015, 75쪽.
- 기욤 피트롱 저, 양영란 역, 『‘좋아요’는 어떻게 지구를 파괴하는가』, 갈라파고스, 2023.
- 김록영·김정석, 「국내유리공예산업 분석 및 활성화 방안연구(공예산업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조형디자인연구』 25권 2호, 한국조형디자인학회, 2022, 85-101쪽.
- 김민희, 「도시환경 디자인에서 환경조형물의 역할에 관한 연구(건물 옥외공간 환경조형물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11쪽.
- 김선영, 「미니멀 건축 공간으로 본 투명성의 조형적 효과」, 『기초조형학 연구』 16권 2호, 한국기초조형학회, 2005, 83-95쪽.
- 김소희·서혜옥, 「예술작품을 통한 아파트 옥외구성에 관한 연구(서울시 동작구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통권82,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회, 2023, 294-303쪽.
- 김예승·허정환·김광구,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정책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학보』 5권 2호, 2008, 한국지방행정학회, 19-38쪽.
- 김용삼, 「아티스트 유리공예가 김기라」, 『마루』 통권57, 현대건축사, 2006, 75-77쪽.
- 김수필, 「목재의 횡단면을 활용한 가구 연구」,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공예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11쪽.
- 김은별, “이사 가는 ABC방송국 개발과 개성사이”, <아시아경제>, 2018.07.13. (검색어 ‘유리빌딩’ 2022년 6월 4일 1시 35분경 검색)
- 김정인, 「지속가능한 한국형 나무아파트 계획(콘크리트 열린 지지구조와 목조 개별 주거의 혼합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31권 4호, 한국주거학회, 2020, 57-69쪽.
- 김택중, 「찰스 디킨스의 도시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 『문학과 환경』 10권

1호, 문학과환경학회, 2021, 59-82쪽.

대한건축사협회, 「콘크리트의 새로운 개발(나뭇결 무늬의 콘크리트)」,
『건축사』 통권10, 1972, 12-23쪽.

문윤수, 「고유성이 편중된 한국의 도시이미지에 관한 연구(서울도시
광고에서와 실제에서의 건축물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광고
학보』 11권 3호, 한국광고홍보학회, 2009, 41-93쪽.

_____, 「시각적 도시이미지에 있어서 옥외광고간판의 색채조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서울시 옥외광고간판의 색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9권 2호,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3,
179-202쪽.

_____, 「도시이미지를 구성하는 인자로서 건축물과 옥외광고의
조화를 체감기 위한 탐색적 연구(미국의 고도(old city(colonia-
lera city))로서 메사추세츠주의 보스턴 (Boston)에 위치한
비콘힐(Beacon Hill)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연구』 27권
1호,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커뮤니케이션학연구』 2019, 113-
148쪽.

_____, 「아날로그 옥외광고와 공공미술의 결합을 통한 도시이미지의
인자로서의 특성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시카고 밀레니엄파크와
서울 대림동을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32권 8호, 한국광고
학회, 2021, 41-87쪽.

_____, 「영향력 있는 도시이미지인자로서 랜드마크 명명의 세련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시애틀 스페이스니들과 서울 엔서울타워라는
이름에 대한 시민 의견을 중심으로)」, 『지식과 교양』 통권16,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024, 49-90쪽.

박수현, 「녹화벽돌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조형디자인연구』 19권
3호, 한국조형디자인학회, 2016, 191-210쪽.

박영주, 「‘걷기’의 의미 양상과 예술적 실천(미셸 드 세르토의 ‘공간
실천’과 도시 개념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통권46호,
인문콘텐츠학회, 2017, 81-108쪽.

박유라·유호천, 「건축물의 유리외피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태양에너지
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8호, 한국태양
에너지학회, 2004, 193-200쪽.

- 박진아·일본건축학회 편, 박진아 역, 『도시·건축 감성디자인공학』, 문운당, 2012.(Architectural Institute of Japan, Urban and Architecture Kensei Design Engineering, Architectural Institute of Japan.)
- 발레리 줄레조 저, 길혜연 역, 『아파트 공화국』, 후마니타스, 2007.
- 비판사회학회, 『사회학(비판적 사회읽기)』, 한울, 2012.
- 빅토리아 D. 알렉산더 저, 최섯별·한준·김은하 역, 『예술사회학(순수에서 대중예술까지)』, 살림, 2010.
- 서용민, 「건축물의 외피에 적용된 유리의 표현특성 및 발현의미에 관한 연구(1980년대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 논문.
- 서충원, 「전원도시에 나타난 디벨로퍼의 역할에 관한 고찰」, 『부동산 학보』 통권55, 한국부동산학회, 2013, 332-344쪽.
- 성호철, “세계 도시 순위, 런던·뉴욕·도쿄가 1~3위…서울은?”, <조선일보>, 2022.12.15. (검색어 ‘세계도시순위’로 2023년 7월 12일(수) 16시 30분경 검색)
- 송민정, 「동경도 간판분석에 의한 서울시 간판 관리 문제점 분석」, 『콘텐츠학회논문지』, 8권 5호, 한국콘텐츠학회, 2008, 134-144쪽.
- 스캇 R. 해리스 저, 박형신 역, 『감정 사회학으로의 초대』, 한울아카데미, 2017.
- 신계옥·이진숙·신동윤, 「일광에 따른 건축물 외장재 색채 이미지 변화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학회논문집』 27권 2호, 한국색채학회, 2024, 39-50쪽.
- 싱클레어 루이스 저, 이나경 역, 『도즈위스』, 휴머니스트출판그룹, 2022.
- 앤소니 기든스·필립 W. 서튼 공저, 김미숙·김용학·박실성·송호근·신광영·유흥준·정성호 공역, 『현대사회학』, 을유문화사, 2013.
- 양승관, 「건물 외장 계획의 환경디자인적 접근 방법에 관한 연구(유리, 석재 외장재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공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01, 14쪽.
- 여영호, 『세계 초고층건축물의 추세와 Millennium Tower 130』,

- 고려대학교 초대형고층건물 심포지엄논문집, 2001.
- 이상동, 「20세기 초고층건물의 디자인 경향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공학과 건축설계전공 석사학위논문, 2002.
- 이수림, 「유리와 투명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공간디자인 BM(Business Model)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2권 5호,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17, 339-347쪽.
- 전수진, “자살률 1위 국가 불명예 경주마처럼 계속 달릴 것인가”, <중앙일보>, 2023.07.19. (23면 ‘노트북을 열며’ 기사)
- 정영균, 「커튼월의 미적·기능적 가치와 대표적 디자인 사례들」, 『건축』 47권 9호, 대한건축학회, 2003, 13-16쪽.
- 정인영,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간다』, 교보문고, 2023.
- 정의인·김해나·김봉주, 「유니트 커튼월 멀리온 레일 양중시스템의 경제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시공학회지』 21권 1호, 한국건축시공학회, 2021, 41-49쪽.
- 심성욱·박 현, 『신옥외광고론』, 서울경제경영, 2012.
- 여호근, 「도시이미지에 대한 감성어휘 유형화 및 도시별 비교 연구(이미지 스케일(Image Scale)의 적용과 관광학적 해석)」, 『MICE 관광연구』 17권 3호, 한국마이스관광학회, 2017.
- 전상인, 『아파트에 미치다』, 이숲, 2009.
- 정종민, “압축성장 뒤에 드리운 그늘”, <경향신문>, 2023.07.11. (검색어 ‘자살률’로 2023년 7월 13일(목) 11시 30분경 검색)
- 줄리아 카메론 저, 임지호 역, 『아티스트 웨이』, 경당, 2017.
- 티엘엔지니어링·티엘갤러리 편, 『도시 美를 입히다』, 호밀밭, 2017.
- 폴 메사리스 저, 강태완 역, 『설득이미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하경준, 「도시화 및 기후변화가 도시홍수피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15-17쪽.
- 한국산업사회학회,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2004.
- 한원택, 『유리시대(세상을 변화시킨 놀라운 유리 이야기)』, 광주과학기술원, 2019.
- 황영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도시적 역할에 대하여」, 『황해문화』

4권 3호, 1996, 101-108쪽.

홍지호, 「화염 및 파괴에 의한 유리 파손 형태 연구」, 『한국화재감식학회 학회지』 2권 2호, 한국화재감식학회, 2010, 47-51쪽.

황예랑, “여성 자살률, 2008년과 닮았다”, <한겨레21>, 2020.12.14.
(검색어 ‘자살률’로 2023년 7월 13일(목) 12시경 검색)

Alexander, V. D., *Sociology of the Arts: Exploring Fine and Popular Forms*, Blackwell Publishing Ltd, Oxford, 2003.

Beckley, R. M., *Urban culture design: Introduction to urban planning*, New York: McGraw-Hill, 1979.

Cameron, J., *the Artist's Way: A Spiritual Path to Higher Creativity*, J. P. Tarcher/Putnam (edition 10th Anniversary ed.), 2002.

David, W. N. & Ezra Vogel, “The Four Little Dragons: The Spread of Industrialisation in East Asia”, *Asian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20, no. 1, University Education Press, 1992, p.113.

Dixon, J. M., “Lever House: a Paragon preserved (A New York City landmark gleams with new curtain walls and improvements to its precedent-setting plaza)”, *Architecture*, vol. 91, no. 12, BPI Communications, 2002.

Giddens, A. & Sutton P., *Sociology*, Blackwell Publisher Ltd., 2001.

Harris, R. S., *An Invitation to the Sociology of Emotions*, Taylor and Francis, 2015.

Helliwell, J. F., Huang, H., Norton, M., Goff, L., & Wang S., *World Happiness, Trust and Social Connections in Times of Crisis*, World Happiness Report(<https://worldhappiness.report>), 2023.

Hochschild, A. R., *The Managed Heart: Commercialization of Human Feeling*,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Kelling, G. & Coles, C., *Fixing Broken Window: Restoring Order and Reducing Crime in our Communities*, New York Free Press, 1997.

- Kim, H. & Song, Y. H., “City Image Determinants and Comparison of Image Determinants by City Size”,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vol. 11, no. 1,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rea Studies, 2007, pp.562-586.
- Lee, Myonghee, “Research of the outdoor advertizing relation system for a desirable advertisement viewable formation”, *Journal of Outdoor Advertising Research*, vol. 4, no. 1, 2007, pp.75-88.
- Lewis, S., *Dodsworth*, Namaskar Books, 1929.
- Lynch, K., *The image of city(Harvad-MIT joint center for urban studies serie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 Minutillo, J., “Behind the Curtain Wall: Three residential buildings with innovative facades rise in New York City”, *Architectural Record*, vol. 198, no. 9, McGraw-Hill Data Services, 2010, pp.128-138.
- Michel, C., “Glass & interactive building envelopes”, Amsterdam: IOS Press, *Research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series 1*, 2007, pp.1-2.
- Messouris, P., *Visual Persuasion*, Saga Publications. Inc, 1997.
- Pitron, G., *L'Enfer numérique(Voyage au bout d'un like)*, Paris: Les Liens qui Libèrent 2021.
- Schumacher, T. L., “The Skull and the Mask(The Modern Movement and the Dilemma of the Facade)”, *the Connell Journal of Architecture*, issue 3, 1987 Fall, pp.4-11.
- Thoits, P. A., “Emotion Norms, Emotion Work, and Social Order.”, *Feelings and Emotions: The Amsterdam Symposium*, A. S. R. Manstead, N. Frijda & A. Fischer. ed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p.359-378.
- World Population Review-Suicide Rate by Country 2023, <https://worldpopulationreview.com/country-rankings/suicide-rate-by-country>, 2023.

■ 국문초록

본 논의는 점차 유리 도시로 변모해가는 도시이미지에서 도시 정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건축물은 도시에서 도시이미지인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본 논의는 현재 전면 유리 표면으로 변모해가는 그 건축물에 대한 도시민의 정서적 태도를 탐색하였다. 실질적인 논의는 서울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면 유리 건축물로 서울시청사·63빌딩·삼성강남사옥을 선정하였고, 그 부근에서 아홉 명 행인의 의견을 살폈다. 그 결과 전면 유리 건축물에 대한 모종의 의견은 세 명을 제외하고 이미 존재했으며, 그런 건축물들의 증가도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감지하고 있었다. 또 두 명을 제외한 모두는 그 증가를 서울 도시이미지의 특징으로 정의하였다. 전면 유리 건축물이 도시 정서에 부정적임에 대하여 네 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이 동의하였다. 그러나 긍정적인 네 명조차도 유리 건축물이란 삭막한 도시 정서의 대상이라는 여지를 남겼다. 그런가 하면 한 명을 제외한 모두가 미래의 도시이미지가 유리로 조성됨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제외된 그 한 명은 그간의 콘크리트 일색보다 유리 일색을 그나마 긍정하기는 했지만, 삭막한 도시에 있어서 유리도 마찬가지로 의견을 해석하게 했다.

주제어● 도시이미지인자, 건축물, 유리도시, 도시감정, 서울시청사, 63빌딩, 삼성강남사옥

■ Abstract

An Exploration of City Emotion about the City Image that is transforming into Glass City : Focusing on Citizens' Opinions on Seoul City Hall, 63Building and Samsung Group Seocho Headquarter as Glass Building

Moon, Yun su / Mokwon University

This discussion raised the issue of city emotion in the image of a city that is gradually transforming into a glass city. In that sense, This discussion explored the emotional attitudes of city residents toward the building, which is currently being transformed into an entirely glass surface. For the practical discussion, Seoul City Hall, 63 Building, and Samsung Group Seocho Headquarters were selected as the most representative all-glass buildings in Seoul, and the opinions of nine passers near those buildings were examined. As a result, except for three passers, some kind of opinion about all-glass buildings already existed. and the increase of those kind of buildings was also perceived by all but one. And the increase was defined as a characteristic of Seoul city image, except for two. All but four passer agreed that all-glass buildings are negative for city emotion. However, even the four passer who confirmed it left room for the glass building to be an object of desolate city emotion. Meanwhile, all but one passer did not expect that the image of the future city would be a building made glass. However, one passer who was excluded was more positive about the glass city rather than the concrete city. However, but he said that the same goes for glass city in a desolate city.

Keyword • City Image factor, Building, Glass City, City Emotion, Seoul City Hall, 63Building, Samsung Group Seocho Headquarter

조선 선비의 부부관*

김 문 준 · 김 광 환 · 송 현 동**

목 차

1. 머리말
2. 선비들의 가정과 부부에 대한 인식
 - 1) 부부는 가정의 근간
 - 2) 가정은 수신하는 공동체
 - 3) 혼인의 인격적 평등과 아내 공경
3. ‘부부유별’의 두 가지 의미
4. 김원행의 <친영시서증>
5. 맺는말

1. 머리말

본 고는 조선 선비들이 지녔던 가정과 부부에 관한 인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조선 선비들이 가정과 부부에 관한 글을 쓸 때 주로 인용한 『주역』, 『예기』, 『시경』, 『중용』, 『맹자』 등 유교경전 내용과 선비들이 필독서로 학습한 기본 학습서인 『동몽선습』, 『소학』, 『격몽요결』 등에

* 본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에 지원받은 논문임(NRF-2020S1A5C2A04092504)

** 김문준(제1저자) 건양대학교 인문융합학부 교수
김광환(공동저자) 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교수
송현동(교신저자) 건양대학교 호텔관광학과 교수

기술된 부부 관련 내용을 통하여 부부에 관한 기본 의식을 살펴본다.

둘째, 16세기의 박세무(朴世茂, 1487~1554), 이황(李滉, 1501~1570), 이이(李珥, 1536~1584), 17세기의 윤휴(尹鑄, 1617~1680), 임영(林泳, 1649~1696), 18세기의 김원행(金元行, 1702~1772), 안정복(安鼎福, 1712~1791), 19세기의 최상룡(崔象龍, 1786~1849), 기정진(奇正鎭, 1798~1879), 구한말의 전우(田愚, 1841~1922), 신기선(申箕善, 1851~1909) 등 조선시대에 매시기마다 당대의 대학자, 문장가들이 남긴 가훈(家訓), 서신(書信), 비명(碑銘) 등을 고찰하여, 조선 선비들의 부부관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전통적인 한국의 부부관을 살펴보고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선비들의 일생의 도에 기반한 부부 관계의 근본정신과 가정 내의 역할 분담[別] 등 ‘제가’(齊家)의 공동 책임자이자 동반자로 인식되었던 부부 관계에 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선비들의 가정과 부부에 대한 인식

1) 부부는 가정의 근간

예나 지금이나 부부는 화목한 가정의 근간이다. 조선 선비들 역시 부부는 두 성이 합한 관계로 사람(民)이 생겨난 시초이며 인륜(人倫)의 시작이고 만복(萬福)의 근원이라고 인식했다.¹⁾ 그런데 조선 선비들은 개인의 행복과 부부간의 금슬에 앞서 부부가 되어서는 가정에 대한 책임을 우선시 했다. 조선 선비들의 부부에 관한 인식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비들은 가정의 근본은 부모자식 이전에 부부라고 인식했다. 일상 생활에서 부부(夫婦)는 부자(父子)보다 가까운 사이이다. 그러나 제가(齊家)에서 사친(事親)을 먼저 말하고 다음에 부부를 말한다. 19세기 경상

1) 『동몽선습』, 夫婦有別, “夫婦 二姓之合, 生民之始, 萬福之原.”

도 선비 최상룡(崔象龍, 1786~1849)은 부부(夫婦)는 가까운 관계라는 의미로 보면 부부가 먼저여야 하지만, 부자(父子)는 오륜(五倫)의 으뜸이며, 효(孝)는 모든 행실의 근본이므로 부모를 섬기는 것을 첫째로 삼고, 부부를 그 다음으로 삼는다고 하였다.²⁾

둘째, 가정은 가족들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 자기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공동체로 인식했다. 『주역』 〈가인괘(家人卦) 단사(象辭)〉에 이르기를, “부모가 부모의 할 일을 하고, 자식이 자식의 할 일을 하며, 형이 형의 할 일을 하고, 아우가 아우의 할 일을 하며, 남편이 남편의 할 일을 하고, 아내가 아내의 할 일을 하면, 집안의 규범이 바로 서게 되고, 집안이 바르게 되면 천하가 안정된다.”고 하였다.³⁾ 특히 부부의 역할은 부모를 받드는 일이 가장 우선이라고 인식했다. 전통사회에서 가정 운영은 효가 중심이었는데, 부부는 효를 행하기 위해 가정의 화목을 책임지는 역할을 중시했으며, 그러기 위해 조상과 부모를 잘 모시고 자손을 낳아 양육하기 위해 노력했다. 부부의 역할은 사당과 제사로 조상을 받들고, 부모를 잘 봉양하며, 자녀를 생산 양육하는 일이 부부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이처럼 부부의 역할은 부모에게 효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유지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 가정은 남녀간의 사랑을 완성하는 관계라기 보다는, 함께 인륜(人倫)의 도로서 ‘제가’(齊家)를 행하는 공동 책임자이자 동반자이다. 그 기대하는 결과는 ‘안팎이 화순하고 부모가 안락’[內外和順 父母安樂]한 가정이다.⁴⁾

2) 『鳳村先生文集』, 권8, 雜著 ○在邇錄[下], 齊家 下篇, “夫婦 取在邇之義則夫婦當居先. 而父子爲五倫之首. 孝爲百行之源. 故以事親爲首. 夫婦當爲次. 取在邇之義.”

3) 『栗谷先生全書』, 卷23, 聖學輯要 五, 正家第三, “易曰父子兄弟夫婦 婦 而家道正. 正家而天下定矣. 家人卦象辭. 程子曰 父子兄弟夫婦. 各得其道 則家道正矣. 推一家之道 可以及天下 自古聖王. 未有不以恭己正家爲本 故有家之道既至 則不憂勞 而天下治矣.”

4) 『동몽선습』, “須是夫敬其身 以帥其婦 婦敬其身 以承其夫 內外和順 父母其安樂

2) 가정은 수신하는 공동체

조선 선비들은 가정을 자신이 수신(修身)하는 생활공동체라고 인식했다. 선비는 가정을 자신이 수신(修身)하고 도를 행하는 시발점이라고 인식했다. 선비들은 가정을 수신의 터전이고 부인을 대하는 태도는 수신의 시작이라고 여겼다. 선비의 수신은 자신이 몸담은 가정의 일상생활에서 수신하는 것이다. 선비는 가정과 일상생활을 벗어나 산속의 수행처에서 수행하는 불도(佛道)의 수양 태도를 비판하고, 집안에서 가정 생활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예의와 의리로 희로애락을 다스려 수신하는 것이 옳은 수양 태도이며 좋은 삶이라고 인식했다.

조선 중종 때 박세무(朴世茂, 1487~1554)가 저술한 『동몽선습(童蒙先習)』은 아동에게 선비로서의 덕행(德行) 함양에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가르침으로, 학자가 학문과 수양하는 태도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학문이 아니면 사람 구실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 이른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성[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별도로 존재하는 일이 아니다. 단지 아버지가 되어서는 마땅히 자식을 자애(慈愛)하고, 자식이 되어서는 마땅히 부모에게 효하며, 신하가 되어서는 마땅히 임금에게 충성하며, 부부 사이에서는 마땅히 내외를 구별하고, 형제간에는 마땅히 서로 우애하고, 어린 사람이 되어서는 마땅히 어른을 공경하고, 친구 사이에는 마땅히 신의를 지키는 것이므로, 모두 일상생활 속에서 일에 따라 각각 그 마땅함을 얻는 것일 뿐이요 현묘(玄妙)한 곳에 관심을 집중시켜서 기이한 효력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⁵⁾

따라서 가정의 일상생활에서 수양하는 선비의 입장에서 부부가 함께 하는 생활은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그래서 『중용』에서는 도(道)가 부부

之矣.”

5) 『격몽요결』, 序, “人生斯世 非學問 無以爲人 所謂學問者 亦非異常別件物事也 只是爲父當慈, 爲子當孝, 爲臣當忠, 爲夫婦當別, 爲兄弟當友, 爲少者當敬長, 爲朋友當有信 皆於日用動靜之間 隨事各得其當而已 非馳心玄妙 希覬奇效者也.”

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다. 『중용』에 자사(子思)가 말하기를 ‘군자의 도리[君子之道]는 부부 사이에서 비롯된다.’⁶⁾ 『중용장구』(中庸章句)에 “군자(君子)의 도(道)는 필부필부(匹夫匹婦)에게서 발단이 되니[造端], 그 지극함에 이르러서는 천지(天地)에 밝게 드러난다.[君子之道, 造端乎夫婦, 及其至也, 察乎天地.]”고 하였다. 선비들은 군자의 도리는 부부 사이에서 단서가 비롯된다고 인식했다. 부부 사이에서 군자의 도리가 비롯된다는 뜻이다. 조단(造端)은 ‘단서(端緒: 실마리)가 만들어진다.’는 의미이고 ‘비롯되다, 시초하다, 사물의 발단’ 등의 뜻이다.

군자의 도는 부부에서부터 발단되지만, 그 지극한 경지에 이르면 천지에 드러나게 된다고 했다. 군자의 도는 가까이로는 ‘부부가 집에서 거처하는 사이’에서부터 시작되지만, 멀리는 ‘성인과 천지도 능히 다할 수 없는 것’에까지 이른다고 하였다. 그 이치의 소이연은 은미하니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⁷⁾ 그러니 군자가 가정 생활의 부부관계에서부터 삼가하고 삼가지 않을 수 없다고 인식했다. 군자가 행하는 도는 고원한 도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일상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도이다. 그러므로 필부필부(匹夫匹婦)라도 일상에서 그 도를 함께 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다. 그러한 도의 은미함에 나아가면 고원하고 미세하여 비록 성인이라도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비가 행하는 도는 일반 부부라도 행하는데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다. 일상의 작은 단초에서부터 중용의 도는 실천되는 것이다. 이러한 수양 태도에 관하여 이상정(李象靖, 1711~1781)은 조개[堦]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사(子思)가 ‘술개는 날고 물고기는 뛰어오른다.[鳶飛魚躍]’라는 말을 가지고 화육(化育)의 오묘한 유행이 상하에 밝게 드러나 눈에 환함을 밝혔으

6) 『중용』 12장, “子思曰 君子之道 造端乎夫婦”

7) 『중용』 12장, “君子之道, 近自夫婦居室之間, 遠而至於聖人天地之所不能盡然, 其理之所以然, 則隱而莫之見也.”

니, 이것이 친절하게 사람들을 위하여 도의 본체를 알려 준 곳이 된다. 밖으로 드러나 움직이며 운용하여 조금이라도 막히는 장애가 없음을 볼 뿐이기에 대강 이와 같이 말한 것이다. 그러나 처음 공부하면서 상상과 억측으로는 또한 일을 이루지 못한다. 반드시 일상의 행동과 응대에서부터 도리를 이해하고 하나하나 분명하게 터득하여 오랫동안 축적된 뒤라야 아래에서 말한 ‘부부에게서 단서를 만든다.[造端乎夫婦]’는 말을 알 수 있으니, 이것이 실제 공부를 착수할 곳이다.”⁸⁾

조선 선비들은 평생 일상생활에서 ‘사무사’(思母邪)하고 ‘신독’(愼獨)하는 삶의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리하여 일상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인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가깝고 친하게만 대하다가 서로를 함부로 대하는 친압(親狎)과 사정(私情)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부부는 가정생활에 서로 공경하면서 언행을 삼가하는 수양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부부는 봉우(朋友)와 같이 ‘선(善)을 권면하고 인(仁)을 돕는[責其善 輔其仁]’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와같이 선비는 부부 사이에서 수신하는 장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에서, 18세기 성리학자 임성주(任聖周, 1711~1788)는 다음과 같이 부부 사이에서 ‘신독’(愼獨)할 것을 말했다.

“군자의 도는 단서가 부부에게서 시작되는데, 그 지극함에 미쳐서는 천지에 밝게 드러난다고 하였다. 이것은 단지 가까이로는 부부의 거실 사이로부터 멀리로는 성인(聖人)과 천지(天地)에 이르기까지 ‘다하지 못하는 바[所不能盡]’가 있다는 뜻일 뿐이다. 군자가 공력을 기울이는 일(用功)은 아니다. 주자가 호백봉(胡伯逢)에게 답한 글에 이르기를 “이것은 군자의 도는 부부의 은밀함에서 단서가 시작되는 것으로서, 그 극치를 말하면 하늘과 땅의 높고 깊은 곳까지 밝게 드러남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기미를 알고 신독(愼獨)하는 군자가 아니라면, 그 누가 이를 체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⁹⁾

8) 『大山集』, 제38권, 書, 答堉姪中庸問目 庚午(1750, 영조 26), “子思將鳶飛魚躍以明化育流行之妙。上下昭著。舉目瞭然。此是親切爲人開示道體處。見其發見呈露。流動運用。無一毫滯礙之累耳。大槩如此說。然初學想像懸揣。亦不濟事。須是從日用動靜應接上。理會道理。見得一一分明。積累久後方見得。下面說造端乎夫婦。此是實下手處。”

9) 『鹿門集』, 제13권, 雜著, 經義, 中庸 乙卯(1735, 영조 11), “君子之道。造端乎夫

19세기 실학자 최한기(崔漢綺, 1803~1879)는 가정은 화복(禍福)의 근원으로서, 부부의 화합(和合)과 화순(和順)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기복(祈福)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손의 성쇠와 빈부는 부부로부터 시작되고, 평생의 화복과 길흉은 언행으로부터 불러들이는 것이니, 이것이 인사(人事)의 절실한 것이며 천리(天理)의 당연한 바이다. 그러나 매양 방자한 욕심을 내는 사람은 부적과 정화수로 귀신을 쫓거나 복을 얻기를 바라니, 이는 다만 재량(裁量)하는 바가 없음을 드러내 보일 뿐이다. 부부라는 것은 다만 일생 동안 화합하여 가도(家道)를 화순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다. 자손의 다과(多寡) 빈부(貧富)·수요(壽夭)나 질병 등이 모두 음양 이기(二氣)의 화합에 말미암는다.”¹⁰⁾

선비는 가정을 도의(道義)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의 화복이 초래된다고 여겼다. 가정 구성원이 모두 근면 성실하고 도의와 예경으로 대해야 가정이 건실한 가정이 되는 것이며, 그래야 가정에 복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선비는 가정(家長)으로서 누구보다도 공경과 예의로 가정을 건사하고 부인과 식솔들을 숭선수범으로 대하는 태도를 통하여 그 책임을 다하고자 했다.

3) 혼인의 인격적 평등과 아내 공경

조선 시대에 선비 부부는 혼인하면 상호 인격적으로 평등하다고 인식했고, 부부가 상호 공경하는 관계를 바람직하게 여겼다. 그러한 내용은 선

婦. 及其至也. 察乎天地. 此只是近自夫婦居室之間. 遠而至於聖人天地. 所不能盡之意耳. 非君子用功之事也. 朱子曰此只是再疊說上文. 而其答胡伯達書曰此君子之道所以造端乎夫婦之微密. 而語其極則察乎天地之高深也. 然非知幾慎獨之君子. 其孰能體之.”

- 10) 『推測錄』, 권6, 推物測事, 禍福造端乎夫婦, “子姓之盛衰貧富. 自夫婦而造端. 平生禍福吉凶. 自言行而招致. 乃人事之切實. 天理之攸宜也. 每生肆欲者. 逕求之于符水辟禳. 多見其無所裁也. 夫婦者. 非特一生和唱. 以致家道之順美而已. 子姓之多寡貧富壽夭疾病. 皆由二氣之和合矣. 言行者. 接濟事物之媒槩. 能悅樂於人. 則轉禍爲福. 不然則福反爲禍. 是以知此者. 勉修身而重其禮. 不知此者. 歸之於命數. 求之于方術. 甚矣人之自擇於道也. 何無分於真實虛妄耶. 自古及今. 以方術致敗者. 無代無之. 而終未頓絕者. 抑亦虛實相對之理歟”

비들이 혼인하는 과정과 부부로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부인을 대하는 공경하는 태도에 관한 가르침에서 알 수 있다.

선비 가정은 혼인 과정에서 부부의 인격적 평등의식을 표현하는 의식을 치루었다. 선비 가정은 남녀의 혼인 조건으로 남자는 부덕(夫德), 여자는 부덕(婦德)을 중시했다. 외모나 재산을 따져 혼인하는 태도는 혼인의 예절을 어겼다고 여겼다. 또한 조선 시대에 부부가 되는 과정은 혼인 당사자의 사랑이나 호오와 관계 없이, 매파(媒婆)를 통해 부모와 집안 어른들이 정하는 대로 혼사를 결정했다. 또한 반드시 납폐(納幣: 폐백을 드림)와 친영(親迎: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직접 맞이해옴) 등 일정한 예식을 거쳐서 신랑이 자신을 낮추어 신부를 존중하는 절차를 거쳐 혼인하고 부부가 되었다. 조선 선비들은 성리학의 이념을 사회와 가정에 적용하여 혼인도 『주자가례』에 따라 친영례를 시행했다. 신랑[남편]을 신부[아내]보다 앞세우는 ‘남선여녀(男先於女)’의 관념을 내포한 친영의 의리를 천지·군신의 의리와 동등한 의리로 간주했다.¹¹⁾

『동몽선습』 ‘부부유별’(夫婦有別)에 신랑이 중매를 통하여 신부를 정하고, 폐백(幣帛: 예물)을 드리고 친영을 행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중매를 시행하여 혼인을 의논하며 폐백을 들이고 친영하는 것은 그 구별(區別)을 두터이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내를 맞아들이되 같은 성(姓)은 취하지 않으며, 집을 짓되 안과 밖을 구별하여 남자는 밖에 거처하여

11) 친영(親迎)은 납채(納采)·문명(問名)·납길(納吉)·납징(納徵)·청기(請期)·친영 등 6례 절차이다. 중국의 혼인예법이다.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맞아와 신랑집에서 혼인례를 진행하고, 혼례 다음날 시부모를 뵈고(見舅姑禮) 신랑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다. 『의례』, 『예기』 등에 수록되어 있는 6례는 춘추시대에 마련된 고례(古禮)이다. 송대에는 고례 예문이 변해하다고 보고 『주자가례』에서는 의혼(議婚)·납채·납폐(納幣)·친영 등 4례로 간소화했다. 그런데 이 방식은 한국 전통혼례인 남귀여가혼과 충돌되는 절차였다. 남귀여가혼은 혼인날 신랑이 신부집에서 동침한 후 3일째 되는 날에야 정식 상견례를 하고 신부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다.

안의 일에 대해 말하지 않고, 부인은 안에 거처하여 밖의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¹²⁾

다음은 17세기의 대학자 윤휴(尹鑄, 1617~1680)가 혼인하는 시각을 황혼 무렵에 하는 이유를 설명한 말이다.

“혼인(婚姻)이란 무엇인가? 황혼 무렵에 행하는 예이기 때문에 혼(婚)이라고 하고, 아녀자는 지아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姻)이라고 한 것이다. 예를 황혼 무렵에 행하는 것은 ‘양(陽)이 음(陰)에게 낮추는 뜻’을 보이는 것이다.”

남자가 혼인 의식을 치루러 신부집에 가서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만나는 날 저문 시각에 혼례 의식을 치루는 이유는 양이 음에게 낮춘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 또한 남녀와 부부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남녀(男女)란 무엇인가? 남(男)은 임(任)으로 모든 일을 맡는다는 뜻이다. 여(女)는 여(如)로 남을 따라간다는 뜻으로, 집에 있을 때는 부모를 따르고, 출가하면 지아비를 따르고, 지아비가 죽으면 자식을 따르는 것이다. 부부(夫婦)란 무엇인가? 부(夫)는 부(扶)와 같으니, 사람의 도리로 붙잡아준다는 뜻이고, 부(婦)는 집안 일을 돌보며 남자를 섬긴다는 뜻이다. 처(妻)란 무엇인가? 처는 제(齊)와 같으니, 지아비와 나란히 하는 인격자라는 뜻이다. 이는 천자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다 같은 것이다.”¹³⁾

19세기 경상도 선비 최상룡(崔象龍, 1786~1849)은 혼례를 행하는 의식에서 친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남자는 여자보다 앞서는 것은 강(剛)과 유(柔)의 의리(義理) 때문이다. 하늘이 땅보다 앞서고, 군주가 신하보다 앞서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집지(執贄: 예폐를 가지고 경의를 표함)를 가지고 서로 만나니, 이는 공경함으로 구별을 드러내는 것이다. 남녀 간에 구별이 있는 후에야 부자(父子)가 친밀해질 수 있으며, 부자가 친밀해진 후에야 의리(義)가 생긴다. 의리가 생긴 후에야 예(禮)가 만들어지고, 예가 만들어진 후에야 만물이 편안해진다. 만약

12) 『동몽선습』, 夫婦有別, “夫婦 二姓之合, 生民之始, 萬福之原, 行媒議婚 納幣親迎者 厚其別也, 是故 娶妻 不娶同姓 爲宮室 辨內外.”

13) 『白湖全書』, 제39권, 雜著, 讀書記, 孝經外傳 下.

구별이 없고 의리가 없다면, 이는 짐승의 도리일 뿐이다.”¹⁴⁾

강(剛; 남자)이 유(柔; 여자)를 찾아가 공경하는 예로 맞이하는 것이 친영의 의의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인식으로 부부 사이에서 서로 친밀하기만 하고 공경함이 없으며, 내외(內外)의 자리 구분이 없다면 그 해로움이 결국 부자(父子) 간의 친밀함이 사라지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고 경계했다.¹⁵⁾

이처럼 선비들의 부부 관계 맺기의 기본적인 인식은 사랑이라기 보다는 공경이다. 유가의 가르침은 부부 사이에 ‘사랑하라’가 아니라 ‘공경하라’이다. 부부간에 애정 표현이 아니라 상호 공경이 중시된다. 부부가 친밀(親密)하면서도 삼가 공경(恭敬)하여 부부간의 의리(義理)를 다하라는 인식이 강했다. 공경하는 방법은 ‘예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선비들은 가족 간에 서로 대하는 방법에 관하여, 아버지는 자식을 자애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하라고 하였는데(父慈子孝), 부부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내외(內外)를 구별(區別)하여 공경하라고 했다. 선비들이 어린이 시절에 가장 먼저 배우는 『사자소학』에 “부부의 인륜은 두 성씨가 합한 것이니 남편과 아내는 분별이 있어서 서로 공경하기를 손님처럼 하라.”고 가르쳤다.¹⁶⁾

3. 부부유별의 두 가지 의미

조선 시대에 부부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말은 ‘부부유별’(夫婦有別)이다. ‘부부유별’은 오륜(五倫)의 하나로, 남자로서의 남편[夫]과 여자로서의 아내[婦]가 부부로서 살아가는 데 분별(分別)이 있어야 한다는 뜻

14) 『鳳村先生文集』, 권8, 雜著 ○在邇錄[下], 齊家 下篇, “男子親迎 男先於女. 剛柔之義也. 天先乎地. 君先乎臣. 其義一也. 執摯以相見. 敬章別也. 男女有別然後父子親. 父子親然後義生. 義生然後禮作. 禮作然後萬物安. 無別無義. 禽獸之道也.”

15) 『鳳村先生文集』, 권8, 雜著 ○在邇錄[下], 齊家 下篇, “夫婦之際. 狎而不敬. 無內外定位之別. 其害至於父子不親.”

16) 『사자소학』, “夫婦之倫 二姓之合 內外有別 相敬如賓”

이다. ‘별’(別)은 부부간에 인격적으로 평등하되 각자의 ‘다름’을 지키라는 말인데,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가정 내외의 역할 분별이다. 부부는 가정의 안팎의 일을 분장하기도 하고, 가정 내에서도 남자 할 일과 여자 할 일을 지켜야 했다. 부부 사이에는 인륜상 각각 직분(職分)의 구별이 있다. 분별이란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본분이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본분이 있다는 말이다. 자신은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상대의 본분을 서로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이(李珥, 1536~1584)는 남자가 밖에서 자신의 역할을 바로 하고 여자도 안에서 역할을 바로 하여 부부의 구별이 엄한 것을 집안이 잘 다스려진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¹⁷⁾

선비 집안은 집 안밖의 내외 역할 구분이 있으면서 동시에 집안에서도 내외 역할 구분이 있었다. 선비 가정은 아침에 모두 부지런해야 한다. 선비 가정의 남자 여자는 모두 새벽에 일어나서 머리 빗고 세수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는다. 그리고 남편은 사당으로 가서 위패에 인사하고, 부인은 부엌으로 가서 식사를 준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한 달에 2번, 초하루와 보름에 남자는 사내들을 데리고 사당으로 가서 청소하고 참배하고, 여자는 사당에 올릴 음식 채소를 정리하고 재물을 준비해서 올린다. 이렇게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자녀를 낳아 기르고 교육하는 데에도 아버지로서의 남편과 어머니로서 아내의 본분이 서로 다르다. 아버지는 자녀를 엄격하게 대하고 어머니는 자애로 감싸 주어, 자녀가 강직하고도 따뜻한 인격을 갖추 수 있도록 양육한다.

구한말의 신기선(申箕善, 1851~1909)은 가훈(家訓)에서, “남자와 여자는 안과 밖이 이에 따라 나뉜다. 나뉘는 엄격하지 않을 수 없다. 남자는 밖

17) 『격몽요결』,居家章, 第八, “男正位乎外. 女正位乎內. 而夫婦之別嚴者. 家之齊也.”

에 거처하며 안을 말하지 않고, 여자는 안에 거처하며 밖을 말하지 않는다. 남자는 효도하고 우애하며 예법으로서 안을 이끌고, 여자는 순종하며 어기지 않는다. 여자는 의복과 음식으로 밖을 공급하되, 남자는 그것을 완벽하게 갖추기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다.¹⁸⁾

둘째, 의(義)에 따른 인격적 경계 분별이다. 혼인하면 남녀는 인격적으로 동등해 진다. 선비들은 부부가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분별함이 있어야 부부간의 사랑도 잘 유지된다고 여겼다. 부부 관계 유지의 ‘부부의 의’와 ‘부부의 정’에 기반하는데, ‘부부의 의’란 서로 귀천(貴賤)이 다를 바 없으며, 집안에서 각자의 위치가 있다는 뜻이다. ‘부부의 정’이란 부부간의 애정으로 부부가 화합하는 기반이다. 그러나 선비는 부부는 정(情)에 의한 관계보다 의(義)에 의한 관계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인식했다. 부부가 서로 정(情)에 빠져 언행(言行)에 경계를 지키지 않고 함부로 대하면 인격적, 윤리적 경계가 무너지고, 서로의 인격과 사랑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부도 군신, 부자, 형제, 붕우와 마찬가지로 도(道)와 의(義)의 관계로 보았다. 이에 부부의 도리를 ‘상경여빈’(相敬如賓)이란 말로 표현했다. 부부는 가장 가까운 사이이지만 서로 높여서 늘 공경(恭敬)하기를 손님 대하듯 하여 인간적, 윤리적 경계를 유지하라는 말이다.

전통 유교사상의 관점에서 인, 의, 예, 지, 신의 성(性)을 오상(五常)이라고 하고, 인간관계의 중심을 군신(君臣)·부자(父子)·형제(兄弟)·부부(夫婦)·붕우(朋友)의 도(道) 역시 오상이라고 하였다. 오상은 인간 본성으로서, 부자지인(父子之仁), 군신지의(君臣之義), 부부지별(夫婦之別), 장유지서(長幼之序), 붕우지신(朋友之信)으로 드러난다고 보았다. 부자(父子)간의 친

18) 『陽園遺集』, 권14, 家訓 ○附 箴論, 家約, “有男有女 內外斯分 分不可不嚴也. 男居外而不言內. 女居內而不言外. 男子孝友禮法以率內. 而婦人順而不違. 婦人衣服酒食以供外 而男子不求備焉.”

함(函)과 군신(君臣)간의 의리와 부부(夫婦)간의 분별과 장유(長幼)간의 차례와 봉우(朋間)간의 신의는 곧 천하의 대경 대법(大經大法)이라고 인식했다. 안정복(安鼎福, 1712~1791)은 사람들의 무리의 도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늘에 밝은 도(道)가 있어 그 의류(義類)가 드러났다.[天有顯道 厥類惟彰]” 하였는데, ‘도(道)’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같이 행해야 할 도리를 말한다. 곧 하늘에 지극히 나타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가 있어 그 부자(父子)·군신(君臣)·부부(夫婦)·장유(長幼)·봉우(朋友)의 도리가 드러났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¹⁹⁾

이처럼 부부 관계도 군신, 부자, 형제, 봉우와 마찬가지로 도(道)와 의(義)의 관계로 보았다.

심지어 영조 때 윤우는 “부부지간(夫婦之間)은 군신과 다름없다고 보기도 했다.”²⁰⁾ 구한말의 대유학자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 1798~1879)은 부부(夫婦)를 ‘군신’(君臣)과 ‘화이’(華夷)와 동일한 인식 구조로 이해했다. 그는 “아내가 남편의 지위를 빼앗고, 신하가 임금의 지위를 빼앗고, 오랑캐가 중화를 빼앗는데, 이 세 가지는 천하의 큰 변란으로 옛날에도 있었다. 지금에 와서는 기가 이의 지위를 빼앗으니 기가 이의 지위를 빼앗으면 저 세 가지 변란은 차례대로 온다.”고 하였다.²¹⁾

또한 간재(艮齋) 전우(田愚, 1841~1922)는 부부를 군신(君臣)과 사제(師弟) 관계로 인식하기도 했다. 그는 “임금은 높이고 신하는 낮추며, 남편이 먼저 나서고 아내가 따라야 하며, 스승이 먼저이고 제자가 따른다. 이(理)가 주가 되고 기(氣)가 보조해야 한다. 이것이 임금과 신하의 의리, 남편과 아내의 의리, 스승과 제자의 의리이다. 이러한 의리가 바로 서면 가정 국가 천

19) 『順庵先生文集』, 제11권, 잡저, 泰誓下, 經書疑義 條例不多 諸經合附

20) 『승정원일기』, 영조 10년 갑인(1734) 9월 11일(계미) 맑음

21) 『蘆沙先生文集』, 附錄, 권1, 年譜, 46세 “妻奪夫位·臣奪君位·夷奪華位, 三者天下之大變也, 而古亦有之. 今也氣奪理位, 氣奪理位, 則彼三變者, 是次第事.”

하의 모든 이치가 바로 서고, 이러한 의리가 혼란스러워지면 가정과 국가와 천하의 모든 이치가 혼란스러워진다”고 생각했다.²²⁾

임영(林泳, 1649~1696)는 ‘부부의 분별[明夫婦之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별(別)’ 자의 뜻을 어떤 사람은 ‘남편은 정해진 아내가 있고 아내는 정해진 남편이 있어서 각자 분별이 있어 (외간 남녀와) 서로 문란하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부부 사이에 예의와 공경으로 서로 대하여 서로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한다. 내 생각에는 본래 이름을 붙인 뜻은 앞의 주장이 주가 되는 듯하지만, 뒤의 주장을 반드시 포함한 뒤에야 그 뜻이 미진함이 없을 듯하다. 이 책에 실려 있는 내용을 살펴보건대 진실로 관계가 먼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남녀의 분별을 엄격히 하는 뜻에 참으로 삼가고 조심하여, 서로 친한 부부간일지라도 내외의 분별은 또한 분명하지 않은 적이 없으니 바로 이것이 하나의 증거이다.”²³⁾

이처럼 남녀의 분별을 엄격하게 한다는 뜻이 강조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엄별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아내의 남편 섬기기를 더욱 요구하기도 했다. 심지어 부부 사이의 분별을 강조한 나머지 일상의 거처도 달리해야 한

22) 『良齋先生文集』, 前編, 권6, 書, 與金駿榮, “曩賢弟說蘆碑. 顯有逼拶先賢之跡. 欲著一說以論之. 不知已下筆否. 蓋勉台是吾黨之善類. 不可不相惜. 而亦不容不直言也. 蓋其文謂性命理氣. 舍後儒之繳紛. 而直求諸程朱. 其下繼之曰. 所著猥筆私議理通定字諸篇. 皆所以深懲俗學之弊. 其下又結之曰. 天下大變有三. 妻奪夫位. 臣奪君位. 夷奪華位. 若氣奪理位. 則彼三變者. 卽次第事耳. 今據猥筆觀之. 所謂氣奪理位. 明明直指栗谷先生而言. 然則彼三變者. 皆栗翁爲之本也. 夫既以栗翁爲三變之本. 則其侵斥無復餘地. 而頭腦已判矣. 銘語所謂操戈入室者. 豈非自道其實歟. 吾聞夏之當內. 夷之當外. 待師生而明矣. 君之當尊. 臣之當卑. 夫之當倡. 妻之當隨. 無不待師生而明矣. 至於理之當主. 氣之當檢. 亦必待師生而後明矣. 由是. 師生之義正. 則天下萬法皆正矣. 師生之義亂. 則天下萬法無不淆亂. 而不可振矣. 夫栗谷先生. 非我東方第一大宗師乎. 而蘆沙豈非栗翁之後學乎. 以後學而放言斥師. 若是其率爾. 則弟奪師位. 猶屬歇后. 豈非三變之前. 又一大變也乎.”

23) 『滄溪集』, 권22, 讀書劄錄, 『小學』, “明夫婦之別”. “別”字之義, 或謂“夫有定婦, 婦有定夫, 各有分別, 不相紊亂之義”, 或謂“夫婦之間, 禮敬相接, 不相混狎之義”. 竊意本其立名之意似主於前說, 而要必並包後說而後, 其義方無不盡也. 觀此書所載, 固兢兢於附遠厚別之義, 而雖夫婦得相親者, 內外之辨, 亦未嘗不截然, 則是一證也.

다고 보았다. 이이는 『격몽요결』에서 다음과 같이 남녀의 거처를 엄격하게 구별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예는 부부 사이의 도리를 서로 삼가는 데서 시작된다. 집을 지을 때 안과 밖을 구별하여, 남자는 바깥에 거처하고 여자는 안채에 머물도록 한다. 안채는 깊은 곳에 두고 안채와 바깥채 사이에는 중문을 단단하게 설치해 문지기 아이가 이를 지키도록 하며, 남자는 안에 들어가지 않으며, 여자는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²⁴⁾

부부의 엄별을 기반으로 아내의 남편 섬기기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선비들은 『예기』 <내칙(內則)>을 인용하여, 궁실에서 비(妃)가 황제나 왕을 섬기는 모습을 사대부가로 끌고 들어왔다. 부부 관계를 ‘젊은이가 어른을 섬기고 비천한 이가 귀인을 섬기듯’[少事長 賤事貴] 하라고 가르쳤다. 이이는 『격몽요결』에서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태도를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남자와 여자는 옷을 거는 헛대를 같이 쓰지 않는다. 아내는 남편의 옷걸이에 옷을 걸지 않으며, 남편의 상자에 보관하지 않으며, 욕실을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남편이 집안에 있지 않으면 베개를 상자에 넣어 두며, 남편의 대자리와 돛자리를 보로 싸서 소중히 보관해 둔다. 젊은이가 어른을 섬기고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길 때에도 모두 이와 같이 한다.”²⁵⁾

이처럼 남자와 여자의 공경은 남자가 예의로 공경함을 솔선수범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자는 남편을 공경함에 어른이나 높은 사람을 섬기듯 대하라고 요구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김원행의 <친영시서증>

조선 선비의 결혼관을 가장 잘 나타낸 글이 18세기 대성리학자 미호(漢

24) 『격몽요결』,居家章,第八,“內則曰 禮始於謹夫婦,爲宮室 辨內外 男子居外 女子居內,深宮固門 閨寺守之,男不入 女不出.”

25) 『격몽요결』,居家章,第八,“男女不同櫛櫛 不敢縣於夫之櫛櫛,不敢藏於夫之篋笥,不敢共湑浴,夫不在 斂枕篋 簟席褥 器而藏之 少事長 賤事貴 咸如之. 雖婢妾衣服飲食 必後長者 妻不在 妾御莫敢當夕

湖) 김원행(金元行, 1702~1772)²⁶⁾이 아들 김이안(金履安, 1722~1791)²⁷⁾이 장가갈 때 지아버로 살아가는 데에 경계하는 글을 써준 <이안이 친영할 때 써서 주다>(履安親迎時書贈)²⁸⁾ 라는 글이다. 이 글은 남자가 지아버로 살아가는 데에 경계할 만한 경전 구절을 모은 것으로, 아들이 가장으로서 잘 처신하기를 당부하는 부정(父情)이 깃들어 있다.

첫째, 혼인의 의의를 넘너 관계가 아니라, 가정에 맞추어 규정했다.

“〈혼의(昏義)〉에, 혼례란 장차 다른 두 성(姓)끼리 우호를 맺어 위로는 종묘의 제사를 받들고 아래로는 후대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가 이를 중시한다.”²⁹⁾

둘째, 혼인 의식으로 행하는 친영(親迎)의 의미는 남편이 아내에 앞서서 [先] 아내를 예의와 공경으로 잘 이끌어[率] 부부가 서로 가정에서의 마땅한 정위(正位)를 잡리잡아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하는 뜻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특생(郊特牲)〉에, 혼인할 때 남자가 먼저 가서 여자를 친히 맞이해 오는 것은 강유(剛柔)의 이치에 따른 것이다. 하늘이 땅보다 앞서고 임금이 신하보다 앞서는 것도 그 의미는 마찬가지이다.”³⁰⁾

“『의례(儀禮)』〈사혼례(士昏禮)〉에, 아버지가 친영하러 가는 아들에게 초례

26) 안동김씨로, 김수항(金壽恒)의 증손, 김창집(金昌集, 1648~1722)의 친손자, 종조부 김창협(金昌協)의 아들 김송겸(金崇謙)에게 후사가 없어 양자로 들어갔다. 김원행이 20살 때 김창집이 당쟁으로 사사되어 벼슬하지 않고 학문으로 일생을 살았다.

27) 삼산재(三山齋). 1781년(정조 5) 충주목사, 1784년 지평(持平)·보덕(輔德)·찬선(贊善), 1786년 제주(祭酒)를 지냈다. 성리학자로 예설(禮說)과 역학(易學)에도 『의례경전기의(儀禮經傳記疑)』, 『계몽기의(啓蒙記疑)』 등 저술을 남겼다. 시호는 문헌(文獻). 저서는 『삼산재집(三山齋集)』이 있다.

28) 『미호집(溍湖集)』 권14, 雜著, 履安親迎時書贈

29) 『미호집』, 위와 같은 곳, “昏義曰 昏禮者, 將合二姓之好, 上以事宗廟, 而下以繼後世也. 故君子重之.”

30) 『미호집』, 위와 같은 곳, “郊特牲曰 男子親迎, 男先於女, 剛柔之義也. 天先乎地, 君先乎臣, 其義一也.”

(醮禮)를 행하며 명하기를, ‘가서 도와줄 너의 아내를 맞이하여[迎相] ‘우리 집안 제사’[宗事]를 이어받도록 해라. 힘써 공경으로 (아내를) 이끌어, 네 어머니의 뒤를 잇게 할 것이니 너는 언제나 변함 없이 하라.’³¹⁾

영상(迎相)은 도와줄 아내를 맞는다는 뜻으로, 친영하는 것을 말한다. 상(相)은 돕는다는 뜻이다. 아내는 남편을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이라고 불렀다. 아내를 내조자(內助者)라고도 한다. 이처럼 부부간은 제가(齊家)하는 협력자로서, 서로 공경[敬之]하고 삼가[戒之]하여 대하도록 했다.

셋째, 혼인하면 남녀가 가정에서 각자의 바른 자리를 잡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주역』에, ‘여자는 안에서 위치를 바르게 하고 남자는 밖에서 위치를 바르게 하니, 남녀가 바른 것이 천지의 대의(大義)이다.’”³²⁾

넷째, 남편은 가정생활에서 그 역할이 더욱 크니 자신의 언행을 위엄과 엄격함으로 경계하여, 자신부터 잘 다스려야 식솔이 원망하지 않고 복종한다고 가르쳤다.

“『주역』에, ‘위엄이 있으면 마침내 길하다는 것은 자신을 반성함을 말한 것이다.’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자(程子)의 전(傳)에 ‘효사(爻辭)에 ‘집안을 다스림에는 마땅히 위엄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부자(夫子)가 또 다시 ‘마땅히 먼저 몸을 엄격히 하라.’라고 경계하신 것이다. 위엄이 먼저 자기 몸에 행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원망하고 복종하지 않는다.’”³³⁾

“『맹자』에 이르기를, 자신이 도를 실행하지 않으면 처자식에게도 행해지지 않으며, 남을 부리기를 도에 맞게 하지 않는다면 처자식에게도 행해지지 못한다.’”³⁴⁾

31) 『미호집』, 위와 같은 곳, “土昏禮曰, 父醮子 命之曰 往迎爾相 承我宗事. 勸(勉)率以敬 先妣之嗣 若則有常.”

32) 『미호집』, 위와 같은 곳, “易曰 女正位乎內 男正位乎外. 男女正 天地之大義也.”

33) 『미호집』, 위와 같은 곳, “易曰 威如之吉, 反身之謂也. 傳曰 爻辭謂 治家當有威嚴 而夫子又復戒云 當先嚴其身也. 威嚴不先行於己, 則人怨而不服.”

34) 『미호집』, 위와 같은 곳, “孟子曰 身不行道, 不行於妻子, 使人不以道, 不能行於妻子.”

다섯째, 부부 사이는 사랑과 애정, 친압(親狎; 친하고 익숙함)이 아니라, 존비(尊卑)의 차례와 부창부수(夫唱婦隨)하는 도의와 예경으로 대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어린 나이에 혼인하면 이러한 것이 미숙할까 걱정된다고 경계했다.

“『주역』〈귀매(歸妹) 구이(九二)〉의 전(傳)에, 유정(幽貞)함을 지키니, 부부의 떳떳하고 바른 도(道)를 잃지 않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친압함을 떳떳하다고 여긴다. 이 때문에 정정(貞靜)함을 떳떳함이 변한 것이라고 여기니, 이것이 바로 항구적인 도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³⁵⁾

“정자(程子)가 이르기를, 남녀는 존비(尊卑)의 차례가 있고 부부는 창수(唱隨)하는 예(禮)가 있으니, 이것이 떳떳한 도리이다. 만일 정(情)을 따르고 욕심을 부려 오직 기뻐하는 마음만 일으켜, 남자는 욕심에 끌려 굳셈을 잃고 여자는 기쁨에 빠져 순종함을 잊는다면 흉하여 이로운 바가 없을 것이다.”³⁶⁾

“왕길(王吉)이 소(疏)를 올려 이르기를, “부부는 인륜의 큰 벼리이자 요절과 장수의 싹입니다. 세속에선 시집 장가를 너무 일찍 가서 부모 되는 도리를 알지 못한 채 자식을 낳습니다. 이 때문에 교화가 밝아지지 않고 백성들이 요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³⁷⁾

여섯째, 남자는 장가가서 처가의 덕으로 자신의 부귀와 영달을 도모하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경계했다.

“아내의 재물을 이용하여 치부(致富)하고 아내의 세력에 의지하여 귀하게 된다 해도, 장부의 뜻과 기개가 있는 자라면 부끄러운 일이다.”³⁸⁾

일곱째, 부부생활은 은미하고 긴밀한 일로서 남이 알기 어려운 일이니

35) 『미호집』, 위와 같은 곳, “易 歸妹 九二之傳曰, 守其幽貞, 未失夫婦常正之道。世人以媾狎爲常, 故以貞靜爲變常, 不知乃常久之道也。”

36) 『미호집』, 위와 같은 곳, “程子曰 男女有尊卑之序, 夫婦有唱隨之理, 此常理也。若徇情肆欲, 惟說是動, 男牽欲而失其剛, 婦狃說而忘其順, 則凶而無所利矣。”

37) 『미호집』, 위와 같은 곳, “王吉上疏曰 夫婦 人倫大綱 天壽之萌也。世俗嫁娶太早 未知爲人父母之道而有子。是以教化不明而民多夭。”

38) 『미호집』, 위와 같은 곳, “司馬溫公曰, 因婦財而致富, 因婦勢而取貴, 苟有丈夫之志氣者, 能無愧乎。”

자신이 스스로 언행을 조심하고 서로 지극한 공경심과 엄격함으로 대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경계했다.

“주자가 말했다. “남녀가 가정생활을 하는 것은 인사(人事)의 지극히 비근(卑近)한 것이지만 거기에 도(道)가 유행하니, 이것이 군자의 도가 광대하면서도 은미한 소이(所以)이다. 그러나 어두운 방 잠자리에서도 사람이 혹시라도 설만하게 군다면 천명(天命)이 행해지지 않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군자의 도가 부부의 은미하고 긴밀한 데서 시작을 하면서도 그 극한을 말하면 높고 깊은 천지(天地)에 밝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미를 알고 자신만 아는 부분에 대해서도 삼가는 군자가 아니라면 그 누가 체행(體行)할 수 있겠는가. 『주역』이 건괘(乾卦)와 곤괘(坤卦)에서 시작하여 함괘(咸卦)와 항괘(恒卦)를 중간에 둔 것과 『예기』에서 혼인을 신중히 한 것과 『시경』에서 <주남(周南)>과 <소남(召南)>으로 시작을 바르게 하는 도로 삼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지언(知言)』에서도 ‘도는 음식이나 남녀의 일에 담겨 있지만 욕망에 탐닉하는 자는 그 정미함을 알지 못한다.’ 하고, 또 ‘접하면서도 예가 있음을 알고, 사귀면서도 도가 있음을 알아야 하니, 오직 공경하는 자만이 제대로 지켜 잃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한 것도 이러한 의미이다.”³⁹⁾

“『좌전』에, 밭에서 김 매는 기결(冀缺)에게 그 아내가 들밥을 해왔는데, 공경하여 서로 손님 대하듯이 하는 것을 보고서, 그를 데리고 돌아와 문공(文公)에게 말하기를 ‘공경은 덕이 모인 것이니, 능히 공경한다면 반드시 덕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⁴⁰⁾

“여공 희철(呂公希哲)의 부인 선원(仙源)이 일찍이 말하기를, “공과 부부가 되어 함께 60년을 사는 동안 공은 하루도 얼굴을 붉힌 적이 없으며, 젊어서부터 늙을 때까지 잠자리에서도 장난치거나 웃은 적이 없다.”⁴¹⁾

39) 『미호집』, 위와 같은 곳, “朱子與胡伯逢書曰 男女居室 人事之至近 而道行乎其間 此君子之道 所以費而隱也. 然幽闇之中 衽席之上 人或褻而慢之 則天命有所不行矣. 此君子之道 所以造端乎夫婦之微密 而語其極 則察乎天地之高深也. 然非知幾 慎獨之君子 其孰能體之. 易首於乾坤 而中於咸恒 禮謹大昏 而詩以二南爲正始之道 其以此歟. 知言亦曰 ‘道存乎飲食男女之事 而溺於流者 不知其精 又曰 接而知有禮焉 交而知有道焉 惟敬者能守而不失耳. 亦此意也.’”

40) 『미호집』, 위와 같은 곳, “左傳曰 臼季使 過冀 見冀缺耦 其妻饁之 敬相待如賓. 與之歸 言諸文公曰 敬 德之聚也. 能敬必有德.”

41) 『미호집』, 위와 같은 곳, “呂公希哲夫人仙源嘗言, 與公爲夫婦 相處六十年 未嘗有一日面赤 自少至老 雖衽席之上 未嘗戲笑.”

이상과 같이, 김원행은 남편이 대장부로서 부부 생활을 하는 기본 태도를 잘 정리하여, 아들에게 경계했다. 남자는 혼인하여 아내를 두게 되면, 몸을 바르게 하여 집안에 모범이 되어야 하며[正身刑家], 덕을 닦느냐 훼손하느냐, 집안이 흥하느냐 망하느냐가 혼인에 달려 있으니, 혼인의 시발점을 경계하여 해이해지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⁴²⁾

5. 맺는말

역사적으로 전통적인 한국의 부부관은 권위주의적인 가부장제에 따른 불평등한 가정문화를 형성했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오륜(五倫)을 중심으로 하는 유가의 내용은 단순히 권위주의적인 가부장적 질서를 중시한 것이 아니라, 부부의 쌍무적인 관계로서 인격적 평등과 역할의 다름을 중시하는 것이었다.

조선 선비들의 가정과 부부관은 첫째, 부부간의 애정(愛情) 보다는 부부간의 의(義)와 가정 내의 역할 분담[別], 서로간의 예경(禮敬)을 중시했다는 특징을 보인다. 부부는 사랑을 나누는 관계라기 보다는 ‘제가’(齊家)의 공동 책임자이자 동반자로 인식되었다. 부부의 책무 가운데, 선대(先代)를 계승하는 도리로서 후사(後嗣)를 두고 선조에게 제향(祭享)을 올리며 부모에게 효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둘째, 부부의 도리는 가정과 국가와 천하의 교화(教化)와 풍화(風化)의 근원이다. 부부는 ‘제가’(齊家)의 도를 행하는 행도하는 관계이며 남편이 앞서 그런 행동의 모범이 되어야 했다. 부부 사이도 도의를 행하고 부부가 그렇게 살도록 돕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은 부부는 봉우와 같은 관계성을

42) 『미호집』, 위와 같은 곳, “嗚呼 汝今將有室矣 正身刑家 其端將自此始矣. 書曰 愼厥終 惟其始. 蓋天下萬事有能於其始 而不能於其終者矣 未有不能於其始 而能於其終者也. 夫德之修壞 家之興喪 罔不在今日焉. 余是以爲汝誦古人之言 以儆汝始. 嗚呼安平, 其敬之無怠焉.” 戊午孟冬上旬書.

보이기도 한다. 누구보다 지아비는 가정의 교화를 책임지는 책무를 지닌다. 남편은 부인에게 삼종지도(三從之道; 『儀禮』 喪服)과 칠거지악(七去之惡)을 말하기 전에 남편으로서의 도리와 공경심과 예경을 바탕으로 솔선수범을 중시했다.

조선 선비들의 부부관은 18세기에 김원행(金元行)이 아들에게 써준 <친영시서증>이라는 글 등에 잘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선비가 추구하는 가정은 남편을 중심으로 남자의 일방적인 군림의 상하관계가 아니라 ‘부부 유별’의 관점에서 부부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경하며 서로의 역할의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평화로운 어울림을 추구하는 것이다.

■ 참고 문헌

『주역』, 『예기』, 『시경』, 『중용』, 『맹자』,

『동몽선습』, 『소학』, 『격몽요결』,

『鳳村先生文集』, 『栗谷先生全書』, 『大山集』, 『鹿門集』,

『白湖全書』, 『陽園遺集』, 『順庵先生文集』, 『蘆沙先生文集』,

『艮齋先生文集』, 『滄溪集』, 『溪湖集』, 『推測錄』

정정기·옥선화, 「조선시대 가족생활교육에서 ‘부부유별’의 의미: 간재 이덕홍의 「부부유별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권 6호, 한국가정관리학회, 2011, 185-199쪽.

DOI: <https://doi.org/10.7466/JKHMA.2011.29.6.185>

박진우, 「유교의 은밀한 여성 억압: 부부유별은 평등한 윤리 강령으로 평가될 수 있는가?」, 『동양철학연구』 116권 116호, 동양철학연구회, 2023, 61-85쪽

DOI: 10.17299/tsep..116.202311.61

서은선, 「조선시대 문헌설화에 나타난 부부담론 연구: 외도담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2권 4호, (사)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3225-3238쪽.

■ 국문초록

본고는 조선 선비들이 지녔던 가정과 부부에 관한 인식을 고찰했다. 첫째, 선비들은 부부는 가정의 근간이라고 인식했다. 가정은 부부가 애정 보다는 각자의 위치에서 가정을 위해 자기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공동체로 인식했다. 둘째, 조선 선비들은 가정을 자신이 수신(修身)하는 생활공동체라고 인식했다. 선비는 가정을 자신이 수신(修身)하고 도를 행하는 수신의 터전이고 부인을 대하는 태도는 수신의 시작이라고 여겼다. 부부는 봉우(朋友)와 같이 '선(善)을 권면하고 인(仁)을 돕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 '신독'(愼獨)하는 수양을 주장했다. 셋째, 선비들은 혼인을 통해 인격적 평등과 아내 공경을 표현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선비 가정은 혼인 과정에서 납폐와 친영 등 부부의 인격적 평등의식을 표현하는 의식을 치루었다. 또한 부부는 혼인하면 상호 인격적으로 평등하다고 인식했고, 부부가 상호 공경하는 관계를 바람직하게 여겼다. 넷째, 조선 시대에 부부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부부유별'(夫婦有別)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가정 내외의 역할 분별이다. 부부는 가정의 안팎의 일을 분장하기도 하고, 가정 내에서도 남자 할 일과 여자 할 일을 지켜야 했다. 또 하나는 의(義)에 따른 인격적 경계 분별이다. 혼인하면 남녀는 인격적으로 동등해진다. 선비들은 부부가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분별함이 있어야 부부간의 사랑도 잘 유지된다고 여겼다. 다섯째, 조선 선비들의 부부관은 18세기 김원행(金元行)이 아들에게 써준 <이안이 친영할 때 써서 주다>라는 글 등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조선 선비가 추구하는 가정은 '부부유별'의 관점에서 부부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경하며 서로의 역할의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평화로운 어울림을 추구하는 것이다.

주제어● 수신 공동체, 부부유별, 부부 평등, 부부 공경,
이안친영시서증

■ Abstract

The view of a Joseon scholar's husband and wife

Kim, Moon Joon / Faculty of Humanities and Convergence, Konyang University

Kim, Kwang Hwan / Department of Hospital Management, Konyang University

Song, Hyeon Dong / Department of Global Hotel&Tourism, Konyang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d Joseon scholars' awareness of family and couples. First, the scholars recognized that couples are the foundation of the family. They recognized the family as a community where couples should fulfill their roles for the family from their own positions rather than focusing on affection. Second, Joseon scholars recognized the family as a community where they cultivated themselves. The scholars thought that the family was a foundation for self-cultivation where they cultivated themselves and practiced the Way, and that their attitude toward their wives was the beginning of self-cultivation. They believed that couples should be like friends who "encourage goodness and help benevolence." They even argued the cultivation of "integrity and perseverance" between couples. Third, the scholars believed that personal equality and respect for their wife should be expressed through marriage. During the marriage process, scholar families performed a ceremony to express the sense of personal equality between couples, such as "nappye (The procedure for sending wedding gifts from the groom's side to the bride's side)" and "chinyeong (A ceremony in which the groom goes to the bride's house to hold a ceremony and welcomes the bride)." The scholars also recognized that couples were personally equal when married, and considered a relationship in which couples respected each other to be desirable. Fourth, the most important 'bubuyubyeol (the human rule which has distinction between a husband and a wife)' that explains the relationship between couples in the Joseon Dynasty can be interpreted in two ways. One is the distinction of roles inside and outside the home. Couples divided up the work inside and outside the home, and had to distinguish between what the man did and what the woman did even in the home. The other is the distinction

of personal boundaries based on righteousness (義). When married, men and women become personally equal. The scholars believed that their love between husband and wife would be well maintained when couples respect each other's personalities and have the distinction of keeping their own duties. Fifth, Joseon scholars' view of couples is well expressed in the writing 〈Ian wrote and gave during chinyeong〉 written by Kim Won-haeng (金元行) in the 18th century. The family pursued by these Joseon scholars is the one in which the couple pursues peaceful harmony from the perspective of 'bubuyubyeol' while respecting and honoring each other's personality and acknowledging each other's different roles.

Keyword • Cultivation community, bubuyubyeol, marital equality, respect for spouses, lanchinyongsiseojeung

30-40대 미혼 청년이 전망하는 노년의 삶*

심 희 경 · 홍 은 영**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 방법
4. 분석 결과
5. 결론 및 제언

1. 서론

한국 사회는 현재 초고령화 사회로 전환되었다. 통계청의 2023 고령자 통계에서는 2025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6%로 추정되어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을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앞선 2024년 12월에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¹⁾ 또한 204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중 34.4%,

* 본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2021S1A5B5A17051365)

** 심희경(제1저자)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응용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홍은영(교신저자)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1) 행정안전부-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기록, <https://www.mois.go.kr/frt/bbs/typ>

2070년에는 무려 46.4%로 인구의 약 절반 가량이 노년층으로 구성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²⁾ 즉 한국 사회는 향후 몇 십 년 뒤에는 여러 세대가 다 함께 노년기를 경험하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Schirmmacher는 고령화 현상은 지구촌 어느 국가에서든지 경험하고 있는 21세기 당면과제이지만, 특히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는 시급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³⁾ 한국의 고령화는 전 세계의 귀추가 주목되는 사회적 현상이자 사회적 사실로 조명되고 있다.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는 생산력 및 노동력 감소와 연계되어 사회적 문제로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상당수 연구^{4) 5) 6)}들은 현재 노년층이나 장년층을 대상으로 노년기 삶을 위한 경제적, 육체적, 사회적 자원의 대비와 관리의 문제에 집중해 왔다. 중장년층이나 노년층뿐만 아니라, 청년층 역시 길어진 생애주기의 변화에 따라 이른 시기부터 이들의 노후를 위한 준비 및 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7) 8) 9) 10)} 청년층의 노

2) 통계청-2023년 고령자 통계,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0820&act=view&list_no=427252, 2023.09.26.

3) 프랑크 슈르마허 저, 장혜경 역, 『고령사회 2018』, 나무생각, 2005, 56쪽과 63쪽.

4) 이용재,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특성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권 5호, 한국콘텐츠학회, 2013, 253-261쪽.

5) 이윤경a, 「경제적 노후 준비 실태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4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15-20쪽.

6) 황남희, 「국민 노후준비 실태와 향후 과제: 노후준비 실태조사 결과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6권, 한국노인복지학회, 2018, 182-204쪽.

7) 강유진, 「한국 성인세대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30·40·50대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지』 16권 4호,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05, 159-174쪽.

8) 김정임, 「20대 청년층의 노후인식에 관한 연구」, 국제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9) 어홍실, 「한국 성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 준비와 생활 만족도 및 미래전망에 관한 연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10) 전귀연·배문조, 「성인기의 노후준비의식과 노후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가정과

년기 대비를 위한 관심과 제언이 지속되어왔으나 선행연구들은 주로 양적 연구를 통해 진행되어 왔다. 노후준비 관련 질적연구들은 주로 중년기 미혼여성¹¹⁾이나, 베이비부머 세대나 중년기, 노년기 세대가 주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보고 된다.¹²⁾ 청년층 역시 노년기 삶에 대한 선행적 주지의 중요성과 노후 대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당사자인 청년층이 자신의 노년기 삶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식과 전망이 있는지 살펴보는 질적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청년층의 관점에서 이들이 실제 노년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그러한 고민들과 인식들이 개인의 일상과 삶에서 어떻게 연루되어 있으며, 더불어 개인 및 사회적 차원의 삶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초고령화 사회는 노년 인구의 산술적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변화를 이끌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¹³⁾ 30-40대 청년층은 향후 20-30년 뒤 초고령사회의 주요한 노년 인구로 사회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현재 이들이 경험하고, 이를 통해 유추하는 노년기 삶에 대한 전망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현재 한국 사회의 청년들은 낮은 혼인율과 저출산,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기존의 기성세대와 다른 생애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자발·비자발적인 요인에 의한 개인의 생애과정의 변화는 과거 이들의 부모 또는 조부모 세대와 같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삶의 방식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청년층은

삶의질연구』 28권 1호, 가정과삶의질학회, 2010, 13-24쪽.

- 11) 노연희, 「중년기 미혼여성의 노년 인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7.
- 12) 채은희·박미숙, 「중년기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준비에 관한 탐색적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8권 1호,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19, 203-225쪽.
- 13) 김지혜·조성남, 「고령화 사회의 노인 정체성 형성과 내용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논총』 12권, 이화여자대학교, 2004, 271-297쪽.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형성해 나가고 있으며 이들이 행하는 삶의 선택들은 청년층 본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노년이라는 미래의 삶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청년층의 노후 준비 필요성’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청년층이 자신의 노년을 어떻게 전망하고 인식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고민을 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청년층이 노년기를 어떻게 경험적으로 해석하고 형성하는지를 행위자의 주관적 관점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30-40대 미혼 성인 남녀 6명(남3, 여3)의 심층 면접을 통해 이들이 주관적으로 전망하는 자신의 노년기 삶에 대한 전망과 인식 및 고민의 지형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래 주요 노년기 사회구성원들이 될 청년들의 고민과 노년기 사회에 대한 기대 및 우려를 그들의 관점에서 포착하는데 목표를 둔다.

2. 이론적 배경

1) 30-40대 청년층과 사회변화

한국의 30-40대 청년층은 경제 성장기의 풍족함을 경험한 세대이지만, 동시에 199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 등 유년기에 경제적 불안정성을 개인 및 가족적 차원에서 경험한 세대이다. 이들은 급격한 사회경제구조 및 문화의 변화와 더불어 결혼 및 출산과 같은 생애 과업에 대해 개인의 선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2020년에 1980년 코호트(40세)의 남성 미혼율은 30.4%, 여성 미혼율은 17.3%였고, 1985년 코호트(35세)의 미혼율은 남성은 46.5%, 여성은 29.1%로 나타났다.¹⁴⁾ 한편, 2013년 약 32만 3천 건이

14) 조성호, 「한국의 출생성비 불균형과 결혼성비」, 『보건·복지 Issue & Focus』 449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1-8쪽.

있던 혼인 건수는 2023년에는 약 19만 4천 건으로 집계되었다.¹⁵⁾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회구성원들의 관계 형성은 제도적 가족관계 형성의 축소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변화과정을 바탕으로 그들의 노년기 삶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노년 인구의 증가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측면은 바로 노년 인구의 가구 구성 형태가 가족 단위가 아닌 1인 가구로 전환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¹⁶⁾에 따르면 1인 가구 중 65세 이상 가구주 비중이 2022년에는 26.0%(192만 가구)에서 2052년에는 51.6%로 496만 가구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추산대로라면, 지금의 30-40대는 20-30년 후 절반 이상이 1인 가구라는 형태로 노년기를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30-40대 청년층이 가족관계 형성을 통해 효(孝)나 봉양(奉養)과 같은 전통적 가치관이 배태되어 유지되어오던 사적 돌봄 및 지지의 형태를 구조적으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개인의 선택이 중요해지는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사회구성원들의 미래 삶의 형태를 단정하기 어려우나, 분명한 것은 상당수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형태가 혼자 살아가는 삶에 이어서 혼자 나이 들어가는 삶의 형태로 나아갈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개인들의 생애과정의 변화는 미래의 노년 인구가 될 청년층 개개인의 삶의 변화 뿐 아니라 이들과 공존하는 다른 사회구성원의 삶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2) 노년과 노년기 전망

사회학자 Elias¹⁷⁾는 공개적으로 발생했던 ‘죽어 가는 일’이 현대사회로

15) 통계청-2023년 혼인·이혼통계,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04&act=view&list_no=429995, 2024.03.19.

16) 통계청-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 https://sri.kostat.go.kr/board.es?mid=a10301020600&bid=207&act=view&list_no=432696, 2024.09.12.

17) 노르베르트 엘리아스 저, 김수정 역, 『죽어가는 자의 고독』, 문학동네, 2012.(원

울수록 점차 사적인 성격으로 변화되어 갔으며, 인간의 유한성, 즉 ‘죽어가는 일’이 두려움과 공포로 인식되고,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게 된 상황을 논의하고 있다. Beauvoir¹⁸⁾ 역시 『노년』에서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나, 노인이 된다는 것을 앞당겨 직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노화와 노년기 삶이 생물학적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사회와 사회구성원들과 관계되어 있음을 알리며, “각 집단 구성원들은 노인의 운명은 곧 자신의 미래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¹⁹⁾라고 말한다. 이러한 논의는 현재 노년층의 삶에 대한 조명과 미래 자신의 노년기 삶에 대한 해안적 인식의 필요성을 동시에 제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세대가 아닌 노년 세대의 삶에 대한 관심이 전제가 될 것이다. 청년세대가 노년기 삶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노인에 대한 청년세대의 이미지나 인식을 통해 파악되어 왔다. 노인의 이미지를 부정과 긍정 이미지로 양분하여 노인의 건강, 정서, 지적 능력과 경제력을 살펴본 연구²⁰⁾에서 청년층의 경우 4가지 영역 중 노인의 건강을, 중장년층은 경제력에 대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기에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질 경우 노년기라는 시기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므로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²¹⁾ 한편, 노년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태도를 상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과 미디어의 효과를

저 1982 출판)

18) 시몬 드 보부아르 저, 홍상희·박혜영 역, 『노년』, 책세상, 2002, 12쪽.(원저 1970 출판)

19) 시몬 드 보부아르 저, 앞의 책, 303쪽.

20) 이윤경b, 「비노인층이 갖는 노인 이미지 연구」, 『한국인구학』 30권 2호, 한국인구학회, 2007, 1-22쪽.

21) 김재희·김옥, 「노화불안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년, 중년, 노년 집단 비교」, 『노인복지연구』 68권, 한국노인복지학회, 2015, 187-216쪽.

확인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노인에 대한 건강 문제에 대해 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이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인식을 갖게 되고,²²⁾ 노인 관련 미디어에 대한 관심과 소비를 할 경우 노인을 유능하다고 인식²³⁾하는 등의 결과가 보고되었다. 즉 노년 세대를 단순히 피상적 상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경험하게 될 때, 노년 세대에 대한 이해와 공감,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자신의 노년기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구성원들은 구조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노년 및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논의와 관심을 가지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다. 의료 및 과학기술의 발달과 경제성장으로 평균수명은 길어졌으며 장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이 되어가며, 길어진 수명만큼 살아갈 삶을 위해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은 강해질 수 밖에 없다. 특히나 한국은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령층으로 갈수록 노인빈곤율이 높아짐을 지속적인 뉴스로 사회구성원 개개인은 파악하고 있다.²⁴⁾ 이러한 사회현실 속에 개인들은 노화와 죽어가는 과정에 대해 ‘거리두기’를 하는 대신, ‘노후준비’ 또는 ‘노후대비’라는 측면으로 길어진 수명을 어떻게 더 ‘잘’ 살아갈 것인가에 집중한다. 노년의 삶과 관련된 연구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주로 노후에

22) 최미정·심정신,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8권 2호,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14, 299-306쪽.

23) 조인숙·김도연, 「대학생의 노인 관련 미디어 관심도, 노인 이미지 및 정서와 노인 대상 행동 의향: 바이어스 맵 (BIAS map) 모델의 적용」, 『한국방송학회』 31권 3호, 한국방송학회, 2017, 248-281쪽.

24) 서한기,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 연속 악화’…男보다 女가 더 심각”, <연합뉴스>, 2025.02.03.

25) 이용재, 앞의 논문, 253-261쪽.

26) 이윤경a, 앞의 논문, 15-20쪽.

27) 황남희, 앞의 논문, 182-204쪽.

대한 개인들의 준비 수준을 확인^{25) 26) 27)}하고, 노후 준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는 연구,^{28) 29) 30) 31)} 그리고 노후준비 유형을 분류하고,^{32) 33) 34)} 노후 준비과정 경험을 살펴보는 연구^{35) 36)}들이 진행되어 왔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노년을 앞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노후 준비에 초점을 맞추다가 점차 젊은 세대부터 노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문제제기 하에 청년들의 노후 준비에 대해서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20대의 노후인식에 관한 연구³⁷⁾를 비롯하여, 20대부터 노후교육의 필요성³⁸⁾을 제기하거나, 30-40대 노후준비 프로그램의 필요성^{39) 40)} 등으로 청년층의 노년기 대비를 위한 관심과 제언이 지속되어 왔으나 청년층의 노후 문제는 주로 양적연구에서 진행되어 온 점이 특징이다. Q방법론을 활용하여 밀레니얼 세대의 주관적 노후준비에 관한 인

- 28) 정영옥, 「중고령자의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자녀관련 특성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29) 김지년, 「대학생의 교육적, 사회적, 가정 환경적 요인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노후인식수준을 매개변인으로」, 대구한의대학교 국내박사학위논문, 2015.
- 30) 변진숙·권찬호, 「2차 베이비부머여성의 사회적 노후준비 결정요인 분석: 386·X 세대 (코호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권 4호, 한국정책과학학회, 2016, 173-199쪽.
- 31) 허은진, 「노년층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생활만족도의 관계: 활동적 노화를 매개변수로」, 『GRI 연구논총』 19권 2호, 기본간호학회, 2017, 119-150쪽.
- 32) 권보경,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유형 분석: Q방법론을 활용하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2015.
- 33) 한귀례, 「중년기 노후준비유형 분석 연구」, 동신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2017.
- 34) 김혜지·이영선, 「밀레니얼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한 주관적 인식 연구」, 『주관성 연구』 12권, 한국주관성연구학회, 2019, 27-50쪽.
- 35) 이 남·한정란, 「중년 여성가구주의 노후준비 경험: 직업이 있는 여성가구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7권 1호, 한국노년학회, 2017, 151-171쪽.
- 36) 채은희·박미숙, 앞의 논문, 203-225쪽.
- 37) 김정임, 앞의 논문.
- 38) 어홍실, 「한국 성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 준비와 생활 만족도 및 미래전망에 관한 연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39) 강유진, 앞의 논문, 159-174쪽.
- 40) 전귀연·배문조, 앞의 논문, 13-24쪽.

식 유형의 차이를 짚어내며 유형별 정책적 지원 논의의 필요성 논의한 연구도 있으나,⁴¹⁾ 여전히 노후 준비의 주요 연구 대상은 노년기로 이행을 앞둔 중년기 세대에 집중되어 있다. 방법론적 차원에서 노후준비 연구는 질적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⁴²⁾ 대표적으로 중년기 미혼여성의 노후준비 연구⁴³⁾ 등이 있으나, 청년을 대상으로 한 노후 및 노후준비와 관련된 질적연구는 아직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래 개인의 노년기 삶에서 경제적, 개인적 차원의 노후 준비나 대비에서만 주목하게 될 경우, 개인들이 처한 종합적인 사회구조적 맥락과 일반화된 타자들의 영향, 그리고 그들과 연결된 중요한 타자들(가족, 친인척, 지인 등)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선택 과정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삶의 지형을 놓치게 될 수 있다. 물론 노후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따라 개인들의 노년에 대한 전망이 달라질 수 있지만 개념적으로 노후 준비는 노년 전망과는 차이가 있다. 노년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준비가 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할 때보다 노년에 대해 개인들이 어떠한 전망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이 노년이라는 미래를 전망을 하는데 있어 현재를 기준으로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게 되면 보다 더 행위자 중심으로 입체감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거시적 전망과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면서도 자신의 상황과 자원에 따라 구체성이 달라질 수 있는 개인들의 미시적 전망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⁴⁴⁾ 급격한 변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개인들은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미래 전망이 요구되기도 한다. 미래 전

41) 김혜지·이영선, 위의 논문, 27-50쪽.

42) 채은희·박미숙, 앞의 논문, 203-225쪽.

43) 노연희, 앞의 논문.

44) 진미정·성미애·변주수, 「50~60대 기혼 남녀의 노년기 가족생활 전망: 동거 가족, 돌봄자, 거주지 전망과 관련된 요인 탐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권 1호, 한국가정관리학회, 2014, 27-41쪽.

망은 과거와 현재 및 미래시간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의미하며,⁴⁵⁾ 따라서 노년 전망은 개인들의 과거와 현재 및 노년기에 대한 주관적인 예측을 의미한다. 최근에 청년들의 미래 전망에 대한 연구^{46) 47) 48) 49)} 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미래에 대한 시간적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5년 뒤의 소득계층 상향, 생활 형편, 고용 상태의 안정성, 취업 기회, 행복 정도 등에 대한 변화를 측정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청년들의 노년 전망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30-40대 미혼 청년층이 자신들의 노년기 삶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를 참여자들의 관점을 토대로 현재의 노년기 삶에 대한 인식과 해석 및 미래 노년기 사회 등 다양한 관점에서 참여자들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한다. 청년층이 구성하는 자신의 미래 노년기 삶에 대한 인식과 전망은 아직 경험하지 않은 미래이지만, 과거 자신이 살아온 경험과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노년층의 삶에 대한 주관적 해석과 통찰이 기반되어 구성하는 능동적인 삶의 대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과 대비를 하기 위해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선택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생애사 연구 관점을 참고하여

45) 어홍실, 「한국 성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 준비와 생활 만족도 및 미래전망에 관한 연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46) 박성원·진설아, 「청년 미래 성장 지원 방안의 새로운 관점: 30대 싱글들의 일, 주거, 관계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106호,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9, 67-110쪽.

47) 진미정·한준·노신애, 「20-30대 청년세대의 결혼·출산 가치관의 잠재유형과 한국사회 인식 및 개인적 미래 전망의 관련성」, 『가족과 문화』 31권 1호, 한국가족학회, 2019, 166-188쪽.

48) 이수비·신예람·윤명숙, 「청년의 상대적 박탈감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미래전망과 사회적 고립의 순차적 매개효과」, 『보건사회연구』 42권 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369-389쪽.

49) 김형수 외, 「부모세대 자본이 청년의 미래전망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비수도권별 차이를 중심으로」, 『미래사회1』 14권 3호, 미래사회전략연구소, 2023, 30-46쪽.

청년층의 노년기 인식과 전망을 파악하고자 한다. 생애사 연구는 주로 성인, 대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회의 요구보다는 개인이 사회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가를 보여주며 각 개인들의 경험과 요구에 연구초점을 둔다.⁵⁰⁾ 한 개인이 자신의 노년기를 전망함에 있어 살아온 과거 및 현재와 분리하거나 분절적으로 보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참여자들이 경험한 삶의 맥락을 통해 형성되는 노년기 삶에 대한 전망과 인식을 심층적으로 이해해 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1) 연구참여자와 자료수집

본 연구 대상자들은 30-40대 미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총 6명(남성 3명, 여성 3명)을 심층 면접하였다. 참여자 모집은 연구자와 라포(rapport)가 형성되어 있고, 연구 주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인 참여자 2명과 인터뷰에 참여한 지인의 추천에 의해 참여한 참여자 1명 외에 연구자 지인의 추천으로 본 연구 주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 참여자 3명 등 눈덩이 및 편의 표집으로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은 2022년 7월 25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진행되었다. 인터뷰 시점 당시, 참여자 모두는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있으며, 대학원생 1명을 제외하면 정규직, 공무원, 교사, 전문직 등의 직업에 종사 중이었다. 인터뷰는 참여자의 편의에 따라 참여자 분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진행했다. 인터뷰는 총 1회로 진행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대면을 통해 추가 질문을 진행했다. 인터뷰 시작에 앞서 참여자분들께 연구 배경에 대한 설명과 인터뷰 녹음과 녹취록 작성에 대한 양해를 구한 뒤 녹음하였으며, 연구 참여 동의서로 참여자분들의 연구 활용 동의를 얻었다. 인터뷰는 생애과정에 대한 전반부와 노년에 대한 인식을 다룬

50) 윤택림,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 방법론』, 아르케, 2004, 97쪽.

후반부 인터뷰로 진행하였으며, 주제의 전환과 참여자들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 약 10여분의 휴식 시간이 있었다. 인터뷰 시간은 참여자에 따라 최소 100분 이상에서 최대 180분 이상으로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평균적으로는 150분 내외였다.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성별	출생연도	직업	학력	동거현황	지역	주거현황
A	남	82년	사무직	학사	독립 1인 가구	수도권	자가
B	남	85년	사무직	학사	부모, 누나와 함께 거주	수도권	부모 자가
C	남	91년	학생	석사 과정	독립 1인 가구	수도권	전세
D	여	84년	교사	석사	부모와 거주	비수도권	부모 자가
E	여	76년	교사	석사	독립 1인 가구	비수도권	자가
F	여	82년	공무원	석사	부모, 남동생과 함께 거주	수도권	부모 자가

인터뷰 질문은 반구조화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참여자의 서술과정에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구술하는 지점에 맞춰 개방성을 가지고 진행하였다. 전반적으로 참여자들에게 비슷한 구조의 질문을 하였으나, 참여자별로 생애과정과 경험에 따라 중심으로 나타나는 내용이 상이하여 참여자에 따라 질문을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질문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질문구성은 노년기 전망에 관한 선행연구^{51) 52) 53)}들의 내용들을 참고하였으며, 선행 연구들에서는 진행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보완 및 보충하여 구성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자연스러운 진행을 위해 최근의 일상생활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하였고 전반부 인터뷰인 생애과정에서는 크게 ① 일과 직업, 꿈, ② 가족 관계, 부모님의 결혼관계, ③ 본인 및 가족의 아팠던 경험, 가족 돌봄 경험

51) 김정임, 앞의 논문.

52) 노연희, 앞의 논문.

53) 어홍실, 「한국 성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 준비와 생활 만족도 및 미래전망에 관한 연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등에 관해 질문하였다. 후반부 노년기 전망 관련 질문에서는 ① 노인과 노년기 삶에 대한 인식, ② 노화 경험 및 노화 인식, ③ 본인의 노년기 삶에 대한 대비와 전망, 노년기 자신의 사회적 관계, ④ 미혼자들의 노년기 삶의 전망, 노년기 한국 사회 전망 등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인터뷰 종료 후 연구자가 인터뷰 내용을 반복 청취하며 최대한 그대로 전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이 주관적으로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노년에 대한 정의와 범위, 그리고 인식을 탐색하면서 자신에게 다가올 노년의 삶에 대한 전망과 인식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은 질적연구 중에서도 주제 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은 Merton⁵⁴⁾에 의해 처음으로 명명된 접근으로 많이 활용되어왔지만, 그동안 질적연구⁵⁵⁾에서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었다. Clarke와 Braun⁵⁶⁾에 의하면 주제 분석 방법은 방법론(Methodology)이 아닌 방법(Method)으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 여러 질적연구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주제 분석 방법은 정형화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료 내에서 패턴을 식별, 분석, 보고하는 방법으로 참여자의 경험, 생각 또는 행동을 이해하고자 할 때 적절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⁵⁷⁾ 통상적으로 주제 분석 방법의 과정은 녹음된 자료를

54) Merton, R. K., "Thematic analysis in science: *Notes on Holton's concept*", *Science*, vol. 188, no. 4186, 1975, pp.335-338.

55) Braun, V. & Clarke, V.,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vol. 3, no. 2, 2006, pp.77-101.

56) Clarke, V. & Braun, V., "Thematic analysi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vol. 12, no. 3, 2017, pp.297-298.

57) 최유리·이여진,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응급실 간호사의 인식: 주제분

전부 녹취하여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자료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고, 주제(theme)와 하위주제(subthemes)를 도출하고 다시 텍스트에 적용하여 주제와 하위주제의 의미들을 분석한다.⁵⁸⁾

본 연구는 미혼 30-40대 청년들의 서사 과정과 그 맥락을 통해 이들이 전망하는 노년의 삶 속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고민하고 있는지와 이와 관련된 사회적 맥락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더불어 참여자들의 노년기 삶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전망과 해석이 관통하는 현재적 삶에 대한 사회적 통찰을 파악하고자 하며, 그러기 위해 이들의 생애과정과 현재적 삶, 그리고 미래 노년 전망을 핵심 축으로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4. 분석 결과

[표 2] 분석결과

주제	하위 주제	주요 의미
노년기 경제적 전망과 기대	노후 준비와 변화된 사회가치에 대한 인식	직업이동, 연금확보, 투자 등을 통한 직업 및 소득확보에 대한 고민
	부모와 연결된 노년전망	원가족 관계의 경제적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개인의 노년기 전망
	소비해야 하는 노년	소비가 중요한 시대 인식과 소비를 통해 향유하고 싶은 일상에 대한 지향
노년기 신체적· 정서적 건강에 대한 전망	일상에서 경험하는 노화	노화로 인한 경제활동에서의 위기감 경험
	관리와 통제로서의 건강과 노화	노후대비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건강관리
	신체적 고통에 대한 경계, 건강한 상태까지만 기대하는 수명	혼자서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지고 통제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
노년기 신체적· 정서적 건강에 대한 전망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정서적 어려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외로움에 대한 인 식과 고민, 기술발달에 대한 기대

석방법의 이용」, 『기본간호학회지』 30권 4호, 기본간호학회, 2023, 519-529쪽.
58) 김진옥·권진,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사회정책』 12권, 한국사회정책학회, 2015, 265-302쪽.

노년기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 전망	부모의 노화와 죽음을 예감하며 기획하는 노년	삶의 유한성을 인식한 생애 기획 및 실천
	생성가족 형성에 대한 기대와 고민	생성가족 형성에 대한 기대와 희망 그리고 현실적 한계 인식
	원가족이 아닌 다른 사회적 관계에 대한 지향	원가족과의 의식적 분리 및 가족제도를 넘어선 제도 필요성 인식
참조되는 타인의 노년과 우려되는 노년기	현재 노년층에 대한 인식과 이해	현재 노년층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공감과 본인의 노년 전망
	급격한 사회변화와 우려되는 노년기 삶	급격한 사회변화와 노년층이 경험하는 적응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
	미래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현재의 삶	유지와 지속만으로도 어려운 현재의 삶과 그로 인한 장기적 생애전망의 어려움

1) 노년기 경제적 전망과 기대

(1) 노후 준비와 사회가치 변화

참여자들은 과거 삶의 이력과 현재의 삶을 반영하여 미래의 삶을 전망하였다. 노년기에 대한 전망은 특히 경제적인 전망과 맞닿아 있으며 이는 대체로 현재의 직업(진로)과 미래 직업 계획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들의 직업선택과정은 대학교 학과선택에서부터 가족 및 부모의 영향을 받은 경우(D,E)와 직업적 진로선택 과정에서 부모의 상황과 조언을 통해 희망직종을 변경한 경우(A), 그리고 직접적인 직업적 영향을 받은 부분은 크게 인식하지 않으나 진로선택과정에서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받은 경우(B,C)등이 나타났다. 그러나 참여자 C의 경우 또한 직업적 이동을 위한 학위과정을 밟기 위해 가족의 걱정어린 우려와 이들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편, 참여자 A와 교사직군인 D와 E를 제외한 다른 참여자들은 현재 안착한 직장에 오기까지 몇 차례의 이직과 전직을 경험하였다. 직업적 진로 탐색 및 정착과정은 이들의 생애에서 현재를 기준으로도 중요한 삶의 현장이자 현실로 등장한다. 이들은 자신의 직업과 일에 대한 서사를 구성하면서 자신이 희망했었던 직업적 꿈이나, 기대 등을 함께 설명하는 특징이 나

타났다. 또한 현재 종사하는 직업의 지속에 대해서도 참여자 A와 E를 제외한 나머지 참여자들은 정년이 보장된 직업이어도 이직을 예상하거나(F), 정년퇴직이 어려울 것을 전망하기도 한다(D).

참여자 6명 중 1명(C)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 중 4명은 정규직과 공무원으로 퇴직 후 수령하게 될 연금에 대한 기대가 나타났다. 그러나 종사하는 직업에서 공무원직과 같이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에 속할지라도 자신의 소득이 노년기 생활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할 경우 보장된 정년과 예정된 연금이 있을지라도 이직을 고려하게 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과 주택연금과 퇴직금 이거를 콜라보 시키면 ▲백만원에서 ■백만원 나오게 만들고, 국민연금, 뭐 그렇게 하고”(A)

“저는 계속 할꺼 같지는 않아요.(중략) 65세 이상이 됐을 때, 그래도 매달 나올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면은, 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10년까지는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길을 찾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F)

참여자 A는 자신이 경험한 과거 경험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결혼을 하게 될 시에는 남성에게 ‘집’을 기대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신감을 위해 집을 장만해 두었다고 말했다. 현재 그의 주택 가치는 구매 시점 대비 월등히 높은 금액으로 가치가 상승하여 소위 말하는 ‘성투’ 즉 성공한 투자를 이루었다. 그러면서 그는 투자를 ‘가능성’으로 보며 저축과 부동산 투자의 차이를 설명한다. 참여자들의 노후 준비의 개념 안에는 근로소득 이외의 ‘투자’도 중요한 노후 준비의 일환 중 하나이다. 계약직으로 번역업에 종사 중인 참여자 B는 향후 7-8년 이후에는 현재의 직업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한다. 대신 노년의 대비에 관해 ‘투자’에 대한 관심으로 응답했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 노년 투자에 대한 콘텐츠를 접하면서 기존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주식 투자 등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다시금 의식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가능성’은 언제나

‘가치 또는 가격의 상승’ 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참여자 E는 한 해 전에는 은퇴 후 편안한 삶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나, 인터뷰 시점 당시 부동산 가치의 하락을 경험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노후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고 구술하였다.

“근데, 주식을 왜 하나면, 아파트를 왜 사냐면, 가능성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A)

“몇 살 때부터 얼마를 모았으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55세쯤 되면 보통 정년이 되면 되는데 그때쯤 돼가지고 니가 어렸을 때부터 주식이나 이런 거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투자를 해왔으면 얼마 정도를 벌었을 거라는 거를 이거를 완전 엑셀로 해가지고 (…중략…) 아 그거 보니까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노후 대비를 하긴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최근에 보게 된 거죠.”(B)

“작년까지만 해도 정년퇴직해서 되게 편안한 삶? 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올해는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면서 아, 준비를 해야되겠구나란 생각이.”(E)

사회적 가치의 변화는 개인의 삶에 많은 영향력을 발휘한다. 코로나 이후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사회는 부동산과 주식, 가상코인 등 투자를 통한 자산형성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노후의 경제적 대비를 근로소득에만 의존하지 않고, 부동산 및 주식, 코인 등 투자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실제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의 결과는 전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개인의 ‘책임’ 또는 ‘몫’으로 돌아간다. 우리 사회의 개인들은 어쩌면 ‘가능성’이라는 이중적 불안정성을 통해 거시적인 ‘위험관리’를 개인적으로 헤쳐 가며 사회구조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 및 변동에 대응해가야 하는 상황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부모와 연결되는 노년전망

개인의 노년기 전망은 부모와 같은 가족관계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고려된다. 대체로 참여자들은 미혼이기 때문에 경제적 차원에서

생성가족에 대한 고려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원가족인 부모의 경제적 부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다만 참여자 A의 경우에는 인터뷰 당시에도 부모님께 매월 일정 금액의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은퇴계획에 부모님의 여생과 노후도 함께 고려하면서 삶의 계획을 하고 있었다. 참여자 B는 스스로가 부모님께 짐이 되지만 않는다면 부모님의 노후는 걱정이 없을 것 같다고 한다. 길어진 수명은 청년들이 노년층이 될 미래에도 이들의 부모 역시 함께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부모를 부양하는 경험이나, 돌봄의 경험은 지엽적이었으며, 오히려 부모와 함께 살며 직간접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인 경우도 있기에 부모의 연로함을 언젠간 다가올 막연한 미래로 상정한다. 참여자 A처럼 직접 부모 부양의 경험을 하게 될 때 부모의 노년기 경제 상황과 본인의 노년기 상황을 구체적으로 연계하여 전망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지금처럼만 계속 10년 다니면은 (중략) 저는 그니까 10년 15년 다니면 부모님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는데 제가 뭐 여길 그만둬서 사업을 하면 오히려 그게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A)

참여자E의 경우는 자신을 제외한 형제들 모두 가족을 구성하여 출가한 상태로 현재는 분가하였지만, 부모와 동거한 기간이 길었으며, 부모와 가깝게 살고 있는 큰언니와 함께 일상적으로 밀접하게 부모에 대한 정서적 및 경제적 지원과, 돌봄을 수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부모의 연로함에 대한 이해와 이에 수용이 나타났다.

“어쨌든 어느정도 나이가 되면 부모하고 나를 분리시켜서 생각하게 되는 나이고, 요즘에 그런 시기인거 같아요. 옛날에는 막, 조그만거 일희일비하고 그랬어요. 조금만 엄마가 막 아프거나 막, 지금은 안그래요. 이제 좀 단단해졌나. 그래서 지금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되게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됐다.(중략) 조금 옛날처럼 감정이입되서 생각하진 않는거 같아요. 엄마가, 늙고 있죠. 아빠도 늙고 있고, 근데 볼때는 아 늙고 있구나 되게 그냥 객관

적으로”(E)

(3) 소비해야 하는 노년

참여자들은 노년기 삶에서 ‘소비활동’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참여자 B가 기대하는 노년은 ‘지금보다 더 소비하는 삶’이며, 참여자 F는 ‘소비행위’가 이전 기성세대와 현재 청년세대를 구분하는 중요한 역사적, 경제적, 문화적 분기점으로 인식한다. 경제적 차원에서 노후 준비를 한다는 의미는 결국 단순한 노년기 수명을 지속하기 위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와 같은 ‘소비활동’을 통해 일상의 삶을 ‘향유’하길 바라고 있다. 참여자들은 노년기 삶에서 여유롭게 캠핑(E)이나 여행을 가거나(D), 친교활동을 하고(A,D), 멋진 패션을 향유하며(C), 일만한 소비생활(F)을 지속하기를 기대한다. 만약 노년기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면 다시 일을 해야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지금보다 조금 더 소비하는 삶을 살고 싶긴 해요.”(B)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대에는 전쟁을 겪고, 어떻게든 자녀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아끼고 아껴서 사시는 분들이었고 우리 부모님도 없는 월급에서 아끼고, 아끼고 아껴서 살던 시대라면, 이제 우리 세대는, 사실 많이 아끼지 않아도 되는 세대였으니까, 이게 소비를 한다는 것도 되게, 지금 순간 소비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됐잖아요. 근데, 급여는 그걸 따라가지는 못하고, 점점 노년은 심각해지고”(F)

“여행다니고, 여유가 된다면, 만약에 내가 여유가 안되면 그때도 일을 해야 겠지.”(D)

2) 노년기 신체적·정서적 건강에 대한 전망

(1) 일상에서 경험하는 노화

참여자들의 연령대는 30-40대로 이들은 ‘노화’로 인식될 만큼의 신체적, 체력적 변화를 대체로 공통적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크

게 노화로 인식되는 변화는 주로 외모적 변화와 신체기능의 약화로 파악된다. 외모 변화의 경우 체중 증가, 탈모, 흰머리, 피부 노화 등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신체기능의 경우, 피로함과 피로회복의 어려움, 시력 저하, 소화기관 약화, 감퇴하는 기억력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참여자 E와 F처럼 실질적 건강 상태의 변화를 경험하는 참여자도 있었는데,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늘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해와 신체적 변화가 전제된 삶을 예상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신체적 노화로 여기는 증상 중 ‘기억력’은 직업과 관련하여 업무적 긴장감을 형성하게 되기도 한다. 참여자 A는 지속적인 기록과 정보관리를 계속해 나가고 있었다. 참여자 E의 경우 교사라는 직업적 특성상 정보전달 과정에서 기억력이 매우 중요하기에 기억력을 노화에 큰 경계해야 될 사안으로 보고 있었다.

“잔병은 많아요. 뭐 허리, 무릎 아프고 나이드니까 막 아침마다 아 너무 아프다, 이렇게 사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 할 때 있어요.”(E)

“이전까지는 별로 생각을 안해 왔는데, 요새는 좀, 아, 내 노년이 어떻게 될지 걱정을 좀 했던거 같아요. 이렇게 흰머리도 늘고, 주름도 많아지고”(F)

“일단, 어, 메모는 엄청해요. 중요한 건 메모는 엄청해요. 회사에 달력을 보면은 다 빼곡해요 스케줄 빼먹지 않을려고.”(A)

“기억력, 그게 노화에 되게 큰거 같아요 두려워요 그래서. 몸은 아프면 그만인데.”(E)

(2) 관리와 통제로서의 노화

참여자들은 노화를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으로 인식하면서도 ‘관리’를 통한 대응과 대비의 필요성을 느꼈고, 관리의 크게 ‘영양제 섭취’와 ‘운동’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A, C, F는 건강을 위해 운동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참여자 C의 경우 운동과 더불어 영양제도 함께 섭취 중이었다. 참여자들은 노후대비 일환으로 건강을 관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참여자 F 역

시 체중 관리를 위해 시작한 운동에서 건강을 위한 운동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며 운동을 꾸준히 한다는 자체가 노년을 위한 준비로 나타났다.

“지금 운동하는 거 뿐만 아니라 뭐 영양제 챙겨 먹는 거, 또 그걸 제가 왜 챙기냐면은 이게 건강할 때 그걸 챙겨야지 되고 이미 그걸 건강을 잃었을 때 영양제 백날 먹어봤자 소용없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챙겨 먹는 것도 있어요.”(C)

“그래서 어느 순간 살을 빼야지 가 아니라 아 운동을 해야지, 운동 자체가 목표가 된거라서, 좀 그 앞으로는 좀 꾸준히 해야 되는거 같아요. 운동을 꾸준히 한다는거, 그게 내 노년을 위한 준비이고.”(F)

(3) 건강한 상태까지만 기대하는 수명

참여자들의 예상 수명은 대체로 평균 수명을 전후하여 예상하는 편이다. 참여자 중에는 100세 시대라는 수명의 변화를 언급하며, 길어진 수명과 더불어 젊음을 지속할 자신감을 보였다(A). 그러나 모든 참여자들이 길어진 수명에 대해서 긍정적이기만 하지는 않는다. 참여자 D는 현재의 한국 여성의 평균 수명인 86세보다 낮은 80세를 자신의 예상기대수명으로 응답했다. 노년기 시점에서 노환으로 거동이 어렵거나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대한 우려를 넘어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자신 없음’을 밝힌다. 참여자 F 역시 건강이 전제되지 않은 장수를 ‘벌’로 여기며 자신의 몸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 대한 강한 경계가 나타나며, 의식적으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나타났다. 참여자 C는 100세 수명을 희망한다고 말하지만, 신체적 고통에 대한 강한 부정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자신의 온몸을 통제할 수 없음에 대한 우려와 연결된다.

“내가 그 이후에도 내가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면서 건강하게 살 자신은 없어”(D)

“근데 내가 건강하지 않을 때까지 내 몸을 끌고 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그것도 별인 거 같아요. 내가 이렇게, 내가 내 몸을 제대로 컨트롤 할 수 없거나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목숨을 어떻게 보면 연장을 하는 거잖아요. 사회적인 그런 어떤 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데도 이렇게 하루 하루 눈뜨고 감고 눈뜨고 감고 그런거는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은거 같아요.”(F)

“노년이 되면 아프다는 거는 뭔가 전제가 돼 있잖아요. (…중략…)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 상태가 좀 싫다고 평소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무의식중에 한 거 같아요. 온전히 제 온몸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으면 좋겠던 거 같아요.”(C)

참여자들은 자신의 수명을 건강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만 고려하고자 한다. 즉 기대수명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신체적 고통과 일상의 어려움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희망한다. 이는 스스로 자신의 신체와 개인적 상황을 ‘스스로 책임져야만 된다’는 강한 의지의 발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개인이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극도의 거부나 좌절감 형성 등으로 나아갈 수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년기 삶과 죽음이라는 과정을 가깝게 접촉할 수 있는 관계는 주로 친족 관계에서 이루어질 때가 많다. 부모와 조부모 등 가족관계 내에서 노환, 질환, 투병, 죽음 등에 대한 경험은 주변과 자신의 삶과 죽음, 그리고 노년기에 대한 주관적 견해나 가치관 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저요, 80살 정도로 생각을 해요. 지금 내 몸 상태로 보자면 왜냐면은 의학은 좀 더 발전할꺼 같고 근데 골골되면서 죽고 싶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진짜로 너무 싫어요. 골골 되면서, 고통스러우면서, (중략)이제 뇌출혈이라고 해야 되나, 풍이라고 하죠. 풍, 그건 친가 쪽에 좀 있기는 하거든요. (중략)할 아버지가 특히 말년에 그러신 거라고 제가 어렵פות이 들어가지고.”(B)

(4)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정서적 어려움: 외로움

참여자들은 자신의 수명을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까지만 생각하고 싶어 하며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 차원에서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가족관계

형성이나, 서비스, 과학기술 등을 통해 도움 받거나 의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자 B는 본인은 ‘외로움’을 잘 타지 않는 성격으로 설명하면서도 노년기에 우려가 되는 부분으로 ‘외로움’을 언급하며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또한 미래 정서적 어려움이나 외로움, 쓸쓸함에 대한 우려는 생애전망에서 ‘결혼’에 대한 기대로 연결되기도 한다. 참여자 C는 함께 하는 누군가의 존재만으로 노년기 삶에서 위안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참여자 D는 AI로봇이 향후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의 대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단순한 대화를 넘어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줄’ 상호작용의 수준으로까지 고도화되어 정서적 돌봄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결혼이란 건 정말 말 그대로 지금 서로 의지할 상대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정서적인 것도 포함이 되지만, 나중에 노년이 됐을 때 내 옆에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중요한 거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디 막 아프거나 할 때 그냥 옆에서 혼자 있으면은 좀 쓸쓸할까 같긴 해요.”(C)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혼자 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 외로움을 느끼잖아 사람은. 근데 이제 그런 감정적인 것까지 보완을 해줄 수 있는 로봇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중략)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단순 대화를 하는 것에 벗어나서.”(D)

노년기의 건강함은 행복한 삶에 대한 지향과 연계된다. 참여자 C는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대체로 운동과 영양제 섭취 등 관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지만, 달리 말하면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신체적 ‘노화’는 아직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낙관하는 경향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반면, 연령과 상관없이 경험하는 정서적 어려움은 경험 가능성이 더 크고, 필요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냥 건강하게 잘 살다가 제가 이 행복, 진짜 행복이라는 말을 뗄 수가 없

는거 같은데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건강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디 안아프고 그냥 기력 있게.”(C)

3) 노년기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 전망

(1) 부모의 노화와 죽음을 예감하며 기획하는 노년

부모의 노화는 참여자들에게 부모의 삶과 자신의 삶과의 관계, 노화 및 죽음 등 복합적인 생애전망을 함께 고찰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참여자 B와 D는 연로해지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 나이 들어간다는 것과 부모와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다가올 자신의 노년기를 고려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각자의 상황과 성향, 그리고 생애과업에 대한 기대에 따라 삶의 계획들을 구상한다. 조부모라는 역할을 부모가 경험하지 못할 가능성과 ‘효’라는 가치관을 토대로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거나(A), 부모의 유한한 삶을 인식하며 자신이 받았던 사랑을 보답의 형태로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나타났다(C). 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아픈 채로 혼자 살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되면 존엄사까지 고려하는 모습(B)도 나타났다. 참여자 E는 부모님과 함께 하는 삶이 유한함을 인식한 뒤 혼자 살아갈 상황을 전망하여 독립을 강행하였다. 부모님의 권유로 독립을 계획 중인 참여자도 있었으며(D), 부모님과의 일상 중 문득 홀로 있게 될 가능성을 떠올리며 외로움에 대한 인식과 전망(F)이 나타났다. 즉 참여자들에게 부모님은 본인의 노년기를 전망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가 커서 할아버지 할머니 인지하는 순간, 한 4살, 3살 되잖아요.(…중략…) 그거를 못보여 드리고 돌아가시면 아들 장가가는 거 못보지, 손녀, 손자가 태어나는 것도 못보지,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도 못들어보지, 그러고 눈을 감는다? 이게 효도가 아니다.”(A)

“지금 생각에는, 계속 앞으로 계속 미혼이고,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부

모님 전에는 죽을 생각은 없을 꺼 같구요 그건 진짜로 말도 안되는 불효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몸을 도저히 간수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그러면 그럴꺼 같아요.”(B)

“나도 그럼 만약에 엄마 아빠 없으면 저렇겠다. 저게 내 모습이구나. 나도 나중에 저렇게 생활 무능력자가 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어쉴이 굉장히 형편없는, 그런 삶의 질을 누리다가 내가 죽겠구나, 나도 이제 생활기술을 좀 익혀야겠다. 젊었을 때.”(E)

“이게 내가 나이가 들어서 만약에 결혼을 안하고 나 혼자 있게 되면은, 지금도 이렇게 외로운데(웃음) 그나마 엄마 아빠 모시고 가고 뭐 하니까 그나마 낫지, 만약 혼자 살았으면 너무 외로웠을거 같은데 나이가 들고, 생각하는데, 혼자 있는데 어디 가고 싶은데, 못가요. 어, 그러면은 되게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산책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나보다.”(F)

(2) 생성가족 형성에 대한 기대와 고민

미혼 인구의 고령화는 특히 배우자, 자녀 등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채 노년의 삶으로 다수의 인구가 함께 고령, 초고령 노년기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회적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이 생성가족을 형성하지 못할 경우, 혈연적, 사회적 관계의 대폭적인 축소 또는 부재 또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대체로 결혼이라는 생애 사건을 기대하고 있었다. 참여자 A, C, F의 경우는 결혼에 대해 계획하고 있었으나, 당시 교제 중인 사람은 C만 해당된다. B의 경우 비혼주의자는 아니며 결혼을 하는 것이 삶에서 낫다고 인식하지만, 자신의 생애 기간 중 미혼일 가능성도 높게 인식하며 삶을 전망하고 있었다. D와 E의 경우 결혼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나, 만약 결혼을 하고 싶은 배우자감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 결혼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A와 F는 자녀 출산을 전제로 결혼을 예상하나, B의 경우 만약 결혼하게 된다면 아이는 전적으로 아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말한다. D의 경우 만약 결혼을 한다면 아이가 없이 남편과 둘만의 삶을 지향한다. 아버지의 병환과 치료과정을 거치면서 가족과의 협

력과 상호의지를 경험한 참여자 F는 ‘관계의 부재’에 대한 인식과 함께 자신의 삶에서 감정의 교류와 돌봄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가족’형성을 고려하게 된다.

“이게 쪽 돌이켜보면은 결국에는 가족이 있긴 있어야겠다라고, 혼자서만 살기에는, 사실 뭐 내가 잠만 자고 밥만 먹는게 아니라 어떤 감정적으로도 교류가 돼야 되고, 힘들고 아플 때도 나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한 건데, 어 근데 만약에 내가 나 혼자 있는 상태에서, 나 혼자 아팠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내 몸이 아픈것도 서러운데, 그런 생각을 나중에 돌이켜보면서 하게 된.”(F)

자녀를 기대하는 참여자 A는 자녀를 자신의 삶의 ‘도움’과 ‘대비’로 보기도 한다. 자식을 통한 그의 대비는 경제적 대비, 돌봄의 대비가 아니라 ‘관계’의 대비를 의미한다. 자녀의 유무는 향후 노년기 삶에서 동년배 간의 큰 삶의 차이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며 자녀의 유무가 이들 간 삶의 ‘괴리’로 예상한다. 한편, 자신의 인생에서 자녀가 부재할 것을 예상하는 참여자 E는 노년기에 치매와 같은 건강 이상이 발생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홀로 살아갈 노년기 삶에서 마주하게 될 예상되는 어려움 중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대우’와 문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낼 수 있는 상황은 두려움을 넘어 공포 그 자체가 된다. 참여자 D는 ‘자식’의 책임으로서 ‘부모 봉양’에 관한 시대는 막을 내린 것으로 보며, 자식에게 무언가를 바라기보다는 자식을 위해 끝까지 무언가를 해 줄 수 있는 부모의 역할과 책임에 더 집중한다.

“재미, 개네(자녀)들한테 바란다는 게 아니라 개네들이 이제 놀러오면 말벗이 돼주잖아요. 근데 결혼을 안 하고 그냥 늙어버리면 뭐 이렇게 동호회에서 골프 동호회에서 70대끼리 만날 수 있는데 끝나고 나는 집에 들어가면 혼자잖아요. (…중략…) 70대 이상이 되면 그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상당히 그게 괴리가 클 거 같아요. 되게 부러워 할 거 같아요.”(A)

“그것만 안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게 없을 때, 내가 모르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게 굉장히 두려워요. 저는 자식이 없으니까 그게 두려

워요. 자식이 있으면 내가 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그러면 그럴 때 개가 좀 대신,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식이 없으니깐 오롯이 저의 책임인데, 제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 이거는, 뭐 내가 일어난 일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거 굉장히 큰 공포예요.”(E)

“근데 점점 사회가, 흘러갈수록 부모 봉양에 대한 자식의 책임이 점점 열리는건 맞는거 같애. 그래서 너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 내 인생을 책임져라 라는 시대는 끝나지 않았나.(…중략…) 부모는 결국 자식한테 뭘 해주는 건 내 삶을 책임져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를 덜 먹고 덜 쓰면 내 자식이 편하게 살 수 있으니, 그런 의미, 내가 보는 관점은 그런 의미라는 거지.”(D)

생성가족 형성을 기대하는 참여자의 경우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사람으로 배우자(C), 가족(F) 등을 떠올렸다. 이들은 또한 노년에 내 옆에 있어 줄 사람으로 자신의 생성가족 뿐 아니라 원가족이 형성한 가족까지 확대하여 인식하며 노년기에도 이들과의 관계 유지를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향후 인구변화로 인해 가족 간 도움과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예상하기도 한다(F). 그러나 가족형성에 대한 전망과 의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노년기에 가족들의 도움을 원치 않기도 한다. 참여자 A는 자신의 노년기에 배우자와 자식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지만, 노년기 병환 시에는 가족의 도움이 아닌 ‘간병인’을 고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족에게 도움을 받지 않을까요? 근데...이제 우리 시대 때는 가족한테 도움을 받는 거를 기대를 할 수가 없을 거 같애요. 이 나이 때 50프로가 싱글이라면 사실, 십 년 안에 결혼해서 애 낳을 확률이 그렇게 많다는 생각은 잘 안들거든요.”(F)

“나는 결혼 안 했지만, 배우자 생겨도 그러고 싶(지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A)

(3) 가족이 아닌 다른 사회적 관계에 대한 전망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형성기대가 뚜렷하지 않은 참여자의 경우 미래

자신의 삶에서 형제·자매 등 독립한 원가족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리하는 모습이 나타났다(D, E). 참여자 D는 노년기에 자신의 상황과 삶의 패턴이 유사한, 결혼이라는 가족을 형성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예상한다. 그러나 그녀는 노년기에 도움을 줄 사람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며 가족이나 요양병원, 요양원, 실버타운 등 기관의 도움을 예상하고 있다. 참여자 E 역시 현재 가족관계에서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한다고 응답했지만, 본인의 노년에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옆에 있어 줄 사람도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과거에 노년기에 혼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참여자 B는 누나가 데리고 온 고양이 두 마리와 지내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노년을 전망하기도 한다.

“어차피 그런 기관의 도움은 받아야겠지 뭐.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이 라든지 실버타운이라든지 뭐 그렇게.”(D)

“도와줄 사람도 없을 거 같구요.”(E)

“요새는 반려동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새는.”(B)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노년기에 노년층의 미혼 인구가 양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혼 인구의 노년기 모습에서는 취미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커뮤니티(B),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나, 지인 간 근접한 거리에서 모여 사는 주거형태에 대한 예상(A, D, F)등이 나타났다.

“근데 어차피 미혼자 입장에서 어떤 커뮤니티 쪽에 소속감 같은게 인터넷 커뮤니티든, 오프라인 커뮤니티든 소속감 같은게 생길려면은 무조건 취미라고 보거든요.”(B)

“30대까지 50퍼센트가 결혼 안하는거 보면은 이게 70대 가면 40퍼센트 결혼안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디가서 노느냐? 그사람들이 뿔뿔히 흩어지는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유치하는 대규모의 그런 단지가 만들어지는데, 그거는 서비스 특화여가지고, 지금도 좋은 아파트 가면 커뮤니티 시설이 있잖아요.”(A)

참여자 E는 가족의 축소를 바탕으로 장레나, 동반자법과 같은 친구나 이웃 관계의 법적 인정이나, 이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말한다. 주변에 혼자 사는 친구들이 향후 서로를 보호할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럴 경우 제도적으로 서로를 보호할 장치가 없음을 말한다. 또한 그녀는 앞서 노년기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으로 전망은 하지만 ‘사회적 시스템’에 의한 도움 즉,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해서는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가족이 없는데, 왜 도대체 가족한테 그렇게 목을 매고 그 사람들한테 책임지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E)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잘 케어를 할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할 시기가 왔을 때, 어떤 사회적으로 시스템을 갖춰놓고 사람들을 좀 케어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게 문제 아닐까.”(E)

4) 참조되는 타인의 노년기와 우려되는 노년기

(1) 현재 노년층에 대한 인식과 이해

참여자들은 현재 노년층의 삶을 통해 노년기 삶에 대한 인식을 구성한다. “빈곤 노인층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과 내 미래자녀의 노후까지 염려되는 삶”(E),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외로워 보이고, 홀로 있게 될 가능성이 높은 노인층”(F), “나라 발전에 헌신한 부모세대에 대한 사회공로 인정 필요”(E), “내 할머니의 모습이 보일 경우 모르는 타인에게도 느끼게 되는 친밀함”(C) 등 노년층에 대한 자신들의 인상과 주관적 해석들을 설명함으로써 노년기 삶에 대한 경계, 공감, 모르는 타인에 대한 친밀감,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와 인정의 모습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참여자들은 현재 노년층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본인의 미래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애가 뭐든지 일을 하면서 나중에 노후가 보장되고 그런, 복지가 되어 있는

나라로 가고 싶다.(중략) 예를 들면 북유럽식, 복지가 되어 있는 왜냐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이 너무 심한거 같아요.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 느끼거든요. 저도 나중에 노인 빈곤층이 될 수 있으니까.”(E)

“엄청 외로움, 외롭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던거 같아요.(중략) 맥도날드 가서 아침을 먹으려고 하다가 깜짝 놀란게 거기 할아버지들이 오셔가지고, 신문을 딱 펴고 맥모닝을 드세요. (중략) 남들이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좀 여유있어 보일지는 몰라도. 아무리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든, 혼자 있으면은, 그리고 노인은 사실 혼자 있을 확률이 더 많잖아요.”(F)

“나라에서 좀 책임져줘야 되지 않나, 노후를 좀 신경써야 될 꺼 같다. 그것도 좀 세세하게 지금처럼 하지 말고 조금, 단계서 나눠서 케어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될꺼 같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노인들은 자식을 키우느냐고, (중략) 자기 모든 걸 투자해서 자식들 키우잖아요. 그랬으면 사회가 이 정도로 잘 살게 컸으면 노인들을 좀 케어 해야 되지 않을까?”(E)

“어떤 사람을 봐도 제가 별로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랑 매치가 안되는 사람이면은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보여요. (중략) 그냥 갑자기 문득 봤는데 어, 우리 할머니, 보고 싶다. 할머니랑 우리 할머니가 만약에 저분이 있으면은 내가 당연히 비켜드려야지 자리를, 아니면은 뭐 도와드려야지 이런 식의 연상이 되는거 같아요. 친밀감을 느끼는거 같아요.”(C)

(2) 급격한 사회변화와 우려되는 노년기 삶

참여자들은 자신의 노년기를 위해 투자를 하거나, 건강관리를 통해 행복과 삶의 질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건강을 상실한 채 길어진 수명에 대한 고민과, 원활한 소비를 영위하기 어려운 경제력의 약화, 그리고 경제적, 활동적 삶을 희망하지만 쇠약해져 가는 신체적 한계에 대한 우려 등 노년기 삶에 대한 염려 역시 공존하고 있다.

“건강하지 않고,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고 내가 뭐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들어갔을 때 내가 그분들의 삶을 봤을 때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야 굳이 저렇게 하는게 의미가, 큰 의미가 있을까란 생각이 드는거지.”(D)

“제가 퇴직을 해도 일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은 일을 해야

사니까, 근데 몇 살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70대까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근데 제가 이제 40대 후반 들어서는데, 몸이 너무 좀 아프거든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몸의 변화가 느껴져요.(E)

참여자 F는 노년층이 공적관계 속에서 ‘소비자’ 또는 ‘구매자’로, 혹은 길 위의 ‘일반 시민’이나 ‘타인’이라는 사회구성원으로 사회적 교류를 하게 될 때, ‘반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음을 언급한다. 노년층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일반 성인으로 간주하게 될 경우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일방적 적응이 요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녀는 일흔 무렵인 부모님의 일상에서 별 무리 없이 활동을 하시지만, 그러다가도 신체활동에서의 상시적 위험(넘어짐)이 나, 키오스크 사용 등과 같이 변화된 사회 시스템 적응에 있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말한다.

“노년은 사실, 반기는 사람이 잘 없는 거 같아요. 이게 자식들은, 부모가 나한테 해줬으니까, 해준 그런 게 있으니까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호의적으로 할 수 있는거지만, 노인이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뭘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뭐 주문, 하나부터 주문을 하는 거 자체도, 요즘에 접지가 않더라구요.”(F)

(3) 미래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현재의 삶

참여자 D는 “지금 삶이 너무 빠빠하고 힘들어서”라며 바로 오늘, 내일이 아닌 “10년, 20년 후”의 일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현실적 상황을 말한다. 30-40대 청년층은 자아실현과 사회적 재생산이라는 생애과업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 삶의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 등의 개념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애과업의 고도화는 이들이 이미 성취한 생애 과업을 지속 또는 유지해 나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팍팍한 일상이기에, 그 다음 단계의 과업에 관해 계획하거나 전망하기 어렵게 할 가능성 역시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근데 사실은, 지금 삶이 너무 빠빠하고 힘들어서 10년 후 20년 후 이런 거를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는거 같애.”(D)

5) 소결

참여자들은 본인의 경험 및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가족, 친인척 등 현재 노년층이 경험하는 삶의 어려움을 비롯하여 미래 사회의 모습까지 복합적으로 참조 및 투사하면서 자신의 미래 노년기 전망을 구성한다. 주요 부상한 주제들은 경제적 차원, 건강 차원, 관계적 차원을 비롯하여 타인의 노년기 삶에 대한 참조 등이 나타난다.

참여자들의 서사에서 주요하게 부상하는 첫 번째 주제는 현재와 미래의 삶의 질 유지 및 개선을 위한 경제력 확보에 대한 관심이다. 경제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연금 확보, 직업이동에 대한 계획 및 은퇴 이후에도 노동할 다짐 등이 나타난다. 한편, 코로나 19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 폭등, 코인 투자 등 급격한 사회변화를 경험하면서 참여자들 대부분은 근로소득 이외에 ‘투자’를 통한 소득 창출 경험 또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기획하는 노년기 삶에서 소비는 중요한 사회적 행위로 간주되는데, 현재와 같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소비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경제력 확보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들은 치솟은 물가, 적은 임금, 길어진 수명과 생애 전망을 위해 보다 더 많은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투자’와 같은 다양한 출구를 모색한다. 그러나 투자의 결과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종국에는 개인의 ‘몫’이나 ‘책임’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 주제는 신체적·정서적 건강에 대한 부분이다. 참여자들은 길어진 생애, 즉 수명의 장기화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대 및 우려를 동시에 하고 있다. 100세 시대라는 생애적 변화를 인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재 초고령기를 보내고 있는 친인척 및 현재 노년세대의 삶을 바탕으로 자신의 노년기 생애기간에 경험할 수 있는 ‘고통’에 대한 우려와 경계를 표

현한다. 이들은 각자 희망하는 기대수명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스스로 혼자서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상태’까지만 이라는 강력한 가치관이 등장한다. 참여자들은 노화나 노쇠의 과정으로 경험하게 될 타인의 돌봄을 필수적으로 경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부모의 부재 이후에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경우 혼자라는 전제하에 존엄사까지도 고려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혼인을 기대하고 계획하는 참여자 역시 배우자나 자식에게 자신의 돌봄을 맡기고 싶어하지 않으며, 혼인하지 않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참여자들 역시 원가족(형제, 자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임에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실버타운 등의 기관에 위탁하거나, 사회복지 시스템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신체 및 일상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지만 불가피하게 타인, 또는 과학기술(AI)의 도움을 받을 필요를 느끼는 영역인 ‘외로움’이라는 정서적 어려움을 예상한다.

세 번째는 관계적 차원에 대한 전망이다.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개인화라는 사회변화의 측면에서 개인의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관계형성적 측면은 한 개인의 ‘선택’만으로 기획되거나 구성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주지해야 될 것이다. 이미 참여자들은 자신의 생애에서 혼인과 출산이 부재할 가능성을 함께 인식하고 있으며, 그런 미래가 현실화될 것을 예상하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 혹은 동료, 친구 등과의 관계 형성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전망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미래 노년기 삶에서 새로운 형태의 관계 형성과 주거공간, 사회적지지 관계 확보에 대한 모색을 시도하고 있다. ‘뉴 에이징’으로서 미래 노년기 삶과 주거환경의 변화를 제안한 Matthias Hollwich와 Bruce Mau Design⁵⁹⁾는 달라진 삶의 형태에 맞게 고립되지 않으며 사회적 활동 및

59) 마티아스 홀위치·브루스 마우 디자인 저, 한정 역, 『뉴 에이징』, 청미, 2017.(원

참여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혼인 및 출산율의 저하와 현재 청년층을 비롯한 중장년층, 노년층의 중층적 고령화로 인해 기존의 사적관계로 유지되어 왔던 관계망은 재편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즉 가족관계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계들을 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이 필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현재 노년층이 경험하는 장기화된 노년기 삶을 통해 이들이 겪는 여러 어려움을 인식한다. 현재 노년기 삶을 살아가는 노년세대는 길어진 생애뿐 아니라, 변화된 경제구조, 사회문화, 관계의 변화 등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주체이다. 노년층이 겪는 현실이 참여자들 역시 노년층에게 있어 삶에 큰 도전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이처럼 현재의 노년층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본인의 노년기에 대한 우려로 연결되지만, 미래를 생각할 겨를없이 현재의 삶을 살아 나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30년 이후 본인의 노년 전망은 어쩌면 사치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막연한 전망으로 일관하며 청년이 노년이 된다면, 그 이후에 발생할 사회적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1) 스스로 책임지는 노년기 추구의 의미

참여자들은 삶의 유한성을 인식한다. 노년기 삶에서도 건강의 유지, 지속적 소득 활동, 원활한 소비, 가족관계를 포함한 타인과의 관계 형성 및 교류, 행복, 삶의 질과 같은 추상적 가치를 기반으로 노년기 삶을 어떻게 기획하고, 운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관심과 전망을 가지고 있다.

참여자들은 노년기 삶에서 자신의 몸을 혼자서, 스스로, 컨트롤 하거나 돌볼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행복’이라는 가치와 노년기 삶

저 2016 출판)

의 질과 연결되어 전망된다. ‘스스로 책임지는 개인’이라는 태도는 전통적인 경로·공경·노약자 보호와 같은 태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로 부상하고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노년에 대한 태도로 해석될 수 있다. 개인 스스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강력한 준거기제는 실상, 돌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될 경우 타인의 도움과 돌봄 없이는 해당 과정을 겪을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함과 더불어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스스로 책임지는 개인 주체’는 어쩌면 이중, 삼중으로 상호 돌봄의 길을 제약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년기’의 ‘개인’이 ‘스스로를 책임지는 개인’으로 규정될 경우, 각 개별 ‘노년기 개인’들은 타인의 도움과 돌봄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위와 같은 태도의 내재화로 인하여 타인이나 사회에게 도움이나 돌봄을 자발적으로 요청할 수 없는 태도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 역시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개인의 책임’으로 대응할 수 있다.

2) 소비사회에서의 삶의 질과 행복추구

개인이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고 책임지려는 태도는 소비행위가 중심인 소비사회에서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다. 개인의 가용 자원으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데올로기가 강조되면, 길어진 수명과 건강관리는 ‘실버산업’의 산업적 이익 증대와 더불어 ‘복지의 축소’와 ‘인간 존엄의 축소’를 야기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⁶⁰⁾ 스스로를 책임진다는 언술은 스스로를 위해 지불할 수 있고, 지불해야만 한다는 소비자 정체성의 강화를 이끌 것이다. 문제는 개인의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오게 될 때 겪게 될 삶의 어려움과 난처함, 고립감, 그리고 존엄성 상실이다. 참여자들은 개인의 수명과 건강, 그리고 행복이라는 가치 추구를 매우 깊

60) 리처드 세넷 저, 유강은 역, 『불평등 사회의 인간존중』, 문예출판사, 2004.(원저 2004 출판)

고 폭넓게 연동하여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지향과 추구가 있다. 이들은 조부모세대가 경험했던 전쟁의 고통을 지나, 부모세대의 절약과 고도성장, 성취와 자녀교육 헌신을 이해한다. 그러는 한편, 자신들이 경험한 물질적 풍요, 고등교육 수혜, 소비자 정체성, 그리고 고도화된 추상적 가치추구라는 새로운 정체성과 과업을 인식한다. 이들이 생각하는 스스로 책임지는 개인은 한번 성취되었다고 지속되거나 과업의 단계적 종료를 의미하는 성인이 이행이 아니다. 더불어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인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불안정성을 강력하게 경험하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때 참조되는 것은 현재 노년층의 삶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자신의 사적관계에 자신들이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돌봄과 도움과 같은 영역에서 가족을 분리 및 보호하는 형태로 노년기 삶의 전망이 나타난다. 우리 사회는 지금의 30-40대 청장년 세대가 갖고 있는 시대적 정체성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상황과 이들이 당면한 현실을 사회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30-40대는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할 새로운 사회의 중심구성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먼 미래처럼 보이나 불과 10-20년 뒤의 일이다. 만약 이들이 ‘행복한 삶’을 구가하고 있지 못하다고 여기게 되거나, 사적·공적 관계망의 부재를 노년기 삶에서 압축적으로 경험하게 되거나,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다고 여기게 된다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라는 사회적 태도로 더욱 강화가 된다면 앞서 언급한 상황에 놓인 개개인들의 노년기는 더욱더 긍정적으로 전망하기 어려울 것이다.

3) 존엄이 기반이 되는 신뢰사회 구축의 필요성

현재의 30-40대 청년층은 가족 중심의 노년기가 아닌 개인화된 노년기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탈표준화된 사회로의 전환과 선택의 다양성이라는 새롭게 진행된 청년세대의 생애과정은 가족

을 중심으로 한 사적 관계망에서 벗어나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적 관계망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결혼이나 출산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계속 ‘미혼’인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즉 현재의 미혼 청년은 20-30년 후 노년층이 되어서도 여전히 미혼으로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과학 기술의 발달로 신체적 노화나, 고통의 소거가 가능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적 기준에서는 노화와 노쇠, 죽음이라는 순차적 생애주기의 흐름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어려움이 예상될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만 된다는 사회적 태도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으며, 상호의존과 상호돌봄이라는 공동체적 태도의 형성과 이러한 삶의 형태와 방식이 가능하다는 사회 신뢰의 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노년층의 구체적 현실에 대한 다양한 발굴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모든 세대에게 통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 길어진 노년기에 대한 실재적이며 유효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여자들은 현재의 노년층의 삶의 모습을 참조하고 투사하며 자신의 노년기 미래 전망을 구성해 나간다. 따라서 현재 노년층의 삶의 어려움들이 점차 개선되어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나이들어 갈 수 있는 사회이자, 노년기 생애에서의 행복과 삶의 가치를 사회구성원들이 투영할 수 있게 될 때, 공동체적 감수성은 형성되거나, 또는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년층이 당면한 현실 제반의 난점들과 생물학적 노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불편함 등, 기타 부수적인 노년기 삶에 대한 구체적인 조명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길어진 노년기에 대한 전 세대의 폭넓은 이해가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의 대중화 및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길어진 생애는 현재의 노년층에게도 낯선 경험이며, 우리 사회 역시 낯설지만 앞으로는 장기간 지속될 새로운 사회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축소되는 가족관계 및 부양 형태의 변화(기관 위탁) 등으로 우리는 노년기를 살아가는 현재의 고령층의 삶을 피상적으로 추측할 뿐,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전 세대가 걸어온 노년기에 대한 이해와 공감, 배려가 가능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유아동 및 청소년 등의 성장기에 대해 학습하고 알아가는 것처럼, 걸어온 노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 변화를 비롯한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방식 등을 파악하여 본격적으로 가속화된 초고령사회의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전 세대가 고령화 사회에서의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상호인정과 공감, 배려가 가능할 수 있는 정서와 문화를 형성할 가능성을 모색한다. 더불어 수많은 인구가 함께 경험하게 될 고령화라는 상황에 대하여 상호돌봄 및 국가 시스템 준비 등 개별행위자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상황이 아님에 대한 본격적 논의와 함께 이를 위해 다양한 영역(인문, 사회, 과학, 철학, 의학 및 과학기술 등)에서 담론 형성과 제도 및 기술 마련 등이 동시다발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한다.

■ 참고 문헌

- 강유진, 「한국 성인세대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30·40·50대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지』 16권 4호,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05, 159-174쪽.
- 권보경,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유형 분석: Q방법론을 활용하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 2015.
- 김재희·김옥, 「노화불안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년, 중년, 노년 집단 비교」, 『노인복지연구』 68권, 한국노인복지학회, 2015, 187-216쪽.
- 김정임, 「20대 청년층의 노후인식에 관한 연구」, 국제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 김지년, 「대학생의 교육적, 사회적, 가정 환경적 요인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노후인식수준을 매개변인으로」, 대구한의 대학교 국내박사학위논문, 2015.
- 김지혜·조성남, 「고령화 사회의 노인 정체성 형성과 내용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논총』 12권, 이화여자대학교, 2004, 271-297쪽.
- 김진옥·권진,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사회정책』 12권, 한국사회정책학회, 2015, 265-302쪽.
- 김형수·박성민·유재은·백경민, 「부모세대 자본이 청년의 미래전망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비수도권별 차이를 중심으로」, 『미래사회1』 14권 3호, 미래사회전략연구소, 2023, 30-46쪽.
- 김혜지·이영선, 「밀레니얼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한 주관적 인식 연구」, 『주관성 연구』 12권, 한국주관성연구학회, 2019, 27-50쪽.
- 노르베르트 엘리아스 저, 김수정 역, 『죽어가는 자의 고독』, 문학 동네, 2012.(원저 1982 출판)
- 노연희, 「중년기 미혼여성의 노년 인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7.
- 리처드 세넷 저, 유강은 역, 『불평등 사회의 인간존중』, 문예출판사, 2004.(원저 2004 출판)
- 마티아스 홀위치·브루스 마우 디자인 저, 한정 역, 『뉴 에이징』, 청미,

2017.(원저 2016 출판)

- 박성원·진설아, 「청년 미래 성장 지원 방안의 새로운 관점: 30대 싱글들의 일, 주거, 관계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106호,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9, 67-110쪽.
- 변진숙·권찬호, 「2차 베이비부머여성의 사회적 노후준비 결정요인 분석: 386· X세대 (코호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권 4호, 한국정책과학학회, 2016, 173-199쪽.
- 서한기,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 연속 악화'…男보다 女가 더 심각”,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131056800530?input=1195m>, 2025.02.03.
- 시몬 드 보부아르 저, 홍상희·박혜영 역, 『노년』, 책세상, 2002.(원저 1970 출판)
- 여홍실, 「한국 성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 준비와 생활 만족도 및 미래전망에 관한 연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윤태림,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 방법론』, 아르케, 2004.
- 이남·한정란, 「중년 여성가구주의 노후준비 경험: 직업이 있는 여성 가구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7권 1호, 한국노년학회, 2017, 151-171쪽.
- 이수비·신예림·윤명숙, 「청년의 상대적 박탈감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미래전망과 사회적 고립의 순차적 매개효과」, 『보건사회연구』 42권 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369-389쪽.
- 이용재,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특성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3권 5호, 한국콘텐츠학회, 2013, 253-261쪽.
- 이윤경a, 「경제적 노후 준비 실태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4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15-20쪽.
- 이윤경b, 「비노인층이 갖는 노인 이미지 연구」, 『한국인구학』 30권 2호, 한국인구학회, 2007, 1-22쪽.
- 전귀연·배문조, 「성인기의 노후준비의식과 노후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가정과삶의질연구』 28권 1호, 가정과삶의질학회, 2010, 13-24쪽.

- 정영옥, 「중고령자의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자녀관련 특성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조성호, 「한국의 출생성비 불균형과 결혼성비」, 『보건·복지 Issue & Focus』 449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1-8쪽.
- 조인숙·김도연, 「대학생의 노인 관련 미디어 관심도, 노인 이미지 및 정서와 노인 대상 행동 의향: 바이어스 맵 (BIAS map) 모델의 적용」, 『한국방송학보』 31권 3호, 한국방송학회, 2017, 248-281쪽.
- 진미정·성미애·변주수, 「50~60대 기혼 남녀의 노년기 가족생활 전망: 동거 가족, 돌봄자, 거주지 전망과 관련된 요인 탐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권 1호, 한국가정관리학회, 2014, 27-41쪽.
- 진미정·한준·노신애, 「20-30대 청년세대의 결혼·출산 가치관의 잠재유형과 한국사회 인식 및 개인적 미래 전망의 관련성」, 『가족과 문화』 31권 1호, 한국가족학회, 2019, 166-188쪽.
- 채은희·박미숙, 「중년기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준비에 관한 탐색적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8권 1호, 한국국제문화 교류학회, 2019, 203-225쪽.
- 최미정·심정신,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8권 2호,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14, 299-306쪽.
- 최유리·이여진,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응급실 간호사의 인식: 주제분석방법의 이용」, 『기본간호학회지』 30권 4호, 기본간호학회, 2023, 519-529쪽.
- 최현자·김민정A·이지영·김민정B, 「경제수명의 산정을 통한 한국 가계의 은퇴준비도 측정」, 『Financial Planning Review』 5권 4호, 한국FP학회, 2012, 47-71쪽.
- 통계청-2023년 고령자 통계,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0820&act=view&list_no=427252, 2023.09.26.
- 통계청-2023년 혼인·이혼통계,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04&act=view&list_no=429995, 2024.03.19.

- 통계청-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 https://sri.kostat.go.kr/board.es?mid=a10301020600&bid=207&act=view&list_no=432696, 2024.09.12.
- 프랑크 쉬르마허 저, 장혜경 역, 『고령사회 2018』, 나무생각, 2005.(원저 2004 출판)
- 한귀례, 「중년기 노후준비유형 분석 연구」, 동신대학교 대학원 국내 박사학위논문, 2017.
- 행정안전부-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기록,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 SMSTR_0000000000008&nttId=114622, 2024.12.24.
- 허은진, 「노년층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생활만족도의 관계: 활동적 노화를 매개변수로」, 『GRI 연구논총』, 19권 2호, 기본간호 학회, 2017, 119-150쪽.
- 황남희, 「국민 노후준비 실태와 향후 과제: 노후준비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6권, 한국노인복지학회, 2018, 182-204쪽.
- Braun, V. & Clarke, V.,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vol. 3, no. 2, Taylor & Francis, 2006, pp.77-101.
- Clarke, V. & Braun, V., “Thematic analysi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vol. 12, no. 3, Taylor & Francis, 2017, pp.297-298.
- Merton, R. K., “Thematic analysis in science: Notes on Holton's concept”, *Science*, vol. 188, no. 4186,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1975, pp.335-338.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탈표준화된 생애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30-40대 미혼 청년들이 전망하는 노년기 삶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0-40대 미혼 성인남녀 6명(남성 3명, 여성 3명)의 연구 참여자를 심층 면접하였고, 주제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30-40대 미혼 청년들의 노년기 삶 전망은 크게 경제적 전망, 건강 전망, 관계적 전망과 참조되는 타인의 노년기와 우려되는 노년기가 핵심 주제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 경험을 비롯하여 노년기 타인의 삶까지 참조하여 자신의 노년기 삶을 구성한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차원에서는 ‘생존’을 넘어 ‘소비’를 통해 현재 향유하고 있는 삶의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면서 투자의 불안정성을 감내하고자 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건강에 대한 전망은 신체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대한 경계와 스스로 책임지고자 하는 태도가 강한 반면, 정서적 차원에서는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한다. 관계적 차원에서는 부모의 부재 시 가족 내에서는 분리되어 ‘혼자’될 것을 예상하며,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적 관계망에 대한 지향과 사회적 돌봄 시스템의 당위적 요구가 발견되었다. 청년들은 본인의 가족 내 경험과 현재 노년층의 삶을 관찰하며 본인들의 노년을 전망하고 있으나, 현재의 삶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만으로 벅찬 상황에서 장기적 전망은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현재 노년층의 구체적 현실에 대한 다양한 발굴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모든 세대에게 통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 길어진 노년기에 대한 실질적이며 유효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초고령화 사회, 길어진 노년기, 30-40대 미혼 청년, 노년
전망, 주제 분석

■ Abstract

A Study on the Prospects of Later Life by Unmarried Young Adults in Their 30s and 40s

Sim, Hee-Kyung / Ajou University

Hong, Eun-Young / Ajou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anticipated old age of unmarried young adults in their 30s and 40s who are experiencing a de-standardized life course in South Korea's super-aged society. In-depth interviews with six unmarried individuals (three men and three women) were analyzed using thematic analysis. The findings highlight four key themes: economic, health, and relational prospects, as well as references to others' aging experiences and concerns about old age. Participants construct their visions of later life by reflecting on their own past and present experiences while drawing comparisons with the elderly. Economically, they strive for the sustainability of their current lifestyles through consumption beyond mere survival, despite investment uncertainties. Health expectations reveal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for physical well-being but an anticipated need for emotional support. At the relational level, they foresee isolation after parental absence, emphasizing the necessity of new communal networks and social care systems. While their outlook on aging is shaped by family experiences and observations of the elderly, long-term planning remains superficial due to the immediate challenges of sustaining their present lives. The study underscores the need for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realities faced by the current elderly pop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practical, inter-generational education on prolonged aging.

Keyword • Super-aged society, prolonged old age, Unmarried Young Adults in Their 30s and 40s, Thematic analysis

■ 논문투고일:2025.02.16. ■ 심사완료일:2025.03.10. ■ 게재확정일:2025.03.24. ■

웰에이징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참여자의 효과 연구*

송 현 동 · 김 광 환 · 임 숙 희**

목 차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결과
5. 결론 및 제언

1. 서론

한국 사회는 2024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이러한 결과는 2025년 상반기 예측보다 빠른 속도이다. 또한 통계청 생명표에 의하면, 기대수명은 2023년 83.5세로 1990년 71.7세에 비해 약 12년이 늘어난 반면, 건강수명은 2022년 기준 65.8세로, 기대수명 82.7세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약 17년 정도의 차이가 유병 기간에 해당된다. 한국 사회는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삶의 길이가 늘

* 본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받은 논문임(NRF-2020S1A5C2A04092504)

** 송현동(제1저자) 건양대학교 호텔관광학과 교수

김광환(공동저자) 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교수

임숙희(교신저자) 건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부교수

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그만큼 유병 기간도 늘어나면서 초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삶의 질에 대한 고민이 큰 화두로 등장하였다.

한국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기대수명의 연장은 사람들에게 노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넘어 인생 전반에 걸친 웰에이징의 담론과 실천을 요구한다. 한국인들은 인생의 2막에 해당되는 노년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기위한 방안으로,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웰빙과 안티에이징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자산관리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존엄한 죽음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웰다잉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¹⁾ 결국 한국 사회의 웰에이징 담론은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위한 방안으로 귀결된다.

한편, 노년기뿐만 아니라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건강한 자아형성’과 웰에이징 실천 방안의 하나로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²⁾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감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기여를 통해 성취감 획득과 사회적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웰에이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유용한 실천 행위로 대두되고 있다.

자원봉사가 개인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발달 단계에 따라 다르게 경험될 수 있다. 청소년기 자원봉사는 자아 존중감, 효능감, 도덕성 발달, 책임감 등을 증진시켜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³⁾ 노년기의 자원봉사 활

1) 조은희, 「웰다잉 Well-dying: 존엄하고 행복한 ‘자기결정권’으로서의 조력존엄 사법」, 『의료커뮤니케이션』 18권 1호,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2023, 1-5쪽; 김준승, 「웰다잉(well-dying)에 함의된 ‘자존감 회복’에 대한 고찰: 양명학과 로고테라피를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102권, 한국동서철학회, 2021, 655-682쪽.

2) 조지용·임효남·김두리 외, 「자원봉사활동 경험과 주관적 자아인식 관계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9권 5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21, 449-460쪽.

3) 김정애,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통한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12권 2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동은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와 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적 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와 체험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생의 가치와 의미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⁴⁾

웰에이징 실천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자원봉사가 강조되고 있는 현실적 상황에 부응하여 웰다잉 융합연구소에서는 웰에이징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웰에이징 교육프로그램은 웰에이징과 웰다잉을 위한 전 생애적 인생 설계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교육하는 과정으로 인간관계, 소통, 예술과 문학 활동, 경제활동, 건강관리 등의 실천적 주제들로 구성된 5주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교육 과정 중 ‘행복한 삶을 위한 시간 활용법’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웰에이징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특히, 자원봉사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교육 이후 자원봉사활동 경험에 대한 의견 청취의 필요성에서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웰에이징 실천을 위한 자원봉사의 체계, 교육 및 활동 내용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웰에이징 교육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교육 이전과 이후 자원봉사에 대한 의견을 확인, 점검, 분석하여 자원봉사를 통한 웰에이징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자원봉사활동 및 참여 증진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설문조사와 문헌연구 중심의 자원봉사 참여자 및 프로그램 효과 분석과는 다르게 인생설계코칭 지도사 프로그램(웰에이징 교육프로그램)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조사 방식과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다소 차별성 있다고 본다.

773-788쪽.

4) 정미화·박종·류소연,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련성」, 『농촌의학·지역보건』 43권 1호,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2018, 1-8쪽.

2. 선행연구 검토

자원봉사란 개인의 차원에서는 ‘개인이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며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개인, 집단, 지역사회의 공익과 복지를 위해 조직적, 지속적으로 행하는 사회활동’이다.⁵⁾ 자원봉사는 그 행위의 동기가 경제적이고 개인적인 이익 추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행동 양식과 구별되며, 봉사자에게 삶의 변화와 의미,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는 긍정적인 효과성이 입증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노년기의 자원봉사활동이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⁶⁾

자원봉사에 대한 연구는 첫째, 자원봉사자의 삶의 변화, 효능감, 지속성, 만족감, 효용성 등에 관련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자원봉사는 참여자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에 부합하는 봉사활동을 할 경우 봉사활동의 지속성과 삶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⁷⁾ 봉사활동에 대한 자발적 동기가 활동의 실효성과 긍정적인 효과, 이타적 의식, 지속성을 유지하게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⁸⁾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자원봉사가 물질적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원봉사자의 자긍심과 봉사

5) 성금단·조남연,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지속성과 만족도 영향 요인 분석」, 『아시아문화학술원인문사회 21』, 9권 2호, 2018, 793쪽.

6) 황진수, 「생의 후반기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한국노년학연구』 26권 2호, 한국노년학연구회, 2017, 101-105쪽.

7) 신종호·김명섭·김은지·김윤지·이병운, 「삶의 목적-봉사활동 적합도가 봉사활동 지속 의사에 미치는 영향: 봉사활동 만족도와 삶의 변화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26권 3호,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2017, 97-115쪽.

8) 전현정·정혜원, 「봉사활동 참여가 고등학생의 공동체 의식 및 진로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향점수 매칭과 이중차분 추정기법 활용」, 『아시아교육연구』 20권 2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9, 321-347쪽; 김태한,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학생 봉사활동의 실효성」, 『교육문화연구』 26권 5호, 통권 71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20, 613-638쪽; 박현주·구혜영, 「자원봉사자 참여동기, 관계성, 사회성과 봉사활동 지속성과의 영향관계」, 『한국비영리연구』 18권 2호, 한국비영리학회, 2019, 5-20쪽.

활동의 지속성을 위해서 내면적 보상과 인센티브 카드, 상해보험 가입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식의 인정보상은 자원봉사자의 지속 의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⁹⁾

둘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 관련 법적 부분의 수정과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연구들이 있다. 이재삼은 “현행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고 방안”에서 자원봉사 정책의 실효성 저하, 부처 간 협력체제 미흡과 전문성 부족, 자원봉사 관리 단체가 권력적 규제기관으로 전락하면서 봉사활동 인정과 보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기본 가치를 담아내는 봉사활동, 정부의 효율적인 통제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¹⁰⁾

셋째, 웰에이징의 차원에서 노년기 자원봉사가 삶의 만족도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¹¹⁾ 이러한 연구들은 고령화 시대의 웰에이징 실천 차원에서, 중년 이후 자원봉사가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지나친 자원봉사는 안녕감에 역효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¹²⁾ 이

9) 성금단·조남연,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지속성과 만족도 영향 요인 분석」, 『아시아문화학술원인문사회 21』, 9권 2호, 2018, 791-800쪽; 이영환·염동문, 「자원봉사자의 참여동기와 인정보상이 자원봉사 지속 의지에 미치는 영향: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62권 3호,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3, 227-246쪽.

10) 이재삼, 「현행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고 방안」, 『동북아법연구』 13권 2호, 2019, 295-331쪽.

11) 박윤희,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일상생활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12권 1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1,249-1,260쪽; 서연석·하영진·오세영, 「노인 자원봉사 지속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과학연구』 34권 2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5105-5126쪽; 정미화·박종·류소연,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련성」, 『농촌의학·지역보건』 43권 1호, 한국농촌의학 지역보건학회, 2018, 31-38쪽.

12) 이현기, 「중년 이후의 자원봉사활동 변화와 자원봉사활동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GRI연구논총』 20권 4호, 경기연구원, 2018, 131-152쪽.

들 연구 결과에서 노년기 봉사활동의 범위와 물리적인 양의 조절이 봉사활동의 효과와 참여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들이 주목할 만하다.

넷째, 각 학문 분야 전공자들의 봉사활동 참여의 효과와 의의를 다룬 논문들이 있다. 사회복지학,¹³⁾ 간호학,¹⁴⁾ 심리학¹⁵⁾ 등 전공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이 전공만족, 진로 결정과 삶의 방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다. 또한 청소년기, 노년기의 봉사활동이 삶의 목표와 자아효능감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연구도 있다.¹⁶⁾ 이 외에도 봉사활동이 성공적 노화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는 연구가 있다. 노년 봉사활동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성공적 노화 점수¹⁷⁾가 높고, 봉사활동 기간이 늘어날수록 만족도¹⁸⁾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봉사자와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¹⁹⁾는 연구 결과도 있다.

- 13) 김규림·황혜원,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경험과 진로 결정수준 간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권 9호, 한국콘텐츠학회, 2020, 615-627쪽.
- 14) 장현정,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 특성과 영성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12권 3호,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1, 1,889-1,902쪽; 지은선·손미선·심가가,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 참여 동기, 인성 및 대인관계의 관계」, 『동서간호학연구지』 26권 1호, 경희대학교 동서간호학연구소, 2020, 100-107쪽.
- 15) 홍예영·배성훈, 「상담심리 전공 학부생의 봉사활동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발달지원연구』 9권 3호, 한국발달지원학회, 2020, 41-64쪽.
- 16) 최명숙·조성제, 「청소년 봉사활동 참여동기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5권 5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24, 455-462쪽.
- 17) 이상욱·이정화,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특성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의 매개효과와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43권 3호, 한국노년학회, 2023, 6281-301쪽.
- 18) 남을순·이윤석, 「노인들의 자원봉사와 삶의 질: 2019년 생활시간 조사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2권 4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1.10145-160쪽.
- 19) 송기영·김진옥,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권 4호, 한국콘텐츠학회, 2017, 444-460쪽.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웰에이징 차원에서 봉사활동 참여의 지속성, 만족감, 자아 효능감, 인정욕구, 삶의 변화 등을 경험하고 유지하기 위한 이론적인 접근 방법과 의미 단위의 구성요소 추출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특히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활용하는 데 이론적 기초자료를 제공해 주는 연구 결과로 판단된다.

3. 연구의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건양대학교 웰다잉융합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인생설계코칭지도사 프로그램(웰에이징 교육프로그램) 수료자 30명 가운데 해당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희망한 8명이다. 본 연구 대상자는 인생설계코칭지도사 프로그램(웰에이징 교육프로그램) 수료자라는 점과 이들 가운데 현재 봉사활동 수행자, 중단자, 향후 희망자 등을 포함하여 모집단위의 타당성을 담보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대상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비밀보장을 위하여 프로그램 수료자들 중 설명문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 의사가 확인된 사람에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참여 대상자에게는 언제든지 연구참여 중단과 개인 정보 비밀보장, 자료의 연구 목적외 사용금지를 설명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범 주	8	(%)
성별		
남자	4	(50)
여자	4	(50)
연령		
40-50	2	(25)
51-60	1	(12.5)

61-70	5	(62.5)
교육		
고등학교 졸업	2	(25)
대학교 졸업	4	(50)
대학원 졸업	2	(25)
종교		
개신교	4	(50)
천주교	1	(12.5)
불교		
무교	3	(37.5)
거주형태		
부부	4	(50)
부모와 자녀	4	(50)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	8	(100)
비건강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인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성별은 남자와 여자 각각 50.0%이며, 연령은 61-70세 이상이 5명(62.5%)의 분포를 이루고 있다. 학력은 대졸 4명(50%), 고졸과 대학원 졸이 각각 2명(25%)이다. 종교는 기독교가 4명(50%)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교가 3명(37.5%)이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자원봉사활동 및 참여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활용과 적용,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적용하여 주제 분석을 시행하는 질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첫째,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 방법은 범주화, 범주 확인 과정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인 범주화는 인터뷰 응답을 반복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연구 주제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초기 범주명을 설정할 것이다.

2차 범주화는 1차 범주화가 완료된 이후 기존 봉사활동 관련 연구 결과와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진행할 것이며, 선행 연구에서 확인된 관련 구성요소들을 바탕으로 1차 범주화 내용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자료 분석을 위해 포커스 면담 내용 전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자원봉사 관련 핵심적인 내용과 의미 있는 내용을 분석, 도출할 것이다.

3) 연구 절차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2024년 10월 7일 웰다잉융합연구소에서 약 60분 정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포커스 인터뷰 진행에 앞서 대상자들의 얼굴과 목소리가 녹화 및 녹음되고 있음을 사전 설명하였다. 인터뷰 진행 중 개념의 정의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심층 질문과 내용의 정리 요약 등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내용을 분명하게 공유하고자 노력하였다.

인터뷰 질문지는 본 주제와 관련된 문헌고찰과 웰다잉융합연구소 연구위원(간호학1, 치위생학1, 보건학2, 문학1, 철학2, 사회학1)들이 개발, 검토 보완하였다. 자원봉사활동 관련 면접 질문지는 도입질문, 주요질문, 마무리 질문 순으로 구성되었다. 도입 질문에는 본인이 자원봉사관련 느꼈던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주요 질문은 첫째, 자원봉사와 활동 과정에서 겪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 둘째, 자원봉사 참여 후 자신의 변화 과정과 아쉬운 점, 그리고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입 방안에 대한 의견이다. 셋째는 봉사활동 참여자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부분이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Giorgi의 4단계 기술적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은 현상과 전체 내용의 기술에 대한 이해와 범

주화, 분석을 핵심으로 한다. Giorgi의 연구 방법은 “연구 참여자들의 특정 사건에 대한 행동과 경험에 대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경험의 본질 구조와 의미를 밝히는 현상학적 질적연구방법”을 의미²⁰⁾하며, 전체를 관통하는 의미 단위, 소주제, 본질적 주제를 통합 추출하는 방법²¹⁾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방법은 연구 주제와 목적에 맞게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 의미 단위 또는 본질적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로 분류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적 분석 방법을 구조화했다. 인터뷰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개의 의미 단위를 추출하고 8개의 하위 구성요소를 구성하여 최종적으로 4개의 중심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자원봉사활동 의미 단위 구성요소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성요소	하위구성요소	의미단위
참여동기	자발적 권유	삶의 만족도, 봉사활동 지속성
보상체계	내적 인정 참여 동기	자아 효능감, 성취감
수요자 중심 봉사활동	적절성, 체계성	봉사활동 의미 경험, 봉사활동 효용성
봉사자 교육	역량개발, 사회기여	실질적인 기능기부 경험, 자아 충족감 경험

4. 연구의 결과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참여동기

20) 안은경·성승연, 「청소년 상담자의 작업동맹 경험: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기반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23권 2호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2, 777-778쪽.

21) 박은선·김진숙, 「영재 상담에서 내담자 경험 분석: Giorgi 현상학적 연구방법론 적용」, 『영재와 영재교육』 21권 4호, 한국영재교육학회, 2022, 31-70쪽.

연구 참여자들은 자원봉사에서 자원봉사자의 자발적 참여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봉사활동이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었을 때 보람도 느끼고 삶도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자발적인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를 위한 자신의 일정 조정, 불편한 심리상태에서의 봉사활동 참여로 인해 자유롭지 못하고 부담감을 보고하였다.

한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권유가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같은 경우에도 평소 자원봉사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있을 때,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권유가 긍정적인 기회로 작용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활동의 참여동기는 참가자의 만족도와 지속성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1) 자발적

네 자원봉사는 사실 우리가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게 자원봉사 같아요.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는데 시간을 일부러 쪼개거나 아니면 내가 힘이 닿지 않는데 그냥 그걸 내가 누가 시키거나 해서 아니면 같이 해야되기 때문에 내가 참여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냥 내 스스로가 시간이 날 때, 내가 갖고 있는 그 역량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능 기부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서로가 불편하지 않고 또 부담 없고 자유롭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자원봉사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능을 사회에다가 열심히 베풀어주면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보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참여자 1)

저는 자원봉사를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기쁘게 감사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예전에 어버이집 같은 데서도 봉사를 하고 그런 적 있었거든요. 잠깐이지만 근데 삶이 더 봉사함으로써 풍요로워지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안내 같은 것도 그러고 카운슬러 상담 같은 것도 그러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자기 재능을 타인에게 좋은 이렇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는 거는 참 이 사회에서 이 삶에서 가

치 있게 생각된다고 봅니다.(참여자 2)

(2) 권유

마음은 갖고 있었는데 솔직히 주변에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접하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이나 단체에 어떤 회원이나 이런 가입을 통해서 어떤 일원이 되다 보니까 혹시 이리이러한 게 있는데 그것 좀 “해주실 수 있나요”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마음속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하던 거랑 딱 맞아떨어져서 한 가지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걸로 이렇게 파생, 파생 파생돼서 해야 할 역할들이 많이 주어졌거든요. 한 번 하기가 어렵지 한 가지만 하면 그 단체로 자꾸 이렇게 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생겨서 자원봉사도 한 번 해본 사람이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참여자3)

2) 보상체계

연구 참여자들은 봉사활동의 보상체계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지적하고 있다. 보상체계란 자원봉사자에게 그 가치를 인정하고 승인하여 감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금전적, 비금전적인 것으로 구분되며, 공식적인 것(배지, 감사장, 표창 등)과 비공식적인 것(감사표현, 기관 야유회 초대 등)이 있다.²²⁾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하는 자원봉사에서 보상체계는 인정욕구 특히 내적 인정욕구와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자원봉사자에게 금전적 물질적 보상은 활동에 대한 보수나 댓가라기 보다는 자신의 자발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존중의 의미로 작용하며, 효능감과 동기 유발에 긍정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체계는 지자체나 해당 기관의 예산지원과 연결되어 있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원봉사자의 자아 효능감과 인정욕구를 고취시키기 위한 보상체계 마련의 중요성이 확인된 만큼 제도적인 차원

22) 이영환·염동문, 「자원봉사자의 참여동기와 인정보상이 자원봉사 지속 의지에 미치는 영향: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62권 3호,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3, 227-246.

의 적극적 협력적 개입이 필요하다. 보상체계 관련 연구에서는 인센티브, 특히 상해보험 등의 봉사활동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문제점 해결 방식 등도 논의되었다.

여기 ○○인데요, ○○에서는 카드를 하나 만들어줘서 원래 병원이나 안정 점이나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업소에서 영업집의 할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카드를 만들어 줬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8천 시간 되는 사람한테 금배지를 줬어요. 그래서 열심히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요. 금배지 하나 주는 게. 그래서 많이 하는 것 같고... (참여자 1)

문제는 이 봉사활동에 대한 마일리지만 쌓아 놓으면은 별 혜택이 없을 것 같아요. 마일리지를 갖고 어떤 바우처라든가 현금화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그거를 또 다른 사람한테 또 기증할 수도 있고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참여자 4)

3) 수요자 중심 봉사활동

연구 참여자들은 수요자 중심의 봉사활동을 강조한다. 실제 봉사활동에서 수요자와 제공자의 이해와 요구가 달라서 서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수요자의 필요와 요구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소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자의 막연한 추측으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겪게 되는 문제 상황에 대한 보고이다.

봉사활동 수요자에게 실제 필요한 것을 제공했을 때 봉사를 받는 사람이나 제공하는 사람 모두가 만족감을 느끼고 봉사활동의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봉사를 요청한 사람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적재적소 배치하거나,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은 후에 그에 적합한 봉사활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여건이 마련되었을 때 자원봉사활동은 현대사회에 맞는 실질적인 재능 기부와 자아 충족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봉사를 해드릴 그분이 필요로 하는 봉사에 해야 할 부분이 뭔지 파악하는 거랑 그다음에 봉사자가 가서 그분의 욕구를 만족시켜서 해줄 그것이 이제 일치를 해야 그 큰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봉사를 할 때도 거기 봉사 받으신 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라든가 환경 그런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봉사자를 매칭시키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했거든요.(참여자 5)

많은 역량을 갖춰서 모든 걸 잘해서 또 봉사 받는 분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중요한데 다 좋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봉사 받는 분이 필요로 하는 거 원하는 거 있잖아요. 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봉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봉사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봉사에 맞게 역량을 내가 그 예를 들어서 안내를 한다. 그러면 안내를 하고 카운슬러를 한다 상담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영역이 많으니까 그 영역에 맞춰서 교육도 받고 그러면은 또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참여자 2)

4) 봉사자 교육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원봉사자들이 실제 봉사의 내용과 활동에 적합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사회가 복잡하고 전문화된 만큼 자원봉사활동 내용과 범위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따라서 자원봉사자 역시 이러한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맞는 역량을 갖추고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봉사자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지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하였다.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해당 봉사활동에 실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전문지식을 교육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을 통해 훈련된 자원봉자의 전문성이 돋보일 때 수요자가 봉사자에 대해 신뢰감을 가지게 되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간 유대관계가 좋아진다고 인식하였다.

저는 지원과 도움이라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역량 강화가 꼭 필요하다. 물론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봉사자들이 정말 전문적인 교육, 인간관계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상담 및 코칭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좀 이렇게 수시로 교육을 받아서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상처받는 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사람을 대하는 기술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참여자 1)

최근에는 이제 호스피스 병동 자원봉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봉사활동을 하기 전에 저는 모두 다 교육을 다 이수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대개 교육을 한 3개월 정도 하루에 한 5시간, 4시간 해서 이렇게 주별로 받아 가지고 한 3개월 과정 12주 과정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 봉사를 할려면은 이런 어떤 기본적인 교육 과정을 마치지 않으면 봉사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참여자 6)

일단은 저도 아까 ○○○ 선생님처럼 자원봉사를 해서 그 봉사를 받을 곳에 진짜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봉사자의 소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연령별로 어린이라든가 노인, 장애인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분류를 뒤서 거기에 대해서 세분화된 역량 교육을 받은 다음에 나가야 이제 제대로 된 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서로한테 윈윈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참여자 5)

예 제가 한 말씀드리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분야의 해당 분야의 교육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봉사 받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은 자기보다 좀 많이 나은 사람이 자기를 봉사를 해주면은 상당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럼으로써 이 사람은 상당히 나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구나 이러면 그 사람을 믿고 따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서로 간의 유대관계가 좋아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식을 많이 갖춰야 되거든요.(참여자 4)

4. 결론 및 제언

한국 사회에서 웰에이징 담론은 고령화 사회,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등장한다. 늘어난 길이만큼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의 물음이 웰에이징의 시작이다. 초기 웰에이징 담론은 주로 노년기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

었으나, 현재는 생애주기에 따른 웰에이징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웰에이징은 신체적 차원에서 시작되어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적, 심리적, 사회경제적 차원에 접근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정신적, 신체적, 심리적인 측면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웰에이징의 실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자원봉사를 통한 웰에이징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웰에이징 교육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교육 이전과 이후 자원봉사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확인, 점검, 분석하여 자원봉사활동 및 참여 증진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은 자원봉사가 노년기의 경제활동 상태, 주관적인 건강 상태, 여가활동 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²³⁾ 청소년기의 발달과정, 자아관 개선, 일탈행동 감소, 대학생 시기의 삶의 만족도, 진로의식 개선 효과를 가져온다²⁴⁾는 연구 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인생설계코칭지도사(웰에이징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수료자 30명 가운데 연구 목적에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8명을 대상으로 줌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Giorgi 현상학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봉사활동의 의미단위를 추출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웰에이징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경험과 인식, 그리고 봉사활동에 대한 제안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자발적 봉사활동의 중요성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봉사활동의 참

23) 이재수·이윤석, 「노년기 자원봉사활동이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노후 준비 4대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행정연구』 31권 3호, 서울행정학회, 2020, 81-105쪽.

24) 안재진·김선숙·이경상, 「청소년의 봉사활동 참여유형이 진로 성숙도,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9권 1호,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017, 85-107.

여동기는 만족도와 지속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인터뷰 참여자들 역시 자발적 자원봉사 참여를 만족도, 지속성 그리고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권유에 의한 봉사활동이라도 평소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 의사가 있었던 경우에는 유사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자원봉사는 봉사하고자 하는 개인의 자발적 의사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봉사활동 참여자에 대한 보상체계 방안 구축이다. 봉사활동의 보상체계는 자원봉사의 지속 의지와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²⁵⁾ 자원봉사자는 봉사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만, 내적 인정욕구 충족과 지속적인 참여동기를 유지하는 데에 있어 보상체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보상체계는 물질적인 것부터 비물질적인 것까지 다양하다. 봉사활동 참여자들은 인센티브, 마일리지, 상해보험 등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명예로서 상징적인 뱃지 수여같은 비물질적인 것도 원하고 있었다. 보상체계와 관련된 자원봉사자들의 욕구 및 자원봉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시사하는 연구결과들과 자원봉사가 사회 전반에 확산, 정착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자원봉사 참여동기 유발, 봉사활동의 지속적인 참여 유지를 위한 보상체계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봉사활동 제공이다. 물품을 생산 판매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욕구이다. 소비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생산한 제품은 판매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

25) 이영환·염동문, 「자원봉사자의 참여동기와 인정보상이 자원봉사 지속 의지에 미치는 영향: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62권 3호,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3, 227-246쪽.

기 때문이다. 현대 소비사회 마케팅에서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소비자의 욕구 파악은 자원봉사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자원봉사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현재 지원 가능한지를 파악한 후에 자원봉사활동이 진행되어야 하며, 그래야 기존의 제공자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발생했던 자원봉사 미스매치(mismatch)를 해소할 수 있다.

넷째, 교육을 통한 자원봉사자의 역량강화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자원봉사 경험을 통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봉사활동에 대한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 활동은 만족감과 효능감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수요자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경험에 근거하고 있다.

자원봉사자의 역량을 갖추는 일은 자원봉사자가 실질적으로 사회에 공헌, 공익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원봉사 수요자들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을 통한 봉사자 역량 강화의 필요성과 잇점들은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기부에만 의존하는 경우 가지게 되는 한계와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방향을 제시해 준다. 자원봉사 지원단체는 필요한 경우 특정 봉사활동을 위한 사전 교육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교육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웰에이징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지원방안을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원봉사 참여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수요자 중심 봉사활동’, ‘봉사활동 참여자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이다. 이러한 제안은 봉사활동과 관련해서 기존에서 주목했던 참여동기, 만족감, 지속성, 삶의 변화, 효능감 등의 주제와는 다소 다른 방안이다. 지금까지 학계의 봉사활동 관련 연구들은 첫째, 봉사활동은 어떤 부분에서 정신적, 신체적, 심리적인 효과를 주는가 둘째, 지속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과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봉사활동이 청소년기, 노인기 등 생애주기별 상황에 따라 어떤 도움을 주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인생설계코칭지도사(웰에이징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 수가 매우 적다는 점은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다소 한계로 작용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보다 많은 사례 연구가 요구되며, 향후 연구과제이다.

■ 참고 문헌

- 김규림·황혜원,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경험과 진로결정 수준 간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권 9호, 한국콘텐츠학회, 2020, 615-627쪽.
DOI: <https://doi.org/10.5392/JKCA.2020.20.09.615>
- 김영식, 「웰에이징과 나이 위계」, 『생명연구』 51,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2019, 81-99쪽.
DOI: <http://doi.org/10.17924/solc.2019.51.81>
- 김정애,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통한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12권 2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773-788쪽.
- 김준승, 「웰다잉(well-dying)에 함의된 '자존감 회복'에 대한 고찰-양명학과 로고테라피를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102권, 한국동서철학회, 2021, 655-682쪽.
DOI: 10.15841/kspew..102.202112.655
- 김태한,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학생 봉사활동의 실효성」, 『교육문화연구』 26권 5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20, 613-638쪽.
DOI: 10.24159/joec.2020.26.5.613
- 남을순·이윤석, 「노인들의 자원봉사와 삶의 질: 2019년 생활시간 조사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2권 4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1, 145-160쪽.
DOI: <http://dx.doi.org/10.16881/jss.2021.10.32.4.145>
- 박윤희,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일상생활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12권 1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1,249-1,260쪽.
DOI: 10.22143/HSS21.12.1.88
- 박은선·김진숙, 「영재상담에서 내담자 경험 분석: Giorgi 현상학적 연구방법론 적용」, 『영재와 영재교육』 21권 4호, 한국영재교육학회, 2022, 31-70쪽.

DOI: <http://dx.doi.org/10.17839/jksrgt.2022.21.4.31>

박현주·구혜영, 「자원봉사자 참여동기, 관계성, 사회성과 봉사활동 지속성과의 영향관계」, 『한국비영리연구』 18권 2호, 한국비영리학회, 2019, 5-20쪽.

서연석·하영진·오세영, 「노인 자원봉사 지속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과학연구』 34권 2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5105-5126쪽.

DOI: <http://dx.doi.org/http://dx.doi.org/10.18859/ssrr.2018.05.34.2.105>

성금단·조남연,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지속성과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인문사회 21』, 9권 2, 아시아문화학술원, 2018, 791-800쪽.

DOI: 10.22143/HSS21.9.2.63

송기영·김옥진,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7권 4호, 한국콘텐츠학회, 2017, 444-460쪽.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7.17.04.444>

신종호·김명섭·김은지·김윤지·이병윤, 「삶의 목적-봉사활동 적합도가 봉사활동 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 봉사활동 만족도와 삶의 변화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26권 3호,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2017, 97-115쪽.

안은경·성승연, 「청소년상담자의 작업동맹 경험: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23권 2호,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2, 777-805쪽.

DOI: <http://doi.org/10.15818/ihss.2022.23.2.771>

안재진·김선숙·이경상, 「청소년의 봉사활동 참여유형이 진로 성숙도,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9권 1호,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017, 85-107쪽.

DOI: <http://doi.org/10.19034/KAYW.2017.19.1.04>

이상욱·이정화,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특성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의 매개효과와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43권 3호, 한국노년학회, 2023, 6281-301쪽.

DOI: 10.31888/JKGS.2023.43.3.281

이영환·염동문, 「자원봉사자의 참여동기와 인정보상이 자원봉사 지속 의지에 미치는 영향: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62권 3호,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3, 227-246쪽.

DOI: 10.22418/JSS.2023.12.62.3.227

이재삼, 「현행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고 방안」, 『동북아법연구』 13권 2호, 2019, 295-331쪽.

DOI: 10.19035/nal.2019.13.2.13

이재수·이윤석, 「노년기 자원봉사활동이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노후준비 4대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1권 3호, 서울행정학회, 2020, 81-105쪽.

DOI: <http://dx.doi.org/10.53865/KSPA.2020.11.31.3.81>

이현기, 「중년 이후의 자원봉사활동 변화와 자원봉사활동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GRI연구논총』 20권 4호, 경기연구원, 2018, 131-152쪽.

DOI: 10.23286/gri.2018.20.4.007

장현정,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 특성과 영성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12권 3호,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1, 1,889-1,902쪽.

DOI: 10.22143/HSS21.12.3.131

전현정·정혜원, 「봉사활동 참여가 고등학생의 공동체 의식 및 진로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향점수 매칭과 이중차분 추정기법 활용」, 『아시아교육연구』 20권 2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9, 321-347쪽.

DOI: 10.15753/aje.2019.06.20.2.321

정미화·박종·류소연,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련성」, 『농촌의학·지역보건』 43권 1호, 한국농촌의학 지역보건학회, 2018, 1-8쪽.

DOI: <http://dx.doi.org/10.5393/JAMCH.2018.43.1.001>

조은희, 「웰다잉 Well-dying: 존엄하고 행복한 '자기결정권'으로서의 조력존엄사법」, 『의료커뮤니케이션』 18권 1호,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2023, 1-5쪽.

DOI: <http://dx.doi.org/http://dx.doi.org/10.15715/kjhcom.2023.18.1.1>

조지용·임효남·김두리 외, 「자원봉사활동 경험과 주관적 자아 인식 관계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9권 5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21, 449-460쪽.

DOI: <http://dx.doi.org/10.14400/JDC.2021.19.5.449>

지은선·손미선·심가가,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 참여동기, 인성 및 대인관계의 관계」, 『동서간호학연구지』 26권 1호, 경희대학교 동서간호학연구소, 2020, 100-107쪽.

DOI: 10.14370/jewnr.2020.26.1.100

최명숙·조성제, 「청소년 봉사활동 참여동기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5권 5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24, 455-462쪽.

DOI: 10.5762/KAIS.2024.25.5.455

홍예영·배성훈, 「상담심리 전공 학부생의 봉사활동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발달지원연구』 제9권 제3호, 한국발달지원학회, 2020, 41-64쪽.

DOI: <http://dx.doi.org/10.22839/adp.2020.9.3.41>

황진수, 「생의 후반기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한국노년학연구』 제26권 제2호, 한국노년학연구회, 2017, 101-105쪽.

DOI: 10.25280/kjrg.26.2.5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웰에이징 교육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자원봉사 경험에 대한 인터뷰를 토대로 웰에이징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인생설계코칭지도사 프로그램 수료자 30명 가운데 연구 목적에 동의한 자발적 연구 참여자 8명을 대상으로 쉼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봉사활동의 의미 단위를 추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웰에이징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지원방안은 첫째, 자원봉사 참여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둘째, 수요자 중심 봉사활동 셋째, 봉사활동 참여자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넷째, 교육을 통한 자원봉사자의 역량강화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주목했던 봉사활동의 참여 동기, 만족감, 지속성, 삶의 변화, 효능감 등의 주제와는 다른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웰에이징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참여자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지속성, 보상체계, 참여동기, 봉사자 교육, 웰에이징

■ Abstract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volunteer program participants for well-aging

Song, Hyeon Dong / Department of Global Hotel&Tourism, Konyang University

Kim, Kwang Hwan / Department of Hospital Management, Konyang University

Im, Sook Hee /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Konyang Cyber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a volunteer program for well-aging based on interviews with participants in a well-aging education program about their volunteer experiences. This study was conducted by conducting Zoom interviews with 8 voluntary research participants who agreed to the purpose of the study among 30 graduates of the Life Design Coaching Coach program. This study applied Giorgi's phenomenological analysis method to extract and analyze the meaning units of volunteerism, and drew the following conclusions.

Volunteer programs and support measures for well-aging are: first, support for educational programs for volunteers; second, demand-oriented volunteer services; third, establishment of a compensation system for volunteers; and fourth, enhancement of volunteers' capabilities through educa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suggest different measures from those that have been focused on in previous studies, such as motivation, satisfaction, continuity, life change, and efficacy of volunteers.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a way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volunteer programs for well-aging.

Keyword • Sustainability, Reward System,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Volunteer Education, well-aging.

대학교 직원의 행동적 특성이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기술다양성의 통제효과를 중심으로

박 상 호 · 김 경 · 강 신 철*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결과
5. 결론 및 시사점

1. 서론

우리나라 대학은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학령인구 감소, 교육부의 정책 변화, 대학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등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대학 지원사업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에 따라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 평생교육 확대, 취업·창업 지원 및 정주 생태계 구축이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교육부, 2024).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학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대학 교직

* 박상호(제1저자) 목원대학교 직원, cabi123@naver.com
김 경(공동저자) 기성중학교 교사, maysmile77@hanmail.net
강신철(교신저자) ㈜유클리드소프트 경영전문위원, ntiskang@gmail.com

원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며, 특히 조직에서 조직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구성원의 행동적·심리적 특성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기대이론(Vroom, 1964)과 자기효능감 이론(Bandura, 1977)에 따르면, 개인의 행동적 특성과 자기효능감은 조직 내에서 조직몰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다. 또한, 가치-지각 이론(Jason et al., 2015)은 업무에 대한 가치 인식과 만족이 직무 몰입과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은 대학 직원의 행동적 특성과 자기효능감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대학 직원의 역량과 직무 수행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남순란·나민주(2014)는 국립대학 인사 평가를 기반으로 대학 행정직원의 역량 모델을 개발하여 의사소통, 기획력, 팀워크, 의사결정 등의 요소를 강조하였다. 남순란(2015)은 직급별로 공통역량, 리더십 역량, 직무 역량을 구체화하였으며, 조동현 외(2020)은 대학 행정관리자 교육 프로그램에서 목표 설정, 자원관리, 전략적 사고 등 9가지 핵심역량을 다루며 다양한 교육 방식(PBL, 토크콘서트, 현장 방문 등)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정주영·윤희림(2019)은 지방 사립대학 행정직원의 직무만족을 높이는 요인으로 비전 및 발전계획의 체계적 실행과 직원 의견 반영을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강조하였다. 김광호(2016)는 국립대학 직원 교육 훈련이 직원의 자기 향상과 동기 유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김재열·김화중(2020)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개인들 사이에 있는 사회적 자본과 협력행동과 임파워먼트와는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하였다. 이인석·김재열(2022)은 리더십이 조직성장에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이 조직시민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대학교 직원의 행동적 특성과 자기효능감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대학 조직은 일반 기

업이나 공공기관과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며, 교직원의 직무 수행 역시 고유한 맥락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적 특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박상호·김경·강신철(2024)이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를 대학교 교직원 집단에 적용하여 그 유효성을 검토하고, 대학 조직에서의 행동적 특성과 조직몰입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연구를 통해, 대학교 직원의 행동적 특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규명하고, 대학 조직의 특성에 맞춘 조직몰입 향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대학 행정 운영에 대한 실무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대학 직원의 역량 개발과 조직몰입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1) 대학 직원의 현황

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의 교육통계연보(2023)에 따르면, 전국의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에는 국공립 및 사립대학 약 190개 이상의 대학교와 학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대학에는 교수, 연구직, 행정직, 지원직 등 다양한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재직 중이다. 2023년 기준, 약 6만 5천 여명의 대학 교원과 약 5만 6천여 명 이상의 대학교 직원이 학문과 연구의 진흥, 학생 지원, 교육 행정 및 시설 운영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대학 직원은 대학 조직 운영과 학사 지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사 운영, 학생 서비스 지원, 산학연 협력 지원, 재무 관리, 시설 관리 등 대학 조직 내 핵심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대학 직원의 직무와 역할은 학교 운영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며, 대학 발전과 질적 향상에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대학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 및 소통을 통해 조직 내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연구와 교육을 지원하는 동시에, 대학의 전략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교 직원의 행동적 특성과 그들이 지닌 역량은 조직 내 효율성 및 성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대학교 직원의 직무 수행은 학교 운영의 성과와 대학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행동적 특성과 직무 역량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직원들은 교수 및 학생뿐만 아니라 학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며, 조직의 목표 달성 및 전략적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교육부 대학알리미, 2024).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에 따라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 취업·창업 지원, 정주 생태계 구축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학 직원들의 조직몰입과 직무 만족도는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대학 직원의 역량과 행동적 특성

(1) 역량의 개념

역량(Competency)은 개인이 특정 업무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조직의 효율성과 성과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춘우, 2022). 직업기초능력표준(NCS)에서는 역량을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의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하며, 이는 단순한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동적, 조직적, 심리적 특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는 표출 특성(Visible Traits)으로 관찰 가능하며 개발이 용이한 특성으로 행동적 특성, 조직적 특성 등과 잠재 특성(Latent Traits)으로는 평가 및 개발이 어려운 내면적 특성으로 자기효능감,

동기, 성격 특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역량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무역량(Job Competency)은 특정 직무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내재적 특질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박상호·강신철, 2021). 먼저 행동적 특성(Behavioral Traits)으로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상황대처 능력, 협업 능력 등이 있고, 조직적 특성(Organizational Traits)으로는 조직 관리, 직업 윤리, 목표 달성 역량 등과 심리적 특성(Psychological Traits)으로 자기효능감, 내재적 동기, 성격 특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 행동적 특성

행동적 특성은 조직 내에서 개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나타내는 구체적인 태도와 행동을 의미하며, 조직의 목표 달성과 직무 몰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교사 연구에서 확인된 주요 행동적 특성(의사소통, 상황대처, 문제해결, 협업, 대인관계, 의사결정 능력)을 대학 직원 집단에 적용하여 이들의 조직몰입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의사소통 능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조직의 목표와 업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대학 조직 내에서 직원은 학내 학생, 교수, 행정팀, 외부 협력기관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대학교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이하나, 2022). 의사소통은 의견 조율과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구성원의 의견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조직 내 협력과 성과를 촉진할 수 있다(박상호·김경·강신철, 2024).

둘째, 상황대처 능력은 예상치 못한 문제나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능력으로, 대학 직원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특성 중 하나다. 대학 직원은 종종 학사일정의 변경, 시설 안전 문제, 다양한 이해관계자 요청

등 긴급 상황을 마주할 수 있으며, 이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타 부서와의 협력과 필요한 자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박상호·강신철(2021)은 상황대처 능력이 조직 내 몰입과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셋째, 문제해결 능력은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분석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능력이다. 대학교 직원은 학사 운영, 학생 지원, 연구 행정 등에서 다양한 문제를 마주하게 되며,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문제 파악, 원인 분석, 대안 마련, 실행 및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접근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직원은 대학 내에서의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박재형, 2022).

넷째, 대인관계 능력은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대인 상호작용에서 필요한 능력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대학 조직의 특성상 직원은 학생, 교수, 외부 협력 기관 등과 빈번하게 상호작용하며, 감정 이해, 공감, 존중, 배려 등을 통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이는 직원의 직무 만족도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김은송, 2019).

다섯째, 의사결정 능력은 직무 수행에 있어 주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으로, 조직의 목표 달성과 개인의 직무 몰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대학 직원은 학사 지원, 예산 관리, 학생 복지 프로그램 기획 등에서 다양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요구된다. 윤재희(2019)는 보건교사의 의사결정 역량이 자율적 업무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대학 직원의 의사결정 역량에도 적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협업 능력은 대학 내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협력과 팀워크를 통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다. 대학 직원은 다른 행정팀, 교수

진, 학생들과의 협업을 통해 학사 지원, 연구 협력, 행사 기획 등의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협업 능력은 특히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해관계자들과 원활한 협력 체계를 형성함으로써 대학 내 서비스와 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상미, 2015).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대학 직원의 행동적 특성들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 변수로 삼아 연구모델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 직원의 행동적 특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구체적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대학 조직의 효율성과 성과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조직 내에서 개인이 특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이는 조직 내 성과와 업무 몰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기대이론에 따르면, 조직 내 구성원은 다양한 행동 중 특정한 행동을 선택 결정할 때 그에 따른 행동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며, 이는 과거 학습과 경험에 기반하며,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행동 선택과 동기 부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업무 수행에서 자신감을 증진시킨다(Vroom, 1964; Bandura, 1977). 남순란과 나민주(2014)의 연구에서 의사소통, 기획력, 팀워크, 의사결정 등의 역량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직원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기반이 될 수 있다.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이 과거 성취 경험과 간접 경험, 사회적 지지와 설득 등을 통해 형성된다고 설명하였다.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조직의 업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개인의 자신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한다. Stajkovic & Luthans(1998)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업무 성과가 향상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직무 몰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윤용관(2023)은 대학 행정관

리자의 리더십과 행정직원의 학습문화를 연구하였으며, 행정직원의 학습 문화 수준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정원(2016)은 분산적인 리더십이 행정직원의 자기효능감과 내·외재적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 모두가 조직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대학 직원의 행동적 특성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대학 조직에서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직원의 정서적 몰입을 증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기술다양성

기술다양성은 특정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기술과 지식의 폭을 의미하며, 이는 직무 수행의 의미와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Hackman & Oldham(1976)은 직무 특성 중 기술다양성은 과업을 수행할 때 여러 가지 다른 기술과 재능이 필요한 정도로 정의되며, 이는 구성원이 자신의 역할을 보다 풍부하게 경험하고 직무몰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연구하였다. Jason et al(2015)은 기술다양성이 높을수록 구성원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다각도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 몰입도와 업무 만족도가 증대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남순란(2015)의 직급별 역량 모델(공통역량, 리더십, 직무 역량)은 직급에 맞는 역량 개발이 직원의 역할 명확성과 성장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 특성을 풍부하게 만들고, 이는 궁극적으로 조직에 대한 몰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직원에게 필요한 기술다양성을 대학교 조직의 특성에 맞게 재해석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대학 직원의 직무는 학사 행정, 학생 지원, 연구 지원, 시설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효

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 커뮤니케이션, 문제 해결, 데이터 관리 등 여러 방면의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 대학 직원의 기술다양성은 특히 다양한 학내외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직무 몰입과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 직원의 직무 특성 중 하나로서 기술다양성의 인식 정도를 연구모델에 포함하여, 행동적 특성과 자기효능감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기술다양성이 어떠한 조절적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대학 조직 내에서 직원들의 직무 몰입을 높이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5) 정서적 몰입

정서적 조직몰입은 구성원이 조직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과 애착을 의미하며, 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지속적으로 머물고자 하는 동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Meyer & Allen(1991)은 조직몰입을 조직 내 구성원이 남아 있으려는 의도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정서적 몰입, 규범적 몰입, 지속적 몰입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정서적 몰입은 구성원이 조직에 대해 가지는 감정적 애착과 연대감으로 인해 조직에 남고자 하는 의도를 말한다. 지속적 몰입은 조직을 떠났을 때 발생할 비용을 인식하여 남으려는 것이며, 규범적 몰입은 조직이 자신에게 투자해 준 것을 고려해 조직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남으려는 심리를 의미한다(Jason et al., 2015). 이 중 정서적 몰입은 구성원과 조직 간의 감정적 유대감을 반영하여,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과 조직에 대한 애정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최수찬 외(2019)는 대학의 조직적 특성(조직몰입, 조직문화, 조직지원)과 직무적 특성(감정노동, 직무통제, 직무만족)이 대학 행정직원의 직무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김정원·조영하(2017)는 분산적인 리더십이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자기효능감은 조직몰입에 영향

을 미치는데, 국공립대학에서 그 효과가 사립대학보다 더 크다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조직몰입을 대학교 직원의 조직몰입을 평가하는 주요 요소로 채택하여, 이들의 행동적 특성이 정서적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정서적 조직몰입이 높은 대학 직원은 학내 구성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대학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경향이 있다. 정민(2017)은 조직 내 구성원의 내재적 동기와 정서적 몰입이 조직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하였으며, 이는 대학 직원의 직무 몰입과 성과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 직원의 행동적 특성이 정서적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며, 외생 변수로 설정된 행동적 특성들이 심리적 특성인 자기효능감에 의해 매개되어 정서적 조직몰입에 어떠한 인과관계를 형성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대학 직원의 정서적 몰입을 높이고, 대학 조직의 성과 및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연구 분석 단위를 대학교 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학교 직원 연구에 적용할 연구모형은 선행 보건교사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박상호·김경·강신철, 2024). 이를 통해 대학교 직원이 구성개념 간 어떤 특정한 패턴이 있는지 측정가능한 변수로 변환하여 간접 측정한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그림 1]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표 1]과 같이 연구 변수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 직원의 행동적 특성이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이 정서적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추정하였다.

대학교 직원의 직무적 특성인 기술다양성은 행동적 특성이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키는 통제 변수로서 조정될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러한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탐색적 연구를 통해 [그림 1]에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가설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모형을 통해 대학교 직원의 행동적 특성과 직무적 특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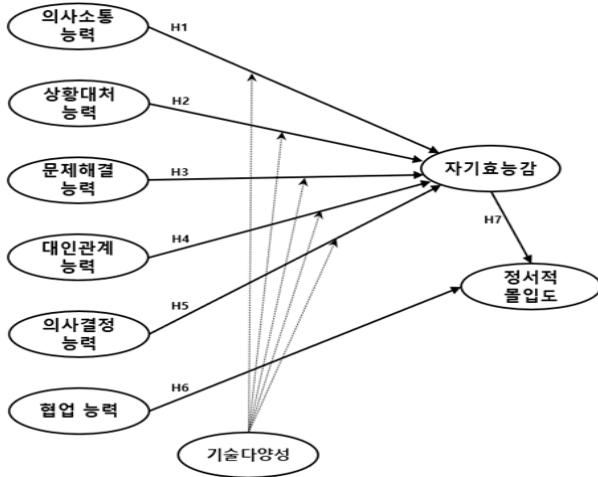
[표1] 연구 변수

구 분	변수	개념	비고
행동적 특성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구성원과의 의사소통
	상황대처 능력	상황대처	업무에 대한 상황대처
	문제해결 능력	문제해결	업무에 대한 문제해결
	대인관계 능력	대인관계	구성원과 관계 맺기, 유지
	의사결정 능력	의사결정	업무처리를 위한 의사결정
	협업 능력	협업	업무처리를 위한 협업, 협력
직무적 특성	기술다양성	기술다양성	직무에서 기술다양성
심리적 특성	자기효능감	동기	기대, 확신, 믿음
성과 요인	정서적 몰입도	조직몰입	조직에 대한 애착

2) 가설 설정

김사녀·부성숙(2103)은 유아 교사들의 의사소통 능력은 교수효능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박상호 외(2021)는 상황대처 능력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조직몰입으로 전이되는 현상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박상호 외(2024)는 문제해결 능력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정서적 몰입으로 전이되는 현상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배은희(2019)는 대인관계 능력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우택규(2017)는 협업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지미(2020)는 간호사의 기술다양성이 긍정적 정서와 중요한 가치 인식 등에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탐색적 방법을 통해 행동적 특성이 자기효능감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대학교 직원의 행동적 특성이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이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및 직무적 특성인 기술다양성의 통제 효과를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대학교 직원의 행동적 특성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는,

가설 1(H1): 대학교 직원의 의사소통 능력은 직원의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H2): 대학교 직원의 상황대처 능력은 직원의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H3): 대학교 직원의 문제해결 능력은 직원의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H4): 대학교 직원의 대인관계 능력은 직원의 자기효능감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H5): 대학교 직원의 의사결정 능력은 직원의 자기효능감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교 직원의 행동적 특성과 정서적 몰입과의 관계에서는,

가설 6(H6): 대학교 직원의 협업 능력은 직원의 정서적 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교 직원의 자기효능감과 정서적 몰입과의 관계에서는,

가설 7(H7): 대학교 직원의 자기효능감은 직원의 정서적 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같이 탐색적 방법을 통해 발견한 가설 설정으로 대학교 직원의 행
동적 특성과 자기효능감,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기
술다양성이 이 관계에 미치는 통제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
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학교 직원의 조직몰입과 직무 성과를 증가시킬 수
있는 실질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3)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표 2]와 같
이 연구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표 2] 연구 변수 조작적 정의

변수	조작적 정의	연구 문헌
의사소통 능력	구성원들과 업무에 대해 교류하고 처리하기 위한 행동적 대응 정도	김사녀·부성숙(2013), 박상호·김경·강신철(2024)
상황대처 능력	조직에서 발생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행동적 대응 정도	박상호·강신철(2021), 박상호·김경·강신철(2024)
문제해결 능력	조직에서 발생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행동적 대응 정도	박상호·김경·강신철(2024)

대인관계 능력	구성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적 대응 정도	배은희(2019), 박상호·김경·강신철(2024)
의사결정 능력	조직에서 주어진 문제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행동적 대응 정도	박상호·김경·강신철(2024)
협업 능력	구성원과 업무에 대해 협력과 화합 등을 하기 위한 행동적 대응 정도	우택규(2017), 박상호·김경·강신철(2024)
기술 다양성	조직 구성원으로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 그 다양성을 인식하는 정도	이지미(2020), 박상호·강신철(2021)
자기 효능감	조직 내에 직무 활동을 통해 자기가 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 확신, 믿음 등 정도	박상호·강신철(2021), 박상호·김경·강신철(2024)
정서적 몰입도	조직에 계속 남아 있고자 원하는 의미, 애착, 친밀 정도	박상호·김경·강신철(2024)

본 연구는 행동적 특성으로 대학교 직원이 직무 상황에서 나타내는 행동 대응을 연구하고자 한다. 심리적 특성으로는 직무 수행 동기와 자신감을 의미하는 자기효능감으로 측정하여, 업무 수행의 심리적 기반으로 연구하고자 하며, 직무적 특성으로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다룰 수 있는 능력으로, 기술다양성을 통해 연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조직 몰입은 조직에 대한 정서적 애착과 유대감을 나타내는 정서적 몰입으로 측정하여, 직원이 조직에 가지는 감정적 몰입도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대학교 직원의 행동적 특성과 그 특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4. 연구의 결과

1) 연구유형 및 표본 분석

본 연구에서는 A대학교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의 행동적 특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직원의 조직몰입에 영향 요인으로 구분한 행동적 특성, 직무적 특성, 심리적 특성 그리고 조직몰입을 측정할 수 있

는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써 A대학교 직원(학교법인 직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직원, 정책적 사업단의 프로젝트기반 연구원 등 포함) 16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하였다. 설문 형식은 선다형 설문으로 5점 척도 이용하였다. 설문 조사는 2024. 9. 23. ~ 2024. 10. 28.까지 실시하여 117개를 회수하였으며, 117부를 유효 설문지로 이용하여 자료 분석을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5로 기술통계, 타당도 및 신뢰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Amos 23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가설 검정을 위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및 경로 분석을 하였다.

대학교 직원의 행동적 특성인 의사소통 능력, 상황대처 능력, 문제해결 능력, 대인관계 능력, 의사결정 능력, 협업 능력과 직무 특성인 기술다양성 그리고 이들의 자기효능감과 정서적 몰입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탐색요인분석(EFA), 확인적 요인분석(CFA), 그리고 본 연구모형에 대해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2) 표본 특성 및 분석

자료 분석에서 인구통계학적 분석으로 [표 3]과 같이 직원의 설문은 여성이 62명(53.0%), 남성이 55명(47.0%)이 응답하였으며, 근무 경력은 2년 미만 31명(26.5%), 2년 이상 5년 미만 27명(23.1%), 5년 이상 10년 미만 25명(21.4%), 10년 이상 20년 미만 7명(6.0%), 20년 이상 27명(23.1%) 등으로 응답하여 대체로 고르게 분포하였으며, 직원 MBTI 유형 중 외향(E) 45명(38.5%)과 내향(I) 72명(61.5%)으로 응답하였다.

[표 3] 인구통계학적 분석

변수	구 분		빈도(명)	구성비(%)
성별	여		62	53.0
	남		55	47.0
나이	20대		16	13.7
	30대		52	44.4
	40대		14	12.0
	50대 이상		35	29.9
근무 형태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73	62.4
	계약직(프로젝트직 등 포함)		44	37.6
근무 연수	2년 미만		31	26.5
	2년이상 ~ 5년 미만		27	23.1
	5 년이상 ~ 10년 미만		25	21.4
	10년이상 ~ 20년 미만		7	6.0
	20년 이상		27	23.1
주요 직무 (업무) 형태	학생지원		46	39.3
	교수지원		6	5.1
	대학운영지원		33	28.2
	시설운용지원		12	10.3
	산학협력지원		12	10.3
	기타		8	6.8
학력	학사(전문학사 포함)		79	67.5
	석사(과정 포함)		28	23.9
	박사(과정 포함)		9	7.7
	기타		1	0.9
MBTI	외향(E)-내향(I)	외향(E)	45	38.5
		내향(I)	72	61.5
	감각(S)-직관(N)	감각(S)	79	67.5
		직관(N)	38	32.5
	사고(T)-감정(F)	사고(T)	63	53.8
		감정(F)	54	46.2
	판단(J)-인식(P)	판단(J)	65	55.6
		인식(P)	55	44.4

상관관계 분석은 이변량 상관계수를 통해 의사소통과 기술다양성의 상관계수가 0.148로 낮게 나타났으나 나머지 다른 상관계수 의사소통과 정서적 몰입이 0.212에서 문제해결과 협업의 상관계수가 0.633으로 상관관계가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규성 검정은 첨도 < 4, 왜도 < 2이면,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하여 정규성 검정을 하였으며, 여-남에서 왜도 0.121과 첨도 -2.020으로, 학력에서 왜도 2.571과 첨도 10.443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정규성 분포가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분석은 대학교 직원의 행동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상황대처 능력, 대인관계 능력, 의사결정 능력, 협업 능력, 기술다양성, 자기효능감, 정서적 몰입도 항목에 대해 2차 요인분석을 하였고,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 개념별 신뢰도 분석에 내적일관성을 나타내는 크론바흐의 알파 값은 [표 4]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과 같이 문제해결 능력 0.661에서 자기효능감 0.828 사이로 대부분의 알파 계수가 경험적 기준인 0.7을 상회하거나 근사한 것으로 측정되어 연구에 사용된 잠재 변수들은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한다. [표 5] 표준 적재치에서 개념신뢰도(CR)과 평균분산추출(AVE) 값을 확인하였고 문제해결 능력의 AVE값 0.374로 나타났고, 의사소통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양호한 기준에 다소 부족했지만, 다른 항목은 허용 기준인 0.5와 0.7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하여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인을 하였다.

[표 4]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요인	변수명	성분행렬 ^a	크론바흐 일파
의사소통 능력	구성원과 업무 토의	.770	0.727
	구성원과 업무 소통	.804	
	구성원과 정보 교환	.755	
	구성원 의견 수용	.628	

상황 대처 능력	상황 판단	.854	0.801
	상황 적응	.816	
	융통성 발휘	.818	
	상황 대응	.676	
문제 해결 능력	다양한 해결 방법 고민	.801	0.661
	결과 예측	.705	
	해결 방법 찾기	.806	
	적극적 문제 해결 참여	.529	
대인 관계 능력	관계 향상	.778	0.795
	구성원과 접촉	.801	
	관계 유지	.761	
	자주 연락	.822	
의사 결정 능력	결정 고민	.774	0.749
	영향 고려	.709	
	결정 능력	.752	
	적절한 결정	.796	
협업 능력	구성원과 협력	.866	0.815
	구성원의 의견 수렴	.859	
	구성원과의 화합	.858	
	적극적 협조	.653	
기술 다양성	다양한 지식	.764	0.797
	다양한 재능	.886	
	다양한 기술	.845	
	성격이 다른 일	.671	
자기 효능감	확신 정도	.880	0.828
	기대 정도	.860	
	믿음 정도	.864	
	금지 정도	.643	
정서적 몰입도	조직 애착	.776	0.794
	구성원과 친밀	.766	
	조직 문제	.744	
	조직 의미	.857	

3) 분석 결과

(1) 측정모델-모형 적합도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연구로써 표본의 크기가 작은 관계로 연구의 측정모델을 통해 구조모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해석 기준은 유의확률을 $p < 0.1$ 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잠재적 효과나 관계를 포착하기 위해 설정범위를 넓혔다.

본 연구에 쓰인 척도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고, 본 연구의 측정 모형은 측정모델을 통해 적합도는 Chi-square = 1046.053, Degrees of freedom = 558, Probability level = 0.000이 측정되었고, Chi-square 유의확률로 모형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Chi-square 검정이 너무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존재하여 다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였다. 이와 함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는 CMIN/df = 1.875, RMR = 0.057(허용가능한 수준), GFI = 0.670, CFI = 0.769, RMSEA = 0.087(허용가능한 수준)로 적합도 수치가 권고치 이상으로 나타났고, RMR과 RMSEA 값은 허용 가능한 수준이고, GFI 값과 CFI값이 미흡한 수준이나 모형의 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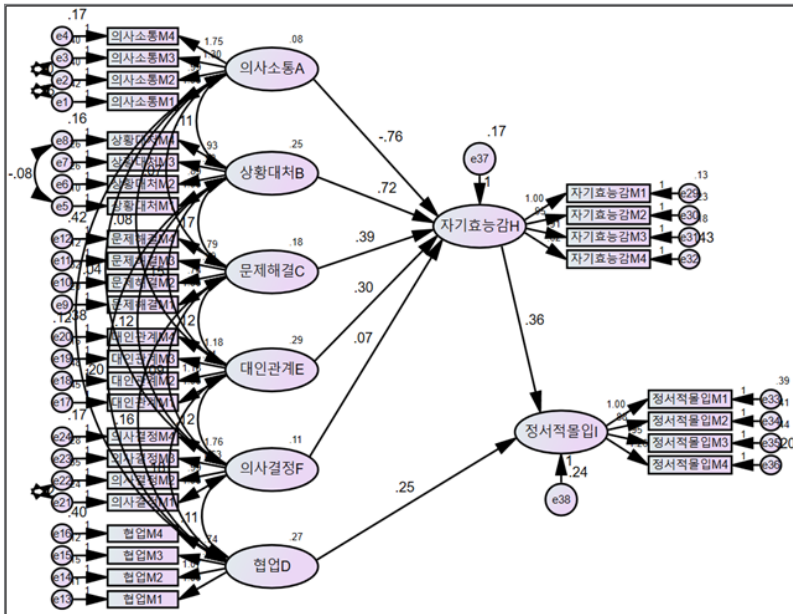
측정모델 모수 추정치는 [표 5]와 같이 표준 적재치를 통해 집중 타당성을 위한 개념 신뢰도와 수렴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한 분산추출지수를 분석하였는데, 개념 신뢰도(C.R.)는 0.730에서 0.841로 측정하였으나 분산추출지수(AVE)는 0.374에서 0.531로 나타나 다소 낮은 수준이었으며, 기준에 못 미쳐 모델을 수정하여 적합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표 5] 표준 적재치(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Estimate	AVE	C.R.
의사소통M1	<--	의사소통A	0.635	0.404	0.730
의사소통M2	<--	의사소통A	0.663		
의사소통M3	<--	의사소통A	0.649		
의사소통M4	<--	의사소통A	0.593		
상황대처M1	<--	상황대처B	0.822	0.516	0.808
상황대처M2	<--	상황대처B	0.687		
상황대처M3	<--	상황대처B	0.707		
상황대처M4	<--	상황대처B	0.644		
문제해결M1	<--	문제해결C	0.683	0.374	0.694
문제해결M2	<--	문제해결C	0.486		
문제해결M3	<--	문제해결C	0.770		
문제해결M4	<--	문제해결C	0.447		
대인관계M1	<--	대인관계E	0.633	0.497	0.797
대인관계M2	<--	대인관계E	0.705		
대인관계M3	<--	대인관계E	0.746		
대인관계M4	<--	대인관계E	0.730		
의사결정M1	<--	의사결정F	0.620	0.438	0.754
의사결정M2	<--	의사결정F	0.542		
의사결정M3	<--	의사결정F	0.696		
의사결정M4	<--	의사결정F	0.767		
협업M1	<--	협업D	0.839	0.567	0.836
협업M2	<--	협업D	0.809		
협업M3	<--	협업D	0.798		
협업M4	<--	협업D	0.523		
기술다양성M1	<--	기술다양성G	0.632	0.531	0.812
기술다양성M2	<--	기술다양성G	0.888		
기술다양성M3	<--	기술다양성G	0.822		
기술다양성M4	<--	기술다양성G	0.509		
자기효능감M1	<--	자기효능감H	0.879	0.577	0.841
자기효능감M2	<--	자기효능감H	0.777		
자기효능감M3	<--	자기효능감H	0.805		
자기효능감M4	<--	자기효능감H	0.532		
정서적몰입M1	<--	정서적몰입I	0.671	0.501	0.798
정서적몰입M2	<--	정서적몰입I	0.628		
정서적몰입M3	<--	정서적몰입I	0.661		
정서적몰입M4	<--	정서적몰입I	0.849		

(2) 최종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다음은 [그림 2]의 최종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적합도에서 공분산 지표 중 Modification Indices를 4 이상의 값으로 설정하여 측정할 큰 숫자부터 오차항을 연결하고 적합도를 확인한 후 최종모형을 설정하였다. 여기서는 오차항이 M.I.값 4 이상인 값 $e2 \leftrightarrow e3$, $e3 \leftrightarrow e4$, $e5 \leftrightarrow e8$, $e11 \leftrightarrow e12$, $e23 \leftrightarrow e24$ 를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모형 적합도는 Chi-square = 781.120, Degrees of freedom = 438, Probability level = 0.000으로 측정되었고 CMIN/df = 1.783, RMR = 0.056(허용 가능한 수준), GFI = 0.698, CFI = 0.811, RMSEA = 0.082(허용 가능한 수준)로서 적합도가 조금 개선되었고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먼저 [표 6]의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가설 1(H1): ‘대학교 직원의 의사소통 능력은 직원의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지 못했다.

가설 2(H2): ‘대학교 직원의 상황대처 능력은 직원의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가설 3(H3): ‘대학교 직원의 문제해결 능력은 직원의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지 못했다.

가설 4(H4): ‘대학교 직원의 대인관계 능력은 직원의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지 못했다.

가설 5(H5): ‘대학교 직원의 의사결정 능력은 직원의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지 못했다.

가설 6(H6): ‘대학교 직원의 협업 능력은 직원의 정서적 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가설 7(H7): ‘대학교 직원의 자기효능감은 직원의 정서적 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표 6]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Estimate	S.E.	C.R.	P	귀무 가설 기각 여부
자기효능감H	<--	의사소통A	-.761	.531	-1.433	.152	실패
자기효능감H	<--	상황대처B	.724	.409	1.769	.077	성공
자기효능감H	<--	문제해결C	.394	.296	1.330	.183	유보
자기효능감H	<--	대인관계E	.296	.213	1.390	.165	유보
자기효능감H	<--	의사결정F	.072	.492	.147	.883	실패
정서적몰입I	<--	협업D	.255	.136	1.877	.061	성공
정서적몰입I	<--	자기효능감H	.358	.115	3.125	.002	성공

(* $p<0.1$)

(3) 통제변수를 통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대학교 직원의 직무 특성 중 통제변수로 기술다양성을 적용 전후로 구

조방정식모형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먼저 통제변수인 기술다양성을 통제 변수로 넣기 전에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모형의 적합도는 Chi-square = 10.979로 측정하였다. 다음은 통제변수인 기술다양성을 넣은 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모형의 적합도는 Chi-square = 12.952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로 표본수가 117이고 자유도가 1인 상태에서 유의수준 0.05의 임계값은 3.84인데 χ^2 차이가 2밖에 나지 않으므로 기술다양성의 통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3) 경로 분석

본 연구에서 직·간접적인 효과는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를 근거로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통해 검정하였다. 매개변인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AMOS 분석 속성 Output에서 Indirect, direct & total effects를 설정하였다. 부트스트랩에서 Perform-bootstrap을 2,000회로, BC(Bias-corrected confidence intervals)를 95%로, Bootstrap-ML(machine learning)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각각의 결과 변수들을 설명하는 요인의 총영향 효과, 직접영향 효과, 간접영향 효과를 분리한 후 경로 분석하여 변인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Cohen(1988)의 기준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이에 [표 7]에서 표준화된 총 효과는 변수 간의 관계 강도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지표로, 효과의 크기를 해석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황대처, 대인관계, 문제해결, 의사결정 능력, 의사소통 능력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직원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능력, 문제해결 능력,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은 정서적 몰입에 강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업은 정서적 몰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측정되었

다. 또한, 기술다양성은 정서적 몰입에 직접적 영향과 간접적 영향을 모두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황대처, 문제해결, 대인관계, 의사결정, 의사소통 능력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정서적 몰입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표 7] 표준화한 총효과

변수	기술 다양성 M	의사 결정 M	대인 관계 M	문제 해결 M	상황 대처 M	의사 소통 M	협업 M	자기 효능감 M
자기효능감	.134	.134	.150	.133	.273	.112	.000	.000
정서적몰입	.199	.053	.059	.053	.108	.044	.170	.397

[표 8]과 같이 표준화한 총효과 양측검정(BC) 결과를 얻었으며, 대인관계와 상황대처 능력이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함을 발견하였고, 협업 능력이 정서적 몰입에 유의미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함을 측정하였다.

[표 8] 표준화한 총효과-양측검정(BC)

변수	기술 다양성 M	의사 결정 M	대인 관계 M	문제 해결 M	상황 대처 M	의사 소통 M	협업 M	자기 효능감 M
자기효능감	.129	.304	.079	.234	.017	.102	...	...
정서적몰입	.190	...	...	...	...	...	.045	.002

경로 분석 결과를 통해 대학교 직원의 행동적 특성 요인이 자기효능감과 정서적 몰입의 영향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정하였다. 또한, 기술다양성이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키는 통제 효과가 나타났음을 검정하였다.

5.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 직원의 행동적 특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구체

적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학교 조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특히 행정직원은 학사 지원, 학생 관리, 산학협력 지원, 연구 지원 등 대학 운영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교 직원의 행동적 특성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대학 조직의 성과와 직원 만족도를 증진할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 직원의 상황대처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교 직원의 문제해결 능력의 경우는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유의미성 수준이 기준치보다 높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학교 직원의 의사소통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넷째, 대학교 직원의 협업 능력이 정서적 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대학교 직원의 자기효능감은 직원의 정서적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학교 직원의 행동적 특성이 정서적 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기술다양성의 통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2) 시사점과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에서는 상황대처, 대인관계 능력이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핵심 요소임이 확인되었다. 자기효능감과 협업이 정서적 몰입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협업 능력은 직원의 정서적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직원 간 긍정적인 협력이 대학 조직 내 정서적 유대감을 증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

사한다.

본 연구는 대학 조직의 장기적인 성공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직원의 행동적 특성과 자기효능감, 조직몰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행동적 특성 중 상황대처 능력, 대인관계 능력, 협업 능력 등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 조직 내에서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기술적 지원과 협업을 촉진하는 조직 정책과 함께 대학의 인적 자원 관리와 조직 지원 체계를 설계하는 유용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였다. 대학 조직의 성과와 직무 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해 행동적 특성과 직무 특성을 강화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대학교 직원들은 과중한 업무 부담, 낮은 보상과 승진 기회,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 협업 부족, 자기개발 기회 부족 등의 이유로 정서적 몰입이 저하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 분배 최적화, 보상 및 승진 체계 개선, 의사소통 활성화, 전문성 개발 기회 제공, 협업 환경 조성 및 기술 지원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자동화 시스템과 역할 조정을 통해 업무 부담을 줄이고, 명확한 성과 평가와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직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고, 협업과 직무 적응을 돕는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동기부여와 조직몰입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조직 내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원의 직무 만족도와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횡단면 설문 조사의 인과관계 제한, 독립 변수 간 인과관계 규명 부족, 응답자의 신뢰도와 일반화 가능성의 한계를 들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대학교 직원의 다양한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표본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관찰 연구를 통해 더 명확한 인과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서는 여기서 연구한 대학교 직원의 행동적 특성뿐만

아니라, 내·외재적 능력 특성 간의 관계를 폭넓게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기술다양성 외에도 직무 자율성, 피드백 등 다른 직무 특성을 포함하여 세부적이고 복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교수진, 연구직, 다른 공공기관 직원 등 다양한 조직 구성원으로 표본을 확장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조직몰입과 성과 간의 관계를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대학 내 구성원들과 심층 인터뷰를 하고,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직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연구는 대학 직원의 직무역량과 조직 환경 간의 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원의 몰입과 성과를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광호, 「교육 훈련이 국립대학 직원의 사기, 동기, 직무 능력 향상과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평생교육HRD연구』 12권 1호, 2016, 91-116쪽.
- 김사녀·부성숙, 「유아교사가 지각하는 의사소통능력 및 학부모-교사 간 의사소통 어려움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2권 4호, 2013, 511-524쪽.
- 김은송, 「요양병원 간호사의 대인관계능력, 극복력, 직무만족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창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김재열·김화중, 「대학행정직원 중간관리자의 사회적 자본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협력행동, 임파워먼트, 직무열의의 매개효과」, 『經營教育研究』 35권 6호, 2020, 391-417쪽.
- 김정원, 「대학조직의 분산적 리더십과 행정직원의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과의 구조적 관계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김정원·조영하, 「국공립대와 사립대 간 분산적 리더십과 행정직원의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간의 관계 비교」, 『한국교육문제연구』 35권 1호, 2017, 1-22쪽.
- 남순란·나민주, 「대학행정조직에서의 역량모델 도입 사례 연구」, 『교원교육』 30권 3호, 2014, 285-315쪽.
- 남순란, 「대학 행정직원의 역량모델 개발과 역량 수준 분석」,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박상호·강신철, 「창업보육센터 매니저의 역량 특성이 조직몰입과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매니저의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6권 1호, 2021, 71-85쪽.
- 박상호·김경·강신철, 「보건교사의 행동적 특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과업중요성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9권 4호, 2024, 215-229쪽.
- 박재형, 「응급실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과 중증도 분류역량」,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 배은희, 「요양보호사의 대인관계능력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우택규, 「협업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윤용관, 「대학 행정관리자의 온정적 합리주의 리더십과 행정직원의 학습문화 수준, 자기효능감, 팔로워십 및 조직효과성 간의 구조적 관계」, 송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 윤재희, 「보건교사의 응급간호 역량도구 개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이상미, 「종합병원 간호사의 자기주장과 간호사-의사의 협업에 대한 태도의 관계」, 고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이인석·김재열, 「대학행정직원 중간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이 대학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 조직시민행동의 매개역할」, 『관리회계연구』 22권 2호, 2022, 79-105쪽.
- 이지미, 「간호사의 직무특성이 직무가치,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 조절효과」,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 이춘우, 「능력과 스킬 그리고 역량의 차이: ‘토끼와 거북이’ 그리고 스포츠 스타 선수들 예시 적용」, 『인적자원개발연구』 25권 1호, 2022, 1-30쪽.
- 이하나, 「보건교사 감염병 대응 실무 역량 도구 개발」, 충남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22.
- 조동한·이형국·배성근,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한 진로진학상담교사 진로교육 직무연수의 현업적용도」, 『대한공업교육학회지』 44권 1호, 2019, 190-208쪽.
- 정민, 간호사의 내재적 동기부여, 정서적몰입 및 이직의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권 11호, 2017, 594-601쪽.
- 정주영·윤희림, 「지방사립대학 행정직원의 학교이해 및 소통과 직무만족도 간 관계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37권 1호, 2019, 01-19쪽.
- 최수찬·이은혜·원경림·조영림·김다솜, 「대학 행정 직원의 직무스트레스 및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19권 7호, 2019, 67-81쪽.

Cohen, J.,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88.

Bandura, 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 84, no. 2, 1977, pp.191-215.

Hackman, J. R. & Oldham, G. R., “Motivation through the design of work: Test of a theor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vol. 16, Issue 2, 1976, pp.250-279.

LePine, J. A., Wesson, M. J., & Colquitt, J. A., Organizational Behavior: Improving Performance and Commitment in the Workplace(4th Edition), NY: McGraw-Hill Education, 2015.

Meyer, J. P. & Allen, N. J., “A three-component conceptualization of organization commit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vol. 1, no. 1, 1991, pp.61-89.

Stajkovic, A. D. & Luthans, F., “Self-efficacy and work-related performance: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24, no. 2, 1998, p.240.

Vroom, V. H., Work and Motivation, New York: Wiley, 1964.

교육부-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784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2024.10.28.

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2023년 교육통계연보,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23&publSeq=2&menuSeq=3894&itemCode=02&language=en>, 2024.10.28.

교육부 대학알라미-공시항목, <https://www.academyinfo.go.kr/intro/intro0320/intro.do>, 2024.10.28.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교 직원의 행동적 특성이 정서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하여 각 요인 간의 인과관계에 관해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탐색적 연구로써 A대학교 직원 16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으며, 이 중 117개의 응답을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로 대학 직원의 상황대처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정서적 몰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업 능력은 정서적 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다양성의 통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본 연구는 대학교 직원의 행동적 특성이 자기효능감을 통해 정서적 몰입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교 직원의 역량 강화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행동적 특성, 자기효능감, 정서적 몰입, 기술다양성

■ Abstract

Impact of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employees on affective commitment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nd the controlling effect of technological diversity

Sangho Park / Mokwon University

Kyung Kim / Giseong Middle School

Shincheol Kang / EuclidSoft Co., Lt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various factors that affect the emotional engagement of university employees' behavioral characteristics and to explai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ach factor. As an exploratory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168 employees of University A, and 117 responses were used in the final analysi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nalysis showed that the situational coping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of university staff had a positive effect on self-efficacy, and indirectly affected emotional commitment through self-efficacy. Collaborative ability was found to have a direct effect on emotional commitment. In addition, the control effect of technological diversity was found to be insignificant.

This study empirically clarified the process by which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staff are transferred to emotional engagement through self-efficacy. It is expected that this will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capabilities of university staff and improving the efficiency of organizational operation.

Keyword • Behavioral characteristics, self-efficacy, emotional engagement, skill diversity

■ 논문투고일:2025.02.10. ■ 심사완료일:2025.03.24. ■ 게재확정일:2025.03.25. ■

대학 물리학과 수학의 학습 시기 연계에 대한 분석 : A 대학을 중심으로

조 규 근 · 김 영 희 · 노 태 호*

목 차

1. 서론
2. 연구 방법
3. 연구 결과 및 논의
4. 결론 및 제언

1. 연구배경

과학과 수학의 교과 내용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과학 과목을 학습함에 있어 많은 부분이 수학적 내용(이론과 방법)을 적용하게 된다. 하지만 수학적 내용을 과학학습에 적용할 때, 과학 학습자들은 아직 해당 수학 내용을 배우지 않았거나 완전히 습득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¹⁾ 학습 내용 면에 있어서 수학 교과와 가장 관련이 깊은 교과는 물리 교과이며 화학,

* 조규근(제1저자)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김영희(공동저자)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노태호(교신저자)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부교수

1) 이시은, 「고등학교 공통과학의 물리내용이 필요로 하는 수학적 수준과 수학교과 서와의 연관성」,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생명과학, 지구과학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다고 조사되었다.²⁾ 물리학은 수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물리 현상을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뉴턴은 미분적분학을 고안하고 이를 태양 주위 행성들의 운동을 설명하는데 사용하였다.³⁾ 이와 같이 물리학 학습에 수학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수학지식 부족으로 인해 물리학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⁴⁾ Redish는 물리학 교육에서 수학의 사용 방식이 단순한 계산적 적용을 넘어 개념적 이해와 연결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Bruner의 나선형 교육과정(Spiral Curriculum) 이론에 따르면, 학습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확장되어야 하며, 선행 개념과 후속 개념이 적절히 연결될 때 학습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보았다. 즉, 물리학 학습에서 필요한 수학 개념을 먼저 도입하고, 이후 더욱 심화된 방식으로 재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5) 6)} 물리 교육 전공 학생들이 물리학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학생들 대부분이 수학적 어려움이라 답했다.⁷⁾ 수학지식 부족은 학습자 학습 능력에 기인하는 점이 많지만, 물리학과 수학의 교육과정 연계 부적절이 원인인 것도 있다.⁸⁾ 물리학과 수학이 연계된 학습 내용에 있어 수학 내용 학습보다 이를 활용

-
- 2) 용은주, 「수학교과와 과학교과의 학습내용 연계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3) Stewart, J., Clegg, D., & Watson, S., *Calculus: Early Transcendentals, Metric Version*, Cengage, 2020.
 - 4) 홍현철·고석구·선우하식, 「고교 물리의 수학적 고찰을 통한 함수의 지도법에 관하여」, 『건국자연과학연구지』 12권, 2001, 91-107쪽.
 - 5) Redish, E. F., "Problem Solving and the Use of Math in Physics Courses", World View on Physics Education in 2005: Focusing on Change, Delhi, August 21-26, 2005, pp.1-10.
 - 6) Bruner, J. S., *The process of educ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 7) 황정운·최재혁, 「물리교육과 신입교수의 교사교육자로서 역할에 관한 셀프스터디」, 『새물리』 72권 10호, 2022, 782-794쪽.
 - 8) 노은진, 「대학 물리학에서 요구되는 고교수학 지식의 필요성」,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한 물리학습이 일찍 이루어지는 경우, 교육과정 상 불일치로 인해 물리학 습 내용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⁹⁾

현재까지의 연구는 주로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과 고교 물리학 교과와 관련된 것¹⁰⁾ 11)과 중·고등학교 과정에서의 과학(화학)과 수학의 연계성 연구, 그리고 중학교 수학과 과학 교과 내용의 연관성 연구가 있었으며,¹²⁾ 13)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과 대학 물리학 교과에 관련된 것들이다. 실제로 대학 물리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벡터곱, 편미분, 다중적분 등은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에 없고 대학 미적분학에 포함되는 내용이므로 대학 물리학과 대학 수학(미적분학, 공학수학)의 학습 시기 연계 부적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현재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 물리학과 대학 수학의 학습 시기 연계 부적절을 연구의 한 부분으로 하고자 한다.

물리학을 보다 쉽게, 하지만 본질적인 의미를 놓치지 않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방안을 찾는 것은 물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늘 크나큰 바램이자 도전이다.¹⁴⁾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대학 물리학과 고등학교 수학 및 대학 수학(미적분학, 공학수학)의 학습 시기 연계 부적절을 분석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쉽게 물리학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9) 서보억 외, 「수학의 이해가 과학의 학습에 미치는 경향 분석과 교과 연계성에 대한 연구」,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11권 4호, 2008, 677-694쪽.

10) 양신영, 「제7차 교육과정에서 물리와 수학의 연계성: 고등학교 물리I 내용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11) 이석영, 「수학교과와 과학교과의 상관관계: 고등학생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12) 성제록,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물질 분야)와 수학과 교육과정의 연계성」,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13) 김영미, 「중학교 수학과 과학 교과 내용의 연관성 연구: 제 7차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4) 임성민, 「대학 물리교육에서 작용량 개념 도입의 의미와 가능성」, 『새물리』 72권 3호, 2022, 198-207쪽.

2. 연구 방법

1) 연구 내용과 대상

본 연구에서는 대학 물리학의 고등학교 수학지식 중 학생들의 학습이 부족한 것과 대학 수학(미적분학, 공학수학) 지식 중 대학 물리학에서 먼저 등장하고 대학 수학에서 나중에 배우게 되어 학습자가 물리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수학 지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런 학습 시기 연계성 미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물리학에서 사용되는 고등학교 수학 지식 중 학생들의 학습이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둘째, 대학 물리학에서 사용되는 대학 수학(미적분학, 공학수학) 지식 중 대학 물리학에서 먼저 등장하고 대학 수학에서 나중에 배우게 되어 학습자가 물리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수학 지식은 무엇인가?

셋째, 학습자가 물리학습에 실제로 어려움을 경험한 학습 시기 연계성이 부족한 수학지식은 무엇인가? 또한, 학습 시기 연계성이 부족한 수학지식 중 수학 전공자 관점에서 어려운 지식과 학생들이 실제로 물리학습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수학 지식의 차이점이 존재하는가?

넷째, 이러한 고교과정에서 학습이 충분하지 못했던 수학지식과 대학 물리학과 대학 수학(미적분학, 공학수학)의 학습 시기 연계성 미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최신대학물리학, Raymond A. Serway, J. W. Jewett 북스힐 (2016)과 미분적분학, James Stewart; Daniel Clegg; Saleem Watson 경문사 (2021) 그리고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 KREYSZIG 공업수학 범한서적(2012)을 교재

로 수업을 진행하는 수도권 A 대학의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물리학과 수학의 연계성을 살펴보았다.

2) 연구 절차

(1) 대학 물리학과 학습 시기 연계성이 부족한 수학 지식 선정

교양 단과대학 소속 수학 전공 전임교수 2인이 물리학 교재에 나타난 수학 지식을 각각 조사하고, 회의를 통해 수학 지식과 용어를 조정하고 통합한다. 그리고 물리학전공 연구자 1인과 수학 전공연구자 2인 총 3인 회의를 통해 기초 수학 지식이 아닌 고교 이상의 수학 지식 중 연구범위로 적합한 수학 지식을 결정한다. 연구범위로 결정된 수학지식의 학습시기를 수업 계획서를 기준으로 알아보고 학습 시기 연계성이 부족한 수학 지식을 선정한다. 연구범위 선정과 그 이유는 다음 절 3) 연구범위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겠다.

(2) 설문조사

연구자 3인이 논의하여 수학과 물리학의 연관성, 수학지식 중 물리학습에 어려움을 주는 영역 등에 대한 설문지를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학습자가 실제로 어려움을 경험한 학습 시기 연계성이 부족한 수학지식을 정량적으로 알아본다. 설문 조사는 물리학을 최대한 많이 학습한 2학기 중간고사 이후(2023년 10월 24일~2023년 12월 6일)에 LMS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설문대상은 A 대학에서 연구자 1인이 담당하는 2023년 2학기 미적분학 수강생 중 물리학을 수강했거나 수강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전체 208명 중 설문에 참여한 인원은 166명(응답율 79.8%)이다. 물리학 수강생에 대해 설문 진행을 하지 않은 이유는 중복 설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설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설문 내용

구 분	내용	방법
수학과 물리 교과와의 연계성 인식	수학과 물리는 서로 관련이 있다.	리커트
물리 학습에 수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대학 물리를 학습하는데 수학(고교 수학+대학수학)이 필요하다.	
수학 지식 때문에 물리 학습이 곤란했던 경험	잘 모르는 수학 지식 때문에 물리 학습이 어려운 적이 있었다.	
물리 학습에 어려움을 느꼈던 수학 내용	다음 수학 지식 중 대학 물리 학습에 어려움을 느낀 것은?	선다형 + 기타 서술
물리학과 수학 연계 부적절에 대한 해결방안	물리학과 수학의 교육과정 연계 부적절로 물리학 학습에 어려움을 느꼈다면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중 어떤 방안이 적절한가?	

(3) 인터뷰

교재와 수업계획서로 분석한 학습 시기 연계성이 부족한 수학지식 중 수학 전공자 관점에서 어려운 지식과 학생들이 실제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지식의 차이를 학생들과 인터뷰를 통해 정성 분석한다. 1차 인터뷰에서는 학생의 배경정보(출신학교 유형, 수능 응시 과목), 물리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과 이유에 대해 인터뷰를 준비하고, 학생 상황에 맞게 보충 질의를 한다. 인터뷰 대상자는 물리와 수학에서 보통의 성취도를 나타내는 학생과 최상의 성취도를 나타내는 학생으로 선정한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후 2차 인터뷰를 실시한다.

3) 연구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대학 물리학에서 사용되는 고등학교 수학지식 중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부분과 공학 계열 전공자들이 주로 수강하는 대학 물리학의 특성상 대학 수학(미적분학, 공학수학) 중 일변수 함수의 미적분을 제외한 수학 지식과 공업수학 중 미분방정식까지만을 포함한다.

일변수 함수의 미적분은 미적분학 강의 초반에 학습하게 되는데, 많은

부분이 고등학교 ‘미적분’과 중복된다. 신동주는 서울 중상위권 대학 이공계열 신입생 88.1%가 고등학교에서 ‘미적분’을 이수하여 충분히 학습했고, 10.4%가 이수했으나 충분히 학습하지 않았고, 1.5% 학생들이 이수하지 않았다고 한다.¹⁵⁾ 98.5%의 학생이 고등학교 ‘미적분’을 이수하였기에 고등학교 ‘미적분’과 겹치는 일변수 함수 미적분학 부분은 연구범위에서 제외한다.

현행 고등학교 문·이과 통합형 개정 교육과정(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벡터는 선택과목 ‘기하’에서 학습하는 내용이다. 신동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중상위권 대학 이공계열 신입생 19.1%가 ‘기하’를 이수하지 않았고, 40.7%가 이수했으나 충분히 학습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벡터는 고등학교 ‘물리학 2’에서 나오는데 46.4%가 ‘물리학 2’을 이수하지 않았고, 34.1%가 이수했으나 충분히 학습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최소한 19.1%의 학생은 대학에 와서 벡터의 개념을 처음 접하게 되는 것이고, 60% 이상의 학생들은 벡터에 대해 익숙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신동주의 연구는 서울 중상위권 대학의 연구 결과이고, 일반적으로는 벡터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는 좀 더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물론 대학 물리학 1장에서 벡터를 소개한다. 그러나 벡터 내용은 단지 9페이지 정도이므로 고등학교 기하의 55쪽에 해당하는 분량¹⁶⁾과 미적분학의 58쪽에 해당하는 분량에 비해 현저히 적으며 내용 또한 처음 학습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습자료가 아니고 이미 선행 학습이 되어있는 학생들을 위한 복습 수준이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벡터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 연구의 대상에 포함한다.

본 연구는 임의의 한 개의 대학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는 것이 제한점

15) 신동주·김진호, 「문이과 통합형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이공계열 신입생의 고교 수학 및 과학 교과목 학습경험 분석: S 대학교를 중심으로」, 『공학교육연구』 25권 1호, 2022, 3-11쪽.

16) 김원경 외, 『고등학교 기하』, 비상교육, 2021.

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학 물리학과 대학 수학은 전공 기초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물리학 1은 고전역학, 물리학 2는 전기역학을 다루고, 미적분학 1은 일변수 함수의 미적분, 미적분학 2는 다변수 함수의 미적분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대학 물리학과 대학 수학(미적분학, 공학수학) 학습 시기 연계성이 바뀔 정도의 차이는 없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수업계획서를 통해 살펴 본 중위권 A대학, 상위권 B대학, 최상위권 C 대학 신입생의 물리학과 수학의 교과과정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3]).

[표 2] A, B, C 대학 물리 주요 내용

시기	A 대학	B 대학	C 대학
1학년 1학기	물리량과 벡터, 직선운동의 표현, 힘과 운동의 법칙, 에너지, 충돌, 회전 운동, 중력과 행성의 운동, 진동, 역학적 파동, 중첩과 정상파, 유체역학	물리량, 병진운동, 힘과 운동, 일과 에너지, 다체계의 운동, 충돌, 회전운동, 정역학, 진동, 중력, 유체, 파동	물리량과 벡터, 다차원 직선운동, 힘과 운동의 법칙, 에너지, 충돌, 회전 운동, 평형과 탄성, 중력과 주기운동, 진동, 역학적 파동, 열역학
1학년 2학기	전기력과 전기장, 전위와 전기용량, 전류와 직류회로, 자기력과 자기장, 패러데이의 법칙, 유도계수 및 교류회로, 전자기파, 빛의 반사와 굴절, 거울과 렌즈, 파동광학	전하와 전기장, 전위와 전기용량, 전류와 저항, 기전력과 회로, 자기장과 자기력, 암페어 법칙, 전자기 유도와 변위 전류, 인덕턴스와 교류회로, 맥스웰 방정식과 전자파, 기하광학, 빛의 간섭과 회절	전기력과 전기장, 가우스 법칙, 전위, 축전기와 유전체, 전류와 직류회로, 자기력과 자기장, 전자기 유도, 교류회로, 전자기파, 빛의 성질과 전파

[표 3] A, B, C 신입생 대학 수학 주요 내용

시기	A 대학	B 대학	C 대학
1학년 1학기	극한, 급수, 일변수 함수 극한과 연속, 미분, 적분, 극좌표와 매개방정식	극한, 급수, 일변수 함수 극한과 연속, 미분, 적분, 극좌표와 매개방정식, 수열과 급수	극한, 급수, 일변수 함수 극한과 연속, 미분, 적분, 극좌표와 매개방정식, 수열과 급수
1학년 2학기	수열과 급수, 벡터, 편미분, 중적분	벡터, 편미분, 중적분, 선적분, 벡터해석	벡터, 편미분, 중적분, 선적분, 벡터해석

또한 상위권 대학 B와 최상위권 대학 C보다는 중위권 대학 A를 대상으로 한 분석이 더 일반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연구 결과 및 논의

1) 대학 물리학에서 사용되는 수학 지식과 학습시기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지식은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공통(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 경우의 수, 도형의 방정식, 집합과 명제, 함수와 그래프)과 선택으로 나누어지며, 선택 과목인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등을 학생들이 선택하여 학습하므로 이 연구에서의 연구범위를 수학 전공 전임교수 2인 회의와 연구자 3인 회의에서 물리학 수업계획서와 수학 수업계획서를 비교하여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적합한 대학 물리학에서 사용되는 수학지식을 벡터, 극좌표계, 역탄젠트 함수, 미분방정식, 근사와 미분, 내적, 벡터함수, 선적분 등으로 나타냈다.

연구범위로 결정된 수학지식의 학습 시기를 A 대학 물리 수업계획서 기준으로 정리하면 [표 4], [표 5]와 같다.

[표 4] 대학 물리 1에서 사용되는 수학 지식과 학습 시기

대학 물리학 (학습시기)	수학 지식	대학 수학 학습시기
서론 및 벡터 (1학기 1주차)	벡터	1학년 2학기 3주차
	극좌표계	1학년 1학기 14주차
	역탄젠트 함수	1학년 1학기 1주차
이차원에서의 운동 (1학기 3주차)	벡터	1학년 2학기 3주차
	벡터함수와 벡터함수의 미분	1학년 2학기 6주차
운동의 법칙 (1학기 4주차)	벡터	1학년 2학기 3주차
뉴턴 법칙의 응용 (1학기 5주차)	벡터	1학년 2학기 3주차
	미분방정식	2학년 1학기 공학수학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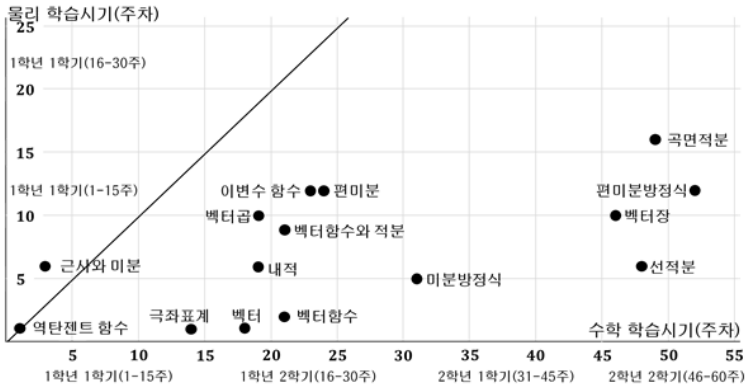
계의 에너지 (1학기 6주차)	근사와 미분	1학년 1학기 3주차
	벡터	1학년 2학기 3주차
	내적	1학년 2학기 4주차
	벡터함수와 벡터함수의 미분	1학년 2학기 6주차
	선적분	2학년 2학기 공학수학 2
에너지의 보존 (1학기 7주차)	근사와 미분	1학년 1학기 3주차
	벡터	1학년 2학기 3주차
	내적	1학년 2학기 4주차
	벡터함수와 벡터함수의 미분과 적분	1학년 2학기 6주차
	선적분	2학년 2학기 공학수학 2
운동량과 충돌 (1학기 8주차)	벡터	1학년 2학기 3주차
	벡터함수와 벡터함수의 미분과 적분	1학년 2학기 6주차
회전운동 (1학기 9주차)	벡터	1학년 2학기 3주차
	벡터곱	1학년 2학기 4주차
	벡터함수와 벡터함수의 미분과 적분	1학년 2학기 6주차
중력, 궤도운동, 수소원자 (1학기 10주차)	타원	고등학교 기하
	벡터	1학년 2학기 3주차
	벡터곱	1학년 2학기 4주차
	벡터장	2학년 2학기 공학수학 2
진동(1학기 11주차)	삼각함수 합성	고교와 대학교육과정에 없음
	미분방정식	2학년 1학기 공학수학 1
역학적 파동 (1학기 12주차)	이변수 함수	1학년 2학기 8주차
	편미분	1학년 2학기 9주차
	편미분방정식	2학년 2학기 공학수학 2
	근사와 미분	1학년 1학기 3주차
중첩과 정상파 (1학기 13주차)	삼각함수 합성	고교와 대학교육과정에 없음
	타원	고등학교 기하
유체역학 (1학기 14주차)	벡터	1학년 2학기 3주차

[표 5] 대학 물리 2에서 사용되는 수학 지식과 학습 시기

대학 물리학 (학습시기)	수학 지식	대학 수학 학습시기
전기력과 전기장 (2학기 1-2주차)	벡터	1학년 2학기 3주차
	벡터장	2학년 2학기 공학수학 2
	곡면적분	2학년 2학기 공학수학 2
	선적분	2학년 2학기 공학수학 2
전위와 전기용량 (2학기 3-4주차)	벡터, 내적	1학년 2학기 3주차
	벡터함수의 미분과 적분	1학년 2학기 6주차
	선적분	2학년 2학기 공학수학 2
전류와 직류회로 (2학기 5주차)	미분방정식	2학년 1학기 공학수학 1
자기력과 자기장 (2학기 6-7주차)	벡터장	2학년 2학기 공학수학 2
	벡터함수 적분	1학년 2학기 6주차
	벡터곱	1학년 2학기 4주차
	근사와 미분	1학년 1학기 3주차
	선적분	2학년 2학기 공학수학 2
	곡면적분	2학년 2학기 공학수학 2
패러데이 법칙, 유도계수 및 교류회로 (2학기 9-10주차)	벡터함수 적분	1학년 2학기 6주차
	선적분	2학년 2학기 공학수학 2
	미분방정식	2학년 1학기 공학수학 1
전자기파 (2학기 11주차)	선적분	2학년 2학기 공학수학 2
	벡터함수 적분	1학년 2학기 6주차
	편미분방정식	2학년 2학기 공학수학 2
	벡터곱	1학년 2학기 4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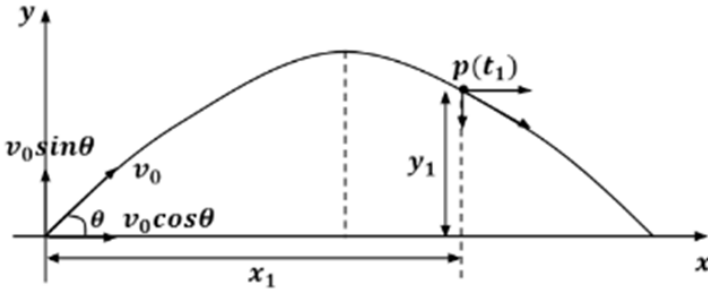
2) 대학 물리학에서 사용되는 고등학교 수학 및 대학 수학 지식 중 학습 시기 연계성이 부족한 지식

수학 최초 학습 시기를 x 축, 물리 최초 학습 시기를 y 축으로 하여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수학 지식의 대학 물리학과 대학 수학에서 최초 학습 시기 그래프

[그림 1]에 나타난 것처럼, ‘근사와 미분’ 좌표는 직선 위쪽에 위치하고 그 의미는 수학에서 학습 시기가 물리학 학습 시기보다 빠르다는 것이다. ‘역 탄젠트 함수’ 좌표는 직선 안에 위치하여 수학과 물리학 학습 시기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머지 13개의 수학 지식은 직선 아래쪽에 위치하여 물리학 학습 시기가 수학 학습 시기보다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사와 미분’과 ‘역 탄젠트 함수’를 제외한 연구범위의 모든 수학지식이 물리학에서 먼저 학습하게 된다. 예를 들어, 1학년 1학기 3주차 물리학 수업에서 학습하는 이차원 운동([그림 2])에서는 ‘벡터함수와 벡터함수의 미분’이란 수학 지식을 이용하는데, 대학 수학 수업 3시간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1학년 2학기에 학습하게 되어 학습 시기 연계성이 미흡하다. 일반적으로 물리학 교수자는 물리학 강의에 필요한 수학 내용을 소개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그러나 교수자가 수학 수업 3시간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전 지식이 없는 학생들에게 짧은 시간에 소개할 때, 학생들이 수학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물리학에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림 2] ‘이차원 운동’에서 ‘벡터함수와 벡터함수의 미분’ 사용 예

또 다른 예는 1학년 1학기 12주차 13장 역학적 파동에서 파동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편미분방정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편미분방정식을 배우지 않고 최소한의 편미분 개념이 없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선형 파동 방정식

앞서 표현한 것은 **좌우로 진행**하는 파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지금은 **y축 방향**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y(x, t) = A \sin(kx - \omega t)$$

● $x = \text{constant}$

$$v_y = \left. \frac{dy}{dt} \right|_{x=\text{const.}} = \frac{\partial y}{\partial t} = -\omega A \cos(kx - \omega t)$$

$$a_y = \left. \frac{dv_y}{dt} \right|_{x=\text{const.}} = \frac{\partial^2 y}{\partial t^2} = -\omega^2 A \sin(kx - \omega t) \quad \dots (1)$$

● $t = \text{constant}$

$$\left. \frac{dy}{dx} \right|_{t=\text{const.}} = \frac{\partial y}{\partial x} = k A \cos(kx - \omega t)$$

$$\left. \frac{d^2 y}{dx^2} \right|_{t=\text{const.}} = \frac{\partial^2 y}{\partial x^2} = -k^2 A \sin(kx - \omega t) \quad \dots (2)$$

[그림 3] ‘역학적 파동’에서 ‘편미분방정식’ 사용 예

[그림 1]에서 직선 $y = x$ 아래쪽에 위치한 수학 지식은 물리 교수자가 해당 수학 내용을 소개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간의 제약으로 충분한 설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대학 물리학과 수학과와의 연계성에 대한 설문 분석

설문 조사의 대상은 2장의 (2) 설문조사에 기술하였으며, 설문 문항은 용은주의 논문을 참고하고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제목	물리학과 수학의 연계성(대학물리학 수강했던 또는 수강 중인 학생들 참여 부탁)		
공개일	2023.10.25 오전 12:00		
마감일	2023.12.06 오후 11:59		
결과	공개 시작일 : 응답 후 공개 마감일 : 무제한		
익명여부	☒ 익명 (참여자 정보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지정방식	☒ 전체		
동시저장과목	물자기(5개) ▼		
목적	이 설문지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좋은 강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입니다. 익명으로 작성된 설문은 담당교수의 수업에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 목적 외에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평가 내용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문항 : 6

1. 수학과 물리는 서로 관련이 있다.(필수)[1개 선택]

- 1) 매우 아니다
- 2) 아니다
- 3) 보통
- 4) 그렇다
- 5) 매우 그렇다

[그림 4] LMS 설문 화면

수학과 물리의 상호 연계성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은 [표 6]과 같다. 대다수의 학생인 155명(93.4%)이 수학과 물리는 매우 연계성 있거나 연계성이 있다고 답하였다.

[표 6] 수학과 물리 교과학의 연계성에 대한 질문

1. 수학과 물리는 서로 관련이 있다.		
설문 반응	빈도	비율(%)
매우 아니다	0	0
아니다	1	0.6
보통	10	6.0
그렇다	75	45.2
매우 그렇다	80	48.2
계	166	100

또한, 대학 물리학습에 수학의 필요성 질문에 학생들의 응답은 [표 7]과 같다. 학생의 142명(85.6%)이 매우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표 7] 물리 학습에 수학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

2. 대학 물리를 학습하는데 수학(고교 수학+대학수학)이 필요하다.		
설문 반응	빈도	비율(%)
매우 아니다	0	0
아니다	4	2.4
보통	20	12.0
그렇다	67	40.4
매우 그렇다	75	45.2
계	166	100

잘 모르는 수학 지식에 의해 물리학습이 곤란했던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물리와 수학의 연계성, 물리학습에 수학의 필요성에 비하여 낮은 반응을 보였다.

[표 8] 수학 지식 때문에 물리학습이 곤란했던 경험에 대한 질문

3. 잘 모르는 수학 지식 때문에 물리 학습이 어려운 적이 있었다.		
설문 반응	빈도	비율(%)
매우 아니다	6	3.6
아니다	36	21.7
보통	47	28.3

그렇다	47	28.3
매우 그렇다	30	18.1
계	166	100

수학 지식 중 물리학습에 어려움이 있었던 내용에 대한 질문(중복선택)에는 벡터, 벡터함수, 곡면적분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9] 수학 지식 중 물리학습에 어려움이 있었던 내용에 대한 질문(중복선택)

4. 다음 수학 지식 중 대학 물리 학습에 어려움을 느낀 것은?		
설문 반응	빈도	비율(%)
삼각함수	24	14.5
미분	22	13.3
벡터	77	46.4
벡터함수	58	34.9
벡터장	46	27.7
적분	49	29.5
편미분	46	27.7
선적분	48	28.9
곡면적분	54	32.5
상미분방정식	52	31.3
편미분방정식	49	29.5
기타	5	3.0

물리학과 수학의 교육과정 연계 부적절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에 연계가 부적절하지 않도록 교육과정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물리 수업 중 수학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자는 의견이 다음으로 높았다. 대학 교육과정상 1학년에 물리학을 수강 완료하여야 하기에 교육과정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관련하여 보완 방안을 결론 및 제언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차선택으로 물리 수업 중 수학 개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좋을 듯하고 시간에 제약이 있다면 온라인 보충 강의를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10] 물리학과 수학의 교육과정 연계부적절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

5. 물리학과 수학의 교육과정 연계 부적절로 물리학 학습에 어려움을 느꼈다면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중 어떤 방안이 적절한가?		
설문 반응	빈도	비율(%)
물리 수업 중 수학 개념 간단히 설명	50	30.1
관련내용을 학생들이 미리 공부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42	25.3
교육과정 조정	70	42.2
기타	4	2.4
계	166	100

설문 조사 결과 수학 물리 교과의 연계성, 물리학습에 수학의 필요성에 비해 실제로 수학 지식 때문에 물리학습이 곤란했던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와 [표 5]에 나타난 대로 많은 연계 부적절이 있는데도 곤란했던 경험이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수학의 관점에서는 벡터와 벡터함수는 곡면적분, 편미분방정식, 선적분 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쉬운 부분이다. 그런데, 물리학습에서 벡터관련 개념으로 물리학습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한 이유는 무엇일까?

관련하여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기로 하였다.

4) 학생들과의 인터뷰

인터뷰를 위해 ‘잘 모르는 수학 지식에 의해 물리학습이 곤란했던 경험’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답한 학생 A와 ‘매우 아니다’라고 답한 학생 B를 섭외하였다. 해당 학생들은 연구자 일인의 2023년 2학기 세미나 수업 수강생으로 담당 교수와 친밀감을 형성한 상황이다. 담당 교수와 학생 A, B와는 2023년 11월에 교수 세미나 수업 후에 인터뷰를 시행하였고 시간은 30분 정도씩 교수 연구실에서 진행되었다. 학생 B와는 2024년 4월에 추가로 2차로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 학생 A

학생 A는 서울 소재 일반고를 졸업하였고 수능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을 응시하였고, 물리학은 수능으로 응시하지 않았다. 대학 미적분학과 물리학 성적은 B학점 수준으로 중간 정도의 성취도를 가지고 있었다. 잘 모르는 수학 지식에 의해 물리학습이 곤란했던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물리가 어려워서 수능 때 선택하지 않았어요. 신소재 공학과에 들어오니 제가 선택했던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은 별로 필요 없고 물리학이 중요해졌어요. ‘미적분학’은 잘하지는 못해도 대학 오려고 열심히 했었어요. ‘기하’는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물리에 계속 벡터가 나오는데 이해도 안 되고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1학년 마치고 군대 갈 거예요. 편미분 이런 거는 미적분학을 공부했고 물리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알려주셔서 할 수 있었고 문제 풀이에 복잡한 것은 나오지 않았어요.
[2024년 11월 15일 학생 A]

학생 A는 물리학에 어려움을 무척 느끼고 있었고, 물리학에서 나오는 수학 개념 중 벡터 부분에 특히 어려움이 있었다. 곡면 적분, 편미분 방정식, 선적분 등 어려운 수학 개념은 물리개념 설명할 때 나왔고 직접 계산에 이용하는 빈도가 적었으므로 큰 어려움을 느끼지는 못한다고 답하였다.

(2) 학생 B

학생 B는 지방 소재 일반고(과학중점학교)를 졸업하였고 물리학과에 진학한 학생으로 수능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을 응시하였고, 물리학은 수능으로 응시하지는 않았다. 대학 미적분과 물리학 성적은 A학점으로 우수한 성취도를 가지고 있었다. 학생 B는 물리학과 수학의 연계성과 필요성에 매우 그렇다고 답하였고, 잘 모르는 수학 지식에 의해 물리학습이 곤란했던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아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물리학과 수학의 교육과정 연계 부적절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필요 없다’라고 답하였

다. 다른 학생에 비해 학생 B가 물리학 학습에 수학 교육과정 연계 부적절 때문에 곤란을 느끼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고등학교 때, 고급 물리학 수업을 수강하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벡터에 대한 내용을 고급 물리학 수업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덜하다고 판단되었다. 곡면적분, 편미분 방정식, 선적분 등을 학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학 수강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 ‘느끼지 못했다’고 답하였다. 학생 B와는 2024년 4월에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교수님 저 생각이 바뀌었어요. 1학년 때는 물리 공부하는데 적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 2학년이 되어 역학과목을 수강하는데, 교수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곡면적분 선적분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요. 일 년 전과는 다르게 수학 때문에 물리 공부에 어려움이 많아요.
[2024년 4월 5일 학생 B]

설문과 인터뷰 결과 이공계 신입생이 주로 수강하는 대학 물리학에서는 학습자들이 수학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곡면적분, 편미분방정식, 선적분 보다는 직접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벡터 부분에 대한 연계 부적절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된다. 곡면적분 등 수학 전문가의 관점에서 어렵다고 느끼는 고급 수학이론이 대학 물리학 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크게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곡면적분 등 고급 수학 이론은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다루는 문제에는 나오는 빈도가 적고 이론 설명에 이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곡면적분, 편미분방정식, 선적분 등은 2학년 이상 이공계 전공과목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난이도 있는 수학 이론이고 충분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전공 학습에서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교과정에서 학습이 충분하지 못했던 수학지식과 대학 수학에서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대학 물리학에서 사용되는 수학적 지식 때문에 대학 물리학 강의에 어려움이 있어 시작되었다. 또한, 이러한 연계성 미흡을 해소할 방안을 탐구하고자 진행되었다.

설정된 문제에 대한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물리학에서 사용되는 학생들이 학습이 부족한 고등학교 수학 지식은 무엇인가?

현행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이공계 대학 신입생이 충분히 학습하지 못하고 대학 물리학에서 만나게 되는 수학지식은 ‘벡터’와 ‘타원’이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삭제되어 고등학교에서 학습하지 않는 ‘삼각함수 합성’이다.

둘째, 대학 물리학에서 사용되는 대학 수학(미적분학, 공학수학) 지식 중 대학 물리학에서 먼저 등장하고 대학 수학에서 나중에 배우게 되어 학습 시기 연계성이 부족한 수학 지식은 무엇인가?

3장의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벡터곱, 벡터함수와 벡터함수의 미분과 적분, 미분방정식, 벡터장, 선적분, 곡면적분, 편미분방정식이다.

셋째, 학습자가 물리학습에 어려움을 경험한 학습 시기 연계성이 부족한 수학지식은 무엇인가? 또한 연계성이 부족한 수학지식 중 수학 전공자 관점에서 어려운 지식과 학생들이 실제로 물리학습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수학 지식의 차이점이 존재하는가?

설문 조사결과 벡터, 벡터함수, 곡면적분, 상미분방정식, 편미분방정식 순으로 나타났다. 곡면적분, 편미분방정식이 수학적으로 더 난이도가 있는 부분인데, 벡터와 벡터함수가 상위 순위가 오른 이유는 인터뷰를 한 결과

물리학 교재에 나타나는 빈도가 많고 실제 문제 풀이에 사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넷째, 이러한 고교과정에서 학습이 충분하지 못했던 수학지식과 대학 물리학과 대학 수학(미적분학, 공학 수학)의 학습 시기 연계성 미흡을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공계 진학 학생들은 기본적인 벡터와 미적분학을 필수로 학습해야 하는데 현행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주된 목표인 학습량 경감을 위해 ‘미적분’과 ‘기하’를 일반선택과목으로 편성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미적분과 기하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학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대학 물리학은 미적분과 벡터를 선행 학습했을 때 학습이 가능한 학문이다. 현재는 미적분을 학습하고 기하(벡터)를 충분히 학습하지 않고 이공계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이다. 대학 물리학에서 미적분 내용이 벡터의 사용보다는 많다는 점에서 일면 다행이라고 하겠다. 만약, 미적분을 제대로 학습하지 않고 이공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나라 이공계 교육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이공계 전공 학습에 큰 어려움이 될 것이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도 부합하고 이공계 진학생들이 기본적인 미적분과 벡터를 필수로 학습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교육과정 마련이 시급하다. 설문과 인터뷰 결과 이공계 신입생이 주로 수강하는 대학 물리학에서는 수학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곡면적분, 편미분 방정식, 선적분 보다는 직접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벡터 부분에 대한 학습 시기 연계 부적절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곡면적분, 편미분방정식, 선적분 등이 중요도가 덜 하다는 것은 아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학생 B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위의 난이도 있는 수학지식은 역학 등 후속 교과목에서 중요하게 이용되는 수학 지식이므로 대상 학생들의 충분한 학습이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대학 미적분학 1학년 1

학기 1주차에 현재 1학년 2학기 3주차에 진행되는 벡터 부분을 먼저 강의하는 교육과정을 고려하는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한다.

설문 조사에 의하면, 물리학과 수학의 교육과정 연계부적절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에 연계가 부적절하지 않도록 교육과정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물리 수업 중 수학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자는 의견이 다음으로 많았다. 대학 교육과정상 1학년에 물리학을 수강 완료하여야 하기에 교육과정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교육과정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집중이수제, 계절학기를 이용해서 대학 물리학과 수학의 학습 시기 연계성 미흡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과 시행령(2017. 5. 8 개정)에 의해 많은 대학에서 집중이수제를 운영하고 있다.¹⁷⁾ 대학 수학을 동일 학기 상반기, 대학 물리학을 하반기에 학습하도록 하면 학습 시기 연계성 부족 부분은 다소 해결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계절학기를 이용하여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다만, 시행 전에 현실성과 다른 부작용 등은 충분히 연구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많았던 물리 수업 중 수학 개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시간에 제약이 있다면 온라인 보충 강의를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각 대학의 LMS시스템 또는 유튜브를 이용해서 수학 전공자의 보충 영상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 때, 제작된 미적분학 교수자의 영상을 LMS시스템 또는 유튜브를 이용해 제공하는 것이 수월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수학에서 벡터를 1학년 1학기 1-2주차에 강의를 진행하는 강좌와 현행처럼 1학년 2학기에 진행하는 강좌들의 물리학 성취도를 비교 분석하는 것

17) 주형선 외, 『방송대 집중학기제 도입방안 연구(정책과제 17-1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7.

은 후속 연구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온라인 보충 강의를 제공하는 강좌와 현행처럼 제공하지 않는 강좌 학생들의 성취도를 비교 분석하는 것도 후속 연구과제가 될 수 있다. 또한 2015개정 교육과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벡터”이다.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미적분이 1, 2로 나누어지며, 미적분 2와 벡터를 학습하는 기하는 진로 선택과목이 됩니다. 따라서 2022개정 교육과정의 학생들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 참고 문헌

- 김영미, 「중학교 수학과 과학 교과 내용의 연관성 연구: 제 7차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원경·조민식·방금성·윤종국·신재홍·김기탁·박희정·심주석·오혜정·이동근·임석훈·김동화·강순자·정재훈·허남구, 『고등학교 기하』, 비상교육, 2021.
- 노은진, 「대학 물리학에서 요구되는 고교수학 지식의 필요성」,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 서보억·김혜경·김주영·김종재·김현지·채정림, 「수학의 이해가 과학의 학습에 미치는 경향 분석과 교과 연계성에 대한 연구」,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11권 4호, 2008, 677-694쪽.
- 성제록,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물질 분야)와 수학과 교육과정의 연계성」,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 신동주·김진호, 「문이과 통합형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이공계열 신입생의 고교수학 및 과학 교과목 학습경험 분석: S 대학교를 중심으로」, 『공학교육연구』 25권 1호, 2022, 3-11쪽.
- 양신영, 「제7차 교육과정에서 물리와 수학의 연계성: 고등학교 물리Ⅱ 내용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용은주, 「수학교과와 과학교과의 학습내용 연계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이석영, 「수학교과와 과학교과의 상관관계: 고등학생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이시은, 「고등학교 공통과학의 물리내용이 필요로 하는 수학적 수준과 수학교과서와의 연관성」,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임성민, 「대학 물리교육에서 작용량 개념 도입의 의의와 가능성」, 『새물리』 72권 3호, 2022, 198-207쪽.
- 주형선·이영·우영희·최현진·조명희·엄계숙·오승희·임광민·노지영, 『방송대 집중학기제 도입방안 연구(정책과제 17-1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7.

홍현철·고석구·선우하식, 「고교 물리의 수학적 고찰을 통한 함수의 지도법에 관하여」, 『건국자연과학연구지』 12권, 2001, 91-107쪽.

황정운·최재혁, 「물리교육과 신입교수의 교사교육자로서 역할에 관한 셀프스터디」, 『새물리』 72권 10호, 2022, 782-794쪽.

Stewart, J., Clegg, D., & Watson, S., *Calculus: Early Transcendentals, Metric Version*, Cengage, 2020.

Redish, E. F., “Problem Solving and the Use of Math in Physics Courses”, World View on Physics Education in 2005: Focusing on Change, Delhi, August 21-26, 2005. (<https://doi.org/10.48550/arXiv.physics/0608268>)

Bruner, J. S., *The process of educ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대학 물리학과 수학의 학습 시기 연계성이 미흡한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 물리학 과정에서 수학은 필수적인 도구로 활용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학생이 필요한 수학 개념을 충분히 숙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물리학을 학습하고 있다. 이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물리학과 수학 교육과정 간의 부적절한 학습 시기 연계에서 비롯된 문제로, 물리 개념의 깊은 이해와 응용을 저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물리학 및 수학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하여 학습 시기 연계성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학습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수학적 배경 부족이 물리학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 시기 불일치가 물리 개념 이해 및 문제 해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많은 학생이 대학 수학의 개념을 충분히 학습하기 전에 물리학 강의를 수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학습 시기 조정, 사전 학습 자료 제공, 물리학 강의 내 수학 개념 보강 등의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이러한 방안은 물리학 학습 효과를 높이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연구는 일부 대학과 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교육 환경과 사례를 고려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주제어● 대학물리, 대학수학, 연계, 미적분학, 공학수학

■ Abstract

An Analysis of the Linkages between College Physics and Mathematics : Focusing on A University

Cho, Kyu Geun / Myongji University

Kim, Young Hie / Myongji University

Noh, Tae Ho / Myongji University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lack of alignment between college physics and mathematics and propose ways to improve it. Although mathematics is an essential tool in college physics courses, the reality is that many students are learning physics without sufficient mastery of the necessary mathematical concepts. This is not only due to students' individual learning abilities, but also to the inappropriate timing of learning between physics and math courses, which can hinder the deep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physics concepts. In this study, we compared and analyzed university physics and mathematics curricula to identify the problems in the timing of learning, and conducted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students to analyze their learning difficulties and the impact that the lack of mathematical background has on their physics learning. This allowed us to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ssess the impact of the learning timing mismatch on the conceptual understanding of physics and problem-solving skills. The results showed that many students are taking physics courses before they have sufficiently learned the concepts of college math, and this leads to difficulties in the learning process.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s such as adjusting the timing of learning, providing pre-learning materials, and reinforcing math concepts in physics lectures. These measures are expected to improve the learning effectiveness of physics and improve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However, since this study was conducted on a small sample of universities and students, future studies should consider a wider range of educational environments and cases.

**Keyword • University Physics, University Mathematics, Connection,
Calculus, Engineering Mathematics**

■ 논문투고일:2025.02.11. ■ 심사완료일:2025.03.11. ■ 게재확정일:2025.03.12. ■

Fixed-point Method for a New TVL2 Image Segmentation Model^{*}

Kim Kyoum Sun^{**}

Contents

1. Introduction
2. Preliminaries
3. Fixed-point Method for the TVL2 Problem (3)
4. Split Bregman Method for the TVL2 Problem (3)
5. Numerical Experiments
6. Conclusion

1. Introduction

Image segmentation is an important part in image processing and computer vision. The goal of image segmentation is to separate objects of interest from each other or from the background, or to find the boundaries of those objects.

In last decades, many models and algorithms have been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No. 2020R1I1A1A01070200)

** Kim Kyoum Su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Mathematics, lecturer

extensively proposed and applied for image segmentation, including active contours(Chan & Vese, 2001; Chen, et. al., 2023; Ding, Xiao & Weng, 2017; Jin & Weng, 2019), level-set methods(Liu, He, Gao & Wu, 2019; Luo, et. al., 2019; Rahmat & Harris-Birtill, 2018; Wang, et al., 2020; Wang, et. al., 2017), clustering methods(Ananthi & Balasubramaniam, 2016; Siddiqui & Yahya, 2022; Wang, et. al., 2017) and region based methods such as the piecewise constant version of Mumford and Shah(Mumford & Shah, 1989) from Chan and Vese(Chan & Vese, 2001). One of the most popular and influential variational segmentation models is the MS(Mumford-Shah) model(Beck, 2017). For a given image $f : \Omega \rightarrow R$, the piecewise constant MS(Mumford-Shah) segmentation model is to find subdomains Ω_i and constant values c_i by minimizing :

$$\sum_i \int_{\Omega_i} (c_i - f(x))^2 dx + \beta \text{Length}(\Gamma). \quad (1)$$

The curve Γ is the one that separates the domain Ω into subdomains Ω_i such that $\Omega = \bigcup_i \Omega_i \cup \Gamma$ and $\Gamma = \bigcup_i \partial\Omega_i$. The positive parameter β controls the trade-off between the goodness of fit and the length of the curve Γ .

Minimizing the objective function of (1) is difficult, especially when the curves need to be split and merged. Chan and Vese(Chan & Vese, 2001) proposed a level-set method to effectively handle this problem.

In 2012, Chen et al.(Chen, Zhang & Cheng, 2012) proposed a fixed-point method for solving the following TV-based image segmentation model :

$$\min_{0 \leq u \leq 1} \langle s, u \rangle + \beta TV(u) + \frac{\alpha}{2} \left\| u - \frac{1}{2} \right\|_2^2, \quad (2)$$

where $s(x) = (c_1 - f(x))^2 - (c_2 - f(x))^2$, $c_i = \int_{\Omega_i} f dx$ ($i=1,2$), f is given an observed image in an image domain Ω , α and β are positive constant, and $TV(u)$ stands for a discrete total variation of u . Fixed-point method was proposed in (Chen, et. al., 2012) to further speed up the solution of the problem (2). Recently, the split Bregman method has been applied to various segmentation models and has been proven to be one of the efficient methods for image segmentation (Goldstein, et. al., 2010). It was shown in (Chen, et. al., 2012) that the fixed-point method for the problem (2) performs better than the split Bregman method.

This observation gives us an idea of proposing a new TVL2 image segmentation model :

$$\min_{u \in C} \langle s, u \rangle + \alpha \left\| u - \frac{1}{2} \right\|_2 + \beta TV(u), \quad (3)$$

where α and β are positive regularization parameters, $TV(u)$ stands for the isotropic total variation of u , the set $C = \{u | u \in R^{n^2}, 0 \leq u \leq 1\}$ is a closed convex subset of R^{n^2} . Note that a new TVL2 image segmentation model (3) uses a non smooth term $\|\bullet\|_2$ instead of using a smooth term $\|\bullet\|_2^2$ for purpose of better preserving the edge. The isotropic total variation of u is defined by

$$TV(u) = \sum_{i=1}^{n^2} \sqrt{|(\nabla u)_i^x|^2 + |(\nabla u)_i^y|^2} = \sum_{i=1}^{n^2} \|(\nabla u)_i\|_2,$$

where the discrete gradient operator $\nabla : R^{n^2} \rightarrow R^{2n^2}$ is defined by

$$(\nabla u)_i = \begin{pmatrix} (\nabla u)_i^x \\ (\nabla u)_i^y \end{pmatrix}, \quad i = 1, 2, \dots, n^2$$

$$\text{with } (\nabla u)_i^x = \begin{cases} u_i - u_{i-1} & \text{if } i \bmod n \neq 1 \\ 0 & \text{if } i \bmod n = 1 \end{cases} \text{ and } (\nabla u)_i^y = \begin{cases} u_i - u_{i-n} & \text{if } i > n \\ 0 & \text{if } i \leq n \end{cas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two iterative methods, which are a fixed-point method and a split Bregman method using CGLS(conjugate gradient least square method)(Bjorck, 1996) for solving the new proposed TVL2 image segmentation model (3). This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In section 2, we provide some definitions and properties that are used in this paper. In section 3, we propose a fixed-point method for solving the new TVL2 problem (3) and then provide convergence analysis for the fixed-point method. In section 4, we first provide a split Bregman method using CGLS for solving the new TVL2 problem (3), and then we refer to the convergence of the split Bregman method. In section 5, we provide numerical experiments for several test problems in order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two iterative methods for the TVL2 problem (3). This can be done by comparing their performances with the corresponding two iterative methods for the TVL2 problem (3). Lastly, some conclusions are drawn.

2. Preliminaries

In this section, we introduce several definitions and important properties that are used in this paper.

Definition 1.(Moreau, 1965) Let $\phi : R^n \rightarrow (-\infty, \infty]$ be a proper, convex, and lower semi-continuous function. The proximity operator

of ϕ is defined by

$$prox_{\phi}(x) = \arg \min_u \left\{ \frac{1}{2} \|u - x\|_2^2 + \phi(u) : u \in R^n \right\}. \quad (4)$$

Definition 2. Let $\phi : R^n \rightarrow (-\infty, \infty]$ be a proper function, and let $dom(\phi)$ denote the domain of ϕ , that is, $dom(\phi) = \{x \in R^n : \phi(x) < \infty\}$. For an $x \in dom(\phi)$, the subdifferential of ϕ at $x \in R^n$ is defined by

$$\partial\phi(x) = \{y \in R^n : \phi(z) \geq \phi(x) + \langle y, z - x \rangle, \forall z \in R^n\}. \quad (5)$$

Definition 3. A nonlinear operator $H : R^n \rightarrow R^n$ is called non-expansive if for any $x, y \in R^n$

$$\|H(x) - H(y)\|_2 \leq \|x - y\|_2. \quad (6)$$

Definition 4. A nonlinear operator $H : R^n \rightarrow R^n$ is called firmly non-expansive if for any $x, y \in R^n$

$$\|H(x) - H(y)\|_2^2 \leq \langle x - y, H(x) - H(y) \rangle. \quad (7)$$

Using the Cauchy-Schwarz inequality, it is easy to show that a firmly non-expansive operator is also non-expansive.

Proposition 1.(Beck, 2017) Let $\phi : R^n \rightarrow (-\infty, \infty]$ be a proper convex function. Then $x^* \in \arg \min \{\phi(x) : x \in R^n\}$ if and only if .

Proposition 2.(Micchelli, et. al. 2011; Rudin, et. al., 1992) Let $\phi : R^n \rightarrow R$ be a convex function. Then for $x, y \in R^n$, the following holds

$$y \in \partial\phi(x) \Leftrightarrow x = prox_{\phi}(x + y). \quad (8)$$

Let $S : R^n \rightarrow R^n$ be an operator. Then the Picard iteration of S is defined by

$$x_{i+1} = Sx_i \text{ for } i = 0, 1, 2, \dots \quad (9)$$

for a given vector $x_0 \in R^n$. For $k \in (0, 1)$, the k -averaged operator S_k of S is defined by

$$S_k = kI + (1 - k)S, \quad (10)$$

where I denotes an identity operator.

Let $\phi : R^{2n^2} \rightarrow R$ be a convex function defined by

$$\phi(d) = \sum_{i=1}^{n^2} \|(d_i, d_{n^2+1})^T\|_2 \text{ for each } d = (d_i) \in R^{2n^2} \quad (11)$$

where d_i denotes the i th component of the vector d .

Let B be a $2n^2 \times n^2$ matrix that represents a discrete gradient operator ∇ , which is

$$B = \begin{pmatrix} I_n \otimes D \\ D \otimes I_n \end{pmatrix} \quad (12)$$

where I_n is a $n \times n$ identity matrix, $\otimes$ denotes the Kronecker product, and D is the first order finite difference matrix of order n

$$\begin{pmatrix} 0 & 0 & \cdots & \cdots & 0 \\ -1 & 1 & \cdots & \cdots & 0 \\ \vdots & \ddots & \ddots & \ddots & \vdots \\ 0 & \cdots & -1 & 1 & 0 \\ 0 & \cdots & 0 & -1 & 1 \end{pmatrix}.$$

Then the isotropic total variation of $u \in R^{n^2}$ can be expressed as

$$TV(u) = (\phi \circ B)(u). \quad (13)$$

The fixed-point method, called Algorithm 1, for solving the problem (2) is described below (see (Chen, Zhang & Cheng, 2012) for detailed description of algorithm).

Algorithm 1 Fixed-point algorithm for TV segmentation model (2)

Given : image f , positive parameters $\alpha, \beta, \lambda, \mu$ and $k \in (0, 1)$,

tolerance error $\text{tol} > 0$, number of inner iteration M

Initialization : $v^0 = 0, u^0 = \frac{f}{\max\{f\}}, \Omega_0 = \{x : u^0 > \mu\}$,

$$c_1^0 = \int_{\Omega_0} f dx, \quad c_2^0 = \int_{\Omega_0^c} f dx, \quad s^0 = (c_1^0 - f)^2 - (c_2^0 - f)^2$$

while $\frac{\|u^{k+1} - u^k\|_2}{\|u^k\|_2} < \text{tol}$ **do**

$$v^{k,0} = v^k$$

for $i = 0 : M - 1$

$$v^{k,i+1} = kv^{k,i} + (1-k)(I - \text{prox}_{\frac{1}{\lambda}\Phi})((I - \frac{\lambda}{\alpha}BB^T)v^{k,i} - B(\frac{s^k}{\alpha} - \frac{1}{2}))$$

end for

Write the output of $v^{k,M}$ from the above loop as v^{k+1} , then

$$u^{k+1} = -\frac{1}{\alpha}(s^k + \lambda B^T v^{k+1}) + \frac{1}{2}$$

$$\Omega_{k+1} = \{x : u^{k+1}(x) > \mu\}, \quad c_1^{k+1} = \int_{\Omega_{k+1}} f dx, \quad c_2^{k+1} = \int_{\Omega_{k+1}^c} f dx$$

$$s^{k+1} = (c_1^{k+1} - f)^2 - (c_2^{k+1} - f)^2$$

$$k = k + 1$$

end while

3. Fixed-point Method for the TVL2 Problem (3)

In this section, we propose a fixed-point method for solving the new TVL2 image segmentation problem (3), and then we provide a convergence analysis for the fixed-point method. Using (13), the TVL2 problem (3) can be expressed as

$$\min_{0 \leq u \leq 1} \left\{ \langle s, u \rangle + \alpha \left\| u - \frac{1}{2} \right\|_2 + \beta(\phi \circ B)(u) \right\}. \quad (14)$$

Using proposition 1 and proposition 2, we can obtain the following property for a solution of the TVL2 problem (3).

Theorem 3.1. If ϕ is a real valued convex function on R^{2n^2} , B is a $2n^2 \times n^2$ matrix, $u \in R^{n^2}$ is a solution of the problem (14), then for any $\gamma, \lambda > 0$ there exist vectors $a \in R^{n^2}$ and $b \in R^{2n^2}$ such that

$$a = (I - \text{prox}_{\frac{1}{\gamma} \|\cdot\|_2})(u - \frac{1}{2} + a) \quad (15)$$

$$b = (I - \text{prox}_{\frac{\beta}{\lambda} \phi})(Bu + b) \quad (16)$$

$$s + \alpha \gamma a + \lambda B^T b = 0 \quad (17)$$

Conversely, if there exist $\gamma, \lambda > 0$, $a \in R^{n^2}$, $b \in R^{2n^2}$ and $u \in R^{n^2}$ satisfying (15)-(17), then u is a solution of the problem (14).

Proof. Assume that $u \in R^{n^2}$ is a solution of the problem (14). Using Proposition 1 and the chain rule of subdifferential, we obtain the following equivalent relation for the solution u .

$$\begin{aligned} 0 &\in \nabla \langle s, u \rangle + \alpha (\partial \|\cdot\|_2)(u - \frac{1}{2}) + \beta B^T \circ (\partial \phi) \circ (Bu) \\ &= s + \alpha (\partial \|\cdot\|_2)(u - \frac{1}{2}) + B^T \partial(\beta \phi)(Bu). \end{aligned} \quad (18)$$

For any $\gamma, \lambda > 0$, we can choose two vectors $a \in \partial(\frac{1}{\gamma} \|\cdot\|_2)(u - \frac{1}{2})$ and $b \in \partial(\frac{\beta}{\lambda} \phi)(Bu)$ satisfying

$$s + \alpha \gamma a + \lambda B^T b = 0. \quad (19)$$

Using Proposition 2, one obtains

$$u - \frac{1}{2} = \text{prox}_{\frac{1}{\gamma} \|\cdot\|_2}(u - \frac{1}{2} + a) \text{ and } Bu = \text{prox}_{\frac{\beta}{\lambda} \phi}(Bu + b). \quad (20)$$

From (19) and (20), we obtains (15), (16) and (17).

Conversely, assume that there exist $\gamma, \lambda > 0$, $a \in R^{n^2}$, $b \in R^{2n^2}$

and $u \in R^{n^2}$ satisfying (15)-(17). From (15) and (16), we have

$$\begin{aligned} a \in \partial(\frac{1}{\gamma}\|\cdot\|_2)(u - \frac{1}{2}) &= \frac{1}{\gamma}(\partial\|\cdot\|_2)(u - \frac{1}{2}) \text{ and} \\ b \in \partial(\frac{\beta}{\lambda}\phi)(Bu) &= \frac{\beta}{\lambda}(\partial\phi)(Bu). \end{aligned} \quad (21)$$

Using (17) and (21), we obtain

$$\begin{aligned} 0 &= s + \alpha\gamma a + \lambda B^T b \\ &\in \nabla \langle s, u \rangle + \alpha(\partial\|\cdot\|_2)(u - \frac{1}{2}) + \beta B^T \circ (\partial\phi) \circ (Bu). \end{aligned}$$

Consequently, (18) holds. Hence, u is a solution of the problem (14)

□

From (15)-(17) in Theorem 3.1, we can develop a fixed-point algorithm which converges a solution to the problem (3). We now describe how to develop the fixed-point algorithm. Let u be an approximate solution to the equation (17) in Theorem 3.1. We split (15) into

$$a = u + \hat{a} \quad (22)$$

where $\hat{a} = a - \frac{1}{2} - \text{prox}_{\frac{1}{\gamma}\|\cdot\|_2}(u - \frac{1}{2} + a)$.

Equation (17) is changed to $s + \alpha\gamma(u + \hat{a}) + \lambda B^T b = 0$. Then, u can be expressed as

$$u = -\hat{a} - \frac{1}{\alpha\gamma}(s + \lambda B^T b). \quad (23)$$

Substituting (23) into (15) and (16), one obtains

$$a = (I - \text{prox}_{\frac{1}{\gamma}\|\cdot\|_2})(a - \frac{\lambda}{\alpha\gamma}B^T b - \hat{a} - \frac{1}{\alpha\gamma}s - \frac{1}{2}), \quad (24)$$

$$b = (I - \text{prox}_{\frac{\beta}{\lambda}\phi})(I - \frac{\lambda}{\alpha\gamma}BB^T)b - B(\hat{a} + \frac{1}{\alpha\gamma}s). \quad (25)$$

We now formulate some nonlinear operator on R^{3n^2} . For the given

convex functions $\frac{1}{\gamma}\|\cdot\|_2$ on R^{n^2} and $\frac{\beta}{\lambda}\phi$ on R^{2n^2} , an operator $T: R^{3n^2} \rightarrow R^{3n^2}$ at a vector $\begin{pmatrix} x \\ y \end{pmatrix} \in R^{3n^2}$ with $x \in R^{n^2}$ and $y \in R^{2n^2}$ can be defined by

$$T\begin{pmatrix} x \\ y \end{pmatrix} = \begin{pmatrix} (I - \text{prox}_{\frac{1}{\gamma}\|\cdot\|_2})(x) \\ (I - \text{prox}_{\frac{\beta}{\lambda}\phi})(y) \end{pmatrix}. \quad (26)$$

We also define an affine transformation $L: R^{3n^2} \rightarrow R^{3n^2}$ at a vector $\begin{pmatrix} a \\ b \end{pmatrix} \in R^{3n^2}$ with $a \in R^{n^2}$ and $b \in R^{2n^2}$ by

$$L\begin{pmatrix} a \\ b \end{pmatrix} = \begin{pmatrix} I_{n^2} & -\frac{\lambda}{\alpha\gamma}B^T \\ 0 & I_{2n^2} - \frac{\lambda}{\alpha\gamma}BB^T \end{pmatrix} \begin{pmatrix} a \\ b \end{pmatrix} + \begin{pmatrix} -\hat{a} - \frac{1}{\alpha\gamma}s - \frac{1}{2} \\ -B(\hat{a} + \frac{1}{\alpha\gamma}s) \end{pmatrix}, \quad (27)$$

and an operator $G: R^{3n^2} \rightarrow R^{3n^2}$ by

$$G = T \circ L. \quad (28)$$

Then, (24) and (25) can be expressed as

$$w = Gw, \quad (29)$$

where $w = (a, b)^T$.

Proposition 3.2. The operator G defined by (29) has a fixed point.

Proof. Since a solution u of the TVL2 problem (14) exists, from (29) and the first part of the proof of Theorem 3.1, G has a fixed point. $\square$

$$\text{Let } P := \begin{pmatrix} I_{n^2} \\ B \end{pmatrix}, \quad R := \begin{pmatrix} 0 \cdot I_{n^2} & 0 \\ 0 & \frac{\lambda}{\alpha\gamma}I_{2n^2} \end{pmatrix} \text{ and} \\ c := \begin{pmatrix} -\hat{a} - \frac{1}{\alpha\gamma}s - \frac{1}{2} \\ -B(\hat{a} + \frac{1}{\alpha\gamma}s) \end{pmatrix} \in R^{3n^2}.$$

Then (27) can be expressed as

$$Lw = (I_{3n^2} - PP^TR)w + c, \quad (30)$$

where $w = (a, b)^T$.

Theorem 3.3. Let P and R be defined as above. If $\|I_{3n^2} - PP^TR\|_2 \leq 1$, then the operator G defined by (28) is non-expansive.

proof. Since $I - \text{prox}_{\frac{1}{\gamma}\|\cdot\|_2}$ and $I - \text{prox}_{\frac{\beta}{\lambda}\phi}$ are firmly non-expansive (Combettes & Wajs, 2005), the operator T defined by (26) is non-expansive (Kim & Yun, 2020). For all $w_1, w_2 \in R^{3n^2}$, we have

$$\begin{aligned} \|G(w_1) - G(w_2)\|_2 &\leq \|T(Lw_1) - T(Lw_2)\|_2 \\ &\leq \|Lw_1 - Lw_2\|_2. \end{aligned}$$

From the assumption $\|I_{3n^2} - PP^TR\|_2 \leq 1$ and (30), we obtain

$$\begin{aligned} \|Lw_1 - Lw_2\|_2 &= \|(I_{3n^2} - PP^TR)(w_1 - w_2)\|_2 \\ &\leq \|I_{3n^2} - PP^TR\|_2 \|w_1 - w_2\|_2 \\ &\leq \|w_1 - w_2\|_2. \end{aligned}$$

Hence, the operator G is non-expansive. □

Proposition 3.4. (Opial -averaged Theorem(Opial, 1967)). Let $C \subset R^{3n^2}$ be a closed convex set and $S: C \rightarrow C$ be a non-expansive mapping with at least one fixed point. Then for any $w^0 \in C$ and $k \in (0, 1)$, the Picard iteration of S_k converges to a fixed point of S .

Theorem 3.5. Let P , R and G be defined as in Theorem 3.3. If $\|I_{3n^2} - PP^TR\|_2 \leq 1$, then for any $k \in (0, 1)$ the Picard iteration of G_k converges to a fixed point of G .

Proof. From Proposition 3.2 and Theorem 3.3, we know that the operator G has a fixed point and is non-expansive. Hence, for any vector $w^0 \in R^{3n^2}$ and $k \in (0, 1)$, the Picard iteration of G_k converges

to a fixed point of G by Proposition 3.4. $\square$

Lemma 3.6. Let P , R and G be defined as in Theorem 3.3. If we choose positive parameters α , γ and λ such that

$$0 < \frac{\lambda}{\alpha\gamma} \leq \frac{2}{\tau}, \quad (31)$$

where τ denotes the largest eigenvalue of PP^T , then $\|I_{3n^2} - PP^TR\|_2 \leq 1$ and thus the operator G is non-expansive.

Proof. The largest eigenvalue of R is $\frac{\lambda}{\alpha\gamma}$. Since PP^T and R are symmetric, the largest eigenvalue of PP^TR is $\tau \cdot \frac{\gamma}{\alpha\gamma}$. It follows that $\|I_{3n^2} - PP^TR\|_2 \leq 1$, if positive parameters α , γ and λ satisfy (31). Therefore, the operator G is non-expansive by Theorem 3.3. $\square$

Theorem 3.7. If the assumption of Lemma 3.6 hold, then for any $k \in (0, 1)$ the Picard iteration of G_k converges to a fixed point of G .

Proof. This theorem clearly hold by Theorem 3.5 and Lemma 3.6. $\square$

From Theorem 3.5 and the Picard iteration of the k -averaged operator $G_k = kI + (1 - k)G$, we can obtain a fixed-point method, called Algorithm 2, which converges to a solution to TVL2 problem (3) for some appropriately chosen positive parameters α , γ and λ .

Algorithm 2 Fixed-point algorithm for TVL2 segmentation model (3)

Given : observed image f , positive parameters $\alpha, \beta, \gamma, \lambda, \mu$

and $\kappa \in (0, 1)$

Initialization : $a^0 = 0$, $b^0 = 0$, $u^0 = \frac{f}{\max\{f\}}$, $\Omega_0 = \{x : u^0(x) > \mu\}$,

$$c_1^0 = \int_{\Omega_0} f dx, \quad c_2^0 = \int_{\Omega_0^c} f dx, \quad s^0 = (c_1^0 - f)^2 - (c_2^0 - f)^2$$

for $k = 0$ to $maxit$ do

$$a^{k+\frac{1}{2}} = a^k - \frac{1}{2} - prox_{\frac{1}{\gamma}\|\cdot\|_2} \left(u^k + a^k - \frac{1}{2} \right)$$

$$\hat{a}^{k+1} = u^k + a^{k+\frac{1}{2}}$$

$$a^{k+1} = \kappa a^k + (1 - \kappa) \hat{a}^{k+1}$$

$$\hat{b}^{k+1} = (I - prox_{\frac{\beta}{\lambda}\phi})(Bu^k + b^k)$$

$$b^{k+1} = \kappa b^k + (1 - \kappa) \hat{b}^{k+1}$$

$$u^{k+1} = -a^{k+\frac{1}{2}} - \frac{1}{\alpha\gamma} (s^k + \lambda B^T b^k)$$

$$\Omega_{k+1} = \{x : u^{k+1}(x) > \mu\}, \quad c_1^{k+1} = \int_{\Omega_{k+1}} f dx, \quad c_2^{k+1} = \int_{\Omega_{k+1}^c} f dx$$

$$s^{k+1} = (c_1^{k+1} - f)^2 - (c_2^{k+1} - f)^2$$

$$\text{if } \frac{\|u^{k+1} - u^k\|_2}{\|u^{k+1}\|_2} > tol \text{ then}$$

Stop

end if

end for

4. Split Bregman Method for the TVL2 Problem (3)

In this section, we study an application of the alternating split Bregman method proposed in (Goldstein & Osher, 2009) to the TVL2 problem (3). The problem (3) can be considered as a constrained minimization problem

$$\begin{aligned} \min_u \{ < s, u > + \alpha \|w\|_2 + \beta \phi(d) \} \text{ such that} \\ w = u - \frac{1}{2} \text{ and } d = Bu, \end{aligned} \quad (32)$$

where $d \in R^{2n^2}$, $B \in R^{2n^2 \times n^2}$ and $w \in R^{n^2}$. We will consider the

following unconstrained minimization problem with a penalty parameters $\gamma, \lambda > 0$.

$$\min_{u, d, w} \left\{ \langle s, u \rangle + \alpha \|w\|_2 + \beta \phi(d) + \frac{\gamma}{2} \|w - u + \frac{1}{2}b\|_2^2 + \frac{\lambda}{2} \|d - Bu - c\|_2^2 \right\}. \quad (33)$$

Then, the alternating split Bregman iteration using auxiliary vectors b and c for solving the problem (3) can be written as follows : Let $u^0 = f$ and $w^0 = d^0 = b^0 = c^0 = 0$. Then the sequence $(u^{k+1}, w^{k+1}, d^{k+1})$ is generated by

$$\begin{cases} u^{k+1} = \arg \min_u \left\{ \langle s, u \rangle + \frac{\gamma}{2} \|w^k - u + \frac{1}{2}b^k\|_2^2 + \frac{\lambda}{2} \|d^k - Bu - c^k\|_2^2 \right\} \\ w^{k+1} = \arg \min_w \left\{ \alpha \|w\|_2 + \frac{\gamma}{2} \|w - u^{k+1} + \frac{1}{2}b^k\|_2^2 \right\} \\ d^{k+1} = \arg \min_d \left\{ \beta \phi(d) + \frac{\lambda}{2} \|d - Bu^{k+1} - c^k\|_2^2 \right\} \\ b^{k+1} = b^k + u^{k+1} - \frac{1}{2} - w^{k+1} \\ c^{k+1} = c^k + Bu^{k+1} - d^{k+1} \end{cases}. \quad (34)$$

Theorem 4.1. Suppose that u^* is a solution of the problem (3) and $\alpha, \beta > 0$. Then the following property for the split Bregman method (34) holds.

$$\lim_{k \rightarrow \infty} \left\{ \langle s, u^k \rangle + \alpha \left\| u^k - \frac{1}{2} \right\|_2 + \beta \phi(Bu^k) \right\} = \langle s, u^* \rangle + \alpha \left\| u^* - \frac{1}{2} \right\|_2 + \beta \phi(Bu^*).$$

Proof. The proof of this theorem can be done in a similar way to the convergence proof in (Cai, Osher & Shen, 2009). $\square$

The first equation of (34) is equivalent to solving the following equation for $u^{k+1} \in R^{n^2}$

$$(\gamma I + \lambda B^T B)u^{k+1} = \gamma(w^k - b^k + \frac{1}{2} - \frac{1}{\gamma}s^k) + \lambda B^T(d^k - c^k). \quad (35)$$

The second equation of (34) is equivalent to the following nonlinear equation for the proximal operator of $\frac{\alpha}{\gamma} \|\cdot\|_2$ at $(u^{k+1} + b^k - \frac{1}{2})$

$$w^{k+1} = \text{prox}_{\frac{\alpha}{\gamma} \|\cdot\|_2} (u^{k+1} + b^k - \frac{1}{2}). \quad (36)$$

The third equation of (34) is equivalent to the following nonlinear equation for the proximal operator of $\frac{\beta}{\lambda} \phi(\cdot)$ at $(Bu^{k+1} + c^k)$

$$d^{k+1} = \text{prox}_{\frac{\beta}{\lambda} \phi(\cdot)} (Bu^{k+1} + c^k). \quad (37)$$

Using (34), (35), (36) and (37), we can obtain a split Bregman method, called Algorithm 3, for solving the TVL2 problem (3).

Algorithm 3 Split Bregman algorithm for TVL2 segmentation model (3)

Given : observed image f , positive parameters $\alpha, \beta, \gamma, \lambda$

Initialization : $u^0 = f, w^0 = 0, b^0 = 0, c^0 = 0$ and $d^0 = 0$

for $k = 0$ to $maxit$ do

Solve $(\gamma I + \lambda B^T B)u^{k+1} = \gamma(w^k - b^k + \frac{1}{2} - \frac{1}{\gamma}s^k) + \lambda B^T(d^k - c^k)$ for

u^{k+1}

$w^{k+1} = \text{prox}_{\frac{\alpha}{\gamma} \|\cdot\|_2} (u^{k+1} + b^k - \frac{1}{2})$

$d^{k+1} = \text{prox}_{\frac{\beta}{\lambda} \phi(\cdot)} (Bu^{k+1} + c^k)$

$b^{k+1} = b^k + u^{k+1} - \frac{1}{2} - w^{k+1}$

$c^{k+1} = c^k + Bu^{k+1} - d^{k+1}$

if $\frac{\|u^{k+1} - u^k\|_2}{\|u^{k+1}\|_2} > tol$ then

Stop

end if

end for

Note that the linear system in line 4 of Algorithm 3 is

approximately solved using the CGLS (conjugate gradient least squares method)(Bjorck, 1996).

5. Numerical Experiments

In this section, we provide numerical experiments for several test problems to estimate the efficiency of the fixed point method (Algorithm 2) and split Bregman method (Algorithm 3) for solving the new proposed TVL2 problem (3). Performance of these algorithms are evaluated by comparing their numerical results.

All numerical experiments are implemented under Matlab R2018a running on a notebook computer with Intel(R) Core(TM) i7-1165G7 2.80 GHz CPU and 16.0 GB RAM Memory. In our experiments, we have used four test images which are the “Cameramen”, “House”, “Boat” and Pepper“ images, the pixel size of these is 256×256 .

All algorithms tested in experiments are terminated when the following stopping criterion was satisfied

$$\frac{\|u^{k+1} - u^k\|_2}{\|u^{k+1}\|_2} > tol,$$

where tol denotes a prescribed tolerance value. We set $tol = 5 \times 10^{-3}$ for all the algorithms. For all test problems, we set $\kappa = 1 \times 10^{-6}$, $\mu = 0.5$ and $maxit = 4$, $maxit$ denotes the maximum number of iterations. For the CGLS of Algorithm 3, the maximum number of iterations is set to 4, and tolerance number is set to 5×10^{-2} . The positive parameters α , β , γ and λ are chosen as the best one by numerical tries. In all cases, we set $\beta = 0.03$ and

$\lambda = 0.02$.

In the first experiment, we consider the segmentation problem of the cameramen image. The experiment results are shown in Figure 1. We choose $\alpha = 8 \times 10^{13}$ for Algorithm 1, $\alpha = 8 \times 10^{11}$ and $\gamma = 1.9 \times 10^3$ for Algorithm 2, $\alpha = 0.01$ and $\gamma = 8 \times 10^{13}$ for Algorithm 3.

In the second experiment, we consider the segmentation problem of the house image and the experiment results are shown in Figure 2. We set to $\alpha = 9 \times 10^{13}$ for Algorithm 1, $\alpha = 3 \times 10^{11}$ and $\gamma = 2.5 \times 10^3$ for Algorithm 2, $\alpha = 0.01$ and $\gamma = 9 \times 10^{13}$ for Algorithm 3.

In the third experiment, we consider the segmentation problem of the boat image. The experiment results are shown in Figure 3. We choose $\alpha = 0.1 \times 10^{13}$ for Algorithm 1, $\alpha = 3 \times 10^{11}$ and $\gamma = 3 \times 10^3$ for Algorithm 2, $\alpha = 0.01$ and $\gamma = 0.1 \times 10^{13}$ for Algorithm 3.

In the last experiment, we consider the segmentation problem of the pepper image and the experiment results are shown in Figure 4. We set to $\alpha = 5 \times 10^{13}$ for Algorithm 1, $\alpha = 3 \times 10^{15}$ and $\gamma = 0.3$, $\alpha = 0.01$ and $\gamma = 4.5 \times 10^{13}$ for Algorithms 2 and 3 respectively.

By comparing the CPU times in Table 1, it can be seen that the fixed-point method Algorithm 2 takes less than Algorithms 1 and the split Bregman method Algorithm 3. In other words, the fixed-point method Algorithm 2 for the new proposed TVL2 image segmentation model (3) performs better in CPU time than the fixed-point method Algorithm 1 for the model (2). Also, for the new proposed TVL2 image

segmentation model (3), the performance of the fixed-point method Algorithm 2 is superior to that of the split Bregman method Algorithm 3 in speed.

6. Conclusion

In this paper, we have proposed a new TVL2 model (3) for image segmentation, and then we have developed a fixed-point method, called Algorithm 2, and a split Bregman method, called Algorithm 3, for solving the new proposed TVL2 model (3).

Numerical experiments for several test problems show that Algorithm 2 for the new TVL2 model (3) performs better in CPU time than Algorithm 1 for the model (2). As compared with the split Bregman method for the new TVL2 model (3), the fixed-point method works better than the split Bregman method. Henc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new TVL2 model (3) is preferred over the model (2), and the proposed fixed-point method(Algorithm 2) and split Bregman method(Algorithm 3) are well suited for the new TVL2 model (3).

The fixed-point method and split Bregman method proposed in this paper can be applied to the image inpainting problem or two-phase image segmentation problem. Future work will study these kinds of problems.

[Table 1] CPU time in seconds for image segmentation

Image	CPU times (s)		
	Algorithm 1	Algorithm 2	Algorithm 3
Cameramen	0.0164	0.0090	0.0138
House	0.0161	0.0104	0.0136
Boat	0.0167	0.0114	0.0142
Pepper	0.0166	0.0098	0.0133



(a) original image



(b) result of Algorithm 1



(c) result of Algorithm 2



(d) result of Algorithm 3

[Figure 1] Segmentation for a cameramen image. (a) Given cameramen image, (b) segmentation result of fixed-point algorithm for model (2), (c) segmentation result of fixed-point algorithm for our model (3), (d) segmentation result of split Bregman algorithm for our model (3)



(a) original image



(b) result of Algorithm 1



(c) result of Algorithm 2



(d) result of Algorithm 3

[Figure 2] Segmentation for a house image. (a) Given house image, (b) segmentation result of fixed-point algorithm for a model (2), (c) segmentation result of fixed-point algorithm for our model (3), (d) segmentation result of split Bregman algorithm for our model (3)



(a) original image



(b) result of Algorithm 1



(c) result of Algorithm 2



(d) result of Algorithm 3

[Figure 3] Segmentation for a boat image. (a) Given boat image, (b) segmentation result of fixed-point algorithm for model (2), (c) segmentation result of fixed-point algorithm for our model (3), (d) segmentation result of split Bregman algorithm for our model (3)



(a) original image



(b) result of Algorithm 1



(c) result of Algorithm 2



(d) result of Algorithm 3

[Figure 4] Segmentation for a pepper image. (a) Given pepper image, (b) segmentation result of fixed-point algorithm for model (2), (c) segmentation result of fixed-point algorithm for our model (3), (d) segmentation result of split Bregman algorithm for our model (3)

■ 참고 문헌

- A. Beck, *First-order methods in optimization*, Philadelphia: SIAM, 2017.
- Å. Björck, *Numerical Methods for Least Squares Problems*, SIAM, 1996.
- C. A. Micchelli, L. Shen, & Y. Xu, "Proximity algorithms for image models: denoising", *Inverse Problems*, vol. 27(045009), Bristol: IOP Publishing, 2011, pp.1-25.
- D. Mumford & J. Shah, "Optimal approximations by piecewise smooth functions and associated variational problems", *Commun. Pure Appl. Math.*, vol. 42, no. 5, Hoboken: Wiley, 1989, pp.577-685.
- D. Q. Chen, H. Zhang, & L. Z. Cheng, "A fast fixed point algorithm for total variation deblurring and segmentation", *Journal of Math. Imaging & Vis.*, vol. 43, Berlin: Springer, 2012, pp.167-179.
- D. Wang, H. Li, X. Wei, & X.P. Wang, "An efficient iterative thresholding method for image segmentation", *J. Comput. Phys.*, vol. 350, Amsterdam: Elsevier, pp.657-667.
- F. U. Siddiqui & A. Yahya, *Clustering Techniques for Image Segmentation*, Cham: Springer Cham, 2022.
- J. F. Cai, S. Osher, & Z. Shen, "Split Bregman Methods and Frame Based Image Restoration", *Multiscale Model. & Simul.*, vol. 8, Issue 2, Springer, 2009, pp.337-369.
- J. Lu, K. Qiao, L. Shen, & Y. Zou, "Fixed-point algorithms for a TVL1 image restoration model", *Int. J. Comput. Math.*, vol. 95, Taylor & Francis, 2018, pp.1829-1844.
- J. J. Moreau, "Proximité et dualité dans un espace hilbertien", *Bull. Soc. Math. France*, vol. 93, Société Mathématique de France, 1965, pp.273-299.
- K. Ding, L. Xiao, & G. Weng, "Active contours driven by region-

- scalable fitting and optimized Laplacian of Gaussian energy for image segmentation”, *Signal Process.*, vol. 134, Elsevier, 2017, pp.224-233.
- K. S. Kim & J. H. Yun, “Image Restoration Using a Fixed-Point Method for a TVL2 Regularization Problem”, *Algorithms* 2020, vol. 13, no. 1, Basel: MDPI, 2019, pp.1-15.
- L. I. Rudin, S. Osher, & E. Fatemi, “Nonlinear total variation based noise removal algorithms”, *Physica D.*, vol. 60, Elsevier, 1992, pp.259-268.
- L. Wang, L. Zhang, X. Yang, P. Yi, & H. Chen, “Level set based segmentation using local fitted images and inhomogeneity entropy”, *Signal Process.*, vol. 167, no. 2(107297), Elsevier, 2020.
- P. L. Combettes & V. R. Wajs, “Signal recovery by proximal forward-backward splitting”, *Multiscale Model. Simul.*, vol. 4, SIAM, 2005, pp.1168-1200.
- R. Chan, H. Yang, & T. Zeng, “A two-stage image segmentation method for blurry images with Poisson or multiplicative Gamma noise”, *SIAM J. Imaging Sci.*, vol. 7, no. 1, SIAM, 2014, pp.98-127.
- R. Jin & G. Weng, “Active contours driven by adaptive functions and fuzzy c-means energy for fast image segmentation”, *Signal Process.*, vol 163, 2019, pp.1-10.
- R. Rahmat & D. Harris-Birtill, “Comparison of level set models in image segmentation”, *IET Image Process.*, vol. 12, no. 12, IET, 2018, pp.2212-2221.
- S. Luo, X.C. Tai, L. Huo, Y. Wang, & R. Glowinski, “Convex shape prior for multi-object segmentation using a single level set function”, *Proceedings of the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Seoul, Korea, IEEE, 2019, pp.613-621.
- S. Zeng, X. Wang, H. Cui, C. Zheng, & D. Feng, “A unified collaborative multikernel fuzzy clustering for multiview

- data", *IEEE Trans. Fuzzy Syst.*, vol. 26, no. 3, IEEE, 2017, pp.1671-1687.
- T. F. Chan & L. A. Vese, "Active contours without edges", *IEEE Trans. Image Process.*, vol. 10, no. 2, IEEE, 2001, pp.266-277.
- T. Goldstein & S. Osher, "The split Bregman method for L1-regularized problems", *SIAM J. Imaging Sci.*, vol. 2, SIAM, 2009, pp.323-343.
- T. Goldstein, X. Bresson, and S. Osher, "Geometric applications of the split Bergman method: segmentation and surface reconstruction", *J. Sci. Comput.*, vol. 45, Springer, 2010, pp.272-293.
- V. Ananthi & P. Balasubramaniam, "A new thresholding technique based on fuzzy set as an application to leukocyte nucleus segmentation", *Comput. Methods Programs Biomed.*, vol. 134, Elsevier, 2016, pp.165-177.
- Y. Chen, P. Ge, G. Wang, G. Weng, & H. Chen, "An overview of intelligent image segmentation using active contour models", *Intell Robot*, vol. 3, no. 1, 2023, pp.23-55.
- Y. Liu, C. He, P. Gao, Y. Wu, & Z. Ren, "A binary level set variational model with L1 data term for image segmentation", *Signal Process.*, vol. 155, Elsevier, 2019, pp.193-201.
- Z. Opial, "Weak convergence of the sequence of successive approximations for nonexpansive mappings", *Bull. Amer. Math. Soc.*, vol. 73, no. 4, Providence: AMS, 1967, pp.591-597.

■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 분할을 위한 새로운 TVL2 정규모델을 제안하고, 제안된 새로운 이미지 분할 모델을 풀기 위한 고정점 방법과 split Bregman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고정점 반복법에 대한 수렴성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반복법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 여러 테스트 이미지로 수치 실험을 수행한다. 실험 결과들은 제안한 고정점 반복법이 새로운 TVL2 모델에 매우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제어 • 이미지 분할, Total variation, 고정점 방법, Split Bregman method, Proximity operator

■ Abstract

Fixed-point Method for a New TVL2 Image Segmentation Model

Kim, Kyoum Sun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TVL2 regularization model for image segmentation, and then we propose a fixed-point method and a split Bregman method for solving the new proposed image segmentation model. We also provide convergence analysis for the fixed-point method. Lastly, we provide numerical experiments for several test problems in order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wo iterative methods. Numeric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fixed-point method is well suited for the new TVL2 model.

Keyword • Image segmentation, Total variation, Fixed-point method, Split Bregman method, Proximity operator

노벨상과 인공지능

오 상 훈*

목 차

1. 들어가며
2. 노벨물리학상과 인공지능
3. 노벨화학상과 인공지능
4. 인공지능 활용 과학 연구에 관한 고찰
5. 맺음말

1. 들어가며

2024년 10월 스웨덴으로 집중된 세상의 시각은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로 인공지능을 연구한 존 홉필드(John Hopfield)와 제프리 힌튼(Geoffrey Hinton)을 선정하였다는 소식으로 크게 충격을 받았다.¹⁾ 통상적으로 새로운 물리법칙을 발견하거나 실험적으로 증명한 사람에게 주어지던 노벨 물리학상을 컴퓨터 분야의 연구자에게 수여한 측면과 또한 인공지능 연구 결과가 노벨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측면은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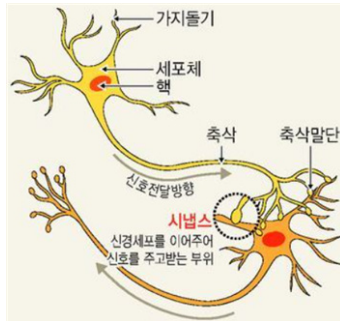
* 목원대학교 AI응용학과 교수

1) 이종현, “[2024 노벨상] ‘AI 시대 주춧돌 놓은 선구자들’…노벨 물리학상 존 홉필드·제프리 힌튼(종합)”, <조선비즈>, 2024.10.08.

큰 충격이었다. 사람들의 관심은 과연 노벨화학상도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자에게 수여될 것인가에 쏠렸으며, 인공지능이 물론 과학과 사회 전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물리학과 화학상을 동시에 인공지능 분야에 수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겨졌다. 하지만,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2024 노벨화학상 역시 인공지능 혹은 컴퓨터를 활용하여 단백질의 구조를 연구한 데미스 하사비스(Demis Hassabis), 존 점퍼(John Jumper), 데이비드 베이커(David Baker) 3인에게 수여됨으로써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여실히 느끼게 하였다.²⁾ 이 논문에서는 2024년 노벨물리학과 노벨화학상 수상과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을 설명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 연구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노벨물리학과 인공지능

1) 홉필드 연상기억 모델과 볼츠만 머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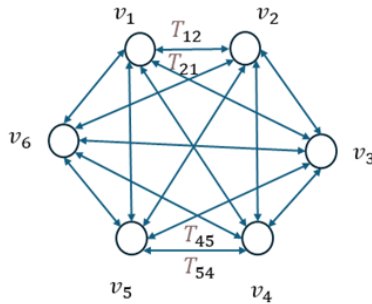
[그림 1] 신경세포와 시냅스

생물학적 신경회로망(Biological Neural Networks)은 [그림 1]³⁾에서 보

2) 이종현, “[2024 노벨상] “신약 개발 AI 혁명 이끈 과학자”...화학상에 데이비드 베이커·데미스 허사비스·존 점퍼(종합)”, <조선비즈>, 2024.10.10.

3) 박형주, ““기억은 어디에 저장되는가” 110년 된 ‘엔그램’ 수수께끼”, <한겨레>, 2019.07.13.

는 바와 같이 신경세포인 뉴런(Neuron)들이 시냅스를 통하여 상호 연결되어 있다. 정보는 뉴런들을 연결하는 시냅스에 저장되어 있으며, 특정 뉴런의 신호는 시냅스를 통하여 다른 뉴런에게 전달된다. 즉, 뉴런들은 시냅스를 통하여 전달된 신호들의 총합을 기반으로 자기의 상태를 결정한다. 존 홉필드는 1982년에 신경회로망에 정보들을 저장하고, 일부 정보의 제공으로 저장된 정보를 찾아내는 연상기억 모델을 제시하였다.⁴⁾ 이를 인공 신경회로망(Artificial Neural Networks) 중의 한 모델인 일명 홉필드 모델이라고 하며 그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는 뉴런(혹은 노드)가 6개인 경우에 해당하는 그림인데, 각 뉴런의 상태는 v_i 로 나타내고 뉴런 i 와 j 사이의 연결 시냅스(혹은 가중치)는 T_{ij} 로 나타낸다.



[그림 2] 홉필드 모델

홉필드 모델이 뉴런 N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뉴런들의 상태는 N 차원 벡터 $v = [v_1, v_2, v_3, \dots, v_N]$ 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뉴런의 상태는 맥클로치(McCulloch)와 피츠(Pitts) 뉴런처럼⁵⁾ 0과 1의 값만을 가진다고

4) J. J. Hopfield, "Neural Networks and Physical Systems with Emergent Collective Computational Abilities", *Proc. Natl. Acad. Sci. USA.*, vol. 79, no. 8, 1982, pp.2554-2558.

5) W. S. McCulloch & W. Pitts, "A logical calculus of the ideas immanent in nervous activity", *The Bulletin of mathematical biophysics*, vol. 5, no. 4, 1943, pp.115-133.

가정한다. 즉, 2진수로 뉴런의 상태를 표현한다. 만약, N 차원 2진수 벡터 P 개($v^{(p)} = [v_1^{(p)}, v_2^{(p)}, v_3^{(p)}, \dots, v_N^{(p)}]$, $p = 1, 2, \dots, P$)를 홉필드 모델에 저장하고자 하면, 뉴런 i 와 j 사이의 연결 시냅스 T_{ij} 는

$$T_{ij} = \sum_{p=1}^P (2v_i^{(p)} - 1)(2v_j^{(p)} - 1) - P\delta_{ij} \quad (1)$$

와 같이 정해진다. 여기서, δ_{ij} 는 크로네커 델타(Kronecker delta)로써, i 와 j 가 같을 때만 1의 값을 가지고, i 와 j 가 다른 경우에는 0이다.

식 (1)과 같은 형태로 N 차원 벡터 P 개를 홉필드 모델에 저장한 후에, 뉴런들의 초기 상태가 $v = [v_1, v_2, v_3, \dots, v_N]$ 로 주어지면, 각 뉴런들은 다른 뉴런들로부터 시냅스를 통하여 입력되는 값을

$$\hat{v}_i = \sum_{j=1}^N T_{ij}v_j, \quad (i = 1, 2, \dots, N) \quad (2)$$

와 같이 계산한 후, 문턱 값 U_i 에 의해 $\hat{v}_i > U_i$ 이면 뉴런 v_i 의 다음 상태를 1로 정하며, $\hat{v}_i < U_i$ 이면 뉴런 v_i 의 다음 상태를 0으로 정한다. 이렇게 동작하는 홉필드 모델은

$$E = -\frac{1}{2} \sum_i \sum_{j \neq i} T_{ij}v_i v_j \quad (3)$$

로 정의 되는 에너지 함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뉴런들의 상태가 변한다. 이러한 동작은, 만약 홉필드 모델의 초기상태를 저장된 정보 중에서 일부만 지니도록 하면, 뉴런 상태의 변화를 통하여 전체 저장되어 있는 P 개의 정보들 중에서 초기 상태와 가장 가까운 N 차원 정보를 찾아준다. 즉, 홉필드 모델은 사람의 연상기억 작용을 모델로 구현한 것이다.⁶⁾

이후 존 홉필드 교수의 제자였던 테렌스 세즈노스키(Terrence Sejnowski)와 제프리 힌튼(Jeffrey Hinton)은 홉필드 모델을 확장하여 에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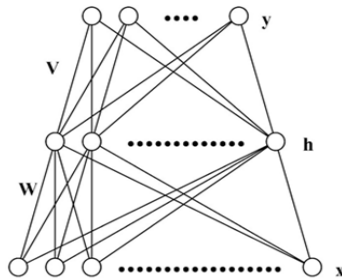
6) S.-H. Oh, T.-H. Yoon, & J. C. Kim, "Associative-memory model based on neural networks: modification of Hopfield model", *Opt. Lett.*, vol. 13, no. 1, Medline, 1988, pp.74-76.

지가 낮은 상태로만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도 동작할 확률을 지닌 볼츠만 머신(Boltzmann Machine)을 제안하였다.

2)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과 심층 신경회로망

(1) 다층퍼셉트론 신경회로망과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

다층퍼셉트론(MLP, Multi-Layer Perceptron) 신경회로망은 입력층(input layer), 은닉층(hidden layer), 출력층(output layer)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력뉴런을 N 차원 벡터 $x = [x_1, x_2, x_3, \dots, x_N]$ 으로 나타내고, 마찬가지로 은닉층과 출력층 뉴런들 역시 각각 H 차원 벡터 $h = [h_1, h_2, h_3, \dots, h_H]$ 와 M 차원 벡터 $y = [y_1, y_2, y_3, \dots, y_M]$ 로 나타내자. 그리고, 입력뉴런 x_i 와 은닉뉴런 h_j 사이의 연결 가중치를 은닉층 가중치 w_{ji} 라 하고, 은닉뉴런 h_j 와 출력뉴런 y_k 사이의 연결 가중치를 출력층 가중치 v_{kj} 라 하면, 이 가중치들은 행렬 $W = [w_{ji}]_{H \times N}$ 와 $V = [v_{kj}]_{M \times H}$ 로 표시될 수 있다. [그림 3]은 이러한 관계를 표시한 다층 퍼셉트론을 보여준다.



[그림 3] 다층 퍼셉트론

다층퍼셉트론은 입력벡터와 그 입력벡터에 대하여 원하는 출력을 의미하는 목표벡터가 저장된 학습데이터들을 대상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 우선, 가중치 w_{ji} 와 v_{kj} 가 임의의 작은 값으로 초기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력 $x = [x_1, x_2, x_3, \dots, x_N]$ 가 주어진 경우 출력뉴런의 상태가 계산되는 과정

을 알아보자. 은닉층의 뉴런은 입력에 대한 가중치 합을

$$\hat{h}_j = \sum_{i=1}^N w_{ji}x_i + w_{jo}, \quad (j = 1, 2, \dots, H) \quad (4)$$

와 같이 계산한 후, 뉴런 활성화 함수를 거쳐 $h_j = f(\hat{h}_j)$ 와 같이 j 번째 은닉 뉴런의 상태를 결정한다. 여기서, $f(\cdot)$ 는 뉴런 활성화 함수이며 보통 시그모이드(sigmoid) 함수 $f(x) = 1/(1 + \exp(-x))$ 를 사용한다. 은닉뉴런들의 상태가 정해지면 마찬가지로 출력뉴런의 상태 역시 가중치 합

$$\hat{y}_k = \sum_{j=1}^H v_{kj}h_j + v_{ko}, \quad (k = 1, 2, \dots, M) \quad (5)$$

을 계산하고, 뉴런 활성화 함수를 거쳐 $y_k = f(\hat{y}_k)$ 로 정해진다. 이와 같이 입력뉴런에서 은닉뉴런을 거쳐 출력뉴런 상태를 계산하는 과정을 전방향 전파(Forward Propagation)라 한다.

다층 퍼셉트론의 학습은 출력뉴런의 상태 $y = [y_1, y_2, y_3, \dots, y_M]$ 가 목표 벡터 $t = [t_1, t_2, t_3, \dots, t_M]$ 와 같아지도록 가중치들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하여 오차함수를 정의하는데 보통 MSE(Mean-Squared Error)

$$E = \frac{1}{2} \sum_{k=1}^M (t_k - y_k)^2 \quad (6)$$

를 사용한다. 가중치들은 오차함수가 감소되도록 변경되어야 하므로, 오차 함수를 가중치에 대해 미분하여 반대방향으로 변경시킨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출력층 가중치 v_{kj} 의 변경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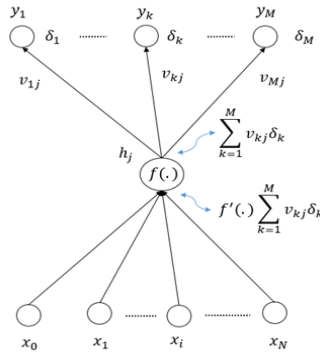
$$\Delta v_{kj} = -\eta \frac{\partial E}{\partial v_{kj}} = \eta \delta_k h_j \quad (7)$$

와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η 는 학습률이고 $\delta_k = -\partial E / \partial \hat{y}_k = (t_k - y_k)f'(\hat{y}_k)$ 는 출력뉴런의 오류신호, $f'(\cdot)$ 는 뉴런 활성화 함수의 미분이다. 은닉층 가중치 w_{ji} 의 변경식 역시

$$\Delta w_{ji} = -\eta \frac{\partial E}{\partial w_{ji}} = \eta x_i f'(\hat{h}_j) \sum_{k=1}^M v_{kj} \delta_k = \eta \delta_j^{(hidden)} x_i \quad (8)$$

와 같이 표현된다. 식 (8)에서 $\sum v_{kj} \delta_k$ 는 출력층의 오류신호 δ_k 가 가중치 v_{kj} 를 통하여 은닉뉴런 h_j 로 역전파(Back-Propagation) 되는 형태를 지닌다. 이를 오류 역전파 (EBP, Error Back-Propagation) 알고리즘이라고 한다.⁷⁾

^{8) 9)} [그림 4]는 출력층 오류 신호 δ_k 가 은닉층으로 $\sum v_{kj} \delta_k$ 형태로 역전파된 후, 뉴런 활성화 함수의 미분 $f'(\cdot)$ 이 곱해져 은닉층의 오류신호 $\delta_j^{(hidden)}$ 가 되는 관계를 보여준다. 이 원리는 심층 신경회로망의 학습에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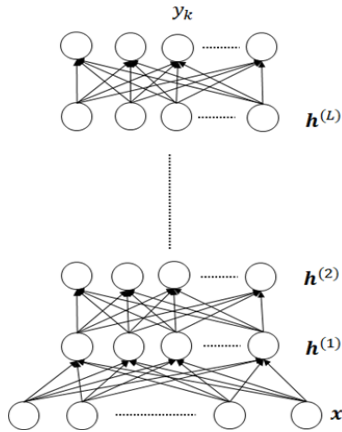
[그림 4] 오류 역전파 학습

(2) 심층 신경회로망

심층 신경회로망(Deep Neural Networks)은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닉층 수를 아주 많이 늘려서 인공 신경회로망의 성능을 향상시킨 모

- 7) D. E. Rumelhart & J. L. McClelland, *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 Volume 1: Explorations in the Microstructure of Cognition: Foundations*, Cambridge, MA: MIT Press, 1986.
- 8) S.-H. Oh, "Improving the error backpropagation algorithm with a modified error function", *IEEE Trans. Neural Networks*, vol. 8, no. 3, Medline, 1997, pp.799-803.
- 9) S.-H. Oh, "Error Back-Propagation Algorithm for Classification of Imbalanced Data", *Neurocomputing*, vol. 74, no. 6, Elsevier, 2011, pp.1058-1061.

델이다. 심층 신경회로망은 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학습시키기 어려웠다. 심층 신경회로망의 학습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제시한 것이 볼츠만 머신에 제한 조건을 적용한 RBM(Retricted Boltzmann Machine)이다.¹⁰⁾ 즉, 심층 신경회로망을 RBM으로 초기 학습을 시킨 다음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으로 마무리 학습시킨다.



[그림 5] 심층 신경회로망

3) 홉펠드와 힌튼의 업적

1940년대부터 시작된 인공 신경회로망을 통한 인공지능의 구현 시도는 오랫동안 연구 침체기-소위, 인공지능 겨울-를 겪으면서 진전이 아주 느린 상태였다. 이 시기에 존 홉펠드는 1982년 연상기억 모델인 홉펠드 모델을 제시하여 생물학적 신경회로망을 모방한 인공 신경회로망 연구의 초석을 닦으면서 신경회로망 연구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제프리 힌튼은 인공 신경회로망 모델인 다층 퍼셉트론의 기본 학습 원리인 오류 역전파 알고리

10) G. E. Hinton, "Training Products of Experts by Minimizing Contrastive Divergence", Neural Computation, vol. 14, no. 8, MIT Press, 2002, pp.1771-1800.

즘을 제시하였고, 심층 신경회로망을 구성한 경우에 초기 학습의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으로 RBM을 제시하여 심층 신경회로망 연구가 활성화 되었다. 이러한 업적을 토대로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모델이 개발되고 있으며, 현실 세계의 막대한 영역에서 학습을 통하여 응용되고 있다.^{11) 12) 13)}

3. 노벨화학상과 인공지능

1) 단백질 구조 예측

20가지의 서로 다른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화학결합으로 길게 연결된 것을 폴리펩타이드라고 하고, 여러 가지의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4차 구조를 이루어 고유한 기능을 갖게 되었을 때 단백질이라고 한다. 단백질은 생물체의 세포 내에서 거의 모든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분자다. 효소, 신호 전달, 구조 형성, 면역 반응 등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어 단백질 분석과 발견 그리고 설계는 생물학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목표 중 하나이다. 생화학자들은 단백질 구조를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와 같이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특히, 단백질의 4차 구조는 여러 개의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연결되어 특정한 3차원 구조를 가진다. 이렇게 4차 구조를 가지는 단백질은 헤모글로빈, DNA 중합효소, 이온 통로 등이

11) Roh et al., "Unsupervised multi-sense language models for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asks", *Neural Networks*, vol. 142, Medline, 2021, pp.397-409.

12) G. Kim et al., "Unpaired Speech Enhancement by Acoustic and Adversarial Supervision for Speech Recognition", *IEEE Signal Processing Letters*, vol. 26, no. 1, IEEE, 2019, pp.159-163.

13) S.-H. Oh, "Recurrent Neural Network with Multiple Hidden Layers for Water Level Forecasting near UNESCO World Heritage Site "Hahoe Village"",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vol. 14, no. 4, 한국콘텐츠학회, 2018, pp.57-64.

있다.¹⁴⁾

단백질의 3차원 구조는 여러 질병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거나, 백신 등의 치료제 개발에 큰 도움을 주므로, 아주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¹⁵⁾ 지난 50년 동안 생화학연구자들은 극초단파 현미경, 핵자기 공명, X선 결정술 같은 실험 기법으로 단백질의 구조를 찾아낼 수 있었지만, 많은 시행착오에 의존한 방법이었어서 새로운 단백질 구조 발견에 수십만에서 수천만 달러의 비용과 수년의 기간이 필요하였다.

이처럼 파급력이 큰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CASP (Critical Assessment of Structure Prediction) 대회가 2년 마다 개최되어 왔으며, 2018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13번째로 개최된 CASP13 대회에서 인공지능 방법을 채택한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폴드(AlphaFold)가 우승하였다. 그리고, 다음 대회인 2020년 11월 대회에서 알파폴드 2(AlphaFold 2)가 아주 월등한 성적으로 우승하였다.¹⁶⁾

2) 알파폴드 2(AlphaFold 2)

알파폴드 2는 아미노산 서열을 입력받아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2020년 11월에 CASP 대회에서 0~100점 사이의 GDT(Global Distance Test) 점수를 부여받는 평가에서 알파폴드 2는 GDT 92.4점을 받아 우승하였는데 90점 이상이면 실험 방법으로 예측한 점수와 같은 수준으로 평가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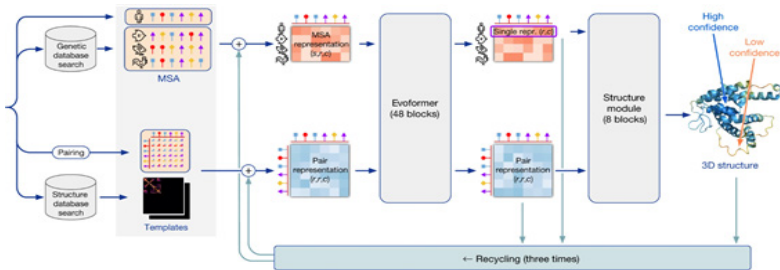
알파폴드 2[그림 5]는 3단계로 작동한다. 먼저 입력 데이터를 전처리하

14) 위키백과 - 단백질, <https://ko.wikipedia.org/wiki/단백질>, 2025.03.13.

15) S.-H. Oh, "Protein Disorder Prediction Using Multilayer Perceptron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vol. 9, no. 4, 한국콘텐츠학회, 2013, pp.11-15.

16) J. Jumper et al., "Highly accurate protein structure prediction with AlphaFold", Nature, vol. 596, no. 7873, Medline, 2021, pp.583-589.

는 입력 특징 임베딩 (Input feature embeddings) 단계, 어텐션 학습을 통해 전처리된 데이터에서 구조 예측에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는 Evoformer 단계, 그리고 여기서 나온 정보를 구체적인 3차원 좌표로 처리하는 구조 모듈 (Structure module) 단계이다.



[그림 6] 알파폴드 2 구조

입력특징 임베딩 단계는 입력 시퀀스를 전처리하는 단계로 아미노산 서열을 입력받아 다중 서열 정렬(MSA, Multiple Sequence Alignment)을 생성하고, 입력 시퀀스와 유사한 시퀀스를 가진 단백질 템플릿도 검색하여, Pair representation과 MSA representation을 구성한다. Evoformer 단계에서는 48개의 층으로 구성된 트랜스 포머(Transformer) 신경회로망을 적용한다. 이 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2차원 표현 정보는 구조 모듈 단계에서 8개의 회귀 신경회로망(RNN, Recurrent Neural Networks)을 거치고 마지막에 ResNet 신경회로망이 추가되어 단백질 구조의 모든 원자에 대한 3차원 좌표가 만들어진다.¹⁷⁾

3) 노벨화학상 수상자의 업적

1962년 존 켄드루와 막스 페루츠가 X선 결정학을 이용해 헤모글로빈의 단백질 구조를 최초로 밝힌 이후 50년간 많은 연구자들이 염기서열로부터

17) 딥러닝과 생명과학-알파폴드2 모델 분석, <https://taehojo.github.io/alphafold/alphafold2.html>

계산적인 방법으로 단백질 구조를 밝히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데미스 하사비스와 존 점퍼로 대표되는 구글 딥마인드 연구진이 개발한 알파폴드 2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단백질 구조 예측 분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다. 수십 년에 걸쳐 실험을 통해 구조를 밝힌 단백질이 21만 건에 불과했는데, 알파폴드 2를 이용해 구조를 예측한 단백질은 단 몇 년 만에 2억 건을 넘어선 것이다.¹⁸⁾

데이비드 베이커는 아미노산 서열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알파폴드 2의 방식과 달리 그 과정을 역으로 적용해 특정한 단백질 구조를 가지는 아미노산 서열이 무엇인지 찾는 프로그램인 로제타폴드(RoseTTAFold)를 1990년대부터 개발하기 시작했다. 지난 2021년 공개한 로제타폴드는 원하는 구조의 단백질을 만드는 기능까지 지니도록 구현되었다. 베이커 교수의 단백질 디자인 연구는 컴퓨터를 이용한 방식이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는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단백질 디자인의 주된 방법론으로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¹⁹⁾

4. 인공지능 활용 과학 연구에 관한 고찰

1)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의 한계

2024년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는 과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구로 널리 활용되는 심층 신경회로망 학습 방법을 찾아낸 연구자이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는 단백질 구조 예측을 위한 심층 신경회로망 모델을 제시하고 실험적 방법 보다 뛰어난 예측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 업적들은 새로운 법칙이나 원리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

18) 이종헌, 앞의 기사, 2024.10.10.

19) 백은옥·최기영, “전문가가 해설하는 노벨물리학상·화학상”, <집현네트워크>, 2024.10.22.

로써 인공지능 기법의 유용성을 확인시켜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결과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의 한계성을 지녔다.

그 한계성을 살펴보면, 우선 데이터 의존성을 언급할 수 있다. 심층 신경회로망은 데이터를 통한 학습에 의해 과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연구자들이 쌓아둔 데이터에 크게 의존한다. 과학적 연구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방면으로 축적된 데이터의 학습으로 과학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데이터가 없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한, 데이터는 자연계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든 제한적인 데이터로 존재하게 되고, 더군다나 데이터가 편향적으로 축적되어 있으면 인공지능은 편향성을 지니게 되어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인공지능의 데이터 의존성은 결국 창의성과도 직결된다. 축적된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지만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시되지 못한다.

심층 신경회로망은 일종의 블랙박스이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하는 출력을 내어 놓지만 어떤 원리로 원하는 출력이 나타나게 되는 지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즉, 인공지능에 의한 연구 결과들은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인간의 가치 판단이나 윤리적 판단 기준에서는 곤란한 답을 제시할 수도 있기에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해결책들에 윤리적 문제 역시 존재한다.

2) 대량언어모델 기반 과학 연구

전통적인 과학 연구 방법은 배경지식 혹은 기반 지식을 근거로 가설을 수립하고, 그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하여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며, 마지막 단계에서 연구 결과를 문서화 하여 전문가들의 심사를 받는다. 최근 대량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의 성능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이러한 전통적인 연구 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등장하고 있다.

LLM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새로운 문장을 생성하며 인간과 상호 작용하고 복잡한 의사 결정 과정을 지원한다. 이러한 LLM의 능력은 크게 4 단계에서 전통적인 과학 연구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였다.^{20) 21)} 첫 단계는 기존 지식과 실험적 관찰 결과를 기반으로 과학적 가설을 수립하여 준다. 두 번째는 실험 계획 및 구현단계로써,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 설계를 최적화 해주고 실험 수행을 자동화하며 데이터를 분석하여 준다. 세 번째 단계는 과학 문서 작성 단계로써, 인용 문서를 생성하고 관련 연구들을 정리해주며 논문 작성의 전반에 도움을 준다. 네 번째 단계로써, 논문의 일관성을 점검하고 논문의 평가를 수행하는 논문 심사를 지원해준다.

LLM을 이용한 과학 연구는 데이터 분석이나 학습에 의한 과학적 문제 해결로 국한 되었던 인공지능 활용의 범위를 벗어나 가설수립, 실험계획 및 구현, 과학 문서 작성, 논문 심사 및 검토의 전반적 단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적 연구 결과를 연구자의 업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인공지능 시스템의 업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야기 시킨다. 이러한 논쟁은 ChatGPT가 논문의 저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 이미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²²⁾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인정해주어야 하는지는 논의도 비슷한 상황에서 야기된 문제로 볼 수 있다.²³⁾

과학 연구자들이 인공지능 시스템의 결과를 새로운 과정을 통한 변형

20) Z. Luo et al., "LLM4R: A Survey on Large Language Models for Scientific Research", Cornell University, 2025, pp.1-37.

21) J. Gottweis et al., "Towards an AI co-scientist", Cornell University, 2025, pp.1-81.

22) 김익현, "챗GPT는 왜 과학논문 저자 자격이 없다는 걸까", <ZDNET Korea>, 2023.01.27.

23) 임대준 "미 저작권청 "AI가 만든 그림은 저작권 대상 아니다"", <AI Times>, 2023.03.16.

없이 그대로 제시한다면 연구자의 업적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연구자들이 LLM을 활용하여 가설을 수립하였으면,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가설의 근거를 살피고 가설 내용을 확인 및 향상시키는 기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실험계획 및 구현 단계에서도 연구자는 LLM이 제시하는 실험 방법들을 확인 및 검토하고 분석하여 왜 인공지능 시스템이 제시하는 방법이 최적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데이터 분석의 결과 역시 연구자들이 점검 및 확인하는 활동이 있어야 한다. LLM에 의한 연구 결과의 문서화 작업 역시 인공지능 시스템이 작성한 내용을 점검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이 인정을 받으려면, 인간이 작성한 콘텐츠가 통합되든지,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물을 크게 수정하든지 혹은 인간이 충분히 창의적인 기여를 하여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LLM을 활용한 과학 연구가 업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인공지능 시스템이 제시하는 내용을 그대로 도입하기 보다는 가설수립, 실험계획 및 수행의 단계에서 연구자의 기여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그 기여가 창의적이거나 독창적이면 그 가치는 더 커질 것이다.

4.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2024년도 노벨물리학상과 노벨화학상이 지닌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순수과학 연구자에게 수여되던 과학분야 노벨상이 2024년에는 인공지능 분야 연구자 혹은 인공지능이나 컴퓨터를 활용한 과학 문제 해결에 큰 공로를 세운 연구자에게 수여된 것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인공 신경회로망 연구 혹은 단백질 구조 분야 연구에서 수상자들의 업적을 살펴보았다. 이제 인공 지능이 과학 분야 전반에 걸쳐 크나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과학 전 분야에 걸쳐 그 동안 난

제로 여겨졌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도구로 인공지능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의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 수상은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 과학적 연구를 더욱 더 활성화 시킬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법에 의한 연구 결과를 과학적 업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나타낸다.

■ 참고 문헌

- 김익현, “챗GPT는 왜 과학논문 저자 자격이 없다는 걸까”, <ZDNET Korea>, 2023.01.27.
- 딥러닝과 생명과학-알파폴드2 모델 분석, <https://taehojo.github.io/alphafold/alphafold2.html>
- 박형주, ““기억은 어디에 저장되는가” 110년 된 ‘엔그램’ 수수께끼”, <한겨레>, 2019.07.13.
- 백은옥·최기영, “전문가가 해설하는 노벨물리학상·화학상”, <집현네트워크>, 2024.10.22.
- 위키백과-단백질, <https://ko.wikipedia.org/wiki/단백질>, 2025.03.13.
- 이종헌, “[2024 노벨상] “신약 개발 AI 혁명 이끈 과학자”…화학상에 데이비드 베이커·데미스 허사비스·존 점퍼(종합)”, <조선비즈>, 2024.10.10.
- , “[2024 노벨상] “AI 시대 주춧돌 놓은 선구자들”…노벨 물리학상 존 홉필드·제프리 힌튼(종합)”, <조선비즈>, 2024.10.08.
- 임대준 “미 저작권청 “AI가 만든 그림은 저작권 대상 아니다””, <AI Times>, 2023.03.16.
- D. E. Rumelhart & J. L. McClelland, *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 Volume 1: Explorations in the Microstructure of Cognition: Foundations*, Cambridge, MA: MIT Press, 1986.
- G. E. Hinton, “Training Products of Experts by Minimizing Contrastive Divergence”, *Neural Computation*, vol. 14, no. 8, MIT Press, 2002, pp.1771-1800.
- G. Kim, H. Lee, B.-K. Kim, S.-H. Oh, & S.-Y. Lee, “Unpaired Speech Enhancement by Acoustic and Adversarial Supervision for Speech Recognition”, *IEEE Signal Processing Letters*, vol. 26, no. 1, IEEE, 2019, pp.159-163.
- J. Gottweis, W.-H. Weng, A. Daryin, T. Tu, A. Palepu, P. Sirkovic, A. Myaskovsky, F. Weissenberger, K. Rong, R. Tanno,

- K. Saab, D. Popovici, J. Blum, F. Zhang, K. Chou, A. Hassidim, B. Gokturk, A. Vahdat, P. Kohli, Y. Matias, A. Carroll, K. Kulkarni, N. Tomasev, Y. Guan, V. Dhillon, E. D. Vaishnav, B. Lee, T. R. D. Costa, J. R. Penadés, G. Peltz, Y. Xu, A. Pawlosky, A. Karthikesalingam, & V. Natarajan, "Towards an AI co-scientist", Cornell University, 2025, pp.1-81. (<https://doi.org/10.48550/arXiv.2502.18864>)
- J. J. Hopfield, "Neural Networks and Physical Systems with Emergent Collective Computational Abilities", *Proc. Natl. Acad. Sci. USA.*, vol. 79, no. 8, 1982, pp.2554-2558.
- J. Jumper, R. Evans, A. Pritzel, T. Green, M. Figurnov, O. Ronneberger, K. Tunyasuvunakool, R. Bates, A. Žídek, A. Potapenko, A. Bridgland, C. Meyer, S. A. A. Kohli, A. J. Ballard, A. Cowie, B. Romera-Paredes, S. Nikolov, R. Jain, J. Adler, T. Back, S. Petersen, D. Reiman, E. Clancy, M. Zielinski, M. Steinegger, M. Pacholska, T. Berghammer, S. Bodenstein, D. Silver, O. Vinyals, A. Senior, K. Kavukcuoglu, P. Kohli, & D. Hassabis, "Highly accurate protein structure prediction with AlphaFold", *Nature*, vol. 596, no. 7873, Medline, 2021, pp.583-589.
- J. Roh, S. Park, B.-K. Kim, S.-H. Oh, & S.-Y. Lee, "Unsupervised multi-sense language models for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asks", *Neural Networks*, vol. 142, Medline, 2021, pp.397-409.
- S.-H. Oh, "Error Back-Propagation Algorithm for Classification of Imbalanced Data", *Neurocomputing*, vol. 74, no. 6, Elsevier, 2011, pp.1058-1061.
- S.-H. Oh, "Improving the error backpropagation algorithm with a modified error function", *IEEE Trans. Neural Networks*, vol. 8, no. 3, Medline, 1997, pp.799-803.
- S.-H. Oh, "Protein Disorder Prediction Using Multilayer Perceptron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vol. 9, no. 4, 한국콘텐츠학회, 2013, pp.11-15.

- S.-H. Oh, “Recurrent Neural Network with Multiple Hidden Layers for Water Level Forecasting near UNESCO World Heritage Site "Hahoe Village"”,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vol. 14, no. 4, 한국콘텐츠학회, 2018, pp.57-64.
- S.-H. Oh, T-H. Yoon, & J. C. Kim, “Associative-memory model based on neural networks: modification of Hopfield model”, *Opt. Lett.*, vol. 13, no. 1, Medline, 1988, pp.74-76.
- W. S. McCulloch & W. Pitts, “A logical calculus of the ideas immanent in nervous activity”, *The Bulletin of mathematical biophysics*, vol. 5, no. 4, 1943, pp.115-133.
- Z. Luo, Z. Yang, Z. Xu, W. Yang, & X. Du, “LLM4R: A Survey on Large Language Models for Scientific Research”, Cornell University, 2025, pp.1-37. (<https://doi.org/10.48550/arXiv.2501.04306>)

■ 국문초록

과학 분야 노벨상은 전통적으로 순수 과학 분야에서 인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새로운 발견이나 발명을 한 연구자에게 수여되어 왔었다. 그렇지만 2024년도에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는 순수 물리학 분야 연구자가 아니라 컴퓨터 분야의 인공지능 연구자였다. 2024년도 노벨화학상 수상자 역시 순수 화학분야 연구자가 아니라 인공지능 모델을 새롭게 제시하여 단백질 구조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거나 혹은 컴퓨터의 계산적 기법을 활용하여 특정 단백질 구조를 가지는 아미노산 서열을 찾아내는 연구자였다.

본 논문에서는 2024년도 노벨물리학상 수여자들의 인공지능 분야 연구 업적을 살펴보았다. 존 홉필드는 오랫동안의 인공 신경회로망 연구 침체기에 홉필드 모델이라고 불리는 연상기억모델을 제안하여 인공 신경회로망 연구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제프리 힌튼은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과 제한된 볼츠만 머신을 제안하여 심층 신경회로망 연구를 활성화 시켜,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토대를 쌓았다.

또한, 본 논문은 2024년도 노벨 화학상 수상자들의 연구업적도 살펴 보았다. 데미스 하사비스와 존 점퍼는 알파폴드 2를 개발하여 단백질 구조 예측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또한, 데이비드 베이커는 컴퓨터를 활용한 계산적 방법으로 특정한 단백질 구조를 가지는 아미노산 서열이 무엇인지 찾는 프로그램인 로제타 폴드를 개발하였다. 이제 인공지능은 과학 전 분야에 걸쳐 그 동안 난제로 여겨졌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도구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주제어● 인공지능, 노벨물리학상, 노벨화학상, 인공 신경회로망, 단백질 구조 예측

■ Abstract

Nobel Priz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Oh, Sang Hoon / Mokwon University

The Nobel Prize in science has traditionally been awarded to researchers who have made groundbreaking discoveries or inventions that significantly contribute to human progress in the field of pure science. However, in 2024, the Nobel Prize in Physics was awarded not to a researcher in pure physics but to a researcher in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Similarly, the Nobel Prize in Chemistry was awarded not to a pure chemistry researcher but to a scientist studying protein structure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or computational techniques.

This paper examines the research achievements of the 2024 Nobel Prize in Physics laureates in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John Hopfield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revival of neural network research during its long period of stagnation by proposing the associative memory model known as the Hopfield model. Geoffrey Hinton laid the foundation for moder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by introducing the error back-propagation algorithm and Restricted Boltzmann Machines, which helped advance deep neural network research.

Additionally, this paper explores the achievements of the 2024 Nobel Prize in Chemistry laureates. Demis Hassabis and John Jumper made groundbreaking advancements in protein structure prediction through the development of AlphaFold 2. Furthermore, David Baker developed RoseTTAFold, a computational program that identifies amino acid sequences capable of forming specific protein structures. Nowadays, artificial intelligence is widely utilized as a tool to solve long-standing scientific challenges across various fields of science.

Keyword • Artificial Intelligence, Nobel Prize in Physics, Nobel Prize in Chemistry, Artificial Neural Networks, Protein Structure Prediction

■ 논문투고일:2025.02.03. ■ 심사완료일:2025.03.10. ■ 게재확정일:2025.03.11. ■

AI 휴먼 챗봇의 신뢰도 형성 과정

: 오피니언 리더와 일반 이용자의 스피치 역량과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의 직렬다중매개효과

유 희 승*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결과
5. 결론 및 제언

1. 서론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AI(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의 개발 및 보급과 함께 인간의 일상과 커뮤니케이션 구조에 지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은 대화형 AI 챗봇(Chatbot)의 발전을 가속화 하였으며, AI 챗봇은 고도화된 의사소통 능력 구현을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인간과 유사한 외형을 갖춘 디지털 휴먼은 가상공간에서 실존하는 인간처럼 구현되며,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자연스러운 표정 변화와 감정을 활용한 감성적 대화를 제공할 수 있다.¹⁾ 최근에는

* 성균관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강사

가상공간에서 인간의 외형을 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춘 디지털 휴면을 넘어,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AI 휴먼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AI 휴먼은 생성형 AI를 의인화(Anthropomorphism)하는 방식으로 개발되며, 인간과의 상호작용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AI 휴먼은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두뇌 역할을 하며, 실제 촬영된 음성과 영상을 머신러닝 기술로 처리하여 인간과 유사한 외형의 가상인간을 구현하는 기술로,²⁾ 생성형·대화형 AI를 의인화하여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AI이다.³⁾ 챗봇은 기업의 고객 응대 목적의 챗봇부터 생성형 AI를 의인화한 고도화된 AI 휴먼 챗봇까지 기술의 구현 범위가 광범위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AI 휴먼 챗봇의 단순한 작업 수행 기능이 아닌,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논하는 AI 휴먼 챗봇은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텍스트 기반의 응답뿐만 아니라 인간과 유사한 음성과 외형을 구현하여 감성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챗봇’을 의미한다.

최근 급격한 AI 기술의 발전은 인간과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가능한 새로운 차원의 인간-컴퓨터 상호작용(HCI: Human-Computer Interaction) 형태를 탄생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사소통과 스피치 역량은 현대 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한 역량으로 강조되고 있다. 생성형 AI 활용에서 질문을 잘하는 역량, 즉 프롬프트(Prompt)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은 생성형 AI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역량

1) 남현우, 「디지털 휴먼 개발 기술의 현황과 전망」, 『한국통신학회지 (정보와통신)』 39권 5호, 한국통신학회, 2022, 67-73쪽.

2) 한종호, 「Generative AI, AI 휴먼 서비스」, 『방송과 미디어』 28권 2호, 경기연구원, 2023, 33-42쪽.

3) 유희승, 「연사의 유형이 연사 신뢰도와 스피치 설득효과에 미치는 영향: 청중의 설득지식과 스피치 품질지각의 직렬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소통학보』 23권 3호, 한국소통학회, 2024, 349-383쪽.

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명령어를 입력할수록 생성형 AI는 양질의 답변을 제공하지만, 부정확하거나 모호한 명령어를 입력할수록 답변의 수준이 낮아지며, 때로는 명령어와 상관없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따라서 생성형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AI 이용 역량을 넘어서 문제정의, 핵심 정보 추출,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사고, 논리적 표현을 포함한 고차원적 역량이 요구된다. 이는 이용자의 스피치 역량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스피치 역량은 명확한 의사 전달과 논리적인 표현 능력을 포함하기 때문에 생성형 AI와의 상호작용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효과적으로 도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피치 역량이 높은 이용자는 질문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AI가 이해하기 쉽게 핵심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차원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양질의 답변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AI 시대 스피치 역량 확보는 주요한 과제이며,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컴퓨터(CASA: Computers are social actors) 패러다임(Paradigm)은 인간과 디지털 기술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이론적 틀이다. CASA 패러다임은 인간이 디지털 기술과 상호작용할 때 기술을 사회적 행위자로 인식하고 본능적으로 마치 사람을 대하듯 행동한다고 설명한다.^{4) 5)} CASA 패러다임은 인간과 인공지능 존재 간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행동과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인간-기계 상호작용 연구에 폭넓게 적용되었다.⁶⁾ CASA 패러다임이 형성되기까지

4) 최지혜·노기영, 「인공지능 챗봇의 의인화가 챗봇과의 준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인지된 유사성과 사회적 현존감의 매개효과」, 『한국광고홍보학회』 24권 4호, 한국광고홍보학회, 2022, 521-549쪽.

5) Nass, C., Steuer, J., & Tauber, E. R., "Computers are social actors", *Proceedings of the SIG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New York: ACM Press, 1994, pp.72-78.

6) Gu, C., Zhang, Y., & Zeng, L., "Exploring the mechanism of sustained consumer trust in AI chatbots after service failures: A perspective based

는 다섯 가지의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음성에 관한 실험은 인간이 컴퓨터가 제공하는 음성에 따라 실제 음성을 지닌 인간과 상호작용처럼 반응한다고 밝혔다.⁷⁾ 따라서 인간과 유사한 음성을 구현하여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AI 휴먼 챗봇도 CASA 패러다임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AI 휴먼 챗봇 이용자의 유형(일반 vs. 오피니언 리더) 간 스피치 역량,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 신뢰도의 차이를 탐구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AI 휴먼 챗봇 이용자의 유형 간 스피치 역량,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 신뢰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탐구한다. 둘째, AI 휴먼 챗봇 이용자의 유형, 스피치 역량,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 신뢰도의 관계를 탐구한다. 셋째, AI 휴먼 챗봇 이용자의 유형과 스피치 역량,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 신뢰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AI 휴먼 챗봇 이용자의 유형에 따른 차이를 실질적으로 규명하고, 이용자의 유형이 스피치 역량과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을 거쳐 AI 휴먼 챗봇에 대한 신뢰도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탐구하여 이론적·실무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

20세기 초에는 근대 커뮤니케이션학에서 탄환 이론(Bullet theory)과 마술 탄환 이론(Magic bullet theory) 등 미디어의 메시지가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주입되어 영향을 미친다는 강효과이론의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부터 대중매체의 메시지가 오피니언 리더를 거쳐 대중에

on attribution and CASA theorie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 vol. 11, no. 1, London: Springer Nature, 2024, pp.1-12.

7) 박수아, 「인공지능 스피커의 상품 추천 서비스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게 전달된다는 주장⁸⁾ 필두로 제한효과이론이 강화되며 오피니언 리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오피니언 리더는 여론의 형성과 확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으로 정의되며, 정보의 전달자임과 동시에 타인의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⁹⁾ 오피니언 리더의 영향력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는 2단계 유통 이론(Two-step flow theory)을 이론적 배경으로 적용하여 진행되었다.

2단계 유통이론은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된 메시지가 오피니언 리더들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개념으로, 오피니언 리더들이 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고, 대인적 영향력을 통해 널리 전파하여, 타인의 태도와 사회적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한 이론이다.¹⁰⁾ 2단계 유통이론에 따르면 정보는 대중매체에서 오피니언 리더에게 전달되는 1단계를 거쳐 오피니언 리더가 일반 대중에게 정보를 해석하여 전달하는 2단계 과정을 거친다. 오피니언 리더는 본인의 의견을 능동적으로 발신하는 이용자이며 소극적 발신자와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¹¹⁾ 그들은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행위를 넘어, 정보를 체계화하고 다른 정보와 연결하여 그들만의 해석과 통찰력을 더해 대중의 신뢰를 얻는다. 이를 바탕으로 오피니언 리더는 사회적 연결망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정보의 흐름을 조율한다.¹²⁾ 그동안 오피니언 리더를 주제로 한 다수의 연구는

8) Katz, E. & Lazarsfeld, P. F., *Personal Influence: The Part Played by People in the Flow of Mass Communications*, New York: The Free Press, 1955.

9) Lazarsfeld, P. F., Berelson, B., & Gaudet, H., *The People's Choice: How the Voter Makes Up His Mind in a Presidential Campaig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44.

10) 김지희, 「인명사전 표집을 통한 한국사회 의견지도자의 특성과 유형화」, 『사회과학연구』 60권 3호,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1, 31-57쪽.

11) 김관규, 「인터넷의 양방향-공개 커뮤니케이션 장을 창출한 적극적 발신행위자의 속성에 관한 연구: 오피니언 리더의 속성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31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005, 51-84쪽.

12) Katz, E. & Lazarsfeld, P. F., op. cit.

오피니언 리더의 대인적 영향력에 주목했으며, 2단계 유통이론을 근거로 하여 오피니언 리더와 비(非) 오피니언 리더를 구분하거나, 특정 사회집단 내 오피니언 리더적 성향이 있는 사람을 구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¹³⁾ 오피니언 리더의 개념과 역할, 매체 및 사회적 환경에서의 영향력을 탐구한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카츠와 라자스펠드¹⁴⁾는 2단계 유통이론을 제시하며 오피니언 리더가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정보의 해석과 확산 과정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매체의 직접적 영향보다는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후 오피니언 리더를 주제로 한 대다수 연구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이후 오피니언 리더 연구는 오피니언 리더가 여론 형성과 정보 확산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지만 영향력은 개인의 특성, 네트워크 구조,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소수의 오피니언 리더보다는 다수의 일반 사용자가 집단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¹⁵⁾ 이외에도 오피니언 리더를 식별하고 활용하는 전략의 중요함을 강조하며 오피니언 리더가 행동 변화와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의 성공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 연구,¹⁶⁾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단순히 팔로워 수가 많다고 해서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규명한 연구,¹⁷⁾ 신제품 확산 과정에서 오피니

13) 김지희, 위의 논문, 31-57쪽.

14) Katz, E. & Lazarsfeld, P. F., op. cit.

15) Watts, D. J. & Dodds, P. S., "Influentials, networks, and public opinion form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34, no. 4,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7, pp.441-458.

16) Valente, T. W. & Pumpuang, P., "Identifying opinion leaders to promote behavior change", *Health Education & Behavior*, vol. 34, no. 6,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2007, pp.881-896.

17) Cha, M., Haddadi, H., Benevenuto, F., & Gummadi, K., "Measuring user influence in Twitter: The million follower fallacy", *Proceedings of the*

언 리더가 사회적 전염(Social contagion)을 촉진하는 핵심 역할을 하며 신제품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에서 오피니언 리더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확산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연구¹⁸⁾ 결과가 제시되었다.

오늘날 다양한 신기술의 등장과 온라인 환경의 발달로 인해 오피니언 리더들의 활동 영역은 온라인으로 확장되었으며, 이를 통해 정보의 확산 속도와 범위가 대폭 증가하며 그들의 영향력 또한 확대되었다. 이처럼 매체 환경의 발전과 변화는 오피니언 리더의 지형에 변화를 야기하며 새로운 유형의 오피니언 리더를 탄생시킨다. 예를 들어 과거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지지자를 보유한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의 확산 과정과 여론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오피니언 리더를 탐구한 국내 주요 선행연구를 매체 환경 발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사 분야 오피니언 리더의 성향을 규명한 연구¹⁹⁾는 오피니언 리더 성향이 강할수록 텔레비전, 인터넷, 라디오, 잡지보다 신문을 선호하며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정치적 성향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음을 규명하였다. 다음으로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이용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오피니언 리더와 일반 이용자의 미디어 이용 행태를 분석한 연구²⁰⁾는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이용 경험이 일반 이용자에 비해 월등히 높았음을 밝혔으며, 포털 뉴스 이용 방식에서도 오피니언 리더

International AAAI Conference on Web and Social Media, vol. 4, no. 1, Palo Alto: AAAI Press, 2010, pp.10-17.

18) Iyengar, R., Van den Bulte, C., & Valente, T. W., "Opinion leadership and social contagion in new product diffusion", *Marketing Science*, vol. 30, no. 2, Hanover: INFORMS, 2011, pp.195-212.

19) 김세은, 「시사 분야 의견지도자 성향 연구: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미디어 이용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권 1호, 한국언론학회, 2006, 91-114쪽.

20) 안민호·김수정·김현진,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이용 행태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그룹의 점수가 일반 이용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신문 독자를 구매력과 영향력이 있는 오피니언 리더와 일반 독자로 구분하여 신문 광고에 대한 노출을 분석한 연구²¹⁾는 연구결과를 통해 신문 광고 노출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추정식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최윤정²²⁾은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 사이에 오피니언 리더 집단이 존재하는지 검증하고, 오피니언 리더 집단과 비(非) 오피니언 리더 집단 사이에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 동기, 활동 정도, 대인관계 형성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온라인 커뮤니티 환경에서 오피니언 리더 집단의 존재를 확인하였으며, 오피니언 리더 집단이 비(非) 오피니언 리더 집단에 비해 정보 추구, 오락 추구, 사회관계 추구 등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 동기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매개로 한 정치적 대화나 토론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오피니언 리더의 의견 일치 여부가 일반 이용자의 의견 표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규명한 연구²³⁾와 오피니언 리더의 정보 매개 행위, 영향력 행사 행위가 온라인 학습 콘텐츠 만족도와 운영 만족도에 사회적 지능을 매개로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²⁴⁾가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인터넷의 양방향·공개 커뮤니케이션 장에서 정보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발

21) 박현수·전영우, 「신문 매체의 광고 노출효과 분석: 오피니언 리더와 일반 독자의 차이를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16권 2호, 한국광고학회, 2005, 101-124쪽.

22) 최윤정, 「온라인 커뮤니티 속 오피니언 리더 집단 검증: 이용동기, 활동 정도, 대인관계 형성 과정의 비교 분석」, 『한국언론학보』 53권 4호, 한국언론학회, 2009, 372-394쪽.

23) 김동윤·김위근·조민규, 「소셜미디어에서 온라인 의견지도자와 이용자의 의견 표명: 플랫폼과 이용동기, 정치성향과 의견일치 여부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2권 3호, 한국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15, 123-170쪽.

24) 서문교·배은경, 「오피니언 리더의 행위가 온라인 학습에서 콘텐츠 만족도와 운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권 5호, 한국콘텐츠학회, 2012, 346-356쪽.

신하는 정도가 오피니언 리더의 특성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한 연구,²⁵⁾ 모바일 간편 결제 도입이 소비자의 유료 결제 성향과 오피니언 리더의 특성을 변화시킨 것을 규명한 연구,²⁶⁾ 현대 한국 사회에서 시민들이 어떤 인물을 오피니언 리더라고 인식하는지와 함께 무엇에 근거하여 오피니언 리더의 설득력을 평가하는지 규명한 연구²⁷⁾ 등이 진행되었다.

오피니언 리더는 새로운 것을 수용하고 확산시키는 초기 사용자로, 신기술의 채택 속도와 영향력이 확산되는 데 있어 초기 오피니언 리더를 중심으로 한 구전효과가 지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기술 확산에서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과 영향력은 매우 중요하다.²⁸⁾ ²⁹⁾ ³⁰⁾ 따라서 급변하는 기술 발전과 온라인 매체 환경에 의해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과 영향력은 끊임없이 재정의된다. 그러나 오피니언 리더와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오피니언 리더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다양한 신기술의 등장과 온라인 환경의 발달 등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오피니언 리더의 특성과 행태가 변화하는 것을 탐구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³¹⁾ 디지털 환경에서 오피니언 리더는 기술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25) 김관규, 앞의 논문, 51-84쪽.

26) 김하나·김송미,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에 따른 오피니언 리더 특성 변화가 소비자 행태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경영학회지』 17권 5호, 글로벌경영학회, 2020, 166-187쪽.

27) 김지희, 「한국 사회 의견지도자 인식과 메시지 설득력, 의견지도자의 유형별 차이」, 『한국언론학보』 65권 2호, 한국언론학회, 2021, 41-74쪽.

28) 김하나·김송미, 위의 논문, 166-187쪽.

29) Cho, Y., Hwang, J., & Lee, D., "Identification of effective opinion leaders in the diffusion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 social network approach",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vol. 79, no. 1, Amsterdam: Elsevier Science, 2012, pp.97-106.

30) Watts, D., "Challenging the influentials hypothesis", *WOMMA Measuring Word of Mouth*, vol. 3, no. 4, Chicago: Word of Mouth Marketing Association, 2007, pp.201-211.

31) 김하나·김송미, 앞의 논문, 166-187쪽.

향상된 정보접근성을 기반으로 기존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AI 휴먼 챗봇이라는 신기술 매체 환경에서 오피니언 리더의 이용 행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특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2) 스피치 역량과 AI(Artificial Intelligence) 휴먼(Human) 챗봇에 대한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

생성형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 설계하는 능력, 즉 프롬프트(Prompt) 설계 역량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제공할수록 생성형 AI는 정확한 고품질의 응답을 생성할 수 있지만, 부정확하거나 모호한 지시어는 답변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때로는 명령어와 무관한 허위 정보를 생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AI 할루시네이션(AI hallucination)이라고 불리며, AI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그럴 듯하게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AI 할루시네이션은 잘못된 프롬프트 설계나 AI 모델의 한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정보의 신뢰도를 낮추고 사용자 경험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생성형 AI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단순한 기술 사용 능력을 넘어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핵심 정보를 추출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사고와 논리적 표현 능력을 포함한 고차원적 역량이 필수적이다.

프롬프트 설계 역량은 이용자의 스피치 역량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스피치 역량은 명확한 의사소통과 논리적 표현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는 AI와의 상호작용에서 원하는 결과를 효과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스피치 역량이 뛰어난 사용자는 구체적인 질문을 설계하여 AI가 핵심 메시지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이를 통해 수준 높은 상호작용과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AI 시대에는 스피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스피치 역량 함양을 통해 프롬프트 설계 역량이 강화된다면, 이용자는 생성형 AI와의 상호작용에서 신뢰

할 수 있는 정보를 얻고, AI 할루시네이션과 같은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스피치는 연사가 타인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연사의 생각을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설득하기 위해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의미하며,³²⁾ 스피치 역량은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상호작용적 의사소통 능력을 의미한다.³³⁾ 스피치 역량(능력) 관련 선행연구는 타자 평가 방식의 스피치 능력 척도,³⁴⁾ 의사소통 역량 평가를 위한 자기 진단 모형,³⁵⁾ 대학생의 의사소통 역량 측정 도구,³⁶⁾ 조직 내 중간관리자의 의사소통 역량 척도 개발 연구³⁷⁾ 등이 진행되었다. 특히 유희승³⁸⁾은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인간의 AI 시대 스피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요인 도출을 중심으로 스피치 역량 자기평가 척도를 개발하였다. 연구결과, 스피치 역량 자기평가 척도는 ‘전달력’, ‘감정표현’, ‘청중고려’, ‘내용구성’ 4개 요인과 16개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개발된 척도의 모든 요인이 스피치 불안감과 부(-)의 상관관계를, 스피치 효능감, 커뮤니케이션 능력과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32) 백미숙·이상철, 『소통의 기초: 스피치와 토론』,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4.

33) 유희승, 「스피치 역량 자기평가 척도 개발 연구: AI 시대 스피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요인 도출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32권 3호,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24, 79-105쪽.

34) 장해순·허경호, 「관찰자 측정 스피치 능력 척도 타당성 검증」, 『한국방송학보』 19권 1호, 한국방송학회, 2005, 178-217쪽.

35) 김종규·한상우·원만희, 「의사소통역량 평가를 위한 자기 진단 모형 개발」, 『수사학』 23호, 한국수사학회, 2015, 389-422쪽.

36) 손영화, 「대학생의 의사소통 역량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5권 1호, 한국소통학회, 2016, 83-107쪽.

37) 강지연·탁진국, 「중간관리자의 의사소통역량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32권 4호, 한국심리학회, 2019, 439-471쪽.

38) 유희승, 위의 논문, 79-105쪽.

로 나타났다. 더불어 해외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의사소통 능력(CCAI: Communication Competency Assessment Instrument) 척도,³⁹⁾ 커뮤니케이션 복잡성 척도⁴⁰⁾ 등이 개발되었다.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컴퓨터(CASA: Computers are social actors) 패러다임은 인간과 AI 휴먼 챗봇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이론적 틀이다. CASA 패러다임은 인간은 디지털 기술과 상호작용할 때 기술을 사회적 행위자로 인식하고 본능적으로 마치 사람을 대하듯 행동한다고 설명한다.^{41) 42)} 이에 CASA 패러다임은 인간과 인공적 존재 간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행동과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인간-기계 상호작용 연구에 폭넓게 적용되었다.⁴³⁾ CASA 패러다임은 형성되기까지 다섯 가지의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음성에 관한 실험은 음성이 사회적 규범을 적용할 수 있는 귀인성의 중심이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인간이 컴퓨터가 제공하는 음성에 따라 실제 음성을 지닌 인간과 상호작용처럼 반응한다고 밝혔다.⁴⁴⁾ 따라서 인간과 유사한 음성을 구현하여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AI 휴먼 챗봇도 CASA 패러다임의 적용이 가능하다.

선행연구에서 CASA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요인으로는 AI의 인간화된 특성에 대한 인간의 인식, 인지된 공감 능력, 그리고 과거 인간-기계

39) Rubin, R. B., "The validity of the communication competency assessment instrument", *Communications Monographs*, vol. 52, no. 2, Philadelphia: Taylor & Francis, 1985, pp.173-185.

40) Brady, N. C., Fleming, K., Thiemann-Bourque, K., Olswang, L., Dowden, P., Saunders, M. D., & Marquis, J., "Development of the Communication Complexity Scale",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vol. 21, no. 1, Rockville: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 2012, pp.16-28.

41) 최지혜·노기영, 앞의 논문, 521-549쪽.

42) Nass, C., Steuer, J., & Tauber, E. R., op. cit., pp.72-78.

43) Gu, C., Zhang, Y., & Zeng, L., op. cit., pp.1-12.

44) 박수아, 앞의 논문.

상호작용 품질에 대한 인식 등이 포함된다.⁴⁵⁾ 그중에서도 대인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은 인간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며,⁴⁶⁾ 높은 품질의 상호작용은 이용자가 AI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독려하고 인간과 AI 간 준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⁴⁷⁾

AI 챗봇의 서비스 실패 상황에서 CASA 패러다임과 귀인 이론(Attribution theory)을 통합하여 사용자 신뢰를 유지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기 위해 CASA 요인을 인지된 의인화 특성(Perceived anthropomorphic characteristics), 인지된 공감능력(Perceived empathic abilities),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Perceived interaction quality)로 분류한 선행연구⁴⁸⁾는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이 외적 귀인을 촉진하고 AI 챗봇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데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는 AI 챗봇이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 품질을 제공할 경우 이용자가 AI 챗봇의 서비스 실패 상황을 ‘AI 챗봇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 받았기 때문에’, ‘이용자가 명확하지 않은 질문을 입력했기 때문에’ 등의 외적 귀인으로 간주하여 AI 챗봇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거나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AI 휴먼 챗봇 이용자의 의사소통 역량과 이를 기반으로 한 상호작

45) Pelau, C., Dabija, D. C., & Ene, I., “What makes an AI device human-like? The role of interaction quality, empathy, and perceived psychological anthropomorphic characteristics in the accept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service industr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122, Amsterdam: Elsevier Science, 2021, article 106855.

46) Araujo, T., “Living up to the chatbot hype: The influence of anthropomorphic design cues and communicative agency framing on conversational agent and company perception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85, Amsterdam: Elsevier Science, 2018, pp.183-189.

47) Ashfaq, M., Yun, J., Yu, S., & Loureiro, S. M. C., “I, Chatbot: Modeling the determinants of users’ satisfaction and continuance intention of AI-powered service agents”, *Telematics and Informatics*, vol. 54, Amsterdam: Elsevier Science, 2020, article 101473.

48) Gu, C., Zhang, Y., & Zeng, L., op. cit., pp.1-12.

용 품질은 AI 휴먼 챗봇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이 특정 개인을 오피니언 리더라고 인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커뮤니케이터의 매력과 공신력이며, 오피니언 리더 메시지의 설득력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은 커뮤니케이터의 소통의 반응성과 통제성을 포함하는 의사소통 능력이다.⁴⁹⁾ 온라인 오피니언 리더는 메시지를 단순히 전달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해석하고 분석하며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의견을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일반 이용자에 비해 우수하다.^{50) 51) 52)} 따라서 오피니언 리더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이 일반 이용자에 비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난다.⁵³⁾ 이에 본 연구는 AI 휴먼 챗봇 오피니언 리더 이용자 집단이 일반 이용자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의 스피치 역량을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AI 휴먼 챗봇에 대해 높은 수준의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과 신뢰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3. 연구의 방법

1) 연구개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첫째, AI

49) 김지희, 앞의 논문, 41-7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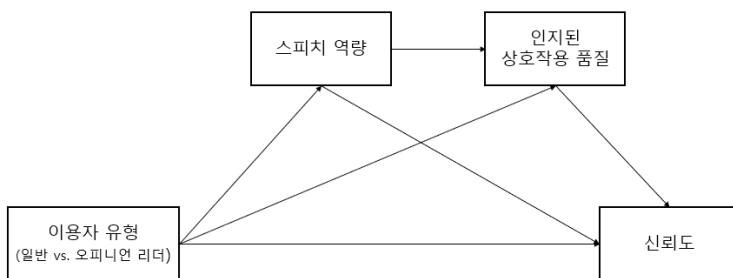
50) 김경모·송현진, 「메시지 품질과 토론 연결망의 구조적 위치, 그리고 여론지도력: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의 온라인 정치토론 사례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56권 4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011, 194-218쪽.

51) 김동윤·김위근·조민규, 앞의 논문, 123-170쪽.

52) 조승호·조상훈, 「페이스북에서 효과적인 바이럴 마케팅을 위한 영향력 있는 의견지도자의 커뮤니케이션 패턴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1권 5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3, 201-209쪽.

53) 이준웅·김은미·김현석, 「누가 인터넷 토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온라인 의견지도자의 속성」, 『한국언론학보』 51권 3호, 한국언론학회, 2007, 358-384쪽.

휴먼 챗봇 이용자의 유형(일반 vs. 오피니언 리더) 간 스피치 역량,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 신뢰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탐구하였다. 둘째, AI 휴먼 챗봇 이용자의 유형, 스피치 역량,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 신뢰도의 관계는 어떠한지 탐구하고자 하였다. 셋째, AI 휴먼 챗봇 이용자의 유형과 스피치 역량,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 신뢰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탐구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AI 휴먼 챗봇 이용자의 유형을 일반 이용자와 오피니언 리더 이용자 조건으로 나누고, 두 집단을 비교하는 단일요인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연구문제 1 : AI 휴먼 챗봇 이용자의 유형(일반 vs. 오피니언 리더)에 따라 스피치 역량과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 신뢰도의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 AI 휴먼 챗봇 이용자의 유형(일반 vs. 오피니언 리더), 스피치 역량,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 신뢰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 AI 휴먼 챗봇 이용자의 유형(일반 vs. 오피니언 리더)이 AI 휴먼 챗봇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스피치 역량과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은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가?

2) 실험참가자

본 연구에는 생성형 AI에 대해 알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20대 이상 성인 240명이 참여하였다. 240명의 실험참가자는 오피니언 리더십 측정문항을 통해 오피니언 리더 이용자 집단과 일반 이용자 집단에 120명씩 배정되었으며, 할당 샘플링을 통해 성별과 연령대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인구통계학적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결과 분석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모집된 실험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실험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일반(120명)	오피니언 리더 (120명)
성별	남성	60명(50%)	60명(50%)
	여성	60명(50%)	60명(50%)
연령대	20대	30명(25%)	30명(25%)
	30대	30명(25%)	30명(25%)
	40대	30명(25%)	30명(25%)
	50대 이상	30명(25%)	30명(25%)
최종 학력	고졸이하	18명(15.0%)	9명(7.5%)
	2·3년제 대학 재학 / 졸업	19명(15.8%)	13명(10.8%)
	4년제 대학 재학 / 졸업	74명(61.7%)	82명(68.3%)
	대학원 재학 이상	9명(7.5%)	16명(13.3%)
직업	농축수산/광업	4명(3.3%)	0명(0.0%)
	자영/판매업	3명(2.5%)	9명(7.5%)
	서비스직	4명(3.3%)	2명(1.7%)
	노무직	7명(5.8%)	1명(0.8%)
	기능직	46명(38.3%)	4명(3.3%)
	사무직	7명(5.8%)	66명(55.0%)
	전문직	7명(5.8%)	9명(7.5%)
	기술전문직	5명(4.2%)	2명(1.7%)
	경영관리직	11명(9.2%)	10명(8.3%)
	전업주부	10명(8.3%)	10명(8.3%)

학생	11명(9.2%)	4명(3.3%)
무직/퇴직	5명(4.2%)	3명(2.5%)

3) 실험 절차 및 자극물 조작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되었다. 첫째, 실험은 전국에 패널을 보유한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업체를 통해 실시되었으며, 실험참가자들의 원활한 AI 휴먼 챗봇 경험을 위해 생성형 AI에 대해 알고 있는 2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대상자만 실험에 참여하게 하여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스크리닝 문항(Screening question)을 통해 생성형 AI에 대해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자동으로 설문이 종료되게 하였다. 둘째, 오피니언 리더십을 측정하는 11개 문항을 통해 실험참가자를 오피니언 리더 이용자와 비(非) 오피니언 리더인 일반 이용자로 분류하였다. 셋째, 실험참가자들의 AI 휴먼 챗봇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AI 휴먼이 연사로 등장하는 정보제공 스피치 동영상(1분 58초)을 제작하여 실험참가자들이 시청하게 하였다. 동영상은 AI 휴먼의 기술과 활용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동영상 시청 후 동영상 내용과 관련된 질문(‘귀하가 방금 시청한 동영상에 등장한 연사는 인간입니까? AI 휴먼입니까?’), ‘AI 휴먼은 ChatGPT와 같은 생성형·대화형 AI를 의인화하여 외형과 행동을 인간과 유사하게 구현시켜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AI입니까?’)을 제시하여 응답을 제출한 실험참가자는 자동으로 설문이 종료되도록 하였다. 넷째, 실험참가자들의 AI 휴먼 챗봇에 대한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 국내 대화형 AI 휴먼 챗봇 서비스 페르소(PERSO) 링크를 제공하고,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도록 하였다. 충분한 상호작용을 위해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없도록 페이지를 2분 동안 강제로 고정하였으며, AI 휴

먼에게 3가지 이상 질문(궁금한 점, 일상대화 등)을 하도록 안내하였다. 이후 질문한 내용은 주관식 문항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AI 휴먼 챗봇에 대한 실험참가자들의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험참가자들의 스피치 역량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AI 휴먼은 [그림 2]와 같다.

동영상 자극물의 AI 휴먼	상호작용에 활용된 AI 휴먼 챗봇
	

* AI 휴먼 동영상은 페르소 AI 스튜디오(PERSO AI studio)를 통해 제작되었으며, 본 이미지는 이스트소프트(ESTsoft)의 권리가 보호됨.

[그림 2] 본 연구에 활용된 AI 휴먼 이미지

4) 변수 측정 및 조작점검

(1) AI 휴먼 챗봇 이용자의 유형(일반 vs. 오피니언 리더)

본 연구는 AI 휴먼 챗봇 이용자의 유형을 오피니언 리더 이용자와 비(非) 오피니언 이용자인 일반 이용자로 분류하였다. 오피니언 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를 기반으로 오피니언 리더를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보 교류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인’으로 정의하였으며,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이용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오피니언 리더십을 측정한 선행연구⁵⁴⁾의 문항과 분류 기준을 참고하

54) 안민호·김수정·김현진, 앞의 논문.

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분류 기준과 조작점검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참가자의 오피니언 리더십을 측정하는 11개 문항(‘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많다’, ‘내 주위에는 나의 의견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편이다’, ‘나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중요한 정보나 뉴스를 내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나는 세상 돌아가는 소식들에 관해 대화를 나눌 사람들이 주위에 많다’, ‘나는 업무와 관계 없이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 편이다’, ‘나는 늘 새롭게 소개받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 ‘내 주위에는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다양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나는 우리 사회나 주변 사람들의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 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을 7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1점, 매우 그렇다 = 7점)로 측정하였다(Cronbach's α = 0.95). 둘째, 오피니언 리더십을 측정한 11개 문항의 평균이 5점 이상이며, ‘일반적으로 볼 때 나는 우리 사회나 주변 사람들의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 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에 대해 5점 이상으로 답한 응답자들은 오피니언 리더로 분류하였다. 셋째, 오피니언 리더십을 측정한 11개 문항의 평균이 5점 미만이며, ‘일반적으로 볼 때 나는 우리 사회나 주변 사람들의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 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에 대해 4점 이하로 답한 응답자들은 비(非)오피니언 리더로 분류하였다. 넷째, 오피니언 리더십을 측정한 10개 문항의 평균 점수와 ‘일반적으로 볼 때 나는 우리 사회나 주변 사람들의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 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에 대한 답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설문이 종료되게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분류된 AI 휴먼 챗봇 이용자의 유형을 데이터 분석과 해석 과정에서 일반 이용자는 0, 오피니언 리더 이용자는 1로 코딩하였다.

(2) 이용자의 스피치 역량

스피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AI 시대 스피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요인 도출을 중심으로 스피치 역량 자기평가 척도를 개발한 유희승⁵⁵⁾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스피치가 자연스럽고 유창하다’, ‘발성이 안정적이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발음한다’. ‘말 끝을 흐리지 않고 명확하게 맺는다’, ‘목소리에 강약조절이 있다’, ‘스피치 내용에 알맞은 감정을 극적으로 표현한다’, ‘잠시 멈추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강조하고 싶은 내용에서 발성, 톤, 강조, 쉬의 변화를 통해 명확한 차이를 준다’, ‘청중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한다’, ‘청중의 반응과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수용한다’, ‘스피치 주제에 대한 청중의 입장을 고려한다’, ‘상황과 분위기에 알맞게 스피치 한다’, ‘스피치의 의도와 목표를 정확하게 전달한다’, ‘논점을 분명하게 요약한다’, ‘청중이 흥미를 가질만한 주제와 내용으로 스피치를 구성한다’, ‘스피치의 핵심메시지를 청중에게 명확하게 각인시킨다’ 16개 문항을 7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1점, 매우 그렇다 = 7점)로 측정하였으며, 스피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통합변인으로 만들었다(Cronbach's $\alpha = 0.96$).

(3) 이용자의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

본 연구는 선행연구⁵⁶⁾를 바탕으로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을 ‘AI 휴먼 챗봇과의 준사회적 관계 발전을 촉진하는 상호작용 품질에 대한 이용자의 인지 정도’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은 이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경험하는 총체적 인식을 의미하는 이용

55) 유희승, 앞의 논문, 79-105쪽.

56) Ashfaq, M., Yun, J., Yu, S., & Loureiro, S. M. C., op. cit.

자 경험(User Experience)과 구분되며, 이용자가 AI 휴먼과의 상호작용에서 인식하는 상호작용의 품질과 효과성에 초점을 맞춘다.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 AI 챗봇의 CASA(Computers Are Social Actors) 요인을 인지된 의인화 특성(Perceived anthropomorphic characteristics), 인지된 공감능력(Perceived empathic abilities),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Perceived interaction quality)로 분류한 선행연구⁵⁷⁾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맥락에 맞게 문항을 수정·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AI 휴먼은 나와 효과적인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다’, ‘AI 휴먼은 내가 응답할 기회를 준다’, ‘AI 휴먼은 이용자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AI 휴먼은 이용자의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수집한다’ 4개 문항을 7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1점, 매우 그렇다 = 7점)로 측정하였으며,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통합변인으로 만들었다(Cronbach’s α = 0.90).

(4) AI 휴먼 챗봇에 대한 신뢰도

본 연구에서 AI 휴먼 챗봇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득 스피치 상황에서 AI 휴먼과 인간 연사에 대한 신뢰도⁵⁸⁾와 유튜브 정치채널 콘텐츠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⁵⁹⁾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맥락에 맞게 문항을 수정·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AI 휴먼 챗봇에 대한 신뢰도는 ‘AI 휴먼 챗봇이 편향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용자의 윤리적 신뢰’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AI 휴먼은 믿을 수 있다’, ‘AI 휴먼은 의혹이 없을 것

57) Gu, C., Zhang, Y., & Zeng, L., op. cit., pp.1-12.

58) 유희승, 앞의 논문, 349-383쪽.

59) Yu, H., Ryoo, Y., & Han, E., “Mind over matter: How biased perceptions of political knowledge influence selection and evaluation of political YouTube channels”, *Internet Research*, vol. 34, no. 2, Bingley: Emerald Publishing, 2024, pp.474-494.

이다', 'AI 휴먼은 신뢰할 수 있다', 'AI 휴먼은 편향적이지 않을 것이다' 4개 문항을 7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1점, 매우 그렇다 = 7점)로 측정하였으며,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통합변인으로 만들었다(Cronbach's $\alpha = 0.90$).

5) 분석 방법

본 연구는 AI 휴먼 챗봇 이용자의 유형(일반 vs. 오피니언 리더)에 따라 스피치 역량,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 신뢰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탐구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SPSS 18.0과 프로세스 매크로(Process Macro ver. 4.1)를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피치 역량,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 신뢰도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측정 변수의 정규성을 검토하였으며, 직렬매개와 병렬매개 중 적절한 분석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여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AI 휴먼 챗봇 이용자의 유형(일반 vs. 오피니언 리더)에 따라 이용자의 스피치 역량,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 신뢰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탐구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을 실시하였다.

셋째, AI 휴먼 챗봇 이용자의 유형, 이용자의 스피치 역량,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 신뢰도의 관계와 이용자의 유형이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용자의 스피치 역량과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의 매개효과를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SPSS 프로세스 매크로 모델6를 활용하여 직렬다중매개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4. 연구의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스피치 역량,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 신뢰도의 정규분포 검증을 위해 왜도, 첨도, 평균, 표준편차를 확인하였다. 또한 직렬과 병렬 중 다중매개모형 선택을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관계 분석결과 모든 변수 간 상관관계는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두 개 이상의 매개변수를 가지는 매개모형 중 병렬다중매개모형은 매개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지만, 직렬다중매개모형은 매개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다.⁶⁰⁾ 둘째, 왜도는 최솟값 -0.39에서 최댓값 -0.26의 범위를 나타내며 첨도는 최솟값 -0.54에서 최댓값 0.16의 범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변수는 대체로 정규분포에 가깝게 나타나 정규성을 위반하지 않으며, 매개변수는 변수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직렬다중매개모형을 채택하여 분석하였다.⁶¹⁾ 측정 변수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스피치 역량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	신뢰도
스피치 역량	1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	0.55***	1	
신뢰도	0.49***	0.73***	1
평균	4.68	4.54	4.27
표준편차	1.07	1.25	1.30
왜도	-0.39	-0.39	-0.26
첨도	0.16	0.01	-0.54

* $p < .05$, ** $p < .01$, *** $p < .001$.

60) 이현경·김정민, 「대학 교직수업에서 성장마인드셋, 숙달목표, 그릿, 자기주도학습 및 학습만족도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21권 3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20, 807-830쪽.

61) 위의 논문, 807-830쪽.

2) AI 휴먼 챗봇 이용자의 유형에 따른 스피치 역량,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 신뢰도의 차이

AI 휴먼 챗봇 이용자의 유형(일반 vs. 오피니언 리더)에 따라 스피치 역량,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 신뢰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탐구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일반 이용자와 오피니언 리더 이용자 집단 간 스피치 역량,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 신뢰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3].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피치 역량은 오피니언 리더 이용자 집단(M = 5.22, SD = 0.89)이 일반 이용자 집단(M = 4.12, SD = 0.95)보다 높게 나타났다($p = .000$). 둘째,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도 오피니언 리더 이용자 집단(M = 4.94, SD = 1.29)이 일반 이용자 집단(M = 4.14, SD = 1.08)보다 높게 나타났다($p = .000$). 셋째, 신뢰도도 오피니언 리더 이용자 집단(M = 4.72, SD = 1.33)이 일반 이용자 집단(M = 3.82, SD = 1.11)보다 높게 나타났다($p = .000$). 이러한 결과는 오피니언 리더 이용자가 일반 이용자에 비해 스피치 역량이 높으며, 일반 이용자와 같은 AI 휴먼 챗봇을 경험했음에도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과 신뢰도를 일반 이용자에 비해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이용자 유형에 따른 스피치 역량,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 신뢰도의 차이

구성요소	이용자 유형	평균	S.D.	df	t(p)
스피치 역량	일반	4.12	0.95	238	9.09(***)
	오피니언 리더	5.22	0.89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	일반	4.14	1.08	238	5.17(***)
	오피니언 리더	4.94	1.29		
신뢰도	일반	3.82	1.11	230.92	5.67(***)
	오피니언 리더	4.72	1.33		

* $p < .05$, ** $p < .01$, *** $p < .001$.

3) AI 휴먼 챗봇 이용자의 유형에 따른 직접효과

본 연구는 AI 휴먼 챗봇 이용자의 유형, 스피치 역량,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 신뢰도의 관계를 탐구하기 위해 프로세스 매크로 모델6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⁶²⁾ 이를 위해 이용자의 유형을 독립변인으로, AI 휴먼 챗봇에 대한 신뢰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용자의 스피치 역량과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분석에는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과 95% 신뢰구간을 적용하였다[표 4].

[표 4] 회귀분석 결과

예측 변인	종속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스피치 역량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			AI 휴먼 챗봇 신뢰도		
	β	SE	$t(p)$	β	SE	$t(p)$	β	SE	$t(p)$
이용자 유형	1.01	0.12	9.09 (***)	0.11	0.16	0.87	0.19	0.13	1.90
스피치 역량				0.52	0.07	8.21 (***)	0.08	0.07	1.40
인지된 상호 작용 품질							0.65	0.05	12.45 (***)
$F(p)$	82.58(***)			50.84(***)			94.85(***)		
R^2	25.8%			30.0%			54.7%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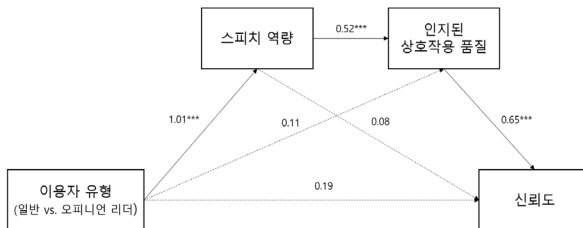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3]. 첫째, 이용자의 유형이 첫 번째 매개변인인 스피치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F = 82.58, p < .001$), 이용자의 유형이 스피치 역량의 분산을 25.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의 유형은 스피치 역량에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01, t = 9.09, p < .001$). 다시 말해, 오피니언 리더 이용자 집단이 일반 이용자 집

62) Hayes, N., *Doing Qualitative Analysis in Psychology*, New York: Psychology Press, 2013.

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스피치 역량을 보였다.

둘째, 이용자의 유형과 스피치 역량이 두 번째 매개변인인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F = 50.84, p < .001$), 이용자의 유형과 스피치 역량은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의 분산을 30.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의 유형은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스피치 역량은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52, t = 8.21, p < .001$). 이러한 결과는 AI 휴먼 챗봇 이용자의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에 이용자의 스피치 역량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이용의 유형과 스피치 역량,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이 종속변인인 AI 휴먼 챗봇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하였다($F = 94.85, p < .001$). 또한 이용자의 유형, 스피치 역량,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은 AI 휴먼 챗봇 신뢰도의 분산을 54.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용자의 유형과 스피치 역량은 AI 휴먼 챗봇 신뢰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이용자의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은 AI 휴먼 챗봇 신뢰도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65, t = 12.45, p < .001$). 즉, 이용자가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이 높다고 느낄수록 AI 휴먼 챗봇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회귀분석 결과 경로 모델

4) 이용자의 유형이 AI 휴먼 챗봇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용자의 스피치 역량과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의 직렬다중매개효과

본 연구는 이용자의 유형이 AI 휴먼 챗봇 신뢰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로서 이용자의 스피치 역량과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탐구한 3개 매개효과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첫째, 이용자의 유형이 스피치 역량을 매개로 AI 휴먼 챗봇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였다. 분석 결과 이용자의 유형은 스피치 역량을 매개로 AI 휴먼 챗봇 신뢰도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둘째, 이용자의 유형이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을 매개로 AI 휴먼 챗봇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였다. 분석 결과 이용자의 유형은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을 매개로 AI 휴먼 챗봇 신뢰도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셋째, 이용자의 유형이 스피치 역량을 거쳐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AI 휴먼 챗봇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였다. 이용자의 유형과 AI 휴먼 챗봇 신뢰도 간의 관계에서 이용자의 스피치 역량과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의 직렬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인 직렬다중매개효과가 나타났다($\beta = 0.34$, $SE = 0.06$, $CI = [0.24, 0.46]$).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인 이용자의 유형이 종속변수인 AI 휴먼 챗봇 신뢰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총 효과(직접+간접)는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69$, $SE = 0.16$, $CI = [0.59, 1.21]$). 따라서 이용자의 스피치 역량과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은 이용자의 유형과 AI 휴먼 챗봇 신뢰도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피니언 리더 이용자 집단이 일반 이용자 집

단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스피치 역량을 나타냈다. 또한 스피치 역량이 높을수록 AI 휴먼 챗봇에 대한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과 신뢰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분석 결과

구 분	경로	β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총 효과 (직접+간접)	이용자 유형 → AI 휴먼 챗봇 신뢰도	0.69	0.16	0.59	1.21
직접 효과	이용자 유형 → AI 휴먼 챗봇 신뢰도	0.19	0.13	-0.01	0.51
총 간접효과		0.50	0.10	0.30	0.70
경로 1	이용자 유형 → 스피치 역량 → AI 휴먼 챗봇 신뢰도	0.08	0.06	-0.03	0.21
경로 2	이용자 유형 →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 → AI 휴먼 챗봇 신뢰도	0.07	0.08	-0.08	0.22
경로 3	→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 → AI 휴먼 챗봇 신뢰도	0.34	0.06	0.24	0.46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AI 휴먼 챗봇 이용자의 유형(일반 vs. 오피니언 리더) 간 스피치 역량,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 신뢰도의 차이를 탐구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AI 휴먼 챗봇 이용자의 유형이 AI 휴먼 챗봇에 대한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서 이용자의 스피치 역량과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의 직렬매개효과를 탐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연구문제 1을 통해 AI 휴먼 챗봇 이용자의 유형(일반 vs. 오피니언 리더)에 따른 이용자의 스피치 역량,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 신뢰도의 차이를 탐구하였다. 분석 결과 오피니언 리더 이용자 집단이 일반 이용자 집단에 비해 스피치 역량,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오피니언 리더 이용자가 일반 이용자에 비해 스피치

역량의 수준이 높으며, 일반 이용자와 같은 AI 휴먼 챗봇을 경험했음에도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과 신뢰도를 일반 이용자에 비해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연구문제 2를 통해 AI 휴먼 챗봇 이용자의 유형, 스피치 역량,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 신뢰도의 관계는 어떠한지 탐구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째, 이용자 유형은 스피치 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니언 리더 집단의 스피치 역량이 일반 이용자 집단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 오피니언 리더는 메시지를 단순히 전달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해석하고 분석하며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의견을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일반 이용자들에 비해 우수하다는 오피니언 리더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결과^{63) 64) 65) 66)}와 궤를 같이한다.

둘째, 이용자의 유형은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스피치 역량은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AI 휴먼 챗봇 이용자의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에 이용자의 스피치 역량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생성형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AI 이용 역량을 넘어서 문제정의, 핵심 정보 추출,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사고, 논리적 표현을 포함한 고차원적 역량이 요구된다. 스피치 역량은 명확한 의사 전달과 논리적인 표현 능력을 포함하기 때문에 AI 휴먼 챗봇에 대한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AI 시대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대응하기 위해 스피치 교육은 의사소통 능력을 비롯한 개인의 문제

63) 김경모·송현진, 앞의 논문, 194-218쪽.

64) 김동윤·김위근·조민규, 앞의 논문, 123-170쪽.

65) 이준웅·김은미·김현석, 앞의 논문, 358-384쪽.

66) 조승호·조상훈, 앞의 논문, 201-209쪽.

해결 능력과 정보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스피치 역량 교육 과정을 AI 시대 필요한 스피치 역량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용자의 유형과 스피치 역량은 AI 휴먼 챗봇 신뢰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이용자의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은 AI 휴먼 챗봇 신뢰도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AI 챗봇의 서비스 실패 상황에서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이 외적 귀인을 촉진하고 AI 챗봇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데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⁶⁷⁾ 또한 해당 결과는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이 AI 휴먼 챗봇의 신뢰도 형성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실무적 함의를 제공한다. 신뢰는 정보 기술의 수용과 사용에 필수적인 요소이며,⁶⁸⁾ 사용자의 브랜드에 대한 태도와 소비자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⁶⁹⁾ 따라서 향후 실무적 영역에서 AI 휴먼 챗봇을 설계 및 운영할 때 기술적 성능의 향상과 함께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을 높이기 위한 감정적 공감, 적절한 피드백, 자연스러운 대화 흐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을 중심으로 한 이용자 친화적 설계는 AI 휴먼 챗봇의 서비스 실패 상황에서도 신뢰도를 유지하고 이용자와의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67) Gu, C., Zhang, Y., & Zeng, L., op. cit., pp.1-12.

68) Venkatesh, V., Thong, J. Y., & Xu, X.,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A synthesis and the road ahead",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vol. 17, no. 5, Atlanta: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2016, pp.328-376.

69) McLean, G., Osei-Frimpong, K., & Barhorst, J., "Alexa, do voice assistants influence consumer brand engagement? Examining the role of AI-powered voice assistants in influencing consumer brand engagement",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 124, Amsterdam: Elsevier Science, 2021, pp.312-328.

다음으로 본 연구는 연구문제 3을 통해 이용자의 유형과 AI 휴먼 챗봇에 대한 신뢰도 간의 관계에서 이용자의 스피치 역량과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이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 탐구하였다. 분석결과 이용자의 유형이 AI 휴먼 챗봇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은 이용자의 스피치 역량과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에 의해 완전매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분석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의 유형은 스피치 역량을 매개로 AI 휴먼 챗봇 신뢰도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둘째, 이용자의 유형은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을 매개로 AI 휴먼 챗봇 신뢰도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셋째, 이용자의 유형과 AI 휴먼 챗봇 신뢰도 간의 관계에서 이용자의 스피치 역량과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의 직렬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인 직렬다중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용자의 스피치 역량과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이 직렬다중매개 경로를 통해 이용자 유형과 AI 휴먼 챗봇의 신뢰도를 연결하는 순차적 경로를 규명하며, 본 연구의 연구모형 설정을 지지한다.

본 연구는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론적·실무적 함의를 제언한다. 먼저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AI 휴먼 챗봇 이용자의 유형을 오피니언 리더와 비(非) 오피니언 리더로 분류하고, 이용자 유형과 신뢰도 간의 관계에서 이용자의 스피치 역량과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의 직렬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용자의 개별적 특성인 스피치 역량과 주관적 인식인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의 순차적 매개 경로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여 AI 휴먼 챗봇 신뢰 형성에 이르는 과정을 규명하는 문헌에 기여한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오피니언 리더의 혁신적 신기술(AI 휴먼 챗봇)에 대한 인식과 채택, 확산 관련 연구에 기계 휴리스틱(Machine heuristic)

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연구문제 1을 통해 오피니언 리더 집단이 일반 이용자 집단보다 AI 휴먼 챗봇에 대한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과 신뢰도를 더 높게 평가함을 밝혔다. 이는 기계가 객관적이고 편향되지 않다는 본질적 특성에 대해 인간이 가지는 긍정적인 믿음^{70) 71)}을 의미하는 기계 휴리스틱의 수준이 일반 이용자보다 오피니언 리더 이용자가 더 높기 때문일 수 있다. 기계 휴리스틱의 개념은 기술이 기계적 정체성을 (Technological cues) 보일 때, 기계의 역량에 대해 긍정적인 신념을 가진 이용자들이 해당 기술을 인간보다 더 객관적이고 편향되지 않았다고 인식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⁷²⁾은 기술 평가 과정에서 긍정적인 편향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⁷³⁾ 기계적 정체성을 보이는 AI 휴먼 챗봇에 대한 기술 평가와 신뢰도 형성에 이용자의 기계 휴리스틱 수준이 유의한 역할을 하여, 기계 휴리스틱 수준이 높을수록 AI 휴먼 챗봇에 대한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과 신뢰도를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오피니언 리더와 일반 이용자 간의 기계 휴리스틱 수준의 차이를 탐구하고, 이러한 차이가 AI 휴먼 챗봇에 대한 신뢰와 채택,

70) Lee, E. J., "Minding the source: Toward an integrative theory of human-machine communica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vol. 50, no. 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4, pp.184-193.

71) Sundar, S. S. & Kim, J., Machine heuristic: When we trust computers more than humans with our personal information, *Proceedings of the 2019 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New York: ACM Press, 2019, pp.1-9.

72) Koh, Y. J. & Sundar, S. S., "Heuristic versus systematic processing of specialist versus generalist sources in online media",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vol. 36, no. 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p.103-124.

73) Lee, H., Shin, M., Yang, J., & Chock, T. M., "Virtual influencers vs. human influencers in the context of influencer marketing: The moderating role of machine heuristic on perceived authenticity of influencer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Interaction*, Philadelphia: Taylor & Francis, 2024, pp.1-18.

확산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혁신의 확산 과정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초기 채택자인 오피니언 리더⁷⁴⁾의 AI 휴먼 챗봇 채택과 확산에 대한 이론적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실무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의 스피치 역량이 AI 휴먼 챗봇의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과 신뢰도 형성에 핵심적인 매개 역할을 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AI 시대에 필요한 정보 전달 능력과 논리적 소통 역량을 중심으로 한 스피치 교육과 리터러시(Literacy)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AI 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피치 역량 척도⁷⁵⁾를 활용하여 오피니언 리더 이용자와 일반 이용자의 스피치 역량을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오피니언 리더 이용자가 일반 이용자에 비해 높은 수준의 스피치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유형이 스피치 역량과 AI 휴먼 챗봇에 대한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신뢰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규명하였다. 오피니언 리더 이용자들이 일반 이용자에 비해 높은 수준의 스피치 역량을 바탕으로 AI 휴먼 챗봇과의 상호작용 품질을 높게 인지하고, 이는 높은 수준의 신뢰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오피니언 리더가 높은 수준의 스피치 역량을 바탕으로 AI 휴먼 챗봇과의 상호작용 품질을 높게 인지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 없이 정보를 수용한다면,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정보도 여과 없이 대중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대중매체의 의제를 중간에서 매개하는 역할에 머물렀던 오피니언 리더들은 온라인 환경에서 직접 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

74) Rogers, E. M., *Diffusion of innovations(4th ed.)*. New York: Free Press, 1995.

75) 유희승, 앞의 논문, 79-105쪽.

하는 주체로 확장되었다.⁷⁶⁾ 그러나 이들의 의견은 종종 편향되어 있거나 근거가 부족한 판단으로 구성되며, 선도의견(Leading opinion)인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입장을 폄하하거나, 편향성을 가진 정치인의 발언 및 특정 통계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관찰되기도 한다.⁷⁷⁾ 이러한 현상은 오피니언 리더가 갖는 강력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들이 AI 휴먼 챗봇을 활용한 정보 취득 과정에서 올바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스피치 역량과 리터러시 역량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오피니언 리더는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므로, AI 휴먼 챗봇을 활용한 정보 습득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편향된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경우, 잘못된 정보가 확산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AI 시대 스피치 교육은 효과적인 의사 전달 역량을 넘어서, AI 휴먼 챗봇을 활용한 정보 취득 과정에서 올바른 정보를 식별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비판적 사고와 근거 기반의 논증 능력을 갖춘 스피치 역량과 리터러시 역량을 교육하는 데 집중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AI 휴먼 챗봇 오피니언 리더 이용자가 정보의 객관성을 검토하고, 논리적으로 구성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을 제공할 것이다.

둘째, 오피니언 리더가 일반 이용자에 비해 스피치 역량,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이 높으며, AI 휴먼 챗봇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의 여론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오피니언 리더가 AI 휴먼 챗봇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일반 이용자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의사소통 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서는 AI 휴먼 챗봇 기술의 발전 및

76) 박민경·이건호, 「온라인 오피니언 리더의 담론 유형 탐구: 세종시 관련 인터넷 토론방 다음 아고라 선도의견을 중심으로」,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48권 1호,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11, 114-149쪽.

77) 박민경·이건호, 위의 논문, 114-149쪽.

보급과 함께 AI 휴먼 챗봇의 정보 출처 명시 의무화, AI 챗봇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윤리적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정책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셋째, 선행연구⁷⁸⁾는 제품 확산 과정에서 오피니언 리더가 사회적 전염(Social contagion)을 촉진하는 핵심 역할을 하며 신제품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에서 오피니언 리더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확산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힌다. 따라서 AI 휴먼 챗봇 서비스는 오피니언 리더 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AI 휴먼 챗봇 서비스를 활용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에서도 오피니언 리더 집단을 주요 타겟으로 고려하여, 오피니언 리더 집단의 AI 휴먼 챗봇에 대한 긍정적인 상호작용 경험을 타 이용자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의 실험은 특정 시점에서 이루어진 횡단 연구로 설계되어 스피치 역량과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 신뢰도 간의 관계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탐구하지 못하였다. 향후 장기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한 종단 연구를 설계한다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진행된 정량적 연구로, 이용자와 AI 휴먼 챗봇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성적 측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심층 인터뷰를 비롯한 질적 연구 방법을 병행하여 이용자들이 AI 휴먼 챗봇에 대한 신뢰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떠한 요인이 작용하는지 심층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용자와 AI 휴먼 챗봇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이용자가 느끼는 감정, 기술에 대한 주관적 평가 등을 탐구한다면, AI 휴먼 챗봇 신뢰도 형성에 대한 다차원적인 논의와 함께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8) Iyengar, R., Van den Bulte, C., & Valente, T. W., op. cit., pp.195-212.

■ 참고 문헌

- 강지연·탁진국, 「중간관리자의 의사소통역량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32권 4호, 한국심리학회, 2019, 439-471쪽.
- 김관규, 「인터넷의 양방향·공개 커뮤니케이션 장을 창출한 적극적 발신행위자의 속성에 관한 연구: 오피니언 리더의 속성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31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005, 51-84쪽.
- 김경모·송현진, 「메시지 품질과 토론 연결망의 구조적 위치, 그리고 여론지도력: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의 온라인 정치토론 사례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56권 4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011, 194-218쪽.
- 김동윤·김위근·조민규, 「소셜미디어에서 온라인 의견지도자와 이용자의 의견표명: 플랫폼과 이용동기, 정치성향과 의견일치 여부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사이버 커뮤니케이션학보』 32권 3호, 한국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회, 2015, 123-170쪽.
- 김세은, 「시사 분야 의견지도자 성향 연구: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미디어 이용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권 1호, 한국언론학회, 2006, 91-114쪽.
- 김종규·한상우·원만희, 「의사소통역량 평가를 위한 자기 진단 모형 개발」, 『수사학』 23호, 한국수사학회, 2015, 389-422쪽.
- 김지희, 「인명사전 표집을 통한 한국사회 의견지도자의 특성과 유형화」, 『사회과학연구』 60권 3호,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1, 31-57쪽.
- 김지희, 「한국 사회 의견지도자 인식과 메시지 설득력, 의견지도자의 유형별 차이」, 『한국언론학보』 65권 2호, 한국언론학회, 2021, 41-74쪽.
- 김하나·김송미,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에 따른 오피니언 리더 특성 변화가 소비자 행태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경영 학회지』 17권 5호, 글로벌경영학회, 2020, 166-187쪽.
- 남현우, 「디지털 휴먼 개발 기술의 현황과 전망」, 『한국통신학회지

(정보와통신)』39권 5호, 한국통신학회, 2022, 67-73쪽.

박민경·이건호, 「온라인 오피니언 리더의 담론 유형 탐구: 세종시 관련 인터넷 토론방 다음 아고라 선도의견을 중심으로」,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48권 1호,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11, 114-149쪽.

박수아, 「인공지능 스피커의 상품 추천 서비스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박현수·전영우, 「신문 매체의 광고 노출효과 분석: 오피니언 리더와 일반 독자의 차이를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16권 2호, 한국광고학회, 2005, 101-124쪽.

백미숙·이상철, 『소통의 기초: 스피치와 토론』,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4.

서문교·배은경, 「오피니언 리더의 행위가 온라인 학습에서 콘텐츠 만족도와 운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권 5호, 한국콘텐츠학회, 2012, 346-356쪽.

손영화, 「대학생의 의사소통 역량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5권 1호, 한국소통학회, 2016, 83-107쪽.

안민호·김수정·김현진,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이용 행태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유희승, 「연사의 유형이 연사 신뢰도와 스피치 설득효과에 미치는 영향: 청중의 설득지식과 스피치 품질지각의 직렬다중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소통학보』 23권 3호, 한국소통학회, 2024, 349-383쪽.

———, 「스피치 역량 자기평가 척도 개발 연구: AI 시대 스피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요인 도출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회연구』 32권 3호,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24, 79-105쪽.

이준웅·김은미·김현석, 「누가 인터넷 토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온라인 의견지도자의 속성」, 『한국언론학보』 51권 3호, 한국언론학회, 2007, 358-384쪽.

이현경·김정민, 「대학 교직수업에서 성장마인드셋, 숙달목표, 그릿,

- 자기주도학습 및 학습만족도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21권 3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20, 807-830쪽.
- 장해순·허경호, 「관찰자 측정 스피치 능력 척도 타당성 검증」, 『한국방송학보』 19권 1호, 한국방송학회, 2005, 178-217쪽.
- 조승호·조상훈, 「페이스북에서 효과적인 바이럴 마케팅을 위한 영향력 있는 의견지도자의 커뮤니케이션 패턴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1권 5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3, 201-209쪽.
- 최윤정, 「온라인 커뮤니티 속 오피니언 리더 집단 검증: 이용동기, 활동 정도, 대인관계 형성 과정의 비교 분석」, 『한국언론학보』 53권 4호, 한국언론학회, 2009, 372-394쪽.
- 최지혜·노기영, 「인공지능 챗봇의 의인화가 챗봇과의 준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인지된 유사성과 사회적 현존감의 매개효과」, 『한국광고홍보학보』 24권 4호, 한국광고홍보학회, 2022, 521-549쪽.
- 한종호, 「Generative AI, AI 휴먼 서비스」, 『방송과 미디어』 28권 2호, 경기연구원, 2023, 33-42쪽.
- Araujo, T., “Living up to the chatbot hype: The influence of anthropomorphic design cues and communicative agency framing on conversational agent and company perception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85, Amsterdam: Elsevier Science, 2018, pp.183-189.
- Ashfaq, M., Yun, J., Yu, S., & Loureiro, S. M. C., “I, Chatbot: Modeling the determinants of users’ satisfaction and continuance intention of AI-powered service agents”, *Telematics and Informatics*, vol. 54, Amsterdam: Elsevier Science, 2020, article 101473.
- Brady, N. C., Fleming, K., Thiemann-Bourque, K., Olswang, L., Dowden, P., Saunders, M. D., & Marquis, J., “Development of the Communication Complexity Scale”,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vol. 21, no. 1, Rockville: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 2012, pp.16-28.

- Cha, M., Haddadi, H., Benevenuto, F., & Gummadi, K., “Measuring user influence in Twitter: The million follower fallacy”,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AAAI Conference on Web and Social Media*, vol. 4, no. 1, Palo Alto: AAAI Press, 2010, pp.10-17.
- Cho, Y., Hwang, J., & Lee, D., “Identification of effective opinion leaders in the diffusion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 social network approach”,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vol. 79, no. 1, Amsterdam: Elsevier Science, 2012, pp.97-106.
- Gu, C., Zhang, Y., & Zeng, L., “Exploring the mechanism of sustained consumer trust in AI chatbots after service failures: A perspective based on attribution and CASA theorie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 vol. 11, no. 1, London: Springer Nature, 2024, pp.1-12.
- Hayes, N., *Doing Qualitative Analysis in Psychology*, New York: Psychology Press, 2013.
- Huang, J. & Jung, Y., “Perceived authenticity of virtual characters makes the difference”, *Frontiers in Virtual Reality*, vol. 3, Lausanne: Frontiers Media, 2022, article 1033709.
- Iyengar, R., Van den Bulte, C., & Valente, T. W., “Opinion leadership and social contagion in new product diffusion”, *Marketing Science*, vol. 30, no. 2, Hanover: INFORMS, 2011, pp.195-212.
- Katz, E. & Lazarsfeld, P. F., *Personal Influence: The Part Played by People in the Flow of Mass Communications*, New York: The Free Press, 1955.
- Koh, Y. J. & Sundar, S. S., “Heuristic versus systematic processing of specialist versus generalist sources in online media”,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vol. 36, no. 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p.103-124.
- Lazarsfeld, P. F., Berelson, B., & Gaudet, H., *The People’s Choice: How the Voter Makes Up His Mind in a Presidential*

- Campaig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44.
- Lee, E. J., “Minding the source: Toward an integrative theory of human-machine communica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vol. 50, no. 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4, pp.184-193.
- Lee, H., Shin, M., Yang, J., & Chock, T. M., “Virtual influencers vs. human influencers in the context of influencer marketing: The moderating role of machine heuristic on perceived authenticity of influencer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Interaction*, Philadelphia: Taylor & Francis, 2024, pp.1-18.
- Lee, K. M., “Presence, explicated”, *Communication Theory*, vol. 14, no. 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p.27-50.
- Lee, S., Oh, J., & Moon, W. K., “Adopting voice assistants in online shopping: Examining the role of social presence, performance risk, and machine heuristic”,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Interaction*, vol. 39, no. 14, Philadelphia: Taylor & Francis, 2023, pp.2978-2992.
- McLean, G., Osei-Frimpong, K., & Barhorst, J., “Alexa, do voice assistants influence consumer brand engagement? Examining the role of AI-powered voice assistants in influencing consumer brand engagement”,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 124, Amsterdam: Elsevier Science, 2021, pp.312-328.
- Nass, C., Steuer, J., & Tauber, E. R., *Computers are social actors, Proceedings of the SIG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New York: ACM Press, 1994, pp.72-78.
- Pelau, C., Dabija, D. C., & Ene, I., “What makes an AI device human-like? The role of interaction quality, empathy, and perceived psychological anthropomorphic characteristics in the accept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service industr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122, Amsterdam: Elsevier Science, 2021, article

106855.

- Rogers, E. M., *Diffusion of innovations* (4th ed.), New York: Free Press, 1995.
- Rubin, R. B., “The validity of the communication competency assessment instrument”, *Communications Monographs*, vol. 52, no. 2, Philadelphia: Taylor & Francis, 1985, pp.173-185.
- Sundar, S. S., “The MAIN model: A heuristic approach to understanding technology effects on credibility”, *MacArthur Foundation Digital Media and Learning Initiative*, Chicago: MacArthur Foundation, 2008, pp.73-100.
- _____, “Rise of machine agency: A framework for studying the psychology of human-AI interaction (HAIL)”,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vol. 25, no. 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pp.74-88.
- _____, & Kim, J., “Machine heuristic: When we trust computers more than humans with our personal information”, *Proceedings of the 2019 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New York: ACM Press, 2019, pp.1-9.
- Valente, T. W. & Pumpuang, P., “Identifying opinion leaders to promote behavior change”, *Health Education & Behavior*, vol. 34, no. 6,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2007, pp.881-896.
- Venkatesh, V., Thong, J. Y., & Xu, X.,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A synthesis and the road ahead”,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vol. 17, no. 5, Atlanta: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2016, pp.328-376.
- Watts, D., “Challenging the influentials hypothesis”, *WOMMA Measuring Word of Mouth*, vol. 3, no. 4, Chicago: Word of Mouth Marketing Association, 2007, pp.201-211.

- Watts, D. J. & Dodds, P. S., “Influentials, networks, and public opinion form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34, no. 4,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7, pp.441-458.
- Yu, H., Ryoo, Y., & Han, E., “Mind over matter: How biased perceptions of political knowledge influence selection and evaluation of political YouTube channels”, *Internet Research*, vol. 34, no. 2, Bingley: Emerald Publishing, 2024, pp.474-494.

■ 국문초록

본 연구는 AI 휴먼 챗봇 이용자의 유형(일반 vs. 오피니언 리더) 간 스피치 역량,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 신뢰도의 차이를 탐구하고, 이용자의 유형과 스피치 역량,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 신뢰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적의 20대 이상 성인 240명을 대상으로 AI 휴먼 챗봇을 경험하게 하고, 일반 이용자 집단과 오피니언 리더 이용자 집단을 비교하는 단일요인 실험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실험참자가를 일반 이용자와 오피니언 리더 이용자 집단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스피치 역량과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 AI 휴먼 챗봇에 대한 신뢰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이용자의 유형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스피치 역량, 인지된 상호작용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AI 휴먼 챗봇에 대한 신뢰도에 미치는 구조적인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오피니언 리더 이용자 집단이 일반 이용자 집단에 비해 스피치 역량,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이용자의 유형이 AI 휴먼 챗봇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은 이용자의 스피치 역량과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에 의해 완전매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AI 휴먼 챗봇 이용자의 유형이 이용자의 스피치 역량과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을 거쳐 AI 휴먼 챗봇에 대한 신뢰도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교육 전략과 AI 휴먼 챗봇 개발 및 도입의 방향성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오피니언 리더, 의견 지도자, 스피치 역량, 인지된 상호작용
품질

■ Abstract

The Process of Trust Formation in AI Human Chatbots : The Serial Multiple Mediation Effect of Opinion Leaders' and General Users' Speech Competence and Perceived Interaction Quality

Yu, Hee Seung /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differences in speech competence, perceived interaction quality, and trust in AI human chatbots between general users and opinion leaders. Furthermore, it investigates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user type, speech competence, perceived interaction quality, and trust in AI human chatbots. To this end, an experiment with a single-factor design was conducted, involving 240 South Korean adults aged 20 and older who had experience with AI human chatbots. Participants were classified into general users and opinion leader groups, and their speech competence, perceived interaction quality, and trust in AI human chatbots were compared. Additionally, user type was set as an independent variable, while speech competence and perceived interaction quality were treated as mediating variables, to analyze their structural effects on trust in AI human chatbo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pinion leader users exhibited higher levels of speech competence, perceived interaction quality, and trust in AI human chatbots compared to general users. Second, the effect of user type on trust in AI human chatbots was fully mediated by speech competence and perceived interaction quality. This study elucidates the mechanism through which user type influences trust in AI human chatbots via speech competence and perceived interaction quality.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work provide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speech communication education strategies and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I human chatbots.

Keyword • Opinion leader, Speech competence, Perceived interaction quality

■ 논문투고일:2025.02.16. ■ 심사완료일:2025.03.14. ■ 게재확정일:2025.03.17. ■

논문투고 규정

제정 : 2018년 3월 1일
최근 개정 : 2025년 2월 1일

제1조(학술지 명칭)

- 1) 본 학술지는 『지식과 교양』이라 칭한다.
- 2) 본 학술지는 교양교육, 지식의 대중화, 교양 관련 이론, 학문간 통섭 등에 관한 논문을 발간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의 학술지 『지식과 교양』의 투고·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발간횟수 및 시기)(2023년부터 적용)

- 1) 본 학술지는 연 3회 발행한다.
- 2) 본 학술지의 발행일은 3월 30일, 7월 30일, 11월 30일로 정하되, 편집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발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3) 학술지의 논문 접수 마감일은 매년 1호 학술지는 2월 15일, 2호 학술지는 6월 15일까지, 3호 학술지는 10월 15일까지로 한다.
- 4) 본 학술지에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투고일자(접수일자), 심사(수정)일자, 게재확정일자를 논문 마지막에 명기한다.

제4조(투고자의 자격과 연구윤리규정 준수) (2020.12.01. 개정)

- 1) 논문투고자는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https://lic.jams.or.kr>)에

회원가입을 한 후 논문투고신청서와 윤리서약을 작성해야 한다.

- 2) 논문투고자는 『지식과 교양』의 연구윤리규정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5조(게재불가 논문)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는 원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항에 속하는 논문이 투고되었을 경우 심사과정 이전에 투고를 제한할 수 있다.

- 1) 본 학술지의 논문주제 영역에 부합하지 않은 논문
 - 2) 학술지 및 간행물을 통해 이미 출판되었던 논문과 이와 유사한 논문
 - 3) 외국저서, 논문, 저널의 단순한 번역 논문
 - 4) 석·박사 학위 논문을 단순 축약한 논문
- ※ 석·박사 학위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보완, 발전시킨 논문의 경우 투고할 수 있다. 단, 각주를 통해 그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적시해야 한다. 적시하지 않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투고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5) 이전 학술지 논문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내용의 수정을 가하지 않고 투고한 논문
 - 6) 이전 호에서 ‘게재철회’를 요청한 논문은 제목이나 내용을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지식과 교양』에 재투고할 수 없다.
 - 7) 게재확정 이후라도 이상이 확인된 논문의 경우,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6조(논문투고 방법)

투고자는 원고 마감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 1) 논문투고는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홈페이지(<https://www.mokwon.ac.kr/lic>) ‘논문투고 안내’에 따라,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https://lic.jams.or.kr>)에 회원가입 후 직접 업로드한다.
- 2) 삭제
- 3) 모든 투고자는 논문투고 시 ‘연구윤리서약서’, ‘저작권이양동의서’, ‘논문윤사도검사결과서’, ‘논문원문파일(저자, 소속 삭제)’을 첨부해야 한다.
- 4) 원고마감 일자를 경과한 논문은 해당 투고자의 동의하에 다음 호의 투고 대상으로 삼는다.

제7조(투고자 논문작성 양식)

논문 투고자는 다음의 논문작성 요령에 따라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 1) 논문은 『지식과 교양』 논문작성 양식 기준 10매~ 20매(국·영문 초록, 그림·각주 포함) 내외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논문의 총 매수는 『지식과 교양』 논문작성 양식 기준 25매(참고문헌, 초록 제외)를 초과할 수 없다. 기준 매수를 초과할 경우 쪽당 1만 원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한다.
- 2) 원고 작성 시 사용할 소프트웨어는 ‘한글2007’ 이상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 3) 논문은 한국어·영어·기타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모든 논문에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제출해야 한다.
- 4) 원고는 논문 제목, 성명(소속 및 직위는 *모양 각주로 표기), 목차, 본문, 참고문헌, 국문초록 및 주제어, 영문제목, 영문성명, 영문초록, 영문 키워드의 순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5)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주저자(제1저자)와 부저자(교신저자, 공동저자 등)를 구분하여 주저자가 첫 번째로, 부저자는 두 번째 이후로 표기한다. 공동저자 모두 윤리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6) 참고문헌을 구비하되, 완벽한 서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논문의 경우는 반드시 논문 수록지의 해당 페이지를 명시해야 한다.
- 7) 투고자는 게재 확정 후에는 성명의 오른쪽 위에 별표 첨자를 붙이고
각주란에 다음의 형식으로 투고자 정보를 표시한다.

소속기관	직위	투고자 정보
대학	교수, 강사	성명 / 대학명 / 직위(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등)
	박사 후 연구원	성명 / 대학명 / 박사 후 연구원
	학생	성명 / 대학명 / 과정(학부생, 석사과정, 박사수료 등)
유초중고 학교	교사	성명 / 학교명 / 교사
	학생	성명 / 학교명 / 학년
연구기관	연구원	성명 / 기관명 / 직위(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등)
기타기관	공무원, 사원 등	성명 / 기관명 / 직위
소속 없음	성인	성명 / 대학명 / 종별 학위 성명 / 전 소속 / 직위 성명 / 연구자(또는 시인, 소설가, 비평가 등)
	미성년자	성명 / 학교명 / 졸업(또는 수료, 중퇴 등)

- 8) 논문의 세부 편집양식은 『지식과 교양』 논문작성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1) 삭제

① 삭제

② 삭제

(2) 삭제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3) 삭제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4) 삭제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5) 원고의 번호 붙임은 아래와 같이 한다.

- 1단계 : 1. 2. 3.
- 2단계 : 1) 2) 3)
- 3단계 : (1) (2) (3)
- 4단계 : ① ② ③

(6) 논문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아래와 같이 한다.

- ① 영화/영상/웹툰 작품의 경우는 <>를, 문학작품, 논문의 경우는 「」를, 단행본인 경우 『』를, 음악 관련 작품인 경우는 《》를 사용한다.
- ② 강조 및 간접인용에는 홑따옴표 ‘ ’를, 직접인용에는 겹따옴표 “ ”를 사용한다.

(7) 논문의 각주, 참고문헌, 초록은 다음의 형식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 ① 각주는 본문의 하단에 저자명, 저서명, 출판사명, 출판사 소재지(외국어일 경우), 출판연도, 인용쪽수 등의 순서로 표기한다.
- ② 각주는 각 언어권 학술문헌의 일반적인 예를 따른다.
 - 한국어 저서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저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홍길동, 『교양교육의 역사』, 한바퀴, 2005, 78쪽.
 - 한국어 논문(학술지 및 학위)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저자, 「논문명」, 『학술지』권/호,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홍길동, 「교육연구의 궤적」, 『교양연구』24집, 2009, 21쪽.

- 번역서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저자, 번역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저자, 번역자, 「논문명」, 『저서명/학술지』권/호,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잭 우드 저, 홍길동 역, 『교양교육』, 한바퀴, 2005, 81쪽.

- 영문(외국어) 저서는 이탤릭체로, 영문(외국어) 논문은 겹따옴표 “ ”로 표기한다.

예) Jack Wood, *Social effectiveness: on some Asian College's education in the 1980s*, trans. Celia Britton. Annwyl Williams, Ben Brewster, and Alfred Guzzetti, London: HumanArts, 1982, p.23.

예) Kimberly Woods, “Social effectiveness: on some Asian College's education in the 1980s”, *Education*, vol. 30, no. 3, 1989, pp.51-65.

- 신문/잡지 기사의 경우 작성자, “기사명”, <신문/잡지명>, 기사 날짜순으로 작성한다.

예) 홍길동, “2000년대 대학교육 현황”, <교양일보>, 2011. 05.21.

-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할 경우 사이트 명, 사이트 주소, 자료 확인 날짜순으로 표기한다.

예)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https://www.mokwon.ac.kr/lic>, 2022.05.21.

③ 중복된 참고문헌을 인용할 경우 다음 표기의 예를 따른다.

- 한국어인 경우 바로 위의 주(註)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는 위의 책, 위의 논문이라 표기한다.

예) 위의 책(위의 논문), 21쪽.

- 또한 바로 앞이 아닌 그 앞의 주(註)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저자명을 먼저 명기한 후 앞의 책, 앞의 논문이라 표기한다.

예) 홍길동, 앞의 책(앞의 논문), 21쪽.

- 영문(외국어)인 경우 바로 위의 주(註)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는 Ibid., 로 표기한다.

예) Ibid., pp.20-21.

- 또한 바로 앞이 아닌 그 앞의 주(註)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저자명을 먼저 명기한 후 op. cit.,로 표기한다.

예) Michael, op. cit., p.21.

④ 참고문헌 작성 요령

-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 정보를 수록한다. 논문의 경우 전체 쪽수를 명기하고, 저서의 경우는 쪽수를 생략할 수 있다.
- 참고문헌은 국내문헌을 먼저 표기하고 영어, 외국어 순으로 작성하되, 단행본, 논문, 신문기사, 인터넷 사이트로 나누어 표기한다. 국내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가나다 순서로, 영어 및 외국어 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다.
- 영문(외국어) 서적의 경우는 이탤릭체로 하고, 국문 서적은 『 』를 사용하고 학술지의 경우는 권, 쪽 수 순으로 작성한다.
- 참고문헌 작성 시 다음의 예를 참고한다.

예) 김병정, 『영화 <혼자>의 롱테이크와 촬영기술 연구』, 『지식과 교양』8호,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021, 25~47쪽.

예) 홍길동, 『교양교육의 역사』, 교양과 교육사, 2005.

예) Bergstrom, Johns. ed. “Human Arts: Culture and Society”, *Arts Histories*,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pp.50-85.

예) Donald, Stephen. *Questions of Liberal Art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9.

예) Lacan, Jacques. “The mirror stage as formative of the function of the ‘I.’” *In Ecrits: a selection*,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Norton, 1977.

⑤ 국문·영문(외국어) 초록 및 국문 요약문 작성 요령

- 국문초록은 논문의 전체요지를 500자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하고, 국문으로 된 5개 이상의 주제어를 국문 초록 다음에 반드시 첨부한다. 영문(외국어) 논문의 경우에도 국문 논문과 동일하게

국문 초록 및 국문 주제어를 명기한다.

- 영문 초록은 국문 초록 다음에 첨부하며 제목과 성명, 소속을 병기한다.

(8) 기타 편집사항은 『지식과 교양』 논문작성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제8조(투고자 논문심사)

투고된 논문은 본 연구소의 논문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과정을 거친다. 단, 편집위원회가 기획, 의뢰한 논문의 경우 게재의 우선권을 부여하되, 일반 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친다.

제9조(논문 수정)

- 1)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논문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요구일 10일이 지나도록 저자로부터 회신이 없으면 해당 호의 논문게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2) 논문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편집규정에 근거하여 그 편집형식을 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 3) 논문 제목은 1차 수정본 제출 이후로는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논문 책임)

게재 논문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있다.

제11조(심사료와 게재료)

투고자는 논문투고와 동시에 본인의 논문에 대한 심사비를 납부한다.

- 1)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비는 60,000원으로 한다. 논문 심사료는 일반논문과 연구지원논문 모두 동일하게 부과된다.
- 2) 심사 후 원고 게재가 확정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해당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 일반 논문: 200,000원
- 연구비 수혜논문: 400,000원

3)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영문초록 감수비 2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 논문작성 양식 기준보다 분량이 초과될 경우 소정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제7조 1항 참조).

※ 투고자가 해당 논문에 대해 '게재철회'를 요청한 경우라도 심사 후 논문 게재가 '확정'된 경우, 투고자는 '게재철회'와 관계없이 해당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2조(저작권) (2021.11.01. 개정)

- 1) 게재된 모든 논문에 대한 '저작물의 이용' 권한은 목원대학교(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에 위임한다.
- 2) 투고자는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다른 공동연구자와 함께 『지식과 교양』에 위임할 것을 '논문투고신청서'를 통해 사전에 서약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본 세부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사안별로 본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14조(개정)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논문심사 규정

2018년 3월 1일 제정
2020년 12월 1일 개정
2022년 3월 1일 개정
2023년 3월 1일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에 투고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연구윤리규정 심사)

- 1) 본 『지식과 교양』의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 10인 내외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구성하기 전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투고 논문의 영역과 게재의 적합성, 연구윤리규정의 준수 여부, 논문투고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검토, 해당 투고 논문의 심사여부를 결정한다.
- 4)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심사 및 판정)

- 1) 편집위원회를 통해 심사대상으로 확정된 투고 논문은 편집위원회와 편집위원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는다.
- 2) 심사위원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s://lic.jams.or.kr/co/main/jmMain.kci>) 내에서 심사할 논문을 확인하고 ‘연구윤리규정준수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 3)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인 경우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4)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0일 이내, 재심인 경우 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입력 또는 첨부해야 한다.
- 5)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을 심사서에 제시된 논문 평가항목을 참조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전면수정 후 재투고’,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심사자 1	심사자 2	심사자 3	판정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가능	게재가능	전면수정 후 재투고	수정 후 게재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전면수정 후 재투고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전면수정 후 재투고	
게재가능	전면수정 후 재투고	전면수정 후 재투고	전면수정 후 재투고
수정 후 게재	전면수정 후 재투고	전면수정 후 재투고	
전면수정 후 재투고	전면수정 후 재투고	전면수정 후 재투고	
게재가능	전면수정 후 재투고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전면수정 후 재투고	게재불가	
전면수정 후 재투고	전면수정 후재투고	게재불가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불가	편집위원회 재심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게재	게재불가	
게재가능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전면수정 후 재투고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6) 심사위원의 판정은 80점 이상 ‘게재’, 70점 이상 ‘수정 후 게재’, 60점 이상 ‘전면수정 후 재투고’, 59점 이하 ‘게재 불가’로 한다.
- 7) ‘전면수정 후 재투고’, ‘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서에 평가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판정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 8) 심사위원 3인의 판정을 종합한 결과 ‘게재가’,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 호의 『지식과 교양』에 게재한다.
- 9) 기타 판정에 관한 결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에 따른다.

제4조(이의 심사)

- 1) 논문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게재불가’로 판정이 난 논문 투고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 3) 이의 제기는 결과 통지 후 1달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
- 4) 접수된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편집위원회에서 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통지한다.
- 5) 편집위원회가 이의를 인정하게 되었을 경우 변경된 평가 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1주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제반 절차를 바로 진행하도록 한다.

제5조(기타)

- 1)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지식과 교양』이 소유한다.
- 2) 논문의 심사 및 편집·출판, 온라인 제공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논의를 거친 후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한다.

3)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6조(개정)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18. 3. 1.
개정 2021. 3. 1.
개정 2022. 3.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지식과 교양』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 263호)을 준수한다. 본 규정은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에서 발행하는 『지식과 교양』에 수록되는 학술발표와 논문 등 저작물의 투고, 심사윤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우선해 따른다.

제2조(적용대상 및 서약)

- 1) 『지식과 교양』의 편집위원 및 학술운영위원, 논문 심사위원, 투고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서약서. 별첨 1, 2).
- 2) 『지식과 교양』의 편집위원회는 원고모집을 공고할 때 본 규정을 함께 공고하여야 하고, 심사자는 심사를 승낙할 때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
- 3) 투고자는 논문 투고시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연구윤리규정준수서약서’와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 (<http://www.kci.go.kr>)에서 제공하는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의 검증결과(KCI 문헌유사도 검사 종합결과 확인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3조(저자의 투고윤리기준 및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원고는 독창성을 갖는 저작물이어야 하며, 다른 정기학술지나 단행본에 이미 발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한 내용이 담겨서는 아니 된다. 타인의 저작물은 문서를 포함한 이미지 자료도 포함된다. 표절의 기준은 국가기관 혹은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1) 표절 :

- (1)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 체계 등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의도적으로 자기 것인 것처럼 활용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한다.
- (2)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부호 없이 원문 그대로 옮기거나 광범위하게 인용하는 경우
- (3) 가져온 원 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된 저작물이 내용 또는 분량에서 새로운 저작물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게 되는 경우
- (4) 타인의 연구계획서 및 기고된 논문에 대한 동료심사를 통해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아이디어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여 타인의 연구를 도용하는 경우

2) 위조 : 실험, 관찰 등의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3) 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마음대로 변형·삭제하는 행위

- (1) 수집한 원 자료의 내용을 결과를 왜곡할 의도로 변경, 누락, 추가하는 것
- (2) 연구기록에서 날짜나 실험과정을 사후에 바꾸는 것
- (3) 연구대상이나 연구방법 등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것
- (4) 임의로 표본을 자르거나 통계 분석 결과를 그릇되게 설명하는

4) 중복 게재 :

- (1)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포함해 자신이 기존에 발표

한 논문, 자료, 연구결과를 인용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학회지에 재수록하는 경우로, 사전에 해당 학술지의 허락을 받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 (2) 대부분의 연구 결과가 같고 대부분 문장이 같은 경우도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 (3) 단행본이나 정기학술지에 출간되지 않은 자신의 석, 박사 학위논문의 일부를 활용하여 작성된 원고는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단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며 새로운 학술적 논점을 추가시켜 분석하고 있는 저작물은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작성 경과를 반드시 저작물에 적시하여야 한다.

5) 부당한 저자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연구에 실질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제1저자, 공동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올리는 경우
-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3) 논문의 저자 중 특수관계인(미성년 연구자, 논문 투고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으로서, 논문투고의 공동저자일 경우 논문의 투고, 심사, 출간 과정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6) 논문에서 저자는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로 나눈다.

- (1)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저자의 역할을 표시하여야 한다. 연구와 논문작성에 있어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저자를 “주저자”로, 논문의 투고, 심사, 출간 과정에서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 혹은 운영위원회 등과 연락을 담당한 저자를 “교신저자”로 표시한다.

(2) 교신저자

- ① 교신저자는 논문투고 및 심사자와 교신하는 투고의 전 과정을 책임

지는 연구책임자이다.

- ② 교신저자는 공동저자의 표시와 그 순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지고, 저자 표시 순서에서 맨 뒤에 배치한다.
- ③ 교신저자는 공동저자들에게 최종 논문을 회람하여야 하고 투고 사실을 알려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논문 심사 후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교신저자는 이를 공동 저자에게 알려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주저자(제1저자)

저자의 표시 순서에서 제일 앞에 두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험한 자, 그 결과를 해석하고 원고 초안을 작성한 연구의 주요 기여자이다.

(4) 공동저자

- ① 연구에 참여한 공동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연구 수행 중 중요한 연구 정보를 상의하고 결론에 도달하는데 기여한 자이다.
- ② 공동저자의 포함 범위는 연구의 계획, 개념 확립, 수행, 결과분석 및 연구 결과의 작성에 현격히 기여한 자이다.
- ③ 공동저자의 표시순서는 연구에 참여한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배치한다. 저자 표시순서는 교신저자 주도하에 참여한 저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제4조(젠더혁신정책)

투고자의 논문은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1) 논문은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sex)과 정체성에 관한 것이거나 정신적 혹은 문화적 구분을 나타내는 젠더(gender)를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2) 논문은 연구 참가자의 성, 젠더, 또는 둘 모두를 보고해야 하며, 동물이나 세포의 성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성과 젠더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도 기술해야 한다.

- 3) 연구내용이 한쪽 성 또는 젠더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저자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예를 들면 전립선암) 그 이유를 논문 내에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 4) 저자는 인종(race) 또는 민족집단(ethnicity)을 결정한 방법과 그 구분의 연구상 필요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5조(편집위원의 편집윤리기준)

- 1)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심사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 2)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저작물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 및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3)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4)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저작물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자의 심사윤리기준)

- 1) 심사자는 편집위원회가 심사 의뢰하는 저작물을 심사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평가하는 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2) 심사자는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이어서는 아니 되며,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저작물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자는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또는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게재불가 또는 전면수정 후 재투고로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 3) 심사자가 투고된 저작물이 제3조의 각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 및 제7조에 의한 윤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4) 심사자는 심사를 의뢰받은 사실, 심사대상 저작물의 모든 사항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작물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1) 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과 교양』의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2) 윤리위원회는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장 및 편집위원장,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장이 위촉하는 인사 5인 내외로 구성되며,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장이 그 위원장을 맡는다.
- 3)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5)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6)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윤리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연구 부정행위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 (3) 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 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 (4)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 (5) 기타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위반행위의 조사

제9조(위반행위의 조사 개시)

-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본 규정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고 한다)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2) 위원장은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1)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 2)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3) 위반행위의 입증은 윤리위원회에 있다. 다만, 피조사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파기한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제11조(위반행위 조사의 기간)

- 1) 위반행위의 조사 기간은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예비조사는 제보 또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본 조사는 예비조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 2)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효는 만 5년으로 한다. 그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3)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5년 이전의 위반행위라도 후속 연구의 기획, 연구비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와 보고 및 발표가 5년 이내일 경우.
 -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2)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고,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인정되기 이전까지 피조사자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3)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제척, 기피, 회피)

- 1)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사 및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조사 및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3)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나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판정)

- 1)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 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위반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제4장 조사 이후의 조치

제16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1) 윤리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
 - (1) 본 규정에 위반된 저작물이 『지식과 교양』에 게재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 및 논문목록에서 삭제
 - (2) 향후 10년 이상 『지식과 교양』 투고 금지
 - (3)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지식과 교양』 및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홈페이지에 공지

- (4)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
 - (5) 기타 윤리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안으로서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
- 2) 전항 제3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18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7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재심의 결과 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2) 판정이 끝난 이후 결과는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지식과 교양』 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다만, 제보자, 조사위원,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1조(개정)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2018년 3월 1일 제정
2022년 3월 1일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학술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 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업무)

편집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학술지 『지식과 교양』 투고 논문 심사와 편집
- (2) 학술도서 기획과 편집
- (3) 기타 학술지 관련 업무
- (4) 본 연구소의 편집 관련 업무

제3조(구성 및 임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한다.
- (2) 편집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 (3) 편집위원은 각 분야에서 대내외적 지명도가 높고 학술적 성과가 우수한 이로 하며,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이 고루 선임될 수 있도록 한다.
- (4) 심사 및 편집 실무를 위해 약간 명의 조교, 연구원을 둘 수 있다.
- (5)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회의 개최)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투고 마감 이후 심사위원 선정과 위촉을 위한 편집 회의를 개최하며, 심사가 일단락된 후 심사결과 판정과 학회지 편집을 위한 편집회의를 개최한다. 편집회의는 필요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5조(결정 사안)

편집위원회의 주요 결정 사안은 다음과 같다.

- (1) 학술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위촉
- (2) 투고 논문 심사결과와 검토와 판정
- (3) 논문 수정사항 확인을 통한 게재 여부 확정
- (4) 기타 학술도서 기획 및 심사 편집에 관한 건

제6조(규정준수 의무)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심사 및 편집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학술지 발간 및 논문 투고 규정과 논문 심사 규정,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연구센터장 : 민경식

◇ 편집위원장 : 구진희

◇ 편 집 위 원 :

고혜영(서울여대), 박내정(배재대), 권용진(경성대), 김경래(한국교원대),
김광환(건양대), 김순정(성신여대), 김혜정(경인교대), 노은희(가천대),
배병윤(한라대), 변진이(경일대), 서유석(경상국립대), 원은석(목원대),
정옥희(전주교대), 조기웅(전북대), 조용림(목원대), 조준희(동국대),
최병진(제주대), 홍태한(전북대)

◇ 윤리위원장 : 민경식

◇ 윤 리 위 원 :

서정일(목원대), 유경아(목원대), 이아람찬(목원대), 이철우(공주대),
이태화(고려대), 장영란(한국외대), 최혜진(목원대)

◇ 표지디자인 : 현승훈

본 학술지는 목원대학교 학술연구지원에 의하여 발행되었음

지식과 교양 *Knowledge & Liberal Arts*

2025년 03월 31일 / 31 March 2025

통권 제17호 / No. 17

발행인 민경식

발행처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담당 조교 이규원

발행일 2025년 03월 31일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 88 목원대학교 캠퍼스타운(1관)

103호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우편번호 35349)

Tel 042-829-8198

E-mail kl@mokwon.ac.kr

Homepage <https://lic.jams.or.kr>

편집·인쇄처 으뜸디자인기획

전화 : 042-825-6157~8